

韓國戰爭史

第 8 卷

對陣中期

(1952. 4. 1 ~ 195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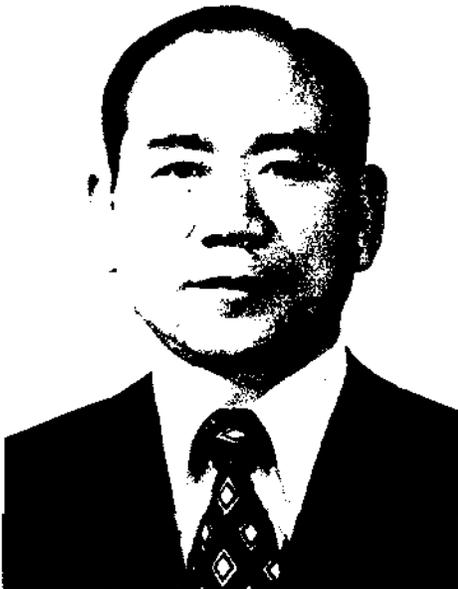
國 防 部



大統領 朴 正 熙



國防部長官 徐 鐘 喆



國防部 次官 李 敏 雨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盧 載 鉉

各軍 參謀總長



陸軍大將 李世鎬



海軍大將 黃江淵



空軍大將 周永福

當時의 各軍總參謀長 및
海兵隊 司令官



陸軍中將 白善燁



海軍中將 孫元一



空軍少將 金貞烈



海兵少將 申鉉俊

當時의 美第8軍, 第7艦隊 및
第5空軍司令官



美 陸軍大將 James A. Van Fleet



美 海軍中將 Joseph J. Clark



美 空軍中將 Glenn O. Barcus

序 文

韓國戰爭이 勃發한지도 於焉 四半世紀가 지났습니다.

1953年 7月에 「休戰아닌 休戰」으로 戰火가 멎은 뒤로 再燃의 不斷한 威脅 속에서도 中興의 大道를 줄기차게 달려 온 우리 民族의 장한 모습이야 말로 모든 自由民이 瞠目하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 보건대 3年 동안에 걸쳤던 戰爭 그 自體가 一大受難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休戰 동안의 辛酸 역시 우리에게 是 커다란 試鍊의 連續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情勢가 나날이 變化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東西의 「데탕트」 추세에도 불구하고 北傀集團의 地下坑道 굴착과 軍備強化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南北의 緊張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高潮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緊張의 根本的인 動因을 낱게 한 이 전쟁의 始末을 糾明한다는 點에서 本戰史가 지닌 意義가 자못 크다고 보는 바입니다.

今年에 上梓하는 제8권에는, 我軍이 1951年 가을에 오늘날의 휴전선 부근으로 前進하게 되면서 進展 없는 休戰會談에 얽매어, 전선이 對陣의 性格으로 固着됨으로써 流血로 點綴된 血戰記錄을 남기게 되는 開戰 三年次인 1952年末까지의 戰況이 收錄되어 있습니다.

이 期間은 敵側이 休戰會談에는 誠意를 보이지 않아 空轉만 반복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戰況에는 敵의 발악적인 攻勢로 한층 苛烈性을 띠게 되는 바, 中部戰線의 우리 國軍은 「白馬高地」 「狙擊稜線」 「首都高地」 등에서 尺寸의 땅을 다투는, 그야말로 熾烈無比의 爭奪戰을 벌이게 되고 不退轉의 鬪魂을 發揮하였던 것입니다.

한치의 땅이라도 지켜 내겠다는 鬪志로 싸운 우리 國軍의 勇戰相이 당시 内外로 높이 評

價된 바 있으며 여기서 國力の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國軍의 無限한 發展 가능성이 確認 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山河에 부렸던 無名勇士의 그 뜨거운 한방울의 피가 아니었던들 果然 오늘의 번영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眞頻코자 하는 國防의 참 뜻을 또한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韓國戰은 우리 民族 뿐만 아니라 自由世界가 共產主義에 어떻게 對應하여야 할 것인가 — 이 戰爭이 民主와 共產 兩陣營間의 最初의 武力 對決이었다는 觀點에서 — 그 方策을 提示하여 주었다고 再評價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크게는 對共戰略에 있어서 協商보다 힘에 의한 壓力手段이 効果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작게는 協商은 오직 힘의 바탕 위에서만이 可能하다는 것을 休戰會談의 過程이 實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戰爭史는 다만 溫故知新的 懲愆的인 價値保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受難을 克服한 우리 民族의 슬퍼 슬기로운 子孫들에게 精神的 遺産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所重히 다듬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共產主義와 對決하는 指針蠟로서 活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75년 12월 15일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 刊 辭

光復을 찾은지도 이미 30歲, 韓國戰爭이 벌어진지도 이미 四半世紀, 그 뜻 깊은 해의 달력을 넘기기에 앞서 이 韓國戰爭史 제8권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昨今 強大國사이에 韓半島의 安保와 平和를 求心點으로 한 論議가 줄기차게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從來 亞細亞의 非美國化를 指向하면서 宥和만을 거듭하던 美國이 이론 바 새로운 太平洋 Doctrine을 闡明하고 一切의 公約에 대한 再確認과 能動的인 介入을 宣言했을 뿐 아니라 김일성 一味徒黨의 幻想的인 策動을 분쇄하고 韓國의 安保와 平和에 이바지하려는 斷乎한 決意를 표명했으니 이야말로 鼓舞的인 快事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周邊의 趨勢가 좌잡하고 거칠게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韓半島를 中核으로 한 바람직스러운 機運이 물결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힘과 이 겨레의 脈動이 堂堂하고 連綿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險難과 逆境에 부닥치더라도 能히 打開하고 克服할 수 있는 能動的인 實力을 誇示할 것으로 確信합니다.

그러나 好戰狂인 殺人集團이 北嶽 땅에 도사린채로 赤化統一을 劃策하면서 끈질기게 南侵挑發을 꾀하고 있는 限 우리는 보다 더 結束된 維新總和체제와 金城鐵壁의 臨戰태세를 갖추고 對應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흘러간 過去와 어제의 體驗을 냉철하게 自我批判하고 分析評價하여 새로운 哲理를 發掘하는 眞摯한 作業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辨識은 바로 成功에 이르는 첫 길목이며 또한 玉石의 分別은 合理主義의 具現에 到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더 그러한 作業의 必要性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歷史를 다루고 戰史를 엮는 作業은 바로 그러한 哲學的 所以에서 始發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나 흘러간 過去의 事實을 正確하게 究明하여 勝敗의 要因을 分析하고 그럼으로써 眞理와 敎訓을 抽出한다는 것은 實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近者에 本戰史 第2卷의 記錄 가운데 誤謬가 있어서 크게 物議를 일으킨 것은 그 좋은 例가 될 것입니다.

즉 鎭川地區戰鬪에 있어서 당시 鎭川中學生을 主軸으로 한 學徒義勇軍이 勇戰한 바 있다 하여 鎭川에 慰靈碑까지 세워졌다고 記錄되고 있으나 당시의 學校 校長과 現地 住民 그리고 軍指揮官의 證言을 土台로 한 現地調查에서 尙혀 事實無根인 것이 밝혀져 問題化되었습니다.

또한 洪川地區의 말고개 戰鬪에 있어서 南下中이던 北僞의 戰車 數를 제6사단 이하 제 19연대 特攻隊가 肉彈공격으로 潰滅시킨 것으로 記錄되고 있으나 당시 제2연대 對戰車砲에 依하여 擊碎되었다는 參戰者의 새로운 證言으로 事實의 眞否가 論難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戰史記錄의 正確與否가 크게 物議를 일으킨 事例에 비추어 보더라도 明確한 戰史의 編纂이 그 얼마나 어렵고 重要한 課業인가를 眞感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든 위의 두가지 事例는 이미 上司의 裁可를 얻은 바 있으므로 머지 않아 明確한 事實을 밝힐 改訂版을 내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를 契機로 當委員會 職員들은 더욱 眞摯한 使命感을 가지고 一字一句에도 慎重과 正確을 期해야 한다는 肅然한 姿勢를 다시 한번 가늠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本卷에서는 1952년 4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對陣中期를 다룬 것으로서 金城부근과 臨津江 北쪽에서의 制限공격을 마지막으로 戰線을 整齊하고 休戰時까지 戰線을 攻守하려는 彼我的 戰鬪狀況을 取扱하였습니다.

특히 對陣期의 區分을 明白하게 가릴 수는 없으나 休戰時까지의 戰鬪記錄이 分量面에서 많은 點을 勘索하여 初期 中期 末期로 나누어 1953年初부터 休戰時까지의 戰史는 제9권에 對陣末期라는 副題로 編纂할 예정임을 附言합니다.

또한 UN參戰軍의 戰史는 本卷에 簡略하게 취급하였으나 이는 別途로 刊行되는 英文版에 보다 詳細하게 다루고 있으니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國軍의 흠이 될 事項은 本文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므로 本卷에서도 除外되었읍니다마는 이는 뒷날 秘錄戰史로써 別途로 編纂할 생각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제 本編纂사업은 어느덧 10年の 年輪을 쌓아 對陣末期의 戰史를 엮을 날도 머지 않습니다. 史筆을 잡을 때마다 至公無私를 信條로 삼고 彫心鑿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後世에 길이 參考가 될 文獻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江湖諸位의 自進證言과 倍前의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75년 12월 15일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燦 錫

凡 例

1. 本卷의 編纂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 나. 章은 作戰地域으로 구분하되, 既刊된 제7권에 이어 銜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 다. 節 以下는 戰跡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 節—1. 2. 3. 4. 5.
 - 項—가. 나. 다. 라. 마.
 - 目—(1) (2) (3) (4) (5)
 -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次 章 사이에는 「概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을 넣는다.
3. 概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 사. 彼我政府 및 軍部の 主要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등의 變遷에 관한 事項.
 -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나. UN軍側 軍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主要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 라.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必要한 內容은 이를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各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基準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韓國戰爭史 第8卷 目次

序文 國防部長官 徐鐘喆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焞錫
 凡例

對 陣 中 期

概 說(9)

第52章 東部戰線의 戰況

- 要 旨(35)
1. 351高地 戰鬪(36)
 2. 154高地附近 戰鬪(69)
 3. 854高地 및 812高地 戰鬪.....(84)
 4. 1090高地附近 戰鬪.....(95)

第53章 中部戰線의 戰況

- 要 旨(109)
1. 피의高地 및 득수리高地 戰鬪.....(110)
 (一名, 748高地 및 572高地 戰鬪)
 2.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 戰鬪.....(132)
 3. 575高地附近 戰鬪(251)
 4. 金城附近 戰鬪.....(248)
 (一名, A高地 및 B高地 戰鬪)
 5. 白馬高地(△395) 戰鬪(308)

6. 狙擊稜線 戰鬥.....(375)

第54章 西部戰線의 戰況

- 要 旨(447)
1. 高陽堡附近 戰鬥.....(448)
 (一名, Tessie 및 Nickie高地 戰鬥)
2. 臨津江附近 戰鬥.....(468)
 (一名, Nori 및 Betty高地 戰鬥)
3. 泗川江附近 前進陣地 第一次戰(493)
4. 泗川江附近 前進陣地 第二次戰(501)
5. 泗川江附近 前進陣地 第三次戰(518)
6. 泗川江附近 前進陣地 第四次戰(559)
7. 不毛高地附近 戰鬥.....(575)
8. 美海兵隊의 Bunker高地附近 戰鬥.....(596)

第55章 海軍의 活動

- 要 旨(613)
1. 韓國海軍의 活動.....(614)
2. UN海軍의 活動(662)

第56章 空軍의 活動

- 要 旨(681)
1. 北韓의 都邑에 대한 爆擊.....(683)
2. 敵의 補給品 集積所에 대한 爆擊(704)
3. 第一次 近接 航空支援作戰과 後方 遮斷作戰(725)
4. 二·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743)
5. 三·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761)
6. 四·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778)

第57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795)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 狀況(798)

附 錄

1. 作命・作指・訓令(813)
2. 年 表(866)
3. 戰歿者 名單.....(871)
4. 索 引(988)

狀況圖 目次

제 1 호	彼我的 戰線.....	(13)
제 2 호	敵의 侵攻 및 제35연대의 反擊	(42)
제 3 호	제27연대의 攻擊.....	(46)
제 4 호	제35연대의 攻擊(13일).....	(51)
제 5 호	第2次 攻防戰	(59)
제 6 호	154高地 奇襲戰	(73)
제 7 호	外沔里 北쪽 獨立高地 奇襲戰.....	(81)
제 8 호	854高地의 逆襲(9.22)	(91)
제 9 호	Christmas高地 戰鬪.....	(98)
제 10 호	1090高地附近 攻防戰.....	(104)
제 11 호	572高地 戰鬪	(121)
제 12 호	748高地 戰鬪	(127)
제 13 호	6月末現在 部隊配置現況	(138)
제 14 호	제26연대의 621高地 攻擊.....	(145)
제 15 호	제9중대의 ㉠—㉡—㉢高地 攻擊.....	(147)
제 16 호	首都高地 接近路.....	(153)
제 17 호	8月 5日~6日 狀況.....	(155)
제 18 호	8月 7日 狀況	(160)
제 19 호	제26연대의 部隊配置(8月末 現在).....	(163)
제 20 호	9月 6日 首都高地狀況	(167)
제 21 호	9月 6日 ㉠高地狀況	(170)
제 22 호	9月 7日 首都高地狀況	(173)
제 23 호	9月 7日 ㉡高地狀況	(177)
제 24 호	9月 8日~9日 首都高地狀況.....	(184)
제 25 호	9月 10日 ㉢高地狀況.....	(189)
제 26 호	9月 14日 ㉠高地狀況.....	(198)
제 27 호	9月 18日 ㉡高地狀況.....	(204)
제 28 호	제26연대 部隊配置現況(9月 28日現在).....	(209)
제 29 호	제1機甲연대 部隊配置現況(9月 28日現在)	(212)

제30호	10月 6日 首都高地狀況	(220)
제31호	10月 6日~7日 575高地 및 ㉔高地狀況	(224)
제32호	10月 7日 ㉔高地狀況	(228)
제33호	10月 13日 ㉔高地狀況	(238)
제34호	575高地 防禦戰(4月 16日~17日)	(260)
제35호	575高地 防禦戰(4月 18日)	(267)
제36호	第1次 攻擊戰(5月 31日)	(271)
제37호	第2次 攻擊戰	(274)
제38호	A高地-B高地 攻擊戰	(288)
제39호	A高地-B高地 防禦戰	(299)
제40호	第1次 攻防戰(10月 6日)	(317)
제41호	第2次 攻防戰(10月 6日)	(319)
제42호	第3次 攻防戰(10月 7日)	(322)
제43호	第4次 攻防戰(10月 7日)	(326)
제44호	第5次 攻防戰(10月 8日)	(331)
제45호	第6次 攻防戰(10月 9日)	(337)
제46호	第7次 攻防戰(10月 10日)	(342)
제47호	第8次 攻防戰(10月 10日)	(343)
제48호	第9次 攻防戰(10月 10日)	(347)
제49호	第10次 攻防戰(10月 11日)	(354)
제50호	第11次 攻防戰(10月 12日)	(359)
제51호	第12次 攻防戰(10月 12日)	(361)
제52호	戰鬪前 彼我的 配置狀況	(379)
제53호	제32연대 제3대대의 攻擊	(384)
제54호	제17연대 제2대대의 攻擊	(389)
제55호	中共 제133연대의 反擊	(392)
제56호	제3중대의 逆襲	(398)
제57호	30日의 攻防狀況	(412)
제58호	高陽堡附近 戰鬪(10月 6日~7日)	(456)
제59호	高陽堡附近 戰鬪(10月 8日~9日)	(462)
제60호	Little Nori 및 Betty高地 戰鬪	(472)

제61호	Little Nori 및 Betty高地 第1次 攻撃	(477)
제62호	Little Nori高地 第2次 攻撃	(481)
제63호	Little Nori高地 第3, 4次 攻撃	(482)
제64호	Little Nori高地 第5次 攻撃	(484)
제65호	Big Nori 및 Little Nori高地 第6次 攻撃	(485)
제66호	Big Nori 및 Little Nori高地 第7次 攻撃	(488)
제67호	泗川江附近 前進陣地 第1次戰	(496)
제68호	魂飛高地 第1次戰	(504)
제69호	魂飛高地 第2次戰	(508)
제70호	魂飛高地 奪還戰	(512)
제71호	제1대대의 前進陣地와 敵의 侵攻	(524)
제72호	제2대대의 前進陣地와 敵의 侵攻	(528)
제73호	37陣地 第1次 逆襲	(532)
제74호	37陣地 第2次 逆襲	(533)
제75호	제1대대 37陣地 第3次 逆襲	(535)
제76호	제2대대 43陣地 第1次 逆襲	(538)
제77호	제1대대 37陣地 第4次 逆襲	(542)
제78호	제9중대 37陣地 第5次 逆襲	(544)
제79호	50陣地 敵의 侵攻	(568)
제80호	50陣地 敵 擊退	(569)
제81호	不毛高地 附近狀況(1)	(578)
제82호	不毛高地 附近狀況(2)	(590)
제83호	8월 9일~11일 제2대대의 Bunker高地 부근 戰線	(601)
제84호	德洞 戰鬪狀況	(615)
제85호	昌麟島 奪還作戰	(616)
제86호	艦艇 配置狀況	(622)
제87호	元山灣 掃海區域	(639)
제88호	椒島, 席島附近 掃海作戰	(658)
제89호	第1次 近接航空支援作戰과 補給路 遮斷作戰	(736)
제90호	北傀의 水力發電所와 그 送電網	(759)

對 陣 中 期
概 說

對 陣 中 期

概 說

참조 : 별책부도 제 1, 2, 3, 호
상 황 도 제 1 호

1952년, 이 해는 한층 더 深化된 東西의 冷戰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宥和와 自存의 對立的인 矛盾이 韓國戰爭을 對陣의 성격으로 特徵지어 놓은 한 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本卷에서는 對陣의 樣相이 더욱 固定化되는—中期에 該當하는—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緣起와 經過를 概括키로 하되, 戰況이 前年과 大差 없는 戰線에서 몇개의 限定된 要衝에 대한 爭奪만을 反復하는 것으로 一貫됨에 비추어, 目標의 선택과 手段의 제한이라는 兩者의 函數關係를 살피 밝힌다는 意圖下에, 종래와는 編次의 角度를 달리 하여 章의 分類를 地域別로 묶어 戰線의 東部, 中部, 西部의 順으로 大別하였으니, 이는 戰況의 推移를 透視하는데 있어서 縱的인 시간의 흐름보다 橫的인 空間의 관련성을 重視하기로 한 까닭에서이다.

1. 戰況의 概要 :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 가,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이 「Big Stick」과 「Home Coming」계획등 一連의 제한진격계획을 試圖함으로써 4월에 我軍의 春季攻勢를 期約한 바 있으나 이것이 3월 初에 UN군사령관 Ridgway 대장의 반대로 挫折된 바 있음은 이미 前卷에서 들及한 바 있거니와 4월 1일에 Van Fleet 대장은 이 初志를 貫徹코자 「Chop Stick 6」과 「Chop Stick 16」이라는 2개의 案을 수립, 다시 實踐키로 하였는데 이 兩계획의 大要는 대개 이러한 것이었다.

먼저 「Chop Stick 6」은 증강된 韓國軍의 1개사단으로 美 제9군단 正面에서 平康까지 進격함으로써 現 제9군단 戰線을 金城—平康線에서 整齊한다는 것이고, 「Chop Stick 16」은 韓國軍 제1군단으로 하여금 南江河口(高城)까지 進격케 함으로써 그 當面の 戰線을 南江線으로 劃定짓게 한다는 것인데, 이 兩案에는 다 같이 강력한 航空 및 砲兵지원의 隨伴이 前提되었으며 作戰成果에는 附隨的으로 輕便한 韓國軍의 山岳機動力을 최대한 活用할 수 있는 訓練的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이 強調되었다.

이에 대하여, Ridgway 대장은 「Chop Stick 6」에 있어서는 제8군이 所期한 目標線이 防禦線으로서의 地形이 不利하다는 점을 들어 棄却의 뜻을 분명히 한 반면, 「Chop Stick 16」의 概念만을 承認하고 同作戰에 美軍을 使用하지 않는다는 條件附로 그 遂行與否를 제8군

사령관의 裁量에 一任하였다.

이리하여 제8군의 戰線에서는 일시 活氣를 되찾게 되는 듯 하였으나, 이도 4월 28일에 그간 休戰협상이 空轉의 難況을 거듭하던 板門店에서 UN군側으로부터 이른바 「一括妥結案」이 提示됨으로써 이 새로운 協商의 분위기에 刺戟을 피하기로 한 Van Fleet 대장의 決定에 따라 그 이튿날인 29일에 이의 實行이 無期限으로 延期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4월의 마지막 試圖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協商卓上の 論爭이 戰線의 爭奪에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부터 UN군이, 巨濟島포로수용소 事件등을 들어 貶毀하고 나선 敵側의 宣傳攻勢에 말려들게 되어, 協商마당에서도 守勢로 물리게 되는데 이때 UN군사령관이 交替됨으로써 이를 契機로 政戰 兩略에서 이의 打開策을 摸索케 되었다.

즉, NATO군사령관 Dwight D. Eisenhower 원수가 11월로 예정된 次期美國大統領선거에 共和黨候補로 內定되어 現職의 辭意를 表明함에 따라, Truman 대통령이 4월 28일에 그 後任으로 UN군사령관 Ridgway 대장을 指名하고 UN군사령관에는 美 本土地上軍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을 임명한 바 있는데, 5월 12일에 東京에서 新任 Clark 사령관이 UN군지휘권을 인수한 것이다.

Clark 대장은 제2차大戰 당시 제5, 제15군사령관을 歷任하여 野戰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戰後에는 1945년부터 1947년까지 駐 Austria 高等辦務官으로서, 또는 Austria 講和條約에 美國務長官 George C. Marshall 원수의 代理로 參席하는 동안 U. S. S. R 側과 직접 協商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勘案한다면, 그의 UN군사령관 轉任은 野戰軍 지휘 경험보다는 협상手腕을 높이 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地上戰의 作戰指導에 있어서 前任 Ridgway 대장의 路線을 踏襲하여 慎重을 期하면서, 그가 體驗한 바에 따라 共產主義와의 협상이란 早期妥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展望 아래 無益한 병력損失을 줄인다는 종래의 方針을 再確認하고, 韓國軍의 증강을 圖謀하여 長期戰에 대비키로 視野를 넓혀 나갔던 것이다.

한편, Van Fleet 대장은 4월下旬에 「一括妥結案」이 提示된 뒤로도 敵側이 이를 受諾치 않음으로써 會談이 空轉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前線 역시 彼我 가벼운 探索戰으로 一貫되자, 5월 中旬부터 이 기간을 利用하여 戰線의 防禦진지 改善에 注力하여 現陣地의 缺陷을 多角度로 補完케 한 다음, 新任 Clark 대장의 決斷에 한가닥 期待를 걸고 6월 10일에 다음과 같이 建議하였다.

『美 제9군단 正面에서 韓國軍으로 하여금 平康 北쪽의 새로운 陣地線으로 진격케 함으로써, 「鐵의 三角地帶」를 완전히 掌握하려 한다.』

그리고, 『이에는 敵의 陣地編成에 관한 새로운 情報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敵의 보급품과 備蓄物資를 破壞할 수 있는 利點이 別個로 따르는데, 美軍의 火力과 韓國軍의

山岳機動力을 효과적으로 配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相互協同의 훈련을 쌓을 수도 있다』고 敷衍하였으니, 結論적으로 이는 앞서의 「Chop Stick 6」의 概念과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그러나 Clark 대장은 6월 25일에 이를 却下하였는 바 그 理由에서 밝히기를,
 『첫째, 현재 進行中인 休戰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憂慮가 있으며,
 둘째, 該作戰에서 豫想되는 損失이 戰果의 利點과 逆算케도 될 것이고,
 셋째, 敵이 反擊을 감행하여 總力 攻勢로 移轉한다면 현재 제8군으로서는 예비병력이 不足한 立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째, 平康까지 진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戰果擴大 없이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다만 死物인 地幅만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될 뿐 지금 상태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美陸軍參戰史인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 의하면 그의 이와같은 判斷은 당시의 彼我 戰力의 비교에 根據를 둔 것으로 믿어진다.

즉, 5월 1일 現在로 제8군의 G-2가 판단한 敵의 병력은 무려 1,000,000명에 가까웠으니, 그들 前線에는 東海岸地區에 北傀 3개군단 83,000명이, 太白山脈 以西에서 臨津江口에 이르기까지에 完全編制의 中共 8개군 207,800명이 配置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後方에는 422,000명의 中共軍과 185,300명의 北傀軍 그리고 10,000명으로 推算되는 赤性國의 지원병력이 前線을 支援中인 것으로 判斷된 것인데(前線 290,800명, 支援 617,300명, 都合 908,100명), 이는 지난해 休戰會談이 시작된 뒤로 敵의 병력이 2倍로 증강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比하여 UN군은 美軍 4개사단과 英聯邦軍 1개사단 그리고 韓國 9개사단으로 모두 247,500명이 前線에서 對峙中인 바 그 지원병력을 합쳐도 700,000명線を 下廻하는 實情에 있어, 人力面에서는 敵이 優位를 占하게 되었다.

여기에 또 火力面에 있어서도 滿洲에 2,000대의 飛行機—그 가운데 半數는 Jet機—와 前線에 400대의 戰車를 保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砲兵 역시 4월에 710문이던 것이 6월에 884문으로 急増되는 趨勢에 있으며 [US News and World Report紙(Vol. XXXII NO 13, 1952. 3. 28)에 의하면,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 自身이 밝히기를, 3월 현재로도 敵 포병의 數가 UN군의 2배라고 한 바 있다.] 그 射擊術도 向上되고 補給體制도 改善되는 徵候가 顯著한데다가 防禦陣地의 強度도 더욱 증강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Clark 대장은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敵을 무찌를 수 있는 方法이란 오직 敵이 그들의 陣地에서 나와 공격을 敢行할 때 決定的인 打擊을 加하는 것 뿐일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敵이 공격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我方에서 先制로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結論을 내린 듯 하다.

이렇듯 제8군사령관의 持論과 UN군사령관의 見解가 相馳되자, 제8군은 이제 可能的 接敵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당면한 戰術的 要求에 따라, 6월 下旬부터 韓國軍사단(제5, 수도, 제1사단 및 제1해병연대)에서 抽出한 대대규모의 奇襲隊로써 各各 그 正面의 敵陣을 공격하여 陣地의 파괴와 捕虜의 獲得에 노력하였으나 이도 所期한 成果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7월 下旬에 이르러 中部地區에 豪雨が 連 6일間이나 계속됨으로써 沙汰와 河川의 氾濫으로 말미암아 前線 일대에는 대부분의 道路와 橋梁이 流失되고 말았다.

8월에 들어서자 彼我는 이 災害의 復舊에 全力을 傾注케 된 까닭으로 자연 前線에서 小康을 보게 되었는데, 前掲「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의 主張에 따르면 이 무렵 Washington과 東京의 美 情報當路者들이 판단하기를 『板門店에서의 協商도 기대 밖의 것일 뿐만 아니라 現전투성격에 있어서도 뚜렷한 變動이 없을 것이다』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본 듯 하다고 하는 바, 그 論旨는 대개 이러하다고 하였다.

『敵이 休戰條件을 受諾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大規模의 攻勢를 取할 形便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UN군이 攻勢를 취하지 않는 限, 戰爭의 結末을 보기 위한 壓力手段이란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UN군 역시 現병력으로는 持久戰의 貫遂가 困難하니만큼 局地攻勢에 앞서 兵력의 增強措置가 先行되어야 할 것인데, 現在로서는 더 이상의 增援가능성이 稀薄하다. 그러므로 彼此 이 現狀에서 脫皮하러 하지 않는 限, 지난 해 겨울의 戰鬪樣相이 反復될 것이다.』

如何든 8월까지는 全般的으로 UN군이 공격적인 立場에서 主導權을 掌握하고 있었으나, 9월에 접어들면서 敵이 겨울을 意識하였음인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敵이 有利한 前進陣地의 확보와 아울러 休戰會談에서 그들이 主張하는 바가 종내에는 회담의 決裂을 自招하게 할 것으로 내다 본 결과, UN군側으로 하여금 그들의 提案에 承服토록 강요하려는 複合的인 意圖가 內包된 것으로 보이는 攻勢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9월 6일에 中部戰線 제2군단의 首都사단이 확보중인 「首都교지」와 「指形絨線」을 奪取코자 敵(中共軍)이 공격신호탄을 올린 뒤로, 9월 末에 「독수리 및 피의 高地」(제3사단)와 「수도교지 및 指形능선」(수도사단) 그리고 「A, B 교지」(제6사단)등 同군단의 全 正面으로 擴大된 「秋季攻勢」의 第一波가 들이닥쳤는데, 이때부터 戰線에서 作戰의 主導權이 그들의 手中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10월 5일에 美 제9군단 正面에서 金化부근의 現 防禦線을 改善하기 위한 制限된 공격계획(Showdown 作戰)을 수립하여 Clark 대장에 提出하고, 다음과 같이 이의 承認을 強力히 促求하였다.

『實事態를 逆轉시키기 위하여서는 我軍이 小規模의 공격작전으로써 機先을 制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現在와 같이 敵이 主導權을 쥐고 있는 狀態下에서 我軍이 消極的인 防守策만을 固執한 까닭으로, 지난해 10~11월 以來로 가장 많은 出血을 強要당하는 結果를

빛고 있다.』

Clark 대장은 이 제획을 檢討한 끝에 所要彈藥과 航空支援만 圓滑히 攄른다면 2개대대 규모로써 5일間이면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樂觀的인 判斷아래 10월 8일에 이를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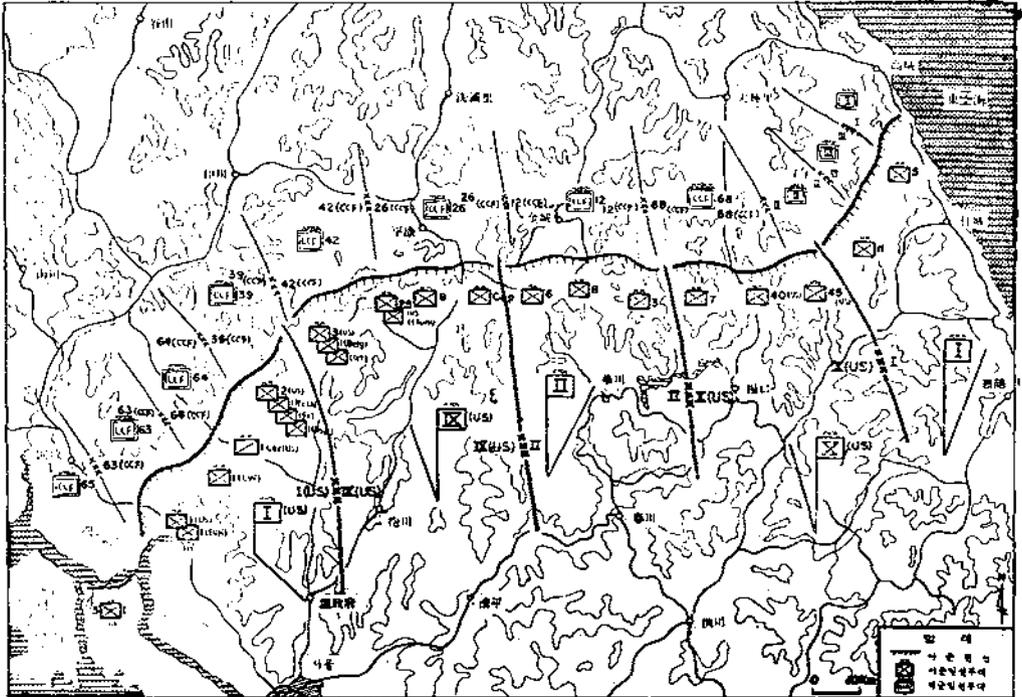
이리하여 Van Fleet 대장은 즉시(10월 9일) 美제9군단으로 하여금 「Showdown 作戰」의 실시를 命令하게 되었는데, 이 동안인 10월 6일에 「秋季攻勢」의 第二波가 제2군단 正面의 「首都고지」와 「指形稜線」(수도사단), 「A, B 고지」(제6사단) 및 美제9군단 正面의 「白馬고지」(제9사단) 그리고 美 제1군단 正面의 「Nikie, Tessie 고지」(제1사단) 등에 일제히 集中됨으로써 全戰線에서 激戰이 再燃되었다.

따라서 我軍은 이와같은 「秋季攻勢」를 맞아 이를 破碎하는 一方, 「Showdown」 제획대로 美제9군단의 제2, 美제7의 兩사단으로서 「狙擊稜線」과 「三角高地」를 目標로 하는 공격을 준비케 되었는데, 먼저 防禦戰에서는 「白馬高地」에서 中共軍 1개군에 殲滅的인 打撃을 加하여 물러치는 大捷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 14일을 期하여 「狙擊稜線」과 「三角高地」를 공격한 제2사단과 美제7사단의 攻擊戰에서는 당초의 豫想을 뒤엎고 11월 5일까지 무려 42일間이나 遲遲不進하게 계속된 戰況끝에 제2사단이 「狙擊稜線」만을 확보한 가운데 作戰을 終了하게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防禦戰인 「白馬고지」戰鬪는 일찌기 Clark 대장이 期待한 바의 模範的인 그

◇ 상황도 제 1호 彼我的 戰線



것이 되었고, 反面에 攻擊戰인 「狙擊稜線」戰鬪는 그가 憂慮한 바가 如實히 나타나는 것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共通點을 찾아낸다면 中共軍이 地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兵力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과 損益을 通算한 결과 대체로 防者의 利로 計定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제8군이 戰線에서 취할 수 있는 方策이 果然 무엇인가는 이로써 明白히 提示된 것이었다.

이어 12월, 前線을 掩襲한 寒波와 함께 彼我間 다시 交綏狀態로 들어가게 되나, 겨울 동안 防禦에서든 攻擊에서든 그 主導權은 優劣한 兵力을 뒷받침으로 한 敵의 掌中에 있게 되었다.

2. 地上戰況 : 期間中 地域別 戰況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東部戰線의 狀況 — 本卷에서 東部戰線이라 함은, 東海岸 南江河口에서 北漢江 東岸까지, 대체로 國軍제1군단과 美제10군단지역을 包括하는 戰線의 彎曲部를 指稱한다.

먼저, 期間中 제1군단(장, 李亨根중장)에서는, 그 主力인 제5, 제11 兩사단으로써 계속 南江 南岸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는 바, 南江이라는 天然의 制約을 받아 彼我戰線의 區分이 明確한 까닭으로, 右翼 제5사단이 高城 南쪽의 △351부근에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當面の 北僞軍과 一進一退의 爭奪을 反復하였을 뿐, 다른 戰線에서는 南江을 사이에 두고 搜索隊가 衝突하는 정도였다.

한편, 美제10군단(장, Williston B. Palmer 중장 : 8.15부터는 Isac D. White 소장)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8사단을 右翼으로, 美제25사단(Turkey 여단 배속)을 中央으로, 그리고 제7사단을 左翼으로 삼아 예비 없이 △854—△812—加七峯—「斷腸의 稜線」—△1090에 이르는 戰線을 확보하던 중 7월 18일에 美제1군단으로부터 美제45사단(Philippine 대대 배속)을 配屬받아 이를 잠시 楊口부근에 豫備로 控置하였다가 9월 25일에 右翼인 제8사단과 交代토록 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에 다시 美제9군단으로부터 美제40사단을 배속받아 中央의 美제25사단과 交代토록 한 바 있는데, 제8사단은 9월 28일에 美제9군단 배속과 同時에 史倉里의 제5FTC에 任하게 되고, 美제25사단은 10월 24일에 제8군 예비가 되어 加平으로 轉進케 되었다.

이어 12월 27일에는 11월 8일부터 新編된 國軍제12사단이 軍단에 배속되어 12월 30일에 右翼인 美제45사단의 陣地를 인수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右翼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 交代 直前に △854—△812의 前進 陣地를 공격한 北僞軍을 격퇴한 바 있는데, 이 전선을 인수한 美제45사단도 또한 제12사단과의 交代를 앞둔 12월 25일에 △812에서 또 한차례의 北僞軍의 공격을 물리친 바 있다.

그리고 中央에서는 美제40사단이 확보중인 「斷腸의 稜線」 北端의 △851에서 11월에 北

倭軍의 侵攻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내었으며, 左翼에서는 期間中에 主抵抗線을 계속 담당
한 제7사단이 10월 中旬에 中共軍의 공격으로 △1090부근에서 대대규모의 爭奪戰을 벌
이게 되었는데, 이때 그간 사단이 확보하였던 「Christmas高地」를 敵手에 넘겨 주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군단의 主陣地는 큰 變動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中部戰線의 狀況 — 中部戰線은 北漢江에서 鐵原까지의 國軍제2군단과 美제9군단지역을
포함하는 戰線의 突出部를 일컫는데, 이는 이 해 初까지만 하여도 美제9군단의 獨舞였
으나 4월 5일에 제2군단이 創設되면서 戰線을 둘로 나누어 달게 된 것이다.

제2군단(장, 白善燁중장 : 7.23부터는 劉載興중장)은 지난 겨울동안 智異山地區에서 共
匪擊滅作戰을 遂行하였던 白野戰司令部가 3월 15일에 前線으로 復歸함으로써 이들 母體로
4월 5일에 창설을 보았는데, 首都사단을 基幹으로 삼아 美제9군단의 右翼인 제3사단과 제
5FTC에서 교육중이던 제6사단을 編入하여 군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同日附로
제9군단戰線의 東半部를 正式으로 인수케 되었다.

그리하여 군단은 제3, 수도, 제6사단의 順으로, 北漢江에서 金城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담당하다가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에서 中共軍과 爭奪이 잦았던 수도사단을, 10월 25일
에 제1FTC로 뽑아 들리고, 제5FTC에서 部隊整備를 끝낸 제8사단을 배속하여 이로 하
여금 수도사단의 陣地를 인수하여 中央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陣容의 改編을 보았다.

기간 중 군단은 中共軍의 끊임없는 挑戰을 받게 되었는데, 主戰場은 제3사단의 「독수리
고지」와 「피의 고지」, 수도사단의 「수도고지」와 「指形능선」 그리고 제6사단의 「A고지」,
「B고지」 등이었다.

秋季에 접어들면서, 9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中共軍이 이들 要衝을 손에 넣고자
集中的이고도 波狀的인 壓力을 가함으로써 군단正面에서 激戰이 苛烈化되었는데, 군단이
비록 敵의 本來企圖만은 粉碎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제3사단은 「독수리고지」를, 수도사단
은 △575를 내어 주게 된다.

美제9군단(장, Willard G. Wyman 소장 : 8.9부터는 Reuben E. Jenkins 소장)은 4월 1
일 현재 제3사단, 美제40사단 그리고 美제2사단(France, Netherlands, Thailand대대 배
속)으로써 北漢江에서 鐵原 東쪽까지의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美제7사단(Columbia,
Ethiopia 대대 배속)을 加平부근에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5일에 제2군단의 創設과 同時에
右翼戰線을 同군단에 인계하게 되었다.

이어 군단 戰線을 西쪽으로 擴開하여, 美제1군단 右翼으로서 「白馬고지」를 확보중인 제
9사단을 左翼으로 編入함으로써 전선調整을 끝낸 다음, 28일에 예비인 美제7사단으로 中
央의 美제2사단과 交代케 하였다.

다시 6월 1일에는 제5FTC에서 교육중이던 제2사단을 배속하여, 7월 1일에 右翼인 美
제40사단과 교대케 함으로써 이때부터 同제2사단이 金城 西쪽의 「狽擊능선」정면을 담당케

되었는데, 이 무렵인 同월 15일에 美제2사단은 美제1군단으로 배속이 變更되었다.

8월 7일, 巨濟島포로수용소에서 포로分離作業을 끝낸 제187空輪연대전투단을 잠시 군단에 배속하여 中央의 美제7사단 戰線 一部를 담당토록 한 바 있으나, 이는 10월 2일에 제8군의 예비로 돌려졌다.

이 무렵인 10월 1일에 제8군의 措置에 따라, 美제3사단(Greece, Belgium 대대 배속)을 美제1군단으로부터 轉入하여 예비로 활용케 되고, 그 대신 예비였던 美제40사단을 10월 18일에 美제10군단으로 배속을 변경케 되었다.

이 동안, 左翼인 제9사단은 10월 6일에 中共軍의 「秋季攻勢」를 받아 「白馬교지」에서 血戰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어 右翼인 제2사단과 中央의 美제7사단이 10월 14일에 「Showdown 作戰」을 敢行함으로써 「狙擊능선」과 「三角교지」를 공격케 되었으며, 「白馬교지」의 전투가 끝난 뒤인 10월 25일에 예비인 美제3사단으로 하여금 제9사단의 戰線을 引受토록 하고, 제9사단은 제5FTC에 임하게 하였다. (일부병력은 「狙擊능선」에서 전투중인 제2사단을 支援)

한편 「三角교지」에서 攻擊戰을 벌인 美제7사단은 이달 25일에 그 作戰任務를 제2사단에 인계한 다음, 11월 14일에는 그 戰線마저 제8군 예비였던 美제25사단에 인계하고 加平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1월 25일에는 제5 FTC에서 훈련중이던 제9사단을 다시 前線에 投入하여 제2사단의 「狙擊능선」戰線을 인수케 하고 제2사단은 同日附로 同 FTC에 任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각사단의 循環整備를 圖謀한 군단은 12월 10일에 그간 美제1군단에 제1FTC에서 교육을 끝낸 수도사단을 배속하여 右翼의 제9사단 전선의 일부를 인수케 하였는데, 이로써 새로이 군단 右翼으로 삼고 제9사단을 中央右翼으로, 美제7사단과 交代한 美제25사단을 中央左翼으로, 그리고 12월 27일에 FTC에서 다시 戰線으로 復歸한 제2사단을 美제3사단과 교대시켜 左翼으로 삼아 主抵抗線을 整備케 되었다. (美제3사단은 제5FTC에 임함)

이리하여 이제 군단은 결과적으로 제2사단과 제9사단이 각각 「狙擊능선」과 「白馬교지」를 交代한 가운데 수도사단을 右翼으로 맞아들여 決意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이다.

期間동안 군단正面的의 主要戰鬪는 「白馬교지」, 「三角교지」, 그리고 「狙擊능선」의 세 전투로 壓縮되는데, 「白馬교지」에서는 제9사단이 10월 6일부터 中共제38군과 더불어 連10일 동안에 12차례의 爭奪을 復復하여 7회나 主人이 바뀌는 血戰으로 點綴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中共軍은 15,000명의 戰鬪兵力과 8,000명의 支援兵力을 投入하여 乾坤一擲의 決戰을 강요한 것이지만 이에 맞선 제9사단이 3,500명의 損失을 보면서도 끝까지 堅守한 결과 敵 10,000여명을 射殺함으로써 그 企圖를 꺾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제9사단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제6사단의 龍門山전투에 比肩될, 防禦戰에서 白眉一編의 勝捷譜를 남기게 되었거니와 龍門山の 戰勝이 당시 제6사단 將兵들의 「不退

轉의 決意) 하나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白馬고지」의 그것이야말로 제9사단 將兵들의 鬪魂과 技倆의 權化로써 能히 醜勝을 壓勝함으로써 이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狙擊능선」과 「三角고지」전투는 前述한 바와 같이 제8군이 이 해에 마지막으로 試圖한 美제9군단의 「Showdown作戰」에서 비롯된 것인데, 「狙擊능선」을 목표로 한 제2사단과 「三角고지」를 목표로 한 美제7사단은 당초 각 1개대대로써 5일間이면 成功裡에 該작전을 終結할 수 있으리라고 展望하였으며 200명정도의 損失이 이에 따를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였으나, 結果는 意外로 제2, 美제7 兩사단의 全병력이 投入되기도 42일間이나 계속된 끝에 무려 9,000명 이상의 死傷者를 보게 되는, 이 期間中 최대규모의 血戰으로 遲延하게 되었던 것이다.

敵의 損失 또한 相對的인 것이어서, 여기서 敵은 19,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지만, 當面の 敵인 中共제15군이 強靱한 防禦意志를 보인 까닭으로, 「三角고지」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快勝을 거두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戰況의 進展을 보지 못한 끝에 11월 5일에 及其也 軍단이 이의 略取를 斷念케 됨으로써, 이를 敵의 手중에 남겨둔 채 「狙擊稜線」만을 간신히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西部戰線의 狀況 — 이는 대체로 鐵原에서 臨津江口에 이르는 美제1군단地域에 該當한다. 美제1군단(장, J. W. O'Daniel 중장 : 6.29부터는 Paul W. Kendall 소장)은 4월 5일에 國軍제2군단이 中部戰線의 一翼을 맡게 됨으로 말미암은 戰鬪地境線의 調整에 따라, 軍단의 右翼인 제9사단을 美제9군단으로 배속시킴으로써 鐵原以東을 同軍단이 一任하고, 美제45, 美제3, 英聯邦, 美해병사단(韓國제1해병연대 배속)의 陣容으로 계속 Jamestown 線을 확보하다가 4월 21일에 그간 陸本直轄로써 부대를 정비중이던 제1사단을 다시 배속받아 이로써 中央 右翼인 美제3사단의 陣地를 인수케 한 다음, 同제3사단을 예비로 뽑아 들렸다.

이어 7월 15일에 美제9군단으로부터 美제2사단이 轉入함에 따라, 右翼인 美제45사단을 美제10군으로 配屬措置하고, 同제45사단의 陣地는 美제2사단이 맡게 하였다.

이 동안인 同월 5일에는 中央右翼인 제1사단이 美제3사단에 다시 전선을 인계하고, 10일부로 南原(제11, 제12연대)과 密陽(제15연대)地區로 轉進하여 智異山 및 雲門山 일대의 共匪殘黨을 擊滅한 다음 8월 7일에 軍단에 再配屬되어 10월 1일에 美제3사단의 전지를 다시 인수하였다. (同제3사단은 同日附로 美제9군단으로 配屬變更)

그러다가 12월 27일에 제8군의 예비였던 美제7사단을 軍단에 배속하게 되어, 이로써 右翼인 美제2사단 戰線을 인수토록 조치하고, 同제2사단은 예비로 轉換시켰다.

그러나 軍단의 西半部에서는 英聯邦사단과 美해병사단이 期間中에 變動없이 계속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군단에서도, 6월 6일부터 右翼인 美제45사단이 鐵原 西쪽에 있는 一連의 前進要衝인

「Arrowhead(△281)」—「Porkchop(△255)」—「Old Baldy(△266)」등을 확보키 위하여「Counter作戰」을 시작하여 이들 高地를 손에 넣게 된 뒤로 여기에 대한 敵의 反射의인 逆襲이 반복됨으로써, 例의 고지 爭奪이라는 高地紛戰으로 一貫되기에 이르렀다.

여름 동안에는 激戰이 주로 「Old Baldy(不毛)」를 중심으로 展開되었는데, 6월 下旬에서 7월 初旬에 이르는 기간에 中共軍이 이를 손에 넣고자 發惡하다가 3,500명의 損失을 보기도 하였다.

그 뒤에 美제2사단이 그 戰線을 인수한 뒤로도 9월 中旬까지 爭奪을 계속하다가 12월에 들어서면서 그 東쪽의 「T-Bone」地域으로의 飛火를 보게 되었는데, 다시 美제7사단이 새로이 그곳을 담당하게 되자, 同사단은 이 正面에서의 敵의 挑發策動을 拔本塞源키로 方針을 定하고 그 이듬해 1월에 步戰砲협동의 「Smack作戰」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한편 中央右翼이었던 美제3사단은 9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Kelly 고지」에서 역시 中共軍과 爭奪을 演出케 된 바, 同사단이 650여명의 死傷者를 보고 同고지를 敵에게 내어 준 채 제1사단과 戰線을 交代케 되었는데, 이 戰線을 인수한 同제1사단은 10월 6일에 「秋季攻勢」를 맞아 「Tessie」 및 「Nickie」의 兩고지에서 激突케 된 다음, 12월 中旬에 「Betty」와 「Nori」高地에서도 또 한 차례의 격전을 치르게 된다.

이 동안, 英聯邦사단에서는 11월에 「Hook 고지」에서, 또 美해병사단은 8월에 「Bunker 고지」에서 各各 中共軍의 공격을 격퇴하게 되며, 韓國제1해병연대는(10.1부로 전투단으로 增編) 泗川 일대의 前進陣地에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계속 一取一奪을 다투게 된다.

3. 海空軍의 狀況: 이 해 春季에 들어선 뒤에도, UN군은 制空權에 正面挑戰을 받지 않은 채 敵의 補給策源의 撲滅과 鐵道の 遮斷작전을 계속하는 한편, 戰線에서의 敵 보급품과 裝備 및 兵力의 集結을 妨害하였다.

5월에 UN군사령관 Clark 대장의 赴任과 함께 空中作戰에 대한 새로운 方向摸索의 기운이 胎動되었는데, 그가 着任 즉시로 極東空軍사령관 Weyland 대장과 海軍사령관 Briscoe 중장을 招致하여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敵의 補給路遮斷에 盲點이 있었음이 指摘되었다.

즉, 종래와 같은 鐵道차단작전으로서는 敵이 비록 臨時措置인 方法이나마 彌縫적으로 復舊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다지 큰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敵의 繼戰能力의 供給源이 되는 產業施設을 폭격하여 策源을 封鎖키로 意見을 모으게 된 것인 바, 이에 選定된 제1의 目標가 水豐水力發電所를 위시한 鴨綠江의 動力施設이었다.

이는 1950년 11월 6일 以來로 韓滿國境線부근의 水力發電시설에 대한 爆擊을 禁止한 Washington 當局의 制限措置에 따라 遵守되어 왔던 것이나, 지난 해 8월에 休戰會談이 決裂되자 이에 대한 腐懲 수단의 一環으로 斷行된 羅津爆擊에 이어, 두번째로 이 禁限을 깨는 劃期的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6월 23일에 Princeton 號와 Boxer 號, 그리고 Philippine Sea 號 등 航空母艦에서 出擊한 海軍戰艦들이 空軍의 戰鬪機의 엄호아래 連3일間に 걸쳐 水豊을 비롯 赴戰艦 3, 제4호와 長津제3, 제4호 등 13개 發電시설을 폭과하여 北韓天地를 2주일동안이나 暗黒一色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이 措置는 友邦이라는 英國으로부터 즉각적인 容豫를 받게 되었는데, 勞動黨과 新聞들이 「拙策」이라는 表現으로 비난하면서 『이같은 重大事가 事前에 英國側에 미리 通告되지 않았음』을 詰問하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英國政府는 中共軍의 侵略初期 MacArthur 원수가 鴨綠江遮斷을 주장한 그 時點부터 이미 論難이 되어 온, 이 動力施設과 괴문제에 대하여 中共이 協商을 꺼뜨리거나 相對的인 報復을 香港등에 대하여 試圖할런지도 모른다는 利己的인 把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推理할 수 있는데, 正작 美國의 國內 輿論은 이와는 달리 한층 鼓舞的인 것으로서 『왜, 좀더 일찌기 그와 같은 強硬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으니 同床異夢의 歎을 免할 수 없었다.

이에 美國政府는 이 水力施設이 滿洲의 飛行場과 武器 및 彈藥을 생산하고 武裝을 補修하는 軍需工場을 稼動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는 만큼, 軍事的인 必要에 따라 이를 파괴코자 한 것이며 決코 政策的인 變更事案이 아니라는 태도를 表明함으로써 英國의 輿論을 默殺키로 하였는데, Clark 대장이 英國新聞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聲明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水豊發電所의 목적에 關한 物議에 대하여, 本官은 斑駁之嘆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此際에,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論難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明白히 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滿洲로 送電되는 水力電氣가 우리 自身에 對抗하는 敵의 原動力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再論의 餘地가 없다는 점과, 또 本官이 UN군사령관으로서의 權限下의 모든 手段과 方法을 취하여 麾下將兵의 희생을 最少限으로 減縮시켜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다는 點이다.

따라서 自由世界의 모든 國民이 本官의 措置를 支持하여 줄 것으로 確信하면서, 正當하고 名譽로운 休戰이 確實히 保障될 때까지 北韓內에 있는 이러한 軍事的 目標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이 결과, 英國側이 自制하는 가운데 Stephen N. Soosmith 소장(英)을 UN군 參謀長으로 補任키로 美國과 合議를 보게 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擧論치 않게 되었는데, 이는 兩國間에 보다 圓滑한 協調關係를 유지한다는 名分이지만 此後로는 이와같은 美國의 獨善(?)을 牽制한다는 印象을 拂拭치 못하게 되었으니, 大抵 聯合軍이란 主從性이 浮刻되지 못하는 複合體가 가지는 根本的인 脆弱點의 하나가 이로써 露呈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如何間, 水豐發電所에 대한 폭격이 斷行된 뒤로 UN空軍과 海軍의 戰爆機들이 北韓의 主要工業地에 폭격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7월 11일에 平壤을 空襲하여 40여개의 군사시설과 軍需品 集積所 및 工場들을 炎上케 하였으며, 同월 27, 28 兩日에는 吉州의 磁鐵제련소와 新德의 亞鉛광산을 폭격하였다.

이어 9월 1일에는 北韓最大의 精油시설인 阿吾地精油공장을, 그리고 10월 8일에는 平元 鐵道始發點인 高原 일대를 焦土로 만들었다.

赤都 平壤에 대한 空襲은 8월 4일과 29일에도 再開한 바, 여기에서는 空襲地域을 豫告하는 傳單을 事前에 撒布하는 이른바 「豫告爆擊」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예고폭격의 成果에 대하여 Clark 대장은 『이는 完璧한 制空權의 掌握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것인만큼 制空權 장악에 대한 誇示와 敵側의 民間人 疎隔을 懲憑하는 人道的인 立場을 闡明할 수 있었다는 見地에서 敵에 미친 心理的인 効果가 컸다』고, 그의 回顧錄(『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서 述懷한 바 있다.

한편 海軍의 海上活動은 前년에 이어 北韓의 海岸封鎖와 掃海작전을 계속하면서 東海岸의 國軍제1군단 地上작전을 支援하다가, 美제9군단의 「Showdown 作戰」에 매를 맞추어 10월 15일에 庫底에서 한 차례 陽動 上陸을 실시하였다.

이 作戰의 要綱은 美제7함대(사령관, Joseph J. Clark 중장)를 主軸으로 陸海空軍 合同 제7기동상륙군을 編成하여 빈틈 없는 上陸 계획을 樹立, 만반의 態勢를 갖추되 實際 上陸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海上遊弋만으로 그치는 것이니, 이 目的은 『敵의 前線兵力을 分散시키고 上陸地로 敵 增援부대를 誘引한 다음, 空軍과 地上砲火로써 이를 撲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敵이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은 까닭으로 戰果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3군合同의 上陸訓練효과라든지, 그 뒤로 敵으로 하여금 계속 東西海岸防禦에 左顧右眈치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點에서 크게 評價될 만한 것이었다.

4. 國軍의 增強: 이 해는 또 國軍이 종래의 10개사단의 壁을 깨고, 雄飛의 발돋움을 하는 해로서 그 意義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年末에 제12, 제15의 2개사단의 創設에 빛을 보게 되는데, 戰爭勃發 以來로 계속 10개사단만을 유지한 國軍의 增強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論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에 美陸軍長官署理 Foster가 JCS에 韓國軍의 規模策定에 대한 意見提出을 要請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의 所論에 의하면, 당시에 合參議長 Bradley 원수는 이해 1월 末에, 韓國軍의 10개사단(250,000명線)유지에 대하여 前任 UN군사령관 Mac Arthur 원수나 현재의 Ridgway 대장이 共히 支持한다는 것을 근거로 『現下 韓國의 經濟的인 與件으로서 國軍의 顯著한 增強을 支撐할 만한 能力이 없다』는 結論的인 報告를 國

訪長官에게 提出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JCS 參謀들은 다음과 같은 見解의 一致에 到達한 것인 듯 하다고 한다.

- 『① 현재의 韓國軍을 적절히 訓練시키고 裝備를 改善한다면, 此後에는 敵의 侵略을 阻止하기에 충분한 軍隊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韓國政府는 계속적인 inflation에 基因된 經濟적인 負擔으로 더 이상 追加的인 戰費 支出을 받아들일 立場이 못된다.
- ③ 또 美國 역시 NATO 加盟國에 確約한 軍事的 要求量의 供給에 대한 約束의 履行과 日本 防衛軍(自衛隊)의 復活을 推進하여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 ④ 그러므로 韓國軍의 擴張은 이러한 當面문제들이 解消되는, 적당한 時期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3월 28일에 韓國을 방문하고 돌아 간 Dan Kimball 해군장관이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韓國軍을 20개사단(10개사단增編)으로 擴張할 것을 希望하고 있다』라는 內容의 報告書를 陸軍政策會議(Army Policy Council)에 回附함으로써 이 增強 문제가 또 한번 擧論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에 Van Fleet 대장은 U.S. News and World Report 紙 編輯人과의 會見에서도 『韓國은 充分한 人的資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活用한다면, 美國은 韓國戰爭에서 美軍을 使用하는 것 보다 더 經濟적으로 韓國을 支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의 所信을 披瀝한 바 있었다. (3월 28日 同紙 Vol. XXXII. No 3)

이에 4월 9日, 美陸軍當局이 極東軍사령부의 公式見解를 要請한 바, 이에 대하여 Mac Arthur 원수로부터 司令官職을 繼承한 Ridgway 대장은 說明하되 『韓國은 經濟事情上 20개 사단을 支撐할 能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時期는 日本의 防衛軍(自衛隊) 발전에 優先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Van Fleet 대장의 個人的인 所見에 대하여서는 云謂할 바 못되나 自己로서는 그에 同意하지 않는다』라고 종래의 그의 管見을 申하였다.

이러하여 이 增強案은 일단 論外로 且置되고 말았는데, 이와같은 兩사령관의 見解差異는 비단 이 문제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로되, 兩者가 處한 立場—戰略과 政略的인 次元—의 隔差를 나타낸 端的인 一例로 보아 무방하다고 할 것인 바, 사실 Ridgway 대장의 偏見에 대하여서는 커다란 矛盾이 內在되었음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이보다 앞서 3월 27일에 그가 JCS에 낸 한 報告書를 보면, 그 가운데 韓國空軍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두번째가는 空軍은 없는 것 보다 못하다. (A second best Air Force is worse than none.)』고 辛辣한 批判을 서슴치 않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 根底에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現在 17臺의 老朽한 戰鬥機(F-51)와 그 밖에 29대의 各種 航空機를 主軸으로 한 4,000명의 韓國空軍, 이것으로서는 共產空軍에 對敵할 수 없다. 따라서 空軍은 全幅的으로 美空軍에 依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쓸모 없는 空軍의 유지는 그야말로 浪費에 지나지 않는

다.』

이런 대장이 한사람만 더 있었더라면 오늘날의 休戰마저도 期約할 수 없었을 것이니, 같은 보고서에서 그는 『그렇다고 이제 막 發足の 단계에 들어 선 韓國空軍을 廢止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狐疑雜谷을 吐露하면서 JCS 로 하여금 이에 대한 措置를 講究하라고 要請하였으나 JCS 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措置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 취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Ridgway 대장은 在任期間동안 國軍의 규모제한에 始終 一貫하였으나, 現부대의 質的인 向上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熱意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하나로 砲兵의 增強을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도, 韓國은 地形이 險한데다가 道路가 狹窄하고 路面이 不良하여 砲兵의 機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또한 再補給의 難點과 더불어 훈련된 砲兵要員이 부족하다는 것을 理由로, 國軍 1개사단에 105mm 1개대대만을 保有케 된 實情이었으나(美軍은 105mm 3개대대와 155mm 1개대대를 보유), 3월에 들어서면서 Ridgway 대장이 國軍에도 사단當 105mm 3개대대와 155mm 1개대대의 完全編制를 갖추기로 決定하고 이에 따르는 砲兵擴張계획을 陸軍省에 提出하였던 것인 바, 이 계획은 그가 Europe 으로 떠난 다음인 5월 27일에 承認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그 執行은 Clark 대장이 推進하게 되었는데, 軍事識見이 높은 Clark 대장은 赴任 즉시로 Ridgway 와는 달리 國軍의 增強에 着手하였다. 그 첫 試圖로서 6월 19일에 도합 19,458명 규모의 6개 독립연대를 創設할 것을 骨子로 한 陸軍增強계획을 國防省에 提出하는 한편, 同월 23일에는 또한 2개사단의 增編을 建議하였다.

그러나 이 兩建議案은 提案의 時宜가 좋지않아 國防省의 支持를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는 이 무렵인 6월 18일에 梁裕燦駐美大使가 먼저 國防省과 議會에 「韓國空軍養成 3개년 계획」上程을 促求함으로써 Clark 대장의 地上軍 增強案과 相衝을 빚게 되었던 까닭이었다. 一이의 審議를 맡게 된 JCS 는 6월 30일에 韓國陸軍은 從前대로 250,000명線으로 묶어 두고, 대신 空軍과 海軍을 확장시키는 方案을 採擇키로 意見을 모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7월 15일, 美육군참모총장 Collins 대장의 訪韓을 契機로 제8군과 極東軍당국이 力說한 韓國陸軍의 增強必要性이 反映되어, 8월에 JCS 에서 國軍 2개사단 증강계획이 다시 討議되게 되었다.

이 동안 제8군은 陸軍本部와 協議를 거쳐 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의 定員을 27,000名으로 증강(美7개사단과 英聯邦사단에 각 2,500명, 기타 전투지원부대에 7,000명)하고 사단장설에 따르는 실제적인 人力補充계획을 獨自的으로 추진하였다.

9월 1일에 Clark 대장은 다시 韓國海兵 12,376명을 19,800명으로 증강하자고 JCS 에 建

議하였는데, 이는 前에 Ridgway 대장이 『海兵隊의 유지에는 美해병대로 하여금 陸軍의 지원부대와 重複되는 지원부대와 支出을 要하게 한다』라는 謬見아래 『戰爭이 終結되면 韓國해병대를 廢止하자』고 한 바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JCS 는 6월에 梁大使가 건의한 空軍養成계획과 Clark 대장의 地上軍증강 계획을 一括하여 再檢討한 결과, 空軍을 당분간 從前水準으로 유지키로 하고, 陸軍과 海兵隊 및 KATUSA 의 Ceilling 을 綜合하여 463,000명으로 策定하여 9월 下旬에 國防省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追加적으로 所要되는 裝備는 歐洲軍에서 50%를, 또 105mm 曲射砲는 NATO 軍에서, 그리고 기타 品目은 豫備儲蓄品에서 各各 移管키로 하였다.

이 JCS 案은 國防省에서 最終적인 심의를 거쳐, 10월 25일에 Lovett 國防長官의 確認을 받아 大統領에게 稟申되었는데, 10월 30일에 Truman 의 裁可를 얻게 되었다.

이와같은 迂餘曲折 끝에 國軍 2개사단의 增編이 現實化되었거니와 10월 30일字 New York Times 를 보면, 共和黨 大統領候補인 Eisenhower 가 10월 29일에 가졌던 政見發表에서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이 披瀝한 바 있는 國軍2개사단 增編案을 土諤로, 『韓國軍을 20개사단으로 증강시켜 美軍과 交替하여야 한다』고 밝힌 뒤에 취하여진 措置였다는 觀點에서, 이 國軍增強案이 당시 美國政界에서의 選舉戰의 한 issue 로 등장한 느낌이 짝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같이 하여 10월말에 제12, 제15의 2개사단과 6개 독립연대의 創設에 着手케 되었는데, 제12사단과 3개 독립연대(제53, 제55, 제56연대)는 12월末에 作戰에 임할 수 있게 되고, 제15사단과 나머지 3개연대(제57, 제58, 제59연대)는 늦어도 이듬해 1월末까지 前線投入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제8군은 이미 4월 28일에 3개의 輕裝備敎育補充연대(제37, 제38, 제39연대)를 創設한 바 있는데 그 중에 제38, 제39 兩연대는 창설과 동시에 포로수용소 경비에 任하게 되고, 제37연대는 독립연대로서 美제9군단 예비로 活用되었다. 이어 6월 13일에 다시 같은 성격의 3개연대(제50, 제51, 제52연대)를 창설한 바, 제50연대는 咸陽地區의 共匪擊滅에 投入되고 제51, 제52 兩연대는 독립연대로서 各各 美제1군단과 國軍제2군단에 配屬되어 實戰訓練을 쌓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10월 30일에 2개사단의 增編이 확정되자, 11월 8일 [國本 一般命令(陸) 제207호]에 同 6개 輕步兵연대를 重裝備연대로 改編함과 아울러 同日부로 襄陽에서 제12, 제15사단사령부와 6개 輕步兵연대(제53~제59연대)를 다시 編成하여 제12사단은 제53, 제55, 제56연대를, 그리고 제15사단은 제57, 제58, 제59연대를 各各 임시 배속한 暫定編成으로 우선 사단發足を 본 다음 제12사단은 12월 31일까지, 제15사단은 1953년 1월 31일까지 편성과 敎育을 完了케 된 것이다.

이어 제12사단은 앞서의 제37, 제51, 제52연대가 重裝備연대로의 改編作業이 完了된 12

월 10일부 同연대들은 사단의 正式建制부대로 編入함으로써 그 面貌를 一新하여, 美제9군단에서 교육훈련을 끝내고 12월 27일에 美제10군단 戰線에 投入되어 同月 30日에 美제40사단의 陣地를 引受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15사단도 제38, 제39, 제50연대로써 改編을 보게 되어, 11월 8일에 新編된 6개연대는 뒤따라 창설될 다른 사단의 營幹으로 轉用하게 되었다.

한편, 이 동안에 砲兵도 靑々할 成長을 보였으니, 이미 지난해 창설을 본 바 있는 4개의 독립 155mm 포병대대(제96, 제97, 제98, 제99대대)에 이어, 6월 16일에 4개대대(제91, 제92, 제93, 제95대대)가 增編된 것을 비롯하여 4월부터 2개의 105mm 대대로 構成되는 포병단의 創設에 拍車를 加하여(지난 1월 21일부터 3월 사이에 제1, 제2의 2개 野戰포병단이 창설되었음) 12월 15일까지 10개의 砲兵團(제3,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제11, 제12, 제15)이 增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해에 모두 12개의 105mm 포병단(24개대대)과 4개의 155mm 독립대대의 창설을 본 셈인데, 11월 1일 현재로 이들 新編포병대의 訓練을 맡은 제2군단 支援의 美제5포병단에서 RSOP(射擊試驗)를 거친 7개 포병단(제1, 제2, 제3, 제5, 제6, 제7, 제8)의 14개대대와 사단포병 10개대대 및 155mm 4개대대(총 28개대대)가 戰線에서 作戰任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됨으로써 中部戰線의 제2군단의 경우 各사단當 3개의 105mm 대대와 1개 155mm 대대의 支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步砲兩兵의 增強이 이루어지는 11월 1일에 Clark 대장은 여기에 滿足치 않고 進一步하여 國軍을 20개사단으로 增強하는 계획을 作成하여 國防省에 提出하였는데 그 大綱은 『현재의 2개 군단을 6개 군단으로 늘리고 新編 各 사단마다 16週間的 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바, 마지막 창설되는 사단도 1953년 末이면 戰鬪參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UN군 1개사단을 新編된 韓國軍 2개사단으로 代巒하고, UN군은 예비로 控置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處決은 다음 해로 넘겨지게 되었던 바, 11월 初의 美大統領 선거에서 Eisenhower가 新年에 執權할 次期대통령으로 當選됨으로써 적어도 이 國軍增強에 대한 문제에서만은 曙光이 보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5. 休戰會談 : 3월에 休戰監視문제에 대하여 대체적인 妥結을 본 休戰會談은 敵側이 主張하는 U. S. S. R의 中立國 포함문제와 捕虜의 強制送還문제가 또 다른 暗礁로 浮上되면서, 4월에 들어서서는 各 分科委員會別 회의를 「開會 即 閉會」를 거듭하게 되었다.

따라서 世界의 通信網과 新聞들은 會談內容의 進展報道보다는 當日 會談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하는 데에 더 많은 關心을 집중하였으니, 예를 들면 休戰監視 분과위원회의 경우, 『4월 14일에 회담 총시간 15초, 15일에 25초, 16일에 20초...』라는 등의 會談時間의 短期記錄 更新에 好奇心을 모으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이와같은 停頓狀態를 打開코자 雙方이 合議하여 4월 28일에 正式代表로써 제44차 本會議를 非公開로 개최키로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UN군側 首席代表 C. Turner Joy 중장이 이른바 「一括妥結案」이라고 불리우는 다음과 같은 試案을 提示하였다.

『① 捕虜의 自由意思에 따라, 北傀側이 抑留中인 UN군側 포로 12,000명과 UN군側이 收容中인 共產軍포로 132,000명 가운데 送還을 희망하는 76,000명과를 交換한다.

② 共產軍側의 飛行場建設을 制限하지 않는다.

③ 中立國에서 U.S.S.R을 除外하고, Swiss와 Sweden 그리고 Czechoslovakia 및 Poland로 構成한다.』

이 提案에 있어서, UN군側이 北傀의 飛行場 건설을 制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重大한 讓步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는 U.S.S.R이 中立國에서 除外되는 條件과 相殺될 수 있는 것이라 문제의 焦點은 포로의 送還에 強制나, 自由意思나 하는 것으로 集約되었는데, 당시 UN군側은 132,000명의 共產軍포로 가운데 調査결과 送還되기를 희망하는 者가 76,000명 뿐이고 나머지는 送還되기를 拒否한 까닭에 이들은 人道的인 見地에서 송환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敵側은 이 提案檢討를 위한 休會를 要請하였다.

그리하여 5월 2일에 회담이 再開된 바, 敵側이 雙方捕虜 全員을 강제송환하자는 主張의 主張을 되풀이 함으로써 이 「一括妥結案」역시 前途에 暗雲이 걸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때 UN군의 巨濟島포로수용소에서 駭怪한 事件이 돌발하여, 포로송환문제를 圍繞한 舌戰에서 敵側에 有利한 高地를 提供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다.

즉, 5월 7일에 당시 포로수용소장인 Francis T. Dodd 준장이 포로와 面談도중에 그들에게 拉致되어, 포로수용소장이 「捕虜의 捕虜」가 되는 抱腹絶倒할 前代未聞의 喜劇 한 幕을 演出케 된 것이다.

이에, Ridgway 대장이 Van Fleet 대장에게 『必要하다면 武力을 行使해서라도 Dodd 준을 구출하라』고 嚴命함으로써 Van Fleet 대장은 곧 美제1군단 참모장인 Charles F. Colson 준장을 수용소장 代理로 任命하여 事態收拾에 나섰다.

Colson 준장이 當일에 巨濟島에 空路赴任하는 즉시로 수용소의 警備를 강화한 가운데 捕虜側과 Dodd 준장 救命協商을 試圖한 결과, 포로들이 다음과 같은 內容의 Dodd 준장 釋放條件을 提示하고, 不然이면 Dodd 준장을 殺害할 것이라고 威脅하였다.

『① 共產軍捕虜에 대한 학대를 中止하고, 國際法에 의거 포로의 安全과 生命을 保障 하라.

② 所謂 自由意思에 따라 捕虜를 送還한다는 方針을 中止하라.

③ 釋放된 포로를 韓國軍으로 再武裝하려는 강제적인 포로조사를 中止하라.

④ 포로의 代表團組織을 認定하고 그에 協力하라.』

이에 Colson 준장이 回答하되, 그 要旨에서는

『① 포로는 國際法에 의거 人道的으로 待遇할 것임을 보장한다.

② 포로의 送還문제는 休戰會談에서 取扱할 사항이며, 이는 수용소장의 權限 밖의 것이다.

③ 此後로는 강제적인 포로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또 석방된 포로의 再武裝도 하지 않을 것이다.

④ 포로代表團의 組織을 承認한다.』

이렇게 대체로 그 條件을 受諾한 바, Dodd 준장은 被拉된지 78시간만인 10일 밤에 석방되었다.

이 事件의 발생 경위와 그 全貌에 대하여서는 別卷(後方戰史)에서 다시 昭詳히 다루기로 하려니와, 어쨌든 이 사건은 포로의 亂動을 誘發케 한 責任문제와 아울러 당시 UN군의 權威를 失墜케 하였다는 점에서 至極히 不名譽스러운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더우기 Colson 준장이 申明한 가운데 『포로가 人道的인 待遇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과거에는 그렇치 아니하였으나』하는 餘韻을 남겼고, 또 『포로의 강제조사나 再武裝은 않는다』는 句節에 있어서도 『前에는 그러하였으나』하는 式으로 是認하는 印象을 짚게 함으로써, 板門店에서 포로 조사결과에 根據하여 포로의 自由送還案을 내놓았던 UN군側의 立場을 難處하게 만들 憂慮도 없지 않게 된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16일에 板門店에 나온 北傀代表 南日은 이 千載一遇의 기회를 勿失好機하라는 듯, 『UN군側 主張에 대하여서는 이미 포로수용소장이란 者가 그 矛盾과 虛構性을 스스로 暴露한 바 있다』는 例의 牽強附會와 毒舌로써 『포로조사의 결과란 捏造된 것이다』라고, UN군側 대표단을 逼迫하였다.

이에 UN군側은 안으로 포로수용소에 5월 17일부터 제187空輸연대전투단을 投入하여 포로를 分離수용함으로써 수용소의 秩序恢復을 圖謀하는 한편, 밖으로 板門店에서는 「4.28一括妥結案」의 正當性을 立證하기 위하여서라도 同 主張이 始終 一貫하여야 하며 一步의 讓步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方針을 확고히 굳히고, 同提案을 수락토록 敵側에 거듭 促求하는 強硬 一邊倒로 맞서게 되었다.

이 무렵인 5월 12일에 UN군사령관의 更迭에 이어, 22일에는 UN군側 首席代表의 交替가 있어 Joy 해군중장 後任으로 William K. Harrison, Jr. 육군중장이 임명된 바 있는데, 이날 Joy 중장은 告別聲明을 통하여 『共產軍은 그들의 戰列을 再整備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회담을 遲延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더 이상 그들과 協商할 일이 없다』라고 強硬한 語調로 敵側을 罵倒하였다.

이 聲明은 당시 協商卓上の 乖離현상에 대한 正鵠을 짚어 說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니, 그 뒤로 회담은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UN군側은 6월末 현재로 마지막 포로조사를 끝낸 결과 送還희망자를 83,000명으로 確認하게 되었는데, 7월 6일에 南日이 北傀側으로 송환될 人員이 中共軍포로를 포함하여 110,000명 線이던 妥協이 가능하다는 것을 示唆하였다.

이에 7월 13일, Harrison 중장이 송환자의 통계가 修正되었음을 밝히고, 송환될 人員은 北傀軍 76,600명과 中共軍 6,400명이라고 못박아 通告한 바, 南日이 檢討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口實로 5일간의 休會를 요구한 뒤 7월 18일에 이 數字를 拒否함으로써, 이로부터 다시 休會의 空轉이 되풀이 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9월 28일에 Harrison 중장은 포로송환문제에 대하여 雙方의 隔意를 좁힐 수 있는 代案을 提示하였는데, 그 骨子は 다음과 같았다.

『1案; 雙方포로 全員을 非武裝地帶로 移送한 다음, 國際赤十字社나 雙方合同調查團에 의하여 面談과 조사를 거쳐 個人의 自由意恩에 따라 送還과 殘留를 선택케 하되, 釋放된 포로는 民間人의 身分이 되며 再武裝을 하지 않는다.

2案; 送還희망자는 신속히 交換하고 송환을 반대하는 자는 非武裝지대에서 韓國戰爭에 參加하지 않은 나라의 代表나 國際赤十字社 또는 雙方合同조사단의 面談下에 分類한다.

3案; 송환희망자는 신속히 交換하고, 不希望者는 非武裝지대에 移送한 다음 面談이나 調查없이 자유로이 선택토록 한다.』

北傀代表 南日은 즉각 『全員 송환하여야 한다』고 固執하면서, 다시 10日간의 休會를 要求하였는데 本會가 再開된 10월 8일에 이 提案마저 또 拒否하였다.

이에 Harrison 중장은 『UN군側 提案을 受諾하던가, 아니면 다른 建設的인 代案을 書面으로 提示할 때까지 無期限 休會를 宣言한다』고 한 다음, 會談場을 退場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회담은 사실상 決裂된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와같이 UN군側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敵側은 10월 9일 北京放送을 통하여 『UN군側이 故意로 휴전회담을 決裂케 하였다』고 그 責任을 轉嫁하였다.

그런데 매마침 제7차 UN總會가 10월 14일부터 New York에서 개최된 바, 開會 劈頭부터 U. S. S. R 外相 Vyshinskii가 『美國이 休戰會談의 決裂을 劃策하였다』고 非難하고 나서므로써 休戰會談의 舌戰무대가 板門店에서 UN總會議場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었다.

이에 Acheson 美國務長官이 10월 24일에 政治委員會에서, 共產側이 포로의 非強制送還의 기본원칙을 수락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板門店에서 會談을 再開할 用意가 있다고 前提하고, 英國등 友邦 20개국의 支持를 받아 共同提案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제출하였다.

- 『1 韓國戰爭의 休戰을 위한 美國의 노력을 認定하며
- 2 捕虜送還문제는 自由(非強制)送還原則을 堅持키로 總會에 要請하고
- 3 中共과 北傀政權에 대하여 無益한 流血을 피하는 休戰을 受諾토록 勸告한다.』

그러나 U.S.S.R이 여기에 反對하여, 11월 10일에 『韓國戰爭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를 包含한 11개국위원회를 構成하여 同위원회의 管掌下에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하되, 포로의 송환은 同위원회의 임무로 하며 強制送還을 原則으로 할 것』을 주장한 別個의 決議案을 제출하였다.

이와같이 相馳되는 두개의 案이 會議에서 激突을 빚게 되자, 印度와 Arab 諸國이 巋然히 傍觀만 할 수는 없었던지, 印度가 U.S.S.R과 折衷하고 中共의 眞意를 打診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11월 17일에 折衷案이라 自稱하는 決議案을 또 제출하였는데, 그 內容은 『① Swiss와 Sweden 및 Czechoslovakia와 Poland의 4개국으로 捕虜送還委員會를 設置하고 ② 포로의 송환을 추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如何한 強制力의 使用도 이를 禁하며 ③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는, 休戰成立後 90일이 經過토록 處理되지 못하면, 송환위원회로부터 高位政治會談으로 移管할 것』을 骨字로 하였다.

이를 要約하면, 일단 美國側의 主張대로 포로의 自由意문에 따라 송환하되, 송환되기를 願치 않는 포로는 政治會談에 그 처리를 一任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美國은 『포로의 처리문제를 政治會談으로 移管한다는 것은 將次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 發展시키게 될 것이며, 만약 共產側이 그 처리에 대한 時日을 遲延시키려 든다면 現在보다도 더 큰 禍根을 남기게 될 公算이 짙다』는 理由를 들어 『포로를 強制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明白한 保證條項이 포함되지 않는 限, 이를 受諾할 수 없다』고 反對意見을 表明하였다.

그러자 印度는 다시 『송환不願捕虜를 政治會談으로 移管한다』는 條項에 대하여 『만일 同 政治회담 역시 60일 以內로 송환不願者처리에 대한 妥協을 이루지 못할 때는 同政治회담에서 UN으로 移管한다』고 修訂을 加하였다.

이에 이번에는 U.S.S.R이 反旗를 들고 나섰으니, 11월 24일 政治委員會에서 Vyshinski가 『一見하여 草綠同色이 分明한 印度側案은 受諾할 수 없다. 韓國에서 休戰을 成立시키는 唯一한 方案은 포로문제를 11개국위원회로 移管하여 강제로 송환토록 하는 길 뿐이다』는 종래의 역지 主張을 되풀이 한 것이다.

여기에 또한 印度가 事前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바 있다고 한 中共마저 11월 28일에 U.S.S.R의 提案을 支持한다고 밝힘으로써 印度의 仲裁的인 立場을 無色케 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이 印度案을 지지하여 自國案을 撤回한 가운데, 印度側과 U.S.S.R側의 兩案이 12월 1일 政治委員會에서 表決에 부쳐진 바, 印度案이 53:5(기권1)로 可決되고, 이어 12월 3일의 總會에서도 54:5라는 壓倒的인 支持로 採擇되었다. (U.S.S.R案은 40:3으로 否決)

이 決定에 따라 UN總意의 向方이 確認되자, 12월 5일에 Peason 總會議長의 名義로 北傀와 中共에 이 決議案을 受諾하라는 要旨의 勸告文을 發送하였으나 그에 대한 期待는 역

시 緣木求魚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말았다.

그 이듬해인 1953년 1월 14일에 中共外相 周恩來로부터, 그리고 1월 17일에 北傀外相 朴憲永으로부터 各各 이 印度案을 拒否한다고 通告되었으니, 그들이 밝힌 바 그 理由는 『捕虜의 自由送還은 Jeneva 協定과 國際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UN은 交戰當事國의 一方이므로 UN의 決議事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UN의 노력마저 水泡로 돌아 간 이제, 休戰會談은 새로운 角度에서 出發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6. 國內外情勢: 이 해 역시 韓半島가 世界通信網의 主要 News 源이 되었고, 韓美兩國에서는 모두 大統領선거로 政局이 騷然하였던 해이기도 하였다.

먼저 國際情勢를 大觀하면, 西方側의 對蘇封鎖政策이 계속된 가운데 平和共存의 氣運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主潮는 美國의 大統領선거와 歐洲防衛軍의 誕生, 그리고 U. S. S. R의 제 19차 共產黨大會 등으로 集約되었다.

5월 26일에 Bonn에서 歐洲防衛共同體의 構成을 前提로 美, 英, 佛, 西獨 사이에 對西獨平和協定の 締結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9월의 San Francisco 對日媾和條約에 比肩될 만 한 것이었다.

이어 27일에는 美, 英, 佛 三國의 主導下에 France, Italia, Netherlands, Belgium, Luxemburg, Bundesrepublik Deutschland 등 6개국어 參加한 歐洲共同防衛條約이 Paris에서 체결됨으로써, NATO 군과 唇齒輔車의 關係를 지닌 規模 43개사단 1,250,000명의 歐洲防衛軍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이의 창설목적은 『NATO에 加入하지 않은 나라나 西獨과 같이 가입할 수 없는 나라를 保護코자』한 것이나, 보다 根本的인 필요성은 당시(2월 현재) NATO 군이 총 30개사단인데 比하여, 이에 對峙한 U. S. S. R 군만으로도 70개사단에 달하며 그 衛星國軍이 40개사단이라는 점을 勘案할 때, 軍事力의 劣勢를 切感한 西方側이 雙方의 勢力均衡을 期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 防衛軍의 構成으로 西獨軍의 役割이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創設의 計劃段階에서는 獨逸軍隊의 再登場이라는 觀點에서 이 西獨軍의 參加에 대한 France의 反撥이 있기도 하였으나, 反共으로 結束한다는 大局的인 見地에서 歐洲防衛에 대한 一役을 西獨에게 맡기게 된 것인 바, 이로써 西方側은 共產勢力에 對決할 새로운 힘의 보탬을 얻게 된 것이다.

한편 美國에서는 7월 11일의 共和黨指名大會에서 前 NATO 군사령관 Eisenhower 원수를 大統領후보로, 그리고 Nixon 上院의원을 副統領후보로 지명하였는데, 民主黨은 Illinois 州知事 Stevenson 과 역시 上院의원인 Sparkman 을 正副統領후보로 지명함으로써 白熱의 選舉戰으로 突入하게 되었다.

執權黨인 民主黨은 西歐中心의 國際主義의 傾向을 띤 對外政策을 固守키로 한 反面, 共和黨은 民主黨의 長期執權에서 累積된 國內的인 문제의 解決에 力點을 두고 「內政의 改革과 軍備의 強化」로 맞서기는 하였으나, 정작 선거전의 爭點은 그러한 國內외의 政策의 人對決보다는 「韓國戰爭의 收拾能力 如何」에 달려게 된 느낌이었으니, Eisenhower 후보가 遊說에서 그의 個人的인 人氣에 便乘하여 「韓國戰爭의 명예로운 解決」을 標榜함으로써 有權者의 絶대적인 支持를 얻었다고 分析될 정도였다.

따라서 11월 2일의 投票에서 民主黨 20년 牙城에 挑戰한 共和黨의 Eisenhower 후보가 壓倒的인 지지로 當選되었다.

이리하여 新年初 그의 執權이 확실히 되자, 12월 2일에 「명예로운 解決」方案을 模索키 위한 不可缺인 節次의 하나로서 韓國戰線을 訪問하였는데, 그에는 次期國防長官의 物望에 오른 Chales E. Wilson 과 參議長 Bradley 원수등이 隨行되었다.

여기서 그가 將次 韓國戰爭을 終結짓기 위하여 어떠한 籌略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同월 5일의 離韓聲明을 통하여 『韓國戰爭의 現事態 改善에 대한 努力과 韓國軍의 증강 및 經濟援助를 계속할 것임』을 다짐함으로써 共和黨政府에 새로운 기대를 걸게 하였다.

이 무렵 U. S. S. R에서는 10월 5일에 제19차 共產黨大會가 개최되었는 바, 그들 黨規約에 의하면 同대회를 3년마다 열기로 되어있으나 이는 실로 13년만에 열린 것이었다.

同大會에서 政治局이 最高幹部會議로 改編되고 Malenkov가 黨제2인자로 浮上되었는데, Stalin이 이른바 「經濟論文」이란 것을 發表함으로써 注目을 끌었다.

이것은 그들 政治體制가 빛은 술한 施行錯誤와 또 그를 수습치 못하였던 矛盾을 糊塗키 위한 宣傳文句로 羅列된 것인데, 그 骨子は 대개 『제3차전쟁은 共產對 民主陣營의 대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民主陣營 상호간의 內訌에 의하여 勃發될 것이며, U. S. S. R은 거기에서 漁夫之利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 『自國의 生産體制가 이제 社會主義에서 共產主義體制로 한 걸음 발전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를 分析하면, U. S. S. R이 民主陣營에 대하여 먼저 戰端을 열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으나, 한편으로는 民主陣營內의 赤色革命分子들의 보다 적극적인 活動을 促求하는 伏線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12월 24일에 Stalin이 New York Times紙 記者 James Reston의 書面質問에 다음과 같이 答辨함으로써 平和攻勢의 前奏를 울리고 나섰다.

『① Eisenhower 政權과 더불어 世界平和를 위하여 協議할 用意在 있으며

② 美·蘇의 和解와 共存의 可能性이 있음을 確信하고

③ 韓國戰爭의 終結을 위한 새로운 外交交渉에도 協力할 用意在 있다.

④ 따라서 美國側이 願한다면 美蘇頂上會談의 개최도 찬성한다.』

이에 대하여, Eisenhower가 將次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이 또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한편 國內의 政局은 「政治波動」과 大統領選舉로 자못 어수선하였다.

즉, 4월 25일에 실시된 地方선거에서 自由黨이 勝利를 거둠으로써 輿論이 점차 政府를 支持하는 쪽으로 誘導되었으나, 아직도 野黨勢가 得勢하였던 國會에서는 次期 大統領선출과 政體의 變更에 대하여 對政府 강경 一邊倒로 나감으로써 對立의 양상이 한층 尖銳化되었다.

與黨인 自由黨과 政府側은 前年부터 現 大統領中心制를 堅持하되, 선거에 있어서 大統領을 國民이 直選토록 하며 國會도 兩院制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反하여 野黨인 民國黨系에서는 이른바 內閣責任制인 「國務院책임제」를 들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百家爭鳴으로 論難이 일게 된 바, 霽上加霜으로 inflation으로 말미암은 天井不知의 物價高가 겹쳐 國會에서 安定勢力을 얻지 못한 政府를 窮地로 몰아 넣었다.

inflation 현상을 부채질한 通貨量의 膨脹實態를 살펴보면, 1951년 7월 1일 현재로 1,220億圓이었던 것이 이해 3월 1일에는 무려 8,120億圓으로 急増되었을 정도였는데, 그 主要原因의 하나가 UN貸上金에 있었다.

따라서 이 貸上金—UN군이 引出한 圓貨—清算문제를 둘러싸고 UN군當局과 政府間에 必然적으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UN군側에서 美國政府에 仲裁를 요청함으로써 3월 15일부터 40일 동안에 걸쳐 韓美 경제회담을 가지게 된 결과, 先拂된 圓貨를 6,000 : 1의 비율로 換算하여 美國側이 조속히 償還할 것을 確約하게 되어, inflation의 抑制에 대한 展望이 多少 밝아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5월 7일에 國會가 기어코 自由黨側의 반대를 무릅쓰고 「國務院責任制」改憲案의 提議를 強行함으로써 이를 公告케 되자, 17일에는 「大統領直選制와 兩院制」改憲案이 다시 政府의 提案으로 公訴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會에서의 이 兩案處理에 대한 歸趨가 注目되던 바, 5월 25일에 突然 釜山—圓에 非常戒嚴令이 宣布되면서 26일에는 現役 國會議員이 間諜혐의로 체포되는 이른바 「政治波動」이 突發되어, 29일에 金性洙 副統領이 辭任하는 등 事態를 極限狀況으로 몰고 갔다.

이로 말미암아 政府側 改憲案을 強制手段으로써 國會에서 通過시키려 한다는 印象이 짙게 되자, 院內의 自由黨側에서의 兩改憲案의 折衷案이라는 이른바 「拔萃改憲案」을 새로이 提議하였는데, 그 骨子는 이러하였다.

『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國會에서 國務委員의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③ 國會는 上下 兩院制로 한다.

④ 大統領은 直選한다.』

이와같이 國會와 政府間에 어느정도 意見의 隔差를 좁힌 이 「拔萃改憲案」은 6월 21일에 國會에 上程되었는데, 大統領선거일을 앞두고도 國會內에서 與野 舌戰을 거듭하다가 國會 解散論을 들고 일어 선 地方議員과 輿論의 壓力속에서 7월 4일에 이 案의 可決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7월 7일에 改定憲法이 公布되고, 이에 따르는 節次로 7월 15일에 正副統領선거법이 다시 國會에서 通過된 다음, 7월 28일에 계엄령이 해제되는 가운데 大統領선거준비에 着手하게 되었다.

8월 5일에 投票를 실시하게 된 바 與黨側에서 李承晩대통령을 單一후보로 推戴한 반면, 野黨側에서는 李始榮, 曹奉岩, 申興雨 등 3인이 亂立하는 自中之亂이 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李承晩대통령에게 桂冠을 안겨 주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副統領선거에 있어서는 自由黨이 公式추천한 李範奭과 李承晩대통령이 running mate로 指名한 咸台永등 與黨圈 7명과 趙炳玉, 錢鎮漢 등 野黨圈 2명을 포함하여 9명의 候補者가 角逐戰을 벌인 끝에 咸台永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여기서 李대통령이 自由黨의 指名후보를 거부하는 양상을 빚게 됨으로써, 선거전 과정에서 李範奭系와 咸台永系 사이에 熾熱한 軋轢을 보이게 되어, 執政黨의 內紛 助長의 兆朕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선거를 契期로 점차 院內에서의 勢力分布에 優位를 占하게 된 自由黨은 이와 같은 內紛 수습에 注力하여 一黨獨走체제를 굳혀 나가게 되었으며, 반대로 苦杯를 마신 野黨側은 이로부터 對政府方針에서 守勢로 전환하고 自派세력을 再結束 整備하면서 時運을 觀望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고비로하여 2개월 동안이나 混沌을 거듭한 政局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차츰 安定을 되찾게 되었다.

第 52 章

東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351高地 戰鬪
2. 154高地附近 戰鬪
3. 854高地 吳 812高地 戰鬪
4. 1090高地附近 戰鬪

第52章 東部戰線의 戰況

要 旨

本節에는 먼저, 東海岸 南江河口의 △351에서 北漢江上流의 通先谷에 이르는, 東部戰線의 地上戰況을 收錄하였다.

1951년 가을에 現戰線이 固定된 뒤로 제1군단(장, 李亨根 중장)과 美 제10군단(장, Williston B. Palmer 중장, 8월 15일 以後 Isac D. White 소장)은 계속하여 北傀 제1, 제3 兩군단 및 中共 제68군(11월 以後 제67군)과 對陣하여, 몇 곳의 前進要衝을 놓고 彼我間에 爭奪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夏季와 秋季에 걸쳐 我軍이 비록 制限된 進擊이나마 北進을 斷行하여 戰線整齊에 부단한 努力을 기울임으로써 東部의 險峻한 山岳地帶가 激戰의 主舞臺가 되다시피 하였던 것이나, 이제 戰線이 明確히 劃定된 이 1952년에 들어서면서는 彼我 共히 攻防의 目的에 改略의 彩色를 加하게 됨으로써 爭奪의 焦點이 中部와 西部戰線으로 옮겨져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東部戰線의 戰況은 前年에 比하여 一 中部와 西部에서의 激化와는 反對로 一 沈滯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의 主戰場을 一瞥하면, 戰線의 最北端이자 最東端인 △351와 蘆田坪부근의 △854 및 △812, 그리고 魚隱山 南쪽의 △1090 등을 들 수 있다. △351에서는 제1군단의 제5사단(장, 張昌國 중장, 8월 1일 以後 金鍾甲 중장)이 7월과 11월에 걸쳐 北傀 제1군단의 제9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며, △854-△812에서도 9월 하순에 美 제10군단의 제8사단(장, 金益烈 중장)이 역시 北傀 제3군단 제45사단의 攻奪企圖를 한 차례 꺾게 된다. 그리고 △1090

에서는 同 제10군단의 제7사단(장, 李成佳 중장, 9월 以後 任忠植 중장)이 10월 중순에 당면의 敵인 中共 제68군 제202사단의 공격을 받아 激戰을 벌이게 되는 것인데, 戰鬪가 모두 我軍의 防守一邊倒라 여기서 前年과 같은 壯快한 局面을 다시 되새기지는 못하였으나, 한결같이 國軍의 鬪魂이 아로새겨진 血戰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期間동안 제1군단에서는 제11사단이 主抵抗線에서 제5사단과 始終 어깨를 같이 하였으나, 그 正面에서는 南江이란 天然의 防欄이 가로 놓여 敵이 同 사단의 戰線을 넘어 보지 못한 까닭으로, 江을 넘나드는 彼我의 수색대가 서로 衝突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美 제10군단에서도 美 제40사단이 11월에 「斷腸의 稜線」의 北端인 △812에서 北傀軍과 한 차례 紛戰을 보았으며 △812에서도 9월 28일에 제8사단의 戰線을 인수한 美 제45사단이 12월 하순에 또한번 北傀軍의 공격을 물리친 바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戰線에 있어서의 戰鬪樣相은 그 地域的인 특성에 비추어 별다른 特徵이나 意義가 浮刻되지 않은 바, 대체로 戰線이 變動없는 가운데 彼我間 큰 규모의 충돌을 서로 迴避한 듯하니, 이는 아마도 지난해 加七峰-「斷腸의 稜線」 전투가 너무나도 激烈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推斷된다.

그러나 11월 8일에 새로 創設을 본 제12사단이 12월 末에 美 제10군단의 右翼을 맡게 된 것은 國軍의 담당방어 正面의 擴張이 시작되었다는 見地에서 特記할만 하다고 할 것이다.

1. 351高地 戰鬪(1952년 7월 10일부터 1952년 11월 10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4, 5 호
상 황 도 제 2, 3, 4, 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중장 李 亨 根	제 106 중박격포중대	장 대위 朴 鍾 元
제 5 사단	장 준장 張 昌 國	지원부대	
	준장 金 鍾 甲	군단 제 99 포병대대	장 중령 黃 鍾 甲
	8월 1일부터	병력; 將校	128명
제 27 연대	장 대령 吳 昌 根	士兵	2,744명
	대령 崔 英 圭	장비; 76mm	무반동총 8정
	7월 20일부터	57mm	무반동총 8정
제 1 대대	장 중령 李 基 煥	3.5"	Rocket포 15문
	소령 崔 奎 瑄	60mm	박격포 45문
	7월 21일부터	81mm	박격포 27문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南 周	4.2"	박격포 10문
제 3 대대	장 중령 金 樞 集	105mm	곡사포 18문
제 35 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HMG	25정
제 1 대대	장 소령 金 龍 煥	LMG	46정
제 2 대대	장 소령 鄭 仁 淳	BAR	125정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敎 明	SMG	16정
대전차공격대대	장 중령 金 亨 根	50mmMG	13정
제 26 포병대대	장 중령 梁 遠 燮	M1 소총	1,634정
敵		軍	
北傀 제 9 사단	장 소장 石 鍾 九	82mm	박격포 11문
제 8 연대	장 대좌 金 澤	120mm	박격포 6문
제 85 연대	장 대좌 李 龍 哲	76mm	유탄포 10문
병력; 480명		122mm	곡사포 3문
장비; 76mm	적사포 10문		

나. 전투 전의 개황

加七峰附近 戰鬪(51. 9. 4. ~10. 14. 韓國戰爭史제7권 참조)에서, 激戰을 치른 제5사단은 陸本作指 제103호(51. 10. 20)에 의거 美제10군단에서 配屬 解除와 同時, 陸本 直轄로서 江原道 襄陽郡 襄陽邑에서 敎育訓練에 들어갔다.

敎育을 마친 사단은 52. 1. 13에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1군단(장, 李亨根 중장)에 配屬, 東部戰線에 投入되어, 제11사단이 全擔하던 Cat線을 分擔하여 軍團右翼방어에 任하였으며, 사단 CP를 高城郡 巨津面 大垆里에 設置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35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7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東海岸線에서 △554에 이르는 主 저항선을 確保케 되었는데 5월 27일에는 襄陽에서, 교육훈련중이던 제36연대가 陸本直轄에서 解除, 原隊復歸됨으로써 이를 左一線 제27연대와 陣地 및 任務를 交代케 하였으며, 제27연대는 사단 예비로 轉換하여 高城郡 水洞面 金水里에 集結, 5週間 부대정비와 特殊訓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東部戰線은 對陣初期(51年度)에 2個사단이 담당하여, 第1次 月比山 戰鬪(7권참조)에서는 首都사단이 이곳의 最高峰인 月比山을 占領確保하였다.

그러나 新編사단인 제11사단 병력으로 51, 11, 17부터 全擔(27km)하게 되자, 이를 固守하지 못하고, 불과 8일(第2次月比山 戰鬪, 7권참조)만에 도로 敵에게 넘겨 주었으며, △351도 한때 빼앗겼다가 다시 奪還確保하게 되었다.

이렇듯 敵이 이곳 最高峰인 月比山을 奪取하여 主軸으로 삼고 東部戰線을 虎視眈眈 노리고 있는 限은, 방어 前面에 天然的 障礙物인 南江이 있다손치더라도, 27km나 되는 廣正面을 제11사단만으로 防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제5사단을 이 東部戰線에 投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곳서 最北尖端에 位置한 △351는 月比山에서 2km 内外의 距離로서 瞰制當할 뿐만 아니라 月比山을 主軸으로 삼고 있는 敵은 이를 連하는 東側稜線에 警戒陣地를 構築하여, △351에 대하여 끊임없는 攻勢를 取하여 왔으므로 首都사단이 이 戰區를 擔當하고 있을 때에는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를 配屬, 이에 對備케 한 탓으로 北傀제9사단의 끈질긴 奪取攻勢때마다 오히려 敵에게 큰 打撃을 주어 擊退시켰는데 사단은 1個대대만으로 △351 警戒에 임하게 하였으니 敵은 이런 취약점을 看破하고 더욱 侵攻이 甚할 것으로 推斷하였다.

한편 北傀 제47사단 제2연대는 南江上流沿岸에 主 저항선을 이루고 南江越硬 丘陵에 있는 △154—△240에 이르는 主峰에 前哨陣地를 두어 제35연대와 제36연대와의 戰鬪地境線의 間隙을 넘보고 侵攻을 伺함으로, 사단은 제36연대로 하여금 水嶺南쪽 △187에 警戒陣地를 強築케 하여 對備시켰다.

이렇게 防守態勢를 갖춘 사단은 이 當時, 편계상의 포병 1개대대와 1개중박격포중대 외에도 제51戰車중대를 배속받았고, 軍단 99포병대대의 일란지원과, 東海近海에 位置한 美極東艦隊와 美제5空軍의 艦砲 및 航空支援도 必要時에는 언제든 받들 수 있어 火力面에 있어서는 敵보다 優勢를 보였다.

그런데 사단의 방어선상에는 두곳의 要衝이 있어 恒時 이곳에서 職責의 실마리가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는 東部戰線에서 最北尖端에 位置한 △351이며 다른 하나는 △154부근이다.

먼저 △351는 傀首 金日成이가 『金剛山을 奪앗기는 限이 있어도 月比山은 確保하라』고 그 重要性을 強調한 月比山과는 東쪽 2km 地點에 있으며, 이 月比山을 거점으로 그를 連하는 東쪽稜線 一帶와 無名高地(月比山 東쪽 2km), 그리고 東北쪽 △148~△187는 △351에서 瞰制當하며 특히 無名高地는 最近距離(1km)에 位置하기 때문에 직접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反面, 사단의 立場으로 보아서는 △351를 起點으로 東側方과 南쪽을 連하는 主峰에 前哨陣地를 構築하고 있어 萬一 同高地를 잃게 된다면 Cat 線에 直接 威脅이 미치게 되어 現東部戰線이 危殆를

38 東部戰線의 戰況

게 된다.

그러므로 同高地는 攻守에 있어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는 까닭에 期必코 固守하여야 할 要衝으로서 休戰 成立時까지 確保의 奪取를 놓고 그칠사이 없이 激戰이 벌어지게 된다.

다음 하나의 要衝은 △154부근 일대로서 이곳은 敵이 南江沿岸의 현주저항선을 防守하는데 있어 橋頭堡의 役割을 함으로써 敵으로서는 絶對確保하여야 할 要衝이기에 師團은 敵을 制壓하고 한편으로는 敵情을 探索하기 爲하여 이곳을 계속 奇襲하여 激戰을 벌이게 된다.

그러므로 현 戰線에서 高城地區戰鬪라 하면 우선 △351戰鬪를 헤아리고 다음으로 △154附近戰鬪를 連想하게 된다.

이에 緣由하여 사단에서는 6월 30일에는 △351 東北方 △187의 敵陣을 擊破하였고 7월 8일에도 德山里 北方 無名高地와 △240를 急襲하여 敵의 陣地를 破壞하였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敵도 제36연대 제10중대가 방어중인 警戒陣地를 侵攻하였으나 即時 擊退된바 있다.

이와같이 敵의 侵透와 戰鬪偵察隊의 出沒이 빈번하였으나 이를 制壓하면서 奇襲戰을 試圖하고 探索戰을 強化하여 주저항선 방어와 作戰上의 主導權을 掌握하려고 注力하면서 사단은 作戰上 必然的으로 要請되는 補給支援을 圓滑히 推進키 爲하여 大部分이 山岳地帶인 現방어선 일대의 道路工事와 補修에도 工兵大隊의 全力을 傾注케 하여 支援態勢의 完備도 아울러 圖謀하였다.

한편 敵은 第2次 月比山戰鬪에서 北隄제9사단 제86연대로 하여금 빼앗긴 月比山을 奪取함으로써 그들이 願하던 高城北方地域의 安全性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한때 奪取하였던 △351를 도로 빼앗기므로서 同高地 北方 無名高地 및 東北方 高地의 敵陣들이 威脅을 면치 못하고 있어 △351는 敵에게 있어 마치 눈에 가시와도 같은 存在이었다.

그러므로 이 高地마저 占據함으로써 高城一帶의 安全性을 確保하면서, Cat線까지 威脅해 보려고 恒時 機會를 노려 奪取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北隄제9사단은 제86연대 제1대로 하여금 △351奪取를 爲한 侵攻을 피하였는데 그중 제2중대는 제9사단의 모범중대로서 이번 △351侵攻을 目的으로 特殊訓練까지 마친 것으로 探知되었으며 其他 中隊도 豫備隊로서 長期訓練을 쌓아 兵力損失도 없는 部隊를 선발하여 投入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렇게 精銳部隊를 선정하여 侵攻을 企圖한 北隄는 7월 6일 제86연대 제3중대와 偵察隊를 溫井里에서 出發시켜 月比山 後斜面을 經由 無名高地(△351北쪽 1km)에 到着, 3일간 이곳에서 滯留하면서 偵察隊와 工兵隊의 一部兵力으로 △351와 無名高地 사이에 埋設된 地雷와 障礙物을 除去하고 地形判斷과 偵察活動을 繼續하다가 7월 10일, 22.00에 後續한 제2중대와 合勢하여 同高地를 侵攻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리고 敵은 이 高地를 奪取確保할 計劃으로 陣地를 補修強築하였고 反擊時에는 △351 北方 無名高地에 이미 배치된 제86연대 제7중대도 即時 投入할것으로 豫想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1차전 (7.10~7.14)

(가) 작전계획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사단 주저항선의 右側戰區를 擔當, 東海岸線에서부터 外面縣까지를 주저항선으로하여 여기에 제2대대만 配置하는동시에, 이와 併行한 前進陣地에는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東海岸 감湖에서 △351까지를 담당케 하고 제1대대를 左一

線으로 하여 △351에 隣接한 △339에서 △263까지를 擔當케 하여 주저항선과 縱深 깊이 二重으로 配置하여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前進陣地의 右一線을 擔當한 제3대대(장, 安敦明 소령)는 東海岸線에서 甘湖 左側南端까지에는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를 배치하고, △208에 제11중대를, △351 東쪽 無名高地에 제10중대, △351 主峰에는 제9중대를 배치하여 경계에 입하게 하였으며, 左一線을 擔當한 제1대대(장, 金龍煥 소령)도 △351 南쪽 △339에서부터 △268까지에 제3중대를, △345에 제2중대를, 그리고 △263에 제1중대를 각각 배치하여 경계임무를 擔當케 하였다.

한편 연대는 사단에서 배속받은 제106중박격포중대 1個小隊의 砲陣을 大康里附近 溪谷에 두어 제3대대를 우선 지원케 하면서, 甘湖 北方 △148와 △187의 敵을 制壓케 하고, 松峴里에 砲陣을 갖춘 사단 제26포병대대의 地境里 및 그 南쪽 丘陵에 位置한 제51戰車중대 및 軍단제99포병대대의 일반지원을 받아 月比山을 連하는 敵陣과 △351 北方 및 東北方의 敵을 牽制케 하였으며, 東海近海에 位置한 美極東艦隊의 艦砲와 美제5空軍의 航空支援도 必要時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火力支援에 있어서도 有利한 態勢를 갖추어 나갔다.

그런데 △351은 제2차 月比山戰鬪(제7권참조)에서 한때 敵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奪還確保中이긴 하지만 月比山을 主陣으로 한 敵에게 恒時 威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月比山과 東側無名高地(2km)에 配置된 北傀제86연대 제7중대는 最短距離에 對峙하고 있어 小火器 支援만으로도 侵攻이 可能하였으므로, △351와 그 北方無名高地 사이에는 對人地雷地帶를 形成하는 同時에 基本鐵條網을 二重으로 架設하여 敵의 侵透를 阻止케 하였으며, 또한 △351에서 그 東北方 敵의 主接近路上에도 地雷를 三重으로 埋設하여 △148—187의 敵 侵透에 對備케 하였다.

이와같이 防守態勢를 갖춘 연대는 奇襲과 戰鬪偵察活動을 強化하였다.

그리하여 6월 30일에는 포로획득과 敵陣破壞를 目的으로 제2대대 1個중대 兵力으로 4개 奇襲組를 編成, △351 東北方의 △187를 夜間奇襲하여 射殺 13명 敵陣破壞 12個所의 戰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7월 8일에도 제2대대 제2중대(장, 崔忠煥 대위)로 하여금 德山里北쪽 無名高地 및 △240의 敵警戒陣地를 擊破 26명을 射殺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敵의 機先을 制壓하면서 作戰上 主導權 掌握에 注力하였는데 7월 10일 北傀 제86연대는 大隊規模의 兵力을 投入하여 이날 22.00 暗夜를 利用 △351에 大舉侵攻을 敢行함으로써 一大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 작전실시

7월 10일 : 이날 대대는 제11중대(장, 安世出 중위)의 一部兵力으로 戰鬪偵察隊를 編成, △351 東北方 無名高地(1.5km)를 奇襲, 포로를 획득하는 동시에 敵陣을 擊破케 하였다.

이에 제11중대는 將校 4명 士兵 72명으로 戰鬪偵察隊를 編成하여 中隊先任將校로 하여

금 指揮계 하여 20.30에 目標 無名高地를 向하여 機動시켰다.

이리하여 戰鬪偵察隊는 敵陣 깊숙히 侵透해 들어갔다.

이 무렵인 22.30에 △351를 警戒中이던 제9중대(장, 鄭仁軾 중위) 埋伏組로부터 數未詳의 敵兵力이 前方 無名高地에 나타났으며, 目下 △351쪽으로 進出中이라는 急報가 있자 잠시 후 △351 全域에 걸쳐 82mm, 120mm 迫擊砲와 76mm, 122mm 野砲의 集中射擊을 받게 되었다.

이때 敵이 △351 一帶에 퍼부은 砲彈數는 무려 2,000餘發에 達하였다고 하는 바, △351에서 警戒中이던 제9중대는 이러한 集中射擊을 받아 負傷者가 續出하여 打撃이 甚한데다가 通信마저 杜絶되어 한때 困境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런 狀況속에서 大隊規模의 敵이 △351 東北쪽과 西北쪽에서 兩面攻擊을 시작함으로써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強力한 集中射擊과 함께 敵의 急襲을 받게 된 中隊는 全火力으로 惡戰苦鬪를 거듭하면서 敵을 阻止하려고 하였으나, 破壞된 陣地와 續出하는 戰傷者로 말미암아 敢當키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대에 緊急支援을 要請하였는데 대대는 全兵力을 前進陣地에 配置하였고 △208의 제11중대 一部兵力 마저 △351東北方 無名高地에 戰鬪偵察隊로 機動시킨 然後인 지라, △351에 推進시킬 兵力이 없었다.

이에 대대장 安敎明 소령은 연대에 支援을 要請하는 同時에 機動中인 제11중대의 戰鬪偵察隊를 △351로 轉進케 하고 △351東側 無名高地의 제10중대로 하여금 支援射擊을 繼續케 하면서 現제9중대의 兵力으로 △351를 固守케 하여 敵의 侵攻을 阻止하라고 命하였다.

이로부터 제9중대는 인접한 제10중대의 지원화력에 힘입어 敵의 強襲을 阻止하였으나 敵은 左右 兩側面에서 突擊을 敢行하여 人海戰術으로써 肉迫하였으니 이미 極甚한 打撃을 받은 중대의 小數兵力으로서는 血戰에 血戰을 거듭하였지만 時間이 經過할수록 衆寡不敵이라 陣地를 더 支撐할 수 없었다.

중대는 11일 01.00에 陣地를 敵手中에 넘겨주고 △351南麓으로 隨意撤收하여 hol어진 兵力을 수습하여 急編陣地에서 戰列을 가다듬었다.

대대는 이렇게 △351를 敵에게 奪取 當하자 제11중대의 一部兵力(戰鬪偵察隊)이 △351南麓에 到着하는 即時로 再編中인 제9중대와 合勢한 攻擊梯隊를 急編케 하여 01.30에 砲支援下에 逆襲을 斷行케 하였다.

이에 따라 攻擊梯隊는 제10중대와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逆襲하였으나 △351頂上은 敵이 大隊兵力으로 陣地를 補強하고 側方火力據點까지 設置하여 그 交叉火網으로써 中隊의 接近을 頑強히 阻止하였으므로 다시 △351南麓으로 撤收하고 말았다.

7월 11일: 전날 敵은 △351를 夜間攻擊으로 奪取한 後 이를 繼續確保코자 陣地를 補強

하면서 側方火力據點까지 完備하여 逆襲에 對備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은 敵이 단일 戰況이 不利할 境遇에는 △351北方 無名高地에 配置된 北德제86연대 제7중대를 投入할 수 있을 것이므로 現제3대대의 一部兵力만으로서 逆襲에 成功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였으나 豫備兵力을 保有치 못한 實情이라 03.00에 兵力增員을 사단에 要請하는 同時 제3대대에 現位置에서 攻擊梯隊를 再編케 하여 反擊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이와 같이 戰勢가 急迫하자 사단장 張昌國준장은 주저함선 後方에 控置한 사단 수색중대를 03.30 제35연대에 配屬하고 사단 예비대인 제27연대 1個大隊도 配屬 補強하여 △351를 一舉에 奪還할 目的으로 軍團長 李亨根중장의 決心을 얻어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 제63호(7.11.08.00)를 下達하였다.

- 『① 제35연대는 7.11.10.25부로 제27연대의 1個大隊를 統合指揮하여 目標 △351를 攻擊하여 奪還하라.
 ② 제27연대는 同時부로 1個大隊를 제35연대에 配屬하라.
 ③ 美極東艦隊 및 美제 5空軍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6포병대대는 제35연대를 우선지원하라.
 ⑤ 제106중박적포중대는 1個小隊를 增強하여 제35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通信은 現行 S0I에 의거한다.
 ⑦ 師團指揮所는 大峯里에 位置한다.』

以上과 같은 사단작명을 받은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배속받은 사단수색중대를 08.00까지 Cat 線에 轉進시키고 Cat 線의 제6중대를 △208에 急進케 하는 同時 제3대대에 배속하여 攻擊梯隊를 增強하는 한편 배속된 제27연대 제2대대도 주저함선에 推進시켜 現在 방어중인 제2대대와 陣地를 交代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1)는 예비대로서 △234에 轉進시켜 제3대대의 反擊을 掩護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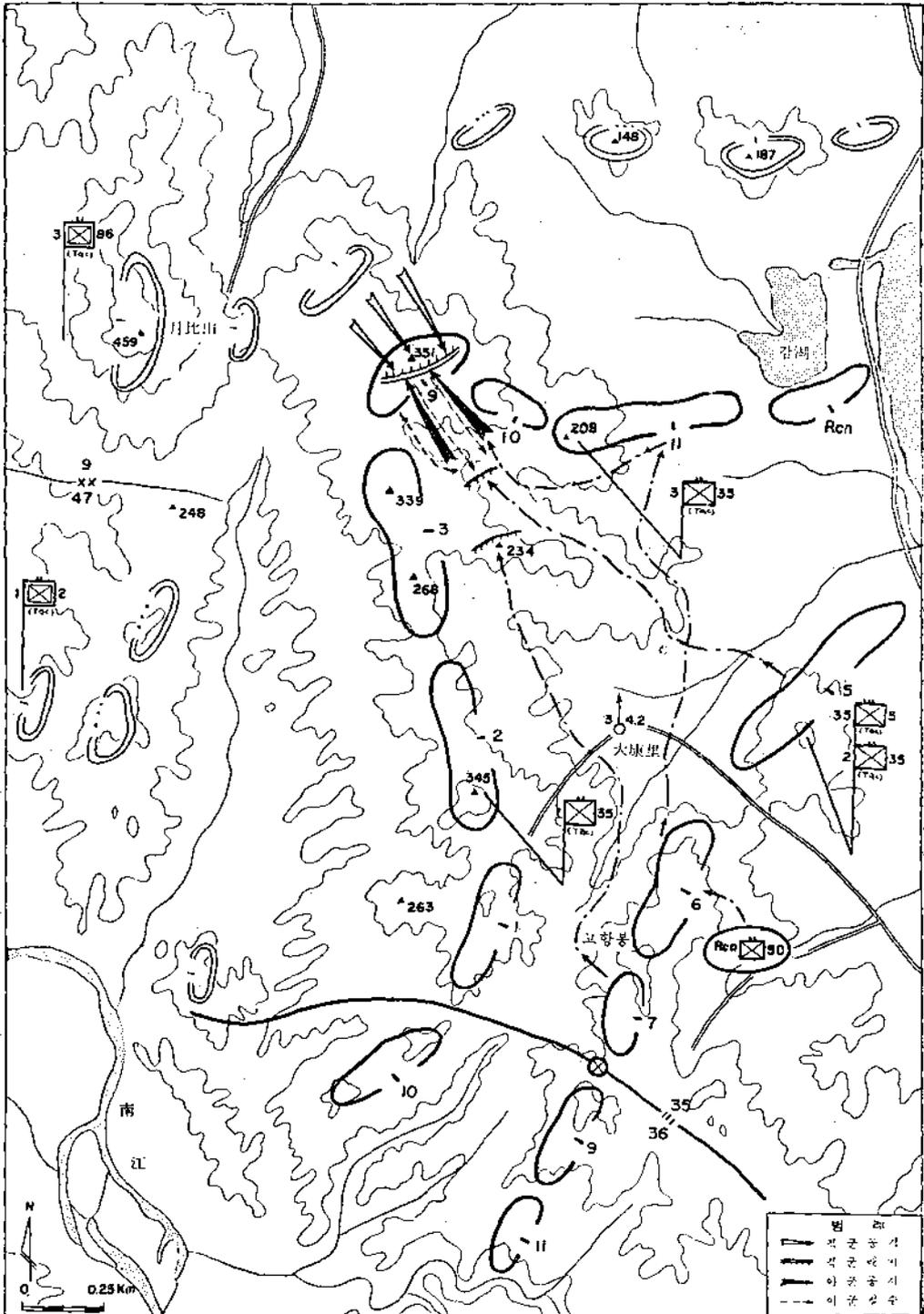
1. 이러한 연대 작전계획에 따라, 제3대대(장, 安致明 소령)는 배속받은 제6중대를 △208의 西麓下端에서 攻擊梯隊를 掩護케 하고 △208의 제11중대 殘留兵力을 △351南麓에 進入시켜 攻擊梯隊인 제9중대와 함께 反擊準備를 갖추게 하였으며 隣接 제10중대도 現陣地를 確保하면서 火力으로써 공격을 지원케 하였다.

그리고 제9중대는 東쪽稜線을 迂回하여 東側方에서 突進케 하고 제11중대는 西쪽 稜線을 迂回 西側背에서 挾攻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9 제10 兩중대는 14.15에 LD를 躍進하여 東西 兩側方을 迂回하면서 稜線을 따라 敵陣 깊숙히 쳐들어갔다.

그런데 이무렵 敵도 時間的 餘裕를 얻어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火力據點을 堅固히 補完

◇ 삼황도 제 2 호 敵의 侵攻 및 제 35 연대의 反擊 (7.10-11)



하고 繼續 兵力増員을 피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제9 제11 兩중대가 음폐물도 없는 不利한 地形을 따라서, 밤도 아닌 白晝에 비록 底層雲이 깔린 호린 날씨라 하더라도, 山頂의 鑿속에서 敵이 뻗히 내려다 보면서 노리고 있는데, 그리고 빗발치듯 쏟아지는 敵의 彈着의 間隙을 누비며 進擊하여 나가기란 그야말로 決死的인 前進이 아닐수 없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寸步를 옮겨 手榴彈 投擲距離까지 接近한 攻擊梯隊는 支援砲의 延伸과 同時에 突擊을 敢行코자 하였으나, 砲의 延伸射擊이 시작되면 교묘하게 後斜面에 避했던 敵은 前斜面으로 튀어나와 執拗하게 버틸뿐 아니라, 敵의 側方火力과 特히 척코식 LMG射界에 노출되어 血戰을 거듭하였지만 결국 肉迫戰은 挫折되고 말았다.

2. 戰況을 銳意注視하던 연대장 高白圭 대령은 晝間에 있어서의 奪還作戰은 兵力損失만 累増할 뿐 容易치 않을 것으로 判斷을 내리고 21.00에 夜間 突擊戰을 決行키로 하여 16.30에 攻擊梯隊를 △351 南麓으로 다시 撤收 再編케 하였다.

그리고 17.00에는 배속된 제27연대 제2대대와 陣地交代를 마치고 △234에 轉進한 제2대대(-1)의 제5중대를 △351西南쪽 下端에 配置케 하고 제7중대를 △234 北쪽 稜線에 配置케 하여 敵의 夜間侵透에 對備시켰으며 주저항선의 사단 수색중대를 주저항선 最右端인 제106重迫擊砲中隊 配置線까지 二重으로 配置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各種支援砲로 하여금 攪亂射擊을 繼續토록 하였다.

이렇게 연대의 夜間攻擊計劃이 緻密히 進行된 가운데 제3대대(장, 安敎明 소령)는 △351 南麓에서 戰列을 再整備하고 있는 제9 제11 兩中隊에 夜間攻擊準備를 갖추게 하여 21.30까지 LD로 進入케 하였으며 배속된 제6중대도 △208에서 21.30에 LD로 推進시켜 攻擊梯隊를 增強하였다.

그리고 제9 제11 兩中隊는 LD에서 正面을 直衝突破케 하고 제6중대는 西쪽稜線을 迂回하는 측시로 西側背에서 急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9 제11 兩中隊는 21.30에 艦砲와 各種砲의 支援射擊이 작렬하는 가운데 勇躍 攻擊開始線을 出發한 다음 正面을 直衝 進擊하였는데 어두운 밤이라 敵情把握이 어려웠으므로 側方警戒를 強化하면서 敵陣으로 닥아갔으며 제6중대도 LD에서 西쪽을 迂回하여 西側方의 險峻한 稜線을 따라 敵陣을 壓縮하였다.

이리하여 寸土尺地를 分據키 어려운 깊은 밤 山등성을 타고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近接한 攻擊梯隊는 強襲과 突擊을 試圖하기 무려 3시간 血鬪를 거듭하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되풀이 하였지만 敵은 多發銃을 亂射하며 執拗하게 抗拒하고 더욱 側方 火力을 制壓 하지 못하여 突擊戰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연대장은 이러한 戰況속에서는 時間이 갈수록 兵力 損失과 疲勞만 겹칠뿐 戰勢에 별다른 進展이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01.30에 제3대대의 攻擊을 中止시켜, 원위키로 철수케 하였

으며 未明에 再攻擊을 決行케 하였다.

3. 제3대대는 △351 南麓에서 攻擊梯隊를 再編하고 給食과 休息을 取한 다음 戰列을 整備하면서 攻擊時間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04.00에 攻擊을 알리는 信號가 오르자 전날밤 攻擊時와 같이 제9, 제11 兩중대는 正面을 直衝 突破케 하고 배속된 제6중대는 西側稜線을 迂回하여 西側背에서 挾攻케 하였다.

그런데 山谷에는 濃霧가 뒤덮여 咫尺을 分擘키 어려웠으니 비록 攻擊에는 有利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敵情把握이 더욱 어렵기만 하였다.

그러나 攻擊梯隊는 길은 濃霧를 헤치면서 敵이 掩體壕와 散兵壕에서 亂射하는 火力을 무릅쓰고 突擊線까지 이르는에 成功하였다.

그리하여 △351 東쪽 稜線의 突擊線에서 突擊準備를 갖추던 제9중대장 鄭大尉는 先頭에서 突擊信號를 울리며 敵陣으로 뛰어들어갔다.

敵彈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敵陣속을 뛰어드는 中隊長의 뒤를 이은 兵士들도 손살같이 突進하였으며, 右側火力據點에 수류탄을 퍼부어 파괴하고 좌측우들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敵陣에 肉迫하니 그 氣勢에 눌린 敵은 銳氣가 꺾인듯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一部陣地를 占領하자 餘勢를 몰아 主峰을 奪取하려고 陣頭에서 白兵戰을 지휘하며 △351 頂上을 치달던 中대장 鄭대위가 敵彈에 맞아 壯烈하게 戰死하고 뒤를 따르던 小隊長과 分隊長들도 戰傷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猝地에 指揮官을 잃은 中隊兵力은 同高地의 一部陣地를 占領하였지만 主峰을 奪還치 못하여 더 支撐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鮮血로 占領했던 陣地를 敵에게 넘겨주고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한편 右一線에서 제9중대와 併進하여 突擊線에 進出した 제11중대와 西側背에서 挾攻한 제6중대는 한걸음 뒤늦게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高地 後斜面에서 北傀 제86연대장 金澤 대좌가 直接督戰하는 督戰隊의 強壓으로 敵은 決死 抗拒하고 나섰으며 또 直射火器도 더욱 熾烈하게 亂射함으로 말미암아 이 火網을 뚫지 못하여 모처럼의 好機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연대는 제3대대를 △208 西側稜線 下端에 撤收시켜 急編陣地를 마련케 하여 戰列을 再整備케 하였다.

7월 12일 : 제35연대는 10일, 11일 兩일간에 걸쳐 5회나 熾烈한 反擊戰을 벌여 射殺 102명, 포로 1명, LMG파괴 2정, 차량파괴 2대의 戰果를 얻은 反面, 戰死 8명, 戰傷 69명의 損失을 보았으나 奪還作戰은 아무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無爲로 끝났다.

이에 사단장 張昌國준장은 戰況을 注視 銳意檢討한 結果 現 주저항선의 제35연대만으로 서는 주저항선의 방어임무를 遂行하면서 탈환작전을 繼續敢行하여도 成功할 수 없을 것으로 判斷하고 사단 예비대인 제27연대를 投入, 同高地를 奪還할 決心을 세웠다.

그리하여 사단작명 제63호 수정 작전지시 제1호(7.12. 11.00)를 下達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27연대는 下記에 의하여 현재 제35연대 正面 △351의 敵을 擊滅하고 同高地를 占領하라.

㉠ 1個大隊로서 △351를 攻擊 12일 日沒前까지 占領後 再編成 配置를 完了하라.

㉡ 作命 제63에 依하여 제35연대에 배속된 1個大隊를 7. 12. 11.00부로 배속해제와 同時 原隊復歸시키라.

㉢ 1個大隊는 主抵抗線 방어에 임하라.

㉣ 제35연대의 攻擊梯隊를 指揮하여 豫備隊로 使用하라.

② 제35연대는 現主抵抗線을 繼續 방어하면서 제27연대 공격을 지원하라.

③ 제26포병대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④ 제106重迫擊砲中隊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⑤ 다음 事項을 嚴守하라.

㉠ 兵力의 逐次使用을 禁하며.

㉡ 3.5"Rocket砲 及 無反動銃을 最大限 使用하라.

⑥ 12일 11.00 이후로 사단 前方 CP를 猪津里에 推進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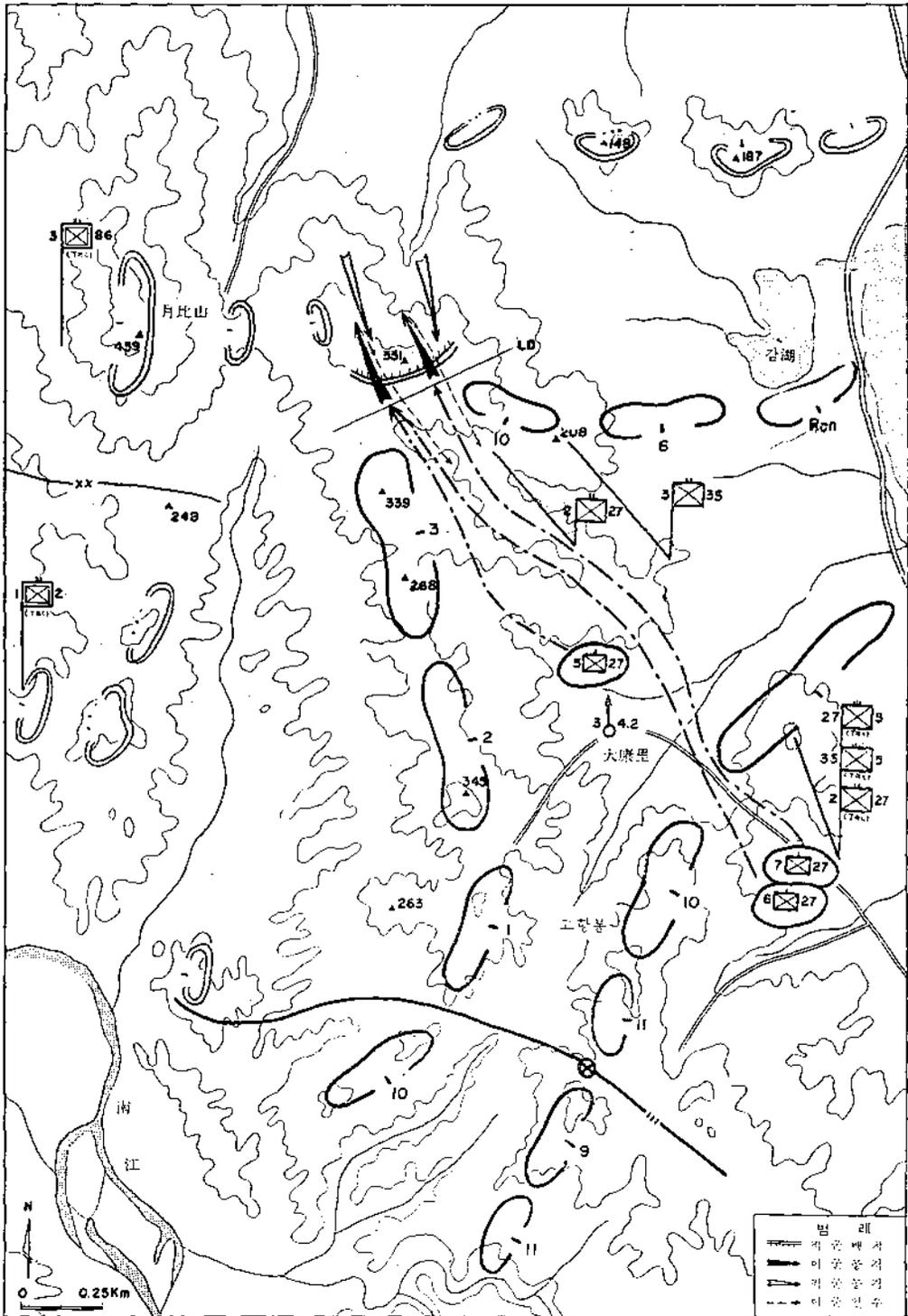
이와같은 要旨의 作戰指示를 받은 제27연대(장, 吳昌根 대령)는 제35연대에 配屬되어 Cat線에 配置중인 제2대대를 10.30에 原隊復歸시켜 攻擊梯隊로서 △351 南麓에 轉進케 하여 攻擊計劃을 樹立토록 하고 敎育중인 제3대대(장, 金椿集 중령)를 주저항선에 進入시켜 제2대대의 방어진지와 임무를 引受케 하였으며 配屬받은 제35연대 제3대대(제9, 제11 중대 84명)를 △208의 西쪽(300m)稜線下端에 推進시켜 攻擊梯隊를 掩護케 하였다.

連日 흐리던 날씨도 淸明해지고 안개도 걸려 美 제5空軍의 航空支援이 活發하여져 F51戰爆機가 △351 一帶의 敵陣을 몇차례씩 強打하여 敵陣地를 파괴하였다.

이렇게 航空支援이 活發하여지자 將兵들의 士氣는 한결 드높아졌으며 전사단의 緊張도 그 度를 더해간 故로 敵 122mm 野砲와 76mm 野砲의 砲彈이 實새없이 集中하는 연대 前方指揮所에는 사단장 張昌國준장을 비롯하여 부사단장 林富澤대령, 그리고 G-2(趙瑛九 중령), G-3(卓有則 중령)參謀들의 不眠不休의 活動이 계속되었고 한편 軍團長 李亨根중장도 軍團參謀를 帶同하고 연대 OP에서 戰況을 지켜보며 直接 指揮에 나섰다.

1. 제2대대(장, 李南周 중령)는 이렇게 緊張된 雰圍氣속에서 △351의 奪還攻擊計劃을 樹立하였는데 제7중대는 11.30에 現주저항선에서 出發하여 △208西쪽 下端을 經由 △351東南쪽 LD 右一線에, 제6중대도 같은 時間에 出發하여 제7중대의 右側을 併進하며 亦是 △208의 西쪽下端을 經由 LD 中央一線에 16.30까지 各各 進出케 하고, 제5중대는 12.10에 現地를 出發 △339 東北溪谷을 通過하여 16.30까지 △351 西南쪽 攻擊開始線 右一線에 展

◇ 상황도 제 3호 제27연대의 공격(7.12)



開토록 하였다.

그런데 16.30 攻擊開始時間이 닥아오자 3隻의 美極東艦隊의 艦砲와 제99砲兵大隊(장, 黃鍾甲 중령) 제26砲兵大隊(장, 梁遠燮 중령) 제106重迫擊砲中隊(장, 朴鍾元 대위)의 觀測將校가 大隊 OP에서 直接觀測하는 各種支援砲의 攻擊準備射擊이 炸裂하는 가운데 제7중대(장, 千觀勳 중위)는 攻擊開始線을 躍進하여 東쪽을 迂回하면서 東部稜線을 따라 3部稜線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부터 敵의 火力은 더욱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中隊主力은 쏟아지는 敵彈의 間隙을 뚫고 一步又一步 前進하여 突擊線에 닥아 갔다.

이리하여 敵陣에 接近해 갔지만 接近할수록 完全露出되어 敵의 側方 LMG와 自動小銃의 火網을 突破치 못하여 頓挫狀態에 빠지게 되었고 제6중대(장, 朴昌憲 중위)는 正面을 直衝하여 6部稜線까지는 敵의 砲火를 무릅쓰고 進出 하였으나 이 역시 敵의 自動火力에 부딪쳐 더 進出치 못하였는데 이때 西쪽稜線을 迂回한 제5중대(장, 金仁奎 중위)는 險峻한 地形과 甚한 砲擊을 무릅쓰고 西側背까지 進出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 △351는 戰爭初期에는 樹木이 茂盛하였고 巖石이 갈려 磼물들이 많았으나 이곳이 東部戰線에서 熾烈한 激戰場으로 變하게 되자 空中爆擊과 간단없는 彼我的 砲擊으로 山頂에 이를수록 完全 焦土化되어 발목에서부터 무릅까지 沙塵에 파묻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 △351를 △350라고까지 呼稱하게 되었다”고 제2대대장이었던 李南周 중령은 그 證言에서 이렇게 添言하였으니 그 當時 이 山頂에 얼마나 많은 砲彈이 떨어졌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焦土化된 山중턱에 밀착하여 彈着의 間隙을 누비며 突擊線에 다다른 제5중대원들은 온 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이런것은 아랑곳 없이 突擊準備를 서둘러 突擊을 敢行코자 하였으나 敵은 山頂 掩體壕와 散兵壕에서, 더구나 攻擊梯隊를 夕陽이 유난히 비쳐주어 敵은 旣히 내려다보며 일제히 彈網을 構成하여 射擊을 퍼붓는데는 죽음을 覺悟하고 이곳까지 進擊한 中대원들도 肉迫할 길이 막히고 말았다.

2. 大隊는 제5중대의 突擊까지 挫折되자 18.00에 攻擊梯隊를 現戰線에서 戰列을 다시 整備케 하여 再攻擊準備를 갖추게 하면서 航空近接支援을 緊急히 要請하였다.

이에 18.50부터 두차례 F51戰爆機의 近接支援으로 敵陣에 機銃射擊을 加하였는데 이때에 一部航空機는 攻擊梯隊를 敵으로 誤認하고 機銃射擊을 加하여 적지않은 損失을 보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航空近接支援과 때를 맞추어 攻擊을 試圖하려던 計劃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

大隊長 李南周 중령은 航空近接支援이 如意치 못하여 損失만 보게 되자 自力으로써 敵의 火力據點을 撲滅키로 決心하고 제5 제7兩中隊에 特攻隊를 急編케 하여 19.30에 이리하여 敵 側方 火力據點을 파괴케 하였다.

48 東部戰線의 戰況

이리하여 제5, 제7 兩 중대에서 각 7명씩 差出된 특공대원들은 2個組로 나눠 重火器中隊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東西兩側方 稜線斜面을 따라 敵陣으로 短兵 突入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敵은 山頂에서 射界에 노출된 特攻組의 進出을 火力으로 頑強히 阻止하였으므로 火力據點을 파괴하려던 特攻組의 短兵突入도 無爲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듯 敵의 執拗한 抗拒속에서 제2대대는 不屈의 鬪魂으로 10餘時間 突擊과 強襲을 거듭하면서 血戰을 繼續하였지만 同高地를 奪還치 못하고 적지않은 兵力의 損失만 보게 되었다.

이에 제27연대(장, 吳昌根 대령)는 未明攻擊에서 期必코 奪還할 計劃으로 제2대대를 LD後方に 撤收시켜 給食과 休息을 取하면서 部隊를 再整備케 하여 未明 攻擊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7월 13일 : 전날 제27연대는 제2대대로써 4,5회에 걸친 攻擊을 反復하였지만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血戰의 보람도 없이 戰勢에 아무 進展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연대는 未明攻擊을 計劃하여 배속받은 제35연대 제3대대(一部兵力 84명)를 掩護部隊로서 제2대대 OP부근인 LD南쪽 0.2km에 推進케 한 다음 直接 支援射擊에 임하게 하고 제2대대를 현 位置에서 攻擊準備를 갖추게 하여 04.20에 △351를 攻擊케 하였다.

1. 제2대대는 제35연대 제3대대 兵力이 04.10에 到着하자 81mm 迫擊砲, 75mm 및 57mm 無反動銃의 支援射擊과 엄호부대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04.20에 勇躍 LD를 出發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는 東쪽稜線을 따라 7部稜線에 進出하였으나 如前히 熾烈한 敵의 火力에 부딪쳐 頓挫狀態에서 銃擊만을 繼續하게 되었다.

한편 西쪽을 迂回한 제5, 제6 兩中隊는 안개가 짙게 깔린 험한 西쪽稜線을 타고 퍼붓는 敵의 彈雨속을 헤치며 西側背 깊숙히 壓縮해 들어갔다.

이리하여 突擊線에 이른 제5, 제6 兩중대는 一擊에 同高地를 奪還하려고 突擊準備를 갖춘 다음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며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 제5중대의 勇敢한 士兵 5명이 수류탄을 빼들고 左側方 火力據點을 向하여 질풍같이 突進하여 수류탄을 던졌다.

일시에 수류탄의 세례를 받은 敵火力據點에서는 폭음과 함께 火焰을 올리며 파괴되었다.

그러나 수류탄을 던지던 士兵들은 多發銃의 集中射擊을 받아 壯烈하게 戰死하고 말았다.

戰友가 敵陣앞에서 敵彈에 맞아 쓰러지는 光景을 본 제5, 제6 兩중대 主力은 치밀어 오르는 敵愾心에 고향을 지르며 敵陣으로 突進하여 白兵戰을 敢行하고 東側方에서 銃擊戰을 벌이던 제7중대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敵陣으로 突進끝에 肉迫함으로써 △351 頂上에서는 阿鼻叫喚의 血戰이 벌어져 鮮血로 물드렸다.

이렇게 10여분 동안 서로 얽히어 激突과 血闘로써 短兵接戰을 벌인 攻撃梯隊는 同高地를 奪還할 氣勢를 보이는 듯 하더니 敵의 多發銃과 自動小銃의 集中射擊을 받아 많은 死傷者를 냈을 뿐만 아니라 陣頭에서 指揮하던 제5중대장 金仁奎 중위와 제7중대장 千광복 중위가 重傷을 입게 되어 08.30 不得已 물러서게 되었다.

이렇듯, 무려 3시간에 걸친 激戰에서 一進一退의 熾烈한 血戰을 벌이며 한때 △351를 奪還할 氣勢를 보이던 攻撃梯隊는 제5, 제7 兩중대장의 重傷으로 好機를 逸失하자 大隊는 일단 攻擊을 中止시키고 다시 △351 下端까지 撤收시켰다.

이에 연대는 제2대대에 再攻擊準備를 갖추게 하는 한편 제5중대장에 제2대대 作戰官 柳東彬 중위를, 제7중대장에 情報官(姓名未詳)을 現地에서 任命指揮케 하고 부대대장 朴能裕 대위로 하여금 제6중대와 LD後方에서 火力支援케 하였던 제35연대 제3대대 殘留兵力을 統合指揮케 하여 攻擊梯隊를 補強시키는 동시에 09.30에 △351를 다시 攻略하라고 命하였다.

2. 제2대대(장, 李南周 중령)는 攻擊梯隊의 各中隊長을 交替任命받았으며 攻擊梯隊를 補強하자 LD 右一線에서 제5중대와 제7중대를 連結하여 躍進케 하고 副大隊長 朴大尉가 統合指揮하는 제6중대와 제35연대 제3대대의 一部兵力을 左一線에서 突進케 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敵도 一部 파괴된 陣地를 補強하면서 月比山쪽에서 兵力增員을 얻은 것으로 推斷되었으며 한편 122mm野砲와 82mm迫擊砲의 砲擊을 加하여 攻擊梯隊를 威脅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攻擊梯隊는 09.30에 艦砲支援과 各種 支援砲 그리고 重火器中隊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勇躍 攻擊開始線을 出發하였다.

제5, 제7 兩中隊는 LD를 通過한 다음 東쪽稜線을 따라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接近함으로써 熾烈한 수류탄전을 벌였지만 敵의 頑強한 저항과 直射火力에 부딪쳐 膠着狀態에 빠졌고 西쪽 稜線을 타고 進擊하여 西側背까지 이른 제6중대와 제35연대 제3대대의 一部 兵力은 副大隊長 朴大尉의 陣頭指揮로 突擊戰을 하려고 하였지만 亦是 突擊線에서 敵의 執拗한 抗拒와 側方에서 亂射하는 交叉火網을 뚫지 못하여 挫折되자 10.30 3部稜線까지 撤收하여 戰列을 整備한 然後에 11.00 艦砲와 各種砲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또다시 突擊戰을 決行하여 敵陣 50m까지 突進한 攻撃梯隊는 수류탄전을 展開하였으나 敵은 增員된 兵力으로 頑強히 抗拒할뿐만 아니라, 敵의 集中火網을 突破하지 못하여 熾烈한 銃擊戰만을 되풀이할 뿐 突擊戰을 敢行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攻擊梯隊를 同高地 南麓 LD附近에 撤收시켰다.

3. 제27연대는 攻擊을 決行한지 무려 20餘時間, 8次에 걸친 攻擊으로 熾烈한 激戰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敵은 執拗한 抵抗과 火力으로 寸土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戰勢의 進展도 보지 못한채 兵力損失도 적지 않았고 그에 極度로 疲勞에 걸친

兵力으로 繼續 攻擊을 敢行한다는 것은 死傷者만 累增될뿐 同高地奪還은 어렵다고 判斷을 내린 연대장은 12.30에 제7중대로 하여금 現戰線을 確保케 하고 其他 兵力은 LD後方으로 일단 철수시켰다. 그런데 이때 撤收된 兵力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부 대	제 27 연 대			제 35 연 대			총 계
		제5중대	제6중대	제7중대	제6중대	제9중대	제11중대	
장	교	3	3	3	1	2	2	14
사	병	13	54	24	2	4	5	102
	계	16	57	27	3	6	7	116

이로 미루어 보아 이 戰鬪의 樣相과 또 이 戰鬪가 얼마나 熾烈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대가 얻은 戰果는 射殺 11명에 未確認 殺傷 113명이었다.

이와같이 적지 않은 兵力損失을 본 제27연대는 攻擊梯隊인 제2대대의 兵力增員이 不可避하였으나, 제3대대는 現主抵抗線 방어에 任하고 있으며, 제1대대는 154高地의 奇襲戰(7월 9일, 次節 參照)에서 意外에 큰 兵力損失을 보고 現在 兵力補充中이므로 投入할 兵力이 없었다.

師團은 이와같은 제27연대의 現狀況을 勸察하고 또한 急迫한 戰況을 綿密히 分析한 結果, △351 奪還作戰任務를 제35연대에 다시 부여키로 斷案을 내력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 命令 제63호 修正作戰指示제2호(7.13 13.00)를 下達하였다.

『① 제35연대는 7.13. 13.00附로 現在 投入된 제27연대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作命 제63호에 依한 作戰任務를 遂行하라.

② 제27연대는 제35연대에 7.13 13.00附로 投入된 兵力을 引繼하라.

③ 제26포병대대는 砲1門當 1時間에 48發을 射擊 제35연대를 지원하라.

④ 제106重迫擊砲中隊는 砲1門當 1時間에 20發을 射擊 제35연대를 지원하라.

⑤ 제99보병대대는 砲1門當 1時間에 24發을 射擊 제35연대를 지원하라.

⑥ 工兵大隊는 炸藥방사기조 및 파괴반 각 5조씩 편성 제35연대에 배속하라.』

이러한 作戰指示와 아울러 攻擊支援射擊에 있어서

첫째, 艦砲와 航空支援의 適時 適用과,

둘째, 正確한 砲兵의 火力支援을 最大限으로 받으며,

셋째, 重火器中隊의 適切한 運用으로써 敵의 砲陣地 破壞와 敵後方 遮斷, 그리고 攻擊 支援射擊과 延伸射程의 區分을 正確히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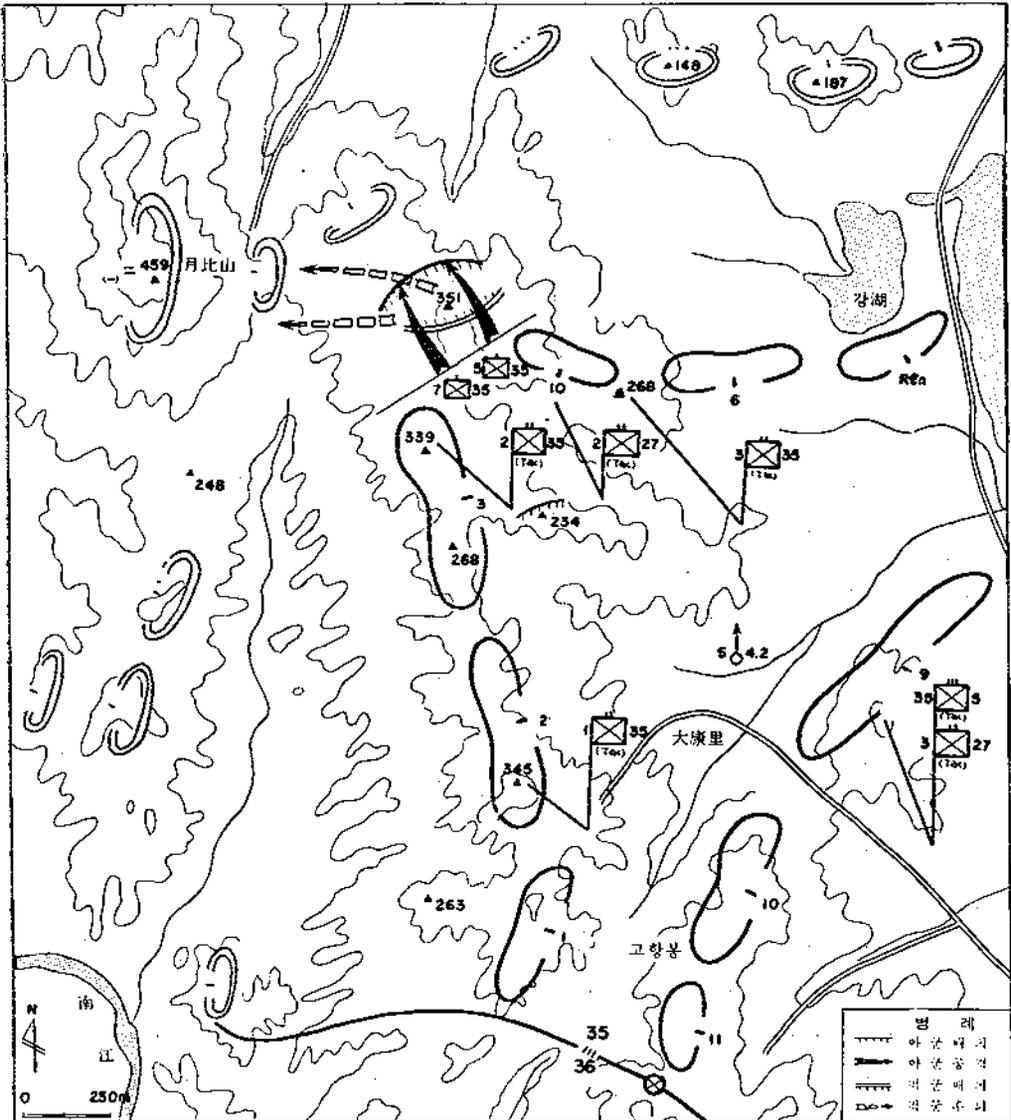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은 이상과 같은 作戰指示를 다시 받게 되었으니, △351를 敵에 게 빼앗긴 責任도 크지만, 11일 作命제63호에 따라 제27연대의 1個大隊兵力까지 增員을 받아가지고도 奪還作戰에 成功하지 못하고 △351奪還任務를 제27연대에 引繼하게 된 雪辱

을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는 決意를 다시금 다짐하면서 同高地 攻擊計劃을 周到綿密히 세웠다.

이리하여 제35연대는 제2대대로 하여금 △351의 奪還作戰任務를 遂行케 하고 12.00에는 제2대대 OP를 △208에서 △339에 推進시켜 攻擊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제2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를 現地에서 배속받아 제2대대는 재편완료 즉시 移動開始 19.00까지 △300(△351 南쪽 0.5km)에 推進케 하여 豫備隊로 控置하였으며, 제3대대는 계속 주저항선 방어에 임하게 하였다.

◇ 상황도 제 4 호 제35연대의 공격(13일)



또 한편으로는 제27연대에 배속된 제3대대도 現地에서 再編, 亦是 예비대로 △339에 進入시키고 화염방사기반과 파괴반도 제2대대에 배속하였다.

연대는 이렇게 攻擊準備를 갖추면서 사단장의 指示에 따라 戰鬪經驗이 많은 對戰車攻擊大隊 副大隊長 朴泰松 대위를 제5중대장에, 제27연대 제1대대 부대대장 車圭憲 대위를 제7중대장으로 14.30에 現地에서 任命하는 同時에 攻擊開始時間을 20.30으로 정하여 夜間攻擊으로써 △351를 奪還할 것을 제2대대에 命令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20.00부터 日製 Toyota추력 10餘臺를 動員하여 △351下端까지 들어갈 때는 불을 켜고 나갈 때는 불을 끄게 하여 몇차례씩 반복시켰다.

이리하여 現兵力으로 3일간 攻擊에서 奪還 못한 △351를 大兵力을 投入하여 기어이 奪還할 計劃을 暗示함으로써 敵의 士氣를 低下시키면서 未明攻擊을 企圖하는 것으로 誤認케 하려는 陽動作戰을 펴기도 하였다.

4.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은 전사단의 非常한 關心下에 △351를 奪還할 攻擊準備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다.

大隊은 제5 제7 兩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제5중대는 LD에서 東쪽을 迂回하여 東側方에서 突擊케 하고 제7중대는 西쪽을 迂回하여 西側背에 強襲토록 하여 20.00까지 攻擊開始線에 進入케 하는 동시에 제6중대는 現地에서 再編 △208 西側方 LD中央一線에서 後續케 하였다.

그리고 배속받은 화염방사기 및 파괴반도 제5중대에 3조, 제7중대에 2조씩 配置시켰다.

이무렵 敵도 如前히 砲擊을 퍼부어 攻擊梯隊를 위협하면서 陣地補強과 兵力增員에 汲汲하였으나, 18.30부터 美제5空軍의 F51戰爆機는 夕陽에 붉게 노을 짓는 △351 上空을 누비며 陣地와 補給路를 強打하기 몇차례, 敵의 支援活動을 阻止시키면서 敵陣地를 餘地없이 破壞하였다.

한편으로 美極東艦隊의 艦砲가 繼續 頂上에 集中되었으며 各種支援砲도 間斷없이 △351一帶에 퍼부었다.

이렇게 敵陣을 強打하는 爆音과 砲聲이 △351頂上을 요란하게 뒤흔들어 將兵들의 士氣도 드높아갔다.

드디어 20.30 攻擊開始를 알리자 제5, 제7 兩중대는 東西로 나뉘어 LD를 通過 躍進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右一線의 제5중대장 朴泰松 대위는 先頭에서 兵力을 이끌고 東쪽稜線에 올라 夜暗을 헤치며 一步一步 敵陣으로 닥아갔다.

그런데 東쪽稜線은 傾斜가 甚하지 않아 突擊線까지의 前進이 容易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는 여러차례의 擊戰을 치르는 사이에 爆擊과 砲擊으로 焦土化되어 甚한 곳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빠져 前進하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더구나 突擊線에서 頂上의 敵陣까지는

傾斜가 敵이 攻擊梯隊를 火力로 制壓하기 알맞아 비록 夜間攻擊이라 하더라도 敵의 集中火力을 避할 길이 없는 곳이었다.

제5중대장 朴泰松 대위는 이때를 回想하며 그 證言에서 『앞에 무엇이 잡힐듯하여 움켜 휘어잡으면 그것은 깊숙히 파인 발자욱 옆에 튀어나온 모래뿐이었다.

그리고 한번은 희미하게 보이는 士兵 발뿌꿈치가 눈에 얼핏 쓰이기에 앞선 士兵인줄 알고 그 軍靴 뒷꿈치를 잡고 기어오르려고 힘을 주니 밑에 깔린 모래와 같이 썰매를 타 듯 밀려내려 왔는데 그것은 우리 士兵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죽은 士兵의 시체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때의 情狀을 可히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地形上의 不利를 克服하면서 제5중대는 한걸음 한걸음, 薄身의 힘을 다하여 突擊線까지 進出하게 되었다.

중대장 朴泰松 대위는 最後의 突擊과 肉迫戰을 決心하고 突擊準備를 갖추면서 敵情을 엄밀히 살피었는데 그렇게 마구 쏘아대던 側方 捷克식 LMG와 自動火力이 갑자기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시 가까이 接近하는 것을 노리는 敵의 속임수인 듯도 여겼지만 실새없이 敵陣을 強打한 支援砲와 艦砲의 命中으로 完全破壞된 것으로도 믿어지었다.

이에 中隊長 朴泰松 대위는 이때라고 判斷하고 射擊延伸과 同時에 中隊主力을 휘몰아 喊聲을 외치며 陣頭에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唐慌한 敵은 自動小銃과 多發銃으로 抗拒하고 나섰지만, 이미 砲擊의 命中으로 火力據占을 잃은데다가 陣地도 거의 파괴되어 더 버틸 氣力도 없는 듯하였고 이에 怒濤와 같이 肉迫하여 쳐들어가는 중대의 氣勢에 눌려 敵은 그만 魂飛魄散, 陣地를 버리고 뿔뿔이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23.30에 △351 東側陣地를 完全히 占領하자 餘勢를 몰아 敵을 追擊하여 頂上을 向하여 突進하였다.

한편 左一線의 제7중대장 車圭憲 대위도 LD를 通過한 中隊兵力을 이끌고 西側方 稜線을 따라 敵陣을 壓縮하였다.

그런데 西쪽稜線은 東쪽稜線과는 달리 傾斜가 가파르고 곳에 따라서는 天涯의 絕壁을 이룬 곳도 있어 險峻하기 이를데 없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이 西쪽稜線에는 △339에서 △351頂上까지 交通線을 만들어 이를 利用하였지만 이번 戰鬪에서는 이 交通線가 完全破壞되었을 뿐만 아니라 敵은 交通線를 利用한 接近을 막기 爲하여 곳곳에다 地雷를 埋設하였으며 또한 要所마다 輕機까지 設置한 까닭에 全혀 利用할 수 없었다.

제7중대장 車圭憲 대위는 이때를 回想하여 그 證言에서

『攻擊이 지칠대로 지친 士兵들이라 交通線를 利用하면 險한 稜線보다는 敵陣에 接近하

기 쉬울 것으로 생각한 몇몇 兵士들이 마음대로 交通線에 뛰어들어 갔다가 地雷의 爆發로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機關銃의 集中射擊을 받아 負傷者를 낸 일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파른 稜線에 兵力을 散開하여 暗夜를 헤치며 敵陣에 닥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험준한 비탈을 안간힘을 다하여 기어오르고 또 올라 가카스로 突擊線에 進出한 中隊는 突擊準備를 갖추려는데 東側稜線에 進出한 제5중대에서 突擊의 함성이 들려왔다.

이에 제7중대도 배를 같이하여 西側背에서 敵陣의 腰部를 쳐들어갔는데 敵은 이미 戰意를 喪失한 때라 破竹之勢로 敵을 무찔렀고 제5, 제7 兩중대는 이곳에서 合勢하여 △351頂上까지 白兵戰을 벌이면서 瞬息間에 主峰에 肉迫하여 占領하고 말았다.

이로서 △351奪還作戰은 滿3일, 76시간 동안 그야말로 戰友의 屍體를 넘고 鮮血로 물들려 제35연대 제2대대 제5, 제7 兩중대에 依하여 7.13. 24.00에 最高峰까지 奪還하였으니 그때의 偉大 感激을 어찌 모두 抄錄할 수 있으랴.

7월 14일 : 전날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은 제5, 제7 兩중대로 하여금 夜間攻擊을 敢行하여 △351를 奪還하자 제5중대로써 急編陣地를 마련토록 하여 四周防禦에 임하게 하고 제7중대는 東北稜線쪽에 配置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배속된 제27연대 제2대대를 01.00에 現地에서 出發케 하여 △351東南쪽 下端에 03.00까지 推進시켜 제5중대와 縱深으로 二重配置하여 역시 敵의 逆襲에 對備시켰다.

한편 사단장 張昌國 준장은 03.00에 陣地補強과 敵의 逆襲에 對備키 爲한 措置로서 다음과 같은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作戰命令 제63호 수정작전지시 제3호, 7.14 12.00 서면 하달).

- 『① 제35연대는 工兵 1個중대와 下士官教育隊 對戰車攻擊大隊 1個중대를 統合指揮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라.
- ② 工兵大隊는 △351에서 가장 근접한 1個중대를 제35연대에 急派 10,000枚 以上の 麻袋와 資材로써 △351의 陣地를 構築케 하는 同時에 地雷와 障礙物을 架設하라.
- ③ 下士官教育隊는 受命 즉시로 제35연대장의 作戰指揮를 받으라.
- ④ 對戰車攻擊大隊는 隸下 1個中隊를 제35연대에 배속하라.』

이에 따라 연대는 배속받은 下教隊와 對戰車攻擊中隊를 05.30까지 Cat線에 推進시켜 주저항선 방어를 強化하면서 이미 배속되어 Cat線에 배치중인 사단수색중대 1個小隊를 05.20까지 △351에 配置하여 兵力을 增強했다.

이렇게 △351에 對한 敵의 逆襲에 對備하면서 주저항선 방어를 강화하였는데, 이 무렵

敗走하던 敵은 흩어진 兵力을 수습하여 散發的으로 逆襲을 계속하였으나 곧 이를 격퇴하였다.

그리하여 02.30에는 敵 1個중대 규모의 兵力이 無名高地(△351西쪽 0.5km)의 側方火力 支援을 받으면서 △351를 侵攻하여 제7중대와 치열한 交戰을 벌이게 되었으나 곧 擊退하였으며 04.45에는 제7중대 제1소대가 화염방사기반을 앞세워 敵의 逆襲據占으로 삼고 있는 無名高地(△351西쪽 0.5km)를 奇襲하여 수류탄전까지 벌인 끝에 화염방사기로써 화력 거점을 공격하여 敵의 逆襲據占을 분쇄하였다.

그리고 06.55에는 月比山 東側 無名高地의 北隄 제86연대 제7중대가 逆襲을 企圖함으로써 한때 제7중대와 激戰을 벌이게 되었으나 熾烈한 砲擊支援을 받으면서 제5중대와 合勢하여 力戰끝에 격퇴하였다.

연대는 앞으로 敵의 逆襲이 繼續될 것으로 보고 05.15에 이미 배속된 제27연대 제3대대 제9중대를 현주저항선에서 △351에 轉進시켜 11.45에는 △351 東北稜線의 제7중대와 連結하여 인접 배치하였다.

한편 08.00에는 工兵 1個중대가 △351 後斜面에 到着하여 陣地와 交通壕 修理에 나섰으며 夜間에는 地雷와 鐵條網도 前斜面에 架設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351의 방어태세가 더욱 強化되면서 散發的으로 逆襲을 繼續하던 敵도 11.45에 月比山쪽으로 모두 擊退함으로써 要衝 △351의 奪還作戰은 成功裡에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이 △351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給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445명	戰 死	8/60
捕 虜		4명	負 傷	21/446
投 降		1명	失 踪	3/100
鹵 獲	82mm박격포	2문		
	HMG	3정		
	LMG	7정		
	無反動銃	1정		
	各種小銃	24정		

(2) 제2차전(11.9~11.10)

(가) 작전계획

사단은 第一次 351高地 戰鬪에서 적지 않은 損失을 보았으며 제35연대는 始終 攻擊梯隊로

서作戰任務를 遂行하여 △351를 奪還하는데 殊勲을 세운 결과 그 戰功에 따라 勳章과 各級指揮官의 表彰을 받기는 하였지만 또한 兵力 損失이 컸다.

이에 사단作命 제63호 수정 작전지시 제4호(7.15.17.00)로 제27연대에서 兵力을 補充하여 계속 주저항선인 Cat線과 前進陣地의 防禦任務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351를 奪還한 제2대대도 그 警戒임무를 제3대대에 引繼하고 原位置인 Cat線으로 돌아왔다.

또한 제35연대에 配屬되었던 下士官敎育隊와 對戰車 攻擊中隊 및 사단수색중대는 7.13.03.00(作命63호 수정작전지시 제4호)附로 原隊로 復歸하고 제27연대도 제35연대의 再編完了後에 原位置인 金水里(高城郡 水洞面)로 돌아가 兵力을 補充하는 即時로 部隊整備敎育을 繼續하였는데 軍단작명 제162호에 따른 사단 작명 제64호로써 8월 13일부터 3일간 제35연대의 陣地와 任務를 引受받아 사단의 主抵抗線 右一線 방어에 任하게 되었으며 제35연대는 사단에비대로서 金水里에 集結 8월 20일부터 整備敎育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27연대장 吳昌根 대령이 7월 20일부로 陸軍本部에 轉出과 同時 그 後任에 崔英圭 대령이 제6대 연대장으로 임명되고 사단장 張昌國 준장도 8월 1일부로 陸本作戰局長으로 榮轉되었으며 제3대 師團長으로 金鍾甲 准將이 就任하였다.

또한 對戰車攻擊大隊는 陸本 一般命令 제77호에 의거 7.15.零時附로 解體되고 제106 중박격포중대도 제5중박격포중대로 改稱하는 동시에 師團 一般命令 제57호로 創設된 下士官敎育隊도 7월 18일부로 解體하였다.

이렇듯 一部の 部隊를 解體하여 戰力을 整備한 師團은 8월 23일 20.00부터 外沔里의 北쪽 獨立高地를 奇襲하여 敵陣을 擊破하였는데 射殺 20명의 戰果와 負傷者 5名の 損失이 있었다.

한편 北傀는 第1次 351高地 戰鬪에서 大隊以上의 兵力과 裝備의 被害를 입고 潰走하고 말았는데 △351를 奪取하지 못한 雪辱을 기어이 해 보려고 제9사단 제86연대와 제8사단 제82연대에서 가장 우수한 중대 1個中隊씩 抽出하여 偵察參謀와 연대장을 敎官으로 △351 奇襲攻擊에 對한 特殊訓練을 마친 다음 自動小銃中隊와 遊擊部隊 1個小隊를 이에 合勢케 하여 9월 24일 01.00를 期하여 大舉侵攻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곳을 방어하던 제27연대 제1, 제3 兩대대는 한때 △339를 敵手中에 넘겨 주는 苦戰을 겪었지만 제2대대가 赴援하여 이를 擊退하고 奪還確保케 되었다.

이 戰鬪에서 얻은 戰果는 射殺 75명과 多數의 무기를 노획하였으며 損失은 戰死 27명 負傷者 48명이었다.

이와같이 사단은 東部戰線에 轉進한 以來 여러차례의 激戰을 치르면서 더욱 戰鬪力을 強化하였으며 固定된 陣地에서 長期間 방어임무를 遂行하여 온 탓으로 地形에 익숙해졌고 敵情把握과 火力配置에 있어서도 熟達되었다.

그러하여 사단은 9월 24일 整備敎育을 마친 제35연대를 작명 67호(9.24.12.00)로써 제36연대와 陣地 및 任務를 交代케 하여 左一線 방어임무를 담당케 하고 제36연대는 水洞里에 移動시켜 整備敎育을 실시하던 중 Kansas線 방어진지를 補修強化키 爲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작명 제69호(10.23.10.00)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繼續 現防禦任務를 遂行하면서 Kansas線 방어진지 補修作業을 實施하고 次後作戰에 萬全을 期하러 한다.

② 제36연대는 隸下 2個大隊를 11.4부터 2일간 Kansas線에 移動完了하여 방어진지 補強工事を 實施케 하고.

隸下 1個大隊는 사단예비로써 整備敎育을 繼續하라.』

이에 따라 제36연대(장, 高光道 중령)는 제2대대를 사단예비대로 整備敎育을 계속하게 하고 제1, 제3 大隊를 Kansas線에 轉進시켜 補強工事を 繼續하였는데 사단작명 제70호 수정작전지시 제2호(11.3.12.00)에 따라 乾鳳山에 豫備陣地도 構築케 되었으며 隣接 제11사단 제13연대와 緊密한 協調를 유지하면서 該地區에 必要한 築城工事마저 함께 실시하였다.

사단은 이와같이 주저항선을 維持確保하는 한편으로 Kansas線의 陣地補強과 아울러 乾鳳山 일대의 예비진지와 築城工事を 實施하여 次期作戰에도 對備하였다.

그리고 이 當時 사단의 右側地區를 擔當한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는 東海岸에서부터 外面縣까지를 제35연대와의 戰鬪地境線으로 하여 이 주저항선에는 제2대대만 배치하고 이와 併行한 前近陣地에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東海岸線에서부터 △351까지를 擔當케 하고 제1대대를 그 左一線으로 하여 △339에서 △263까지를 담당케 하여 주저항선과 縱深으로 二重配置하여 防禦態勢를 갖추었다.

또한 연대는 사단에서 배속받은 제5중박격포중대의 1個小隊를 제3대대 OP 後斜面에 布陣케 하더 제3대대를 우선 지원케 하면서 △148—△187의 敵을 制壓케 하고 松峴里에 砲陣을 갖춘 제26포병대대와 俗稱 고헩봉 東쪽 溪谷 一帶에 位置한 제51戰車中隊 및 地境里附近溪谷에 布陣한 제99포병대대와 제55포병대대의 일반지원을 받아 月比山을 連하는 敵을 牽制케 하였으며 東海 近海에 있는 美極東艦隊와 美제5空軍의 支援도 必要時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火力支援面에 있어서도 유리한 態勢를 갖추었다.

이렇게 前進陣地의 警戒와 火力支援態勢를 갖춘 연대는 戰鬪偵察을 強化하여 敵을 制壓하므로써 作戰上의 主導權을 掌握토록 하였다.

그런데 北傀 제9사단은 第二次 月比山 戰鬪때부터 △351를 奪取하여 高城 一帶의 安全성을 유지하려고 대대이상의 兵力을 投入하여 侵攻을 戒하였지만 그때마다 많은 損失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러하여 이 讐辱의 機會를 노리다가 이번에는 제85연대로 하여금 溫井里에서 △351 攻

略을 위한 特殊訓練을 쌓게 하여 △351를 侵攻케 하였다.

특히 北傀 제85연대는 長期間 戰線에 投入되어 豊富한 戰鬪經驗을 지니고 있으며 공격을 위한 特殊編成과 裝備까지 갖추어 補給面에 있어서도 다른 부대보다 特別히 地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侵攻에는 122mm野砲 7門, 120mm重迫擊砲 14門, 82mm迫擊砲 54門 및 76mm野砲 16門의 直接支援을 받았으며 其他 各種砲 32門의 火力支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侵攻準備를 갖춘 北傀 제85연대는 11월 9일 增強된 大隊規模의 兵力으로 △351에 侵攻함으로써 또 다시 이곳에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 작전실시

11월 9일: 이날은 아침부터 사단 전전선에 걸쳐 散發的인 敵의 砲擊이 있어서 심상치 않은 예감을 주었다.

그러하여 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各聯隊에 特別指示를 내렸으니

『첫째, 敵과의 接觸이 있을 때는 聽音哨를 너무 일찍 撤收시키지 말며,

둘째, 敵은 어느 局限된 地點에 集中砲擊을 加하고 晝間攻擊을 試圖할런지 그 豫測이 어려우니 晝間警戒도 더욱 徹底히 하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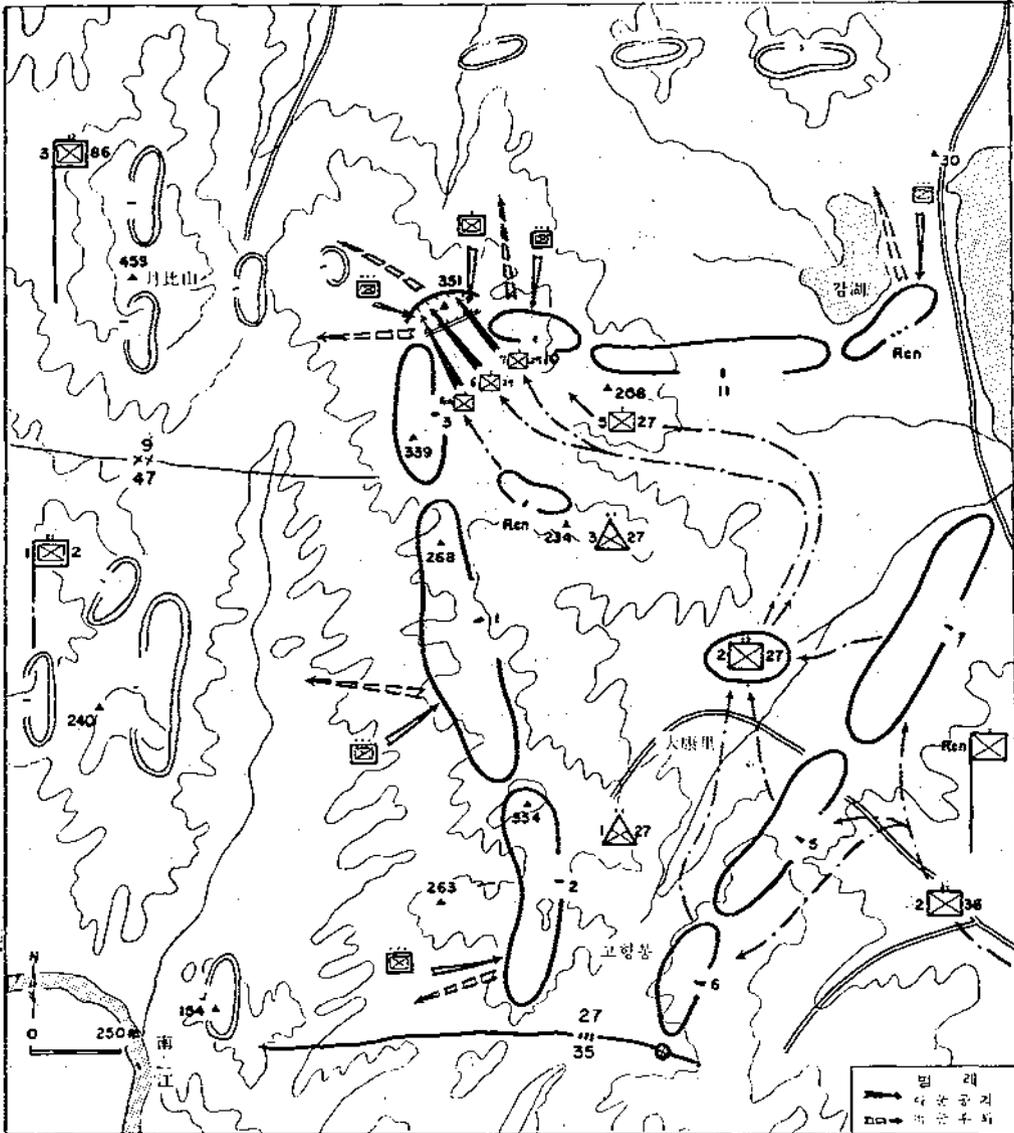
그런데 제27연대 제3대대(장, 金椿集 중령)가 방어중인 △351를 비롯한 △339-△208 앞대에는 敵砲彈의 落下度數가 잦아지더니 21.50에는 突然히 前進陣地의 一帶 및 Cat線 右一線에 있는 제35연대의 주저항선과 제26포병대대의 砲陣地에도 A,B高地에서 砲擊이 繼續하였다.

1. 제9중대는 △351 全域에 敵砲擊이 甚하여 지자 警戒를 더욱 強化하면서 大隊에 支援을 要請하였다.

그런데 22.10에는 △351와 이에 隣接한 제10중대 진지에는 敵의 直射砲擊이 集中되는 한편 重機도 側方에 나타나 射擊을 加하여 제9, 제10 兩중대는 한때 大隊 OP와의 通信까지 杜絶되기도 하였지만 곧 部隊를 整備하여 敵의 侵攻을 阻止키 위한 態勢를 갖추고 있을 무렵, 敵 1個中隊規模의 兵力이 A高地쪽에서 제9중대와 제10중대와의 戰鬪地境線의 間隙을 틈타 △351쪽으로 殺到하여 22.25에는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侵入, 치열한 수류탄 戰을 展開하다가 △351 前斜面과 頂上을 強打하던 敵砲火가 後斜面으로 延伸됨과 同時에 敵은 一齊히 突擊을 試圖, 肉迫하자 彼我 熾烈한 血戰을 벌였지만 제9중대는 人海戰術에 밀려 陣地를 敵에게 넘겨 주고 西南쪽 陣地로 撤收하여 이곳에서 隊伍를 수습하여 敵을 阻止하려고 全火力을 퍼부었다.

이무렵 大隊(장, 金椿集 중령)는 제9중대와의 通信의 杜絶되어 敵情把握이 어려웠고 그 隣接 제10중대와도 通信이 끊겨 戰況을 알수가 없었므로 大隊는 特殊任務를 부여키 爲하

◇ 상황도 제5호 제2차공방전



여 잠정적으로 編成한 挺進奇襲隊 1個小隊를 △351에 急進시켜 제9중대를 赴援케 하였으나 제9중대는 現陣地를 固守하려고 血戰을 거듭하였지만 增援 兵力이 到着하기 前에 衆寡不敵으로 이 陣地마저 敵에게 넘겨 주고 △351 南麓으로 撤收하여 兵力을 수습, 戰列을 가다듬었다.

2. 이리하여 △351를 敵手中에 넘겨 주게 된 大隊는 挺進奇襲隊 1個小隊를 △351 南麓에 急進시켜, 이곳에서 再編中인 제9중대와 合勢하여, 00.20에 同高地를 逆襲케 하였다.

그러하여 제9중대는 挺進奇襲小隊와 合勢한 다음, △351 南麓에서 正面을 直衝하여 6部

稜線까지 進出하였으나 △351에는 이미 敵 大隊規模의 兵力이 確保하고 火力까지 배치하여 頑強히 阻止하므로 小數兵力으로서의 逆襲은 어렵다고 判斷한 中대는 다시 同高地 南麓으로 隨意撤收하고 말았다.

11월 10일: 전날밤 敵은 大隊規模의 兵力으로 △351를 奪取하자 繼續確保할 目的으로 陣地를 補強하면서 火力據點까지 補完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런데 敵은 01.30 제1大隊(장, 崔奎瑄 소령)가 방어중인 △345와 △263에도 中대규모의 兵力으로 侵攻을 加하여 威脅하였다.

이러한 戰況을 銳意注視하던 사단장 金鍾甲 준장은 제27연대만으로서는 現主抵抗線의 방어임무를 遂行하면서 △351를 奪還키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軍團長 李亨根 中장의 결심을 얻어 예비부대인 제36연대 兵力을 주저항선에 增援키로 하고 사단 작명 제71호 (11.09.24.00)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敵은 猛烈한 砲擊을 我主抵抗線 및 後方施設에 加한 다음, 1個大隊 以上 兵力으로 11.9.21.50를 期하여 △351를 攻擊에 現在는 敵의 手中에 있다.

② 사단은 現任務를 遂行하면서 △351의 敵을 擊滅하여 同高地를 奪還하는 同時 捕虜를 獲得코자 한다.

③ 제27연대는 Cat線에 있는 제2대대를 11.10.04.30까지 그 任務를 제36연대에 引繼하고 11.10.07.00를 期하여 △351에 逆襲을 敢行 이를 奪還하라.

④ 제36연대는 11.10.04.30를 期하여 제27연대 제2대대 방어진지를 引受 방에 임하라.

그리고 Kansas線에서 陣地 補強工事中인 2個대대를 撤收 乾鳳寺에 集結 11.10.

08.00를 期하여 1個大隊는 地境里附近에 1個大隊는 明坡里에 移動集結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제20 포병대대로부터 增員된 B砲隊를 統合指揮하여 逆襲部隊를 우선 지원하라.

⑥ 제55포병대대는 △351에 火力을 增強하여 敵侵入 및 退路遮斷에 注力하라.

⑦ 제5중박격포중대는 2個小隊로써 △351에 對한 火力을 增援하라.

⑧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 실시하라.

⑨ 사단 지휘소는 大垵里에 位置한다.』

이와같은 作戰命令을 받은 제27연대장 崔英圭 대령은 配屬받은 제36연대 제2대대를 Cat線으로 推進시켜 제2대대와 陣地를 交代케 하고 제2대대를 Cat線에서 撤收시켜 02.25까지 大康里에 集結 攻擊梯隊로서 攻擊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339 後方に 控置한 수색중대(-1)를 △339를 經由 △351에 進入시켜 攻擊梯隊와 合勢케 하였다.

이무렵 △345에는 數未詳의 敵이 殺到하여 제1중대 제2소대 진지를 兩斷하고 攻襲하였으

며 또한 03.05에는 敵 1個中隊規模의 兵力이 △195正面으로 侵攻하였다.

그리하여 제35연대 제5중대 陣地에 肉迫 수류탄전까지 벌여 混戰하였으나 04.40 完全擊退시켰는데 敵은 △154 쪽으로 潰走하였다.

그리고 이시간에 △263에도 敵 1個小隊兵力이 侵入하여 15分間 熾烈한 수류탄戰鬪에 擊退하였다.

이번에는 正反對쪽인 東海岸 甘湖 北쪽 △30에서 數未詳의 敵이 侵攻하자. 수색중대도 이를 곧 擊退하였다.

이와같이 △351를 占有한 敵은 到處에서 陽攻을 벌여 逆襲部隊 兵力과 支援火力의 分散을 꾀하였으며 指揮官의 戰況判斷을 흐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敵은 한편으로는 △351에 兵力增員과 火力도 增強하려고 試圖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1. 이러한 狀況下에 △351 奪還作戰任務를 맡은 제2대대(장, 李南周 소령)는 주저항선 방어임무를 제35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各中隊를 撤收하여 02.25 大康里에 集結한 다음 裝備를 點檢하면서 細部 攻擊計劃을 세웠으니 제5중대는 △208 西쪽 下端에 推進시켜 豫備隊로 控置하고 제6중대와 제7중대로써 主攻梯隊를 삼아, 제7중대는 04.40, 大康里에서 出發 △208西쪽 下端을 經由 △351 東쪽 LD에 進出케 하여 △351 正面을 直衝 突破케 하고 제6중대도 같은 時間에 大康里를 出發, 제7중대와 併行하여 亦是 △208下端을 經由 △351 南쪽 LD에 進出케 하였으며 이곳에서 △339를 經由하여 到着하는 연대 수색중대(-1)와 合勢하여 LD 西南쪽을 迂回 背後에서 攻略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6, 제7 兩中隊는 06.40 LD에 到着 攻擊準備를 갖추었으며 美極東艦隊의 艦砲와 各種支援砲는 공격준비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공격개시 시간인 07.10이 되자 공격제대인 제6, 제7 兩중대는 艦砲와 支援砲擊이 △351頂上을 強打하는 가운데 勇躍 LD를 出發하였다.

가) 제7중대는 07.10 공격開始線을 出發하여 △208쪽에서 連結된 交通壕를 따라 敵陣을 向해 前進하였다.

이때에 △351를 占有한 敵은 繼續確保할 目的으로 陣地를 補強하면서 障礙物을 架設하고 火力據占도 完備한 듯 하였으며 攻擊梯隊의 接近을 阻止하기 爲하여 猛烈한 砲擊을 集中하여 中隊는 3部綫에서 進出이 極難하였는데 敵의 埋設한 地雷에 부딪쳐 釘着하고 말았다.

이 △351는 三面이 敵에게 露出된 곳이어서 어느 곳에서나 敵은 集中砲擊을 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同高地는 8部綫 틀레에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여 全面방어에 任하였으며 △208와 △339쪽에서 이 高地와 連結되는 交通壕를 만들어 唯一한 機動路로 사용하는 外에는 敵砲火로 一切 行動이 抑制되었다.

제27연대 제7중대장 韓亨魯대위는 이때를 회상하여 그 證言에서 『△351는 東部戰線에서 너무나 이름난 激戰地로서 一名 獅子高地로 通하였다. 그 모양이 마치 獅子가 △351에 머리를 두고 △208쪽에 꼬리를 든 양 누워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高地는 三面이 敵과 接하여 突出된 高地로서 敵은 어느 곳에서나 集中砲擊을 加할 수 있어 방어하기 힘든 곳이므로 全面障地를 構築하여 그 방에 임하였다.



<砲擊의 誘導>

晝夜間 가릴 것 없이 敵砲擊이 甚하여 一切 行動이 抑制當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탓으로 大小便도 강통 같은 것을 使用하였다. 이 高地에 배치되는 部隊는 特別補給을 받았으며 特別副食으로 給食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地의 不利로 말미암아 더 進出치 못한 中隊는 大隊 OP에 支援火力으로 敵陣을 繼續 強打토록 要請하고 隊列을 整備한 후 다시 攻擊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中대는 地雷를 제거하고 퍼붓는 敵砲火를 무릅쓰고 敵陣으로 닥아갔는데 이때 敵의 機關銃 射擊을 側方에서 받게 되었다.

앞선 兵士가 쓸어지면 그 屍體를 넘고 또 쓸어지면 그 뒤를 이어 一步一步 前進을 거듭하였다.

여기 그때 實戰을 指揮한 제7중대장 韓亨魯대위의 證言에서 戰鬪實況을 引用키로 한다. 『敵의 直射火力을 避하기 爲하여 우리 中대는 △208쪽에서부터 交通壕를 利用하여 一列 縱隊로 前進하였는데 놈들이 交通壕 속에는 地雷를 埋設하고 또 交通壕 周邊 要所에는 機關銃을 걸어 놓고 마구 쏘아대니 앞에서 前進하던 兵士가 쓸어지면 그 屍體를 밟고 넘어야 했고 또 쓸어지면 이번에는 그 屍體를 防牌살아 한걸음 한걸음 前進하여야 했으니 그 慘狀은 目不認見이라고 할런지 勇敢無雙하다고 할런지 表現키 어렵다.

도저히 이대로 進出한다면 死傷者만 累增되리라고 생각한 나는 特攻組를 編成하여 機關銃부터 제거키로 斷案을 내려 各小隊에서 3명씩 뽑아 3個特攻組를 編成하였으며 이로 하여금 機關銃을 除去케 하였다.

掩護射撃을 받으며 交通壕에서 東쪽을 迂回하여 突進한 제1組가 희생되었다. 이 東쪽 背斜面은 敵이 A高地에서 旣히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서 攻擊할 때가 아침 일곱시 경이었으니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旣히 밝아 왔으므로 敵의 直射火力은 더욱 치열하였다.

다음組도 負傷을 입었다. 그런데 이때 天祐神助로 제3組가 機關銃에 수류탄을 일제히 던져 破壞시켰다.

이 瞬間 나는 中隊主力을 휘몰아 敵陣으로 突進하여 肉迫, 短兵接戰끝에 同高地를 빼앗았다.』고 하였다.

중대장 韓대위의 證言과 같이 特攻組가 機關銃 除去에 成功하는 瞬間 中隊主力은 敵陣으로 飛虎 같이 突進하여 肉迫戰을 벌였는데 敵은 多發銃과 自動小銃을 휘두르며 抗拒하였다.

그러나 怒濤와 같이 肉迫한 攻擊梯隊는 喊聲을 지르며 擊突 短兵 突入하니 敵은 그 氣勢에 놀려 陣地를 버리고 西南쪽 陣地로 潰走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兵力과 合勢하여 逆襲을 試圖하여 全火力을 集中하였다.

이무렵 西南쪽 側背에서 제6중대와 수색중대가 수류탄을 던지며 突進하여 挾攻을 決行하였다.

이리하여 兩쪽에서 挾攻을 당한 敵은 더 陣地를 支撐할 수 없어 10.05 A,B高地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다.

나) 한편 제6중대는 연대 수색중대(-1)의 지연도착으로 07.30 LD를 出發하여 △339에서 △351頂上까지 連結된 交通壕를 따라 50餘m 前進하였을 무렵 중대 亦是 敵이 埋設한 地雷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西쪽 稜線을 타고 敵陣으로 닳아갔다.

이 △351 西南쪽 稜線은 傾斜가 가파르고 험준하여 곳에 따라서는 絶壁을 이룬 곳도 있어 前進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敵은 이런 地의 不利를 勘案하여 攻擊梯隊가 반드시 交通壕를 利用하여 接近할 것으로 豫測하고 이곳에 地雷를 埋設하고 機關銃까지 배치하여 接近을 阻止하였다.

이런 敵의 企圖를 看破한 中隊는 西南쪽 稜線에 散開하여 험준한 능선을 타고 一步又一歩 前進하여 敵陣으로 닳아갔는데 갈수록 敵砲火가 集中落下할뿐만 아니라 側方 自動火力의 亂射로 한때 頓挫狀態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중대는 수색중대(-1)와 함께 隊伍를 가다듬어 쏟아지는 敵의 砲煙彈雨를 무릅쓰고 그 間隙을 헤치며 渾身の 힘을 다하여 敵陣을 壓縮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前進을 거듭하여 09.40西南쪽 側背에 進出한 중대와 수색중대(-1)는 突擊準備를 갖춘 다음 支援砲의 延伸과 더불어 突擊은 決行, 수류탄을 投擲하며 敵陣을 肉迫하였다.

이때는 제7중대가 東쪽陣地를 占領하고 그 餘勢를 몰아 이곳으로 突進中이었으니 敵은

64 東部戰線의 戰況

兩쪽에서 肉迫하여 擊突하는 제6, 제7 兩중대와 수색중대(-1)에 多發銃과 自動小銃을 亂射하며 頑強히 抗拒하여 한때 △351頂上은 피로 물드리는 血戰이 演出되었다.

그리하여 彼我が 서로 얽혀 찢르고 찢리는 短兵接戰이 벌어져 阿鼻叫喚을 이루었다.

이러한 混戰이 10餘分동안이나 繼續되는 사이 奸惡한 督戰隊는 敵兵 등뒤에서 銃口를 겨누고 陣地死守를 強要하였지만 이미 東쪽 陣地를 빼앗긴 敵은 銳氣가 꺾여 더 支撐하지 못하고 이 陣地도 버리고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攻擊梯隊는 戰果擴大를 위하여 敵을 追擊하였는데 敵은 A, B高地쪽으로 完全 潰走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351는 被奪된지 10時間만인 이날 10.05에 제7, 제6중대와 연대수색중대(-1)에 依하여 奪還함으로써 凱歌를 울리게 되었다.

2. 제27연대는 △351奪還作戰에 成功하자 제2대대로 하여금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였다. 이에 따라 大隊는 제7중대를 △351에 配置하고 제6중대를 △351 東쪽 제10중대와의 戰鬥地境線附近에 配置시켜 逆襲에 對備케 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351를 奪還後 1個中隊로써 敵이 逆襲據占으로 삼는 B高地를 攻擊, 陣地를 破壞하고 捕虜를獲得하여 戰果를 擴大하는 동시에 陣地補強과 逆襲에 對備키 爲하여 다음과 같이 作命 제71호 수정 작전지시 제1호(11. 10. 10.00)를 下達하였다.

『①제27연대는 逆襲成功後 1個中隊로써 B高地를 夜間攻擊하여 陣地를 破壞하고 戰果를 擴大하라.

② 사단 工兵大隊는 早速한 時間內에 △351에 對한 障礙物을 補修하라.

③ 제36연대는 松峴里에 있는 1個大隊를 11. 11. 03.00를 期하여 現地에서 出發시켜 △345 東쪽 0.5km지점에 進推 逆襲部隊로서 機動待期하라.

④ 通信隊는 杜絶된 有線網을 補修하고 無線網을 樹立하여 指揮에 萬遺憾없도록 하라.』

이와같은 사단 작전지시를 받은 연대는 B高地 攻擊을 제2대대장에게 命命하자, 제2대대장 李南周 소령은 제6중대로써 作戰任務를 遂行케 하여 제10중대 OP附近으로 推進시키고, 제10중대 OP後方に 예비대로서 控置한 제5중대를 12.20까지 △339後斜面에 轉進시켜 敵의 逆襲에 對備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는 14.05에 제10중대 OP 後斜面에 到着하여 攻擊準備를 갖춘 다음, 15.00 LD를 通過 熾烈한 敵의 砲火를 무릅쓰고 LD前方 70餘m를 進出하였으나, 敵의 砲擊이 甚한데다가 음폐물도 없는 곳에서의 晝間攻擊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大隊는 제5중대로 하여금 夜間攻擊을 敢行케 하고 제6중대를 16.10 撤收시켜 제7중대와 더불어 △351의 警戒에 任하게 하는 同時 夜間에 있어서의 敵의 逆襲에 對備토록 하였다.

한편 제36연대(장, 高光道 중령)에서도 작전지시에 따라 제1대대를 09.40松峴里까지 推

進시켰으며 夜間 敵의 逆襲에 對備키 爲하여 11. 03.00까지는 △345 後斜面에 進入토록 하였다.

이렇게 敵의 夜間 逆襲에 對備하는 사이에 제5중대는 △339 後斜面에서 제10중대 OP 뒤 쪽으로 轉進하여 夜間攻擊準備를 갖춘 다음 제1소대로써 攻擊梯隊를 삼아 24.00에 LD를 出發케 하였는데 제1소대는 LD를 떠나 前進中 60餘m 地點에서 地雷가 爆發하여 企圖가 綻露됨으로써 敵의 集中射擊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더 進出치 못한 제5중대 제1소대는 命에 따라 撤收하게 되었고 B高地의 攻略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제2차 △351高地 戰鬪는 敵에게 또 한번 致命的인 打擊을 주고 그 奪還에 成功 함으로써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230명	戰死 0-5	E-109名
負 傷	150명	戰傷 0-6	E-150명
捕 虜	1명	失 踪	5명
投 降	1명	HMG	2정
鹵 獲 HMG	5정	LMG	3정
LMG	3정	BAR	11정
長 銃	11정	M1	79정
多發銃	7정	CAR	90정
SMG	28정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第一次 351高地 戰鬪에서 한때 困境에 빠져 同高地를 敵에게 奪取當한 後 이의 奪還을 爲해 血戰을 거듭, 적지않은 희생을 내고 만 3일(76시간)만에 奪還하였다.

그러나 第二次 351高地 戰鬪에 있어서는 351高地를 被奪當하자 敵에게 再編成 및 陣地補強의 時間的 餘裕를 주지 않고 敵의 混亂狀態를 捕捉하여 果敢한 逆襲을 決行, 不過 10時間만에 最少의 희생으로써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여 奪還하였으니 이는 사단이 東部戰線에 轉進한 以來 여러차례의 激戰을 겪으면서 戰技上은 勿論, 固定된 陣地에서 長期間의 방어를 通하여 地形에 익숙해졌고 敵情把握과 火力配置에 있어서도 熟達된 緣由이기도 하다.

한편 北傀제 86연대와 제 85연대는 이 戰鬪에서 大隊以上の 兵力과 裝備의 被害를 입고 月比山 쪽으로 潰走하였는데 이곳에서 奪어진 兵力을 收斂하여 原位置인 溫井里에 돌아가 力兵과 裝備가 補充되는데로 部隊를 整備한 後 次期作戰에 對處할 것이며 또 다시 雪辱의 報復戰을 企圖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사단은 敵이 이와같은 雪辱戰을 피하고 있는限 △351에 對한 再侵攻이 언제 있을지 豫測키 어려웠

으므로 이번 戰鬪에서 攻擊任務를 띠고 激戰을 치른 제27연대를 작명제70호(11.14)로써 그 陣地와 任務를 제36연대에 引繼케 하고 加津里(襄陽郡 竹旺面)에 移動集結시켜 사단에비로써 整備教育을 實施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사단 豫備隊로서 加津里에서 整備教育中이던 제36연대는 사단의 右一線방어에 任하게 되었으며 제35연대는 繼續 사단의 左一線 방어를 擔當하였는데 11월 15일부터 연대장 高白圭대령이 轉出되고 그 後任 제9代 연대장으로 許煜 중령이 임명되었다.

사단은 52. 1. 11부터 제1군단에 배속된 이래 東部戰線에서 地理的, 天候的, 惡條件을 克服하면서 수차에 걸쳐 집요하게 侵略을 試圖하는 敵에게 그때마다 致命的인 打擊을 주어 擊退함으로써 高城地區防禦責任을 다하여 오다가 다음 해인 53. 1. 20 軍團作命제170호에 의거한 사단작명 제75호로써 현 방어진지와 그 임무를 제15사단에 인계하고 陸本直轄로써 高城郡 杆城面 水洞里에 移動하여 FTC教育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戰鬪力 向上과 戰技를 鍊磨하던 사단은 제27연대로 하여금 1953년 2월 20일 加津里에서 示範戰鬪實施를 통하여 其間 습득한 戰技와 攻擊精神을 發揮함으로써 스스로의 戰鬪力을 確認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同년 4월 5일美 10軍團에 配屬되어 사단작명제76호에 의거 한국군 最初의 大規模師團作戰機動練習(Minnesota線 攻擊回復)을 實施하였다. 이 講評에서 當時 美10軍團長은 『내가 萬一 이런 사단을 가졌다면……』하고 極口讚揚하였다.

이와같이 戰技와 攻擊精神을 發揮하여 그 戰鬪能力을 誇示한 사단은 53. 4. 10, 제2군단 작명 제14호에 의거한 사단작명 제77호로써 江原道 金化에 移動하여 제3사단의 陣地 및 任務를 引受받으므로써 단 一年만에 또 다시 中部戰線에 投入케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27연대 제2대대장 李南周 소령 (1975. 9. 9 綜合行政學校에서 少將)

△351는 제35연대가 被奪당한 다음에 逆襲에 失敗하게 되자 사단 예비대인 제27연대 우리 대대에서 奪還作戰任務를 引受받아 攻擊케 되었다.

그때 우리 대대는 제35연대에 배속되어 주저 항선을 방어중이었는데 이 곳에서 撤收하여 大康里로 集結하는 途中에 △187附近의 敵直射火力에 얻어맞아 出發서부터 打擊이 甚하여 士氣가 저하되었다.

더구나 11.00頃에 機動하여 △351를 竄間攻擊케 되었는데 이진 정말 無謀한 攻擊으로서 敵의 火力에 부딪쳐 적지 않은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이와같은 모든 惡條件을 무릅쓰고 突擊線까지 接近하여 잘 에 近接支援을 爲하여 出擊한 航空機는 우리 대대를 敵으로 誤認하고 機銃掃射를 加하여 意外에도 많은 희생자를 또 내게 되어 攻擊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結局 撤收하였다가 다시 部隊를 整備하여 攻擊하였지만 失敗하고 말았다.

그 다음 또 제35연대가 作戰任務를 引受한후 奪還한 것으로 안다.

이 戰鬪에서 特記하고 싶은 것은 △351는 增員된 1個中隊兵力으로 攻擊하기에 適當한 機動空間에다가 逐次的으로 1個大隊兵力을 投入함으로써 敵火力에 依하여 많은 戰傷者를 냈으며 이로 말미암아 士氣가 低下되어 最初攻擊時에 거듭 失敗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351는 三面이 敵에게 露出되어 있으며 隱蔽물 하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同高地는 夜間攻擊만이 가능한 곳으로 判斷하는데 性急한 指揮官들이 無謀하게 竄間攻擊을 強行시켜 많은 兵力損失과 失敗만 거듭하였다.

앞으로는 이런點이 시정되어야겠으며 夜間攻擊에 對한 訓練도 더욱 쌓아야 할 줄 믿는다.

◇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

(1975. 10. 10 韓國銀行 計劃室에서, 豫, 大領)

351高地는 제35연대 제3대대가 방어하다가 敵에게 被奪당하자 豫備部隊인 제27연대를 投入攻

『擊하였으나 失敗하자 다시 우리 대대가 攻擊하여 奪還에 成功하였다.

他部隊의 攻擊 失敗 要因은, 첫째 △351의 攻擊路로서는 △208쪽에서와 △339쪽 두곳 밖에 없다. 그런데 三面이 敵에게 露出된 이 高地攻擊을 같은 攻擊路에다가 같은 時間(晝間을 말함)에 같은 攻擊方法을 되풀이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는데 그 無謀한 攻擊을 強要한 當時 戰鬪方法은 시정되어야 할 줄 믿는다.

둘째 △351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저항선(Cat線)에 配置된 우리 將兵들이 만히 쳐다보며 살필 수 있다(晝間攻擊時).

그러므로 그때 많은 戰死傷者들의 後送을 주저항선에 配置된 士兵들이 바라보게 되었으니 士氣가 極度로 低下되었다.

셋째 艦砲나 支援砲를 適切히 運用치 못함에도 큰 要因이 있다.

우리 大隊은 夜間攻擊으로 同高地를 奪還하였지만 航空支援과 艦砲 그리고 支援砲를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目標高地의 陣地를 粉砕한대 있다고 믿는다.

◇ 對戰車攻擊大隊 副大隊長 朴泰松 대위
(1975. 8. 8 泰進産業에서 예, 대령)

軍團長室에 불려가 그 자리에서 제27연대 제1대대 부대장 車圭憲대위와 함께 特攻隊長으로 任命되어 각 1個中隊를 指揮 △351의 奪還作戰 任務를 맡았다.

車大尉와 나는 이 地區戰鬪에서 中隊長을 하였으므로 地形에 益熟하고 戰鬪經驗이 있다고 하여 差出된 것으로 믿었지만 많은 中隊長과 小隊長들이 죽어간 이 戰鬪에서 特攻隊長으로 任命되는 瞬間 경말 아절렀다. 그러나 多幸히도 그뎨 부담되는 家族이 없어 마음 홀가분히 戰死한 中隊長들을 떠를 決心을 하였다.

그리하여 제35연대 제5중대 集結地인 △351南쪽 下端으로 갔다.

때마침 點心時間이라 주먹밥을 먹고 있었는데 몹시 疲勞에 지친 탓으로 대부분이 졸고 있었다

저렇게 지친 兵士들을 이끌고 死生을 淡하는 特攻隊로서 戰鬪할 생각을 하니 寒心스럽기만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兵士들에게

『첫째 소리를 내지 말라.

둘째 불빛을 보이지 말라.

셋째 나보다 뒤떨어지지 말라.』고 굳게 다짐시키고 LD를 向하여 機動하였다.

航空機와 支援砲들이 △351 一帶를 繼續 強打하여 兵士들의 士氣가 좋아졌다. 우리 중대는 攻擊을 시작하여 발목까지 빠지는 비탈진 능선을 따라 敵陣으로 쳐들어 갔는데 밤이라 △351은 은룡 불바다와 같이 불꽃을 뿜거었다.

그런데 그렇게 실세없이 불을 뿜던 敵의 側方 火力이 덮어 있었다. 鎗聲 砲擊의 集中으로 破壞된것으로 判斷하고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敵陣으로 肉迫하였는데 이미 砲擊의 集中으로 銃氣가 죽인 敵은 별로 저항도 못하고 陣地를 버리고 退却하였다.

나는 계속 頂上을 向해 突擊戰을 敢行하여 삼 시간에 頂上까지 占領하였다. 그리고 當時 彼我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아침에 壕속에서 잠을 깨니 服裝이 다른 北虜軍人들이 같이 자다가 붙잡힌 일도 있었으니 그 構狀은 그대로 웃어 넘길수만은 없을 것이다.

◇ 제27연대 제2대대 제7중대장 韓亨燾대위
(1975. 9. 30 전원위에서 豫, 大領)

1952. 10. 제5사단 제27연대 제7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當時 우리 大隊은 Cat線에 配置되었는데 △351을 방수하던 제9중대가 무너지자 逆襲을 맡게 되었다. 戰鬪力이 強한 제2소대를 先頭로 LD를 通過하여 攻擊에 나섰다.

機動路라고는 제10중대에서 △351로 連結된 交通壕뿐이고 周圍에는 地雷를 埋設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중대는 一列縱隊로써 交通壕를 따라 前進하였는데 놈들이 곳곳에 地雷를 매설 하였으며 要所마다 機關銃을 걸어 놓고 마구 쏘아댔다.

앞선 兵士가 쓸어지면 그 屍體를 밟고 넘어야 했고 또 쓸어지면 이번에는 그 屍體를 防牌로 삼아 前進하여야 하는 慘狀을 빚으면서 前進하였지만 機關銃을 除去하지 않고는 더 進出할 수 없었다.

不得已 特攻組(1個組 3명)를 各小隊에서 1個 組씩 差出, 東쪽을 迂回하여 除去케 하였다.

제 1, 제 2組가 失敗하고 제 3組가 除去에 成功하는 瞬間 突擊을 敢行한 끝에 同高地를 占領하였다.

지금도 記憶에 새로운 것은 △351頂上에 큰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괴물은 岩石아 너에게 묻노니, 351高地 血戰의 勇士, 간 곳 어디나?……』

이런 詩와 그 末尾에 『鄭大尉를 追慕하면서……』라고 새겨놓은 것이었다. 現在는 북녘방이나 남들이 그대로 두었을 터 없지만 제 1次, 351高地 戰鬪에서 戰死한 제 9중대장 鄭大尉와 이 高地에서 죽은 勇士들을 追慕한 것으로써 우리들은 그 앞에서 默念까지 하였다.

§ 戰 訓

◇ 警戒의 重要性

敵은 △351를 奪取할 目的으로 侵攻 4일 前부터 同高地와 無名高地 사이에 埋設된 地雷와 鐵條網을 除去하였으며 侵攻前日도 偵察隊와 工兵들이 이 作業을 繼續하였는데 警戒疎忽로 이를 探知하지 못하였다. 萬一 事前에 敵의 이러한 活動을 探知하였더라면 同高地를 固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351는 三面이 敵에게 노출된 不利한 地形이므로 警戒에 대하여 細心한 留意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 支援火器의 運用

目標을 區分하여 分析하고 最大限의 效果를 發揮할 수 있는 火力運用計劃이 重要하다. 이 戰鬪는 敵보다 優勢한 支援火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性急하게 步兵投入을 서둘러 速戰速決하려는 데서 損失만 累増시켰고 結局 失敗를 招來하였다.

제 35연대가 다시 作戰任務를 맡아 가지고 단 1回 攻擊으로 奪還에 成功한 것은 適切한 火力運用計劃을 세워 充分한 所要時間을 推定判斷하고 目標粉碎에 最大效果를 얻은데 基因하는 것으로서 指揮官은 支援火器의 適切한 運用에 대한 研究가 더욱 要請된다.

◇ 特火點 擊破와 火焰放射器의 活用

敵의 頑強한 火力據點을 擊破하는데에 있어서 火焰放射器나 爆破組의 役割이 最大 效能을

發揮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戰鬪에서는 放火焰放射器의 遲延到着으로 그 效能을 發揮치 못하였지만 14일 04.45에 敵逆襲據點인 無名高地의 火力據點을 火焰放射器로 擊破시켰다.

砲擊이나 수류탄으로 파괴가 容易치 않은 特火點 除去에 있어서 特殊訓練을 쌓은 火焰放射器組 및 爆破組의 活用이 事前에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 研 究

(1) 351高地 名稱問題

351高地는 舊軍事地圖에 351高地로 되어 있으나 現行 軍事地圖(1973年度版)(1:50,000)에는 356高地로 記載되어 있으며 亦是 現行 軍事地圖(1:25,000)에는 아무 表記도 되어 있지 않다.

舊軍事地圖를 폐기하고 新版 軍事地圖를 全軍에서 使用토록 되어 있으므로 當然히 이를 찾아 △356으로 表記하여야 할 것이나 戰鬪當時 △351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陸軍戰史監室, 發行 陸軍戰史도 351高地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도 351高地로 表記기로 하였다.

(2) 月比山 名稱 漢字表記問題

月比山은 現在 北傀의 行政管轄下에 있어 漢字를 使用하지 않을 뿐더러 確實한 것을 찾기 어려운 實情이지만 陸軍本部戰史監室 發行 陸軍戰史 6권 “月比山”戰鬪(239頁—376頁)에는 “月尾山”으로 表記하였고 當時 戰鬪詳報에도 “月尾山”으로 記錄된 것이 大部分이다. 그러나 이것은 當時 擔當官들의 誤記로 밝혀 둔다 왜냐하면 “月比山”은 “월비산”이지 월비산이 아니기에 發音表記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陸軍戰史 7卷에는 “月比山”으로 表記하였고 辭書出版社 1962年度 發行 大韓民國地圖(李丙燾博士 監修 當時 文教部長官)에는 “月飛山”으로 表記하였으니 그 當時 地理擔當編修官이 監修한 것으로써 “月飛山”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地名이나 山名 또는 江名은 大部分이 傳說에 따른 表記(漢字들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月飛山”은 “飛”字로 表記함이 近似할 것으로 史料되지만 陸軍戰史나 韓國戰史(7권)에 “月比山”으로 表記하여 왔으므로 이를 찾아 “月比山”으로 表記기로 하였다.

2. 154高地 附近 戰鬪

(1) 154高地 奇襲戰 (1952년 7월 8일부터
1952년 7월 9일까지)

(2) 外沔里 北峯 獨立高地 奇襲戰 (1952년 8월 22일부터
1952년 8월 23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6. 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154高地 奇襲戰)			
제5사단	장	준장	張 昌 國	제2중대	장 소위 文 相 榮
		준장	金 鍾 甲	제3중대	장 대위 李 春 鉉
		(8월 1일부터)			
제27연대	장	대령	吳 昌 根	제4중대	장 대위 金 一 鉉
제1대대	장	중령	李 基 煥	제3대대	장 중령 金 椿 集
제1중대	장	중위	黃 德 晟	제10중대	장 대위 吳 承 鎬
		(外沔里 北峯 獨立高地 奇襲戰)			
제35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제12중대	장 중위 金 佳 鉉
제2대대	장	소령	鄭 仁 淳	병력: 837명	
제6중대	장	대위	吳 永 權	제7중대	장 대위 金 泳 憲
		敵			
北 傀	제47사단	제2연대	제8중대 장 대위 朴 潤 發		
		병력: 421명			

나. 전투 전의 개황

제5사단이 1952년 1월 13일, 第1軍團에 配屬과 同時에 東部戰線에 轉進한 以來, 第1次 351高地 戰鬪까지의 概況은 前節에서 詳述하였으므로 再論을 避하거니와, 사단은 右一線에 제35연대 그 左一線에 제36연대를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제27연대는 사단 예비로써 金水里에 集結하여 教育訓練에 任하였다.

그리하여 右一線 제35연대는, 敵이 月比山을 主軸으로 하여 그를 連하는 連峰을 주저항선으로 삼

고 있는 北傀 제9사단 제86연대와 對峙하고 있으므로 月比山을 據點으로 △351와 △339를 奪取하려고 敵은 恒時 侵攻을 試圖하여 前節처럼 熾烈한 △351 激戰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左一線 제36연대는 月比山 西南쪽, 南江 沿岸의 天然의인 障物을 끼고 그 주저항선을 삼고 있는 北傀 제47사단 제2연대와 對峙한 탓으로 比較的 小康狀態에 머무르고 있어 큰 戰鬪는 없지만 彼我 戰鬪偵察과 奇襲戰으로 機先을 制壓하고 作戰上의 主導權 掌握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런 緣由로 北傀 제47사단은 南江 越便(東쪽)丘陵에 位置한 △154—△240—감자高地를 連하는 稜線에 제2연대 1個大隊兵力을 배치하여 前哨陣地를 強築하였는데 그 陣地의 대부분이 有蓋交通壕로써 連結된 堅固한 陣地이며 火力據點도 “7”字形으로 上部는 有蓋로써 下部는 個人掩體壕와 地下交通壕로 通하게 되었으며 特殊射擊도 可能토록 構築하였다.

또 △154는 제35연대와 제36연대와의 戰鬪地境線 바로 西쪽 1km內외의 距離에 位置함으로써 이 立地의 要件을 이용하여 兩연대 戰鬪地境線의 間隙을 넘보고 侵攻을 피하므로 사단은 제36연대로 하여금 水嶺 南쪽 △187 一帶에 警戒陣地를 構築케 하여 이에 대비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防守態勢를 갖춘 사단은 6월 28일 사단작명 제61號를 下達하여 제27연대로 하여금 △154를 攻略케 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作命 제65호를 下達하여 제35연대로써 外沔里 北쪽 獨立高地를 奇襲 攻略함으로써 機先을 制壓하는 동시에 作戰上에 있어서의 그 主導權 掌握에 注力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154高地 奇襲戰(7.8~7.9)

(가) 작전계획

제5사단(장 張昌國 준장)은 現主抵抗線을 계속 유지하면서 敵의 機先을 制壓하는 한편 捕虜를 획득하고 敵陣을 파괴 교란시킬 목적으로 特殊訓練을 받은 사단 예비부대인 제27연대의 增強된 1個대대로써 北傀 제47사단 제2연대의 警戒陣地, △154를 攻略기로 하였다. △154는 北傀 제47사단 제2연대가 南江 上流沿岸에 주저항선을 이루고 있는 南江 越便 丘陵에 位置한 敵의 警戒陣地로서 敵은 이를 據點으로 제35연대와 제36연대와의 戰鬪地境線의 間隙을 틈타 침공을 피하는 要衝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154를 奇襲攻略함으로써 作戰上의 主導權을 장악하려는 데도 그 의의가 큰 바 있다.

이리하여 사단은 6월 28일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 第61號를 下達하였다.

- ① 사단은 現주저항선을 유지 확보하면서 △154를 奇襲하여 出血을 強要하는 同時에 포로를 획득코자 한다.
- ② 제27연대는 D일 未明을 期하여 增強된 1個大隊(+소총, 중화기중대 各 1個중대)로써 △154를 攻擊하라.
- ③ 제35연대 및 제36연대는 계속 현임무를 수행하면서 戰鬪斥候를 強化하여 제27연대의 戰鬪를 支援하라.
- ④ 제51戰車中隊는 攻擊間 제27연대를 直接支援하라.

- ⑤ 제26砲兵大隊 및 제106重迫擊砲中隊는 攻擊間 제27연대를 直接지원하라.
- ⑥ 제99포병대대는 攻擊대대를 一般支援하라.
- ⑦ 工兵大隊는 地雷探知班 2個組, 破壞班 2個組를 제27연대 攻擊大隊에 配屬하라.
- ⑧ FSCC火력을 협조하라.
- ⑨ D일은 後達한다.
- ⑩ 通信은 現 SOI에 準한다.
- ⑪ 師團前方指揮所는 麻次津里에 位置한다.』

이와 같은 師團作命을 받은 제27연대(장, 吳昌根 대령)는 제1대대로 하여금 작전임무를 遂行케 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45호(7.6.12.00)를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敎育訓練을 계속하면서 一部兵力으로써 D일 未明을 期하여 △154 및 감자고지를 攻略하여 捕虜를 獲得하고 敵施設을 파괴하며 補給物資를 破棄하려 한다.
- ② 제1대대장은 隸下 4개중대와 D-2일부터 배속된 제3대대의 2개중대 및 工兵 1個小隊를 統合指揮, D일 未明을 期하여 目標 A, B高地를 占領後 上部命令에 따라 撤收하라.
- ③ 제3대대는 小銃 1個中隊 및 重火器中隊를 D-2일까지 제1대대에 배속하라.
- ④ 美極東艦隊 및 美제 5空軍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51戰車中隊는 攻擊間 연대를 直接지원한다.
- ⑥ 제26포병대대 및 제106중박격포 중대는 攻擊間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 ⑦ 제99포병대대는 기간중 연대를 일반지원한다.
- ⑧ 工兵大隊는 地雷探知班 2個組 破壞班 2個組를 D-2일까지 제1대대에 배속한다.
- ⑨ 제35연대 및 제36연대는 戰鬪斥候를 증강하여 제1대대의 철수를 掩護할 것이다.
- ⑩ 企圖秘匿을 위하여 下記地名을 約定한다.

㉑ △154-A高地, ㉒ 감자高地-B高地, ㉓ △240-C高地.

⑪ 行政事項

- ㉑ 연대보급관은 携帶食糧 3食分을 九川洞에 準備하라.
- ㉒ 大隊補給所 및 救護所는 九川洞에 位置하라.
- ㉓ 彈藥運搬 및 負傷者 後送은 KSC(勞務團)로 하라.
- ㉔ 各小銃彈丸은 1基數를 携帶하라.
- ⑫ D일은 後達한다.
- ⑬ 연대 OP는 無名高地에 位置한다.』

以上과 같은 作戰指示를 下達하면서

첫째, 企圖秘匿을 徹底히 하고,

둘째, 敵 240高地에 對한 警戒를 嚴重히 하며.

72 東部戰線의 戰況

셋째, 撤收時 指揮系統을 確立한 것도 아울러 指示하였다.

그리고 D일을 7월 9일로 定하였다. 연대 작전지시를 받은 제 1 대대(장, 李基煥 중령)는 現地 金水里(高城郡 水洞面)에서 機動準備를 갖추면서 攻擊計劃을 樹立하였다.

(나) 작전실시

7월 8일 : 이날 大隊은 28臺의 車輛에 分乘하여 16.00 駐屯地를 떠나 集結地 九川洞에는 18.00에 到着하였다.

이곳에서 攻擊部隊의 各個裝具를 點檢한 다음, 小銃實彈 1基數와 3食分 食糧을 携帶케 하는 등, 전투준비를 갖춘 대대는 제 1 중대(장, 黃德辰 중위)로 하여금 目標 A高地의 主攻으로 삼아 21.00에 大隊集結地를 出發하여 攻擊開始線에 進出한 다음 LD에서 目標高地를 正面에서 直衝케 하고, 제 2 중대(장, 文相榮 소위)는 LD에서 東쪽으로 迂回하여 目標 A高地의 後側背에서 제 3 중대 제 2 소대 및 수색소대와 連結을 지어 敵의 退路를 遮斷하면서 包圍網을 壓縮, 挾攻케 하여 같은 時間에 大隊集結地를 출발시켰다.

제 3 중대(장, 李春勳 대위)는 目標 B高地를 攻略토록 하는 동시에 제 2 소대는 수색소대와 함께 LD에서 西쪽을 迂回하여 目標 A高地의 後側背에서 제 2 중대와 連結한 다음 敵의 退路를 遮斷케 하여 21.40에 LD로 向發케 하였다.

그리고 配屬받은 제 10 중대(장, 吳承鎬 대위)는 $\Delta 263$ 西쪽 0.5km에 推進, 대대에비대로 控置하였는데 그중 1個小隊은 目標 A高地 北쪽 0.6km에 배치, C高地의 敵의 逆襲을 阻止케 하여 21.40 出發시켰다.

한편 第 4 중대(장, 金一鉉 대위)의 81mm 迫擊砲陣地를 水嶺 南쪽 $\Delta 233$ 와의 中間에 占領케 하고 HMG와 75mm 무반동총은 $\Delta 187$ 에 21.50까지 推進시켜 대대전진을 阻止하는 敵의 直射火力을 制壓하여 目標 A, B高地를 직접 지원케 하였다.

또한 배속된 제 12 중대(장, 金佳鉉 중위)의 迫擊砲는 $\Delta 298$ 東斜面에 布陣케 하여 目標 A와 C高地를 制壓케 하고 HMG는 $\Delta 263$ 에 22.00까지 배치하여 直接支援으로써 狀況에 따라 制壓射擊토록 하였다.

이렇게 攻擊部隊와 중화기 중대를 推進配置하면서 대대 OP를 20.00에 $\Delta 187$ 에 推進하였다.

그리고 배속받은 지뢰탐지반과 파괴반도 중대에 배치시키고 偵察은 最少人員으로 하되 特別히 防音裝置와 企圖秘匿을 徹底히 하도록 攻擊梯隊에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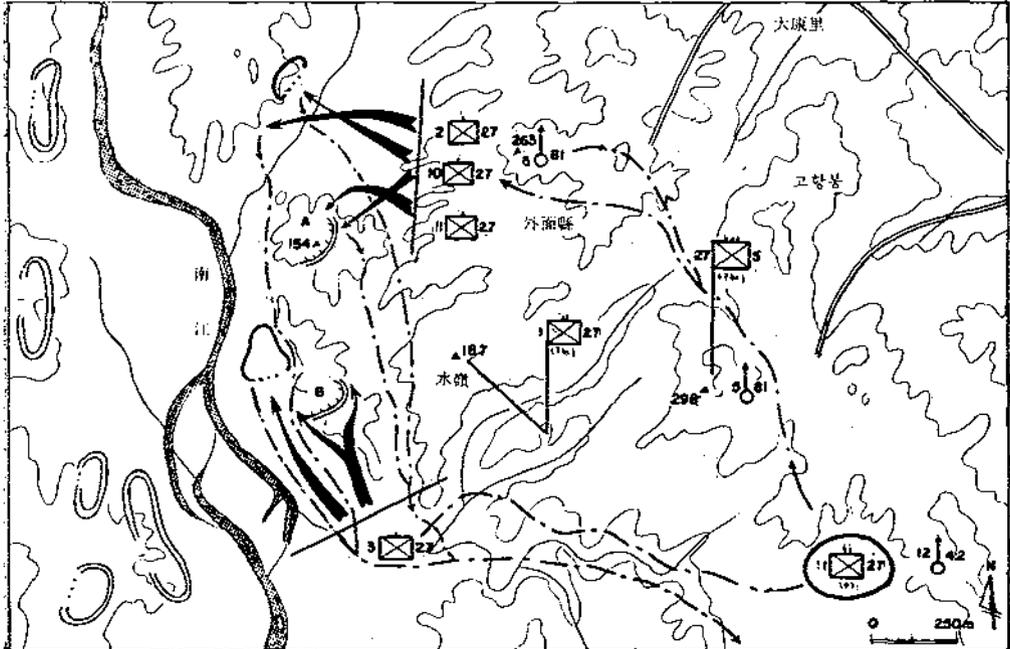
또한 이날 밤 22.00에는 제 26 포병대대(장, 梁遠燮 중령)와, 제 106 중박격포중대(장, 朴鍾元 대위) 그리고 제 99 포병대대(장, 黃鍾甲 중령)의 觀測將校도 대대 OP에 到着하여 언제든지 集中砲擊이 可能토록 支援火力에 對한 準備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攻擊準備를 갖춘 대대는 攻擊部隊로 하여금 LD에서 明朝 未明攻擊에 對한 準備事項을 再點檢 確認케 하면서 敵情을 探索케 하였다.

7월 9일 : 전날밤 대대는 攻撃部隊를 攻撃開始線에 進入시켜 敵情을 探索케 하면서 未明 攻撃準備를 갖추게 하고 重火器中隊의 火器도 要所에 配置한 다음 火力支援을 準備케 하였다.

드디어 攻撃開始時間이 되자 攻撃部隊는 一齊히 LD를 通過하여 各 目標를 向하여 躍進하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 6 호 154고지 기습전(7.8-9)



1. 제 1 중대는 04.00부터 攻撃開始線을 通過하여 目標 A高地의 前斜面을 따라 進出하였는데 地雷探知班으로 하여금 敵이 埋設한 障礙物을 제거케 하면서 敵陣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날은 길은 안개가 덮여 앞을 분간키 어려워 敵情把握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 1 중대는 側方警戒를 強化하면서 攻撃目標에 接近中 04.40에 敵陣 300m 前方에서 警戒部隊인 듯 한 敵 1개分隊規模의 兵力과 조우하여 交戰하였으나 곧 擊退하고 계속 躍進하여 05.00에 突撃線에 이르렀다.

중대장 黃德晟 중위는 각 소대별로 散開시키고 突撃準備를 갖추려는 刹那, 敵의 集中砲撃을 받게 되어 한 때 困境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곧 戰列을 수습한 다음 突撃을 決行코자 하였으나 이미 敵 警戒部隊와의 交戰으로 企圖가 탄로된 탓으로 敵은 據속에서 攻撃梯隊가 가까이 接近할 때까지 一切 射撃을 하지 않다가 중대가 突撃準備를 갖추려는 瞬間을 포착하여 一齊히 火口를 열고 集中射撃을 퍼부었으며 마구 手榴彈을 던졌다.

이렇게 하여 猝地에 敵의 集中火網에 부딪친 중대는 또 다시 많은 戰傷者를 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突擊을 敢行치 못하고 不得已 目標 A高地 東쪽 下端으로 隨意 철수하여 兵力을 再整備하였다.

이에 대대는 支援砲와 중화기중대의 火力을 集中하여 敵陣을 強打하고 제 1 중대를 急編케 하여 再突擊을 命하였다.

目標 A高地 東쪽 下端에서 兵力을 수습 再編(小數兵力)한 제 1 중대는 再突擊命書에 따라 06.45에 다시 前斜面을 타고 躍進하였는데 이때 제 1, 제 2 兩소대는 東側斜面을 타고 突擊線에서 突擊케 하였으며 제 3소대는 中대장 黃德晨 中위가 直接 引率하고 西쪽 稜線을 따라 突擊線에서 一齊히 攻擊키로 하였다.

각 소대는 突擊線까지는 接近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彼我 熾烈한 銃擊만을 되풀이 할 뿐 더 進擊치 못하고 膠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2. 대대는 제 1 중대의 突擊이 거듭 挫折되자 예비대인 제 10 중대(-1)로 하여금 超越攻擊케 하여 1時間內에 目標 A高지를 攻略하라고 08.45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제 10 중대(장, 吳承鎬 대위)는 西쪽 溪谷을 넘어 目標 A高地 東北斜面에 散開하여 進出, 敵陣을 壓縮하였다.

그러나 이미 濃霧도 甚히었으므로 敵砲의 集中射擊을 받게 되었으며, 더욱 側方自動火力에 눌려 士氣마저 低下되었다.

중대장 吳承鎬 대위는 일단 中대원을 三部稜線까지 철수시키고 대대에 煙幕支援을 要請하였다.

이윽고 各種支援砲가 더욱 炸裂하였으며 煙幕彈이 敵陣에 集中投下되어 目標 A高地 一帶은 雲霧가 뒤덮인양 完全視界가 遮障되었다.

중대장은 이 때라고 決心하고 中대원에게 『비굴하면 죽고 용감하면 산다. 다들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陣頭에서 突進하였으며, 目標 A高地 西側方에서도 제 1 중대가 이와 때를 같이하여 敵陣을 壓縮, 包圍網을 좁혔다.

그리하여 突擊線까지 進擊한 제 10, 제 1 兩중대는 砲擊延伸과 더불어 一齊히 수류탄을 빼어들고 突擊戰을 決行하였지만 延伸射擊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煙幕이 점차 걸리기 시작하여 또 다시 露出된 狀態인데다가 敵은 堅固한 有蓋壕속에서 頑強히 抗拒하였으며 側方自動火器가 熾烈하게 亂射하는데는 肉迫할 길이 막혀 A高地 下端으로 철수하여 隊伍를 整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戰況을 注視하던 연대장 吳昌根 대령은 戰勢가 進展없이 膠着狀態에 머무르자 대대에 『于先 敵의 特火點을 占領하라. 그리고 攻擊梯隊의 全兵力을 一時에 投入, 肉迫戰으로 目標을 一擧에 占領하라』고 命하는 동시에 目標을 攻略하지 못한 것은 각 중대장들의 指揮能力과 攻擊精神의 缺乏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斷案을 내려 12.30까지 각 중대장은 그 任務를 선임장교에게 任せ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와 같은 命命을 받은 대대장 李基煥 중령은 중대장 交替를 시달하였으나, 중대장들은 陣頭에서 肉迫戰을 決行하여 目標高地를 기어이 占領하여 作戰任務를 完遂하겠다고 다짐하므로 연대장의 承認을 얻어 그 任務交代를 중지시키고 중대장 決意대로 最後 肉迫戰을 敢行케 하는 한편 全兵力을 일시에 投入 肉迫戰 하였고 賞彈이 부족하면 肉彈으로 敵陣을 擊破占領하고 敵을 捕獲하라고 命命하였다.

이에 제10중대는 戰列을 다시 가다듬어 제51戰車中隊와 各種支援砲의 지원사격을 받으면서 13.07에 LD 東쪽을 迂回하여 東側斜面을 따라 敵陣으로 接近한 다음, 突擊線에 이른 즉시로 突擊을 決行코자 하였으나, 敵에게 完全露出된 狀態라 敵의 側方火力을 뚫지 못하여 먼저 攻襲과 같은 狀況만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

이때에 제1중대도 目標 A高地 南麓에서 隊伍를 가다듬어 南쪽 稜線을 타고 突擊線에 進出하였으나 敵의 火網에 부딪쳐 最後를 決하려고 肉迫戰도 모두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10餘시간 제1중대와 제10중대는 6회나 攻襲을 決行하여 目標 A高地를 攻略코자 擊突과 強襲으로 血戰을 거듭하였지만 目標을 占領 못하고 如前 膠着狀態에서 進展을 보지못하자 연대장 吳昌根 대령은 強攻策을 취하기로 決心하고 特攻隊를 編成, 目標을 占領케 하였다.

대대는 命에 따라 제10중대에서 17명, 제1중대에서 2명 모두 19명으로 特攻組를 編成하여 目標 B高地를 攻襲하는 제3중대와 같은 시간에 A高地도 突擊 短兵接戰케 하였다.

이리하여 特攻組는 제2대대 중화기중대와 배속된 제3대대 중화기중대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17.30에 勇躍 機動하여 퍼붓는 敵砲火를 무릅쓰고 目標高地의 東쪽稜線을 迂回하여 7部稜線까지 進出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地點에서부터는 敵이 掩體壕와 散兵壕에서 特攻隊를 單히 내려다보며 集中射擊을 加하니 그야말로 進退維谷이었다.

이 때에 特攻隊를 指揮하던 歷戰의 老兵 黃中士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빗발치 듯 쏟아지는 敵彈의 間隙을 누비며 질풍같이 敵陣으로 突進하였다.

그리하여 敵陣 30m 前方에서 일제히 수류탄을 던졌다.

갑작이 수류탄의 洗禮를 받은 敵陣에서는 爆音과 더불어 火焰을 吐하였으나 그 一角만 破壞되었을 뿐이다.

敵의 火力據點은 원채 堅固하게 構築되었고 또 “1”型으로써 有蓋交通壕와 連結되었으며 火器移動이 자유롭게 되어 있을 뿐더러 特殊射擊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交叉火網을 이루어 亂射하니 그 이상 더 接近할 수 없어 特攻隊는 敵火力據點의 一角을 파괴하였을 뿐 出血만 보고 철수하고 말았다.

3. 한편 目標 A高地의 東쪽을 迂回한 제2중대(장, 文相榮 소위)는 後側背까지 進出하면서 企圖秘匿은 되었으나 깊은 밤 짙은 안개를 헤치며 不利한 地形에서의 進出이라 豫定

時間보다 늦어져, 目標 A高地의 正面을 直衝하는 제 1 중대와 때를 같이 하여 挾攻케 한 05.00 보다는 1時間 40分이나 늦은 06.40에야 突擊線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중대는 이곳에서 제 3 중대 제 2 소대 및 수색소대와의 連結을 지어 敵의 退路를 遮斷케 하고 06.50 後側背에서 敵의 腰部를 擊破코자 突擊을 決行하였으나 제 1 중대의 攻擊을 擊退한 敵은 氣勢를 울리며 抗拒하였고 마구 쏘아대는 側方 自動火力에 눌려 後側方 3部 接線까지 철수하여 戰列을 다시 가다듬어 수색소대와 合勢 後斜面에서 再攻擊準備를 갖추면서 支援火力을 要請하려고 하였지만 이 때는 통신마저 끊겨 大隊와의 連絡도 안 되었다.

이에 중대는 08.45 後斜面에서 包圍網을 壓縮하며 敵陣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이미 晝間이 되어 敵에게 露出된 狀態라 集中火力을 뚫지 못하여 突擊線까지의 進出도 어려워 또 다시 後側山麓으로 隨意 철수하여 戰列을 整備하면서 再攻擊準備를 갖추었다.

이렇게 중대의 攻擊이 挫折되어 目標 A高地 後側山麓에서 部隊를 整備하는 사이에 끊겼던 통신을 連結시켰으며, 各支援砲와 중화기 중대의 火力支援도 받게 되어 중대원들의 침체되었던 士氣도 한결 좋아졌다.

그리하여 13.17 後斜面에서 다시 攻擊을 敢行하여 突擊線까지 進出하는데 成功한 중대는 突擊準備를 갖추고 一齊히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敵陣으로 肉迫突擊을 決行하였다.

이 때 제 1 소대장이 士兵을 이끌고 먼저 敵陣으로 突進 敵의 壕속에다 수류탄을 던져 破壞시켰지만 敵의 自動火力에 걸려 제 1 소대장과 그 뒤를 따르던 士兵들이 戰傷을 입게 되었다.

다들 한결같이 肉彈으로써 目標高地를 占領할 決心으로 敵陣에 肉迫하였으나 實彈과 수류탄마저 射盡된 탓으로 敵의 集中火力에 밀려 占領 直前に 好機를 놓치고 後側山麓에 다시 철수하여 그 地點을 確保하면서 彈藥補給을 요청하고 戰況만을 지켜 보게 되었다.

4. 제 3 중대(장, 李春堯 대위)는 目標를 攻略코자 03.45에 LD를 출발하여 제 1 目標(目標 B高地 南쪽 200m)인 無名高地를 04.45에 急襲하였으나 敵은 이미 潛跡하고 없었다.

그리하여 제 1 目標를 無血占領한 同중대는 계속 進擊하였는데 50m程度 進出하였을 무렵 前方 左右 兩突出部에서 數未詳의 敵과 부딪쳐 激戰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는 제 1 目標 無名高地에 있던 敵이 이미 奇襲의 氣味를 알아차리고 地形이 유리한 이 지점의 兩突出部에 숨어서 接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逆襲한 것으로써 제 3 중대는 敵의 集中射擊을 받아 한 때 困境에 빠졌다. 중대장 李春堯 대위는 대대에 支援을 要請하는 동시에 제 1 소대로 하여금 熾烈한 火力戰을 벌여 敵을 牽制케 하면서 중대장은 제 3 소대를 이끌고 西쪽을 迂回하여 突出部 後側背에서 急襲하였다.

그렇게 氣勢를 울리며 逆襲하던 敵도 등 뒤에서 強襲을 당하자 魂飛魄散하여 潰走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初戰에서 敵을 擊破한 중대는 그 氣勢를 휘몰아 目標 B 高地를 向하여 突進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無名高地의 敵과 交戰을 벌인 탓으로 突擊線까지의 進出이 늦어진 데다가 企圖마저 綻露되었으며, 敵砲의 集中射擊으로 말미암아 더 前進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當初 目標 B 高地의 正面에서 直衝키로 하였던 計劃을 바꿔 제 1 小隊는 東쪽을 멀리 迂回하여 東側方에서 擊破케 하고 중대장은 제 3 小隊를 指揮하여 南쪽稜線을 따라 쳐들어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攻擊方向을 전환한 탓으로 중대는 突擊線에서 目標 A 高地의 主攻梯隊인 제 1 中대와 같은 時刻에 突擊키로 한 05.00 보다는 훨씬 늦은 07.00에야 目標 B 高地의 東側方과 南쪽 7部稜線에 進出하였다.

그리하여 중대(-1)는 07.10 目標 B 高地의 東쪽과 南쪽 兩側方에서 제 1 小대와 제 3 小대가 一齊히 突擊을 決行하였지만 敵의 抗拒와 火力에 부딪쳐 挫折되고 말았으며 중대는 제 1, 제 3 兩 小대를 B 高地 南쪽 下端에 隨意 철수시켜 戰列을 整備한 다음 08.45에 支援砲와 대대화력이 目標 B 高地를 強打하는 가운데 다시 突擊을 決行하였다.

이 때부터는 濃霧도 걷혔고 東天하늘 높이 해가 솟아 음계물도 없는 곳이라 敵에게 露出된 狀態에서 敵陣을 攻擊한다는 것은 마치 火藥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格에 不過하다고 判斷한 중대장은 대대에 일단 B 高地 일대에 煙幕遮障을 要請하면서 중대를 突擊線에서 南쪽下端으로 철수하였다.

중대는 09.30에 煙幕이 目標 B 高地 일대에 投下되어 雲霧가 뒤덮인양 遮障된 가운데 一步一步 敵陣으로 接近하였으나 延伸射擊이 始作될 무렵부터는 目標 A 高地를 攻擊할 때의 煙幕遮障時와 같은 狀況이 演出되었으며 또한 중대는 敵의 共用火器의 交叉火網에 밀려 突擊을 決行치 못하고 말았다.

제 3 中대도 戰勢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如前 膠着狀態에 빠지자 대대장 李基煥 중령은 연대장의 決心에 따라 제 3 中대장도 그 指揮能力과 攻擊精神이 缺乏되었다고 단정하여 13.00까지 그 임무를 先任將校에게 인계하라고 指示하였던 바 제 3 中대장 李春畹 대위도 陣頭에서 肉迫戰을 敢行하여 目標 B 高地를 占領하고자 말겠다고 그 決意를 表明하므로 任務交代指示를 중지하고 제 3 中대도 最終攻擊을 決行케 하였다.

그런데 제 3 中대 또한 彈藥의 부족으로 緊急 供給을 要請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彈藥을 推進補給케 하고 제 3 中대에도 突擊時에 彈藥이 부족하면 肉迫戰으로 目標를 占領하여 敵을 捕獲하라고 命令하였다.

제 3 中대 역시 攻擊을 시작한지 10餘時間, 四回나 攻擊하여 熾烈한 激戰을 벌이었으나 目標를 攻略못하고 적지 않은 兵力損失을 본데다가 極度로 疲勞에 지쳤으며 그에 彈藥까지 부족한 現時點에서 肉迫戰을 決行한다 하더라도 目標占領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判斷

한 중대장은 대대장의 決心을 얻어 目標 B高地 南쪽 下端에 철수하여 給食과 休息을 取한 다음 戰列을 整備하고 彈藥補給을 기다리며 그 지점을 確保하고 있었다.

未明시부터 夕陽이 가까워지도록 제3중대 역시 目標를 占領치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연대장은 『目標 B高地도 目標 A高地의 特攻隊와 같은 時刻에 突擊하여 期必 奪取하라』고 命令하였다.

그리하여 제3중대는 寶彈이 도착된 17.22에 目標 A高地의 攻擊梯隊와 며를 같이 하여 最後 突擊을 敢行키로 하였으니, 제1소대는 目標 B高地의 東側方에서, 제3소대는 그 南쪽을 迂回하여 後側背에서 挾攻키로한 가운데 突擊線까지 壓縮하여 進出한 제1, 제3 兩소대는 手榴彈을 投擲하며 敵陣에 肉迫하였다.

그러나 집요한 敵의 抗拒와 集中火力을 擋지 못하여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였지만 結局 命에 따라 撤收하고 말았다.

5. 연대는 增強된 제1대대로 하여금 目標 A, B高地를 奇襲攻路코자 16時間이나 激戰을 거듭하였지만 敵의 頑強한 抵抗과 火力據點을 擊破치 못하여 作戰任務를 完遂못한채 20.30부터 철수 命을 내려 原隊 復歸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의 각 중대는 重火器중대를 선두로 順次 철수하고 말았다.

이 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아래와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推定殺傷	多發銃	陣 地 破 壞	戰 死	戰 傷	失 踪	
56	67	3	9	31	158	30	

(2) 外河 里北쪽 獨立高地 奇襲戰(8.22~8.23)

(가) 작전계획

사단은 主抵抗線인 Cat線 右一線에 제35연대를 배치하여 東海岸線에서 外面縣까지 擔當케 하고 그 左一線에 제36연대를 배치하여 △544와 △466의 사이를 占領케 한 가운데 제11사단과 連繫하여 防守態勢를 갖추었는데 7월 10일에는 제35연대 前進陣地인 이곳의 最北尖端 △351에 北倭 제86연대의 侵攻을 받아 한때 同高地를 被奪當하였다가 奪還作戰을 敢行, 제35연대 제2대대(장, 鄭仁淳 소령)가 奪還하여 赫赫한 戰功을 세웠으나 始終攻擊隊로서 作戰任務를 遂行한 탓으로 적지 않은 兵力 損失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軍團作命 제162호에 依據한 사단작명 제64호(8.1.12.00)로써 제35연대는 8월 13일부터 3일間に 걸쳐 陣地 및 任務를 제27연대에 인계하고 加津里(高城郡 竹匠面)에 移動集結 師團豫備隊로서 整備와 敎育에 任하게 되었고 제27연대는 사단의 右一線 防禦任務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一部陣地와 부대를 交代시켜 방수태세를 더욱 強化한 사단은 敵의 機先을 制壓

하면서作戰上의主導權을掌握하려고加津里에서整備및訓練중인제35연대로하여금北傀 제47사단의警戒陣地인外沔里北쪽獨立高地를奇襲攻略키로하여사단작명제65호(8.18.18.00)를要旨다음과같이下達하였다.

『① 사단은現주저항선을계속維持하면서D일H時를期하여一部兵力으로制限된目標를攻撃占領하는同時에敵의陣地를破壞하고捕虜를獲得出血을強要코자한다.

② 제35연대는增強된小銃1個中隊(小銃1個中隊+小銃1個小隊+重火器2個小隊+工兵1個小隊)로써D일H時를期하여目標獨立高地를攻撃占領하라.

③ 제27연대및제36연대는제35연대作戰에呼應하여威力搜索隊를差出하여陽動作戰을實施하며火力으로支援하라.

④ 美極東艦隊및美제5空軍은要請에따라支援할수있다.

⑤ 제51戰車중대는攻撃間제35연대를직접지원하라.

⑥ 제26포병대대(-1)는攻撃間제35연대를직접지원하라.

⑦ 제5중박격포중대는攻撃間제35연대를직접지원하라.

⑧ 제99포병대대는攻撃間제35연대를일반지원하라.

⑨ 工兵대대는1個소대(火焰放射器班,除去班,破壞班으로構成)를D일H時5時間前에제35연대에配屬하라.

⑩ 協調指示

㉑ D일H時は8월22일21.00.

㉒ 步砲協同時完全을期하라.

㉓ 各小口徑彈藥은1基數를携帶하라.

㉔ 3食分食糧을携帶하라.

⑪ 사단전방지휘소는D일H時2時間前에麻次津里에位置한다』.

사단作戰命令을받은연대장高白圭대령은作戰任務를제2대대에遂行시키기로決心하고위의사단작명要旨를下達하는同時에

첫째夜間標識와防音裝置를確實히하고,

둘째,步砲協同時完璧을期하며

셋째,撤收時我軍地雷地帶에특히留意하도록아울러指示하였다.

그리고연대前方指揮所를△345南쪽無名高地에推進키로하였다.

이러한作戰指示를받은제2대대장鄭仁淳소령은,제7중대로써主攻을삼고제6중대(-)로써掩護케하였으며중화기중대2個소대를包含하여目標獨立高地를攻撃키로하였다.

그리하여대대는8월20일,13.00에現駐屯地水洞里(高城郡杆城面)에서車輛15臺에分乘대대集結地인俗稱교황봉南쪽溪谷으로向發하였다.

機動途中松峴里에서夕食을마치고23.00에集結地에到着,이곳에서夜營한대대는

다음 날인 21일에는 攻擊梯隊의 裝備와 個人裝具를 點檢하면서 携帶食糧과 小銃彈藥을 支給하는 등 戰鬪準備를 갖추는 동시에 大隊 OP를 水嶺 南쪽 無名高地에 推進키로 하고 中 砲台中隊(장, 朴潤義 대위)의 迫擊砲陣地도 大隊 OP 南쪽 斜面에 推進케 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KSC(勞務團) 50명을 연대 후방지휘소인 大康里에 도착시켰으므로 寶 彈과 其他補給品의 運搬에 나섰다.

(나) 작전실시

8월 22일 : 이날은 아침부터 맑은 날씨여서 機動하기에 快適하였다.

그리하여 大隊은 攻擊準備를 갖춘 主攻 第7중대(장, 金泳憲대위)와 掩護部隊인 第6중대(장, 吳永權대위)를 18.00에 大隊 集結地를 출발시켜 20.00까지 LD에 進入케 하였으며 迫 擊砲도 大隊 OP 南쪽 斜面에 18.30까지 推進시켰다.

이무렵 敵도 南江 西쪽 $\Delta 277$ 附近에 76mm砲擊을 加하여 연대 OP에까지 散發의으로 落 下하였다.

한편 이날은 淸明한 날씨여서 特別히 航空支援이 活潑하였는데, 11.20에는 F-51戰爆機가 目標獨立高地와 $\Delta 154$ 를 猛爆하였으며 연이어 16.35에도 Mustang戰爆機가 번갈아가며 네 차례에 걸쳐 네이팜彈을 投下하고 機銃掃射를 加하여 敵陣 破壞와 아울러 큰 打擊을 주었다.

또 18.00에도 Mustang 戰爆機가 目標高地의 前後斜面을 계속 強打하여 陣地를 擊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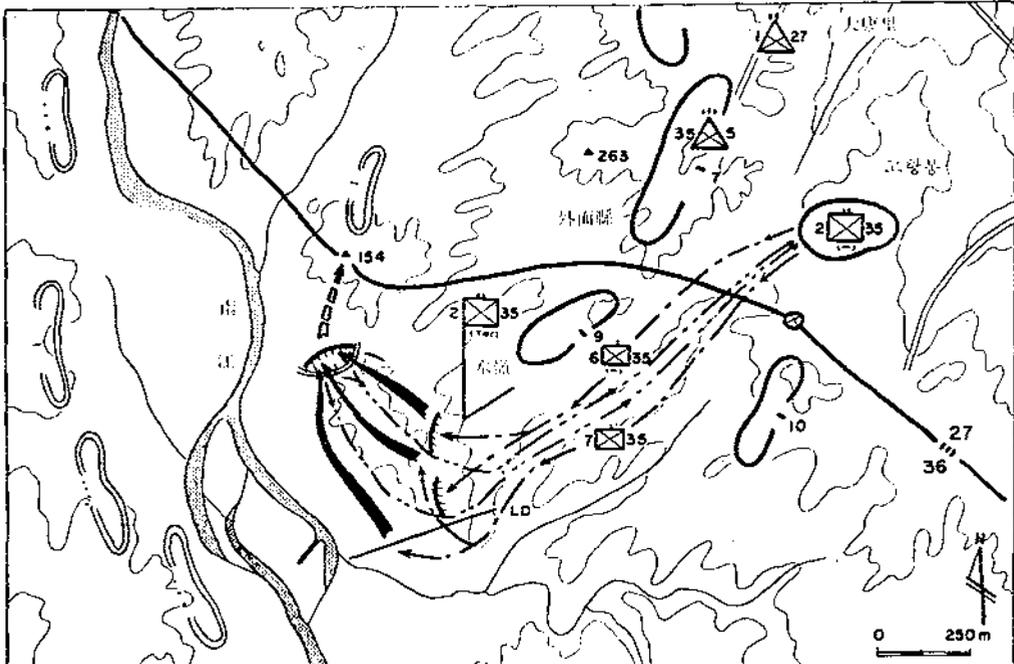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第27연대와 第36연대에서도 本作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陽動作戰을 展開하였는데 第27연대에서는 $\Delta 208$ 北쪽의 敵陣인 無名高地에 1個小隊, $\Delta 351$ 東北쪽 無 名高地에 2個소대를 20.30에 進出시켜 威力搜索케 하였고, $\Delta 154$ 東쪽 0.8Km에 1個소대 를 進入시키고 $\Delta 263$ 西쪽 0.5km에 1個소대를 推進시켰으며, 第36연대에서도 $\Delta 233$ 西쪽 南江越便 500m와 土器店 西側方 $\Delta 256$ 附近 및 그 南쪽 2Km에 각각 1개 소대씩 機動시켜 陽動作戰을 펴서 第35연대 作戰을 支援하였다.

1. 이와같이 航空支援과 陽動作戰이 進行되는 가운데 大隊은 掩護部隊인 第6중대(장, 吳永權 대위) 第3소대를 LD 東쪽(水嶺 南쪽) 500m에 進入시켜 攻擊梯隊인 第7중대의 攻擊 을 掩護케 하였으며, 第1소대는 LD 西南쪽을 迂回하여 目標高地 東南 500m에 배치하여 역시 掩護에 任하게 하였다.

이 目標 獨立高地는 北쪽으로는 溪谷을 넘어 $\Delta 154$ 가 隣接해 있고 西南으로는 開豁地로서 南江沿岸에 三角洲를 이룬 작은 獨立高地 四個峰으로 形成되었으며 東側斜面은 傾斜가 甚하지 않으나 西側斜面은 大概 傾斜가 急하여 곳에 따라서는 60° 를 넘는 곳도 있다.

이런 地理的인 條件을 勘案하여 第7중대장 金泳憲대위는 第1, 第2 兩소대는 LD에서 傾 斜가 甚하지 않은 東쪽을 迂回하여, 第6중대 第3소대가 배치된 지점에서 第1소대는 繼續하

◇ 상황도 제 7호 外沔里 北쪽 독립고지기습전(8.22~23)



여 目標高地의 東쪽을 迂回, 東側背에서 挾攻케 하고 제2소대는 제6중대 제3소대가 배치된 곳에서 正面을 直衝突破케 하여 目標獨立高地를 攻撃케 하였으며, 제3소대는 LD에서 西南쪽을 迂回하여 同高地의 南쪽峰을 後側背에서 突擊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目標獨立高地를 攻略키로 한 중대는 22.00 攻擊開始時間이 되자 各種支援砲가 猛烈히 炸裂하는 가운데 일제히 LD를 躍進하였다.

가) 제1, 제2 兩소대는 22.00에 攻擊開始線을 勇躍 出發소東쪽을 迂回하여 제6중대 제3, 대가 配置된 地點까지는 接敵 없이 進出하였는데 이곳에서 敵이 架設한 鐵條網과 地雷地帶에 부딪쳐 한때 進出이 中斷되었으나 배속된 공병소대 除去班에 依해 障礙物을 제거하고 23.20에 계속 進出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점에서 제1소대는 계속 東쪽을 迂回하여 目標高地의 東側 背後에서 挾攻케 한 곳이라, 東쪽稜線을 타고 敵陣을 壓縮하였으며 제2소대는 이곳에서 正面을 直衝케 한 곳이라 前斜面을 따라 進出하였다.

이때 目標高地 東南쪽 無名高地에서 敵의 自動火器가 出現하여 제1소대의 前進를 阻止하며 亂射하였다.

그리하여 제1소대는 한때 進出이 如意치 못하였으나 엄호부대인 제6중대 제1소대의 엄호 사격을 받으면서 포복약진하여 00.40에 突擊線까지의 進出에 성공하여 突擊準備를 갖추었고, 제2소대도 突擊線에 進出 突擊을 敢行코자 하였으나 敵은 掩體壕와 散兵壕에서 頑強히 抗拒하며 多發銃을 쏘아댔으며 自動火力도 불을 뿜어 제1, 제2소대는 頓挫狀態에서 치열한 火力戰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側方火力에 부딪쳐 頓挫된채 火力戰을 계속하던 東側背의 제1소대장은 그들을 타서 01.50에 火焰放射器組를 이끌고 側方火力據點을 向해 突進하여 接近하자, 화염을 퍼부었으며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火力據點에서는 爆音과 함께 火焰을 吐하며 파괴되었다.

이 瞬間 火力戰을 계속하던 제1, 제2 兩소대원들은 一時에 喊聲을 지르며 突擊하여 肉迫戰을 벌여 短兵接戰을 이루니 敵은 그만 이 氣勢에 놀려 陣地를 버리고 潰走하기 시작하였으며 攻擊梯隊는 目標高地 東쪽 2個主峰을 占領하자 계속 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다.

나) 한편 제3소대는 21.00에 LD의 西南쪽을 迂回하여 目標獨立高地 後側背로 進擊하였는데 이곳은 傾斜가 가파르고 急하여 進出하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더구나 南江 越便 △233쪽에서 敵砲擊이 甚하여 前進이 極難하였지만 소대는 이를 무릅쓰고 LD 前方 150餘m를 前陣하였을 무렵 敵 警戒部隊인 듯 한 數未詳의 兵力과 부딪쳐 激戰을 벌였다.

이때 掩護部隊로서 이 지점에 배치된 제6중대 제3소대의 火力支援을 받아 이를 곧 擊退하고 계속 追擊하여 00.45에 目標高地 西南쪽 側背 突擊線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突擊準備를 갖추고 突擊을 決行코자 하였으나 제3소대도 敵의 側方自動火力에 부딪쳐 挫折된채 銃擊만을 계속하였다.

이무렵 01.50 東쪽을 迂回한 제1소대가 화염방사기로 敵의 火力據點을 擊破하자 제3소대는 이매를 捕捉하여 突擊을 敢行하여 西쪽 主峰을 肉迫 短兵突入하니 이곳의 敵兵들도 散散히 흩어져 潰走하였으며 제3소대도 02.10 西쪽 主峰을 占領하고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2. 이와같이 제7중대(장, 金泳憲 대위)는 目標高地를 占領하자 제1, 제2 兩소대로 하여금 敵을 追擊, 戰果를 擴大케 하면서 逆襲에 對備시켰고 제3소대와 公병소대로써 敵陣地를 破壞시켜 施設物을 使用不能케 하는 동시에 陣內를 수색하였는데 이때 얻은 戰果는 射殺 20명 陣地破壞 4個所로서 所期의 作戰任務를 完遂하였다.

한편 陣地를 버리고 潰走한 敵의 散兵들은 △154쪽으로 潰走하여, 제7중대가 철수를 시작한 23.03.00까지 逆襲치 못하였으며, 중대는 大隊集結地로 全員 復歸하였다.

그리고 掩護部隊인 第6中隊(-1)도 大隊集結地에 復歸하였으며 2대대는 05.00에 중화기중대(-1)가 도착하자 15臺 車輛에 다시 分乘하여 集結地에서 출발, 13.00에는 駐屯地인 水洞里에 歸着함으로써 제35연대 제2대대는 이 奇襲作戰에서는 兵力損失도 없이 所期의 作戰任務를 完遂함으로써 △351奪還作戰에 이어 또 하나의 戰功을 세우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多發銃	長 銃	機關銃	陣地破壞	負	傷
20	4	1	1	4		5

라. 전투 후의 개황

제5사단 제27연대는 154高地 奇襲戰에서 많은 兵力損失을 보면서도 所期の 作戰任務를 다하지 못한 제1대대를 철수하여 原位인 金水里(高城郡 水洞面)에 復歸케 하였으나 이의 兵力補充도 받기 전에 제1次 351高地 戰鬪에 投入되어 7월 12일, 13일 兩일간에 걸쳐 20餘시간의 奮鬪作戰을 遂行케 되었지만 이 作戰에서도 성공치 못하고 그 任務를 제35연대에 인계하고 다시 金水里에서 兵力補充을 받아 整備와 敎育에 任하였는데 사단작명 제64호로써 8월 13일 제35연대의 陣地 및 임무를 인수하여 사단의 右一線 방어임무를 擔當하였다.

그런데 이때 北僞는 제1次 351高地 戰鬪에서 數대이상의 兵力과 裝備의 被害를 입고 敗退하였던 그 奮鬪戰을 企圖하여 이번에는 제86연대와 제82연대에서 가장 우수한 中隊 1個중대씩 抽出하여 △351 攻路를 위한 長期特殊訓練을 쌓았으며 그에 自動小銃中隊와 遊擊部隊의 1個소대가 舍命하여 9월 24일 01.00를 期하여 △351와 △339에 大擧晨攻을 試圖하였다.

當時 이곳을 방어하던 제27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는 한때 △339를 敵手中에 넘겨 주는 苦戰을 겪었지만 제2대대의 赴援으로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어 擊退하고 奮鬪確保함으로써 戰功을 세웠다.

이 戰鬪에서는 敵 75명을 射殺하고 武器多數를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고 損失은 戰死 27명과 戰傷者 48명이었다.

또한 제2次 351高地 戰鬪(前節參照)에서도 同高地를 한때 빼앗겼다가 다시 奮鬪함으로써 그 戰鬪力을 誇示하였다.

한편 제35연대는 外湖里 北쪽 獨立高地 奇襲戰에서 兵力損失없이 所期の 作戰任務를 完遂한 後 原位인 水洞里로 復歸하여 整備와 敎育을 마친 후 사단작명 제67호(9.24.12.00)로써 제36연대의 陣地 및 任務를 인수하여 사단 左一線방어임무를 擔當케 되었다.

그리고 제36연대는 水洞里에 移動集結하여 整備敎育을 실시하던중 사단작명 제69호(10.23.10.00)에 依하여 Kansas線, 방어진지를 補修케 되었다. 그 作命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繼續 現防禦任務를 遂行하면서 Kansas線 방어진지 補修作業을 實施, 次後作戰에 萬全을 期하러 한다.

② 제36연대는 隸下 2個大隊를 11월 4일부터 2일간 Kansas線에 移動完了하여 방어진지 補強工事を 實施케 하고 隸下 1個대대는 사단에비으로써 敎育訓練을 계속하라.』

이에 따라 제36연대는 제2대대를 사단에비으로써 整備와 敎育을 계속케 하고 제1, 제3대대를 Kansas線에 轉進시켜 補修工事を 실시하였는데 사단작명 제70호 수정작전지시 제2호(11.3.12.00)에 따라 乾原山에 豫備陣地도 構築케 되었으며 隣接 제11사단 제13연대와 密接한 協調를 維持하면서 該地區에 必要한 築城工事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사단은 이와같이 主抵抗線에 있어서의 作戰上的 主導權을 掌握하면서 한편으로는 Kansas線의 陣地 補強과 아울러 乾原山 一帶의 豫備陣地와 築城工事を 실시하여 次期作戰에도 對備 그 萬全을 期하고자 注力하였다.

3. 854高地 및 812高地戰鬪 (1952년 9월 21일부터 1952년 9월 22일까지)

(一名, 蘆田坪 北側高地 防禦戰)

참조: 별책부도 제 6 호

상 황 도 제 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8사단	장	준장	金 益 烈	美 제 145포병대대				
제 10연대	장	대령	申 彦 國	美 제 158포병대대				
제 1대대	장	소령	李 基 萬	美 제 196포병대대				
제 2대대	장	소령	韓 炳 甲	美 제 623포병대대				
제 3대대	장	소령	尹 炳 武	美 제 780포병대대				
제 16연대	장	대령	劉 載 成	美 제 2(4.2")重박격포대대				
제 1대대	장	소령	金 光	美 제 245전차대대				
제 2대대	장	소령	朴 斗 成	美 제 5 공군(항공근접지원)				
제 3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美 제 7 함대(합포지원사격)				
제 21연대	장	대령	孔 國 鎭	美 제 92探照燈중대(一)				
제 1대대	장	소령	崔 明 道	右인접부대				
제 2대대	장	대위	宋 齊 根	제 11사단	장	준장	林 富 澤	
제 3대대	장	소령	李 鳳 雲	左인접부대				
제 50포병대대	장	대위	金 龍 雲	美 제 25사단	장			
지원부대				소장	Samuel T. Williams			
제 19포병대대								
			敵	軍				
北傀	제 3군단	장	중장	柳 京 洙	제 90연대	장	대좌	崔 周 源
	제 45사단	장	소장	池 炳 學	제 91연대	장	대좌	金 浩
	제 89연대	장	대좌	金 喆 源	제 51포병연대	장	대좌	宋 昌 寧

나. 전투 전의 개황

제8사단은 1951년 10월 1일에 白石山(△1142)을 점령확보함과 동시에 美 제10군단의 作戰指示 제240호('51. 10. 3부)로 魚隱山 南側地區의 3단계 작전을 실시한 결과, 10월 28일에 △1090—△931—△680間的 前進據點을 굳힘으로써 左인접인 美제9군단의 Duluth 線(金城—平康—五聖山) 進出에 호응한 主抵抗線을 방어하고 있던 중, 陸本作指 제108호로 陸本直轄이 되어 11월 20일부로 作戰地域을 제7사단에 인계하고 叡州에 이동, 白野戰鬪司司令部에 배속됨으로써 首都사단과 더불어 西南地區 共匪擊滅作戰을 수행하였다.

해가 바뀌어 사단은 다시 陸本계획으로 戰線復歸次 1952년 2월 6일에 陽地里(南原 北쪽 36km), 叡州, 井邑을 떠나 제1야전경비훈련소인 長峴里(京畿道楊州郡株核面)에 징결하여 部隊教育을 실시하던 중, 美 제8군의 作命으로 美 제10군단에 편입되어('52. 3. 18. 18.00부) 新村里(江原道麟蹄郡瑞和面)로 이동집결함으로써 美 제1해병사단이 담당중이던 現作戰地域인 Minnesota 線(△591—△854—△812—△924)을 인수하여 次期作戰을 위한 東部戰線 左翼의 主抵抗線 防禦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昭陽江의 上流部位를 占하는 이 作戰地域은 江줄기를 따라 南下하는 我軍 主補給路(蘆田坪—元通—麟蹄—冠堡里)를 拖扼하는 作戰上的 要部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東部戰線을 東北으로 횡단하며 北流하는 南江(至高城)邊에 있는 敵의 主補給路를 直衝하는 分岐點이기 때문에 Minnesota 線에 대한 그들의 壓力이 加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敵軍의 상황 : 사단 정면의 北愧 제3군단 예하 제1, 제45 兩사단 및 제1군단 예하 제47사단의 3개 사단은 休戰會談 期間의 小原상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각종 火器·彈藥 및 그밖의 모든 補給品을 보충하여 防禦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친 攻擊準備에 腐心한듯 하였다. 제1사단은 1946년 2월 共產熱誠分子를 중심으로 平南价川에서 창설되어 平壤에 주둔하고 있다가 韓國戰爭 初頭に 開城方面으로 침입한 部隊이고, 제45사단은 1950년 12월 東北閔州省龍井에서 義勇軍出身과 國軍捕虜로서 편성되어 1951년 2월 新義州—平壤을 경유, 그해 4월 麟蹄戰鬪에 投入되었던 部隊이며, 제47사단은 1947년 2월에 興南에서 창설되어 이戰爭 當初 서울方面으로 侵入하여 我軍反擊으로 그 主力이 壞滅된 다음에는 南韓에서 拉致해 간 青年과 平北邊邊地方의 俗稱 “달달이” 鑛山 鑛夫들로 再編된 部隊였다.

1952년 9월 21일 현재, 我사단 主抵抗線上的 △854 및 △812 兩高地에 攻襲을 가할 당시, 사단 正面의 敵兵力은 21,000명(그중 예비병력이 9,000명)으로 추정되며, 그 主裝備는 個人裝備로서 多發銃, 自動小銃, 蘇式長銃, 手榴彈으로 완전무장했으며, 重裝備로서는 76 및 45mm 直射砲, 重·輕機關銃, 反戰車砲, 122 및 120mm 榴彈砲, 82 및 61mm 迫擊砲, 對空砲등을 장비했으며, 捕虜진술에 의하면 △854 攻擊時에는 白兵戰에 대비한 棍棒을 步兵士에게 소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敵은 지난 3월 이래, 방어진지를 계속 강화해오더니, 9월에 이르러서는 砲·爆擊에도 능히 견딜만한 強度를 갖추게 되었고, 머지 않아 닥쳐올 冬期酷寒에 대비하여 散兵壕마다 溫突을 갖추기까지 하였다.

敵의 部隊配置는 姑味城里로부터 西南쪽 △751까지의 16km에 걸친 主抵抗線에 12,000兵力으로 縱深을 갖추었으며, 巫山—萬福臺—화학洞에 軍단에비로 9,000兵力을 控置하였는데, 그 지원火力으로는 제54사단의 제51포병연대를 비롯한 3개 포병연대를 주로 溪谷 사이에 배치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는 我軍의 空中攻擊을 피하기 위함인데, 補給輸送에 있어서도 주로 夜間을 이용하여 牛馬車와 人力을 동원하면서 식량과 탄약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으며, 9월 초순에 이미 冬服을 지급완료하였다고 한다.

我軍의 상황 : 3월 23일에 美 제1해병사단의 방어정면을 인수한 사단은 新村里에 사단 CP를 설치

하고, 右一線에 제10연대를, 左一線에 제16연대를 내세우고, 제21연대를 사단예비로 瑞和里에 집결시킨 가운데, 主抵抗線인 Minnesota線을 계속 補強한 결과 9월에 이르러서는 그 強度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右一線인 제10연대(장, 申彦國대령)는 연대 CP를 加田里에 설치하여 △878와 △854를 중심으로 제3, 제1 兩대대를 主抵抗線에 내세우고,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하여 △765南斜面 溪谷間에 控置하였으며, 左一線인 제16연대(장, 劉載成대령)는 연대 CP를 頓平里에 설치하여 △812와 △752를 중심으로 제1, 제3 兩대대를 내세우고 제2대대를 城內洞에 연대예비로 控置하였다.

사단 主抵抗線인 Minnesota線은 △591-△878-△854-△812-△924(月山嶺의 西北쪽)를 잇는 連峰高地群인데, 제10연대의 방어정면은 11.2km가 되고, 제16연대는 9km나 되는 정면을 담당하기 때문에 散兵間의 거리는 곳에 따라서는 25m가 넘는 難點이 없지 않았다. 한편, 支援砲兵은 주로 加田里 및 蘆田坪에 위치하였는데, 美 제2重박격포대대(4.2")는 제16, 제10 兩연대의 主抵抗線 後斜面에 각 1개 중대씩 배치하여 △854와 △812를 주로 엄호케 하였다.

또한 美 제245전차대대는 徹尾洞 北쪽의 昭陽江上流 兩岸에 主力을 配陣하여 砲門을 整齊하였는 바, 이는 △854에 대한 敵의 主攻을 側方에서 制壓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사단正面의 地形을 瞥見컨대, 南江이 東北으로 右翼 前方을 北流하고 있으며, 南流하는 昭陽江이 거의 中央部位를 縱斷하고 있어서, 이 流域에 沿하여 一線 兩 연대의 戰鬪地境線이 劃定되었다.

이 兩江은 모두 連峰豎縷의 山麓을 누비는 幽谷을 이루고 있는데, △854 前面에는 △795가 一連의 稜線을 잇고 있으며, △812의 西쪽에는 蘆田坪 일대를 瞰制하는 △1052가 聳立하고 있어, 主補給路 運營에 적지 않은 阻礙을 惹起 못하였다.

我軍의 主補給路는 元通里-瑞和里-蘆田坪-黃基間的 複車道인데, 이 외에도 瑞和里-橋洞間的 道路와 大谷里-釜淵洞-△591間的 細路등 여러 줄기의 推進補給路도 이용되었다.

다. 전투 경과와 개요

(1) 작전 계획

사단은 本作戰地域을 인수한 이래, 敵과의 對陣交綏狀態를 유지하는 가운데, 美 제5공군의 항공근접지원과 美 제7함대의 함포지원을 받으면서 日日平均 1,000발 내외의 砲擊을 加했으며, 敵情과약과 先制奇襲을 兼한 大小規模의 搜索接戰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投降者의 획득과 敵의 士氣低下를 목적으로 하는 心理戰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바 3월 이래 8월까지 71명의 投降者를 얻어 敵情수집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投降者들의 진술과 수색정찰組가 수집한 敵情을 종합분석한 결과, 북괴 제45사단은 9월 중순 이후에 대공세를 자행하게 될 公算이 컸으며, 그 主攻목표가 △854 및 △812의 두 방어據點이라는 점에 비추어, 主抵抗線의 築城工事와 火網構築 및 前進陣地의 補強등이 時急하였다.

이에, 사단장 金益烈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107호를 하달하여, 主抵抗線強化에 力點을 집중케 하였다.

- 『① 主抵抗陣地の 個人 및 共用火器掩體壕를 現交通壕로부터 3~5 m 前方에 추진시키되, 120mm 迫撃砲 및 直射砲의 直撃彈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 ② 射界清掃를 실시하되, 敵이 認知하지 못하도록 僞裝에 留意하라.
- ③ 有線網의 保護, 보급 및 機能발휘를 확보하기 위하여, 背斜面 8部稜綫에 安全通路를 설치하라.
- ④ 共用火器 掩體壕는 必히 수개의 豫備壕를 구축하라.
- ⑤ 交通壕는 立歩하여도 露出되지 않게 깊이 파되. 敵의 視界를 考慮하여 適合하게 屈曲시키라.
- ⑥ 待避 및 貯藏壕는 必히 交通壕로부터 3~5m 後方에 구축하라.』

이와 같이, 主抵抗線의 築城工事를 促進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사단作指 제113호(9.2부)로 豫備陣地인 Kansas 線의 補強工事도 추진하였으니, 이로써 사단은 예상되는 북괴 제45사단主力의 次期攻勢에 대비하여 만전을 期하게 되었다.

그런데, 美 제10군단은 既定 作戰計劃의 一環으로 사단의 現防禦任務를 군단예비인 美 제45사단으로 하여금 인수 담당케 하기 위하여 9월 24일까지 부대交代를 완료하라는 作命을 하달하였다.

이에 사단은 作命 제162호(9.20부)로 9월 22일 21.00부터 제10연대 제3대대를 竊부로 하여 陣地引繼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北傀 제45사단은 마치 이 陣地交代의 虛隙을 노리기나 하는 듯이 그 전날인 21일 18.00부터 攻撃하기 시작하였다.

(2) 작전 실시

9월 21일 : 北傀 제45사단은 21.10에 3시간에 걸친 집중포격의 射程을 연신함과 동시에 2개 대대로써 △812를 攻撃하기 시작하고, 22.40에는 2개 중대를 增強한 1개연대(一)를 △854에 투입하였다.

이 時間隔差 및 兵力의 규모로 미루어 그 攻撃企圖를 분석컨대, △812를 陽攻함과 동시에 主攻을 △854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 854高地의 戰況

제10연대의 左제1선인 제1대대(장, 李基萬소령)는 △705를 중심으로 하는 右제1선에 제3중대(장, 金秉先중위)를, △854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제1선에 제2중대(장, 河小坤중위)를, 黃基를 掩扼하는 左제1선에 제1중대와 배속받은 연대 수색중대(一)를 각각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날 18.00에 시작된 敵의 砲撃이 점차 激化되어 방어정면의 敵情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 중대는 前進陣地의 警戒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夜暗 질은 豫想接近路上에 火力의 重點을 指向하고 있었다.

가) 제2중대의 死鬪 3시간 : △854의 主峰을 중심으로 主陣地를 갖춘 제2중대는 사단 主抵抗線중에서도 가장 막중한 防禦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矜持도 드높게 敵勢를 睥睨하고

있었는데, 22.40에 高地 西斜面의 2개 前進陣地 前面에 1개 소대규모의 敵이 접근을 피하기 시작하자 睡手發奮하여 그 後續部隊를 陣前擊滅하리라는 決意를 더욱 가다듬었다.

그런데 이 時刻에 中대는 數倍가 넘는 敵勢를 앞두고 있었다.

즉, 사단 正面의 北傀 제45사단은 지난 3월 이래의 交綏狀態를 打開하고 △854를 奪取함으로써 Minnesota 線에 楔鋒을 打入할 企圖下에, 예비연대인 제89연대를 攻擊梯隊로 推進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대과 金喆源이 이끄는 同연대는 主抵抗線상의 제91연대를 초월함과 동시에 증강된 2개 中대를 배속받고, △854 西쪽의 攻擊開始線에 集中的으로 집결하였으니, 이 1개 연대는 1개 고지의 방어정면에 대하여 波濤와도 같은 兵勢가 아닐 수 없었다. 즉, 北傀 제45사단은 最短時間內에 △854를 집중공격함으로써 Minnesota 線에 楔形突破口를 형성하려는 攻擊企圖인듯 하였다.

이때, 제2중대장 河小坤 중위는 △854의 南北으로 평평한 頂上의 部隊를 중심으로 하여, 北쪽 突出部の 右제1선에 제3소대를, 西쪽 斜面 9部稜線의 중앙제1선에 제2소대를, 南쪽 突出部の 左제1선에 제1소대를 각각 배치하고, 戰車 1대와 81mm 迫擊砲 6문 및 4.2" 重迫砲 10문의 直接支援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白夜를 이룬 照明彈下에서 4개 前進陣地로부터의 情報보고는 分秒가 지날 수록 危急을 告하게 되었다.

『敵이 구름같이 몰려 옵니다!』

이 悲壯한 긴급보고에 接한 中대장은 前進陣地의 병력 손실을 감안하여 早期撤收를 命함과 동시에 西斜面과 그 前面의 接近路에 대한 遮斷射擊을 긴급 요청하였다.

그러나, 中대 主陣地에 대한 敵의 主攻은 波狀의으로 반복되었다. 치열한 制壓射擊의 延伸에 副接하는 攻擊梯隊의 波狀攻擊은 中共의 人海戰術을 모방함인지, 人命損失을 不顧하는 人波의 연속이었다. 이에 中대장 河小坤 중위는 火器小隊의 火箭을 主陣地 西斜面에 집중하여 敵勢를 분쇄코자 하였으나, 刻一刻으로 氣勝스러워지는 敵의 先鋒은 02.30에 이르러, 제1소대 방어지의 陣前까지 近接하게 되었으니, 中대는 수류탄으로 最後阻止에 死力을 다하였다.

血戰에 이은 血戰이 다시 30분이나 전개되어, 血雨가 霏霏하고 肉塊가 飛散하더니 左제1선의 제3소대의 一角으로 새로운 增援兵力을 투입하는 敵勢로 因하여, 마침내는 防禦정면을 수습해야만 했던 中대는 03.30에 대대의 긴급 철수명령으로 △854의 頂上을 일단 비우고 高地東南쪽 △584에 이르는 稜線上에 阻止陣地를 急編하였다.

나) 제3중대 제3소대장의 壯烈한 散華: 대대 右제1선인 제3중대는 俗稱 삼재嶺의 東쪽에 屹立한 △705 頂上部位에 中대 본부를 설치하고 主陣地를 9部稜線에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 △705는 △854와 1km의 거리로 相接하는 同一稜線上에서 연대 右一線의 要部를 이루고 있으며, Minnesota 線에서도 가장 險難한 急斜面을 이루는 要地였다. 이날 22.40

에 △854를 공격하기 시작한 敵은 助攻의 一部로써 제3중대 정면에 2개 중대를 투입하였는데, 北傀 제91연대의 예비인 이 攻擊梯隊는 高地 北쪽 1.2km의 △465까지 추진배치한 4문의 直射砲와 82mm 迫擊砲 8문의 火力延伸에 罣接하여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3중대장 金秉先 중위는 右제1선에 제2소대를, 중앙 제1선에 제1소대를, 左제1선에 제3소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특히 제3소대는 중대 主陣地의 命脈인 重要정면을 맡고 있었다. 즉, 左인접인 △854의 제2중대와의 戰鬪地境線에 沿하는 谷間이 西側正面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敵이 夜暗을 이용하여 접근해 올 可能性이 가장 많은 部位였다.

이 예상은 敵의 攻擊開始와 동시에 사실로 나타났다. 즉, 2개 중대의 敵은 제2, 제1 兩소대正面의 急斜面을 피하여, 이 谷間으로 攻擊軸線을 指向하였으니, 제3소대는 數倍의 敵을 맞아 初戰부터 惡戰苦鬪를 거듭하게 되었다.

谷間에는 砲彈의 炸裂소리가 轟然하고, 小火器의 連射소리에 섞여, 防者의 怒氣어린 喊聲이 夜氣를 震動하였다.

이는 必是, 제3소대員들이 一夫當關의 氣概와 滅共必勝의 一念으로 외치는 喊聲이려니와 소대장 崔炳益 소위는 谷間을 바로 굽어보는 主陣地의 一角에서 大號하되,

『民族의 怨讐를 모조리 죽여라!』고 鼓舞激勵하니, 소대원들은 지칠 줄 모르는 勇戰을 거듭하면서, 陣前으로 다가오는 敵兵에게 手榴彈 洗禮를 퍼부었다.

그러나 優勢한 兵力으로 氣勝스러운 敵勢는 子正이 넘을 무렵에 제2분대 진지를 侵襲하였다.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敵兵을 맞아, 白兵戰으로 移行한 분대는 暗口號를 외치면서 屠戮의 白刃을 휘둘러 그 初波를 일단 물리쳤는데, 숨들릴 사이도 없이 다시 들이닥치는 侵襲 제2波로 因하여, 분대陣地에는 肉塊가 飛散하는 激突이 再演되었다.

이 危急한 戰況을 보고 받은 소대장 崔炳益소위는 即刻 三名의 本部要員을 이끌고 死鬪의 渦中으로 挺身하면서

『소대장 여기 왔다!』

라고 외치니 照明彈의 光茫속으로 浮刻된 그 모습이 늑름하기 짝이 없었다.

소대장의 이 捨身의 陣頭指揮는 붕괴직전인 제2분대는 물론이려니와 소대전원의 起死回生을 鼓舞케 하였다.

그러나 수류탄 1발이 폭발하여 그 무수한 破片을 全身에 입은 崔炳益 중위는 巨木이 쓸어지듯 陣地의 북편에서 散華하고 말았다. 壯熱한 그 죽음을 阻堵한 副分隊長 房永漢하사 小銃手 金永吉하사 및 朴三燮일병 3명은 소대장의 屍體를 끌어 안고,

『소대장님의 원수를 갚자! 소대장님의 뒤를 따르자!』

고 외치고 또 외쳤다. 이 피뎀한 怒聲은 제3소대 전원의 가슴에 메아리쳐, 必死의 勇力을 불러 일으키고 突破당했던 陣地의 一角을 奪還함과 동시에 마침내는 敵勢를 完全히 驅逐하고야 말았으니 그 時刻은 血戰死鬪 3시간만인 22일 01.40부렵이었다.

2. 812高地의 戰況

敵의 $\triangle 1052$ 로부터 敵制당하는 不利한 情況下에서 $\triangle 812$ 를 防守중인 제16연대 제1대대 (장, 金光소령)는 高地의 主峰 東쪽으로 連해 있는 同一稜線상의 右제1선에 제3중대를, 중앙제1선에 제2중대를, 左제1선에 제1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배속받은 연대수색중대(장, 洪鍾憲대위)를 예비로 $\triangle 812$ 背斜面에 控置하고 있던 차에, 이날 22.10부터 敵의 熾烈한 集中砲擊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연대정면의 主敵은 北傀 제45사단의 右一線인 제90연대로써, 제89연대의 $\triangle 854$ 主攻에 앞서 $\triangle 812$ 에 대한 陽攻을 피하는 것으로 看做되었다.

즉, $\triangle 854$ 主攻보다 30분 앞선 이날 22.10에 攻擊제1波를 투입하고, 2개대대로 推算되는 兵力을 이에 後續시키면서 大대 前面에 均형된 壓力을 加하였다. 이는 大대 防守線에 突破口를 形成하기 보다는 사단의 火力을 誘引하여 $\triangle 854$ 主攻을 速決케 하려는 作戰상의 計略으로 看做되기도 하였다.

가) 優勢한 火力으로 強打 : 사단은 $\triangle 812$ 防守에 있어서 敵情과 地形등을 감안하여 西쪽 $\triangle 812$ — $\triangle 1052$ 間의 稜線과 北쪽으로는 昭陽江邊까지의 緩斜面 일대에 火集點을 構成하여 火力으로써 敵襲을 擊摧키로 하였는데 이날 상황이 벌어지자 이 예정된 火集點에 遮斷 火力을 집중하였다.

한편, 黃基 北쪽 昭陽江의 三角洲高地에 위치한 美제245전차대대 소속 1개소대(+)는 美 제92探照燈중대(-)의 照射協調裡에 敵의 自動火器를 索出하는 즉시로 撲滅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空中照明이 輝煌한 接近路는 東海岸에서 集中하는 美 제7함대의 艦砲射擊이 炸裂하여 優勢한 火力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敵 2개 大대의 攻擊隊列을 強打하였다.

나) 제1중대의 善防과 수색중대의 適時增援 : $\triangle 812$ 의 頂上部位에 중대 OP를 설치한 大대 左제1선 제1중대는 俗稱 대방골을 俯瞰하는 北斜面의 8部稜線과 西쪽 稜線을 制扼하는 突出部位에 3개의 소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날 22.10에 攻擊準備射擊의 延伸과 더불어 波狀지는 敵 1개 大대에 防守의 火箭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時刻에 右인접 제3 및 제2 兩 中대 正面에도 1개 大대가 攻擊을 試圖하였는데, 我軍의 支援火力은 昭陽江邊의 渡河點에 설정한 火集點에서 이 敵勢를 捕捉하여 殲滅的인 打擊을 加함으로써 $\triangle 512$ 主峰의 東쪽 稜線에 대한 敵의 銳峰을 꺾고 말았다.

敵은 이로 因하여 北斜面에 대한 攻擊을 단념하고 西쪽 稜線상의 接近路에 제60연대 제1대대 主力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제1중대는 이때 이 정면의 陣地에 右제1선인 제2소대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소대장 蔡萬善 소위는 全小隊員과 더불어 陣前擊滅의 決意도 드높게 敵을 맞이하였다.

一波又一波로 陣前에서 氣勝부리는 敵勢를 향하여 소대의 全火力을 集注하기를 4시간, 총열이 灼熱하고 壘塹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소대장의 阿修羅와도 같은 陣頭指揮에 鼓舞된 全小隊員은 共死固守의 血鬪를 거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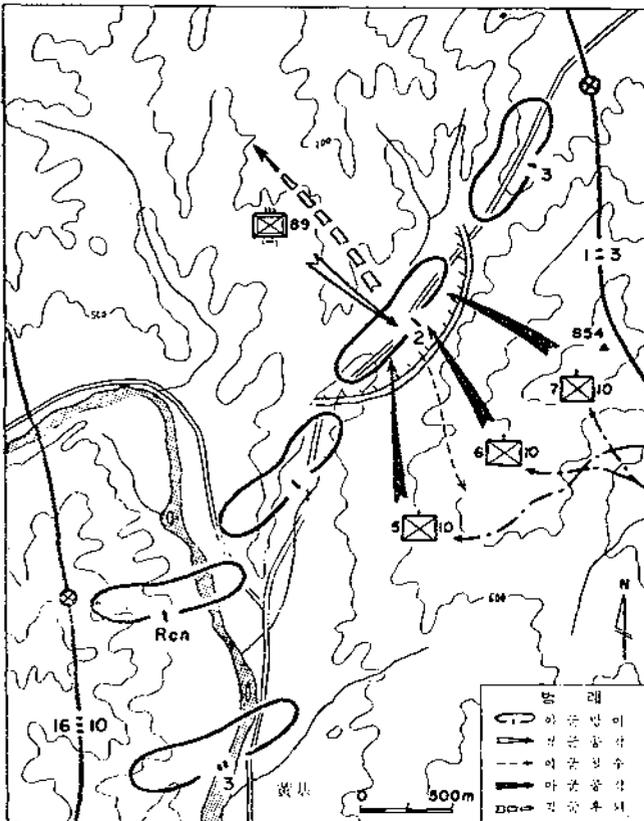
날이 바뀌어 22일 03.00, 대대장 金 光소령은 제1중대의 善防勇戰에도 불구하고 攻擊波狀을 거두지 않는 敵에게 決定的인 一擊을 加하기 위하여, △812 背斜面에 控置중이던 수색중대에 緊急命을 내려, 제1중대의 戰列과 合勢토록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勇躍, 集結地를 박차고 血戰場으로 急進하는 중대의 陣頭에서 黎明의 草露를 밟아 나갔다.

수색중대의 適時 增援은 제1중대의 士氣를 衝天케 하였음은 물론이려니와 醜敵에게는 致命的인 衝擊이 아닐 수 없었으니, 東天이 밝고 上午의 햇살이 눈부신 09.20에 이르러, 마침내는 防者의 凱歌만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로써 제1중대 및 수색중대는 潰走하는 敵을 더욱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하고, △812의 堅陣을 다시 가다듬기에 이르렀다.

◇ 상황도 제 8 호 △854의 逆襲 (9.22)



9월 22일(逆襲, 854高地奪還):

苟合督戰下의 人海戰術은 中共 侵略兵勢의 唯獨한 戰法만은 아 닌듯, 北傀의 人海波狀인 侵襲으로 囚하여 03.30에 △854가 失陷되자, 제10연대장 申彦國 대령은 即刻的인 逆襲을 決心하고 이날 04.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 口頭命을 高地奪還을 恣號하였다.

- 『① 연대는 △854를 逆襲으로 奪還確保하려 한다.
- ② 제2대대는 松魚月로 轉進, 22일 12.00에 攻擊을 敢行하여 △854를 奪還確保하라.
- ③ 제1대대는 敵의 突破口 擴大를 極力 봉쇄함과 동시에 제2대대의 逆襲을 掩護하라.
- ④ 제3대대는 現 防禦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사단의 全 支援火力은 △854에 集中될 것이며, 空中近接支援 및 艦砲支援은 要請에 따라 隨時로 行해질 것이다.』

이로써 △765(松魚月 東쪽 1.2km)의 南斜面에 集結中이던 제2대대(장, 韓炳甲 소령)는

松魚月(俗稱 송어달, △854南쪽 1km)로 急轉進하여 06.50 현재, △854 南麓의 LD에 제 7중대를 右제1선에, 제6중대를 중앙 제1선에, 제5중대를 左제1선에 각각 내세워 戰列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연대장 申彥國대령은 逆襲作命을 下達하고 나서 不意의 身病으로 後送되고, 사단 참모장인 李世鎬대령이 代理로써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가) 突破口의 閉塞: 이날 03.30에 △854의 제2중대 主陣地가 突破 당하자 대대장 李基萬소령은 右제1선 제3중대 및 左제1선의 제1중대로 하여금, 敵의 侵襲에 대한 左右挾擊을爲한 火力을 일제히 集中케 하는 동시에, 戰車隊의 側射를 요청하였다. 이와 아울러 대대를 直接支援중인 美제2重박격포대대의 4.2" 1개 중대와 대대 重火器중대의 81mm 砲列은 侵襲部位에 대한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敵에 대한 出血을 強要하였다.

그런데 05.00현재의 敵勢는 △854의 頂上部位를 奪取한 餘勢를 물고 氣勝스럽게 突破口를 확대코자 하였으나, 제3, 제1 兩중대의 果敢한 側攻挾擊과 支援砲火의 集中炸裂로 因하여 肉塊가 飛散하는 呵鼻叫喚을 演出하더니, 마침내는 急編陣地로 萎縮되고 말았으므로, 高地의 奪還은 時間문제로만 看做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06.50에 敵의 突破口 擴大를 完全히 閉塞한 연대는 空中에서의 近接支援과 艦砲의 支援射擊을 要請하여 △854 北斜面에 대한 遮斷彈幕을 形成케 하는 가운데, 제2대대의 逆襲을 敢行하게 되었다.

나) 熾烈한 逆襲準備射擊: 이에 사단장 金益烈준장은 美 제145보병대대를 비롯한 7개 支援포병대대 및 美 제245전차대대의 직접지원과 空中近接支援 및 艦砲支援射擊에 의한 火力增強을 받아, 12.00에 逆襲을 敢行키로 하였는데, 그보다 30분 앞선 11.30에 逆襲準備射擊의 砲門이 일제히 열리기 시작하자, △854는 瞬時に 硝煙에 뒤덮이고, 鐵片이 亂舞하는 血鬪場으로 一變하고 말았다.

특히 黃基北쪽의 昭陽江의 三角洲高地에 위치한 전차 1개 소대는 전날까지 △812 防守를 지원하던 砲門을 180° 右旋回하여, 1.2km 相距한 △854의 西斜面을 照準側射하니, 그 轟음이 메아리칠 때마다 飛散하는 敵屍가 肉眼으로도 能히 望見되었다.

또한 東海岸의 美 제7함대의 戰艦 Missouri 號가 Salvo 射擊으로 퍼붓는 巨彈 9발이 一時에 炸裂할 때마다 온 산이 震動하고 岩塊가 紛飛하였다.

이 熾烈을 極한 逆襲準備射擊이 계속 되는 동안, 逆襲梯隊인 제2대대의 3개 중대는 記錄을 가다듬어 攻擊開始의 命令만을 苦待하고 있었다.

다) 제2대대의 逆襲成功 (854高地의 完全奪還): 30분에 及한 逆襲準備射擊이 12.00正刻을 期하여 延伸되기 시작하자, 제2대대는 命令一下에 LD를 박차고 突進해 나갔다.

이때, 대대의 LD는 松魚月 東쪽 800m의 6部稜線과 그 西쪽으로 500m의 6部稜線에 걸쳐 있었는데, △854의 東南斜面을 올라다 보는 이 逆襲進路는 右제1선인 제7중대의 正面이 急하게 발달지고, 중앙 및 左제1선의 正面은 대체로 完滿하였다.

敵은 逆襲準備射擊이 延伸되면서 부터 我軍의 逆襲을 感知했음인지 共用火器의 集中射擊과 더불어 急編陣地의 火力據點에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듯이 자못 氣勝스러웠다.

그러나, 跳躍決戰의 雪憤一念과 必勝의 信念으로 戰意衝天한 각 중대는 포복전진에 이은 分隊躍進을 거듭한 끝에 △854의 頂上部位를 탈환하고 高地西斜面으로 潰散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戰果를 擴大해 나갔으니, 그 時刻은 昭陽江 深谷에 夕影이 깃들기 시작하는 16. 10이었다.

이로써 제2대대는 △854를 완전 확보하여 陣地를 補修再編하여 敵의 反擊에 대비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21일부터 22일까지에 걸쳐 △854와 △812의 전투를 끝낸 사단은 陣地를 補強하면서 熾烈한 砲兵支援下에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에 注力하였는데 軍단作命에 의거하여 9월 25일에는 右一線인 제10연대(장, 대령 李世鎬대령)가, 美제45사단 제180연대에, 左一線인 제16연대(장, 劉載成대령)가 美제279연대에 각각 Missouri 線上의 主陣地를 引繼하고 9월 28일에는 史倉里의 제5FTC에 轉入과 同時에 美 제10군단으로부터 美 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 소장)으로 배속이 變更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部隊整備와 敎育訓練에 着手하였는데 陸本 作指에 의거하여 10월 19일 00. 01附로 美 제9군단으로부터 제2군단(장, 劉載興중장)으로 또 다시 배속이 變更됨에 따라 사단은 作命 제163호(10. 17. 12. 00) 및 同호 修正作指 제1호(10. 19. 17. 00)에 의거하여 10월 25일附로 제16연대가 수도사단 제26연대(장, 鄭 錫대령)의 主陣地를, 제21연대가 기갑연대(장, 陸根深대령)의 主陣地를, 그리고 제10연대(장, 李寬植대령)가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의 예비陣地를 각각 引受하였으며 사단 CP는 史倉里로부터 注波里(金化 邊陲)로 躍進하였다.

사단은 제21, 제16 兩연대를 左右 一線연대로 하고 △349(魚雲里 西南쪽 1.5km)—無名高地(龍湖洞 東北쪽 1.5km)—△663(崖首洞 南쪽 1km)—△690—△765(轎岩山 東쪽 1km)에 이르는 Missouri 線上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10연대는 廣大洞附近에 예비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右로는 제3사단(장, 白南權중장), 左로는 제6사단(장, 白仁燾중장)과 連繫를 維持하고 제50포병대대와 제9포병단(제67, 제68 兩포병대대)의 直接支援과 제98포병대대 및 美 제176, 제987 兩포병대대의 火力增援下에 陣地를 補強하면서 制限된 目標에 대한 奇襲戰을 계속 敢行하여 捕虜獲得과 敵陣攪亂에 注力하였다.

그런데 사단 作命 제165호(11. 25. 09. 00)에 의거하여 제10연대는 12월 3일 03. 00附로 左一線인 제21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였으며 12월 8일에는 軍단 作命에 따라서 左右隣接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이 調整됨으로써 右一線인 제16연대가 北漢江東岸의 △349附近陣地를 제3사단에 引繼하고 左一線인 제10연대가 左隣接인 제6사단으로부터 轎岩山 東쪽의 無名高地 一帶의 陣地를 引受하였다.

한편 當面의 敵은 中共 제12군 제35사단 제104연대와 제101사단 제101연대였으나 수도사단(장, 宋堯謙소장)에 의거하여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에서 큰 打擊을 받기에 이르자, 10월 下旬에 제12군은 제67군과 그 作戰任務를 交代하고 그 隸下의 제201사단 제603연대가 我제16연대 正面에, 제602연대가 我제21연대 正面에 각각 展開하여 대치한 것으로 是認되었다.

52년 4월 以來로 淮陽附近에서 部隊整備와 戰鬪訓練을 쌓은 것으로 推定되는 제67군은 士氣 및 補給이 比較的 良好하여 攻守兩面의 戰鬪力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으나 我軍의 制空權掌握과 優勢

한 砲兵火力으로 全面攻勢보다는 차라리 局部的 攻勢로써 前進陣地의 爭奪戰을 試圖할 것으로 보였는데 萬若 이러한 공세를 取한다면 首都高地와 指形稜線으로 그 攻擊力을 指向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854와 △812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大要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319명	戰 死	60명
推定殺傷	347명	戰 傷	213명
捕 虜	1명		

§ 參戰者의 證言

◇ 제10연대 제2중대장 河小坤중위

(1966. 2. 2 제6관구사령부에서, 대령)

△854에 대한 北傀 제89연대의 공격은 마치 中共式 人海戰術이었다. 우리 제2중대는 高地의 頂上을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敵의 主攻目標가 되고 말았는데, 밀려오는 敵을 아무리 와 죽여도 또 나타나곤 할 정도로 우세한 兵力이었다.

이 전투가 낮에 벌어졌다면, 我軍의 空中近接支援이나 戰車支援射擊으로 莫甚한 出血을 強要할 수 있는 좋은 機會였는데, 夜間戰鬪가 돼나서, 그 좋은 機會를 놓쳤던 것이 遺憾스러웠다.

그런데, 우리 제2중대가 대대장의 철수명령을 받고, 高地頂上을 일단 내어주는 했으나, 결과로 봐서는 아주 적절한 誘引作戰의 성과를 거둔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22일 날이 밝자 空軍支援이 시작되고, 艦砲가 터지고 하더니, 11.30부터는 그야말로 殲滅的인 集中砲火가 敵을 완전히 감싸 버렸는데, 그들의 兵力損失은 그 대부분이 이 때에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2대대의 逆襲도 아주 손쉽게 성공한 셈인데, 이때처럼 美軍의 支援火力이 集中的으로 熾烈한 것은 내 경험으로는 처음이었다. 특히 艦砲의 威力은 可憐스러우며, 戰車砲의 直射威力도 마치 戰鬪示範을 보여주는 것처럼 正確無比했다.

§ 戰 訓

◇ 854高地 逆襲成功의 要因

(가) 敵突破口의 早期閉塞 : 突破당한 제2중대의 左右안접인 제3 및 제1 兩중대는 側面이 露出되어 極히 危險하였으나, 兩중대 共に 이 危險을 克服하면서 側攻夾擊을 敢行함으로써 敵의 突破口閉塞에 성공하여 逆襲을 容易케 하였다.

(나) 步戰砲및空地協同作戰 : 逆襲準備射擊을 위하여 緊密히 協調된 火力計劃을 수립하고, 戰車 및 砲兵의 集中運用이 順調로왔으며, 특히 空軍近接支援은 步兵의 果敢한 逆襲突進과 매를 맞추어 22일 10.05부터 18.00까지 연 95대가 出動하였었다.

§ 研 究

△854는 1951. 9. 19. 09.00에 제8사단이 北傀 제3군단 제15사단을 擊摧하고 占領했던 옛 戰場이었다. 그러므로 主戰鬪가 벌어진 9.21은 그로부터 滿1년에서 2일 뒤진 날이고 再奪還한 22일은 3일 뒤진 날이 되는 셈이다.

(1) 北傀 軍官의 陳述

사단은 美 제45사단에 이 防禦正面을 인계하고 史倉里 FTC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후 美軍陣地로 投降해온 北傀 제89연대 소속 軍官의 陳述에 따르면, 854高地 攻擊梯隊였던 北傀 제89연대의 제1 및 제2 兩대대의 각중대는 80%에 달하는 兵力損失을 입어, 완전히 敗北한 戰鬪였다 하는 것이었다.

4. 1090高地 附近 戰鬪(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14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9, 1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7사단	장 준 장 任 忠 植	}	제11중대 장 대 위 劉 七 福		
제3연대	장 대 령 俞 義 濬		제12중대 장 대 위 李 載 健		
제3대대	장 소 령 李 鍾 益		지원부대		
제9중대	장 대 위 李 順 鎬		제16포병대대 장 대 위 崔 鎭 植		
제10중대	장 대 위 梁 在 慶				
			敵 軍		
중공 제202사단 장	陳 坊 仁				

나. 전투 전의 개황

제7사단(장, 李成佳 준장)은 지난 2월 중순, △1090부근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치른 이후 戰線의 交綏狀態 속에서 제 5, 제 8 兩연대를 左右一線으로 삼아 敵과의 접촉점인 內動-△1220-통신골을 連하는 主 저항線上에 展開한 다음 作戰의 主導權을 장악하고자 小規模의 兵力으로써 搜索 및 正찰활동을 강화하던中 제5연대(장, 蔡命新 대령)가 포로획득과 敵情 탐색에 主眼을 두고 5월 22일 夜半에 1개소대 병력으로 △890 南端에 있는 敵의 前哨陣地를 奇襲케 하였던 바 중공군 31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하는 한편 기관총 1정과 소총 8정을 노획하였다.

이무렵 사단에비인 제3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CP를 縣里 부근에 두고 一部 병력으로써 主補給路와 戰車機動路 및 Kansas線上的 豫備陣地를 補強하면서 戰技를 연마하던 中 7월 중순에 國本 一般命令 제77호(52. 7. 11)에 따른 部隊新編計劃이 施行되어 544명의 兵力과 所要裝備을 補充 받아 戰鬪部隊를 위주로 改編을 完了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8월초에 새로이 戰力을 強化한 제3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의 제5연대와 방어진지를 교대케 하여 △1090-△1220-통신골線상의 主 저항선을 강화토록 하였다.

그런데 9월에 접어들면서 師團長 李成佳 소장이 제2훈련소장으로 轉任되고 後任에 任忠植 준장이 赴任한데 이어 9월 15일부터 제5연대장 蔡命新대령이 떠나고 그 뒤로 孫昌奎중령이 部隊를 인수함으로써 사단은 새로운 지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當師團과 대치중이던 中共 제68군 예하 제204사단은 지난 3월경에 그들의 豫備인 제202사단과 주저항선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現戰線中の 主軸인 魚隱山을 主軸으로 그 전방의 △890—△918—△1218—△984를 연하는 線上에 주저항선을 펴고 연일 정찰활동과 진지를 보강하면서 侵攻의 機會를 노리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하여 9월말에 板門店 休戰會談이 포로 교환 문제로 교착되기에 이르자 이들은 會談의 主導權을 잡아 보려는 奸計로서 全戰線에 걸쳐 局部的인 制限攻撃을 취하여 戰線은 다시 침묵을 깨고 새로운 樣相으로 急變하였는데 사단 正面에서도 敵이 10월 6일에 제3연대의 前次要衝인 Christmas 高地에 기습공격을 企圖함으로써 새로운 紛戰이 야기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Christmas高地戰鬪(10.6~10.7)

(가) 작전계획

제7사단(장, 李成佳 소장)은 6월 1일 現在, 軍團의 左翼으로써 제8연대를 右一線으로, 제5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Minnesota線의 주저항 진지를 占領케 하는 한편 正面의 中央에 突角을 이룬 敵制主峰을 主軸으로 強力한 방어진지를 確保한 다음 敵의 정찰활동을 억제하던 中 그동안 사단예비로 있던 제3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의 제5연대와 교체키로 決心하고 사단 작전지시 제149호(8. 2)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진지를 교대하여 Minnesota線상의 방어태세를 強化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8월 6일 08.00에 行動을 開始하여 8월 7일 06.00까지 제5연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하고 左一線을 담당하라.

③ 제5연대는 8월 7일 06.00까지 現陣地를 제3연대에 인계하고 部隊整備 및 敎育訓練에 임하라.

④ 제8연대는 現任務(左一線)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16포병대대는 제1, 제8 兩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사단 正面에 대한 일반지원은 軍단 포병이 담당한다.

⑦ 협조지시

㉑ 진지교대는 初日의 夜暗에 주저항선의 2개대대를 교대하고 다음 날 밤사이에 GOP대대를 교체하라.

㉒ 지휘권 이양시기는 8월 6일 24.00로 한다.

㉓ 쌍방 연대장은 敵情, 障礙物地帶, 火力計劃, 陣地現況등을 細密히 인계 인수하라.

㉔ 부대교대간에 敵의 포격에 의한 損失을 감소할 수 있도록 교통호를 最大로 이용하라.

㉕ 교대간 포병은 평상시와 같이 사격을 하되 敵의 侵攻에 對備하라.

㉖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防光을 철저히 하라.

㉗ 제5연대는 M1 및 CAR탄약 一基數를 除外한 保有 탄약 전량을 제3연대에 인계하라.

㉞ 有無線 시설은 포격에도 단절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㉟ 사단 CP는 계속 縣里에 위치한다.』

이에따라 제3연대는 前方指揮所를 縣里에서 △1220로 추진 개설하고 이날과 이튿날 밤 사이에 제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주저항선의 심장부인 △1220 일대를 점령케 하고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左隣接인 제3사단의 제18연대와 협조되게 도피막-널우굴 前面의 無名高地上에 配置한 다음 제3대대(-1)로 하여금 GOP線上的 要衝인 △1090를 確保케 하는 한편 여기에서 제11중대를 뽑아 △1220에 연대에비로 공치하여 방어중심을 증가케 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李鍾益 소령)는 OP를 無名高地(△1090 南쪽 4km)에 둔 가운데 제10중대로 하여금 △1090의 主峰을 진담케 하고 제9중대로써 그 前方의 무명고지상에 경계진지를 점령토록 하는 한편 제10중대에서 제2소대를 뽑아 제9중대의 西쪽에 연계하여 일련의 警戒要線을 設定하였다.

(나) 작전실시

10월 6일 : 이날 日暮와 더불어 제3대대와 對峙하고 있던 중공 제604연대가 그들의 豫備隊를 投入하여 奇襲攻擊을 加함으로써 제9중대의 前進陣地인 Christmas高地에는 또 다시 激戰이 일어나게 되었다.

敵은 지난 1일부터 포병 基點射擊을 實施하는듯 하였는데, 이날 오후 늦게 Christmas高地에 各種砲彈 300여발을 集中한 다음 10분 뒤부터는 射程을 延伸하여 제9중대의 경계진지와 △1090 및 제16포병대대의 砲床을 強打하기 始作하더니 22.00에 夜暗을 利用하여 △1218쪽에서 2개소대 규모가 前進陣地에 이르는 능선 접근로를 따라 殺到하였다.

이에 제16포병대대(장, 崔鎮植 대위)와 대대의 81mm박격포소대는 즉각 砲門을 열고 敵의 豫想砲陣地에 對砲兵射擊과 近接하는 敵에 彈幕射擊을 퍼 부었다.

한편 연대장 兪義濬대령은 各大隊에 非常態勢를 發令하는 同時에 緊急命令을 口頭로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은 아래와 같다.

『㉑ 敵은 연대의 진진진지에 대하여 侵攻을 開始하였다.

㉒ 연대는 이 敵을 阻止 격멸하고 이 진지를 끝까지 확보하려 한다.

㉓ 제3대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侵攻한 敵을 擊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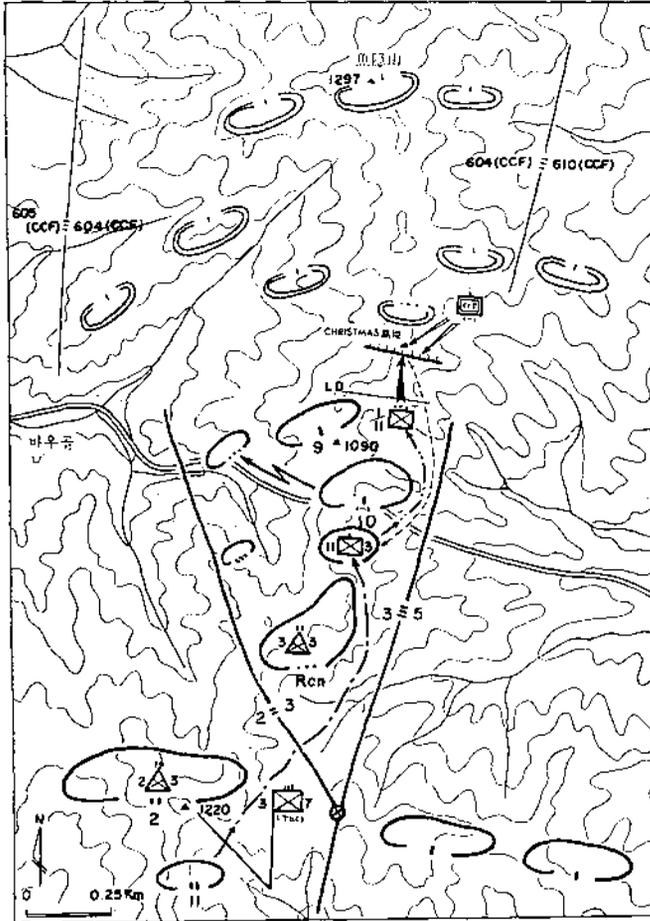
㉔ 제1, 제2 兩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夜間 警戒을 強化하라.

㉕ 全火力으로써 제3대대 正面에 集中的으로 支援하라.

㉖ 연대 전방 CP는 계속 △1220에 위치한다.』

제3대대장 李鍾益 소령이 연대장으로부터 以上과 같은 命令을 받았을 때는 이미 敵의

상황도 제9호 Christmas高地戰鬪(10, 6-10, 7)



企圖를 豫測하고 제11중대를 제10중대 OP(△1090)附近으로 急據 추진케 하는 한편 제9중대장에 대하여서는『날이 밝기까지 前進陣地를 崩必코 固守하라』고 嚴命한 다음이었다. 그리하여 제9중대장 李順鎭 대위는 戰鬪態勢를 再確認한 다음 제3소대의 일부 병력으로써 역습準備를 갖추게 하면서 陣頭指揮에 나섰다.

이와 같은 戰況이 急展되는 동안 前進陣地를 달고 있던 분전대(제9중대 제1소대)는 2개 소隊 규모의 敵과의 交戰이 開始되었는데, 이들을 미동합이 없이 至近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napalm地雷와 수류탄의 連發로 機先을 制하자 敵의 先頭가 주춤하더니 마침내 退却할 기미를 보였다.

이때를 포착한 분전대가 全火力을 集中發揮하자 彈幕속에서 分散되는 同時에 쓰러지는 敵兵의 비명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곧 隊伍를 수습한 다음 후속하던 소대병력과 합세하더니 또 다시 正面과 西側方에서 攻撃을 再開하였다.

이에 同 분전대는 兩面에서 肉迫하는 敵과 치열한 수류탄전을 벌였으나 兵力이 열세 한데다 戰鬪力이 兩分되어 끝내 同 高地의 西側一角이 突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全兵力이 突破, 1를 봉쇄코자 全力을 다하여 끝까지 勇戰奮鬪하였으나 人海의 敵勢에 밀려 진지를 堅守치 못한채 100m 南쪽의 능선으로 隨意 철수하여 22.40에 중대 주진지에 이르는 敵의 豫想接近路上에 새로운 전진진지를 確保하게 되었다.

대대 OP에서 이와 같은 戰勢의 추이를 지켜보던 대대장 李鍾益소령은 敵의 企圖가 계속 공격함이 없이 다만 Christmas高地进行 奪取 確保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砲兵射擊을 要請하여 敵의 增援을 차단케 하는 한편 제11중대가 당도할 때까지 우선 제9중대로 하여금 特攻

隊를 조직하여 敵이 방어진지를 강화하기 전에 역습을 敢行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3소대에서 차출한 2개조의 특공대는 포병지원하에 23.00에 LD(제1소대 진지선단)를 넘어서자 곧 高地 8부능선까지 進出하여 突擊 直前に 集注하는 敵火를 뚫지 못하여 교착되고 말았다.

그런데 敵은 砲擊을 集中하면서 高地 後斜面 死角地帶로 一時 피하였다가 사격 延伸과 동시에 前斜面에 配屬하여 집요하게 저항하는 手法을 되풀이 함으로써 특공대는 사상자만 속출할뿐 戰況의 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동 특공대는 81mm 박격포의 集中支援아래 敵陣 20m까지 近迫하였으나 進路가 急傾斜를 이룬 岩壁인데다 集注하는 自動火力和 계속 굴러 내리는 수류탄의 탄막 때문에 진퇴 兩難에 빠진채 戰況은 더욱 不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西쪽 側面에서 近接하던 2명의 隊員이 匪麓 突出部에서 불을 만하는 기관총 진지를 폭파하고 高地一角을 탈취하자 이때를 놓칠세라 隊員이 수류탄을 連投하면서 敵陣에 突入하니 敵은 彈藥이 射盡된 듯 23.20에 △2118쪽으로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10월 7일 : 전날밤에 많은 손실을 입고 물러났던 中共兵은 이날 새벽 짙은 안개를 利用하여 그들의 砲兵 支援아래 侵攻을 再開함으로써 또 다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雙方이 손실을 무릅쓰고 이 高地를 占有하고자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가 있을 것이다.

첫째 : 이 高地가 彼我的 주진지에 이르는 능선상의 중앙에 唯一하게 우뚝 솟아 있어 敵에게는 차후 작전을 위한 발판이자 我 주진지에 이르는 그들의 進路上의 암적인 존재인 동시에 당연대로서는 敵의 수색 및 정찰활동의 감시가 용이하며

둘째 : 휴전이 成立되어 서로 2km씩 물러날 경우에 이 高地의 확보 없이는 雙方이 현 주 저항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敵은 이번에는 接近路가 협소한 탓인지 集中突破를 꾀하는듯 1개소대 병력을 앞세우고 150m쯤 뒤에 1개 소대를 후속케 하면서 낮은 포복으로 近接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제16포병대대와 81mm박격포소대가 즉각 탄막사격을 加하는 가운데 분견대는 砲火力을 일제히 집중하였으나 그들은 손실을 무릅쓰고 人海의 戰法으로 猪突攻擊을 반복하면서 계속 近接하였다.

同 분견대는 이 一戰이 主陣地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함을 절감하고 全力을 다하였으나 前例에 보기드문 포격과 波狀攻擊에 밀려 끝내 이를 견수치 못한채 高地 중복으로 수의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대대 OP에서 戰況을 주시하던 대대장 李鍾益 소령은 이 要地를 기필코 탈환키로 決心을 굳히고 豫備隊의 投入을 命하였다.

이에 제11중대(장, 劉七福 대위)는 전날밤 23.00에 △1220에서 急進하여 主力을 제10중

대 OP(△1090)부근에 수용하고 기동공간이 협소한 탓으로 다만 1개소대 병력으로써 攻擊을 敢行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1소대는 LD(제9중대 배치선)를 넘어서자 곧 고지 8부능선까지 進出하였는데, 敵은 전날과 同一한 戰法으로 優勢한 兵力과 瞰制의 地利를 利用하여 緊要하게 저항함으로써 戰況이 不利한채 여기에서 戰勢가 高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同 小隊는 仰射의 不利點을 克服하면서 雨注하는 敵火를 헤치고 2회에 걸쳐 敵陣 突破를 企圖하였으나 變변이 無爲로 도라간채 사상자만 速출하였다.

이와같이 戰況이 不振한 理由는 戰鬥力이 2:1의 열세인데다 길은 농무로 포병사격의 유도가 正確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전세가 이에 이르자 연대장 兪義濬 대령은 敵의 計策이 遲延戰으로써 연대의 戰力을 逐次로 弱화시킨 다음 聯隊의 방어 중심지인 △1090를 奪取코자 할 것으로 豫想하여 이 要地를 우선 敵의 手中에 넘겨준채로 反擊을 中止시켜 △1090를 堅守키 위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2) 1090高地 附近戰鬥(10.13~10.14)

(가) 작전계획

제3연대는 主抵抗線의 觸角이나 다름이 없는 前進要衝을 지난 6일과 7일 사이에 수차에 걸쳐 主人을 바꾸어가면서 血戰을 펴 오다가 敵의 手中에 넘겨준채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休戰會談이 포로 승환문제로 高착상태에 빠지자 全戰線의 到處에서 局部的인 侵攻을 開始한 敵의 全般的인 企圖속에서 當面의 敵도 사단의 前進陣地를 奪取한데 이어 主陣地까지 攻勢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대가 사실상 3개대대를 모두 前線에 配置함으로써 豫備隊가 1개 중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역습이 곤란한데 比하여 當聯隊와 대치중인 中共 제202사단은 1개연대를 豫備로 保有하고 있어 그들은 언제든 先制侵攻이 可能한 까닭에 攻擊의 主導權은 敵이 잡고 있었던 것이다.

연대장 兪義濬대령은 이상과 같은 情勢의 緊迫性 때문에 前進陣地의 再奪取를 當分間 보류한채 즉각 방어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는데, 그 命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當面의 中共제202사단은 未久에 그들의 豫備隊를 投入하여 연대에 侵攻을 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연대는 즉각 방어태세를 強化하여 侵攻하는 敵을 陣前에서 分쇄하러 한다.
- ③ 제3대대는 △1090를 中心으로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야간 잠복활동을 강화하라.
- ④ 제1, 제2 兩대대는 주진지를 보강하면서 수색활동을 증강하라.
- ⑤ 제16포병대대가 연대를 직접 지원하며 美 제189포병대대가 일반지원할 것이다.

⑥ 협조지시

- ㉔ 공용화기 진지는 적의 포격에 피해가 없도록 견고히 보수하라.
 - ㉕ 장애물은 관측과 화력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철조망은 지붕형으로 설치하라.
 - ㉖ 자동화기의 배치는 산악전에 적합하도록 상호 협조되게 재조정하라.
 - ㉗ 화력의 우선권은 제3대대 정면에 둔다.
 - ㉘ 각 대대는 연대예비대가 없으니 自隊戰力으로 임무를 完遂하라.
- ⑦ 연대 前方 CP는 계속 △1220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10월 13일 : 제3대대장 李鍾益 소령은 前과 다름 없이 제11중대를 연대예비로 △1220 附近에 공치한 가운데 제9중대를 △1090前端(500m北쪽)의 無名高地를 연한 경계진지에, 제10중대를 △1090의 主峰을 담당케 하고 여기에서 제2소대를 뽑아 제9중대의 西側에 연결하여 진지보수와 야간경계를 강화하던 중, 이날 20.00 정각에 제9중대의 左一線인 제2소대의 경계조로부터 敵 狀況이 急報되었다.

그리하여 10분 뒤부터 이 敵은 제9중대 진지의 진역에 800여발의 각종 포탄을 集中하더니 곧 이어 △1090와 대대 OP에도 60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제9, 제10 兩중대의 陣內에는 삼시간에 화염이 치솟고 砲煙으로 휩싸이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또 한차례의 폭풍이 流血을 휘몰아 닦친 것이다.

이윽고 20.10부터 敵의 攻撃企圖가 速報되었는데, Christmas高地쪽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제9중대의 右一線인 제1소대의 東側背를 急襲코자 하였으며, 中央의 제3소대의 陣前으로는 그 北斜面능선을 따라 중대(一)병력이, 左一線인 제2소대와 그 西側의 제10중대 제2소대와의 間隙으로는 前面의 無名高地(魚隱山南쪽 1km)쪽에서 중대규모의 中共이 殺到하였다.

이와같이 증공제 604연대가 대대의 前進要衝을 手中에 넣은지 6일만에 그 餘勢를 몰아 또 다시 증강된 2개 중대 병력으로써 △1090를 奪取할 目的으로 제9중대가 맡고 있는 경계진지를 同時에 三面에서 攻圍하자, 대대장 李鍾益소령은 즉각 砲兵射擊을 요청하고 대대의 81mm박격포로써 탄막사격을 실시하여 侵攻하는 敵을 제압케 하는 동시에 各中隊에 非常을 發令하여 戰鬪態勢에 突入케 하는 한편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敵은 제9중대가 전담중인 警戒陣地에 對하여 三面에서 攻撃을 開始하였다.
 - ② 대대는 現陣地를 계속 고수하면서 侵攻하는 敵을 陣前에서 阻止 擊滅하려 한다.
 - ③ 제9중대는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진지를 堅守하면서 적을 격멸하라. 특히 兩側面이 敵으로부터 포위되지 않도록 四周防禦 태세를 갖추라.
 - ④ 제10중대는 △1090를 中心으로 전부태세를 강화하라.
- 특히 제9중대와 협조하여 지원할 준비를 갖추라.

- ⑤ 예비인 제11중대는 지체없이 대대 OP부근으로 移動하여 역습준비를 갖추라.
- ⑥ 戰鬪間 제16포병대대가 대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며 美제189포병대대는 요청에 따라 隨時로 지원할 것이다.

⑦ 협조지시

- ㉑ 대대의 모든 화력은 제9중대 정면에 集中支援하라.
- ㉒ 각중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라.
- ㉓ 상황 진전을 신속히 보고하라.

⑧ 대대 OP는 계속 無名高地(△1090南쪽 4km)에 위치한다.』

한편 제9중대장이 이와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중대는 이미 四周防禦 태세로 전환하여 진지의 고수를 다잡하면서 決戰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敵은 제16砲兵대대와 美제189포병대대의 치열한 탄막사격에도 不拘하고 人海의 힘을 앞세워 三面에서 同時에 壓迫을 加하면서 밀려 들었는데, 중대는 동요함이 없이 敵이 最後阻止線 안으로 들어닥치는 때를 타서 全火力을 集中하여 銳鋒을 제하니 狂氣서린 敵의 威勢도 주춤거리게 되었다.

이러한 好機를 看破한 중대는 戰力을 集中發揮하는 한편 近迫하는 敵에게는 수류탄을 集中하여 많은 손실을 강요하였으나 優勢한 敵은 곧 隊伍를 수습하더니 또 다시 攻迫을 계속하였다.

이무렵 右一線의 제1소대는 右隣接인 제8연대와와의 接境의 虛隙으로부터 侵襲한 小隊 규모로 판단되는 敵으로부터 東側背를 急襲 받아 위기에 直面하였으며, 中央을 맡고 있는 제3소대는 集中的으로 突破分斷을 피하는 중대(一)규모의 적과 격돌하여 渾身の 力戰을 다하였으나 分散 寸前의 상태에 이르고 소대장마저 중상을 입게 되었다.

한편 左一線의 제2소대와 제10중대의 제2소대와와의 간격의 허를 찌른 중대규모는 一部兵力으로써 제10중대 제2소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主力은 제2소대를 集中的으로 攻擊하였는데, 雪上加霜으로 중앙의 제3소대를 攻迫하던 一部兵力이 進路를 西側으로 바꾸어 제2소대를 挾攻하니 소대의 위기는 百尺竿頭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제2소대 진지를 主目標로 삼아 前例없는 砲擊을 퍼부어 많은 손실을 입힌 다음 主力을 集中的으로 投入한 까닭으로 戰鬪初부터 苦戰을 면치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2소대는 全力을 다하여 이적을 물리치고자 挺身하였으나 희생을 무릅쓰고 돌격을 반복하는 敵勢에 밀려 끝내는 진지의 中央이 突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급속에 소대장은 分散된 兵力을 재빨리 수습하여 突破口를 봉쇄코자 수류탄과 대검을 뽑아 들고 陣頭에서자, 이를 지켜 보던 소대원들이 앞을 다루어 총점을 휘두르며 肉彈으로 對決하니 陣內는 彼我が 한데 엉켜 混戰亂鬪 속에서 屠戮相殘을 빚고 말았다.

敵은 대대 OP와 제10중대 진지인 △1090일대에 熾烈한 포격을 가하여 高地의 兵士들의

行動을 制限하는 한편 有無線을 모두 杜絶케 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예하 중대와 의 지휘체계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의 侵攻形勢는 더욱 激化되어 제2소대 진지를 돌파한 중대규모의 敵과 右一線의 제1소대의 東側方을 急襲한 敵이 中隊의 背後로 迂回한 다음 이보다 먼저 중앙의 제3소대진지를 突破分斷한 중대(一)의 敵과 合流하니 중대는 完全히 包圍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中隊背後의 敵制要地를 占領하고 退路를 차단한 敵은 一部 兵력으로써 △1060의 제10중대 진지를 堅固히 공격케 하고 主力으로써 포위망을 強壓하니 중대는 惡戰苦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赴援의 來到만을 苦待하게 되었다.

이렇듯 戰況이 一時에 急變하여 중대의 위기가 寸刻에 다다르자 중대장 李順鎬 대위는 『最後의 一刻까지 陣地를 지키라』고 怒號大發하면서 화기소대장으로 하여금 소대장이 후송된채 分散된 제3소대 兵력을 수습하여 중대 OP의 西側과 北端을 佔領하면서 攻迫을 가하는 敵을 격퇴토록 하고 그 自身은 本部要員과 화기소대의 一部 兵力을 接接 指揮하여 OP南端의 無名高地에 있는 敵陣에 뛰어들어 수류탄으로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여명의 적을 죽이고 물리치니 이때가 바로 23.40이었다.

중대장은 이 血戰에서 左腕과 右下腿部에 貫通傷을 받아 가면서 敵陣에 投擲한 수류탄이 3箱子나 되었으며 연락병은 이 수류탄에 포장된 테이프를 물어 뜯다가 앞 이빨이 두개나 빠지기도 하였다.

一時에 위기를 모면하는 사이에 通信兵의 迅速한 活動으로 대대와 의 有線網이 23.50에 복구되었는데, 중대장이 赴援을 要請하는 이 通話가 最初의 狀況報告이자 最終報告였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제9중대의 각소대가 包圍속에서 陣地의 一部나마 지키면서 勇戰奮鬪를 계속중임을 보고받고 △1220에서 急進 途中에 있는 제11중대에 대하여 『지체 말고 反擊을 開始하여 제9중대 진지를 회복하라』고 號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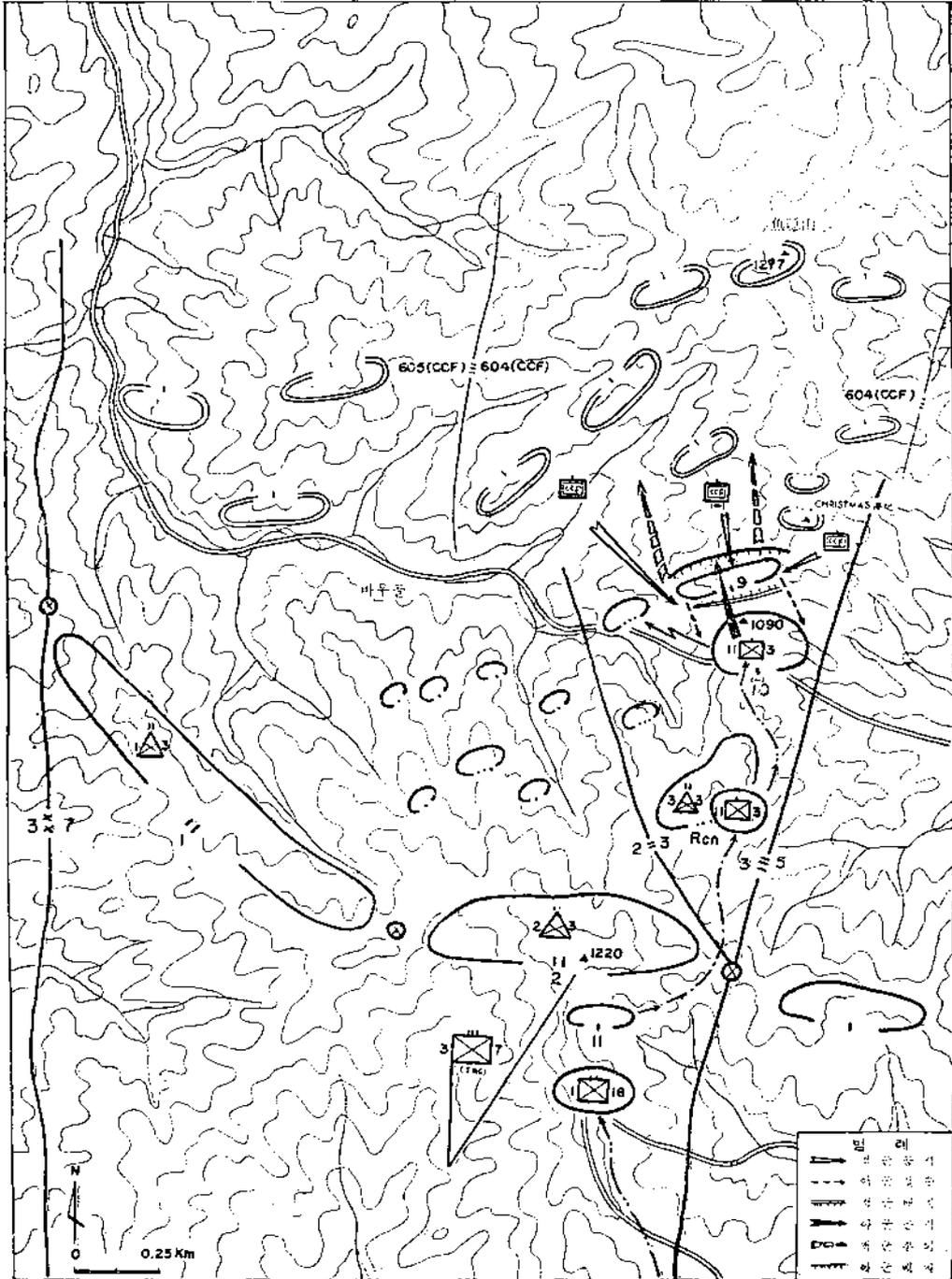
그런데 當時 제11중대는 연대 예비대로써 △1220附近에 控置되었던 까닭으로 LD까지의 거리가 4km나 되었으며 夜暗인데다, 길은 농무가 덮인 능선 機動路는 험소하고 급경사를 이루어 部隊行動을 크게 制限하였고 특히 進路를 가로 막는 치열한 포격 때문에 部隊移動에 많은 時間이 所要되었다.

이무렵 一時 물려났던 敵은 새로운 增援을 얻어 중대 OP를 向하여 集中 殺到함으로써 중대는 또 다시 包圍되어 위급이 頃刻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重傷을 당한 중대장을 先頭로 全中隊員이 死生을 決斷기로 覺悟하고 수류탄과 대검을 양손에 쥐고 달려드는 무리에게 뛰어들어 이들을 폭살시키고 自身도 장렬한 戰死를 하는가 하면 이곳 저곳에서 敢然히 肉彈으로 對決하니 중대OP 일대는 비명의 소용돌이 속에 流血의 修羅場으로 化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熾烈無比한 紛戰이 계속되는 동안에 중대 兵력이 반감되기에 이른데다, 超人

상황도 제10호 1090고지부근공방전(10.13-10.14)



間的인 指揮力을 發揮하던 中隊長 李順鎭 대위마저 중대가 전멸 직전에 적의 擧탄을 맞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니 이제 어느 湧泉이 있어서 이 불을 끌 것인가?

그런데 중대장은 果然 어떠한 神通力이 있어서 이토록 陣地의 大部分과 많은 兵力을 상실하면서도 能히 2시간 30분동안이나 포위망 속에서 탈출함이 없이 陣地固守에 一貫케 되었을까? 생각컨대 당시 중대장이 重圍 속에서 血路를 뚫고 탈출을 企圖할 경우, 오히려 各個擊破를 당하여 손실이 더욱 加重되는 한편 敵은 意圖한대로 되고 또한 그 餘勢를 몰아 대대의 주 진지인 △1090에 대하여까지 攻勢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보았을 것이며, 따라서 중대장은 중대가 陣地를 堅守하는 동안 豫備隊가 역습을 敢行할 것이므로 이때 적을 역포위하여 격멸하고자 企圖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런 가운데 一邊倒의 醜虜가 四方에서 계속 強壓함으로써 끝내 중대 OP를 喪失하고 말았는데, 이때에 중대 탄약고가 敵의 수류탄에 命中된 탓으로 폭음이 山谷을 진동하고 黑煙이 피로 몰드린 OP高地를 뒤덮고 말았다.

10월 14일 : 대대장으로부터 제9중대 진지를 탈환하라는 緊急命을 받고 전날 밤 21.30에 △1220를 出發한 제11중대는 LD에 到着하기까지 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이날 밤은 그 음인데다, 기동공간이 협소하고 경사와 기복이 심하여 部隊行動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특히 進路를 가로막는 차단사격 때문에 進出이 늦어 子正 무렵에야 대대 OP 附近에 다다랐다.

이리하여 중대장 劉七福대위는 먼저 到着한 제3소대로 하여금 『즉시, 고립된 채 惡戰苦鬪를 벌이고 있는 제9중대의 活路를 풀어라』고 命을 하였다.

이무렵 제9중대의 各小隊는 強壓하는 敵을 물리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3소대는 제16포병대대와 美제189포병대대가 魚隱山에 이르는 敵의 退路에 차단 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23.30에 LD(제10중대 배치선)를 넘자 곧 敵이 占有中인 제9중대 OP高地의 8부능선까지 육박하였다.

그런데 제9중대의 위기가 寸刻을 다투는 이때, 동 소대는 여기에서 30분에 걸쳐서 血戰을 벌이다가 敵의 집요한 集中火網에 부딪쳐 사상자만 내고 進出이 阻止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은 즉각 제1소대를 投入하여 초월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攻勢가 좌절되고 말았다.

이무렵 사단 CP에서 戰況을 지켜 보던 사단장 任忠植 준장은 戰勢가 이에 이르자 사단 작전지시 제177호(10.13, 24.00)로써 豫備隊의 投入을 위한 準備命을 下達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8연대 제1대대는 長坪里的 現位置에서 급거 △1220附近으로 추진하여 反擊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제11중대장 劉七福 대위는 예비소대를 이끌고 現地에 달려가서 敵線을 突破하지 못하고 高地 中腹으로 물러난 제1, 제3 兩소대를 直接 指揮하여 02.20에 攻勢를 再開하였다.

그러하여 중대장은 제1, 제3소대를 一線에 展開하고 제2소대를 예비로 하여 중대OP高地의 正面과 右側面에서 협공을 개시하자 敵은 일제히 火力을 集中하였다.

그러나 兩소대는 포복으로 敵前 20m까지 육박하여 全火力을 集中하고 일제히 敵陣에 뛰어들어 白兵戰 끝에 03.00에 OP高地를 占領하니 敵은 20여의 시체와 많은 장비를 유기하고 分散된채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은 중대는 그 뒤를 따라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추격진을 전개하여 제9중대 경계진지를 完全히 占領하자 敵은 녹색 신호탄 5발을 발사하더니 드디어 魚隱山 쪽으로 潰退하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06.00에 제9중대 진지를 完全히 회복한 제11중대는 즉시 隊伍를 수습한 다음 역습에 對備코자 四周防禦 태세를 갖추었으며 한편 제9중대는 대대 OP부근으로 反轉하여 再編成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다음 날인 15일에 左一線의 제2대대를 제3대대와 교체케 하여 GOP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다. 전투후의 개황

이 전투 이후 제7사단장 任忠植 준장은 作指계80호(52.10.15부)로서 前進陣地에 철조망과 대인지뢰와 Napalm등으로 새로이 진지를 보강토록 命令하는 한편 豫備聯隊의 CaL50과 무반동총을 제3연대에 배속(10.18부)시켜 수시로 敵陣에 기습사격을 가하여 敵의 陣地工事を 방략토록 하는 同時에 砲兵은 敵의 砲陣地를 無力化하라고 強調하였다.

사단은 10월말에 이르러 作指계185호(10.30부)를 下達하여 豫備인 제8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인 제3연대의 戰線을 인수케 하였다.

한편 사단에비가 되어 縣里부근에서 戰技向上에 힘써오던 제3연대는 11월중순에 제1대대장 李宅鍾 소령과 제3대대장 李鍾益 소령이 步兵學校 OAC에 入校한데 뒤이어 11월 20일 연대장 俞義濬 대령이 陸本으로 轉出되고 그 後任에 宋大厚 대령이 赴任하여 指揮權을 引受하였는데, 이에 앞서 11월 11일에는 부연대장 車虎城 중령이 사단참모장으로 榮轉되고 그 뒤에 玄泰鎭 중령이 赴任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지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사단은 戰線의 交綏狀態를 利用하여 주진지와 Kansas線 陣地 및 主補給路를 整備하면서 수색 활동을 강화하였다.

12월에는 사단역습계획을 새로 보강하여 豫備聯隊를 主軸으로 步砲砲 協同訓練을 實施함으로써 敵의 侵攻에 對備케 되었는데, 53. 1.20부 陸作命 제7호에 따라 제3야전 포병단이 제7사단에 예속됨으로써 이제 사단은 제16, 제56, 제57포병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거둔 전과의 손실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推 定 殺	捕 虜	小 銃	多 發 銃	SMG	戰 死	戰 傷	失 綫	무전기	M1	CAR		
63	118	1	1	5	1	24	54	13	4	15	27		

第 53 章

中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피의 高地 및 독수리 高地 戰鬪
(一名, 748 高地 및 572 高地 戰鬪)
2. 首都 高地 및 指形稜線 戰鬪
3. 575 高地附近 戰鬪
4. 金城附近 戰鬪
(一名, A 高地 및 B 高地 戰鬪)
5. 白馬 高地 (△ 395) 戰鬪
6. 狙擊稜線 戰鬪

第53章 中部戰線の 戰況

要 旨

中部戰線이라하면 一般的으로 金城과 金化 一帶를 指稱하는 것이 普通이며, 그 以東의 北漢江 上流에 이르는 地域을 中東部라하고 또 그 以西의 鐵原까지를 中西部라 일컫기도 하는데, 本章에서는 이를 모두 包括하여 北漢江 東岸의 通先谷으로부터 鐵原 西北쪽 8km의 大馬里에 이르는 68km의 正面을 中部戰線으로 취급키로 하였다.

이 地域은 金城盆地를 비롯하여 이른바 「鐵의 三角地」라 하는 金化—平康—鐵原이 모두 包含될 뿐만 아니라 敵의 要衝인 五聖山이 여기에 있고 또한 主要 道路網이 東西南北으로 이어진 要域인 까닭에 可謂 全戰線의 胸部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戰況도 가장 熾烈한 對決相을 보이게 된다.

더구나 當時에는 敵도 兵力과 火力面에 있어서 國軍과 UN軍의 物量을 앞질러 서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前哨線상의 主要 高地爭奪戰을 전개케 되었으니, 아름없는 稜線이나, 標高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高地 하나를 놓고도 類例없는 血鬪를 벌여 韓國戰爭史上 激戰으로 손꼽히는 白馬高地 戰鬪를 비롯한 首都高地, 指形稜線, 狙擊稜線등의 전투가 모두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 概要를 살펴보면, 이 戰線의 東半部에서는 劉載興 中장이 지휘하는 제2군단 隸下的 제3, 首都, 제6, 3個사단이 中共 제12軍(장, 曾紹山)과 대체로 金城 東쪽의 山岳地帶에서 대결 하였는데, 제3사단(장, 白南權 中장)은 △949 北쪽의 「괴의 高地」와 「독수리 高地」에서, 首都사단

(장, 李龍文 中장)은 金城川 北쪽의 無名高地인 「首都高地」와 「指形稜線」에서 그리고 제6사단(장, 白仁燁 中장)은 바로 金城부근의 A高地와 B高地에서 각각 寸土를 다투는 血戰을 전개하였으며, 그 西半部에서는 Jenkins 中장이 지휘하는 美 제9군단이 美 제2, 제3, 제7, 제40의 4個사단과 配屬中인 韓 제2, 제9 兩 사단을 統合하여 逐次로 一線配置를 交代시키면서 中共 제15, 제38 兩軍과 對陣케 되었는데, 同軍團의 右翼인 제2사단(장, 丁一權 中장)은 五聖山 부근에서 中共 제15군(장, 秦基偉)과 狙擊稜線을 놓고 雌雄을 겨루고, 左翼인 제9사단(장, 金鐘五 少장)은 鐵原溪谷의 白馬高地(△395)에서 中共 제38군(장, 江擁輝)의 主力을 大破하는 등, 前後 3個月餘에 걸친 要地爭奪戰을 펴져왔다.

이와 같은 戰鬪經過의 內容은 以下 各節에서 詳述하겠거니와, 다만 그 特異性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 敵은 主로 國軍의 擔當地域만을 擇하여 衝鋒을 指向한 點과

둘째 : 作戰上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先制攻擊을 감행한 點

셋째 : 前例없이 寸土를 다투어 要地 確保策을 취한 點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당시의 休戰協商에서 有利한 興件을 조성코자하는 동시에 前哨線상의 要域을 미리 확보하여 장차 休戰과 關聯한 大攻勢를 이태부터 企圖한 것으로 推察할 수 있는 바, 1953년 7월의 休戰直前에 7.13 攻勢를 취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피의高地 및 독수리高地 戰鬪(1952년 9월 28일부터
1952년 10월 2일까지)

(一名, 748高地 및 572高地 戰鬪)

참조: 별책부도 제 7 호
상 황 도 제 11.12.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3 사단	장	준장	白 雨 權	제 109 중박격포중대
제 18 연대	장	대령	金 德 俊	美제 176 자주포대대
제 1 대대	장	소령	宋 榮 鎭	美제 5 공군
제 2 대대	장	소령	梁 在 明	右인접부대
제 3 대대	장	대위	金 鍾 敏	제 7 사단 장 준장 任 忠 植
제 22 연대	장	대령	金 璿 圭	左인접부대
제 1 대대	장	대위	金 甲 泰	수도사단 장 준장 李 龍 文
제 2 대대	장	중령	黃 宗 九	장비: 155mm 曲射砲 18문
제 3 대대	장	중령	李 寬 熙	105mm 曲射砲 18문
제 23 연대	장	대령	金 泰 圭	4.2" 迫擊砲 8문
지원부대				81mm 迫擊砲 19문
제 5 포병단	장	중령	宋 贊 鎭	60mm 迫擊砲 32문
제 11 포병대대	장	중령	洪 鍾 哲	HMG 18문
제 97 포병대대	장	소령	文 洪 九	76mm 無反動銃 7정
			敵	軍
中共 제 68 군 제 203 사단	장	劉 志		61mm 迫擊砲 18문
제 608, 제 609 연대	主力			76mm 野 砲 8문
장비: 105mm 및 122mm 榴彈砲 35문				57mm 無反動銃 4정
82mm 迫擊砲 12문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10월 31일, 제2차 加七峰戰鬪를 마치고, 陸本作指 제108호(51.11.16부)로 美제10군단으로부터 陸本直轄로 된 사단은 다시 陸本作指 제119호(52.1.9부)로 美제9군단에 배속과 동시에 군단 右翼인 제6사단(장, 張都峽준장)의 작전임무를 인수하고, 前進陣地確保 및 포로회득을 목표로 하는 『Clam up』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이어, 사단은 3월 14일부로 기갑연대를 배속받아, 사단 左一線인 제22연대의 방어임무를 인수케 하고, 제22연대를 登大里로 집결시켜 특수교육을 실시하던 중에, 3월 22일부로 기갑연대가 배속됨에 따라 그 방어정면을 수도사단에 인계하였다.

그 후, 4월 5일부로 白巖關司命部(사령관, 白善燾중장)가 제2군단으로 개편되자 수도, 제6兩사단과 더불어 同 군단에 배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사단은 左인접 수도사단과의 戰鬪地境線調整에 따라 군단 左翼인 石井里—△973—△949—△739間의 現主抵抗線을 강화하면서, 사단정면 中共 제68군의 예상되는 次期攻勢에 대비하게 되었다.

때마침, 休戰會談으로 말미암아 主戰線이 小康狀態를 보인 가운데, 사단은 敵情을 銳意 주시 하면서, 4월 14일 및 5월 6일의 두 차례에 걸쳐 來襲한 中共 제203사단 夜하의 대대규모 兵力을 격퇴하고, 5월 10일에는 제18연대로 하여금 △890(中共 제204사단 제611연대의 主陣地)를 先制攻撃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大小規模의 前哨戰이 반복되는 가운데, 中共 제302사단은 9월로 접어들면서 攻勢企圖를 점차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즉, 2일 및 19일의 두 차례에 걸쳐, 제22연대의 前進陣地인 登大里 無名高地(△572 東쪽 500m) 및 任南面 無名高地(△949 北쪽 1.8km)를 각 2개 중대규모로 공격하였으나, 이는 本戰鬪의 前奏를 이루는 本格的인 探索戰으로 간주되는바, 北漢江上流 左岸에 있는 左인접 수도사단의 首都高地 戰鬪가 치열해지는 戰況의 緊迫性과 더불어, 사단정면에도 戰雲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敵軍의 상황 : 中共 제68군은 1951년 10월 10일, 淮陽에서 文登里地區로 이동하여, 魚隱山 南側地區의 北隄 제5군단 主抵抗線을 인수하였으나, 제8사단(장, 崔榮勳준장)의 破竹之勢 앞에 潰退를 거듭한 끝에 1952년 3월 현재, 제12군과 인접한 主抵抗線인 漁委里(俗稱 뽕골, △572 北쪽 1km)—△695(△748 西北쪽 1.4km)—△590—△650—△960(岩洞 北쪽 1.2km)—△1,010(魚隱山 南쪽 200m)—△894—文登里間의 橫隔高地群에 예하 제203, 제204兩사단을 배치하고, 제202사단을 軍예비로 烏川里(俗稱 구미달)에 控置하고 있었다.

사단정면의 中共 제203사단은 烏川리에 CP를 두고 4월 10일 현재, 右一線에 제609연대를, 左一線에 제607연대를 배치하고, 제608연대를 사단예비로 大井里에 집결시키고 있는 듯 하였으나, 7월 20일 과 8월 21일에 얻은 포로(제203사단 포병연대 및 제608연대 소속)의 진술과, 8월 15일에 △748 北쪽에서 획득한 文齣를 종합분석한 결과, 敵 배치상황이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즉, 6월 중순부터는 제608연대가 제607연대와 교대하여 △748 정면인 △741(△748 北쪽 1km)—△590 間의 現主陣地를 인수하였으며, △572의 東쪽 主陣地인 漁委里—△662(△748 西北쪽 稜線上) 間에는 제609연대가 계속 배치되어 △572(一名 북수리高地)에 대한 공격을 준비중이었다.

한편, 9월 26일에 얻은 포로(제204사단 제611연대 수색소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제23연대 제3대대 정면에 배치중이던 제611연대가 7월 중순에 제202사단 제605연대에 主陣地를 인계하고, 예비대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부대교체를 활발히 실시한 中共 제68군은 我 主抵抗線상의 基軸據點인 $\triangle 949$ 를 攻略할 作戰企圖로서 各 前進陣地에 대한 威力搜索과 소규모의 夜間攻擊을 빈번히 반복하면서, 연대 GOP에서 肉眼으로도 확인되리만큼 補給車輛을 多量 南下시키는가 하면, 4일과 20일에는 5,657발의 砲擊을 加하고, 日日平均 600발 내외의 각종 포탄을 집중하였는바, 그 주요장비는 105mm 및 122mm 榴彈砲 35문, 61mm 및 82mm 迫擊砲 30문, 57mm 및 76mm 直射砲 12문 등 都合 77문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었다.

기간중, 中共 제68군은 종전부터 사용한 西炭甘里(金城 北쪽 5km)—大洞店(文登里 北쪽 8.5km)間의 主補給路를 縣里—大井里間의 道路로 변경하여 大대의인 擴張工事를 실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我軍의 상황: 사단은 4월5일부터 제2군단에 배속변경됨과 아울러, 9일에 CP를 東幕洞으로부터 大高飛雲里(江原道樺川郡樺川面)로 이동하고, 現 主抵抗線을 계속 담당하면서 제18연대를 右一線에, 제22연대를 左一線에 배치, 제23연대를 예비로 舊堡里(俗稱 남은터)에 控置하였으나, 사단作指 제60호(8.12부)로 제18연대와 제23연대를 교체시켜, 제18연대로 하여금 부대정비에 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9월8일 현재, 사단 右一線인 제23연대(장, 金泰圭대령)는 黃炳洞에 CP를 설치하고, 右一線에 제3대대(장, 趙泳玉중령)를, 左一線에 제2대대(장, 金斗業중령)를, $\triangle 883$ 西쪽 稜線상의 阻止陣地에 제1대대를 배치하였으며, 사단 左一線인 제22연대(장, 金瑠圭대령)는 小城里에 CP를 설치하고 右一線에 제3대대(장, 李寬熙중령)를, 左一線에 제2대대(장, 黃宗九중령)를, 연대에비로 제1대대(장, 金甲泰대위)를 각각 배치하였다.

한편, 사단예비인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는 舊堡里에 CP를 설치하고, 사단장의 口頭命令으로 제2대대(장, 梁在明소령)를 제23연대에 배속시켜 廣大谷(俗稱 널우골)에 집결시켰으며, 제1(장, 宋榮鎮 소령) 및 제3대대(장, 金鍾敏대위)를 舊堡里에 집결시켰다.

사단은 이와같이 松亭里—漁雲里間의 橫隔溪谷과 松亭里—岩洞(俗稱 바우골)間의 縱隔溪谷을 制扼하면서, 中共 제68군의 일부가 $\triangle 949$ 로 主攻을 지향할 것으로 예측하여, 제22연대 정면의 前進陣地인 $\triangle 748$ 및 $\triangle 572$ 의 防守戰列을 時急히 補強하였다.

사단의 主抵抗線은 $\triangle 780$ (通先谷 北쪽 700m) — $\triangle 973$ — $\triangle 949$ — $\triangle 720$ — $\triangle 440$ 間의 連峰을 連結하는 一連의 稜線상에 구성되었는데, 그 중간部位에서 楔型으로 南下하는 稜線이 $\triangle 949$ 를 基軸삼아 일단 매듭지면서, T字型的의 地勢를 이루고 있는바, $\triangle 748$ 는 그 要部($\triangle 949$ 北쪽 1.6km)에 위치하여 敵의 主攻軸線을 억제하게 될 作戰상의 要衝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triangle 572$ 는 사단 左翼정면의 漁雲里 溪谷을 넘어, 北漢江上流의 右岸 彎曲部位를 제압하는 前進據點으로서, 中共 제609연대 제1대대의 主陣地 右側方을 扼喉하는 동시에, 左인접 제26연대(수도사단의 右一線)의 首都高地를 비롯한 主陣地를 側方掩護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地形은 전반적으로 北漢江 上流地域에 特有的 巍峨堅巒이 겹치면서 急傾斜를 이루고 있는 岩石地帶임으로 陣地工事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으나, 主抵抗線상의 要衝인 $\triangle 949$ 는 松亭里—漁雲里間의 溪谷일대를 瞰制하는 利點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triangle 748$ 및 $\triangle 572$ 는 각기 同一稜線상의 敵陣으로부터 瞰制당하는 不利點을 안고 있기 때문에 機動상의 제한을 면치 못하였다.

기간중의 氣象은 대체로 快晴하여, 仲秋의 상쾌한 季節風속에 紅葉이 滿山하기 시작하였으나, 連日 05.00~07.30間의 早朝무렵과, 때로는 正午무렵까지도 濃霧가 山麓을 덮기 때문에 視界의 제한을 극도로 받아야만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休戰會談으로 因하여 彼我間에 交綏狀態를 이룬 對陣狀況下에서도 中共 제12군(수도, 제6 兩사단의 방어정면) 및 제68군(제3사단의 방어정면)의 攻勢企圖가 9월 초순 이래로 점차 두드러지게 되자, 제2군단장 劉載興중장은 首都高地 戰鬪를 敎訓삼아, 다음과 같은 軍단訓令 제12호(9.19부)로 軍단 主抵抗線 전반에 걸친 방어戰力 강화를 急히 명령하였다.

『① 通信線의 철저한 地下埋設과 적절한 空中架設을 실시하여, 여하한 敵砲火下에서도 전투지휘를 계속할 수 있는 通信網을 유지하라.

② 主抵抗線과 前進陣地를 交通壕로 연결하는 동시에 地下掩體壕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

③ 曲射 및 直射火器의 火力計劃을 재검토하라.』

軍단은 또한, △949에 대한 敵의 攻勢가 임박하고 있는 徵候에 비추어 軍단作指 第30호 (9. 7. 15. 00부)로 수도사단지역 登大里에 軍단에비로 控置중이던 第18연대 第1대대를 軍단作指 第37호(9. 25. 12. 00부)로 原隊復歸시켰다. 따라서 사단장 白南權중장은 第18연대 第1, 第3 兩대대를 舊垵里(俗稱 남은터)에 집결시켜, △748 및 △572의 兩 前進陣地를 侵襲당할 경우의 逆襲部隊로 투입하기로 결심하는 한편, 砲支援火力을 이 정면으로 집중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第11포병대대(장, 洪鍾哲중령)는 栗木谷(俗稱 밤나무골)에서 舊垵里로, 第109중박격포중대는 三幕谷 北쪽의 渡河點을 거쳐 黃炳洞 北쪽 2km의 溪谷으로 각각 추진하였으며, 第97포병대대(장, 文洪九소령) 및 美제176사주포대대는 汝乃谷(俗稱 여넷골)에 布陣하여 東北쪽으로 砲口를 整齊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第22연대장 金瑢圭대령은 主抵抗線上의 第3, 第2 兩대대로 하여금, 敵의 接近이 예상되는 北斜面의 要部마다 分隊兵力의 潛伏組를 추진케 하고 第2 및 第7 兩중대가 배치된 △748 및 △572의 兩 前進陣地를 軍단訓令 第12호에 의한 築城工事로 補修強化하였으며, 第1대대(-)를 연대에비로 △750(△949 南쪽 0.8km)에 控置하여 防禦縱深을 갖추었다.

(2) 작전실시

9월 28일(防禦제1일) : 때마침, 음력 열흘의 上弦달이 北漢江上流의 巍峨連峰을 皎潔하게 비치고 있는 밤 하늘을 가르듯이 第22연대 방어정면의 敵陣上空에 3色 信號彈이 차례로 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 시각은 22시10분 정각이었다.

즉, △748 東北쪽 上空에 赤色信號彈 2발이, 西北쪽 遠近 二 곳에서 赤色 및 黃色信號

彈 各 6발씩이 오르더니 靑色信號彈 1발이 마무리 하듯이 피어 올랐다.

그 파란 불빛이 채 꺼지기도 전에 △748 및 △572를 비롯한 제22연대 主抵抗線과 OP 및 後方地域 전반에 걸쳐 무수한 砲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니, 前例없이 激烈한 敵의 砲射擊이었다.

때마침, △739(제9중대의 主陣地)의 연대OP에 위치하고 있던 연대장 金璿圭대령은 이 集中砲火를 敵의 攻擊準備射擊으로 판단하고, 사단에 制壓射擊을 긴급요청하는 한편, 각 대대장에게 前進陣地에서의 擊攘固守를 嚴命하였다.

1. 748高地의 戰況

△748의 前進陣地에 제2중대를 추진 배치하고, 대대主力을 △750(△949 南쪽 1.2km)에 집결 대기중인 제1대대장 金甲泰대위는 제2중대장을 有線으로 긴급호출하여 決死固守를 鼓舞하는 한편, 逆襲計劃에 따르는 제1중대의 긴급출동을 대기케 하였다.

가) 驕敵의 攻擊 第一波 : 제2중대장은 중대의 임무가 重巨大함에 비추어, 全중대원의 戰意를 振作하면서, 여하한 상황하에서도 敵을 陣前擊滅하리라는 決意도 드높게 邀擊의 鐵槌를 가다듬고 있었다. 이때, 중대는 頂上 東北쪽의 突出部位에 제3소대를, 300m의 평퍼짐한 稜線을 相距하여 中共 제609연대 제2대대의 前進據點과 相峙하고 있는 北正面에 제2소대를, △949와 相脉하는 南쪽 稜線上의 突起部位에 제1소대를 각각 배치하고, 소대間的 間隙을 分隊陣地로 扼守케 하는 가운데, 主峰을 軸心으로 하는 四周防禦陣地를 陣營하고 있었다.

敵의 集中砲火는 15분간에 걸쳐 苛烈을 極하더니 22시27분, 北쪽 同一 稜線 上空으로 솟아오른 靑色信號彈 2발을 계기로 하여 彈着點이 延伸되면서부터는 陣前일대에 擊鎗소리와 怪聲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轟轟波狀져 오는 醜敵의 무리가 月明下에 浮刻되기 시작하였다.

醜敵의 이 攻擊第一波는 제3소대 정면인 東北稜線에 1개 중대, 제2소대 정면인 西北稜線에 2개 중대, 都合 3개 중대로 추산되었으나, 要擊必滅의 決意도 드높은 중대는 豪膽沈着하게 陣前 30m까지 誘引하여 一發必中の 火箭을 일시에 집중하니, 血煙이 霧散하고 肉塊가 四飛하여 滿空의 皎皎한 月明도 붉게 물드는가 싶었다.

그러나, 督戰隊의 荷令督戰에 물려서인지, 2개 중대의 增援兵力이 高地 東쪽의 溪谷間을 거슬러 오르면서 제1소대에 壓力을 加해 왔으니, 이는 高地 右側背를 直衝하여 △748—△949間的 稜線을 絶단하려는 攻擊企圖임이 분명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급거, 화기소대의 火力을 제1소대의 방어정면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 側面威脅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나) 제1중대의 適時邀擊 : 대대 집결지(△750)에 대기중이던 제1중대(장, 李善英대위)는 대대의 출동명령으로 勇躍, △949를 초월 진출하여 △748로 直進하던 것에 23시50분

현재, 제2중대 제1소대의 南쪽 側面에 射線을 急編하기가 바쁘게 溪谷間을 俯瞰하면서 敵 2개 중대의 頭上에 急射擊을 집중하였다.

이 不意의 火箭洗禮를 입게된 醜敵은 순식간에 呵與叫喚에 빠졌으며, 때마침 기울기 시작한 殘月の 으스름속에서(月沒은 00.55) 噤噤한 溪谷間에는 斷末魔의 悲鳴과 發惡의인 擊鎗소리가 哭鬼의 메아리인양 소용돌이 치기만 하였다.

2. 572高地의 戰況

연대 主抵抗線의 左一線인 제2대대(장, 黃宗九중령)는 배속받은 연대수색중대(장, 林判吉대위)를 右一線에, 제5중대(장, 李昇南대위)를 左一線에, 제6중대를 대대에비로 각각 배치하고, △572의 前進陣地에 제7중대(장, 高根榮대위)를 추진배치한 가운데, 대대정면의 中共 제609연대의 攻擊企圖를 銳意 주시하고 있었다.

이 △572의 前進陣地는 대대 主抵抗線 前方의 橫隔溪谷을 초월하여 中共 제609연대제1대대의 主抵抗線과 東西間으로 相接하는 至近距離까지 추진되어 있으므로, 高地 西쪽을 迂曲南流하는 北漢江邊의 傾斜面을 제하고는 北쪽과 東쪽에 걸쳐, 끊임없이 敵의 위협을 받는 敵中孤立의 위치에 있었다.

특히, 高地頂上으로 이어지는 一連의 橫隔稜線은 中共 제609연대의 主抵抗線이기 때문에 敵으로서의 右腋에 찢린 一針으로 看做함인지, 수차에 걸쳐 고지 점령을 꾀하였는바, 8월16일에는 집중포화와 함께 1개 중대규모의 공격을 加해 보기도 하였다.

사단은 이 前進陣地가 차지하는 作戰上의 중요성에 비추어 固守를 嚴命하고, 연대장 金璿圭대령은 防守에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부병력으로 여러번 奇襲을 加하였는바, 8월17일에는 연대作命 제4호로 △590(高地 東쪽 1km)의 敵陣을 夜間攻擊으로 한 때 점거하는등 적극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 22시10분을 전후하여 사단 主抵抗線前方의 月夜 敵陣에 明滅하는 10여발 信號彈의 3色閃光은 제7중대 陣地에서도 분명히 望見된 것이었다.

가) 제7중대의 전환: 敵中孤立이라는 극히 不利한 상황속에서도 오직 決死固守만을 다짐하는 제7중대장 高根榮 대위(임시)는 不退轉의 鬪志와 率先 陣頭指揮로 全중대원들의 戰意를 鼓吹하는 가운데, 東쪽 稜線上의 突起部位에 제2소대를, 桑田里(俗稱 봉골)를 瞰制하는 北쪽 斜面上에 제1소대를, 그리고 北漢江邊에 面한 西쪽斜面上에 제3소대를 각각 배치하고, 急斜진 南쪽 斜面上에 鑿은 百尺竿頭에서 決戰防禦에 임하고 있었다.

22시 12분, 122mm 榴彈砲를 비롯한 각종 포탄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大的인 敵襲을 직감한 중대장 高根榮 대위는 각 소대장에게 방어정면의 敵情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토록 명령하였다.

이는 敵 主抵抗線과 尺尺間에 相接한 긴급상황하에서 敵의 主攻을 재빨리 파악함으로써 火器小隊의 火力을 집중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敵襲제一波는 그 예측을 훨씬 上廻하여 22시 30분 현재, 4개 중대가 同時刻에 3개 방향에서 밀려들기 시작하였으니, 중대는 南斜面만 제외한 방어정면의 전반에 걸쳐, 증강된 1개대대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었다.

즉, 東쪽 稜線上으로 200m를 相距하여 敵 前哨陣地와 相峙하고 있는 제2소대 정면에 1개 중대, 桑田里—漁雲里間의 北漢江邊에 面하고 있는 제1 및 제3 兩소대정면에 3개 중대가 攻擊準備射擊의 延伸과 더불어, 一時에 攻擊을 시작하였으니, 중대는 中共醜敵 特有의 人海戰術에 當면하여 決戰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2소대 방어정면에 너비 60m안팎으로 노출되어 있는 稜線鞍部는 高地固守의 死命을 制하는 要線으로서, 防者에게 火力集中의 利를 주면서도, 일단 방어선을 돌파당하는 경우에는 攻者에게 병력의 집중투입을 許하는 脆弱點도 아울러 안고 있으므로, 중대장 高根榮 대위는 화기소대의 火力을 이 정면으로 집중케 하였다.

이 판단은 敵의 人海제一波를 일단 擊碎하는데에 奏效하였다. 왜냐하면, 敵은 3개 중대로 高地北面을 陽攻케 하고, 頂上을 腹背로 直衝하는 이 정면으로 主攻을 지향하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 병력은 1개 중대였으나, 掩護火力은 거의 제2소대로 집중되고 있었다.

제2소대는 迫擊砲彈과 自動火器의 彈幕속에서 焦熱의 辛酸을 겪으면서도, 決死固守의 使命感도 드높게 射線을 굳게 지켜, 陣前에 醜敵의 屍山을 쌓아올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輕機關銃射手인 李周相 하사는 掩體壕의 銃眼으로 浮刻되는 敵影을 침착하게 포착하여 정확한 조준으로 不退轉의 鬪魂을 불태우고 있었으니, 一天當關의 力鬪는 戰技의 自信에서 올라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敵은 극심한 出血에도 불구하고 苟命督戰 때문인지 蝨齋蟻集하는 人海제二波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시작은 23시 55분, 소대는 手榴彈 投擲距離까지 近接한 敵에게 急射擊과 手榴彈洗禮를 集注하면서 勇戰을 거듭하였다.

나) 제6중대의 急遽出動: 대대예비로 △548(대대OP 南쪽 800m)에서 대기중이던 제6중대는 이날 22시 50분, 제7중대를 지원하라는 긴급출동명령으로 급거 機動北上하였다.

主抵抗線의 제5중대 主陣地를 초월하여 △572 南麓을 漁雲里쪽으로 迂迴해 나간 중대는 腹背直突의 逆襲火線을 일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漁雲里를 俯瞰하는 接近路上의 有利한 要部를 장악한 敵 右제一線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하였으므로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다.

중대의 임무는 제7중대 左側背에 대한 敵의 압력을 배제하면서, 漁雲里—主抵抗線間의 唯一한 補給機動路를 확보하는데 있었으니, 23시 50분에 이르기까지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滯滯되기는 하였으나, 제7중대와의 合勢가 寸刻을 다투는 喫緊之事이기 때문에 중대는 寸進尺退의 苦戰을 겪는 가운데서도 攻擊銳鋒을 거두지는 않았다.

6월 29일(防禦제2일): 兩 前進陣地의 戰況은 28일의 子正을 넘기면서 더욱 苛烈急迫한

樣相을 너무게 되었다.

敵의 攻擊準備射擊이 兩 前進陣地를 焦點삼아 집중되면서부터 1시간 40분 동안에 걸쳐, 急迫을 告하게 된 戰況의 추세를 분석컨대 中共 제68군은 제203사단 主力을 제22연대의 방어정면에 집중하여 △949를 비롯한 主抵抗線상의 瞰制高地群을 점령함으로써 岩洞—黃炳洞線 以西의 北漢江流域 일대를 제압하려는 作戰企圖인 것으로 더욱 확신케 되었다.

이에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敵의 作戰企圖를 兩 前進陣地線에서 阻止擊攘할 決意下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現主抵抗線 前方에서 敵의 攻擊을 阻止하려 한다.

② 제18연대는 1952. 9. 29. 06.00까지 △748 및 △572에 대한 逆襲準備를 완료하고 別命을 待機하라.

③ 제22연대는 現前進陣地를 확보하라.

④ 제23연대는 1952. 9. 29, 12.00까지 목표 △590에 대한 陽攻準備를 완료하고 別命을 待機하라.

⑤ 제18연대 제2대대는 1952.9.29. 01.00부로 原隊에 復歸하라.』

이 作命은 이날 00.50에 우선 口頭로 하달되었는데,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은 제23연대에서 배속이 해제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748에, 제1대대를 △572에 각각 逆襲梯隊로 투입키로 하고, 이날 05.00를 期하여 集結地를 發進케 하였는데, 제2대대(장, 梁在明소령)는 廣大谷에서, 제3대대(장, 金鍾敏 소령)는 舊位里에서 각각 출발하여 逆襲待機地點(△949 西南쪽 1km)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대대(장, 宋榮鎭 소령)는 △629(제22연대 제2대대 主抵抗線南쪽 600m)로 이동완료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泰圭 대령은 陽攻목표인 △590가 中共 제608연대 主抵抗線상의 要衝임에 비추어, 연대예비로 黃炳洞에 集結하고 있는 제1대대의 2개 중대를 차출키로 하였다.

제22연대는 主抵抗線의 東西翼端에 걸쳐, 一波又一波로 氣騰스러운 人海攻擊을 맞아 勇戰血鬪를 거듭하였는데, 연대OP(△720)에 위치한 연대장 金璿圭 대령은 01.20에 危急을 告하는 戰況報告에 接하자, 閃光이 明滅하는 夜空一角을 睥睨하면서 悲壯한 感懷로 兩 前進陣地의 決死固守를 다시 鼓舞激勵하였다.

이와 같이, 北漢江 彎曲部位를 擁圍하는 軍단 主抵抗線의 一角이 긴박한 전황을 겪게 되자, 軍단장 劉載興 중장은 軍단 作指 제38호(9.29. 11.00부)로 戰車 1개 소대를 배속시켜, 支援火力을 증강케 하였다.

즉, 제6사단에 배속중인 제52戰車중대 1개 소대를 이날 12.00부로 제22연대 主抵抗線(△949—△720間 綫線上)에 轉進시켜, 그 작전지휘권을 제3사단장에게 이양시켰다.

1. 748高地의 戰況

高地 北側面에 대한 強襲과 더불어 東側方으로 直衝을 試圖하다가 溪谷間에서 歎息한 出血을 치르고 人海제一波를 수습했던 敵은 이날 01.40에는 증강된 2개 중대로 高地 北側面에 主攻軸線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나, 또 다시 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가) 제2중대의 撤收: 전날, 제1중대의 適時增援으로 側方危局을 모면했던 제2중대는 각 소대의 손실현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射線을 整齊하면서 예상되는 敵의 人海제二波에 대비하고 있었다.

敵의 集中砲火로 단절되었던 대대와의 有線連絡도 1시간30분에 걸친 通信兵들의 必死的인 노력으로 이제 복구되어, 중대장은 戰況報告에서 이르되 『決死固守의 一意盟誓는 秋毫도 변함없이 있으나, 아쉬움이 있다면 兵力과 火力뿐』이라고 하였으나, 대대장 金甲泰 대위는 이에 답하여 이르되 『貴중대의 鮮血로 물드는 748高地를 踞라서 “피의 高地”라고 안하겠는가!』하면서 火力增援과 제2중대의 急派를 約定하였다.

01.30 정자, 山麓를 진동시키는 集中砲火가 다시 苛烈을 極하더니, 卽 10분후에 延伸되면서, 제2소대 정면으로 人海제二波가 蟻集하기 시작하였다.

夜間射界를 整齊하고, 이 순간을 기다리던 중대는, 照明彈의 光芒下에 白夜로 化한 稜線을 寸隙도 없는 直射火網으로 뒤덮으면서 醜敵의 무리를 屠戮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 제二波로써 高地 北側面一角에 突破口를 뚫으려 함인지, 屍山에 이은 屍山에도 불구하고, 鉦聲도 요란하게 人海波狀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중앙 제一線인 제3소대 정면에도 1개 중대의 새 兵力이 우세한 直射火力의 지원下에 重壓을 加하였다.

都合 3개 중대의 密集壓力을 받게된 중대는 陣前擊滅의 血鬪를 거듭하면서도 마칠내는 방어정면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중대장은 兵力損失을 감안하여, 高地頂上을 중심으로 하는 陣內線까지 제3, 제2 兩소대의 逐次 철수를 명령하고, 最後阻止射擊으로써 最大限의 出血을 強要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6.15 현재, 중대主力은 手榴彈 投擲距離를 相距하여 醜敵의 屍山을 쌓올리고 있었는데, 중대의 兵力損失도 累增함으로, 그 20분후인 06.35에 대대의 철수명령이 내림으로써 중대장은 憤淚를 삼키며, 頂上南쪽의 鞍部를 隔한 突起部位까지 중대主力을 수습하게 되었다.

나) 제1중대의 側方掩護: 제1중대장 李善英 대위는 이날 05.30에 增援急派 명령으로 제1소대를 高地主陣地로 急進케 하였는데, 同소대는 南斜面一隅에서 예기치 않았던 敵 2개 소대로 추산되는 火線에 부딪쳐 苦戰을 겪게 되었다.

防禦縱深의 軸線에 相接한 이 地點에서 不意의 銳敵과 相衝하게 되었음은 前進陣地戰況의 惡化를 뜻하는 兆朕이 아닐 수 없었다.

즉, 제2중대 右제1선인 제1소대 陣地에 龜裂이 생겨, △949-△748間의 稜線에 대한 側方危脅이 다시 압박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대장 李善英 대위는 소대장의 긴급보고에 接함과 동시에 즉각 제3 및 火器小隊를 急進케 하였다.

그러나 楔型一角을 확보한 敵은 기승스럽게 중대 主力의 要點을 制御하려는 氣勢를 보였으므로 이 要線一隅를 相爭하는 激突이 忽演된 것이다.

敵勢는 刻一刻 우세해졌으나, 중대는 이 側線을 堅持함으로써 제2중대의 철수를 遏호하는 동시에, 제18연대의 逆襲梯隊가 急派될 때까지 防禦縱深을 확보하는 무거운 임무수행에 死力을 다하였다.

다) 제18연대 제5중대의 增援: 사단 逆襲作命으로 출동준비를 갖추고, 別命을 待期중이던 제18연대 제5중대는 이날 08.25에 △949를 거쳐, 主抵抗線을 勇躍 초월해 나갔다. 중대는 寸刻을 다투는 急進又疾行끝에 09.10현재, 제22연대 제1중대가 苦戰을 겪고 있는 稜線一隅의 右側에 전개하여, 急擊勿失의 제一擊을 集注하였다.

라) 제18연대 제7중대의 逆襲제一擊: 제5중대와 더불어 主抵抗線을 초월 急進하여 高地 西南쪽 8部稜線의 LD에 전개한 제7중대는 逆襲火箭을 一氣呵成으로 急注해 나갔는데 10.50을 期하여 頂上일대에는 迫擊砲의 支援砲火가 집중 炸裂하기 시작하고, 매마침 戰陣 上空에 출동한 F-86 Jet機 1개 編隊가 集注하는 napalm彈과 機銃掃射의 彈幕이 頂上背面을 뒤덮는 가운데, 중대의 각 소대는 先陣을 競進하면서 突擊해 나갔다.

攻擊 20분만에 右제1선의 제3소대가 제22연대 제2중대 主力과 합세하게 되어, 兩 중대는 상호 連繫下에 手榴彈 投擲距離까지 陣前 肉迫해 나갔다.

그러나, 地利를 効用한 敵의 側射 및 斜射의 위협이 加重됨으로, 兵力損失을 감안한 중대장은 90m 후방의 岩石地帶까지 一時 철수하여 夜暗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마) 제3대대 主力의 機動: 한편, 이날 08.30에 △359(舊釜里 北쪽 1km)北麓의 渡河點에서 北漢江을 넘어선 제18연대 제9, 제10 兩 중대는 山길 6km를 단숨에 踏破하여 11:00 현재, 逆襲待機地點(△949 西南쪽 1km)에 集結하였으며, 대대에비로 後續하던 제11중대도 11.30에 합세하게 되었다.

바) 戰車小隊의 機動配置: 군단 作命으로 사단에 배속된 제52戰車중대 1개 소대의 M-24型 戰車 5대는 소동리 渡河點에서 北漢江을 渡涉한 다음, 3km의 緩斜稜線을 機動登攀하여, △748를 東北쪽 嶺涯로 望見하는 主抵抗線一角(△949 西쪽 400m)에 布陣함과 동시에 直射支援의 威力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 572高地의 戰況

高地 東쪽의 相接稜線으로 每波狀마다 主攻 1개 중대를 투입한 醜敵은 이날 00:10을 期하여 人海제三波를 또 다시 기승스럽게 투입하면서 高地頂上의 主陣地일대에 砲火를 집중하였다.

가) 제7중대의 撤收: 三面 重圍下에서 初戰부터 苦戰惡鬪를 거듭한 제7중대는 決死血戰에도 불구하고 刻一刻으로 勢不利한 戰況을 不免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로지 奮戰에 물려 蟻集하는 醜敵의 人海波狀 때문이었으니, 뒤라서 제7중대 將兵들의 怯疑謬計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오.

특히, 중대 右側1선인 제2소대는 醜敵의 主攻波狀을 두 차례나 물리친 후, 숨들릴 사이도 없이 또 다시 밀어닥치는 人海제三波를 맞아 必死의 決戰을 치루게 되었는데, 00.40에 이르러서는 勢不及하여 陣地一角을 侵襲당하고 陣內白兵戰으로 移行하였다.

醜敵 2개 분대兵力에 의하여 侵襲당한 이一角은 高地頂上까지 200m밖에 안되는 接近路를 扼守하고 있는 要位部이기 때문에, 集中突破로 이 要位部를 扼喉당하기 전에 敵 侵襲兵力을 殲殺破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중대장 高根榮 대위는 중대 본부소대를 急派하여 제2소대를 지원케 하는 동시에, SCR-609로 대대장 黃宗九중령에게 戰況의 危急을 보고하되, 『최후의 一兵까지 高地를 固守하여, 大韓國軍의 氣概를 靑史에 傳하리라!』는 不退轉의 盟約을 서슴치 않았으니 後世의 길손이 이 △572의 기슭을 지날 때면 제7중대 勇士들의 얼을 靈感하게 되리라.

한편, 高地의 北斜面과 北西斜面을 防守중인 제1, 제3 兩 소대는 협조된 火線과 地利를 效用하면서 善防勇戰을 거듭하였으나, 01.20에 兩 소대間의 狹谷으로 緊요하게 侵襲한 敵 1개 소대 규모의 衝擊 때문에 陣前에서의 白兵紛戰이 벌어지는 가운데, 방어정면을 陣內線으로 긴급축소해야 할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10분 앞선 01.10에는, 제2소대 一角의 龜裂口가 다시 흔들리게 되어 중대 OP 50m 전방까지 敵影이 跳梁하면서 高地頂上을 窺覷하게 되었으므로, 중대장 高根榮 대위는 最後一戰을 작오하였으니, 중대는 중대장의 大號叱咤下에 鮮血과 肉塊로써 百尺竿頭의 起死回生을 決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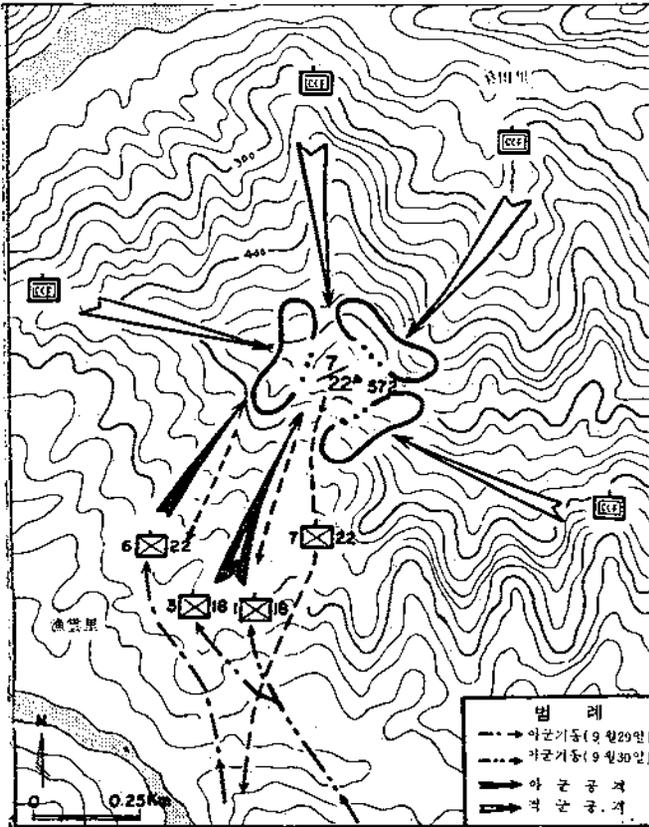
그러나, 05.10에 이르러, 중대 戰力의 限界를 감안한 연대장 金璿圭 대령의 철수명령이 下達되므로, 중대는 潰圍反擊의 기회를 끝내 잡지 못한채, 憤淚를 뿌리면서 西南쪽 稜線의 唯一한 血路를 따라 1개 소대씩 逐次 철수케 되었으니, 그 시각은 06.15무렵이었다.

나) 砲火의 射程誤差: 이 지음, 제6중대는 敵 1개중대의 側方阻害를 步一步 배제하면서 제1소대를 楔鋒先頭에 내세우고 突進하던 차에, 同一稜線으로 철수중인 제7중대 主力과 合勢하게 되었는데, 兩 中隊는 긴밀한 협조下에 切骨雪憤의 一戰을 決하기로 하였다.

이 때, 前進陣地를 侵襲占據한 醜敵에 대하여 支援火力의 破壞砲火가 苛烈을 極하였으므로 07.45 현재의 進出線에서 100m를 相距한 頂上을 凝視하면서 突進奪還의 好機를 苦待하던 중에 我軍砲火의 射程誤差로 말미암아, 瞬息間에 1개 소대兵力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慮外의 손실을 입게 된 중대장은 중대의 戰列을 긴급 整齊치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 상황도 제11호 572高地戰鬪



不運을 痛嘆하며 6部稜線의 遮蔽地點까지 일단 철수키로 하였다.

9월 30일(逆襲 제1일) : △748 및 △572의 兩 前進陣地線을 일단 讓畔하고, 이날 00.50 현재의 撤收線에서 血戰 제3일째를 맞이한 제22연대장 金禧圭 대령은 제2, 제7 兩 중대의 戰力을 整齊補填함과 아울러, 제1 제2 兩 대대의 3개 예비중대에 대한 추진보급을 긴급 조치함으로써 逆襲의 銳鋒을 가다듬게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雪辱一戰을 他に 맡기지 않고, 自力으로써 敢行하리라는 指揮官의 굳은 決意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18연대는 전날부터

이미 2개 중대로써 逆襲 제一擊을 加하고 있었으나, 兩 前進陣地에 대한 연대主力의 同時 作戰이 이날 04.00를 期하여 일제히 시작되었으므로, 作戰실시경과를 구분 짓는 뜻에서 이날을 逆襲 제1일로 잡는다면, 연대장 金德俊 대령의 作戰概念은 다음과 같다.

즉, 전날부터 이미 △748 南側面을 공격중인 제2대대 主力으로 하여금 그 猛攻을 계속케 하여, 敵의 기승스러운 侵襲伸張을 擊碎케 하는 동시에, 高地 西南側面의 LD에 제3대대 主力을 전개시켜 逆으로 側方直衝의 위험을 加하기로 하였으며, △572에 대해서는 제1대대 主力을 투입함으로써 일거에 跳遷戰을 감행키로 한 것이다.

1. 748高地의 戰況

高地頂上의 南廓까지 침습함으로써, 機動이 容易한 北쪽 稜線을 확보한 敵은 增援兵力을 계속 注入하면서, 占領部位에 방어진지를 急編強化하기 시작하였으니, 제18연대 逆襲 梯隊의 急衝短兵은 寸刻을 다투게 되었다.

가) 제5중대의 霧中突進 : 전날, 제22연대 제1중대를 適時支援하여 高地 東쪽의 溪谷間을 扼守함으로써, 防禦縱深의 側方危局을 모면케 했던 제5중대는 이날 04.00에 때마침 山嶺을 뒤덮기 시작한 새벽 안개속으로 LD를 통과해 나갔다. 이 東南쪽 斜面은 대체로 완

만하고 草木이 우거져 있으므로 遮蔽의 利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안개까지 끼기 시작했으니, 중대는 7部稜線까지 隱密히 접근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右제1선인 제3소대가 敵 埋伏陣地에 부딪치게 되면서부터, 拂曉의 靜寂이 일시에 깨어져 砲火의 轟音과 더불어 無數한 火線무늬가 濃霧속으로 亂舞交錯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즉각, 각 소대에 命하되, 踟躕逡巡하지 말고 일거에 突進하라고 하였으니, 그 刹那의 상황을 進取的으로 극복한, 뛰어난 지휘였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攻擊時의 敵前濃霧는 攻者에게 隱蔽의 利를 주는 반면에, 心理的인 不安感을 자아내기 마련인데, 하물며 砲火의 轟音과 더불어 彈丸이 雨注하는 상황에 부딪쳤을 때, 중대장 自身이 怯疑逡巡하여 순간의 지휘조치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중대원들에게 挫折感과 恐怖心만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는 중대장의 과감한 命令—下에 渾身의 氣魄으로 霧中突進을 개시하였으니 그 時刻은 LD를 통과하여 4시간만인 08.00였다.

그런데 敵前 50m 地點으로 先頭梯隊가 전개해 나갔을 때, 霧中前方에서 無數한 手榴彈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濃霧에 가려, 그 前方을 望見透視할 수는 없으나, 이 사실은 곧, 중대의 先頭梯隊가 手榴彈의 投擲距離까지 肉迫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중대는 即刻的으로 手榴彈으로 應酬하면서 더욱 勇進해 나갔다. 이 무렵부터 濃霧의 짙은 壁이 차차 얽어지면서 敵陣一部가 視野에 떠오르게 되었다.

중대장은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咫尺間의 敵 陣前으로 일거에 直突해 나갈 決意下에 前중대의 一齊突入을 大號하려고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 刹那에 敵 陣前일대에 無數한 迫擊砲彈이 驟雨처럼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彼我를 가리지 않는 無差別 彈幕으로써 중대의 突入을 陣前阻止하려는 敵의 發惡的인 集中砲擊이었다.

이에 중대장은 이 彈幕속으로 일제히 突入해 나가는 것은 막심한 兵力損失을 自招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10.00에 전 중대를 LD로 일단 收束하고 再攻擊을 위한 戰列을 整齊키로 하였다.

나) 제7중대의 苦戰 제2일 : 전날 敵 陣前의 手榴彈 投擲距離까지 肉迫하여 最終突入을 감행하려다가 不意의 側射火網으로 因해 90m 後方의 岩石地帶로 일단 철수했던 제7중대는 右인접 제5중대와 相互連繫를 취하기 위해 그 進出을 기다리던차에, 濃霧를 隔한 同一稜線上에, 手榴彈의 炸裂轟音과 함께 합성이 일어나자 急編陣地를 일제히 박차고 突進해 나갔다.

濃霧靄然한 山巒은 一步 앞마저도 분간키 어려웠으나, 전날에 寸進尺退를 거듭한바 있는 前進路인 만큼 각 소대는 소대장의 陣頭指揮下에 樹間과 岩罅를 누비면서 敵火網을 헤쳐 나갔다.

霧間의 戰鬪는 往往 攻者로 하여금 怯疑踟躕의 愚를 犯케 하기 쉬우나 一意突貫의 氣概에 불타 있는 中隊는 苦戰을 겪은 끝에 마침내는 전날과 동일하게 手榴彈의 投擲距離까지 肉迫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 右인접인 제5중대를 掩襲한 敵의 無差別砲擊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中隊前面의 敵陣前에도 炸裂하게 되었으므로 中隊長은 제5중대와 더불어 LD까지 철수하여 再攻擊을 敢行키로 하였다.

다) 제3대대主力의 LD集結 : 전날 11.00에 攻擊待機地點(△949 西南쪽 1km)에 집결한 제18연대 제3대대主力은 이날 연대命令으로 急遽 機動하여 13.00 현재 LD의 右제1선에 제10중대를, 中央 제1선에 제11중대를, 그리고 左제1선에 제9중대를 일제히 내세운 가운데 高地 西南斜面에 있는 敵의 急編된 防禦陣地를 睥睨하면서 跳盪一戰의 攻擊命令을 대기 하게 되었다.

라) 제22연대 제1대대主力의 戰力整齊 : 연대의 철수명령으로 전날 06.35에 高地 主陣地線을 讓畔하게 되었던 제2중대는 頂上 南쪽의 鞍部 너머로 突起部位까지 일단 철수하여 雪嶺逆襲을 준비하면서 안개가 개이기 시작한 11.00 무렵부터 逆襲梯隊인 제18연대의 제5 및 제7중대를 掩護하였다.

한편 제1중대는 高地 東南側面의 溪谷間을 制扼하는 要位部를 계속 확보하면서 제18연대 제5중대의 逆襲突進을 側方威脅하는 高地 東北側面의 敵陣에 火力을 집중하였다.

2. 572高地의 戰況

三面을 重壓하는 人海제三波로써 高地頂上에 侵襲한 敵은 東쪽 稜線과 北斜面의 有利한 補給路를 확보하여 占領部位의 急編陣地에 새 兵力을 증강하는 동시에 南斜面 일대에 火集點을 강화하면서 完강한 抵抗을 試圖하려는 氣勢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제18연대 제1대대(장, 宋榮鎭소령)는 이날 04.00에 연대命令으로, △629에서 긴급 機動하여 제1중대를 右제1선에, 제3중대를 左제1선에, 제2중대(장, 李相土중위)를 예비로 각각 배치한 가운데 LD를 통과하게 되었다.

가) 제1중대의 血路前進 : 대대의 右제1선이 되어 漁雲里 東쪽 溪谷部位의 山麓으로부터 濃霧자욱한 高地 東南쪽 斜面으로 進出한 제1중대는 06.20에 逆襲목표인 △605의 7部稜線에서 集中砲火를 쬐게 되었다.

이 △605는 △572의 連峰으로서 東쪽 稜線상의 敵 主抵抗線을 制扼하던 要位部인데, 제22연대 제7중대가 高地의 據點防禦를 끝까지 防守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要位部の 防禦線을 돌파당했기 때문이었다.

敵도 이 要位部를 역시 重要視함인지 그 南斜面에 수 개의 火集點과 直射火網을 急編하여 我軍의 逆襲에 對備하고 있었다.

그러나 豪膽한 中대장은 각 소대의 果敢한 突貫直進을 大號叱咤하면서 陣頭挺身하여 08.05에는 3개 特攻組로 하여금 敵陣前의 斷崖一角에 突破口를 形成케 하고 數次에 걸쳐 一齊突入을 決行하려 하였으나 地勢의 利를 차지한 敵이 發惡의으로 手榴彈을 集中投下함으로 岩壁을 이용한 遮蔽部位로 中대를 일단 수습하여 再攻勢를 決行키로 하였다.

나) 제3중대의 逆襲併進: 한편, 대대 左側一線에서 제5중대와 더불어 LD를 통과한 제3중대는 高地 西南쪽의 稜線을 따라 逆襲의 軸線을 置重해 나갔다. 그런데 漁雲里로 흘러내리는 이 稜線은 제22연대 제7중대가 철수한 唯一한 血路이자, 高地 南側面에서의 가장 容易한 接近路이기 때문에 敵의 火集點이 密集되어 있었다.

중대는 자욱한 濃霧속으로 隱密裡에 行동을 개시하였으나, 我軍의 逆襲을 豫知했음인지 中대의 前進路上에 集中砲彈이 驟雨처럼 落下하기 시작하였다.

그 間隙을 누비면서 전진하는 中대는 血痕에 이은 血痕을 山岡에 새겨가며 11.30에 8部 稜線까지 肉迫한 끝에 敵의 急編 前哨陣地를 破碎하고 그 餘勢를 몰아 一氣呵成으로 直衝突入하려던 차에 雨注하는 敵의 手榴彈이 苛烈을 極했기 때문에 不得已 6部 稜線으로 戰列을 수습하여 再攻擊을 期하기로 하였다.

10월 1일(逆襲제2일): 사단장 白南權 준장은 逆襲 제1일인 前日의 戰況에 비추어 主抵抗線 前方의 防禦縱深을 補強하는 한편, 逆襲主力을 △748에 置重키로 決心하고 △572를 逆襲중인 제18연대 제1대대를 △949線上으로 移轉케 하였다.

이에 제22연대장 金鎰圭대령은 제1, 제2 兩 中대로 30일 현재의 線에서 △748—△949間의 稜線을 확보케 하고 제6, 제7 兩 中대를 제2대대(연대의 左一線) 主抵抗線 前方에 再配置함으로써, △572 喪失後의 防禦縱深에 대비케 하였다.

한편,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은 제2대대의 兵力損失을 勘索하여 이날 後方集結을 命하고 LD에 待機중인 제3대대로 하여금 △748에 대한 逆襲主攻을 指向케 하였다.

1. 748高地의 戰況

我軍의 集中的인 遮斷砲擊에도 不拘하고 고지 背斜面의 有利한 補給路를 확보한 敵은 防禦戰力을 계속 강화하면서 完강히 저항하려는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가) 豪絶한 陣內戰: 前日 手榴彈의 投擲距離까지 霧中에 肉迫하여 敵의 急編主陣地一角을 일거에 破摧하려던 直前에 苛烈을 極한 集中砲火로 因한 兵力損失 때문에 不得已 再攻擊을 다짐해야만 했던 제18연대 제5, 제7 兩 中대는 이날 01.00에 LD를 다시 박차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仲秋 十三夜의 月光이 豎懸連峰에 皎皎한 가운데, 山岡露草를 밟아나가는 勇士들의 가슴에는 雪憤의 一念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步一步, 兩注하는 敵의 集中砲火를 무릅쓰고, 02.10에 8部稜線을 突破한 兩 中대는 主峰 前廓을 占據하여 抵抗을 試圖하는 敵陣一角을 一擧에 破摧하고 猛攻에 이은 奮戰으로 主 陣地前方 40m線까지 肉迫함과 동시에, 일제히 手榴彈을 集注하면서 直衝短兵의 白刃을 휘두르게 되었다.

鏖殺과 屠戮의 血戰場으로 化한 陣內戰이 20분간에 걸쳐 悽絶을 極하더니 마침내 敵主 力이 萎靡潰退하자 兩 中대는 氣勢도 드높게 主峰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손등에 묻은 戰塵을 털어낼 사이도 없이 敵의 陣內射擊이 驟雨처럼 集中하기 시작하더니, 敗殘兵力이 發惡의으로 猪突해 왔으므로, 兩 中대는 또 다시 寸土固守의 血戰을 敢行하였다.

時時刻刻으로 累增되는 兵力損失에도 不拘하고, 兩 中대는 最後의 一兵까지 決戰하리라고 굳게 다짐하였으나 06.10에 연대장 金德俊대령의 피맺힌 撤收命令으로 再三 憤淚를 뿌리면서 主峰을 비우게 되었는데, 이 때의 이 撤收命令은 主峰奪還後에 增援兵力이 即刻 後續되지 못함으로 因한 不得已한 措處였던 것이다.

이로써 제2대대의 逆襲梯隊인 兩 中대는 이날 07.30까지 △949 後斜面의 集結地로 완전히 철수하여, 防禦縱深을 補強하는 사단에비로 控置되기에 이르렀다.

나) 제3대대의 逆襲第一擊: 전날 13.00 현재, 高地 西南쪽의 LD에 집결 待機中이던 제18연대 제3대대(장, 金鍾敏 대위)는 이날 04.00를 期하여, 逆襲 第一擊의 銳鋒을 휘두르게 되었다.

이 時刻에 高地主峰에서는 제2대대의 主力이 敵의 陣內射擊으로 因하여 苦戰惡鬪中이었는데, 대대의 逆襲第一擊은 이 제2대대를 긴급지원하여, 탈환 직후의 主峰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寸刻를 다투게 되었다.

그러나, 敵은 이 西南쪽 斜面에도 火集點을 설정했음인지, 대대는 LD를 통과한 직후부터 熾烈한 集中砲火를 만나게 되었으며, 高地背斜面 西쪽의 突出部位 一角에서 猛射하는 自動火器의 側方火力 때문에 進出이 容易치 않았다.

그 射界下에 거의 露出된 7部稜線을 초월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側方火力을 우선 제압하기로 결심한 대대장 金鍾敏 대위는 左제1선인 제9중대로 하여금 敵 火力據點에 대한 特攻을 命하고, 그 側方掩護下에 제10, 제11 兩 中대의 逆襲前進를 과감히 決行기로 하였다.

이에 제9중대장 朴在善 중위는 즉각, 제3소대를 右제1선에, 제1소대를 左제1선에 내세우고, 중앙제1선인 제2소대를 직접지휘하면서, 敵 自動火器의 彈雨와 맞서게 되었다.

兵勢의 要諦를 말함에 있어서, 地之利는 天之時보다 못하고, 天之時는 人之和보다 못하다고 하였으니, 中대의 人之和로 말하면, 中대장을 중심으로 全中대원이 한결같이 伸天하는 戰意로 뭉쳐 있었으므로, 그 氣概는 이미 敵陣을 삼켜버린듯 하였다.

그러나, 中대장 朴在善 중위는 공격정면의 要害部位를 占據하고 있는 敵의 火力據點을

注視한 결과, 중대 主力을 일제히 突進시키기 보다는 特攻組를 투입하여 急衝케 함이 有利하다고 판단하여 3人組의 7개 特攻組를 急編함과 동시에 중대장 自身이 陣頭에 나서기로 하였다.

각 소대장은 이와같은 중대장의 陣頭挺身을 極口挽留하였으나, 朴在善 중위는 『“피의 高地” 奪還確保와 제2대대 戰友들의 死命이 寸刻에 달려있는 지금, 어찌 一身의 無事함을 바라겠는가!』하며 그 굳은 決意를 굽히지 않고, 各特攻組에 목표를 부여한 다음에 『이 중대장과 함께 榮譽롭게 목숨을 바치겠는가?』하고 檄하니, 21명의 勇士들은 하나같이 聲淚俱下하면서 共死報國을 다짐하였다.

이에, 제2소대장 李鳳浩 소위도 끊어 오르는 礮聲을 누를 길 없어, 自身의 一命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나서니, 중대장은 快히 左側 3개 목표에 대한 特攻指揮를 委任하고, 각 소대의 掩護下에 挺身突進케 나갔다.

그런데 7개 特攻組를 편성한 까닭은 敵의 火力據點이 7개 所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날 따라, 새벽 안개가 山麓部位에 감도는 정도로 낮게 끼었으므로 特攻組는 완전히 露出된 接近路上에서 敵制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必死則必生の 捨身一念으로 突進하는 勇士들에게 神의 加護가 내렸음인지, 特攻組는 1개 組의 落伍도 없이 06.00 현재, 死角部位에 肉迫하여 일제히 手榴彈의 洗禮를 집중하였다.

敵으로서도 主峰部位를 占有한지 불과 2일 미만이라는 短時間內에 急編한 無蓋據點이었기 때문에 特攻組의 手榴彈攻擊 앞에서는 脆弱할 수 밖에 없었다.

瞬時に 轟音과 함께 박살나는 敵의 火力據點을 향하여 이번에는 銃劍과 急射擊으로 短兵急衝하니, 頑敵도 여지없이 屍身 15具를 남긴채 四散潰退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9중대가 敵의 側方火力을 제압하는 동안, 제10, 제11 兩 중대는 7部稜線을 초월전진하여 8部稜線으로 逆襲銃鋒을 直衝케 나갔는데, 8部稜線에서 또 다시 熾烈한 直射火網에 부딪쳐 苦戰停滯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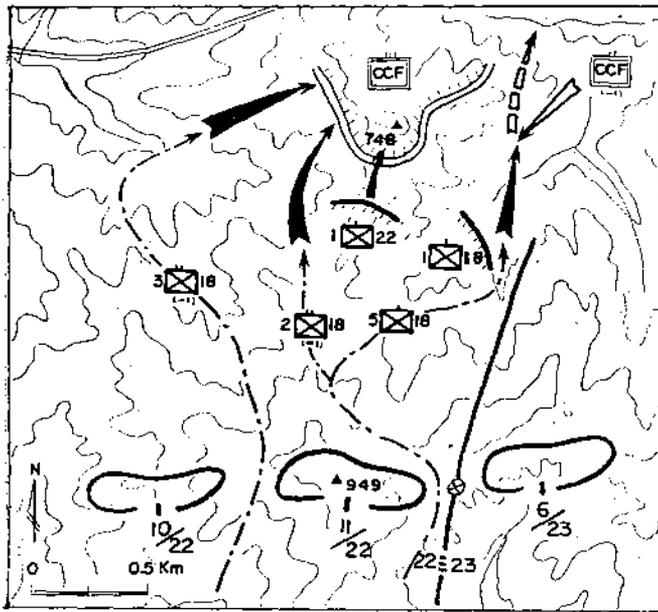
그런데 그 時刻은 이미 06.20인지라, 제2대대에 대한 연대장의 철수명령이 내린지 10분이 지난 무렵이었으므로, 대대는 끝내 제2대대의 危局을 主峰에서 救하지 못하고, 또 다시 醜敵手中에 前進陣地를 넘기게 되었으니, 대대장 金鍾敏 대위는 戰機逸失의 恨을 남긴채, 再攻擊을 다짐하게 되었다.

2. 572高地의 戰況

전날, 主峰을 目標에 두고 短兵直突하려던 直前에, 敵의 發惡적인 集中砲火로 因하여, 할 수 없이 急編된 遮蔽陣地까지 일단 철수하였던 제18연대 제1대대의 主力은 이날 零時를 期하여 再攻擊을 敢行하였다.

그런데, 高地의 攻防兩勢는 시간이 지날수록 補給路의 遠近에 의하여 左右되어 가는 듯

상황도 제12호 748고지전투



이 보였다.

즉, 我軍은 漁雲里溪谷을 켜 2km餘의 單一補給路를 사용하 고 있음에 비하여, 敵은 1km미 만의 山岳路를 여러 줄기로 확 보하여 兵力과 補給品을 不斷히 注入함으로써 그 戰力의 強化가 敏速하였던 것이다.

가) 제 1대대의 撤收集結 : 대 대의 逆襲梯隊인 제 1 및 제 3 兩 중대는 이처럼 不利한 與 件下에서도 期必코 主峰을 奪還 하리라는 決意도 새롭게 이날 霧時에 再攻擊을 開始하여 肉迫 에 이은 肉迫을 거듭한 끝에 主

峰一角의 敵의 壘塹을 短兵直突하니 仲秋 十四夜의 皎皎한 月光속으로 血雨가 서리고, 肉 塊가 飛散하는 屠戮戰이 展開되었다.

그 40분 동안, 醜敵의 屍身이 壘壘한 가운데, 兩 중대의 兵力損失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敵은 兵力을 계속 투입하면서, 兩 중대를 包圍할 氣勢를 보이게 되었으 므로, 이 急迫한 戰況을 報告받은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사단 主抵抗線의 戰況 全般을 검 토한 결과, △748 前進陣地를 奪還하는데 主攻을 집중기로 결심하고, 제 1대대의 逆襲을 일단 중지키로 하였으니, 이에 따르는 철수명령이 02.30에 내려지게 되었다.

대대장 宋榮鎭소령은 제 2중대(장, 李相士 중위)에 掩護任務를 부여하고, 제 3, 제 1 중 대 順으로 逐次 撤收케 하면서, 앞서간 英靈앞에 叩謝하여 이르되, 『머지 않아 그대들의 뉘과 더불어, 기어이 雪憤하리라!』고 盟誓하면서 痛恨의 熱淚를 뿌렸다.

이리하여 대대는 새로운 集結地인 △949 西南쪽 1km의 稜線으로 機動完了하게 되었는 데, 그 時刻은 險崖와 深谷에 아침 햇살만이 無心한 09.30 무렵이었다.

10월 2일(逆襲 제3일 : △748奪還) : 사단장 白南權준장이 △572에 대한 逆襲을 일단 중 지하고, 逆襲主力을 △748 奪還에 집중기로 결심한 것은 主抵抗線上의 要衝인 △949의 防 禦縱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함이었는 데, 逆襲 제3일을 맞이한 이날, 사단은 제18연대 제 3 대대및 제22연대 제 1대대主力을 主攻으로 투입하고, 제18연대 제 1대대를 예비로 後續케 하는 가운데, 04.00를 期하여 일제히 攻擊을 시작하였다.

1. 제18연대 제 3대대主力의 逆襲제二擊 : 전날의 進出線을 확보하여 再攻擊을 待

機中이던 제3대대는 이날 03.40에 支援砲火가 月沒後의 曉暗속에서 炸裂하는 가운데, 逆襲 제2擊의 銳鋒을 휘두르게 되었다.

대대의 각 중대는 先陣을 相爭하면서 突進하였는데, 中央제1선인 제10중대의 공격정면에는 전날에도 완강히 저항하던 수개의 火力據點이 여전히 自動火器의 彈幕을 치고 있었다.

그 閃光을 注視하던 중대장 朴在根 대위는 중대 左계1선인 제2소대로 하여금, 이 火力據點을 破摧하는 特攻任務를 수행케 하였다.

이에 소대장 洪楊淳 소위는 제1분대로써 3개 特攻組를 急編하고, 소대지휘를 先任下士 李容起 二等中士에게 위임하면서 『이것을 나의 鄉家에 전하되, 不孝자식 楊淳은 檀紀 4285년 10월 2일에 祖國을 위하여, 명예롭게 짧은 人生을 바쳤노라고 말하여 주게.』라는 告別辭와 함께, 미리부터 간직해 두었던 毛髮과 손톱을 내어 주었으니, 旣라서 그 壯年 男兒의 意氣에 感嘆하지 않으리오.

죽음으로써 任務를 完遂하리라고 굳게 決意한 소대장의 陣頭挺身에 뒤질새라, 분대장 대리인 副分대장 李秀賢하사와 분대 特攻組全員도 共死殉義의 드높은 使命感을 불태우면서 포복전진해 나갔다.

그 先頭에서 彈雨를 헤쳐 나가던 소대장 洪楊淳 소위는 火力據點의 死角部位를 4m 남겨놓고, 手榴彈의 破片으로 囚하여 右顎部에 깊은 擦過傷을 입었는데, 流血이 狼藉하여 精神이 混迷해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任務完遂만을 絶叫하면서 死力을 다하여 手榴彈 두 개를 命中시켰으니, 特攻組 全員도 決死奮起하여 일제히 白兵直衝하였다.

이 獅子奮迅의 肉彈攻擊으로 정면의 火力據點이 擊摧되자, 중대는 左인접 제11중대와 더불어 賊聲도 드높게 9部稜線을 突破躍進하였는데, 또다시 發惡의으로 最後阻止를 試圖하려는 敵의 陣前集中砲火에 부딪쳐, 主峰을 目睫에 둔 咫尺距離에서 最終突入의 白刃을 겨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제22연대 제1대대 主力의 逆襲成功: 初戰부터 人海波狀의 重圍下에서도 血戰防守를 거듭하다가 29일에 不得已 高地 主陣地線을 일단 讓畔하고, 主峰 南쪽의 鞍部를 隔한 突起部位에 集結해있던 제22연대 제2중대는 이날 17.20에 攻擊命令을 받고 제3중대(장, 王虎 대위)와 더불어 南正面의 LD에 전개하였다.

이로써 兩 중대는 제18연대 제3대대 主力의 逆襲任務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제2중대로서는 雪辱을 期하는 一戰이오, 제3중대로서는 切齒扼腕하여 苦待하던 主攻제1선이기 때문에, 氣焰萬丈한 促步急進으로 19.00正刻에 제18연대 제3대대의 進出線을 초월해 나갔다.

때마침, 한가위를 하루 앞둔 十四夜의 月光이 秋氣서린 高地上空에 皎潔하였는데, 決戰을 期하는 勇士들은 가슴 복판에 영키는 一抹의 感懷마저 박차고, 오직 滅敵一念만을 불태

우고 있을 뿐이었다.

左제1선인 제3중대장 王虎대위는 明月이 皎皎한 中空을 가르키며, 중대원을 檄하기를 『우리의 領空위에 떠오른 저 맑고 티없는 달도 우리의 것이요, 저 “피의高地”도 분명 우리의 것인데, 어찌하여 더러운 中共 붉은 무리들이 저 高地에서 설치고 있던 말인가, 오늘 밤, 이 一戰으로 더러운 저 무리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우리의 高地에서 우리의 秋夕을 氣分 좋게 맞이하기로 하자!』고 하니, 중대원들은 喊聲으로 이에 呼應하면서 必勝을 다짐하였다.

王虎대위는 비록 短軀瘦身하나, 豪膽하기로는 氣蓋世의 意氣가 드높고, 義勇기로는 自己犧牲마저도 서슴치 않는 俠勇으로 歷戰을 陣頭指揮해 왔기 때문에, 중대원들은 언제나 이 중대장과 함께라면 水火를 不辭하리라는 굳은 信念을 지니고 있었다.

중대는 寸步마다 敵彈이 炸裂하는, 死線에 이은 死線을 차례로 突破하면서, 右인접인 제2중대와 더불어, 攻擊開始 30분만에 主峰을 咫尺間에 睥睨하는, 手榴彈의 投擲距離까지 一氣呵成으로 前進하였다.

兩 중대는 이로써 先陣의 優劣을 가릴 수 없는 相互連携의 進出線을 굳게 유지하면서, 마지막 短兵突入의 好機만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 때에 敵의 發惡의인 最後阻止射擊이 제3중대의 中央제1선인 제3소대를 掩襲하는 까닭으로 소대장 金世洙소위가 右大腿部에 甚한 破片傷을 입고 말았다.

이에 중대의 先任將校인 柳在廷소위가 즉각, 소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소대는 敵의 完강한 火力據點과 맞서 있었다. 이 火力據點은 높이 3m로 目測되는 雙岩의 下端部位에서 두 줄기의 自動火器射線을 치고 있는데, 我軍이 最終突入을 敢行할 때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柳在廷소위는 直距離 50m間的 接近路를 제빨리 偵知하고 선입하사 朴南基一等上士로 하여금 2개 분대로써 左右兩側에서 火力掩護케 하는 가운데, 1개 분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포복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평소부터 세밀한 觀察力과 예민한 判斷力으로 중대장 補佐에 뛰어난 근무를 해온 柳在廷소위는 이 火力據點을 破摧하지 않고서는 我軍의 損失이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肉迫特攻을 결심한 것이었는데, 50m의 接近路에는 灌木과 岩塊가 散在하므로, 果敢敏捷한 포복전진으로 一兵의 損失도 없이 肉迫接近에 성공하였다.

이 決死的인 特攻을 지켜보던 중대장 王虎대위는 10여발의 手榴彈이 敵 火力據點을 破摧하는 轟雷을 신호삼아, 全중대의 突貫을 大號하면서 最先頭에 나서자, 勇氣衝天한 중대는 喊聲도 우렁차게 短兵急擊해 나갔다.

이와 동시에 右인접 제2중대도 일제히 突入하니, 主峰南廓線에 血雨가 霏霏하여, 月明下에 血虹이 서리는 가운데, 枯葉처럼 四散潰走하는 醜敵의 悲鳴이 메아리쳐 갔다.

이리하여, 逆襲血戰 3일만에 △748의 前進陣地는 다시 사단의 手中으로 奪還되었는데,

그 時刻은 19.45이였으며, 사단장 白南權준장은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에게 제 1 대대를 急遽 增員케 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防禦態勢를 急編強化토록 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제22 및 제18 兩연대의 2개 대대主力은 △748를 奪還한 다음 勝戰鼓를 울릴 사이도 없이 主峰을 중심으로 한 四周防禦陣地를 急編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中共 제203사단은 10월 2일의 전투에서 潰散하였던 主力을 수습했음인지, 23.15을 期하여 2개 대대를 高地 北正面의 稜線과 西斜面에 同時投入하면서 逆襲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兩正面에 防守主力을 置重急編한 제18연대 제 1 대대 主力은 氣勢도 늙름하게 雪積에 맺힌 鐵槌를 그 頭上에 加하니, 敵은 壘壘의 前線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屍山만 버린채 또다시 潰走할 따름이었다.

이로써, 5일만에 걸친 △748 및 △572의 攻守血戰은 일단 交綏狀態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偵知한 바로는, 中共 제68군은 10월 22일에 戰區를 제60군에 인계하고 平康郡 楸津面 完坪里로 移動集結하였음이 12월 16일 현재로 是認되었다.

사단正面에 새로 배치된 中共 제60군은 黃海道 谷山에서 部隊改編을 마치고 다시 戰線에 투입된 것으로, 당초에는 제 6 및 수도 兩사단正面의 제12군과 교체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제68군의 戰區를 인수하여 사단正面에 배치된 까닭은 새로운 攻勢를 企圖하기 위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사단은 이에 대비하여, △748를 비롯한 主抵抗線 前方의 前進陣地를 補強하면서 防禦縱深을 整齊하였는데, 그 間に 있어서 제18연대는 사단 口頭命令(10월 6일부)으로 舊塗里를 거쳐 金化郡 任南面 黃炳洞으로 移動集結하여 (10월 17일), 部隊教育을 실시하던 차 10월 27일에는 사단作指 제88호(10.16부)로 제22연대의 防禦陣地를 인수함으로써 主抵抗線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2연대는 黃炳洞으로 移動集結하여 部隊教育에 任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연대장 金瑠圭 대령이 陸特(甲) 제280호 追1(10.8부)로 사단 참모장이 되고 그 後任에는 張桐淳중령이 昇進發令되었다.

제23연대는 이 戰區에서 主戰을 치루지는 않았으나 主抵抗線前方에 대한 威力搜索과 一部陽攻을 敢行하면서, 사단 右翼을 굳게 防守하였는데, 10월 15일에는 연대 作命 제 8 호(10.13부)로 △883에 연대에비로 대기중이던 제 1 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여 防禦陣容을 調整하였다.

그런데, 이 攻防決戰에서의 사단의 戰果 및 損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記錄된다.

戰 果

구분	부대	제18연대	제22연대	計
射 殺		293	371	664
推定射殺		80	81	161
捕 虜		3	5	8

損 失

구분	부대	제18연대	제22연대	計
戰 死		55	2/52	2/107
負 傷		10/197	8/169	18/366

§ 參戰者의 證言

◇ 제22연대장 金鎭圭 대령

(1975년 7월 9일 反共聯隊에서, 豫 준장)

572高地를 끝내 固守하지 못했던 것을 指揮官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地圖上에서도 一目瞭然하지만, 이 572高地의 前進陣地는 바둑으로 따지면 하나의 捨石과 같은 것이어서, 敵의 主攻을 誘引하기 위한 敵中孤立의 罅罅로서의 作戰任務를 수행했던 意義만은 強調하고 싶다.

이 防禦作戰中, 가장 苦心한 것은 漁鰓里 溪谷을 넘어 補給을 推進하는 일이었는데, 高地의 東쪽 同一稜線에 敵의 主抵抗線이 있었기 때문에 完全히 瞰制當하여 集中砲火가 集中했었다.

이에 反하여 敵은 近距離의 有利한 補給路를 확보하여, 水道쪽지에서 물이 줄줄 흘러 나오듯이 適時補給과 兵力增援을 계속하였으니, 이 572高地의 勝敗는 補給面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라고 보고 싶다.

한편, 748高地의 경우는 主抵抗線상의 要衝인 高地에서 北쪽으로 쪽뻗어 올라간 稜線을 主補給路로 하여, 比較的 補給이 容易했는데 高地에 대한 逆襲이 挫折되었을 때, 사단의 逆襲主力을 748高地로 置重한 사단의 戰況判斷은 適時適切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22연대 제2중대장 高根榮 대위

(1975년 7월 15일 調達本部에서, 現 대령)

우리 중대는 “복수리”高地에 배치될 때부터 決死의 각오를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前進陣地가 主抵抗線에서 철선 떨어진 前方에 孤立된데다가 敵의 主抵抗線에 맞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敵은 처음부터 우리를 손쉽게 생각하였는지 대낮에도 버섯이, 이것 보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사실, 敵의 攻擊準備射擊이 집중되는 순간부터, 中대 陣地는 소나기를 만난듯 敵彈에 휩싸이고 말았다. 歷戰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集中射擊이었다.

如何한 敵砲火에도 견딜만한 有線網工事를 실시하였는데도 순식간에 절단되는 바람에 陣內는 물론 대대 OP와의 有線通話가 不可能해지니, 참으로 孤立無援의 極限狀況下에서 싸워야겠다는 決意가 새로워지기만 하였다.

高地를 끝내 固守하지 못했던 가장 큰 原因은 敵의 壓倒의인 人海戰術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逆襲增援이 당도할 때까지 固守하려던 것이, 主峰 東南쪽의 稜線이 突破당하면서 부터는 陣內戰이 벌어짐으로 해서, 방어정면을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唯一한 血路가 될 南쪽 斜面이 막힐 念慮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戰訓

◇ 防禦戰에 있어서의 側方防護

作戰要務수에 이르되 『敵이 機動의 自由와 機動部隊를 가지고 있고, 한편 遲延部隊의 側方이 敵攻擊에 대해서 아무 依托도 없는 狀況에 있어서는, 側方과 後方을 防護하는 것이 極히 重要하다.』고 하였거니와, △748 防禦에 있어서 △949—△748 間의 主補給路인 稜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1중대를 急遽增派하여, △748 東南쪽 溪谷部位로 부터 側方急衝하려던 敵의 楔鋒을 適時打撃케 한 作戰指揮는 高地奪還을 促求케 한 要因이 되었을 것이다.

戰術上의 敵의弱點은 그 突出部와 그 側背部 그리고 그 接觸部位에 있다는 것을 例證하는 一 例라고 할 것이다.

2.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 戰鬪

제 1 차戰 (1952년 7월 7일부터
1952년 7월 8일까지)

제 2 차戰 (1952년 8월 5일부터
1952년 8월 7일까지)

제 3 차戰 (1952년 9월 6일부터
1952년 9월 18일까지)

제 4 차戰 (1952년 9월 28일부터
1952년 9월 29일까지)

제 5 차戰 (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9, 10호
상 황 도 제 13~3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중장	白 善 燁 劉 載 興 (7. 23부터)	대리	대위 梁 胥 雄 (9. 21 부터)
首都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7. 8 소장진급) 李 龍 文 (7. 11부터)		소령 李 鍾 綠 (9. 25 부터)
		소장	宋 堯 讚 (10. 14부터)	제2대대 장	소령 金 永 吉
제1연대	장	대령	朴 春 植	제3대대 장	중령 朴 贊 兢
제1대대	장	중령	咸 溶 翼	연대(제21) 수색중대장	대위 韋 鶴 松
	대리	대위	田 耕 濶 (9. 8부터)	제26연대 장	대령 李 東 和 鄭 震 (6. 20 부터)
				제1대대 장	중령 池 龍 泰

제2대대 장 대위 金 文 植 (8.1 부터)
 소령 朴 基 淳
 대위 韓 敏 錫 (8.1 부터)
 소령 李 善 浩 (8.25 부터)
 제3대대 장 중령 禹 敬 鵬
 대위 田 宗 郁 (8.1 부터)
 소령 金 成 壽 (8.7 부터)
 尹 鍾 浩 (9.30 부터)
 연대(제53) 수색중대장 대위 李 容 圭
 曹 漢 吉 (7.28 부터)
 제1기갑연대 장 대령 李 龍
 중령 崔 在 鴻 (9.3부터)
 陸 根 洙 (10.14부터)
 제1대대 장 중령 李 鵬 植
 朴 正 瑞 (9.11 부터)
 제2대대 장 중령 朴 翊 均
 李 承 隱 (10.8 부터)
 제3대대 장 소령 朴 明 景
 韓 錦 昌 (9.25 부터)
 연대(제20) 수색중대장 대위 羅 昌 云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尹 鍾 浩
 朴 正 瑞 (6.15 부터)
 (7.31 중령진급)

사단수색중대 장 대위 崔 周 鳳
 首都(제10)야전 포병대대장 중령 金 長 板
 대위 金 雲 漢 (8.1 부터)
 (9.1 소령진급)
 사단重砲(제107 중박격포)중대장 중위 尹 永 政
 공병대대 장 중령 朴 興 柱
 洪 錫 疇 (8.13 부터)

지원부대
 美 제5포병단장 대령 Richard W. Mayo
 美 제987장갑야전포병 대대(155mm自走砲)장 중령 Sparra
 제2야전포병 단장 대리 중령 張 庚 石
 제53야전포병 대대장 소령 朴 東 燁
 제55야전포병 대대장 소령 李 孝 成
 제6야전포병 단장 대리 중령 尹 承 國
 (9.12 제2야전포병단과 교대)
 제60야전포병 대대장 대위 朴 斗 連
 제61야전포병 대대장 소령 金 水 山
 제98야전포병대대장 (155mm曲射砲)
 중령 金 明 煥
 소령 姜 官 龍 (7.24 부터)
 중령 金 元 吉 (9.30 부터)
 제52전차중대(M-36型) 1개소대
 인접부대
 右인접 제3사단 장 준장 白 南 權
 左인접 제6사단 장 준장 白 仁 燁
 병력 및 장비 : T/E 및 T/O 充足

敵 軍

中共 제12군(군단) 장
曾 紹 山(Tseng Shao-shan)
제35사(사단) 장
李 德 生(Li Te-sheng)

제103단(연대), 제104단, 제105단
제34사 장
尤 太 忠(Yu Tai-chung)
제101단 基幹

나. 전투 전의 개황

수도사단(장, 宋堯讚중장)은 1952년 3월에, 智異山地區 共匪격멸전에서의 聲威를 앞세우고 金城 東쪽 北漢江 西岸의 中部戰線으로 勇躍하여, 제2군단(장, 白善燁중장)의 中央이 된 뒤로, 7월에 들어 서면서 當面의 中共 제12군 제35사단(장, 李德生)과 더불어 流血로 點綴되는 悽絶無比의 激戰記錄을 남기게 된다.

本節에 收錄되는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의 전투가 바로 그것인데, 이 兩 전투는 흔히 그 지역적인 차이를 들어 全然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는 敵의 「9월攻勢」에 있었던 것만에 局限되어,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이 兩 전투지역이 地圖上에 精確한 標高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無名高地(표고 650m 内外)들로서 실제로 東西로 불과 3km에 지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과, 6월에서 10월에 이르기까지 같은 곳에서 계속되는 전투인데다가 同一한 시기에 동일한 사단이 이를 담당케 되는 만큼 작전 全般에 걸쳐 有機的인 연관성을 重視하는 뜻에서, 本卷이 劃定한 기간 동안의 兩 전투를 網羅하여 취급키로 하되 叙述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梯次로 期를 나누었다.

- ① 제1차戰(7. 7~ 7. 8)—621高地 및 指形稜線의 ㉠, ㉡, ㉢ 高地 攻擊戰
- ② 제2차戰(8. 5~ 8. 7)—首都高地 防禦戰
- ③ 제3차戰(9. 6~ 9. 18)—同上 및 指形稜線의 ㉣高地 防禦戰
- ④ 제4차戰(9. 28~ 9. 29)—同上
- ⑤ 제5차戰(10. 6~10. 14)—同上 및 575高地 防禦戰

敵軍의 狀況: 首都사단 當面의 中共 제12군(장, 曾紹山)은 지난 해 11월 초순에 金城 東쪽—北漢江 西岸—의 그들 戰線을 제67군(장, 馬龍)으로부터 인수한 뒤로, 제34사단(장, 尤太忠)을 昌道里(金城 東북쪽 10km) 부근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제31사단(장, 趙藍田)을 右翼으로 삼아 金城 正面에, 제35사단(장, 李德生)을 左翼으로 삼아 北漢江 西岸에 展開하여 突 제9군단 右翼을 이어받은 제2군단(장, 白善燁중장)과 對陣케 되었다. 美 제8군의 情報判斷에 따르면 6월 중순 현재 中共 제12군의 병력은 都合 25,600명 内外로서 군사령부에 4,400명, 제31사단에 6,000명, 그리고 제34, 제35 兩 사단에 각각 7,500명으로 推算되었다.

그러나 5월 1일 현재에 美 제8군이 발표한 敵(中共 및 北傀)의 全般의인 병력현황은 前後方을 통털어 모두 908,100명 内外로 보아, 당시에 700,000명線을 下廻하는 UN軍보다 數의으로 優勢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中共 제12군의 現 兵力수준은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8월 현재 제8군 定期情報報告書 가운데 敵 포병상황 분석에 의하면 제12군에는 軍 지할포병연대(75mm 1개 대대 12문, 105mm 1개 대대 12문)와 제5독립砲師의 제42, 제43, 그리고 제44연대(105mm 72문, 122mm 36문) 및 제7독립포사의 제11연대와 제32독립포사의 제406연대가 지원중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7월부터서는 6월에 鴨綠江을 건너 들어 온 華中砲師의 제40, 제41 兩 연대가 그들 사단본부와 제39연대를 北平에 남겨둔 채, 독립포병연대로서 그 병력 3,000명과 砲 72문(105mm 64문, 75mm 8문)을 가지고 제12군을 火力지원중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中共 제12군 정면에는 각종 砲 380여문이 放列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것은 그들 前線의 中共 7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同 제12군에는 團隊號 未詳의 戰車 1개연대(40대)가 지원중임도 아울러 밝혀 졌으니, 이러한 몇가지 情報판단을 근거로, 지난 3월에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이 U.S. News and World Report 記者와의 會見에서 『敵 砲兵은 현재 그들의 통신과 사격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치 않는다면, 數的으로는 我軍의 2배 이상이다』라고 한 그의 見解를 종합하여 敵勢를 大體한다면, 한마디로 敵은 지난해 「5월攻勢」直後의 劣勢를 挽回하고, 오히려 公세역량을 保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은 전반적인 狀況下에서 수도사단과 대결케 되는 中共 제35사단은 그 CP를 金鶴洞(昌道里 東南쪽 4km) 부근의 계곡에 두고, 제103연대를 그들 右一線으로 삼아 栗沙里(鞏岩山 北쪽 3km) 부근의 第6사단의 右一線인 제7연대(장, 梁仲鎭대령) 전면에, 제105연대를 中央一線으로 삼아 수도사단의 左一線인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 정면에, 그리고 제104 연대를 그들의 左一線으로 삼아 수도사단의 右一線인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 정면에 主抵抗線을 켜고 있었는데, 그들의 진지는 대체로 △672-△495-△594-△747-△714-△748-△472에 連하였다.

同 사단을 지원하는 火力로서는 사단포병연대의 72mm 12문, 75mm 12문과 제41독립포병연대의 105mm 32문, 75mm 4문이 직접지원하는 듯 하였고, 그밖에 군 직할 포병연대와 군 지원의 독립포사 가운데 일부의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다면 각종포 90여문에 달한 것으로 推斷되어, 火力面에서는 결코 수도사단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美제8군의 G-2는 前述한 군지원의 전차연대 가운데 1개 대대(20대)가 同 사단에 배속중이라고 하였으며, 이들 敵의 보급상태는 北傀軍보다 越等히 나은 편으로, 각개병사에 지급되는 手當만으로도 北韓住民의 日常生活을 營爲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들의 陣地強化를 위하여 계속된 坑道作業과 醫療設備가 보잘것 없어, 換節期에 전염병이 蔓延한 탓으로--그들이 이 까닭이, UN軍이 細菌戰을 실시한 때문이라고 생트짐을 부리기도 하였지만--이로 말미암아 士氣는 다소 沮喪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捕虜의 진술이나 信憑性 있는 諜者의 보고를 종합하면, 당면의 中共 제35사단(장, 李德生)은 5월 하순부터 그들 주저항선에 地下交通壕의 掘設작업을 실시하여, 6월중순에는 소대간의 地下坑道を 완성하였고, 계속 소대--중대간의 工事를 進행중인 것으로 보였으며, 그들이 확보중인 高地에는 例外없이 그 後斜面을 洞窟化하여 待避壕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UN軍이 原爆戰을 劃策한다는 流言蜚語까지 퍼뜨리면서 對原爆用壕를 構築하는 한편, 防毒面과 防毒衣까지 支給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또 어떤 高地는 그 地下에 송두리채 四通八達의 放射線式 tunnel을 파서 永久陣地化하고, 혹은 고지 後斜面에 垂直迫擊砲전지를 마련하여, 그 彈着點을 그들 散兵線 가까이 집중함으로써 我軍이 접근할 경우 수류탄 역할을 代用할 수 있도록 設備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그들의 陣地固守에 대한 意志와 努力 그리고 戰意 또한 尋常치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我軍의 狀況 : 수도사단은 육본作命 제27호(修正作指 제133호 : 52.3.10. 12.00부)에 의거 3월 14일 00.01부로 智異山 지구의 共匪擊滅을 目標로 하는 「Rat Killer 작전」을 종료하고, 작전임무를 西南地區 戰團司令部(사령관, 金容培중장)에 인계한 다음, 그 이튿날 15일에 南原으로부터, 春川으로 躍進하여 美제9군단(장, Willard G. Wyman 소장 : 51.12.24에 William M. Hoge 중장과 교대)에 배속되었다가 25일 12.00부로 다시 白野戰團司令部(사령관, 白善燁중장)의 작전지휘 아래 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3월 10일에 先遣隊로서 順天에서 登大里(金城 東南쪽 13km)로 前進한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16일에 제3사단(장, 白南權중장)에 배속되어 同사단의 左一線인 제22연대(장, 金瑠圭대령)의 北漢江 左右戰線(△548-△663)을 인수케 되었으며, 이를 뒤따른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는 17일에 廣大谷(登大里 西쪽 2km)에 집결과 동시 美제40사단(장, Daniel H. Hadelson 소장)에 배

속되어 20일에 同사단 右一線인 제160연대의 전선(△663 西쪽—△612)을 인수케 되었다.

이어 제26연대(장, 李東和대령)가 마지막으로 18일에, 坊城谷(廣大谷 西南 쪽 3km)에 집결하여 16일에 橋洞(坊城谷 西南쪽 3km)으로 推進된 사단 CP와 함께 대기케 되었는데,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가 각각 진지인수를 완료한 23일 12.00부로 兩 연대는 현 위치에서 配屬해제되어 사단에 복귀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단은 제3사단을 右翼, 美 제40사단을 中央, 제2사단을 左翼으로 하는 美제9군단의 中央右翼으로서 새로이 戰線에 나서게 되었는데, 4월 5일에 國本 一般命令(陸) 제25호에 의거 白野戰 司令部가 國軍제2군단으로 改編됨과 아울러 美제9군단의 戰線一部를 正式으로 인수케 됨에 따라, 右翼인 제3사단과 左翼인 제6사단(장, 白仁燾준장: 52. 3. 29에 美제40사단과 교대)과 더불어 그 中央에서 北漢江 부근의 Missouri線을 담당케 되었다.

사단은 계속 제1기갑연대를 右一線으로, 제1연대를 左一線으로 삼고 제26연대를 예비로 하여 北漢江 東岸의 △629 西北쪽 1km의 制限點으로부터 江을 건너 西北쪽 稜線을 따라 △663—△612에 이르는 主抵抗線인 Missouri線의 진지를 강화하다가, 5월 27일 00.01 부로 예비인 제26연대와 右一線인 제1기갑연대를 교대하여, 戰線의 陣容을 改編하였다.

이에 새로이 右一線이 된 제26연대는 主力을 Missouri 線에 추진하고, CP를 小城里(登大里 西南쪽 2.5km 金城川 南岸)에 두었으며, 제1기갑연대는 坊城谷에 주력을 집결하여 사단에비로서 부대정비와 補給路보수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단 CP도 4월 1일에 橋洞에서 다시 注波里(橋洞 南쪽 1km)로 移轉한 바 있다.

그 뒤, 6월 18일에 軍단명령에 따라 北漢江 東岸의 제26연대 일부진지를 右翼인 제3사단 제18연대에 인계하고, 19일에 左翼인 제6사단 제7연대의 일부진지—指形稜線과 △575를 포함한 △690—△765—를 인수케 됨으로써, 이제 사단은 北漢江 西岸에 注力케 되었다.

이 무렵의 지원포병 상황을 살펴 보면, 美 제176, 제300, 그리고 제987의 3개 장갑야전포병대대(155mm 자주포대대)를 主軸으로 한 美 제5포병단(장, Richard W. Mayo 대령)이 軍단을 지원하였는데, 당시에 수도사단 포병이던 제10포병대대(장, 金長根중령)는 사단이 지난해 10월에 南原으로 轉進한 뒤로 東海岸의 현위치에서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을 火力支援하다가 다시 이해 1월 13일부터는 同사단과 교대한 제5사단(장, 張昌國준장)을 지원하였는데, 3월 15일에 수도사단의 前線復歸와 발맞추어 靑室里(廣大谷 北쪽 2km)로 轉進과 同時에 美제9군단의 美제5포병단에 작전 배속되어 사단을 지원케 되었다. 그러다가 제2군단의 창설과 더불어 同 美제5포병단이 軍단 포병사령부의 역할을 담당케 되면서 아울러 國軍砲兵增強계획에 따라 新編되는 포병대대의 교육훈련까지도 맡게 되어, 國軍 소포병을 關望하게 되었는데, 同 포병단이 軍단의 포병을 運用함에 있어서는 美제176장갑포병대대로써 제3사단을, 제987 장갑포병대대로써 수도사단을, 그리고 제300장갑포병대대로써 제6사단을 각각 일반지원토록하되, 同대대들로 하여금 각각의 사단포병과 그리고 新編되어 지원중인 國軍 포병대대를 장악토록 하였다.

따라서 사단에는 美제987장갑포병대대(장, Sparra 중령)가 사단의 제10포병대대와 함께 제987포병단을 감경편성하고, 3월14일부터 軍단정면을 지원케 된 3개의 國軍 155mm 포병대대 가운데의 하나인 제98포병대대(장, 金明煥 중령)를 통합지휘하여 지원케 되어, 155mm 2개 대대와 105mm 1개 대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모든 사적지위가 美제5포병단의 FSCC에 의하여 統制된 까닭으로, 사단장이 직접감약할 수 있는 포병이라고는 사단 重砲인 제107重박격포중대 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른 포병은 모두 제5포병단장 Mayo 대령의 掌中에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인 5월 27일에 제2야전포병단(장, 대령 張庚石 중령: 52. 3. 15에 全南 光山の 砲兵學校에서 제53, 제55 兩 포병대대로써 創設)이 別隔(坊城谷 西北쪽 1km)에 집결과 同時 軍단에 배속되었는데, 軍단은 이를 다시 美제5포병단에 작전배속시킨 결과, 同 美제5포병단은 그 가운데 제53포병대

대(장, 朴東燁 소령)로써 제6사단을 지원케 하고, 제55포병대대(장, 李孝成 소령)로써 수도사단을 지원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제 105mm 2개대대와 155mm 2개대대의 강력한 火力을 확보케 되었는데, 이때 사단 포병사령부격인 제987포병단(장, Sparra 중령)은 105mm대대인 제55포병대대로써 右一線인 제26연대를, 제10포병대대로써 左一線인 제1연대를 직접지원케 하고, 155mm 대대인 美제987장갑포병대대와 제98포병대대로써 일반지원에 임하도록 하였는데, 각 砲隊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美 제987장갑포병대대 : 본 부—“새말”(廣大谷 西南쪽 1.3km; 金城川 南岸)

각포대—登大里

제2포병단 본부—“여넷골”(登大里 西南쪽 1.2km) 西北쪽의 金城川 南岸

제53포병대대 본부 및 각 포대—別隅

제55포병대대 : 본 부—執室里 東北쪽 1km

각포대—汝文里

제98포병대대 : 본 부—“피루개” 부근의 金城川 北岸

A 포대—別隅

B 포대—登大里 南쪽 500m 金城川 南岸

C 포대—廣大谷 南쪽의 金城川 南岸

제10포병대대 본부 및 각 포대—執室里

제107重박격포중대 본부 및 2개 소대(제1연대 직접지원)—驕岩山 東南쪽 1.5km

1개 소대(제26연대 직접지원)—松洞里 北쪽 1km

이때 또한 對戰車 작전과 前線에 대한 火力支援 目的下에 제52전차중대(장, 金東靛 소령)의 1개 소대(主力은 金城—華川本道를 담당중인 제6사단 지원)가 사단에 배속되었으나, 사단 地境內에는 機動路가 불타하여 對戰車 작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Missouri線에 戰車壕를 구축하여 이로써 火力支援에만 專用키로 하였다.

한편 工兵狀況으로서는, 당초 美 제9군단에 배속중이었다가 제2군단의 창설과 동시 군단 공병단이 된 제1103야전공병단(장, 梁宗益 중령)이 美 제36야전공병단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여, 군단의 後方地境內의 주요보급로와 교량의 補修維持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사단 지경내에는 보급로가 없는 까닭으로 右翼인 제3사단 지역내에 포함된 華川—當巨里—齒堡(登大里 東南쪽 2.5km)間의 도로와 左翼 제6사단지역의 華川—注波嶺—別隅에 이르는 도로를 當該 사단과 併用케 되었는데, 주로 華川—別隅路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華川—別隅間의 도로 유지책임은 군단의 제1103野工團이 맡았으며, 사단 공병은 別隅—登大里間의 金城川 河谷道에 대한 책임만 맡게 되었는데(登大里에서 東으로 齒堡까지는 그 일부가 사단 地境內에 포함되나, 이는 제3사단이 담당)이 金城川 河谷道는 사단의 橫軸과 縱軸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渡河문제를 안고 있어, 이의 확보에는 特段의 配慮를 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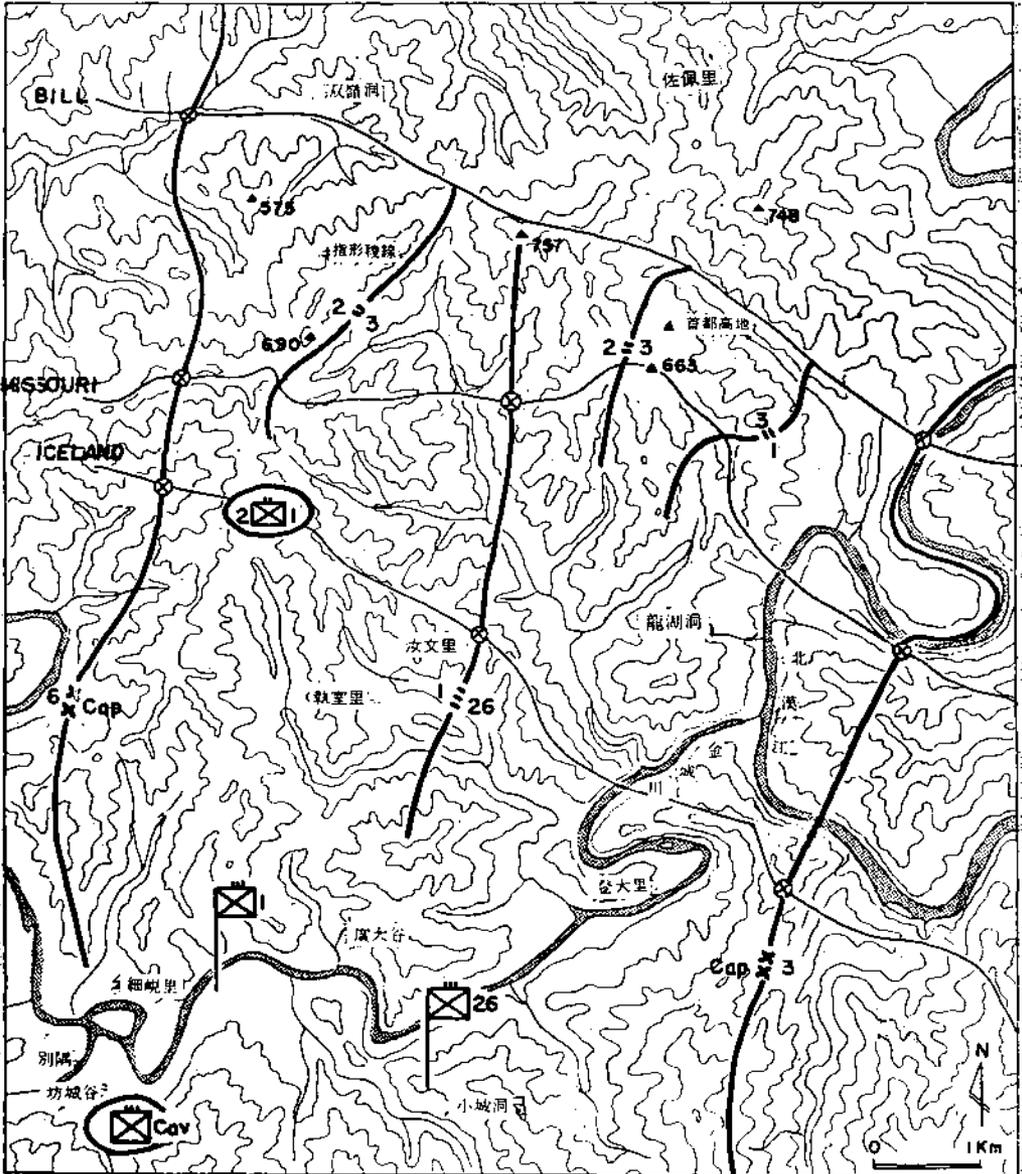
地形的으로도 골목이 심한 河川과 경사가 급한 高地群이 錯綜되어, 工兵의 활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기대되었는 바, 공병대대(장, 朴興柱 중령)는 KSC의 협력을 얻어 이 金城川의 곳곳에 步板橋와 舟橋를 架設하였는데, 이것의 보수유지가 공병의 主任務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 밖에도 右一線의 北漢江에서는 工兵短艇을, 左一線의 △612 부근에는 Cable을 運營하여 前線으로의 보급추진에 一役을 맡기도 하였으며, Missouri線의 陣地工事와 戰車進入路 확보를 併行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全般的인 情況속에서 사단 前線을 다시 한번 둘러보면, 사단의 主抵抗線인 Missouri線—사단 정면에서는 龍湖洞 東쪽 2.5km 北漢江 東岸에서 西北으로 △349에서 江을 건너 無名高地(표고 530m 정도) 西北쪽 稜線을 따라 △663—△612—驕岩山에 이르는 稜線상의 △765까지로, 이것은 지난날 敵의 「5월 공세」 直前에 美 제10군단이 진격목표로 삼았던 그것(昭陽江線)과는 다른 線으로

서 전개의 美 제10군단 주저항선인 Minnesota線과 연결되는 것이니, 당초에는 美 제9군단이 확보한 Gary線과 Polar線을 연한 線이기도 하다—의 $\Delta 663$ 에서 $\Delta 765$ 까지의 左半部는 대체로 東西로 整齊되었으나, $\Delta 663$ 를 基點으로 그 東쪽의 右半部는 東南으로 기울어 진 형세여서, $\Delta 663$ 가 완만한 突出部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단의 戰線을 건너 보면, 轆岩山($\Delta 770$)을 西쪽으로 감싸고 雙嶺洞계곡에 이르는 金城川 支流와 龍湖洞 東쪽에서 座首洞으로 西北向한 北漢江 지류가 이 Missouri線 앞에 弧形으로 가로 놓여 있어, 이들 河川에 沿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彼我が 對陣中이었다.

◇ 상황도 제13호 6월말 현재 부대배치 현황



그런데 이와같은 사단의 주저항선 앞 가까운 곳에 3개치의 주요한 要衝(경제지)을 占有하고 있었으니, 右一線 제26연대 正面의 首都高地(△663 東北쪽 500m)가 그 하나요, 左一線 제1연대 正面의 指形稜線(△612 北쪽 1km)이 그 둘이며, 사단 左接境線상의 突出部인 △575가 그 셋이다.

首都高地는 흡사 △663에 매달린 작은 폭과 같은 모양의 無名고지(표고 610m 内外)로서, 이것은 座首洞 계곡을 監視하는 機能이 있어 觸角과 같은 觀測上的 要衝點으로 그 重要性이 부각된 곳이며, 指形稜線은 Missouri線에 沿한 △690(△663 西쪽 3km)에서 東北쪽 敵陣을 가르키 듯 뻗은 표고 650m 内外의 一連의 稜線으로서 그 모양이 마치 손가락과 같다하여 이와같이 불리게 된 것이니, 이 稜線의 北端은 바로 敵陣의 中樞인 △747 西麓에 連하여, △747의 西側方을 脅威하는 要扼이요 사단 戰線의 最前線인 △575의 後據가 되는 곳으로서, 稜線 東北쪽의 일부는 이미 이미 敵이 限死코 固守中인 것이었다. 그리고 △575는 Missouri線과는 2km나 離隔된, 左接境線상의 尖端에서 扇形(逆三角線)을 이룬 獨立高地로서 栗沙里 계곡의 瞰制와 더불어 敵과의 접촉선으로 그 價値를 지닌 곳이니, 이로써 敵線을 雙嶺洞 北쪽으로 밀어올려 彎曲部를 形成케 한 바, 이 또한 그 東北쪽의 一角은 敵이 占有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以後로, 彼我의 戰線이 그간의 交綫상태를 脫타 強化된 이 時點에서 본다면, 이제 攻勢는 그만큼 부담이 뒤따를 것이므로, 서로가 政略的인 次元에서의 轉換이 없는 한 慎重을 期할 것이 分明한 까닭에 今後의 戰鬪樣相은, 이러한 警戒陣地와 같은 극히 局限된 要衝에 대한 爭奪戰으로 一貫될 것이 必然의 事實임을 알 수 있는데, 사단의 경우는 이 指形稜線과 △575가 雙方에 있어서 必取不可失이라는 見地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제 1차戰(7.7~7.8)—621高地 및 指形稜線의 ㉠, ㉡, ㉢高地 攻擊戰

(가) 작전계획

5월 26일에 사단의 右一線인 제1기갑연대와 예비이던 제26연대를 交替하여 戰線을 再整備하게 됨으로써, 당면의 主抵抗線에 대한 방어태세를 한층 가다듬게 되자, 6월 10일에 軍단作指 제7호가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단은 當面の 敵情을 수집하고 敵陣地를 破壞, 攪亂하기 위하여 制限된 目標을 공격하려 한다.

② 각 사단은 各己 當面에서 制限된 目標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공격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

③ 공격에 사용되는 兵力은 최대한 1개대대규모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본 작전의 명칭은 「Back Shot」라 한다.』

대저, 白刃은 비록 쓰지 않아도 같고 닦지 않으면 무디어지기 마련이니, 兵士의 士氣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 당시 軍단장 白善燁 中將의 이 構想도 이런 緣由에서 發想된 것으로 보는데, 軍단은 지난 해 5월의 제3군단의 解編以來로 臥薪嘗膽의 刻苦끝에 다시 創設을 보아 獨自로 中部의 戰線一翼을 담당케 된 것이니만큼, 제8군의 期待에 副應하여 그 銳氣로써 先制로 攻勢를 펴, 今後의 작전에 있어서 主導權을 쥐게 되는 契機를

마련코자 하였음이라.

이어, 군단은 또 作指 제8호(6.16, 14.00부)로 사단간의 전투지경선 일부를 변경조치하였는데, 수도사단에 대하여서는 18일 22.00부로 그 右一線진지 일부(北漢江 東岸 △572부근)를 右翼인 제3사단에 인계하고, 19일 22.00부로 左翼인 제4사단의 右一線진지 일부를 인수케 함으로써, 문계의 指形稜線과 △575를 새로이 담당케 한 것이다.

사단은 이에 종래 廣大谷—松洞里—座首洞으로沿하였던 제26연대와 제1연대의 지경선을 廣大谷—汝文里—“여호고개”(△747 西北쪽)로 변경하여, 제26연대의 정면을 1km정도 西쪽으로 擴開하였다.

이에따라 左右一線 연대는 다시 戰線을 整理하였는데, 右一線 제26연대는 20일부로 새로 赴任한 신임 연대장인 鄭 震 대령(李東和 대령과 交代)의 指揮下에 부대정비와 아울러 다음과 같이 戰線을 정리하였다.

즉, 배속중인 대전차공격대대의 제2중대로써 北漢江 東岸 △349부근의 制限點을 확보케 하는 가운데, 江西岸의 Missouri線—OPL을 △572 對岸(魚雲里 北쪽 1km)에서 座首洞—△747로 하는 △663 左右의 主抵抗線—에는 제1, 제3, 제2대대순으로 配備하였는데, 각 대대에 1개중대씩을 예비로 확보하고 2개중대로써 주저항선을 담당케 하였다.

따라서 江西쪽의 연대 右一線인 제1대대(장, 池龍泰 중령)는 제2중대로써 대전차공격대대의 제2중대와 江을 사이에 두고 連繫하여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고, 제1중대를 제2중대의 主抵抗線에서 T字形으로 뻗어내린 稜線의 ㉠에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제3중대로서는 △277(△572 西쪽 1.5km; 北漢江 西岸)부근의 경계진지를 확보케 하였다. 또한 中央一線인 제3대대(장, 禹敎鵬 중령)는 제9중대를 右제1선으로 제11중대를 左제1선으로 삼아 주저항선을 담당케 하고, 제10중대를 예비로 △663 南斜面の ㉡에 控置하였는데, 이때 연대전선의 核心인 △663과 首都高地는 제11중대의 방어정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左一線인 제2대대(장, 朴基淳 소령)는 제6중대를 右제1선으로, 제5중대를 左제1선으로 하고 제7중대를 제5중대 진지 南쪽의 ㉢에 예비로 확보하였는데, 제6중대 정면의 ㉣高地(수도고지 西쪽 500m)에 1개소대를 派出케 하여, 그 北쪽 400m에 있는 △621의 敵을 견제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의 左一線인 제1연대는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의 3개중대로써 주저항선의 右一線을 계속 담당케 하는 가운데, 새로이 제6사단으로부터 인수한 左一線은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 제10중대로써 확보케 하되, 대대主力은 鞞室里에 연대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主抵抗線 前方의 경계진지인 指形稜線—△575는 제1대대(장, 咸溶翼 중령)로써 專擔케 하였는데, 제2중대를 指形稜線에, 제3중대를 △575와의 鞍部에, 제1중대를 △575에 각각 배치하여 一連의 경계선을 확보케 하였다.

따라서 연대의 주저항선은 실제로 제2대대의 主陣地인 △612에서 西北으로 指形稜線—

△575線이고, 本來의 주저항선 左一線의 제10중대는 제1대대의 縱深진지를 확보중인 예비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와같이 사단戰線의全般에 걸친 部署의 변동이 끝나자, G-3 丁世鎭 중령은 곧 군단의 「Back Shot」 계획에 따르는 사단의 공격목표를 選定하되, 左一線 제1연대의 제2중대가 그 西半部를 확보중인 指形稜線의 東半部(㉠-㉡-㉢ 高地)를 제1목표로, 그리고 左一線 제26연대 제6중대 정면의 △621를 제2목표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指形稜線의 ㉠-㉡-㉢ 高地, 이것은 첫째 사단 보다 앞서 제6사단이 이 指形稜線을 확보중이던 당시에 敵이 △575에 대한 몇차례의 爭奪企圖를 보인 바 있는데, 그때마다 이 稜線을 그것에의 攻擊路로서 利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니(제6사단의 575高地 전투 참조), 사단이 이 稜線 모두를 손에 넣어 △575에 대한 側面威脅을 排除함과 同時에 敵의 攻擊路 하나를 閉鎖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이 ㉠-㉡-㉢ 高地가 제1연대의 보급로인 北漢江 支流의 河谷道(松寶里 계곡)를 正面에서 가로막고 있는 형세여서, 이곳으로부터 보급로가 斷制되는 까닭에, 여기로의 보급추진이 곤란하여 靛室里쪽의 嶮路에 Cable線을 이용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이곳의 敵 觀測所를 剔抉함으로써 主補給路의 안전을 圖謀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621, 이것은 수도고지와 더불어 座首洞계곡을 管制하는 要衝일 뿐만 아니라, 제26연대의 주저항선에서 敵陣의 △747로 연하는 稜線상의 鞍部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만약 사단이 ㉠-㉡-㉢ 高地와 동시에 이 △621를 얻는다면, 그야말로 錦上添花 格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敵은 그들 진지의 中樞部인 △747가 1km 以內의 左右에서 衝鋒의 겨냥을 받게 되는 위험에 直面하게 되어, 방패없이 劍尖앞에 들어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거니와 이것이 將次의 사단공격 進路가 될 것을 想定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들의 對備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如何한 出血이라도 사양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군단의 「Back Shot」 계획에 의한 制限目標의 공격으로서, 敵情을 수집하고 敵陣을 파괴하는 目的에만 充足하는데에 局限하지 않고, 이 作戰을 계기로 한걸음 더 나아가서 此際에 과감하게 이것을 탈취하여 확보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立案, 군단장의 承認을 얻어 6월 30일에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Back Shot」 작전을 실시하려 한다.

작전목적 : 敵情수집과 敵陣地의 破壞에 있다.

공격목표 : I - ㉠, ㉡, ㉢ 高地

II - △621

공격일시 : 7.8. 01.00

② 제1연대는 목표 I 을 공격하여 점령하라.

공격간 제52전차중대 제2소대를 배속한다.

③ 제26연대는 목표 II 를 陽攻하라.

④ 사용병력은 각 1개 대대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621에 대한 陽攻의 임무를 부여받은 제26연대는 그 담당정면의 제2대대(장, 朴基淳 소령)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하되, 연대에 예비기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격병력의 규모를 1개소대로 制限하였는데, 당시에 목표인 △621에는 中共 제104연대 제1대대소속의 1개소대가 이를 확보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제1연대는 이 稜線상의 縱長 500m의 敵陣가운데 그 鎖鑰으로 보여지는 ㉔의 확보에 注力키로 하였는데, ㉔는 연대의 제2중대 진지인 ㉕(△690 北쪽 500m; 표고 710m 정도)의 東쪽 500m, ㉖는 ㉕의 東쪽 100m, 그리고 ㉗는 ㉖의 東쪽 70m이니, 이들 세 高地는 서로 연결된 tunnel이 掘設 되었을 뿐만 아니라, 城砦의 胸壁을 彷彿케 하는 交通호상의 射擊孔이나 有蓋障地로 된 重火器壕는 砲擊을 능히 支撐할 수 있을 정도의 強度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대는 그곳의 병력은 中共 제105연대 제2대대의 2개소대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 支援火力이 또한 만만치 않아 稜線攻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周到綿密한 계획아래 1週間の 공격연습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계획(연대 作命 제57호, 6.30. 15.00부)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일부병력으로써 목표 無名高地 ㉕-㉖-㉗를 점령 확보하려 한다.

공격개시 일시 : 7.8. 01.00

공격개시선 : 제2중대 진지(㉕高地)線

② 제3대대(1개중대 缺)는 목표 ㉕-㉖-㉗를 逐次 攻略하라.

D-4일부로 연대특공중대 1개 소대를 통합지휘하라.

공격간 공병 1개소대를 배속한다.

③ 제1대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제3대대 공격간에 대대의 火力으로써 敵의 側方機能을 견제하고, 逆襲企圖를 제압하라.

④ 제2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主抵抗線의 共用火器로써 제3대대의 공격을 掩護하라.

⑤ 연대특공중대 (-)는 現위치에서 後命을 待機하라.

D-4일부로 1개소대를 제3대대에 배속조치하라.

⑥ 공격간 제2포병단의 火力이 支援될 것이다.

⑦ 제107중박격포 중대(-)는 제3대대를 직접지원하라.

⑧ 배속 제52전차중대 제2소대는 主抵抗線의 戰車 2대로서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⑨ 모든 火器는 D-4일까지 基點에 대한 諸元記錄사격을 완료하라.
- ⑩ 공격대대는 各個兵士에게 2일분의 非常食糧을 휴대케 하라.
- ⑪ 軍需主任은 D-4일까지 공격소요탄약을 제2중대 OP(㉠ 高地; △690 北쪽 200m) 부근에 추진하라.
 목표 점령後의 陣地工事に 필요한 工兵資材를 同중대 경계소대 진지(㉡ 高地)에 同日 時까지 集積하라.
- ⑫ 통신대는 D-3일까지 연대 OP에 SB-18 1대를 설치하고, 제2, 제3 兩대대와의 有線各 3회선을 확보하라.
- ⑬ 제3대대는 D-3일까지 OP 추진을 완료하라.
 각 중대와의 有線 3회선을 확보하라.
- ⑭ 各隊는 無線統制를 철저히 할 것이며, SCR-609의 通信에는 必히 陰語를 사용하라.
- ⑮ 各隊는 D-3일까지 일체의 通信器材의 整備를 완료하라.
 기타는 現 SOI 를 準用한다.
- ⑯ 공격간 信號彈 信號規定은 다음과 같다.
 射程延伸要請; 白色五星 신호탄
 目標占領完了; 黃色五星 신호탄
 敵逆襲 ; 赤色五星 신호탄
- ⑰ 공격간 연대 前方 지휘소는 △612에 위치할 예정이다.』

(나) 작전실시

7월 7일 : 사단이 새로이 이 戰線을 담당한 뒤로, 이날까지는 敵과의 커다란 接戰을 치르지 않았던 까닭으로, 이날도 대체로 여느날과 같은 小康속에서 공격준비를 마무리지었다.

右一線 제26연대의 공격목표인 △621에는 해묵은 老松의 그늘이 짙고, 左一線 제1연대의 正面 指形稜線에는 稠密하게 들어 선 10~15年生 灌木들이 서로 얼켜서, 아직은 稜線을 누빈 交通호나 蟻穴같이 파헤쳐진 참호들을 감추고 있어, 盛夏의 熱炎속에서도 一沫의 高요를 느끼게 하는 靜中動의 하루를 보내었는데 저녁무렵에 한차례의 소나기가 지나가, 밤이 깊어지면서는 冷氣가 慄然하였다.

1. 이날 밤, 제26연대 제2대대는 예비인 제7중대(장, 李益植 대위)의 제3소대를 뽑아 LD로 추진하였는데, 同소대는 소대장 金日永 소위의 지휘아래 20.30에 집결지인 대대예비진지(㉢)에서 機動을 시작하여 22.00에 △663에 위치한 대대 OP부근에 집결하였다가, 그곳에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23.30에 △663-座首洞 계곡을 따라 LD(수도고지-㉣)고지間的 계곡線)로 躍出하였다.

2. 한편 ㉠-㉡-㉣를 공격케 된 제1연대의 제3대대는 연대 作命 제57호에 따라 OP

를 제2중대의 OP가 위치한 ①高地로 추진하고, 一週日間の 圖上演習과 實地豫行을 거쳐 공격준비를 끝낸 다음, 이날밤에 제9, 제11兩중대를 LD(㉞高地線)로 뽑아 올렸는데, 이와 같이 제9, 제11兩중대만을 공격에 가담케 한 것은 당시 제10중대가 연대의 主抵抗線(Missouri線)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까닭에서였다.

그런데 이 攻路에 앞선 대대장 朴贊兢중령의 腹案은 이러하였다.

- 『① 제9중대는 공격제1선이 되어, 목표 ㉠—㉡—㉢를 逐次공격 한다.
 ② 제11중대는 제2선에서 제9중대를 後續하면서 상황에 따라 即應한다.
 ③ 배속 특공소대는 최초 제9중대의 ㉠ 공략을 東南麓에서 挾攻한다.
 ④ 戰車 2대는 主抵抗線(△612 東쪽 1km의 계곡)에서 側方 지원한다.』

이와 같은 대대장의 공격계획아래, 제9중대(장, 黃龍活 대위)는 20.50에 執室里부근의 대대 집결지에서 機動을 시작하여 3km의 山間險路를 踏破한 끝에 22.40인 LD인 ㉞高地에 집결하였는데, 이때 제11중대(장, 吳貴星 대위)는 22.50에 主力을 △690에 집결하여 待機태세를 갖추는 一方, 1개소대(제1소대)를 제9중대와 함께 ㉞高地로 추진하였다.

한편 연대특공대 1개소대는 20.50에 중대 집결지(△612 南쪽 1km의 계곡)에서 기동을 시작하여 子正에 △612 北麓(指形稜線 東南쪽 계곡)에서 공격 제1목표인 ㉠을 올려다 보면서 협격을 준비하였으며, 제52전차중대 제2소대의 戰車 2대는 △621 東쪽 1km의 현 위치에서 21.00 현재로 戰車砲의 諸元을 확보하여 공격지원태세를 갖추어 待機中이었다.

이리하여, 驟雨將來하니 風滿樓라 戰野에 夜風이 가득한 가운데, 공격 제1선중대는 공격개시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7월 8일: 이날 새벽부터 사단의 左右一線에서는 目標 쟁탈에 대한 攻防의 血戰으로 一進一退를 반복하였는데, 그 치열함이란 사단이 일찍 경험한 바 없었던 것이었다.

1. 제26연대의 △621고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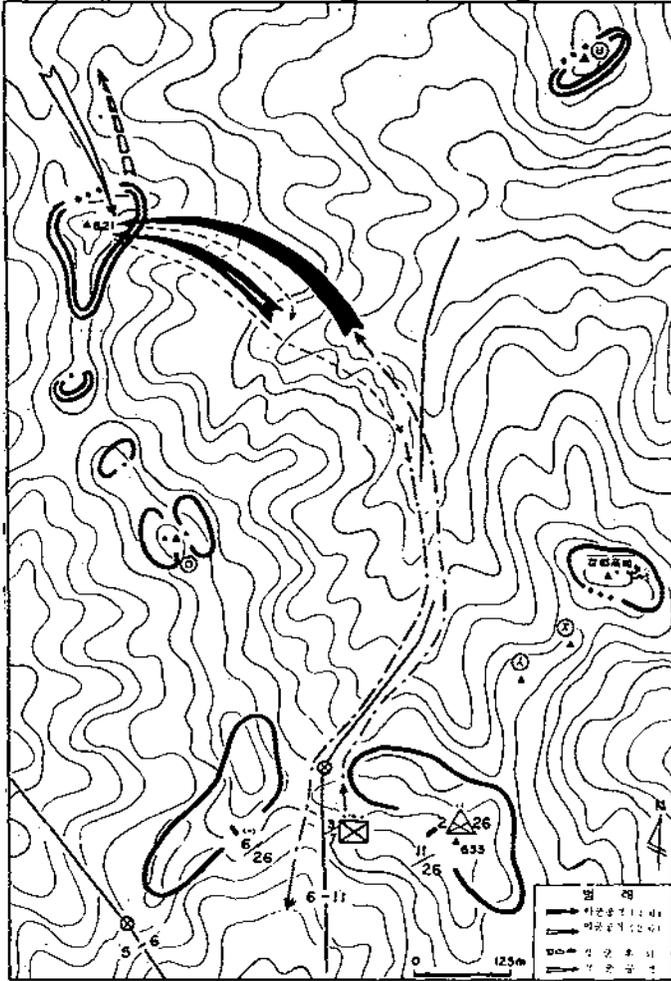
전날 子正에 목표 △621의 東쪽 계곡의 LD에서 전투전개를 끝내고 대기중이던 제7중대의 제3소대(장, 金日永 소위)는 이날 00.25에 4.2"重박격포 1개소대와 대대의 81mm박격포의 지원아래 LD를 躍出하여 無名花草가 뒤엎힌 목표고지의 東쪽 稜線의 急傾斜를 따라 步一步로 前進하였다.

02.00에 포고 500m의 稜線에 이르자, 氣象이 급변하여 안개가 짙어지면서 細雨마저 흩날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霧中과 夜暗에 소대의 企圖가 秘匿된 까닭에 敵前으로의 접근에는 有利하게 되었으나 반대로 敵情判斷과 支援火器의 목표관측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소대가 暗中摸索으로 霧中을 뚫고, 接戰을 피한 채 목표 △621의 頂上 東쪽의 敵前 10m에 육박하면서부터 소대규모의 敵과 激突을 보게 되었다. 소대는 銳氣를 몰아 奇襲의으로 돌격을 감행하여, 敵線을 즉시 돌파하고 정상에 올라 서려는 刹那,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소대의 등뒤쪽인 座首洞계곡의 無名高地 ㉑(수도고지 北쪽 600m, 표고 510m 정도)과 △621 西北쪽의 稜線에 연한 敵의 主抵抗線에서 自動火器가 左右挾擊으로 일시에 집중되어, 그곳 정상에서 固着되어 머리를 들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서 高地(△621) 西北斜面으로부터 敵의 逆襲이 돌이닥친 까닭으로 頂上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었다.

◇ 상황도 제14호 제26연대의 621고지 공격



이리하여 소대는 座首洞쪽의 敵火를 피하여 高地 東南쪽으로 100여m를 물러나 戰列을 수습한 다음, 04.20를 期하여 또 한번 頂上을 向하여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이미 그곳에는 敵이 병력을 증강하여 방어태세를 굳힌 다음이라, 至近距離에서 한동안 彼我 서로 수류탄만을 주고 받았을 뿐 頂上席捲이 如意치 않게 되었다.

이에 소대는 04.30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隨意撤收하여, 05.10에 당초의 소대진지에 집결하였는데, 이 一戰에서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戰死 3명에 負傷 5명의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렵, 연대에 배속되어 北漢江 東岸진지를 확보중이던 대전차공격

대대의 제2중대(장, 曹漢吉 중위) 정면에 中共 2개소대규모가 強力한 포병지원아래 공격을 企圖한 바 있어, 여기서 다시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敵의 공격이 猪突의 이어서 한 때에는 중대의 방어진지 一角이 蹂躪되기도 하였으나, 激戰 30여분만에 이를 격퇴하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敵 13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얻고, 중대원 8명이 負傷을 입었다.

2. 제1연대의 ㉑-㉒-㉓고지 상황

가) 이날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의 공격에서 先制主動의 임무를 맡게 된 제9중대(장, 黃龍活 대위)는 중대 OP를 ㉠高地에 두고, 제1, 제2 兩소대를 공격소대로 삼아 LD에 左右로 展開토록 하여 逐次로 ㉠—㉡—㉢高地를 탈취케 하였는데, 이때 제3소대는 지원소대로서 ㉣고지(제2소대의 1개분대가 확보중)에서 제1선소대의 공격을 지원하면서 後續하다가, ㉠를 확보한 다음에는 즉각 ㉡공격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예정된 01.00에 중대의 제1, 제2 兩소대는 각각 소대장 陸成均 소위와 白南珏 소위의 지휘아래 LD를 박차고 약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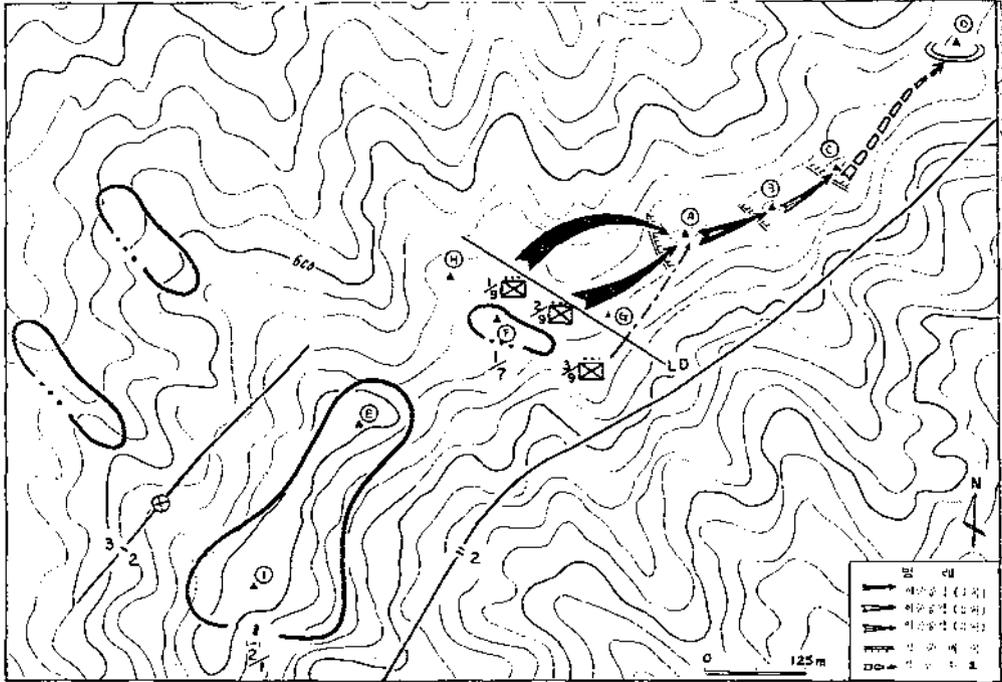
兩 소대는 사단의 지원포병이 일제히 $\triangle 747$ 西斜面の 敵 直射화력의 據點을 집중하여 이를 擱伏케 하는 동안, ㉠高地로 推進된 대대의 무반동총과 중대의 60mm 박격포, 그리고 ㉠高地 南斜면에 있는 81mm 박격포의 掩護아래 목표 ㉠高地로 나아갔는데, 제2소대는 ㉠—㉡高地의 稜線 正面으로, 제1소대는 ㉠로부터 ㉢의 北麓으로 돌아 ㉠의 西北쪽으로 指向하였다.

이와같이 勇躍한 중대(一)는 不時에 敵의 虛를 찢러, 1개소대 규모의 抵抗을 一蹴하고 01.45에 제1목표인 ㉠高地를 手中에 넣은 다음, 곧 지원 제3소대(장, 魏泰善소위)를 ㉠高地 本攻에 참가시켜 10분 뒤인 01.55에는 제2목표인 그것마저, ㉠를 무너뜨린 그 衝擊波를 몰아쳐서 일거에 席捲하고 말았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敵의 砲火가 猛威를 떨치기 시작한다. 東쪽의 $\triangle 747$ 와 北쪽의 $\triangle 594$ (㉠ 北쪽 2km)의 兩面에서 敵의 側方支援화력이 집중되어 鐵片과 石塊가 夜空에 亂舞케 되었는데, 미처 진지再編의 여유를 얻지 못한 중대는 이로 말미암아 死傷者가 속출하여 적지않은 병력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당초 소대장이 하 31명으로써 ㉠의 西北쪽으로 迂回하였던 左側 제1소대의 경우는 여기서 소대병력을 재점점한 결과, 소대장 陸成均소위도 頭部에 破傷片을 입는 등 온전한 兵士가 6, 7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대는 지체없이 戰列을 수습하여 마지막 목표인 ㉢高地를 攻略키로 하고, 제1소대를 先頭에 내세워 돌격로를 개척케 하였다.

이리하여 소대장 陸소위가 부상을 입은 머리를 싸맨채 소대의 잔여병력을 지휘하여, 쏟아지는 鐵火속을 뚫고 ㉢高地의 敵陣으로 肉迫하였는데, 그곳의 敵線 20m 앞에 이르니 散兵線의 참호속으로부터 마구 굴러내리는 敵의 棒狀수류탄으로 進路를 가로 막히는 바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그 正面에서 발악적으로 수류탄을 亂投하는 敵壕에 단신 포복으로 접근한 다음 수류탄 1발을 擲아서 投擲하여 그 속의 中共兵 2명을 爆殺시킴으로써, 敵陣의 一角을 깨고 突擊路를 열게 되었다. 이어 소대장이 먼저 敵陣속으로 뛰어들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니, 이 號令一下에 소대원이 白刃을 뽑아들고 怒濤와 같이 陣內로 돌입하여 총검을 휘둘러 닥치는대로 敵을 무찌르고, 02.20에 마침내 細雨가 霏霏한 정상에 올라 黃色 五星 신호탄을 높이 올렸다.

◇ 상황도 제15호 제9중대의 ㉠—㉡—㉢高地 공격



한편, 이때 대대장朴贊兢중령은 이와같이 제9중대가 공격 개시 45분만에 ㉠를 手中에 넣고, 제속하여 예상밖으로 好調를 보이자 곧 $\Delta 690$ 에서 扼腕待機중인 제11중대(장, 吳費垺대위) 주력을 ㉢고지로 추진하여 제9중대를 聲援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同 중대는 ㉢고지의 제9중대 제3소대가 ㉡고지 공격에 참가함에 따라 ㉢고지에 있던 제1소대를 ㉢고지로 추진한 바 있는데, 마지막 ㉢고지가 대대의 손에 들게 될 무렵인 02.15에는 ㉢의 제1소대를 다시 ㉠고지로 환결음 더 나서게 하고, 제2소대를 ㉢고지에, 그리고 제3소대를 ㉡에 配備하여 제9중대의 戰況을 지켜보았다.

나) 이즈음, 최종목표인 ㉢고지를 점령한 제9중대의 제1소대는 미처 퇴로를 찾지 못한 채 陣內에서 右往 左往하는 殘敵을 剔抉하는 一方 그곳에 陣地를 急編 하였는데, 敵의 砲火가 한동안 高地에 집중되더니 03.00에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고지 東北쪽 ㉡고지로부터 稜線을 따라 나타나, ㉢의 소대 진지를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는 赤色 五層신호탄으로써 敵의 逆襲을 알리고, 곧 陣前에 迫頭한 敵에게 수류탄 세례를 加하였다.

이때 이미 중대와 대대간의 有線이 모두 敵砲火에 切斷되고 소대와 중대간의 無線도 杜絶된 상태였는데, 이와같은 惡條件속에서 소대장 陸소위는 소대원을 지휘하여 陣地를 固守하되 陣頭에서 CAR을 亂射하면서 날아오는 敵의 수류탄을 겁이 되던지기도 하고 安在元하사 등과 함께 陣內로 突入한 일부의 敵과 白兵格鬪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소대장 以

下 소대원의 이와같은 敢闘도 끝내 力不足으로 無爲로 돌아가, 03.45에 ㉞高地로 隨意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㉞高地에서 戰列을 재편케 되어, ㉞高地의 제11중대와 함께 兩高地를 나누어 맡게 되었으며 중대의 공격初動에 ㉞高地의 東側方에서 지원한 특공중대의 1개소대도 04.50에 △621 南쪽 계곡의 중대집결지로 反轉하였는데, 이는 이 稜線의 戰況에 따라 특공중대의 充用을 예상한 연대장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날이 밝은 뒤로, 彼我의 砲聲이 서로 猛威를 다루는 가운데, KSC(勞務者)편으로 ㉞高地에 集積된 工兵資材를 ㉞와 ㉞高地로 추진하여 진지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간단없는 敵 砲火의 妨害와 더불어 終日 몇차례에 걸쳐 散發的인 역습을 企圖한 까닭으로 진지를 改修할 여유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急編진지에서 간신히 高地를 支撐중이었는데, 15.00에 이르러 當面의 敵이 그 可用한 全포화력을 일제히 여기로 집중한 듯, 各樣의 포탄이 暴雨같이 쏟아져 稜線의 ㉞와 ㉞高地는 熱焰의 도가니로 一變하고 말았으니, 당시의 대대장 朴贊兢 중령이 뒷날 이때의 情況을 證言하되, 『敵 砲火가 그토록 熾盛한 적은 그때까지 일찌기 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우리 砲兵의 TOT 사격이 잘못되어 誤砲擊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訝心마저 없지 않았다. 高地의 병사들은 陣地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고 만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 보고에도 사단장은 실감치 않는 듯 하였는데, 고문관을 帶同하고 연대 OP(△612)에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를 首肯하였으나, 別無道理였다』는 것이다.

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제9중대로서는 더 이상 ㉞高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㉞高地의 제11중대로 하여금 ㉞高地를 인수토록 하였는데, 이는 이때 제9중대가 소대장 2명이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당초 143(5/138)명이었던 중대병력 가운데 殘兵이 50명을 넘지 못한데다가 그나마 온전한 병사가 없을 정도로, 文字 그대로의 滿身瘡痍이었던 까닭에서였다.

이에 제11중대(장, 吳貴星대위)는 ㉞高地의 제1소대로 하여금 ㉞高地로 급히 달려가 그곳의 제9중대와 교대케 하고, 이어 主力인 제2, 제3 兩 소대를 ㉞高地로 추진하였는데, 한편 同중대 제1소대에 ㉞高地의 진지를 물려준 제9중대(장, 黃龍活대위)는 18.00에 대대 OP(㉞高地) 부근으로 집결하여 병력을 수습케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手裡의 병력 모두를 이 稜線확보에 投入한 대대장 朴贊兢중령은 연대장에게 예비대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力說하고 병력증원을 要請한 결과, 연대예비로 남아있던 특공중대를 통합지휘케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날 밤중으로 敵의 逆襲이 必至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따라 占有중인 ㉞-㉞ 兩 高地의 固守策으로서, 주저항선의 제10중대를 예비로 확보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특공중대로 하여금 제10중대가 담당중인 대대 主抵抗線을 인수케 하고, 그곳의

제10중대(장, 沈相鎬대위)를 前線으로 뽑아 올렸는데, 20.20에 同중대는 主力을 ㉔高地로 추진하여 그 가운데 제3소대로써 ㉔高地의 제11중대 제1소대와 교대케 하여, 同소대로 하여금 이날 밤동안 ㉔를 확보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㉔高地의 제11중대 제1소대는 다시 ㉔高地로 轉進하여 그곳의 중대主力과 勢케 되었는데, 21.00가 되자 과연 豫期한대로 敵의 逆襲이 들이 닦쳤다.

2개중대 규모로 보이는 증공병이 東北쪽 稜線을 타고 ㉔高地로 접근하였다가 그 衝鋒을 들로 나누었는데, 1개중대규모로 推算되는 한 갈래는 ㉔를 直衝하고, 역시 1개중대 규모의 다른 한 갈래는 稜線의 北麓을 따라 迂回공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이들은 새로이 이 稜線에 投入된 듯 銳氣가 자못 날카로웠다.

이들은 공격 시작과 아울러, 30여분 동안에 2,000여발에 달하는 그들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㉔와 ㉔高地를 同時併路교차 하였는데, 그들의 이와같은 포격 彈雨를 무릅쓰고 歩一步로 兩高地의 陣前 돌격선에 육박하였다가 火力의 延伸과 더불어 일제히 陣內로 달려 들었다.

이렇게 하여, 21.40부터 ㉔와 ㉔ 兩高地에서는 각각 동시에 彼我が 뒤엎친 白兵血鬪를 벌이게 되어, 腥風과 血雨가 交叉하는 修羅의 一場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이 渦中에 먼저 휩쓸리게 된 ㉔高地의 제10중대 제3소대는 始終 熾盛한 敵火 속에서 兵力의 劣勢를 만회치 못한 탓으로 끝내 진지를 支撐치 못하는 바 되어, 22.00를 前後하여 暗中摸索으로 자기 血路를 찾아 分散되고 말았다.

한편, 이무렵 ㉔高地의 제11중대에서도 敵의 執拗한 波狀攻擊을 받아 陣內에서 白兵對決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중대의 所有線이 敵砲火에 四分五裂로 杜絶되고 無電機마저 대부분 破損되어, 대대와는 SCR-609 1대로써 간신히 維持중이었으나 그나마 砲聲과 함성으로 말미암아 交信상태가 계속 不良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중대의 戰況을 파악 할수 없어, 대대본부 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有線을 補修케 하는 한편 無線 확보책을 摸索한 결과, 연대 통신대장 金鍾晚중위가 직접 연대의 예비무전기를 대대로 搬出하여 대대 통신대와 협동으로 무선망의 정비에 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대대가 通信網의 확보에 死力을 다하였으나,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에 ㉔高地의 제11중대 戰況은, ㉔高地를 失守한 그 衝擊波가 이에 加重케 됨으로 말미암아, 急轉直下로 惡化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事勢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아래 이날 밤중으로는 ㉔高地의 확보에만 專力키로 斷案을 내리고, 22.10에 ㉔高地의 제10중대 主力을 ㉔高地로 급거 추진하여, 그곳의 제11중대를 赴援토록 하였다.

그러나 제10중대(장, 沈相鎬 대위)가 ㉔로부터 ㉔를 向하여 出擊한 뒤로 同중대와의 無電마저 두절되어, 同중대의 狀況조차도 渺然하게 되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에 ㉔高地에서는, ㉕高지를 무너뜨린 銳氣를 몰아 돌이닥친 敵의 일단이 제 10중대의 赴援보다 한발 앞섰던 까닭으로 여기서 陣内の 亂戰格鬪가 벌어져, 그 敵勢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잠시 後, 23.00에 대대와 제11중대(장, 吳賢星 대위)와의 무전이 疏通된 바, 『더 이상 진지 지탱이 불가능함. 중대장 단신 혈전 중』이라는 보고가 있는 뒤, 無電兵마저 전사한 듯 다시 끊기고 말았다.

30분 뒤인 23.30에 제11중대를 부원키로 된 제10중대를 간신히 呼出하였는데, 이로부터 보고되기는 『㉔高地는 被奪된 것으로 판단됨. 중대 역습중이나 如意치 않음』이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 제11중대는 ㉔高地에서 隨意撤收하여 각기 血路를 찾는 중이며, 제10중대는 그 공격이 頓挫寸前에 빠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대대 OP부근에서 수습된 제9중대(장, 黃龍活 대위)의 나머지 병력 30여명과 火器중대(장, 金在俊 대위)에서 抽出한 30여명으로 機動 예비대를 急編하고, 이를 직접 지휘하여 그 이튿날인 9일 03.00에 ㉔高地로의 역습에 나섰으나, ㉔에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이 이미 立脚地를 굳힌 뒤이라, 戰意가 萎縮된 混成兵力으로는 以卵擊石의 損失만을 累增케 하였을 뿐, 이도 또한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05.30에 대대 全兵力을 OP부근에 집결시켜 再編케 하고,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여 ㉔高地에 대한 역습을 中止케 하였는데, 이 一戰에서 대대가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215명	戰 死	56(1/ 55)명
鹵 獲		負 傷	165(5/160)명
多 發 銃	2정	失 踪	5(0/ 5)명
蘇式小銃	3정		
手 榴 彈	20발		

(2) 제2차戰(8.5~8.7)—首都高地 防禦戰

(가) 작전계획

제26연대의 △621와 제1연대의 ㉔—㉕—㉖高지의 공격이 無爲로 끝나고, 彼我的 陣容이 당초의 그것으로 되돌아감으로써 交綏상태에서 7월을 넘기게 되었다.

指形稜線上에서의 전투가 끝난 7월 9일에 사단장 宋堯讚 준장이 소장으로 進級과 同時에 南部地區 警備司令官으로 轉補되고, 그 후임에는 육군본부 작전국장인 李龍文 준장이 11일에 赴任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新任사단장의 지휘아래 戰列을 새로이 整備케 되었는데, 이에 앞서 사단장이 부임 즉시로 제1연대의 指形稜線 攻擊戰결과를 분석한 결과, 同稜線이 △747의 敵으로부터 斷制된 형세에 있는 까닭으로 여기 東北端의 敵을 剔抉하고 稜線을 송두리째 占領한다는 것도 어려운 노릇이거니와, 이를 계속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판단아래, 당초 군단이 「Back Shot」계획에서 試圖한 바 대로 敵障地 파괴의 목적달성에 만족키로 하고, 同稜線의 高地만을 掌握하여 이 稜線에 대한 敵의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主抵抗線(Missouri線)의 방어태세를 공고히 하는 防守一邊倒로 전환키로 方針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제1연대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의 부대정비가 不可避하게 된 점을 감안하고 21일 12.00부로 作命 제162호를 下達하여, 25일 24.00를 期하여 左一線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와 예비인 제1기갑연대(장, 李龍 대령)와의 임무를 서로 交代토록 하였다.

이 무렵인 26일부터는 그간 제6사단을 지원하던 제2야전포병단의 제53포병대대가 다사 사단을 일반지원케 되어, 105mm 1개 대대의 火力증강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보다 앞서인 23일에는 군단장 白善燁중장이 총참모장으로 拔擢되어 陸本으로 轉出하고, 참모차장인 劉



<제2군단 主役 ; 右로부터 제3사단장 白南權 준장, 제2군단장 劉載興 중장, 美제5포병단장 Mayo 대령, 수도사단장 李龍文 준장, 제6사단장 白仁燁 준장>

戰興 중장이 새로이 군단의 지휘권을 인수한 바 있다.

이와같이 하여 제26, 제1기갑의 兩 연대로서 -Missouri 線을 새로이 整備한 사단은 주저 함선과 경제전지의 공사를 실시하여 진지강화에 힘썼는데, 이때인 27일부터 님새동안이나 豪雨가 이 中部戰線에 집중되어, 사단 後方의 橫軸路인 金城川이 氾濫하여 機動路가 流失되고 陣地의 掩體壕와 交通壕가 水沈하는 등 이로 말미암은 災害가 자못 막심하였으니, 8월 1일에 사단장이 예하 각급부대에 示達하되, 『현진지는 지난해 冷凍季에 急造된 것을 그동안에 改修補強한 것이 지나지 않으니만큼 雨季對備가 疎忽하였다. 主抵抗線 진지는 散兵壕에서 個人火器壕에 이르는 각종 방어시설 가운데 50~70%의 浸水被害를 입어, 이의 時急한 改修를 要한다』라고 指摘하였을 정도였다.

이리하여 天候가 맑아지는 8월 초순부터 主抵抗線연대는 당면의 진지보강에, 공병대대와 예비연대는 주로급로 復舊作業에 全力을 다하게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4일에 右一線 제26연대(장, 鄭震대령)에서 그 正面의 敵인 中共 제35사단의 제105연대 소속의 捕虜 1명을 획득한 바, 이를 審問한 사단 G-2 李在順 소령이 未久에 首都高地에 敵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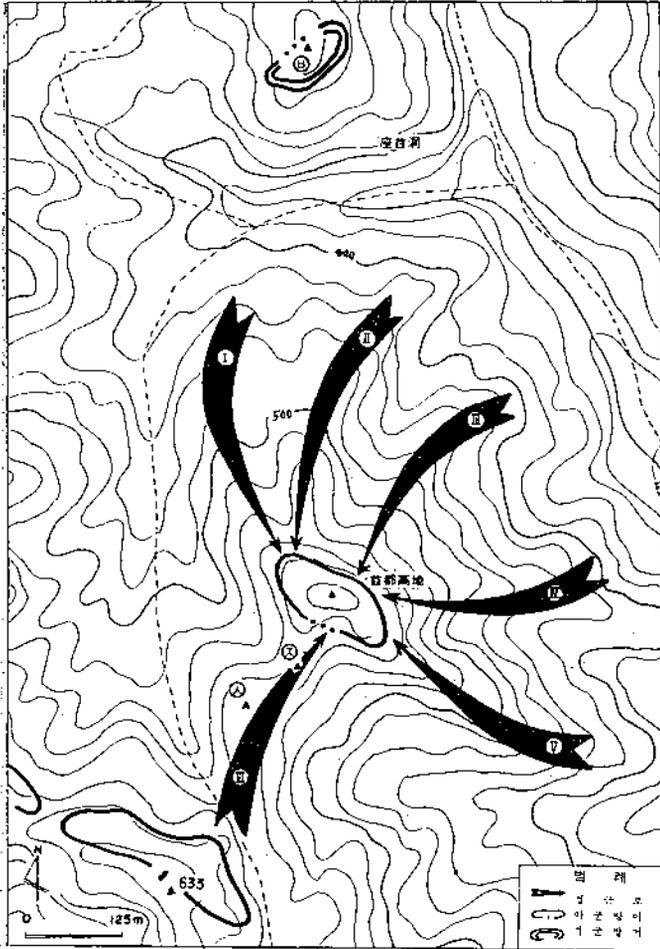
이에 제26연대는 진지공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首都고지에서의 決戰태세를 가다듬게 되었다. 이때 연대는 7월 15일에 北漢江 東岸의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를 現地에서 연대 수색중대인 제53수색중대로 개편하여 그대로 主抵抗線의 일부를 담당케 하는 가운데(7.11부 國本一般命令 제77호에 의거, 7.15. 00.01부로 제1연대의 특공중대는 제21수색중대로, 제1기갑연대의 수색중대는 제20수색중대로 각각 개편) 7월의 陣容을 그대로 유지한 까닭에 爭奪의 초점이 될 首都고지는 主抵抗線의 中央인 제3대대 제11중대(장, 金元俊대위)가 계속 맡게 되었는데, 이 기간인 8월 1일부터 각 대대장의 교체가 있었다.

즉, 제1대대장 池龍泰중령은 副대대장인 金文植대위에게,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은 대대 S-3인 韓敏錫 대위에게 그리고 제3대대장 禹敬鵬중령은 제1대대의 S-3인 田宗郁대위에게 각각 대대 지휘권을 인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首都고지에는 狀況圖에서 모든 바와 같이, 頂上을 圓形으로 圍繞하여 西北쪽의 I과 北쪽의 II 및 東北쪽의 III과 東쪽의 IV, 그리고 東南쪽의 V와 西南쪽의 VI의 6개처의 접근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我軍의 접근로는 △663에서 東北쪽으로 連하는 稜線의 VI과 高地 東南쪽의 V의 둘 뿐이고, 나머지 4개처는 敵이 공격로로서 사용될 곳이였다.

따라서 敵이 공격함에 있어서는 座首洞 계곡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접근로의 선택이 자유로워 進退를 自在로 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단이 접근로 V를 利用함에는 陣前의 지뢰지대를 통과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랐으므로 실제로 VI의 單一路만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는데, 이 접근로 VI은 △663에서 高地까지 200m의

◇ 상황도 제16호 수도고지 접근로



員을 고지에 추진한 다음, 대대의 모든 지원火力이 그 重點을 여기로 집중하는 가운데 이의 固守를 다짐케 하였다.

(나) 작전실시

8월 5일: 이날 드디어 그간 月餘의 小康을 깨고, 首都고지에서의 激戰의 序幕이 올랐다
 1. 20.00부터 敵의 공격준비사격인 듯 한 砲兵의 일제사격이 땅거미가 지는 座首洞계곡을 휘흔들기 시작하였는데, 122mm曲射砲로부터 60mm박격포에 이르기까지 各種 포탄이 首都고지를 비롯한 제3대대의 主抵抗線 일대에 雨注하였다.

이에, 제11중대(장, 金元俊 대위)가 主障地를 점령중인 △663에 OP를 둔 대대장 田宗郁대위는 이와같은 敵의 포격이 障前에 埋設한 Napalm彈과 地雷를 폭과함으로써 攻擊路

交通壕 하나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左右 斜面은 장애물 지대인 까닭에 機動空間이 狹窄하였다.

제11중대는 제1소대로서 首都고지의 경계진지를 확보케 하고 主力인 제2, 제3 兩소대를 △663의 左右에 配備하여 主抵抗線을 담당케 하였는데, 이 首都高地로의 접근로의 제한과 아울러 高地 자체가 岩層으로 형성되어 있어 진지편성이 容易치 않았던 까닭으로, 낮에는 1개 분대만을 그곳에 두고 소대 主力은 主抵抗線인 △663 (중대 主障地) 진지에 收容하였다가 밤에는 다시 소대를 推進 배치하는 方式을 취하였다.

그러던 중, 중대는 5일 낮부터는 戰鬪이 급박하였다고 판단한 결과, 소대 全

를 개척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 必是 敵의 奇襲이 대대 左제1선 제11중대 정면의 首都고지로 指向할 것으로 예상하고, 同중대장으로 하여금 高地의 제1소대(장, 趙永衡소위)의 진지고수에 대한 決意를 다시 한번 가다듬도록 하였다.

20.30이 되자, 예상이 的中하여 대대의 左右一線에서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急報가 대대 OP에 달라 들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748(座首洞 東北쪽 1km)로부터 그 南斜面을 타고 접근한 듯한 1개소대 규모의 敵이 右제1선인 제9중대(장, 張崎根 대위)의 제1소대 경계조(△663 東南쪽 1.2km) 정면으로 그들 輕機 3정의 엄호아래 直衝중이며, 다른 1개소대 규모 敵은 座首洞 계곡을 건너 首都고지 北斜面에 나타나 이를 攻奪코자 도발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대는 지원화력의 集中과 포병의 제압사격으로써 敵이 미처 陣前에 불기 전인 21.40에 이를 모두 격퇴하였는데, 제9중대 정면의 敵은 △748 西南麓으로, 그리고 제11중대의 首都고지 정면의 敵은 座首洞계곡 깊숙히 遁入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는 대대 정면의 火力配備상황을 탐지기 위한 探索공격인 듯 하였는데, 대대가 이와같이 敵의 제1波를 물리치는 사이에 隱密하게 首都고지와 ㊸高地 사이의 계곡(△663—座首洞도로)으로 侵襲한 1개소대 규모의 敵이 21.10에 제6중대의 경계진지로서 그 제1소대(장, 崔碩俊소위)(一)가 확보중인 이 ㊸高地 東麓에 나타나, 同소대의 경계조(㊸高地 北쪽 100m)와의 地隙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한 까닭으로 여기서 또 同소대와의 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소대는 當該 중대의 60mm박격포와 小火器만으로써 이들을 막아내게 되었는데, 이는 首都고지의 略取에 主眼을 둔 그들 主力의 西側背를 엄호키 위하여 陽攻을 策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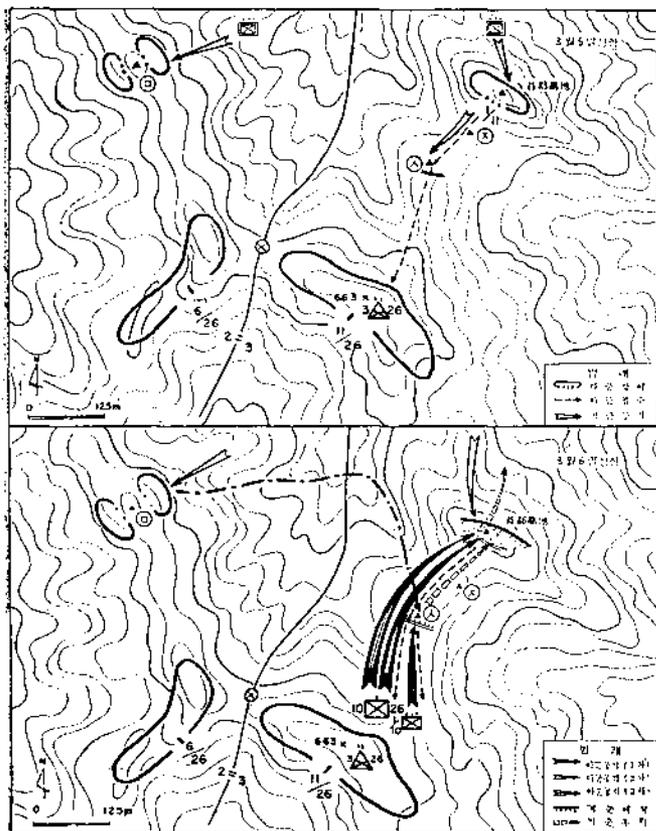
2. 이와같이 하여, 陣前에서 한 차례의 狂波를 물리친 제3대대는 首都고지 西쪽의 제2대대 제6중대 정면에서 交戰中인 산발적인 銃聲을 들으면서 敵의 제2波를 扼腕待機한 바, 23.30이 되니 首都고지 北麓(접근로 II)에 1개소대 규모의 敵이 두번째의 공격을 試圖하였다.

이와 동시에 敵의 포병이 고지 정상과 △663를 집중적으로 強打하였는데, 그 敵火의 熾盛함이란 熱湯의 洗禮와도 같아, 고지는 삼시간에 爆焰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내에는 亂飛하는 石塊가 참호속으로 쏟아져, 이를 때꾸게 된 까닭으로 여기의 제1소대(장, 趙永衡소위)가 더 이상 진지를 支撐치 못하고, 隨意철수로써 23.50에 가까스로 △663의 중대 主陣地에 收容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대는 戰死 1명과 負傷 10명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듯, 고지를 敵의 手中에 넘겨주게 된 대대는 곧 自隊의 全화력을 高地정상에 集注

◇ 상황도 제17호 8월 5일~6일 상황



하는 一方 역습준비에 들어 갔는데, 이러한 동안 敵은 고지를 손에 넣은 그 餘勢를 몰아 主抵抗線(△663)까지 넘어보게 되었으니 子正을 前後하여서는 敵이 △663—首都고지稜線(접근로W) 중간의 ㉠高地(표고 590m정도 : △663정상에서 北쪽 200m)까지 한발 더 나서서 그곳에 진지를 급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田宗郁 대위는 제11중대(장, 金元俊대위)로 하여금 제1소대의 잔여 병력을 수습하여 중대주력과 함께 △663를 굳게 지키도록하는 한편, △663 南斜面의 ㉡에 예비로 控置 중인 제10중대(장, 李用鎭대위)에 命令하기를, 『明 6일 01.00를 期하여 首都고지를 逆襲하여, 이를 탈취하라』고 하였다.

8월 6일 : 이날도 首都고지에서의 爭奪戰이 반복되었다.

사단장 李龍文 준장은 판단하기를, 同고지가 主陣地(Missouri)에 너무 近接한 탓으로, 여기에 대한 포병화력의 집중발휘가 곤란하므로 이를 확보키 위하여서는 白兵力을 증강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12.00에 예비인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에 긴급명령(作命제 162호 修正 3호)을 하달하되, 『1개대대를 수 6일 18.00까지 龍湖洞 東北쪽 1.5km(㉢ 西쪽 계곡)로 추진 완료하라. 同대대는 同日時부로 제26연대에 배속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同연대의 제2대대(장, 金榮吉 소령)가 外城洞里(廣大谷 東南쪽 2.2km)에서 부대 정비중에 급히 ㉣ 西쪽의 집결지로 달려가 제26연대를 赴援케 되었는데, 15.00에는 그간 사단을 지원중이던 제52전차중대 제2소대가 軍단作指 제18호에 따라 原隊로 복귀되기도 하였다.

1. 전날 子正에 대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제10중대(장, 李用鎭 대위)는 중대 OP부근의 제1소대를 먼저 뽑아 △663의 제11중대 제2소대의 진지로 추진한 다음, 이로 하여금 01.10을 期하여 首都고지를 目標로 역습케 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중대가 新銳의 猛士로써 이 敵을 制壓하려 하자, 左側의 제6중대 제1소대 正面을 陽攻중이던 敵의 一團이 01.15에 홀연히 兵仗을 거두어 불러가고 말았는데, 이들은 首都고지의 敵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02.05에 △663—首都고지 능선의 ㉠까지 短兵 급히 나아간 제10중대의 제1소대(장, 黃哲中 소위)는 제6중대 정면으로부터 여기로 合流된 듯 한 소대규모의 敵과 격돌케 되었는바, 例의 熾盛한 砲火와 그것에 依支한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銳氣를 잃게 되어 △663의 主陣地로 일단 물러났다가, 東天이 밝아지는 △05.20에 대대의 全 火力을 집중 발취케 하여 그 敵의 덜미를 누른 然後에 공격을 再開하였다.

이리하여 △663에서 다시 한번 躍出한 소대는 대대의 81mm와 중대의 60mm박격포의 엄호아래 ㉡과 ㉢(㉢ 東北쪽 50m)에 二重으로 境界線을 편 敵陣의 縱深을 차례로 돌파하여, 06.00에 목표 首都고지를 기어코 手中에 넣고 말았다.

그러나 소대가 고지에서 미처 전지를 재편하기도 전에, 敵이 이에 대비하고 기다린 듯 煙幕彈을 집중하면서 고지를 온통 黑煙一色으로 만들어 그곳 소대의 視界를 遮障한 다음 1개 중대규모로 역습을 감행한 까닭에 다시금 劍閃이 어지러운 白兵戰을 벌이게 되었는바 소대가 衆寡不敵으로 이를 支撐할 수 없어 06.30에 △663의 主陣地로 隨意撤收하였다가 당초의 소대진지(㉣부근)로 集結하여 兵력을 수습케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 敵勢로 보아, 臨機應變의인 역습의 試圖만으로서서는 實効를 거두기 어렵울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組織的인 역습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즉, 낮 동안 지원포병으로 하여금 △748일대의 敵陣에 대한 破壞사격을 실시케 하는 한편 航空지원아래 155mm砲로써 對砲兵戰을 併行하여 敵의 砲火를 潛伏케 하면서 공격개계를 준비하되, 대대의 75mm무반동총 4정과 Cal 50 重기관총 모두를 △663의 OP부근으로 集結시켜 首都고지 공격을 집중 지원케 하는 가운데, 제10중대 全力으로써 14.00를 期하여 역습을 再起토록 한 것이다.

2. 14.00, 제10중대장 李用鎭대위는 全소대를 集근로 Ⅳ 정면의 제11중대 제2소대 진지로 추진한 다음, 이 陣地線을 LD로 삼아 3개소대를 縱隊形으로 散開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의 지원重火器의 엄호아래 敵의 砲火속을 헤치고 步一步로 전진하여 목표 高地의 敵前 50m인 ㉤高地에 肉迫하니, 이로부터는 수류탄과 자동화기가 交叉되는 鐵火爆焰의 장벽에 부딪쳐 더 이상 접근이 수월치 않았는데, 여기에 또한 敵의 포병이 그 猛威를 떨친 까닭으로 通信網마저 두절되었다. 따라서 이 공격을 지원하는 火器중대(장, 高錫龍 대위)에서는 중대장이 TS-10으로도 각 소대를 장악할 수 없어 기관총 1개 소대만을 직접 지휘하였는데, 실제로 공격중대를 유효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火器는 이것뿐일 정도였다.

이렇듯 중대가 敵前에서 膠着되기를 2시간에 戰況에는 전진이 없는 채 死傷者의 續出만

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田宗郁대위는 이 危局을 타개코자, △663의 대대 OP를 떠나 중대진지로 挺進하여 중대의 奮迅突破를 호령하면서 陣頭에 나섰다. 그리하여 대대장이 다리에 부상을 입는바 되었으나 介意치 않고 계속 중대의 전격을 독려하니, 제3소대장 鄭鎭和소위가 16.00에 소대의 金永先, 崔德萬 兩 이등중사와 金泰淳하사 등으로써 돌격조를 편성한 다음, 소대장이 이들의 先頭에서 양손에 수류탄을 거머쥐고 阿修羅와 같이 敵陣으로 突進하면서 눈 앞의 敵兵 10여명을 그 일발로써 爆殺시켰다.

이와같이 하여, 敵陣의 제1선 一角이 攪亂되는 틈을 타서, 뒤이어 3명의 돌격조가 각각의 수류탄의 閃光으로써 돌격로를 挺身開拓하였는데 이에 소중대원이 이 血路를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銃劍으로 抗拒하는 陣内の 敵을 屠戮하고, 마침내 고지를 다시 手中에 넣게 되었으니, 이때가 16.20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OP로 돌아와, 연대장에게 『고지 탈환 끝』을 보고하고, 지원공병으로 하여금 고지에 장애물을 설치토록 조치하였는데, 이때 이를 妨害라도 하려는 듯 敵의 포탄이 首都고지와 △663에 집중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首都고지에서 陣地工事를 하기는 커녕, 그곳 제10중대가 진지를 재편하는 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어 또 한번 불벼락을 맞는 바 되었는데, 여기에 雪上加霜格으로 △663의 대대 OP에 敵포탄 일발이 直擊하여, 대대장 田宗郁대위가 부상을 입고 그와 같이 있던 火器중대장 高錫龍 대위를 비롯하여 대대 情報官과 作戰官이 모두 戰死하게 됨으로써 창출간에 대대의 지휘체제가 痲痺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 鄭 震 대령은 연대 S-3인 金成壽 소령을 후임 대대장으로 指名하고, 그로 하여금 급히 參謀陣을 구성케하여 △663으로 달려가 대대의 戰列을 수습토록 하는 한편, 首都고지의 제10중대(장, 李用鎭 대위)도 당초의 대대 예비진지(⊙부근)로 뽑아 내리게 하고, 대신 제1대대의 제1중대(장, 全英煥 대위)를 연대장이 직접지휘하여 고지에 充用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밤, 대대는 火器중대의 수색장교인 李德和 중위가 제12중대장을 代理하는 가운데 제2선(△663)으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종일의 激戰결과를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32명	戰 死	27(4/23)명
殺傷推定	162명	負 傷	53(3/50)명
鹵 獲			
무반동총	3정		
기관총	2정		
신호탄발사기	2정		

3. 한편, 제10중대가 首都고지의 敵과 一進一止의 격전을 벌이던 15.00에 연대장은 이 중대의 前線投入으로 말미암아 제3대대의 예비가 없게 되었음을 勘考한 결과, 同 대대장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비교적 接敵이 가버렸던 右一線의 제1대대(장, 金文植 대위) 예비인 제1중대를 통합지휘케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이 중대를 신속성 있게 운용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대대장의 돌연한 負傷으로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의 戰列이 수습되는 동안 이 중대를 掌握키로 決心하고, 17.40에 집결지(㉠부근)에서 △663로 추진한 다음 首都고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는데, 이에 따라 同 중대는 18.40에 △663에서 다시 機動하여 20.00에 제10중대로부터 고지를 인수하였다.

이러는 동안, 사단 공병대대의 器材官인 趙炳叟 중위가 지휘하는 공병제2중대의 공격소대 1개분대는, 雨注하는 敵포화속에서 고지 陣前에 지뢰 140발을 埋設하고 장애물을 새로이 가설하여, 新參인 제1중대의 防備를 도왔다.

이윽고 밤이 깊어 子正이 가까운 23.55에 △748에서 發射한 듯 한 敵의 綠色 신호탄 2발이 사이를 두고 두차례에 걸쳐 夜空을 누비더니, 정확하게 그 2분뒤에 다시 3발이 明滅하였는데, 이것이 信號인 양 △748 西南麓에서 重기관총 2정이 首都고지 東北側의 山腹을 향하여 불을 쬐는 것과 동시에 砲火가 頂上에 炸裂하기 시작하였다.

8월 7일: 이날도 또 한 차례 高地의 主人이 뒤바뀌는 격전이 있었으나, 끝내는 이것이 사단의 손에 돌아 오고 말았다.

1. 전날 子正, 마침내 高地 정면의 座首洞계곡에 1개 중대규모의 敵이 夜叉와 같은 모습을 들어내어 고지를 攻奪하려 하였는데, 그 뒤에는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敵의 一團이 接踵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고지에 또 한 줄기의 血雨가 휘몰아치게 되었으니, 여기의 제1중대(장, 全英煥 대위)가 이들 敵과 3시간에 걸쳐 寸尺의 땅을 다투게 된 것이다.

이에 중대는 접근로 I과 III의 兩面으로 들이닥친 대대규모의 敵을 맞이하여 渾身の 力盡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敵勢가 증강되면서 如蛾赴火의 형세로 死生을 결단코자 發惡한 까닭으로 진지일각이 돌파되고 급기야는 白兵의 亂鬪을 보게 되었는데, 중대는 이 渦中에서 70여명의 死傷者를 내게 되는데다가 중대장 全英煥대위마저 戰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끝내 고지를 支撐치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高地는 다시 敵手에 넘어가고, 중대의 잔여병력은 03.30에 △663의 主陣地로 철수하였다가 그 南斜面의 예비진지(㉡부근)로 집결케 되었다.

그런데 首都고지에 대한 敵의 공격이 시작된 것과 거의 같은 時刻인 이날 00.20에 1개 소대규모의 敵이 △621로부터 제6중대 제1소대의 경계조 정면에 나타나 이를 奪取코자 하므로 同 경계조가 소속중대의 火力지원을 얻어 30분만에 격퇴한 바 있는데, 제10중대가 首都고지에서 물러 난 03.35에는 數곳을 알 수 없는 敵의 일단이 同 중대를 尾騾한 듯

제3대대와 제2대대의 地境線인 首都고지—㉠高地 사이의 계곡으로 侵襲하여 2시간 가까이 이나 집요하게 이 間隙을 돌파코자 試圖한 끝에 主抵抗線의 70m 앞까지 육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3, 제2 兩 대대의 火力集中으로 05.40에 이를 격퇴하였는데, 이들 또한 首都고지를 占有중인 그들 主力과 合流한 것으로 보였다.

2. 한편, 이와같이 首都고지가 다시 한번 敵手에 넘어가자, 연대장 鄭 震 대령은 전 날 18.00부로 연대에 배속되어 ㉡ 西쪽계곡에 집결 대기중인 제1연대의 제2대대(장, 金榮吉 소령)를 逆襲에 起用키로 결심하고, 04.00에 同 대대에 要旨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 대대는 수 7일 05.00를 期하여 목표 首都고지를 역습하여 이를 탈환하라.

各 中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라.

㉢ 1개중대는 △663에서 稜線(접근로Ⅳ)을 따라 목표 南쪽을 直衝한다.

㉣ 1개중대는 목표고지의 西쪽계곡으로 迂回하여 敵의 西北背(접근로Ⅰ)를 협격한다.

㉤ 1개중대는 △663 南斜面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後命을 기다린다.

㉡ 대대 OP는 연대의 제3대대 OP(△663)에 위치하라.』

그런데 이와같이 연대장이 同 대대의 임무를 細分하여 부여한 것은 이 대대가 배속부대인 만큼 敵情과 地形에 익숙치 못한 까닭에 이를 직접지휘코자 한 때문일 것이다.

如何든, 제1연대의 제2대대는 이 명령에 따라 龍湖洞 北쪽의 집결지에서 戰線參加의 체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04.45에 대대 OP를 △663(당초 제26연대 제3대대 OP)로 추진하고, 제5중대(장, 金元贊 대위)를 ㉡의 예비진지에 控置하는 가운데 제6중대를 首都고지 정면에, 제7중대를 그 西쪽의 계곡정면에 각각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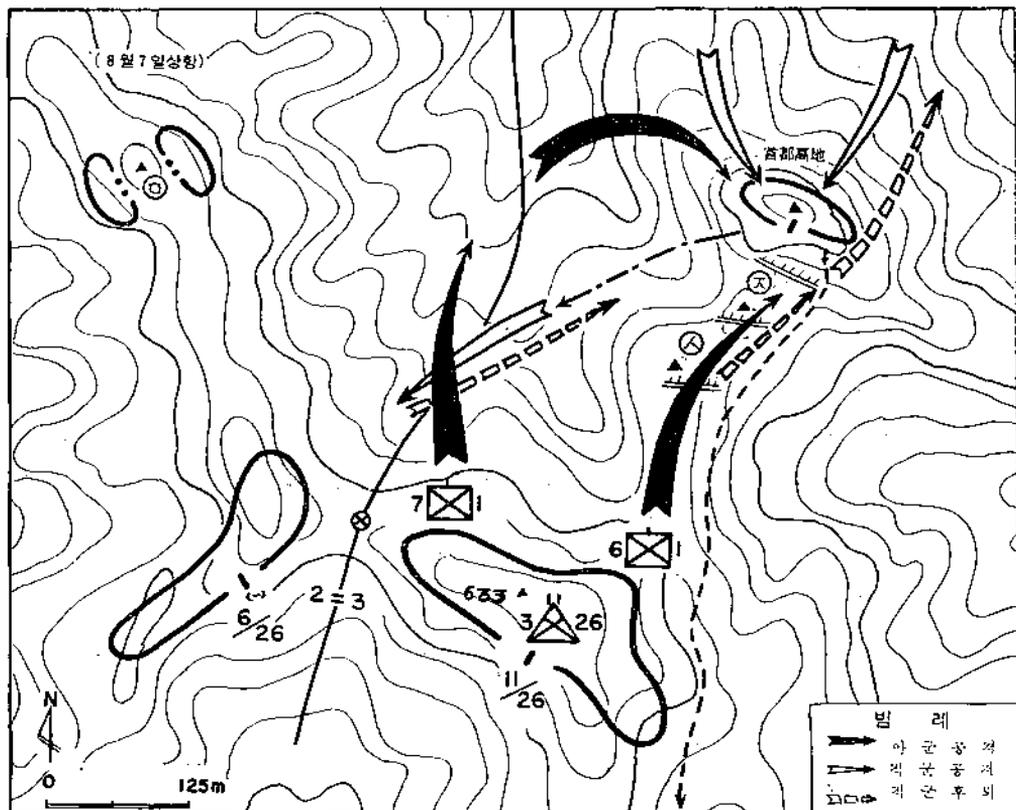
이리하여 兩 중대가 현 主陣地의 散兵線을 LD로 삼아 목표 攻略에 함께 나서기로 하였으나, 지원포병과의 火力지원 협조관계로 공격준비가 遲延되어, 예정시간을 훨씬 지난 05.40에야 우선 제6중대만이 먼저 공격을 시작케 되었다.

대대의 右一線이자 공격제1선이 된 제6중대(장, 李鍾七 중위)는 東天一邊紅을 바라보면서 △663에서 北으로 뻗어내린 稜線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한 결과, 07.00에 敵의 경계 제1선진지인 ㉢高地에서의 가벼운 저항을 一蹴하고, 이어 07.30에 목표의 關門인 ㉣高地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부터는 敵의 저항이 한층 드세어 험사리 이를 넘어 설 수가 없었다.

이에, 대대장 金永吉 소령은 그간에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LD에 대기중인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로 하여금 급히 그 정면의 계곡으로 질러 나아가, 高地의 敵 西北背를 협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7중대는 제6중대가 ㉣高地에서 그 당면의 敵과 鐵火를 주고 받는 사이에 敵의 접근로였던 계곡으로 진전하여 西北쪽으로 迂回한 다음, 접근로Ⅰ로 들어섰다. 이

◇ 상황도 제18호 8월 7일 상황



와같이 하여 중대가 敵의 背後를 강타하니, 敵은 腹背夾擊을 받아 退路를 차단당한데다가 그들에 대한 增援수단마저 빼앗기는 바 되어, 進退兩難의 窮地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이 好機를 看破한 중대가 突擊의 威勢를 높이어, 南쪽 정면의 제6중대와 더불어 掎角之勢로 白兵을 휘몰아침으로써 단번에 高地頂上을 席捲하고 말았는데, 이때가 08.00 正刻이었다.

중대는 이에 곧 敵의 역습에 대비하여 고지의 진지를 재편하였는데, 여기서 戰場을 整理한 결과 戰死 6명과 부상 28(2/26)명의 손실을 입고, 射殺 57명의 戰果를 거두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敵이 대대와의 이 一戰에서만도 모두 300여명이 殺傷되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3. 이날 낮 동안은 美空軍의 空中엄호를 받았기 때문인지, 敵이 여기에 대한 별다른 挑發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대는 이 틈을 타서, 지원포병의 간단 없는 對포병전으로써 敵의 포화를 屏息케 하는 가운데 제6, 제7 兩 중대로 하여금 고지의 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토록 하였다.

즉, 제7중대로써 계속 고지정상의 진지를 整備케 하고, 제6중대를 高地부근에서 제2

선전지를 확보케 하여 그 縱深을 튼튼히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지정상의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는 분대규모의 1개 경계조를 敵의 예상 접근로 I의 北端에 배치하여 이로 하여금 座首洞쪽으로부터의 侵襲을 警報케 하고, 다른 1개분대의 경계조를 高地 東南쪽 稜線(접근로 V)의 下端에서 東側背를 경계토록 하였는데, 이때 중대主力은 중대와 같은 獨立高地개념에 의한 圓形의 四周障地 편성을 止揚하고, 敵의 공격방향(접근로 I. II. III)에 병력을 집중배치하는 一線 방어진지를 새로이 構築하되, 그 後據는 제2선인 제6중대에 期待키로 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제7중대의 방어편성의 改編에 따라, 제6중대(장, 李鍾七 중위)는 1개소대로써 ㉠에 縱深진지를 확보케 하여 △663와의 通路를 保障토록 하는 同時에 1개소대로써 ㉡의 西麓에, 다른 1개소대로써 그 東麓에 각각 진지를 점령케 함으로써, 제7중대의 後據로서 그 側後方으로의 공격위험을 防止하는데 注力키로 하였다.

兩 중대의 이러한 障地再編작업은 20.00가 되어서야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 21.55이 되자 △663와 首都고지 일대에 300여발의 敵의 포탄이 집중되더니, 이어 綠色신호탄 2발이 △748上空에 치솟아 그들의 企圖를 뚫내었다.

그리하여 22.30에 座首洞계곡에 나타난 2개중대 규모의 敵이 접근로 I, II와 III의 세갈래로 衝鋒을 나누어 8부 稜線까지 육박함으로써 高地의 제7중대와 수류탄을 주고 받게 되었으며, 잠시 뒤인 22.50에는 제6중대의 ㉢高地 西北麓의 경계소대 정면에도 1개소대규모의 敵이 侵襲하여 여기에서도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으나, 제6중대가 ㉣에 대비중인 1개소대를 首都고지 정상으로 뽑아 올려 이의 방어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秋毫의 動搖도 없이 각각의 障地를 엄중히 한 까닭으로, 그 이튿날인 8일 04.00에 이들 敵이 모두 無爲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다.

(3) 제3차戰(9. 6~9. 18)—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의 ㉤高地 防禦戰

(가) 작전계획

前項에서와 같이, 7~8월에 걸쳐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에서 각각 한 차례씩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있던 뒤로, 8월 중순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交綏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彼我 雙方은 각각 진지를 보강하면서 戰力備蓄에 拍車를 加하게 되었는데, 이때 포로의 陳述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當面의 中共 제35사단(장, 李德生)은 그들의 中央一線으로서 指形능선에서 防禦戰을 편 바 있는 제105연대를 8월 초순에 제12군 예비인 제34사단(장, 尤太忠)의 제101연대와 交代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면, 同 제105연대는 7월 초순에 指形능선에서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은 損失이 不貲하였다는 것과, 또 그들의 부대교대시기로서 8월의 首都고지 공격기간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결하여 당시 그들 사단이 3개 연대를 모두 一線配置함으로써 예비가 없었던 까닭에 一線 예비에서 1개 연대(제101연대)를 배속케 되었으리라는 점도 아울러 推斷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105연대를 昌道里부근에 예비로 뽑아 돌리고, 사단戰線에는 配屬 제101연대와 제104연대로써 我軍 26연대 및 제1기갑연대와 對陣키로 한 바, (제103연대는 계속 제6사단의 右一線正面을 담당) 이들 兩연대는 모두 제3대대를 예비로, 제1, 제2의 2개 대대를 前線부대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때 그들 사단(제35사단) CP는 계속 金鶴洞에 위치하였고 제104연대는 △534(座首洞 北쪽 4.5km)의 北斜面 계곡에, 그리고 제101연대는 龍鶴山(△534 西쪽 2.5km)에 각각 그 지휘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美 제8군의 G-2에서 中共軍 戰術의 일반적인 개념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 『① 敵(中共)은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과 동시에 목표(我軍진지)에 突入하는 공격方式을 취한다. — 2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는 가운데, 數分間歇(5분정도) 포격을 중지케 하여, 이 순간에 보병이 목표로 약진토록 한다.
- ② 我軍兵力의 消耗과 軍事施設의 破壞 및 戰鬪物資의 損失을 강요하는때에 主眼을 둔다. — 我軍의 포로獲得이나 文書函獲등의 정보수집에는 輕重하지 않는다.
- ③ 敵의 戰鬪序列의 폭로를 방지하는때에 努力한다. — 敵의 負傷者나 戰死者는 철저히 後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敵이 政略的으로 現戰線의 固定化를 既定사실로 받아 드린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단이 얻은 정보로서도 이를 뒷받침하였는 바, — 뒤에 포로의 진술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 敵 제104연대장이 9월 초순에 중대장급 이상 幹部회의 席上에서 強調하기를 『今後로 我軍(中共)은 敵(UN軍)의 병력과 보급품을 소모케 함으로써, 敵의 士氣를 저하시킨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101연대에서는 8월초순부터 一發必中の 精確한 照準사격을 뜻하는 이른바 「冷槍(銃)冷砲운동」을 전개하여 彈藥절약의 圖謀하였는데, 8월末 소대장급 간부회의에서 『後方진지의 築城工事を 9월중순 以前에 完료하여 敵(UN軍)의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에 의한 損失을 減少케 하라』는 指示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敵의 이같은 움직임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은 自身の 防護태세를 충분히 갖춘 다음, 我軍에 대한 兵力, 物資 兩面의 出血을 강요키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같은 敵情下에서 對陣을 계속케 된 首都사단은 如何한 寸土라도 固守한다는 방어概念을 堅持하였으니,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의 兩 導火點을 안고 있는 左右 一線연대의 이에 대한 決意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하다.

먼저 右一線인 제26연대에서는 8월중순에 중대의 3개대대 一線전개의 진용을 바꾸었다. 즉, 8월 초순의 首都고지전투가 끝나는 즉시로,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당초 同연대가 3개

대대를 前線에 모두 내세운 까닭에 이 戰鬪기간중 自隊에서 逆襲에 可用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을 확보치 못하였다는 점을 勸考한 결과, 地形的으로 연대정면에서는 쟁탈의 초점이 이 首都고지에 局限될 公算이 짙은만큼 여기에 예비대를 집중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8월 12일에 作命 제162호 修正 作指 제4호로써 同연대에 배속중인 제1연대의 제2대대 병력가운데 首都고지 頂上을 확보중인 제7중대(장, 張得奎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제5, 제6 兩중대를 原隊로 복귀토록 조치하는 일방, 이 제7중대를 활용하여 제26연대의 2개대대만을 一線配置토록 하고, 1개대대를 예비로 확보토록하는 전열개편을 단행케 한 것이다.

이에 연대는 제1연대의 제7중대로써 계속 首都고지를 담당케 하는 가운데, 中央의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를 뽑아 一 제12중대를△663에 남겨 놓은 채 一龍湖洞에 예비로 돌리고 線同대대의 제11중대와 제9중대의 전투지경선을 左右 一線대대의 지경선으로 삼아 左一線 제2대대의 방어정면을 東으로 擴開하여 이로 하여금 △663와 首都고지를 담당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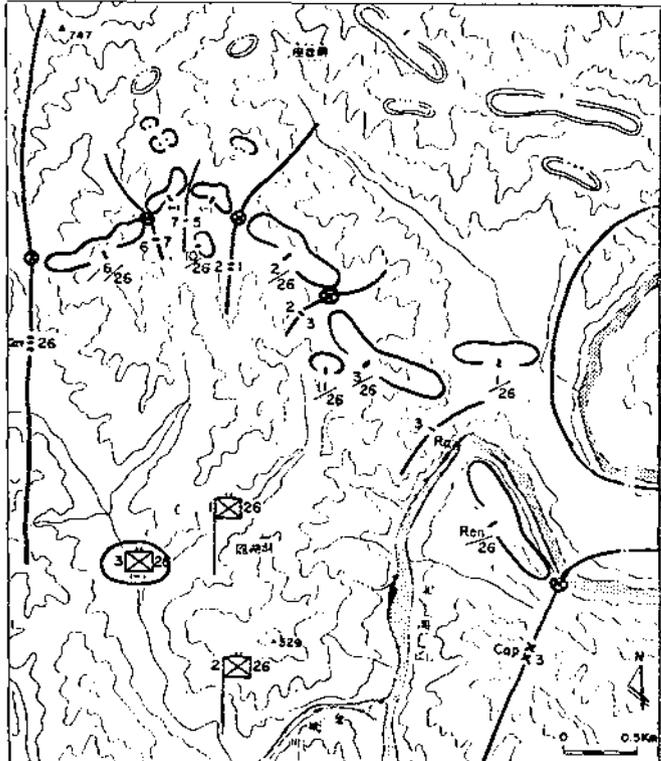
따라서 右一線 제1대대(장, 金文植대위)는 제53수색중대(장, 曹漢吉대위)가 계속 北漢江 東岸의 진지를 맡기로 하는 가운데, 江 西쪽의 issouri線에 제3중대를 右 제1선, 제2중대담당토록을 左제1선으로 배치하고, 제1중대로써 △277의 경계진지를 하였는데, 이때 제3대대로부터 제11중대를 배속받아 이를 예비진지 ㉠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 상황도 제19호 제26연대 부대배치(8월말 현재)

그리고 左一線 제2대대(장, 韓敏錫대위)는 제5중대로써 새로이 담당케 된 △663의 右제1선을 맡게 하고(首都고지는 配屬中인 제1연대 제7중대가 계속 확보), 제7중대로써 中央제1선, 그리고 제6중대로써 左제1선의 책임을 다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前線에서 小康이 계속됨에 따라, 사단장은 8월 30일 12.00부 作指 제75호로써 제1연대의 제7중대까지 9월 1일 10.00부로 배속을 해제하여 小城洞으로의 징결과 동시 原隊복귀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연대는 △663를 담당중인 제5중대에 首都고지를 아울



러 확보토록 하고, 예비인 제3대대에서 제10중대를 뽑아 △663 南斜面의 예비진지 ㉔으로 추진하여 이를 제2대대에 배속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主抵抗線의 △663의 縱深을 강화토록 함과 同時에 首都고지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5중대(장, 安德榮대위)는 사용병력의 제한을 감안하여 △663 主陣地의 제1소대를 뽑아 首都고지에서의 경계소대로 삼아 進退와 政防의 신축성을 부여키로 하였는 바, 이 首都고지의 방어편성과 더불어 연대장 手裡에 예비가 1개중대(제9중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본다면, 결과적으로 8월 以前의 陣容으로 還元된 셈이 되고 만 것인데, 8월 25일에 대대장 韓敏錫대위가 연대 S-3로 轉任되고 사단 高級副官 李善浩소령이 새로이 대대장으로 任命되었다.

한편, 사단 左一線에서는 제1연대가 7월의 攻堅一戰이 無爲로 끝난 뒤, 7월 25일 24.00를 期하여 예비인 제1기갑연대에 전지를 인계하고 예비로 轉換되었음은 이미 前項에서 말한 바 있거니와 兩 연대의 교대상황을 보면 각각의 연대위치에는 變動이 없이, 제1연대 제1대대는 指形능선과 △575의 경계진지를 제1기갑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廣大谷에 집결하였으며, 同연대 제2대대는 主抵抗線의 右一線진지를 제1기갑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고 外城洞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鞞室里 北쪽의 예비진지를 제1기갑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사단 예비선인 Wyoming線 진지공사에 從事케 되었는데 이때 主抵抗 左一線 일부를 담당하였던 제21수색중대(前 연대 특공중대)는 同진지를 제1기갑연대의 제20수색중대에 인계하고 연대 CP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이 前線에 나서게 된 제1기갑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에서 제2중대를 뽑아 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에 배속시켜 이를 同대대의 예비로 활용케 하였으며, 左一線 제2대대에 수색중대를 배속하고, 이로써 主抵抗線을 계속 감당케 하였다.

따라서 제3대대(장, 朴明景소령)는 제9중대를 右로, 제10중대를 中央으로, 제11중대를 左로 Missouri線에 배치하고, 배속 제2중대를 제11중대의 主陣地인 △612(△690 東南쪽 800m)南斜面에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이때 대대 OP는 △612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朴翊均중령)는 대대 OP를 수색중대 진지인 無名高地 ㉕(표고 710m정도, △690 西南쪽 1km)에 두고, 제5중대로써 指形능선을, 제6중대로써 △575를, 그리고 제7중대로써 指形능선과 △575와의 사이의 鞍部에 배치하였다. 이때 연대의 主戰場이 되는 문제의 指形능선을 담당한 제5중대(장, 權廣玉대위)는 제1, 제2 兩소대를 중대 主陣地인 ㉕-①高地에 縱深배치하고, 제3소대로써 경계소대로 삼아 ㉕에 경계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輕機 1개반과 중대의 60mm박격포 2문을 증강하였다. 또한 제7중대(장, 李在根대위)는 제5중대의 左側(西北麓)에서 2개소대를 橫으로 벌려 主陣地를 편성하고, 1개소대로써 그 中央 前方 100m(㉕ 西北麓)에 경계진지를 확보케 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장, 李義守대위)는 △575를 核心으로 3개소대로써 逆三角形의 독립진지를 편



<제98포병대대 A포대를 방문한 李承晩대통령과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 및 제2군단장 劉載興중장>

성하였는데, 각 중대는 서로 一貫된 戰線을 連繫한 방어선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據點진지를 형성하였다.

이런 가운데, 8월 21일에 新編 제6야전포병단(장, 대리 尹承國중령)이 제63, 제65 兩포병대대와 醫務隊를 거느리고 廣大谷에 집결하는 즉시로 軍단에 배속되어 이도 美제5포병단에 작전배속케 되었는데, 同 제5포병단에서는 이로 하여금 현재 首都사단을 지원중인 제2포병단과 임무를 交代토록 한 바 있어, 제2, 제6 兩 포병단이 진지 및 임무교대를 준비케 되었으며, 9월 3일에는 그간 제1기갑연대를 지휘하였던 李龍대령이 步兵學校로 轉出되고[陸特(甲)제232호 追加 제2호, 8.20부], 그 뒤를 이어 제1훈련소의 제1연대장인 崔在鴻중령이 새로이 연대장으로 부임케 되었다.

(나) 작전실시

9월 6일 : 이날 드디어 月餘의 小康을 깨고,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의 兩 噴火口가 폭발하여 世人의 耳目을 집중케 하였다.

I. 首都高地의 狀況

가) 이날 18.00, 西天에 日落을 재촉하는 듯, △748 西南麓의 上空에 敵의 綠色신호탄 4발이 희미한 拋物線을 그리더니 그로부터 50분 뒤, 이윽고 해가 넘어가자 다시 綠色신호탄 5발이 몇 갈래로 絢爛한 火片을 碎散케 하였는데, 이것을 신호로 제26연대(장, 鄭震대령)의 全戰線에 敵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이에 △663 正面을 담당중인 제5중대장 安德榮대위는 必然코 敵의 공격이 首都고지로 指向될 것으로 판단하고, 高地의 제1소대장 洪昌源소위에게 『敵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고지를 固守하라』고 다짐하는 한편, 중대의 態勢를 재점검하였다.

10분뒤인 19.00에는 △748에서 赤色신호탄 1발이 다시 치솟았는데, 그 2분뒤에 赤色 1발과 白色 4발, 그리고 赤色 1발과 白色 2발의 順으로 敵의 신호탄이 연달아서 薄暮의 蒼空에 赤白의 縋를 놓았다.

그러자, 敵이 煙霧彈을 △663 頂上의 중대 OP와 제2대대(장, 李善浩소령) OP일대에 集注하여 高地를 은몽 黑煙으로 덮어, OP에서의 포병관측과 重火器의 射界을 遮障하는 가운데 증강된 1개중대규모의 中共軍이 -座首洞의 無名高地 ㉔으로부터 首都高地를 攻略코자하였는데, 접근로 Ⅲ으로 1개중대 규모, 접근로 Ⅱ로 1개 소대규모가 각각 稜線에 올라붙었으며, 그들 뒤에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後續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敵의 砲火에 高地와 主陣地간의 有線은 물론 全 사단의 사용幹線 22회선 가운데 20회선이 杜絶되었는데, 예비幹線 13회선과 補助幹線등을 합치면 都合 87회선이 敵의 포화에 四分五裂되었을 정도여서, 순식간에 通信手段을 잃게 되고 말았다. 여기에 땅거미가 짙어진때다가 高地에는 爆焰과 黃塵이 濛濛하여 肉眼觀測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이런 상황속에서 △663의 중대장과 대대장이 高地의 戰況과악에 焦心하는 동안, 여기의 제1소대는 孤立無援에서 창졸간에 左右로 틀어닥친 衆敵을 맞아 死力을 다한 나머지 19.20에 기어코 소대장 洪昌源소위 이하 全 소대원이 모두 戰死하게 됨으로써 高地를 敵手에 넘겨 주는 바 되고 말았다.

나) 이에 연대장 鄭震대령은 연대의 全 重火器를 제2대대진지(△663)에 投入함으로써 同대대의 火力을 증강하여 首都고지를 집중지원케 하는 한편, 제2대대(장, 李善浩소령)로 하여금 예비로 확보중인 제10중대(△663 南斜面의 ㉔)로써 즉각 역습을 감행하여 고지를 탈환토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龍湖洞에 控置중인 제9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조치하여 이를 제10중대진지로 急據 추진케 하였는데, 이때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에게 명령하기는, 『△663의 제2대대 OP에 대대 참모진과 함께 待機하라』고 하여, 상황에 따라 대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準備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하여 제2대대가 제10중대를 △663에 추진한 다음 목표 首都고지에 대한 逆습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을 奪取한 敵의 일부가 그 餘勢로써 접근로 Ⅳ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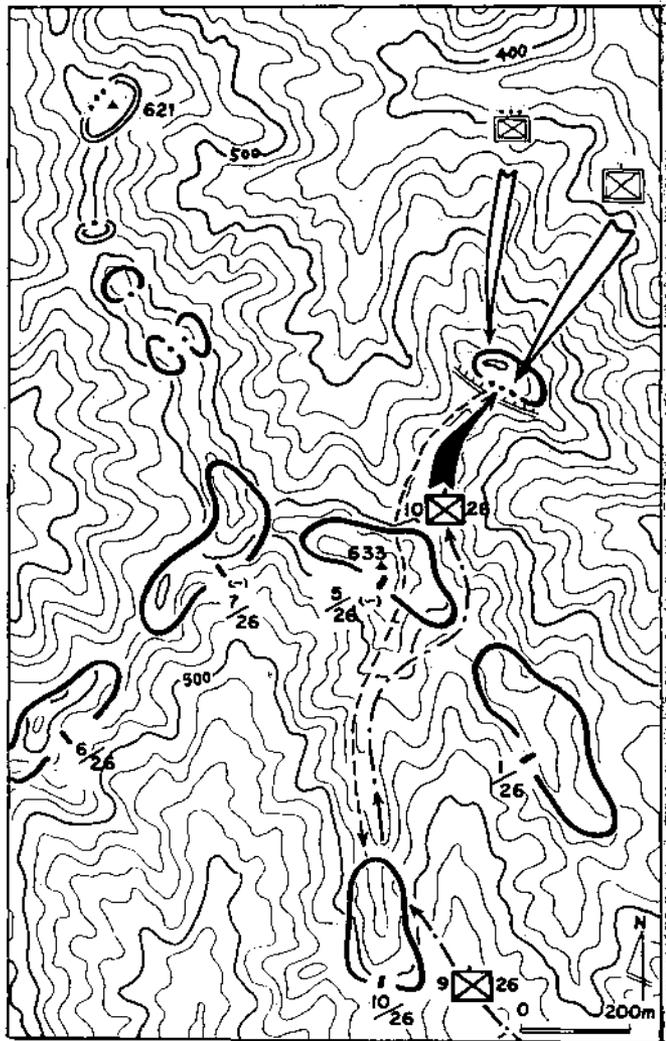
◇ 상황도 제20호 9월6일 수도고지상황

⊙과 ⊙고지를 휩쓸어 넘고 계속 △663로 밀어닥쳐 그곳 제5중대의 散兵線 가까이로 육박한 까닭에 △663의 陣前에서 수류탄을 교환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장 安億榮대위가 陣頭에 나서, 수류탄을 투척하여 敵의 제1파를 견제한 다음, 右側의 제2소대(장, 洪民杓소위)로 하여금 敵의 左側方을 찌르도록 하고, 左側의 제3소대(장, 李文天소위)를 직접지휘하여 敵의 정면에서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敵中으로 先制突擊을 감행하여, 銃劍을 따라 左衝右突로 敵의 銳鋒을 꺾어 물리치고 말았다.

따라서 중대의 奮戰으로 敵의 主抵抗線 돌파기도를 挫折케는 하였으나, 이러한 陣前격돌로 말미암아 제10중대의 역습이 늦어져, 20.50에야 △663에서 역습을 시작케 되었다.

이리하여 제10중대(장, 李用鎭대위)는 △663—首都고지 능선(접근로 W)을 따라 敵의 鐵火를 헤치면서 약진하여, 21.10에는 ⊙高地를 손에 넣고, 이어 20분뒤에 ⊙高地까지 席捲케 되었으나, 여기서부터는 豪雨와 같이 쏟아지는 敵의 포화와 西北쪽 △621에서 側方牽制를 노린 直射火力, 그리고 목표 首都고지의 敵의 發惡的인 저항에 부딪혀 제3소대장 鄭鎭和 소위가 부상을 입는 등, 死傷者만이 속출케 되었을 뿐, 더 이상의 進路開拓이 容易치 않았다. 이에 중대는 ⊙에서 隨意철수하여 △663 南斜面에 戰列을 수습한 다음, 23.30을 期하여 연대의 全 박격포와 任仁淳소위가 지휘하는 4.2"重박격포소대의 지원아래 再역습을 감행케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23.50에 다시 ⊙高地에 이르게 될 바, 여기서 또 한번 敵의 포화에 가로막혀 중대



장 李用鎭대위가 顔面에 破片傷을 입게 되었다.

이를 무릅쓰고 중대가 공격을 強行하여, 그 이튿날 7일 00.45에는 목표頂上의 敵前 10여m인 突擊線까지 육박하였으나 敵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突擊의 好機를 잡지 못한 까닭으로 끝내 頂上席捲의 뜻을 꾀지 못한 채, 02.30에 △663 南쪽의 제9중대 진지로 反轉하는 바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날 밤 두차례에 걸친 제2대대의 역습이 無爲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의 대대(제5중대 및 제10중대)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損失은 제5중대 제1소대장 洪昌源 소위를 포함한 戰死 42명에 負傷 69(3/66)명이었다.

다) 한편, 이날 제9중대(장, 張崎根대위)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19.35에 집결지인 龍湖洞에서 機動을 시작하여, 20.30에 △663 南斜面의 제10중대 진지를 인수하였는데, 이와 함께 대대장 金成壽소령은 대대 OP를 추진하여 20.40에 △663의 제2대대 OP에 併設하고, 대대의 前線참가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11중대(장, 金元俊대위)는 계속 제1대대의 예비로 ㉠부근에 控置중 이었으며, 연대의 다른 戰線에서는 별다른 敵의 움직임이 없었다.

2. 指形稜線의 狀況

가) 18.40에 首都고지 정면에서와 같이 各色의 신호탄이 제1기갑연대정면의 敵陣上 空에 點滅되더니, 例의 敵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敵의 포탄은 주로 指形능선의 제5중대(장, 權寶玉대위) 主陣地(㉡-㉠ 稜線)와 同중대 제3소대가 맡고 있는 경계진지(㉢高地) 그리고 제6중대(장, 李義守대위)의 △575일대에 집중되었다.

이리하여 陣地가 삼시간에 포연에 휩싸여 東西不辨의 境地에 이르렀는데, 이 前線의 各중대 指揮網의 有線이 모두 두절되어 대대장이 부대를 장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연대에서 急派된 通信架設兵으로써 有線을 복귀케 하면서 ㉢高地의 上을 注視한 바, 19.20 - 首都高地가 敵手中에 떨어진 그 時刻 - 에 그곳의 제5중대 제3소대(장, 安承鎬 소위) 정면의 ㉡고지로부터 1개중대규모의 敵이 ㉢高地로 直衝하였으며, 다른 1개소대규모는 ㉢의 西北쪽의 ㉣高地쪽으로 돌아 들었는데, 그들 敵은 간단없이 작열하는 그들의 砲擊下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희생되는 것을 무릅쓰고, ㉢ 頂上의 陣前으로 육박하였다. 이때 제5중대의 左側인 제7중대(장, 李在根대위)정면에서도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敵의 일단이 同중대의 경계소대전지를 攻迫하였는데, 이는 ㉢의 腰部를 찢르고자 ㉣쪽을 밀어 올리는 그들 主力의 협공소대를 엄호키위한 陽攻의 一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달이 東山에 솟아오르는 19.45을 前後하여 ㉢高地의 제5중대 제3소대와 그 西쪽의 제7중대 경계소대에서는 激戰이 高潮되었다.

이에 제7중대의 경계소대는 대대의 81mm박격포 지원아래 당면의 敵 소대를 격퇴하였

으나, 指形稜線 ㉔高地의 경우는 稜線의 主流를 탄 敵의 中대가—主攻인 듯—㉔의 東北쪽 100m의 ㉕高地에 까지 이르렀으며, 그 西北쪽을 협격한 敵 소대는 600稜線을 넘어서 ㉔高地(㉔ 西北쪽 50m)의 頂上으로 육박하였다. 이로써 ㉔의 제3소대는 東北과 西北에서의 兩面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대대의 포병관측장교가 대부분 死傷하여 포병지원도 如意치 못한 가운데 孤軍奮鬪하는 중, 20.00에 이르러서는 ㉕高지를 넘어 진지 東쪽을 압박하는 敵의 中대와 수류탄을 주고 받게 됨으로써 그 危險이 頃刻을 다투게 되었으니, 당시의 소대장 安承鎬소위는 이때의 情況을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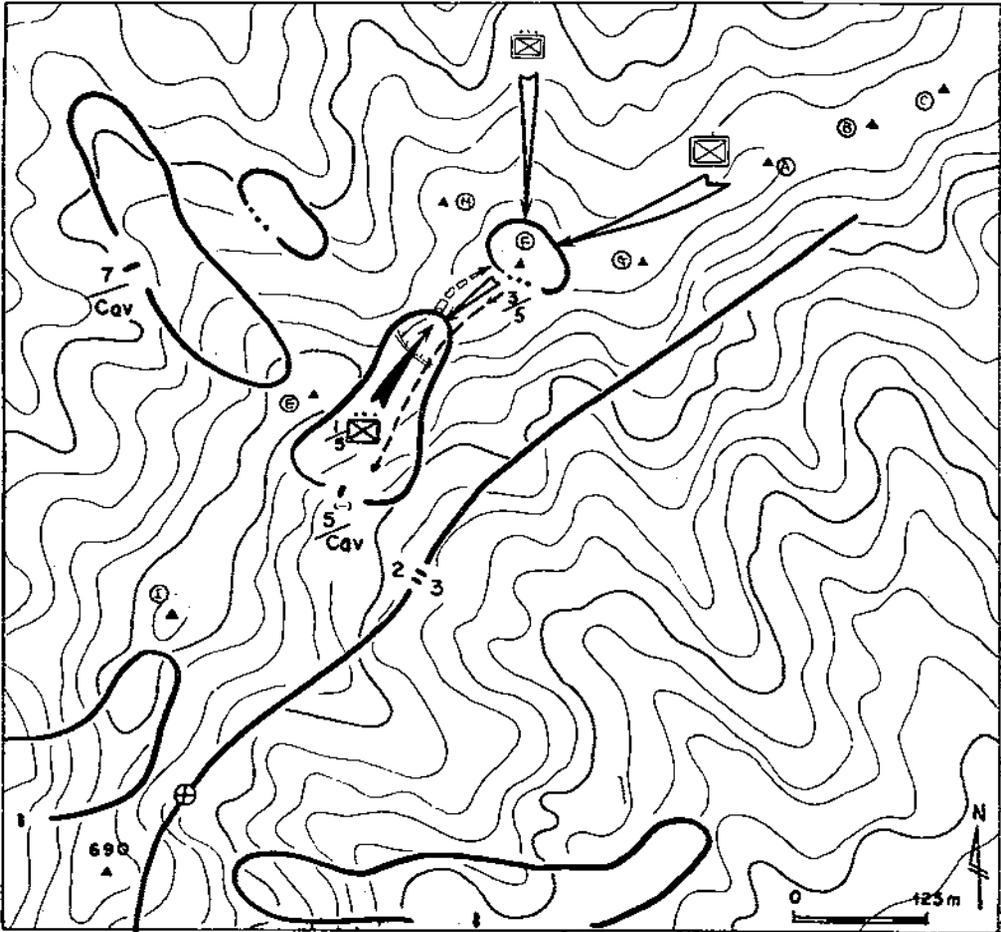
『이 무렵 이미 소대와 中대간의 有線이 杜絶된 뒤인데다가 소대의 SCR-536無電機도 “비둘기”(중대장)를 호출하면 오히려 敵이 응답하는 등의 混線을 빚게되어 無電通信마저 不能케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나(安承鎬소위)는 소대원을 독려하여, ㉕高地쪽의 敵의 壓力으로부터 ㉔의 진지를 지탱코자 死力을 다하였는데, 이때 느닷없이 등뒤인 ㉕高地쪽에서 中國말(語)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 문득 깨달으니 ㉔쪽으로 밀고 올라 온 敵의 소대가 우리 소대의 西側背를 찌르지 않고, ㉕쪽으로 육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㉔와의 稜線을 분단함으로써 우리 소대가 있는 ㉕高地에 대한 포위태세를 造成하여, 각개격파를 노린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같이 四面楚歌에 들게 된 것을 알게 된 나는 당시 내가 장악중이던 60mm박격포를 지휘하여 ㉕쪽으로 向하였던 砲門을 반대쪽인 ㉔쪽으로 급히 돌려, ㉔로 連하는 稜線을 料量하여 두들기게 하였는데, 내가 이렇듯 左顧右盼하는 사이에 소대원이 흩어져서 더 이상 ㉔를 支撐할 餘力을 잃고 말았다. 이에 또 雪上加霜으로 無電機(SCR-536)마저 敵砲에 파괴되어, 더 기대어 볼데가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21.00를 前後하여 殘餘소대원을 수습하여 中대主陣地로 철수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소대장이 소대선임하사를 비롯한 소대원 5명과 함께 數名의 부상병을 後送하여 ㉔로 집결함으로써, 中대장이 비로소 ㉕高지가 敵手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는 中대의 主陣地 일부인 ㉕高地마저 敵이 휩쓴 뒤이라, 그곳의 中대병력(제2소대)도 ㉔로 收容중이었으니, 이로부터 제3소대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敵中을 돌파한 셈이 되었다.

나) 이리하여 제5중대장 樞實玉대위로 부터 ㉔와 ㉕高지를 失守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 朴翺均중령은 同중대로 하여금 즉각 역습을 감행케 하여 失地를 恢復토록 엄명하였다.

이에 中대장은 ㉔와 ㉕에서 철수한 병력을 수습하여, 이로써 ㉔高지를 확보케 하는 가운데 당초 그곳의 제1소대를 뽑아 ㉔를 향하여 역습토록 하였는데, 21.30에 同제1소대가 ㉔를 약탈하여 22.15에 ㉔와의 鞍部를 돌파하고, 1개분대로써 先頭에서 진로를 개척하면서 一躍又一躍으로 나아가, 21.20에는 첫 목표인 ㉔에 육박하였다. 여기서 소대는 분대를 散開하여 敵의 포화속을 과감히 돌파한 끝에 23.10에 이를 손에 넣게 되었으나, 그곳

◇ 상황도 제21호 9월 6일 ㉔고지 상황



(㉔)에서 한 발만 나서면 左右의 兩斜面이 急峻한 隘路인 능선에 敵 포화가 불기둥을 세워놓은 듯 앞을 가로 막은 까닭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㉔에서 진지를 急縮하여 子正을 넘게 되었다.

한편, 이와같이 指形능선에서 彼我が 한데 일러 드잡이를 하고 있을 무렵인 20.25에 제 6중대(장, 李義守대위)가 확보중인 $\Delta 575$ 의 東北쪽 ㉑-㉒-㉓稜線에서 敵의 1개소대규모가 挑戰한 바 있어 同 중대가 20.50에 이를 격퇴하기도 하였는데, 이날 대대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戰死 2명과 부상 24명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3. 사단장의 措置

사단의 左右一線에서 이와같은 紛亂이 惹起되어 敵의 砲火에 有線이 두절되자, 사단장 李龍文중장은 사단 通信중대의 架設兵 74명을 一線연대에 급파하여 有線복구에 임하게 하고, 軸線要所에 試驗所를 설치하여 區間回線을 시험케 함으로써 有線網의 확보에 力點을 두면서 前線의 戰況을 지켜 보았는데, 이의 보람도 없이 끝내 首都고지와 指形능선 ㉔의

두곳의 要衝이 敵의 手中에 떨어지게 되자, 要旨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作指 제76호, 9.6 23.00부)을 하달하였다.

『① 제1연대는 1개 대대를 9.7.02.30부로 제26연대에 배속하라.

同대대는 同時刻까지 龍湖洞에의 集結을 要한다.

Wyoming線의 진지보수작업중인 1개대대를 9.7.04.00까지 廣大谷에 집결, 대기케 하라

② 제26연대는 9.7.02.30을 期하여 제1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여, 當面の 敵을 격퇴하고 首都고지를 확보하라.』

그러면, 사단장이 이와같은 조치로써 제26연대의 首都고지 확보를 優先토록 한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一당시 그는 兩紛爭點에서의 比重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판단한 듯하다.

첫째, 首都고지는 主抵抗線인 △663의 경계진지이나, 指形능선의 ㉞高地는 그 제2선에 ㉞와 ㉟고지가 있어 縱深이 두터운데다, 그것 자체가 연대경계진지의 일부인 것이며, 둘째, 距離上으로 보아 首都고지는 主抵抗線에서 불과 200~300m이나, ㉞고지는 1km이상 離隔된 까닭에, 比喩하자면 首都고지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눈속에 가시가 들게 되는 격이요, ㉞고지를 잃으면 눈위에 흙이 생기는 셈이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에 急迫한 主抵抗線에 대한 威脅을 배제한다는 戰術的인 面에서도 그러하려니와 戰場心理로도 이 首都고지의 敵을 剔抉함이 急先務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리라.

이에, 제1연대장 차춘植대령은 제2대대(8월의 首都고지 전투 直後 제3대대와 교대하여 Wyoming線 공사중)로 하여금 戰線復歸의 準備을 갖추게 하는 한편, 廣大谷에서 부대를 整備중인 제1대대(장, 咸溶翼중령)를 龍湖洞에 推進하였는데, 同대대는 이미 21.40에 廣大谷에서 火急히 機動을 시작하였다.

9월 7일: 이날 사단장 李龍文중장은 제26연대와 제1거갑연대의 CP를 巡訪하면서 戰況을 聽取하는 일방, 現地指導로써 首都, ㉞兩高地에 대한 恢復攻擊을 督勵하였는데, 이날도 20,000발을 上廻하는 포탄세례를 받을 정도로 敵火가 熾盛하여, 별다른 進陟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전날 밤에 下達한 작전지시 제76호에 따라 Wyoming線 工事중 밤을 도와 廣大谷에 집결한 제1연대의 제2대대를 제26연대 前線에 거둬 充用키로 斷案을 내리고, 08.00에 同연대장에게 命令하되, 『제1연대의 제2대대를 09.00까지 龍湖洞으로 추진하라. 同대대는 9.8.17.00부로 제26연대에 배속한다』고 하였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제26연대장 鄭震대령은 이날 새벽 首都고지를 공격하던 제2대대配屬의 제10중대가 △663 南斜面 ㉞의 예비진지로 물러나게 되자, 전날 밤부터 同진지에 대기중인 제9중대와 함께 이를 제2대대로부터 배속해제하여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로 원복조치한 다음, 同대대로 하여금 首都고지 역습을 다시 준비케 하고, 同대대의 제11중대(제1대대에

配屬중)에도 原復을 대기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대대(一)는 제10중대가 예비진지에서 待機하는 동안, 그곳의 제9중대를 △663로 뽑아 올려, 이로써 首都高地에 敵이 진지를 정비하기 전에 역습을 감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장, 張崎根대위)는 04.00에 △663의 제5중대 진지를 박차고 東北으로 뻗은 능선의 오른쪽 허리를 타고 내달아, 한달음에 ㉠과 ㉡高지를 모두 突破하여 04.35에는 목표고지 南麓에 급편진지를 마련한 敵의 제1선과 격돌케 된 결과, 東天이 밝아진 05.40에는 고지 頂上으로 한 걸음 더 육박하여 白兵血戰에 突入하는 바 되었으나, 이때 陣頭지휘하던 중대장 張崎根대위가 부상을 입게 되고 병력 또한 적지않은 손실을 본 까닭에, 頂上을 目睫之間에 두고도 끝내 이를 爭取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高지로 물러나, 그곳에 차단진지를 점령하여 高地頂上의 敵과 對峙케 되었는데, △663의 대대 OP에서 이 光景을 지켜 본 대대장 金成壽소령은 『달이 밝아 쌍안경으로 首都고지를 내려다 보니, 밤중에는 보이지 않아 미처 몰랐으나 밤새도록 퍼부어진 彼我의 포격으로 고지가 한낱 황량한 砂丘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흔적도 알아볼 수 없는 交通線속에는 敵我할 것 없이 한데 엉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는 듯이 었어져 있었다. 目不忍見의 慘景이었다. 그러나 제9중대장도 부상을 당하여 물러났고, 手中에 지휘할 병력이 없어 더 이상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自嘆할 뿐이었다고 한다.

나) 이에 연대장은 05.00에 제1대대(장, 金文植대위)의 예비인 제11중대를 原復조치하여 제3대대의 공격력을 增強하는 한편, 이날 02.30부로 그의 指揮下에 들게 된 제1연대의 제1대대(장, 咸溶翼중령)를 龍湖洞에서 ㉢의 東南쪽 계곡으로 推進케 하고, 그 가운데 제1중대(장, 金昌煥대위)를 抽出하여 △663를 확보중인 연대 제2대대(장, 李善浩 소령)의 예비로 삼아 ㉣의 예비진지로 뽑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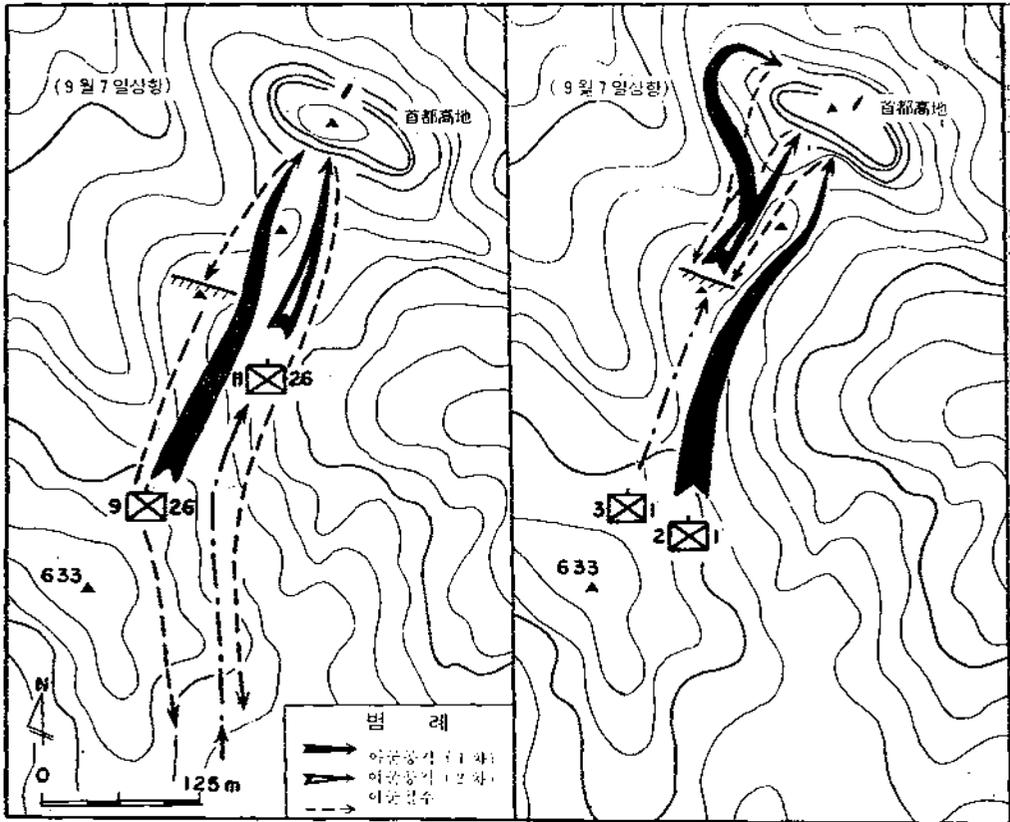
이와같은 연대장의 措置에 따라, 제3대대는 제11중대를 통합지휘케 되었는데, 05.40에 同중대를 당초 집결지인 ㉠에서 △663 南斜面의 ㉤으로 轉進케 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이로써 다시 한번 首都고지에 대한 회복공격을 감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장, 金元俊대위)는 07.30에 지원포병의 엄호아래, △663를 거쳐 제9중대가 확보중인 ㉤고지로 달려가 전투전개를 끝내고, 이어 07.40에 여기를 LD로 하여 눈앞의 首都고지頂上을 목표로 약진하였는데, 例의 敵포화가 進路를 가로 막는 가운데 ㉥高지를 뛰어넘고 목표고지 南麓에 이르는는 하였으나, 이 頂上에서 死生을 결단코자하는 중대 규모의 敵의 저항에 부딪혀 그곳 敵前으로의 접근조차 여의치 않게 되었다.

이렇듯 중대가 敵前에 膠着되어 敵線突破를 摸索하는 사이에 死傷者가 累增함으로써 중대의 銳氣가 鈍化된 것으로 판단케 된 중대장은 頂上석권의 企圖를 단념하고 11.30에 중대를 ㉤으로 되물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전날 밤과 이날 아침에 걸쳐, 3개 중대를 모두 이 首都고지 奪還戰에

◇ 상황도 제22호 9월 7일 수도고지 상황



투입하여 前後 네차례의 역습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2.30에 제12 중대만을 제속 제2대대의 Δ 663 진지에 남겨둔채 主力을 모두 \ominus 으로 집결시켰다가 23.00에는 龍湖洞으로 轉進하게 되었다.

대대는 이날의 전투에서 戰死 47(1/46)명과 負傷 149(11/138)명의 손실을 본 바 있으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추측전대 敵의 損失이 대대의 그것보다 결코 적지는 않았으리라.

다) 한편 제3대대의 역습이 모두 無爲로 끝나자, 연대장 鄭 震대령은 이날 正午에 Δ 663의 南斜面 계곡에 집결중인 제1연대의 제1대대로써 首都고지의 敵과 다시 한번 對決키로 결심하고 同대대장 咸溶翼중령에게 명령하되 『대대 제2, 제3 兩중대로써 13.30을 期하여 목표 首都고지를 공격하여 탈환하라』고 하는 한편, 연대의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는 12.30까지 Δ 663의 OP를 同제1대대에 인계하고 대대병력을 수습하여 龍湖洞으로 집결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 火器중대는 主抵抗線의 제2대대에 배속시켜 그곳에서 공격부대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배속 제1대대(一)는 12.15에 \ominus 을 거쳐 12.30에 Δ 663의 陣地線인 LD로 나아

갔는데, 이날 새벽에 제2대대(△663)의 예비임무를 부여받은 대대의 제1중대는 08.25에 龍湖洞에서 기동하여 09.05에는 ㉠의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이를 확보중이었다.

12.30에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으로부터 △663의 대대 OP와 同대대의 통신지휘망을 인수하여 곧 작전지휘에 들어가게 된 제1대대장 咸溶翼중령은 13.15부터 15분동안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다음, 13.30을 期하여 먼저 제2중대로써 예정된 공격을 시작키로 작정하였는데, 이때 돌연히 轟聲을 터뜨린 敵의 포탄 1발이 OP에 命中됨으로써 대대장 咸중령이 頭部에 破片傷을 입고 쓰러지다가 하면 그를 隨伴하던 대대情報官인 桂承善소위가 戰死하는 風波가 突發케 되었다.

이에, 그때까지 그곳에 남아있던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이 同대대를 임시로 지휘케 되었는데, 당시에 金소령은 대대의 임무인제를 끝내고도 咸중령의 작전 지휘를 협력하느라 미처 자리를 뜨지 못하였던 것인 바, 이 渦中에서 僥倖으로 그 혼자만이 無事하였던 것이다.

대대는 이와같이 공격初動에 지휘체계의 混線을 빚는 가운데에서도 咸중령의 服索을 따르기로 한 金소령의 지휘아래 예정된 13.30에 제2중대(장, 片富萬대위)로 하여금 공격을 강행토록 하였다.

이에 중대는 중대장의 진두지휘로 劍尖을 높이 겨누고, △663—首都高地의 稜線을 따라 竄進하여 14.00에는 ㉡고지를, 이어 14.30에는 ㉢고지를 휩쓸어 15.20에 목표고지 中腹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부터는 1분간에 200발을 헤아리는 敵의 포탄이 이루어 놓은 彈幕에 차단되어 더 나아 갈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攻擊線을 急築하여 1시간 가까이나 釘着케 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중대장 片富萬대위는 제1소대로써 特攻隊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高地頂上으로 突進케 함으로써 중대의 進路 개척을 모색하였는데, 18.00에는 同특공대가 挺身打開한 血路를 따라 중대 主力이 敵의 彈幕을 뚫고 頂上으로 치달았다. 그리하여 18.30에 敵前 10여m의 突擊線까지 육박하게 되었으나, 좀처럼 돌격의 好機를 얻지 못한 채 서로 수류탄만을 주고 받다가 진두지휘하던 중대장이 부상을 입게 된 까닭에 중대는 하는 수 없이 山腹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라) 제2중대가 이와같이 敵前에 膠着되어 血戰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18.30에 대대를 임시 지휘중인 金成壽소령은 同중대만으로는 고지의 敵陣을 쉽사리 꺾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663에 대기중인 제2중대(장, 李應龍대위)를 ㉣고지로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제2중대의 공격임무를 이어 받게 하였다.

이에 중대는 18.50에 首都고지 南麓으로 나아가, 당초 제2중대가 과농은 攻擊線에서 급전진지를 마련한 다음, 19.20에 1개소대를 뽑아 제2중대에서 抽出된 1개소대와 함께 접근로 1쪽으로 迂回急襲토록 한 결과 22.05에 頂上의 敵陣一角을 탈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때 敵의 赤色신호탄 2발이 △748의 上空에 飛翔하더니, 同고지의 西南麓으로

부터 敵의 自動火器가 나타나 首都고지의 정상에 鐵火를 빗발치게 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과감히 밀고 들어가 陣內에서 中共兵과 白兵血戰을 2시간이나 벌인 끝에 頂上席捲을 寸前에 두게 되었으나, 바로 이때 敵의 증원병력이 들이닥쳐 그들의 白兵力을 증강한 까닭으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튿날인 8일 00.15에 ㉔으로 隨意撤수하는 바 되었다.

이리하여 제2, 제3 兩중대는 ㉔에서 차단진지를 總編하여 敵의 움직임에 대한 썩기를 막는 일방 병력수습에 들어갔는데, 이날 이 제1대대(一)에서도 戰果를 확인 할 겨를이 없어 이를 알수 없었으나 兩중대에서 戰死 45명에 負傷 150명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2. 指形稜線의 狀況

가) 전날 밤의 ㉕高地로의 회복공격에서 ㉕高地만을 확보케 된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의 제5중대(장, 權寶王대위)는 이날 03.00에 다시 한번 ㉕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수류탄의 閃光을 따라 03.20에 敵前으로 돌격코자 하였으나 이번에도 敵의 頑強한 저항과 熾盛한 포화로 말미암아 그 一角을 뚫지 못한 까닭으로 企圖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04.20에 ㉑로 反轉하게 되었다.

나) 한편 전날밤에 제5중대가 ㉕高地를 失守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즉시 이미 마련된 역습계획에 따라 예비인 제1대대(장, 李鵬植중령)에 『機動태세로 대기하라』는 준비명령을 하달한 바 있는데, 이날 새벽의 同중대 逆襲마저 여의치 않게되자, 이에 제1대대를 投入키로 단안을 내리고 同대대로 하여금 06.10을 期하여 목표 ㉕高地를 攻路토록 명령하는 한편, 主抵抗線의 제3대대(장, 朴明景소령)의 예비로 배속중인 제2중대(△612 南斜面)를 04.00부로 원복조치 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李鵬植중령은 04.00에 제2중대를 ㉑로 추진케하여 그곳의 제5중대 제1소대 진지를 인수하여 공격을 준비토록 하고, 鞏室里 北쪽의 대대집결지에 控置中인 제1중대(장, 李基水대위)를 제2중대진지로 뽑아 올려, 그곳에서 상황에 즉응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2중대(장, 河相喆대위)는 04.30에 ㉑로 약진하여 그곳의 제5중대 제1소대진지에서 隊伍를 정비한 다음, 06.10에 ㉕高地 너머로 아침해가 솟아 오르는 것을 바라 보면서, 제107重박격포중대(장, 尹永皎 중위)의 4.2"박격포와 대대 火器중대(장, 李萬浩대위)의 81mm 박격포의 직접지원 아래 ㉑를 LD로 삼아 목표 ㉕고지 攻路에 나섰다.

중대는 2개 소대를 一線에 併列하여 東北으로 ㉕高地를 단숨에 뛰어넘고 목표 西北쪽의 ㉕高地 北斜面으로 돌아 그 衝鋒을 ㉕에서 東南쪽으로 ㉕頂上을 밀어 올렸다. 이리하여 목표 高地 頂上 가까이에서 수류탄을 교환하게 되어 彼我的 分辨이 어려운 混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敵이 彼我를 가리지 않고 無差別로 砲火를 집중함으로써 중대원과 敵兵이 함께 空中曲藝를 演出케 되어 중대의 돌격기세가 一瞬 주춤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敵이 ㉕고지쪽으로부터 급히 증원병을 몰아 닥친 탓으로 이를 감당치 못하게 된 중대는

08. 10에 ①로 물러서게 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①에서 다시 한번 決意를 가늠다고 10. 45에 중대장 河相喆대위의 진두지휘 아래 ⑥고지에 대한 역습을 再開하였으나, 完璧한 諸元을 확보하여 効力射를 퍼붓는 敵砲火를 헤치기가 쉽지 않아 正午가 지나도록 ⑥와 ⑦고지 사이의 능선에서 停滯되어, 戰況이 遲遲不進한 가운데 死傷者만 속출케 되었으므로 급기야 대대장이 이를 ⑥고지로 反轉케 하여 同고지를 확보하면서 戰列을 수습토록 조치함으로써 後圖를 策하기로 하였다.

다) 이리하여 午前중의 두차례에 걸친 제2중대의 역습이 모두 水泡로 돌아가자, 대대장 李鵬植중령은 사단의 지원포병으로써 稜線의 敵陣을 강타케 하여 ⑥고지에의 敵 진지공사와 병력증원을 妨害하는 가운데 午後에 제3중대(장, 李基水대위)를 前線에 내세워 다시 한번 ⑥고지의 奪取를 試圖하여, 16. 10에 同중대를 ①고지로 기동케 하였는데, 이때 同중대는 04. 00에 당초의 대대에비진지에서 출발하여 04. 30에 △612 南斜面에 접결하여 대기중이었다.

이리하여 제3중대가 16. 40에 ①의 제5중대 OP부근에 집결하여 隊伍를 점검하고 다시 ⑥로 躍出하는 동안 대대장은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要請하여 16. 30~16. 40과 16. 40~16. 50 사이에 각 10분간씩 두차례에 걸쳐 ⑥고지 일대에 砲火를 집중하였다.

16. 50에 중대는 ⑥고지의 陣地線인 LD에 전투전개를 완료하는 즉시 목표 ⑥고지에 연막탄을 집중하여 이를 標的으로 삼아 일제히 LD를 박차고 달려 나갔다.

중대는 제2중대를 초월하여 ⑥에서 ⑦로 연하는 稜線의 오른쪽 허리를 타고 步一步로 목표 ⑥의 西南麓에 붙은 다음, 그곳에 攻擊線을 파고 敵火를 피하면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구름이 낮게 깔려서 月光을 가린 것을 好機로 삼아 夜暗에 企圖를 秘匿하면서 傾斜가 急峻한 ⑥고지의 南斜面으로 迂回함으로써 21. 10에는 8부능선까지 육박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 중대가 돌격태세를 갖추어 바야흐로 頂上의 敵陣으로 突入하려는 찰나, 이때 열 이렛날의 달빛이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 △747 西南斜面에 配備된 敵의 側方支隊火器의 視界를 밝히게 된 까닭으로 그쪽의 敵에 의하여 중대의 기도가 먼저 폭로되어, 이들이 퍼붓는 自動火器의 鐵火세례를 받게 되었으므로 중대의 덜미를 들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 敵의 박격포화와 高地 頂上에서 굴러내린 수류탄이 加勢하여 그곳에서 寸步를 움직일 수 없게 하였는데, 이에 중대장 李基水 대위는 너 이상 이 상태로 여기서의 釘着이 계속되었다가는 중대의 出血만을 강요당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 중대에 反轉을 命하여 ⑥高地로 隨意철수 한 다음, 23. 40을 期하여 1개소대와 중대장이 編組를 旣 特政隊 1개 분대로써 다시 한번 공격기로 작정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의 공격소대는 ⑤-⑦ 능선의 右側으로, 특공분대는 左側으로 각각 迂回하여 포병의 지원 없이 奇襲키로 하였는데, 23. 50에 목표고지의 中腹을 덮은, 무릎까지 빠지는 死灰속을 踏破하여 공격소대는 ⑥高地쪽으로, 특공분대는 ④고지쪽으로 돌아 各근

㉔頂上을 목표로 直衝과 急襲을 互用한 바, 頂上一角에서 彼我의 총검이 부딪치는 血鬪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高地 頂上의 敵이 완강히 버틴데다가 右側의 공격소대는 ㉕고지 쪽에서 소대의 등을 찌르며 달려나온 敵의 일단으로부터 협격을 받게 되고, 左側 ㉖쪽의 특공분대는 그곳에 집중된 敵의 直射火力로 말미암아 全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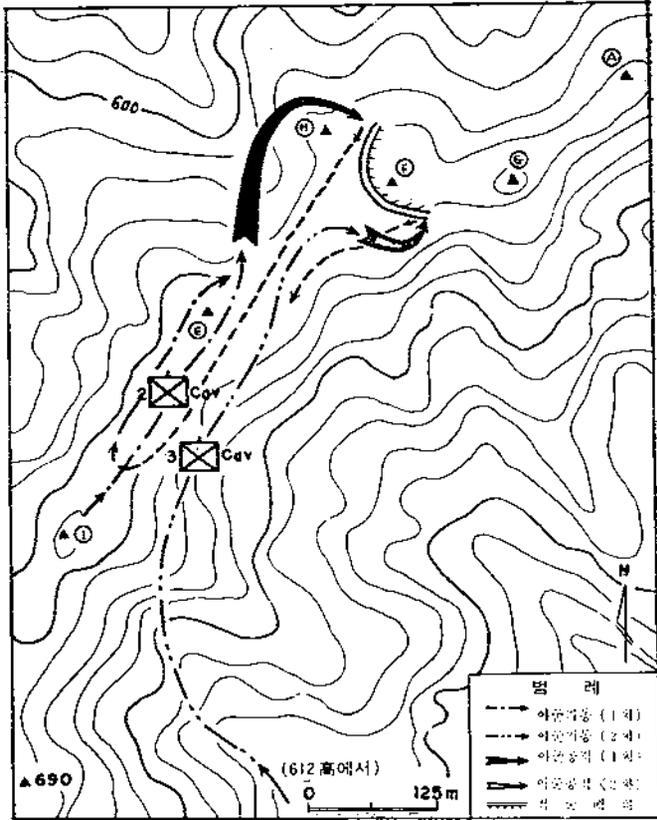
이 결과, 子正을 지나 右側의 공격소대만이 그 일부병력을 수습하여 ㉗로 철수케 됨으로써 이 공격도 결국 중대의 손실만 보는 가운데 無爲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에 대대장은 同공격소대를 ㉘로 다시 뽑아 내리고, 중대의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여 제2중대와 함께 ㉙에 配備하여 이날 밤 동안 이를 扼守케 하였다.

그리하여 제3중대(一)는 ㉚의 東쪽 斜面을, 제2중대는 그 西쪽 斜面을 각각 담당하되 고지頂上을 중심으로 圓形진지를 急編하여 徹夜케 되었는데, 이날도 대대에서는 戰死 39(1/38)명에 負傷163(12/151)명 그리고 失蹤 16(0/16)명의 손실을 보았으나 戰果는 확인된 바 없었으니 여기에 대하여서는 당시 제2대대장인 朴翊均중령의 證言을 들기로 한다.

『彼我의 시체가 稜線 兩쪽 계곡을 메웠건만 너무 至近거리인데다 敵의 砲火로 말미암아 戰死한 戰友들의 後送은 더 말할 나위 없고 戰果확인은 커녕 우리쪽의 시체조차 확인할 수 없어 戰死報告도 제대로 못하였다.』— 戰鬪詳報의 記錄에 의하면 이날 이 稜線에 집중된 敵의 砲彈이 11,700여발로 集計된 것으로 보아 그 情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한편 이날 $\Delta 575$ 의 제6중대(장, 李義守대위) 정면에서도 00.20에 ㉛-㉜-㉝ 高地에 연하는 능선으로 1개소대규모의 敵이 다시 나타났으므로 이 敵과 40여분간 交戰끝에 이를 ㉞고지 쪽으로 물리쳤다. 이에 同중대의 1개 소대가 즉시 부근의 威力搜索에 나섰는데 01.50에 $\Delta 575$ 의 北쪽 능선에서 敵 1개소대규모와 擊突하였으나 이도 30분뒤에 격퇴하

◇ 상황도 제23호 9월 7일 ㉕고지 상황



였다.

03.20에 다시 중대의 東쪽 경계소대의 北쪽정면에서 1개소대규모의 敵이 挑戰하여 이 敵과 40여분 동안 격전을 벌이게 되었으나 이 또한 04.00에 雙嶺洞계곡 깊숙이로 潰退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밤이 깊은 22.30에 중대 東쪽 경계소대의 ㉑—㉒—㉓고지쪽 稜線에서 敵 2개 분대규모가 나타나, 소대의 警戒線을 넘어다 보았는데 이때 이들을 支援하는 포화가 強力하여 중대의 觀察壕가 무너지는 등 狂波가 소용돌이 치게 됨으로써 指形능선으로 指向된 敵의 激流가 여기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同소대가 침착하게 應戰하여 23.45에 이들을 물리치고 말았다.

3. 軍단장의 豫備措置

그런데 이날 軍단장 劉載興중장은 전날 밤 이래, 사단正面에서의 敵의 挑發양상을 銳意 注視한 결과 敵勢가 尋常치 않다고 판단하고 敵의 攻勢가 長期化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戰線에 軍단예비대를 動員키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15.00에 軍단作指 제30호를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제3사단 제18연대와 軍단예비 제52연대는 9.7.18.00까지 前線참가의 기동준비를 완료하고, 後命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제52연대(장, 金安—대령)는 新編연대로서 8월 19일부터 陸本으로부터 軍단에 배속되어 華川에 예비로 駐紮중이었으며, 제18연대(장, 金德俊대령)는 제3사단의 예비로 舊營부근에 控置중이었다.

9월 8일: 이날도 사단前線의 兩爭點에 대한 攻防戰이 계속되었는데, 戰況이 더욱 混迷—路로 빠져들어, 이를 打開하기 위한 새로운 方途를 모색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제26연대장 鄭 震대령은 연대에 扞援된 新銳로서 首都고지의 敵과 一戰을 決한 바 있는 제1연대의 제1대대(一)가 전날 子正을 넘어 다시 ㉔고지로 물러서게 되자, 그 즉시로 同대대의 제1중대(제26연대 제2대대의 예비로 ㉕에 控置中)를 原復措置하여 同대대장으로 하여금 이 중대를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이에 同제1대대를 임시지휘중인 金成壽소령은 이 제1중대(장, 金昌煥대위)로써 首都고지에 대한 攻奪戰을 다시 한번 벌이기로 하되, 이번에는 △653—首都고지 稜線의 攻擊路(접근로 W)를 피하여 목표고지의 東南側方의 접근로 V를 따라 공격방향을 指向케 하고, ㉔의 同대대 제2, 제3 兩중대로써 상황에 적응하여 同제1중대의 공격聲威를 북돋우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는 03.10에 △663 南斜面의 ㉖으로부터 △663 東쪽 능선상의 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間的 制限點부근으로 나아가, 그곳의 散兵線을 LD로 삼아 03.30에 그 西北쪽으로 首都고지 頂上을 목표로 접근로 V를 따라 躍出하였다.

중대는 東쪽이 밝아질 무렵에 접근로 V의 下端 500稜線에 이르러 曉霧속에서 급히 機動陣形을 고쳐, 2개 분대로써 先頭 突擊隊로 내세워 頂上을 향하여 巍然突進을 감행케 한 결과 06.30에 기어코 敵陣一角에 劍尖을 꽂게 되었다.

그러자, 高地頂上의 敵(중대 규모)이 本是 夜盜行脚만을 能事로 삼았던지라 이제 날이 밝아 我軍의 포병이 咆哮할수 있는 白日下에 여기서 물러선다하여도 座首洞계곡을 무사히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음인지, 限死코 發惡한 까닭에 여기서 한동안 血雨霏霏하는 白兵의 對決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고지의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敵의 正面에서 공격위력을 발휘하여 제1중대와 合勢토록 한 바, 07.10에 兩중대가 일거에 ㉡高지를 돌파하고 목표고지 南쪽 정면을 밀어 올렸다. 여기에 돌격의 好機를 捕捉케 된 고지 東쪽 제1중대의 돌격대가 09.30을 前後하여 정상에 突入하여 마침내 敵陣一角을 蹂躪하고 銃劍으로써 交通線을 헤쳐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敵砲가 近接時限信管彈으로 陣內사격을 퍼부어, 彼我的 分別없이 肉片과 骨塊를 紛飛케 되었다. 이 修羅場가운데에서 10.50에 頂上으로 跳躍한 돌격대가 모두 戰死하게 되는데가 △663에서 공격을 지원중이던 대대의 火器중대장 沈相鶴대위(7.31에 제10중대장에서 轉補)가 부상을 입는 등 戰列이 흩어져, 공격중대는 각각의 고지 下麓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나) 이와같이 제1연대 제1대대의 역습이 모두 無爲로 돌아 갔으나 대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正午에 增撥次 ㉢에 당도한 제26연대의 제11중대와 더불어 다시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4개 중대로써 16.00를 期하여 午前에 물러났던 고지 下麓의 楡岾진지에서 또 한번 목표 攻擊에 나섰다.

이리하여 △663부근의 全지원화력의 掩護아래, 제1중대는 접근로 V를 따라 高地 東南쪽에서 西北의 頂上으로, 그리고 제2, 제3 兩 중대와 지원 제11중대는 접근로 VI를 따라 西南에서 東北으로, 兩面에서 각각의 衝鋒을 지향하여 躍一躍으로 肉迫을 거듭하였는데, 이때 공격병력은 4개 중대라고는 하지만 실병력이 120명 内外인데 比하여 목표정상에는 대대가 이 공격을 준비하는 낮 동안에 간단없이 계속된 지원포병의 遮斷사격중에서도 座首洞계곡의 火網을 기어 넘어 든 1개 대대 규모의 中共兵이 여기에 蟻附하여 진지를 개편하는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16.20에 左右의 공격중대 先鋒이 敵陣 10여 m까지 육박하여 煙幕彈을 집중한 다음, 黑煙이 濛濛한 정상을 향하여 돌격을 決行하였으니, 이때의 한 場面을 戰鬪詳報는 이렇게 記錄하고 있다.

『제3중대(장, 李應龍대위)의 先頭인 제1소대에서는 이날 새벽의 공격중에 소대장이 戰死하였으므로 소대선임하사관이 소대를 지휘하게 되었으나, 그 마저 戰死하고 先任분대장인 朴順和일등중사가 다시 소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차중사의 진두지휘로 1차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수류탄 세례로 말미암아 企圖를 中折케하고 말았는데, 거기에다가 敵勢가 증강되어 소대원의 戰意가 萎縮되었다. 이에 차중사는 當面の 敵의 注意를 견제한 然後에 虛를 찰라 돌격키로 하고 彈雨중에 소대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3분만에 1회씩 「돌격」 합성을 지르되, 이것을 5회 반복한다. 6회째는 일제히 돌격하라!” 고 하였다. 이와같이 다만 「돌격 앞으로!」라는 虛로서 다섯차례 敵을 欺瞞한 다음, 勇猛한 소대원 3명을 선발하여 차중사 자신이 이들과 함께 先頭に 서서, 6회째는 實際 돌격을 감행하였다. 이때에 수류탄 2발을 연달아 投擲하여 正面의 敵 火力據點을 격파하고 재빨리 敵陣에 突入하여, 다발총을 들어 抗拒하려는 中共兵 1명을 M1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때려 누이고 이어 그 銃劍을 휘둘러 이를 刺殺하니 그의 形容이 마치 飛虎와 같아 감히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듯 機智를 발휘한 捨身敢鬪로도 敵의 저항을 끝내 꺾을 수가 없어, 대대는 한동안 白兵戰鬪에 17.00에 山腹으로 50여m를 물러나고 말았다하니, 이로써 이 고지를 확보하려는 敵의 決意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듯 하다.

그리하여 대대는 高地 下麓에서 진지를 급편하던 중인 18.00에 사단장의 공격중지 명령에 따라, △663 南斜面의 ㉠으로 철수하여 副대대장 田耕濶대위가 새로이 대대장 職務를 代理케 되는 가운데 부대정비에 들어 갔는데, 이날도 戰果는 확인된 바 없고 戰死 40명과 負傷 26명의 損失만을 전날의 그것에 追加케 되었다.

다) 한편, 제26연대의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는 首都고지에 대한 공격임무를 연대에 배속된 제1연대의 제1대대에 인계하고, 전날 23.00에 龍湖洞에 집결하였는데 중대장을 위시하여 소대장 全員이 死傷케 된 제9중대의 殘餘兵力을 임시로 제10, 제11 兩 중대에 分割配屬하여 이의 戰力을 증강하였다. 대대장은 이어 03.40에 제11중대(장, 金元俊대위)를 龍湖洞으로부터 기동케 하여 05.30에 다시 △663南쪽의 ㉠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10중대(장, 李用額대위)의 1개소대를 06.30에 △663로 追隨케 하였다.

이리하여 ㉠의 예비진지에서 扼腕待機중이던 제11중대는 제1연대의 제1대대가 首都고지 頂上에서 敵의 陣內射擊에 制壓되어 戰列이 支離滅裂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른 대대장의 措置에 의하여, 10.45에 ㉠에서 △663로 한걸음 더 나아가 同대대를 扞援할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 무렵인 11.00에 龍湖洞에서 추진된 제10중대의 1개 소대도 △663진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다가 16.00에 同제1대대의 공격再開에 隊伍를 맞추어 중대도 그 一員으로서 공격에 참가한 바, 敵의 陣前에 이르기도 전에 중대장 金元俊대위가 부상하고 제1소대장 趙永衡소위가 전사하는 등, 死傷者가 속출한 끝에 戰死 5명에 負傷 30명으로 공격병력의 30%를 잃게 됨으로써 17.00에 同제1대대와 함께 물러나, △663 主陣地의 제5중대(장, 安德榮대위) 제1소대와 더불어 ㉠에 차단진지를 점령하여 頂上의 敵과 對峙케 되었다.

다) 그런데 전날의 사단作指 제77호에 의거, 이날 17.00부로 제26연대에 배속된 제1연대의 제2대대(장, 金榮吉소령)는 이날 아침 예정대로 龍湖洞에 집결하였는데, 18.00 사단장의 공격중지명령을 받게된 연대장 鄭震대령의 戰列整備방침에 따라 제7중대를 龍湖北쪽 1km에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主力인 제5, 제6 兩중대를 ㉠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兩 중대는 19.00에 각각의 機動을 끝내고, 首都고지 공격참가에 대한 준비를 가다듬게 되었다.

2. 指形稜線의 狀況

가) 전날 밤을 指形稜線에서 徹夜한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장, 李鵬植중령)는 이날 아침 ㉠에서 戰列을 수습한 제3중대의 일부병력을 ㉡로 다시 뽑아 올려 중대주력과 合勢케 한 다음, 11.30에 이 제3중대(장, 李基水대위)로써 다시 한번 一戰을 겨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에서 ㉢로의 능선 험로를 돌파하는 동안에 敵 포화가 전날과 다름없는 威力을 발휘한 까닭으로 중대장 李基水대위가 부상을 입는 등 손실만 보는 가운데 이의 進展이 또한 遲遲不進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지의 제5중대 OP까지 달려나가 중대의 奮迅突破를 호령하던 대대장 李鵬植중령이 ㉢정상과 그 너머의 ㉣고지로부터 敵兵이 증원되는 것을 목격하고, 憤然히 ㉡로 挺身하여 그곳에 남아있던 병력으로써 10명의 決死隊를 急編한 다음 이를 직접지휘하여 先頭에서 血路를 개척다가 중내 敵彈에 부상을 입는 바 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공격을 일단 단념하고 공격 중대를 ㉡로 反轉케 되었는데, 그곳에서 戰列을 수습하여 13.30에 副대대장 지휘아래 제2중대를 공격에 加入시켰다.

그리하여 제2중대를 右제1선으로, 제3중대를 左제1선으로 삼아 공격을 재개한 바, 이번에는 한달음에 능선을 내달아 13.50에 ㉤西南麓에 이르러, 鐵火가 交叉하는 가운데 歩一歩하여 16.00에는 敵의 박격포탄막마져 헤치고 陣前으로 육박한 다음, 수류탄을 던지면서 일제히 돌격을 감행케 되었다.

그러나 陣前에 다달아서는 敵의 저항이 依然하여 쉽사리 突破口를 열지 못하였는데, ㉤와 ㉥고지에서 敵의 박격포가 흡사 수류탄과 같은 効力射를 퍼부어 그들의 陣前에 불바다를 만든 까닭으로 끝내 정상奪取의 뜻을 꺾지 못한 채, 戰死 3명과 負傷 16명의 손실만 더 보고 ㉤로 물러서게 되고 말았다.

이에 18.00에 사단장의 공격중지명령에 따라 제5중대(장, 權實玉대위)의 1개소대를 ㉤로 급히 뽑아 올려 여기에 대한 敵의 挑撥을 전제토록 하였는데, 21.00에 數ჯ를 알수 없는 敵의 一團이 ㉤로부터 出擊하여 ㉥마저 略取코자 기도한 바 있어 그곳의 제2, 제3 兩중대는 제5중대 1개소대와 합세하여 30분 뒤에 이를 물리치고, 이어 同소대(제5중대)만을 그곳에 남겨둔 채 Missouri線 南쪽의 당초의 대대진지였던 △645부근으로 집결하였다.

나) 그런데 指形능선에서 제1대대가 이와같이 血戰을 反復하고 있을 무렵, 연대 主抵抗

線의 右一線인 제3대대(장, 朴明景소령)에서 뜻하지 않은 不祥事가 돌발하여 사단의 戰線에 크나 큰 波紋을 던졌다.

즉, 대대는 주저항선을 굳게 지키면서 無反動統과 기관총동의 대대 直射火器로써 指形능선의 東側背를 겨냥하여 혹은 제1대대의 ㉔공격을 지원하기도 하고 혹은 ㉕의 防守에 一役이 되기도 하였는데, 16.00에 연대의 ㉔공격 支援次 出擊한 美空軍의 戰爆機 1개 편대(F-51 4機)가 대대 OP가 위치한 △612의 上空에 이르러 先頭機가 갑자기 機首를 急降下 하더니 느닷없이 OP를 목표로 機銃掃射를 퍼부은 다음 이어 폭탄 3발을 投下함으로써 그 가운데 1발이 OP에 命中하였고 이 編隊機들은 그대로 곧 그들 基地로 歸還하는 듯 하였다. 이리하여 이 青天의 霹靂으로 말미암아 대대장 朴明景소령이 重傷을 입어 後送途中에 殞命하였는가 하면, 대대 通信交換臺가 있던 掩體壕가 무너져 교환대가 破損되고 교환병 3명이 壓死 직전에 구출되는 등 慘劇一幕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뒷날 美공군의 조사단이 이 事故의 原因을 규명한 결과에 대하여 당시 同대대 통신대 선임하사였던 張龍鎭 일등상사는 이렇게 傳한다.

『이것은 대대 OP의 對空布板을 잘못 설치한 所致로 빚어진 사고였다. OP의 位置를 알리는 대공포관은 敵에게는 隱蔽되는 곳을 고르기 때문에 대개 OP의 後斜面에 上空에서 識別이 容易한 地點에 標識하는 것이 常例였다. 대대도 이날 아침에 분명히 OP 南斜면에 전날과 다름없이 대공포관을 설치 하였으나, 午後가 되면서 해가 西쪽으로 기울게 되니 자연히 나무 그림자가 길어지게 마련이었는데, 16.00쯤 되자 공교롭게도 그 부근의 소나무의 그늘이 이 대공포관을 덮게 되어, 上空의 조종사가 그늘에 가려진 것을 識別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OP를 敵陣으로 誤認한 결과, 그와같은 對地攻擊을 감행케 된 것이다.』

소나무 그늘 하나로 말미암아 이렇듯 倉卒間에 대대의 指揮系統에 亂脈相을 보이게 되고 말았으니, 무릇 싸움이란 錯誤의 連續劇이라고는 하였지만 이 경우야 말로 참으로 아까운 千慮의 一失이었다.

3. 사단장의 措置

이날 사단장 李龍文 준장은 종일 注波里의 지휘소에서 前線연대에 대한 작전指導에 專念하다가, 18.00를 期하여 사단 정면의 모든 전투를 中止케 하고, 空中掩護와 砲兵支援을 얻어 當面の 敵을 견제하는 가운데, 別命이 있을 때까지 各己 부대를 수습토록 한 바 있음은 이미 言及하였다.

그러면, 사단장이 이와같이 돌연히 공격을 全面中止케 한 까닭은 那邊에 있을까? 여기에 대한 記錄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證言 또한 얻지 못하여 이를 詳考할 수 없으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그의 胸中을 헤아려 보면 대개 이리할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이 措置가 있기 2시간 前인 16.00에 前述한 제3대대 OP의 誤爆擊이 있었다는 점

에서 이의 사실 규명과 事後對策의 수립이 時急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 이것이 原因의 첫째일 것이요, 그리고 6일 밤에 일거에 사단 左右 正面의 要衝을 잃은 뒤로 이날까지 공격대대장 2명(제1연대 제1대대장과 제1기갑연대 제1대대장)이 부상을 입고, 마침내는 1명이 전사하기에 이르렀으며 병력 역시 3개 대대에서 그 殆半을 잃었으니, 全面的인 부대 재편이 不可避하였을 것으로 보는 바, 이것이 그 原因의 둘째가 될 것이며, 또한 이와같이 敵勢가 頑強한 까닭에 이를 破摧하는데에는 特段의 方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인 즉, 此際에 이에 대한 對策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原因의 세째일 것으로 생각된다.

9월 9일 : 이날 사단장은 早朝부터 항공지원을 얻어 포병과 함께 敵의 포병火力을 嚮伏케 하는 가운데, 左右一線 연대의 전열을 정비토록 한 다음, 右一線 제26연대장에게 명령하기를 『今夜 20.00를 期하여 首都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여 기필코 이를 奪回하라.』고 하는 한편 제1기갑연대장에게는 『時急히 戰列을 정비하여, 後命을 기다리라』라고 아울러 일렀다.

이로써 전날 「공격 중지명령」에 包藏된 그의 意中の 一端을 엿볼수 있으니, 당시 사단장은 예비 병력이 없음을 감안한 결과, 먼저 제26연대 正面(首都고지)을 수습한 다음에 제1기갑연대 정면(指形능선)의 회복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제26연대장 鄭 震 대령은 전날 저녁에 제1연대의 제2대대가 새로이 △663 부근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날 연대의 제11중대와 제1연대의 제1대대를 龍湖洞으로 다시 뽑아 내려 부대를 정비케 하였다.

이에 同 제11중대는 04.50에 ㉠의 차단진지를 제10중대 - 전날 同 중대와 함께 △663로 추진된 - 1개 소대 가운데 2개 분대에 인계하고 07.40에 龍湖洞에 집결하였으며, 제1연대의 제1대대도 그 뒤를 이어 08.50에 ㉡의 예비진지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09.30에 龍湖洞에 집결하였다.

연대장은 다시 13.15에, 그동안에 戰列을 대강 수습한 제1연대의 제1대대에서 제2중대(장, 데리 趙柄奎 중위 : 중대장 片窟萬 대위의 부상으로 대대본부중대장에서 轉補)를 연대의 제1대대(장, 金文植 대위) 예비로 轉用키로 하고 15.00에 同 대대의 예비진지(㉢)로 뽑아 돌려 主抵抗線의 右一線을 補強함으로써 이의 防守를 보장케 하였다. 그런 然後에 그는 사단장의 「공격재개」명령에 따라 首都 고지에 대한 회복공격을 준비 하였는데, 이번에는 新銳인 제1연대의 제2대대로써 목표를 攻略케 하되, 연대의 제3대대 일부 병력으로써 △621를 陽攻토록 하여 敵의 注意力을 견제키로 作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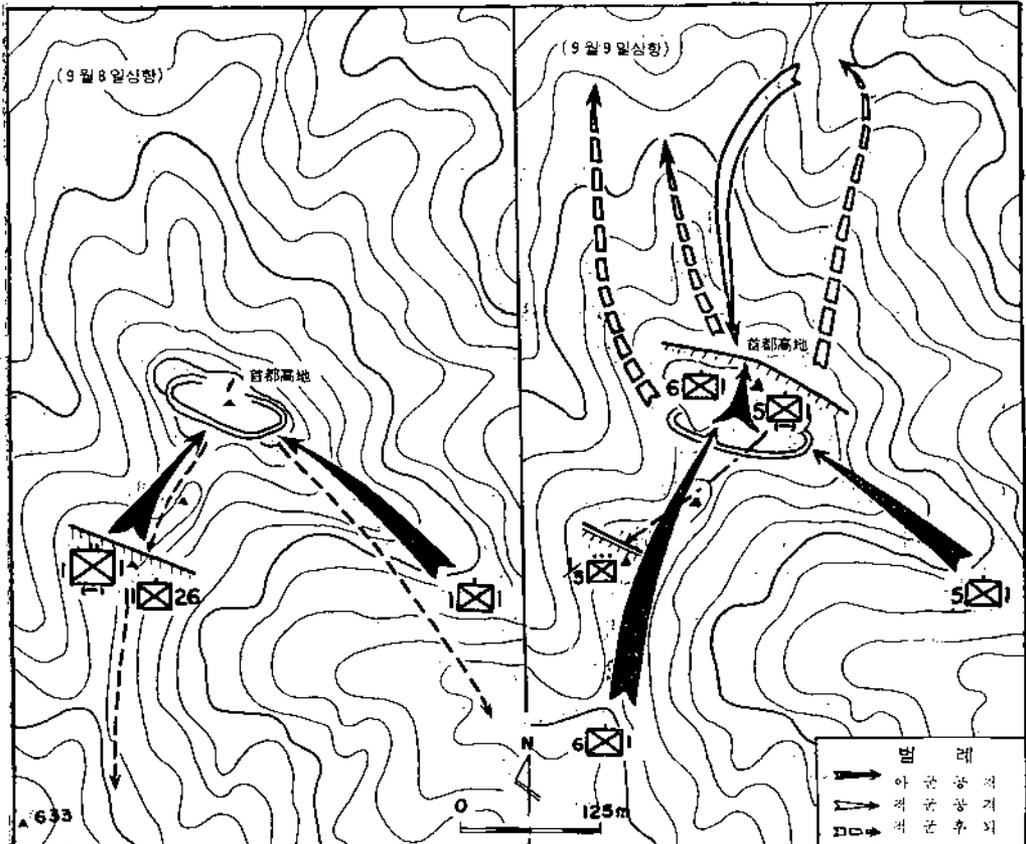
나) 이에, 지난 8일에도 한 차례 이 首都고지 탈환전에서 武名을 떨친 바 있는 제1연대의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다시금 이 고지 탈환의 임무를 부여 받아, △663의 OP

를 제1대대로부터 인수하고, 17.30에 龍湖洞 北쪽의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를 먼저 기동케 하여, 19.00에 ㉠으로 뺏아올려 그곳에 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19.30을 前後하여 ㉠의 제5, 제6 兩 중대를 △663의 제26연대 제5중대의 主抵抗線으로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5중대(장, 朴基宗 중위 : 대대 보급관에서 8. 18에 金元贊 대위와 交代)는 19.50에 △663 東쪽의 제26연대의 제1, 제2 兩대대의 制限點 부근에, 그리고 제6중대(장, 李鍾七 중위)는 19.30에 ㉡ 南쪽의 正面에 각각 전개하였다.

대대는 또한 제8중대(장, 金壽元 대위)의 重火器를 제26연대의 제12중대(장, 대리 李德和 중위)와 함께 △663의 OP 부근에 배치하여, 상호협조 아래 공격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공격 태세에 만전을 期하였다.

한편, 이 보다 앞서 同 제2대대의 首都고지 攻擊間에 △621에 대한 陽攻의 임무를 맡겨진 제26연대의 제3대대(장, 金壽成 소령)는 15.10에 龍湖洞에서 戰列을 정비중인 제10중대에서 다시 1개 소대를 뺏아, △663 西쪽(△621 南쪽)의 제7중대(장, 李益植 대위)의 경계진지(㉢)로 추진 하였다가, 이로 하여금 18.40을 期하여 그 北쪽의 △621를 공격케 하였다.

◇ 상황도 제24호 9월 8일~9일 수도고지 상황



이리하여 同 소대가 18.30에 ㉔고지에서 그 前方의 聽音경계조 진지로 나아가, 18.40에 그 西쪽의 指形능선 너머로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621를 목표로 그 正面의 제2대대(장, 李善浩 소령)의 砲火力을 집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陽攻을 策하니, 예측한 바와 같이 敵은 여기로 공격의 主攻이 지향된 것으로 誤算한 듯, 그들의 火力을 집중하여 소대의 進攻을 妨害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소대가 △621 南쪽 능선에서 虛張聲勢로 敵의 注意力을 견제하여 敵火를 吸引하는 가운데, 19.40부터 사단지원의 全 포병이 射向東을 同時 集中하여 軍단의 지원화력과 함께 △748 부근의 敵陣을 강타하는 한편으로, 座首洞 계곡의 박격포 진지를 撲滅함으로써 首都고지에 대한 그들의 掩護火網을 除去하면서 主抵抗線의 直射火器를 고지 정상에 集注하여 그곳 敵의 退로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 틈을 타서, 공격 主力인 제1연대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20.00를 期하여 제5중대를 右 제1선으로 삼아 접근로 V를 따라 목표고지의 東南쪽을 急襲케 하고, 제6중대를 左 제1선으로 삼아 ㉕—首都고지 정면으로 直衝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의 兩 공격중대는 목표고지의 左右에서 포격중에 躍又躍으로 敵前에 있는 突擊線으로 육박한 다음, 21.10에 지원화기의 射程이 延伸되는 즉시로 號角의 돌격신호에 따라, 제5중대의 先任將校인 襄在洙 소위가 진두 지휘하는 同 중대의 제1, 제2 兩소대를 先頭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한 결과, 기어코 敵陣에 돌입하여 白兵戰을 벌인 끝에 저항하는 敵을 총점으로 모조리 屠戮하고 마침내 頂上을 席捲하게 되었는데, 이때 열아흐레의 半月이 東天에 낮게 떠서 戰場을 스산히 비추어 바야흐로 子正이 가까웠음을 알렸으니, 그 동안 정상에서는 2시간 가까이 龍攘虎搏으로 劍閃이 亂舞하고 怒號가 交叉되었던 것이다.

이어 제5중대는 제1, 제2 兩소대 가운데 일부병력으로써 座首洞 계곡까지 敗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케 하면서 頂上의 일부 참호 속에서 발악하는 殘敵을 剔抉하는 一方, 제3소대를 ㉖에 배치하여 縱深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제6중대는 頂上을 東西로 싸안아 馬蹄形의 진지를 急編하여 敵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리하여 이 고지를 빼앗긴지 4일만에 대대의 손으로 다시 찾게 되었는데, 미처 戰場을 정리할 겨를이 없어 血流가 狼藉한 交通線 속에 累積된 敵屍를 일일히 헤아리지 못 하였으나, 대충잡아 240여명의 敵이 射殺되고 420여명이 또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推算되었다.

그런데 이날의 공격에서, 대대의 손실은 戰死 5명에 負傷 11명이었으니, 이로써 分析컨대 敵은 종일 我軍의 항공폭격과 포격으로 增員과 보급이 여의치 못하여 焦燥한 가운데 再編의 여유를 얻지 못함으로써 疲勞가 겹치게 된 탓으로, 戰鬪를 잃은 나머지 대대의 新銳一刀에 그들 蹶列이 일거에 兩斷을 당하고 말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621로의 陽攻으로서 敵火誘導의 任務를 다한 제26연대 제10중대의 陽攻소대는 首都고지 정상에서 목표 탈환의 信號彈이 오르는 것을 보고, 23.30에 ㉔고지로 철수하여 그곳의 제5중대 경계소대와 함께 徹夜하였는데, 여기에서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同소대를 포함하여 연대(제1연대 제2대대分 제외)는 이날 모두 戰死 6(2/4)명과 負傷 29(2/27)명의 損失을 보았다.

2. 指形稜線의 狀況

이날,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는 전날의 사단장 명령에 따라, ㉔고지에 대한 공격을 中止한 채, 01.00에 제1대대의 제2, 제3 兩중대를 △645의 예비진지로 집결케 하고 △612의 제3대대 OP를 改修하는 등, 부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26연대의 首都고지 攻路의 推移를 지켜 보았다.

9월 10일 : 사단장 李龍文 준장은 전날밤에 제26연대가 배속 제1연대 제2대대로써 首都高地의 회복공격에 성공을 거두자 이로써 勝機를 잡았다고 판단한 결과, 이날 아침 06.00에 作指 제78호를 하달하여 07.00부로 제1연대의 제1대대(제26연대에 配屬中)를 原復措置한 다음, 이를 다시 사단에비로 확보하는 가운데 지체없이 指形稜線의 ㉔고지를 攻路기로 決心하고, 군단에 戰車 지원을 要請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2.00부 軍단作指 제31호에 의거, 제6사단을 지원중인 제52전차중대(장, 金太數 소령 : 8.26부로 金東馥 소령과 交代)의 제2소대를 14.00부로 配屬 받아, 이를 사단 作指 제79호(9.10.12.00부)로써 즉시 제1기갑연대에 再配屬하여 同 연대의 打擊力을 증강하였는데, 이에 아울러 지난 8일에 李鵬植 중령의 負傷으로 말미암아 空席이던 同 연대의 제1대대장에 사단 대전차공격대대장인 朴正瑞중령을 轉補하였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전날밤 23.20에 首都高地를 掌中에 넣은 제1연대의 제2대대(제5, 제6 兩중대)는 敵攻이 必至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지의 방어 태세를 더욱 굳히면서 敵을 기다렸는데, 03.00에 奇襲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一전날 밤의 一戰에서 殘命을 불허 潰走한 兵力이 糾合된 듯 一座首洞의 無名고지㉔ 西쪽 계곡에 어린 달빛을 등지고 소리없이 나타나는 것을, 접근로 I의 下麓에 배치된 경계조가 이를 看破하고 포격을 誘導하였다. 이에 汝文里의 제55포병대대(장, 李孝成 소령)에서 105mm 곡사포가 불시에 일제히 咆哮하여 계곡을 火力으로 차단하니, 그 敵은 그들의 기도가 폭로 되었음을 깨달았음인지 황급히 高地 뒷쪽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이어 시간이 흐르기를 2시간, 05.20에 △748 上空에 敵의 신호탄이 어지러이 치솟더니, 座首洞 계곡에 敵 1개 중대 규모가 다시 나타나, 例의 熾盛한 砲火의 엄호아래 首都高地의 北麓에 붙은 다음 頂上으로 달려 들었다.

이리하여 高地 정상에 또 한 차례 血火가 피어 나가는 실계 腥風이 회오리치게 되었는데

데, 敵의 공격이 집요하여 陣前 30여m 까지 육박하게 됨으로써, 彼我が 鐵火를 교환하는 가운데 수류탄을 亂投하는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敵도 결국은 頂上을 굳게 지킨 내대원의 不退轉의 沈意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06.10에 그들의 強占企圖가 朝曦의 草露와 같이 스러지는 바 되고 말았다.

이에 敵은 그들의 사체와 兵仗을 내버린 채 허둥지둥 座首洞 계곡 너머로 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로써 여기의 攻守가 逆轉케 되고 또한 敵의 역습마저도 一蹴하여 고지를 支撐하게 됨으로써 사단장으로 하여금 指形능선 攻略에 自信을 굳히게 하였거니와 낮동안 포병과 航空의 엄호아래 障地工事를 실시하여 전지의 強度를 더 하면서 戰場을 정리한 결과, 이 一夜의 攻守兩戰에서 대대는 사살 236명에 나발총 27정과 蘇式소총 14정 그리고 騎兵銃 1정과 수류탄 115발을 鹵獲하는 戰果를 확신했다.

나) 다시 날이 저물어, 대대의 제5, 제6 兩 중대는 20.30부터 敵侵에 대비하여 首都高地의 진지 일부를 再編하였는데 21.10이 되자, 夜襲의 前奏인 양 敵의 포격이 시작되어 요란한 轟音속에 포탄을 고지 정상에 集注하는 것이었다.

이어, 各色의 신호탄이 △748 上空에 번갈아 輝煌하게 빛나더니, 座首洞의 ㉠고지 부근에 2개 중대 규모의 中共兵이 漆黑의 夜暗속에 거도를 비익하면서 공격隊形으로 伍列을 전개한 다음 一 달 뜨기 전의 夜暗을 이용하여 急襲을 노린 듯 一 개 중대 규모는 그들의 右一線으로서 ㉠의 西쪽 정면에서 首都고지의 西쪽계곡(△663—座首洞道路)으로 숨어 들고, 1개 중대 규모는 그 左一線으로서 접근로 Ⅱ와 Ⅳ를 따라 고지의 3방향을 에워싼 形勢를 취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고지의 內대원은 달이 뜨는 時刻인 22.20을 前後 하여서야 고지 北斜面의 山腹에서 敵이 그들 자신의 깃 그림자를 밝으면서 치달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金永吉 소령은 22.30에, 예비인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를 ㉠으로부터 △663로 뽑아 올려 23.00부터 同 主陣地에서 出擊태세로 待機케 하면서, 敵이 이미 너무 近接한 까닭에 포병으로서의 지원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火器중대(장, 金壽元 대위)의 81mm 박격포와 각 중대의 60mm 박격포만으로 首都고지 東北斜面의 陣前에 火網을 急編하여 이의 決死固守를 다짐하였는데, 23.20부터 그 제1선진지에 肉迫한 敵과 激戰이 突發되었다.

敵은 그들의 右一線 중대로써 首都고지 西쪽 계곡을 깊숙히 파고 들어, 고지와 △663(主陣地)와의 通路인 咽喉部(△663—首都고지 능선上의 ㉡)를 차단함으로써 고지로의 증원과 퇴로 봉쇄의 二重效果를 노리는 한편 그 左一線 중대로써 고지의 東北쪽 접근로 Ⅱ와 Ⅳ를 따라 直衝突破를 試圖키로 한 듯, 子正이 가까워지면서 포화가 더욱 氣勢를 올리는 가운데, 그들의 右一線중대가 고지의 西南쪽으로 깊숙히 돌아, ㉡의 제5중대 제3소대의 阻止를 무릅쓰고 ㉡에서 砲과리를 치는 바 되었다.

이리하여, 腹背挾擊을 당한 꼴이 된 고지 정상에 제5, 제6 兩중대에서는 전날 밤의 고지탈환에 殊勲을 세운 바 있는 제5중대의 선임장교 裴在洙소위와 제1소대장 柳在良소위가 敵의 수류탄으로 戰死하고, 제6중대의 소대장인 李壽鳳소위가 부상을 입는 등 병력손실이 急增하여, 子正을 넘어서자 점차 非勢에 몰려 고지 一角을 失守하는 危機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다음 날인 11일 00.20에 △663의 제7중대를 ㉠고지로 추진하여, 그곳의 제3중대 제5소대와 교대케 한 다음 이로 하여금 능선을 돌파하여 고지의 제5, 제6 兩중대를 赴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는 △663에서 北쪽으로 능선을 따라 ㉠고지로 급히 내달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에 버티고 서서 哮囉를 연달아 불어대는 敵의 熾烈한 저항으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이 시간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때 연대(제1연대)의 연락장교로서 △663 정상의 제2대대 OP에서 戰況을 파악하여, “새말”의 CP에 있는 연대장 朴春植 대령에게 보고 하던 安益鎭소위가 이와같은 危局을 보다 못하여, 제7중대의 소대장을 自願하여 제1소대를 지휘케 된 바, 安소위가 선두에서 수류탄을 던져 돌격로를 여는 一方, 雷聲같은 호령으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의 敵中을 꿰뚫고 달려 나아가, 首都고지의 제5, 제6 兩중대를 赴援함으로써 百尺竿頭에 선 兩중대의 危急을 막아 내었다.

이리하여 대대의 3개 중대가 一心하여 子正을 넘기고 오래지 않아, 月夜의 狂風一陣을 제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는 敵死 30명에 負傷 55명이라는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다) 한편, 전날 △621를 陽攻한 제26연대 제10중대의 1개 소대는 이날 07.30에 제7중대의 경계진지(㉢)를 떠나 08.00에 龍湖洞에 집결하여 중대주력과 舍營케 되었는데, 이날 사단으로부터 充員된 新兵 147명으로 缺員을 補充하여 戰力을 整備케 되었다.

라) 그리고 이날 아침의 사단作指 제78호에 따라, 07.00부로 제26연대로부터 配屬 해제된 제1연대의 제1대대(장, 대리 田耕潤 대위)는 09.15에 廣大谷에 집결하여, 8일의 首都고지 탈환전에서 부상을 입은 제4중대장 沈相鎬대위의 後任으로 梁靑雄대위가 임명되는 가운데 사단예비로 轉換되어 指形능선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2. 指形稜線의 狀況

가)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중령은, 이날 새벽의 首都고지 攻防戰 결과로 이제 그곳에서는 수습 단계에 들어 갔다고 판단한 사단장의 決心에 따라 一 상황에 따라서는 사단예비(제1연대의 제1, 제3 兩대대) 가운데 일부의 지원이 可能하다는 前提下에 一 중일 戰列을 補強하여 이날 밤에 指形능선의 ㉣고지 탈환공격을 再開키로 하였는데, 이 공격에 임한 연대장의 腹案은 대체로 이리하였다.

먼저 공격개시 시간을 20.30으로 잡고, 이날 14.00부로 배속 받은 제52전차중대의 제2

소대를 연대장 統制下에 제9중대(장, 張翰珠 중위)의 主抵抗線에 투입하여, 목표에 대한 직접사격으로써 공격을 지원케 하는 가운데 제1대대로써 전날 밤 首都고지 탈환전에서와 같이 ㉔고지에 急襲을 加하되, 제2대대의 일부 병력으로 ㉑-㉒-㉓능선 일대에 陽攻을 併行하여 敵의 火力을 分散키로 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신임대대장 朴正瑞중령 지휘아래, △606(敎室里 西北쪽 15km)에서 계속 연대의 예비로 남아 있던 제1중대(장, 禹相德 대위)를 Missouri線 左一線인 연대 수색중대 진지(㉕부근)로 추진하여 낮 중으로 공격 준비를 마무리 지은 다음, 同중대의 2개 소대와 새로 정비된 제2중대(장, 河相喆 대위)의 1개 소대로써 공격 일선으로 삼아 목표 ㉔고지의 左右를 협공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중대는 1개 소대를 수색중대 진지에 그대로 남겨 둔채 18.00에 LD인 ㉔고지로 약진하여, 主力으로서 곧장 능선을 돌파함으로써 ㉔의 西南쪽 정면을 直衝키로 하였으며, 제2중대의 1개 소대는 능선 南麓의 中腹을 타고 내달아 ㉔의 南쪽을 협격키로 하여 이 역시 18.00에 △645(△606 東쪽 800m)에서 LD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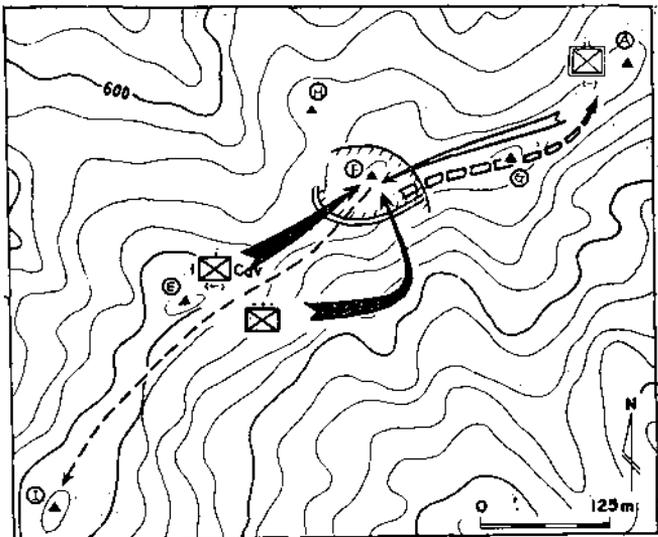
이들은 20.00에 LD에 집결을 끝내고, 제2중대의 1개 소대를 右로, 제1중대(-)를 左로 展開하여 出擊 신호를 기다렸다가, 20.30에 LD를 박차고 漆黑의 어둠 속에 劍鬪이 가리키는 各自의 목표를 指向하여 치달려 나아갔다.

공격중대가 서로 先頭를 다투어 敵의 火網을 돌파하고, 공격개시 10분만에 목표 ㉔고지의 敵前 돌격거리에 육박한 바, 이와 같은 急襲이 奏効 하였음인지 敵의 포화는 如前히 熾烈하였으나 고지의 敵 저항이 意外로 가벼워, 鎧袖一觸으로 일거에 敵陣을 석권하여 마침내 頂上을 되 찾았는데, 이 때가 21.00로 공격을 시작하지 미처 半時刻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상황도 제25호 9월 10일 ㉔고지 상황

이에 공격중대는 즉시 고지에 방어진지를 급편 하였는데, ㉔로부터 工兵資材를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진지공사를 실시하려는 21.50에 ㉑고지 쪽에서 능선을 타고 들이닥친 2개 중대 규모의 敵의 역습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30여분 동안이나 서로 수류탄을 주고 받는 血戰이 다시 벌어지게 된 결과 ㉔와 ㉔고지 사이의 綫上에 3,000여발의 敵 포탄이 집중



되어, 그곳에 火海를 이루어 놓은 까닭으로 ㉑로의 증원병력의 投入이 如意치 못한다다가, 당초 공격에서 제2중대의 1개 소대를 지휘하여 高地 정상에 올랐던 중대장 河相詰 대위가 부상하는 등, 戰況이 勢不利로 急轉하여 22.00에 고지를 또 한번 敵手에 넘겨 주게 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즉각 역습을 재개하려 하였으나, 이 무렵 首都고지에 대한 敵의 攻奪企圖가 다시 들어 났으므로 그쪽에서의 決勝을 먼저 차지하기로 한 사단장의 措置에 따라, 더 이상의 공격을 단념하고 포격으로 ㉑고지 부근의 敵을 견제하면서 22.35에 제1, 제2 兩중대 병력을 제5중대 진지(㉑)로 反轉시켜 後圖를 策하기로 하였는데, 제2중대장에는 제3대대 본부중대장인 李聖堧대위가 轉補되고, 제3중대장(李基水 대위 9.8부상)에는 朴奎吉대위가 새로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대대는 이날의 一進一退에서 戰死 1명과 負傷 36명의 손실을 보았는데, 戰果는 확인된 바 없으나 敵 70여명을 殺傷 하였을 것으로 推算되었다.

나) 한편, 이날 제2대대(장, 朴翹均 중령)는 제1대대의 ㉑ 攻略에 앞서, △575의 제6중대(장, 李義守 대위)로 하여금 ㉑-㉒-㉓능선으로 陽攻을 실시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同 중대는 14.00에 1개 소대를 뽑아 東北쪽의 ㉑고지 쪽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여기로의 공격 위력을 보이게 한 바, 15.40에 ㉑를 거쳐 ㉒고지에서 1개 소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여 날이 저물도록 그곳에서 敵의 注意力을 견제하다가 제1, 제2 兩중대가 목표 ㉑를 手中에 넣은 다음인 21.30에 그곳을 철수하여 22.15에 △575의 중대 진지로 反轉하였다.

그리고 이에 아울러 제7중대(장, 李在根 대위)에서도 이날 밤 1개 소대로써 ㉑-㉒-㉓능선 南麓의 계곡 일대를 누비게 하여 제6중대의 ㉑고지 陽攻의 聲威를 한층 돋구게 하였는데, 이들도 21.10에 그들 진지로 복귀하였다.

3. 사단장의 措置

그런데, 이날 밤 首都고지에 敵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자,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22.00에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에게 緊急命令(作指 제80호)을 下達하되, 『연대의 수색중대와 1개대대(-)를 제26연대에 배속하라. 수색중대는 明 11일 00.01까지, 그리고 1개 대대(-)는 同日 08.00까지 조치완료를 要한다.』라고 하고, 아울러 제26연대장 鄭 震 대령에게는 이를 現在 배속중인 제1연대 제2대대장의 작전지휘下에 두어, 首都고지를 확보토록 嚴命하였으니,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이 首都고지의 安定 優先에 대한 初志를 一貫하려는 決意를 다시 한번 굳힌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제1연대장은 연대 CP를 경계중인 제21수색중대(장, 韋鶴松 대위)와 午前中에 廣大谷에 집결하여 指形능선 공격을 증원키로 한 제1대대(장, 대위 田耕潤 대위)를 다시 뽑아 제26연대에 배속키로 하였는데, 이때 제3대대는 編制水準을 유지하는 사단의 마지막 예비인만큼 사단장의 手裡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까닭이리라.

9월 11일 : 사단은 이날 제2보충대대로부터 新兵 250명을 補充 받은 바 있으나, 首都고지에서 再燃된 妖火의 鎮壓에 專力한 나머지, 指形능선의 ㉠고지 탈환은 뒷날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제1연대의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00.40에 ㉠고지로 추진된 제7중대의 主力인 제2, 제3 兩소대로써 ㉠고지 일대에서 右往左往 하는 — 앞서의 제1소대의 突破로 말미암아 그들 진지를 貫通당하여 戰列이 支離滅裂된 — 殘敵을 剔抉토록 하여, 首都고지로의 通路를 확보케 하였다.

한편, 이러한 동안에도 首都고지의 정상에는 敵의 포탄이 간단없이 쏟아져, 敵이 한 차례의 罨杯를 마셨음에도 不拘하고 決코 이에 대한 占奪기도를 단념치 않았음을 알수 있었는데, 03.10이 되자 한 줄기 소낙비와 함께 敵의 역습이 再燃되었다. 그리하여 접근로 I 과 III, 그리고 IV의 세 방향으로 각각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猪突의으로 달려 들게 됨으로써 또 一幕의 雨中流血劇을 보게 되었는데, 敵이 始終 손실을 돌보지 않고 정상으로의 돌격만을 反復한 까닭으로, 급기야 障地一角에서 白兵格鬪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金永吉소령은 05.00에 ㉠부근의 제7중대 主力을 고지로 추진하여 제5, 제6 兩중대를 增援케 하니, 同 중대(-)가 그곳(㉠)을 떠난 直後인 05.15에 敵 1개 중대 규모가 다시 그곳에 나타나 首都고지의 背後(㉠)를 襲격하러 하였는데, 이는 首都고지의 정면에서 격전을 벌이는 사이에 그 西쪽 계곡으로 侵透한 敵 일부가 ㉠부근에서 흩어진 殘兵을 수습하여, 당초의 그들 계획대로 고지에 대한 포위 태세를 굳히려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하여, 고지는 前後 左右에서의 被포위 형세에 빠져, 제5중대장 朴基宗중위가 陣歿하는 등, 苦戰相을 보이게 되어 頂上에서 彼我が 그 어느 쪽도 主人이라 할수 없이 한 데 뒤섞여 덩구는 가운데 어느 덧 날을 밝히게 되었다.

나) 首都고지에서 이와같이 亂戰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전날 밤에 긴급히 하달된 사단作指 제80호에 따라 제26연대를 지원케 된 제1연대의 수색중대는 00.40부로 제26연대 장의 작전지휘 아래 들어가, 首都고지의 제1연대 제2대대를 赴援케 되었다. 중대는 01.00에 “새말”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소낙비가 쏟아지는 夜暗을 무릅쓰고 車輛機動으로 廣大谷—登大里—龍湖洞을 거쳐, 04.00에 △663 南斜面の ㉡에 집결한 다음 05.00에 △663로 나서게 되었다.

이에 제2대대의 副대대장 겸 作戰官인 黃斗淵 대위가 同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06.20에 고지를 怒濤와 같이 휩쓸어 亂戰中の 고지 정상으로 밀고 들어가, 快刀亂麻로 불과 10분만에 고지에서의 雌雄을 가름하였다.

이리하여, 前後 9시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激戰이 06.30에 마침내 敵의 潰退로 끝났는데, 이 결과 고지에서 敵 射殺 200명과 LMG 1정 및 다발총 1정을 鹵獲하는 戰果를 확인한 반면, 제2대대에서 戰死 28명에 負傷 24명, 그리고 제21수색중대에서 戰死 11명에 負傷 33명의 손실을 보았음이 밝혀졌다.

이에, 제2대대장 金永吉소령은 대대 主力이 그간의 계속된 전투로 말미암아 戰力에 적지 않은 減退를 보았음을 勘索하여 이를 수색중대와 交代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색중대는 09.00에 고지의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여 10.00에 3개소대로써 정상에 馬蹄形의 진지를 재편하였으며, 대대의 제5, 제6 兩 중대는 12.40에 △663 東南쪽 (㉠ 東쪽) 제곡에, 그리고 제7중대는 당초의 집결지(龍湖洞 北쪽 1km)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케 되었다.

다) 한편, 역시 전날 밤의 사단作指 제80호에 따라, 이날 08.00부로 제26연대에 다시 배속된 제1연대의 제1대대(장, 대리 田耕潤 대위)는 제3중대와 제1중대의 1개소대로써 首都고지를 확보중인 제2대대를 지원케 하였는데, 이들은 09.00부로 제2대대장의 작전지휘 下에 廣大谷에서 차량기동으로 11.30에 △663 南斜面의 ㉠으로 집결하였다.

19.00에 제2대대장 명령에 따라 제3중대(장, 李應龍 대위)는 제2소대를 제1중대의 1개소대와 함께 대대 예비로서 ㉠의 예비진지에 계속 控置하는 가운데 제1, 제3 兩소대를 ㉠으로 추진한 다음, 제1소대를 △663—수도고지 능선 西쪽의 제곡쪽에, 제3소대는 東쪽의 제곡쪽에 左右로 配置하여 散兵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夜暗을 이용, 수류탄과 彈藥을 보급 받아 고지정상의 수색중대와 함께 敵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이날 밤에는 敵의 夜襲이 없었으나, 終日 終夜로 제26연대정면에 27,700여발의 敵 포탄이 炸裂하였다고 집계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같은 力量을 가진 敵이 여기의 強奪기도를 단념하였다고는 速斷할 수 없었다.

2. 指形稜線의 狀況

이날 제1기갑연대는 敵이 ㉠고지에 대한 연대의 공격을 견제하려는 듯, 연대정면에 퍼부은 20,000여발의 敵포탄으로 말미암아 날이 저물도록 진지가 온통 濃濃한 黑煙에 뒤덮인 가운데 戰列을 정비하면서 首都고지의 戰況이 好轉되기만을 기다렸다.

9월 12일: 이날 제26연대(장, 鄭 震 대령) 정면의 中共 제104연대는 그간 首都고지 爭奪에서 打撃을 입은 그 戰列을 정비하는 듯 首都고지에 대한 더 이상의 挑發이 없어, 사단 前線이 모처럼의 靜寂속에서 한 낮을 보내었다.

左右一線 연대에 집계된 敵 포탄의 落彈數를 보면 제26연대 정면에 190여발, 그리고 제1기갑연대 정면에 340여발로서 그들 포병의 氣勢도 한결 衰殘한 느낌이었으나, 未久에 首都고지에 대한 敵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제1연대 제2대대장은 △663 南斜面의 ㉠에 控置중인 제1중대(장, 대리 趙柄奎 중위) 1개소대를 다시 首都고지로 추진하여

오히려 그곳의 방어력 증강을 圖謀하였는데, 이에 同 소대는 高地 東쪽의 접근로 Ⅳ와 Ⅴ 정면을 맡고, 수색중대의 일부는 北쪽의 접근로 Ⅱ와 Ⅲ을, 다른 일부는 접근로 Ⅰ정면을 각각 담당키로 하되, ㉠의 제3중대(장, 李應龍 대위)로써 역습부대로 活用키로 하였다.

한편, 指形능선 정면에서는 지원포병단의 交代 관제로 이에 대한 공격을 다음 날로 猶豫키로 하였는데, 이날 군단의 손 포병을 管掌中인 美 제5포병단(장, Richard W. Mayo 대령)이 作命 제28호를 하달하여, 同 포병단에 작전배속되어 교육중인 제6야전포병단(장, 대리 尹承國 중령)과 현재 首都사단을 지원중인 제2야전포병단(장, 대리 張庚石 중령)의 임무를 交代트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야전포병단(제53, 제55포병대대)은 이날중으로 그 임무와 전지를 제6야전포병단에 인계하고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高城부근으로 轉進하였으며, 제6야전포병단은 이날부로 제10포병대대를 작전배속 받아 18.00부로 제2포병단의 전지를 인수함으로써 首都사단을 지원케 되었는데, 同 포병단은 제10포병대대(장, 金雲漢 소령, 9.1 진급)로써 계속 제1기갑연대를, 제61포병대대(장, 金水山 소령)로써 제26연대를 각각 직접지원케 하고, 제60포병대대(장, 朴斗連 대위)로써 사단을 일반지원케 하여, 指形능선의 공격지원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이 戰列再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해가 西쪽으로 기울어 17.00가 되자, 敵砲가 다시 고개를 쳐들어 首都고지 일대에 烈火를 쏘기 시작하였다.

이에, 首都고지를 확보중인 제1연대의 제2대대장은 이것을 敵의 공격 徵候로 판단하고 ㉠부근의 제3중대로 하여금 稜線 左右의 계곡 於口까지 멀리 경계조를 潛伏케 하여 敵情을 살피게 하였는데, 子正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9월 13일: 이날 사단은 제26연대에 배속된 제1연대의 제2대대가 계속 右肩인 首都고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이날 새벽에 左肩인 指形능선의 ㉡고지에 대한 恢復공격을 또 한 차례 試圖한 바 있으나, 이를 미리 예상한 듯 이보다 먼저 首都고지로 敵의 공격이 들어 닥쳐 또 다시 一進一退의 攻防戰만을 되풀이 하게 되었다.

1. 首都高地의 狀況

전날 子正을 넘기고, 스무나홀의 下弦달이 東山에 비스듬히 솟아오른지 1시간이 되었을 까, 01.15에 敵陣(△748) 上空에 신호탄 1발의 綠色 火片이 紛飛하더니, 이윽고 首都고지의 西北쪽 正面을 담당한 제21수색중대(장, 韋鶴松 대위) 陣前에 있는 潛伏경계조로부터 『敵 出現』이 急報되었다.

이어, 座首洞 계곡에서 접근로 Ⅰ과 Ⅱ, 그리고 고지 東쪽의 Ⅳ 정면으로 각각 1개소대 규모가 몰려들어 02.00부터 三面挾擊의 형세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접근로 Ⅰ쪽의 수색중대가 이를 맞아 먼저 격돌케 되었다.

敵이 △748와 △714(△748 西北쪽 800m)의 西南麓에 配置된 數挺의 重機지원下에 집요

하게 陣前 접근을 시도하였으므로, 02.50에 대대장 金永吉소령은 ㉠부근의 제3중대(-)에서 다시 1개소대를 뽑아 首都고지 정상 西便의 수색중대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는데, 敵도 이에 뒤질세라 1개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증원병력이 後續하면서 고지 左右의 側方(접근로 I의 西쪽과 II쪽)으로 1개중대씩 증강되었다.

이리하여 高地의 7부 능선까지 육박한 敵과 激戰이 苛烈化되었다.

敵의 主攻이 지향된 듯 한 수색중대의 정면에서는 敵이 陣前 20여m까지 肉迫하여 이들과 수류탄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진지 일부가 돌파되어 敵이 陣內로 뚫어들기도 하였다.

이에 중대장 韋鶴松 대위의 진두지휘아래 陣內에 돌입한 敵과 서로 부등켜 안고 구르는 混戰格鬪를 벌인 끝에 刺殺과 打殺로 이들을 모조리 撲滅하고 侵攻 제1과를 물리쳤다.

그러자 右側의 접근로 IV정면의 제1중대(1개소대) 진지에서도 이와같은 白兵血戰이 곧 눈앞에 닥치게 되었다.

대대장 金永吉소령은 이에 다시 ㉡에 控置中인 제3중대의 제2소대를 마저 뽑아 고지로 추진하여 東便의 同 제1중대를 지원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동안인 03.30에 △748에서 綠色신호탄 2발이 떠 올라 그들 敵의 돌격을 재촉하는 듯, 同 △748부근의 敵 진지에서 기관총을 비롯한 各種 직사화기가 돌격지원사격을 실시하여 고지 정상에 鐵片과 熱焰을 쏟아 놓은 다음, 이어 그들의 돌격이 개시되었다. 이때 敵은 그들의 돌격威勢를 誇示하려는 듯이 저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매고, 팽과리를 치며 또 胡笛을 불면서 접근로 I과 II, 그리고 IV의 3방향에서 일제히 陣前으로 달려 들었다.

이에 고지의 수색중대와 제1중대 병력은 여린 달빛 아래 더욱 돋보이는 흰수건을 標의 삼아 수류탄을 그들 頭上에 炸裂시키면서 陣內에 뛰어드는 敵兵을 銃劍으로 막아내었는데, 이와 같은 紛戰이 계속중인 04.30에 제3중대 제2소대가 △663를 거쳐 증원차 當到하여, 그 銳氣로써 오히려 敵前으로 무찔러 나아가니 雙方의 지원포화도 중단되고, 오직 照明이 戰場을 대낮 같이 밝히는 가운데 흰수건이 紛紛히 흩어지는 肉薄對決만이 있을 뿐인 修羅의 一場이 전개되었다.

잠시 後, 고지정상의 兵士들은 陣前에 즐비하게 늘린 흰 수건을 보게 되었는데, 이에 용기백배하여 일제히 銃劍을 고쳐잡고 진지를 박차면서 달려나가 서로 合勢하여 左衝右突로 내려치니, 敵은 이 氣勢에 당황한 듯 守勢에 몰리다가 먼동이 트는 05.30에는 급기야 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果敢하게 追殺함으로써 마침내 이 敵을 座首洞 계곡 깊숙히로 격퇴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지의 병력 일부가 敵을 追擊하는 가운데, 제1선의 戰列을 수습한 수색중대장 韋鶴松대위가 頂上에 위치한 중대 OP에 돌아오니, 여기서 狼狽를 보고 홀어진 무리의 일부인 듯 한 中共兵 30여명이 OP를 奇襲한 바 있어, 때마침 通信兵과 傳令兵 10여명 밖에 없었던 OP要員과 배아닌 激突을 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이 침착하게 본부요원

을 지휘하여, 先頭에서 수류탄을 던지자 그 敵도 더 견딜 수 없었던지 四散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迂餘曲折 끝에 08.00에 追擊을 멈추고 頂上으로 反轉한 병력과 함께 진지를 改修하여 敵의 역습에 대비하는 일방으로 戰場을 整理한 결과, 敵이 遺棄한 시체 150具와 함께 捕虜 2명을 얻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여기에 60여명은 더 射殺되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이날의 血戰에서 수색중대와 제1대대(-)는 都合 戰死 10(2/8)명과 負傷 125(4/121)명의 손실을 보았으며, 제26연대에서도 主抵抗線 진지에 7,500발의 敵 포탄이 집중되어 이로 말미암아 6명이 戰死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손실을 본 바 있다.

2. 指形稜線의 狀況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는 支援砲兵의 戰列이 정비되는 대로 제1대대를 再次 공격일선으로 삼아 指形능선의 ㉞고지 탈환에 나서기로 한 바, 공격개시시간을 이날 03.30으로 協調하였다.

이에 제1대대장 朴正瑞중령은 10일에 ㉞고지의 정상에 올라 서 본 적이 있는 제1중대의 전열을 보강하여, 이로 하여금 예비진지(△645)에서 대기중인 제3중대와 함께 다시 한번 ㉞고지의 敵과 雌雄을 決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미 兩 중대는 전날 낮에 제20수색중대의 主抵抗線의 ㉠고지(△690 西南쪽 400m)로 추진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제1중대(장, 禹相德 대위)는 전날 23.30에 ㉠고지에서 기동을 시작하여 이날 02.20에 ㉞고지의 西麓(LD)에 主力을 모두 전개하였으며, 제3중대(장, 朴奉吉 대위)는 전날 23.00에 기동하여 1개소대를 ㉠고지(제5중대 OP부근)에 예비로 남겨둔채 2개소대를 02.10에 그(㉠고지) 東南麓(LD)에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右隣接의 제26연대정면(首都高地)에서 다시 戰火의 再然을 보게된 탓으로 여기로의 병력증원과 화력지원이 充分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는지라 그 初志를 一貫하여 03.30에 예정된 공격을 強行키로 하였다.

따라서 제3중대는 右 제1선으로서 ㉞-㉞능선의 南麓 中腹을, 그리고 제1중대는 左 제1선이 되어 능선 北麓의 허리를 따라 同時に 공격을 시작케 되었는데, 이번에는 능선의 정면을 피하고, 능선을 양 옆으로 감싼 형세로 나아가다가 ㉞의 左右인 ㉞와 ㉞쪽으로 각각 迂回하여 협격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兩 중대는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않고 敵前 15m까지 육박하여 『돌격!』의 함성도 우렁차게 일제히 陣內로 突入함으로써 1개중대 규모의 敵과 白兵戰을 벌이면서 左右에서 정상을 향하여 醜虜屠戮의 발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던 중, 04.50에 이르러 ㉞고지쪽으로부터 1개중대규모의 敵이 增援됨으로써, 제1중대장 禹相德 대위가 부상을 입고 제3중대 제1소대장인 文一權 소위가 戰死하는 등 形勢가 突變하게 되었다.

이에 兩 중대는 각각 8부능선으로 물러나 또 한 차례의 돌격을 試圖하였으나, 끝내 뜻

을 이루지 못하고 06.00에 ㉠고지로 反轉하였다가 11.15에는 執室里에 墜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연대의 예비였던 제1대대가 圖謀한 前後 5차에 걸친 恢復攻擊도 모두 無爲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날의 공격전에서 대대는 射殺 15명의 戰果를 확인한 반면 戰死 3명에 負傷 32명, 그리고 失蹤 23명의 손실을 보았다.

3. 사단장의 措置

이날 새벽 제1기갑연대의 ㉠고지에 대한 공격은 결과적으로 首都고지 방어에 一役을 맡는 바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 李龍文 준장은 이날 아침에 제1연대의 수색중대와 제1대대가 敵의 역습을 격퇴함으로써 首都고지의 固守沈意를 한층 굳히게 되자, 이제 여기에서는 감히 더 이상 挑發치는 窺할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指形능선 攻路에 專念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군단장에게 稟申하되, 『1개대대만 예비로서 확보하게 되면, 사단의 全力으로써 指形능선(㉠고지)을 회복코자 함』이라고 하여, 首都高地 확보에 있어서의 「萬若」의 事態를 대비한 예비병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군단장 劉載興 중장은 지난 7일의 예비조치(군단작지 제30호)에 一貫하여 10.00부의 要旨 다음과 같은 軍단 作指 제32호로써 이를 快諾하였다. 『① 제3사단의 일부병력을 首都사단의 제26연대 地域에 墜結시키려 한다.

② 제3사단장은 제18연대의 1개대대를 속 13일 16.00까지 登大里 부근에 墜結시키되, 즉시 제26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투參加준비를 同 16.00까지 完了케 하라.

③ 該 병력의 지휘권은 제3사단장에게 있으며, 전투참가는 軍단장의 命에 依한다.』 이리하여 軍단 예비로서 대기중이던 제18연대의 제1대대(장, 宋榮鎭 소령)가 급히 金城川을 건너 登大里에 墜結케 되었거니와, 이렇듯 軍단장이 제18연대의 1개대대로써 제26연대를 지원케 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이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軍단은 예비로 제52연대(장, 金安一 대령)를 확보중이었으나, 이는 新編 부대로서 아직 훈련중인데다가 여기의 地形에 生疎한 까닭으로 萬若의 경우 首都고지에의 역습부대로서나 사단 예비로서의 重任을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 제3사단의 예비인 제18연대의 일부병력을 抽出키로 한 듯 하니, 여기에는 窺해 이루어져 있어서 제3사단은 接敵 상황이 비교적 가벼워 小康狀態를 持續하였으므로 그 예비대의 轉用이 가능하고, 둘째로 제26연대와는 最短距離에 隣接하여 適時의 支援이 容易하며, 셋째로 다른 어느 부대보다도 現地 지형에 익숙하다는 利點을 살리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如何든, 이와같이 軍단으로부터 예비병력의 확보조치가 이루어지자, 사단장은 13.00에 小城洞 부근에 控置中인 제1연대의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를 제1기갑연대의 수색중대 主抵抗線 南쪽 側 — 제107重박격포중대전지 부근 — 으로 추진함으로써, 그간에 계속 예비로 溫存하였던 이 제3대대로써 指形능선(㉠고지)의 恢復을 도모키로 하였으니, 18.00에 下達한 作戰指示 제81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예비대로서 無名高地(목표㉔)를 탈환하려 한다.

② 제1연대는

㉑ 9. 13. 20. 00부로 제107重박격포중대(-)와 제52전차중대 제2소대를 통합지휘하여 목표를 공격, 이를 점령하라.

㉒ 9. 14. 08. 00부로 제1기갑연대의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1기갑연대는

㉑ 9. 14. 08. 00부로 1개대대(-)를 제1연대에 배속하라.

㉒ 9. 13. 20. 00부로 제107重박격포중대(-)와 제52전차중대 제2소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④ 제26연대[제1연대의 제1대대(-), 제2대대, 제21수색중대 및 제107重박격포중대 제3소대 배속]는 現 임무를 계속 遂行하라.

⑤ 제107重박격포중대(-)와 제52전차중대 제2소대는 現 위치에서 제1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⑥ 공격개시 15분전에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 있을 것이다.

⑦ 공격개시시간은 9. 14. 04. 00이다.

⑧ 지휘소는 계속 注波里에 위치한다.』

9월 14일 : 사단은 右一線에서 제26연대가 首都고지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左一線에서는 제1연대(-)가 제1기갑연대를 초월하여 指形능선의 ㉔고지 탈환공격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이날 申泰英 국방부장관이 radio 放送을 통하여, 『首都고지 방어전에서 보여 준, 首都사단의 勇戰은 臨陣無退의 傳統과 花郎精神의 結實이었으며, 그 功勳은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要旨의 談話를 발표함으로써 사단의 戰功을 찬양한 바 있으니, 실제로 首都고지에서는 전날로서 血戰의 고비를 넘긴 셈이었다.

1. 제1연대장 朴贊兢대령은 전날 15. 20에 △606 西北쪽 1km의 계곡(제107重박격포중대 전지부근)으로 추진된 제3대대에 ㉔고지 공격임무를 부여하여 同 대대가 공격준비를 갖추는 동안에 연대 전방지휘소를 同 대대의 OP와 함께 제20수색중대 主抵抗線의 ㉑고지(㉑고지 西南쪽 300m)로 推進한 다음, 사단 作指 제81호에 따라 제1기갑연대로부터 그 제1대대(제3중대 缺)를 배속 받기로 하고, 同 대대로 하여금 배속 예정시간인 이날 08. 00까지 현재의 同 대대 OP(㉑고지)부근에 主力을 집결하여 공격참가 준비를 완료토록 협조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연대장이 主抵抗線에 나서서 공격을 陣頭지휘하는 가운데 01. 30에 집결지로부터 △690로 진출하였는데, 이때 대대장은 제11중대(장, 申聖局 중위 : 9. 7에 대리 金榮浩 중위와 교대)를 그곳에 예비로 控置하고, 제9, 제10 兩 중대를 LD인 ㉑고지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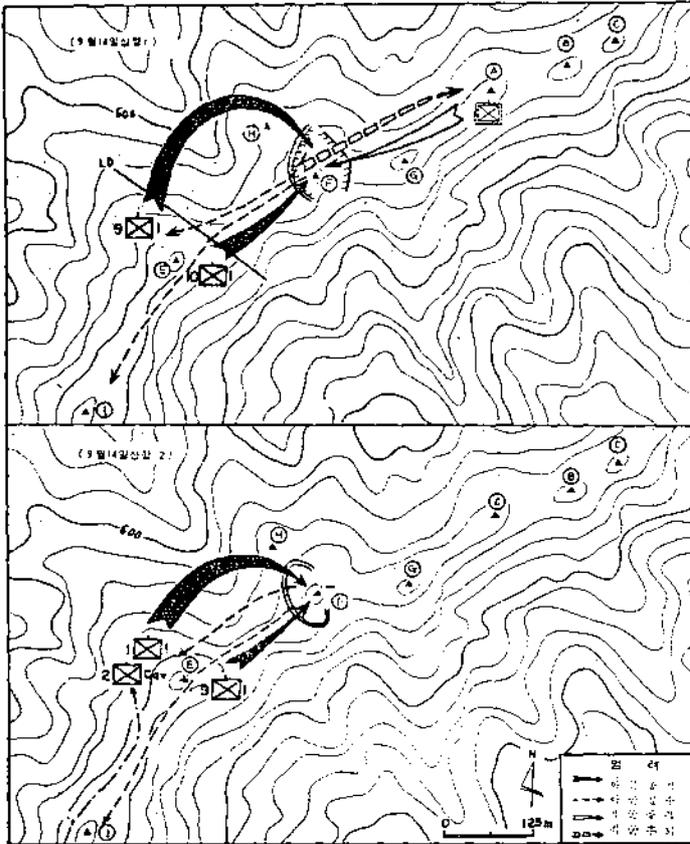
이에 제10중대(장, 張奎錫 대위 : 7. 31에 沈相鎬 대위와 交代)를 右 제1선으로, 제9중대

(장, 黃龍活 대위)를 左 제1선으로 전개한 대대(-)는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는 03.55에 일제히 LD에서 躍出하여 敵의 포화를 헤치고 躍又躍으로 나아갔는데, 제10중대는 능선을 따라 ㉔의 西南쪽 正面을 直衝하고, 제9중대는 능선 西麓을 따라 併進하여 ㉔고지쪽으로 迂回함으로써 목표 ㉔고지의 西北쪽을 襲격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지원포병의 사격이 계속되어 彼我的 포탄이 간단없이 炸裂케 됨으로써 不夜城을 이루게 된 능선의 黃塵 속을 1시간 동안이나 누빈 끝에 05.00를 前後하여 목표점상의 敵前 돌격선까지 육박한 다음 포병의 射程延伸을 요청하였는데, 이와같이 砲擊中에 敵陣으로 육박하는 것이 兵戰의 恒例이며 또한 中共兵의 慣用手法이었으나, 이번에는 대대가 이를 効用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05.10에 지원포병의 射程延伸에 屬接하여 제9, 제10 兩 중대가 일제히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陣內의 敵과 백병전을 벌인 결과, 05.25에 기어코 고지의 頂上을 席捲케 되었다.

◇상황도 제26호 9월 14일 ㉔고지상황



그런데 兩 중대가 미처 목표점령의 信號를 보낼 겨를도 없이 曙天을 뒤흔드는 敵 포화속에서 진지재편에 착수하여 工事를 실시하던 중인 07.00에, ㉔고지쪽으로부터 들이닥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棒狀수류탄을 휘둘러 일으킨 腥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되었는데, 뒤이어 능선의 北쪽 제곡쪽으로 迂回하여 고지의 北쪽 기슭을 襲격한 數곳을 알수 없는 일단의 狂波가 이에 겹쳐 30여분 동안 白兵對決을 보게 된 바, 끝내 이 敵勢를 감당 할 수 없어 07.40에 정상에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2. 이에 연대장은 포병의 制壓射擊을 요청하여 敵

火를 屏息케 하는 가운데, 08.00에 작전지휘下에 들게 된 제1기갑연대 제1대대(-)의 제2중대(장, 李聖勳 대위)를 급히 ㉔고지로 뽑아 올려 이를 연대의 제3대대에 배속시킨 다음, 그곳에서 수습된 同 대대로 하여금 이 중대와 습勢하여 다시 한번 공격을 敢行토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앞서 목표 ㉔에 대한 正面直衝을 감행하였던 제10중대를 ㉑고지로 뽑아내려 戰列을 정비케 하고, 이번에는 제9중대(장, 黃龍活 대위)를 정면에 내세워 다시금 정면직충의 기세를 보이게 하는 한편, △690에 控置중인 제11중대(장, 申聖局 중위)와 제1기갑연대의 제2중대를 左側方으로 迂回케 함으로써 主力을 그 쪽으로 指向토록 하여 高地의 西北쪽을 強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08.15에 ㉔고지를 LD로 삼아 3개 중대가 목표 ㉔로 한 달음에 躍進하여, 08.30에는 다시 정상의 敵前 돌격선에 육박코 돌격의 好機를 노렸으나, 敵의 수류탄과 박격포탄 그리고 자동화기가 빈틈없는 火網을 이루어 놓은 까닭으로 敵線들과가 如意치 않았다.

이때 ㉑쪽으로 迂回하여 ㉔의 정상을 西北쪽에서 南으로 거슬러 오른 공격 主力의 先頭에 섰던 제11중대는 ㉑고지 쪽으로부터의 側射를 받아 敵의 30~40m 앞에서 釘着됨으로써 進退維谷의 窮地에 빠져 死傷者의 속출만을 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申聖局 중위가 毅然히 陣頭로 달려나가 부상당한 병사의 MI 소총을 집어 들고 『앞으로!』라는 호령과 함께 先頭에서 敵陣으로 몸을 날림으로써 一瞬 주춤하였던 중대원의 士氣를 일깨워 突擊케 하였는데, 그 순간 敵의 수류탄 1발이 面前에 炸裂하여 얼굴과 목부분에 破片傷을 입고 쓰러지는 바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장이 쓰러진 채 계속 『앞으로!』라는 호령을 되풀이하여 중대원의 敵線들과를 재촉한 바, 중대 선임장교인 金榮浩 중위가 대신 선두에 나서 중대를 지휘하여 敵陣으로 돌진케 되었다.

그리하여 정녕코 阿修羅와 같이 일어 선 金중위는 수류탄 1발을 멀리 던져 그의 앞을 가로 막은 散兵據속의 敵兵 3명을 空中에 날려 버리고, 이어 다시 1발로써 4명을 爆殺시켜 無人之境으로 進路를 헤쳤는데, 이때 다른 掩蓋據속에서 수류탄 1발이 그의 곁에 굴러 떨어져 이에 致命傷을 입고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곧 몸을 일으켜 나머지 수류탄 1발을 가시 死力을 다하여 그 敵據의 銃眼속으로 投入하여, 둔탁한 폭음과 함께 黑煙이 銃眼밖으로 뭉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한가닥 미소를 머금은 채 고요히 눈을 감으니 嗚呼라, 이것이 스물세살난 金陵(慶北)의 젊은이가 보여 준, 武夫의 壯烈한 최후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捨身敢鬪도 끝내 無爲로 돌아가, 정상석권의 뜻을 펴지 못하고,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공격중대는 11.20에 각각의 敵線에서 離脫하여 11.40에 제9중대는 ㉑고지로, 제11중대와 제1기갑연대의 제2중대는 ㉔고지로 反轉케 되었으니, 이는 대대장 朴贊兢중령이 勝算없는 싸움에서 出血만 강요당하는 셈이라고 판단하였던 까닭이었는데,

실제로 이날의 몇시간 戰鬪에서 공격에 참가한 3개 중대에서 戰死 60명과 負傷 79명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대대의 戰果로는 俘虜 7명을 얻은 것 뿐이었으나, 고지정상을 점령하였다면 그곳에서 100여구의 敵屍를 헤아릴 수 있었을 것으로 推算되었다.

3. 한편, 이 동안 ㉔고지 부근의 제1기갑연대 제1중대(장, 高永彌 중위: 禹相德대위의 부상으로 이날부로 新任)는 09.20에 기동을 시작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690에 집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前線(㉔고지)의 상황이 急轉直下함에 따라 그곳에 머물면서 戰力을 강화케 되었다.

이리하여 新統로 自負한 제1연대 제3대대의 역습마저 이렇듯 실패로 돌아가자,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全幅的인 부대 再 정비로서 먼저 戰列을 刷新한 다음에 이에 대한 공격을 再興키로 斷案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제1연대는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당분간 敵의 動態를 지켜보면서 그 反應을 살피기로 方針을 정하였는데, 午後부터 항공폭격과 지원포격으로 고지의 敵을 擱伏케 하는 한편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즉, 제9중대는 15.00에 ㉑고지를 떠나 19.00에 △690를 거쳐 20.50에 △606에 집결하였으며, 제10중대와 제11중대도 각각 ㉑와 ㉔고지에서 19.00에 행동을 개시하여, 20.50에 △606에 집결함으로써 대대가 一束으로 休息과 部隊再編에 專念케 되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의 제2중대는 이보다 먼저인 13.00에 ㉔고지를 출발하여 15.30에 △690에 집결하는 즉시로 전열정비에 착수하였다.

9월 15일~17일: 14일 午後에 指形능선 ㉔고지에 대한 공격을 다시 中止한 뒤로, 首都 고지쪽의 敵 挑發與否에 대하여 關心을 집중한 가운데 이날(14일)밤을 새웠으나, 별다른 徵候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사단장은 이와같은 交綏상태를 이용하여 前線병력의 충분한 휴식과 再編으로 戰力을 充實히 보강한 然後에 攻擊을 再興키로 作定한 바에 따라, 우선 戰列 재편을 위하여 15일 12.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82호를 하달하였다.

『㉑ 제1연대는

㉒ 9.15. 15.00부로 연대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라.

㉓ 9.18. 10.00부로 제26연대에 배속중인 제2대대를 통합지휘하라.

㉔ 배속중인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를 9.18. 17.00부로 현 위치에서 배속을 해제하고 이를 原復措置하라.

㉕ 제26연대는

㉖ 9.15. 15.00부로 제1연대 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 중대는 同日時까지 小城洞里에 집결시키라.

㉒ 9. 18. 10. 00부로 제1연대 제2대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同 대대를 同日時까지 汶文 里에 집결시키라.

㉓ 제1기갑연대는 9. 18. 17. 00부로 제1대대(-)를 통합지휘하라.』

이와같은 전열재편은 제18연대의 제1대대(장, 宋榮鎭 소령)가 首都고지의 확보를 保障한다는 前提下에 可用한 戰力을 모두 이 指形稜線에 집중키 위한 措置였는데, 16일에는 제2보충대대로 부터 新兵 500名을 인수하여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의 前線 中대의 缺員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17일에 사단장이 관계참모 및 제1, 제1기갑연대장과 더불어 指形稜線 회복을 위한 ㉑고지의 공격계획을 熟議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協調된 계획의 大要는 다음과 같다.

『① 공격부대는 제1연대의 제3대대와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로 하되, 攻撃間 작전지휘권은 계속 제1연대장에게 부여한다.

② 공격 方式은 兩個 대대를 同時에 投入하되, 공격기도를 秘匿하기 위하여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지 않는다.

③ 포병은 목표를 精確한 다음의 遮斷사격을 主로하여 敵의 역습 阻止에 置重한다.

④ 공격間, 火力지원은 戰車와 自隊 박격포가 이를 담당한다.

⑤ 공격부대는 防禦編成上 ㉑고지의 敵까지도 剔抉을 뜻한다.

⑥ 공격개시시간은 9. 18. 03. 00으로 定한다.

⑦ LD는 ㉑고지 防禦線 先端으로 하되, LD에의 展開는 공격개시 1시간 前까지 完了한다.』

이에 따라 이날(17일) 23. 00에 공격부대인 제1연대 제3대대와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는 집결지에서 다시 ㉑고지로 기동하였다.

9월 18일: 이날 사단은 指形稜線의 ㉑고지에서 當面의 中共 제101, 제105 兩연대와 의 一戰 끝에 드디어 이를 다시 手中에 차지하고야 말았는데, 敵 제105연대는 지난달 初에 제101연대에 그 戰線을 引계하고 예비로 빠져 該간 부대를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기의 제101연대의 戰力이 바닥 나 더 버틸 餘力이 無게 된 까닭으로, 이날을 前後하여 여기에 다시 投入된 것으로 밝혀졌다.

1.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恒例대로 포병의 擾亂사격이 漆黑暗夜의 前線을 뒤흔드는 가운데, 예정된 02. 30까지 공격대대의 LD 展開를 끝내었는데, 이때 연대장은 연대 제3대대의 2개 中대와 제1기갑연대의 1개 中대를 공격主力으로 삼아 목표 ㉑의 正面과 左右 挾撃의 3면 공격태세를 취하게 하고, 同 제3대대의 1개 中대와 제1기갑연대의 1개 中대는 各 예비로, 그리고 同 連대의 나머지 1개 中대는 공격부대를 후속하면서 공격을 지원케 하였다

이에 連대의 제3대대장 朴贊兢 中령은 14일의 激戰에서 中대장이 부상을 당한 바 있는 제11中대를 예비로서 ㉑고지에 대기케 하는 가운데 제9, 제10 兩 中대를 공격1선으로 삼아

LD에 추진하였는데, 제10중대의 2개소대로써 목표 ㉔고지의 南麓에 右제1선으로, 同중대의 1개소대와 제1기갑연대 제1중대를 ㉔고지 정면의 능선위에 中央제1선으로, 그리고 제9중대를 ㉔—㉕능선의 西北麓에 左제1선으로 전개하였으니, 右제1선인 제10중대(一)가 목표 ㉔고지의 東南쪽을 迂回하여 ㉔고지를 먼저 略取함으로써 ㉔의 背面에서 ㉔고지와의 通路를 차단하여 敵의 增援手段을 분쇄하면 正面과 西北쪽에서 ㉔고지의 敵을 압박하여 ㉔쪽으로 몰아치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공격 일선중대는 03.30에 일제히 各自의 LD를 떠나, 夜暗속을 더듬어 목표를 向하여 나아갔는데, 제10중대(一)는 ㉔고지 南麓에서 山腹을 곧장 치달아 올라 04.35에 ㉔고지의 敵의 警戒要員과 격돌케 되었으며, 제9중대는 그 보다 뒤인 05.05에 목표㉔정상 西北쪽의 曉靄속에서 挑戰의 銃聲을 울리게 되었다.

이어 05.50, 東天이 아주 밝아지면서는 ㉔南쪽과 ㉔西北쪽의 敵陣前 15~20m에서 각각 수류탄을 어지럽게 교환하기에 이르렀으나 敵의 저항이 만만치않아, ㉔고지 北쪽 계곡에서 拋物線을 그리며 쏟아지는 박격포탄과 頂上에서 굴러내리는 수류탄의 爆焰에 앞을 가로 막혀, 손실만 累增되는 가운데 進展없는 膠着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에 右제1선의 제10중대장 張奉錫대위는 이 상태가 持續되면 될수록 死傷者만 더욱 늘 뿐 銳氣가 鈍化되어 끝내는 돌격의 好機마저 놓치게 된다고 판단하자, 즉시 ㉔고지를 攻略중인 중대主力의 진부로 달려나가 亂麻直前의 戰列을 수습하여, 先頭에서 『돌격 앞으로!』를 웨치면서 敵陣으로 뛰어드니, 이를 본 중대원이 저마다 白刃을 뽑아들고 그의 뒤를 따라 突進함으로써 해 뜨는 ㉔고지 정상에서 銃과 劍이 서로 부딪치는 格鬪를 演出케 되었다.

이리하여 10여분동안 或은 劍으로, 或은 맨손으로 치고받는 接戰끝에 마침내 陣内の 敵을 모조리 屠戮하고 06.00를 前後하여 頂上에 올라서서, 東녘 멀리 치솟는 陽光을 바라보며 목표 ㉔점령의 합성을 드높히게 되었다.

한편, 이때 左제1선의 제9중대는 제3소대(장, 崔光皙 소위)를 右側으로, 제2소대(장, 柳源圭 소위)를 左側으로 散開하고 제1소대(장, 朴光秀 소위)를 支撥소대로 삼아 渾身の 힘을 다하여 敵陣突破를 노리었으나, ㉔고지의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쳐 例의 苦戰相을 反復하게 되어 중대원의 士氣가 萎縮된 까닭에 중대장 黃龍活 대위가 先頭에 서서 血路를 열게 되기에 이르렀는데, 고지의 정상 너머로 ㉔고지쪽에서의 목표점령의 환호성을 듣게 되자, 이에 呼應키 위하여 중대장 自身이 수류탄을 뽑아들고 敵陣으로 突進하였다. 그러자 敵의 수류탄 20여발이 同時에 그의 주위에 작열하여 進路를 가로 막았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에 굴함이 없이, 兩손에 들었던 수류탄 2발로써 눈앞의 敵壕 하나를 격파하고 이어 『돌격!』을 호령함과 同時 CAR을 亂射하면서 먼저 敵陣으로 突入하여, 대항하는 敵 5명을 사살하고 陣地一角을 攪亂하였는데, 바로 이 찰라 亂飛하는 수류탄의 파편이 부

상을 입는 바 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의 뒤를 따르던 제2소대장 柳源圭소위가 BAR에 曳光彈을 裝填하여, 이를 敵陣에 집중함으로써 소대원에게 돌격의 목표를 알린 다음 말 없이 敵陣으로 뛰어드니, 이를 본 소대원이 奮然히 일어나, 오히려 그를 앞질러 敵陣으로 달려 들어가 아침햇살에 번득이는 白刃을 매섭게 내리쳐서 마침내 그 一角을 깨고 말았다. 이어 중대는 角에서 隅로 突破口를 확대하였는데, 이에 때마추어 돌격을 감행한 左右의 제1기갑연대 제1대대 병력과 합세하여 縱橫無盡으로 고지를 석권하고, 드디어 정상을 차지하니 이때가 06.30前後였다.

그러자 곧 06.40에 ㉔고지로부터 出擊한 1개소대규모의 敵이 역습을 試圖한 바 있으나, ㉔에 버티고 있던 제10중대(一)의 鐵槌一擊에 격퇴되었다.

이에 ㉔고지의 제9중대는 고지를 제1기갑연대의 제1, 제3兩중대에 맡기고 그 餘勢를 몰아 ㉔에서 潰退하는 敵을 尾擊하여, ㉔고지를 건너뛰고 ㉔고지로 直衝하였다.

그리하여 07.00에는 이것마저 단숨에 손에 넣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정상에 올라 설 사이도 없이 敵의 포화가 집중되는데에다가 또한 ㉔고지로부터의 1개중대규모의 敵의 역습이 들이닥쳐 07.10에 ㉔고지쪽으로 능선을 따라 80여m를 물러나 그곳에 壕를 파고 진지를 急編하여 ㉔의 제10중대와 함께 ㉔고지에서 敵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어 제1기갑연대 제1대대 병력이 모두 ㉔로 추진됨으로써 이 稜線에서 全般的인 진지 재편에 들어가, 제9중대는 午前中에 ㉔ 西北쪽의 ㉔로 轉進하여 ㉔의 제10중대와 더불어 ㉔의 兩肩을 맡아 堅守케 되었는데, 제10중대(一)도 제1기갑연대 제1중대와 함께 ㉔로 隊伍를 같이 하였던 1개소대를 ㉔에 收容하여 그곳의 防禦力을 증강하였다.

이와같이 ㉔를 奪回하는 과정에서 제9, 제10兩중대는 戰死 14명에 부상 96(4/92)명의 손실을 보았는데, 戰果는 자세히 헤아리지 못하여 殺傷 130여명으로 推算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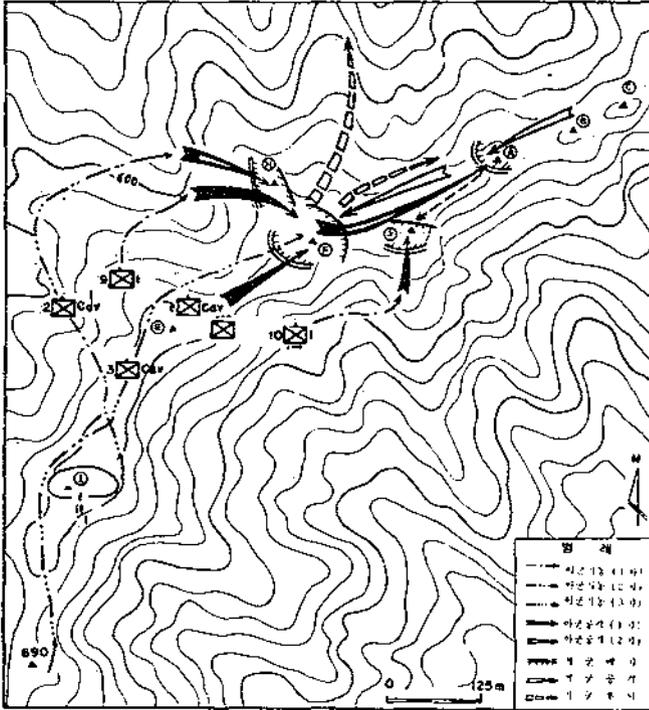
2. 한편, ㉔-㉔稜線의 정면돌파 임무를 부여받은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의 제1대대는 전날 23.00에 집결지인 靛室里에서 출발하여 △690에 進出한 다음, 제3중대(장, 朴奉吉 대위)를 그곳에 예비로 控置한 채 ㉔고지로 前進하여 그곳에 다시 제2중대(장, 李聖禧 대위)를 남겨 敵의 역습에 대비케 하고, 제1중대(장, 高永弼 중위)만을 LD(㉔고지)로 추진하여 제1연대 제10중대의 1개소대와 함께 목표 ㉔의 西南 正面을 急襲케 하였다.

이에 제1중대는 제1연대 제10중대의 소대가 03.30에 먼저 LD를 돌파하여 목표 ㉔의 西 麓山腹에 다달았을 무렵인 04.30에 LD를 뒤로하고 뛰어나갔다.

그리하여 중대는 제1소대를 右로, 제2소대를 左로, 그리고 제3소대를 中央으로 散開하여 LD로부터 高地南麓에 이르는 稜線上의 敵 탄막지대에 이르렀는데, 이 탄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제2, 제3兩소대장 모두 부상을 입게되었다.

이에 중대장이 중대의 先頭로 挺身하여 兩 소대를 직접지휘케 된 바, 이와같은 손실을

◇ 상황도 제27호 9월 18일 ⑥고지 상황



무릅쓰고 목표고지 西北쪽의 제 1연대 제9중대와 同연대의 제 10중대 1개소대 사이로 뚫고 들어갔는데, 중대장 高永弼 중위가 몸소 선두에서 수류탄을 날려 敵의 火力據點을 제압하면서 돌격의 好機를 노렸다. 이러한 동안, 중대장이 四方에서 작열하는 敵의 박격포탄의 파편에 顔面負傷을 입게 되었는데 그는 이에 介意치 않고 눈앞을 가려 淋漓하는 鮮血를 손등으로 씻으며 지휘를 계속하여 몇차례나 돌격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敵의 저항이 결코 가볍지 않아 쉽사리 돌격의 機會를 捕捉할 수 없는 까닭으로

로 수류탄만을 주고받는 血戰을 反復케 되었다.

이에 대대장 朴正瑞 중령은 05.30에 ①의 제2중대를 ⑥로 한 걸음 더 나서게 하여 출격 태세를 갖추게 하고, △690의 제3중대를 ④고지 西北麓의 제7중대(장, 李在根 대위)진자로 뽑아올려, 그곳으로부터 ①-⑥-⑦능선 西北쪽 下麓을 따라 ④로 迂回토록 하여, ⑥ 西北쪽으로의 壓力을 한층 加重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중대는 06.00를 前後하여 제1연대 제9중대의 左側에 展開한 다음, ⑥쪽을 돌파하고 06.30에 同제9중대의 돌격에 때 맞추어, 중대선임장교 兪炳植 중위가 이끄는 제1소대를 先頭로 대대의 右一線인 제1중대의 奮迅突破를 재촉하면서, 怒濤와 같이 敵陣을 휩쓸어 나아갔다.

이리하여 마침내 목표를 확보케 된 제1, 제3兩중대와 제1연대의 제10중대 1개소대는 殘敵을 雙嶺洞계곡쪽으로 멀리 驅逐하고, 敵의 포화가 간단없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진지 공사를 착수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敵의 역습이 곧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07.30에 ⑥의 제2중대마저 ⑦로 추진한 바, 08.00가 되자 문득 敵의 포화가 입을 다물더니 이어 ⑥에서 雙嶺洞계곡쪽으로 潰走한 敵이 어느사이에 그 殘兵을 수습한 듯 1개중대규모로써 ④쪽으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이에 ㉔정상에서 그 正面을 맡고있던 제3중대의 2개소대는 제1소대장의 부상으로 同소대장직을 겸한 선임장교 兪炳植중위의 진두지휘아래, 이 敵과 백병전을 벌여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때 진두에서 左衝右突하던 그의 勇姿가 敵의 狙擊手の 표적이 되어, 敵彈에 散華하고 말았는데 그의 나이는 23세요, 本籍은 서울 西大門區 紅把洞이라 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1연대 제3대대와 함께 진지개편에 들어 가, 12.00 현재 다음과 같이 진지 配備를 완료하였다.

즉, 제1연대의 제9, 제10 兩중대는 ㉔와 ㉓의 兩肩을 맡는 가운데, 제1중대는 ㉔ 頂上에, 제2중대를 ㉔와 ㉓사이의 능선에, 제3중대는 ㉔의 西南斜面(㉓쪽의 능선)에 각각 配置하였는데 이로써 이 稜線일대에 2개대대 병력이 鐵桶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대대의 각 중대별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제1중대	射殺 75명	戰死	0/1명
	捕虜 2명	負傷	0/41명
	鹵獲 다발총 2정, 俄式소총 1정		
	LMG파괴 2정		
제2중대	射殺 29명	負傷	37명
제3중대	射殺 158명	戰死	1/7명
	鹵獲 LMG 1정	負傷	1/28명

3. 한편, 제1연대의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15일의 사단作指 제82호에 따라 이날 10.00부로 제26연대배속에서 原復예정이던 바, 重火器중대인 제8중대를 계속 △663에 남겨 연대의 제1대대(장, 대위 田耕潤 대위)를 지원케 하는 가운데, 07.00에 歩兵중대만 뽑아 △663 南斜面의 ㉑을 출발하여 08.00에 龍湖洞을 거쳐 예정된 시각에 汝文里에 집결함으로써 ㉑의 작전지휘권이 다시 연대장 朴春植대령의 手裡에 들게 되었는데, 이에 연대장은 首都고지 탈환전에서 보여 준 同 대대의 驍勇을 이 指形능선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기로 作定하고, 이 대대에 명령하여 이를 鞞室里 西北쪽의 제107重박격포중대진지 부근으로 轉進토록 하였다.

이에 대대는 사단의 右一線에서 左一線으로 급히 機動하여 13.50에 제1기갑연대의 수색중대 主抵抗線진지 南쪽 계곡에 집결하였다가 이어 15.40에는 연대의 제3대대 OP가 위치한 ㉒고지부근으로 前進한 다음, 16.20부터 중대를 梯次로 指形능선에 投入하였는데, 19.00에 제9중대를 배속받아 ㉔의 제1기갑연대 제1대대진지를 먼저 교대한 뒤에, 제3대대 제10중대의 ㉓고지 진지도 아울러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OP를 ㉑고지에 두고 제5중대를 △690에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6중대를 ㉒에, 제7중대의 2개소대(제1, 제3 兩 소대)를 ㉔에, 그리고 同중대의 제2소대를

㉔에 각각 배비하였는데, 이때 ㉕고지는 계속 제9중대가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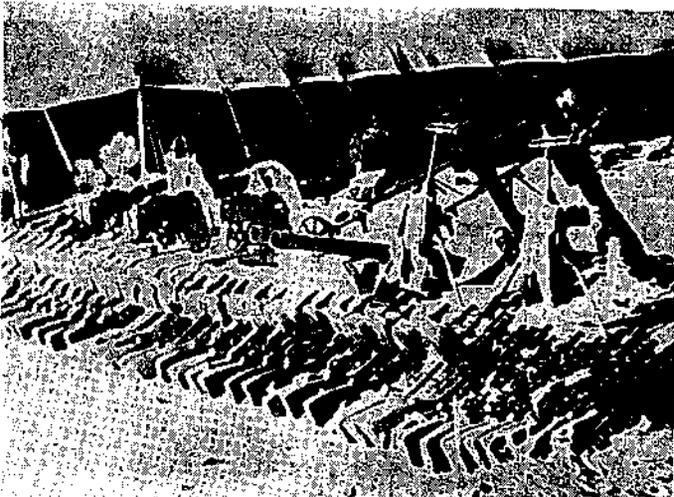
따라서 17.00부로 연대에서 배속해제된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는 18.30에 △690로 轉進하였으며, 연대의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19.20에 각각 진지를 떠나 23.00에 執室里에 접결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가 指形능선에서 새로이 진지를 재편하여, 敵의 역습을 扼腕待機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5에 △747에서 赤色신호탄 1발이 그믐의 夜空을 絢爛케 하더니 敵의 포격이 시작되어 15분동안에 걸쳐 野砲彈 300여발이 ㉕일대에 집중되었다.

이어 1개 중대규모의 敵이 ㉔고지로부터 능선을 타고 西南向하여 ㉕를 공격하려 하다가 ㉔고지의 제7중대 제2소대와, 먼저 격돌케 되었는데, 同소대가 포병지원아래 不退轉의 決意를 보여, 50분만인 21.35에 이를 격퇴하고 달았다.

그러자 21.45에 △747上空에 또 한발의 赤色신호탄이 明滅하더니, 여기의 攻奪野慾을 끝내 버리지 못한 듯이, 그 5분뒤에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이 ㉔고지로부터 稜線의 北麓으로 돌아 ㉕정면으로 再次 공격을 試圖하였는데, 이번에는 陣前에서 수류탄을 交換하는 격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도 22.20에 능선의 北麓기슭으로 격퇴하였다.

그런데 22.50부터 다시 敵이 ㉕부근에 포화를 퍼부어 고지의 대대병사들의 머리를 들 수 없게 하는 사이에, 稜線의 北쪽계곡에서 敵 2개 중대규모가 공격을 또 한번 시작하였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에서 수도사단이 노획한 敵 무기〉

는데 1개 중대규모는 계곡 쪽에서 기어올라 ㉕-㉕쪽으로, 그리고 다른 1개 중대 규모는 ㉔고지에서 ㉕쪽으로 兩面공격을 기도 하였다.

이에 고지의 대대는 主抵抗線의 제1기갑연대의 直射 화기와 포병지원을 받아 또 한 차례 凄絶한 血戰을 전개하여, 그 이튿날인 19일 03.20에 이도 물리침으로써 끝내 고지를 固守하고자 말았다.

(4) 제4차戰(9.23~9.29) —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의 ㉕高地 防禦戰

(가) 작전계획

9월 18일 밤에 敵의 몸부림이 있는 뒤로, 19일 밤과 20일 밤에도 指形능선의 ㉕고지 爭

奪에 대한 執念을 끝내 버리지 못한 듯, 중대규모의 敵이 두차례나 發惡한 바 있었으나 同고지를 嚮守중이던 제1연대의 제7, 제9 兩중대의 鐵槌로써 150여명의 死傷者만을 낸 끝에 潰退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㉞고지에서는 18일 낮을 고비로 사단이 堅守不動의 태세를 확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니, 이날 正午에 林鶴俊의원동 13명의 國會議員團이 사단을 訪問한 바 있는데, 사단장 李龍文준장이 이를 영접하여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에서의 這間의 激戰경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군단에서도 이 兩 고지 전투가 사실상 18일로서 일단락지어졌다고 보고, 6일~14일까지의 戰況을 分析하여 19일에 군단訓令 제12호로 하달하되, 『첫째, 전투間 통신두절이 빈번하였고 둘째, 방어진지의 強度가 低弱하였으며 셋째, 火力의 집중발휘가 불충분 하였』고 問題點을 지적한 다음 그 是正策으로서,

『① 戰鬪間 신호탄 이용과 傳令통신수단의 강구 그리고 通信線의 地下埋設을 철저히 하고

② 陣地의 強度를 한층 강화할 것이며

③ 火力계획을 全面 재검토하라.』

命令함으로써 麾下 全사단의 방어태세를 점검케 하여 以上の 脆弱點을 補完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前線에서는 이 兩 전투를 놓고 局地攻防戰에 있어서의 彼我 爭奪意志의 測定과 戰力의 비교 그리고 戰技의 개발에 試金石으로 삼아 評價분석하고 있는 동안에, 後方의 坊坊曲曲에서는 이 勝戰鼓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 21일에는 李軒求 公報處次長이 UN 記者團을 인솔하고 사단을 방문하여 勝捷譜를 얻고자 하는 등, 이에 대한 弘報活動이 자못 활발하였다. 一지나해 11월 以後, 戰局이 交綏상태에 들어간 뒤로 進展없는 休戰會談에 얽매어 이만큼 규모가 크고 激烈한 전투를 벌이지 못하였으니, 당시에 한결같이 「滅共統一」을 부르짖던 국민의 興望이 어찌하였겠는가? 이는 그 한 斷面을 赤裸裸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京鄕各地에서 국민의 歡呼聲이 드높은 反面 當면의 醜敵이 그들의 擦속에 蟄伏하면서 그 모습을 들어내지 못하는 듯 하였으므로, 사단은 21일부터는 非常태세의 戰列을 즉시 正常化하여 방어태세의 再整備를 도모하였다.

즉, 이날 12.00에 『제1연대는 확보중인 指形능선(㉞고지 일대)진지를 今曰 17.00부터 제1기갑연대에 인계하고, 主力을 執室里와 廣大谷부근으로 집결시켜 부대를 정비케 하라. 제52전차중대 제2소대와 제107重박격포중대(一)는 同日부로 제1기갑연대로 배속을 변경한다.』는 要旨의 作指 제83호를 하달하여 그 제1단계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아울러 作指 제84호로써 제26연대에 명령하기를 『배속중인 제1연대의 2개 重火器중대(제4, 제8중대)를

今日 17.00부로 제1기갑연대에 배속하라. 同연대의 제1대대(一)는 9.23 06.00부로 배속을 해제하되, 同대대는 同日時까지 汝文里로의 집결을 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21일과 23일의 兩日에 확보중이던 指形능선(㉔고지)과 首都고지를 각각 그 原主人인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에 인계하고, 다시 사단 예비로 轉換케 되었는데, 이와같이 하여 사단正面에 일시에 平穩을 되찾는 듯 하게 됨으로써 軍단장 劉毅興 中將도 예비병력 動員의 해제를 發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3일 20.00부로 제26연대를 지원중이던 제3사단 제18연대의 제1대대가 本來의 진지로 복귀되고, 그 대신 그간에 — 8월 5일 06.00부로 — 軍단사령부 經濟임무를 맡고있던 사단 수색중대가 24일 06.00부로 그 임무를 제3사단 병력과 交代하고 사단으로 원복하게 되었다.

사단은 24일 10.00부 作指 제86호로써, 제1기갑연대에 배속중이던 제1연대의 2개 中화기 中대마저 배속을 해제하여 同日 11.00를 期하여 鞏室里로 뽑아내려 그 작전 지휘권을 제1연대장에 歸還시킴으로써 사단의 左右一線을 제26, 제1기갑의 兩연대에 완전히 一任케 하고, 軍단총령 제12호에 따라 火력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一方, 진지를 강화하면서 通信망을 정비하여 戰列을 一新하였다.

이때의 사단 左右一線연대의 진지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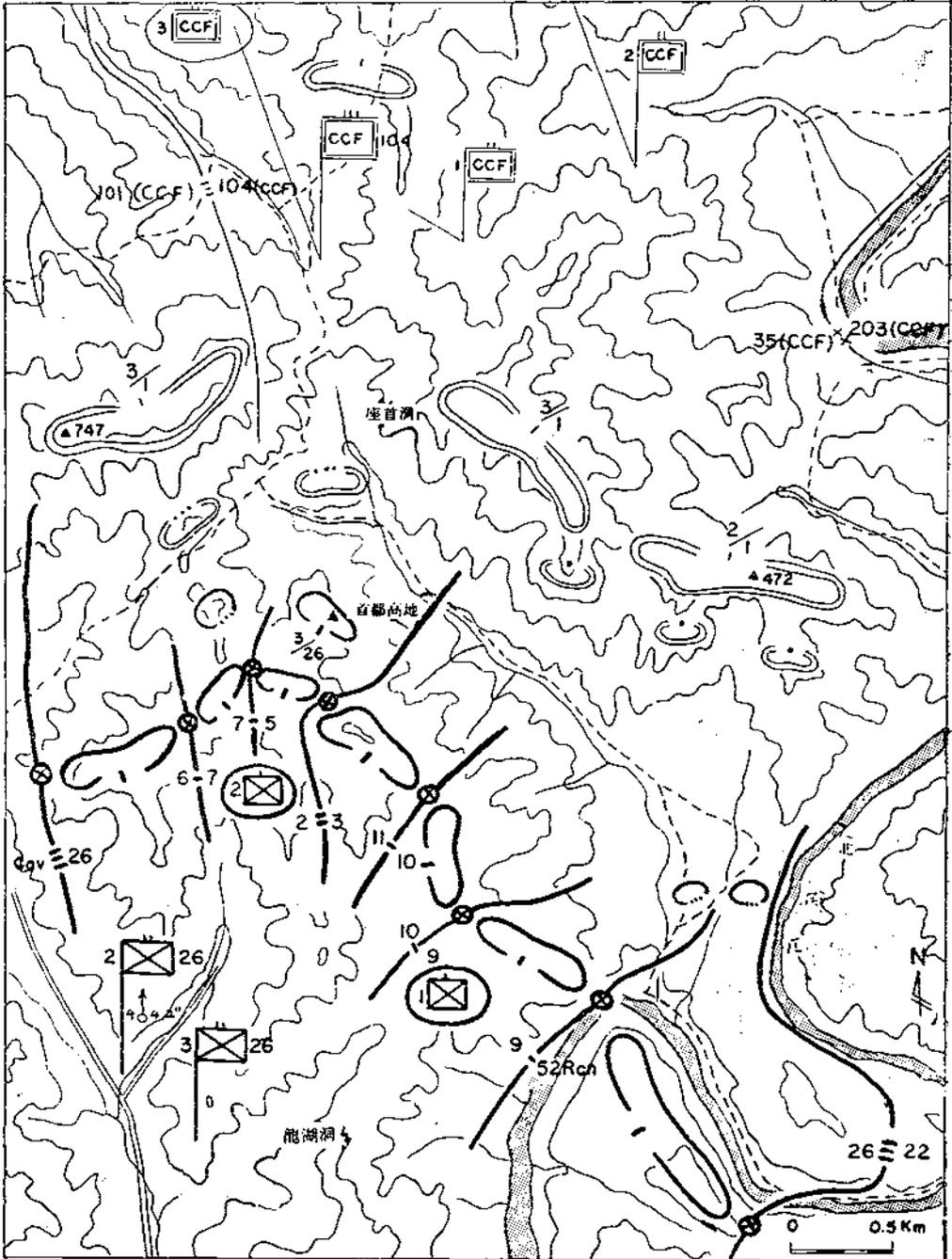
右一線 제26연대는 9월 23일에 제1연대 제1대대(一)의 배속해제와 同時, 연대의 주저항선의 戰列을 개편하였는데, 그간 예비로서 首都고지 회복공격에 참가한 바 있는 제3대대에 제1대대 제1중대와 제53수색중대를 배속시켜 이로 하여금 새로이 연대의 右一線이 되게 하여 Missouri線上에 右로부터 제9, 제10, 제11중대의 순으로 배치하되, 제9중대의 1개 소대로써 北漢江 西岸의 △277경계진지를 아울러 맡게 하였으며, 배속 제1중대를 예비로 확보케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제1대대 제2중대배속)로서 계속 左一線으로 살아 主抵抗線과 首都고지의 방어임무를 담당케 하되, 주저항선에는 제5, 제7, 제6중대의 진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속 제2중대로써 首都고지를 확보토록 하였다.

한편 연대의 右一線에서 예비로 전환된 제1대대는 대대본부만 龍湖洞에 두고, 제1중대를 제3대대의 예비로 배속시켜 同대대의 예비진지인 ㉕에 집결하여 대기케 하고, 제2중대는 제2대대의 首都고지 확보의 重責을 맡게하는 가운데 제3중대를 △663 南斜面의 ㉖에 대기케 하였는데, 火器중대는 △663에서 首都고지의 제2중대를 火力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首都고지의 제2중대(장, 朴純求 대위)는 고지정상주위에 장애물지대를 四重으로 設備함으로써 縱深을 可能한 깊게 한 圓形진지를 마련하여, 제1선의 진지 일각이 무너지더라도 계속 敵을 拒支할 수 있도록 진지공사를 새로이 하는 한편, 潛伏경계조를 활용하여 敵의 공격기도를 早期에 捕捉한 다음 捕獲된 火力으로써 박멸키로 하였다.

◇ 상황도 제28호 제26연대 부대배치현황(9월 28일 현재)



이때 사단의 左一線인 제1기갑연대에서는 9월 21일에 제1연대로부터 指形능선의 진지를 인수하게 된 뒤로도 연대의 右一線은 계속 제3대대가 맡고 Missouri線의 左一線과 指形

능선—△575間의 경계진지도 역시 제2대대(제20수색중대 및 제2중대 배속)가 현 陣容대로 담당키로 하여 커다란 개편은 없었다. 다만 ㉔고지만은 지금까지 Missouri線의 左一線을 맡았던 제20수색중대(제3중대 제1소대 배속)가 이를 새로이 맡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는 제1중대만을 △645—△606진지에 남기고, 제2중대는 제2대대에 배속시킨 바, 同중대는 당초 수색중대가 담당하였던 主抵抗線진지를 맡게 되었으며 이때 제3중대(一)는 제2중대진지의 南斜面의 제107重박적포 진지부근에 집결하여 前線의 戰況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㉔고지의 확보임무를 맡게된 제20수색중대(장, 羅昌云 대위)는 OP를 ㉔에 두고 ㉔와 ㉔에 중대主力을, ㉔에 제3중대 제1소대를 배치하되, ㉔일대에 偽陣地를 설정하여, 그곳이 중대의 主陣地인양 假裝함으로써 敵火를 그곳으로 誘導하는 한편, 敵의 공격 목표를 또한 그 쪽으로 指向케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이같은 중대의 진지편성에 대한 그 眞僞를 알고자 하는 듯이, 몇차례 산발적인 공격을 試圖한 敵을 陣內사격으로 鑿殺하면서 ㉔진지를 堅守 하였는데, 연대장 崔在鴻중령이 이 ㉔고지의 방어임무를 순환교대케 함으로써 戰意를 고르게 하고자 연대作命 제43호로써 28일 子正을 期하여 다음과 같이 진지를 교대토록 하였다.

『① 제3대대의 제11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켜, 이로 하여금 수색중대의 ㉔고지 방어임무를 맡게한다.

② 제11중대의 진지(△612부근)는 제2중대(제2대대에 배속중)가 담당한다.

③ 제2중대의 진지(①—㉔고지일대)는 제5중대가 맡는다.

④ 제5중대의 진지(㉔—①고지일대)는 제1중대가 맡는다.

⑤ 수색중대는 제1중대의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戰列을 정비한다.』

(나) 작전실시

9월 28일 : 이제 사단戰線에는 秋色이 완연하였다. 그러나 그 風趣 간데없고 屍臭만 嗽嗽할 뿐인 首都고지와 指形능선, 碧血로 얼룩진 黃土의 戰場에 이날 敵이 또 한번 공세를 취함으로써, 이른바 「10월공세」의 前奏를 올렸다.

1. 首都高地의 狀況

座首洞계곡에 붉은 夕陽을 드러우는 18.50, 제26연대(장, 鄭 震 대령)의 首都고지에서 는, 敵砲가 산발적으로 고지일대에 집중되면서 이어 계곡 건너 △748南麓에서 그 頂上으로 攀登중인 敵 1개분대 규모를 肉眼으로 捕捉할 수 있어, 敵의 企圖가 실상치않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윽고 어둠이 깃든 20.50에 首都고지의 접근로 I 北端에 매복중인 警戒조로부터 頂上의 제2중대 OP에 보고되기를 座首洞 無名고지 ㉔ 西쪽에 敵 1개분대규모가 나타났다는 것

이었는데, 다시 21.10에는 고지 東쪽의 접근로 Ⅳ의 下端에서 敵 2개 분대가 출현하였다고 飛報되었다.

이에 중대장 朴純求 대위는 敵이 必是 고지 爭奪을 기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第一線 진지의 경제태세를 강화토록하는 한편 통신망을 점점하여 決戰태세를 가다듬었다.

과연 22.15이 되자, 5분동안에 800여발의 敵포탄이 首都고지 정상에 집중되더니 그 10분뒤인 22.25에 △714(△748 西北쪽 800m)의 上空에서 赤色の 敵신호탄 2발이 둔탁한 폭음소리를 내면서 그 火片을 어지러이 飛散케 하였다. 이를 신호로 한 듯, 22.30에 首都고지 北쪽의 접근로 Ⅰ과 東北쪽의 접근로 Ⅲ, 그리고 東쪽의 접근로 Ⅳ의 下端에 각각 1개 소대규모의 敵이 일제히 嘍파리와 피리소리를 울리면서 모습을 들어내어 고지를 탈취코자 三面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당면의 中共 제104연대의 제2대대 제6중대병력인 것으로 뒷날에 밝혀졌다.

22.50에는 사단에서 「만두高地」로 알려진 無名高地(首都고지 東쪽 2.6km)에서 敵의 輕機가 그들의 지원사격에 合勢하는 가운데 23.10까지 首都고지정상에 무려 5,200여발의 포탄을 집중하였다. 이와같이 熱湯洗禮를 퍼붓는 동안, 敵은 고지의 3면에서 山腹의 6부능선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고지의 중대는 陣頭에 나선 중대장의 사격統制下에 動搖치 않고, 敵이 수류탄投擲거리까지 迫頭하기를 기다렸다가 23.35에 중대장의 수류탄 투척명령 一白色신호탄 1발 一에 따라 중대원이 일제히 敵의 頭上에 수류탄을 던져, 白磷의 閃光一輝로 敵 先頭의 돌격 제1파를 殲殺하였다. 이어 돌이닥친 敵의 제2파와는 서로 수류탄을 주고받는 亂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敵砲가 더욱 기승을 부려 이무렵에는 △663의 中樞部 통신이 모두 杜絶되어 포병지원마저 如窓치 않게된 데다가 중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戰況이 惡化一路로 急轉되었다.

이때 연대를 지원중이던 포병 제60대대의 경우는 △663의 관측소에 대기중이던 대대장 朴斗連대위가 직접 관측에 임하고 관측장교 金漢鼎소위로 하여금 無線으로 사격을 지휘토록 하는 가운데 無電兵을 有線복구에 중사토록 하여 通信網의 확보에 死力を 다하였는데, 首都고지 정상에서도 중대장 朴純求 대위가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각기 定位置를 固守하라!』고 외치면서 陣中을 東奔西走하여 중대원을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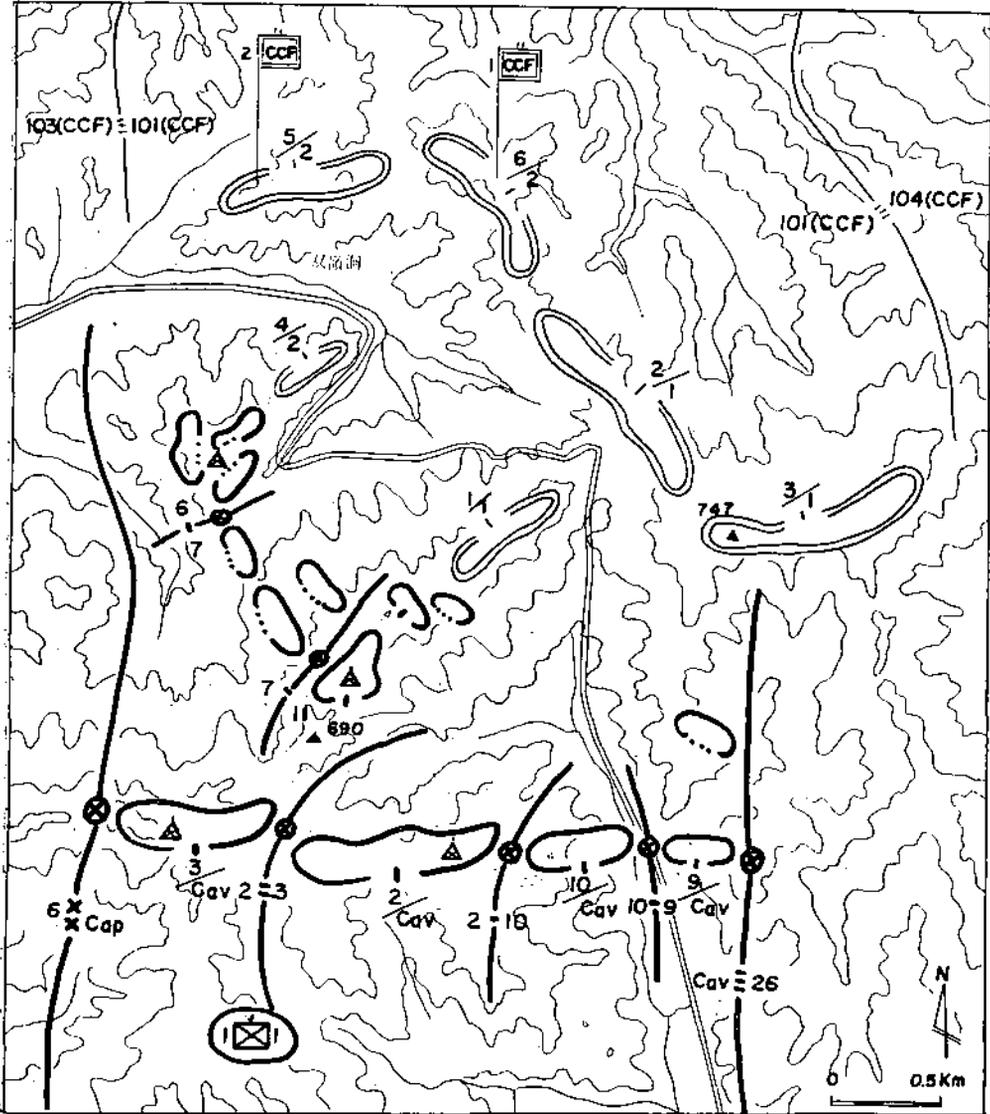
그러나 敵은 損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듯이 계속 그들의 시체를 밟아넘고 執拗하게 肉迫함으로써 子正에 이르러 混戰이 더욱 激化되었다.

2. 指形稜線の 狀況

한편,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는 이날 연대 作命 제43호에 따라 진지교대를 斷行하였다.

18.30에 먼저 제1중대가 ①—⑥의 제5중대 진지를 인수코자 예비진지에서 기동을 시작

◇ 上항도 제29호 제1기갑연대 부대배치현황(9월28일 현재)



하여 22.00에 ①에서 제5중대와 진지 교대를 실시하였으며, 제2중대는 19.00에 행동을 시작하여 20.00에 제11중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제5중대는 22.00에 ①-⑥의 진지를 떠나 23.00에 제2중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때 문제의 ⑥고지를 새로이 맡게 된 제11중대(제2대대에 배속)는 21.00에 △612진지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21.30에 △612 南쪽 계곡에 집결하였다가 그 이튿날인 29일 01.15에 1개소대를 ①-△575능선의 鞍部에 자리잡은 제7중대 진지의 西南쪽 계곡 - 同중대 OP 부근 - 으로 이동케 하고 主力을 △690로 집결시켰는데, 이러한 파정인 이날 子正을 前後

하여 ㉔일대에 敵의 攻擊波가 돌이닥쳐 또 한번 피비린내가 이 稜線을 뒤덮게 되었다.

9월 29일 : 이날 사단은 首都고지와 指形稜線의 兩紛爭點에서 기어코 敵의 強占企圖를 격고 말았으나, 右隣接인 제3사단 正面에서 敵의 攻勢가 併行된 점으로 보아 今次 공격도 敵이 事前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1. 首都高地的 狀況

가) 제26연대 제2중대(장, 朴純求 대위)는 전날 子正을 넘어서면서, 四重으로 마련된 首都고지 제1선의 一角이 돌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敵은 이 제1선의 돌파를 好機로 삼아 배를 지어 불러들여 突破口의 확대를 꾀하였는데, 이에 중대는 돌파구의 兩肩을 固守하면서 제2선에서 이를 強靱하게 拒支함으로써 陣內로 돌입한 일부의 敵을 三面에서 둘러싸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모조리 격멸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우선 突破口를 閉鎖한 다음 신호탄으로써 陣內사격을 요청하였다.

잠시 後, 중대의 60mm 박격포가 고지정상에 VT信管사격으로 鐵片을 터뜨리고, 대대의 81mm박격포는 고지의 東北쪽 500稜線일대에 彈落사격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아울러 지원 105mm곡사포와 4.2"重박격포는 座首洞계곡을 火力遮斷하고 155mm곡사포는 對砲兵戰으로써 敵의 포진지와 △748일대의 敵陣을 강타하였다.

이와같은 火力의 協調에 때 맞추어 중대의 有線이 소통됨으로써, △663의 제2대대장의 부대장악이 용이하게 되어, 이로써 戰機가 다시 好轉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00.30부터는 차츰 敵에 狼狽의 氣色이 들어나더니, 01.00에는 그들이 다시 1개중대 — 제104연대 제7중대 — 를 증강하여 그들 제1선의 奮迅突破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이들 증원병력은 사단 포병의 차단사격의 火集點속으로 뛰어드는 결과를 빚게 되어, 座首洞계곡을 건너기도전에 그 殆半을 잃는 바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편, 敵의 이러한 증원기도를 看破한 대대장 李善浩소령은 연대장의 긴급조치에 따라 △663 南斜面的 ㉔에 대기중인 제3중대의 제1소대(장, 權炳七 소위)를 대대에 배속받아, 이를 △663 東쪽의 제11중대 진지로 뽑아 올려 접근로 V를 이용하여 首都고지의 제2중대를 赴援토록 하고, 01.00에는 △663 主障地의 제5중대(장, 安德榮 대위)에서도 1개소대를 抽出하여 또한 首都고지로 挺進케 함으로써 고지의 방어력 增強을 도모하였다.

그러자 敵도 이에 뒤질세라, 다시 1개중대 — 제104연대 제8중대 — 를 대대의 증원에 앞질러 投入함으로써 이번에는 고지 東쪽의 접근로 IV쪽으로 壓力을 加重케 하였는데, 고지의 중대가 決死의 覺悟로 굳게 버티니, 敵이 이 중대진지를 쉽사리 깨지 못한채 紛戰만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인 02.15에 마침내 증원 제1파인 제5중대의 1개소대가 ㉔—㉕을 거쳐 고지 정상에 來蓄하여 驍勢를 한층 더 높이게 되자, 02.55에 敵이 攻勢를 거두어 각각의 稜線

下麓으로 물러서고 말았는데, 이에 중대장은 敵이 전열재편을 꾀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후속지원병력의 來到를 재촉한 바, 03.30에 제3중대의 제1소대가 고지 東南쪽 능선을 따라 當到하였다.

이리하여, 白刃을 끝추어 잡은 고지의 장병 저마다의 얼굴에서 이제 一當百의 기개를 보게 되었는데, 이윽고 04.05에 고지 西쪽의 △621에서 지원되는 敵의 重機엄호아래 고지下麓으로 물러났던 中共兵이 또 한번 공격을 기도하려는 兆朕을 보였다.

이에 중대가 박격포의 집중사격으로써 그 움직임을 제압하여 그들이 山腹을 다시 밟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니, 敵이 그 企圖를 단념한 듯 05.00에 △748에서 綠色신호탄 2발이 明滅한 다음 05.30에 접근로 IV의 下端에서 역시 綠色신호탄 1발이 치솟는 것을 신호로, 고지 下麓의 敵이 그들의 兵仗과 屍體를 수습하여 제곡 건너로 흩어지고 말았다.

날이 밝은 다음, 戰場을 정리한 결과 이 一戰에서 확인된 戰果는 射殺 112명에 다발총 1정과 蘇式소총 7정을 函獲한 것인데, 그 외에 80여명의 敵이 더 射殺되었을 것으로 推算되었다.

그런데 이에 따르는 損失은 제1대대의 제2, 제3 兩중대에서 戰死 22명에 負傷 29명, 그리고 제2대대에서 戰死 15명과 負傷 19명이었다.

나) 낮 동안은 敵의 도발이 없어, 交綏상태를 이루는 가운데 고지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여 다시 방어태세를 정비하였는데, 右隣接 제3사단의 제22연대가 확보중인 北漢江 東岸의 경계要衝인 △572(一名, 독수리高地)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으므로(同사단의 독수리高地 전투 참조) 江 西岸의 △277경계진지 강화에도 힘썼다.

즉, 연대장 鄭 震 대령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特攻隊 2개소대와 作業소대를 急編한 다음, 작업소대로써 탄약운반에 從事케 하는 가운데 16.00에 특공소대로 하여금 江 東岸의 제53수색중대(장, 曹漢吉 대위)진지를 인수하여 담당토록하고, 同수색중대를 제9중대의 1개소대가 확보중인 △277에 投入함으로써 여기의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해가 지고 다시 어둠이 깃들어, 23.45이 되자 敵 2개분대 규모가 座首洞계곡에서 접근로 I 쪽으로 접근하려 하였는데, 이를 首都고지의 제2중대 경계조가 먼저 발견함으로써 30일 00.15에 포병의 砲聲一聲으로 물리치고 말았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각인 30일 00.15에 △277에서도 2개분대규모가 奇襲적으로 陣前 50m 까지 육박한 바 있어, 그곳의 수색중대가 鐵火로써 이를 견제하다가 제3대대의 박격포 지원을 얻어 04.10에 이도 격퇴하였는데 여기서 同수색중대는 敵 3명을 사살하고 8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보았다.

이와같이 이날 연대 정면에서 敵의 侵襲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연대는 모두 戰死 38명과 負傷 68명의 人的損失을 보았음이 밝혀졌다.

2. 指形綫의 狀況

가) 전날 밤 指形능선에서 진지를 교대중이던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는 이날 00.20에 ㉠고지의 北쪽 능선(㉡東쪽)을 接近路로 삼아 들이닥친 2개 중대 규모인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직 ㉠진지를 인계하지 못한 제20수색중대(장, 羅昌云 대위)는 조명지원아래 이들을 맞아 一戰을 決하게 되었는데, 00.45에는 제3중대 제1소대가 확보중인 ㉢에 敵포화가 집중되더니 2개 소대 규모의 敵이 또한 이를 탈취코자 ㉢-㉡-㉠능선을 따라 달려들었다.

이와같이 하여 ㉠와 ㉢ 일대에서 鐵火의 亂舞를 보던 중인 01.00에 제6중대(장, 李義守 대위)의 △575 東北쪽 ㉣-㉤-㉥능선을 타고 1개 소대 규모의 敵이 그곳으로 挑發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朴翎均중령은 판단하기를 『△575쪽의 敵 소대는 陽攻으로서 ㉠쪽에 指向된 主力을 지원코자 대대의 側方機能(제6중대)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보고, 먼저 제107重박격포중대(一)의 4.2"박격포와 제10포병대대의 105mm곡사포의 집중사격을 요청하여 이들을 먼저 물리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그동안에 主抵抗線의 제3대대와 自隊의 81,60mm박격포와 CAL 50등 重火器로써 指形능선 방어를 지원토록 한 결과, 01.50에 所期한대로 제6중대 정면의 敵 소대를 격퇴하고, 이어 제10포병대대와 제107重박격포중대(一)의 화력지원을 얻어 02.50에는 ㉠부근의 敵도 물리치고 말았다.

따라서 수색중대는 이와같은 敵의 도발로 말미암아 ㉠에서의 예정된 진지교대를 留保한 채 현 陣容의 방어태세로써 徹夜케 되었는데, 05.05에 ㉠北麓을 따라 迂回하여 ㉠의 北쪽 정면의 능선을 타고 나타난 2개 소대 규모의 敵이 ㉠ 爭奪을 또 한번 기도한 까닭으로, 이들과의 一戰을 避치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수색중대가 이들 敵과 ㉠에서 激戰을 벌이는 중인 05.30에 曉霧속에 企圖를 秘匿한 2개 중대규모의 敵이 增援되었는데, 세갈래로 병력을 나누어 ㉢와 ㉡쪽의 兩肩을 견제하면서 그들 공격主力을 ㉠로 집중함으로써 中央突破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들 敵의 목표달성을 위한 화력지원 또한 熾盛하여 指形능선상의 ㉠, ㉢ 兩고지와 △575 東北端의 ㉣고지, 그리고 △747로부터 交叉集中되는 Czecho式 輕機와 함께 61mm, 82mm박격포가 매서운 威力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에 위치한 중대 OP에 敵포탄이 炸裂케 되어 無電機가 파괴되고 ㉠의 중대 主力과도 有線이 杜絶되었으므로 중대장 羅昌云대위는 不得已 OP를 ㉠고지의 제1중대 OP로 移轉하는 바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대대에 火力지원을 요청하여 ㉠고지 정상을 에워싸는 敵을 彈幕으로 차단코자 하였으나, 대대의 박격포탄이 霧中の 敵을 찾아 헤매는 동안, 敵이 이미 그 탄막 지대를 기어 넘고 陣前 5~10m까지 近迫함으로써 ㉠와 ㉡의 수색중대 主力은 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濛濛한 濃霧속에서 敵과 더불어 수류탄을 주고 받게 되었으며, ㉢에서도 제

3중대 제1소대가 敵 2개소대규모와 亂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敵은 날이 밝기전에 이 ㉔에서의 主客을 바꾸어 농기로 작성한 듯,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敵 일단이 ㉔고지로부터 능선을 따라 西南向하여, ㉕를 공격중인 그들 일부를 左側으로 迂回하였는데 이들 敵은 능선의 南麓을 타고 ㉕의 제3중대 제1소대에 대한 포위태세를 취하면서 곧장 ㉕의 南쪽의 급경사를 기어올라, 그곳 수색중대의 등을 찌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主抵抗線의 제3대대(장, 韓錦昌 소령 : 9.25부)에서 Cal 50등의 중화기로써 그 덜미를 쳐 潰散시켰는데, 이 무렵의 ㉕고지의 상황과악에 焦心하던 제2대대장 朴翹均중령이 직접 ㉕의 수색중대 OP로 달려나가 無線으로 고지의 소대(중대主力)를 호출한바, ㉕의 소대장이 보고하기를 『背面的 敵은 격퇴되었으나, 前面的 敵과는 紛戰을 계속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기필코 兪敵을 격퇴하고 陣地를 固守하라!』고 嚴命하였으나, 이로부터는 고지의 소대와 無線도 두절되고 안개가 더욱 짙어져, 火力지원의 효과나 交戰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니, 文字 그대로 五里霧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동안에 고지의 수색중대 主力은 陣內로 뛰어들어 敵과 短兵接戰을 벌이게 되어 彼我が 劍閃을 따라 霧中の 交通호를 번갈아 드나드는 白兵의 亂鬪相을 보게 된 바, 고지의 정상일부를 敵이 차지하고 嗥囉를 부는 동안에도, 진지 제1선의 참호속에서는 중대원이 진지를 如前히 支撐한 까닭으로 亂射되는 M2 CAR의 連發聲과 수류탄의 爆聲이 습奏되었다.

해가 뜬 다음에도 안개가 그대로 능선을 뒤덮어 ㉕일대에서는 東西莫辨의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때 날이 밝기까지 ㉕를 堅守하던 제3중대의 제1소대는 진지가 不過 數m를 두고 포위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敵이 突擊을 감행하기 전에 先制로 敵前으로 달려나가 수류탄을 던지며 자동화기를 亂射함으로써 壓縮되는 포위망의 龜裂을 作爲코자 하였으나 소대장이 負傷하는등, 事不如意로 부득이 포위망을 작게 돌파하여 07.30에 제1중대 진지(㉕)로 隨意철수하게 되고 말았다.

2) 07.40, 드디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08.00부 作指 제87호로써 09.00를 期하여 제1연대의 1개대대를 제1기갑연대에 배속토록 하였는데, 이는 同기갑연대 제2대대의 역습준비의 일환으로 취하여진 조치였다.

이 무렵 대대장 朴翹均중령은 ㉕에서 철수한 제3중대 제1소대원의 상황보고에 따라 — 실제로는 이때까지 ㉕일각에서 彼我의 병력이 한데 엉켜 血戰을 계속하는 중이었으나 — ㉕고지가 이미 敵手에 넘어 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되, 대대의 81mm와 ㉕일대의 제1중대 및 수색중대 60mm박격포를 ㉕에 집중한 다음 먼저 제7중대 OP부근에

대기중인 제11중대의 1개소대를 ㉔로 뽑아 돌리고, ㉑의 제1중대에서 2개소대를 역시 ㉔로 추진하여, 제7중대의 경계소대와 함께 공격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 2개 소대를 ㉔-㉕능선의 東麓에 右一線으로 전개하고, 제11중대 1개소대를 능선 정면의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7중대의 경계소대를 ㉔쪽으로 迂回케 하는 左一線으로 삼아 09.30을 期하여 공격을 시작케 하였는데, 10.00에는 ㉑부근에서 수습된 수색중대의 병력으로 1개소대를 편성하여 이로 하여금 공격일선을 後續케 하였다.

10.30에 능선의 정면으로 躍出한 제11중대의 1개소대가 敵前의 突擊線에서 一列橫隊로 산개한 다음, 돌격지원사격에 觸接하여 일제히 돌격을 감행코 그 銳氣로써 ㉕의 敵 저항을 一蹴, ㉕를 다시 手中에 넣게 되었는데, 여기서 진지재편성을 실시하기도 전에 敵의 포화가 집중되어 소대장 韓完洙소위가 戰死하는 등 적지 않은 병력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11.00에 대대장이 同소대의 左側인 제7중대의 경계소대로 하여금 奮迅하여 ㉔고지 정상에 同소대를 趁援케 한 바 이 소대가 ㉕西南麓일대를 목표로 차단사격을 실시하는 敵 포병의 火網을 끊고 ㉕정상에 진출함으로써 그곳의 제11중대 소대와 合勢하여 진지를 굳히게 되었다. 여기서 진지를 개편하던 도중에 고지의 제1선 일각의 참호속에서 그때까지도 그곳을 固守하고 있던, 金弘箕일등병 등 수색중대 병사 6명을 구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2명은 부상을 당한 채로였다.

한편, 이무렵 공격 右一線인 제1중대(-)는 1개소대로써 제11중대 공격소대의 ㉕공략을 돕게 하고, 1개소대로 하여금 ㉔를 목표로 그 南麓으로 멀리 迂回케한 바, 主抵抗線의 제9중대진지에서 戰車소대가 전차포 50여발의 직접 지원으로써 ㉔-㉕-㉖의 敵지원火력을 摺伏케 하는 가운데 12.40에 ㉔의 南쪽에서 그 頂上을 향하여 直衝과 急襲을 반복한 결과, 13.40에 이곳도 탈환하고자 말았는데, 여기서도 당초 이곳을 지켰던 제3중대 제1소대 병사 2명이 그들의 참호에 버티고 있었다.

이에 연대는 14.00에 사단作指 제87호에 따라 연대에 배속조치된 제1연대의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를 ㉑부근으로 추진하여 예비로 삼고 ㉕일대의 진지를 개편하였는데, 제5중대(主抵抗線)에서 1개소대를 새로이 ㉔로 뽑아 올리고, 그곳의 제7중대 경계소대를 ㉔로 돌려 제1중대 1개소대와 교대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7.00 현재로 제11중대장 奎聖植 대위 지휘下에 제11중대의 1개소대와 제1중대의 1개소대는 ㉕에, 제5중대 1개소대는 ㉔에, 그리고 제7중대의 1개소대는 ㉖에 각각 진지편성을 끝내고 이와같은 混成병력으로써 火力을 정비하여 다시 敵의 挑發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一進一退로 一晝夜의 공방전을 치르는 동안, 연대에서 이 ㉕일대에 지원된 포탄만도 제10포병대대의 105mm포탄 1,836발과 제107重박격포중대(-)의 4.2"박격포탄 559발, 그리고 81mm박격포탄 2,518발과 60mm박격포탄 2,551발로서, 敵의 그것

을 合算한다면 하루밤 사이에 넓이 1km²도 채 못되는 이 ㉞ 일대에 실로 10,000발 이상의 포탄이 집중되었다 할 것이니, 鐵鎗인들 어찌 견디어 내겠는가?

이 한 무덤의 丘陵에서 연대가 확인한 彼我的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92명	戰 死	35(2/33)명
射殺推定	60명	負 傷	91(4/87)명
鹵 獲	長 銃 4정	失 踪	20(0/20)명
	手榴彈 30발	亡 失	S C R 536 2대
			C A R 14정
			M 1 67정

(5) 제 5 차戰(10. 6~10. 14) — 首都高地 및 指形稜線 ㉞高地와 575高地 防禦戰

(가) 작전계획

10월 1일, 中共 제34사단 제101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소속으로 判明된 中共兵포로의 陳述에 의하면 『제101연대는 9월 6일에 指形稜線에서 공격을 시작한 뒤로 同月 30일까지 무려 2,000여명의 손실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연대와 교대한 바 있는 제105연대도 그 손실이 결코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니, 당시에 敵 1개연대의 병력수준이 2,000명을 약간 上廻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이는 敵이 潰滅的인 타격을 입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또 어떤 捕虜는 『9월 下旬현재 제60군이 谷山으로부터 楸田里(昌道里 西北쪽 11.5km)로 집결하여 장차 제12군과의 교대를 待機中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면, 그들 제12군(장, 曾紹山)의 繼戰能力이 그 限界에 이르렀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의 또 다른 捕虜의 심문결과로서 示唆되기를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 首都, 指形의 兩要衝에 대한 偵察戰은 계속될 것이다』고 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와같이 敵 제12군의 「退陣說」과 「繼戰說」이 엇갈리는 가운데 10월에 접어들자, 사단의 左右一線에서는 다시 進軍을 정비하여 당면의 敵의 속셈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右一線인 제26연대(장, 鄭震 대령)는 현 陣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8, 29兩日에 激戰을 치른바 있는 首都고지의 제2중대를 10월 3일 24.00부로 △663 南斜面 ㉞의 제3중대와 교대토록 하되, 同제3중대를 10월 4일 07.00부로 제2대대에 배속 조치하였다. (제2중대는 同日時부로 제2대대에서 배속해제)

그리하여 제3중대(장, 金泳坤 대위)는 제1소대(장, 權炳七 소위)를 右제1선으로 하여 접근로 Ⅳ와 Ⅴ 정면을, 제2소대(장, 呂邦鉉 소위)를 左제1선으로 삼아 접근로 Ⅰ의 정면과 ㉞고지쪽의 西麓(제곡쪽)을, 그리고 제3소대(장, 李承俊 소위)를 中央제1선으로 하여 접근

로 Ⅱ-Ⅲ의 北쪽과 東北쪽 정면을 각각 맡게 함으로써 정상을 중심으로 圓形的 四周진지를 편성한 다음, 진지공사를 실시하여 중대 火器소대(장, 崔炳勳 소위)의 60mm박격포와 대대 火器중대의 박격포소대(장, 韓暢洙 소위)의 81mm 박격포와 協調된 화력엄호아래, 見敵必滅의 태세를 가다듬었다.

한편, 左一線인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는 30일에 수색중대장 羅昌云대위와 제11중대장 金聖植대위가 그간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入室하는 가운데 ㉔-㉑는 수색중대가, 그리고 ㉒ 일대는 제11중대가 각각 專擔케 되고, 제1중대와 제3중대는 △645-△606의 예비진지로 집결하였는데, ㉓의 제7중대 1개소대도 原陣地에 복귀하였다.

이에 사단이 10월 5일 06.00에 사단作指 제90호를 하달하여 9월 29일에 연대에 배속되어 ㉑부근에 예비로 控置중이던 제1연대의 제3대대를 이날 07.00부로 원복 조치함으로써 同대대를 執室里로 집결케 하였다. 따라서 연대는 제2대대로 하여금 6일 17.30을 期하여 ㉑부근의 수색중대를 다시 ㉔ 西쪽 主抵抗線으로 뽑아내리게 하고, 예비인 제1대대(一)(제2중대는 계속 제3대대에 배속중)에서 제3중대를 抽出하여 同대대에 배속과 同時에 ㉑로 推進하여 여기의 진지교대를 단행토록 함으로써 그 前線인 ㉔에 대한 縱深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리하여 제3중대가 대대의 예비진지에서 △690로 躍進하는 이날 저녁, 그간 며칠의 沈黙을 깨고 敵이 또 한번 一全戰線에서 挑發으로써 紛亂을 自招하였으니, 이것을 일컬어 敵의 「秋季攻勢」, 혹은 「10월공세」라 한다.

이로써 中共 제12군은 「繼戰」의 意思를 분명히 하였는데, 그들의 戰略的인 목적이야 어찌 되었든, (概說참조) 이를 9월의 慘敗에 대한 震憤의 기회로 삼으려 하였을 것이다.

(나) 작전실시

10월 6일 : 이날 저녁, 한 줄기 冷風이 西山의 日落을 재촉하자, 血雨가 어둠을 따라 사단 戰線을 휘몰아쳤다.

1. 首都高地의 狀況

가) 18.15, 돌연히 無限軌道를 굴리는 듯한 육중한 金屬聲이 座首洞 계곡을 진동케 하더니, 敵의 戰車 4대가 無名高地 ㉕의 左右계곡 小路에 모습을 들어 내, 首都고지에 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6,000여발에 달하는 各樣의 敵포탄이 고지 정상과 △663 일대에 瀑雨와 같이 쏟아졌는데 이어 18.30이 되자 落照에 물들기 시작하는 △748의 上空에서 敵의 赤色신호탄 2발이 同時에 點滅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신호로 한 듯 例의 座首洞 계곡에서 2개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나, 首都고지의 제26연대 제3중대(장, 金泳坤 대위)를 공격하였는데, 그들은 衝鋒을 두 갈래로 나누어 1파는 접근로 Ⅰ(제2소대 정면)로, 다른 1파는 접근로 Ⅱ(제3소대 정면)로 각각 指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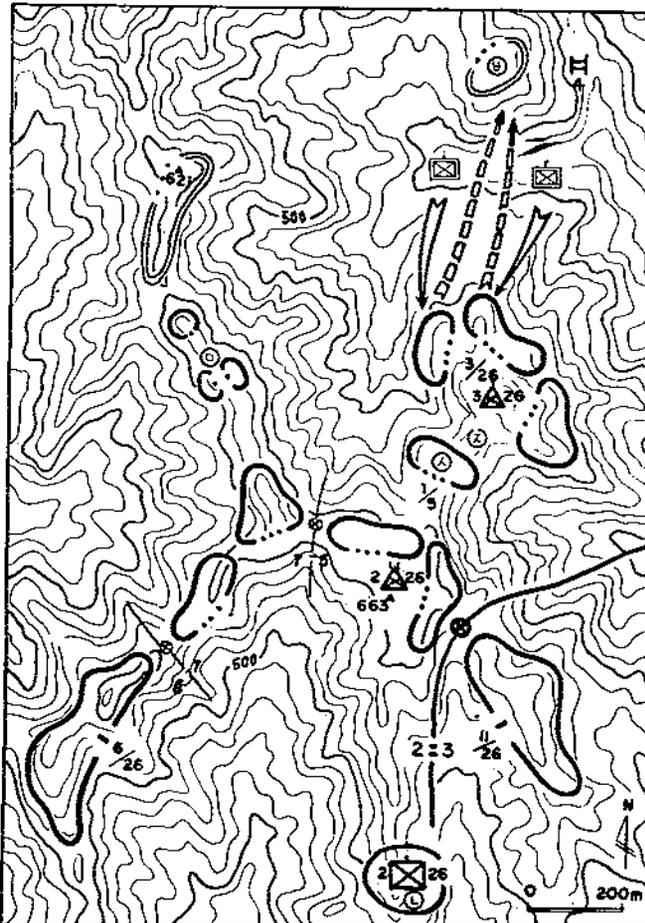
따라서 잠시 뒤에 접근로 Ⅰ 下端에서 중대의 잠복경계조 1개분대와 激突케 된 바, 중대

는 이 경제조를 정상으로 수용하고 敵을 彈幕圈內로 유인한 다음, 포격으로써 그들 선두 제1과를 殲滅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에도 그들의 企圖를 단념치 않고, 18.55에는 다시 後續하던 2개소대규모를 공격1선에 投入함으로써 500능선까지 육박하게 되어 그곳에서 집요하게 중대의 방어진지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에 고지의 제2, 제3 兩소대는 소대장의 陣頭지휘로 北麓과 東北麓에서 敵의 頭上에 鐵火를 加하여 닥치는대로 격멸하였으나, 끝내는 진지의 散兵線이 돌파되어 敵이 陣內로 돌입하게 됨으로써 白兵의 亂鬪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敵이 정상으로 물러들기 시작하는 22.10에 여기서 이들 敵과 死生을 決斷키로 각오한 중대장 金泳坤대위가 화기소대장 崔炳勳소위에게 陣內射擊을 명령한 결과, △663 南麓에 放列된 60mm박격포의 동시집중으로써, 마치 정상을 석권한 듯이 기세를 올리는 敵을 일거에 꺾어버렸다.

◇ 상황도 제30호 10월 6일 수도고지 상황



이렇듯 陣內射擊이 시작된지 5분만에 敵이 더 견딜수 없었던지 고지에서 撤退하고 말았는데, 이때의 情況이 어떠한 것인가 紀功簿의 一句를 보면 이를 짐작할 만 하다.

『제3소대에서는 소대장 李承俊 소위가 陣頭에서 敵을 맞아 싸웠는데, 그는 쓰러진 병사의 M1소총을 들고, 陣內로 뛰어드는 敵 7명을 사살하였다. 그뒤를 따르는 敵에게는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급기야는 敵이 壕의 銃眼으로 수류탄을 투입하므로 입자없는 輕機를 손수 들고 壕 밖으로 뛰어나가, 壕의 掩蓋部位에 혼자서 銃座를 설치한 다음 탄우속에 노출된채로 그의 前面에 육박하는 敵 2개분대 규모를 機銃을 亂射하여 10여명을 사살하니, 나머지 5~6명이 바로 소총좌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수류탄 3발을 던지면서 달려 들었다. 이에 그는 수류탄이 四方에서 작열하는 가운데에서 標的을 놓치지 않고 機銃을 連射하여 그중 3명을 더 사살하였다. 이때 중대의 60mm박격포가 陣內사격을 시작하였으므로 다시 輕機를 들고 본래의 擡속으로 돌아갔는데, 호속에는 소대원 3명이 쓰러져 있었고, 自身도 온몸에 부상을 입었더라.』

당시 중대의 戰況이 대개 이와 같았는데, 功績簿의 記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가 고지를 支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두 兵士의 勇戰의 結果임을 또한 알 수 있으니, 그 한 사람은 제3소대 제1분대의 小銃手 金在鎬 일등병이요, 다른 한 사람은 제2소대 제3분대 소총수 兪熙萬 일등병이다.

먼저 金在鎬 일등병의 敢鬪相을 그리되, 『그는 散兵用 掩體壕속에서 戰友들과 더불어, 陣前으로 접근하는 敵을 M1소총으로써 침착하게 겨냥하여 一發必中으로 사살하는 일방, 수류탄을 던지면서 용진분투하였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敵의 戰車砲 일발이 壕에 命中되어 掩蓋部가 파괴되고 그 속의 戰友들이 모두 戰死하고 말았는데, 그 혼자만 僥倖으로 無事하였다. 한동안의 失神끝에 정신을 차리고 허무러진 壕속에서 헤치고 나와 보니, 그의 눈앞 어느 곳에서는 陣前에 20m까지 육박한 敵과 수류탄을 交換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미 陣內에 突入한 敵과 白兵血鬪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그는 M1소총에 着劍하여 大喝一聲의 氣合소리와 함께 交通호를 박차고 阿修羅와 같이 눈앞의 敵中으로 뛰어들어, 앞을 가로막는 敵兵 1명을 개머리판으로 쳐 넘어뜨리고 이어 총검을 左衝右突로 휘둘러 2명을 刺殺하니, 감히 그에게 덤비는 자가 없었다. 이에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의 正面으로 2개소대규모의 敵이 증원되고 있음이 목격되었다. 그는 어둠속에 몸을 낮추어 잠시 그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들 敵이 10여m까지 접근하였을 때 또 한번 怒號와 同時에 수류탄 5발을 연속으로 투척하여 20여명을 폭살시키고, 猝地에 수류탄 세례를 받아 당황하여 흩어지는 敵의 등뒤에 소총을 亂射하여 그 일단을 격퇴하였다. 이와같은 勇戰으로 單身 그의 분대정면을 固守하던 중, 갑자기 그의 등뒤에서 요란한 喊聲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敵 1개소대규모가 그의 곁으로 돌아 이미 그들의 일부가 突破한 소대정면의 다른 突破口로 정상까지 이르게 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介意치 않고, 오직 그의 정면에서 敵이 一步라도 접근하는 것을 허락치 않은채 陣地를 拒守하였는데, 22.10에 중대 박격포의 陣內사격이 퍼부어지자 敵은 더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꿈무늬를 빼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는 박격포탄이 집중되는 가운데 발걸을 돌리는 敵 6명을 다시 사살함으로써 그의 눈 앞에 敵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敵이 遺棄한 소총 2정과 다발총 1정을 鹵獲하여 悠悠히 本陣으로 복귀하였으니, 여기서 확인된 그의 개인戰果는 사살 12명에 達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兪熙萬일등병에 대하여서는 『19.00를 前後하여 그의 소대陣前에서 수류탄을 주고 받는 激戰이 전개되자, 그는 敵이 던진 棒狀수류탄을 되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그

의 位置를 固守하던 차에 결의 戰友가 한 사람씩 쓰러져 가, 마침내는 본대의 BAR 射手마저 戰死하고 말았다. 이에 그는 射手를 대신하여 BAR을 움켜쥐게 되었으니, 그가 휘두르는 銃口 앞에 물려드는 敵은 可謂 秋風落葉의 身勢가 되었다. 그러자 敵의 돌격 자세가 주춤하더니, 곧 이 自動火器를 제압할 필요성을 깨달았음인지 그의 擡 正면으로 공격이 집중되어 수류탄 4발이 擡속으로 날라 들었다. 이에 거의 無我之境에서 BAR만을 亂射하던 그는 오른 손으로는 계속 방아쇠를 늦추지 않고 왼손으로 가까이 떨어진 수류탄을 되집어 던진 바 그 一發로 擡 가까이 접근하여 擡안으로 수류탄을 투입하던 敵이 폭살되었다. 그러나 擡속의 나머지 3발의 수류탄은 모두 不發로 그는 오히려 一命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天佑神助란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리라. 이에 不死身의 靈感을 얻은 그는 용기백배하여 擡밖으로 뛰쳐나가 다시 그의 正面으로 달려드는 2개분대규모의 敵의 面前에 BAR 세례를 加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근에 敵의 수류탄 5발이 同時에 떨어졌다. 순간 그는 BAR을 안고 擡 前面의 敵前으로 굴러내려, 危機를 冒免한 다음, 다시 몸을 도사려 敵의 동태를 살폈다. 이때 얼핏 지나는 白磷의 閃光속에서 敵이 擡의 銃眼 앞에 다가서서 바야흐로 수류탄을 까넣고 있었던 바 그 自身은 그들 敵의 등뒤에 섰었다. 이를 看破한 그는 그 敵의 돌미를 향하여 BAR을 휘둘러 일거에 9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는 등뒤에서 不意에 급습을 받아 悲鳴을 지르며 흩어지는 敵을 추격하면서 계속 BAR을 퍼부었다. 그러자 이때 중대의 陣內사격이 시작되어 나머지 敵이 마침내 등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彈雨속에서도 그는 계속 그의 正面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물러서는 敵의 지휘관 1명마저 사살한 다음 擡속으로 돌아 가, 그도 박격포탄을 피하였다. 그리하여 陣內사격이 끝나고 다시 보니, 그의 분대에서는 오직 그 한 사람만이 生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全소대의 방어선을 支撐한 것이었다. 여기서 확인된 그의 개인戰果는 사살 10명에 虜獲으로 소총 1정, 다발총 1정이라……』고 記錄하였다.

이리하여 22. 15에 중대가 陣內사격으로 敵을 물리친 다음 散發적으로 鐵火를 주고 받다가, 곧 진지를 재편함으로써 23. 35에는 이들 敵을 座首洞계곡 멀리로 격퇴하고야 말았거니와 이들 두 병사의 용전으로써 중대가 사살 88명에 소총 4정과 다발총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게 된 것인 바, 이 戰功으로 이들 두 사람은 뒷날(53. 1. 13,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 나란히 乙支勳章을 받게 되었는데 金在鏞일등병은 全南 光陽 출신으로 당년 27세라 하였고, 俞熙萬 일등병은 京畿 高陽 사람으로 그때 23세라 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면 당시에 이같이 장한 氣概를 가진 젊은이가 어찌 이 두 사람 뿐이랴!

사단이 「無敵猛虎」라는 武名을 결코 가버이 얻은 것이 아닐 것이나, 다만 綺羅星같은 그 이름들을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할 따름이다.

나) 한편, 이와같이 首都고지에서 戰火가 再燃되자, 연대장 鄭 震 대령은 龍湖洞에 控

置中인 제1대대(一)를 △663 南쪽 계곡으로 급히 추진하여 機動예비대로서 대기케 하였는데, 이에 19.30을 前後하여 제1중대는 ㉠ 西南쪽 계곡으로, 제2중대는 ㉡으로 각각 치달렸다.

바로 이 무렵, 제11중대(제3대대 左一線) 진지 정면의 首都고지 東南쪽 계곡에 敵 1개 소대 규모가 그들 공격주력을 엄호키 위한 陽攻을 策한 바 있어 그곳의 제11중대와 격돌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19.50에 지원포격에 의하여 격퇴되고 말았다.

그러자 20.15에 다시 제10중대(제3대대 中央一線) 정면에 敵 2개 소대규모가 나타났으나, 이도 同중대의 勇戰 앞에 무릅을 꿇게 되어, 22.30에 座首洞쪽으로 물러가고 말았다.

또한 이때(20.15), 연대 제53수색중대의 △277정면에 北쪽의 △472에서 南쪽 능선을 타고 敵 1개중대가 나타나 이를 攻迫하여 여기서도 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는 敵이 火力分散을 피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여기서서 수색중대가 포병의 火力지원이 없이 獨力으로 대결토록 하는 한편, 21.00에 제1중대의 1개소대를 수색중대에 배속 조치하여 이로 하여금 △277의 同 중대를 赴援케 하였다.

이리하여 21.00부터 陣前에 박두한 敵을 수류탄으로써 격멸하여, 22.00에는 이도 그 北쪽으로 물리쳤는데, 이 동안인 21.20에 제1중대의 지원소대가 ㉠ 西南쪽의 집결지에서 출발하여, 22.40에 同고지에 당도함으로써 그곳의 방어력을 보강케 되었다.

2. 575高地의 狀況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제1기갑연대의 제6중대(장, 李羲守 대위)가 버티고있는 △575일대에 敵포화가 집중되어 終日 그 轟聲이 고지를 뒤흔들더니 18.00부터는 더욱 熾盛함을 보였는데, 이날 敵포탄 20,000여발이 연대前線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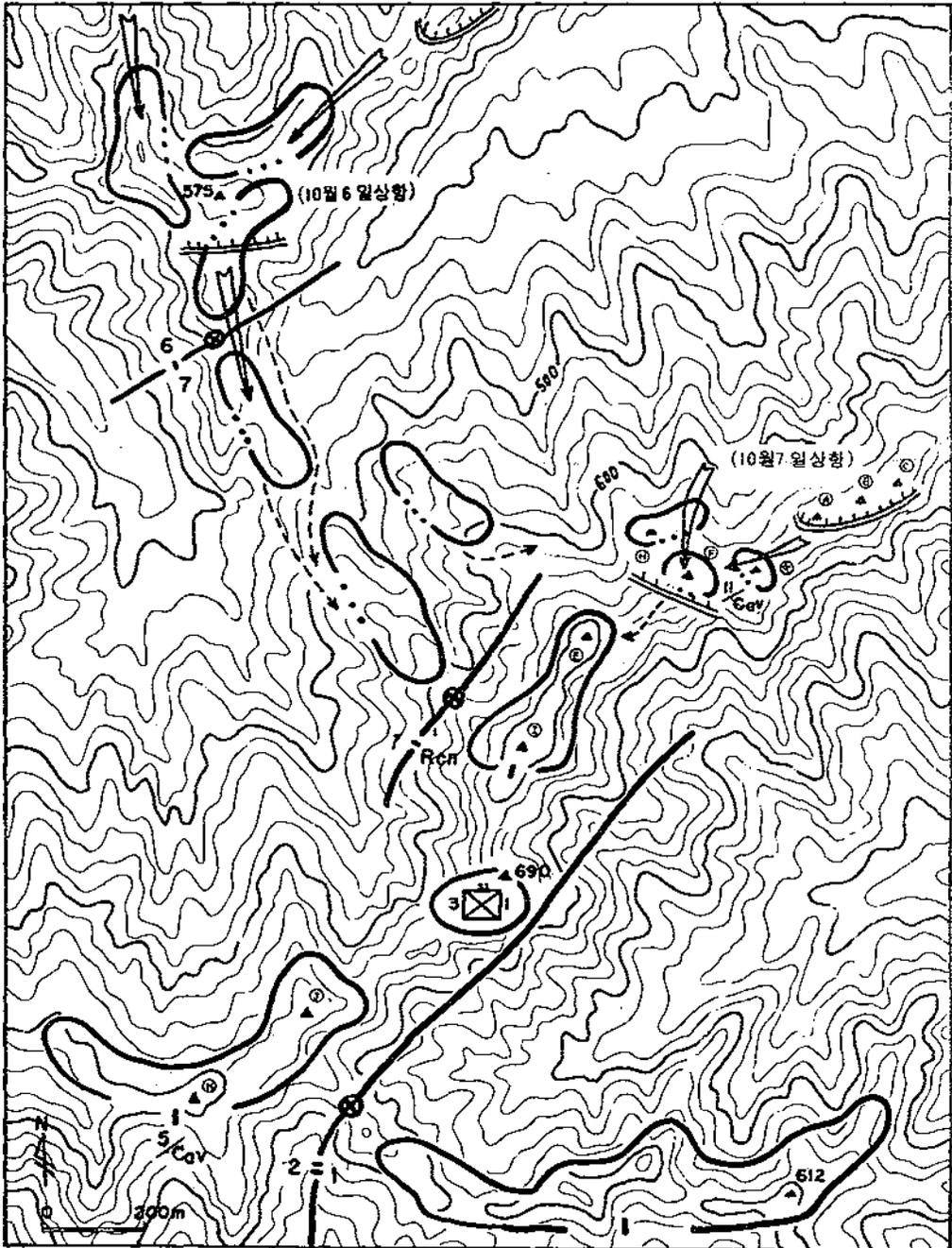
이로써 敵의 공세가 급박하였음을 알수 있었는데, 18.30에 首都고지에서의 공격에 발을 맞추어 대대규모의 敵이 雙嶺洞의 계곡 그늘에 나타난 그들 戰車 2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며, △575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575의 東北쪽 ㉢-㉣-㉤능선과 西北쪽 栗谷쪽에서 각각 1개중대 규모 兵力으로 左右挾擊태세를 취하면서 그들 포화와 더불어 들이 닦쳤는데, 이때 고지의 제6중대는 敵의 白兵이 陣前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敵포화로 말미암아 戰列이 亂麻와도 같이 얽혀, 끝내 이를 수습치 못한 까닭으로 19.15에는 고지정상에서 彼我が 뒤섞여 덩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에 중대는 소대장인 洪容善소위등이 실종(戰死로 확인)되는 가운데, 제7중대쪽으로 한걸음 물러서게 됨으로써 고지를 敵의 手中에 넘겨주는 바 되고 말았는데, 이때의 記錄을 볼 수 없어 이 상황을 더 이상 詳述치 못하며, 당시에 연대를 직접지원한 제10포병대대 A포대 관측장교인 孫秀仁소위의 증언을 여기에 적어, 이를 미루어 보려한다.

『당시 A포대는 △575에 관측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날 저녁무렵 고지의 前方경계조로

◇ 상황도 제31호 10월 6일~7일 575高地 및 ㉞고지상황



부터 敵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연락이 중대장을 통하여 왔다. 그래서 포대는 즉각 미리 짜여진 계획대로 고지 前面에 탄막사격을 실시하였는데, 고지가 작아 高角사격을 하여야만 되었다. 그런데 중대로부터 다시 통보되기를 중대의 東西로 2개 중대규모의 敵이 공격중이

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有線이 두절된 뒤이라, SCR-609 무전기로 砲隊에 이를 보고하였는데, 이때 관측소에 남은 인원은 관측하사관 1명과 무전병 1명 그리고 유선병 1명으로 나(孫秀仁 소위)까지 모두 4명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有線兵은 補線을 하게 하고 한동안 無電兵과 사격을 유도하였다. 잠시뒤에 有線이 복구되자, 제2대대장이 직접 나와 “㉠-㉡-㉢ 쪽 능선에 1개대대 병력이 붙었다.”고 하였는데 그런 다음 有線이 또 두절되고 말았다. 나는 다시 無電機로써 사격을 요청키로 하고, 포대를 호출하였는데 이때 느닷없이 고지(△575) 정상에서 소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포대를 호출하여 標的을 제시하려는 찰나, 버란간 관측호속으로 다발총이 亂射되어, 無電兵이 맞아 쓰러졌다. 나는 들고 있던 送話器에 대고 “관측호 地上에 VT 信管彈을 때려라!”고 소리친 다음, 즉시 無電機를 파괴하였다. 이때 또 據속에 敵의 수류탄 1발이 날아 들었는데, 細裂이 아니고 gas 彈이었다. 그래서 나는 호박으로 뛰쳐나가 교통호속에 얻드렸으나, 포대에서 관측장교가 당하였다고 알고, 곧 VT 信管彈으로 陣內사격을 실시한 까닭에 그 포탄의 과편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陣內사격이 끝나고 한참 뒤에 나는 中共兵에게 붙잡히는 바 되었는데, 그들의 救護所로 가자고 하여 교통호속에서 나와보니, 고지는 온통 증공군 一色이었고 진지는 텅 비어 있었다. 알고 본즉 나 혼자서 고지에 남아 사격을 지휘한 것이었다. 그들을 따라 고지 정상에 오르니, 그곳에 VT 信管彈에 鎗殺된 敵의 시체가 하얗게 깔려 있었다. 나는 다시 끌려 가다가 고지 北斜面에 이르러, 수류탄 두 발로서 나를 押送하던 증공병을 처치함으로써 포로가 되는 위기를 모면하고, 그대로 고지 北斜面으로 빠져 栗谷계곡으로 나아 갔다가 左隣接 제6사단 쪽으로 迂回하여, 그 다음 날에 포대에 복귀하였다.』라고 凄慘한 混戰相의 一端을 披瀝하고 있는 것이다.

3. 사단장의 措置

한편, 이와같이 사단의 左右一線에 狂風이 다시 불어닥치자, 즉각 예비대 投入의 결단을 내린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19.00에 作指 제91호를 긴급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제1연대는 1개대대를 今夜 20.00부로 제1기갑연대에 배속하라. 또한 1개 대대를 22.00까지 제26연대지역(△663 南쪽 1km의 계곡)에 집결시켜, 出擊태세로 대기케 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예비인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執室토에 집결중인 제3대대(장, 朴贊競 중령)를 제1기갑연대에 배속조치하고, 龍湖洞 南쪽 1km의 金城川 北岸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중인 제1대대(장, 李鍾綠 소령; 9.25 梁背雄 대위와 교대-田耕潤 대위는 9.21에 入室)로써 제26연대를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3대대는 제1기갑연대장의 지휘아래 20.10에 執室里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23.20에 △690에 집결하였으며, 제1대대는 20.40에 집결지에서 출발하여 예정시각인

22.00에 △663 南쪽 계곡에 집결하였다.

10월 7일 : 이날도 敵의 공세가 계속되어, 사단정면의 네곳의 경계요충 (△277, 首都교지, ㉠교지, △575) 가운데 두곳(△575와 ㉠교지)이 敵의 手中에 떨어져, 이의 회복에 全力을 다하였으나 戰況은 좀처럼 好轉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1. 首都高地의 狀況

이날 새벽, △277의 제26연대 수색중대(장, 曹漢吉 대위)가 제1중대에서 1개소대의 증원을 받아, 03.20에 敵을 △472쪽으로 멀리 격퇴시키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였는데, 08.00에 제1중대의 지원소대는 다시 중대 本陣으로 복귀하였다.

연대는 낮중으로 Missouri 線과 首都교지의 방어진지를 강화하여 여기서의 堅守不動의 태세를 굳힌 다음, 밤에 6개組의 수색대를 陣前으로 急派시켜 接敵을 유지케 함으로써 敵의 夜襲企圖를 事前에 制約케 하였다.

그런데 首都교지 정상에 노을이 떨어는 18.55, 敵의 戰車 3대가 座首洞 계곡에 나타나 교지를 겨냥하여 포격을 加하였는데, 敵 2개 소대규모가 이에 倚勢하여 例의 접근로 I 과 III으로 병력을 나누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교지의 제3중대(장, 金泳坤 대위)와 薄暮의 山腹에서 수류탄의 爆風과 熱焰을 교환하는 격전이 전개되었는데, 19.20에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이 증강됨으로써 戰鬪가 한층 苛烈化하였다.

그러나 중대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不退轉의 鬪志를 발휘하여 추호도 빈틈없이 진지를 拒守하니, 進展없는 膠着끝에 손실만을 보게 된 敵은 그 이튿날 8일 04.55에 마침내 철퇴하고 말았다.

2. 指形稜線의 狀況

가) 한편, 제1기갑연대에서는 전날밤에 연대에 배속된 제1연대의 제3대대가 △690로 급히 달리는 동안, 연대의 제2대대로 하여금 △575에서 철수한 제6중대병력을 ㉠교지線에서 수습케 하는 한편, ㉠일대에도 畢境 敵의 공격이 指向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방비태세를 한층 엄중히 하면서, 배속된 제1연대의 제3대대로써 △575에 대한 역습을 단행키로 하고 이의 來着을 기다리던 바, 同대대가 公正무렵 △690에 집결하여 역습을 준비하던 차에 이날 01.50에 △575의 敵의 攻勢가 ㉠에까지 波及되었다.

1개 중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의 一團이 △575에서의 聲勢를 後光삼아 ㉠의 北쪽능선으로부터 猶突的인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그곳의 제11중대(장, 楊永仁 대위)가 그 衝擊을 감당치 못한 탓으로 02.10에 ㉠를 넘겨 주게 되고, 이어 그 餘波로 △02.30에는 ㉠까지 被侵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 崔在鴻중령은 △575와 ㉠의 兩 紛爭點에 가운데 이 ㉠의 확보를 優先키로 한 사단장의 決心에 따라, △575 역습을 待機중이던 제1연대 제3대대를 ㉠로 추진하여 ㉠

탈환에 充用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단장의 決心은 △575는 獨立고지이므로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방어진지의 遞縮에 지나지 않으며 現狀固着이 가능할 것이나, ㉔고지는 ㉔-㉑로의 위협을 隨伴함으로써 主抵抗線의 保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까닭일 것이다.

却說一, ㉔고지로 추진된 제1연대의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05.00에 제9, 제10 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삼아 ㉔를 목표로 역습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㉔쪽으로 迂回하여 나아간 제9, 제10 兩중대는 06.00에 ㉔의 敵線을 돌파하고 06.15에 목표 ㉔고지의 8부능선에 육박하였다가 06.40에는 정상의 敵前 15m로 進一步하여 수류탄을 교환하기에 이르렀으나, 그곳에서 敵의 치열한 포화와 수류탄의 火壁을 뚫지 못한 채 銳氣를 잃게 되어, 다시 ㉔로 물러서는 바 되고 말았다.

이에 대대는 포병과 항공지원으로써 敵의 火力을 제압하는 동안 ㉔에서 戰列을 가다듬고, 10.20부터 제1기갑연대의 제7중대가 △575에 대한 회복공격을 併行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11중대를 전부에 加入시켜, 13.00를 期하여 제10, 제11 兩중대로써 다시 한번 ㉔쪽으로 強襲케 하는 한편 제9중대를 능선 南麓으로 돌려 ㉔쪽을 急衝토록 하였으나, 이역서 敵의 頑強한 저항과 강력한 포병의 破摧力에 부딪혀 進路를 열지 못한 까닭으로 아도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또한 제1기갑연대의 제7중대도 △575의 역습에서 別無進展으로 손실만을 累增케 하는 결과를 보았을 뿐이었으니, 낮 동안의 兩 고지의 奪回기도가 이렇듯 모두 水泡로 化하게 되었다.

나) 한편, 이날 날이 밝자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05.30에 사단下敎隊에서 1개 중대를 急編하여 제1연대에 배속하고, 13.50에는 小城洞에서 부대를 정비중이던 同연대의 제2대대를 △690로 추진하는 등, 同연대 제3대대의 ㉔고지 탈환전 참가에 따른 後續措置를 취한 다음 제1기갑연대의 戰況을 銳意注視한 바, 전날밤의 △575에서와 이날 새벽의 ㉔고지 血戰에서의 戰鬪결과를 분석컨대, 同연대가 敵 370여명을 殺傷(推算)하고 다발총 8정과 소총 8정 그리고 LMG 2정과 수류탄 50발을 鹵獲한 것으로 밝혀 저 적지 않은 戰果를 거두었으나 이에 따르는 損失이 戰死 41명과 負傷 208(6/202)명 및 失蹤 98(3/95)명에 달하여, 실제로 연대 獨力으로서는 더 이상의 공격력을 喪失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장은 15.00에 作指 제92호를 하달하여, 제1기갑연대에 배속중인 제1연대의 제3대대를 17.00부로 원복조치함과 동시에 제1연대로 하여금 제2, 제3 兩 대대로써(제1대대는 제26연대를 지원중) ㉔고지를 탈환토록 하고, 제1기갑연대에는 따로이 △575를 회복케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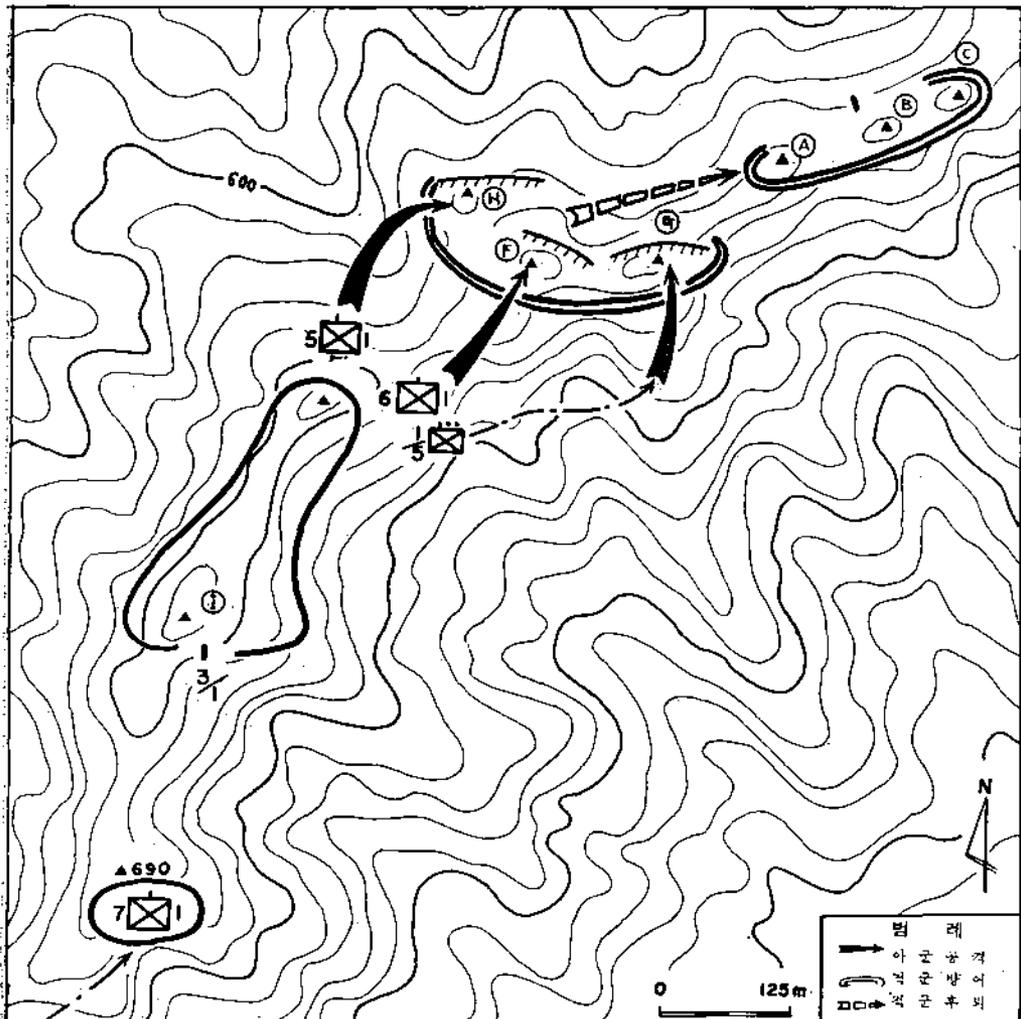
이에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즉시 前方지휘소를 ㉔고지로 추진하고, “새말”의 CP

를 경계중이던 연대수색중대를 △690으로 追隨케 하는 가운데, 17.35에 △690에 接結한 제 2대대를 공격부대로 삼아 ㉔를 공격키로 하였는데, 공격개시 시간을 19.30으로 잡았다.

따라서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기갑연대에서 배속해제된 제3대대를 배속받아 이로 하여금 ㉔에서 火力으로 지원토록 하는 一方,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를 △690에 예비로 남겨 두고, 제6중대(장, 李鍾七 중위)를 右제1선으로 삼아 ㉔-㉕능선 정면으로 목표 ㉔를 直衝케 하고, 제5중대(장, 金守明 중위)를 左제1선으로 삼아 능선의 北麓의 山腹을 타고 ㉔를 急襲케 하되, 1개소대를 뽑아 능선 南麓으로 挺進토록 함으로써 ㉔고지에 衝撃을 加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9.30에 LD를 박차고 三路併進한 대대는 21.40에, ㉔로 指向하였던 제 5 중

◇ 상황도 제32호 10월 7일 ㉔고지상황



대의 1개소대가 그곳을 지키는 2개소대규모의 敵 저항을 銳氣로 돌파하고 22.00를 前後하여 ㉔의 頂上을 席捲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힘입은 공격主力이 ㉕의 敵線들과에 拍車를 加한 결과 23.00가 못되어 이것마저 기어코 手中에 넣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金永吉소령은 대대의 歩武가 快調를 보이는 22.00에 △690의 제7중대를 급히 뽑아 ㉕로 공격主力을 後續케 한 바, 子正부렵에는 제5, 제6 兩중대가 ㉕를 확보하는 가운데 同중대가 ㉔쪽으로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1기갑연대에서는 △690에서 제6중대(장, 李養守 대위)와 제11중대(장, 楊永仁 대위)의 隊伍를 정비하여, 이를 제7중대진지로 추진한 다음 22.00를 期하여 ㉑와 △575능선의 數部를 LD로 삼아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22.40에 △575 頂上 南쪽 250m에 있는 峰巒 하나를 手中에 넣고 계속 前進하여, 목표 정상에 立脚地를 굳힌 2개중대규모의 敵과 격전을 치르는 사이에 어느덧 子正을 넘기게 되었다.

10월 8일: 이날 首都고지에서 제26연대의 제3대대(배속 제3중대)가 이를 接戰 없이 扼守하는 가운데 指形능선에서는 爭奪이 반복되었는데, 전날 子正 부렵에 일시 戰勢를 만회하는 듯 하였으나, 이날 새벽에 넘어와서는 또 한번 交錯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즉, 00.25에 돌연 數未詳의 敵 일단이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아래 ㉔쪽으로부터 역습을 감행한 까닭으로, 전날로부터 ㉔-㉔능선의 殘敵을 剔抉하면서 敗敵을 추격하던 제1연대의 제7중대(장, 張得奎 대위)와 격돌케 되었는데, 이는 ㉕의 제6중대의 증원을 받아 02.20에 격퇴하였으나, 04.10에 2개중대규모의 敵이 공격을 再開함으로써 06.45에는 ㉔와 ㉕에서 수류탄을 주고 받는 격전을 벌이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이 전날 20.00를 前後하여 △690에 집결된 연대수색중대(장, 韋鶴松 대위)를 급히 뽑아 ㉕의 제2대대를 援擧토록 하였으나, 이 중대가 미처 그곳에 당도하기도 전인 07.00를 前後하여 제5중대 소대장 姜章浩소위가 戰死하는 등 戰況이 急轉하여 ㉔와 ㉕를 한꺼번에 敵手에 넘겨 주는 바 되고 말았다.

이에 제2대대(장, 金永吉 소령)는 이날 새벽에만 모두 6,000여발의 포탄을 여기에 집중한 敵 포병의 차단사격이 이루어 놓은 ㉕와 ㉕사이의 火壁을 뚫고, ㉑로 철수하게 되었거니와 08.00에 ㉕로의 再역습에 나선 제21수색중대도 10.00가 넘도록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전날 子正까지 △575 頂上 南쪽에서 격전을 벌이던 제1기갑연대의 제6, 제11 兩중대도 이날 02.00에는 그 南쪽 250m 山腹의 峰巒으로 철수하여 그곳에 방어전지를 급편한 바 있으나, 이도 04.00에 數곳을 알 수 없는 敵 일단의 공격을 받아 이것마저 내어 놓고 08.00에 주저항선의 제5중대 OP가 위치한 ㉑고지 부근에 집결케 되었다.

이와같이 이날에 들어서서 戰況이 다시금 混迷一路로 빠져들게 되자, 08.00에 연대장 朴春植 대령은 首都고지에서는 제26연대 獨力으로 能히 이를 지탱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同연대를 지원차 대기중인 제1대대(장, 李鍾綠 소령)의 원복조치를 사단장에게 건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10.00부 사단作指 제93호로 이 措置가 內諾되었다.

『① 제26연대를 지원중인 제1연대 제1대대는 12.00까지 제1기갑연대 지역의 △645—△606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後命을 기다리라.

② 제1연대는 13.00부로 제21수색중대를 제1기갑연대에 배속조치 하라.』

이에 따라, 同 제1대대는 08.00에 △663 南쪽제곡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10.30에 鞞室里를 경유, 正午에 △645—△606에 집결하였다가 다시 ①로 前進하여 그곳의 제1기갑연대 병력과 진지를 교대케 되었다.

한편, 제2대대에 배속되어 진날밤에 ㉔ 공격을 지원한 바 있는 제3대대(장, 朴贊兢 중령)는 01.20에 ㉔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03.00에 제1기갑연대 제5중대 주차함선의 ㉑부근에 집결함으로써 부대정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제1연대가 연대의 수색중대를 잠시 제1기갑연대에 배속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㉔와 △575 공략의 後據가 되는 ㉔를 保障케 하면서, 연대의 3개대대를 모두 指形능선에 投入하여 ㉔와 △575 탈환에 대한 方案을 짜는 동안인 12.00에 사단의 左接境線一部를 변경하는 軍단作指 제41호가 下達되었는데, 이 戰鬪와 관련된 부분의 要旨를 보면 『사단의 後方地境線 가운데, 제6사단이 管掌中이던 華川—注波嶺—別隔道路를 사단지역 內에 포함시키는 反面, 10.15.00.01를 期하여 △575의 공격임무를 제6사단에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軍단장이 사단의 戰力을 勘案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㉔ 攻略에만 專念토록한 調整조치인 듯 하니, 이로써 이날 午前까지의 戰況이 당시의 軍지휘부에 深刻한 波紋을 던져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에 15.00,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이 ㉔공격에서는 敵勢에 비추어 제1, 제1기갑 兩연대의 병력이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攻守兩面에 有機的인 進退와 分合의 妙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作戰지휘에 劃一性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決斷을 내리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94호를 하달하였다.

『① 제1연대장은 18.00부로 제1기갑연대(缺 1개대대)를 통합지휘하라.

同日時부로 연대수색중대와 사단수색중대(缺 1개소대)를 통합지휘하라.

② 제1기갑연대장은 18.00부로 연대(-)의 작전지휘권을 제1연대장에게 移讓하라.

제1연대 수색중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1개대대는 △645의 예비진지에 집결하여 부대를 정비케 하라.

③ 사단수색중대(-)는 18.00부로 제1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이에 제1연대는 18.00부로 제1기갑연대의 제1, 제3 兩대대를 배속받아, 主抵抗線 확보와 ㉔ 탈환 임무를 동시에 遂行케 되었는데, 우선 연대의 제2대대를 ㉑ 부근으로부터

△645 東北쪽 500m로, 그리고 제3대대를 제2대대에서 배속해제와 아울러 執室里로 각각 뽑아내려 시급히 부대를 재편케 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에서 복귀한 연대수색중대는 현지인 ㉔에서 계속 ㉕의 敵 움직임을 견제토록 하였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제1, 제3 兩 대대와 제8중대를 제1연대에 배속조치하고, ㉔와 △575에서 병력의 激滅을 본 바 있는 제2대대 主力을 △606에 집결시켜 부대정비에 들어갔는데, 이날 同대대장 朴翊均중령이 육군본부로 轉出되고, 군단의 G-1 補佐官인 李承隱중령이 새로이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10월 9일 : 이날 하루, 指形능선에 대한 공격일선인 제1연대가 戰列정비에 拍車를 가하는 동안, 사단장은 參謀陣과 더불어 ㉔를 회복키 위한 작전계획을 熟議하였는데, 제26연대의 지원병력(제1연대 제1대대)의 原復에 따른 戰力補填策으로 제1기갑연대를 지원중인 제52戰車 중대 1개소대 가운데, 그 일부를 △663의 Missouri 線 진지로 추진함으로써 야의 직접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강구키로 하고, 工兵대대에 명령하여 1개소대로써 △663 西쪽의 松洞里一座首洞 峽路上에 戰車進入路공사를 실시케 하였다.

한편,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전날 午後부터 제1기갑연대의 제1, 제3 兩 대대와 사단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여 Missouri 線상의 主陣地를 보강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써 ㉔와 △575에 대한 威力수색을 실시하여 敵의 동태를 살피게 하면서 다음 공격을 위하여 陣容을 개편하였다.

즉, 01.00에 ㉔의 수색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㉔로 보내 敵情을 探知케 한 결과, 02.00에 ㉔ 西南麓에서 數곳을 알 수 없는 일단의 敵 경계조와 충돌하였는데, 1시간 가까이 交戰한 끝에 03.00에는 그 경계조를 모두 격멸함으로써 氣焰을 吐한 다음, 06.00에 ㉔로 복귀하였다. 이에 연대는 낮 동안 포병의 엄호아래 현진지를 보강하다가 午後에 들어서서 일부의 진지교대를 단행하였다.

먼저 16.00에 △645 東北쪽 제곡의 제2대대를 뽑아 19.00에 小城洞에 집결케 하고, 그간 부대의 缺員補充이 끝난 제3대대를 ㉑부근으로 추진하였는데, 16.30에 제11중대를 뽑아서 18.40에 ㉑에 配備한 다음 18.50에 제9중대를 ㉒로 추진하여 20.10에 그곳의 제1기갑연대의 제20수색중대와 진지를 교대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 23.30에는 제10중대를 ㉑부근으로 前進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가 ㉑부근의 제1대대와 진지를 교대케 된 바, 제11중대로써 제2중대진지를 인수하여 ㉑에서 그 西北麓의 당초 제1기갑연대 제7중대진지까지를 담당케 하고, ㉒의 제9중대에서 2개소대를 다시 뽑아 제3중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㉔를 확보토록 하였는데, 同중대의 1개소대(제2소대)는 ㉑의 北斜面에 배비되었다. (同중대진지는 사단수색중대에 인계)

이들은 각각 21.00부터 23.40사이에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2.32 中部戰線의 戰況

따라서 ①일대를 확보중이던 제1대대는 子正이 가까울 무렵에 제3대대에 진지를 모두 인계하였으니, △690의 제1중대는 21.00에 ㉔부근진지를 제9중대에 인계한 바 있는 제1기갑연대 수색중대에 그 진지를 인계하였으며, ①의 제2중대와 ⑤의 제3중대는 각각 제11중대와 제9중대(-)에 인계하고 이튿날인 10일 03.00에 △606에 집결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연대는 연대의 제21수색중대로 하여금 위력수색으로써 ⑥일대의 敵情탐지와 아울러 敵의 注意力을 견제케 하는 가운데, 각 대대의 循環整備를 圖謀하였던 것이니, 제1, 제2 兩 대대가 부대를 재편하는 사이에 제3대대로써 ①-⑥의 要衝을 확보케 한 것이다.

또한 제1기갑연대도 제2대대만으로써 계속 △606일대에서 부대정비에 임하였는데, 首部 고지에서는 별다른 상황없이 대체로 小康상태를 유지하였다.

10월 10일: 이날도 一面 위력수색, 一面 진지보강으로 戰機의 成熟만을 기다렸는데, 이날부 陸本一般命令 제193호로, 지난 7월 9일에 南部地區경비사령관으로 轉任한 바 있는 宋禕讚소장이 다시 사단장으로 發令되어 赴任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李龍文 사단장이 參謀陣과 失地奪回에 대한 그 나름의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實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터이라, 군단장 劉載興중장은 이 新舊 兩 사단장을 招致하여 이르기를, 『지휘권의 인수인계를 당분간 보류하고, 우선 前任 李龍文 사단장의 腹案대로 ⑥에 대한 恢復공격계획을 추진하되, 조속한 時日內에 작전을 종결짓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由來로 『將帥가 江을 건널 때에는 말(馬)을 바꾸어 타지 않는다.』라고 한 兵學家의 讖言을 바로 그대로 實踐하려는 卓見이라고 할 것이다.

10월 11일: 이날 李龍文 사단장은 難局打開에 대한 새로운 決意를 가다듬고, 제1연대로 하여금 제반 공격준비에 박차를 加하게 하던 중, 左隣接 제6사단(장, 白仁燁 준장)에서 그 제2연대로써 △575를 공격하려는 同사단의 作指 제28호(12.00부)에 대한 協調가 요청된 바 있어, 사단도 이날중으로 ⑥ 탈환계획을 매듭짓기로 하고, G-3 丁世鎭 중령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討議된 작전계획의 손질을 끝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戰機를 摸索하는 사단지휘부의 動向과는 달리 前線에서는 오히려 敵의 作爲로 膠着상태가 깨어지고 점차로 爭奪戰의 熱度가 苛烈化되어가기만 하였다.

즉, 전날 22.00에 ① 西北麓의 제11중대 1개분대가 搜索次 北斜面의 山腹을 타고 나아가다가, 이날 00.15에 ④ 北麓에 이르자 곧 △575로부터 敵 LMG 2정의 사격을 받게 되어, 5분 남짓 이에 應戰하여 敵線의 一角을 攪亂한 다음, 01.30에 隨意철수하여 01.45에 本陣으로 복귀한 바 있으며, 또한 제1기갑연대 수색중대에서도 1개분대가 역시 전날 22.00에 △690을 출발하여 ①-⑥ 南麓을 해치고 나아가 이날 00.25에 ⑥ 南쪽에서 敵의 경계조에 그 企圖가 들어나게 된 까닭으로 先制로 鐵火洗禮를 받게 됨으로써 10여분간 交戰 끝에 01.00에 △690로 反轉한 바도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밤이 시작되는 18.15에, 雙嶺洞계곡에서 敵 戰車 4대가 夜叉의 모습을

들어내고 제11중대의 진지를 향하여 戰車砲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여, 20분동안에 무려 250여발의 포탄을 同진지일대에 집중하였다.

이에 제1연대는 즉각 제10포병대대의 105mm 포탄과 제107重박격포중대(-)의 4.2"박격포탄 500여발로써 이에 응수하여 戰車砲를 屏息케 하고 말았는데, 夜暗이 깊어지는 21.10에는 同 제11중대경계진지에 150여발의 敵포탄이 집중되면서 △575쪽으로부터 敵 1개 소대규모가 이를 略取코자 한 까닭으로 여기서 적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21.50부터는 指形능선에 다시금 鐵火가 南北으로 交叉되고 爆焰이 東西로 엇갈리는 激戰이 한 場面을 보이게 된 것이다.

10월 12일: 1.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은 전날 밤에 제11중대(장, 尹太準 대위; 9.29에 申聖局 중위와 교대)진지(㉠ 西北麓)에 烽火가 오른 뒤로, 여기서의 격전이 자못 치열함을 보였으므로 ㉠ 부근의 제10중대(장, 張奉錫 대위)를 뽑아 03.30에 제11중대의 東쪽 ㉡의 西北麓으로 추진하여 그곳의 방어력을 증강하였는데, 이 동안에 제11중대는 그 정면의 敵을 拒守하면서 포병의 집중사격을 요청하여 05.00에 이들 敵을 雙嶺洞 계곡쪽으로 물리쳤다.

2. 이리하여 날이 밝음과 때를 같이하여, 敵의 狂波를 제압한 사단은 08.00부터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指形능선의 ㉢ 일대와 △575, 그리고 △747일대의 敵陣에 空中폭격과 對地공격을 실시케 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견제하는 가운데, 사단지휘소에서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날 부[陸特(甲) 제286호 추가 1호]로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 중령이 제1훈련소로 轉出하는 명령이 하달된 바 있어, 제1연대장으로 하여금 계속 제1기갑연대 병력을 통합지휘토록 하겠는데, 사단장의 작전명령에 앞선 G-2의 情報報告의 概略은 다음과 같다.

『敵은 首都고지에 대한 爭奪企圖를 단념하고, 이미 手中에 넣은 ㉣와 △575의 확보에만 專念키로 한 듯 하다. 당면의 中共 제35사단은 제103연대(我 제6사단 右一線 정면)와 제104연대(제26연대 정면) 및 제34사단으로 부터 배속받은 제101연대(제1기갑연대 정면)를 前線에 展開하고 제105연대를 烽火山(△757: 雙嶺洞 西北쪽 7km) 부근에 예비로 控置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에 수집된 첩보와 포로의 진술을 綜合 分析하면 제105연대의 일부가 제101연대에 증원된 것으로 判明되었으며, 이 연대는 이미 龍鶴山(烽火山 東南쪽 5.5 km) 부근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敵의 군 예비인 제34사단은 大坊村(昌道里 北쪽 5km)에 집결중이며, 楸田里 부근의 제60군이 제12군과 교대를 준비중인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 고지의 공격間에 제60군의 動向에 대한 첩보수집이 특히 요망된다. 當戰線에 可用한 敵의 예비로서는 淮陽의 제67군과 新古山의 제20군등의 投入이 가능할 것이다. 당면의 △575와 ㉢일대에는 8월초에 제105연대와 교대한 뒤 9월 6일 이래 지금까지 사단과 接戰을 계속중인 제101연대가 확보중인대, △575에 제2대대의 1개중대, 그 北斜

面에 1개중대를 배치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㉑ 부근에는 제1대대의 1개중대가, 그리고 ㉒-㉓-㉔에 同대대의 1개중대가 각각 배치된 듯 하며, 예비인 제3대대는 “대늑집”(雙嶺洞 東北쪽 2km)부근에 대기중인 것으로 믿어진다. 昌道里 부근에 敵 戰車 40여대(1개연대규모)가 집결중이나, 機動路의 제한을 받아 當戰線에서 大量投入의 突破작전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부가 제한된 공격목표에 대하여서는 有效하게 지원될 것이다. 指形 능선일대를 지원하는 敵의 포병은 △495-△543-雙嶺洞일대에 20여문의 直射砲와 上板里(座首洞 北쪽 4km)일대에 8문의 曲射砲, 그리고 主抵抗線인 △747 後斜面과 指形 능선 北端인 ㉒-㉓-㉔의 後斜面 및 △575의 東北端인 ㉕-㉖-㉗ 後斜面에 20여문의 박격포 등이 지원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이와같은 敵情을 前提로 공격계획을 하달하였는데, 이것이 이날 12.00부 作指 제95호인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병력으로써 목표 ㉑를 탈취하려 한다.

- ㉒ 공격間 美제5포병단이 사단을 지원할 것이다.
- ㉓ 要請에 따라 美제5공군의 공중지원을 받을 수 있다.
- ㉔ 제6사단이 △575에 대한 陽攻을 실시 할 것이다.
- ㉕ 공격개시선은 현진지선이고, 공격개시 시간은 10.13.03.30 이다.

② 제1연대 [제1기갑연대(-) 및 사단수색중대 배속]는

- ㉒ 2개대대로써 목표 ㉑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 ㉓ 목표를 점령하면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라.
- ㉔ 공격間 Missouri線의 현 主陣地는 계속 확보를 要한다.
- ㉕ 공격間 제6사단 제2연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③ 제26연대는

- ㉒ 현 임무(사단 右一線)를 계속 수행하라.
- ㉓ 제1연대의 공격을 火力支撥하라.

④ 공병대대는

- ㉒ 제1연대가 목표를 점령하면, 지체없이 陣地工事を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期하라.
- ㉓ 제1기갑연대를 지원중인 1개소대로 하여금 제1연대의 공격을 지원케하라.

⑤ 行政事項

- ㉒ 각 연대는 백속중인 KSC 및 징용자 전원을 10.12.16.00까지 7번 Cable線(㉒ 南쪽 제곡)으로 집결시켜, 築城工事に 필요한 공병자재와 포탄운반에 임하게 하라. 同 인원의 수송은 自隊차량에 의한다.
- ㉓ 사단직할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KSC 혹은 징용자를 차출하라.

본부중대; 30명
 통신중대; 10명
 병참중대; 10명
 공병대대; 60명

- ㉔ 각급지휘관은 軍需參謀의 차량동원 요청에 즉각 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㉕ 공격間 7번 Cable 線은 공병자재와 포탄의 운반에 限하여 사용된다.
 ㉖ 헌병대장은 현 落伍者 수용선 (㉑-㉒)을 △612까지 추진 설치하되, 제6사단과 隣
 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㉗ 공격間 1시간에 1회씩 사단상황실에 병력보고를 실시하라 (人事 제225호; 52.9.20
 부 참조)

⑥ 通信事項

- ㉘ 공격대대에 SCR-609 2대를, 공격중대에는 SCR-609 1대를 예비로 확보케 하라.
 ㉙ 有無線의 杜絶時에는 傳令과 신호탄 通信을 活用하라.
 ㉚ 기타 現 SOI 를 準用한다.
 ㉛ 지휘소는 계속 注波里에 위치한다.』

사단장은 또 이에 敷衍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점령 後의 敵 역습대비에 力點을 주어 강
 조하였다.

『敵의 포병집중사격이 실시되면, 역습병력이 그 포탄과 함께 前進한다는 것을 銘心하라.
 常例로 敵은 공격준비사격중에 白兵을 陣前으로 육박케 한다. 포병의 射程延伸은 곧 그들
 의 돌격신호이다.』

3. 이에 따라,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는 ① 일대의 제3대대로써 현진지를 계속 확
 보하면서 공격대대를 화력지원케 하는 가운데 제1대대(장, 李鍾緣 소령)를 공격일선에 내
 세우기로 하고, 小城洞의 제2대대(-)를 그 제2선으로 삼아 15.40에 △645-△606의 예비
 진지로 추진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18.30에 同 예비진지에 집결중인 제1대대를 사단수색
 중대가 확보중인 主抵抗線의 ① 부근으로 뽑아 올렸다.

그런데 이 무렵인 19.00에 敵 2개소대규모가 ㉞로부터 薄暮를 利用하여 ㉟ 西北쪽의 제
 10중대진지로 侵襲한 까닭으로 이와 적전이 먼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이 ① 南쪽에 대기중인 제1기갑연대 제11중대의 1개소대를 ㉞로 급히 달리
 게 하여 그곳의 제10중대를 剋撥토록 조치한 바, 同소대가 집결지를 박차고 나가 19.55에
 △690를 경유, ㉞에 당도함으로써 제10중대장 張奉錫 대위의 지휘下에 그곳의 방어력을
 증강하게 되었다.

그러자 12.20에는 敵도 2개소대규모를 증강하여 집요하게 陣前突破를 試圖함으로써 좀
 처럼 雌雄의 판가름이 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때 제9중대(-)의 ㉞정면에서도 數ჯ을 알

수 없는 敵의 일단이 쟁과리를 치면서 그들의 공격에 가담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22.40에는 제3대대의 소 방어정면에 飛火를 보게 되었으나, 敵이 대대의 방어선 突破를 서두른 나머지 때를 지어 장애물을 踏碎하는 것을, 照明下의 포병화력의 집중으로 鑿滅함으로써 23.15에 이들을 모조리 격퇴하고 말았다.

이에, 다음날의 決戰에서의 快勝의 自信을 얻은 연대장 朴春植대령은 20.20에 ①에 집결하여 銃劍을 갈고 있는 제1대대에 LD(㉔)로의 기동을 명령하여 이 餘勢를 몰아치도록 하였으니, 이리하여 또 한번 血雨將至의 局面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다.

10월 13일: 이날 사단이 예정된 時刻에 ㉔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여, 中共 제35사단(장 李德生)과 勝敗를 占할 수 없는 龍虎相搏의 血戰을 반복하는 중인 12.00에 軍단에서 作指 제42호가 下達되었는데, 그 要點에 이르기를 『軍단은 제8군 GX 9220 KGO—O에 의거, 首都사단과 제8사단의 진지를 교대하려 한다. 首都사단은 10.24. 08.00까지 Missouri線 현진지를 제8사단(10.19부 軍단에 배속)에 인계하고, 제5 FTC(史倉里)에 집결하여, 美 제9軍단의 예비가 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날의 공격이 결과적으로 이 戰線에서 決戰의 掉尾가 되는 셈이었다.

1. 공격일선인 제1연대의 제1대대(장, 李鍾祿 소령)는 01.00에 ①에서 ㉔로 달려 01.30에 ㉔의 제9중대 진지線(LD)에 전개하였는데, 대대 OP는 △690에 設置하였다.

그런데 이때 연대장 朴春植대령은 이 공격에 앞서, 대대장에게 이르기를 『今次공격에는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치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前例로 보아 我軍의 공격준비사격은 그 공격기도를 統露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 까닭이리라.

이에 따라, 대대는 공격初動에서 포병의 화력엄호없이 기술적으로 敵前에 육박한 다음 일제돌격의 威勢로써 不時에 목표의 敵을 제압키로 하되, 제1중대를 공격右제1선으로 삼아 목표 ㉔정상을, 제2중대를 그 左제1선으로 삼아 목표 ㉕를 각각 공격토록하고, 제3중대로 하여금 제1중대를 後繼케하여 제1중대가 목표 ㉔를 점령하면 지체없이 그 頂上으로 달려가, 敵의 역습을 粉碎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이 공격에 대한 着眼사항으로서, 공격목표지대에는 이미 彼我間 포화의 亂打로 地面의 土塊가 微粉化하여 흡사 越尺의 높이로 먼지가 뒤덮힌 것과 같은 까닭에 공격이 시작되면 敵의 砲火의 爆風으로 畢境 黃塵이 濃濃하게 일게 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공격과정에서 그로 말미암아 각개병사의 小火器에 노리쇠作動의 장애가 許多할 것이므로—막상 목표를 점령한 뒤의 敵 逆襲時에 有效적절한 小火器의 사격이 如意치 못하였던 前轍을 피하고자, 이 공격에는 小銃射程거리에 육박하기까지 병사의 小銃 노리쇠부분과 銃口를 綿布로 감싸서, 擊發機能의 장애를 방지토록 하였다.

이와같은 萬般의 事前준비를 갖춘 가운데 제1, 제2 兩중대는 03.00에 드디어 LD를 躍出하였다.

스물닷세의 下弦달이 東天에 높이 걸렸을 것이나, 짙은 구름에 가려 四圍가 그믐漆夜나 다름없어, 兩 중대가 敵이 미처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에 步一步로 나아가 敵의 제1선에 이른 03.30부터 接戰이 시작되었다.

제1중대(장, 金昌煥대위)는 제3소대(장, 都相佑소위)를 ㉔-㉕능선 정면으로 直衝케 하고, 主力인 제1, 제2 兩 소대를 그 左側(능선 北麓)으로 병진케 하여 ㉕의 西北쪽을 急襲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중대 主力이 먼저 高地 西北쪽 山腹에 마련된 敵의 경계선에 이르러,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敵陣속으로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奇襲적으로 그곳의 敵을 屠戮하고 경계선을 돌파하여 頂上으로 뛰어 오르려 하였으나, 이때부터는 敵의 포화가 狂舞하기 시작하여 突進이 어렵게 된 탓으로 銳氣의 鈍化를 보아 頓挫寸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때 공격 左제1선인 제2중대(장, 金鍾晚대위; 9.17 대리 趙炳奎중위와 交代)는 1개소대를 ㉔-제10중대間的 山腹의 LD에 대기케 하고, 2개소대로써 ㉕의 西北쪽 멀리 迂回하여 ㉔로 指向케 하였는데, 이도 敵의 강력한 포화와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突擊線으로의 육박이 阻止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는 대대 作戰教育官인 安益鎭소위가 FO임무를 代行하여 敵의 直射火力의 據點을 박멸케 함으로써 공격의 성위를 돋우는 가운데, 03.30 LD에 대기중인 제3중대(장, 李應龍대위)의 1개소대로써 제1중대의 능선정면소대를 右側으로 挺進토록 하여 同소대를 超越공격케 하는 한편, 중대 主力을 급히 제1중대 主力에 追及케 하여 同중대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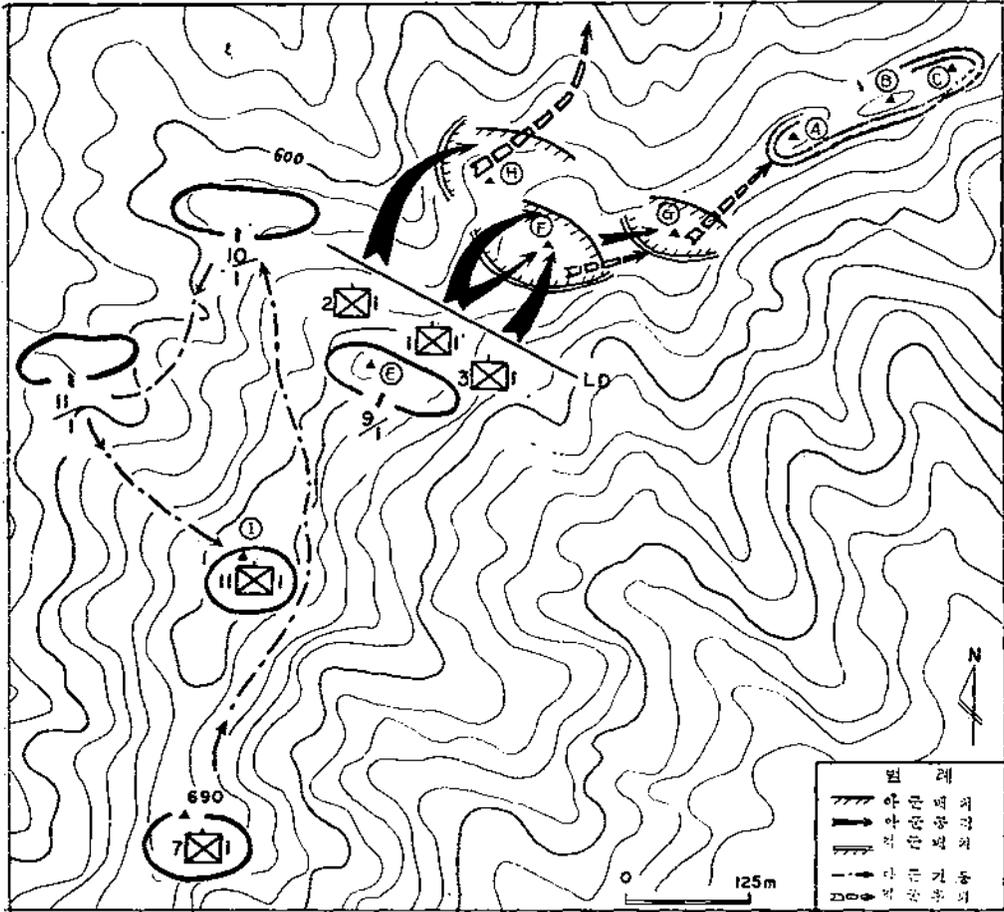
이리하여 제3중대가 04.00에 제1중대와 隊伍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목표에 대한 攻擊力을 증강한 결과, 04.30부터는 돌격선에 육박하게 되어 수류탄을 주고 받는 血戰으로의 激化를 보게 되었다.

이에 제1중대가 중대장 金昌煥대위를 先頭로 敵陣에 突入하여 果敢한 白兵戰을 벌인 끝에 05.00에 목표 ㉕를 기어코 손에 넣게 되어, 그 頂上에서 점령의 신호탄을 높이 올렸는데 그 15분뒤인 05.15에 제2중대의 공격이 指向된 ㉔정상에서도 같은 신호탄이 피어올라 그곳 또한 主人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목표 ㉕와 ㉔를 한꺼번에 手中에 넣은 대대는 곧 그 氣勢를 몰아 ㉔까지 奪取하기로 하고, 제2중대로써 계속 ㉔를, 그리고 제1중대를 追及한 제3대로써 ㉕를 각각 확보케 하는 가운데 제1중대의 銳鋒을 ㉔로 延伸토록 하였다.

제1중대는 ㉕의 확보를 제3중대에 一任하고 다시 ㉔의 敵 剔抉에 나서게 되어, 우선 1개 소대로 하여금 한달음에 ㉕-㉔의 능선을 건너 뛰게 한 바, 同소대가 05.50에 그곳의 돌격선에서 되돌아서고 말았는데, 例의 熾盛한 포화밭을 뚫지 못한 탓이었다.

◇ 상황도 제33호 10월 13일 ㉞고지상황



이에 중대는 全力을 들어, 다시 한번 ㉞ 攻略에 나섰으나, 그도 同고지를 扼守中인 敵의 發惡으로 말미암아 別無進展으로, ㉞-㉞능선上에서 膠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대장이 ㉞에 있는 제2중대의 1개소대를 ㉞의 南麓으로 뽑아 돌려, 이 공격에 合勢토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시원한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중대는 끝까지 이의 爭奪을 단념치 않는, 不屈의 鬪魂을 발휘하여 ㉞에서 殘餘兵力으로써 끝어진 戰列을 수습한 다음, 또 한번 敵線에 대한 捨身突破를 감행한 끝에 마침내 朝霧에 뒤덮인 血路를 개척하여 頂上에 뛰어오르게 되었으니, 이때가 06.30으로 바야흐로 아침해가 東녁에 그 붉은 모습을 들어내는 刹那였다.

2. 한편, 이와같이 ㉞로 戰火가 옮겨질 무렵인 05.30을 前後하여, 연대장 朴春植대령은 工兵 1개소대의 제2대대(장, 金永吉소령)로써 ㉞확보에 대한 後續조치를 취하였다.

즉, △606 예비진지의 제7중대(장, 張得奎대위)로 하여금 05.00에 행동을 개시하여 05.15

에 ㉔ 西北麓의 제10중대진지를 인수케 함으로써 ㉔—㉕능선의 北斜面을 따르는 一連의 방어선을 강화토록 하고, 제10중대(장, 張奉錫대위)는 06.00에 그 西쪽의 제11중대로 뽑아 들렸다. 이에 따라 제11중대(장, 尹太準대위)는 06.25에 1개소대를 ㉕로 추진, 제3중대를 증원토록하는 가운데 主力을 ㉔로 집결케 되었는데, △606의 제5중대(장, 金守明중위)가 06.30에 ㉔에 집결하여 대기케 되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㉕일대의 제1대대(장, 李鍾緞소령)에서는 05.45에 ㉕에 먼저 도착한 공병소대가 陣前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안, 제3중대(장, 李應龍대위)가 07.00에 제11중대 제3소대의 증원을 받아 진지공사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敵의 역습을 물리치게 되었다.

08.00를 前後하여 波狀的으로 밀어닥친 2개소대규모의 敵의 역습을 네차례나 격퇴하게 된 바, 工事中인 공병의 엄호는姑捨하고 진지의 지형에도 힘겹게 되어, 공병소대가 총내 진지공사를 완료치 못한 채 15.50에 ㉔로 철수하게 되고 말 정도였으나, 중대는 제11중대의 제3소대와 함께 진지를 지켜내었다.

그런데 이때 그 兩쪽의 ㉔와 ㉕에도 敵의 攻撃狂波가 반복 밀어닥쳐 08.15에는 ㉕의 제1중대(장, 金昌煥대위)가 敵의 포화에 병력 殆半을 잃은 나머지 2개 소대규모의 敵의 역습을 견디지 못하여 피에 젖은 이 진지를 도로 내어주게 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08.30에 ㉕의 西北斜面에 있는 一제10중대와 連繫中인 一제7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㉕로 추진한 다음, ㉕에서 철수한 제1중대의 殘餘兵力과 함께 ㉕를 탈환케 한 바, 09.00에 제1중대가 同소대와 함께 ㉕에서 진지재편에 착수한 소대규모의 敵을 驅逐하고 이를 다시 手中에 확보하게 되었다.

이 무렵, ㉔에서도 제2중대(장, 金鍾晚대위)가 당면한 敵의 역습을 격퇴하게 됨으로써, 그 뒤로는 散發的인 接戰만이 계속되었으나 彼我사이에 커다란 激突없이 交綏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10.00를 前後하여서는 砲聲만이 어지러이 稜線을 넘나들었을 뿐, 1시간가까이 小戰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11.05에 이 ㉕일대에서 연대가 다시 立脚地를 굳히는 시간적 여유를 剝奪코자 함인지, 敵이 前例에 없었던 晝間공격을 試圖하여 ㉕와 ㉕ 그리고 ㉔의 3개 方向으로 同時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는 다시 敵의 巨波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中央의 제3중대가 확보중인 ㉕에서는 그 北쪽으로 ㉔의 제2중대와와의 間隙을 뚫고 들이닥친 敵 일단의 기세가 자못 날카로와, 제3소대장 權赫熙소위가 戰死하는 등의 병력손실을 입게 되는데다가 그간의 激戰과 敵의 포화의 妨害로 말미암아 보급추진이 如意치 못하였던 탓으로 중대의 수류탄마저 바닥을 보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李應龍대위는 중대본부요원과 火器소대(장, 대리 李金守일등상사)에서 16

명을 뽑아 제1선의 방어진지에 投入한 다음, 제1소대장 卓宰寅소위 및 제2소대장 安喆鎭소위와 더불어 死生決斷의 작오아래 銃劍으로써 對抗키로 하고, 敵이 陣內로 突入하기를 기다리던 차에 마침 어느 빈 壕속에서 敵이 버리고 간 방망이수류탄 2상자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前後 일곱차례나 되풀이 된 敵의 돌격기도를 모두 霧散시켰다.

이어 11.40에 ㉠의 제5중대(장, 金守明중위)에서 1개소대의 증원을 받아 固守태세를 더욱 굳히게 되니, 正午를 넘어서자 그들은 더 이상의 跳梁을 단념하고 말았는데, ㉡와 ㉢에서도 제2중대장 金鍾晚대위가 부상을 입는 激戰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觀測의 正確性을 期하여 퍼붓는 포병의 効力射로 말미암아 敵이 적지않은 손실을 입게 된 나머지 그들도 당달아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동안에, 제5중대 主力은 ㉣로 달려 그곳의 제9중대(-)와 진지를 교대 인수한 바 있으며, 제6중대는 ㉠로 한결음 더 나서서 전투참가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연대가 목표를 점령확보하여 또 한번 聲威를 떨치고 있는 동안인 15.00에 사단作指 제96호가 하달되었는데 그 요점은 『제1연대는 제1기갑연대의 殘餘 1개대대(제2대대)를 今 18.00 부로 追加 통합지휘하라.』는 것이었다.

당시에 제1기갑연대의 제2대대(장, 李承隱중령)는 10일 06.30에 敎室里에 집결하여 부대정비를 끝내고, 現地에서 機動예비대로 대기중이었으니, 사단장이 이렇듯 제1기갑연대 병력 모두를 제1연대에 배속한 것은 이날 12.00부의 군단作指 제42호에 의한 제8사단과의 交代명령을 감안한 결과, 이 ㉣일대의 原狀恢復을 위한 苦肉策의 一環이었으리라.

이에 연대장은 이날 밤에 必至할 敵의 夜襲에 대비키로 하되, 17.00에 연대의 제2대대와 새로 배속받은 제1기갑연대의 제2대대 일부병력을 ㉣ 일대에 充當配置키로 단안을 내리고, ㉣의 제1대대를 △690로 뽑아 내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8.30부터 ㉣부근에서 陣地交代에 들어갔는데, 19.00에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의 夜襲이 시작되어 제10중대정면과 ㉣北쪽의 제5중대 1개소대진지 정면에 紛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19.35에는 제10중대정면에서 8부능선까지 육박하여 수류탄을 陣前에 炸裂케 하는 등 敵이 기세를 올림으로써 진지교대병력이 이 渦中에 휩쓸리게 되어, 일시 진지교대를 중지하고 肅心하여 20.00에 그 敵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어 예정대로 진지교대에 들어 가, ㉣일대의 제1대대와 제11중대의 1개소대는 21.00에 △690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임하게 되었는데, 제3중대의 경우는 여기서 병력을 點檢한 결과 殘餘병력이 1개소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의 제5중대(-)로써 계속 그곳을 확보케 하는 가운데 ㉠의 제6중대의 1개소대로써 ㉡를 확보케 하고, 同중대 主力을 제7중대와 함께 ㉣로 추진하였으며 이미 ㉣로 추진된 바 있는 제5중대의 1개소대를 ㉣로 뽑아 돌렸는데, 이때 ㉢西北麓의 제7중대 진지에는 △690에서 제11중대를 뽑아 補填하였다.

한편 제1기갑연대의 제2대대에서도 이에 呼應하여 제5중대(장, 權寶玉대위)를 △690에서 ㉔로 추진함으로써 23.00를 前後하여 진지개편을 모두 끝내었으니, 于正 현재 ㉔일대의 진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㉔고지…제1연대 제7중대와 제6중대의 2개소대 및 제1기갑연대의 제5중대.

㉕고지…제1연대 제6중대의 1개소대.

㉖고지…제1연대 제5중대의 1개소대.

㉗에서 ㉘北斜面을 거쳐 ㉙北斜面에 이르기까지…제1연대의 제11, 제10중대와 제9중대의 1개소대.

10월 14일 : 1. 전날 子正을 넘기고, 이날 01.00가 되니 豫期한 대로 敵의 夜襲이 어감 없이 들이닥쳤으니, ㉔고지 쪽으로부터 능선의 北斜面으로 돌아, ㉕와 ㉖사이의 차단을 기도하면서 먼저 그 一團이 ㉕를 攻迫하고, 01.20에 2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다른 일단은 ㉖의 정면을 強壓하였는데, 이와 맥을 같이 하여 ㉙西北斜面의 제10중대 정면에서도 敵 2개소대 규모가 挑發하였다.

이리하여 1시간 가까이 激戰을 벌인 끝에 02.35에 ㉖와 제10중대정면의 敵을 격퇴되었으나, ㉕에서는 그곳의 제6중대 1개소대가 ㉖와의 차단위협과 ㉔로부터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㉖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05.15에 同소대의 선임하사가 1개분대의 特攻組를 지휘하여 ㉕로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그곳에 남아있던 1개분대규모의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06.30에 이를 다시 확보하였는데 이에 ㉖의 제6중대 主力을 ㉕로 증강하여 이의 확보에 대한 自信을 굳히게 되었다.

2. 한편, 사단본부 상황실에서 徹夜로 ㉖일대의 확보에 대한 迂餘曲折의 과정을 지켜 본 사단장 李龍文준장은 ㉕에서의 마지막 奮奪에 매듭이 지어진 이날 아침, 비로소 指揮棒을 宋堯讚소장에게 인계하고 새로운 任地인 南原(南部지구경비사령부)으로 떠났다.

이리하여, 이제 宋堯讚소장이 지난 7월에 南警司로 轉任된 以來 3개월만에 다시 사단을 지휘케 되었거니와 그는 12.00에 사단 作指 제97호를 下達하여, 8일의 軍단作指 제41호에 의한 연대間的 後方地境線 변경을 10.15. 00.01부로 斷行키로 하는 한편, Wyoming線 진지의 교대결과보고와 이에 따르는 撤收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18일과 22일까지 제출토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12일에 제1훈련소로의 轉出命令에 따라 濟州 驀瑟浦로 떠난 제1기갑연대장 崔在鴻중령의 후임으로 軍단 情報處長(G-2) 陸根洙중령이 새로이 부임케 됨에 따라, 14.00에는 作指 제98호를 다시 하달하였는데, 그 要點는 다음과 같다.

『㉔ 제1연대는

㉔ 10.15. 14.00부로 제1기갑연대의 배속을 해제한다.

㉕ 현재 확보중인 ㉖고지 일대의 진지를 同日時부로 제1기갑연대에 인계하라.

㉔ 1개대대를 同日時부로 제1기갑연대에 배속조치하라.

㉕ 배속중인 사단수색중대(一)의 작전지휘권을 同日時부로 제1기갑연대에 移讓하라.

㉖ 2개대대를 10. 15. 20.00까지 敎室里에 집결, 부대정비에 임하게 하라.

② 제1기갑연대는 10. 15. 14. 00부로 제1연대의 1개대대와 사단수색중대(一)를 통합지휘하여 ㉔고지의 방어입무를 제1연대로부터 인수하라.』

3. 낮 동안,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는 散發的으로 試圖된 敵의 역습을 數次 포격으로 격퇴하면서 ㉔일대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15. 00에는 여기에 대한 防禦力을 증강하기 위하여 진지를 다시 개편하였다.

즉, 제1대대(장, 李鍾綠소령)는 잔여병력으로 混成 1개중대를 급편하여 계속 △690에서 機動예비대로서 대기케 하는 가운데, 17. 00에 △690의 제1기갑연대의 제20수색중대를 ㉔의 先端(LD)에 추진한 다음 19. 00에 그 중에서 1개소대를 ㉕로 뽑아 올리고, 그곳 ㉕의 연대 제5중대에서 1개소대를 ㉖로 옮겨 제6중대와 交代토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 50에 제5중대의 1개소대는 ㉖에 진출하여 20. 00에 그곳의 제6중대의 진지를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6중대(장, 李鍾七중위)는 22. 00에 ㉖에서 철수하여 23. 00에 ㉑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동안인 19. 25에 ㉔西北麓의 제11중대(장, 尹太準대위) 정면의 雙巖洞계곡에 1개분대의 斥候組를 보낸 결과, 이들로부터 20. 40에 1개소대규모의 敵이 중대陣前으로 近迫中이라는 보고가 있어, 여기에 대비한 화력집중으로써 敵이 陣前에 나타난지 5분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자 뒤이어 數未詳의 敵 일단이 다시 나타나 ㉕와 그 西쪽의 제11중대진지정면에서 21. 00부터 激戰의 苛烈을 보게 되었는데, 22. 05에는 ㉖에서도 ㉑로부터 2개소대규모의 敵이 肉迫한 까닭으로 血戰의 한 場面을 演出케 되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㉔일원에서는 수류탄의 閃光이 夜空을 絢爛케하는 바 되었으나, 22. 30에는 그곳 將兵의 勇戰으로 이들 敵을 모두 격퇴하고 말았다.

라. 전투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사단과 中共제35사단이 首都고지와 指形능선에서 4개월이나 反復한 攻防의 血戰은 사단이 △575를 잃은 상태에서 끝내 勝敗를 決定짓지 못한 채로 끝을 맺고 말게 되었으니, 이는 10월 末을 前後하여 彼我が 모두 이 戰線에서 물러나게 된 까닭에서이다.

敵軍의 動向: 中共제35사단(장, 李德生)은 이미 9월의 전투로 말미암아 前線兵員의 殆半을 잃고 戰鬪力이 半減된 상태에서, 失墜된 그들은 군의 「面子」를 세워보리라 胸算한 나머지 부대交代를 前提로 乾坤一擲의 「秋季攻勢」를 감행하였던 것이나, 제104연대는 首都고지에서 蠕蠕이 그 一斧를 휘두르는 격이 되고 말았으며, 제101연대는 제105연대의 支援아래 指形능선쪽에서 斷末魔로 發惡한 결과 △575를 손에 넣고 ㉔고지에서도 자못 兇勇을 보인 바 있으며, 서로의 出血만 보았을 뿐 ㉔고지

의 攻奪企圖만은 끝내 徒勞에 그치고 말았다.

9월 下旬부터 擡頭되었던 當面の 中共제12군(장, 曾紹山)의 交代說은 10월 初旬부터 그 徵候가 현저하게 들어나, 谷山의 제60군과 淮陽의 제67군에 대한 向方을 注目케 하였는데, 제67군이 昌道里로 南向하여 10월 末에 이 제12군과 戰線을 交代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따라서 당초에 제12군과의 交代說이 파다하게 나돌던 谷山의 제60군—같은 제3병단소속—은 意外로 魚隱山 정면의 제68군과 같은 時期에 交代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67군에 戰線을 인계한 제12군은 右翼이었던 제31사단(장, 趙藍田)의 일부로써 제15군(美제9군단 정면)의 제29사단을 지원하는 가운데 主力은 谷山에 집결한 듯 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제12군에 이 戰線을 인계하고 淮陽으로 물러나 부대정비와 함께 제2방어선을 확보중이던 제67군(장, 馬龍)이 다시 戰場케 되었거니와, 제12군의 제35사단은 이 戰線을 맡은 뒤로, 首都사단과 對陣케 되기까지는 별다른 接觸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首都사단과의 4개월의 激戰에서 큰 타격을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戰線에 再次 나타난 제67군은 11월부터 제119사단을 예비로, 제200, 제201 兩사단을 前線에 내세워, 首都사단의 진지를 인수한 제8사단 및 제6사단과 새로이 對陣케 된다.

我軍의 動向: 한편 사단은 作指 제98호에 따라, 15일 14.00부로 左一線의 整備를 圖謀하려 하였으나, 이날 새벽에도 ①일대에 대한 敵의 挑發이 그치지 않아 不得已 제1, 제1기갑 兩연대의 戰線(①일대) 交代時期를 16일 06.00로 늦추고 15일 밤을 타서 계획된 부대교대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제1기갑연대장 陸根洙중령은 [15일 06.00부로, 당초 主抵抗線의 연대 左一線이던 제3대대(장, 韓錦昌소령)를 指形능선으로 뽑아 올리는 한편 그곳에는 예비진지(△645—△606)에서 부대정비를 끝내고 撥動에비대로 대기중인 제2대대(장, 李承隱중령)를 새로이 充用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左一線의 정비를 끝낸 16일 正午부터는 제8사단과의 진지 교대에 앞서, Kansas線 진지공사와 金城川 교량의 보수작업 병력을 제외한 工兵대대 全力을 Missouri線과 ①일대의 경계 진지에 投入하여 진지보수공사를 실시케 하였는데, 17일 밤에 제1기갑연대의 제9중대(장, 張翰洙중위)가 확보중인 ②고지에 또 한차례 敵의 狂波가 불어닥친 바 있으나 兩 중대의 鐵槌一擊에 172명의 시체를 陣前에 남긴채 격퇴되고 말았다.

이어 20일에, 사단장 宋鏡韻소장은 作命 제164호를 下達함으로써 제8사단(장, 金益烈준장)과의 진지교대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초 軍단作指 제42호에 이르는 제8사단과의 交代와 동시에 美제9군단의 예비로서 제5FTC에 임한다 하였으나, 제8군의 명령에 따라 그 계획의 일부가 修正되어, 美제1군단의 예비로서 제1FTC에 轉進케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곧 진지교대에 들어갔는데, 23일 밤에 이 진지교대의 虛隙을 틈타 제1기갑연대의 ①일대에 敵의 攻波가 또 한번 들이 친 탓으로 前線에서는 一面 敵을 격퇴하면서 一面 진지를 교역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各 연대는 대체로 25일에는 제8사단에 진지인계를 완료하였다.

먼저 사단 CP는 18일부로 제6야전포병단에서 배속해제되어 사단에 복귀한 제10포병대대와 함께 沓川—清涼里를 거쳐 富平里(議政府 東쪽 12km)로 移轉케 되었으며, 右一線인 제26연대(장, 鄭震대령)는 24일 正午에 제16연대(장, 劉載成대령)에, 左一線인 제1기갑연대(장, 陸根洙중령)는 25일 04.00에 제21연대(장, 孔國鎭대령)에, 그리고 예비인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는 25일 01.00에 제10연대(장, 李寬植대령)에 각각 진지를 인계하고 사단 CP를 追隨한 바, 26일에 제26연대는 內里(“비석거리”; 沓川 南쪽 12km)에, 제1기갑연대는 八夜里(비석거리 南쪽 3km)에, 그리고 제1연대는 東豆川으로 집결케 되었다. (10.27. 18.00부로 美제1군단에 배속)

이리하여 11월 3일부터는 9週間的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同月 20일에는 美 空軍參謀總長인 Hoyt S. Vandenberg대장과 極東空軍司令官 Otto P. Weyland대장이, 24일에



<11. 29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전투 유공장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사단장 宋堯齋소장>

左一線으로 하여 △552—下所里에 이르는 戰線을 새로이 담당케 된 것이다.

이때 사단은 12월 12일 06.00부로 제6야전포병단과 제92포병대대를 배속받은 바 있는데, 同제6포병단(장, 대리 尹承國중령)은 그간 제8사단을 지원하다가 11월 10일에 제2군단에서 美제9군단으로 배속변경되어, 同月 19일부터 同군단의 제1야전포병단(장, 대리 朴秉柱중령)을 화력지원중에 있었으며 제92포병대대(장, 韓光鮮중령)는 당시에 美제25사단을 지원중 11월 28일부로 제6야전포병단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사단은 12월 11일 15.00부로 제9사단을 지원중인 제59戰車중대(장, 金南守대위)를 배속받기도 하여, 이들 지원부대와 함께 晝練夜操로 戰力을 強化하는 동안에 이 래를 넘기게 된다.

는 UN군사령관 Mark W. Clark대장이 그리고 28일에는 李承晚대통령과 陸軍總參謀長 白善輝중장이 사단을 방문한 바 그때마다 帶同한 제8군사령관 James A. Van Fleet대장이 사단을 소개하기를, 『首都사단은 韓國戰爭 발발이후, 28개월동안 예비로서 戰線에서 빠져 본적이 한번도 없거니와, 싸우되 그 또한 한번도 지지 않았던, 韓國 제1의 영예사단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과연 이렇듯 開戰以來로 잠시도 쉬어본 적 없었던 사단은 이제 제1FTC에서 그간의 艱難을 씻게 되었으나, 前線의 戰況은 사단에 주어진 9週間の 休息을 기다리지 않아, 12월 10일에 제8군명령에 따라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에 배속되어 金城 西南쪽의 南大川 彎曲部の 同군단 右翼인 제9사단(장, 金黠坤중장)의 진지 일부를 인수케 되었다.

즉, 사단CP를 濟宮洞으로 推進한 다음, 제1기갑연대를 예비로 하는 가운데, 제26연대를 右一線으로, 제1연대를

綜合 戰果 및 損失(戰鬪詳報綜合)

戰 果

① 제1차戰(7.7~7.8)

地 域 別	部 隊 別	射 殺		捕虜	鹵					獲 信號彈 手榴彈
		確 認	推 算		小銃	多發銃	SMG	HMG	LMG	
621高地	제26연대	2			2					
㉠—㉡—㉢高地	제1연대	215			3	2				
	計	217			3	4				

㉓ 제2차戰(8.5~8.7)

首都高地	제26연대 제1연대	196	440		4	11	3			2	40
------	---------------	-----	-----	--	---	----	---	--	--	---	----

㉔ 제3차戰(9.6~9.18)

首都高地 (9.6~9.13)	제26연대 제1연대	586	1,235	2	15	31		1	1	1	115
指形稜線 (9.6~9.18)	제1기갑연대 제1연대	85	318		1	1	1	8	1		
	計	671	1,553	2	16	32	1	9	2	1	115

㉕ 제4차戰(9.28~9.29)

首都高地	제26연대	115	85		9	2					
指形稜線	제1기갑연대	92	60								
	計	207	145		9	2					

㉖ 제5차戰(10.6~10.14)

首都高地 (10.6~10.8)	제26연대	119	128		5	2					46
指形稜線 (10.6~10.14)	제1기갑연대	190	306		8	8			2		50
	제1연대	686	511	2	13	9			2		720
	計	995	945	2	26	19			4		816

損 失

㉑ 제1차戰(7.7~7.8)

장교/사병

地域別	部隊別	戰死	負傷	失蹤	亡 失												
					M1	CAR	BAR	LMG	HMG	3.5R	60mmM	SCR609	SCR536	TS10	EE8		
621高地	제26연대	3	5														
㉐-㉑-㉒高地	제1연대	1/55	5/160	0/5	97	18	13										
	計	1/58	5/165	0/5	97	18	13										

㉒ 제2차戰(8.5~8.7)

首都高地	제26연대 제1연대	5/61	9/141		42	50	5	1	1	1	2	2	1
------	---------------	------	-------	--	----	----	---	---	---	---	---	---	---

③ 제3차戰(9.6~9.18)

首都高地 (9.6~9.13)	제26연대	6/129	16/298		64	15	17	1			1	7	
	제1연대	5/153	11/417										
指形稜線 (9.6~9.18)	제1기갑연대	3/56	25/345	1/50	133	39	9			1	2	5	
	제1연대	1/98	11/296		205	84	17	1			3	15	
	計	15/436	63/1,356	1/50	402	138	43	2		1	6	27	

※ 수도고지 제1연대분의 亡失은 지형능선에 포함

④ 제4차戰(9.28~9.29)

首都高地	제26연대	0/38	2/66		19	5						1	1
指形稜線	제1기갑연대	2/23	4/87	0/20	67	14					2	3	4
	計	2/61	6/153	0/20	86	19					2	4	5

⑤ 제5차戰(10.6~10.14)

首都高地 (10.6~10.8)	제26연대	0/24	2/83										
指形稜線 (10.6~10.14)	제1기갑연대	1/55	10/312	3/14	145	73	8	3		2	1	7	1
	제1연대	14/238	27/788	0/74	273	63	12	3			1	10	3
	計	15/317	39/1,183	3/88	418	166	20	6		2	2	17	4

※ 수도고지의 제26연대분 亡失은 확인불가.

§ 參戰者의 證言

◇ 제2군단장 劉載興중장

(1975. 9. 2 대한석유공사에서, 豫 中將)

『당시에 우리의 決意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 수도고지에서의 血戰을 낳게한 理由인지도 모른다.

이 戰鬪의 특징은 彼我間 砲兵의 對決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韓國戰爭에서의 陣地戰의 特性이 이 戰鬪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首都고지와 指形능선 그 자체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고, 또 彼我의 主抵抗線에서 職制를 담당하기 때문에, 병력이 불기만 하면 이른바 「포병의 밤」이 되고 말았다.

당시에 군단은 사단별로 FSCC를 구성하여 포병을 집중운영 하였는데, 韓國軍사단에 그렇게

많은 포병이 지원되기는 처음이었다. 一首都사단장 李龍文중장이 「포탄이 모자란다」는 不平을 吐露하여, 이것이 美 議會에 까지 飛火됨으로써 그 眞僞與否와 責任所在규명에 대하여 物議가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敵도 우리 포병에 못지 않았다. 1일 落彈 단위가 몇 萬發이나 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彼我의 損失이 많았는데, 敵도 악착같았지만 우리 將兵들도 決死의으로 잘 싸워, 끝내는 이들 고지를 지켜내었다.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이 군단에 Silver Star 50개와 Bronze Star 50개를 무더기로 수여 하였는데,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 훈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달아 주어 보기는 처음이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특히 신경을 쓴 것은 負傷兵의 早期後送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상병도

Helicopter로 후송하였다.

당시에 느낀 바로는, 우리 장병들은 목표를 역습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에 약하였다고 본다. 공격하여 따기는 하나, 敵의 역습에 도로 잃기가 예사였으니까. 이는 공격 後의 진지편성이 용이치않은 탓이기는 하나, 공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주의깊게 강구해야하지 않겠는가.』

◇ 首都사단장 宋堯謙소장

(1964. 11. 27 新堂洞 自宅에서, 豫 中將)

『나는 52년 7월에 李龍文중장에게 首都사단을 인계하고 南營司로 내려 갔다가 다시 사단으로 되돌아 왔는데, 그동안에 사단은 상당히 많은 死傷者를 내고 있었다.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이 南營司로 와서 나에게 다시 首都사단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래서 李龍文중장과 다시 교대하고 보니, 당시에 포병지원에 결함이 있었다. 사단지원의 모든 砲兵이 제2군단(美5개포병단)지휘하에 있었는데, 제5포병단장 Mayo대령이 어떻게나 깐깐하고 까다로운지 사단포병까지 움켜쥐고 있어 사단장 마음대로 포병을 운용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니까 제1연대(장, 朴春植대령)가 指形능선 탈환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대에 보병기동계획밖에 짜여진 것이 없었다. 포병화력계획은 제5포병단이 쥐고 있었으니, 火力支援의 協調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단을 인수하는 즉시로 먼저 이 제5포병단장부터 구슬렸다. —사단포병지원의 책임은 全的으로 당시 手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사단의 戰鬪力 발휘와도 直結된다. 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대 주기 바란다. 縱深支援을 하여, 차단사격으로서 敵의 예비대 投入을 우선 막아달라...

내가 사단에 간 뒤로는 그리 큰 損失없이 진지를 확보하다가 제8사단에 인계하고 물러났지만, 당시에 首都사단에는 北進時의 山參兵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는 사단본부의 운전병과 병참부대의 행정요원까지 나가 싸웠을 지경이었다.

그때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군단포병이 사단

포병운영을 간섭한다든지 장악한다든지 하여 지휘체제를 二元化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 제1연대 제3대대장 朴贊誠중령

(1966. 3. 24 육군본부 G-1에서, 대령)

『당초 指形능선에는 10~15년생 雜木들이 딱딱이 들이 차 있었는데, 전투가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地上 1m정도에서 모두 꺾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뿌리채 파헤쳐져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붉은 흙이 흡사 수렁같이 무릎에 까지 빠지게 되었는데, 포탄이 두 서너 발만 떨어져도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 앞을 바라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小銃의 노리쇠에 먼지가 끼어 적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부대 할 것없이 공격할 때에는 아예 소총을 썩어치고, 병사들 각자 지닐만큼 가능한 많은 수자(50배)의 廢棄에다 수류탄 50여발씩을 넣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먼지나 다름없는 흙을 마대속에 쓸어담아 掩蔽物로 쓰는 것이었다.

뾰루ں 팔 거론도 없거니와 과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급편한 진지에서 수류탄으로 敵의 역습을 물리치곤 하였는데, 이런 진지는 敵의 포탄 1발이면 금방 風飛雹散되고 말았다.

이런 상태는 彼我 마찬가지로였다.』

◇ 제1연대 S-3 申瓊榮대위

(1965. 8. 9 제6군단사령부에서, 대령)

『敵과 我軍이 하도 至近거리에 붙어 있어, 우리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탄에 회생되는 수가 非—非薄였다.

어떻게 된 셈인지, 포탄 한발만 떨어지면 아주 연막차장을 한 것 같이 고지가 온통 새삼래졌다.

그래서 고지에서 하루 밤만 지새고 나면 모두가 눈병이 나서 눈이 별것처럼 充血되었다. 睡眠不足때문도 있겠으나, 내게는 먼지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에 병사들間에는 운전병이나 戰車兵들이 쓰던 保眼鏡이 人氣品目的 하나였다. —공격時에 이것을 써야 하니깐.』

◇ 제26연대 제3대대장 金成壽소령

(1966. 4. 29 육군본부에서, 대령)

『나는 제26연대 S-3를 하다가 8월에 제3대대장 卍宗郁대위가 OP에서 부상을 입게되어, 그

후임 대대장으로 나갔다.

9월 초순인데 그때 우리는 예비대로 빠져 있었다—어느 날 저녁, 막사에서 「新天地」라는 雜誌를 뒤적이고 있노라니까, 敵의 포탄이 경신없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휘소 옆에 마련된 待避壕에 뛰어들어 電話로 대대 S-2와 S-3를 불렀더니, 不通이었다.

조급했으니까, 無電으로 연대장이 首都고지에 대한 역습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S-2, S-3를 찾아서 데리고 △663의 OP로 올라가 밤중에 역습을 시켰는데, 아침에 보니가 병력만 없어져버렸다. 우물에 돌집어넣기 식이었다. 나중에 사단에서 제1연대의 제1대대를 연대에 배속시켰으므로 이 제1연대에 戰線을 인계하게 되었는데, 그 대대장이 나에게 상황을 물길때 나는 「보다시피 이렇다」고만 대답하였다. 그런데 내가 미처 자리를 뜨기전에 OP가 敵포탄에 얻어맞아 그 대대장이 또 부상을 당하여 나가고 말았다. 그러니 연대장이 「그 병력을 계속 지휘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대참모도 없이 남의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우리 主抵抗線과 首都고지 사이는 300m밖에 안되어, TOT사격을 加하니 우리 병력도 無事할리 없었다. 할 수 없어서, 좀 쉬었다가 새롭게 공격계획을 짜가지고 하자고 연대장에 건의하였더니, 제1연대의 제2대대에 戰線을 인계하고 내려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投入된 제2대대가 고지를 따게 되었다.

나는 같은 고지에서 대대장이 돌 썩이나 敵포탄에 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때마다 그 후임을 맡았으니,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이 奇蹟인 것만 같다.』

◇ 제1기갑연대 제2대대 작전교육관 閔龍基 소위

(1965. 9. 24 首都사단 정훈부에서, 중령)

『당시에 敵의 포격이 얼마나 치열하였느냐 하면, 우리 側의 有蓋壕도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하였다고 自負한 터였지만, 그것이 견디어 나지 못할 지경이었다. 交通壕는 아예 平地가 되고, 壕跡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번은 대대 OP에 敵의 연막탄이 날라들어, 내가 그것을 집어 끝까지 내던진 적도 있다.

그때 이런말이 流行했는데, 이것이 당시의 戰況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각하,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조금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각하, 점령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 제1기갑연대 제10중대 제2소대장 林福圭 소위

(1965. 8. 9 제20사단 G-1에서, 소령)

『나는 1952년 4월 25일에 임관되어 기갑연대에 배치되어 指形능선전투에 참가하였다. 당시의 전투 양상은 敵이 저녁에 공격하여 밤에 진지를 편성하고 我軍이 새벽에 공격하여 낮에 진지를 편성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인가, 달이 흰하게 밝은 밤에 敵이 공격을 해 왔는데, 中共軍들이 뿔뿔이 서서 올라왔다. 그때 우리는 보급이 잘 안되어 끼니를 굶기도 예사고 해서 수류탄을 무척 아꼈는데, 敵이 수류탄 투척거리에 든 다음 일제히 수류탄을 던졌다. 敵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으나, 다음 순간에 敵이 그냥 우리 壕를 밟고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壕의 入口를 틀어막고 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진내사격이 시작되어, 敵이 다시 우리 壕를 밟으며 撤收하였다. 그때 전투단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당시에 들리는 말로, 우리 側의 공격方式에는 「사단장식」이니, 「고문관식」이니 하는 것이 있었다.

즉, 사단장식이란 것은 主抵抗線 병력이라도 뽑아서 경계진지(指形능선)의 얇은 부분을 되찾는 것이고, 고문관식은 설사 경계진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主抵抗線의 병력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에 美軍과 한국군 사이의 방어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는 한치의 땅이라도 잃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는 당시의 소대장인 나로서는 판단할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어쨌던 나

무나 많은 사람이 그 작은 고지에서 희생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뿐 일이라고 본다.』

◇ 제53포병대대 관측장교 朴明俊 소위
(1965. 8. 19 제26사단에서, 소령)

『나는 당시 제53포병대대가 기갑연대를 지원하게 되어, 同연대 제1대대 OP로 갔다. OP에는 대대장과 중대장이 같이 있었는데, 관측소가 따로 없어 대대 OP를 같이 썼다. 때문에 교통호갈은에서 관측을 하여야 하는데, 敵의 포격이 치열하여 당시의 관측이란 아예 묵숨 내어놓고 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無繩機로 SCR-609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부피가 크고 作動이 느린때다가 敵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지 포대를 呼出하면 敵이 응답하기가 일수였다.

그래서 포대에서는 되도록 有線을 사용하도록 강조하였지만, 有線杜絶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내가 通信線을 메고 架設兵 역할까지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포대에서 워낙 많이 쓰아대니까 落伍彈이 많이 생겨 우리 側 Cable線을 절단하는 事例가 퍼려 있어, 「53대대는 Cable 끊어먹는 대대」라는 영예롭지 못한 別名까지 얻어 듣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지를 공격하면 敵의 저항이 약화되었는데, 흡사 술 취한 사람같이 방방이 手榴彈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나중에 연대수색중대가 수집한 敵의 函獲物資 가운데 아편이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놓고 分析한 결과, 敵이 전투前에 이 마약을 먹고 도취된 상태에서 전투를 하였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다.』

§ 戰 訓

◇ 逆襲時 병력의 逐次사용 문제

이 전투에서 최초의 역습부대가 그 기도를 달성한 적이 없으며, 同一한 부대가 역습을 반복하여서도 또한 성공한 例가 없다.

제1차의 역습이 실패하면,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계획아래 단 1회로서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니, 首都고지에서 8월 7일의 제1연대 제2대대 9월 9일의 同대대, 指形능선에서 9월 18일의 제1연대 제3대대와 10월 13일의 同연대 제3대대

의 경우가 그 좋은 例인 것이다.

역습에 있어서 병력의 逐次사용은 전투력만 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 舊日本軍에서도 「달아오른 들에 물붓기」라하여 用兵上의 禁忌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 포병火力的 協調문제

사단의 포병을 美 포병단이 관장함으로써 화력지원면에서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적어도 직접지원부대만은 사단장의 手裡에 있어야 할 것이다.

直接支援과 一般支援을 混同하여 千遍一律的으로 統合指揮단을 強調한다는 것은 到底히 理解할 수 없다.

9월 19일의 군단訓습이 意圖한 바가 那邊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 사단이 金城 西南쪽 戰線에 들어가서는 제6포병단을 배속하였다는 사실도 이와 無關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通信手段의 確保문제

이 전투에서는 接觸이 시작되면서 으레히 有線이 두절되었다고 하였다.

지휘관은 戰鬪間에 있어서 通信網의 확보에 대하여 百方의 수단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두절을 고지피탈의 理由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中共兵의 피리, 이것은 그들이 心理的인 효과를 노림에도 있으나 그것이 그들이 독특한 신호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공포판의 설치잘못으로 대대 OP가 友軍機의 폭격을 당하였다는 事例는 보다 세심한 注意力을 요구하는 것이다.

◇ 陣地의 強度문제

8월과 9월의 兩次に 걸쳐, △ 663의 대대 OP가 敵포탄에 맞아 대대장 2명이 부상당하였는 바 同 OP의 위치와 強度面에 있어서 符考를 覓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陣地의 虛弱, 이것은 對陣상태 下에서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될 것이다.

敵의 포화가 強하다고 달하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였을 것이다.

◇ 指揮官의 交替문제

10월의 激戰中에 사단장이 更迭되었다. 이에 대하여 或者는 △575失守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이라고도 하며, 또 或者는 제5포병단 장과의 不和에 基因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575의 失守나 美포병단장과의 不和說은 모두 그 理由에 合當치 않을 것이다. 싸움마다 어찌 꼭 이길 수 만 있을 것이며, 두 사람의 不和가 또 어찌 한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 까닭은 딱히 알 수 없으며, 결과만은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장의 교체와 부대의 교대가 거의 同時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대를 교체시킬 생각이라면, 어찌하여 전투 중인 부대장을 먼저 바꾸었는가?

부대를 교대한 다음, 그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 研究

(1) 高地의 名稱문제

本文中의 ㉠, ㉡, ㉢이나 ㉣, ㉤, ㉥ 등은 모두가 표고조차 알 수 없는 無名고지이므로 敘述의 편의상 이와같이 表記하였다.

또 ㉦과 ㉧, 그리고 ㉨와 ㉩ 등은 現用군사지도상으로는 고지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나, 이도 같은 理由로 고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 ㉫, ㉬와 ㉭, ㉮, ㉯ 및 ㉺, ㉻, ㉼는 실제로 당시에도 그렇게 알려진 것인 듯 하니, 戰鬪詳報에 그와같은 기록을 간간히 볼 수 있다.

또 ㉽는 Finger의 頭文字를 딴 것인듯 한데, 어떤 記錄에는 이를 指形고지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蘭草고지」라는 고지 이름도 간혹 비치는 데, 이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取하지 아너하였다.

(2) 戰死日字문제

本文中의 戰死日字와 附錄인 「戰死者名單」上の 記錄과 차이가 있는 것이 더러 있다.

예를 들면, 제1연대 제5중대장 朴基宗중위의 경우 本文에는 9월 11일 記事에 포함되어 있으나, 同名單에는 9월 15일로 되어 있다.

이를 分析컨대, 9월 15일에는 本文에서와 같이 별다른 接職이 없어 이날 戰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제1연대 제2대대 S-3 副대대장이었던 黃斗淵대위가 『수색중대를 지휘하여 亂戰中의 高地로 밀고 들어가 同 중대장의 죽음을 확인하였다』고 證言한 바 있어(전투상보에도 이날은 9월 11일임) 9월 11일의 首都고지 방어전에서 그가 전사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듯 하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公式記錄(戰死者명단)에는 9월 15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附記하되, 本文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事由發生當日을 주로 잡았는데, 다른 경우(負傷, 補職日字 등)도 이와같다.

(3) 個人記錄문제

이 戰鬪는 당시에 상당히 크게 알려진 듯 하나, 그 규모에 비하여 記錄이 빈약하다.

따라서 本文中의 개인 行蹟은 個人記錄의 追跡이나 證言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또 한 예를 들면, 9월 7일의 제1연대 제1대대장의 부상이나, 9월 8일의 제1기갑연대 제1대대장의 부상, 그리고 제3대대장의 戰死 등은 戰鬪詳報로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

同전투상보의 전투서열란에는 제1연대 제1대대장에 咸溶翼중령, 제1기갑연대 제1대대장에는 李鳳植중령(이는 李鳳植중령의 誤記인 듯) 그리고 同 제3대대장에는 朴明燾소령이라고만 적어 놓았을 뿐으로, 이 기록만으로서서는 이 전투기간 이들이 계속 각각의 대대를 지휘한 것으로 推斷케 한다.

3. 575高地 附近 戰鬪

防禦戰 (1952년 4월 16일부터
1952년 4월 18일까지)

제 1 차攻擊戰 1952년 5월 31일

제 2 차攻擊戰 1952년 6월 14일

참조 : 상 황 도 34. 35. 36. 3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防禦戰>

		我		軍	
제2군단	장	중장	白 燾 燁	자원부대	
제6사단	장	준장	白 仁 燁	美제5포병단	장 대령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Richard W. Mayo
제2대대	장	중령	柳 承 源	제27포병대대	장 중령 李 南 求
제3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美제300자주포병대대	장 중령 Sheppard
			敵	軍	
中共				제35사단	장 李 德 生
제12군	장		曾 紹 山	제103연대	장 基 幹

<제 1 차攻擊戰>

		我		軍	
제19연대	장	대령	宋 虎 林	제51포병대대	장 중령 宋 善 陽
제3대대	장	중령	金 明 益	제52포병대대	장 소령 河 英 燮
제11중대	장	대위	金 東 根	제27포병대대	장 중령 李 南 求
지원부대				공병대대 제3중대	장 중위 田 峻 律
제1포병단	장	중령	盧 載 鉉		
			敵	軍	
中共제35사단	장		李 德 生	제105연대	장 基 幹

<제 2 차 攻 擊 戰>

		我		軍	
제19연대	장	대령	宋 虎 林	제52포병대대	장 소령 河 英 燮
제3대대	장	중령	金 明 益	인접부대	
제10중대	장	중위	朴 世 熙	右인접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지원부대				左인접 美제40사단	장 소장
제1포병단	장	중령	盧 載 鉉		Daniel H. Hadelson.
제51포병대대	장	중령	宋 善 陽		
		敵		軍	
中共 제35사단	장	李 德 生		제105연대	基 幹

나. 전투 전의 개황

我軍의 狀況 : 主戰사단으로서의 작전임무를 開戰以來 벗어나지 않았던 제6사단(장, 白仁燁 준장)은, 52년 1월 中旬부터 楊口附近의 FTC에서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臨하였는데, 3월 22일에 下達된 육본 作指 제133호에 의거하여 美 제9군단으로 배속됨으로써 또 다시 戰線으로 躍進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단은 동월 23일에 移動을 시작하여 CP를 巨里室(金化, 遼南)로 推進開設하고, 제7, 제2 兩연대를 美 제40사단(장, Daniel H. Hadelson 소장)에 再배속하여 28일에는 美 제224, 제223 兩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였는데 다음 날에는 白戰司作指 제4호(52.3.29)에 따라서 現位置에서 美 제9군단 이로부터 白戰司(4.5附 제2군단으로 改編)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白戰司의 左翼사단으로서 右로는 수도사단(장, 宋堯讚 준장), 左로는 美 제40사단(장, Daniel H. Hadelson 소장)과 連繫를 維持하고,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를 右一線,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765(轎岩山 東쪽 1.5km)―轎岩山(△770)―△442(轎岩山 西北쪽)―鷄岩―泗川里―烽火山(△477)을 連한 Missouri 線上의 主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19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사단에비로서 竹洞(轎岩山 南쪽 4km)에 控置하였다.

한편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는 鳩峴里로 移動하는 즉시로 美 제5포병단(장, Mayo 대령)의 작전통제하에 들었는데, 大谷(鳩峴里 西南쪽)에 布陣한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 중령)와 더불어 사단에 대한 直接支援 태세를 갖추었으며, 제52전차중대(一)(장, 金東馥 소령)가 사단에 배속되어 대전차방어와 火力增援임무를 담당하였다.

金城正面의 突出된 戰線을 담당하기에 이른 사단은 金城을 咫尺에 두고 威脅하였으나, 休戰會談의 膠着에 따른 政戰兩路의 制限에 따라서 공격을 留保한 채 漸次增強되는 空軍과 포병의 熾烈한 支援下에 敵의 공격企圖을 事前에 粉碎하면서 現 Missouri線을 계속 방어하고 前進陣地를 強化하여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에 力點을 두어야만 하였다.

사단이 담당한 戰區는 右로는 俗稱 백맛골―新村―靴室里―△690를 거쳐 뒷날에 指形綫으로 일컬어지는 無名高地群을 沿하여 俗稱 여호고개에 이르며, 左로는 大谷里―積根山―月峰山―月峰里를 거쳐 南川橋에 이르는 地域으로서, 金城川이 西北쪽으로부터 東南쪽으로 흐르고, 그 支流는 月峰里에서 鳩峴里로 가로 지름으로써 사단의 主陣地帶는 그 左半部가 背水의 陣을 이루었다.

金城川 主流를 沿한 主補給路는 사단地域 中心部를 縱斷하고, 左半部는 山間道路가 縱橫으로 變어 比較的 良好한 기동路를 보유하나 右半部인 轎岩山 一帶는 險峻한 山嶽이 重疊되어 機動에 크게 制限을 받아, 補給은 勞務者에 의한 推進補給과 Cable에 依存하여야 하였다.

轎岩山(△770)一烽火山(△477)은 主抵抗線上的 兩肩部를 이루어 방어의 利를 提供하였으며, 敵이 全面攻勢로 轉移할 때의 예상 접근路는 俗稱 여호고개一△690, 長淵里一芳坪里, 慶波里一泗川里에 이르는 3개 軸線으로 判斷되었다.

敵軍의 狀況: 사단 正面의 敵은, 中共제12군(장, 曾紹山)에하의 제31사단(장, 趙藍田) 一部와 제35사단(장, 李德生)의 一部로서 兵력은 6,000명이며, 제32포병사단 제406연대의 直接支援을 받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제31사단의 左一線인 제91연대는 △533一玉女峰一△562(慶波里 東北쪽)一帶에 據點을 形成하여 金城防衛에 力點을 둔 縱深防禦態勢를 갖추고 我 제2연대와 對峙하였으며, 제35사단의 右一線인 제103연대는 長淵里一△573一△672一△495를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하고 栗砂里 附近에는 前進據點을 占據하였는데, 雙嶺洞一帶에 據點을 形成한 제105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我 제7연대와 對峙하였다.

51년 2월에 侵韓한 以來로 많은 戰鬪의 經驗을 쌓고, 比較的 큰 打擊을 받지 않은 中共 제12군은 補給 및 士氣가 良好하여 攻守兩面의 戰鬥力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으나, 我軍의 優勢한 空軍力과 포병화력으로 全面攻勢보다는 방어에 力點을 두면서 前進陣地의 爭奪戰을 試圖할 것으로 推斷되었는데, 局地的인 攻勢를 企圖한다면 于先의으로 △575(轎岩山 東北쪽 3km)로 그 衝鋒을 指向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로, 我軍이 前進陣地를 확보한 △575는 突出된 要衝으로서 栗砂里一雙嶺洞一帶를 瞰制하여 敵의 搜索活動을 制禦하고, 精確한 포격을 誘導함으로써 敵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存在이며,

둘째로는, △575를 敵이 奪取한다면 공격 基點을 확보함은 勿論, △690 東北쪽 능선(後日의 指形稜線)의 西斜面을 瞰制하게 됨으로써 次後공격을 위한 有利한 接近路를 掌握하게 되며,

셋째로는, 敵이 이 高地를 奪取할 때 接觸線이 短縮됨으로써, 이미 休戰會談에서 假調印된 軍事分界線의 策定原則에 따라서 2km:씩 後退할 경우 我軍은 要衝인 轎岩山을 계속 확보하기 어렵게 되게 때문이다.

다. 전투 경과 의 개요

(1) 防禦戰

(가) 작전계획

제7, 제2 兩연대가 美 제40사단에하의 제224, 제223 兩연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사단 指揮下로 復歸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白仁燁 中將은 白戰司 司令官 白善燁 中將의 指導에 따라서 계속 主抵抗線인 Missouri線을 방어키로 하고 사단 作指 제1호(3.30.08.00)를 下達하여, 『主陣地를 補強하고 △575를 비롯한 前進陣地를 強化하여 Bill線(△690東北端一俗稱구미안一△345一金城)內에서 接觸을 계속 維持하면서 前進陣地도 主陣地와 同一하게 固守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7연대장 梁仲鎬 大령은 각 대대장을 召集하여 작전회의를 主宰하고 地形과 敵情을 分析한 결과, 主抵抗線上의 要衝인 轎岩山을 공격목표로 하는 敵의 예상 接近路는

△690 東北쪽 稜線(後日의 指形稜線)과 △575正面일 것이나 現下의 敵勢로 미루어 局部的 攻勢를 企圖할 때는, 突出된 要衝인 △575가 紛戰의 焦點이 될 것으로 判斷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765—驕岩山—△442를 連한 主抵抗線을 방어하고 前進陣地를 강화하여 Bill線에서 接敵을 維持하러 한다.
- ② 제2대대는 연대 수색중대를 統合指揮하여 △765의 主陣地를 占領하고 主力으로써 △575를 中心으로 한 一帶에 前進陣地를 강화하라.
- ③ 제1대대는 驕岩山—△442를 連한 主抵抗線을 담당하고 芳坪里 一帶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西側方에 대한 對戰車방어에 留意하라.
- ④ 제3대대는 陵洞附近의 예비 陣地를 佔領하고 側後方 境界를 강화하라.
- ⑤ 연대 수색중대는 3.29.12.00附로 제2대대에 배속한다.
- ⑥ 제27포병대대 및 美 제300자주포병대대는 연대를 一般支援하고 美 제5포병단이 火力 增援할 것이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연대에 있다.

※ 協調指示

- ㉞ 4월 10일까지 陣地補強공사를 완료하라.
- ㉟ Bill線內의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을 強化하라.
- ㊱ 前進陣地는 別命이 없는 限 固守하라.
- ㊲ 연대 CP는 竹洞에 位置한다.
- ㊳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나) 작전 실시

4월 16일: 이날 아침부터 연대 全正面에 대하여 계속된 敵의 산발적인 擾亂射擊은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한 19.00부터 제6중대(장, 金致永 중위)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575로 一齊히 集注하기 시작하였다.

△575 一圓은 삼시간에 火焰이 치솟고 硝煙에 휩싸였는데, 이 때 4部稜線으로 推進한 分哨는 2개중대 규모의 敵이 栗谷附近의 開豁地를 嚮단하면서 東北쪽과 北쪽, 그리고 西北쪽으로 分進 接近中임을 觀測하였고, 뒤이어 중대(一)규모의 敵은 △690 東北쪽 稜線을 타고 제5중대(장, 金顯玉 대위) 正面으로 侵攻中임이 急報되었다.

이와 같은 戰況을 보고받은 연대장 梁仲鎬 대령은 즉각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과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 중령)에 砲兵制壓사격과 遮斷사격을 要請하는 한편, 右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에 △690 東北쪽 稜線 一帶에 대한 火力協調를 求하고, S-2, S-3주임장교와 狀況을 分析한 결과, 敵은 △690—△649를 牽制공격하여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急襲으로 △575를 一舉에 奪取코자 企圖하는 것으로 判斷하

고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명령을 下達하였다.

- 『① 연대 正面의 敵 中共 제103연대는 1개대대(一)규모로써 △575를 主目標로 공격중이다.
 ② 연대는 此敵을 陣前에서 阻止擊滅하고 △575를 비롯한 前進陣地를 固守하려 한다.
 ③ 제2대대는 △575-△690를 固守하라.
 ④ 제1대대는 前進陣地를 強化하고 現任務를 계속하되 81mm 迫擊砲는 △575 西側方을 掩護하라.
 ⑤ 제3대대는 出動態勢를 갖추고 次後명령을 待機하라.
 ⑥ 전투간 제27포병대대 및 美 제300自走砲兵대대는 연대를 直接支援할 것이다.
 ⑦ 右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는 제2대대에 火力支援할 것이다.
 ⑧ 연대 OP는 橋岩山에 位置한다.』

1. 제2대대(장, 柳承源 중령)는 3월 28일에 美 제224연대 제1대대의 陣地를 引受한 以來로, 연대 右一線 대대로서 제7중대(장, 金龍 중위)가 △765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5중대(장, 金顯玉 대위)를 △690(△575 東南쪽 1.5km) 東北쪽 稜線(後日의 指形稜線)에, 제6중대(장, 金致永 중위)를 突出된 扇型의 獨立高地인 △575에, 그리고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를 △649(△575西南쪽 1km)에, 각각 前進陣地를 占領케 하여 陣地를 補強하면서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을 強化하여 當面의 中共 제105연대 및 제103연대의 제3대대와 接敵을 維持하였다.

그런데 敵은 이날 19.00부터 野砲와 迫擊砲를 △575에 集中하는 가운데 2개 중대 규모가 栗谷附近의 闊豁地를 횡단하면서 △575로 衝鋒을 指向하고, 중대(一)규모의 敵은 俗稱 여호고개로부터 右隣接인 수도사단(장, 宋堯讚 준장)과의 間隙을 利用하여 △690 東北쪽 稜線을 타고 제5중대(장, 金顯玉) 正面으로 侵攻하였다.

△575는 제6중대가 담당하였으나 그 地形과 戰術的 價値를 勘索하여 夜間에는 △690의 제5중대와 △649의 연대 수색중대의 埋伏組를 推進시켜 連繫를 維持하고 露出된 側方을 掩護케 하였는데, 그 間에 探索을 계속한 敵은 이것을 看破하고 埋伏組의 出動直前에 侵攻을 시작함으로써 제6중대는 側方이 露出되고 孤立된채 敵勢를 막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제8중대의 81mm 迫擊砲와 배속중인 4.2" 迫擊砲 3門을 △575 東側方으로 集中케 하는 한편, 제5, 제6 兩중대에 『△690-△575의 固守』를 大號 奮勵하고 제5중대, 연대와 수색중대에 戰況의 進展에 따라 △575에 대한 側方掩護와 增援태세를 갖추는 것을 緊急히 명령하였으며, 主陣地를 확보한 제7중대에 대하여서는 1개소대를 抽出하여 出動, 待機토록 措置하였다.

가) △575의 戰況 : 제6중대장 金致永 중위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이 공격준비 사격과 동시

에 北쪽의 開豁地를 횡단하면서 공격을 開始하기에 이르자, 4部稜線으로 推進하였던 3개의 分哨를 各々 撤收 시키는 한편 夜間搜索과 埋伏次, 出動待機中이던 각 소대에 戰鬪態勢에 突入하여 敵을 陣前에서 一舉에 擊退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소대는 右 제1선으로써 東北쪽 稜線에, 제1소대는 左 제1선으로써 北쪽과 西北쪽 稜線에 陣地를 各々 占領케하고 제3소대는 中대예비로서 兩斜面に 控置한 가운데 △575高地의 固守를 다짐하면서 決戰態勢를 갖추었다.

敵의 執拗한 砲擊은 散兵據와 交通壕를 파괴하고 火焰과 硝煙이 낮게 구름끼 高地를 뒤덮는 가운데 凄絶한 血雨를 물고 올 戰雲은 刻刻으로 急迫하였다.

이 때 一齊히 砲門을 연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의 105mm 野砲는 栗谷附近의 開豁地에 設定한 火力群을 強打하고 漸次로 射程을 줄여 △575 北斜면의 稜線과 溪谷을 봉길로 뒤 덮었으며,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 중령)의 155mm 野砲는 砲兵制壓 사격을 시작함으로써 彼我砲彈의 炸裂音은 天地를 震動하고 그 閃光은 부슬비가 내리고 구름이 짙게 낀 薄暮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19.50에 이르러 增強된 1개중대 규모의 敵은 熾烈한 集中砲擊에도 불구하고 △575 北斜면으로 殺到하고, 一部병력을 露出된 東西 兩側方으로 分進시켜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突破와 包圍의 兩面作戰을 試圖하였다.

이처럼 敵은 三面으로부터 동시에 壓迫을 加하면서 밀려 들었으나 중대는 動搖없이 沈黙을 지키다가 敵이 5部稜線에 到達하였을 무렵 중대장의 명령 一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機先을 制하니, 狂氣서린 敵의 威勢도 잠시 주춤거렸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는 제27포병대대의 彈幕射擊下에 砲aim地雷를 계속 폭파시키면서 最後阻止 사격을 開始하니 敵의 先頭는 모진 바람에 落葉이 지듯이 자취를 감추었으나 敵은 東北쪽으로부터 새로이 侵襲하는 1개소대규모의 增援下에 隊伍를 收拾하고 21.50에는 直射砲와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의 熾烈한 掩護사격아래 공격을 再開하였다.

敵은 奮戰의 銃부리에 威壓되었음인지 계속되는 打擊을 무릅쓰고 陣前으로 殺到하였는데, 이때 △690의 제5중대 正面에서 牽制공격을 恣行하던 2개소대규모의 敵中 1개소대가 東北쪽 稜線으로 侵襲하는 1개소대규모의 敵과 合勢하면서 右제1선인 제2소대의 東側背를 挾擊하였다.

이에, 제2소대는 各々 誘導된 81mm迫擊砲와 60mm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의 集中支援下에 全火力을 集中하고 近迫하는 敵에게 수류탄을 던지면서 이를 擊退코자 奮戰하였으나 波狀으로 밀려드는 敵의 壓力으로 그 一角이 무너졌다.

소대장 吳鎭煥 소위는 各々 예비분대를 지휘하여 突進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陣內로 侵襲한 敵과 白兵戰을 벌였으나 敵勢에 밀려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함으로써 突破口 擴大의 危機가 頃刻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때 60mm迫擊砲의 照明아래 急遽增援된 예비인 제3소대 主力이 敵의 側背를 急襲하면서 제2소대에 合勢하기에 이르니, 銳氣를 되찾은 소대는 喊聲도 우렁차게 白刃을 휘둘러 左衝右突하여 23.00에는 敵을 一舉에 擊退하고 陣地를 回復하였다.

그리하여 소대는 執拗하게 공세를 거듭하는 敵과 不過 15m-20m 距離에서 수류탄을 던지면서 近接戰을 벌였는데, 敵은 漸次로 累增하는 損失을 支撐하지 못하고 10餘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東北쪽 稜線上의 無名高地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正面으로 侵攻하는 敵은 그 一部가 西南쪽으로 迂回하여 包圍網을 형성하고, 연대 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의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北쪽 稜線으로 優勢를 強化하여 陣地를 突破, 分斷코자 試圖하였다.

이에 제1소대는 연대 수색중대의 側方支援사격아래 西쪽과 西南쪽으로 迂回하는 敵을 牽制하면서 57mm 無反動銃과 2.36" Rocket砲 그리고 기관총을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고 渾身の 力戰을 다하여 敵의 優勢를 陣前에서 擊碎코자 하였다.

그러나 그 一波가 北쪽 稜線으로 殺到하면서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고 특공대로 보이는 1개분대규모의 敵은 瞬息間에 陣內로 侵襲하였다.

이때 陣頭에서 阿修羅처럼 怒號하는 소대장 金소위의 果敢한 지휘로 渾然一體가 된 소대는 白兵을 휘몰아 一擊에 敵을 撲滅하고, 全火力을 集中하니 露出된 地形에서 火網에 휩싸인 敵은 20餘具의 屍體를 버려둔채 그 北쪽 遮蔽點으로 潰退하였으니 이때가 23.20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敵의 直射砲와 迫擊砲 그리고 기관총이 陣中에 狂風을 휘몰아치더니, 또 다시 包圍網을 壓縮하면서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敵이 執拗하게 공세를 거듭하기에 이르자 중대장 金致永 중위는 바야흐로 決戰의 瞬間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SCR-536으로 각 소대장을 불러『最後의 一刻까지 陣地를 지키라』고 叱咤하면서 敢鬪를 奮勵하였다.

제27포병대대는 또 다시 陣內射擊을 彷彿케 하는 彈幕사격을 開始함으로써 天地가 뒤집히는 듯한 轟轟과 함께 稜線과 溪谷一帶가 불길에 뒤덮였으나 怪聲을 連發하는 胡虜의 狂波가 뒤에 뒤를 이어 밀어닥치더니, 子正부령에는 그 一波가 陣前으로 近迫하므로 彼我間에는 또 다시 近接戰이 展開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575 東南쪽과 西南쪽으로 潛侵한 敵은 피리와 喇叭를 불어대며 병사들의 戰意를 攪亂코자 하였다.

나) △690의 戰況 : 제5중대(장, 金顯玉 대위)는 主力이 △690(△575 東南쪽 1.5km) 東北쪽 稜線에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1개소대는 그 東北쪽 無名高地로 推進하여 境界진지를 확보케 하였는데, 敵은 △575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에 뒤이어 △690一帶로 野砲와 迫擊砲 사격을 集中하더니, 19.30에는 2개소대규모의 敵이 俗稱 여호고개(雙嶺洞 東南쪽 2km)로

부더 △690 東北쪽 稜線(後日의 指形稜線)을 타고 공격을 開始하였다.

중대는 右隣接인 수도사단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를 直接 支援中인 제52전차중대의 M4A3E戰車 2輛와 4.2"迫擊砲 3門의 熾烈한 支援사격아래 全火力을 集中하여 6部稜線에서 그 衝勢를 一旦 阻止하였다.

이에 敵은, △747(雙嶺洞 東南쪽 2km)로부터의 直射砲의 掩護사격아래, 稜線 西斜面으로 迂回하여 △575에 대한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後續하는 一部병력이 △575로 侵襲을 指向하고, 一部는 無名高地에 境界陣地를 占領한 제2소대를 공격하였다.

이때 敵의 82mm迫擊砲는 △690一帶로 集注하여 중대OP를 半破하고 대대OP 및 △575의 제6중대와와의 有線을 斷切하였으며 主力의 無名高地로의 增援마저도 遮斷하였다.

이처럼 孤立된 상황에 이른 제2소대는 소대장을 中心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백속된 기관총 2挺을 主軸으로 한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陣前에서 阻止擊滅코자 奮戰하였다.

그러나 敵은 侵襲을 늦추지 않고 雙嶺洞 東南쪽의 無名高地로 推進한 57mm直射砲의 支援下에 陣前으로 殺到함으로써 20, 20에는 彼我間 20m距離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一角에서는 肉迫戰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미 生死를 超越한 병사들은 怒號하는 소대장의 果敢한 指揮下에 一齊히 陣地에서 躍出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는 紛戰끝에 敵을 陣前에서 擊退하였다.

이때 △575에서 漸次로 激戰이 벌어지기에 이르자, 敵은 西北쪽으로 떨어진 稜線一帶를 占據한 채 제2소대와 중대主力正面으로 火力을 集中하면서 散發的인 牽制공격을 계속함으로써 △575에 대한 增援을 遮斷코자 하는 그들의 馬脚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戰況을 보고받은 대대장 柳承源 中령은 『중대는 敵을 早速히 驅逐하고 △575 東側方을 掩護하라』고 無電으로 명령함으로써 중대장 金顯玉 대위는 敵의 散發的인 공격을 一舉에 擊退하는 즉시로 제3소대로 하여금 陣前出擊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소대는 소대장을 先頭로 西北쪽 稜線의 兩斜面을 따라서 一齊히 突進하였다.

그러나 이때 중대의 反擊을 눈치챈 敵의 계속적인 信號彈의 誘導로 集中되는 直射砲와 迫擊砲사격에 뒤이은 기관총사격으로 소대는 不利한 地形에서 苦戰하기에 이르렀는데, 雪上加霜으로 敵이 포위공격을 꾀함으로써 소대는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侵襲하는 敵에게 수류탄을 퍼부우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主力과 合勢한 다음, 계속된 敵의 侵襲을 阻止 擊退하였다.

다) △649의 상황 : 연대 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는 △649(△575 西南쪽 1km)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는데 19.00부터 시작된 △575에 대한 敵의 공격준비사격이 △690—△649 一帶로 延伸하는 가운데, 一部의 敵이 △575 西南쪽으로 急速 侵襲하여 △649에 散發的인 牽制공격을 加하면서 제6중대에 대한 增援을 遮斷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1대대 81mm迫擊砲의 掩護사격아래 全火力을 集中하여 2개분대규모의 敵의 侵攻을 擊退하는 즉시로, 金桂喆 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가 東北쪽으로 進出하여 △575 西側方을 掩護하였으며, 主力은 戰鬪태세를 強化하는 一方 一部병력은 출동준비를 완료하고 待機하였다.

라) 제7중대(장, 金 龍 중위)는 △765一帶의 主抵抗線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이날 敵이 △575로 主攻을 指向코 공격을 開始하기에 이르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李日來 소위가 指揮하는 1개소대는 출동태세를 갖추고 集結, 待機케 하였다.

2. 제3대대(장, 印聖勳 소령)는 3월 28일에 美 제224연대의 陣地를 引受한 以來로 연대 예비대대로써 陵洞(竹洞 東北쪽 1km)에 예비陣地를 占領하고 연대 防禦縱深을 維持하는 한편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는데 이날 연대장의 緊急명령에 따라서 出동태세를 갖추고 集結, 待機하였다.

4월 17일 : 子正이 지나면서부터 △575에 대한 敵의 공세는 더욱 加重함으로써 血戰은 激化一路를 지달게 되었으나 제6중대의 奮戰으로 02.35에 敵이 陣前에서 一旦 退却하기에 이르자 大대장 柳承源 중령은 연대장의 指導에 따라 제5중대 및 연대 수색중대에 逆襲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도리히 敵이 再공격을 피하자, 이날 未明에 S-2 및 S-3 주임장교를 帶同하고 제2대대 OP로 進出하여 直接 作戰指導에 나선 연대장 梁仲鎬 대령은 예비대의 使用를 사단장에게 建議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를 口頭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575를 계속 固守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제3대대의 1개중대에 主陣地를 引繼하는 즉시로 제7중대를 △575로 增援케 하라.

③ 제3대대는 1개중대를 △765로 進出시켜 제2대대의 主陣地를 引受케 하고 명령에 따라 제2대대와 作戰任務를 交代할 준비를 갖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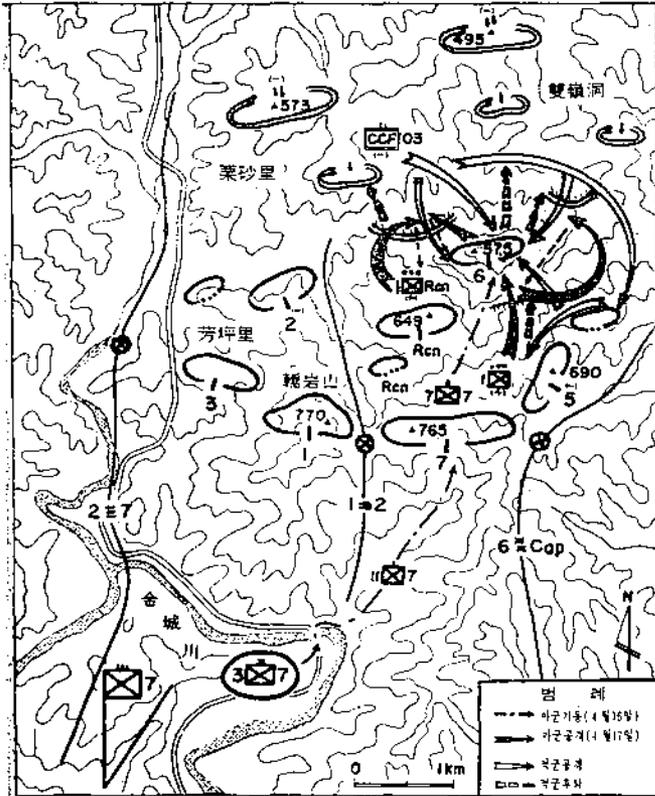
④ 제1대대는 戰鬪태세를 강화하고 現任務를 계속하라.

⑤ 연대장은 △765에 位置한다.』

1. 제2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765의 대대OP에서 時時刻刻으로 激化하는 △575의 戰況의 推移를 銳意注視하면서 제6중대의 勇戰을 督勵하였는데, 01.00에 제1소대陣地의 被奪報告를 끝으로 無電交信마자 杜絶되기에 이르자, 戰況이 極限狀況에 이른 것으로 判斷하고, 제5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에 逆襲명령을 下達한 바 있었다.

그러나 01.25에 無電交信이 再開되고 02.35에는 甚한 打撃을 받은 敵이 陣前에서 一旦 退却하기에 이르자, 敵에게 再編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捕捉擊滅키로 하고 反擊명령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상황도 제31호 575高地방어전(4.16-17)



『① 敵은 △575 東北쪽 稜線과 栗谷一帶에서 再編할 것이다.

② 대대는 敵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捕捉擊滅하려 한다.

③ 제6중대는 △575西北쪽 稜線상의 敵을 擊滅하고 제1소대 陣地를 回復하라.

④ 제5중대는 △575 東北쪽 稜線의 敵을 擊滅하라.

⑤ '연대 수색중대는 栗谷附近의 敵을 擊滅하라.』

가) △575의 戰況

제6중대(장, 金致永 중위)의 제1소대는 散兵線 중앙에서 怒號하는 소대장의 果敢한 지휘 아래 무너진 壕의 一角에 遮蔽하고 全火力을 集中하여 北쪽과 西北쪽 稜線으로 挾攻하는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였다.

그런데 直射砲와 기관총의 支援下에 西北쪽 稜線으로 殺到하는 한무리의 敵이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陣內로 侵襲하였다.

소대는 순간적으로 動搖의 빛이 감돌았으나, 이때 앞서 달려나가면서 2발의 수류탄을 계속 던지고 『突擊 앞으로』를 絶叫하는 소대장의 勇姿에 크게 힘입은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뛰어나가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주춤거리는 敵의 무리 속에 달려들어 白刃을 휘둘러 무찔러 나가니, △575一圓은 喊聲과 悲鳴의 소용돌이 속에 血雨가 쏟아지는 決戰場으로 化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寡兵으로 敵을 驅逐하면서 突破된 陣地를 回復하려는 刹那에, 先頭에서 奮戰을 계속하던 소대장 金소위가 兇彈을 가슴에 맞고 壯烈하게 戰死하였는데, 이때 北쪽 稜線으로 밀어닥치는 1개소대규모의 敵이 正面마저 突破하면서 舍勢함으로써 소대는 02.00에 主力과 遮斷된채 包圍網속에 陷入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左적1선인 제1소대의 狀況이 急變하자, 중대장 金致永 중위는 즉각 逆襲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협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는 一齊히 敵中으로 突進하면서 銃劍을 휘둘러 包圍網의 一角을 突破하고 제1소대와 合勢하는 즉시로 血戰을 거듭하여 北쪽 稜線上의 一部 陣地를 回復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은 包圍網을 壓縮하는 一方, 새로운 敵이 北쪽과 西北쪽에서 挾擊함으로써, 소대는 제1소대의 散兵을 收拾하는 즉시로 殺到하는 敵을 手榴탄으로 阻止하고, 銃劍으로 血路를 打開하면서 01.00에는 △575 頂上附近의 陣地로 撤收하였다.

한편 제1소대의 陣地를 掠取한 敵은 계속하여 頂上附近의 橢圓型陣地로 밀어닥쳤으나, 중대의 鐵火를 露出된 地形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西北쪽 稜線上의 無名高地로 退却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線에서 綠色信號彈 3발과 赤色信號彈 4발이 하늘 높이 솟자 또 한차례 爆焰의 狂風을 휘몰아치더니 西北쪽과 東北쪽 稜線으로부터 攻擊을 再開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중대OP를 중심으로한 密集防禦를 敢行키로 하고, 右제1선인 제2소대를 頂上附近으로 正面을 遮縮토록 한 다음, 可用한 全火力을 集中케 하였다.

增強된 1개중대규모의 敵은 胡笛과 喇叭를 불어대면서 三面을 포위한채 手榴탄을 던지면서 肉迫하였다.

중대는 猛虎의 咆哮처럼 怒號하는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鐵火를 퍼붓고, 手榴탄을 계속 던지면서 近迫하는 敵을 銃劍으로 刺殺하는 血雨霏霏한 激戰을 벌였는데, 이때 無電機의 故障으로 대대OP와의 交信이 完全히 杜絶되는 緊迫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01.25에 SCR-609의 故障排除로 通信은 維持하였으나 중대장 金致永 중위가 負傷을 입고 쓸어졌다.

그러나 金중위는 應急處置를 받는 즉시로 流血이 狼藉한채 陣頭에 다시 서서 『最後의 一人까지 陣地를 固守하라』고 叱咤함으로써 兵士들의 戰意를 드높였다.

이제는 오직 죽음으로써 이 高地를 固守할 뿐이라고 決意를 다진 중대는 渾然一體가 되어, 手榴탄과 銃劍으로 거듭되는 敵의 波狀 공격을 擊退하였는데, 02.35에 이르러 決定的인 打撃을 받은 敵은 綠色信號彈이 계속하여 하늘 높이 솟자 退潮처럼 一時에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砲兵의 掩護사격아래 陣地를 補強하면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이때 『중대는 各각 逆襲을 敢行하여 西北쪽 稜線上의 陣地를 回復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중대장을 代理한 선임장교 金鍾聲 중위는 중대의 可用火力을 集中하여 제1소대의 陣地를 占據한 敵을 猛打케 한 다음, 중대에비로 轉換된 제2소대에 逆襲을 명령하였다.

소대는 陣地에서 一齊히 躍出하여 敵線으로 突進하였는데, 敵의 火網에 휩싸여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듭하던 중 先頭에서 兩손에 手榴탄을 거머 쥔채 敵線으로 달려 들어가던 소대장 吳鎮煥 소위가 兇彈을 맞고 壯烈하게 戰死하자 소대의 突進은 주춤하였다.

이때 소대 선임하사관이 앞서 달려나가면서 『소대장의 원수를 갚으라』고 號令하니 兵士

들은 앞을 다투어 突進을 계속하였으나, 充分하게 散開할 수 없는 稜線에서 敵火에 휩싸여 進展을 보지 못하고 逐次的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敵과 對峙한채 사격전만을 벌였는데, 06.00에 이르러 1개소대규모의 敵이 東南쪽 稜線으로부터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天明과 集中火力에 抑留되어 陣前 50m에서 사격전을 벌이게 되자, 제1소대의 陣地를 占據한 敵과 北쪽 稜線을 타고 또 다시 侵襲하는 1개소대규모의 敵이 牽制공격을 가하더니, 10.15에는 또 한차례의 直射砲擊을 퍼부는 다음, 東北쪽으로 侵勢를 強化하였다.

중대는 15시간 동안에 거듭된 戰鬪로, 걸친 疲勞와 속출하는 死傷者를 무릅쓰고 勇戰奮鬪하여 敵을 또 다시 陣前에서 阻止하고, 彼我間에 수류탄을 던지는 近接戰을 벌였는데, 13.25에 李日來 소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장, 金龍 中위)의 先發隊가 △575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士氣衝天한 兵士들은 金鍾聲 中위의 陣頭지휘아래 一齊히 陣地에서 躍出하면서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白兵戰을 벌여 敵을 陣前에서 一舉에 擊退하였다.

그런데, 14.40에 來到한 제7중대 主力에게 陣地를 引繼하려 할 때, 敵은 野砲와 迫擊砲 그리고 直射砲를 △575로 集中한 다음, 最後發惡의인 공세를 恣行함으로써 交代를 中斷한 채 제7중대의 支援下에 紛戰을 계속하여 敵을 擊退하고 19.20에야 陣地를 交代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575南斜面的 無名高地에 예비陣地를 占領하고, 24시간에 걸친 激戰의 戰塵을 씻으며 再編成에 着手하기에 이르렀는데, 敵의 마지막 공격을 물리치는 戰鬪에서 중대장 代理 金鍾聲 中위와 화기소대장 鄭秉洙 소위가 負傷하였다. 이리하여 이 전투 기간중 중대는 소대장 2명이 戰死하고 중대장을 비롯한 3명의 장교가 負傷함으로써 제3소대장 蕭소위가 중대를 지휘하기에 이르렀는데, 중대가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捕 虜	多 發 銃	小 銃
	105명	1명	18정	12정
損 失	戰 死		戰 傷	
	2/22명		3/71명	

제7중대(장, 金龍 中위)는 主力이 △765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李日來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가 03.30에 △765 北端으로 進出하여 潛侵한 敵을 剔抉하였는데,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12.15에 제1소대를 先發隊로서 △575로 進出케 한 다음, 陣地交代次 來到한 제11중대(장, 朴英洙 대위)의 先發隊에 △765의 主陣地를 引繼하고 14.40에 △575로 進出하였다.

이때 敵이 砲擊을 集中하고 發惡的인 공격을 퍼함으로써 19시간에 걸친 激戰으로 그 戰痕이 큰 제6중대(장, 金致永 中위)와 陣地를 交代할 겨를도 없이 散兵壕에 뛰어들어 殺到하는 敵에 鐵火를 퍼부어 4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제3소대를 右 제1선, 제1소대를 中央 제1선, 그리고 제2소대를 左 제1

선으로 하여 19.20에 제6중대의 陣地를 引受完了하고, 野砲와 迫擊砲의 集中支援밑에 밤새도록 계속된 敵의 散發적인 공격을 물리쳤다.

나) 1次 逆襲戰

제5중대(장, 金顯玉 대위)는 敵의 공격을 擊退하고 △690 東北쪽 稜線상의 前進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575에 대한 增援을 執拗하게 遮斷코자 劃策하는 敵은, 一部兵力의 增援下에 △690 西斜面을 占據한채 牽制공격을 계속하였다.

중대는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陣前에 抑留하고 사격전을 계속하였는데, △575에서 銃聲이 잦아들기 시작하였을 무렵인 02.40에 △747로부터 綠色信號彈이 계속 오르자 敵은 82mm 迫擊砲의 掩護사격 아래 東北쪽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대장으로부터 △575東北쪽 稜線의 敵에 대한 反擊 명령이 下達됨으로써 중대장 金顯玉 대위는 제1소대로 하여금 北쪽稜線으로 進擊케 하여 △575東北端의 無名高地를 공격토록 措置 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03.10에 陣地를 박차고 出擊하여 △575東南쪽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埋伏中이던 2개분대 규모의 敵이 사격을 集中하면서 急襲함으로 熾烈한 交戰이 벌어졌는데, 1개분대가 西쪽으로 迂回하여 挾擊하자 敵은 △575東北쪽 稜線으로 潰退하였다.

소대는 △575東쪽 道路를 LD로 하여 一齊히 躍進하면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575東北쪽 稜線一帶를 占據한 2개소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抵抗과, △690東北端에서 再編中이던 敵의 出擊으로 前後兩面에서 威脅받는 바 되어 進展을 보지 못하고, 즉각 誘導된 81mm迫擊砲의 掩護下에 △690西北쪽 稜線으로 反轉하여 △575東側方을 掩護하였다.

연대 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는 主力이 △649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金桂喆 소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는 東北쪽稜線으로 進出하여 敵의 迂回를 阻止하는 一方 △575西北쪽 稜線一帶로 鐵火를 퍼 부어 제6중대를 火力支援하였다.

그런데 02.40에 이르러 제2대대장으로부터 反擊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중대장 金福壽 소위는 出動待機中인 1개소대를 東北쪽으로 進出시켜 제1소대와 合勢케 한 다음, 金桂喆 소위의 지휘아래 栗谷一帶를 포위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金소위가 統合지휘하는 64명의 병사들은 03.15에 勇躍出動하여 栗谷을 兩面으로 포위 공격하였다.

이곳에서 再編中이던 1개소대규모의 敵은 중대(一)의 奇襲에 抗拒의 겨를도 없이 13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414의 敵의 掩護사격아래 北쪽으로 潰散하였다.

중대(一)는 즉각 △549(△649西北쪽 0.8km) 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414의 敵과 熾烈한 사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중대장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575西北쪽 稜線상의 無名高地를 占據한 敵을 側方공격토록 명령하였다.

金桂喆소위가 지휘하는 소대(+)는 一部병력이 現 位置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一齊躍進

으로 溪谷을 突破한 다음, △575西北쪽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공격을 敢行하였다.

敵은 不意의 側方공격에 唐慌하는 빛이 歷歷히 엿보였으나 地雷地帶로 因한 機動的 制限과 즉각적으로 指向된 敵의 側方火力으로 進出線에서 火網에 휩싸이는 바 되어 激戰의 보람없이 無名高地로 反轉하였다.

이리하여 中대(-)는 △414의 敵과 사격전을 계속하면서 增援을 遮斷하였는데 18.50에는 中대장의 명령으로 原陣地로 轉進하였다.

2. 제3대대(장, 卍聖勳 소령)는 陵洞附近의 예비陣地에서 출동대세를 갖추고 待機하였는데,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1중대(장, 朴英洙 대위)를 △765로 進出시켜 제2대대의 主陣地를 引受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12.15에 陵洞을 出發하여 그 先發隊가 14.00에, 그리고 主力이 14.40에 △765로 進出, 제7중대의 主陣地를 引受하였으며, 대대主力은 陵洞附近에 계속 集結, 待機하였다.

4월 18일: 연대장 梁仲鎬 대령은 敵이 熾烈한 砲擊과 거듭된 激戰으로 큰 打擊을 받았는데도 完全退却의 氣色없이 △575東北쪽과 西北쪽 稜線一部를 占據한채 공격을 계속하면서 據點形成을 劃策하는 徵候를 보이게 되자, 이를 逆襲하여 一舉에 擊滅한 다음, 제3대대(장, 卍聖勳 소령)로 하여금 제2대대의 作戰任務를 引受케 하여 戰力을 強化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作命 제5호를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575의 一部를 占據한 敵을 擊滅하고 一部병력을 交代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575의 敵을 完全擊滅하고 제3대대에 作戰任務를 引繼하라.
 ③ 제3대대는 05.00까지 1개중대를 △575로 進出시켜 제2대대의 反擊을 支援하고 19.00 附로 제2대대의 作戰任務를 引受完了하라.
 ④ 연대 수색중대는 19.00附로 제3대대에 배속변경 한다.
 ⑤ 제1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1. 2次 逆襲戰

제2대대장 柳承源 중령은 연대 作命 제5호에 따라서 逆襲을 敢行키로 하되, 제5중대의 一部가 △575東北端의 無名高地를 奪取하여 敵의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고, 연대 수색중대의 一部가 栗谷一帶를 制壓하는 가운데, 제7중대로 하여금 △575東北쪽과 西北쪽稜線上의 敵을 一舉에 擊滅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 『① 대대는 05.00를 期하여 △575一帶의 敵을 擊滅하고 제3대대에 作戰任務를 引繼하려 한다.
 ② 제7중대는 △575東北쪽과 西北쪽稜線上의 敵을 擊滅하라.
 ③ 제5중대는 一部병력으로 △575東北端의 無名高地를 奪取하고 敵의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라.』

- ④ 연대 수색중대는 栗谷一帶를 遮斷하고 제7중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⑤ 제6중대는 공격間 $\Delta 575$ 의 陣地를 확보하라.
 ⑥ 제3대대의 一部兵力이 제7중대의 공격을 支援할 것이다.」

가) 제7중대(장, 金龍 중위)는 공격준비사격의 延伸과 동시에 제6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제3소대를 右 제1선 제2소대를 左 제1선 공격梯隊로 하여, 05.00에 陣地線에서 一齊히 躍進하였다.

제3소대는 東北쪽稜線을 따라 突進하였는데 無名高地④를 占據한 1개소대규모의 敵은 奮戰의 銃뿌리에 마지 못하였음인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면서 執拗하게 抵抗하였다.

소대는 한때 進出線에서 釘着된채 사격전을 벌였으나, 즉각 指向된 56mm 無反動銃과 2.36" Rocket砲의 集中사격으로 敵線이 攪亂되는 刹那에, 一齊히 躍進하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頂上으로 뛰어 올라 銃劍으로 肉迫戰을 벌이니, 喊聲과 悲鳴이 새벽의 山野에 길게 메아리 쳤다.

그러나 이미 繼戰意志를 喪失한 敵은 士氣衝天한 소대의 敵手는 되지 못하여 奮戰의 銃뿌리도 아랑곳 없이 潰散함으로써, 06.30에 이 高地를 奪取하고 餘勢를 몰아 07.00에는 그 東北쪽의 無名高地④도 一舉에 掌中에 넣었다.

한편 左 제1선인 제2소대는 後續하는 제1소대의 支援下에 西北쪽稜線으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전날의 제6중대 제1소대의 陣地를 占據한 增強된 1개 소대규모의 敵이 據點마저 形成하고, 57mm 直射砲의 支援下에 기관총의 사격을 集中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함으로써 熾烈한 사격전이 展開되었다.

소대는 天明과 더불어 공격선이 露出되면서 공격의 어려움이 더 하였으나 이때, $\Delta 649$ 北쪽稜線으로 進擊중인 연대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가 鐵火를 퍼부우면서 그 一部가 西側方으로 공격을 敢行하니, 敵火는 힘없이 分散되고 敵線에 動搖의 빛이 감도는 듯 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소대는 一齊히 躍進하여 수류탄을 퍼붓고 突擊을 敢行하니, 氣勢가 꺾인 敵은 北쪽으로 潰退하였으나 栗谷一帶를 制壓한 연대 수색중대 一部병력의 火網에 휩싸여 潰滅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Delta 575$ 北斜面一帶의 敵을 剔抉하였는데, 이때 示達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으로 進出한 제10중대(장, 南廷琪 중위)에 陣地를 引繼하고, 10.15에는 제6중대와 더불어, $\Delta 575$ 를 출발하여, $\Delta 606$ ($\Delta 575$ 南쪽 3.5km)를 거쳐 19.30에 陵洞附近의 예비陣地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5중대(장, 金顯玉 대위)의 主力은 前半夜에 계속된 敵의 散發的인 공격을 擊退하고, 제1소대는 $\Delta 690$ 西北쪽 稜線을 확보하여 $\Delta 575$ 東側背를 掩護하였는데, 대대장으로부터 $\Delta 575$ 東北쪽 稜線상의 無名高地④에 대한 逆襲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중대장은 제



<사단을 訪問한 李承晚 大統領>

無名高地④를 占據한 1개 소대 규모의 敵은 雙嶺洞부근으로부터의 側方支援사격밑에 力을 集中하여 頑強하게 抵抗함으로 소대는 稜線에 올라붙어 熾烈한 사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直接支援중인 경기관총과 2.36"Rocket砲를 推進시켜 側方火력을 制壓하기에 이르자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緩慢한 傾斜를 이룬 野山地帶를 一舉에 突破한 소대는, 빗발치는 敵火를 뚫고 直衝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怒濤처럼 敵線에 밀어닥치자, 氣勢에 눌린 敵은 抵抗다운 抵抗도 하지 못하고 北쪽 開豁地로 退却하였으나 포병의 遮斷사격에 휘말려 潰滅하고 말았다.

06.30에 無名高地④를 奪取한 소대는 즉각 急編 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면서 제7중대의 공격을 支援하였는데,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敵의 砲擊과 기관총 사격으로 12.00에는 煙幕遮張아래 隨意撤收하기 시작하여 14.00에 △690의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威力搜索隊를 推進시켜 西斜面一帶의 殘敵을 剔抉하였는데, 연대 作命 제5호에 따라 이곳으로 進出한 제9중대(장, 金七晚 중위)에게 19.30에 前進陣地를 引繼하고, 다음 날 05.00에 機動하여 08.30에는 대대 集結地인 陵洞附近으로 移動完了하였다.

다) 한편 연대 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는 主力이 △649의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1개 소대가 北쪽稜線으로 進出하여 △575의 西側背를 掩護하였는데, 제2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04.00에 제1, 제2 兩소대가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出擊하였다.

金桂喆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가 △549(△649西北쪽 0.8km) 北쪽稜線으로 接觸없이 進擊하여 栗谷一帶의 開豁地를 制壓하고, 敵의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중대장이 지휘하는 제2소대는 제7중대의 공격梯隊와 併行하면서 側方支援하였는데, 제7중대의 제2소대가 △575西北쪽稜線에서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닥쳐 激戰을 벌이자, 集中사격을 퍼부은

1소대에 이를 奪取, 확보 托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03.00에 [前날의 陣地에서 隱密하게 機動하여, △690北麓으로 進出한 다음, 04.50부터 砲門을 연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의 공격준비사격의 延伸에 應接하여 西北쪽으로 가로 지른 稜線의 隘地線을 따라 공격을 시작하였다.

다음, 西側方으로 挾擊하여 敵을 一舉에 擊破하였다.

제7중대가 △575一圓을 完全히 掌握하기에 이르자 제2소대는 △549北쪽 稜線으로 進出하여 제1소대와 合勢하고 △518(栗砂里西南쪽) - △414(栗砂里南쪽)의 敵과 사격戰을 벌였는데, 13.40에는 △649로 反轉하여 제3대대에 배속이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중대는 敵 10명을 射殺하고 1명을 捕虜로 잡는 戰果를 거두었다.

라) 제6중대는 제3소대 장 鬚소위의 지휘 아래, 전 날 제7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575南斜面의 無名 高地에서 戰列을 가다듬었는데, 이날 제7중대가 逆襲을 敢行하기에 이르자 陣地를 引受하고 逆襲을 支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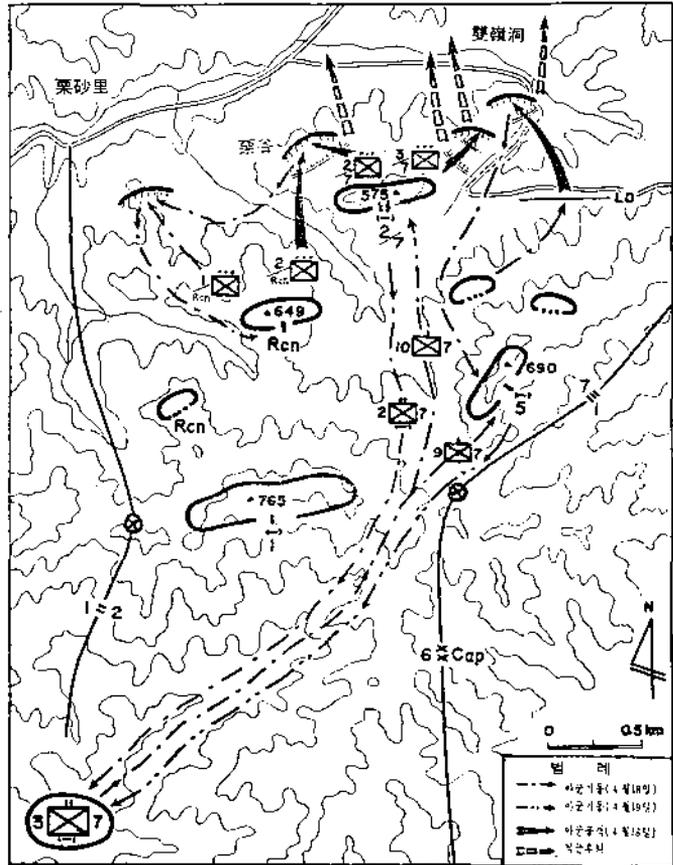
그런데 연대 作命 제5호에 의거, 제10중대(장, 南廷琪 中위)가 △575로 進出함에 따라 前進陣地를 引繼하고 10.15에는 24명의 戰友가 고이 잡든 이곳을 떠나 陵洞附近으로 移動하였다.

2. 제3대대의 躍進

제3대대(장, 印聖勳 소령)는 主力이 陵洞附近의 예비陣地를 占領하고 제11중대가 전날에 △765의 主陣地를 제7중대로부터 引受, 확보하였는데, 이날 示達된 연대 作命 제5호에 따라 제10중대가 △575로 進出한데 이어 제9중대가 △690로 躍進하여 각각 進前陣地를 引受함으로써 제2대대와 作戰任務를 完全히 交代하고 연대 右一線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대 OP는 △606에 推進開設하였으며 △649를 확보한 연대수색중대(장, 金福壽 소위)를 統合指揮하였다.

가) 제10중대(장, 南廷琪 中위)는 연대 作命 제5호에 의거한 대대장의 명령으로 01.30에 陵洞附近의 예비陣地를 출발하여 03.35에 △606를 거쳐 05.45에 △575로 進出, 제7중대의

◇ 상황도 제35호 575高地 방어전 (4.18)



逆襲을 支援하였다.

제7중대가 △575一帶를 完全히 掌握하기에 이르자 07.30부터 陣地를 引受하기 시작하여 연대正面의 要衝이자 紛戰의 震源인 이곳의 前進陣地를 10.00에는 完全히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9중대(장, 金七晚 중위)는 제3대대의 後發隊로서 14.20에 陵洞을 출발하여, 17.00에 △690로 進出, 19.30에는 제5중대의 前進陣地를 引受 完了하였다.

다) 제11중대(장, 朴英洙 대위)는 전날 14.40에 제7중대로부터 △765의 主陣地를 引受하고, 제2소대를 右 제1선, 제3소대를 左 제1선으로 하고 제1소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경계陣地를 強化하고 陣地補強공사에 着手하였다.

(2) 제1차 攻擊戰(5.31)

(가) 작전 계획

제19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사단예비로서 竹洞附近的 예비陣地를 占領하여 사단防禦 縱深을 維持하고 側後方경계를 담당하였는데, 사단 作命 제4호(52.5.7)에 의거하여 5월 22일 24.00附로 右一線인 제7연대(장, 梁仲鎭 대령)의 陣地를 引受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사단장 白仁燁 준장의 指導에 따라 主抵抗線과 前進陣地를 強化키로 하고, 제3대대를 右一線, 제2대대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690—△765—轎岩山(△770)—△442에 主陣地를 占領하고, △575—△649—△549—無名高地(轎岩山 北쪽 1km)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夜間搜索과 埋伏을 強化하였다.

그런데 △575의 全面공격에 苦杯를 마신 敵은 盛茂期로 접어 들면서부터 鞅勒하게 潛侵을 계속하던니, 集中砲擊下에 △575 北쪽과 西北쪽稜線으로 牽制공격을 恣行하는 가운데, △575東北쪽 稜線으로 侵襲하여 無名高地④—⑤에 前進據點을 形成하고 △575의 제9중대(장, 李萬鍾 대위)를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제19연대는 5.31, 04.00를 期하여 △575東北쪽 稜線上의 無名高地를 奪取하라』는 사단 作命 제5호(5.27, 17.00)에 의거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作命 제6호를 下達하였다.

- 『① 연대는 一部병력으로 △575東北쪽의 無名高地를 공격하려 한다.
- ② 제3대대는 5.31, 04.00를 期하여 目標1(無名高地④) 2(無名高地⑤)를 공격하라
- ③ 제2, 제1兩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 ④ 공격間 제52전차중대의 1개소대가 수도사단地域에서 側方支援할 것이다.
- ⑤ 제1포병단 제52포병대대가 연대를 直接支援하고 제51포병대대가 火力增援할 것이다.
- ⑥ 공병대대 제3중대 1개소대가 제3대대의 공격중대를 支援한다.
- ⑦ 對전차 공격대대의 Cal 50기관총 10정 및 75mm無反動銃 2정을 제3대대에 배속한다.
- ⑧ 연대 OP는 △765에 位置한다.

⑨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제3대대(장, 金明益 중령)는 5월 21일에 제7연대 제3대대로부터 陣地를 引受한 以來로 제10중대(장, 朴世熙 중위)로 하여금 △690東北쪽 稜線을 主陣地로하여 占領케 하고, 제9중대(장, 李萬鐘 대위)는 △575의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였으며, 제11중대(장, 金東根 대위)는 대대에비로써 △606의 東北쪽의 無名高地에 控置하였는데, 공격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대대장은 예비인 제11중대로 하여금 △575東北쪽 稜線上의 敵 據點에 대한 공격을 敢行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同일 30일 21.00에 △606附近의 예비陣地를 출발하여 다음날 00.30에 △575南端으로 進出, 待期다가 02.15에 또다시 行動을 開始, 제3, 제2, 兩 소대는 제9중대의 陣地線으로 進入하고, 제1소대는 東南쪽의 溪谷으로 前進하여 각각 공격 준비에 着手하였다.

(나) 작전실시

5월 31일 : 星光만이 輝煌한 가운데 03.50부터 砲門을 연 제52포병대대(장, 河英燮 소령)의 공격준비사격은 天地를 震動하는 轟音과 함께 공격목표인 △575 東北쪽 稜線上의 無名高地를 爆焰으로 뒤덮었다.

砲擊의 延伸에 觸接하여 躍進한 제11중대(장, 金東根대위)의 공격梯隊인 제3소대는 04.00에 제9중대의 陣地線을 LD로 하여 공격을 開始하였다.

기관총과 75mm 無反動銃의 掩護下에 躍進과 포복을 거듭한 소대는 無名高地㉔ 北斜面의 障礙物地帶를 돌파하고 제1공격목표인 無名高地㉕로 突進하였는데, 地形을 순식간에 변모시킨 熾烈한 포격에도 큰 打撃을 받지 않은 듯한 敵은 즉각 指向된 野砲와 82mm 追擊砲의 集中支援과 기관총의 交叉사격으로 소대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였다.

이곳에서의 停滯는 곧 全滅을 가져올 뿐이라고 判斷한 중대장 金東根대위는 後續하는 제2소대의 掩護下에 제3소대는 즉각 突擊을 敢行하고, 溪谷의 窪地線을 따라 進擊하는 예비인 제1소대는 急進하여 側方을 支援토록 명령하였다.

突擊梯隊인 제3소대는 제3분대가 西側方으로 迂回하는 가운데 소대장이 指揮하는 主力을 一齊히 躍進하면서 正面으로 突進하였다.

中共 제35사단(장, 李德生)의 제105연대 제1대대 소속으로 推定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은 堅固한 火力據點에서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고, 방망이수류탄을 던지면서 執拗하게 抵抗하였으나, 이때 東北쪽으로 急進한 제1소대가 火力을 集中하여 東側背를 威脅함으로써 敵火는 分散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제3소대는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고 白兵을 휘둘러 敵線을 直衝하여 散兵壕의 敵을 擊碎하는 一方 李基贊中士를 組長으로 하는 5명의 特攻組는 據點으로 近迫하여 銃眼으로 수류탄을 집어 던져 기관총을 沈默시켰다.

이때 戰意를 이미 喪失한 敵은 抵抗다운 抵抗을 피하지도 못한채 그 東北쪽의 無名高地로 潰退함으로써 소대는 제1공격목표를 奪取하였으니 이때 시간 04.30이었다.

소대는 後續하는 제2소대가 進出하는 즉시로 제2공격목표인 無名高地㉔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敵의 彈幕사격과 熾烈한 기관총사격으로 공격이 停滯하기에 이르자 死角點에 遮蔽한 채 사격을 전개하였는데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이러한 戰況을 報告받은 대대장 金明益중령은 砲兵制壓을 즉각 要請하는 한편, 全 81mm 迫擊砲를 無名高地㉔로 指向케 하고 중대의 果敢한 突擊을 奮勵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 金東根대위는 後續하는 제2소대로 하여금 正面으로 超越 공격케 하고 제3소대는 西北쪽으로 우회하여 敵의 취약거점을 擊碎토록 명령하였다.

이때 또다시 砲門을 연 제1포병단(장, 盧載鉉중령)隸下의 제51, 제52 兩 포병대대는 炭甘里—魯南里—積木里 一帶에 布陣한 것으로 推定되는 敵의 野砲를 制壓하고 대대를 直接 支援중인 15門에 달하는 81mm 迫擊砲(제7연대의 全迫擊砲가 支援中)는 無名高地㉔와 雙嶺洞—栗砂里 一帶를 猛打함으로써 敵火는 순식간에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제2소대가 제3소대를 超越하여 無名高地㉔를 直衝하는 가운데, 중대장이 陣頭 지휘하는 제3소대는 一齊히 躍進하면서 西北쪽으로 迂廻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怒濤처럼 敵線으로 밀어 닦쳤다.

側方을 急襲당한 敵은 火力이 分散하면서 당황하는 빛이 歷歷하였으나 이때 雙嶺洞西南쪽으로 推進한 듯한 기관총 사격이 소대의 側背를 威脅하고, 據點에서는 방망이 수류탄이 비오듯이 쏟아짐으로써 소대는 또다시 進出線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때 無名高地㉔로 推進한 75mm 無反動銃 2挺과 Cal 50 기관총 2挺이 雙嶺洞附近의 敵 기관총을 制壓하는 가운데 예비인 제1소대가 東側方窪地線을 따라 急進하여, 無名高地㉔의 東側方으로 鐵火를 集中하고 공격에 加擔하기에 이르니, 제 2, 제 3 兩소대는 함성도 우렁차게 頂上으로 뛰어 올라 수류탄 洗禮를 加하면서 닦치는 대로 치고 때리고 질르는 屠戮의 血戰을 벌였으며, 제2소대의 特攻組는 火力據點으로 近迫하여 肉彈攻擊을 敢行, 기관총을 沈默시켰다.

戰勢는 이미 기울어 最後의 壘壘에 決定的인 威脅을 받기에 이른 敵은 無慈悲한 奮戰下에 銃劍을 치켜들고 頑強한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左衝右突하는 중대의 威勢에 壓到되어 순식간에 剔抉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半夜호로 東天이 밝아오는 06.05에 最後攻擊目標인 無名高地㉔를 奪取하였는데 이때 1개 중대규모의 敵이 雙嶺洞 南쪽의 개활지를 橫斷하면서 逆襲을 試圖하였으나, 즉각 誘導된 81mm 迫擊砲의 遮斷사격으로 潰退하였다.

再編을 끝낸 중대는 東斜面과 西斜面에 急編 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砲火가 계속 猛威를 떨치는 가운데 雙嶺洞 一帶의 敵과 사격전을 벌였다.

그런데 急遽進出한 공병 제3 중대(장, 田駿律중위)의 제3소대가 09.10에 敵據點을 파괴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金明益중령은 중대의 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砲兵의 掩護사격 밑에 10.25에 逐次的으로 撤收하기 시작하여 12.20에는 △606 附近의 陣地로 復歸하였는데 이때 敵의 砲擊으로 많은 損失을 보았다.

이처럼 果敢한 공격으로 목표를 完全히 奪取하고도 확보하지 않고 撤收하기에 이른 理由에 대하여 당시의 대대장 金明益중령은 뒷날에 다음과 같이 證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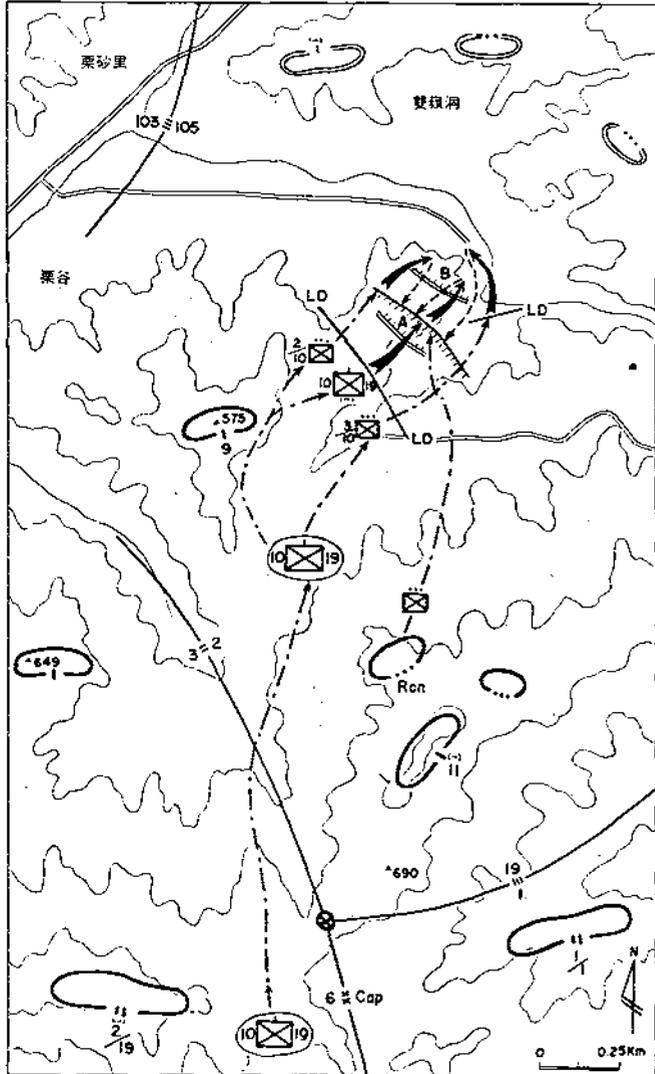
『제11중대가 △575東北쪽의 無名高地(㉠)-(㉡)를 完全히 奪取하기에 이르자 사단에서는 據點을 파괴하는 즉시로 撤收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나는 晝間撤收는 困難하니 夜間에 撤收할 것을 건의하

였으나, 연대 OP에서 作戰을 指揮中이던 부사단장 崔昌彦대령은 休戰會談關係로 복잡한 問題가 惹起되니 즉각 撤收할 것을 거듭 명령함으로써, 나는 할수 없이 중대에 反轉을 명령하였는데, 이 晝間撤收로 많은 死傷者가 發生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중대가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 상황도 제36호 제1차 공격전(5. 31)



戰 果	射 殺	多 發 銃	機 關 短 銃	小 銃
	54명	4정	5정	1정
損 失	戰 死		戰 傷	
	6명		53명	

(3) 제 2차 攻擊戰(6. 14)

(가) 작전 계획

敵은 △575 東北쪽 稜線上에 占據하였던 前進據點이 박멸되기에 이르자, 中共 제32포병 사단의 主力을 增援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575 一帶로 砲擊을 집중하면서 發惡的인 夜間侵襲을 계속하더니, 6월 12일 밤에는 2개소대규모의 敵이 또다시 潛侵하여 無名高地 ㉔-㉕의 파괴된 據點을 복구하고 △575의 前進陣地를 麻痺시키고자 劃策하였다.

이에 사단장 白仁燁준장은 사단 作命 제7호(6. 13)로써 『제19연대는 6. 14. 02.00를 期하여 △575 東北쪽 稜線上의 敵據點을 공격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宋虎林대령은 연대 作命 제7 호로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명령을 示達하였다.

『① 연대는 一部兵力으로 敵의 前進據點을 공격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1개중대로써 6. 14. 02.00를 期하여 敵據點을 奇襲하라.

③ 제2, 제1 兩 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④ 수도사단을 支援中인 전차 1개소대는 側方支援할 것이다.

⑤ 공격間 제1포병단이 연대를 直接 支援할 것이다.

⑥ 공병 1개소대가 제3대대의 공격중대를 支援한다.

⑦ 연대 CP는 竹洞에 位置한다.

⑧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이와 같은 作戰命을 받은 제3대대장 金明益중령은, 제11중대(장, 金東根대위)에 主陣地를 引繼하고, 대대예비로 轉換되어 △606 附近의 예비陣地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제10중대(장, 朴世熙중위)에게 공격을 敢行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6. 13. 23. 15에 △575를 목표로 陣地에서 勇躍出動하였다.

(나) 작전 실시

6월 14일 : 제10중대(장, 朴世熙중위)는 01.20에 集結地인 △575 東南端에 進出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은 다음과 같은 腹案을 세웠다.

① 중대는 02.00를 期하여 공격목표 A(無名高地나 ㉔-B(無名高地 ㉕)를 奇襲한다.

② 제1소대는 목표 A를 공격한다.

③ 제3소대는 △575東北쪽 灌地線을 따라 목표 B背面을 奇襲한다.

④ 제2소대는 예비로써 제1소대를 後續한다.

⑤ 각소대는 對空布板 2매씩을 휴대한다.

⑥ 接敵前에는 無電沈黙을 지킨다.

중대는 奇襲效果를 擧揚키 위하여 포병의 無支援下에 02.00를 期해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1소대(장, 姜用熙소위)는 제9중대 陣地線의 東北쪽에 設定한 LD를 通過하면서 隱密하게 기동하여 목표A로 肉迫하였는데, 이때 右側方으로 迂回하는 제1분대가 地雷에 接觸하여 폭발하자 奇襲을 비로서 눈치 챈 敵은 사격을 集中하였다.

소대는 一齊히 躍進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敵線으로 突進 直衝하였으나, 中共 제105연대소속으로 推定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이 火力據點과 散兵壕에서 기관총을 亂射하고 방망이 수류탄을 雨覆처럼 집어던져, 공격선이 爆焰에 휩싸이는 바 되어 一進一退의 紛戰을 계속한 보람없이 03.00에는 그 西南쪽의 無名高地㉔로 물러서 戰列을 가다듬었다.

이에 중대장 朴世熙 중위는 迫擊砲의 支援사격을 要請하는 한편, 75mm 無反動銃과 기관총사격을 목표A인 無名高地㉔로 集中케 하였다.

이윽고 15門에 달하는 81mm迫擊砲가 集中된 목표 A에서는 瞬息間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轟音과 함께, 火焰이 치솟고 長淵里—栗砂里—雙嶺洞 一帶는 제1포병단(장, 盧載鉉중령)의 砲擊으로 불바다를 이루었다.

戰列을 가다듬은 중대는 03.55에 예비인 제2소대(장, 辛榮奎소위)를 右 제1선, 제1소대(장, 姜用熙소위)를 左 제1선으로 하여 一齊히 躍進하면서 목표A로 突進하였다.

그 熾烈한 砲擊에도 支撐한 敵은 如前히 軟弱하게 抵抗함으로써 중대는 또다시 紛戰을 계속하였다.

이에 중대장 朴世熙중위는, 제2, 제1 兩 소대에서 1개분대씩을 抽出하여 左右 兩側方으로 깊숙이 迂回시켜 敵後方을 急襲케 하는 동시에 正面으로는 계속적인 波狀공격을 敢行토록 명령하였다.

三面으로 포위된 敵의 火力은 갈광질광하면서 맥없이 分散하기에 이르자 수류탄 꾸러미만을 거머쥔 제1소대의 特攻組는 날쌔게 躍進하면서 火力據點으로 近迫하는 즉시로 銃眼으로 수류탄을 퍼부우니 불을 댕하던 기관총은 한줄기의 흰 煙氣를 뿜으며 沈默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主力은 성난 怒濤처럼 一舉에 밀어닥쳐 右往左往하는 敵의 무리를 瞬息間에 剔抉하고, 목표A를 奪取하였으니 이때가 04.55이었다.

한편 제3소대(장, 李正雨소위)는 공격開始와 동시에 塗地線을 따라 목표B(無名高地㉕)로 迂回하여, 敵이 목표A로 注意를 集中하고 있을 무렵인 04.10에 敵線後方으로 肉迫하면서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고 奇襲을 敢行하였다.

意表를 찢려 魂飛魄散한 敵은 窮鼠鬪猫格으로 기관총을 미친듯이 휘둘러대고 방망이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이에 소대는 李正雨소위를 先頭로 喊聲도 우렁차게 敵線으로 밀어닥쳤으나, 이때 雙嶺洞 一帶의 기관총이 集中되어 側背를 威脅하기에 이르니, 소대는 逐次的으로 後退하여 西南쪽의 遮蔽點에서 散兵을 收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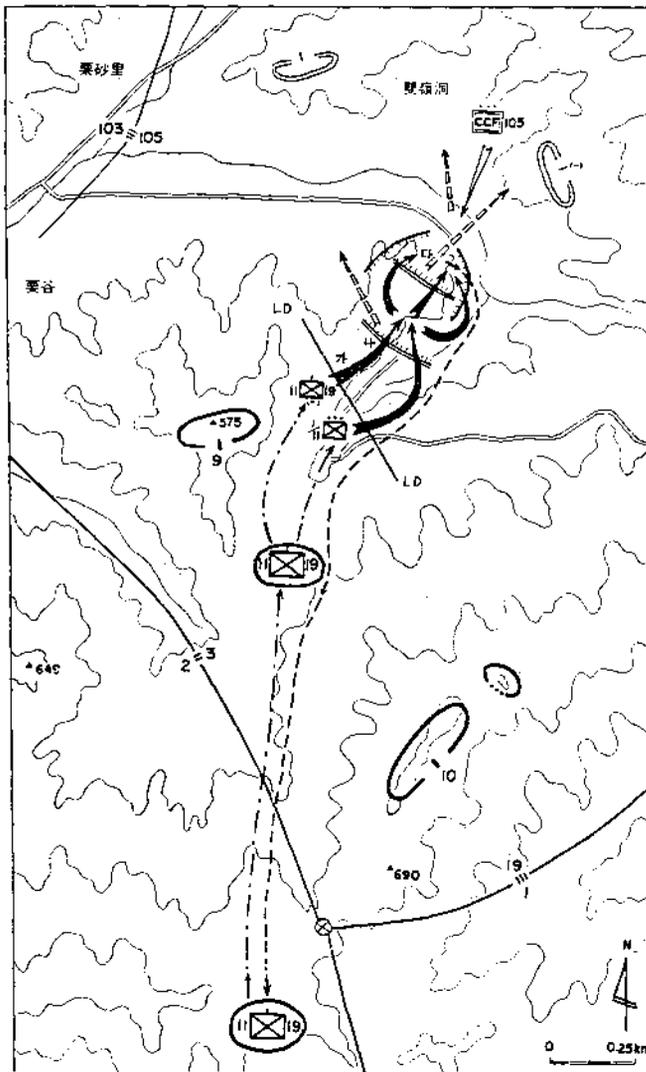
이처럼 제3소대가 奇襲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紛戰하기에 이르자, 목표A를 奪取한 중대

主力은 後續한 公병소대가 據點을 파괴하는 측시로 목표B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砲彈이 集注하고 기관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一齊히 躍進한 중대主力은 제1소대를 右 제1선 제2소대를 左 제1선으로하여 敵線을 直衝하면서 手榴탄의 洗禮를 퍼부은 다음 散兵 線으로 뛰어들어 白兵戰을 벌였으며 이때 散兵을 收拾한 제3소대도 東北쪽으로부터 突擊 에 加勢하기에 이르니 敵陣에서는 混亂이 일어나는듯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散兵線의 敵은 一舉에 擊破하였으나, 9部稜線에 形成한 火力據點에서 는 불을 부어 내리듯한 기관총사격을 계속하고, 地形이 不利하여 特攻組의 거둔한 肉彈공 격도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중대는 이를 迂回하여 10.20에는 목표B의 頂上을 奪取하였

◇ 상황도 제37호 제2차 공격전(6. 14) 다.



그런데, 10.25부터 敵의 野砲와 迫擊砲는 陣內사격을 恣行함으로써 중대는 雨注하는 砲彈속에 휘말려 瞬息間에 많은 死傷者가 發生하였다.

이에 중대장 朴世熙 중위는 中대를 東南쪽과 西南쪽 溪谷으로 緊急撤收케 하고 砲兵의 制壓사격을 要請하였다.

제1포병단(장, 盧載鉉중령)의 제51, 제52 兩 포병대대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對砲兵사격을 開始하였으나 濃霧로 觀測이 不良하여 實効를 거두지 못하자, 대대장 金明益 중령은 제9중대의 1개소대와 火焰放射器 4挺을 제10중대에 急遽 增援케 하는 한편 대대 수색대를 無名高地 ④로 進出시켜 제10중대의 공격을 支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제9중대 제2소대(장, 朴炳煥소위)와 火焰放射器 組는 12.00에 △575의 陣地를 출발하여 集注하는 砲彈속을 뚫

교 13.30에 제10중대와 합勢하고, 대대 수색대는 △690의 北측 稜線에서 13.40에 無名高地㉔로 進出하여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이에 銳氣를 되찾은 중대는 공격의 進展에 따라 特攻組의 수류탄 공격에 뒤이어 火焰放射器組를 挺進케 하여 一擧에 火力據點을 擊破키로 하고 三面으로 포위망을 壓縮하면서 一齊히 突進하였다.

雨注하는 砲彈은 彈幕을 이루고 據點의 기관총은 계속 火網을 펴므로써 죽음을 무릅쓴 突擊도 成果없이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는데 이 때 陣頭에서 特攻組의 肉彈 공격을 지휘하던 중대장 朴世熙 중위가 兇彈을 가슴에 맞고 壯烈하게 戰死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즉각 先頭로 달려나간 先任 將校 徐元夕소위의 지휘아래 躍進을 계속하면서 據點으로 肉迫하고, 特攻組는 銃眼을 목표로 수류탄공격을 계속 敢行하였으나 進展을 보지 못한채 火網에 휩싸여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遮蔽點으로 後退하였는데 이 때 徐元夕소위마저 負傷하기에 이르니 중대는 잠시 混亂상태에 빠졌다.

중대는 △575附近으로 推進한 81mm 迫擊砲의 熾烈한 近接支援下에 散兵을 收拾하고, 18.00를 期하여 제1소대장 姜用熙소위의 지휘아래 突擊을 再擧하였다.

그러나 敵의 如前한 陣內사격과 기관총사격으로 一進一退의 激戰만을 거듭할 뿐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자, 대대장 金明益중령은 연대장의 指導에 따라서 중대의 隨意撤收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9.50 부터 대대 수색대의 收容下에 逐次的으로 撤收하기 시작한 중대는, 21.15에 無名高地㉔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이때 敵의 砲擊은 이곳으로 延伸되어 一帶를 火焰으로 뒤덮었다.

그런데 이날 敵砲의 落下彈數는 無慮 3,277發인데, 그 90%가 목표B인 無名高地㉔로 集中됨으로써 중대의 목표 奪取를 阻止하였을 뿐만 아니라 戰果가 射殺 18명인데 反하여 27명이 戰死하고 93명이 戰傷을 입는 損失을 가져왔던 것이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19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제10중대가 △575 東北端의 無名高地㉔를 奪取하지 못하고 無名高地㉔로 反轉하기에 이르자, △575의 前進陣地를 強化하면서 제52포병대대의 直接支援下에 全 迫擊砲를 栗砂里—雙嶺洞一帶와 無名高地(다)로 集中하여 敵의 攻勢와 增援을 封鎖하는 가운데, 再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제 2 군단 作指 제 8 호(52.6.16)에 의거하여 右隣接인 수도사단(장, 宋堯讓 준장)과의 戰鬪地境線이 2km 가 縮少調整됨에 따라, 연대는 △575 一帶의 敵을 完全히 剔拔하지 못한채, 사단 作指 제 8 호(52.6.18)에 의거하여 6월 19일에 △690—無名高地(△765 東쪽)의 主陣地와 紛戰의 焦點인 △575의 前陣地를 수도사단 제1연대(장, 朴春植 대령)에 引繼하였다.

연대는 사단 左—線인 제 2 연대(장, 宋大厚 대령)의 右側 一部陣地를 引受하여 △765—輻崙山—

△442—淵巨리에 이르는 .4km의 主抵抗線陣地를 담당하였으나, 同월 22일에는 사단 作戰[제 9호 (6.29. 14.00)에 의거하여 제 7연대(장, 梁甲鎬 대령)에 作戰任務를 引繼한 다음, 사단에 비로 轉換되어 虛洞里一帶의 예비陣地를 占領하고 戰技鍊磨와 예비陣地의 工事에 精進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 7연대를 右一線 제 2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轎岩山—烽火山을 兩層部로 하는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제 27포병대대를 비롯한 제 1포병단(제 51, 제 52포병대대)과 제 96포병대대, 美제 300자주포병대대, 그리고 제 52전차중대(一)와 美제 140전차대대 C중대의 支援下에 Bill線內의 威力搜索과 埋伏을 強化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는 한편 攻勢企圖를 事前に 粉碎코자 하였다.

反面에 敵은 △575에 대한 逐次的인 掠取企圖가 封鎖되기에 이르자 제 105연대의 예비대를 △575正面向으로 增援하여 새로운 攻勢를 꾀하는 徵候를 보이는 한편, 포병을 增援하여 近來에 보기 드문 砲擊을 集中하고, 10餘臺의 戰車가 炭甘里一帶에 出現하고 있음이 航空觀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敵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敵은 機動路가 良好한 古直木里—長淵里正面向에 대하여 步戰砲協同下의 局地的인 攻勢를 試圖하는 가운데, △575—△690一帶에 대한 侵襲을 強化하여, 我主抵抗線을 威脅코자 하는 것으로 判斷됨으로써 이 一帶를 새로이 담당하게 된 수도사단의 激戰이 豫상되었다.

△575附近戰鬪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기 간	부 대	戰 果					損 失	
		射 殺	捕 虜	기관총	기관단총	소 총	戰 死	戰 傷
4.16~4.18	제 7연대 제 2대대	163	2	8		52	35	117
5.31	제 19연대 제 11중대	54				5	6	53
6.14	제 19연대 제 10중대	18					17	93
계		235	2	8	5	57	58	263

§ 參戰者의 證言

◇ 제 7연대 제 6중대 선임장교 金鍾聲 중위

(1973년 7월 25일, 戰編委에서, 예소령)

제 2대대가 연대 右一線으로서 轎岩山附近의 主抵抗線을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제 6중대는 2km 前方에 있는 △575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때 중대는 제 2소대를 右 제 1선 제 1소대를 左 제 1선으로 하고 제 3소대를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4월 1일 밤에 敵 2개중대가 侵襲하였으나 이를 無難히 擊退한바 있었다.

探索戰을 끝낸 敵은 4월 16일 저녁에 前例 없는 砲擊을 퍼부우면서 2개중대규모로서 三面向으로부터 侵襲하기 시작 하였다.

중대는 제 27포병대대와 美제 300포병대대의 支援下에 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侵襲을 一旦에 制壓하였으나 공격을 再開한 敵은 右 제 1선인 제 2소대를 威脅하였다.

소대는 중대에 비인 제 3소대의 增援下에 陣地一角을 突破한 敵을 驅逐하고 不過 15m—20m 距離에서 手榴탄을 던지면서 激戰을 벌였다.

漸次로 戰鬪가 熾烈하여지면서 敵은 左 제 1선인 제 1소대正面向으로 主攻을 指向하여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벌였는데 이때 소대장 金致永가 壯烈하게 戰死하자 소대의 防守가 무너지면서 危機에 빠졌다.

중대장 金致永 중위는 예비인 제 3소대로써 逆襲을 敢行케 하였으나 成功하지 못하고, 제 1소대의 散兵단을 收拾하여 △575頂上附近으로

撤收하여 據點防禦에 突入하였다.

氣勢를 올린 敵은 三面으로 포위한채 공격을 계속 하였으나 중대 OP를 中心으로 한 據點을 확보한 중대는 果敢한 近接戰으로 敵을 陣前에서 阻止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이 負傷하였으나 應急處置만을 받는 즉시로 流血이 狼狽한채 陣頭지휘를 계속함으로써 중대원들의 戰意를 드높인바 있다.

露出된 地形에서 集中火力을 견디어 내지 못한 敵은 一旦 退却하였으나 左側의 제 1소대 陣地를 掠取한 敵의 挑戰을 계속함으로써 중대장을 代理한 나는 예비로 轉換된 제 2소대에 逆襲을 명령하였다.

제 2소대는 果敢하게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소대장 吳鎭煥소위가 戰死함으로써 進展을 보지 못하고 陣地로 反轉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나의 指揮下에 渾然一體가 되어 侵襲을 거듭하는 敵과 至近距離에서 激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때 나는 左手와 右足에 負傷하였고, 화기소대장 鄭秉洙도 소위 左手에 貫通傷을 입음으로써 중대에는 제 3소대장 曺소위만이 健在하는 形便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대장에게 陣地交代를 建議하였으나 柳承源 중령은 同高地의 固守를 거듭 명령할 뿐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晝間에도 거듭되는 敵의 공격을, 累增하는 死傷者를 무릅쓰고 阻止, 擊退하였는데, 제 7중대가 增援次來到하기에 이르자, 또다시 恣行된 發惡의인 最後공세를 물리치고 陣地를 引繼한 다음, 나는 後方으로 後送되었다.

이 戰鬪에서의 戰功으로 중대장은 美銀星勳章을 받았고 나는 陸軍病院에서 美제 9군단장의 感謝狀을 받았다.

◇ 제 19연대 제 3대대장 金明鎭 중령

(1973년 12월 13일 戰鬪委에서, 예대령)

揚口附近의 FTC교육을 마치고 轆岩山으로 移動하여 美軍陣地를 引受하였을 때, 제 19연대는 최초로 사단예비로 있다가 5월 下旬에 제 7연대와 陣地를 交代하였는데, 내가 지휘하는 제 3대

대는 연대 右一線으로서 제 10중대가 △690에 1진 陣地를 占領하고, 제 9중대가 △575頂上에 前進 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 11중대는 대대예비로써 △690西南쪽에 待機하였다.

그런데, 敵이 △575 東北쪽 稜線으로 潛侵하여 據點을 形成함으로써 △575의 前進 陣地의 癱痺를 꾀하고, 指形稜線의 東北쪽稜線을 敵이 掌握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대대는 사단계획에 따라서 이 無名高地④-⑤를 공격케 되었다.

이 無名高地 ④-⑤는 雙嶺洞一帶와 그 東北쪽의 △747로부터 瞰制되고 거의 小銃有効 射程 內에 있었다.

나는 예비인 제 11중대로 하여금 5월 31일에 이를 奪取토록 명령하였다.

제 11중대는 熾烈한 砲兵支援下에 공격을 敢行하여 06.00頃에는 無名高地④-⑤를 一舉에 奪取하고 확보하였으나, 敵의 砲擊과 雙嶺洞附近으로부터의 集中사격으로 사격戰을 계속 하였는데 이때 사단으로부터 즉각 撤收하라는 명령이 下達되었다.

나는 晝間撤收는 困難하니 夜間에 撤收할 것을 建議하였으나 연대 OP에서 作戰을 指導中이던 부사단장 崔昌彦 대령은 『休戰會談關係로 問題가 惹起되니 즉각 撤收토록』 거듭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晝間撤收를 斷行함으로써 敵의 砲擊으로 많은 死傷者가 發生하였다.

그런데 敵이 또다시 無名高地④-⑤로 侵襲하여 파괴된 據點을 復舊하고, △575에 계속 挑戰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白仁燦준장은 이를 또다시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6월 14일에 제 10중대를 공격 梯隊로 하여 奇襲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砲擊과 頑強한 抵抗으로 無名高地④만을 奪取하고 無名高地⑤는 奪지 못하고 말았는데, 중대장을 비롯하여 중대병력 半數以上이 死傷하는 損失을 보았다.

이 戰鬪가 끝난 다음, 우리대대地域은 右隣接인 수도사단에 引繼하였는데, 곧 이어서 연대로 제 7연대와 交代하고 사단예비가 되었다.

4. 金城 附近 戰鬪(1952년 6월 11일 부터) (1952년 6월 19일 까지) (一名, A高地 및 B高地 戰鬪)

참조 別冊부도 제 11 호
상 황 도 제 38.3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攻 擊 戰>

		我 軍				敵 軍		
제 2군단	장	중장	白 善 燁	제 51포병대대	장	중령	宋 善 陽	
제 6사단	장	준장	白 仁 燁	제 52포병대대	장	소령	河 英 燮	
제 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 27포병대대	장	중령	李 南 求	
제 1대대	장	소령	李 建 榮	제 96포병대대	장	중령	鄭 鳳 旭	
제 1중대	장	대위	安 秉 鶴	美제 300자주포병대대	장			
제 2중대	장	중위	韓 丁 燮		중령	Sheppard		
(배속)제 7중대	장	대위	李 信 敬	美제 140전차대대 C중대장				
제 2대대	장	소령	金 斗 逸	공병대대 제 2중대	장	대위	姜 榮 煥	
混成중대	장	중위	權 洪 善	隣接부대				
제 3대대	장	중령	梁 炳 煥	右隣接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9중대	장	대위	韓 相 勳	左隣接	美제 40사단			
연대 수색중대	장	대위	金 鶴 休		장	소장	Daniel H. Hadelson	
지원부대								
제 1포병단	장	중령	盧 敎 鉉					
中共 제 12군	장		會 紹 山	지원부대				
제 31사단	장		趙 藍 田	제 32포병사단		基幹		
제 91연대		基幹						

<防禦戰>

		我		軍	
제 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 11중대	장 중위	李 永 求
제 1대대	장 소령	李 建 榮	제 12중대	장 대위	文 亨 錫
제 1중대	장 대위	安 秉 鶴	(배속)제 7중대	장 소위	姜 錫 岐
제 2중대	장 중위	韓 丁 燮	제 7연대제 1중대	장 중위	金 容 勳
제 3중대	장 대위	河 泰 旭	지원부대		
제 4중대	장 대위	金 鍾 德	제 27포병대대	장 중령	李 南 求
제 3대대	장 중령	梁 炳 煥	제 96포병대대	장 중령	鄭 鳳 旭
제 9중대	장 대위	韓 栢 勳	美제 300자주포병대대		
제 10중대	장 중위	嚴 翼 中	장 중령	Sheppard	
		敵		軍	
中共 제 31사단	장	趙 藍 田	지원부대		
제 91연대	장	基 幹	제 32포병사단	장	基 幹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6사단(장, 白仁燁 준장)은 3월 28일에 美 제 40사단(장, Daniel H. Hadelson 소장)의 主陣地를 引受하고, 제 2군단(장, 白善燁 중장)의 左翼 사단으로서 제 7연대(장, 梁仲鎭 대령)를 右一線, 제 2연대(장, 宋大厚 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金城 東南쪽의 △765-鶴岩山(△770)-鷄岩-泗川里-焠火山(△477)을 連한 Missouri 線上의 主陣地를 확보 하였다.

板門店에서 開籠中인 休戰會談이 捕虜交換問題로 膠着狀態에 빠지자, 이를 打開키 위한 政戰兩略의 一環으로서의 軍의 作戰概念에 立脚한 軍단장의 指導에 따라 사단은 공격을 制限한채로 主抵抗線 北쪽 2km 要線에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威力搜索과 夜間潛伏으로 接觸을 維持하면서 계속적인 空軍의 空中공격과 날로 增強되는 포병화력으로 敵陣을 強打함으로써, 敵을 攪亂하고 그 攻勢企圖를 더 粉碎코자 하였다.

그런데 敵은 사단의 右一線인 제 7연대(장, 梁仲鎭 대령)가 突出된 要衝인 △575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敵線의 要域을 瞰制하기에 이르자, 이를 눈 위의 가지처럼 여기고 擄取코자 劃策함으로써 4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激戰을 비롯하여 △575를 圍繞한 彼我의 激突이 계속되었다.

이에 사단은 이러한 敵의 挑發에 強力하게 對處키 위하여 사단 作命 제 4호(52.5.7) 및 사단 作指 제 10호(52.5.18)로서 5월 22일 24.00附로 右一線인 제 7연대를 사단 예비로 轉換하여 사단 教育覺悟 제 11호에 의거한 教育訓練을 實施토록 하고, 예비인 제 19연대(장, 宋虎林 대령)로 하여금, 右一線으로서 △690-△765-鶴岩山-△442를 連한 主抵抗線과 △575-△649-芳坪里 一帶의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그런데 △575에 대한 거듭된 正面공격과 奇襲이 挫折된 敵은, 부대 交代를 틈타고 盛茂期를 利用하여 △575 東北쪽 稜線으로 潛沒, 계속적인 砲擊과 牽制공격을 試圖하는 가운데 一部 병력은 稜線一角에 據點을 形成하고 연대의 搜索活動과 夜間潛伏을 牽制하기에 이르자, 제 19연대는 5월 31일에 이

를 공격하여 粉碎한바 있었다.

이처럼 △575에 대한 執拗한 敵의 侵攻이 사단의 堅守와 反擊으로 그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6월로 접어들면서부터는 炭甘里一帶에서 敵 전차의 頻繁한 기동이 觀察되더니 金城防守를 위한 觸角으로서 敵이 前進據點을 形成한 A고지(金城東南쪽 2.5km)—B고지(金城東南쪽 2km)를 基點으로 활발하게 跳梁하기 시작하여, 左一線인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가 前進陣地를 占領한 無名高地(陵洞東北쪽 0.7km)—△407(陵洞北쪽 0.5km)—△418(陵洞西쪽)—決死峰(金城東南쪽 1.8km)一帶를 威脅하였다.

이에 사단장 白仁燦 준장은 挑發의 據點인 A고지—B고지를 先制공격으로 一擧에 奪取함으로써 敵의 跳梁을 拔本塞源하고 金城을 비롯한 東南쪽의 無名高地群과 開豁地, 그리고 古直木里—烏梨洞一帶를 瞰制하게 되어 次期作戰을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한 결과 軍단장에게 建議하여 제2연대로 하여금 A고지—B고지에 대한 制限 공격을 敢行케 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狀況: 사단 正面의 敵은 사단이 現陣地를 확보한 以來로 변동없이 中共 제12군(장, 曾紹山) 隸下の 제31사단(장, 趙藍田)의 一部와 제35사단(장, 李德生)의 一部로서 그 병력은 6,000명이 고, 제32포병사단의 主力과 團隊號未詳의 전차 10輛의 支援를 받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右翼사단인 제31사단의 제91연대는 金城防守에 力點을 두고 上桑里—△533(金城西北쪽 1km)—玉女峰—△562(金城東北쪽 3km)를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한 다음, 金城—無名高地(金城東南쪽)—△373(金城東南쪽 1.2km)—B고지(金城東南쪽 2km)—A고지(金城東南쪽 2.5km)—古直木里—炭波里를 連한 一帶에 前進據點을 形成하고, 我 제2연대와 對峙하였는데 地域內에 良好한 機動路를 保有함으로써 전차의 集中支援이 예상되었다.

한편 左翼인 제35사단은 그 右一線인 제103연대가 長淵里—△573—△672—△495를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하고 栗砂里一帶에 前進陣地를 占據하여 我 제19연대와 對峙하였다.

所謂 精銳를 자랑하는 中共 제12군은 侵韓 以來로 큰 打撃을 받지 않고 補給이 比較的 良好하여 攻守兩面의 戰鬥力을 아직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으나, 我 空軍의 계속적인 空中공격과 우세한 포병화력으로 敵의 全面攻勢를 試圖하지 못하고, 우선 제103연대로서 △575에 대한 攻取를 노리게 된 듯 하였으나 我 제7연대와 제19연대의 善戰으로 이 企圖마저 拋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敵은 제12군과 對峙한 右隣接인 수도사단과 左隣接인 美 제40사단 正面의 戰況이 小康狀態를 維持함을 奇貨로 삼아 사단 正面으로 포병화력을 集中支援케 하는 한편, 제35사단 제104연대의 一部 兵력을 제103연대에 增援하여 △575—△690東北쪽 稜線에 대한 侵襲을 執拗하게 企圖하는 徵候를 보였다.

또한 敵은 6월로 접어들면서 團隊號未詳의 전차 10輛을 炭甘里로 推進하는 한편, 제31사단 제91연대가 前進據點을 形成한 B고지—A고지를 基點으로 활발하게 我 제2연대의 前進陣地를 威脅하였는데, 이러한 敵의 動向으로 미루어 보아, 敵은 전차의 支援下에 我 제2연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要衝인 無名高地(陵洞東北쪽 0.7km)—△418(陵洞西쪽)—決死峰(金城東南쪽 1.8km)을 奪取하여 我 主抵抗線을 壓迫하고, 金城에 대한 威脅을 除去코자 企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CP를 竹埜里에 두고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의 直接支援과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 중령) 및 제96포병대대(장, 鄭鳳旭 중령)의 一般支援 그리고 제1포병단(장, 盧載鉉 중령)의 火力增援下에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李建榮 소령)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2대대(장, 金斗逸 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鷄岩—泗川里—烽火山(△477)을 連한 Missouri 線上의 主陣地를 확보하였다.

그런데 A고지—B고지一帶에 前進據點을 形成한 敵이 연대의 前進陣地를 威脅하자, 先制공격으로 이를 一蹴키 위한 사단계획에 따라서 A고지—B고지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3대대는 제10중대(장, 嚴贊中 중위)를 右一線, 제11중대(장, 李永求 중위)를 左一線으

로 하여 鷓岩(淵巨里北쪽 0.5km)—無名高地(佳鶴里東北쪽 0.7km)에 이르는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 9 중대(장, 韓相勳 대위)는 無名高地(拔洞東北쪽 0.7km)에 前進陣地를 占領하여 A고지—B고지 一帶의 敵과 不斷히 接觸 하였다.

제 1 대대는 제 3 중대(장, 河泰旭 대위)가 泗川里附近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 1 중대(장, 安秉鶴 대위)가 △418(拔洞西쪽)—無名高地(△418 西쪽 0.5km)—次死峰(金城東南쪽 1.8km)에 각각 1개소대를 推進하여 前進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 2 중대(장, 韓丁燮 중위)는 대대에비로서 開野里附近에 集結, 待機하였다.

한편, 제 2 대대는 제 6 중대(장, 洪淳萬 대위)를 右—線, 제 5 중대(장, 權洪善 중위)를 左—線으로 하여 無名高地(慶祥里 東北쪽)—烽火山(477)를 連한 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烽火洞—後川洞 一帶에 一部병력으로 前進陣地를 占領하여 金城川 南岸을 掌握하였으며, 제 7 중대(장, 李信教 대위)는 대대에비로서 梨南里附近에 集結, 待機하였다.

또한 연대 수색중대(장, 金萬塚 대위)는 연대에비로서 竹垆里附近에 集結하여 연대 CP와 사단을 一般支援중인 美 제 140전차대대 C중대에 대한 警戒 任務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攻 擊 戰 (6. 11~12)

(가) 작전계획

사단장 白仁燁 준장은 敵이 前進據點을 形成한 A고지(金城東南쪽 2.5km)와 B고지(金城東南쪽 2km)를 一舉에 奪取하여 敵의 계속적인 挑發을 未然에 防止하고 前進陣地線을 擴大하여 金城東南쪽의 無名高地群과 開豁地, 그리고 古直木里—烏梨洞 一帶의 敵을 制壓키로 하고 軍단장의 承認을 얻은 다음, 사단作命 제 6 호(52.6.3)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단은 一部병력으로 制限된 目標을 공격하려 한다.
 ② 제 2 연대는 一部병력으로 6. 12, 04. 00를 期하여 目標 A(A고지)—B(B고지)를 탈취 하라.
 ③ 제 19, 제 7 兩 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④ 공격間 제 27 포병대대는 제 2 연대를 直接支援하고 제 96, 美 제 300 兩 포병대대는 一般支援하며, 제 1 포병단이 火力增援할 것이다.
 ⑤ 美 제 140전차대대 C중대는 공격間 제 2 연대를 直接支援한다.
 ⑥ 공병대대는 공격間, 1개 중대와 火焰放射器 7대를 제 2 연대에 배속하라.
 ⑦ 사단 CP는 巨里室에 位置한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 2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공격間 연대를 直接支援키로 된 美 제 140전차대대 C중대를 金城東南쪽 開豁地附近으로 推進시켜 近接支援과 동시에 金城東南쪽 一帶의 無名高地群과 開豁地를 制壓하고 敵의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제 2 대대(장,

金斗逸 소령)의 一部병력으로, 敵이 據點을 形成한 △373(金城東南쪽 1.5km)로 陽攻케 하며, 제1대대(장,李建榮 소령)의 一部 및 연대 수색중대(장,金鶴休 대위)로써 主目標인 A—B를 一舉에 奪取키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연대 作命 제7호(52.6.3)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사단作命 제6호에 의거하여 目標A—B를 탈취하러 한다.

② ㉞ 제1대대는 1개 중대를 抽出하여 연대 수색중대와의 協同下에 6.12, 04.00를 期하여 目標 A—B를 공격, 확보하라.

㉞ 제2대대의 1개 중대가 陵洞附近으로 進出하는 即時로 이를 統合指揮하라.

㉞ 1개 소대를 無名高地(△373東南쪽 0.8km)로 進出시켜 전차중대를 掩護케 하라.

③ ㉞ 제2대대는 1개 중대를 陵洞으로 進出시켜 제1대대에 백속하라.

㉞ 1개 중대로써 6.12, 04.00를 期하여 △373를 공격케 하라.

④ ㉞ 제3대대는 제9중대의 2개 분대로써 제1대대 공격중대의 側方을 掩護케 하라.

㉞ 공격間 Cal 50 기관총 3挺, 75mm 無反動銃 1挺을 제1대대에 지원하라.

⑤ 연대 수색중대는 泗川里附近으로 進出한 다음, 一部 병력으로 6.12, 04.00를 期하여 目標 B를 迂回공격하라.

⑥ 공격間 제27포병대대가 연대를 直接支援하고 제96, 美 제300 兩 포병대대가 一般支援하며 제1포병단이 火力增援할 것이다.

⑦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가 연대를 直接支援한다.

⑧ ㉞ 공병 제2중대는 佳鶴里에서 △407에 이르는 道路를 補修하고 전차 進入路를 啓開하라.

㉞ 夜間을 利用하여 공격 軸線상의 地雷를 除去하라.

㉞ A고지—B고지 奪取와 동시에 陣地工事 및 障礙物敷設에 萬全을 期하라.

※ 協調指示

㉞ 此명령 수령 即時, 공격부대는 전투훈련에 着手하라.

㉞ 공격은 迅速 果敢하라.

㉞ 공격間 充分히 散開하라.

㉞ 對空布板은 소대에 2枚씩 携帶케 하라.

⑨ 通信은 現行 SOI에 의거한다.

⑩ 연대의 推進觀測所는 제9중대 OP에 位置한다.』

(나) 작전 실시

6월 11일 : 공격 前날인 이날, 아침부터 美 空軍의 F—80戰爆機 2개 편대가 敵陣을 強打하고 제1포병단(장, 盧載鉉 중령)을 비롯한 제27, 제96 兩 포병대대와 美 제300자주포병

대대(장, Sheppard 중령)가 一齊히 砲門을 열어 사단 全正面에 攪亂사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최종적인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즉, 연대 OP와 제1대대 OP를 17.00에 제9중대(장, 韓相勲 대위)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로 推進開設하고, 연대장 宋大厚 대령과 제1대대장 李建榮 소령은 공격 目標를 直接 觀測하면서 공격계획을 再檢討하였다.

한편 제1대대의 推進交換臺를 제9중대 OP에 設置하고, 연대 治療所를 佳鶴里 附近으로 推進開設하여 사단에서 支援한 Ambulance 4輛을 포함한 10臺의 救急後送車를 확보하였는데, 이 救急車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陵洞附近으로 推進키로 하였다.

이때 1주일만에 걸쳐 전투훈련에 精進한 각 공격梯隊는 個人當 2일분의 携帶食糧과 2基數의 實彈, 그리고 5發의 수류탄이 지급되고 徹底한 軍裝검사가 實施되었는데, 山間에 망거미가 지기시작한 19.00에 연대장은 출동부대의 展開를 명령 하였다.

1. 제2중대(장, 韓丁燮 중위)는 23.40에 前날의 集結地인 關野里를 출발하여 다음날 02.00에 陵洞으로 進出하였는데, 중대장 韓丁燮 중위는 제1, 제3 兩 소대가 目標A(A고지)를 공격하고 제2소대는 西北쪽으로 迂回공격하는 연대 수색중대의 增強된 1개소대와 協同하여 目標B(B고지)를 正面으로 공격키로 하였다.

2. 제1중대(장, 安秉鶴 대위)는 △418—無名高地—決死峰에 각각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이날 연대 作命 제7호에 의거한 대대장 李建榮 소령의 명령으로 無名高地를 占領한 제2소대가 21.45에 行動을 개시하여 23.10에 決死峰 西南쪽의 無名高地로 接敵없이 進擊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로 하여금 다음 날 未明에 目標B 西北쪽의 LD로 進出하는 연대 수색중대의 공격梯隊와, 開豁地까지 進擊키로 된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 主力을 掩護케 하고, 決死峰을 확보한 제3소대는 제2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의 目標B공격을 側方支援토록 하였다.

3. 제7중대(장, 李信教 대위)는 19.20에 梨南里를 출발하여, 21.45에 陵洞 東南쪽 溪谷에 集結하여 22.00附로 제1대대에 배속되었는데, 제1대대장 李建榮 소령은 同중대로 하여금 대대예비로서 제2중대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407(陵洞北쪽 0.5km)로 進出하여 제2중대의 공격을 火力支援하고 次後명령을 待機토록 하였다.

4. 연대 수색중대(장, 金鶴球 대위)는 그동안 實戰을 彷彿케 하는 전투훈련을 거듭하였는데, 이날 20.15에 竹垆里附近의 集結地에서 車輛으로 출발하여 20.30에 泗川里 東南쪽으로 進出하였다.

그런데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중대장에게 增強된 1개소대로써 제1중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418—決死峰—無名高地(決死峰 西南쪽 0.5km)를 迂回하여 西北쪽으로부터 目標의 背面을 奇襲토록 하였다.

5. 混成중대(-)는 제2대대의 主抵抗線을 확보한 제5, 제6兩 중대에서 各 1개소대를 抽出하여 暫定 편성하였는데, 權洪善중위가 지휘하여 이날 慶祥里 附近에 集結한 다음 △373에 대한 陽攻 任務를 부여 받고 공격 態勢를 갖추었다.

6. 公병 제2중대(장, 姜榮煥 대위)는 6월 3일 以來로 佳鶴里—△407에 이르는 道路를 補修하고 전차의 進入路를 啓開하였으며, 22.00부터는 △407 北쪽의 地雷除去作業에 着手하였는데,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火焰放射器 各 2대를 제2중대와 연대 수색중대 및 混成중대(-)에 그리고 1대는 제7중대에 지원하였다.

7.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의 1개소대는 公병이 啓開한 進入路를 따라 21.00에 △407 東南쪽鞍部로 進出하여 제2중대에 대한 直接支援態勢를 갖추었으며, 主力은 竹袋里附近에서 待機하였는데, 다음날 06.00에 金城東南쪽 開豁地附近으로 進駈하여 그 附近 一帶를 制壓하면서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공격을 近接支援키로 하였다.

6월 12일 :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가 03.30부터 △373(金城東南쪽1.5km)에 공격준비사격을 集中함으로써 主攻目標인 A고지—B고지에 대한 공격 企圖를 秘匿하는 가운데, 主攻梯隊인 제2중대는 04.00를 期하여 △407北쪽 稜線上的 LD를 通過, 공격목표인 A고지—B고지 正面으로 隱密하게 進出하고, 연대 수색중대의 공격 梯隊는 金城東南쪽 開豁地로 迂回하여 目標B 背面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제5, 제6兩 중대의 各 1개소대로 編成된 混成중대(-)는 LD를 通過하는 즉시로 先制射擊을 加하면서 △373를 兩翼으로 挾擊함으로써 主攻方向을 誤判한 듯한 敵은 △373로 砲擊과 기관총을 集中하게 되어, 연대는 陽攻의 效果를 거두는 가운데 一路 主攻目標로 近接하였다.

1. 目標 A高地—B高地 : 제2중대(장, 韓丁燮 중위)는 이날 02.00에 陵洞으로 進出한 다음 待機하였는데, △373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된 03.30부터 機動하여 04.00에 △407 北쪽 稜線上的 LD를 通過하면서 重火器의 火力 支援없이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리하여 溪谷을 隱密하게 橫斷하는 즉시로 主力은 目標 A의, 그리고 제2소대는 目標B의 各 南쪽稜線을 따라 分進하였는데, 右一線인 主力이 발자욱소리와 숨소리 마저 죽여 가면서 5部稜線으로 進出하였을 때 埋伏中인 2개분대 규모의 敵의 警戒조와 激突하면서 黎明의 交戰이 시작되었다.

중대 主力은 제1, 제3兩 소대가 左右一線으로 散開하여 一齊射擊으로 敵을 制壓하고 兩翼으로 挾擊하여 一舉에 擊破하였으나, A고지—B고지에 대한 奇襲공격을 비로소 눈치챈 듯한 敵은 △373로 集中하였던 砲擊을 중대 正面으로 轉換하고 A고지—B고지의 敵 기관총사격이 集中되었다.

이에 연대를 直接支援中인 제27포병대대는 A고지—B고지의 敵陣을 強打하기 시작하고 제1포병단(장, 盧載鉉 중령)과 제96포병대대(장, 鄭鳳旭 중령) 그리고 美 제300自走砲兵

대대(장, Sheppard 중령)가 一齊히 砲門을 열어 砲兵制壓사격과 동시에 金城—古直木里一帶의 敵據點을 猛打함으로써, 集注하는 砲彈의 炸裂音은 濃霧에 휩싸인 새벽의 山野를 震動하고 그 閃光은 하늘을 붉게 물드렸다.

중대는 砲兵의 射程延伸과 동시에 砲門을 연 美 전차 1개소대의 直接支援下에 一齊히 躍進하여 04.55에는 A고지—B고지의 7部稜線으로 각각 突進하였다.

이때 熾烈한 砲擊으로 잠시 沈默을 지키던 1개중대(-)규모의 敵은 岩壁에 교묘히 構築한 火力據點과 散兵據에서 불을 부어 내리는 듯 한 기관총의 交叉射擊을 主軸으로 全火力을 集中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目標A의 공격梯隊인 主力은 漸次 熾烈하여지는 전차포와 Cal 50 기관총, 그리고 57mm와 75mm無反動銃의 掩護射擊과 怒號하는 중대장 韓丁燮 중위의 陣頭指揮下에 제3소대는 南쪽稜線을 따라 계속 正面으로 突進하고, 제1소대는 A고지—B고지間的 鞍部로 迂回하면서 西南쪽으로부터 挾擊하였으나, 이때 砲兵의 制壓사격으로 잠시 주춤하던 敵砲마저 彈幕 사격을 시작함으로써 중대(-)는 火焰에 휩쌓인채로 進出線에서 공격이 頓挫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 李建榮 소령은 『중대는 즉각 彈幕地帶를 突破하여 果敢하게 突擊하라』고 SCR-609로 叱咤하는 한편 砲兵의 制壓사격을 要請하였다.

이에 發憤한 중대(-)는 중대장을 先頭로 一齊히 躍進하여 彈幕과 기관총의 火束을 뚫고 敵陣中에 肉迫하는 즉시로 수류탄을 던지면서 怒濤와 같이 밀어 닦쳤다.

그러나 地形의 利를 活用한 敵의 계속적인 集中사격과 쏟아져 내리는 수류탄으로 두차례에 걸친 突擊의 보람도 없이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進出線에서 전차포와 無反動銃의 熾烈한 掩護射擊下에 사격전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소대는 전차포와 無反動銃의 突擊 支援射擊下에 目標B의 南쪽稜線을 타고 一齊히 突進하면서 西北쪽으로부터 공격하는 연대 수색중대의 공격소대(+)와 協同으로 目標B를 挾擊하였다.

敵은 글자 그대로 岩石으로 뒤덮인 돌 高地의 地勢를 活用한 據點에서 野砲와 박격포의 掩護사격 아래 最後阻止사격으로 소대의 突進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소대는 果敢한 一齊躍進으로 彈幕地帶를 突破하는 즉시로 敵線에 肉迫하여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다.

이때 目標B의 西南쪽 稜線으로 迂回하는 연대 수색중대의 果敢한 側方공격과 急遽進出한 제7중대 1개소대의 支援사격으로 敵火가 分散되기에 이르자, 鎗하사를 조장으로 하는 特攻組가 死角點을 따라 火力據點으로 近迫하여 수류탄을 銃眼으로 집어 던져 기관총을 沈默시키는 즉시로, 소대는 一齊히 수류탄을 散兵線에 投擲하면서 賊聲도 우렁차게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 正面과 西側方에서 挾擊을 받은 敵은 제대로 抵抗할 餘裕도 없이 北斜面을 따라 東北쪽인 △345로 潰走하였으나 金城東南쪽 開豁地로 進驛한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 主力의 一齊射擊으로 潰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소대는 09.05에 目標B를 完全히 奪取하고 急編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한편 主力의 目標 A공격을 側方支援하였다.

이때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제9중대의 前進陣地에 OP를 設置하고 直接作戰을 指導하였는데 A고지에 대한 공격梯隊가 目標를 目前에 두고 進展을 보지 못하자, 空中支援을 要求하는 한편,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중령)에 目標A에 대한 TOT射擊을 要求하고, 공격梯隊의 側方경계 任務를 담당한 제9중대의 2개분대를 特공대로서 右側方으로 공격토록 措置하였다.

이윽고, 美 空軍의 F-80 戰爆機 2개편대가 西天에 나타나 敵의 포병陣地와 金城—古直木里 一帶의 據點을 猛打하고, 제27포병대대는 目標A(A고지)에 砲擊을 集中함으로써 群岳이 무너지는 듯한 轟音과 함께 그 一帶가 火焰에 휩쌓였다.

이에 대대장 李建榮 소령은 露出된 敵의 火力據點에 전차포와 無反動銃을 集中케 한 다음, 중대主力에 果敢한 突擊을 敢行토록 大號 一喝하였다.

중대 主力은 期必코 目標를 奪取키로 決意를 다지고 怒號하는 중대장 韓丁燮 중위의 陣頭指揮下에 제3소대가 正面을 直衝하는 가운데 제1소대는 西南쪽 稜線으로부터 一齊히 突進하였다. 계속된 砲擊으로 頂上附近의 草木은 火焰에 휩쌓이고 岩塊는 부서져 내리 그 모습이 變貌하였으며 據點이 마침내 露出되었으나 2개소대 규모의 敵은 最後發惡으로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면서 수류탄으로 頑強하게 맞섰다.

이리하여 正面으로 突進한 제3소대는 敵線 40m前方까지 近迫, 전차포의 支援下에 사격 전으로서 突擊의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으며, 西南쪽 稜線으로 迂回한 제1소대는 B고지를 奪取한 제2소대의 火力支援下에 敵火를 制壓하고 8部稜線으로 突進하여 수류탄을 퍼부은 다음, 突擊을 敢行한 끝에 散兵線의 一角을 突破하였으나 이때 敵 예비대의 增援으로 一進一退의 白兵戰만을 展開하였다.

이와같이 중대가 敵을 正面과 西側方으로 抑留하는 가운데 東北쪽으로 迂回한 제9중대의 2개분대가 敵의 意表를 찢러 敵線으로 急히 突進하면서 수류탄과 火焰放射器로 敵을 攪亂하기에 이르니, 敵陣에서는 곧 混亂이 일어나고 火力이 맥없이 分散되기에 이르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 主力은 一齊히 躍進하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突擊을 敢行하여 敵을 擊破하고 目標A(A고지)를 드디어 奪取하였으니 이때가 12.25이었다.

중대 主力은 제9중대 2개분대의 支援下에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하고, 急編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14.00에 A고지—B고지로 空병 1개소대씩 이 각각 進出하기에 이르자, 南斜面의 敵據點을 파괴하고 陣地工事와 障礙物敷設에 着手

하였다.

그런데 15.30에 제7중대(장, 李信敦 대위)가 A고지로 進出한데 이어 17.40에 제9중대 1개소대가 A고지로 增援되기에 이르자, 20.00에는 A고지—B고지의 兩陣地를 제7중대에 引繼하고 隨意撤收하여 21.20에는 △407를 거쳐 23.50에 開野里에 到着하였다.

이날 중대는 敵 25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거두고 戰死 8명, 戰傷 29명의 損失을 보았다.

2. 연대 수색중대의 奮戰 : 연대 수색중대(장, 金鶴喙 대위)는 전날 20.30에 泗川里東南쪽으로 進出, 待機하였는데 이날 01.00에 중대장이 指揮하는 1개소대(十)가 集結地를 출발하여 俗稱 치마고개 (陵洞西南쪽)를 거쳐 決死峰(金城東南쪽 1.8km)—無名高地(決死峰西南쪽 0.5km)를 확보한 제1중대의 掩護下에 金城 東南쪽의 開豁地로 果敢하게 迂回한 다음, 04.00에 目標B(B고지) 西北쪽의 濼地線을 LD로 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소대(十)는 중대장 金鶴喙 대위의 陣頭指揮로서 奇襲코자 西北쪽稜線을 타고 隱密하게 機動하였는데 04.30에 稜線을 따라 進擊할 무렵, 예비陣地를 占據한 2개분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射擊을 받았다.

소대(十)는 즉각 散開하여, 一齊射擊으로 敵火를 制壓하는 즉시로 突進하면서 수류탄을 投擲하고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 奇襲에 唐慌한 敵은 金城東南쪽 無名高地群으로부터 指向된 기관총의 掩護射擊下에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하였으나, 兩側方으로 包圍한 소대(十)가 陣內로 突入하여 白兵戰을 展開하기에 이르자 그 威勢에 놀리는 바 되어 6具의 屍體를 遺棄한채로 頂上을 向하여 潰走하였다.

이에 소대(十)는 敵을 追擊하여 2명을 捕虜로 잡고, 樂注하는 彈雨속을 뚫으면서 頂上으로 突進하였으나 이때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가 공격目標인 A고지—B고지에 포격을 集中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宋大厚 대령의 명령에 따라서 제1중대 제3소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決死峰으로 一旦 轉進하였다.

目標 A—B에 대한 포격이 延伸되고 제2중대가 공격을 再開함과 동시에 소대(十)는 제1중대 제3소대의 掩護사격아래 目標B의 西南쪽稜線을 타고 공격을 再開하였다.

소대(十)는 先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 金鶴喙 대위의 陣頭指揮 아래, 躍進과 迂回를 계속하여 一路 敵線으로 突進하였는데 敵은 7部稜線上에 形成한 火力據點에서 기관총사격을 集中하여 소대(十)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였다.

중대장은 7部稜線附近의 地勢로 미루어 一齊突擊보다는 特攻組를 編成하여 肉彈공격을 敢行케 하는 것이 效果의일 것으로 判斷하였다.

이리하여 소대(十)로 하여금 遮蔽點에서 射擊을 集中케 하는 한편, 연대장에게 戰況을 보고하고 전차포의 援支을 要請하였으며, 決死峰附近에 控置한 3.5" Rocket포와 경기관총 2挺을 挺進케 하여 敵의 火力據點으로 사격을 集中케 하였다.

그熾烈한 砲擊속에서도 계속 支撐한 敵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면서 방망이 수류탄을 계속 굴러 떨어뜨려 特攻組의 突進을 阻止하였다.

이에 特攻組는 波狀의으로 突進하면서 수류탄을 던져서 火焰放射器組를 射程圈內로 推進시키코자 하였으나 敵의 火網에 휩쓸려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火焰放射器 射手인 鄭하사는 날쌔게 突進하면서 火焰放射器를 發射하였으나 火焰이 據點銃眼에 미치지 前에 기관총의 集中射擊을 받아 쓰러졌다.

이에 뒤따르던 다른 병사가 火焰放射器를 벗겨메고 앞으로 突進하였으나 몇발자욱 가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졌다.

이와 같은 特攻組의 筋戰상황을 지켜보던 중대장 金鶴依 대위는 더 躊躇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敢然히 앞서 달려나가면서 『突擊앞으로』를 絶叫하였다.

소대(-)는 一齊히 躍進하면서 앞을 다투어 突進하였다. 그러나 敵의 기관총사격과 수류탄의 彈幕으로 말미암아 거듭된 波狀突擊도 보람없이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다만 負傷한 特攻隊員을 救出한 채로 後退하여 遮蔽點에서 사격전만으로 應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 主力이 金城東南쪽 開豁地附近으로 進出하여 金城東南쪽 高地群과 古直木里에 이르는 敵據點 및 目標 A-B의 後斜面을 制壓하자, 연대장은 수색 중대에 當初의 계획대로 目標B(B고지)後斜面으로 迂回하여 제2중대의 공격 梯隊와 前後兩面으로 挾擊토록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는 煙幕遮障下에 溪谷을 따라 迂回하여 西北쪽 稜線을 타고 目標B로 突進하였다.

제2중대 제2소대의 果敢한 正面공격으로 苦戰중인 敵은 後方이 完全히 遮斷된 채 挾擊되기에 이르자 唐慌한듯 하고, 또 전차포의 威力으로 主據點地帶의 敵火도 잠시 沈默하다가 소대(+)가 8部稜線으로 進擊할 무렵에는 敵의 野砲와 박격포 그리고 기관총사격이 集注하여 소대의 背面을 威脅하고 美 전차중대 周邊에도 포탄이 雨注하기 시작하였다.

제96포병대대(장, 鄭鳳旭 중령)와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 중령)는 즉각 砲門을 열어 對砲兵사격을 開始함으로써 敵의 砲火는 漸次 잦아들기 시작 하였으나 發惡的인 기관총 사격은 如前히 소대(+)의 側背를 威脅함으로써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소대(+)는 연대장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07.30에 決死峰으로 反轉한 다음, △407附近의 전차砲의 支援사격아래 또 다시 西南쪽稜線을 타고 공격을 再開하기에 이르렀다.

7部稜線上의 半破된 敵據點에서는 기관총사격을 계속 하였으나 그 威勢는 限界에 다다른듯 하였다.

소대는 중대장을 先頭로 突擊을 敢行하여 據點附近의 死角點으로 突入하면서 수류탄을 投擲한 다음 火焰을 銃眼안으로 퍼부우니 기관총은 맥없이 沈默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소대의 進擊을 執拗하게 가로 막았던 敵據點을 粉碎하자, 소대(+)는 餘勢를

몰아 目標B의 頂上을 指向코 突進하였다.

이때 正面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던 제2중대 제2소대는 이 好機를 捕捉하여 頂上으로 突進하니 兩面으로 挾擊된 敵은 抵抗다운 抵抗도 하지 못한채로 潰退함으로써 09.05에 目標B를 드디어 奪取하기에 이르렀다.

소대(+)는 제2중대 제2소대가 後續한 公병소대의 支援下에 敵據點을 파괴하고 陣地工事を 進行하는 동안 急編陣地를 점령하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한편 제2중대 主力의 A고지 공격을 火力으로써 支援하였는데, 16.00에 1개소대규모의 敵이 煙幕을 피면서 古直木里쪽으로부터 迂回 侵襲하는 것을 捕捉하자 즉시 熾烈한 사격전으로 17.10에 이를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소대(+)는 19.20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새로이 B고지로 進出한 제7중대의 1개소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21.00에 泗川里東南쪽의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이날 敵 12명을 射殺하고 3명을 捕虜로 하는 戰果를 거두고 10명의 戰傷者를 보았다.

3. △373 공격: 混成중대(장, 權洪善 중위)는 烽火山(△477)一帶의 主陣地를 확보한 제6, 제5 兩 중대에서 각각 1개소대씩을 抽出하여 △373(金城東南쪽 1.5km) 공격을 위한 暫定的 編成을 하였는데, 이날 01.25에 慶祥里附近에서 公병 1개소대의 支援下에 M-2短艇으로 金城川을 渡河한 다음, 02.50에 屋後里(金城南쪽 2km)로 進出하였다.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 중령)가 企圖秘匿을 위하여 03.30부터 △373에만 공격준비 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混成중대(-)는 屋後里에서 隱密하게 機動하여 제5중대의 1개소대가 右 제1선, 제6중대의 1개소대가 左제1선으로 展開한 다음 04.00에 砲擊의 延伸에 觸接하여 △373南쪽稜線과 西南쪽稜線을 타고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LD를 통과한 混成중대(-)는 陽攻效果를 擧揚키 위한 연대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기관총과 2.36"Rocket砲 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先制射擊을 加하면서 突進한결과 主攻方向을 △373로 誤判한 듯한 敵은 野砲와 박격포를 △373로 集中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공격梯隊는 火焰에 휩쓸렸으나 怒號叱咤하는 중대장 權洪善 중위의 陣頭指揮 아래 躍進을 거듭하여 04.40에는 6部稜線까지 突進하였다.

이때 8部稜線상의 有利한 地勢를 活用하여 火力據點을 形成한 1개소대(+)규모의 敵은 彈幕射擊과 기관총의 交叉射擊下에 수류탄을 던지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이에 중대(-)는 突進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進出線에서 熾烈한 사격전만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主攻目標인 A고지-B고지를 공격하는 제2중대(장, 韓丁夔 중위)가 敵과 激突함으로써, 연대의 공격企圖를 비로서 看破하기에 이른 敵이 唐愴한듯이 砲擊을 A고지-B고지 正面으로 轉換하자,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는 즉각 誘導된 제8중대(장, 金東華 대위)의 81mm박격포의 支援下에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敵의 最後阻止사격과 비오듯 쏟아지는 수류탄의 彈幕으로 一進一退의 紛戰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雪上加霜으로 金城 南쪽과 東南쪽의 無名高地로부터 기관총사격이 集中되어 中대(-)의 左右側方을 威脅함으로써 그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遮蔽點으로 後退하였다.

그런데 06.00에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主力이 金城 東南쪽 開豁地로 突進하여 金城東南쪽과 古直木里 一帶의 敵을 制壓하면서 그 一部가 △373에 전차포를 集中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銳氣를 되찾은 中대(+)는 南쪽과 西南쪽 稜線을 타고 突擊을 再舉하였다.

그러나 그 熾烈한 전차포의 사격에도 能히 支撐한 敵은 如前히 기관총사격을 集中함으로써 7部稜線에서 또다시 공격이 頓挫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同 전차중대 主力은 各각 砲門을 열어 △373의 敵火를 制壓하고 中대를 掩護하였으나 이때 전차포의 威力에 크게 威脅을 받은 敵이 野砲와 박격포를 △373에 集注하고 對 전차포와 直射砲를 전차중대에 集中함으로써, 전차중대는 43番道路에 沿한 無名高地群과 古直木里 一帶로 사격을 轉換하여 砲擊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차포의 集中支援下에 공격을 再舉하여 一齊히 躍進한 中대(-)는 전차포의 사격 方向이 轉換되자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砲火와 기관총사격에 휩쓸이면서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戰況의 推移를 烽火峰에 推進한 대대 OP에서 注視하던 제 2대대장 金斗逸 소령은 中대(-)의 後退를 명령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中대(-)는 △373 南쪽溪谷으로 後退하여 北쪽벼랑에 依持하면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美 空軍의 戰爆機 2개편대의 近接支援에 이은 사단 全砲火力으로써 敵砲를 制壓하기에 이르자 中대(-)는 大대장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서 11.30에 一齊히 躍進하면서 공격을 再開하였다.

이때 2개소대 규모로 增強된 敵은 熾烈한 사격과 手榴彈으로 中대(-)의 突進을 阻止코자 하였다.

中대(-)는 中대장 權洪善 중위의 陣頭指揮下에 波狀공격을 敢行하여 西南쪽 稜線상의 散兵線으로 近迫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르자, 수류탄을 一齊히 投擲하고 白兵을 휘몰아 그 一角을 突破하면서 混戰亂鬪의 紛戰을 展開하는 한편 2개의 特攻組는 火力據點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無慈悲한 督戰에 견디지 못한 敵은 頑強하게 抵抗함으로써 一進一退의 激突을 보이다가 決定的인 威脅을 받게 되자 敵은 3發의 青色信號彈을 올리면서 一齊히 洞窟壕로 退却함과 동시에 82mm 박격포로 陣內射擊을 퍼부었는데, 이들을 타서 그 東北쪽無名高地를 占據한 增強된 1개소대규모의 敵이 逆襲을 敢行하였다.

中대(-)는 中대장의 果敢한 指揮아래 敵의 交通壕에 依支한채 侵襲하는 敵에 射擊을

集中하였으나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敵砲火에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고 主攻目標인 A고지-B고지를 이미 奪取함으로써 混成중대(-)의 陽攻任務가 成功한 것으로 判斷한 연대장 宋大厚 대령의 명령으로 중대는 13.30에 煙幕遮障下에 逐次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는 즉각 誘導된 포병의 掩護射擊下에 屋後里에 集結한 다음, 金城川을 건너 15.30에는 主力과 合勢하였는데, 이날의 激戰에서 敵 37명을 射殺하고 1명을 捕虜로 잡는 戰果를 거두고 戰死 15명, 戰傷 23명의 損失을 보았다.

4. 제9중대(장, 韓相勳 대위)는 無名高地(陵洞東北쪽 0.7km)에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제6사단을 방문한 Collins 대장>

不斷히 敵과 接觸을 維持하였는데 연대 作命 제7호에 의거하여 이날 李소위가 指揮하는 2개분대가 04.00에 陣地線에서 機動하여 04.55에는 無名高地(A고지 東쪽 0.5km)로 進擊한 다음,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공격梯隊인 제2중대의 東側方을 掩護하였다.

이때, 그 北쪽의 無名高地를 占據한 1개분대 규모의 敵이 사격을 加하면서 공격함으로 소대(-)는 火力을 集中하여 이를 擊退하는 즉시로 追擊하여 無名高地를 奪取, 확보하였다.

그런데, 제2중대 主力의 目標A에 대한 공격이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보기에 이르자,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제9중대의 2개분대로 하여금 特攻隊로서 目標A를 側方 공격케 하는 한편 제7중대에 배속된 火焰放射器1대를 挺進시키도록 명령 하였다.

이와같은 연대장의 명령을 直接받은 중대장은 즉각 대대장에게 報告하고 『소대(-)는 現陣地를 撤收하는 즉시로 特攻隊로서 目標A의 側方을 공격하라.』고 명령 함으로써, 李소위가 指揮하는 소대(-)는 09.55에 警戒陣地를 박차고 躍出하여 81mm 박격포와 전차포의 掩護下에 西쪽의 溪谷을 橫斷하면서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때 계속된 砲擊과 제2중대와의 激戰으로 敵線이 露出되어 그 脆弱點을 看破한 중대장 韓相勳 대위는 SCR-536으로 소대의 공격路를 誘導하면서 直接指揮에 나섰다.

이에 따라서 소대(-)는 溪谷을 一齊躍進으로 通過하는 즉시로 目標A의 東北쪽 稜線으로 올라 붙어, 그대로 北쪽으로 突進하여 別다른 抵抗 없이 頂上에 이른 다음, 東北쪽으로부터 敵을 急襲한 끝에 交通線로 突入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때 제2중대의 果敢한 正面攻擊과 西側方에서 바야흐로 展開하기에 이른 陣內戰으로

예비병력마저 投入하여 防守에 汲汲한 敵은 不意의 側方 공격에 唐慌하는듯 하였으나, 一部の 병력이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頑強한 抵抗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李소위를 先頭로 한 特攻隊는 一齊히 수류탄을 投擲하여 敵을 制壓하는 즉시로 火焰을 放射하여 突擊路를 開拓하고, 제2중대의 正面 공격을 執拗하게 阻止하는 火力據點을 目標로 突進하였다.

이때 決定的인 威脅을 받기에 이른 敵線은 混亂에 빠졌고 火力마저 힘없이 分散되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看破한 제2중대가 正面과 西側方으로부터 一齊히 突擊을 敢行함으로써 特攻隊는 이와 協同하여 火力據點을 沈默시키는 즉시로 제2중대와 더불어 頂上을 奪取하고 北 쪽 稜線으로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다.

特攻隊의 이러한 勇戰相을 OP에서 始終 지켜본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중대장 韓相勳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戰功을 높이 讚揚하였다.

그런데 16.00에 이르러 A고지의 防守를 增強키로 決心한 연대장은 제3대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토록 명령함으로써, 대대장 梁炳煥 중령은 主陣地를 확보한 제11중대의 1개소대를 제9중대의 前進陣地로 急遽進出시켜 이를 補強케 하는 한편 제9중대의 1개소대를 A고지로 進出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제9중대 제1소대는 16.40에 陣地를 출발하여 17.40에 A고지로 進出, 앞서 進擊한 2개분대와 合勢한 다음, 東北쪽 稜線에 陣地를 佔領하였는데, 20.50에 이르러 增強된 1개소대 규모의 敵이 古直木里附近으로부터의 기관총사격아래 侵襲하였다.

소대(+)는 敵을 至近距離로 誘引한 다음, 박격포의 支援射擊下에 一齊射擊을 퍼부어 그 銳鋒을 制壓하였으나 그들은 執拗하게 侵攻함으로써 21.50에는 彼我間에 수류탄을 投擲하고, 一角에서는 白兵戰이 展開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소대는 李소위의 果敢한 指揮下에 一齊히 陣地에서 躍出하면서 수류탄을 集中投擲하고 突擊을 敢行함으로써 混戰亂鬪의 紛戰이 벌어져 賊聲과 悲鳴이 暗夜의 山野에 메아리 쳤다.

소대(+)의 威勢에 壓倒된 敵은 22.00에 一巨 潰退하였으나 22.30에 이르러 박격포사격을 集中하면서 또다시 侵攻하였다.

소대(+)는 여기에 사격을 集中한 다음, 수류탄을 投擲하고 近接戰을 展開하는 激戰끝에 23.00에 敵을 또다시 擊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대主力은 17.00에 進出한 제11중대 제1소대의 支援下에 無名高地의 前進陣地를 強化하였는데, 이날 중대는 A고지공격 및 防禦에서 24명을 射殺하고 4명을 捕虜로 하는 戰果를 거두고 戰死 6명 戰傷 10명의 損失을 보았다.

5. 제7중대(장, 李信教대위)는 전날 21.45에 陵洞東南쪽 溪谷으로 進出하여 제1대대(장

李建榮소령)에 배속과 동시에 待機하였는데, 이날 공격梯隊인 제2중대의 공격開始와 때를 같이 하여 △407로 進出, 제2중대를 火力로 支援하였다.

그런데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제1중대의 공격이 進展을 보지 못하자 제1대대장은 제7중대의 1개소대를 △407西北쪽稜線으로 進出시켜 目標을 공격중인 제2중대 제2소대를 近接 支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중대의 1개소대는 07.35에 △407에서 기동하여 그 西北쪽稜線으로 進出한 다음, 제2중대 제2소대를 後續하면서 공격을 支援하였는데 09.05에 目標 B를 奪取하기에 이르자 계속 進擊하면서 제2중대主力의 目標 B공격을 支援하고 13.00에는 目標 A로 進出하여 제2중대主力의 陣地工事を 支援하였다.

이때 중대의 主力은 계속 △407에 待機하였는데, 제1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14.15에 行動을 開始하여 15.30에 1개소대가 A고지로, 1개소대는 B고지로 각각 進出하여, 20.00에는 增援된 제9중대의 1개소대(+)와 더불어 제2중대의 작전임무를 引受하고 A고지-B고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20.50에 이르러 1개중대규모의 敵이 東北쪽과 北쪽의 두 稜線을 타고 侵襲하였다.

중대(-)는 제9중대의 1개소대(+)와의 緊密한 協助와 제27포병대대의 掩護로 近接戰을 展開하여 22.40에 이를 擊退하였다.

그러나 敵은 熾烈한 砲擊을 集中하는 가운데 2개소대규모가 隱密하게 侵襲하여 23.40에는 陣前으로 殺到함으로써 彼我間에는 手榴彈投擲에 이어 肉迫戰이 展開되었다.

이때, 중대장의 直接指揮에 크게 힘 입은 중대(-)는 바야흐로 東山에 떠오르는 下弦의 어슴푸레한 달빛아래 一齊히 躍出하면서 左衝右突하여 敵을 擊破한결과 마침내 繼戰意志를 喪失한 敵이 24.00에 또다시 潰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敵의 執拗한 逆襲企圖를 散散히 粉碎하고 A고지-B고지를 계속확보하기에 이르렀다.

6. 공병 제2중대(장, 姜榮煥대위)는 이날 1개소대로서 M-2短艇으로 混成중대(-)의 金城川渡河를 支援케하고 主力은 地雷除去作業을 끝낸다음 △407南麓에 集結하여 待機하였다.

그런데 제2중대가 目標A-B를 奪取하기에 이르자, A고지-B고지로 각각 1개소대를 進出시켜 南斜面の 敵 據點을 파괴하고, 陣地工사와 障礙物敷設에 着手케하였는데 20.00에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중대主力과 더불어 開野里附近에 集結하였다.

7. 美 제140전차대대 C중대는 전날 21.00에 1개소대가 △407附近으로 進出하여 이날 제2중대의 A고지-B고지공격을 直接支援하였으며, 중대主力은 06.00에 金城 東南쪽 闊豁

地附近까지 進擊하여, 43番道路에 沿한 無名高地群과 古直木里 一帶 그리고 A고지-B고지 後斜面을 制壓하고 敵의 增援과 退路를 遮斷하였다.

이리하여 A고지-B고지공격에 貢獻하는 한편 混成중대(-)의 △373공격을 直接支援하였는데 12.25에 主공격목표를 奪取하기에 이르자 13.30에는 砲兵掩護사격과 煙幕遮障下에 逐次的으로 竹垆里附近에 集結하였다.

(2) 防禦戰 (6·18~19)

(가) 작전계획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6월 12일에 공격을 敢行하여 A고지-B고지를 奪取하고, 계속 제3대대(장, 梁炳煥중령)를 右一線, 제1대대(장, 李建榮소령)를 中央, 제2대대(장, 金斗逸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主抵抗線을 확보하는 한편 제7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여 제9중대 1개소대의 增援下에 A고지-B고지에 前進陣地를 占領케 하였다.

한편 敵은 A고지-B고지가 被奪됨으로써 金城-古直木里-慶波里-烏梨洞 一帶는 勿論이고, 炭甘里-龍岩里-慶波里-金城正面으로 이르는 道路와 炭甘里-烏梨洞-中花坪에 이르는 作戰道路가 모두 讞制下에 놓여지게 되고 金城 東側方으로 펼쳐진 開豁地 一帶가 完全히 制壓되기에 이르자, 12일 20.50부터 逆襲을 試圖하더니 13일과 14일에도 계속 侵攻을 恣行하였다. 그러나 제7중대(장, 姜錫岐소위)를 비롯한 제9중대의 제1소대와 決死峯을 확보한 제1중대의 제3소대가 決行한 바 있는 近接戰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擊退되고 말았다.

또한 我軍의 步戰協同作戰에 크게 威脅을 받기에 이른 敵은 金城 東南쪽에 있는 無名高地群에 對전차화기를 重點배치하고 夜暗을 利用하여 開豁地一帶에 對戰車地雷를 埋設하였다. 그리하여 13일 18.30에 開豁地附近으로 進擊하여 또 다시 敵陣을 強打中이던 美 제140전차대대의 C중대는 敵의 對전차포火力에 依하여 1臺, 地雷폭발로 말미암아 2臺가 各各 破損되기도 하여 전차支援에 어느 程度의 制限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사단장 白仁燁준장의 지도에 따라, A고지-B고지防守를 強化하는 한편, 연대 예비대를 保有키 위하여 제3대대가 A고지를, 제1대대가 B고지를 각각 담당 확보토록 하고, 제2중대(제1대대의 예비)와 제7중대(제1대대에 배속)를 연대예비로서 開野里-南屯里附近에서 待機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梁炳煥중령은 제9중대(장, 韓相勳대위)로 하여금 A고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중대장은 12일 17.00附로 중대에 배속된 제11중대 제1소대를 15일 未明에 A고지로 進出시켜 이미 A고지의 一部陣地를 확보중인 제1소대와 더불어 제7중대 主力으로부터 前進陣地를 引受토록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建榮소령은 △418-無名高地(△418 西쪽 0.5km)-決死峯(B고지 西南쪽 0.5km)에 前進陣地를 확보한 제1중대(장, 安秉鶴대위)에 B고지의 前進陣地를 제7중대

1개 소대로부터 引受도록 措置함으로써 中대장은 △418—無名高地를 확보한 제1, 제2 兩소대를 B고지로 進出시켜 陣地를 引受케 하였다.

이처럼 A고지—B고지의 前進陣地를 제9, 제1 兩중대에 引繼한 제7중대(장, 姜錫岐소위)는 15일 아침에 A고지—B고지로 부터 撤收하여 正午에는 南屯里附近으로 移動한 다음, 제2중대 및 연대 수색중대와 더불어 연대예비대로서 待機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연대는 GOPL上의 要衝인 A고지—B고지에 前進陣地를 확보하는 有利한 상황 아래,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중령)의 直接支援을 받으면서 前進陣地방어에 主限하여 警戒 태세로 들어갔다.

(나) 작전실시

6월 18일 : 이날 19.30부터 敵의 野砲와 박격포사격이 A고지—B고지—決死峯 一帶로 集注하는 가운데 敵 전차 6대가 金城 東南쪽溪谷—慶波里 西南쪽 道路邊—古直木里 西쪽 道路邊—古直木里 南쪽으로 急進하던니, 19.50부터는 전차포와 기관총의 熾烈한 支援사격아래 2개중대 규모의 敵이 古直木里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北쪽綫을 타고 A고지—B고지 正面으로 一齊히 殺到하였다.

이에 제9중대(-)와 제1중대는 즉각 砲門을 연 제27포병대대(장, 李南求중령)의 遮斷射擊下에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陣前에서 阻止키로 하였다.

그러나 敵은 附近一帶로부터의 可用한 全火力을 集中하는 가운데 急襲으로 一舉에 A고지—B고지를 奪取코자 企圖함인지 優勢를 늦추지 않고 陣地線으로 近迫하였다.

이와같은 戰況을 알게 된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즉각 對砲兵과 對戰車사격을 실시케 하는 한편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 正面의 中共 제91연대는 1개 대대 규모로써 古直木里에서 A고지—B고지를 目標로 공격중이다.

② 연대는 現 前進陣地를 固守하고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려 한다.

③ 제3대대는 제7중대를 統合指揮하여 目標A를 固守하라.

④ 제1대대는 原隊로 復歸하는 제2중대를 統合指揮하여 目標B를 固守하라.

⑤ 제2대대는 警戒陣地를 強化하고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⑥ 제7중대는 陵洞으로 進出과 同時에 제3대대에 배속한다.

⑦ 제2중대는 即時 原隊로 復歸하라.

⑧ 각 대대는 所定の 夜間標識과 暗號 및 陰語를 使用하고 相互 緊密하게 協調를 維持하라.

⑨ 연대 CP는 계속 竹垆里에 位置한다.』

1. 제3대대의 상황 :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은 敵이 主攻을 A고지로 指向하고, 一部兵力

을 △364(烏梨洞 南쪽)附近으로 侵透시켜 A고지 東南쪽 溪谷으로 사격을 集中하여 A고지의 제9중대(-)의 側背를 威脅하고 增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突破와 包圍를 企圖하자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에 前進陣地를 확보한 제9중대 主力으로 하여금 支援可能한 병력을 A고지로 즉각 增援토록 하는 한편 △364(烏梨洞 南쪽)로 全火力을 集中케 하여 敵火를 制壓케 하였으며, 배속된 제7중대가 前進陣地로 進出하는 즉시로 1개소대를 A고지로 急進토록 하였다.

가) 제9중대(장, 韓相勳대위)는 主力이 無名高地에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제1소대와 배속 중인 제11중대 제1소대가 A고지를 확보하였는데, 이날 19.30부터 野砲와 박격포의 集中사격에 뒤이은 전차포와 기관총의 支援射擊下에 1개중대규모의 敵이 A고지 東北쪽 稜線과 西北쪽 稜線으로 侵攻하는 가운데 1개소대는 A고지-B고지 鞍部로 迂迴하고 2개분대규모의 敵은 △364(烏梨洞 南쪽)附近으로 侵襲하여 기관총사격으로 중대(-)의 側背를 威脅하면서 增援을 遮斷코자 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각 砲門을 연 제27포병대대의 遮斷사격아래 正面을 遮縮하여 四周防禦態勢를 갖추고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陣前에서 阻止, 擊滅코자 하였다.

그러나 敵은 漸次로 熾烈하여지는 野砲와 전차포, 그리고 附近一帶據點으로 부터의 支援可能한 全火力을 A고지로 集注하는 가운데 侵勢를 늦추지 않고 피리와 나팔을 불어 德면서 계속 侵襲하였다.

제9중대 제1소대장 李소위는 敵이 障礙物地帶에 陷入하는 즉시로 地雷를 계속 爆破시키면서 砲兵의 彈幕사격을 要請하는 한편 全火力의 最後阻止사격을 명령하였다.

露出된 地形에서 彈幕사격과 最後阻止사격에 휩싸인 敵은 瞬息間에 阿鼻叫喚의 修羅場을 이루고, 狂氣서린 侵勢도 주춤하였으나, 無慈悲한 督戰에 견디지 못하였음인지 그 一部는 怪聲을 連發하면서 陣前으로 殺到하여 방망이 手榴彈을 던지면서 突破를 試圖하고, 또 一部는 側方으로 迂回하여 包圍코자 하였다.

이때 砲門을 연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장, Sheppard중령)의 對砲兵사격과 제96포병대대(장, 鄭鳳旭중령)의 制壓사격으로 敵陣에 붙은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敵火가 잦아들기에 이르자, 중대(-)는 李소위의 陣頭指揮下에 수류탄을 一齊히 投擲하여 敵의 銳鋒을 制壓하는 즉시로 陣地에서 躍出하여 白刃을 휘둘러 肉迫戰을 展開하니, 賊聲과 悲鳴이 바야흐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山野에 메아리쳤으며 이러한 威勢에 壓倒된 敵은 21.30에 古直木里附近으로 退却하였다.

그런데 21.30에 이르러 1개소대규모의 敵은 A고지 東北쪽 稜線으로 潛侵하여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奇襲을 試圖하였으나, 중대(-)의 기관총사격과 수류탄洗禮로 一舉에 擊退되자, 또다시 砲擊을 A고지로 集中하고 一部의 병력으로 B고지를 牽制공격하는 가운데 1개중대규모로서 A고지로 공격하였다.

중대(-)는 照明彈으로 그들의 侵略을 계속 밝히는 가운데 彈幕사격과 最後阻止사격, 그리고 계속적인 地雷爆發로 敵을 다시금 陣前에서 抑留하였으나, 後續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兩翼으로 包圍를 試圖하여 火力의 分散을 피하면서 主力으로서 正面으로 殺到하였으며 敵砲는 A고지 後斜面과 無名高地一帶(중대主力이 前進陣地로 확보中)로 火力을 延伸하여 增援을 遮斷코자 하였다.

중대(-)는 수류탄을 계속 投擲하고, 陣內로 侵襲하는 敵을 白兵戰으로 擊退하는 一進一退의 紛戰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제9중대의 2개 분대가 A고지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銳氣를 되찾고 左衝右突하여 敵을 무찔러 나갔다.

그러나 이때 白兵戰이 중대(-)全正面으로 擴大하여 我軍의 火力이 鈍化하기에 이르자 그들의 後續부대는 急速히 包圍網을 壓縮코자 하였다.

孤立된 상황 아래에서 包圍網이 壓縮되면 다만 玉碎만이 있을뿐이라고 判斷한 李소위는 중대(-)의 예비陣地로의 退却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이 增援된 2개 분대가 突進하면서 수류탄과 銃劍으로 敵을 阻止, 擊破하는 가운데 중대(-)는 逐次的으로 後退하여 南北으로 橢圓型을 이룬 A고지 頂上의 南半部 掩體線을 확보하는 즉시로 81mm박격포의 陣內사격을 要請하였다.

誘導된 박격포는 A고지 北半部로 集中함으로써 猝地에 불벼락을 맞은 敵主力은 △345(古直木里 南쪽 0.7km)로 潰退하고 2개 소대 규모만이 北半部의 陣地를 占據하여 조그마한 頂上 봉우리를 사이에 두고 彼我が 對峙, 狙擊戰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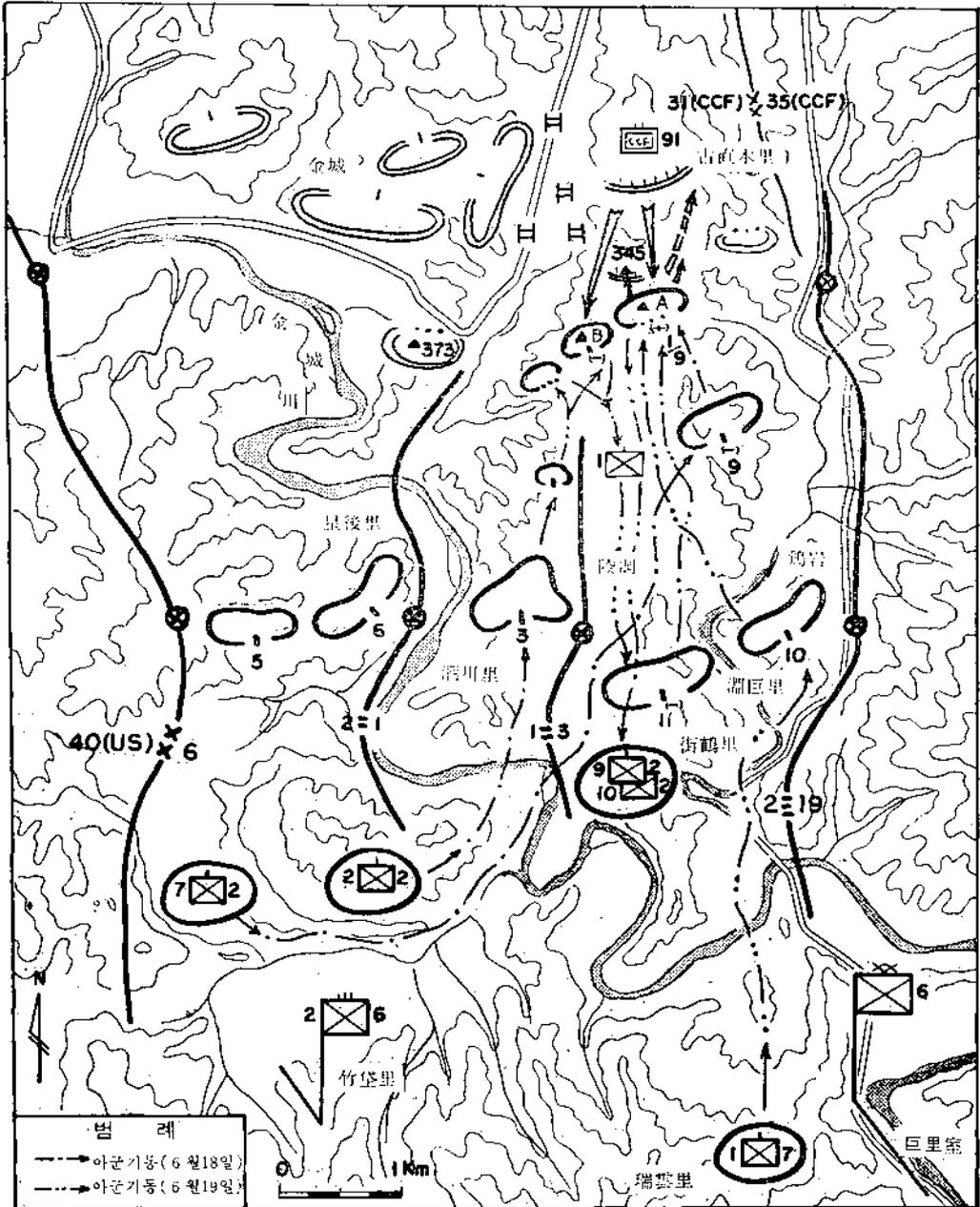
그런데 敵은 23.30에 이르러 박격포사격을 頂上南半部로 集中한 다음, 1개 소대 규모로서 봉우리를 넘어 陣內로 急襲하였으나, 중대(-)의 수류탄 投擲에 뒤 이은 白兵戰으로 이를 擊退하였다.

한편 중대主力은 1개 소대의 特攻隊를 編成하여 출동태세를 갖추고 一刻이 三秋 같은 焦燥한 마음으로 명령을 待機하였는데, 23.30에 대대에 배속된 제7중대(장, 姜錫岐소위)가 無名高地의 前進陣地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下達된 명령에 따라서 A고지를 目標로 勇躍進出하였다.

이때 중대장 韓相勳대위는 대대장에게 建議하여 自身이 直接 特攻隊를 지휘하여 A고지로 突進, 다음 날 00.50에 A고지의 중대(-)와 合勢하였는데 이때 壕속에는 戰死한 병사들의 屍體와 傷兵들의 呻吟 소리로 가득 차 중대장은 悲憤의 눈물을 삼키며 박격포의 掩護사격 아래 屍體를 收容하고 傷兵을 後送한 다음, 陣地를 再編하여 戰列을 가다듬었다.

나) 제10중대(장, 嚴翼中중위)는 제3대대 右一線으로서 鷄岩(淵巨里 北쪽 0.6km) 附近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鷄岩北端—△363(鷄岩 西北쪽 0.5km)—無名高地(陵洞 東쪽 0.5km)에 각각 1개 분대씩을 推進하여 境界陣地를 占領케 하였는데, A고지에서 敵의 攻勢로 激戰이 展開되기에 이르자, 대대장은 즉각 전투태세로 突入하는 한편 1개 분대를 제9중대에 增援토

◇ 상황도 제39호 A高地—B高地 방어전



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無名高地(陵洞 東쪽 0.5km)에 경계陣地를 占領한 1개분대를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로 急遽進出시켜 제9중대에 배속케 하는 한편 2개분대를 無名高地(陵洞 東쪽 0.5km)로 挺進케 하여 경계陣地를 補強하면서 전투태세를 完備하였다.

다) 제11중대(장, 李永求중위)는 主力이 대대 左一線으로서 無名高地(佳鶴里 東北쪽 0.5 km)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無名高地(主陣地 北쪽 0.5km)—無名高地(陵洞 南쪽)에 각각 1개 분대로 警戒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1소대는 제9중대에 배속되어 A고지를 확보하였는데, 이날 敵이 A고지로 侵勢를 強化하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투태세를 強化하였다.

라) 연대에 비인 제7중대(장, 姜錫肢소위)는 南屯里附近에 集結하여 再編中에 있었는데, 이날 20.20에 연대장의 緊急명령에 따라 集結地에서 機動하여 23.00에 陵洞附近으로 進出과 동시에 제3대대에 배속되고, 23.30에는 제9중대 主力이 前進陣地를 확보한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로 進出, 제9중대의 殘置병력을 統合 指揮하여 前進陣地를 引受 확보하는 一方 △364(烏梨洞 南쪽) 一帶로 火力을 集中하여 제9중대 特攻隊의 △A 進出을 掩護하였다.

2 제1대대 상황 : 제1대대(장, 李建榮소령)는 제3중대(장, 河泰旭대위)가 泗川里附近의 主陣地를 占領하고 제1중대(장, 安秉鶴대위)가 B고지—決死峰 一帶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2중대(장, 韓丁愛중위)는 연대에 비로서 開野里附近에 集結, 待機중에 있었다.

그런데 19.50에 이르러 2개 중대규모의 敵이 A고지—B고지로 侵襲함에 따라 緊急히 下達된 연대장 宋大厚대령의 명령으로 제2중대가 대대로 急遽 復歸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建榮소령은 제2중대로 하여금, 제3중대의 主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3중대는 △418(陵洞 西쪽)로 急遽 進出하여 B고지에 대한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 하였다.

가) 제1중대(장, 安秉鶴대위)는 主力이 B고지에 제3소대가 決死峯에 각각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는데, A고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2개 소대규모의 敵이 B고지 西北쪽 稜線과 北쪽 稜線으로 侵攻하였다.

중대 主力은 즉각 砲門을 연 제27포병대대의 掩護사격아래 火力을 集中하고 地雷를 계속 爆破시켜 敵을 5부稜線에서 一旦 阻止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은 金城 東南쪽 溪谷附近으로 進出한 2台的 전차火力과 43番道路를 連한 無名高地에서의 直射砲 支援사격아래 隊伍를 收拾하고 狂瀾처럼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중대 主力은 砲兵의 彈幕사격과 決死峯을 확보한 제3소대의 側方支援下에 最後阻止 사격을 敢行하여 敵을 陣前 30m에서 釘着시킨 다음, 一齊히 수류탄을 投擲하고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白刃을 휘둘러 突擊을 敢行함으로써 敵을 一舉에 擊退하였다.

그런데 21.30부터 A고지로 공격을 再開한 敵은 一部병력을 A고지—B고지間 鞍部로 迂回시켜 相互支援을 遮斷하는 가운데 1개 소대(+)로써 계속 牽制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중대(-)의 熾烈한 火力에 抑留되어 5부稜線에서 사격전을 계속하였다.

나) 제3중대(장, 河泰旭 대위)는 泗川里附近의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제2중대가 進出하기에 이르자 主陣地를 引繼하고 20.40에 陣地線에서 機動, 23.45에는 △418(陵洞 西쪽

0.5km)로 進出하여 一部병력으로 俗稱 치마고개에 이르는 山間道路를 遮斷하여 敵의 迂回侵襲에 對備하는 一方, B고지에 대한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추었다.

다) 제2중대(장, 韓丁燮 중위)는 연대예비로서 開野里附近에 集結待機중에 있었는데, 연대장의 緊急명령에 따라 20.00에 車輛便으로 機動하여 20.20에 泗川리로 進出하는 即時로 제3중대의 主陣地를 引受 확보하였다.

6월 19일 : 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A고지에서 계속 激戰이 展開되자 急遽支援된 사단 예비인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의 제1중대(장, 金容勳 중위)를 제3대대에 再배속하고, 뒤이어 제1대대의 예비로 轉換된 제1중대도 제3대대에 배속하여 제3대대로 하여금 主力으로 써 A고지에 대한 增援과 逆襲을 敢行케 하였다.

이리하여 A고지의 戰勢가 安定되기에 이르자 연대장은 제3대대의 主力을 佳鶴里附近으로 撤收케 하여 再編成에 着手토록 명령하였다.

1 제3대대의 상황 : 제3대대장 梁炳煥 중령은 A고지頂上에서 敵과 對峙한 제9중대(장, 韓相勳 대위)가 激戰을 거듭하여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제10중대(장, 嚴翼中 중위) 主力을 A고지로 進出시켜 제9중대와 交代케 하고, 뒤이어 배속된 제7연대 제1중대로 하여금 鷄岩附近의 제10중대 陣地를 확보케 하였다.

그런데 제10중대 또한 계속된 血戰으로 戰力이 크게 消耗하기에 이르자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서 새로이 배속된 제1중대에 陣地를 引繼한 제11중대로 하여금 A고지로 進出케 하여 作戰任務를 引受케 하였다.

이때 A고지에서 撤收한 제9, 제10 兩중대는 佳鶴里附近으로 轉進하기에 이르렀다.

가) 제9중대장 韓相勳 대위가 지휘하는 1개소대의 特攻隊가 00.50에 A고지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銳氣를 되찾은 중대는 砲兵의 遮斷사격과 81mm박격포의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掩護사격아래 頂上北半部를 占據한 敵의 侵襲을 牽制하면서 逆襲의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다.

그런데 敵은 04.20에 이르러 5분간에 걸쳐 50發의 82mm박격포彈을 頂上 南半部로 集注한 다음, 2개소대규모로써 頂上 봉우리를 뛰어 넘는 한편 左右 兩翼으로 包圍하면서 陣內로 侵襲하였다.

중대는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고 수류탄을 一齊히 投擲하여 敵의 衝鋒을 制壓하는 즉시로 陣地를 박차고 躍出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混戰亂鬪의 白兵戰을 展開하나 喊聲과 悲鳴이 안개 낀 山野에 메아리치고 붉은 피가 瞬息간에 黎明의 山頂을 붉게 물들었다.

이때 先頭에서 大號하는 중대장의 勇姿에 힘 입은 병사들은 거침없이 左衝右突함으로써 敵은 13具의 屍體를 遺棄한채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逆襲의 好機를 捕捉한 중대장은 앞서 달려 나가면서 『突擊앞으로』를 絶叫하였다.

병사들은 一齊히 봉우리를 뛰어 넘으면서 突進하여 頂上 北半部의 陣地를 一舉에 回復하였으나, 이때 敵은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고 △345(古直木里南쪽 0.7km)의 敵主力이 潰走하는 것을 收容하는 즉시로 殺到함으로써 또 다시 一進一退의 血戰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三面으로 挾攻하는 敵의 強迫으로 中대는 南半部陣地로 逐次撤收하여 對峙한 재사격전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07.50에 中대는 大대장 梁炳煥중령의 督勵에 따라 期於코 陣地를 回復키로 하고 中대장을 先頭로 一齊히 頂上 봉우리를 뛰어 넘으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敵線으로 突進하였다.

敵도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기관총의 集中사격 아래 頑強하게 抵抗하였으나, 陣地를 奪還키로 決意를 다진 中대는 雨注하는 敵火속을 뚫고 敵線에 突入하는 즉시로 悽絶한 白兵戰을 展開하니 이미 砲擊으로 增援과 退路가 遮斷된 敵은 瞬息間에 剔抉되고 말았다.

中대는 頂上北半部의 陣地를 完全히 回復하고 砲兵사격이 古直木里 一帶로 延伸되는 즉시 敵이 占據한 △345로 反擊을 再開하였다.

이때 中대장 韓相勳대위는 戰況을 보고키 위하여 無電塚로 달려 갔는데 이 瞬間에 炸裂하는 박격포 彈에 破片傷을 입고 쓰러졌다.

失神狀態에서 應急處置를 받고 깨어난 韓대위는 大대장에게 戰況을 보고한 다음, SCR-536으로 中대의 反擊을 指揮하였으나 無電兵으로부터 그의 負傷을 보고 받은 大대장 梁炳煥중령은 제1소대장 李소위에게 指揮權을 委任하고 即刻 後送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韓대위는 이를 拒否하고 계속 中대의 反擊을 指揮하였는데 甚한 出血과 大대장의 거듭된 指示에 따라 後送되었다.

한편 中대는 李소위의 陣頭指揮下에 △345(古直木里 南쪽 0.7km)로 突進하였는데, 敵의 砲擊과 기관총의 交叉사격, 그리고 △364(烏梨洞 南쪽) 附近으로부터의 側射로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한 보람없이 進展을 보지 못하고 進出線에서 다만 사격전만을 反復하였다.

그런데 12.00에 제10중대(장, 嚴翼中중위)가 A고지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中대는 大대장의 명령에 따라 該중대의 掩護下에 A고지로 轉進한 다음, 1개 소대를 殘置하여 계속 支援케 하고 13.50에 A고지에서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附近에 集結하였는데 △23.50에는 다시 佳鶴里로 撤收하였다.

나) 제10중대(장, 嚴翼中중위)는 전날에 이어 大대 右一線으로서 鷄岩附近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1개분대를 제9중대에 배속하여 A고지에 增援케 하였는데, A고지에서 當該중대가 血戰을 거듭하고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大대장 梁炳煥중령의 命令으로 즉각 A고지로 出動하여 제9중대의 作戰任務를 引受케 되었다.

이에 따라 中대는 1개소대를 主陣地에 殘置하고 08.50에 陣地線에서 출발하여 彈雨 속을 뚫고 12.00에 A고지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9중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12.20에는 該중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였다.

그런데 중대는 12.50부터 砲門을 연 제 27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과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의 砲兵制壓사격에 뒤이어 제2, 제1 兩소대를 左右 공격梯隊로 하여 제9중대 1개소대의 掩護下에 13.00에 △345로 一齊히 反擊을 開始하였다.

△345의 敵據點一帶는 火焰에 휩싸이고 硝煙에 뒤덮였으나 敵도 古直木里 北쪽 溪谷으로부터 박격포 사격과 기관총의 交叉사격아래 執拗하게 저항하고 공격의 進展에 따라 露出되는 中隊의 側背를 向하여 敵은 △364와 金城 東南쪽 無名高地에서 側射로 威脅하였다.

이에 중대장 嚴翼中위는 各 砲兵에 의한 側方火力의 制壓을 要請하고 先頭로 달려나가 陣頭指揮로 彈幕地帶를 突破하는 즉시, 수류탄을 一齊히 敵線에 投擲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2개소대규모의 敵은 계속 방망이 手榴彈을 집어 던지면서 頑強하게 저항함으로써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後續하는 제9중대의 1개소대의 掩護下에 A고지로 一旦 後退하였다.

그런데 16.00에 이르러, 대대장 梁炳煥중령은 『중대는 果敢한 突擊으로 敵을 期必코 擊退하라』고 嚴命하면서 砲兵에 TOT射擊을 要請하였다.

이윽고 天地가 震動하는 轟音과 함께 △345에 砲兵의 効力射가 集中함으로써 산이 당장에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다.

이때 敵도 野砲와 박격포를 一齊히 A고지로 集中함으로써 彼我間에는 熾烈한 砲擊戰이 展開되었는데 美 제300자주포병대대의 對砲兵사격으로 敵火는 漸次로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중대는 一齊히 陣地線에서 躍出하여 敵火를 뚫고 突進, 敵線에 近迫하면서 수류탄 洗禮를 퍼부은 다음 一角을 突破하는데 成功하자 怒濤처럼 밀어닥쳐 混戰亂鬪 끝에 敵을 擊滅하고 △345의 據點을 破壞하였다.

중대는 餘勢를 몰아 潰走하는 敵을 계속 迫擊하였으나 金城 東南쪽 無名高地-364(烏梨洞 南쪽) 一帶로부터의 側射와 박격포의 集中사격으로 16.50에는 進出線에 遮蔽하고 射擊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때 示達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A고지로 轉進하였다.

그런데 18.30에 제11중대(장, 李永求중위)가 A고지로 進出함에 따라 A고지 一帶의 前進陣地를 引繼하고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를 거쳐 23.35에는 佳鶴里附近으로 移動하여 제9중대와 더불어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한편 主陣地에 殘置한 1개소대는 09.50에 鷄岩附近으로 進出한 제7연대 제1중대(장, 金容勳중위)에 主陣地를 引繼하고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로 進出, 待機하였는데 主力이 反轉함에 따라 合勢하여 佳鶴里로 移動하였다.

다) 제11중대(장, 李永求중위) 主力은 전날에 이어 대대 左一線으로서 佳鶴里 東北쪽

의 無名高地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1소대는 제9중대에 배속중에 있었는데 이날 대대에 배속된 제1중대(장, 安秉鶴대위)가 15.05에 主陣地로 進出함에 따라 作戰任務를 引繼하고 즉각 機動하여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附近에서 再編중인 제1소대와 合勢한 다음 18.30에 A고지로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砲兵의 掩護사격아래 제10중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敵의 散發的인 공격을 阻止, 擊退하였다.

라) 제7중대(장, 姜錫岐소위)는 전날에 제3대대에 배속과 동시에 제9중대로부터 無名高地(陵洞 東北쪽 0.7km)의 前進陣地를 引受하고 제9중대의 殘留병력을 統合指揮하여 敵의 迂回, 侵襲에 對備하는 한편 △364의 敵火를 牽制하여 제9, 제10, 제11중대의 進出과 撤收를 掩護하였다.

마) 제7연대 제1중대(장, 金容勳중위)는 竹洞附近에 集結하여 사단 敎育總書 제11호에 의거한 敎育訓練에 들어갔는데, A고지—B고지 一帶에서 激戰이 展開되기에 이르자 이날 사단장 白仁燁준장의 指示에 따른 연대장 梁仲鎬대령의 명령으로 제2연대에 增援되었다 이에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은 10.00附로 제3대대에 再배속 함으로써 중대는 09.50에 鷄岩附近으로 進出하여 제10중대(장, 嚴翼中중위)의 陣地를 引受 확보하였다.

2. 제1대대의 상황: 제1대대(장, 李建榮소령)는 제3중대(장, 河泰旭대위)가 전날 밤에 △418로 進出하여 B고지에 대한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추고 集結 待機하였는데, 이날 未明에 B고지로 進出하여 제1중대의 作戰任務를 引受하였다.

한편 제1중대는 陵洞附近으로 撤收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는데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제3대대에 배속과 동시에 제11중대의 主陣地를 引受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가) 제1중대(장, 安秉鶴대위)는 主力이 B고지를, 제3소대가 決死峰을 각각 확보하여 B고지 西北쪽과 北쪽稜線으로 侵襲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의 牽制공격을 5部稜線에서 阻止하고 사격전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敵은 02.00에 金城 東南쪽 無名高地群一帶로부터 기관총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1개소대규모의 새로운 敵을 增援하여 侵攻을 再開하였으나, 중대장 安秉鶴대위의 陣頭指揮下에 敵을 陣前으로 誘引한 다음 集中사격을 퍼부우면서 수류탄을 一齊히 投擲하고 肉迫戰을 展開하여 一舉에 擊退하였다.

이리하여 중대 正面에서는 小康狀態가 계속되었는데 03.45에 제3중대(장, 河泰旭대위)가 B고지로 進出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B고지—決死峰을 連한 前進陣地를 引繼하고 04.10에 撤收를 開始하여 05.30에는 陵洞附近에 集結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3대대에 배속됨으로써 陵洞에서 佳鶴里附近으로 轉進하여 제11중대의 主陣地를 引受하고 17.30에 배치완료하였다.

나) 제3중대(장, 河泰旭대위)는 전날 泗川里附近의 主陣地를 제2중대에 引繼한 다음

23.45에 △418로 進出하여 B고지에 대한 增援과 逆襲태세를 갖추고 待機하였는데, 이날 02.00에 대대장 李建榮소령은 『중대는 B고지로 進出하여 제1중대로 부터 陣地를 引受하되 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03.45에 B고지로 進出하여 前進陣地를 引受 확보하였는데 04.20에 이르러 敵主力이 A고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1개소대 규모의 敵은 北쪽 稜線을 타고 또 다시 牽制 공격을 恣行하였으나 60mm박격포사격을 集中하는 가운데 最後阻止사격을 敢行하여 7部稜線에서 侵襲을 阻止하고 사격전을 계속하였는데 05.30에 敵은 더 支撐하지 못하고 潰走하고 말았다.

다) 제2중대(장, 韓丁燮중위)는 전날에 泗川里附近의 제3중대의 主陣地를 引受하고 경제 陣地를 強化하여 敵의 迂回侵襲과 對전차 방어에 注力하였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의 공격으로 金城防守를 위한 最後의 要衝인 A고지-B고지를 奪取하고 金城附近-古直木里-烏梨洞-慶波里 一帶를 殲滅하게 되자, 敵은 계속적인 逆襲을 試圖하다가 6월 18일에는 中共 제32보병사단主力의 砲兵支援과 전차 6대의 直接支援下에 1개대대규모로서 거센 反擊을 恣行 하였으나, 제2연대 제3, 제1 兩대대의 果敢한 奮戰으로 擊退되었다.

그러나 敵은 A고지-B고지再奪取의 執念을 버리지 못하고, 6월 21일과 7월 7일 그리고 9월 29일과 10월 9일의 네차례에 걸쳐 계속 侵攻하였는데, 특히 9월 29일에는 中共 제12군의 예비로서 再編中에 있다가 8월下旬에 我 제2연대 正面으로 投入된 제34사단 제100연대의 1개대대가 전차 9대의 集中支援下에 제3대대(장, 梁炳煥중령)가 확보중인 A고지로 急襲함으로써 A고지의 主人이 두차례나 뒤바뀌는 激戰이 展開되었으나 增援된 제5중대(장, 皮顯樹소위)의 逆襲으로 決定的인 打撃을 받고 潰退하였다

10월 6일에는 수도사단(장, 李龍文준장) 正面의 首都高地와 指形稜線 그리고 제9사단(장, 金鍾五소장) 正面의 白馬高地等 戰線上的 要衝을 主目標로 하는 敵의 所謂 秋季攻勢의 一環으로서 熾烈한 砲擊과 전차의 支援下에 또다시 A고지-B고지로 공격을 恣行하였으나 새로이 陣地를 담당한 제19연대 제1대대(장, 洪在鏞소령)의 奮戰으로 이 마지막 惡發마저도 虛擧가 되고 말았다.

한편 사단은 作命 제9호(6.20.14.00)로 사단에비인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를 6.22.24.00附로 사단 右一線으로 起用하고 제19연대(장, 許亨淳대령)를 사단에비로 轉換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作命 제10호로써 제19연대로 하여금 제2연대(장, 金吉洙대령)의 陣地를 引受케 하고 제2연대는 사단에비로 控置하였다.

10월 21일에 제2군단 作指 제44호(10.21)에 의거하여 軍단에비인 제52연대(장, 金安一대령)가 사단에 배속되어 蘆洞으로 進出하고, 同월 23일에는 左隣接인 美 제9군단(Reuben E. Jenkins소장)과의 戰鬪地境線이 南川橋-烽火山-月峰山을 連한 線으로부터 修理峰-直目洞-上彦里를 連한 線으로 變更됨에 따라 사단에비인 제2연대는 作戰任務를 제52연대에 引繼하고 美 제9군단 隸下 제2사단(장, 丁一權중장)에 배속중인 제37연대(장, 柳陽洙대령)의 河古介-△552를 連한 主陣地를 引受함으로써 사단은 제7연대를 右一線, 제19연대를 中央一線, 제2연대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52연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轆岩山-鷄岩-泗川里-烽火洞-河古介-△552에 이르는 12km에 걸친 主抵抗線을 담당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軍단作指 제57호(12.5)에 의거하여 美 제9군단과의 戰鬪地境線이 '2km 縮少調整됨에 따

라 제2연대 제2대대가 확보한 △552附近的 主陣地를 수도사단 제26연대(장, 鄭 潑대령)에 同월7일에 引繼하고 12일에는 軍단作指 제63호(12.11.12.00)에 의거하여 사단에 배속중인 제52연대가 軍단에 비로 復歸하였으며, 同월 14일에는 軍단作指 제64호(12.11)에 따라서 右隣接인 제8사단(장, 金益烈준장)과의 戰鬥地境線이 1km縮少調整케 되어 右一線인 제7연대(장, 韓寬興대령)는 △649-△549附近的 前進陣地를 제8사단에 引繼하였다.

또한 同월 20일에는 사단作命 제15호(12.12)에 따라서 中央一線인 제19연대가 左一線인 제2연대의 河古介附近陣地를 引受함으로써 제2연대(장, 金吉洙대령)는 사단에 비로 轉換됨과 동시에 1개대대를 上南里로 進出시켜 제7연대正面에 대한 逆襲과 阻止任務를 담당케 하였다.

期間中에 사단에서는 指揮官級의 人事異動이 頻繁하였으니 6월 12일에 부사단장 崔昌彦대령이 떠나고 金點坤대령이 赴任하였다가 제9사단장으로 轉出하게 되어 11월 15일에는 劉興洙대령이 赴任하였다. 제19연대장 宋虎林대령은 6월 20일에 許亨淳대령과 交替되고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은 8월 1일에 金吉洙대령에게 指揮權을 引繼하였으며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의 後任으로 韓寬興대령이 8월 10일에 赴任하였다.

A고지-B고지의 攻防戰을 通하여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區 分		戰 果							損 失	
기 간	전투부대	射殺	捕虜	推定殺傷	鹵 獲				戰 死	負 傷
					小銃	機關銃	迫擊砲	手榴彈		
6. 12	제2연대	98	8		63	2	2	2,000	31	73
6. 18-6. 19	同上	59		139					16	86
	計	157	8	139	63	2	2	2,000	47	159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제2연대 제9중대장 韓相勳대위 (1975년 4월 2일, 戰編委에서, 예, 소령)

제2연대가 사단계획에 따라서 A고지-B고지를 공격할 때 나는 제9중대장으로써 陵洞 東北쪽에 있는 無名高地에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있었는데 연대 作命에 依據하여 2個분대를 主攻梯隊인 제2중대의 側方掩護次 差出하였다.

그런데 A고지로 突進한 제2중대主力이 敵火에 휩싸이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기에 이르자 無名高地(제9중대의 前進陣地)에 OP를 設定하고 直接 作戰指揮에 臨하던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側方掩護中인 2개분대를 特攻隊로써 A고지 東側方으로부터 攻擊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경계陣地를 占領한 2개분대에 제7중대에 배속중이던 火焰放射器가 推進되는

即時로 A고지 東北쪽稜線으로 進襲하여 側方으로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2개분대는 敵의 脆弱點을 看破한 나의 無電指揮에 따라서 敵火가 集中되는 稜線을 避하여 溪谷을 따라 突進하였는데 多幸히도 別損失 없이 東北쪽稜線으로 進襲한 다음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敵의 交通線에 突入하는데 成功하였다.

2개분대는 李소위의 果敢한 指揮下에 사격을 集中하고 手榴彈을 一齊히 投擲하여 抵抗을 試圖하는 敵을 制壓하는 即時로 火焰放射器를 發射, 突擊路를 뚫으면서 敵의 火力據點으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제2중대의 공격을 執拗하게 阻止하던 敵의 기관총을 沈默시키고 제2중대에 한발 앞서 頂上을 奪取하였다.

이때 雙眼鏡으로 特攻隊의 勇戰狀況을 始終 지켜보던 연대장 宋大厚대령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밤, 연대장의 명령으로 1개소대를 A고지로 증援하여 제2중대로부터 陣地를 引受한 제7중대와 더불어 A고지를 확보케 하였는데 夜暗에 恣行된 敵의 逆襲을 擊退한 바 있었다.

그런데 6월 18일 19.30頃に 敵은 野砲를 A고지—B고지로 集注하고 6대의 戰車支援下에 1개 대대가 A고지로 主攻을 指向한 채 공격하였다.

이때 A고지에는 제1소대와 중대에 배속중인 제11중대의 1개소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砲兵의 有効適切한 支援과 果敢한 近接戰으로 奮戰하였으나 敵의 波狀공격으로 戰況이 時時 刻刻으로 惡化하여 갔다.

이에 대대장 梁炳煥중령은 대대에 배속된 제7중대가 無名高地의 前進陣地로 進出하는 即時로 나에게 1개소대를 指揮하여 急遽出動해서 敵을 驅逐하고 A고지의 陣地를 完全히 回復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18일 23.30에 출발하여 다음 날 00.50頃に A고지로 進出하였더니 중대는 頂上南半部の 陣地단을 확보한채 조그마한 頂上 봉우리를 사이에 두고 手榴彈戰과 狙擊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據속에는 兵士들의 屍體와 傷兵들의 呻吟소리로 가득차 激戰의 樣相을 짐작케 하였고 悲憤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나는 迫擊砲의 掩護射擊下에 屍體를 安置하고 傷兵을 後送한 다음 再編成을 서둘렀는데 黎明에 恣行된 敵의 侵襲을 擊退하는 즉시로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敵火가 集中하고 一帶의 敵이 즉각 反擊함으로써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頂上南

半部陣地로 反轉하여 조그마한 봉우리를 사이에 둔채 手榴彈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07.00頃に 이르러 대대장 梁炳煥중령은 期必로 北半部の 陣地를 回復할 것을 嚴命하였다.

이에 중대는 迫擊砲의 支援射擊下에 공격준비를 完了하고 나의 指揮下에 一齊히 봉우리를 뚫어 넘으면서 敵線으로 突進하여 手榴彈을 퍼붓고 肉迫戰을 벌여 一擧에 敵을 驅逐하고 北半部 陣地를 回復하였다.

이때 81mm迫擊砲射擊이 △345로 延伸되어 敵의 增援을 遮斷하였는데 △345를 占據한 敵은 反擊을 敢히 恣行치는 못하였으나 熾烈한 射擊을 集中하였다.

나는 중대에 △345의 敵을 擊破할 것을 명령하고 戰況을 報告키 위하여 無電線附近으로 달려갔는데 이때 敵의 迫擊砲彈이 附近에서 炸裂하여 破片傷을 입고 쓰러져 約10分間 失神狀態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나는 戰況만을 報告하고 SCR—536으로 중대의 공격을 계속 指揮하였는데 無電兵으로부터 나의 負傷을 報告받은 대대장은 即刻後送할 것을 命命하였으나 나는 後任者가 到着할 때까지 後送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出血이 甚하고 대대장의 거듭된 명령으로 나는 눈물을 먹음고 後送되었다.

나중에 안 事實이지만 중대는 △345에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이다가 제10중대와 交代하게 되었다.

5. 白馬高地(△395)戰鬪 (1952년 10월 6일 부터 1952년 10월 15일 까지)

참 조 : 별책부도 제15, 16, 17호
상 황 도 제40 ~ 51호

- 제 1 차 攻防戰(10. 6. 19. 15~ 6. 20. 15)
- 제 2 차 攻防戰(10. 6. 20. 40~ 6. 24. 00)
- 제 3 차 攻防戰(10. 7. 00. 40~ 7. 05. 10)
- 제 4 차 攻防戰(10. 7. 19. 00~ 8. 02. 40)
- 제 5 차 攻防戰(10. 8. 06. 50~ 8. 23. 05)
- 제 6 차 攻防戰(10. 9. 00. 20~10. 00. 30)
- 제 7 차 攻防戰(10. 10. 04. 30~10. 06. 40)
- 제 8 차 攻防戰(10. 10. 15. 20~11. 12. 04)
- 제 9 차 攻防戰(10. 11. 16. 20~12. 13. 20)
- 제 10차 攻防戰(10. 11. 16. 20~12. 13. 20)
- 제 11차 攻防戰(10. 12. 14. 40~12. 16. 50)
- 제 12차 攻防戰(10. 12. 19. 50~15. 11. 00)
(完全擊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9 군단	장		제 29 연대	장	대령 金 鳳 喆
	소장	Reuben E. Jenkins	제 1 대대	장	소령 李 大 哲
제 9 사단	장	소장 金 鐘 五	제 2 대대	장	소령 金 慶 珍
제 28 연대	장	대령 李 周 一			대위 朴 應 格
제 1 대대	장	대위 金 三 會			(10. 13부터)
제 2 대대	장	소령 尹 永 模	제 3 대대	장	중령 朴 燦 剛
제 3 대대	장	중령 崔 昌 龍	제 30 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1대대	장 소령 金 永 先
제2대대	장 소령 金 祥 玉
제3대대	장 소령 趙 南 國
제30포병대대	장 대위 權 五 明
제9重박격포중대장	대위 文 逸 秀
배속부대	
제5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제1대대	장 소령 李 基 完
제2대대	장 소령 朴 哲 遠
제3대대	장 소령 金 白 泳
제53전차중대	장 대위 趙 七 星
지원부대	
제1포병단	장 중령 朴 乘 柱
제50포병대대	
	(10.7 附 제8사단에서)
제51포병대대	장 소령 孫 善 陽

제52포병대대	장 소령 河 永 燮
美제49포병대대	
美제213포병대대	
美제955포병대대	
美제73전차대대	C 중대
美제5공군	
右인접부대	
美제2사단	장 소장 Wayne C. Smith
左인접부대	
美제2사단	장 소장 James C. Fly
장비 : 155mm 野砲	36문
105mm 野砲	50문
4.2" 重迫撃砲	7문
戰車	22대

敵 軍

中共 제38군	장 江 擁 輝
제112사단	장 楊 大 易
제334, 제335, 제336연대	基幹
제113사단	장 唐 靑 山
제114사단	장 翟 仲 儒
제340, 제341, 제342연대	基幹

추정병력 : 제334연대	2,345명 (10. 8投入)
제335연대	2,345명 (10. 11投入)
제336연대	2,345명 (10. 14投入)
제340연대	2,345명 (10. 6 및 10投入)
제341연대	2,345명 (10. 15投入)
제342연대	2,331명 (10. 9投入)

나. 전투 전의 개황

白馬高地——血戰死鬪의 硝煙이 경된 다음, 悽絶하게 變貌한 山容이 恰似 白馬의 臥像과 비슷하다 고 하여 白馬高地로 膾炙하게된 中西部戰線 △395 攻防戰은 그 投入兵力과 火力 및 戰鬪의 苛烈相에 있어서 보기드문 戰例를 남기었다. 本 戰鬪는 主役인 제9사단이 中共 제38군主力 2개 사단과 正面으로 對決하여 끝내는 高地固守의 責任을 完遂함으로써 韓國軍의 防守能力을 높이 評價 받은 一戰이요, 步·戰·砲·空의 協同이 緊密하게 이루어진, 高地攻防의 範例가 되는 決戰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本 戰鬪는 △395가 占하는 作戰上의 重要性和 休戰會談에 관련된 政治性으로 말미암아 宿命的으로 彼我間의 激突을 孕胎하고 있었다.

즉, 「鐵의 三角地」로 불리우는 要域의 一角에 있는 △395는 彼我間 서로 確保固守하지 않을 수 없

는 要衝이었다.

平康을 頂點으로 하고, 金化 및 鐵原을 底邊으로 하는 「鐵의 三角地」는 韓半島의 中央高原地帶로서 交通의 要關을 이루고 있으므로, 制空과 制海의 兩權을 UN軍에 의해 완전히 상실당한 共産侵略軍으로서 地上全戰線에서 東西의 均衡있는 連繫를 이룩하고 前後方의 兵站의 中心을 마련하는 동시에 通信網의 樞軸部位로 삼으려는 것은 能히 해야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美제8군사령관 James A. Van Fleet 대장은 『敵이 全戰線의 生命線으로 死守하려는 이 Iron Triangle(鐵의 三角地)을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喝破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러한 呼稱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美제8군은 平康까지의 攻路를 願하였던 것이지만 休戰의 妥結을 摸索하던 板門店會談으로 인한 政治的 制約을 받아 1951년의 對陣初期에 金化—鐵原線까지 攻路했으면서도 平康攻路이 보류된 채 本 戰鬪가 勃發하는 1952년의 對陣中期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美제8군은 이 金化—鐵原線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次期作戰의 利를 얻게 되었음에 反하여 敵으로서 三角地帶의 底邊을 잃음으로써 作戰上 커다란 害를 입는 結果가 되었으므로 1개 軍을 投入하여 鐵原攻路를 策하게 되었으니, 그 主攻의 標的이 바로 白馬高地 곧 △395(鐵原 西北 側)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作戰上의 理由가 있었다.

즉, 白馬高地는 「鐵의 三角地」의 左邊外郭에 位置하므로 該高地를 占領確保하면 다음과 같은 利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㉔ 鐵原平野를 嚙制함으로써 鐵原 및 金化를 制壓하게 된다.
- ㉕ 美제9군단의 主抵抗線을 高台山線까지 後退치 않을 수 없게 強要하게 된다.
- ㉖ 南으로 高台山과 寶蓋山嶺의 西面을 沿하여 서울로 通하는 UN軍의 主補給路를 癱痺시키게 된다.
- ㉗ 休戰會談의 桌上交渉에 有利한 次期作戰의 發판을 促하게 된다.

제9사단(장, 金鐘五소장)은 이 戰鬪가 있기 1年前인 1951年 10月 17일에 白馬高地를 비롯한, 1952年 10월 현재의 主抵抗線을 美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으로부터 인수하였다.

그 當時 사단(장, 당시 朴炳權준장)은 이에 앞선 6월 下旬에 寶蓋山—高台山 戰鬪에서 快勝을 거두고, 8월 2일附로 美제25사단에 戰線을 인계한 다음에 陸本直轄이 되어 倉洞에서 FTC를 거치고 있었는데, 10월 5일附의 美제8군 作命으로 美제1군단(장, J.W. O'Daniel)에 배속되면서 美제3사단의 防禦正面을 인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사단은 1952年 4월 5일까지 美제1군단의 右翼이 되어 Missouri線의 一翼인 鐵原北方의 主抵抗線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앙一線에 △395(白馬高地)가 솟아있다.

當時, 사단正面의 敵은 中共 제42군(장, 吳瑞林) 이하 제126사단(장, 王採生)인데, 1951年 11월 3일에 △395 및 △281(사단 左一線)를 攻擊하여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와 제29연대(장, 朴應奎대령)의 勇戰善防앞에 一敗塗地하였음에도 不拘하고, 11월 16일에는 또다시 △395에 대한 再攻擊을 試圖하다가 제28연대의 鐵槌앞에 再次潰退한 다음부터는 對陣交綫下에서 主抵抗線 強化에 專念하는 듯이 보였다.

敵軍의 狀況: 이리하여, 中共 제42군은 1952年 6월 상순에 이르기까지 軍 CP를 城洞(伊川 東쪽 8 km)에 설치하고, 右一線(曉星山—△478—△469)에 제125사단을, 左一線(△441—△393—平康)에 제124사단을 각각 배치하고, 그 前方의 △431—上眞明洞—△330線에 前哨線을 設定하였는데, 軍예비인 제126사단을 徒歩로 5시간이면 前線投入이 가능한 南山台부근에 控置하고 있었다.

그런데 5월 중순이 되자, 中共 제13兵團은 제42군의 左翼 戰鬪地境線을 5km 短縮하여 蓬萊湖로부터 驛谷川에 沿하는 線으로 變更함과 동시에 이 戰區를 제39군에 인계토록 하였음이 是認되었다.

이로써 中共 제38군은 5월 16일에 제42군과 교체함과 동시에 曉星山(△619)을 중심으로 하는 主抵抗線 右翼을 제114사단에, 高岩山(△780)을 據點으로 하는 主抵抗線 左翼을 제113사단에 각각 부여하

고 제112사단을 군예비로 하여 南山谷에 控置하였는데, 本戰鬪의 主戰部隊인 제114 및 제112 兩사단의 배치상황(1952년 6월末 현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114사단은 曉星山을 중심으로 하는 右一線에 제341연대를, △500를 主峰으로 하는 左一線에 제340연대를 배치하고, 제342연대를 曉星山 後面에 사단예비로 控置하였으며, 군예비인 제112사단은 3개 연대를 共히 南山谷 일대에 集結하고 있었다.

그런데, 中共 제38군은 1945년 12월 中國 吉林省에서 創設된 部隊로서, 1950년 10월 14일~24일 사이에 滿浦嶺으로 越境 侵入하여,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를 攻擊하고, 江界—熙川—德川—漣川—議政府를 거쳐, 12월에는 서울 攻略의 最先鋒이 되기도 하였다. 그後, 水原—楊平線까지 南下하였으나, UN군의 總反擊에 물리자 新幕으로 潰退北走한 다음, 部隊를 再整備強化하면서 新安州—鎮南浦間의 海岸警備에 任하고 있었는데, 1952년 5월 16일에 다시 中西部戰線으로 投入되어 제9사단 正面의 제42군 戰區를 인수한 精銳部隊였다.

즉, 捕虜陳述에 따르면 補給이 良好하고 士氣도 旺盛하며 非共產黨員을 除外한 純黨員인 戰鬪員으로 編成하였다고 하니, 白馬高地를 목표로 하는 그들의 結束態勢를 可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裝備의 全貌는 未詳이나, 제340연대 제3대대의 例를 들면, 無反動砲 2문, 82mm迫擊砲 2문, 60mm迫擊砲 6문, 로켓砲 6문, 重機 6挺, 輕機 18挺, 多發銃 208정이며, 연대의 경우는 76mm砲 4문, 37mm 高射砲 1문, 120mm 迫擊砲 4문, 82mm迫擊砲 15문, 61mm 迫擊砲 18문, 57mm 無反動銃 4문, 12.7mm 對空砲 9문으로 推定되었는데, 曉星山後面과 △500 後面 一帶를 비롯한 14개 地區에서 野砲陣地 22개와 對空砲陣地 19개가 航空寫眞으로 확인되었다.

兵力은 主戰 6개 연대 도합 14,000餘名이며 군 예비로 따로 30,000명이 控置되어 있는 것으로 推算되었다.

主補給路는 羅梅里—百石里—外鶴里 間의 幹線과 百石里—龍鶴里—△500 後面—△396西側 間의 幹線이며 두 幹線 모두 輸送이 容易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그리고 踏駝高地(△488)—曉星山(△619)—△500로 이어지는 主抵抗線의 地勢는 攻擊目標인 白馬高地를 瞰制하는 利를 안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 1951년 10월 17일, 美제8군의 作命(10. 5附)으로 美제1군단에 배속됨과 동시에 美제3사단의 防禦正面을 인수한 사단은 두 차례에 걸친 中共 제126사단의 △395 攻擊을 물리치고, 現主抵抗線을 動搖없이 防守하였는데, 1952년 4월 5일 12.00附로 美제9군단—美제1군단間의 戰鬪地境線이 變更됨에 따라 美제9군단에 배속변경되면서 軍단의 左翼이 되었다.

그런데 이 戰鬪地境線의 變更는 時期的으로 中共 제42군 左翼戰鬪地境線의 變更보다 1개월 앞선 措置였는데, △395(白馬高地)를 圍繞한 戰雲이 漸次 짙어가려는 무렵인 만큼 彼我間에 不敗必取를 다짐하는 作戰上의 布石으로 看做되었다.

즉 美제8군은 蓬萊湖를 境界로 하여 從前에 附屬했던 美제1군단의 右翼戰鬪地境線을 △395(白馬高地)西側面까지 移行시켜 金化—鐵原까지의 防守任務를 美제9군단에 附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은 軍단 左翼의 △395를 비롯한 鐵原北正面을 맡게되어 사단 CP를 二長문에 설치하고 主抵抗線의 右一線에 제30연대(장, 金鳳喆대령)를, 左一線에 제28연대(장, 李周一대령)를 각각 배치하고, 제30연대(장, 林益淳대령)를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매마침 稀有의 장마철로 因하여 倒壞되는 一部陣地 및 主補給路의 橋梁 및 路盤을 補修하면서 主抵抗線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그後, △395의 防守配陣을 調整하기 위하여 사단 作指 제59호(9.22.08.00附)로 左一線 연대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제28연대는 방어정면은 제30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鐵原郡 東松面 藥泉洞으로 이동하였으며, 지난 4월이후의 예비기간중에 部隊戰力을 再整備強化한 제30연대는 藥泉洞에서 東鐵原으로 이동하여 △395 防守任務를 引受하였다.

이 무렵, 美제8군은 全戰線에 걸친 敵의 動向을 分析한 결과 板門店會談에 관련된 政治的 弄好에 따라 必是 大攻勢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推斷하여 Kansas線 및 Wyoming線의 補修強化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사단은 예비兵力の 일부와 工兵力 및 勞務中隊를 動員하여 사단戰區間的 陣地工事를 推進하는 한편, 敵의 侵襲을 豫期한 사단自體의 逆襲計劃을 세워, 여러 차례의 豫行演習을 거듭하면서 萬端의 態勢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鐵原 및 △395를 攻擊目標로 하는 敵의 接近路는 다음과 같이 豫想되었다.

즉, △469—△395—下眞明洞을 거쳐 高地 東北側背에 이르는 縱隔室, 曉星山—△596—上眞明洞 西쪽 緩線을 거쳐 高地 北側背에 이르는 縱隔室, 倉洞里—△227—長松洞을 거쳐 高地 西北側背에 이르는 縱隔室을 軸線으로 擇할 것이 豫상되었다.

이에 사단은 이 主接近路에 대비하여 陣前接近路上의 最後阻止火網 및 彈幕地帶를 高地 東北側背—西北側背間에 構成하고, 그 前面 一帶의 豫想集結地 및 砲陣地에 대한 火力集中點을 設定하였는데 사단 支援砲兵은 10월 1일현재,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있었다.

제30포병대대(장, 權五明대위)는 CP를 소이山(△362) 南쪽에 두고, 3개 포대를 소이山(△362) 南麓에 배치.

제51포병대대(장, 孫善陽소령)는 CP를 관포부근에 두고 A중대를 CP부근에, B 및 C 2개 중대를 北쪽에 배치.

제52포병대대(장, 河永燮소령)는 CP를 용당에 두고 A중대를 상로동에, B중대를 △266 南쪽에, C중대를 奉岩洞 부근에 각각 배치.

제9중박격포중대(장, 文逸秀대위)는 CP를 △266 부근에 두고, 1개 소대를 강산리 부근에, 2개 소대를 CP부근에 각각 배치.

美제213포병대대는 CP를 讀營堂下里에 두고, A중대를 火田里 南쪽에, B중대를 외산리에, C중대를 鶴貯水池 北쪽에 각각 배치.

美제955포병대대는 CP를 관우리에 두고, A중대를 석사동부근에, B중대 및 C중대를 △279(鶴貯水池北쪽)의 西쪽부근과 속직 도피암 부근에 배치.

이와같이 5개 대대의 野砲(105mm, 155mm) 및 1개 重박격포중대(4.2")의 火力支援를 根據로 하여 右一線 제29연대는 CP를 到彼洞 부근에 두고 主抵抗線 右一線에 제1대대(장, 李大哲소령)를, 左一線에 제2대대(장, 金慶珍소령)를 각각 내세우고,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를 예비로 강청리에 집결시키고 있었다. 또 軍단作命 제253호(8.5附)로 사단에 배속된 제51연대(장, 全富一대령)의 제1대대(장, 李基完소령)를 배속받아 左一線을 인수케 하고 제2대대를 △300 부근에 控置함으로써 2개 대대를 예비로 保有케 되었다.

사단 左一線의 △395 防守를 擔當한 제30연대는 主抵抗線의 右一線인 俗稱 호름내—高地東南端間을 제2대대(장, 金祥玉소령)에, 左一線인 △395를 제1대대(장, 金永先소령)에 각각 附屬하고, 제3대대(장, 趙南國소령)를 主陣地 後方인 △265에 예비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한편 사단예비가 된 제28연대(장, 李周一대령)는 CP를 藥泉洞에 설치하고, 연대主力을 그 부근에 집결시켜, 8월 15일附로 배속받은 사단수색중대(장, 姜章窟대위)와 더불어, 敵五列索出과 後方警戒에 임하면서, 一部兵力を Kansas線 및 Wyoming線補修作業에 投入하고 있었다.

사단 右안점인 美제7사단(장, Wayne C. Smith 소장) 및 左안점인 美제2사단(장, James C. Fly 소장)은 Missouri線을 계속 유지하면서, 輕微한 接觸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豫상되는 敵의 大攻勢에 대비하였다.

氣象은 장마도 걷히고, 仲秋佳節이 무르익어 가는 快晴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므로 觀測이 容易하고 陣地工事에도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中共 제38군이 5월 16일에 제42군의 戰區를 인수함에 따라 새로운 攻勢를 취하게 되리라고 예측되었으나, 6월 이후 3개월에 걸친 사단정면의 交綏狀態가 여전히 계속되는 對陣 속에서 小規模의 搜索戰만이 局部的으로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지난 夏季期間 동안에 洪水를 이룬 장마로 因하여 作戰上的 支障이 적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休戰協商에 관련되는 政治的 理由로 해서 彼我間 軍事的인 制限要素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調印當日의 現戰線으로 軍事分界線의 基準을 삼기로 合意된 이상, 보다 有利한 高地를 爭取하기 위한 攻勢가 臨迫하고 있음이 豫測되고 있었다.

本 戰鬪는 이러한 狀況下에서 10월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當時의 全戰線을 一瞥컨대 敵은 「鐵의 三角地」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全戰線에 걸친 秋季攻勢의 一環으로 제38군 主力을 △395(白馬高地)에 投入한 것이 분명하였다.

즉, 10월 6일을 期하여 △395(白馬高地)를 비롯한 首都高地—指形稜線 —A, B高地—Nickie 高地등 韓國軍의 방어 正面만을 擇하여 總攻勢를 加함으로써 軍事分界線 確定에 앞선 優位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3일 앞선 10월 3일, 제30연대의 右—線인 제6중대 前方(△395의 東側方)에 投降한 中共軍官 극중교(제340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소속의 政治指導員)의 陳述로 中共제38군의 白馬高地에 대한 攻擊企圖를 事前에 파악할 수 있었다.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指揮官會議를 긴급 소집하고 投降者의 諜報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情報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投降軍官의 陳述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攻擊開始: 10월 4일 24.00~6일 01.00 사이에 別途로 擇하는 時刻.

② 主攻部隊: 제114사단 제340연대.

③ 增援部隊: 제112사단의 1개연대.

④ 準備期間: 6월 이후의 3개월.

⑤ 特殊訓練: 平康 西北쪽의 上甲里 및 下甲리에 △395의 縮少摸型을 작성하여 地形에 익숙케 하는 豫行演習을 反復.

⑥ 砲彈準備: 支援砲擊에 充分한 各種 砲彈을 貯備.

⑦ 特殊裝具: 각 중대마다 鐵條網 破壞筒 및 地雷筒을 60개씩 확보.

⑧ 個人裝備: 個人當 8개의 手榴彈과 160발의 小銃實彈을 支給.

⑨ 防寒服支給: △395를 占領하면 長期間 확보하기 위해 越冬用 防寒服을 支給豫定.

⑩ 非常手段: △395를 孤立시키기 위하여 驛谷川을 범람시킬 목적으로 蓬萊湖水門을 一時에 開放.』

(1) 작전계획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10월 3일에 긴급소집한 연대장회의에서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 제85호(10.4. 08.00附)를 下達하여 全師團의 固守態勢를 가다듬게 하였다.

『① 사단은 明 4일 또는 水일 以內에 敵의 攻擊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395의 방어 策을 緊急히 補強함으로써 陣前에서 擊滅하러 한다.

② 제30연대

㉞ 연대 豫備隊(제3대대)의 일부로써 △395의 主陣地를 補強하고, 主力으로써 高地前方의 前進陣地工事를 緊急히 完了케 하라.

㉟ 10월 4일 17.00부터 命숨이 있을 때까지 제53전차중대를 統合指揮하라.

㊱ 10월 4일 12.00부터 美제73전차대대 C중대를 統合指揮하라.

③ 제29연대는 現任務를 계중 수행하라.

④ 제28연대

㉞ 사단 逆襲命令이 下達되면 즉각 攻擊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라.

㉟ 예하 2개대대를 10월 4일 19.00까지 △255에 이동시켜 別命이 있을 때까지 待機케 하라.

㊱ 工兵 1개 중대를 10월 4일 17.00부로 배속한다.

⑤ 제51연대는 別命이 있을 時에 2개 대대兵力을 부근으로 機動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⑥ 제1포병단장은 別添한 砲兵부족에 准據하여 다음과 같이 支援에 任하라.

제50포병대 : 제30연대 直接支援, 제51포병대대 : 제29연대 直接支援,

제52포병대대 : 사단 一般支援

⑦ 제53전차중대는 10월 4일 17.00附로 제30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⑧ 협조지시

㉞ 각 부대는 相互緊密히 협조하라.

㉟ 각 단위부대장은 식량과 탄약 및 차량을 확보정비하라.

㊱ 一線部隊는 진지구축작업을 계속하면서 夜間警戒에 철저를 期하라.

㊲ 逆襲部隊는 각 개인에게 비상식량 1일분을 휴대시키라.

㊳ 제28연대의 2개 대대는 徒步行軍으로, 제51연대의 2개 대대는 車輛輸送으로 移動한다.

㊴ 제30연대장은 各 戰車中隊와 通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⑨ 사단 OP는 △254에 위치한다.』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또한 投降者의 陳述대로 蓬萊湖(1.5km×3.5km)가 決潰되어, △395를 三面으로 圍繞한 驛谷川이 범람함으로써 推進補給이 遲滯될지도 모르는 경우에 대

비하여, 1주일 分の 食糧, 飲料水 및 彈藥 등을 高地에 貯置토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제30연대장 林益淳대령은 △255(下馬山 南쪽 1km)에 控置中인 제3대대를 10.3. 21.20까지 △395의 北側背 前方으로 推進시켜, 제1대대 前進陣地의 補修作業을 支援케 하는 한편, 제10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시켜 主峰 東쪽 稜線의 主陣地를 補強케 하였다.

이러하여, 제3대대(一)는 10월 4일 04.20까지 徹夜作業으로 掩體壕 150개를 비롯한 障礙物設置 등 應急陣地工事を 強行한 다음, 命에 의하여 제11중대를 前進陣地에 殘置하고 集結地로 복귀하였는데 이로써 제30연대는 제9중대만을 연대에비로 控置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사단예비인 제28연대의 제1 및 제2 兩 대대를 10월 4일 19.00까지 △255 後斜面으로 이동케 하고, 제3대대 및 연대 수색중대를 10월 6일에 역시 △255의 예비集結地로 急派토로 하였다.

한편, 隸配屬 및 支援砲火는 △395 北側背의 前進陣地 前面에 彈幕과 豫想集結地등에 火集群을 構成하였다.

제53전차중대는 10월 6일 18.20에 集結地(鐵原부근)를 출발하여 19.00까지 1개 소대를 中馬山 부근에, 1개소대를 △254 南쪽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美제7사단 地域에서 作戰中이던 美 제73전차대대 C 중대는 10월 6일 15.00에 急據 사단地域으로 撥動하여, 17.30까지 寺後洞 부근에 主力을, 牛尾洞부근에 1개소대를 각각 배치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美제5공군 戰術部隊소속의 B-29, F-84, F-46, F-51, F-9E, F-80, AD 등 각종 戰爆機는 10.3. 22.30~10.6. 15.10에 걸쳐, 敵의 攻撃陣勢를 事전에 破摧코자 △500 後方 一帶를 비롯한 豫想集結地와 砲陣地 및 接近路 등을 都合 19회(延 91機)의 出擊(B-29는 夜間爆擊)으로 集中強打하였다.

그러나, 敵의 砲擊도 10월 3일부터 漸次 強化되어, 5일 17.00~6일 17.00의 滿 1일간에는 2,000발의 砲彈이 집중하였다. 이 集中砲火는 △395의 我軍 防守陣地에 대한 破壞射擊으로 看做되는 바, 사단이 現防禦正面을 인수한 이래 가장 熾烈한 砲擊이었다.

(2) 작전실시

사단은 10월 4일의 日沒時부터 △395에 대한 敵情을 銳意 注視하고 있었으나, 24.00의 時限이 지나도 攻撃의 glimpse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날부터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落着彈만이 陣地 一帶에서 炸裂할 뿐이었다.

배마침, 秋夕 다음 날의 皎皎한 月光下에 高地주변 山野에는 仲秋의 夜氣만이 교여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인 5일에도 이 상황에는 아무 변동이 없었다.

△395의 主陣地 및 前進陣地에 配陣한 제30연대 제1 및 제3 兩대대 主力은 陣地工事を 더욱 補完하면서 이 2일간의 시간여유를 要緊하게 이용하였다. 10월 3일의 緊急 사단作命으로 徹夜強行하면서 陣地補強을 서두르기는 하였으나, 壕의 構築을 비롯하여 障礙物의 設

置에 萬全을 期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하룻밤이었는데, 이 2일간의 시간여유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제30연대는 다음과 같은 概念으로 陣容을 急編하고 있었다.

첫째, 敵의 蓬萊湖決潰에 따르는 驛谷川 氾濫에 미리 대비하여, 각 中대單位로 1주일 이상의 제1중(식량) 및 제5중(彈藥) 補給品을 貯置.

둘째, 敵의 侵襲으로 因하여 봉우리 하나를 상실하여도 그와 맞서 主陣地를 확보할 수 있도록 峰單位로 中대를 배치하여 四周防禦를 急編.

셋째, 敵의 集中砲火에 대비하여 掩蓋壕를 強化하는 한편, 交通壕의 깊이를 한길 이상 파고, 대대—중대—소대간의 有線을 埋設.

네째, 陣前의 鐵條網을 3線에서 7線으로 增設함과 동시에, 對人 및 對戰車地雷, 照明地雷, 네이팜筒 등의 埋設을 大幅으로 強化.

10월 6일(제1차, 제2차 攻防戰): 敵의 攻勢를 예상하던 2일간의 時限이 지난 이날, 06.00부터 敵의 砲火는 더욱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단의 支援火力도 일제히 砲門을 열어, △500 後方一帶를 비롯한 各 火集點에 集中打를 加하였는데, 14.30~15.00에는 F-84의 4機編隊가 延 3회 出擊하여 上眞明洞 三叉路부근과 △596 西南쪽의 溪谷에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를 加하는 銀翼이 望見되었다.

제30연대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대대 OP를 △300(主峰의 西南쪽)에 설치하고, 배속 받은 제10중대(장, 方鎔鎬 대위)를 右 제1선에,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 및 제1중대(장, 具本源 대위) 兩 中대를 主峰 左右稜線에, 제2중대(장, 徐斗守 중위)를 西斜面에 각각 배치하였는데, 敵의 主攻接近路로 推斷되는 主峰 西北쪽 1.2km의 稜線部位에는 제3대대의 제11중대(장, 孫月用 대위)가 10월 3일 夜半부터 前進陣地를 急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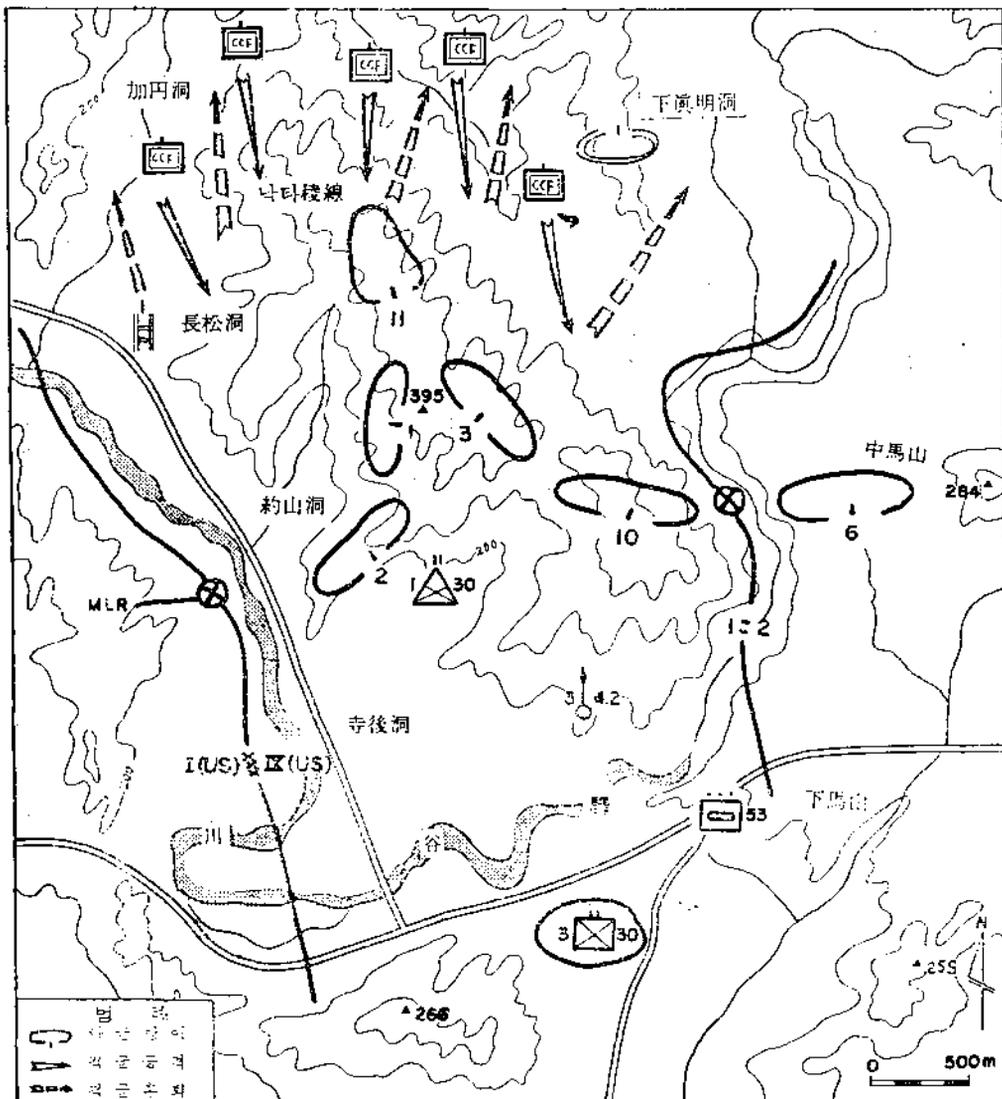
그런데 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각 中대의 陣地를 點檢한 다음에 대대 士員에게 檄하기를 『죽어도 이 高地에서 죽고, 살아도 이 高地에서 살자! 우리는 죽기로 碇후의 순간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기필코 이겨야만 한다!』라고 悲壯한 覺悟로 決死固守를 다짐하니 대대 士員은 이에 感奮呼應하여 저마다 遺書와 遺品을 정리하여 後方으로 託送하는 것이었다.

1. 제1차 攻防戰(10. 6. 19. 15~6. 20. 15)

이날 06.00부터 高地全域을 間斷없이 砲擊하던 中共 제38군은 18.45이 되자, 제10 및 제11 兩 中대의 陣地로 火力을 集中하더니, 19.15에 드디어 제114사단 제340연대(사단 예비)의 1개 대대(+) 兵力을 一時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薄暮가 끼기 시작한 敵陣 △500의 上空에 赤色 信號彈 2발이 솟아 오름과 동시에 下眞明洞과 上眞明洞의 2개 方向에서 擊鎗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高地主峰의 東側峰에 配陣한 제10중대(장, 方鎔鎬 대위)와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의 間隙正面으로 1개 中대, 駱駝稜線(一名, 花郎稜線)이라고 이름붙인 北側 前進陣地인 제11중대(장, 孫月用

◇ 삼황도 제40호 제1차 攻防戰(6. 19. 15~20. 15)



대위)의 左右側面으로 1개 대대가 人海 제1波를 이루면서 殺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同時刻에 사단 右一線 제29연대 제3중대(장, 李曉星 대위)의 △259에도 陽攻으로 보이는 중대규모의 兵力이 出現하였는데, 20.10에는 사단 左인접 美제2사단과의 戰鬪地境線으로부터 戰車 1대가 接近하면서 側射를 加하였다.

가) 我軍支援砲火의 集中強打 : 이에 대하여 제1砲兵團(장, 朴秉柱 중령) 이하의 제52포병대대(장, 河永燮 소령)와 사단의 제30포병대대(장, 權五明 대위) 및 제9重박격포중대(장, 文逸秀 대위)가 일제히 砲門을 열어, 接近路上에 露出된 敵의 攻撃隊列을 集中強打하고,

中馬山(△395의 東쪽 1.2km) 稜線에 配陣한 제53전차중대(장, 趙七星 대위)의 1개 소대와 美제 73전차중대의 1개 소대는 제3중대 正面으로 接近중인 敵攻擊梯隊의 側方을 猛打하였다.

또한 讀書堂下里 부근에 布陣한 美제 213(장, Hump Hrap 중령) 및 美제 955(장, Easter Day 중령)의 兩 포병대대는 曉星洞(△500의 背斜面) 일대의 豫想砲陣地와 集結地에 155mm의 砲彈을 集注하였다.

나) 제30연대 제1대대의 勇戰: 제30연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395 主峰의 西北쪽으로 길게 突出하고 있는 駱駝稜線의 特殊한 地勢에 비추어, 敵의 主攻이 이 方向으로 집중될 것으로 豫상하여, 前進陣地 三面에 7線으로된 鐵條網과 對人地雷등을 縱深깊게 설치하고 待機하던 차에, 敵 1개 대대가 攻擊하기 시작하자, 제11중대(장, 孫月用 대위)의 勇戰을 當부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陣地를 固守하라! 我軍의 支援火力은 그대들을 충분히 掩護할 것인즉, 앞만 보고 싸우라!』고 擧하였다. 이에 이어 제10 및 제3 兩중대의 陣前 敵勢를 파악하던 차에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가 『敵은 散開하지도 않고 새까맣게 불려 옵니다.』하고 報告하였으므로 即刻 照明彈을 연거푸 쏘아 올려, 東側斜面一帶를 白夜로 밝히 놓았다.

이에 鼓舞된 제10 및 제3 兩 중대는 照明彈의 光芒속으로 浮刻되는 敵影을 向하여, 屠戮의 火力을 집중하면서 陣前擊滅을 期하였다.

한편, 前進陣地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11중대장 孫月用 대위는 10월 3일 夜半以後, 陣地急變에 注力하였는데, 敵의 攻擊準備射擊으로 因하여 그 殆半이 無爲로 돌아가자, 最後 阻止射擊으로 陣前擊滅을 다짐하며, 各 소대의 勇戰을 鼓舞하되 『我軍의 彈幕을 믿고, 沈着하게 射擊하라! 중대의 實力을 보일 기회는 이 때가 아니고 언제이겠는가!』하고 大號하니, 全중대원들은 各種 小火器의 交叉威力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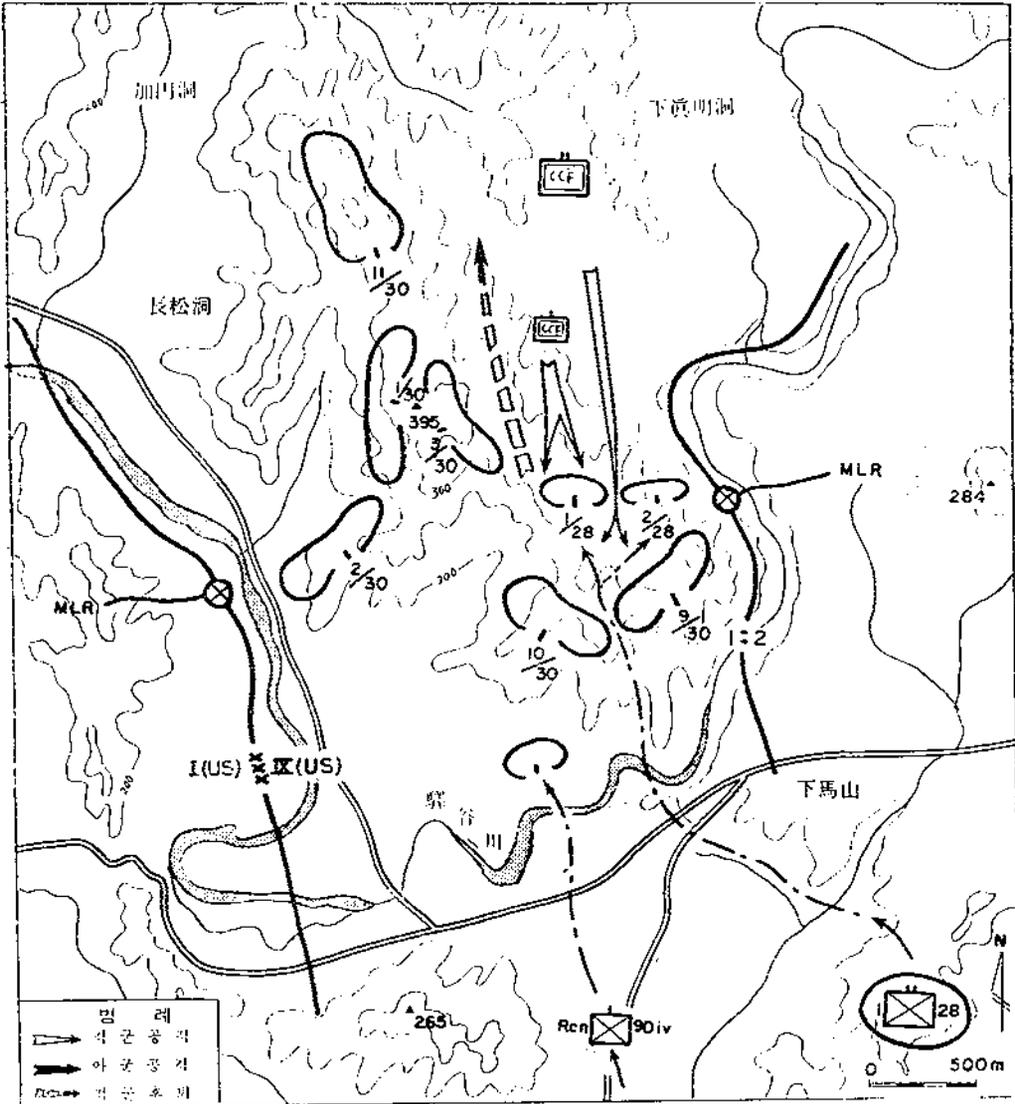
그리고, 陣前에 설정한 彈幕地點에서 敵勢를 捕捉한 支援火力도 的確하므로, 敵의 人海波狀은 屠戮의 渦中에서 1시간 동안 右往左往하던 끝에 썰물처럼 潰散하고 말았다.

2. 제 2차 攻防戰(10. 6. 20. 40~6. 24. 00)

我軍의 的確한 集中火力과 제11중대의 勇戰으로 一旦 敗退한 敵은 敗殘兵力을 거둔지 不過 25분만인 20. 40부터 제2차 攻擊을 試圖하였는데, 이번에는 제38군 예비인 제112사단 에하 제334연대 基幹의 1개 대대(+)를 主攻梯隊로 내몰아, 제10중대와 제3중대의 制限線(제1차 攻擊에서의 陽攻正面)에 攻擊을 指向하였다.

敵은 이 主攻으로써 △395의 東側背南端部位를 直衝하여 主峰과 그 北側背인 駱駝稜線의 防禦縱深을 孤立化시킴과 동시에 下眞明洞 南쪽의 開闊地 接近路를 확보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사단장 金鍾五 소장은 사단예비의 一部를 投入하기로 決心하여 제28연대에 別命을 待機케 하고, 支援火力을 이 正面으로 집중케 하였다.

◇ 상황도 제41호 제2차 攻防戰(6. 20.40~6. 24.00)



한편, △255의 연대 OP에 위치한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高地의 戰況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연대-대대-중대간의 有線은 두 차례에 걸친 敵의 攻撃準備 射擊으로 이미 杜絶되고, 제3 및 제10 兩 중대는 無線의 안테나마저 破損되어 대대 OP에 대한 戰況報告가 困難하였다.

가) 主陣地一角을 被擄: 제10 및 제3 兩 중대는 제1次의 激戰에서 潰損된 陣地를 補修할 사이도 없이 이 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月明이 皎皎한 가운데 間斷없이 白夜를 이루는 照明彈의 光芒下에 觀測되는 敵影은 중대규모를 훨씬 上廻하는 것으로 判斷하였다.

즉, 20.40을 期하여 攻擊하기 시작한 1개 中대에 後續하여 1개 大隊로 推算되는 部隊가 下眞明洞 南쪽으로 펼쳐진 들판을 메우는 듯이 보였다.

이 波狀兵力을 향하여 我軍砲火가 集中炸裂하는데도 奮戰隊의 銃뿌리에 물리고 있는 듯 한 敵의 攻擊梯隊는 10列縱隊로 接近하였다.

兩 中대의 最後阻止線을 사이에 두고, 熾烈한 射擊이 應酬되고, 尖兵間에는 手榴彈戰이 전개되는 동안, 中馬山에 布陣한 제53 및 美 73 兩 전차중대가 的確한 照準側射로서 敵의 密集梯隊를 擊摧해 나갔다.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대대 81mm 박격포소대와 배속받은 4.2"重박격포소대의 砲門을 陣前에 집중하여 出血을 強要하였으나, 22.00에 이르러 제10중대의 左제1선을 突破당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나) 兩 中대의 血戰 : 混戰중에 제3중대와 의 制限點에 위치한 觀測所 1개 所에 敵의 分隊兵力이 侵襲한 것이었다. 이에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는 중대 右제1선 소대의 射向을 急轉시켜 急射擊으로써 敵의 突破口擴大를 阻害하였다.

한편, 제10중대장 方稍鎬 대위는 左제1선의 一角이 侵襲되었다는 제2소대장 徐虎潤 소위의 急報에 接하자, 제3소대장 崔順榮 소위로 하여금, 이를 急援케하여 稜線으로 이르는 斜面을 制壓하니, 突破口로 急流가 쏟아지듯이 氣勝스러운 敵勢를 맞아, 寸土를 相爭하는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제2소대장 徐虎潤 소위도 지체없이 소대의 陣容을 수습하여 『소대장 여기 있다! 나를 따르라!』하고 大號하니, 이에 鼓舞된 각 分대장을 중심으로 白兵死鬪를 거듭하면서 敵勢를 阻止하였다.

그러나, 突破口를 擴大코자 後續兵力을 계속 注入하는 敵勢로 因하여 壓力이 加重될 뿐이므로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이 危急한 戰況을 연대 OP에 無線으로 報告하는 한편, 제3중대로 하여금 主峰 東南側背에 阻止障地를 急編케 하고, 제10중대의 兵力損失을 감안하여 高地南端으로의 一時 撤收를 命命하였다.

다) 제30연대 제9중대의 逆襲 : 이처럼 △395의 南端一角이 不利해지자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255에 控置중이던 연대의 唯一한 예비인 제9중대에 이미 逆襲命命을 下達하고 있었는데, 제9중대장 朴志遠 대위는 寸刻을 다투는 이 逆襲任務의 重大性을 切感하며, 下馬山의 들판을 넘어 단숨에 驛谷川을 徒涉하는 即時로 攻擊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高地의 南端部位는 驛谷川邊으로 急斜面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대는 徒江하자 마자 敵의 火網속으로 뛰어든 셈이 되었다.

제3중대의 掩護射擊과 연대 支援火力이 敵障地를 強打하는 가운데, 중대는 步一步 前進해 나갔는데, 敵은 이 楔形據點을 끝내 확보하려는 듯이 火力으로써 抵抗하였다.

뿐만 아니라, 逆襲을 阻止하기 위해서는 自陣까지도 희생하는 中共特有의 無差別砲擊을

집중하기 때문에 중대는 敵前 50m를 끝내 突破하지 못하고, 연대장의 命令으로 攻擊銳鋒을 일단 거두어, 제10중대의 急編阻止陣地에 合勢한 다음 繼戰을 待機케 되었다.

라) 제28연대 제1대대의 逆襲成功: 이와 같은 戰況報告에 接한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395의 東側背一角에 密着한 敵勢를 驅逐하기 위하여 強力한 逆襲을 敢行키로 決心하고, 사단에비인 제28연대의 제1대대(장, 金三寅 대위)와 사단수색중대(장, 姜章憲 대위)를 急遽 제30연대에 배속시킴과 동시에, 그 增援部隊로써 제28연대 제2대대(장, 尹永模 소령)를 △255로 이동시켜 別命을 待機케 하였다.

이에 사단수색중대는 集結地인 栗梨里를 출발하여 22.00에 驛谷川의 渡河點인 M2一步板橋(一名 忠誠橋)를 통과, 高地南端의 山麓으로 이동집결하였으며, 제28연대 제1대대는 그보다 1시간 뒤인 23.00에 역시 忠誠橋를 거쳐, 제30연대 제9 및 제10 兩 중대의 阻止陣地線에 LD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逆襲部隊의 銳鋒을 配列함과 아울러, 사단 支援火力의 全砲門을 敵의 占據部位로 集中하니, 月明下의 高地南端에는 逆襲의 戰端이 벌어지기도 前에 이미 腥風이 희오리치는듯 하였다.

23. 20, 제1중대(장, 金斗植 중위)를 右제1선에, 제2중대를 左제1선에 내세우고, 제3중대를 예비로 후속시킨 가운데, LD를 박차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彼我의 砲彈이 集中炸裂하는 山麓에는 硝煙이 자욱하고 曳光彈의 閃光이 줄무늬의 格子를 퍼는 가운데, 敵의 阻止火網이 熾烈하였으나, 각 중대는 血路를 뚫고 나갔다.

그 중에서도 右제1선의 가파른 斜面을 突進해 나간 제1중대는 중대장 金斗植 중위의 陣頭指揮下에 火力據點 하나 하나를 破摧하면서 드디어는 敵의 左端陣地를 유린하여, 急編散兵隊에 흩어져 있는 敵兵을 닥치는대로 盛殺해 나갔다.

이에 左제1선 제2중대도 急進突貫하여 手榴彈으로 敵陣을 박살내면서 白刃을 휘두르니, 頑敵도 마침내는 累屍와 裝備를 遺棄한채, △396(下眞明洞 北쪽) 方向으로 潰退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高地 東南側背의 主陣地를 完全히 奪還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陣地 再編成을 서둘렀는데, 이 무렵에 예비 集結地를 출발하여 徒歩로 移動중이던 제28연대 제2대대는 7일 00. 20에 △255로 集結하였다.

한편, 花郎稜線의 前進陣地를 攻擊중이던 敵 1개 중대와 제30연대의 제3중대 正面을 助攻중이던 1개 중대도 主攻梯隊의 致命的인 潰散과 때를 같이하여 물러가고 말았다.

10월 7일(제3차, 제4차 攻防戰): 전날의 두차례에 걸친 攻防激戰의 硝煙이 채 가라앉기도 前인 이날 00. 40부터 敵은 執拗하게도 1,000여발의 攻擊準備射擊과 더불어 高地 3개 正面으로 都合 2개 대대규모의 兵力을 다시 投入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中共 제114사단에비인 제340연대의 基幹이 恣行하는 제3차 攻擊으로 보였다.

이와 對決하는 사단의 陣容은 이날 零時 현재, 右제1선인 高地南端의 東側背에 제28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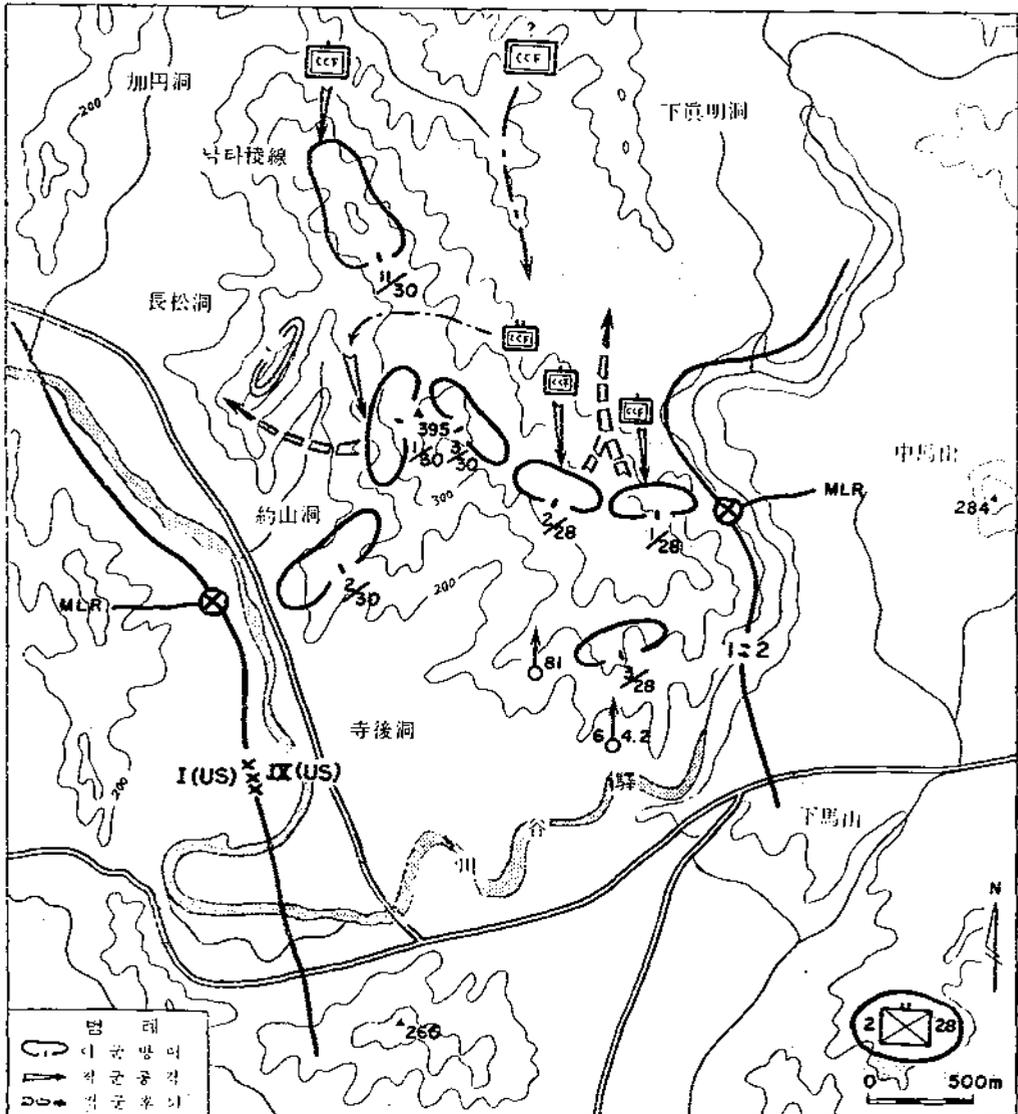
대의 제1 및 제2 兩 중대, 中央제1선인 主峰의 東西兩側面에 제30연대의 제3 및 제1 兩 중대, 그리고 主峰의 西南側背에 제30연대 제2중대가 각각 占領하고 있었다.

1. 제3차 攻防戰(10.7.00.40~7.05.10)

敵은 이 攻擊으로써 高地主峰과 駱駝稜線상의 前進陣地를 兩斷하여, 北側 稜線상에 攻擊據點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즉, 3개 중대로 高地南端과 主峰東側面에 壓力을 加함으로써 我軍의 火力을 誘引하고, 1개 중대로 前進陣地를 牽制하면서, 1개 대대(一)로 하여금, 主峰 北쪽 稜線腰部에 楔形 突破口를 확대케 하려는 것이었다.

◇ 상황도 제42호 제3차 攻防戰(10.7.00.40~7.05.10)



가) 사단장의 措置 : 이와 같은 敵情判斷에 依하여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火力으로써 敵勢를 陣前에서 擊摧키로 決心하고, 戰術爆擊을 긴급 요청하는 동시에 全支援砲兵의 砲火를 主陣地 全面的 彈幕地帶로 집중토록 하였으며, 사단 예비로 △255에 控置중인 제28연대 제2대대 및 사단수색중대의 即刻적인 逆襲發起를 待機케 하였다.

戰術爆擊은 이미 4일 22.30과 23.15, 그리고 5일 02.25의 3회에 걸쳐, 延 12대의 B-29가 夜間出擊하여 主로 △500 後面一帶의 豫想集結地 및 砲陣地를 爆擊한 바 있는데, 이날 사단장의 措置로서는 下眞明洞一帶의 接近路인 抵地帶에 대한 爆擊을 희망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02.10 月明과 照明속에 陣前上空까지 出擊한 4대의 B-29는 1,000Lbs' 爆彈을 投下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사단 支援砲兵은 00.40에 敵의 攻擊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1포병단(105mm 32문), 美제 213 및 제955 포병대대(155mm 32문), 제9重박격포중대(4.2" 7문)가 彈幕射擊을 加하고, 中馬山 일대에 있는 제53, 제73 兩 전차중대가 戰車砲와 Cal 50 기관총으로 敵 攻擊梯隊를 側射하였다.

나) 제28연대 제1대대의 戰況 : 전날, 高地 東南側背의 主陣地를 逆襲으로 奪還하여 陣地再編에 餘念이 없던 제28연대 제1대대 主力은 손등에 묻은 戰塵을 털어낼 시간여유도 갖지 못한채 2개 중대규모의 敵을 邀擊하게 되었다.

右제1선의 제1중대(장, 金斗植 대위)와 左제1선 제2중대는 긴밀히 協調된 火網을 急編하고 있었는데, 敵影이 斜面일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를 彈幕地帶까지 誘引하여 支援 火力을 요청하는 동시에 일제히 自動火器의 彈雨를 집중하였다.

이리하여 兩 중대의 陣前은 輝煌한 照明下에 屠戮場으로 一變하였으니, 砲彈이 集中炸裂하고 自動火器의 曳光火箭이 亂舞하는 가운데, 血虹이 서리면서 累積되는 것은 다만 醜敵의 屍山뿐이었다.

散兵據에 있는 小銃手들은 眼前에서 右往左往하는 敵影 하나하나를 照準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部署를 固守하였다.

다) 제30연대 제1대대의 戰況 : 敵은 이 제3차 攻擊으로써 主峰-駱駝稜線(主峰 北쪽)間의 高地腰部에 楔形突破口를 形成하려는 氣勢로 主峰의 主陣地正面으로 主攻을 集中하였다.

下眞明洞의 開闊地를 질러 東側背의 中間斜面一帶에 散開한 중대규모의 敵은 00.30부터 10분간에 걸친 攻擊準備射擊에 腐接하여, 00.40을 期해 일제히 LD를 통과하였는데, 제30연대의 右제1선인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는 計劃된 最後阻止火網으로 이 敵을 捕捉하여 熾烈한 火力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01.30에 敵은 後續梯隊를 急増시켜, 다른 2개 중대를 연대의 中央제1선(主峰의 左側面)인 제1중대(장, 具本源 대위)와 左제1선(主峰의 西南쪽 稜線)인 제2중대(장, 徐斗守 중위)의 正面으로 侵透하였으므로, 제1대대는 全面에 걸쳐 이 敵의 壓力을 받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前進陣地인 제11중대(장, 孫月用 대위) 正面에도 增強된 1개 중대가 接近하여 上眞明洞쪽으로 突出한 緩斜面에서 攻擊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제1대대는 急迫한 戰況下에서 血戰에 이은 死鬪로써 陣地를 固守하게 되었는데 數次に 걸친 敵의 集中砲火로 因하여, 散兵壕를 비롯한 交通壕의 거의 全部가 潰損되고, 小銃手들은 露出된 몸을 감추지도 못하고 방아쇠를 당겨야만 하였다.

그러나, 각 중대의 鬪魂은 刻—刻으로 戰況이 急하여 질수록 더욱 더 加熱되기만 하였다. 實彈이 떨어지면, 이미 散華한 戰友의 彈帶를 끌어당겨 補充하기도 하고, 눈 앞으로 다가서는 敵兵을 발견하는 즉시로 銃劍을 휘둘러 刺突하기도 하였다.

手榴彈이 亂舞하고, 彈雨が 交叉되는 가운데, 陣前의 寸地를 놓고 血戰이 거듭된 것이다.

어느 兵士는 手榴彈이 떨어지자 砂塵속에 묻힌 彈藥箱子를 찾아 쓰기도 하고, 어느 兵士는 눈 앞으로 다가오는 敵兵을 向하여 휘두르기 위해 잡히는대로 손에 쥔 것이 砂塵에 묻혔던 屍體의 한 쪽 팔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목이 묻히고, 때로는 무릎까지도 묻히는 砂塵은 砲彈과 手榴彈이 炸裂할 때마다 蒙蒙한 塵煙을 이루었다.

絶對한 死鬪가 반복되는 동안 사단 支援火力은 彈幕射擊과 阻止射擊으로서 敵의 兵力增強을 破摧하였는데, 이로 因하여 陣前에서의 攻擊力이 漸次로 萎縮되더니 敵은 마침내 05.10부터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駱駝稜線의 前進陣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중대규모의 敵을 邀擊하게 된 제11중대(장, 孫月用 중위)는 200m 간격으로 봉우리진 3개 連峰의 每峰單位로 1개 소대의 四周防禦陣地를 獨立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稜線의 特異한 地勢에 맞춘 陣容이었다.

즉, 駱駝稜線은 敵의 前進陣地인 下眞明洞과 上眞明洞의 高地에 近接해 있는 不利點을 안고 있으면서도 東—北—西側背의 斜面은 모두 急傾斜를 이루고 있으므로 接近이 容易치 않으며, 1개 峰을 잃더라도 나머지 峰을 굳게 지킨다면 稜線의 一角을 能히 支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00.40에 시작된 제3차 攻擊에서도 助攻으로 보이는 1개 중대규모의 兵力을 上眞明洞으로 부터 投入한 敵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失敗의 前轍을 免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05.10에 潰退한 敵은 高地의 一隅에 중대규모의 兵力을 殘置하였으니, 主峰의 西쪽에 봉우리진 無名高地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無名高地는 敵의 長松洞接近路에서 登攀하기가 容易한 緩斜面을 이루고 있으며, 駱駝稜線의 左側面을 찌를 수 있는 稜線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高地 西側背의 防禦上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중대규모의 敵兵力을 남긴 것은 앞으로의 禍根이 될 것이 自명한 사

실이었다.

그러므로 사단은 敵을 물리친 다음에 支援火力의 일부를 이 無名高地로 집중하여 모조리 驅逐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제3차 防禦를 일단 마무리짓게 되었다.

그런데, 이 前後 3차에 걸친 防禦戰에서 거둔 사단의 成果는 다음과 같다(10. 7. 17. 00현재의 中間報告)

◇ 戰 果

隊 別	種 別	射 殺		捕 虜	57mm RR	輕 機
		確 認	推 定			
제 28 연 대		52	30	8	2	1
제 29 연 대		1	3			
제 30 연 대		534	110	15	2	7
計		587	143	23	4	8

2. 제4차 攻防戰(10. 7. 14. 00~8. 02. 40) : 사단은 제3차 防禦에서도 敵 2개 대대를 潰滅적으로 물리쳤으나 다음 作戰에 차질을 가져올 하나의 問題點을 남기고 말았다.

즉, 駱駝稜線의 西南쪽으로 흘러내린 稜線에 密着한 중대규모의 敵을 완전히 驅逐하지 않고 作戰을 一段落지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이로 因하여 駱駝稜線의 前進陣地가 左側 背로부터 威脅받음과 동시에 孤立당할 可能性이 컸기 때문이다.

本是, 이 無名高地는 主陣地 여러곳으로부터 완전히 瞰制되고 있기 때문에 火力制壓만으로도 敵의 接近을 봉쇄할 수가 있으므로 소대규모의 夜間埋伏組만을 배치할 정도였는데 제3차 攻防戰에서 我軍의 防禦火力이 敵의 主攻阻止에만 置重되었던 虛를 틈타서 중대 규모를 은밀히 潛入시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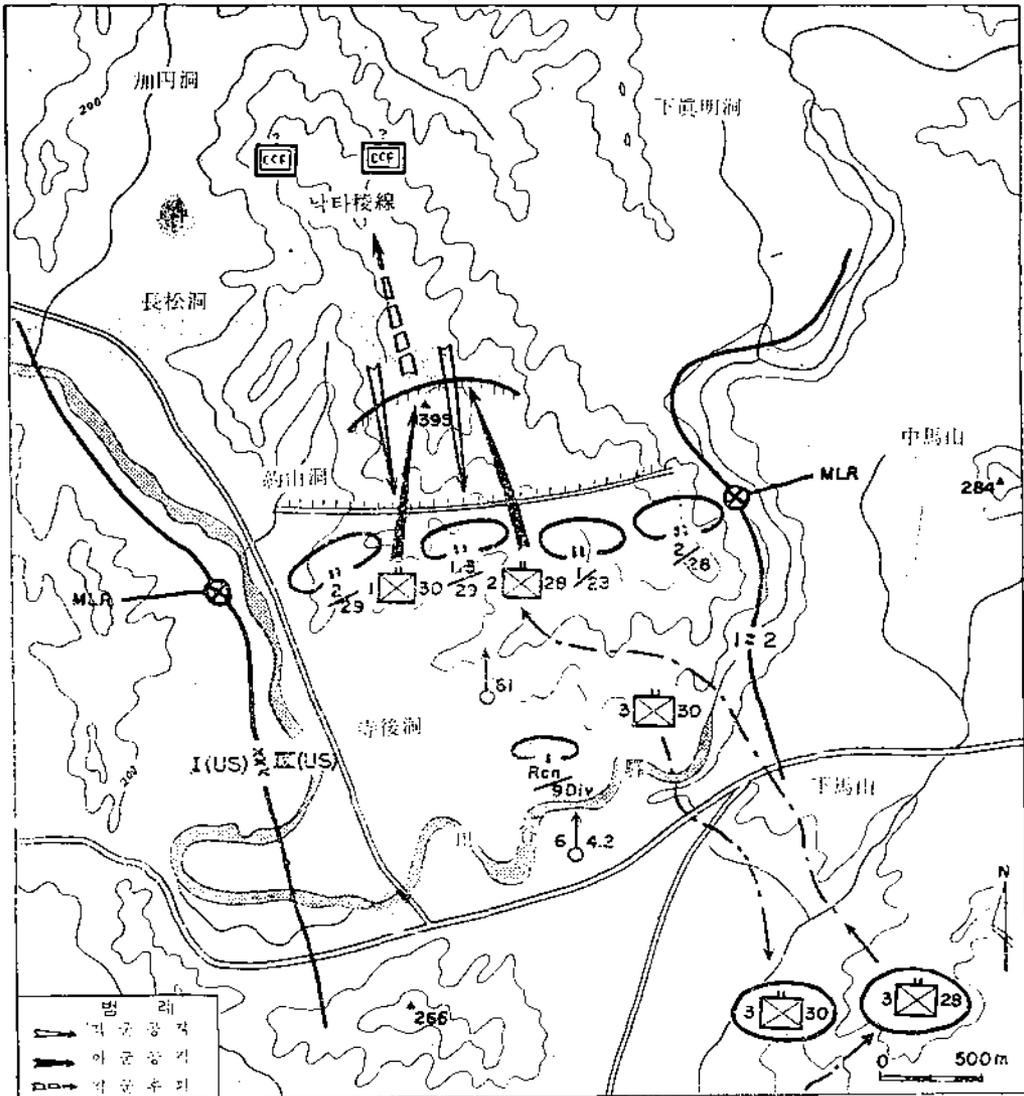
果然, 이 據點을 일단 확보한 敵은 계속 兵力을 增派하여 我軍의 制壓射擊에도 不拘하고 이날 12. 00 현재, 2개 중대로 增強되더니, 그 1개 중대는 主峰의 東斜面으로 파고들어, 前進陣地를 隔離시킬 氣勢를 보였으므로 사단으로서는 前進陣地와의 連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선 이 敵을 驅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敵은 세차레에 걸쳐, 막심한 出血을 치른 탓인지 이날 현재까지 主陣地에 대한 攻撃을 試圖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 攻撃을 위한 여유를 얻고 있는 까닭으로 推定되며 戰線에는 間歇적으로 應酬되는 砲聲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제30연대 제3대대主力에 의한 逆襲이 敢行되었다.

가) 제30연대 제3대대 主力의 逆襲挫折 :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戰況報告에 接함과 동시에 前進陣地의 危機를 重大視하고 12. 00에 제30연대의 예비兵力으로 이 2개 중대를 완전

◇ 상황도 제43호제4차 攻防戰(10. 7. 14.00~8. 02.40)



히 驅逐하라고 命命하였다.

이에 高地東側方 南端에서 阻止障地를 닫고 있던 제3대대의 제9(장, 朴吉遠대위) 및 제 10(장, 方碩鎬) 兩 中隊는 14.00에 LD(제30연대 제1대대의 配置線)로 이동집결함과 동시에 逆襲으로 進軍하였다.

그런데 敵은 我軍의 이러한 逆襲을 豫察하고 이 일대에 火藥點을 急編하였음인지, 兩中隊의 逆襲攻勢와 동시에 敵의 砲火가 熾烈하게 集中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曉星山 부근의 野砲와 △396 및 △500에서 發射하는 直射火力이었다.

뿐만 아니라, 敵 2개 중대는 楔形據點을 必死的으로 固守할 각오인지, 短時間內에 自動火器陣地를 急編하여 強力한 火網을 構成한 듯 하였다.

主峰을 초월하여 稜線에 沿한 進出線에서 敵의 砲火에 휘말린 右제1선인 제10중대는 攻擊開始의 첫 발부터 血路를 打開해 나가야만 하였다.

한편, 제2중대의 主陣地를 초월하여 일단 溪谷部位인 約山洞으로 進出した 左제1선인 제9중대도 集中火力과 無名高地로부터 雨注하는 自動火器의 彈幕에 막혀 前進이 容易치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대, 14.00현재까지의 여러 시간은 敵에게만 쉼을 주었고 我軍에게 是을 남긴 셈이었으니 火力制壓에 만 依存하던 시간낭비로 인하여 敵에게 防禦力의 增強을 許容한 結果가 된 것이었다.

이처럼 逆襲이 遲滯되자, 사단은 兩중대의 併行攻擊보다도 左제1선의 제9중대를 우선 集中支援하여 無名高지를 奪還케 하였다. 이 高地를 確保하면 제10중대의 攻擊目標인 敵 1개중대는 저절로 退路를 잃고 그 撲滅이 容易해지기 때문이었다.

我軍의 支援火力은 俄然 無名高地的 1개중대를 集中強打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선 敵의 砲火도 제9중대의 接近路를 掩襲하여 高地攻防戰의 焦點은 이날 17.55에 이르기까지 이 無名高지로 集約되었다.

한편 美 제5공군소속 F-80, F-84의 각 1개편대는 6회에 걸친 延 48대의 出擊으로 上眞明洞—△500—曉星山 일대의 敵 砲陣地에 3,000여 Lbs의 爆彈을 投下한 다음, 機首를 反轉시켜 無名高지에 機銃掃射과 네이팜彈을 퍼부었다.

그리고 中馬山에서 連日 支援중인 제53전차중대는 이날, 牛尾洞부근의 道路까지 1개소대를 挺進시켜 無名高지를 強打케 하였다.

이처럼, 熾烈한 支援火力에도 불구하고, 長松洞에 近接한 地利를 이용하는 敵은 1개소대가 殲滅되면 2개 소대를 補充하여 頑強한 抵抗을 계속하므로 제2중대는 30~40m敵前까지 肉迫하면서도 끝내는 陣內突入을 敢行하지 못하고 17.55에 命에 依하여 제3중대와 더불어 逆襲을 중단하고 20.30에 高地 南端 右側背에 있는 阻止陣地로 철수하였다.

제30연대 제11중대의 分散 : 그런데 이보다 앞선 이날 15.30에 駱駝稜線에 있는 前進陣地의 제11중대는 새로운 敵으로부터 壓力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下眞明洞과 上眞明洞의 2개 方向으로부터 鑼鐙소리도 요란하게 稜線기슭으로 밀어 닦친 敵 2개 중대 규모는 前進陣地의 最北端에 있는 제1峰을 兩面包圍하기 시작하였는데, 前後 싸차례에 걸친 攻擊失敗의 경험 때문인지 無謀한 猪突보다도 우선 火力으로써 陣地를 制壓할 意圖下에 熾烈한 砲火부터 集中하였다.

이 무렵, 중대의 陣前障礙物은 거의 파괴되고, 急斜面을 울창하게 덮고 있던 松林도 별 거승이가 된 채, 陣地는 敵의 瞰制下에 완전히 露出되기에 이르렀다.

敵彈은 거의 正確하게 제1峰에 集中하였다. 이 苛烈한 砲火에도 불구하고, 제2 및 제3 兩소대는 左右側面으로 接近하는 敵에게 手榴彈을 擧부었으나 刻—刻으로 陣前에 다가서는 敵勢는 氣勝스럽기만 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上空에 세 차례나 出擊한 F-84機 편대가 그 銀翼을 있게 急降下하면서 近接 支援하였으나 勢不利한 상황을 挽回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中대장 孫月用대위는 16.10에 제1峰의 兩 소대를 제2峰으로 철수케하여 제2峰과 제3峰(중대OP)의 防守陣을 再編함으로써 最後로 決戰키로 하였는데 이 時刻에 駱駝稜線을 圍繞한 戰況은 이미 危局에 陷入하고 있었다.

즉, 稜線을 孤立시키기 위하여 主峰背斜面으로 侵襲한 敵 1개 中대 규모에 대한 제3대대 主力의 逆襲이 停滯되었으므로 제11중대는 사실상, 포위된 상황下에서 孤軍奮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하여 17.00에 이르기까지의 1시간 30분에 걸친 敵鬪의 보람도 없이 駱駝稜線을 포기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 因하여 主峰防守까지도 危局에 몰리게 되는 戰況下에서 제30연대 제1대대의 奮戰이 다시 계속되었다.

다) 제30연대 제1대대의 主峰撤收 : 이에 사단은 제11중대의 分散兵力이 前進陣地에서 철수한 다음 全火力로 駱駝稜線을 集中强打하였는데, 岩塊가 紛飛하고 巨松이 쓰러지는 가운데, 全山이 震動하고 山巒가 露出되었다.

그러나, 駱駝稜線을 장악한 敵은 高地北半部가 苛烈한 砲火에 휩싸인 사이에도 그 攻勢를 멈추지 않고 19.20부터 主峰 左제1선인 제30연대 제2중대 正面에 1개 소대, 中央 제1선인 제1중대 正面에 1개 中대, 主峰의 東南側背인 제28연대 제2중대 正面에 1개 소대를 계속 투입하였다.

각 中대는 이 새로운 敵을 맞아, 手榴彈投擲距離까지 誘引한 다음 主峰을 中心으로 하는 主陣地의 陣前에서 또 한차례의 屠戮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러 戰線을 一瞥컨대, 敵은 主峰을 向하여 4개 方向으로 兵力을 增派하고 있었다.

즉, 下眞明洞→上器店→東側背의 제28연대 主陣地, 上眞明洞→高地最北端→駱駝稜線, 長松洞→西側背의 無名高地→主峰의 西側面, 長松洞→約山洞→主峰 西南쪽 稜線등 4개 接近路를 이용하여 主峰을 四面挾攻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21.20에 이르러 戰況은 또다시 急轉하여 제30연대 제1대대는 苦戰惡鬪를 치르게 되었다. 駱駝稜線을 장악한 敵이 1개 대대의 波狀으로써 제1중대 正面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中대장 具本源대위는 即刻的으로 支援火力의 集中을 緊急要請함과 아울러 山中隊員에게 『我軍의 生命線은 이 一戰에 달려 있다! 中대장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기를 盟誓

하자!』고 하니, 小銃手に 이르기까지 連戰의 피로도 잊고 感奮結束하였다.

이때, 食糧과 彈藥을 등에 업고, 이 主峰까지의 險路를 登攀하였던 勞務者30名도 戰死者의 小銃을 집어들어 허물어진 散兵壕의 一角을 맡게 되었는데 이 勞務團이 遂行한 推進補給은 本戰鬪의 勝利를 밑받침한 숨은 功勞가 아닐 수 없었다.

主陣地前方에 彈幕을 急編한 支援火力이 集中炸裂하는 가운데, 중대는 제3 및 제2 兩중대의 支援射擊과 더불어 最後阻止射擊으로써 陣前에서 40분간에 걸친 死鬪를 거듭하는 동안 中대의 兵力損失도 不尠하였는데 22.00에 이르러, 主峰一角의 右側1선, 제1소대 陣地가 끝내 人海狂波에 밀리게 됨으로써 主峰의 左側面을 突破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突破口는 主峰 右側面의 제3중대 後背로 擴大될 것이기 때문에 대대장 金永先소령은 대대의 防禦陣容을 긴급조정하기 위하여 제3중대로 하여금, 제2중대의 陣地線까지 철수하여 阻止陣地를 急編케 하고 제1중대를 收拾하면서 敵의 突破口擴大를 阻止하였다.

라) 제28연대 제2대대의 逆襲·主峰奪還 : 일단 主峰占據의 突破口를 形成한 敵은 그 餘勢를 몰아 계속 兵力을 增強하여 제30연대 제1대대에 再編의 時間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뜻이 突破口擴大를 企及하였다.

이로 因하여, 高地 南半部 全域에 걸친 阻止陣地의 急編이 時急해졌으므로,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제28연대 제1대대의 撤收까지도 단행하여 22.35 현재, 高地南端의 東西兩端 2개 峰에 걸친 線에서 兩대대를 再編成케 하여 最後阻止線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단예비인 제28연대 제2대대를 逆襲梯隊로 投入할 決意下에 作戰指示 第65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命令 要點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豫備隊의 一部兵力을 주축으로 逆襲을 敢行하여 △395의 主陣地를 奪還確保 하려 함.

② 제28연대장

- ㉑ 연대의 一部兵力으로써 △395의 敵을 擊退하고, 主陣地를 奪還確保하라.
- ㉒ 同日時附로 제30연대 제1대대를 통합지휘하라.
- ㉓ 제30연대에 배속되었던 제3대대는 主陣地확보와 동시에 原隊로 복귀한다.
- ㉔ 10월7일 23.00부로 제30연대로부터 第53전차중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 ㉕ 목표점령과 동시에 작전지휘권을 제30연대로부터 인수하라.

③ 제30연대장

- ㉖ 제1대대를 제28연대에 배속한다.
- ㉗ 제28연대가 主陣地를 奪還함과 동시에 예하 제3대대는 原隊로 복귀한다.
- ㉘ 예하 제3대대를 △255에 集結시켜 再編成을 完了하고 別命을 待機케 하라.
- ㉙ 10월7일 23.00부로 第53전차중대의 작전지휘권을 제28연대장에게 인계하라.

㉑ 제28연대가 목표를 점령함과 동시에 작전지휘권을 제28연대장에게 이양하라.

㉒ 제53전차중대는 10월7일 23.00부로 제30연대장의 작전지휘로부터 해제함과 동시에 제28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이에, 제28연대장 李周一대령은 前半夜에 勢不利하여 제30연대가 철수했던 高地主峰을 期必코 奪還하리라는 決意下에 제3대대(장, 崔昌龍중령)를 讀書堂里로부터 △255에 이동시킬케 하고 △255에 控置中이던 제2대대(장, 尹永模소령)를 右一線(연대 수색중대를 배속)에 내세우고, 배속받은 제30연대 제1대대(장, 金永先소령)를 現阻止線에서 攻撃으로 移轉케 함으로써 主峰의 左右側面에 대한 逆襲을 敢行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사단예비가 되어 Kansas線 및 Wyoming線을 補修強化하면서 部隊再整備 및 敎育訓練으로 銳氣를 다듬어 왔던 제28연대 제2대대는 本戰鬪가 시작된 후로는 처음으로 제1선에 나서게 되었다는 霸氣로써 8일 00.45에 LD(제28연대 제1대대가 阻地障地를 急編한 配置線)를 초월하여, 主峰 正南側方 稜線으로 進出하였는데, 제5중대(장, 李世根중위), 제6중대(장, 金雲璣중위)를 攻撃 제1선에 전개하고, 제7중대와 수색중대(장, 李永朝중위)를 예비로 後綴케 하고 있었다.

대대의 攻撃이 시작되자, 前半夜까지만 해도 北半部와 東側方에 集中되었던 彼我의 砲火는 이제 南半部를 掩襲하게 되어, 高地의 山嶺은 남김없이 焦土를 이루게 되었다.

硝煙彈雨를 뚫고, 肉迫前進하는 대대의 攻撃梯隊는 中腹線까지 敵의 右側方으로부터의 俯射에 잠시 苦戰하였으나, 支援砲火와 제1대대의 掩護射擊으로 이 側射가 점차 弱화되자 敵의 急編障地의 前線을 유린 돌파함과 동시에 手榴彈에 이은 短兵直衝으로 散兵을 殲殺해 나갔는데 最先鋒의 제5중대가 主峰 右側面의 突角障地를 先取함과 때를 같이하여 一齊히 殺到하여 主峰을 奪還하니 그 時刻은 8일 02.40 이었다.

사단은 이로써 主峰을 내놓은지 3시간 40분만에 다시 되찾았는데, 이 逆襲의 目的은 主峰奪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敵을 撲滅하고 驅逐하는데 있으므로 제2대대장 尹永模소령은 제6중대 및 수색중대로 하여금, 潰走하는 敵을 계속 追擊케 하였다.

이에 兩중대는 제5 및 제7 兩 중대가 再編中인 主峰의 主障地를 초월하여 殘敵을 追擊하면서 戰果를 확대해 나갔는데, 駱駝稜線의 제3峰線에서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쳐 3시간동안 交戰하다가 命에 의하여 05.35에 主峰 主障地 200m前方의 突角部位로 복귀하였다.

한편, 逆襲 左一線의 제30연대 제1대대는 제1중대의 分散兵力을 收拾한 다음 右一線의 攻撃前進과 併行하여 主峰 西南쪽 稜線으로 進出하였는데, 대대장 金永先소령의 大號下에 敵을 一蹴하면서 約山洞 北쪽에 있는 無名高地를 奪還하였다.

그런데 이 시간현재, 確保한 高地主障地에는 제28연대의 제1 및 제2 兩 대대와 제30연대의 제1대대가 主峰을 중심으로 南半部에 걸쳐 防禦縱深을 갖추고 있었으며, 高地南麓에 있는 驛谷川邊에 접결한 제30연대 제3대대는 8일 00.10에 △255의 南端 三峰洞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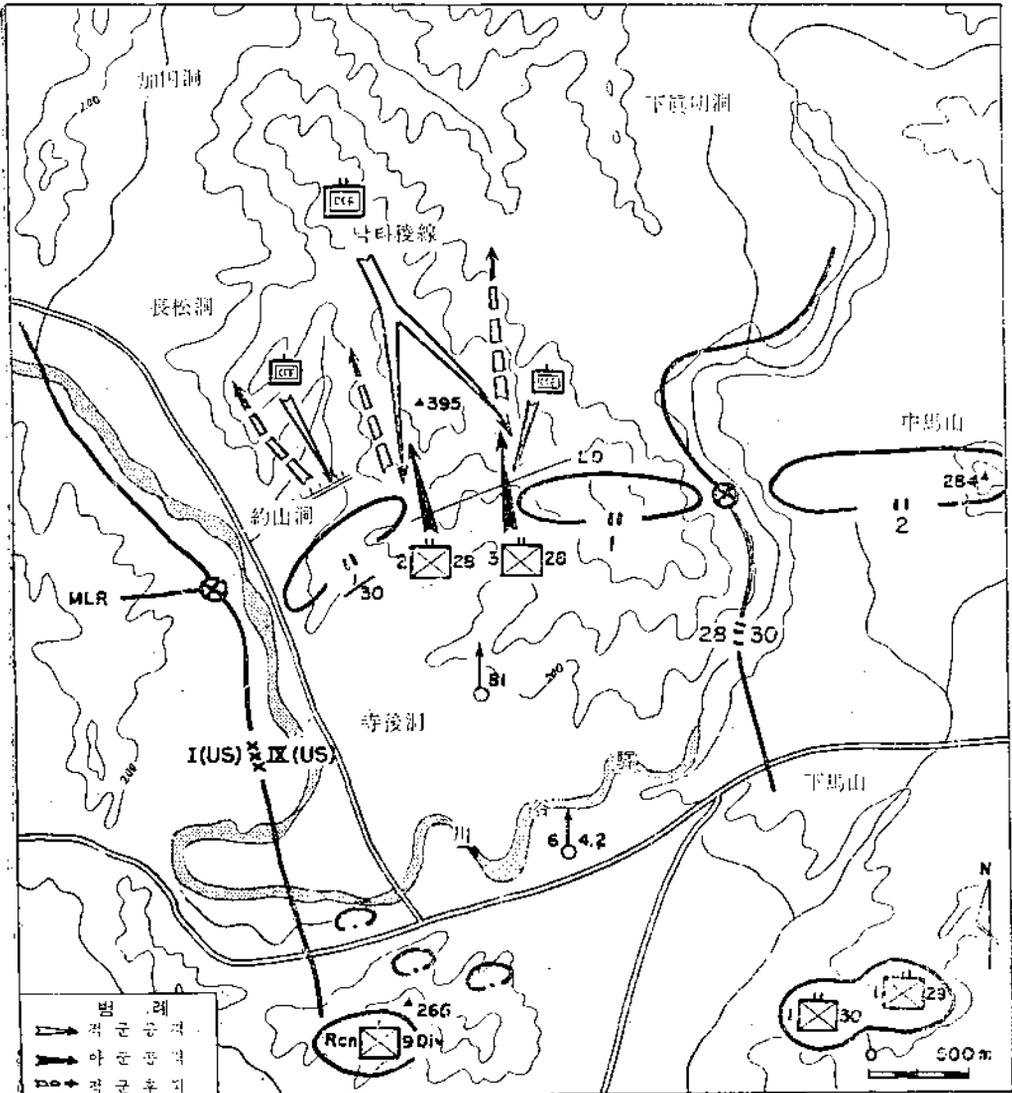
04. 10에는 部隊整備次 讀書堂里(鐵原 西쪽 3km)로 집결하였다.

10월 8일(제5차 攻防戰) : 이로써 사단은 高地主峰 北半部인 駱駝稜線을 일단 喪失한 戰況下에서 交戰 3일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中共 제38군은 4차에 걸친 攻防戰에서 많은 出血을 強要당했음에도 不拘하고 主峰을 期於히 掠取하겠다는 執念으로 이날 05.30에 軍에 備인 제112사단예하 제334연대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1. 제5차 攻防戰(10. 8. 06. 50~8. 23. 05)

連日 靑澄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主峰 一帶까지 끼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44호 제5차 攻防戰(8. 05. 30~8. 23. 05)



前次の 逆襲餘勢를 물고 駱駝稜線까지 戰果를 확대하려다가 철수했던 제28연대 제6중대와 수색중대는 主峰主陣地 北쪽 200m의 突角部位에 陣地를 急編하고 있었는데,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5개組의 埋伏組를 推進한 가운데, 勞務團이 운반한 食糧과 彈藥으로 戰力을 다시 補強하였다.

가) 제28연대 제2대대의 戰況 : 6일의 제2차 攻防戰에서 我軍의 集中砲火에 捕捉된 中共 제334연대는 政者에게 有利한 이 濃霧를 이용하여 제6중대와 수색중대의 陣前으로 1개 대대 규모의 新編梯隊를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右제1선 수색중대의 正面에 2개 중대, 左제1선 제6중대의 正面에 1개 중대를 투입한 敵은 火力支援도 없는 가운데 소대單位의 波狀을 이루면서 猪突하였는데, 兩 중대는 짙은 안개를 뚫고 接近하는 敵을 最後阻止線에서 捕捉할 사이도 없이 白兵으로 邀擊하였으나 苦戰惡鬪를 뚫지 못하여 主陣地로 防禦線을 收縮하였다.

이에 主峰에 배치중인 제5중대는 兩 중대를 掩護하면서도 짙은 안개로 因하여 彼我를 識別할 수 없기 때문에 紛戰하는 사이에 敵의 一部가 主陣地까지도 窺覷하기에 이르렀으나 主峰 한 가운데에 突起한 巨岩을 둘러싸고 到處에서 白兵戰이 展開되었다.

그런데 08.10에 이르러, 이 血戰場上空에 出擊한 F-51 1개 編隊가 近接支援하던 차에 我軍陣地를 誤爆함으로 因하여 不慮의 損失을 입게 됨에 이르러, 제5, 제6, 兩 중대의 戰列이 흩어지면서 敵에게 虛隙을 衝擊당하여 9部稜線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395의 主峰은 再次敵手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대대장 尹永模소령은 이 主峰撤收를 헛되이 하지는 않았다. 대대主力의 撤收와 더불어 支援火力을 즉각 요청하여 主峰일대의 敵陣을 強打케 하였다.

이 集中砲火는 本戰鬪의 期間중에서도 가장 苛烈을 極한 것이었다. 主峰部位에서 TOT 射擊이 炸烈할 때마다 紛飛四散하는 彈片과 砂礫이 9部稜線에서 阻止陣地를 急編중인 대대主力의 주변까지 우박처럼 쏟아질 정도였다.

나) 사단장의 措置 :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이날 12.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66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연대 戰鬪地境線의 一部를 변경하여, 예비 兵力으로써 △395에 침투한 敵을 逆襲으로 擊退함과 동시에 主陣地를 奪還確保하려 한다.

② 제28연대

㉞ 10월 8일 17.00를 期하여 △395를 攻擊하라.

㉟ 10월 8일 12.30부로 제30연대 제대대의 作戰指揮權을 해제하여 原隊로 復歸케 하라.

㊱ 同日時附로 割當된 戰鬪地境內에서 戰鬪任務를 수행하라.

③ 제30연대

㉞ 10월 8일 12.30부로 예하 제2대대의 作戰指揮權을 제28연대장으로 부터 引受하라.

㉔ 同日時附로 割當한 戰鬪地域內에서 戰鬪任務를 수행하다.

㉕ 10월 8일 13.30부로 예하 제3대대를 △255부근으로 이동시켜 사단직접 지휘하에 두게 하라

④ 사단 수색중대는 10월 8일 14.00부로 △266(△395 南쪽 3km)부근으로 이동 집결하라.』

다) 增強 一路의 敵勢 : 16.50 현재, 主峰 南側面의 阻止線에서 敵의 侵襲擴大를 막아내고 있는 제28연대 제2대대 主力은 增援兵力을 苦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단作指 제66호로 △255의 예비 集結地를 출발한 제28연대 제3대대(장, 崔昌龍중령)는 強行軍 끝에 高地南端에 散開함과 동시에 제17.00에 LD(제2대대의 配置線)를 초월해 나갔다.

이로써 高地南半部의 山頂은 또다시 焦熱과 硝煙으로 뒤덮이게 되었는데, 血戰場의 上空에는 F-80 延76機가 連이어 出擊하였다.

즉, 濃霧가 걸리기 前까지는 敵陣 △500를 비롯한 集結地 및 砲陣地 등을 掩護하던 編隊는 17.00부터는 主峰一帶의 敵陣에 爆彈 및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를 집중함으로써 대대의 逆襲을 가로막는 火力據點을 潛伏케 하였다.

한편, 下馬山의 △286부근에 布陣한 제53전차중대는 이날 05.30부터 2개소대를 高地東側背의 丘稜으로 前進시켜 敵의 自動火器陣地를 搗出하는데로 猛打케 하였다.

이와같은 支援火力下에 敵의 砲火를 무릅쓰면서 逆突攻迫을 줄기차게 계속한 대대는 LD를 초월한지 3시간만인 20.00 현재 敵陣을 目睫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高地 西쪽의 加圖洞(無名高地 下端의 三叉路)일대에 敵 1개 대대가 集結중이라는 左인접 美 제2사단의 通報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上眞明洞으로부터 역시 1개 대대의 增援兵力이 南下중인 것으로 관측되었다.

敵은 이 攻擊으로써 高地占據를 확고히 할 企圖인지 增援兵力을 계속 投入하는 동시에 22.30에는 下眞明洞의 東쪽 溪谷에 戰車 3대까지도 進出시켜 제28연대 제1대대의 主陣地를 砲擊하였으나, 輝煌한 照明下에 集中되는 我軍의 砲火로 因하여 30분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이처럼 增派一路의 敵勢는 高地南半部의 我軍 防守陣에 대하여 全般的인 壓力을 加하였는데 右一線의 제28연대 제1대대 正面으로 1개 대대, 主峰의 제28연대 제2대대 正面에 增強된 1개 대대, 左一線의 제30연대 제1대대(배속중) 正面에 1개 중대로써 그 攻擊梯隊만 하여도 1개연대에 達하고 있었다.

라) 主峰의 再奪還 : 이에 사단장 金鍾五소장은 支援火力의 增強을 긴급 요청함과 동시에 22.00附로 作指 제67호를 下達하여 △255의 제30연대 제3대대를 제28연대에 배속시켜 主峰 東南側의 1km 無名高地群으로 急進케 하였다.

이 兵力增派는 時宜的으로 的中하여 右一線 제28연대 제1대대 正面에서 대대규모의 敵에게 火力를 집중시킨 결과, 敵은 22.45 현재, △396方面으로 潰散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左一線 제30연대 제1대대 正面의 중대규모의 兵力도 또한 長松洞쪽으로 潰退하였다.

이와 같이, 防守 兩側面에 대한 敵勢가 弱화됨에 따라, 作指 제66호로 主峰奪還에 나선 제28연대 제3대대는 제2대대 일부兵力의 增援을 얻어 逆襲을 再起함으로써, 攻堅尖鋒에 나선 제10중대의 果敢한 直衝突入과 함께 敵陣을 유린하였으므로, 頑敵도 마침내는 潰散하였으니 그 時刻은 23.05이며, 08.10에 主峰을 잃은지 15시간만에 다시 奪還한 것이다.

마) 사단主抵抗線의 再配備 : 그러나, 連 3일간의 前後 5회에 걸치는 激戰期間중에 사단의 兵力損失이 不勳하고, 제28, 제30 兩 연대의 戰力整備가 時急하므로,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右一線인 제29연대(장, 金鳳喆대령)를 高地에 투입할 決心下에 作命 제86호를 이날 20.00附로 下達하였는데, 그 命令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10월 8일 19.00~9일 23.00사이에 右一線 제29연대를 제51연대와 交替시켜 사단예비로 保有하려 한다.

② 제29연대장

㉞ 10월8일 12.00~9일 06.00사이에 2개대대를 △255 및 火田포로 이동집결시켜 사단예비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㉟ 10월 9일 20.00~9일 23.00사이에 右一線을 제51연대 1개 대대에 인계하고 △255에 이동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라.

㊱ 10월 9일 06.00附로 제51연대 제1대대는 배속해제와 동시에 原隊로 복귀하라.

③ 제51연대장

㉞ 10월9일 20.00~9일 23.00사이에 제29연대 제1대대의 主陣地를 引受함과 동시에 사단 右一線을 담당하라.

㉟ 10월9일 06.00附로 제29연대 배속중인 제1대대를 인수하라.

④ 제28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30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⑥ 제1포병단장

㉞ 火力의 重點을 △395前面에 두라.

㉟ 10월9일 08.00附로 美제49포병대로써 제51연대를 직접지원케 하라.

⑦ 제53전차중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⑧ 協調指示

㉞ 交代間의 企圖秘匿에 철저히 期하라.

㉟ 交代完了時까지 無電使用을 禁한다.

㊱ 部隊交代는 夜間에 實施하라.

⑨ 사단 前方指揮所는 계속 △255에 位置한다.』

이로써 제29연대는 戰線을 제51연대에 인계함과 동시에 10월 8일과 9일 밤사이에 제1

(장,李大植소령), 제3(장,朴燦剛중령) 兩 대대를 △235와 火田里 지역으로 이동케 하고, 9일과 10일 밤 사이에는 제2대대(장,金慶珍소령)를 △255에 집결시켜 사단 예비로써 逆襲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제29연대의 主陣地를 引受한 제51연대는 CP를 到彼洞에 설치한 가운데, 右一線에 제2대대를 배치하여 右인접 美제7사단과 協調토록 하였으며, 左一線에 제1대대를, 그리고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控置함으로써 사단 右一線의 主抵抗線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7일 17.00이후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이 集計되었다. (10. 9. 17. 00의 中間報告)

戰 果		損 失	
射殺	392	戰死	2/28
捕虜	39	戰傷	28/538

10월 9일(제6차 攻防戰): 전날의 제5차 攻擊에서도 致命的인 出血만을 치르고 潰散하는 1개 연대(+)를 上眞明洞과 長松洞의 2개 方向으로 수습한 敵은 △500에 배치중인 제114사단 이하 제342연대(+2개 중대)를 이날 00.20부터 다시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이에 대하여 제23연대의 3개 대대, 제29연대의 2개 대대, 제30연대의 2개 대대로써 主峰을 固守하였는데 高地北半部인 駱駝稜線이 아직도 收復되지 못하였으므로 主峰에 대한 敵侵의 威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 제6차 攻防戰에 있어서도 我軍支援火力은 제51, 제52, 제50, 제30, 美제213, 美제95의 各 포병대대 및 제9重박격포 중대와 제53전차중대를 主軸으로 하여 17,000餘發의 砲彈을 集中하였으며 美제5공군의 AU機를 비롯한 各 戰爆擊機가 10.20~18.30 사이에 延 53대 出擊하여, 集結地 10개所, 砲陣地 1개所, 전차 1대를 擊破함과 아울러 近接支援을 敢行하였다.

그런데 이 제6차 攻防戰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敵 兵 力	敵의侵襲日時	交 戰 時 間	擊退日時	사단의 投入部隊	備 考
1개 연대 (+2개 중대)	10·9. 03. 00	2시간 10분	10. 00. 30	제30R 1, 3BN 제28R 1, 2, 3BN 제29R 1, 3BN	제29R 1, 3BN 逆襲成功

이날의 氣象은 전날부터 清明하던 날씨가 正午까지 계속하여 觀測 및 航空近接支援이 容易하였는데 下午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觀測에 많은 支障을 주었다.

제6차 攻防戰(10. 9. 00. 20~10. 00. 30)

敵은 前半夜의 23.05에 攻擊梯隊가 또다시 潰散하기 시작하자, 發惡的으로 1,000餘發의 砲火를 집중하여 제28연대 제3대대의 逆襲에 이은 戰果擴大를 阻害하던니 子正이 넘어선 00.20에 右一線 제28연대 제1대대 正面에 1개대대, 主峰의 제28연대 제3대대 正面에 1개대대 左一線 제28연대 제3대대(백속) 正面에 1개 중대가 人海波狀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아. 가운데서도 右一線에 대한 攻擊은 제1, 제3 兩중대의 間隙을 일거에 突破하려는 氣勢였는데 兩 중대는 支援火力의 彈幕射擊과 密接한 阻止射擊으로써 交戰 40분만인 01.00에 擊退하였다. 이 時刻에 左一線에 대한 敵 1개 중대의 攻擊도 대대의 81mm 彈幕에 捕捉되어 粉碎되었다.

가) 제28연대 제3대대의 主峰撤收: 그러나, 敵은 02.05부터 人海 제2波를 大舉 투입하기 시작하였으니, 主峰의 제28연대 제3대대 正面에 1개 대대, 右一線 제28연대 제1대대 正面에 1개 대대, 左一線의 제30연대 正面에 增強된 1개 중대가 支援火力에 觸接하면서 數列縱隊의 波狀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現時刻에 이르기까지의 敵의 攻擊樣相을 一瞥컨대, 그 作戰企圖는 單調로운 主攻軸線을 긋고 있었다.

즉, 主峰占據를 主攻目標로 삼고, 그 左右側方에 대해서는 助攻을 強化하여 我軍의 阻止火力을 分散케 하려는 것이 그 하나이며 主峰占據와 동시에 高地南半部를 短時間內에 完전장악하기 위한 兩翼包圍를 꾀하려는 것이 그 둘이다.

이번의 攻擊도 이 作戰企圖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써 03.30에는 左一線正面에 또다시 1개 대대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主峰에 대한 我軍의 兵力增援을 遮斷하려는 것이 分明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이날 02.50 현재 右一線에 제28연대 제1대대(연대수색중대 배속)를, 主峰를 중심으로 하는 中央右一線에 제28연대 제10중대를 비롯한 제3대대 基幹을, 그리고 中央左一線에 제28연대 제2대대를, 左一線에 제30연대 제1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高地南端의 東側背無名峰에 제30연대 제3대대를 예비로 控置하고 있었는데 각 대대는 共히 전날까지의 5차에 걸친 激戰에서 不勳한 兵力損失을 보았음에도 不拘하고 사단의 신속한 兵力補充으로 다음과 같은 兵力水準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隊	別	將	校	士	兵	計
28R	1BN		23		618	641
"	2BN		26		651	677
"	3BN		28		883	911
29R	1BN		29		713	742
"	3BN		26		727	753
30R	1BN		30		756	786
"	3BN		23		490	513

또한 勞務團에 의한 推進補給으로 각 대대는 彈藥과 食糧에 支障이 없었고 潰損된 陣地를 應急補修하면서, 敵의 제6차 攻勢를 陣前에 맞이 했는데 敵의 集中火力은 戰鬪를 거듭할수록 더욱 增強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右제1선 제28연대 제1대대는 제1 및 제3 兩중대의 陣地間隙으로 파고드는 敵 1개 대대에 대하여 協調된 最後阻止射擊을 집중하면서 2시간에 걸친 血戰을 거듭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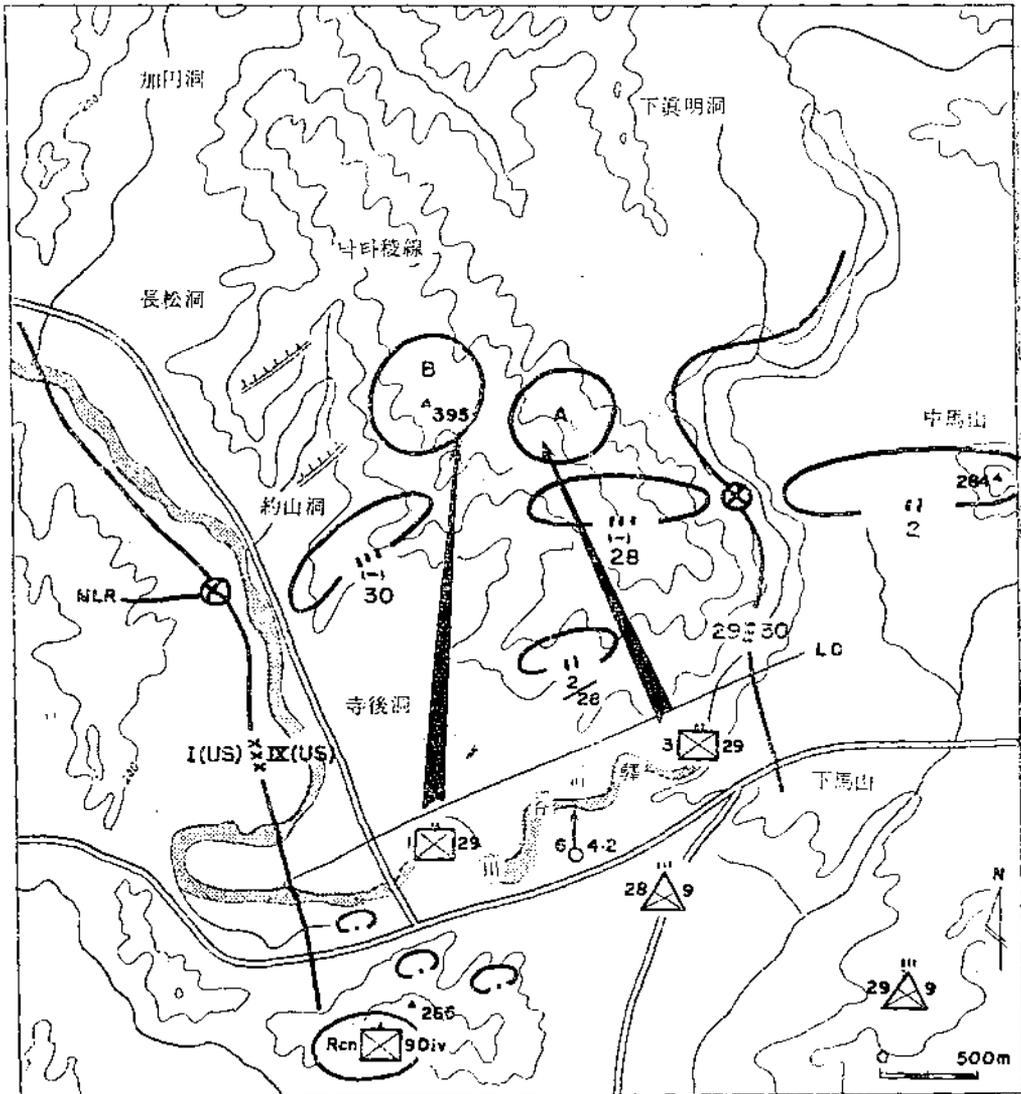
으나 05.00 현재 제3중대의 一角이 무너지기에 이르러 연대장 李周一大령의 命令으로, 東側背稜線에 阻止障地를 急編하여 대대의 陣勢를 수습하였다.

한편, 主峰을 防守중인 제28연대 제3대대는 제10중대를 主峰 主陣地에 배치하여 敵 1개 대대 규모를 邀擊하였는데, 駱駝稜線의 接近路를 매우 듯이 蟻集하는 敵勢는 密集된 彈幕 에도 不拘하고 攻撃을 멈추지 않았다.

대대의 陣前에는 屍山이 쌓이게 되고, 死角을 이용하여 陣內突入을 피하는 敵의 突擊梯隊를 向하여 手榴彈이 亂舞하는 가운데 白兵搏鬪하는 血戰이 소용돌이쳤다.

이러한 死鬪가 20餘分에 걸쳐 벌어지는 동안에도 敵은 有利한 接近路를 이용하여 增援兵力

◇ 상황도 제45호 제6차攻防戰 (10. 9. 03. 00~10. 00. 30)



을 계속 投入하니 대대는 勢不利한 戰況下에서 03.00에 高地南端 中央稜線까지 兵力을 일 단 수습함으로써 主峰을 다시 한번 비우게 되었다.

나) 最後阻止線의 急編: 제28연대 제3대대의 主峰撤收로 因하여 戰況은 急轉直下로 惡化되어, 左一線까지도 緊急 撤收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主峰에 대한 主攻과 併行하여 左一線正面에 1개 대대로 助攻을 피하던 敵은 03.00 현재 主峰正面에 突破口를 形成한 主攻 梯隊가 南斜面으로 초월하기 시작하자 더욱 壓力을 加하였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主峰의 突破口로 侵襲한 敵은 二分하여 1개 梯隊는 東側面의 제28연대 제1대대의 背後로, 1개 梯隊는 제28연대 제3대대의 背後를 衝擊하므로, 主峰 兩側背의 我軍防禦線은 勢不利한 상황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03.50 현재 左一線의 撤收를 단행하여 高地南半部 左端峰에 阻止陣地를 急編케 함과 동시에 落伍者收容線을 驛谷川邊의 寺後洞에 設置하여 副사단장 金東斌대령의 直接指揮下에 落伍兵力을 수습하였는데 06.20 현재 그 兵力 400명으로써 逆襲梯隊를 再編하였다.

한편, 西南端 無名高地에 阻止陣地를 急編한 제30연대 제1대대는 東南端 無名高地에서 敵勢를 邀擊중인 제3대대와 더불어, 高地의 最後阻止線을 固守하면서 제28연대의 逆襲을 掩護하기에 이르렀다.

다) 제28연대 再編梯隊의 逆襲: 寺後洞의 落伍者收容線에서 제1, 제2 兩 대대의 落伍 兵力을 수습한 제28연대는 逆襲梯隊로 急編完了하는 즉시로 06.50을 期하여 逆襲해 나갔다.

그런데, 落伍者收容線에서 이와같이 많은 兵力을 수습하게 된 까닭은 그 大部分이 新兵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訓練所에서 短期敎育을 거치기가 바쁘게 空輸로 補充된 탓으로 所屬隊를 흔히 잃는 경향이 있었다.

이 무렵, 제28연대장 李周一대령은 연대 OP를 牛尾洞(△255 北쪽 1.2km의 野地)으로 推進하여 逆襲梯隊를 急編하였다.

이에 新兵을 主軸으로 하는 이 逆襲梯隊는 南端中央稜線으로 躍進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牛尾洞에 配陣중인 제53전차중대 제1소대의 5개 砲門과 牛尾洞丘陵에 있는 제9重박격포중대(-)의 4.2" 5門, 그리고 高地 中央南端에 있는 제28연대의 제4, 제12 兩 重火器중대의 砲門등을 비롯한 全支援火力이 敵의 急編陣地를 猛打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의 砲火도 漸次로 熾烈하게 되어 07.00 현재 1,600餘發을 集中하므로 연대의 再編梯隊는 主峰中腹의 進出線에서 膠着되고 말았으니 可惜한 일이었다.

그 間에 있어서 戰列을 整齊한 제28연대 제2대대도 09.30에 逆襲을 再起하여 역시 中腹

線까지 進出함으로써 再編梯隊와 合勢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左右一線의 阻止陣地를 強化하기 위하여 右一線 제30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제28연대 제1, 제3 兩 대대에 陣地를 인제케 하고 左一線 제30연대 제1대대와 合勢케 하였다.

이와같이 防守態勢를 다시 가다듬은 사단은 또다시 支援火力으로 高地北半部의 敵을 攻擊하였는데 10. 20에 下眞明洞쪽으로 潰散하는 그 一部兵力이 中馬山里에 있는 제53전차중대에서 能히 望見되었다.

또한, 美제5공군의 각종 戰爆機도 이날 日出이후, 30분 또는 50분 간격으로 出擊하여 近接支援 및 遮斷爆撃을 敢行하던 차에, 曉屋山 南麓에 1개 연대규모의 兵力이 집결중인 것을 발견하는 즉시로 계속 猛撃을 加한 결과, 그 主力을 潰滅시켰는데, 이는 增援次 轉進하려던 中共 제38군 예비 제112사단의 1개 연대(제335연대)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라) 제29연대의 逆襲成功: 그런데 이에 앞서 사단장 金鍾五소장은 이날 새벽에 제51연대에 陣地를 인제하고 사단예비가 되었던 제29연대 主力(제1, 제3대대)을 高地에 投入키로 決心하고, 作命 제87호(9일 07.00부)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諦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豫備隊主力으로써, △395에 침투한 敵을 逆襲으로 격멸하고 主抵抗線을 확보하려 한다.

㉓ 攻擊目標: A(△395 東南쪽 500m의 無名高地)

B(△395)

㉔ 攻擊開始時間: 9일 07. 30

㉕ 攻擊開始線: 高地南端 下麓을 沿하는 線

② 제29연대장

㉖ 예하主力(제1, 제3대대)으로 목표 A, B를 奪還하여 主抵抗線을 확보하라.

㉗ 9일 08. 00부로 제53전차중대의 作戰權을 제28연대로부터 인수하여 통합지휘하라.

㉘ 攻擊間 제28연대와 緊密히 協調하라.

③ 제28연대는 제29연대의 攻擊을 支援하라.

④ 제30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51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⑥ 제1포병단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53전차중대는 10. 9. 08. 00부로 제28연대의 작전지휘로부터 해제와 동시에 제29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⑧ 사단 前方指揮所는 계속 △254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29연대(장, 金鳳喆대령)는 即刻 연대OP를 △255에 추진개설하고, 제28연대 主力(제1, 제3대대)과 제30연대 主力(제1, 제3대대)이 각각 高地 左右南端의 無名高地

에서 敵을 牽制하는 가운데 逆襲을 斷行하게 되었다.

즉, 제1대대(一)(장,李大哲소령)는 09.00에 △266(驛谷川南岸)를 경유하여 LD로 向하였으며, 제3대대(장,朴燦剛소령)는 08.40에 火田를 경유하여 △255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到彼洞을 출발한 수색중대(장,李載大대위)는 08.00에 제1대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제2대대(장,金慶珍소령)는 제51연대와 任務交代중이었으므로 10일 새벽에 △255로 집결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리하여 12.00 현재, 右一線인 제3대대는 제28연대의 配置線에서 左一線인 제1대대는 제30연대의 配置線에서 각각 전개하여 목표 A, B에 대한 支援砲火가 14.05에 延伸됨과 동시에 일제히 LD를 통과하였다.

제3대대는 右제1선에 제9중대(장,徐慶善중위)를, 中央제1선에 제10중대(장,楊正鎭중위)를, 左제1선에 제11중대(장,崔秉瓚대위)를 일제히 내세워, 목표에 대한 攻撃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목표 A는 同一稜線上에 2개의 連峰과 相接하므로, 이 連峰을 거쳐 가야만 하는 각 중대는 熾烈한 自動火器의 火網에 부딪쳐 2시간에 걸친 肉迫戰 끝에 이 連峰을 占領한 즉, 火力據點마다 鐵鎖로 묶인 5~6명의 敵屍體가 無慘하게도 검게 그슬려 있었다.

이와같은 場面은 이 때까지의 여러 高地爭奪戰에서도 수 없이 目睹되었는데, 이 非人道的인 處事는 共產侵略者로서는 茶飯事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였다.

대대는 계속 목표 A로 肉迫하여, 手榴彈投擲距離에서 일제히 投擲함과 동시에 最後發惡하는 火線을 뚫고, 突貫直衝한 끝에 목표 A를 奪還한 다음, 그 餘勢를 몰아 主峰으로 進出하려고 하였으나, 接近路線上에 敵의 砲火가 熾烈하게 집중하므로 戰果擴大를 일단 斷念하였다.

한편, 목표 B(主峰)를 向하여 進出한 제1대대는 攻撃準備射擊의 延伸에 觸接하여 肉迫攻撃을 계속한 결과 15.05에 8部稜線까지 進出하여 無慮 4차에 걸친 特攻組의 決死的인 突入을 敢行한 끝에 頑敵을 掃滅하고 主峰의 主人公이 되니, 이때가 子正무렵의 한밤중이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제29연대의 逆襲이 順調롭게 進展됨에 따라, 그간 主峰防守를 전담하면서 數次에 걸친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28연대 主力을 主峰左一線에 配備함과 동시에 제29연대로 하여금 主峰을 맡도록 하는 作指 제68호(10월 9일 21.00附)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연대 戰鬪地境線의 一部와 部隊配屬을 變更함으로써 △395 防守力을 強化하려 한다.

② 제28연대

㉞ 10월 6일 20.00附로 現主陣地를 제29연대에 인계하고, 中央左一線을 인수하라.

㉟ 同日時附로 제30연대 제1, 제3대대의 配屬을 해제한다.

㊱ 예하 제2대대를 △255로 이동시켜 再編成을 완료하고 別命을 待機케 하라.

③ 제29연대

㉞ 목표 B(△395)를 占領함과 동시에 右一線을 담당,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라.

㉟ 10월 9일 20.00附로 제30연대 제1, 제3대대를 別命있을 때까지 統合指揮하다.

④ 제30연대

㉞ 10월 9일 20.00附로 예하 제1, 제3대대를 제28연대 作戰指揮로부터 解除하여, 同日時附로 제29연대로 배속을 變更한다.』

이로써 사단은 主峰을 탈환한 直後인 10월 10일 00.30현재, 사단 主抵抗線 右一線에 제51연대를, 中央右一線에 제30연대 1개 대대를, 中央左一線에 제28연대 2개 대대를, 主峰을 포함한 左一線에 제29연대 및 제30연대 1개 대대(배속)를 각각 배치한 가운데, 敵의 再逆襲에 대비케 되었다.

10월 10일(제7차, 제8차, 제9차 攻防戰) : 전날 子正무렵에 主峰을 奪還한 제29연대는 即時,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한편, 9일 14.00~10일 01.00 사이에 右一線인 제51연대와 陣地交代를 끝낸 제2대대(장, 金慶珍소령)를 急遽 △255 부근으로 移動시켜 逆襲準備를 갖추게 하였다.

1. 제7차 攻防戰(10. 10. 04. 30~10. 06. 40)

그런데, 前半夜의 激戰에서 最大한 出血끝에 潰走한 中共 제342연대는 再편성을 完了한 듯, 이날 04.30에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길은 濃霧를 이용하여 砲兵支援下에 또다시 反擊을 開始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은 濃霧가 山頂에까지 끼여 戰術항공과 전차포지원 및 砲兵支援이 곤란하여 彈着을 正確하게 유도하지 못하였으므로 계획된 탄막사격만으로 敵의 進路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난 6일 以來 연 4일간 主峰을 차지하고자 6차나 攻擊을 반복하다가 激甚한 出血을 强要당했으면서도 敵의 攻擊은 中斷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敵은 持久戰으로 我軍의 兵力을 소모시켜 끝내 이 高地를 人海로써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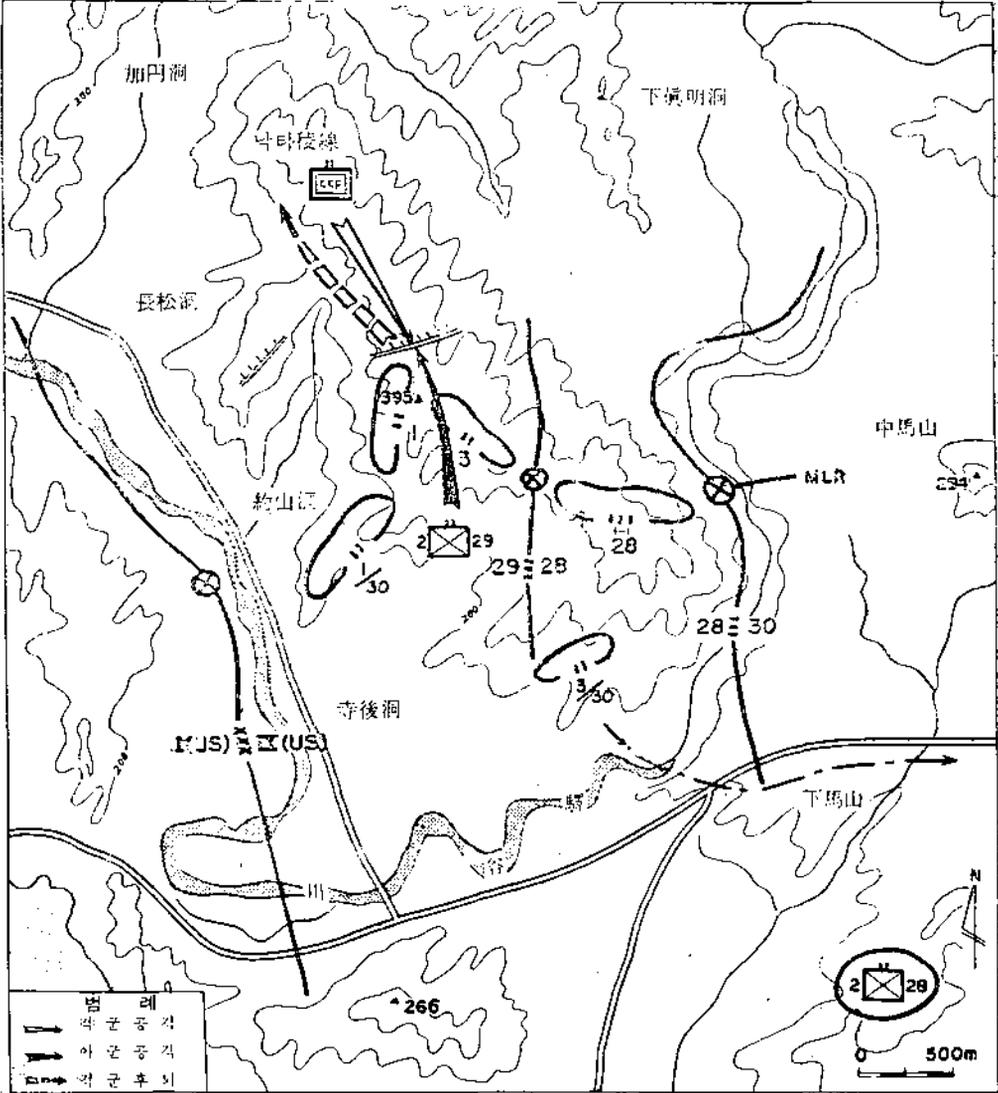
이러는 동안 03.30에 小銃有効射程안으로 들어선 敵은 死角을 따라 포복으로 계속 밀려들기 始作하였다.

제29연대장은 제1, 제3 兩 대대에 진지를 固守토록 하는 한편 △255에 控置하였던 제2대대로 하여금 제1, 제3 兩 대대를 지체없이 赴援하라고 命令하였다.

그 동안 △395의 제1대대 陣前에서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대대는 全力을 다하였으나 波狀的으로 突破를 피하는 敵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침내는 主峰에서 물러나 9部능선에서 兵力을 수습하고 04.20에 반격준비를 갖추었다.

이 무렵, 예비인 제2대대는 △255를 출발하여 驛谷川을 넘어서자 곧 제7중대를 제3대대에 급파하고 主力은 제1대대 진지로 급진하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46호 제7차攻防戰(19. 04. 30~10. 06. 43)



한편, 9部稜線에서 兵力을 수습한 제1대대는 一部兵力으로 敵을 견제하면서 主力은 역습을 개시하였는데 대대는 빗발치는 敵火를 뚫고 突擊線에 이르러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한 다음, 敵陣에 뛰어들어 발악하는 敵을 모조리 죽이고 06. 30에 △395의 頂上을 다시 奪取하니 敵은 동이 틀 무렵 마침내 下眞明洞 쪽으로 潰走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뒤늦게 赴援한 제2대대와 合勢하여 진지를 強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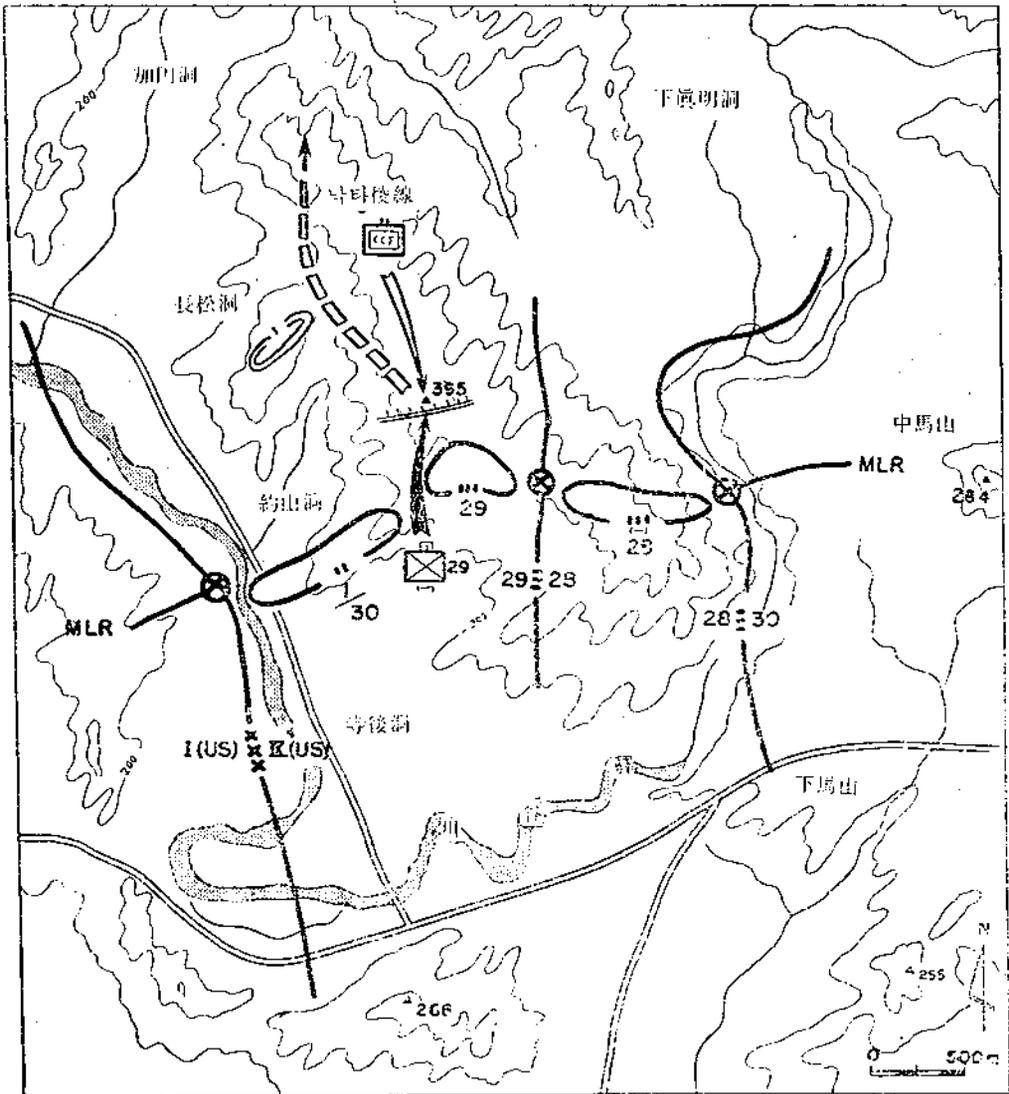
이와같이 戰況이 好轉되자 사단장은 作指 제69號(10월 10일 06. 30부)로써 제29연대에 配屬되었던 제30연대 제3대대를 해체와 동시에 原隊에 복귀시켜 外先里(△255 東南쪽 3km) 부근에서 재편성을 命하였다.

2. 제8차 攻防戰(10.10. 08.00~10. 13.20)

제29연대장 金鳳喆대령은 敵의 執拗한 抵抗을 끝내 물리치고 △395를 再奪還하기에 이르자 곧 예하 대대장들에게 『陣地를 急編하고 예상되는 敵의 逆襲에 對備하라』고 命을 下達하였다.

따라서 左側稜線을 登破하여 06.03에 연대先鋒으로 △395에 直衝한 제1대대(장, 李大哲 소령)는 즉시 제5중대(장, 朴敦埜 중위)와 合勢하여 △395 西쪽 稜線일대에 陣地를 急編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는 後續한 제7중대(장, 金容振 중위) 및 제6중대(장, 元貞鳳 중위)와 協同하여 △395 頂上 北쪽과 東南쪽 稜線 일대를 占領하여 火網을

◇ 상황도 제47호 제8차 攻防戰(10.08.00~13.20)



構成하고 제11중대(장, 崔秉瓚대위)로 하여금 제28연대와 連繫토록 하였다.

그런데 當面の 醜敵은 이들이 미처 陣地를 急編하기도 前에 △395後斜面을 防守하던 제9중대(장, 徐慶普중위) 진지를 目標로 逆襲하므로 또 다시 熾烈한 攻防戰이 再演되어 晩秋의 淸明한 天空을 硝煙으로 가리우게 되었다.

가) 제29연대의 主峰奪還: 이날 제7차戰에서 마침내 潰退萎落하였던 中共제38군(장, 江擁輝)소속으로 밀어지는 敵은 그들 正面의 要衝인 『△395를 攻略하여 我 主陣地 일대를 一擊에 要扼』코자한 當初의 계획을 拋棄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부대를 投入하였으니 이때가 06.40이었다.

이때 △395 北쪽斜面에 陣地를 急編한 제3대대는 제1대대를 뒤따라 △395頂上에 突入即時로 제9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A高地(△395 北쪽 300m)로 推進케 한바 있었는데, 이 敵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陣地를 占領한지 20분도 채 못되어 敵과 交戰케 된 것이다.

敵의 規模는 처음 1개중대로 판단되었으나 漸次 兵力이 增援되어 대대규모로 불어났는데, 敵逆襲에 直面한 제9중대의 前進소대는 直刻 本隊에 敵出現을 알리고 全員 소대장을 中心으로 UNG 斷然코 이 敵을 阻止하기 위하여 一齊射擊을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敵은 一時 소대의 反擊에 주춤한듯 하였으나 곧 自動火器의 集中射로 소대를 요란시키고자 하였으며 삼시간에 소대를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소대는 携帶한 수류탄과 裝填된 彈丸이 全盡 消盡될때 까지 陣前에서 敵을 阻止하다가 07.20에 依命, 本陣으로 撤收하여 原隊와 合勢하고 △395 防守에 專力하였다.

한편 소대의 急報로 敵侵에 接한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은 △395에서 敵情을 銳意 注視하다가 제9중대의 1개소대 병력이 △395로 물러나기에 이르자 이때를 期해 敵을 砲擊으로 粉粹할 것을 決心하고 제52砲兵大隊에 彈幕사격을 緊急 要請하였다.

遲滯없이 실시된 이 砲擊은 앞서 소대가 占領한 急編진지와 그 北쪽 일대의 敵接近路에 105mm M48 信管(瞬發)에 의한 射擊이 10分間 集中的으로 敢行되어 敵이 蟻集한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곳을 連打하였다. 따라서 敵은 이 砲擊으로 많은 損失을 입은듯 한때 沈黙을 지켰으나 砲擊이 中斷된 틈을 타서 다시 공격을 再開하고 △395를 侵奪하려 企圖하였다.

08.00에 시작된 이 敵의 侵攻은 심한 砲擊을 同伴하였으므로, 이미 彼我的 砲火에 박살 나서 利用 가능한 地物이 全無하였던 高地防守대원들을 危殆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敵은 我軍이 잠시 砲擊을 待避하는 사이 2개소대로 推算되는 兵力을 先鋒으로 하여 突然 大대규모가 △395 北쪽일대에 配備된 제9, 제10, 제7중대를 急襲하였다.

또한 當面の 敵은 이사이 △395 頂上 일대에 指向한 集中砲擊을 △395東쪽 稜線과 그 西쪽 稜線일대로 延伸하여 제11, 제6兩 중대와 제1, 제2, 제3, 제5중대의 急編진지를 强打하

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焦土화된 일대가 硝煙과 土塵이 주위 일대를 뒤덮어 視野를 가리고 또한 死傷者가 續出하였다. 따라서 각 중대는 突出한 稜線上에서의 持久가 더 이상 힘들게 되자 高地頂上에서의 戰況을 把握하지 못한채 一旦 9部稜線 遮蔽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高地頂上에서 熾烈한 수류탄 投擲戰에 이어 陣內에 突入한 敵과 肉迫戰을 展開하면서 血鬪를 계속하던 제3대대 主力과 제7중대는 08.15까지 △395를 固守하다가 敵의 砲火가 다시 高地에 雨注되어 상황이 극히 不利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제2대대(-1)장 金慶珍 소령과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은 協議끝에 兵力을 9部稜線으로 撤收시키기로 決定하고 이를 즉시 實行하였으니 △395는 다시 敵이 掌握하는 바가 되었다.

9部稜線에서 다시 진지를 急編하고 敵情을 觀望하던 兩 大隊長은 잠시 敵砲火의 間隙을 利用하여 高地上的 敵을 逆襲키로 決心하고 제9, 제10, 제7중대를 基幹으로 09.40에 突擊隊를 編成하였다.

準備를 마치자 砲兵大隊에 要請한 制壓사격이 10분간 실시되어 △395頂上을 다시 强打하자 이들은 10.30를 期하여 一齊히 高地頂上을 向해 登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 또한 高地에 殘存한 兵力을 督戰하여 亂射와 수류탄 投擲을 서슴치 않았으므로 突擊은 頓挫되고 다시 9部稜線으로 不得已 철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反復하기를 세번, 끝내 頑強히 抵抗하는 敵으로 말미암아 損失만이 加重되자 연대장 金鳳喆 대령은 12.00에 제2, 제3 兩 대대장에게 『特攻隊를 조직하여 △395를 奪取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奮發한 兩 대대장은 곧 △395 東側 9部稜線에서 진지를 急編한 제6, 제7, 제9, 제10, 제11의 5개중대에서 각기 10명씩의 決死隊員을 選拔하여 이들에게 『△395頂上の 敵據點을 制壓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제6, 제7, 제9의 3개중대 決死隊가 敵陣을 直衝하고 13.20에 據點에서 發惡하는 敵의 重火器를 마침내 制壓하는데 成功하니 殘敵의 무리는 後續한 他中隊의 決死隊員에 의해 鏖殺을 免치 못하였다.

특히 이 決死隊의 공격에서 제7중대 제3소대장 宋寅吉 소위는 陣頭에서 決死隊를 指揮하여 巧妙히 敵彈을 避해 敵陣에 突入하고 唐慌하여 潰退하는 敵에게 달려들어 3명을 射殺하였는데, 瞬間 이를 본 다른 決死隊員도 敵을 連續으로 擊滅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 戰鬪에 加入한지 3번째로 △395를 되찾게 된 제29연대는 곧 決死隊를 增援하여 高地에 進入한 主力으로써 다시 진지를 急編하고 제11중대로 하여금 敵을 追擊토록 하여 △395 頂上을 되찾은 感激的인 이 一瞬을 狙사단 장병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395 頂上일대에는 150具의 敵屍가 累累하여 이 전투의 淒絶한 局面을 露呈하고 있었다.

나) 제30연대의 △255集結 : 한편 이날 敵侵이 再開되기 直前인 06.30에 下達된 사단作指 제69號로 제29연대에 一時 配屬되어 兵力을 △395 南쪽 1.2km인 牛尾洞 맞은편 溪谷

에 집결한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 제3대대(장, 趙南國 중령)는 同時附로 配屬이 配제되어 原隊로 복귀되자 곧 徒歩기동으로 下馬山 經由 外村里로 向發하여 進入하였다.

또한 연대는 이날 11.00에 下達된 사단 作指 제70號로 제29연대가 △395에 戰力을 集中하는 동안 제29연대 제1대대와 連繫하여 驛谷川에 이르기 까지 사단 最左翼에 전개된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도 이날 10.30부로 제29연대장의 統制를 벗어나 同 陣지를 사단 搜索中隊(장, 姜章憲 대위)에 引繼하고 즉시 △255(下馬山 南쪽 高地)부근으로 집결한 다음 부대를 再編하면서 命을 待機하였다.

이어서 同 연대는 11.30에 示達된 사단 作指 제71호로 예하 제2대대(장, 金祥玉 소령)가 單獨 방어하는 驛谷川 以東의 廣正面 主 저항선을 20.30까지 제28연대 제2대대(장, 金祥玉 소령)에게 引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早期에 斷行한 同 대대가 △255부근으로 다시 집결케 되자 이로써 연대의 總力이 合勢되어 이날 △255부근에서 次期전투를 위해 待機케 된 것이다.

나) 제28연대의 中央配備 : 연대는 제29연대가 이날 子正부터 △395에서 敵과 死鬪를 계속하는 동안, 사단 中央제 一선을 예하 2개 대대로 이를 占領하여 제29연대의 右側 陣지를 堅守하던 바 이날 下命된 사단 作指 제71號로 제30연대 제2대대 陣지를 예하 제2대대로 하여금 引受케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 配屬下에 最右翼을 담당한 제51연대(장, 全富一 대령)와 連繫하므로써 예하의 3개대대가 모두 中央제 一선을 占領하게 되어 연대로서의 예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라) 사단 수색중대의 增援 : 사단 作指제70호가 11.00에 示達되자 사단수색중대(장, 姜章憲 대위)는 집결지로 부터 곧 驛谷川을 건너 前方 主陣지로 機動하고 제30연대 제1대대 陣지에 進入한 다음 제29연대에 배속되어 陣지를 同 연대 제1대대로부터 引受하고 右側 제29연대 제1대대와 戰線을 連繫한 다음 同 陣지를 補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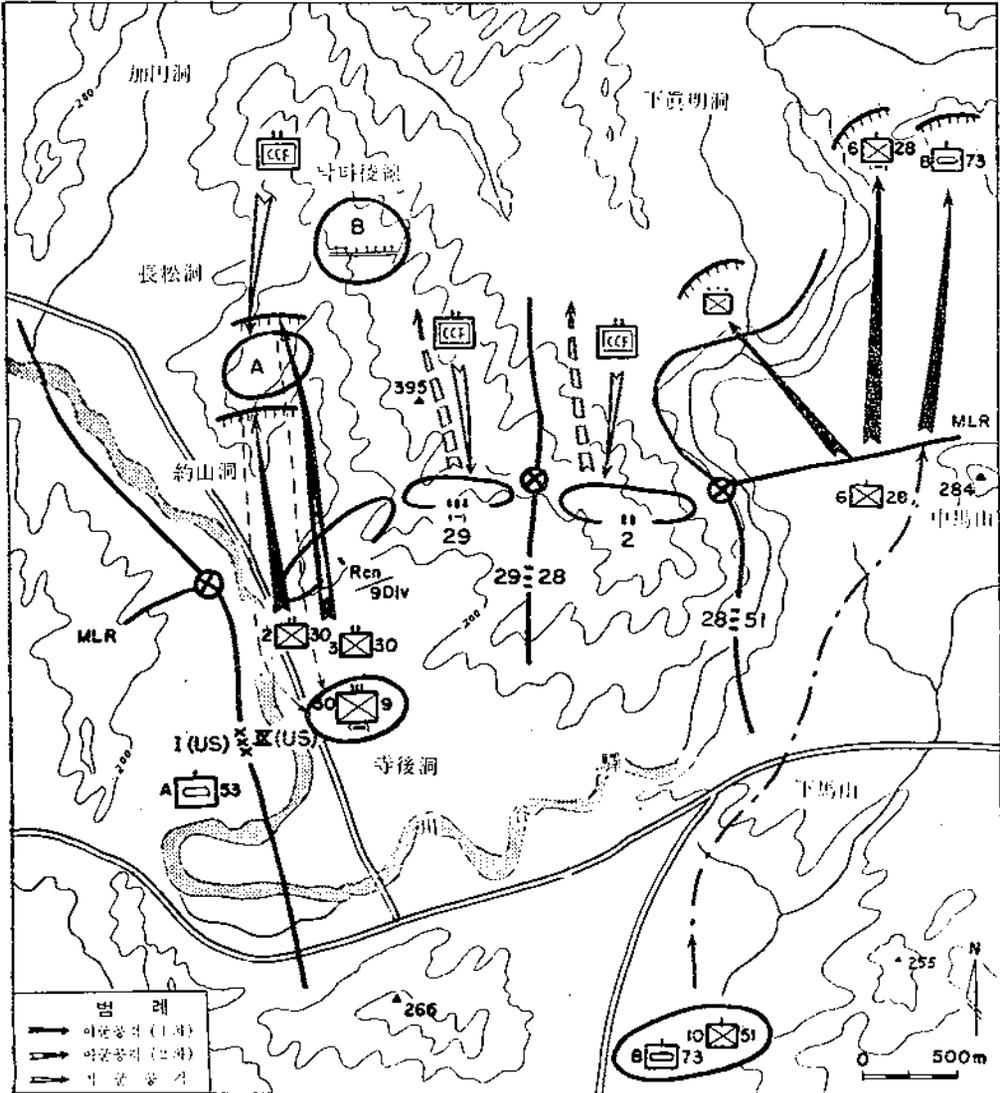
마) 제53 戰車중대의 火力支援 : 한편 사단장 金鐘五 소장으로부터 09.00에 『제29연대를 사격으로 支援하라』고 命을 받은 제53戰車중대(장, 趙七星 대위)는 이날 즉시 예하 제2, 제3 兩 소대를 俗稱 널다리에서 出動케 하여, 當時 제30연대 제2대대가 防守하고 있는 中馬山부근 △284 左側에 前進케 하여 主火力을 △395일대에, 그 一部火力을 △396(下眞明洞 : △395北쪽 2km)에 各各 指向하고 HE彈 및 Cal 50에 의한 사격으로 敵陣과 그의 增援이 △395에 加해지지 못하도록 全量의 彈丸을 消盡할 때까지 사격을 실시한 다음 12.00에 撤收하였다.

뒤이어 제4소대는 別命으로 11.30에 집결지인 △362(△255 南東쪽 2km)부근에서 發進하여 12.00에 俗稱 널다리의 중대 집결지로 進入하고 중대(-)와 合勢하였다.

3. 제9차 攻防戰(10.10.15.20~11.12.04)

제29연대의 銳鋒이 △395를 再奪還한 것은 이날 13.20이었으나 敵은 一時 이때에 潰退

◇ 상황도 제48호 제9차 攻防戰(10.10.15.20-11.12.04)



하였을 뿐, 그들은 이時刻부터 逆襲을 또다시 꾀하고 있었다.

當時의 사단 正面은 제51연대—제30연대 제2대대(제28연대 제2대대와 진지 交代中)—제28연대(—1)—제29연대—제30연대 제1대대(제29연대에 배속)(사단수색중대와 진지교대 준비中)가 전개되었으며 △395에는 如前히 제3대대—제2대대—제1대대가 配備되어 敵의 逆襲에 對備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395에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11.45에 出擊한 戰爆機(AU 20대, AD 12대, F51 4대, F84 4대)가 △395 北쪽 稜線일대와 △396일대의 敵의 主陣地에 대한

폭격을 마치고 13.35에 南쪽으로 機影을 감추자 또다시 △395 前面에 出現한 敵과 血鬪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가) 제29연대의 苦戰: 연대가 △395를 再奪取할 때 부터 反擊 初動이 시작되었던 當面의 敵은 14.10에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395 北쪽 1.5km 稜線에 增強한 것을 비롯하여 14.15에 我軍追擊으로 A진지(△395 北쪽 200m)로 退散하여 潛跡한 1개대대규모의 병력으로 △395를 다시 공격하여 이를 侵奪코자 획책하였다.

그들은 15.20에 攻擊信號로 판단되는 綠色 信號彈 5발을 發射하고 10분後에는 △395 後斜面に 전개된 제2대대(장, 金慶珍 소령)陣前에 殺到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는 대대장의 固守命令에 따라 全員 담당 진지를 堅守카로 다짐하고 急編한 火網으로 鐵火의 洗禮를 퍼부었는데, 敵은 敢히 이를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 增強된 人力을 바탕으로 人海戰術을 慣用하는 敵은 逐次공격을 피하였으며 마침내 제2대대 陣前 50m까지 肉迫하였다.

이와 같은 血戰이 2시간반 계속되었으나 제2대대는 이에 屈하지 않고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수류탄 投擲거리에 出現하였음을 確認하자, 高地를 登破하려는 敵兵에게 鐵火를 가하니 이때가 18.00이었다. 따라서 戰鬪는 彼我的 수류탄戰으로 變貌하여 이로부터 15분간 經過하는 사이 彈藥이 떨어진 제7중대(장, 金容振 중위)는 제一線에서 後退하고 말았다.

敵의 侵攻을 支援하는 砲火가 高地頂上에서 炸裂하고 제2대대가 苦戰하게 되자 隣接한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는 連繫한 예하중대로 하여금 즉시 이를 扞援하여 △395로 突入하려는 敵을 阻止코자 하였는데, 19.30에 이르러 이들 부대는 다시 集注되는 砲擊의 도움을 얻어 진지 一角을 뚫고 侵透한 敵으로 말미암아 內迫戰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사이 兩개대대로 부터의 通信은 杜絶되었다.

이로부터 제2, 제3 兩대대의 戰況은 中斷되었으며, 또한 敵이 △395를 侵奪한 時刻도 明確치 않으나 뒤에 把握된바에 따르면, 제2, 제3 兩대대는 다시는 △395를 敵에게 뺏기지 않으려 敢鬪하다가 상황이 극도로 不利하여 더이상의 支撐이 어렵게 되자 제3대대는 △395 東쪽 稜線으로, 제2대대는 中央稜線으로, 그리고 右側에서 진지를 堅守하던 제1대대는 사단 作指 70號로 연대에 配屬되어 진지를 占領한 사단 搜索중대 진지로 隨意撤收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지음 我軍의 撤收로 氣勝한 敵이 △395를 超越하여 제2, 제3대대를 追擊코자 하므로, 이를 看過할 수 없었던 兩 대대장은 일부 兵力을 抽出하여 이들에게 『대대의 運命은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全員 奮發하여 敵을 反擊하라』고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主力이 撤收하는 가운데 이들 兵力은 20.30에 一齊히 되돌아 敵을 逆襲하기에 이르니 敵은 마침내 追擊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2.50에 사단이 確認한 제29연대의 配備는 제3대대가 △395 東南쪽 500m 稜線

일대에, 제1대대가 △395 西南쪽 600~700m 稜線일대에, 그리고 敵과 死鬪를 되풀이 한 제2대대는 △395에서 900~1,000m 거리에 있던 대대 OP 부근에서 撤收하는 兵力을 收容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대장 金鳳喆 대령은 이에 연대가 △395를 固守하지 못한 責任을 痛感하고 期必코 이를 占領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決意로 제2대대장 金慶珍 소령에게 『部隊 再編 즉시 敵을 逆襲하라』고 怒號하였다.

따라서 戰死傷者를 後送조치하고 彈藥을 再推進 보급하는등 戰列를 갖추자 제2대대장은 精兵인 제6, 제7 兩 중대를 指揮, △395 南쪽 2개 方向에서 23.20에 一齊히 砲支援을 받아 頂上을 向하여 躍進하기 시작하였다.

이속고 대대(-)는 60mm, 81mm 박격포와 重機의 掩護아래 焦土의 山谷을 포복으로 一進 또 一進하여 드디어 敵의 十字火網을 뚫고 23.50에는 頂上 50m거리로 肉迫하고 수류탄 投擲거리에 進出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高地를 占據中인 敵이 我軍砲擊이 연신되는 것을 기다려 伏兵과 合流한 다음 自動火力을 집중하고 또한 수류탄을 투척하므로써 대대(-)의 夜間逆襲은 奇襲의 効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膠着되어 不得已 各個철수를 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原位로 복귀하여 부대를 再編하면서 제3, 제1대대와 다시 連繫하여 계속 敵의 侵透에 대비하게 되었는데, 이 즈음 연대 左제1선에 配備된 사단수색중대(배속) 前面에 敵이 出現하므로 이를 阻止격멸하려는 중대와의 사이에는 熾烈한 사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나) 사단장의 措置 :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제29연대가 이날 13.20에 △395를 再奪還하자 곧 勝勢를 돌아 長松洞(△395 西北쪽 2km부근)으로 突出한 無名高地를 占據中인 數未詳의 敵을 擊碎하여 後患을 除去키로 決心하고 16.00에 作指 제72號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예비대로 하여금 목표A(長松洞 無名高地), B(△395北쪽 1km)를 공격하여 이를 確保하고 △395부근에 侵入한 敵을 完全 殲滅하려 한다.

② 제30연대장

㉞ 1개대대 병력으로 목표 A.B를 공격하여 敵을 殲滅하라.

㉟ 1개대대 병력으로 하여금 △395에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또한 잔여 1개대대 병력을 공격제대의 예비대로 控置하라.

③ 제51연대장은 1개중대 병력으로 戰車와 協同하여 이들의 사격을 壓迫하라.

④ 제1砲兵단장은 火力의 重點을 제30연대 攻擊正面에 두라.

⑤ 제73戰車대대장은 A중대로 공격제대를 지원하고 이들 進出에 따라 사격方向을 左側으로 指向하라.

⑥ 工兵대대장은 戰車기동路上의 지뢰를 除去하고 이를 유도하다.

⑦ 공격개시는 11.08.30으로 한다.

⑧ 各隊는 對空標識板 사용을 철저히 이행하라.』

이상의 指示로 다음날 A, B 高地를 공격하게 된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이날 사단 作指 제71號(10.11.30)에 의거 20.00에 예하 제2대대(장, 金祥玉 소령)가 담당진지(주저함선)를 제28연대 제2대대(장, 尹永模 소령)에게 引繼完了 한 다음 22.30에는 徒歩로 △255부근에 집결하게 되었다.

다) 제28연대의 右一線固守 : 한편 사단 作指 제71호로 20.00에 사단 中央 右제一線 主抵抗線진지를 제30연대 제2대대로 부터 引受한 제28연대 제2대대(장, 尹永模 소령)는 진지를 引受하자 즉시 제7, 제5, 제6중대 順으로 兵力을 전개하였으며, 右는 제51연대(장, 全富一 대령)와 連繫하고, 左는 제1대대(장, 金三曾 대위)와 連繫하여, 以後 夜陰을 이용한 敵襲에 對備하여 중대별로 1개분대의 潛伏隊를 陣前에 配置하여 경계를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제29연대 右側 稜線을 包含한 △284등의 要部와 鐵原平野의 一部지역을 방어하면서 △395의 敵情을 注視하게 되었다.

라) 사단수색중대에 대한 敵의 夜襲 : 이날 14.30에 제29연대에 配屬되어 사단 最左제1선 主抵抗線 진지를 제30연대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와 交代한 사단수색중대(장, 姜章燾 대위)는 진지를 占領하자 前方 長松洞 無名高地에 配置된 것으로 보이는 規模를 알 수 없는 敵情을 관찰하면서 右는 제29연대 제1대대와, 그리고 左로는 美제2사단 예하부대와 連繫하였다. 20.00에 △395를 喪失한 제29연대 제1대대가 중대진지부근으로 撤收하므로 이들과 協力, 稜線을 따라 夜間에 은밀히 侵透할 것이 예상되는 敵과의 一戰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子正에 이르러 前面의 野地를 건너 數未詳의 敵이 出現하므로 彼我的 사격전이 이로부터 展開되었다.

마) 砲·戰·空의 제29연대 支援 : 이날 제29연대가 △395를 再奪取하므로써 戰車중대 4개소대가 모두 중대진지로 집결하고 부대 정비와 休息을 取할 수 있었으나, 敵의 侵攻이 △395에 다시 加해지자 사단 指示로 제29연대를 火力으로 支援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18.30에 同 중대 제2, 제3 兩소대는 出動命令이 下達되자 즉시 사격진지로 定한 △284 西北쪽(中馬山 부근)으로 前進하여 19.00부터 △395에서 奮戰하는 제29연대를 사격으로 支援하고 敵陣 △396을 強打하기 시작하였다. 同 중대의 제4소대는 △395南쪽에서 제29연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18.45에 牛尾洞에 進入하고 진지 占領後 계속 이곳에 潛伏하여 支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同 중대는 이날 하루동안 890발의 HE彈과 8,000발의 重機彈을 射耗하였다.

한편 제29연대를 직접 지원중인 제1砲兵團 예하의 제52포병대대는 이날 제압 및 공격 준비 사격등 하루종일 連續된 支援임무로 各砲身의 熱氣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날 집계된 發

射彈數는 總 6,901발(M48—6624, M54—85, VT—192)에 達하였으며, 한편 이날 敵陣과 예상되는 粘結지에 加한 항공폭격은 500LBS폭탄 6개, 250LBS 폭탄 48개, 네이팜탄 43개에 이르렀다.

10월 11일 (제9차 제2일, 제10차 攻防戰) : 이날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사단수색중대(제29연대 배속)正面에 出現한 敵이 중대의 집중화력에 制壓되어 潰走하자 早朝에 △395를 奪取코자 戰意를 불태우고 있는 제29연대를 增援하기로 決心하였다.

따라서 그는 △391(제51연대지역)에서 홀로 本隊와 떨어져 있는, 같은 연대의 제2중대(장, 文榮滿 대위)를 △391 防守임무에서 즉시 解除하였는데, 이들은 곧 연대 예비대로 01.50에 △255부근의 陣지를 占領하였으니 제29연대는 必로 소 全력이 모이게 되었다.

이날 03.00에 이르러 제28연대 正面에서 △395 東麓을 따라 은밀히 侵襲한, 敵을 알 수 없는 敵으로 말미암아 交戰케 되고, 또한 제29연대가 接敵하여 戰鬪가 再開되자 金鐘五 소장은 前날 16.00에 下達한 作指 제72號를 修正指示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① 제28연대장

가) 예하 一部병력(1개중대)을 △245(제2대대 正面 1.4km : 中馬山北쪽)와 △396 南쪽 1.6km에 配備하고 08.00부터 △396에 대하여 사격을 加하여 제29, 제30 兩개 연대 공격을 欺瞞하라.

나) 예하 1개대대병력(제3대대)으로 敵을 反擊할 수 있도록 待機케 하라.

다) 陽動부대는 책임중대장을 指定하라.

② 제30연대장은 공격梯隊를 제외한 예하 2개 대대를 待機시켜 반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同時에 공격梯隊증원에 萬全을 期하라.

③ 제53戰車중대장은 예하 2개소대로 하여금 指定된 2개소를 占領케 하고 △396을 砲擊하라.』

이리하여 사단은 제9차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29, 제30 兩 연대의 反擊을 시작하여, 제29연대는 12.04에 △395를 再次 奪取하는데 成功하고, 제30연대는 뒤이어 목표 A를 占領하였으나 또 다시 逆襲을 企圖한 敵으로 말미암아 激戰(제10차 攻防戰)이 熾熱하게 전개되어 12일까지 계속되었다.

가) 제29연대의 主峰再奪還 : 前날부터 △395에서 南쪽 稜線을 따라 侵攻하려는 敵에 대비하여 △395 南麓 8部稜線에서 陣지를 急編한 제29연대는 이날 사단 指示로 제2중대가 연대로 復歸하자 이 중대를 연대 CP부근에 控置케 하여 예비로 하였는데, 03.00에 이르러 제3대대 正面에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出現하므로 彼我的 接戰이 또다시 激烈하게 전개되었다.

敵은 이時刻에 我軍을 △395에서 完全擊退시킬양으로 제28연대 左제1선에 대한 同時 공격을 敢行하고 제3대대가 占領한 東南쪽 稜線을 타고 夜陰을 利用, 我軍陣지를 直衝코자 한것이다.

그러므로 제3, 제2 兩 대대는 이에 즉시 一齊히 銃擊을 加해 敵을 邀擊하였는데, 이 敵은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때 제2대대장 金慶珍 소령은 연대장으로부터 『△395에 突擊하라』는 命을 받고 있었으므로 곧 △395 南쪽 中央稜線 下端에서 再編中인 제5중대(장, 朴敦採 중위)를 挺進케 하였다.

04.05에 공격을 시작한 이 중대는 중대장 朴중위의 陣頭지휘밑에 집결지를 떠나 左側稜線을 登陴하였는데 高地 일대를 占據中인 敵의 심한 火力으로 釘着을 免할 길이 없었다.

대대장 金慶珍 소령은 날이 밝자 더이상 遲滯할 수 없어서 熊心하기 이틀에 없었으나 07.00에 天明과 더불어 한때 제3대대 제11중대 正面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2개 중대규모의 敵이 退散하고, 또한 이무렵 제5중대의 反擊을 阻止하던 △395占據의 敵主力이 我軍砲擊으로 潰走하는 氣色이 뚜렷하였다.

大隊長은 09.00에 제6, 제7 兩중대로 하여금 제5중대를 增援케 하고 △395를 指向하여 戰力을 集中하였다. 이때 我軍의 砲火는 良好한 관측으로 △395 頂上과 그들 增援을 阻止하고 또한 그 北쪽능선을 계속 遮斷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395 東쪽 능선에서 急編진지를 占領하던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도 10.20에 逆襲을 開始하니, 我軍의 強力한 집중 砲擊에 潰滅狀態에 陷入된 敵은 最後의 發惡으로 逆襲하는 我軍正面에 탄막사격을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因하여 제2, 제3대대는 한때 공격이 頓挫되기도 하였지만 數次 突擊을 되풀이 敢行한 끝에 先鋒으로 △395頂上에 突入한 제6중대(장, 元貞鳳 중위)가 드디어 쓰러진 敵屍로 山巒을 메운 △395를 되찾았으니 바로 이때가 12.04이었다.

나) 제30연대의 목표A 一時奪還 : 사단 作指 제69, 제70, 제71號로 예하 3개 대대가 모두 一線에서 벗어난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이날 각대 별로 後方에 集結하고 作指 제72號에 따른 공격을 준비하였다.

즉,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는 전날 10.30부로 제29연대 배속이 해제되어 이로부터 △255부근에 집결하여 부대를 再編하고, 제2대대(장, 金祥玉 소령)는 같은 △255 西쪽 1km 부근에, 그리고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는 外先里(中馬山 東쪽 1.5km)에서 각기 次後 임무에 即應키 위하여 부대를 整備하고 있었다.

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04.00부로 示達된 作指 제72號의 修正指示로 『2개대대를 待機시켜 △395에 대한 反擊을 준비하고 同時에 공격梯隊를 增援』토록 하기 위하여 제2대대를 攻擊제대로 하고 예하 3개대대장에게 즉시 『寺後洞으로 兵力을 集結케 하라』고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兵力을 모두 推進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대는 04.30에 一齊히 徒歩로 07.00에 사단수색중대가 防禦하는 主抵抗線 부근에 進入하게 되었다.

먼저 攻擊부대로 選定된 제2대대는 곧 指定된 LD(주저항선)를 占領하고 08.30에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한 155mm(美 제213포병대대), 105mm와 戰車砲의 支援밑에 躍進하니 이 지음 사단은 쏜연대가 主峰을 中心으로 싸움을 전개한 셈이 된 것이다.

A목표(長松洞에 突出한 主峰줄기상의 高峰)를 指向한 대대의 공격은 敵의 抵抗이 輕微한 까닭으로 1시간 後에는 A목표 前方 500m에 進出할 수 있었으나 이때를 期해 集中된 敵의 砲火로 대대의 공격은 膠着되고 損失이 막심하였다.

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LD上 高峰에 設置된 연대 OP에서 상황을 觀察하다가 대대의 前進이 不振하게 되자 곧 新銃을 再投入키로 決心하고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에 『제2대대를 超越 A高地(목표)를 奪取하라』고 號令하였다.

이렇게 하여 11.40에 제2대대가 進出線에서 敵을 계속 牽制하는 가운데 제3대대는 즉시 LD를 占領한 다음 12.40에 여기에서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의 제2, 제3 兩 대대는 合擊으로 이날 15.45에 難戰끝에 목표 A를 占領하게 되었으나 곧 시작된 敵의 反攻때문에 이날 다시 이곳을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主峰東南側方 확보 : 한편 사단作指 제72號 修正으로 제29, 제30 兩연대의 공격을 陽動케 된 제28연대(장, 李周一 대령)는 이날 사단 中央—線의 廣正面을 담당하고 主力로서 △395 東쪽 일대 綫을 제29연대와 連繫하고 있었는데 03.00에 이르러 제9중대(장, 鄭炳烈 중위)가 防守하는 진지 前方에 1개대대 규모로 推測되는 驕敵의 무리가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연대는 진지를 固守하고 火力으로써 敵을 阻止하기에 發奮하였으나 攻者와 防者 사이에는 熾烈한 交戰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싸우기 1시간, △395 右側方을 迂回 侵透코자 한 敵은 마침내 계속 增援되는 我軍의 鐵火를 감당할 수 없었던지 많은 損失만을 낸 끝에 04.30에 北쪽으로 敗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장 李周一 대령은 즉시 제2대대장 尹永模 소령에게 『1개중대 兵力으로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出擊하는 戰車를 掩護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李世根 중위)는 依命, 제3소대를 急遽 出動토록 하였으며 한편 제7중대는 2개소대 兵力으로 出陣하는 戰車를 엄호하였는데, 05.10에 제5중대 제3소대는 △395 南쪽 1.5km까지 進出 潛伏하고 제7중대는 05.45에 △245(中馬山 北쪽 2km)에 進出하여 진지를 占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대는 사단作指 제72號 修正指示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05.00에 제5중대에서 1개소대, 제6중대에서 2개소대를 다시 △245로 進入시켜 제29, 제30 兩연대의 反擊에 따른 陽攻을 敢行케 함으로써 이날을 보냈다.

이로써 이날 正午를 前後하여 △395정상을 다시 手中에 넣게 된 제29연대의 제2, 제3 兩 대대는 그 北麓에서 阻止진지를 급편하려는 소대 규모의 敵을 剔抉하는 一方, 진지의 側面に 착수하였는데 13.00에 B고지쪽으로 潰走하던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역습코자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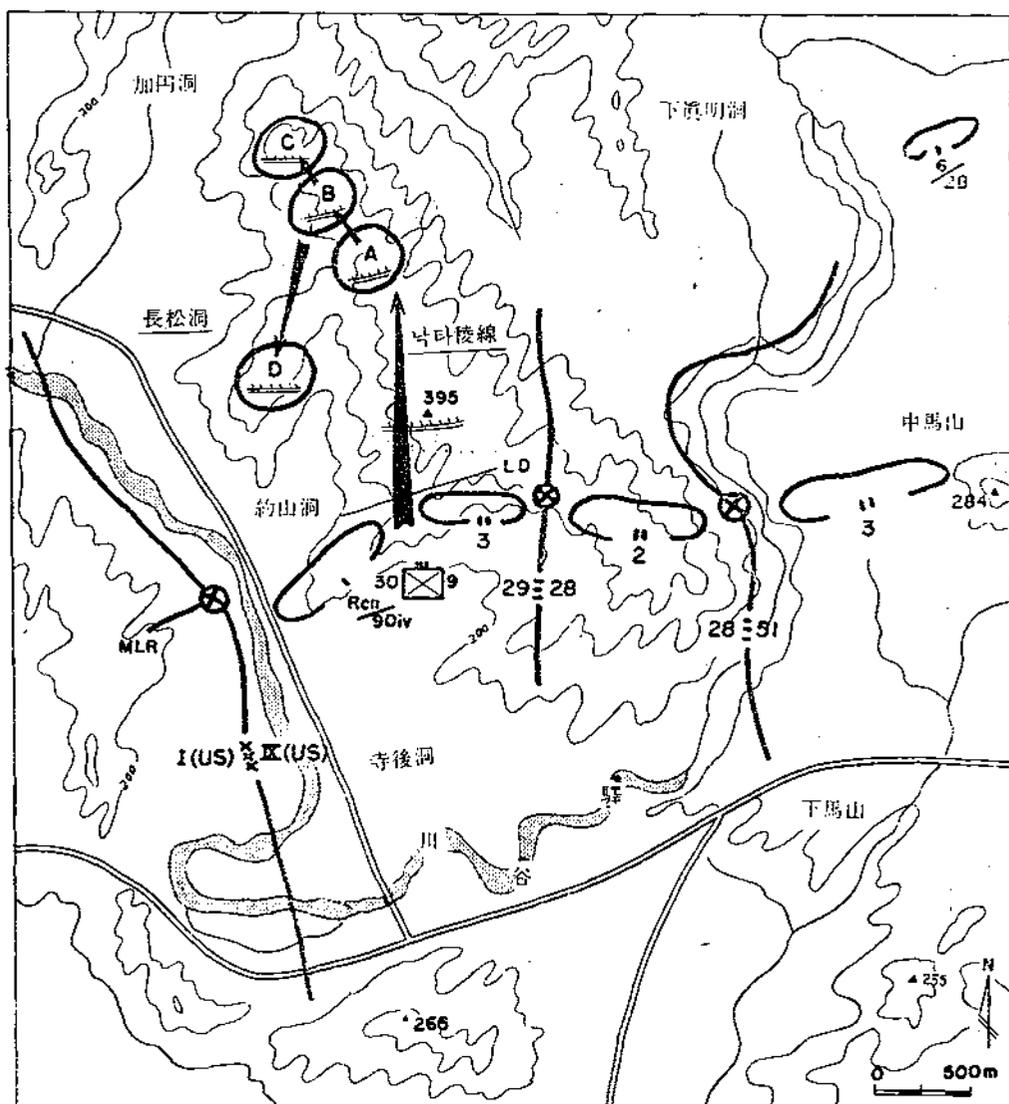
가 △395정상 北麓 100m에서 제2대대와 격돌케 되었다.

제10차 攻防戰(10. 11. 16. 20~12. 13. 20)

이리하여 제2대대의 先鋒에 섰던 제6중대는 敵과 鐵火를 주고 받게 되었는데 이동안 연 대장 金鳳喆 대령은 △395정상에 제1대대를 배비하고 그 南쪽 능선에 제2대대 主力을, 그리고 東南쪽 능선에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이 △395의 확보에 注力하였다.

이리하여 이제 △395정상 확보의 重任을 맡게 된 제1대대(장, 李大哲 소령)는 대대 OP를 정상으로 추진하였으나 15.30부터 敵의 포화가 集中하기 시작하더니 16.20에 下眞明洞 쪽(△396)에서 西南으로 向한 敵 1개대대 규모가 西北쪽 능선의 敵 일단과 합세하여 17.

◇ 상황도 제49호 제10차 攻防戰(10. 11. 16. 20~12. 13. 20)



40에 △395정상으로 들어닥쳤다.

이들 敵이 능선 정면의 제2중대 진지에 손실을 돌보지 않는 저돌적인 波狀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 중앙 정면의 집중돌파를 시도하였는데, 제2중대가 陣內로 뛰어든 敵과 백병 난투를 벌인 끝에 力不足으로 진지의 일각을 失守하고 말았다. 이어 突破口를 확대한 敵이 정상으로 쇄도하여 수류탄의 爆焰을 난무케 한 까닭으로 기어코 다시 이를 敵에게 내어주게 되고 말았는데 이 衝擊波가 左右의 제2, 제3 兩 대대에도 波及되어 그도 또한 敵勢를 감당치 못하게 되어 20.00에 각각의 下麓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은 제2, 제3 兩 대대로써 고지 中腹에서 東쪽 제28연대 제2대대와 西쪽 사단 수색중대에 連繫한 일련의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정상의 敵을 견제케 하는 가운데 제1대대의 전열을 수습하여 지체없이 역습을 감행토록 하였다.

제51연대의 전선확대: 이날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제51, 제28, 제29의 3개연대를 일선에 배치한 陣容에 대한 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作指 제73호(11일 11.00부)를 하달함으로써 중앙일선 제28연대의 전투 정면을 축소하여 驛谷川 東岸지역을 右一線 제51연대에 인계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날 밤 20.00에 제51연대(장, 全富一 대령)는 제3대대로써 제28연대 제2대대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同 제28연대 제2대대 : 21.30에 △255부근의 예비진지에 집결)

이로써 연대는 驛谷川 西岸의 △395고지 일원을 제외한 사단의 소전선을 담당케 되었다



<작전지휘하는 제29연대장 金鳳喆대령>

10월 12일(제10차 제2일, 제11차 및 제12차 제1일 攻防戰): 전날 밤 △395 ㉠가 다시 敵의 수중에 넘어가자, 사단장 金鍾五 소장은 02.30에 作命 제78호를 하달하여, 제30연대로써 다시 한번 승패를 가름하기로 決心하였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일부 兵力으로써 목표 ㉠, ㉡, ㉢, ㉣를 점령하려 한다.

㉠ 공격목표 ㉠ (△395 西北쪽 700m, 종전목표 B)

㉡ (㉠ 西北쪽 300m)

㉢ (㉡ 西北쪽 300m)

㉣ (△395 西쪽 900m 長松洞 南쪽고지, 종전목표 A)

㉠ 공격개시시간: 10. 12. 08.00

㉠ 공격개시선: 제29연대 현 진지선

② 제30연대는

㉠ 목표 ㉠-㉡-㉢를 축차 攻擊하여 이를 점령하라.

㉡ 목표 ㉠-㉡-㉢를 확보하면, 목표 ㉣를 탈환하라.

㉢ 공격간 공병 1개중대를 병합 지휘하라.

③ 제29연대는 현 진지에서 제30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1포병단은 별도 포병부록에 의거 제30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⑤ 공병대대는 1개중대를 10.12. 07.00부로 제30연대에 배속하여, 목표 점령 즉시 장애물 설치공사를 실시케 하라.

⑥ 협조지시

㉠ 목표 ㉠를 점령하면 左側方에 對한 警戒을 철저히 하라.

㉡ 목표 攻擊에 있어서 대대별로 목표를 분담케 하되, 목표 점령 즉시로 강력한 防禦 진지를 구축하여 다음 공격대대의 縱深을 확보케 하라.

⑦ 지휘소는 계속 △254에 위치한다.』

전날 밤에 △395 南쪽에서 戰列을 가다듬은 제29연대의 제1대대(장, 李大哲 소령)는 이날 01.20에 同 고지 정상을 向하여 攻擊을 開始하였다.

대대는 01.50에 정상 40m前까지 육박하여 敵 2개중대와 치열한 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03.50까지 3차에 걸쳐 突擊을 감행한 끝에 기어코 △395 정상 左一角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彼我를 가리지 않는 敵의 박격포와 자동화력의 방해로 더 이상 突擊口를 열지 못하고 수류탄을 亂投하면서 一進一止만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 兵力 損失만 累增하게 되므로 04.20에 △395 南쪽 능선의 제2대대 진지로 反轉하여 흩어진 전열을 수습한 다음 05.10에 제2대대와 함께 다시 한번 정상 奪回에 나서, 고지中腹의 敵을 정상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敵이 高地 東南쪽 稜線의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 진지쪽을 밀어내

던 까닭으로 제3대대 정면에서 紛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敵 1개중대 규모가 제11중대(장, 崔秉瓚 대위)의 陣地를 돌파코자 집중공격을 敢行한 것인데 이는 同 제11중대의 堅守不動으로 06.00에 擊退되고 말았다.

한편 이날 새벽에 사단作命 제76호로 △395 공격 命을 받은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OP를 방석동 무명고지에서 제29연대 제3대대 진지(△395 東南쪽 800m)로 移轉하고 05.30부터 △255의 주력을 △395 南쪽으로 추진하였다. 제2대대를 수색중대 南쪽 진지로, 그리고 제3대대를 제29연대 南쪽 진지로 각각 07.30을 前後로 집결시켜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그간 수색중대 南쪽 진지에서 대기중인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를 △395 南쪽으로 뽑아올려 08.00에 포병지원下에 목표에 대한 攻擊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제3중대(장, 金鼎植 대위)를 선두에 내세워 南쪽에서 능선을 따라 정상을 直衝케 한 결과 그 8部 능선에 증강된 1개 소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된 바 좀처럼 勝敗를 결정짓지 못한채 혼전만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정상을 占有중인 敵의 방어가 완강하여 제1대대만으로는 힘사리 敵陣을 깨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10.00에 제2대대를 고지 東南쪽 능선으로 투입하여 敵의 東側方을 협격토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가 습勢하여 정상의 敵에 對한 압력을 한층 加重케 하는 가운데 南쪽 正面의 제3중대가 渾身の 힘을 다하여 13.00에는 중대의 앞을 가로막은 소대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정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서 그곳 중대 규모의 敵과 수류탄으로 대결케 되었다. 그러자 정상의 敵이 그들의 戰意를 자랑하려는듯 오히려 陣前出擊을 감행하여 중대의 銳氣를 꺾고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제3중대로써 이 敵의 出擊을 견제케 하는 가운데 후속하던 제1중대(장, 具本源 대위)를 그 左側方으로 奮迅토록 긴급조치를 하였는데 제3중대를 초월하여 공격先頭가 된 제1중대는 화기소대의 박격포와 무반동총으로써 敵의 화력거점을 박멸하면서 제1소대를 中央으로 삼고 제2, 제3 兩 소대를 그 左右一線에 併列하여 3개소대가 동시에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중대장 具本源 대위의 진두지휘 아래 3,000여발의 敵 砲火가 이루어 놓은 火壁을 헤치고 竄進하여 정상 西南쪽 敵陣의 일각을 교란하여 돌파구를 열게 되었다.

이 好機를 포착한 대대 주력이 일제히 △395정상으로 突入하여 중립무전으로 敵陣을 석권하여 마침내 그 상공에 점령의 신호탄을 높이 올리게 되었으니, 이때가 13.20이었다.

이어 고지 北쪽으로 潰退한 2개소대규모를 추격하여 이를 격멸하는 한편 13.40부터 정상의 진지재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대대가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다.

사살 357명

살상 추정 160명

노획 俄式소총 8정, 다발총 13정, 57mm, 무반동총 1정, 3.5"rocket 2문, 방독면 1개.

한편 사단 作指 제73호에 따른 예비대 확보책의 일환으로 제28연대(장, 李周一 대령)는 전날 밤에 △255에 집결한 제2대대(장, 尹永模 소령)로써 04.45에 △395 東南쪽 제1, 제3 兩대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고 同 제1, 제3대대를 △255로 뽑아 내렸는데 이들은 07.00에 진지교대를 끝내고 08.00에 △255로 집결하였다.

1. 제11차 攻防戰(10. 12. 14. 40~12. 16. 50)

이날 13.00를 지나 제30연대가 △395정상을 확보하고 이어 攻勢를 목표 ㉠로 延伸하게 되자,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14.00에 作指 제74호를 下達함으로써 제29연대의 작전 임무를 제30연대와 교대시켜 이를 다시 예비로 확보키로 하였다.

『제29연대는 10. 12. 15.00부터 10. 12. 18.00 사이에 현 진지를 제30연대에 인계하고 主力은 △255로 집결시켜 시급히 부대를 정비하라.

10. 12. 16.00부로 방어정변의 작전임무를 제30연대에 인계하라.

同 일시부로 사단 수색중대의 작전지휘권을 제30연대장에게 이양하라.』

이에 따라 제29연대는 17.50에 현 전선과 작전 임무를 제30연대에 一任하고 △255에 집결 사단 예비로 전환되었다.

가) 제30연대의 主峰 再奪還: 이동안 제30연대의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는 제1중대(장, 具本源 대위)로써 △395 정상탈환의 여세를 몰아 13.40에 北斜面에서 버티고자 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剔抉하고 一路 목표 ㉠로 나아갔다.

그러나 ㉠ 일대에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이 견고한 陣地에 依支하여 완강히 저항한 까닭으로 △395—㉠ 능선에서 한낮을 넘기게 되고 말았는데 14.40이 되자, △396(下明眞里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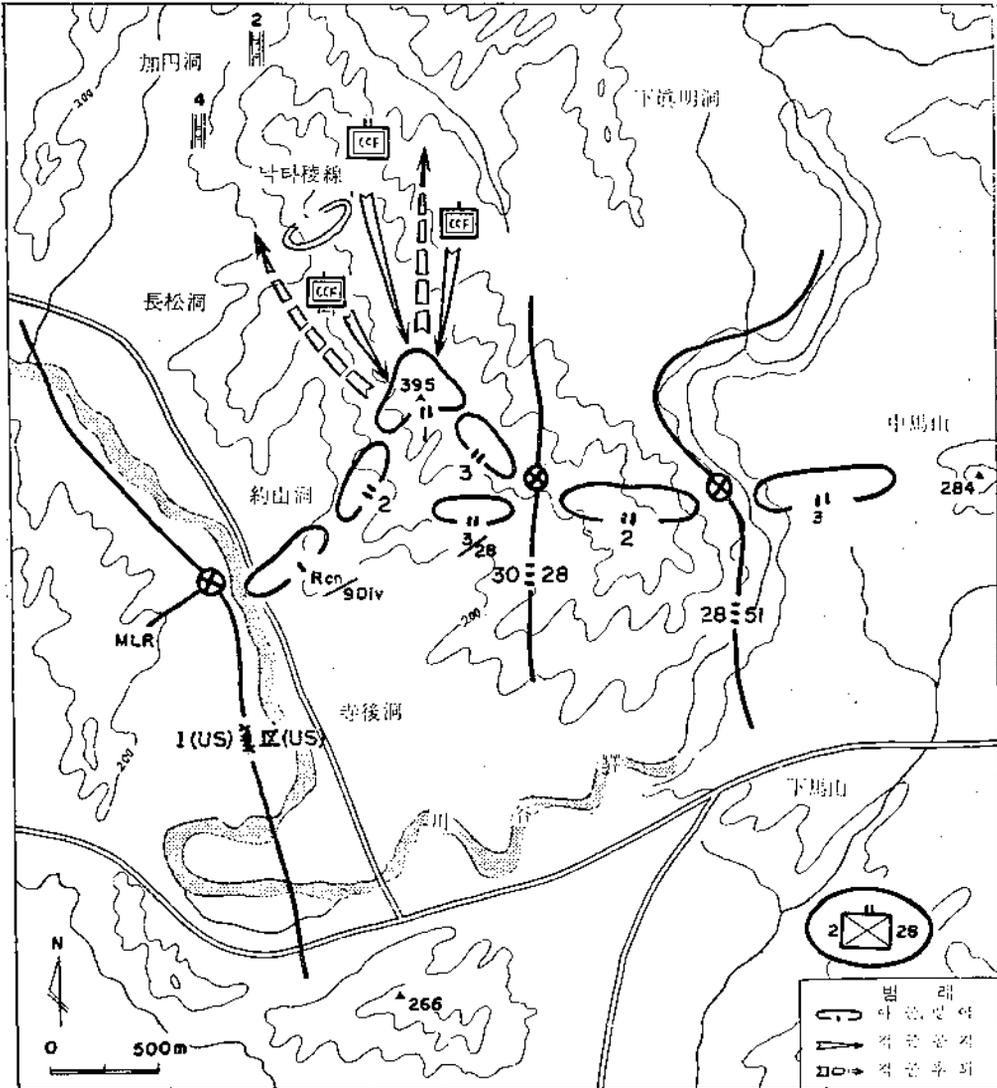


<李承晩 대통령의 제30연대 觀察>

쪽)에서 西南向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395—㉠능선의 東北쪽 허리를 타고 △395의 東北쪽으로 우회하였다.

이에 연대가 砲擊을 유도하여 그들의 企圖를 저지코자 하였으나 砲火속을 기어 넘어 마칩내는 △395 정상 東北쪽의 제3대대(제9중대) 陣前으로 들이닥쳤다.

◇ 상황도 제 50 호 제11차 攻防戰(12. 14. 40~21. 16. 50)



이 무렵인 15.40에 ㉔에서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395로 역습을 敢行하여 그곳 능선의 제1중대와 紛戰케 되었는데 中共戰車 2대가 ㉔西쪽 계곡(長松洞 北쪽 500m)에 나타나 정상 西北正面에 전차포를 집중, 敵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잠시 뒤인 15.50에는 다시 敵의 전차 2臺가 증강되어, 정상에서 鐵片과 石塊가 亂舞하게 될 가운데 정상으로 수용된 제1중대와 제3대대의 제9중대(장, 朴吉源 대위)가 각각 대대 규모의 敵과 血戰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兩 중대가 추호의 빈틈없이 엄히 진지를 지켜 내어 16.50에는 이들 敵을 모두 물리치고 말았다.

고지 정상에서 이와같이 激戰이 반복되는 동안 16.00에 作指 제74호에 따라 예정된 전지 교대를 실시하여 17.30에는 제30연대로부터 陣地 인수를 완료하였는데 고지 정상에는 제1대대를, 西南쪽 능선의 左一線에는 제2대대를, 東南쪽의 9部狹線에는 제3대대를 각각 배치하여 戰列을 가다듬었다.

나) △ 391에 대한 敵陽攻 : △395에서의 決戰이 차츰 敵의 非勢로 기울어가는 11일부터 사단 右一線의 要衝인 △391에 대한 敵의 攻擊企圖가 들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날 18.25이 되자 마침내 腥風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였다.

즉 △391 北쪽의 敵陣 上空에서 녹색신호탄 1발을 신호로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強力한 포병지원 아래 그곳 제8중대(장, 尹相汶 중위)의 진지를 占奪하러 한 것이다.

그리하여 同 제8중대가 중대장의 진두지휘아래 一戰을 決하게 된 바, 混戰속에서 子正을 넘기게 되었는데 이는 △395 탈취에 主眼을 둔 敵의 陽攻으로 判斷되었다.

2. 제12차 攻防戰(10. 12. 19. 50~15. 11. 00)

12일의 해가 저물어 19.30이 되니 △396쪽에서 은폐된 接近路를 이용하여 南向한 듯 한 敵 1개 중대 규모가 △395의 東北쪽 능선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를 看破한 제30연대 제3연대에서 일제 포격을 요청하여 20.35에 이들을 물리쳤다.

그러자 19.50에는 다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로부터 △395 정상으로 夜襲을 企圖하여 그곳 제1대대의 제3중대(장, 金晶植 대위)와 激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21.15에는 고지 西北 능선과 東北의 두곳으로 1개소대씩 증원되었다.

이에 고지의 제1대대의 방수태세가 一絲不亂하여 陣前 접근조차 쉽지 않게 되자 22.50에는 이 敵이 다시 중대규모로 增強되어 斷末魔의 발악을 하는 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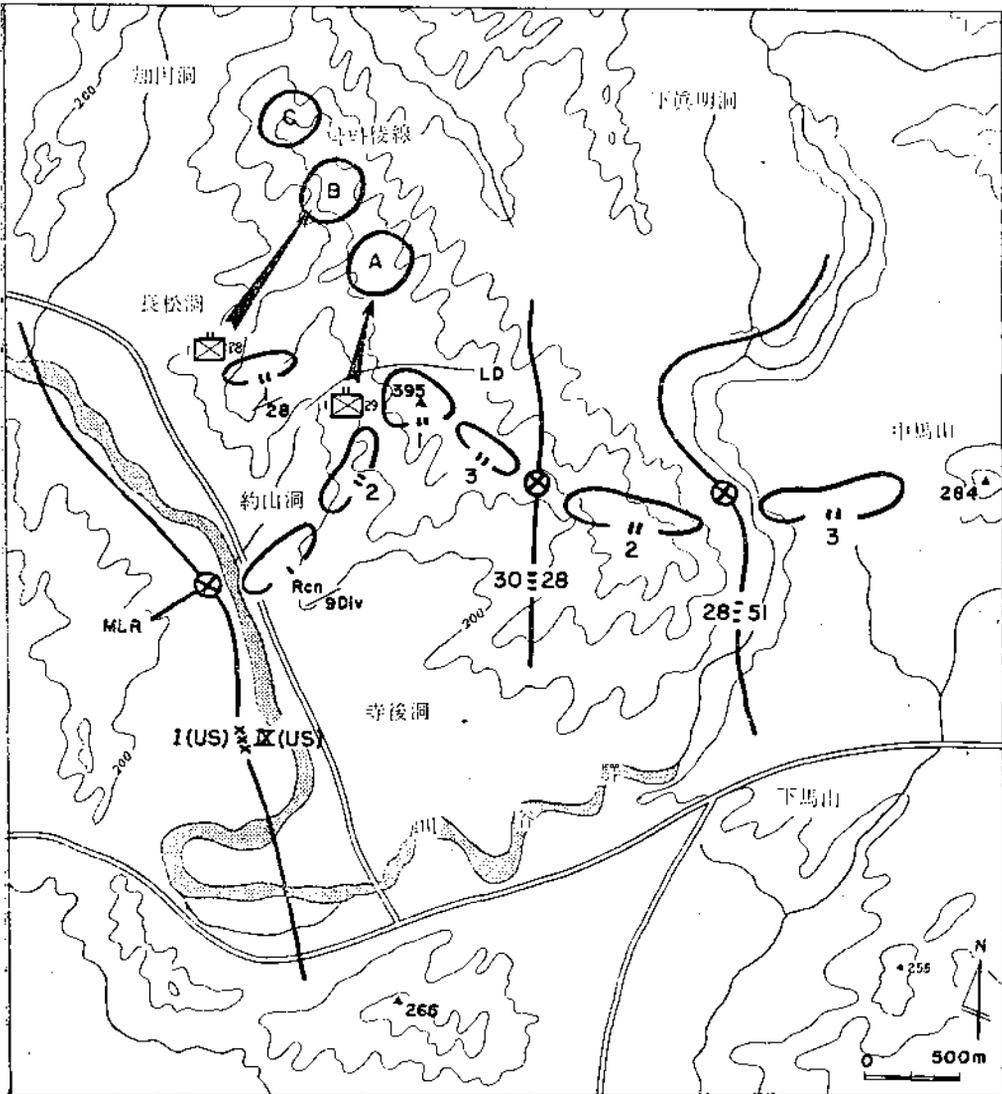
그러나 정상의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가 포병지원 아래 倍前의 결의를 보여 이 敵을 막아내교야 말았는데, 22.50에는 또 長松洞 南쪽 무명고지에 敵 中隊규모가 나타나 △395 정상에 측방화력을 집중하여 이 △395 정탈에 百方の 수단을 다 하는 듯 하였다. 그리하여 곧 이어 ㉠쪽 능선에 2개 중대규모가 다시 증강함으로써 정상 西北쪽 正面에 對한 압력을 가중케 하였으며 23.30에 △395 東쪽의 제3대대 정면에서도 2개 중대 규모가 들이닥쳐 頂上 정면에서 激戰이 苛烈化 하였다.

子正을 넘어서면서부터 北쪽 정면으로 한발 더 다가선 敵과 제1대대가 수류탄전을 전개하기에 이르고 東쪽의 제1대대쪽에서도 白兵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제1, 제3 兩 대대가 수류탄과 肉薄으로 맞서 陣內로 뛰어드는 敵을 屠戮하는 한편 제1대대에서 陣前출격을 감행하여 오히려 敵中으로 무찔러 나아가 그들의 氣勢를 꺾고 北쪽 正面의 敵을 ㉠쪽 능선으로 격퇴하교야 말았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인 13日 03.00 무렵에는 敵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정탈기도를 단념한 듯 그들의 兵仗과 시체를 거두어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로부터 날이 새는 동안까지는 정

◇ 상황도 제51호 제12차 攻防戰(12. 19. 50—15. 11. 00)



삼 北麓에 참호를 파고 들어 앉은 1개 중대규모의 敵과 산발적인 射擊戰만이 反復되었으니 이날 밤 열두번째로 企圖한 敵의 최후의 발악도 이로써 또 한번 無爲로 돌아가게 되었다.

10월 13일(제12차 攻防戰 제2일): 전날 밤을 고비로 △395에서의 결전에서 勝機를 잡게 된 사단은 待望의 전초진지(駱駝稜線) 탈환에 착수하였다.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전날 낮동안 △395 정상을 제30연대 제1대대가 지탱하자 이로써 능히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날 밤에 必至할 敵의 攻勢를 破摧하는 즉시로 공격전으로 移行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01.30에 作指 제75호로써 제28연대에 명령하되 『**○** 13일 03.00를 期하여 연대 主力(제1, 제3대대)으로써 목표 **○****○****○****○**를 공격하여 점령하라.』고 하였다.

가) 제28연대의 목표 **○****○**공격: 이에 $\Delta 255$ 에 집결대기중인 제28연대(一)가 새로이 공격에 充用되게 되었는데 당시 연대는 제2대대가 $\Delta 395$ 東쪽의 驛谷川 西岸 主陣地를 담당하는 가운데 제1, 제3대대로써 부대를 정비하여 그간 戰力을 보강하였던 것이다.

연대장 李周一 대령은 01.40에 主力 제1, 제3대대를 $\Delta 255$ 의 집결지로부터 LD로 추진하였는데 사단 作指 제75호의 개념은 2개 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최초로 **○**와 **○**로 分進케 하여 이를 확보한 다음에 **○**로 合擊하여 逐次로 수중에 넣고 마지막으로 **○**를 공략한다는 것이었으나, 연대장은 목표 **○**와 **○**의 攻擊路가 狹窄하여 각 1개대대의 전개가 여의치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 공격 병력의 규모를 축소하여 우선 1개 대대로써 **○**와 **○**를 동시에 공격케 하기로 단안을 내리고 제3대대를 LD에 전개시켜 제1선이 되게 하는 한편 제1대대는 사단 수색중대 南쪽에서 대기케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卽應토록 하였다.

이에 攻擊 제1선이 된 제3대대(장, 崔崑龍 중령)는 제11중대를 그 右一線으로 삼아 $\Delta 395$ 에서 **○**를 목표로, 제9중대를 그 左一線으로 삼아 수색중대 진지에서 **○**를 목표로 각각 攻擊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에 제9중대의 협력下에 제10중대로 하여금 제11중대를 초월 공격케 함으로써 목표 **○**—**○**를 일거에 탈취케 계획을 세우고, 03.00에 제11, 제9 兩 중대로 하여금 각각의 LD에서 출격신호를 올리도록 하였다.

04.20에 제11중대는 **○** 南쪽에서, 그리고 제9중대는 **○** 南麓에서 당면의 敵과 激戰을 시작케 된 바, 먼저 **○**에서는 제10중대가 $\Delta 395$ 北麓에서 **○**를 점령하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제11중대가 銳氣로써 능선을 휩쓸어 나아가니 $\Delta 395$ 北麓의 참호속에 잠복하였던 敵 일단이 **○**로 철퇴하였다. 이에 중대는 그들을 尾擊하여 07.50에 목표 **○**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의 敵은 **○**로 물러나 그곳에서 중대의 前進를 저지하기에 안간힘을 다하였다.

그 뒤로 중대는 左側方의 **○**에서 血戰이 종일토록 反復되었으므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10중대를 **○**에 추진하여 진지를 재편하여 방어태세로써 **○**의 전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렸는데 18.40이 되자, **○**로부터 敵 1개 중대 규모가 **○**의 제11중대를 攻擊하였다.

그리하여 彼我が 한동안 亂戰으로 얽혀 덩구는 가운데 22.00에는 중대가 **○**에서 한걸음 물러서게 되고 말았는데 $\Delta 395$ 의 제30연대 제1대대의 협력을 얻어 22.20에 즉각 역습을 감행하여 $\Delta 395$ —**○**間의 능선을 타고 $\Delta 395$ 로 치달아 오르는 敵을 一擊하여 그들을 다시 **○**로 驅逐한 다음 $\Delta 395$ 에서 방수태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에서는 05.00에 제9중대가 그 中腹을 가로막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05.10에 이 巨標를 기어코 손에 넣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물러난 敗敵은 그 東北쪽의 능선을 따라 **○**로 합류된 듯 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가 **○**를 확보하여 진지공사를 실시하던 중인 08.30에 敵 2개 중대 규모

가 ㉔쪽에서 ㉑-㉒ 능선의 北麓을 타고 들이닥쳐 또 한차례 백병전을 벌이게 된 끝에 중대가 그 敵勢를 감당치 못하고 南麓 200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사단 수색중에 진지 南쪽에 대기중인 제1대대(장, 金三曾 대위)를 投入하여 제9중대와 함께 목표 ㉑를 다시 攻擊케 한 결과 10.45에 이를 또 한번 손에 넣게 되었다.

17.20이 되자 敵 2개 소대규모가 ㉑의 北麓에 연막탄을 집중하여 고지의 제1대대원의 視界를 차장한 다음 이를 攻奪코자 하였으나, 同 대대는 全火力이 동시에 집중함으로써 일거에 격퇴하고 말았다.

나) 제51연대의 △391상실 : 한편 △391의 제51연대(장, 金富一 대령) 제8중대의 戰況은 전날 子正을 넘어면서 그 交戰熱度가 한층 苛烈化되었다.

당시 연대는 △395를 除外한 사단의 全 정면을 담당하던 만큼 예비대를 따로이 보유치 못하였는데, 이에 雪上加霜으로 △395에 敵의 攻擊이 들이닥친 까닭에 이의 저지에 優先키로 한 사단장의 방침에 따라 포병의 지원火力重點을 △395로 집중운용하게 되어 화력 지원마저 원활히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또 이 △391에서는 교전 즉시 3분만에 敵의 포화로 통신망이 四分五裂된 가운데 孤立無援의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제8중대가 03.00까지 死力을 다하여 陣地를 지탱하였으나 끝내 衆寡不敵으로 중대장 尹相汝중위가 그곳에서 최후를 마치는 가운데 기어코 고지를 敵手에 넘겨주게 되고 말았다.

이에 사단은 군단에 긴급 요청하여 右翼인 美제7사단(장, Wayne C. Smith 소장) 제17연대의 C중대를 支援받아 △395에서 敵의 도발을 制壓할 때까지 그곳 戰線을 支撐케 되었다.

연대는 제8중대의 낙오병을 수습하여 1개소대를 急編하고 연대수색중대의 1개소대를 뽑아 이로써 지원 美 C중대와 함께 △391를 탈환키로 하고 07.00를 기하여 攻擊을 開始하였다.

제8중대의 소대와 수색중대 소대는 목표 △391의 南쪽 정면을 直衝하고, C중대는 東側方에서 合擊하여 08.30에는 △391 南쪽 무명고지(표고 370m정도; 一名화랑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는 敵의 포화가 狂舞하여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四周진지를 급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단장 金鍾五소장은 15.20에 作指 제77호를 하달하여 △255에 대기중인 제29연대에서 제2대대(장, 朴應格 대위)를 △254(△255 東쪽 2.8km)로 뽑아 돌려 △391에서의 敵侵에 대비하는 한편 18.00부로 그 제7중대(장, 金容振 중위)를 抽出하여 제51연대에 배속 조치함으로써 △391공격을 지원토록 하였다.

연대는 19.30에 배속 제7중대로써 화랑고지의 C중대 및 연대 공격병력과 진지를 교대로

록 하였는데 중대는 20.10에 진지 개편완료와 동시 △391에 대한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동안은 22.40에 그 수효를 알 수 없는 敵의 일단이 치열한 포병 지원하에 △391로부터 출격하여 중대의 陣地를 압박하였다.

중대는 例의 熾盛한 敵의 砲火에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에서도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여 수류탄과 총검으로 敵을 격퇴하고 陣地를 固守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鳳喆대령은 作指 제5호를 하달함으로써 同 중대로 하여금 제8중대 소대를 통합지휘하여 다음날 △09.00를 期하여 △391를 탈환토록 명령하였다.

다) △395에 대한 사단장 措置 : 한편 이날 종일 각종 戰爆機 延141대가 38회에 걸쳐 出擊하여 △396일대의 敵집결지와 曉臺山 西쪽의 포진지를 강타하여 제28연대의 공격聲威를 돕는 가운데 ㉠—㉢—㉣—㉤ 奪回를 期待하였으나 敵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날 낮중으로 ㉠과 ㉤의 확보에 그치게 되자 사단장 金鐘五소장은 다시 공격부대를 交替키로 決心하고 1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 제78호를 하달하였다.

『㉠제29연대는 1개대대로써 10.14. 06.00를 期하여 목표 ㉠—㉢—㉣를 축차로 攻撃하여 이를 점령하라.

㉡ 제28연대는 1개대대로써 ㉤를 계속 확보하면서 제29연대의 공격대대의 ㉢공격에 협력하라.

㉢ 각 중대별로 목표를 분담케 하되 새로운 목표는 새로운 병력으로 공격케 하라.』

이는 이날 밤중으로 必然 ㉠에서 爭奪이 계속될 것이라는 判斷 아래 제28연대는 ㉤의 확보에만 重點을 두도록 하고 ㉠—㉢—㉣는 제29연대의 新銳로써 奪取케 한 것이다.

10월 14일(제12차 攻防戰 제3일) : 이날도 사단전선에서는 紛戰이 계속 되었는데 △395를 손에 넣고자 발악하던 敵은 전날부터 守勢로 몰려 이제 오히려 ㉠—㉢—㉣의 확보조차도 힘들게 되었던지 이날 아침에는 그간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제335연대를 △396쪽으로 뽑아 들리고 예비였던 제336연대를 새로이 投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 제29연대의 ㉠목표공격 : 전날 사단 作指 제78호에 따라 목표 ㉠에 대한 공격임무를 제28연대로 부터 인수하게 된 제29연대(장, 金鳳喆 대령)는 △255부근에서 부대를 정비중인 제1, 제3, 兩 대대 가운데(제2대대는 △254에서 대기중) 제1대대(장, 李大哲 소령)를 攻撃 일선으로 삼아 02.00에 집결지에서 기동을 시작케하여 05.30에 △395南麓에 집결토록하고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이어 05.40에 실시된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觸接하여 06.00에 대대 공격을 시작케 하였는데 08.00에 선두인 제1중대(장, 金錫貝 대위)가 △395—㉠의 능선에 차단진지를 마련한 敵 1개중대규모의 완강한 저항을 꺾음으로써 그 가운데 2개소대 규모를 격멸하고 각종 소총 70여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둔 다음 餘勢를 몰아 一路 ㉠로 直衝하였다.

이때 ㉠—㉢—㉣ 일대에는 敵 1개대대 규모가 蟻集하여 그들 진지를 決死固守코자 하는

듯 하였으니 그들을 지원하는 포격이 熾烈을 極하였다.

09.15부터 ㉠에서 제1중대와 交戰의 效示를 쏘아 올림과 동시 鐵火와 爆焰이 엇갈리는 白熱戰이 전개되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戰況에 進展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인 10.45에 △396일대에 敵 1개대대 규모가 집결중인 것이 항공관측 결과 밝혀져 곧 이들이 ㉠—㉡—㉢로 증원된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이와같은 敵勢의 증강에 대처하여 연대의 공격력을 또한 보강키로 작정하고 11.15에 △255에 대기중인 제3대대에 명령하여 이를 12.00까지 사단 수색중대의 南쪽 진지로 집결케 한 다음 ㉠일대의 공격 참가에 대한 채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동안 ㉠부근에서는 제1대대의 3개중대가 그 8부능선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돌격의 好機를 노렸으나 事不如意로 손실만 급증하게 되므로 이 대대가 銳氣를 잃은 것으로 판단한 연대장은 곧 제3대대를 추진하여 공격 임무를 교대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6.20에 제3대대(장, 朴燦剛 중령)가 제1대대로 부터 공격 임무를 인수하였는데 대대는 ㉠의 敵 1개중대의 저항을 무릅쓰고 步—步로 8部능선까지 육박하여 이날 밤 그곳에 攻擊據를 急造하여 ㉠정상을 올려다 보면서 진열을 가다듬었다.

이 동안인 17.30에 △396로부터 ㉠ 東北쪽으로 指向中인 敵 1개대 대규모를 포착하여 포격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꺾멸한 바 있는데 同 제3대대에 ㉠공격임무를 인계한 제1대대는 19.00에 사단 수색중대 南쪽의 당초 제3대대 진지로 집결하였다.

나) 제28연대의 ㉠固守 : 이날 제28연대(장, 李周— 대령)는 전날의 一戰으로 ㉠를 손에 넣고 ㉠에 대한 임무를 제29연대에 넘겨주게 된 바, 제3대대는 △395에서, 제1대대는 ㉠에서 각각 철야케 되었다.

제3대대(장, 崔昌龍 중령)는 03.00에 △395의 東北쪽 능선에서 2개 중대규모가 또 한차례 攻奪을 시도하는 것을 一擊하여 04.00에 ㉠쪽으로 격퇴하고 △395—㉠ 능선에서 가벼운 소화기의 사격전으로써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06.00에 △395에 새로히 추진된 제29연대의 제1대대에 작전 임무를 인계하고 06.40 △395의 北麓에서 08.00에 그 南쪽으로 집결케 되었다.

이때 ㉠의 제1대대(장, 金三曾대위)는 역시 이날 새벽에 들어서면서 敵 2개소대 규모로부터 攻擊을 받은 바 있으나, 04.15에 北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는데 낮동안에는 敵의 도발을 받지 않은채 진지를 계속 확보하다가 子正에 공병 2개중대의 지원아래 ㉠에서 장애물 설치 작업을 실시하여 그곳의 진지를 굳혔다.

다) 제30연대의 戰線 확장 : 한편 사단장은 사단의 공격일변도였던 이날 오전까지의 전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395에 대하여서는 敵이 더 이상 도발치 못할것이라는 判斷아래 서서히 주저항선의 정비를 도모하였다.

즉, 13.00부 作指 제80호로써 현재 △395 정상의 추진지를 확보중인 제30연대(장, 林益

源대령)의 담당 정면을 東쪽으로 擴開시켜 제28연대 제2대대(驛谷川 西쪽陣地)지역을 인수케 함으로써 이 △395부근의 전선을 전투전의 본대진영으로 환원시켰던 것이다.

그러하여 驛谷川 西岸까지로 주저항선을 넓히게 된 제30연대는 △395 東南쪽 능선상의 제3대대(장, 趙南國소령)로써 21.55에 새로이 담당케 된 제28연대 제2대대 진지를 인수케 하고 △395정상을 방어중이던 제1대대(장, 金永先소령)를 제3대대 진지로 돌렸으며, 정상 △395은 그 西南쪽 능선을 맡고 있던 제2대대(장, 金祥玉소령)가 아울러 맡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28연대 제2대대(장, 尹永模소령)는 진지를 제3연대 제30대대에 인계하고 22.30에 △255에 집결하였는데 제29연대의 제1대대에 현 공격임무를 인계하고 △395 南쪽으로 물러났던 제28연대 제3대대도 이날 밤 역시 △255에 집결하게 되었다.

라) △391에 대한 逆襲挫折 : 전날 제51연대(장, 全富一大령)에 배속되어 △391탈환전에 착수한 제29연대 제7중대(장, 金容振중위)는 이날 09.00에 예정된 공격을 시작하였다.

중대는 치열한 敵의 포화속을 헤치고 11.55에 △391 南쪽의 중간 목표인 무명고지(△391 南쪽 300m; 표고 350m정도)를 점령하고 계속 최종 목표인 △391로 進擊하였는데 고지 정상에서 死生을 결단하려는 듯이 버티는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一時 頓挫前에 빠져들었다.

이에 중대는 제51포병대대(장, 孫善陽소령)의 火力支援을 받아 14.35을 前後하여 마침내 그 정상을 석권하고자 말았는데 고지의 敵은 정상 斜面으로 물러나 집요하게 저항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중대는 戰場을 整理할 겨를도 없이 정상에 진지를 급편하여 敵의 역습에 대비코자 하였으나 敵 포병의 방해로 말미암아 築壕作業은 고사하고 식량과 탄약의 보급지원마저 如意치 못하여 진지를 지탱할 여력이 없게 되었다.

敵은 이러한 기미를 간파한 듯이 20.00부터 대대규모를 投入하여 強襲으로써 고지탈취를 노렸는데 이는 22.50에 제51포병대대의 활약에 의지한 중대원의 감투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동안 중대의 손실도 累增된 탓으로 중대장은 중대 獨力으로서는 이날 밤중에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判斷아래 △391정상을 잠시 비워둔채 南쪽 무명고지로 隨意撤收하여 전열을 再編하였다.

10월 15일(제12차 攻防戰 제4일, 完全擊退) : 이날 사단이 △395 北쪽의 전진진지를 탈환하게 됨으로써 10일만에 걸쳤던 이 △395의 血戰은 사단의 勝利로 그 大鬪圓의 幕을 내리게 되었다.

가) 제29연대의 목표 ㉔-㉕ 奪還 : 전날 子正을 넘어서면서 제29연대의 제3대대(장 朴燦剛중령)가 ㉔에 대한 공격을 잠시 중지한 채 그 南麓 8부능선에서 전열정비에 들어감으로써 ㉔일대에서는 한동안 交綏상태가 되었다.

이에 연대는 03.20에 △254에서 △391쪽으로 눈을 돌리고 대기중이던 제2대대(장, 朴應

格대위)를 △395로 추진하여 ㉠—㉡—㉢ 탈환에 專力키로 하였는데 이 대대는 제7중대를 △391쪽에 남겨둔채 主力인 제1, 제3, 兩 대대만으로써 04.30에 △395로 집결하여 ㉡—㉢의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 공격 제1선의 제3대대는 ㉠에 대한 공격을 재기하여 총검으로써 교통호를 다시 파면서 정상을 지향하여 急衝突破를 반복한 결과 06.05에 기어코 정상에 올라 左衝右突의 백병격투끝에 점령의 환호성을 드높히게 되었으니 이때가 06.20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07.30에 제2대대를 ㉠로 추진하여 이로 하여금 제3대대가 이를 확보하는 가운데 그 나머의 ㉡—㉢를 공격토록 한 바, 08.00에 ㉠에서 旗幟를 정비하고 즉시로 ㉡—㉢를 목표로 躍出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이 공격 일선으로 나서게 된 제2대대는 ㉠을 발판으로 삼아 제5중대(장, 朴敦塚중위)를 선두에 내세워 포병의 집중지원 아래 ㉡—㉢일대의 능선鱗形으로 방어진지를 마련한 2개 중대규모의 敵의 縱深을 銳氣로써 차례로 돌파하고 10.40에 ㉡를 석권한다음 이어 여세를 몰아 11.00에 ㉢마저 手中에 넣고야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9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前後 12회에 걸친 熾熱한 血戰끝에 △395에서 勝鬪數를 드높이 올리고, 제51연대(장, 金富一 대령)를 右一線,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主陣地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29연대(장, 金原喆 대령)를 同高地 北쪽 稜線상의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고 戰場整理에 着手하였는데, 사단 作指 제86호('52.10.17.15.00)로써 戰鬪地境線의 一部를 調整한 다음, 敵이 挑發을 계속하는 △391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여 敵을 剔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51연대는 10월 19일 06.30부터 24일까지에 걸쳐 제3대대(장, 金白泳 소령)와 제1대대(장, 李基完 소령)를 逐次的으로 投入하여 血戰을 거듭한 끝에 두차례나 目標인 △391 頂上을 奪取하였으나, 그때마다 恣行된 敵의 熾烈한 砲擊과 反擊으로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되풀이하였는데 部隊交代에 따라 이를 奪取하지 못한채 中斷하였다.

이 무렵 白馬高地戰鬪에서 卓越한 指揮能力을 發揮하고 戰功이 높게 評價된 사단장 金鐘五 소장은 陸本 一般命令 제196호 追加 제1호(52.10.26)에 의거하여 陸軍本部로 轉出하고, 金點坤 준장이 제6사단 副사단장으로부터 제9대사단장으로 就任하였다.

한편 사단은 美 제9군단 作戰指示에 따라 이 高地를 비롯한 Missouri線상의 地區를 10.26.06.00 附로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ith 소장)에 引繼하고 史倉里로 移動하였으며, 백속중이던 제51연대는 美 제1군단(장, Paul W. Kandall 중장)으로, 제1포병단은 狙擊稜線에서 激戰中인 제2사단(장, 丁一權 중장)으로 각각 배속이 변경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5 FTC에서 戰塵을 씻으며 部隊整備에 着手하였는데 軍단 右翼인 제2사단이 狙擊稜線에서 連日 激戰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美 제9군단 作戰指示에 의거하여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를 10월 31일에 金化龍岩으로 轉進시켜 제2사단에 배속하였다.

그런데 10월 14일부터 戰火가 일기 시작한 狙擊稜線에서 40餘日間에 걸쳐 血戰을 거듭한 제2사단이 中共 제15군 主力과 제12군 제34사단에 決定的인 打撃을 加함으로써 戰況이 小康狀態로 접어들기에 이르자, 제2사단 再編의 必要性을 切實한 軍단은 作命 제33호로써 사단이 제2사단의 戰區를 引受토록 명령하였다.



〈激戰直後の 白馬高地 主峰部位. (1952. 10中旬 촬영)〉

이에 따라 사단은 11월 23일에 CP를 史倉里로부터 金化, 齊宮洞으로 推進開設하고, 제29연대(장, 金鳳喆 대령)가 11월 22일에 金化, 龍岩으로, 제28연대(장, 李周一 대령)가 24일에 金化, 甘鳳里로 각각 進出하여 11월 25일 06.00附로 제2사단 제32, 제31 兩 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였으며,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와 제2사단에 배속되어 右一線을 담당하여온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를 同日宇附로 統合指揮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사단은 제37연대를 右一線, 제28연대를 中央一線, 제29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灰古介—上甘嶺에 이르는 Missouri 線上의 主陣地를 확보하고 제30, 제31 兩 연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1 포병단 예하의 제51, 제52 兩 포병대대와 제18 및 제30포병대대의 直接支援과 제92포병대대, 美 제955, 제424 兩 포병대대의 一般支援, 그리고 제56, 제59 兩 전차중대의 支援下에 敵의 攻撃企圖를 粉碎하면서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을 強化하여 敵의 不斷한 探索 공격을 擊退하였다.

그런데 군단 作戰指示에 依거하여 戰鬪地境線이 변경됨에 따라 右一線을 담당하였던 제37연대는 사단 作命 제93호(52.12.7.08.00)에 依거 首都사단(장, 宋堯贊 소장)에게 12월 12일 06.00附로 主陣地를 引繼하는 즉시로 사단으로부터 배속이 解除되고,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 또한 同日宇附로 原隊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上甘嶺과 그 東쪽의 狙擊稜線을 中心으로 한 狹少한 正面을 담당하기에 이르자 作命 제94호(52.12.7.12.00)로써 예비인 제30연대를 左一線으로 起用하고 제29연대를 예비로 轉換하였는데 12월 13일에는 右一線인 제28연대와 作戰任務를 交代케 하였다.

12월 16일에 이르러 左隣接인 美 제25사단(장, Samuel T. Williams 소장)과의 戰鬪地境線이 또 다

시 調整됨에 따라 사단은 作命 제96호(52.12.12.09.00)로서 예비인 제28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美 제14연대의 一部陣地를 引受케 하였는데 同월 21일에는 作命 제97호를 下達하고 左右 一線의 戰鬪地 境線을 調整하여 제30연대 제3대대로써 新陣地를 引受케 하는 동시에 제29연대는 제30연대의 一部 陣地를 引受케 함으로써 戰線을 整齊하고 戰鬪태세를 完備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當面의 敵인 中共 제12군 제34사단(장, 尤太忠)은 제2사단으로부터 決定的인 打撃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狙擊戰線 奪取의 虛荒된 企圖를 버리지 못하고 사단의 戰鬪力을 探索코자 함인지 12월 1일과 2일 사이에 狙擊戰線主峰인 A高地로 侵攻하여 제28연대와 激突한 것을 비롯하여 10일만에 걸쳐 40회나 挑發行爲를 恣行하더니 12월 한달 동안에 105회나 出沒하였으나 그때마다 一擊에 擊退되었으니 △395에서 敵의 肝膽을 서늘케한 사단의 百戰百勝의 戰技와 剛魂에 새삼 屈服하였으리라. 이 高地 戰鬪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구분	부대별	제 28 연 대	제 29 연 대	제 30 연 대	계
射 殺		2,790	3,836	1,608	8,234
捕 虜		17	21	19	57
推 定 射 殺		3,408	1,020	669	5,097
推 定 殺 傷			130	871	1,001
多 發 銃		50	153	88	291
소 式 小 銃		71	271	88	430
60mm 迫 撃 砲		2	16	5	23
82mm 迫 撃 砲			2		2
57mm 無 反 動 銃		2	2	7	11
35" Rocket		3	11	8	22
B A R		3	11	13	27
H M G		4	1	3	8
L M G		1	27	7	35
S M G			19	2	21
50mm 機 關 銃			3		3

損 失

구분	부대별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제30 포병대대	공병대대	제9중대	사 단	計
							박경포중대	수색중대	
戰 死		9/150	6/168	7/160	/1	/2	/2	/	22/483
戰 傷		37/965	18/646	37/799	/11	/10	1/4	/8	93/2,433
失 踪		/154	1/54	1/181	/	/	/	/	2/389
計		46/1,269	25/868	45/1,136	/12	/12	1/6	/8	117/3,311

§ 參戰者의 證言

제9사단장 金 鐘 五 소장

(1965년 3월 6일 參戰長室에서, 대장)

나는 52년 6월初旬에 朴炳權 준장과 交代하여 제9사단장에 就任하였는데 이때 사단이 확보중

인 白馬高地 一帶은 敵의 攻勢가 甚한 곳이었어서 朴 준장이 格別히 注意하라는 當부까지 있었다.

그런데 平康—金化—鐵原을 連結하는 所謂 鐵의 三角地帶은 美 제8군측에서 아주 重要視하였으니, 그 理由는 東西海岸이 封鎖되고 制空權을

갖지 못한 敵으로서는 병력의 機動과 補給輸送을 地上道路에 依存하여야만 하였는데 敵이 이 要域을 확보한다면 中部에서의 敵의 機動이나 作戰上의 融通性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金化와 鐵原을 敵이 쓰지 못하도록 注力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敵이 西部에서 中部로 移動하는 데 相當한 距離를 迂回하여야 하기 때문에 敵 또한 이 地域을 거머쥘 奪取, 확보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 要域에는 金化 北쪽에 狙擊殺線이 있고 鐵原 北쪽에 白馬高地가 있는데 左肩部를 이룬 白馬高地가 奪取되면 西部 戰線은 물론 金化쪽도 뒤로 물러서야만 하기 때문에 敵은 隨時로 白馬高地에 攻勢를 取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단장으로 취임한 다음 約 3개월 동안은 砲彈도 떨어져지 않고 探索戰마저 없이 너무 조용하기만 하여, 이거 무슨 일이 있거나 하고 警戒를 加一層 엄중히 하도록 하였다.

사실 말이지 그때까지 제9사단은 戰鬥力이 그다지 높지 評價받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陣地工事와 障礙物의 設置 그리고 射擊術의 訓練에 重點을 두고 督勵하였다.

특히 射擊術의 練營에서는 記錄사격에 合格하지 못하면 外出, 外泊을 시키지 않았더니 幕舍에서도 예비훈련을 하고 內務班에도 標의를 만들어 놓고 訓練에 열중을 하여 그 實力이 急遽히 向上되었다.

그런데 戰鬪가 벌어지기 2~3일前에 제30연대 正面에서 中共軍 軍官이 歸順하였는데 이 사람을 訊問한 결과 中共 제38군이 제42군과 交代하였는데 곧 大攻勢를 取할 것이며 特別 蓬萊湖를 터뜨려 鐵原一帶를 氾濫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各작 指揮官會議를 召集하고 歸順者의 陳述內容과 그 間의 情況을 檢討한 결과 攻勢가 곧 있을 것으로 判斷을 굳히고, 一週日以上을 支撐할 수 있는 充分한 補給品과 飲料水를 推進토록 하는 한편 白馬高地를 확보한 左一線인 제30연대의 防禦線을 強化하고, 예비인 제28연대에 出動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하였다.

10월 6일에 이르러 敵은 예측한대로 하루종일

砲擊을 퍼부었는데 어쩌나 熾烈하였던지 5~6線의 鐵條網과 地雷地帶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突破口가 淸하게 形成되고 말았다.

그러나 陣地工事를 철저히 하고 通信線도 地下에 묻었기 때문에 그 砲擊에도 不過 2~3명만이 負傷하고 有線疎通에도 支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敵은 左隣接인 France대대에 陽攻하는 가운데 19.00부터 드디어 공세를 取하였다.

그러나 隸下 連대장들이 예비대를 잘 運用하여 敵의 거둬들 波狀攻勢를 그때마다 擊退하곤 하였다.

즉 예비대가 막 待機하였다가 一線이 突破되면 各작 逆襲하여 陣地를 回復하기에 이르니 다음부리는 自信이 생겨서 問題가 없었다.

이처럼 거센 敵의 攻勢를 우선 擊退하고 난 다음 捕虜를 訊問하여 본 즉 敵의 攻勢가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軍단장에게 報告하였더니, 各작 제51연대를 배속하여 주어 右一線인 開豁地 一帶를 담당토록 하고 主力을 白馬高地에서 集中 運用하였다.

反擊時에는 比較的 戰術數理대로 하였고 協同도 잘 되었다.

나는 將兵들의 士氣를 考慮하여 高地에서의 戰鬪를 可及的이면 1개대대씩 하룻밤 하였다.

그래서 2晝夜 以上을 高地에 두지 않고 交代시켜 休養과 給食을 充分히 取하게 하고 兵力을 補充해서 다시 올려보내곤 하였다.

다시 말해 한 부대만 完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지 않았다.

砲兵支援에 있어서는 軍단에서 155mm砲 1개대대와 8"砲 1개대대를 直接 支援하고 左右隣接인 美 제2, 제7 兩사단의 砲兵이 支援하였는데 軍단 포병단장은 自己의 전속부관과 砲兵연락장교를 나의 隼차에 타고 다니겠끔 할 程度로 緊密한 協調가 되었다.

그런데 한번은 우리 사단 高문관이 彈藥消耗 甚 때문에 砲擊을 制限한 일이 있어서, 나는 軍단장에게 砲彈없이 싸울 수 없다고 말하였더니 그 顧問官을 各작 交替시키고 彈藥輸送車 1개중대를 붙여서 大額 한경을 새로이 보내주어서 다음부터는 無制限 砲擊을 할 수 있었는데 敵의 砲擊도 우리에게 못지 않게 熾烈하였다.

여하간에 200門에 달하는 砲가 TOT射擊을 할 때는 그야말로 壯觀을 이루었다.

밤에는 各種 迫擊砲照明彈을 계속 發射하였는데 아무래도 신봉치가 않아서 美 제5空軍에 要請하여 航空照明까지 하였다.

敵이 侵攻하면 그쪽에 대낮처럼 照明하고 砲擊을 集中하였는데 연대규모의 敵은 아랑곳없이 10列 縱隊로 突破口를 向해서 물려들곤 하였다.

敵의 攻勢가 거듭되자 美 제8군에서는 우리가 突破되었을 때에 敵을 阻止키 위하여 美 제3사단을 鐵原 南쪽 10km地點에 集結시켰는데 이 事實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가 무너진 곳에 美軍이 들어가는 確된 記錄을 남길 수 없다고 더욱 奮發하여, 15일에는 드디어 敵을 完全히 擊退하기에 이르렀다.

戰鬪間에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毎日처럼 訪問해서 무엇이든 不足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激勵하였고, 李承晩 대통령께서도 戰鬪間에 한번 그리고 戰鬪直後에 한번 來訪하여 激勵하시고 전공을 치하하신 바 있었다.

제30연대 제1대대장 金承先 소령

(1973년 8월 4일, 제9사단장실, 소장)

5週間に 걸쳐 부대整備과 教育訓練을 마친 제30연대는 白馬高地 戰鬪가 벌어지기 約 2週前인 9월 24일에 제28연대로부터 사단의 左一線 任務를 引受하고 白馬高地 一帶를 확보하였다.

내가 指揮하는 제1대대는 제28연대 제3대대로부터 白馬高地 全體에 대한 防禦任務를 引受하였으나 그 正面이 너무 넓어 예비인 제3대대의 제10중대를 백속받았다.

그런데 開天節이자 秋夕이 겹친 10월 3일에 사단에서는 작 연대대항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으나 나는 대대 C P에 待機하고 있었는데 연대 S-3로부터 緊急連絡이 있어 대대 S-2와 S-3장교를 帶同하고 作戰會議에 參席하여 이 자리에서 이날 제6중대 正面으로 歸順한 中共 제114사단 제30연대 제2대대 제7중대소속 軍官인 朴중교의 陳述內容을 들었다.

그것은 中共 제38군장의 直接 명령에 의하여 다음날인 10월 4일에 敵이 大的으로 白馬高地

를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또 敵은 이 공격에 앞서 平康附近의 蓬萊湖水門을 열어 白馬高地 東南쪽으로 흐르는 驛谷川을 氾濫케 하여, 高地를 孤立시킨 다음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陳述에 따라 사단에서는 한참 熱氣를 뿜고 있던 운동경기를 즉각 中止하고 緊急 作戰會議가 열렸으며 이에 대한 對策이 熟議되었다. 이 結果 연대장 林益淳 대령은 于先 白馬高地가 孤立될 때에 對備하여 1週日以上을 支撐할 수 있는 兵力을 확보하고 補給品이 集積되어야 한다는 判斷아래 제3대대를 白馬高地로 增援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제10중대가 담당하였던 正面과 제3중대 正面 一部를 담당하고 제11중대를 駝駝綫으로 推進시켜 前進陣地를 확보하여 萬端의 防禦태세를 갖추었고 充分한 補給品이 勞務者에 의하여 계속 推進되었다.

한편 나는 좁아진 防禦 正面에 병력배치를 再調整하고 다음과 같은 對策을 세웠다.

즉 첫째로 봉우리를 뺏기면 다른 봉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각 중대가 봉우리 單位로 四周防禦 陣地를 編成한다.

둘째로 敵의 砲擊에 對備하여 交通線을 한길 이상의 길이로 파고 掩體壕를 補強하여, 陣地前方의 鐵條網 3線을 7線으로 하며 地雷를 稠密하게 埋設하고 通信 wire를 交通線안에 全部 묻는다.

셋째로 각 散兵壕와 砲陣地에는 充分한 砲彈과 實彈 그리고 飲料水를 備蓄한다.

이와 같은 措置가 끝난 다음 나는 소 장병에게 『이제 우리는 죽어도 이 高地에서 죽고 살아도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最後의 瞬間까지 싸와 이기자』라고 一場 訓示를 하고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이 때 많은 兵士들은 遺囑를 썼고 遺品들을 後方家族들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敵의 공격예정일인 10월 4일에 막상 別다른 상황이 없자, 장병들은 多少 맥이 풀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敵의 散發의인 砲擊이 계속되고 基點을 測定키 위한 煙幕彈이 여기 저기 떨어져 심

대 敵은 1개군단兵力이 我軍은 4,000명이 각각 損失을 보았다.

이 戰鬪의 勝戰要因은 將兵들의 高度의 訓練水準과 實戰을 통한 戰技向上, 그리고 敢鬪精神이 있었다고 본다.

제30연대 제6중대 선임장교 金明默소위

(1975. 10. 2. 自宅에서, 예 대위)

우리 제6중대는 白馬高地 南端의 東쪽 主抵抗線(中馬山里)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秋夕날 오전중에 우리 중대 正面으로 中共軍의 政治將校가 귀순해 왔다. 그 이름은 “곡중교”라고 했는데, 言語가 서로 通하지 않았으므로(제2소대장 崔錫崇소위가 中國語를 약간 알지하였으나 地方語가 다름으로 不通), 漢字를 써가며 문답한 끝에「防」字와「攻」字를 써서 내밀었더니「攻」字를 짚는 것이었다.

그래서 敵의 大攻勢가 임박해 있음을 直轄하여, 연대本部로 後送조치했는데, 그의 情報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나중에 듣고 알았다.

§ 戰 訓

◇ 兵力의 補充 問題

連日의 激戰으로 兵力의 損失을 크게 보게 되자 陸本에서는 訓練所로부터 新兵을 緊急 空輸하는等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兵力의 充員自體는 적절한 措置였으나 主戰部隊에 訓練을 막 마친 新兵을 充員하였다는데는 문제점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戰鬪力은 人的 構成만으로 維持되고 發揮되는 것은 아니다.

短期間의 훈련만을 마치고 補充教育 또는 단계적인 實戰經驗을 쌓지 못한 新兵을 近接戰이 거듭 강요되는 激戰의 소용돌이 속에 投入하였다면 銃알 막이는 되었을지언정 戰鬪員로서의 自己任務 遂行을 期待할 수 없었던 것은 自명한 일이다.

여러 參戰者들의 證言은 이것을 如實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兵力의 確保가 當時의 狀況으로서 어려웠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驛前에 이러한 狀況에 對備하여 充分

한 訓練을 履修하고 可及의이면 戰鬪경험을 가진 예비兵力을 確保할 수 있는 體制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좀더 效果的이고 損失을 減少시킬 수 있는 戰鬪가 遂行되었을 뿐 아니라, 激戰中에 적지 않았던 落伍者도 사전에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 戰鬪部隊의 適切한 交替

戰鬪間에 사단장 金鍾五소장은 戰鬪부대를 適時에 交替하여 한 부대가 決定的인 損失을 보지 않게끔 配慮하였다. 頻繁한 부대交替는 戰術의 인 面에서 問題點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겠으나 通常 잘 싸우는 부대를 集中運用하여 戰功과 損失을 맞바꾸는 功名爲主의 先例들에 비추어 볼 때 戰勝의 原動力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金鍾五 소장은 그 證言에서

『잘 싸우는 부대라고 하여 危險한 戰況에 닥칠때마다 投入된다면 누가 잘 싸우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사단장은 激戰을 치르고 交代한 부대에 대하여 充分한 休息과 給食을 取하게 하고 兵力을 補充한 다음에 再投入토록 하였으니 각 부대는 언제나 새로운 戰鬪力을 維持하고 士氣旺盛하게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 步戰協同

전차부대는 그 創設이 日淺한데도 不拘하고 戰鬪期間中에 훌륭하게 步戰協同의 任務을 遂行하였다.

특히 제5차 攻防戰에 있어서 제53전차중대는 △288附近에서 白馬高地 東側方開闊地一帶에서 敵의 侵攻을 牽制하였고 공격間에는 牛尾洞에서 敵의 特火點에 砲擊을 集中하여 戰勝에 크게 寄與함으로써 步戰協同戰의 認識을 새롭게 한 바 있다.

◇ 航空과 砲擊支援

① 戰鬪期間中 充分하고도 適切한 航空支援은 戰勝의 한 要因이 되었다.

특히 밤새껏 계속된 航空照明은 敵의 侵攻을 牽制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新兵으로 充當된

戰鬪員들의 不安과 공포감을 除去하고 觀測과 照準射擊에 큰 도움을 주었다.

② 이 戰鬪기간중에 陸軍항공은 주간 669회, 야간 76회 出擊하여 일반용 폭탄 2,700여개, 네이팜탄 358개 그리고 750여발의 5"로켓탄을 투하하였다.

당시 美 제9군단 포병이 185,000여발을 제1포병단이 20,000餘발을 지원하였으며 제53전차중대와 美 제73전차중대가 白馬高地 左右側方에서 지원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 研 究

(1) 白馬高地의 名稱

△395를 白馬高地로 부르게 된 緣由에 관하여 여러 證言을 종합해 보건대, 戰鬪가 끝난 직후에 高地의 山容을 望見하니, 恰似 白馬의 臥像과 비슷하다 하여 이 名稱을 붙이게 되었으며, 제9사단의 部隊마크도 白馬像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10일간에 걸친 12차 攻防激戰의 硝煙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高地에는 무수한 彈痕이 새겨져 있었으며, 한포기의 草木조차도 남아나지 못한 山麓에는 돌가루와 흙더미만이 뒤덮여, 戰場을 정리하는 將兵들의 발목까지도 묻혔다고 한다. 그리고, 무수한 屍體가 흙더미에 파묻혀, 彼我를 가려내기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 驛谷川의 増水

中共 제38군이 蓬萊湖의 水門을 일제히 開放

하여 驛谷川을 범람시킴으로써, 我軍의 補給路를 차단하려던 계획은 실제로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證言에 따르면 10월 6일의 夜半부터 増水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장 깊을때가 가슴정도였다고 하니, 渡河에 아무런 지장을 겪지는 않았다고 한다.

(3) 驛谷川의 浮橋

驛谷川에 架設된 浮橋는 敵의 砲火로 因하여 자주 파괴당하였다. 때문에 사단으로서는 이 浮橋를 확보하기 위하여 美 제9군단의 工兵重裝備支援下에 最大限의 工兵力을 投入하였는데, 全戰鬪期間을 통하여 이 浮橋(一名, 忠誠橋)의 확보는 주요한 作戰의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

迅速한 예비兵力의 投入, 식량과 탄약의 推進補給등 浮橋의 役割은 勝因의 하나로 看做된다.

(4) 中共戰車의 出現

中共 제38군은 本戰鬪期間중에 下眞明洞과 長松洞의 2개 方面으로 여러 차례 戰車를 출동시킨바 있는데, 이는 美 제8군단의 情報報告와 사단의 戰鬪詳報에 依하여 是認하게 된다.

그러나, 美 제5공군의 制空權下에 완전히 萎縮당했을뿐, 實戰參與는 極히 輕微했던 것으로 看做된다.

(5) 사단의 部隊運用

本戰鬪期間중, 사단의 部隊運用을 한마디로 말하면 撤收와 逆襲의 반복이었는데, 그 經緯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게 된다.

(10. 15. 11.00— △395를 完全確保)

日 時	隊 別	作 戰	日 時	隊 別	作 戰
10. 6. 23.00	제28연대 제1대대	逆 襲	10. 12. 04.45	제28연대 제2대대	逆 襲
10. 7. 22.35	" 제2대대	"	10. 12. 08.00	" 제1, 제3대대	撤 收
10. 8. 17.00	" 제3대대	"	10. 12. 16.00	제29연대 제1대대	"
10. 8. 16.00	제30연대 제3대대	△255로 撤收	10. 12. 16.00	제30연대 제2대대	逆 襲
10. 8. 22.00	"	逆 襲	10. 12. 17.30	제29연대 제3대대	"
19. 9. 06.00	제29연대 제1, 제3대대	"	10. 12. 17.30	제30연대 제3대대	逆 襲
10. 9. 18.25	제28연대 제2대대	△255로 撤收	10. 13. 03.00	제28연대 제1, 제3대대	"
10. 10. 03.40	제29연대 제2대대	逆 襲	10. 14. 06.00	—29연대 제1, 제3대대	"
10. 10. 14.30	사단수색중대	"	10. 14. 08.00	제28연대 제3대대	撤 收
10. 10. 16.25	제30연대 제1대대	△255로 撤收	10. 15. 07.00	" 제1대대	"
10. 11. 08.30	" 제2대대	逆 襲	10. 15. 03.00	제29연대 제2대대	逆 襲
10. 11. 20.20	"	撤 收			

6. 狙擊稜線 戰鬪 (1952년 10월 14일부터
1952년 11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2 13 14호
상 황 도 제 52~57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제9군단 장 소장	Reuben E. Jenkins (11월8일附. 中將으로 승진)	중령	姜 弘 模 (11월18일부터)
제2사단 장	중장 丁 一 權 소장 姜 文 奎 (11월1일부터)	제1대대 장	소령 李 根 實 소령 河 相 卓 (10월25일부터)
제17연대 장	대령 殷 碩 杓 중령 金 弼 相 (11월20일부터)	제2대대 장	소령 宋 淳 根 소령 李 錫 俊 (10월25일부터)
제1대대 장	소령 金 忠 九 소령 崔 泰 炯 (10월25일부터)	제3대대 장	소령 申 大 均 소령 李 再 起 (11월3일부터)
제2대대 장	소령 姜 斗 馨	제2重砲중대장	대위 朴 再 洙
제3대대 장	소령 吳 壽 恒 소령 金 環 植 (11월8일부터)	사단工兵대대장	소령 金 基 鎭
제31연대 장	대령 金 容 珣	配屬部隊	
제1대대 장	소령 高 一 燮 소령 朴 鍾 漢 (11월7일부터)	제30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2대대 장	소령 安 專 源	제1대대 장	소령 金 永 先
제3대대 장	소령 閔 應 植	제2대대 장	소령 金 祥 玉
제32연대 장	대령 柳 根 昌	제3대대 장	소령 趙 南 國
		제37연대 장	대령 金 在 命
		제53戰車중대장	대위 趙 七 星 (11월1일附, 少領으로 進級)
		제59戰車중대장	대위 金 南 守

支援部隊

제1야포단 장	중령	朴炳柱
제18포병대대장	소령	金河吉
제51포병대대장	소령	孫善陽
제52포병대대장	소령	河永燮
제30포병대대장	대위	權五明
美제9군단야포단장	준장	Colkern
제93야포대대		
제980야포대대		
제75야포대대		
제92機甲野砲대대		
제143야포대대		
제424야포대대		

제955야포대대
제981야포대대
제140高射砲대대
제2Rocket砲대대
美제140戰車대대 1個中隊
軍團化學迫擊砲대대 1個中隊
제86工兵隊 照明中隊 第2小隊
軍團對空射擊隊1個小隊

隣接部隊

右隣接

제6사단 장 준장 白仁燁

左隣接

美제7사단장 소장 Wayne C. Smith

敵

中共

제15군	장	秦基偉
제45사단	장	崔建功
제133연대	장	申賀貴
제134연대	장	張信元
제135연대	장	賀洛會
제29사단	장	張顯揚

軍

제86연대	장	申見夢
제87연대		
제12군	장	會紹山
제31사단	장	趙藍田
제92연대		
제34사단	장	尤太忠
제106연대	장	蔡活明

나. 전투 전의 개황

本戰鬪는 1952년 10월 中旬에 丁一權 중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敵의 牙城으로 알려진 五聖山(金化 北쪽 7km)의 前線을 공격하여 42일 동안의 激戰끝에 그 關門을 掌握하게 되는 전투이다.

이 전투의 背景을 살펴보면, 1951년 가을철에 軍의 制限攻撃에 밀려 守勢를 취하던 敵이 一年이 지난 52년 秋季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積極攻撃을 취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51년 10월에 전개된 美제1군단의 「Commando작전」과 제9군단의 「Nomad線 進擊戰」으로 말미암아 劣勢에 허덕이던 敵은 同年 11월 27일에 체결된 軍事分界線問題의 假調印 協定을 고비로, 戰線이 小康상태에 들게 됨을 틈타서 兵力을 72個사단 502,000명에서 82個사단 866,000명으로 늘리고 裝備를 4個 砲兵師團에서 8個사단으로, 그리고 4個 砲兵旅團과 3個 機械化사단등으로 增強한 다음 52년 4월부터 9월까지 全戰線의 前哨陣地에서 散發的인 挑戰을 일삼다가 겨울이 다가오자 10월初에 一齊히 要地爭奪戰을 전개하여, 金城 東쪽의 이른바 首都高地와 指形稜線에서 首都사단의 前進陣地를 犯하는가 하면 鐵原溪谷의 白馬高地(△395)에서 제9사단의 堡壘를 침공하고 臨津江 상류의 「Nicki高地」와 「Tessie高地」에서 제1사단

을 위협하는 등, 積極策을 취하였다.

이에 反하여 軍에서는 如前히 守勢로 一貫함으로써 작전면에서는 先攻의 利點을 잃고 戰爭心理面에서도 萎縮을 면키 어려웠으니, 이같은 狀況을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10월 5일자 그의 書翰에서 밝히기를 『現事態를 逆轉시키기 위하여 敵으로 하여금 守勢를 취하도록 我軍이 主導權을 장악한 소규모의 공격작전이 매우 요망되며, 敵이 쉬고 있는 주도권 아래서의 現方策은 51년의 10월과 11월 사이에 있었던 熾烈한 戰鬪 以後에 가장 높은 死傷者를 내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述懐하였다.

더구나 當時에는 捕虜交換문제를 놓고 難航을 거듭하던 休戰會談이 끝내 決裂되어 10월 14일附로 그 본부대가 제7회 UN總會로 移管케 됨으로써 서로 政治的인 有利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政略의 配慮가 요망되는 시기였다.

이상과 같은 一聯의 興件을 감안하여 意見을 具申한 Van Fleet대장은 10월 8일附로 UN軍司司令官 Clark대장의 承認을 얻어, 美제9군단장 Jenkins소장에게 金化 北쪽에 있는 要害인 五聖山에 대한 制限 공격을 실시토록 명령 한 것이다.

이에 따라 軍단장은 「Show Down작전」이라고 命名한 이 작전을 10월 9일부터 急히 推進키로 하였는데, 그의 作戰概念은 제2사단으로 하여금 狙擊線을 탈취케 하고 美제7사단(장, Wayne C. Smith 소장)으로서는 三角高地를 攻略케 하여 여기에 軍단의 主抵抗線을 推進키로 하였으니, 이 兩 高地를 確保한다면 五聖山은 사실상 그 날개를 꺾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이같은 重任을 맡아 10월 14일에 狙擊線을 目標로 必勝鼓를 울렸는데, 敵도 또한 平壤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五聖山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발악함으로써, 처음부터 血戰으로 얼터 서로 양보 할 수 없는 形勢였으며, 이와같은 結果로 韓國戰爭史上의 最長記錄인 六週間の 激突을 보게 된 것이다.

敵軍의 狀況 : 當時에 五聖山 一圓에는 中共 제15군(장, 秦基偉)隷下の 제29, 제45 兩 사단이 布陣하고 있었는데, 最初로 狙擊線에서 사단과 對峙케 된 敵은 그중 제45사단(장, 崔建功)이었다.

이 사단은 51년 5월, 제2차 春季攻防戰에서 打撃을 받은 뒤로 開城 부근에서 部隊의 再編과 敎育을 마친 다음 52년 4월 中旬에 이 地域에 投入된 부대로서, 戰線에 加擔한 직후부터 제15군의 東翼을 擔當하여 그들 이하의 제133, 제135 兩연대를 대체로 五雲里와 金谷里간의 五聖山 南麓에 각각 展開하고 제134연대를 예비로 保有한 가운데 6個月 동안은 軍단 正面에서 活動한 부대이다.

이들은 여기에서 깊은 交通線로 연결된 堅固한 陣지를 구축하고 彈藥과 食糧을 地下에 저장하는등 長期的인 방어 대책을 세울 뿐 아니라 不斷한 威力搜索으로 攻擊의 機會를 엿보는 듯 하였는데, 특히 狙擊線 또는 狙擊兵線이라고 불리는 上甘嶺부근의 要線에는 항상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을 配置하여 사단의 補給線을 위협하고 不時로 狙擊을 노리는 실정이었다.

戰鬪後에 밝혀진 統計에 따르면 이들의 兵力은 9,065명에 달하고 主要裝備로서는 82mm박격포 54문을 비롯하여 60mm박격포 108문과 Kachjushia砲 18문 그리고 Rocket포 108문과 57mm反戰車砲 27문 및 各種기관총 207정등을 갖춘것으로 밝혀졌으며 支援부대로서 9個砲兵대대의 野砲 112문과 戰車 2個대대가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과 같은 兵力과 장비로서 사단과 대결하다가 戰鬪가 延長됨에 따라 激甚한 打撃을 받게 되자 10월 30일을 前後하여 제29사단(장, 張顯揚)과 交代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단 역시 5,200명의 兵力으로 抗拒하다가 痛撃을 받게 되자 11월 5일에는 金城盆地를 擔當하고 있는 제12군(장, 曾紹山)에서 제31사단(장, 趙藍田)을 뽑아 2,500명의 이른 바 그들의 精銳를 投入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제34사단(장, 尤太忠)의 제106연대를 증강하는 등, 연병력 20,000여명으로 抗戰하였다.

이와 같은 抵抗樣相으로 미루어 볼 때에 從來 보기도 못한 地域確保策을 취한 점이 特異하였으며 그밖에도 砲兵火力圈의 仰長과 充足한 補給은 當時 敵의 戰力 增強度를 말하여 주었다.

我軍의 狀況: 한편 사단은 51년 10월 中旬에 美제9군단의 「Nomad線 進擊戰」에서 一翼을 달아 金城 西南쪽으로 進擊하여 金化와 金城간의 要域을 확보한 뒤로, 軍의 方針에 따라 現地에서 방어에 任하고 있던 바, 52년 4월 5일에 제2군단(장, 白善燁 중장)이 創設됨을 계기로 하여 軍단의 右翼地域(華川과 金城부근)을 引繼하게 되자 사단은 美제9군단에서 配屬이 解除되어 軍의 直轄로 同年 3월 10일부터 史倉里에서 FTC訓練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8週間の 教育을 마치고, 同年 6월 1일附로 다시 史倉里 現地에서 美제9군단으로 復歸하여 軍단 예비로 있다가, 1개월만인 6월 29일에 軍단 작전명령 제28호에 의하여 美제40사단의 작전지역을 引受하면서부터 本戰團의 戰術地域인 軍단의 右翼을 擔當하게 된 것이다.

그러하여 사단은 1년전에 戰功을 떨친 바 있는 金化 東쪽의 南大川부근에서 제17, 제31, 제32의 3個연대를 主抵抗線에 배치하고, 6월 16일附로 사단에 配屬된 제37輕步兵연대(장, 金在命 대령)를 예비로 保有한 가운데 陣地補強과 教育訓練에 注力하고 있었는데, 7월 29일附로 丁一權 중장이 威炳普 中장의 뒤를 이어 사단장으로 부임하자 文盲者 退治를 겸한 政訓教育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勞務團(KSC)의 지원을 받아 陣地강화에 더욱 拍車를 가하고 있던 바, 前連한바와 같은 軍단의 「Show Down작전」이 계획되어 그 一翼을 擔當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 사단은 兵力과 裝備面에서 대체로 編制上의 95% 水準을 유지하였으며, 戰間간 지원부대로서는 제1野砲團(장, 朴炳柱 중령)의 제18포병대대를 비롯한 제51, 제52포병대대와 軍단野砲團의 美제93포병대대를 비롯한 제980, 제75, 제92, 제143, 제424, 제955, 제981포병대대 등 都合 16個野砲대대의 지원을 받았고 그밖에 제140高射砲대대와 제2 Rocket포대대 그리고 제53, 제59 兩戰車中隊 및 제2重迫擊砲중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또한 航空지원과 照明지원 등이 可能하였다.

이상과 같은 空地兩面의 支援下에 사단은 初頭에 柳根昌대령이 지휘하는 제32연대로써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進退가 異常한 激突을 보게 되자 공격 제2일제부터 제17연대(장, 殷頌杓 대령)를 增派하여 이 兩연대로써 끝까지 狙擊稜線을 공격케 된다.

다만 本戰團에서 特記할 사항은, 軍단 작전의 一環으로 左翼에서 三角高地를 공격하던 美제7사단이 10월 25일을 기하여 激戰地에서 물러나고 同地域을 사단이 擔當케 됨으로써 26일부터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가 이를 맡아 오다가, 敵勢가 強化됨에 따라 31일附로 제9사단(장, 金點坤 준장)의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가 當사단에 配屬되어 이 高地를 공격하게 되는 點이다.

從來에 이 內容은 제2사단의 記錄속에 취급되지 않았으나 同一한 狀況 아래서 사단의 작전概念에 따른 併行공격을 실시한 것이었으므로 本節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 동안에 걸친 戰團 內容을 同時에 收錄키로 하였다.

따라서 사단은 사실상 5個연대의 병력으로 狙擊稜線과 三角高地를 공격한 셈인데, 戰團要員들은 戰意가 왕성하고 工兵과 通信兵은 歩兵과 進歩를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行政要員들까지도 彈藥과 工事資材를 운반하는 등, 단결된 힘으로 第一線의 戰力을 強化하게 된다.

나. 전투 경과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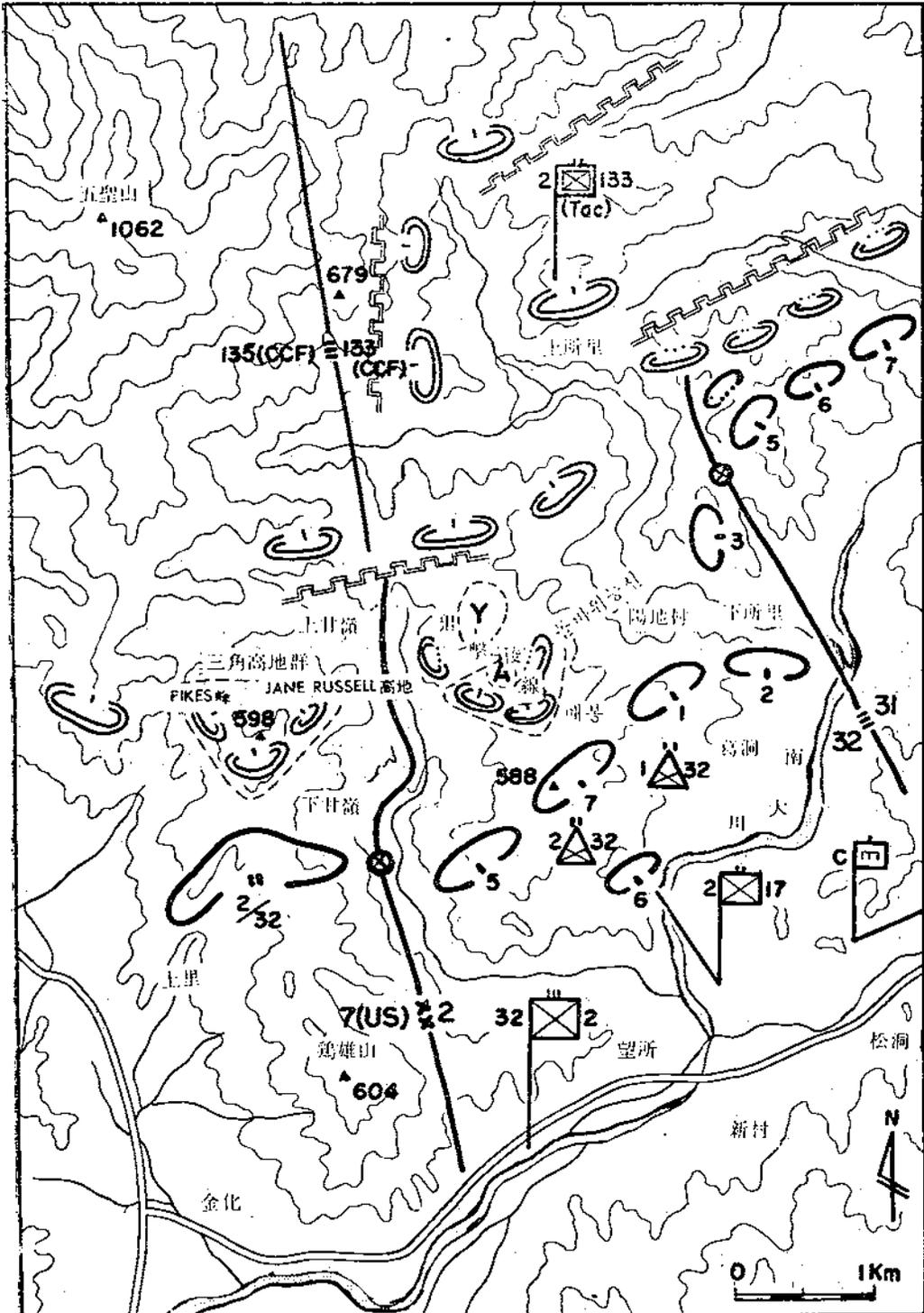
(1) 작전계획

1952년 10월 9일 20.00附로 하달된 軍단 작전계획 제32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단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598(上甘嶺부근)와 狙擊稜線을 確保하는 主 시로 여기에 主抵抗線을 推進하는 동시에 敵에게 최대한의 損傷을 加하려 한다.

② 제2사단(제37輕步兵聯隊, 제59戰車중대, 美제140戰車대대 1個中隊 配屬)

◇ 상항도 제52호 戰前前 彼我的 配置狀況



- ㉑ 步兵1個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과 여기에 따른 一部の 지원병력으로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狙擊稜線을 탈취하라.
- ㉒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로 주저항선을 推進하라.
- ㉓ 敵에게 최대한의 打撃을 加하라.
- ㉔ 美제7사단과 緊密한 협조를 유지하라.
- ③ 美제7사단(제91야포대대 및 제50야포대대 配屬)
 - ㉑ 1個대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으로 △598를 탈취하라.
 - ㉒ 목표를 탈취하면 主抵抗線을 擴充하라.
 - ㉓ 제2사단과 緊密히 협조하여 敵에게 최대한의 打撃을 加하라.
 - ㉔ 제9사단 地域內에서 敵의 反撃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제73戰車대대의 1個중대를 配屬케 하라.
- ④ 제9사단(제51輕步兵聯隊, 제1野砲團, 제53戰車중대 配屬)
 - ㉑ 現任務을 계속 수행하라.
 - ㉒ 軍단 作戰 期間中, 地域內에 대한 威力정찰을 실시하라. 以下省略』

이상의 명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軍단의 계획은 當時의 內外與件을 감안하여 요망되는 시기에 제2, 美제7 兩사단으로써 先制攻撃을 단행하여 敵의 前哨線인 五聖山(△1062)의 前緣을 탈취하는 동시에 敵에게 최대한의 損傷을 주고 또한 여기에 軍단의 主抵抗線을 推進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작전계획은 사실상 隸下의 각 사단으로 하여금 그 施行計劃을 미리 마련케 하는 준비령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이로부터 나흘 뒤인 13일 12.00부로 同計劃을 작전명령으로 發効케 한 점과 D일 H시를 그 다음날인 14일 05.00로 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미리 하달한 사단 작전계획 제34호를 同時附로 작전명령 제107호로서 發効케 함과 아울러 즉각 戰鬪態勢로 突入하였는데, 그 명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㉑ 美제9軍단은 有利한 地域을 確保하기 위하여 制限된 目標을 공격한다.
 - ㉒ 砲兵團은 공격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제980포병대대 : 제32연대 직접지원
 - 제18포병대대 } 일반지원
 - 제981포병대대 } 일반지원
 - 제92포병대대 } 일반지원
 - 제424포병대대 : 2個중대 일반지원
 - 제625포병대대 : 제18포병대대 화력증강 및 일반지원
 - ㉓ 美제140戰車대대 A중대는 제32연대를 직접지원한다.

- ㉔ 美제5空軍은 要請에 따라 隨時로 支援한다.
- ② ㉔ 사단은 地域內 Missouri線을 계속 방어 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狙撃稜線을 점령하여 주저항선을 推進하러 한다.
- ㉔ 공격개시 日時는 10월 14일 05.00이다.
- ③ ㉔ 제17연대
- 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 ㉔ 別途 命令이 있을 때에 1個대대를 제32연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㉔ 제31연대
- 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 ㉔ 現陣地에서 제32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㉔ 예비대대의 사용은 사전에 사단의 승인을 要한다.
- ㉔ 제32연대
- ㉔ 14일 05.00를 期하여 地域內의 목표 “A”를 탈취하라.
- ㉔ 최초 공격은 1個대대 병력을 사용하되, 美제7사단과 上甘嶺 溪谷에서 接觸을 유지하라.
- ㉔ 목표를 탈취하면 즉시 강력한 陣地를 구축하고 敵의 反擊에 對備한 逆襲計劃을 준비하라.
- ㉔ 제2重迫撃砲중대
- ㉔ 本作戰 기간중, 제31연대에 配屬된 1個소대를 제32연대로 配屬變更하라.
- ㉔ 제17연대에 配屬중인 소대로써 제31, 제17 양 연대를 一般支援케 하라.
- ㉔ 搜索中際
- 南川橋부근의 敵情을 수집報告하라.
- ㉔ 工兵대대
- ㉔ 제32연대에 1個소대를 배속시켜 공격간 지원케 하라.
- ㉔ 제32연대의 공격에 隨伴되는 所要의 築城機材를 14일 이전까지 支援하라.
- ㉔ 戰車중대는 現位置에서 제32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㉔ 제37연대(사단예비대)
- 現位置에서 언제라도 出動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라.
- ④ ㉔ 補給은 行政命令 제3호에 의거한다.
- ㉔ 後送 및 醫療
- ㉔ 사단 의무중대장은 14일 05.00까지 제32연대 救護班에 사단 Ambulance班을 배속시켜 葛洞에 위치케 하여 患者後送을 지원하라.
- ㉔ 공격간 발생 하는 긴급환자는 軍단에서 지원되는 Helicopter便을 이용하여 연대 救

護班에서 직접 후송토록 하라.

- ㉔ 연대 救護班과 사단 의무중대 지역(齋宮洞)에 對空布板으로 Helicopter着陸地點을 설치하라.

㉕ 輸 送

作戰間 수송지원은 사단 수송중대에서 專擔하라.

- ㉖ 通信事項은 現行 SOI에 依據한다. 其他 사항은 변동없음.]

이상과 같이 군단과 사단에서 각각 미리 마련된 作戰計劃에 따라 공격방침을 확정 함으로써 제32연대가 사단의 목표인 狙擊稜線을 공격케 되었거니와, 연대에서도 이미 작전계획 제22호로서 部署를 정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곧 작전명령 제40호로 轉換함과 아울러 그 施行에 着手하였는데 當該 명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목표 “A”를 공격하여 敵陣을 破壞하고 捕虜를 획득하는 동시에 占領地域에 주저항선을 推進하러 한다.

② 제3대대

㉗ 14일 05.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A”를 탈취하라.

㉘ 공격병력은 최소 2個중대로 하고 1個 중대를 예비로 보유하라.

㉙ “A”高地를 탈취하면 別途 命숨에 의하여 “Y”高地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㉚ 목표를 탈취하는 즉시로 陣地를 구축하되 上甘嶺 계곡에서 美제7사단과 接觸을 유지 하라.

③ 제1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되, 可用한 火力으로써 “A”高地 東北쪽의 敵火를 制壓하여 공격대대를 지원하라.

④ 제2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A”高地 西北쪽에 豫想되는 敵의 火力을 制壓하여 공격대대를 지원하라.

⑤ 搜索中隊는 현임무를 계속하라.

⑥ 協調地點은 제7중대 OF(매봉 東南쪽 無名高地)이다. 關係부대간의 상호통신을 인정한다.

⑦ 공격부대는 늦어도 공격개시 6시간전까지 葛洞에 集結하라.

⑧ 攻擊前 企圖秘匿에 유의하라.

⑨ 陣地編成 優先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하라.

㉛ 個人壕 및 火器陣地(敵의 豫想接近路로부터)

㉜ 射界淸掃

㉝ 鐵條網을 四重으로 架設

㉞ 偽裝

㉟ 交通壕(길이 1.5m, 幅 0.5m)

⑩ 주저함선상의 모든 부대는 한층 더 陣地를 補強하라.

⑪ 其他사항 변동없음.

⑫ 연대 指揮所는 甘鳳里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은 命令을 再確認하여 既定計劃대로 施行토록 지시한 연대장 柳根昌대령은 특히 強調하기를, 『目標地帶는 機動空間이 1km를 넘지않는 협소한 지역이므로 最初攻擊에 力點을 두어 奇襲의 效果를 높일 것과, 목표를 탈취한 뒤에는 必然코 敵의 反擊이 있을 것이니 곧 그 對備策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또한 敵의 反擊樣相에 따른 3가지 案의 逆襲方案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2) 작전실시

第一次戰·目標·狙擊稜線(10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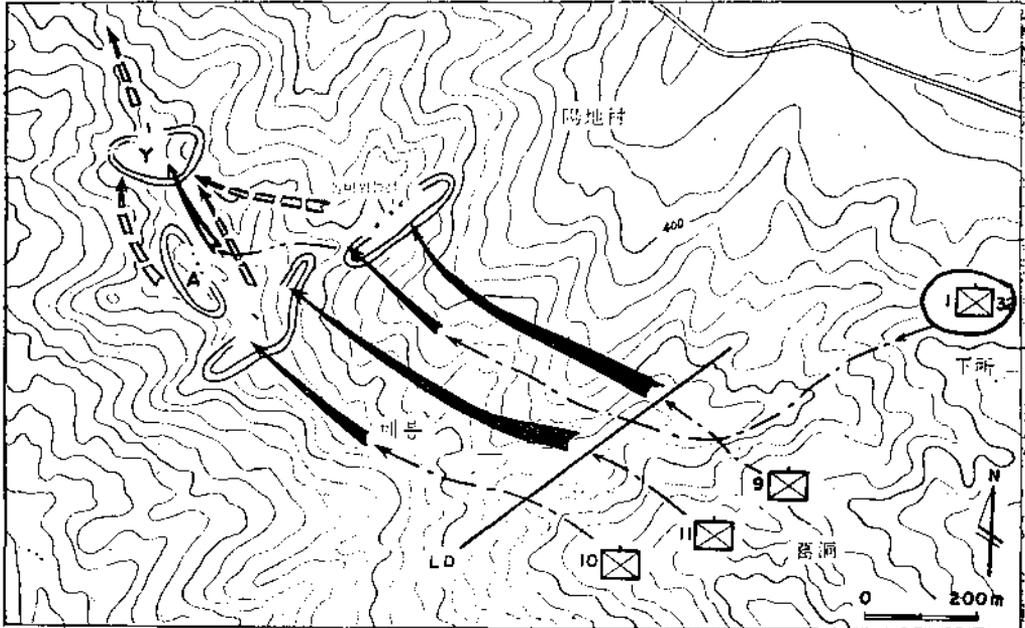
10월 14일 : 이날 04.30을 期하여 軍團 隸下의 16個 포병대대가 一齊히 砲門을 열어 공격준비사격을 단행하니, 하늘이 무너질 듯 한 轟음이 中部戰線을 뒤덮고 曉天을 메운 砲火가 五聖山(△1062) 一圓을 휘감았다. 드디어 敵陣의 要域을 擊碎하려는 軍團의 작전이 제 2, 美제7 兩 사단의 精銳로써 시작된 것이다.

이 때에 사단 正面의 狙擊稜線 일대에는 直接支援부대인 美제980野砲대대가 遠距離 擾亂射擊으로부터 공격준비사격으로 移行한 것을 비롯하여 제18포병대대(장, 金河吉 소령)와 美제92, 제424, 제981 野砲대대등 6個포병대대가 火力의 同時集中으로 30분동안 砲擊을 계속하였는데, 그동안 사단에서는 사단장 丁一權 중장을 비롯하여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과 정보참모 文重燮 중령 및 작전참모 金誦相 중령등, 관계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격대대인 제32연대의 제3대대(장, 申大均 소령)는 葛洞(金化 東北쪽4km) 부근에서 進攻대세를 갖추고 進擊信號가 오르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05.00가 되자 攻擊開始를 알리는 信號와 더불어 砲擊이 延伸되고 제3대대는 主力으로써 LD(下所와 △538를 連하는 선)를 넘어 躍進하였는데, 2個중대를 左右一線으로하여 제9중대는 東側의 “돌바위능선”(목표 “A”의 東北쪽 능선으로 山形이 岩石으로 鑿쳐진 까닭에 당시에 이같이 命名한 듯 함)을, 그리고 제10중대로서는 西側의 “A”高地(목표 “A”의 主峰)를 각각 탈취케 하는 한편 제11중대는 예비로 後續케 하여 一路 西北進 하였다. 그 사이에 지원부대인 美제140戰車대대의 “A”중대와 對空射擊隊는 목표에 火力을 집중하여 敵首를 들지 못하게 하고 또한 攻擊線의 隣接인 右側의 제1대대(장, 李根實 소령)와 左側의 제2대대(장, 宋淳根 소령)가 각각 自隊의 重火器 火力으로써 側方에서 지원하여 威勢를 더욱 높이니 進攻대대의 銳氣는 可히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가) 제9중대(장, 李伯衡 대위)는 右一線에서 짙은 안개와 砲煙으로 뒤덮인 陽地村 溪谷의 개활지를 一躍 횡단하여 “돌바위능선”을 목표로 들진하였는데, 06.50現在 主力이 同稜線의 300m 前方에 다다르자 敵의 82mm 박격포탄 30여발이 進出先端에 同時 集中되고

◇ 상황도 제53호 제32연대 제3대대의 공격



또한 자동소총 1정을 포함한 각종 小口徑 화력이 亂舞하였으므로 여기에서부터는 躍進과 匍匐으로 이어 한시간여를 진출한 끝에 08.00에는 제1소대의 先頭가 목표 右側의 8部稜線에 對空布板을 標識하고 중대의 主力은 敵陣 150m直前方으로 육박하였다.

이로부터 攻防의 激突을 보게 되었으니,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판단되는 敵線에서는 수류탄을 連投하고 右側方의 特火點에서 側射火力이 불을 뿜는가하면 彈種을 다 헤아리기 어려운 각종 砲火가 密度를 더하는 등, 防者의 저항도 頑強하였거니와 이에 맞선 중대에서도 戰車砲의 지원아래 可用한 모든 화력으로 集中突破를 企圖하여 불꽃 튀는 火力對決이 벌어졌다.

이렇듯 한시간 이상이나 계속되는 사이에 死傷者가 늘어가고 戰況은 特別한 進展을 보지못하자 중대장은 左第一線의 제2소대로 하여금 “A”高地의 東側稜線을 따라 敵陣의 西肩部를 強攻토록 하였던 바, 소대장 韓啓東 소위는 “매봉”과 “A”高地 中間의 능선으로 병력을 유도하여 雨注하는 彈幕을 뚫고 “돌바위능선” 西端部의 30m전방까지 突入하는 즉시로 一齊돌격을 감행 하였다.

그러나 빗발치는 수류탄과 특히 西側突出部에서 亂射하는 重機關銃의 側方火力으로 말미암아 다섯 차례에 걸친 돌격의 보람도 없이 死傷者만이 더하게 되었다.

이 때에 韓소위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陣頭에 나섰으니, 그의 眼中에는 오직 敵 特火點의 분쇄와 “돌바위능선”의 占領만이 있을 뿐으로, 先頭에서 합성을 높이며 敵陣에 挺身突入하여 직접 火力據點을 破碎하고 소대원을 이끌어 魂飛魄散하여 潰走하는 敵을 쫓아 목표의

정상으로 휘몰았다.

이 때가 10.15으로 이제 목표탈취의 一步前에 서게 되었는데, 敵은 바로 그 北斜面에서 2個소대 규모의 병력으로 逆襲을 감행하여 다시 8部稜線上에서 混戰을 벌이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대장 韓啓東 소위가 重傷을 입고 突擊隊가 차츰 孤立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대는 100m쯤 뒤로 물러서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면서 砲擊增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중대의 右第一線소대도 同稜線의 中腹에서 멈춘채로 전진을 보지못하였으니, 당분간 중대의 戰況은 好調를 기하기 어려웠다.

나) 한편 제10중대(장, 洪敬泰 대위)는 左一線에서 사실상 本戰鬪의 主目標라고 할 수 있는 “A”高地를 공격하였는데, 이 목표는 △538(下甘嶺 東北쪽 高地)로부터 “매봉”—“A”高地—“Y”高地(“A”高地 西北쪽 400m의 無名高地)로 이어지면서 縱隔室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현재 연대에서 장악하고 있는 △538로부터 西北進하여 中間目標인 “매봉”을 탈취한 다음 “A”高地를 圖謀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538에서 出擊한 同중대는 안개 덮인 稜線을 헤치면서 “매봉”으로 밀고 올라갔는데, 05.50부터 敵의 砲擊이 激增하더니 同高地의 中腹에서 소대규모로 판단되는 敵이 자동화기 2정을 비롯한 각종 소총과 手榴彈으로써 抗拒하고 또한 바로 그 左側의 上甘嶺 부근에서도 數未詳의 一團의 敵이 나타나 4정의 기관총 側射火力으로 進出全面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즉시 화력증원을 요청하여 유도된 砲擊으로 側方敵火를 제압함과 아울러 한시간 동안에 걸친 力攻끝에 이를 격파하여 前進基地를 확보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곧 戰列을 가다듬어 09.00부터 제1, 제3 兩 소대로서 다시 “A”高地의 兩側方으로 突入하였는데 이 高地에서는 중대규모가 堅固한 陣地에서 頑強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바로 進路가 敵의 彈幕地帶가 되어 苦戰을 치르기도 하였으나, 풀 한포기 돌하나까지라도 이용하면서 계속 前進하여 10.00에는 兩高地의 東斜面으로 육박하였다.

이 때에 중대는 火焰放射器를 선두로 敵의 特火點공격에 注力하면서 力攻을 거듭하고 있던 바, 마침 UN空軍의 F-51戰爆機 1個편대가 불현 듯 나타나 機銃洗禮를 加하고 또한 4.2” 박격포의 近接支援을 얻게 되자 이와 더불어 適時에 공격력을 집중 하였는데 敵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특히 9部稜線상의 바위 틈에서 불을 토하는 자동화기의 위력과 수류탄의 집중 투하로 말미암아 30여분 동안의 攻擊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1소대에서 2個分隊의 特攻隊를 편성케 하여 巖石사이의 敵特火點을 破砕케 하는 한편 主力으로써 突擊을 단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2시간 동안의 수류탄 대결끝에 右第一線소대가 “A”高地 東北稜線의 一角을 탈취하고 主力은 대체로 8部능선까지 진출케 되었으나 중대에서도 損失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수류탄과 실탄이 모자라 續攻이 어렵게 되었으며 더구나 시시 각각으로 증강되는 敵

勢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중대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守勢로 轉換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한 急編방어陣地를 구축하면서 대대에 탄약과 병력의 增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 때에 대대장 申大均 소령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一線 兩중대의 공격이 如意치 못하자 예비대를 急派하여 戰況을 打開키고 결심하고 제11중대장 金良謙 중위에게 『즉시 兩중대의 中央地帶로 進擊하여 “A”高地를 탈취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는 急速, “A”高地의 東쪽 稜線으로 突入하였는데, 同중대는 이미 戰線突入의 태세를 취하고 “매峰”右麓에서 待機하고 있는터이라 一路 戰線으로 突進하던 바, 敵의 增援부대인 듯한 一團이 “돌바위능선”西側에서 不時에 나타나 側方火力으로 進路를 막아섬으로써 중대는 여기에서 멈춘채로 13.00가 지날때까지 火力對決을 반복케 되었으니, 이 증원부대마저 敵線을 뚫지못하고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제3대대의 進擊狀況을 銳意注視하던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回隅(金化 東北쪽 6km) 뒷산에 자리한 연대 O.P에서 戰況을 종합분석한 끝에 同대대의 力不足으로 판단하고 즉각 攻擊力의 증강책을 취하여 제1대대장 李根實 소령에게 1個중대를 제3대대에 지원토록 하는 동시에 제3대대장에게는 『지원된 중대를 統合지휘하여 목표 “A”를 신속히 탈취하라』고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저함신상의 제1, 제2대대에서도 可用한 火力으로써 이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하면서 攻擊再舉 시간을 13.40으로 결정한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작전명령 제40호의 修正 작전지시 제2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라) 이상과 같은 명령에 따라 支援부대로 선발된 제1대대의 제1중대(장, 金地星 대위)는 集結地인 下所(金化 東北쪽 5.5km)를 출발하여 戰火에 싸인 “A”高地로 躍進하였는데 예정 시간에 이날의 공격 出發線이었던 葛洞교개에 이르자 제3대대장의 지휘하에 들어가 대대장 申大均 소령으로부터 『제9중대를 超越하여 “A”교지의 東側背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一躍 陽地村 개활지를 넘어섰다.

이리하여 14.00에 제9중대의 攻擊線을 左側에서 초월하는 즉시로 “A”高地의 東側으로 突入하였는데, 바로 이 무렵 제3대대에서도 彈藥의 再補給과 함께 지원화력의 집중적인 도움을 얻어 공격을 再開케 되었으니, 이날의 攻擊은 必死의 決戰의 高調에 달하였다.

이렇듯 총력공세를 취한 대대는 正面공격과 側方挾攻을 配合한 妙를 보이면서 敵線을 강타한 끝에 먼저 右一線인 제9중대가 제1, 제2 兩소대로써 “돌바위능선”東斜面으로 집중 돌격을 감행하여 20분 동안의 肉迫血鬪로 이를 탈취하고 곧 이어서 그 後斜面의 石窟속에서 발악하는 敗殘의 무리까지 격멸하여 先占의 功을 세웠으며, 그 뒤를 이어 14.30에 中央의 제11중대가 제9중대의 掩護아래 “A”高地의 東側으로 突入하여 4차에 걸친 돌격 끝에 “A”高地를 완전히 탈취함과 아울러 2個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는가 하면 左一線인 제10중대도 同高地의 西斜面으로 突入하여 그 西北稜線을 점령하는 등 목표 “A”를 掌中에 넣

게 되었다. 한편 支援한 제1중대는 이무렵 “A”高地 東北쪽에서, 同高地가 대대의 主力에 의하여 장악하게 됨을 확인하는 즉시로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Y”高地쪽으로 戰果를 확대하면서 潰敵을 쫓아 물밀듯이 밀고 올라갔다.

이 때가 15.00를 넘을 무렵이었으니 대대는 공격을 시작한지 10시간만에 목표 “A”를 탈취한 셈이었는데 敵의 저항도 類例없이 완강하여 공격간에 무려 252명을 射殺 내지 砲殺하고 1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며 대대에서도 협소한 기동공간에 過多히 兵力을 投入하여 장교 4명을 포함한 141명의 死傷者를 내게 된 바,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可히 그 激烈相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어떻든 “돌바위능선”과 “A”高지를 手中에 넣은 대대는 主力으로써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제1중대로 하여금 “Y”高지를 탈취토록 하였던 바, 2시간여의 공격끝에 同高地에서도 2個소대 규모의 烏合의 무리를 무찔러 射殺 54명과 捕虜 1명의 戰果를 추가하면서 17.50에는 이 목표까지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무렵 연대에서는 “A”高地 탈취를 계기로 하여 占領陣地의 確保策을 검토한 끝에 16.00附로 作命 제40호 修正 작전지시 제3호를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를 보면, 연대의 예비로 增派되었던 제17연대 제2대대에서 1個중대를 抽出하여 제3대대를 더욱 補強, 제10, 제11중대와 함께 “A”高지를 全面防禦케 하는 동시에 제9중대로서는 “돌바위능선”을, 그리고 제1중대로서는 “Y”高지를 각각 確保케 하여 都合 5個 小銃中隊의 병력으로 縱深깊은 방어陣地를 구축하되 늦어도 19.30까지 陣地編成을 完了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自隊兵力을 再編하고 제17연대에서 增援된 제5중대를 통합하여 支援工兵의 협조아래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탄약을 보충하고 患者를 후송하는 등, 대체로 19.00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夜間 경계태세로 들어 갔다.

마) 한편 당면의 中共 제45사단(장, 崔建功)은 縮戰에 타격을 받고 그들 제133연대(장, 申賀賈)의 殘兵을 上所里와 五聖山 主峰부근으로 철수시키는 듯 하더니, 18.00부터 砲擊을 증가하여 “A”高지를 비롯한 점령지역 일대에 무려 6,000여발의 砲火를 집중하였거니와, 이는 陣地편성을 방해하려는 擾亂射擊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그 苛烈相으로 미루어 보아 反擊의 徵候가 뚜렷하였으며, 이 砲擊으로 말미암아 密集防禦태세를 취하고 있는 대대에서는 상당한 사상자를 더하게 되었다.

이러한 砲煙속에 어느덧 薄暮가 지나고 대대는 야간 경계태세로 들어 갔는데, 날이 저문지 한시간여를 지난 19.50에 “Y”高지를 지키고 있는 제1중대의 警戒分哨로부터 敵襲 보고가 들어오고, 이어서 20.00에는 △679(上所里 西北쪽 1.8km) 南쪽의 上所里 계곡에서 증강된 대대규모의 敵이 “Y”高지를 三面에서 에워싸고 집중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대에서는 照明支援아래 陣前擊滅戰을 전개하였는데, 敵은 격심한 損傷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항용수법인 集中과 迂回의 互用으로 “Y”高地 正面에서 波狀攻撃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그 一部가 “A”高地까지 侵襲하여 肉薄으로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끝내 20.45에 제1중대의 陣地가 무너져 “A”高地에서 血鬪가 전개되었는데 敵은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는 듯, 또 일부가 21.20에 “A”高地 후방에까지 侵入하여 退路를 차단코자 함으로써 戰況은 점점 不利하여져만 갔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은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現戰線의 堅守에 따른 過多한 병력손실을 예견하고 22.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구두 명령을 하달하였다(작명 제40호 修正작전지시 제4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① 연대는 제3대대를 일단 철수시킨 다음 明日 09.30을 기하여 목표 “A”를 再攻撃, 탈취하려 한다.

② 제17연대 제2대대

㉑ 대대는 제3대대의 작전지역을 인수하여 목표 “A”를 탈취하라.

㉒ 제3대대에 배속중인 제5중대를 15일 04.00부로 원대 복귀한다.

③ 제3대대

㉑ 대대는 葛洞으로 집결하여 부대를 再編한 다음 別途 命令에 即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㉒ 配屬中인 제17연대 제5중대와 제1대대 제1중대를 原隊로 복귀시키라.

以下省略』

이에 따라 제3대대는 葛洞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다음 제1중대는 24.00부로, 제5중대는 15일 04.00부로 각각 원대복귀시켰으며, 제17연대의 제2대대는 光三里(金化 東北쪽 6km)에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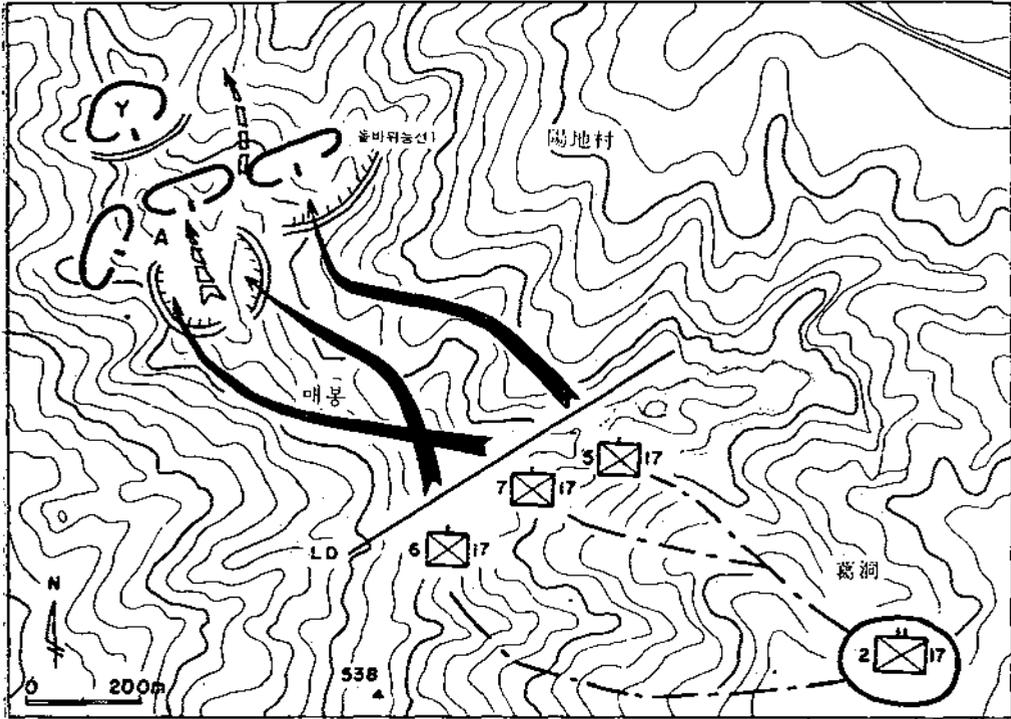
第二次戰 제17연대 제2대대의 增派(10월 15일)

10월 15일 : 전날(14日)밤 제3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狙擊稜線이 다시 敵中에 떨어지자 연대에서는 이를 再奪取키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10月 15日)은 특히 火力의 集中度를 높이기 위하여 戰車 1個소대를 △538의 上峰으로 推進, 공격대대를 직접지원케 하는 동시에 直接支援砲兵인 美제980野砲대대는 “A”高地와 “돌바위능선”에 火力을 集中토록 조치하는 등, “A”高지를 탈환하는데 刀點을 두고 제2차 공격을 시작하였다.

가) 제32연대에 配屬中인 제17대대(장, 殷碩杓 대령)의 제2대대(장, 姜斗驤 소령)는 이날의 主任務를 맡아 拂曉에 光三里를 出發하여 04.30에 葛洞에 당도하자 여기에서 집결, 대기중인 제5중대를 統合한 다음 再攻撃의 信號를 올렸다.

즉, 대대는 예정시간인 09.30에 葛洞과 △538 사이에서 각 중대별로 展開하여 전날 一戰을 치른 바 있는 제5중대는 右一線을 맡아 “돌바위능선”을 공격케 하고 제7중대는 左側의 “A”高지를 탈취케 하는 한편 제6중대는 예비로서 △538 右麓을 따라 後續토록 조치하여

◇ 상황도 제54호 제17연대 제2대대의 공격



再擧의 신호를 올린 것이다.

이리하여 10.40현재 대대는 主力으로서 “대봉”을 넘어 左右一線의 兩 중대가 각각 목표의 150m 전방에까지 육박하였는데, 바로 이 一帶가 敵의 彈幕地帶가 되어 몇명의 死傷者를 낸 바 있었으나 이를 헤치면서 거듭된 突進으로 敵陣을 直衝하던 바, “돌바위능선” 西斜面에서 亂射하는 敵의 重機關銃을 비롯한 2個 중대 규모의 병력에 의한 각종 화력과 수류탄 저항으로 또 다시 熾烈한 화력 대결을 보게 되었다.

이같은 激突이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右一線인 제5중대가 陽地村으로 推進된 戰車砲의 지원을 얻어 돌격을 감행한 끝에 12.25에 同稜線의 정상으로 뛰어 올라 끝까지 저항하는 소대 규모의 敵을 撲滅함과 아울러 本攻擊을 위한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左側의 제7중대는 아직도 “A”高地의 中腹에서 멈춘채로 수류탄 대결을 반복하게 되자 대대장 姜斗驤 소령은 바로 이 때가 攻勢力을 增強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13.40을 期하여 예비인 제6중대로 하여금 『“A”高地 東側으로 急進하여 그 右肩部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제6, 제7 兩 중대가 “A”高地를 집중공격 하였는데, 이미 “돌바위능선”을 탈취한 제5중대가 東側方에서 敵의 背後를 위협할 뿐 아니라 △538에서 北쪽으로 500m나 推進된 2輛의 戰車에 의한 포격이 奏効하고 또한 命中率가 높은 57mm 無反動銃의 制壓效果

가 적절하여 이러한 左右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시간여에 걸친 力攻끝에 兩 중대는 드디어 14.30에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날 대대의 종합戰果가 확인射殺 135명과 捕虜 1명 및 기관총 7정 등을 기록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장소에서 얻은 戰果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대도 또한 장교 7명을 포함한 91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어 곧 각 중대별로 再編과 더불어 陣地構築에 착수하였는데, 바로 이무렵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방어兵力을 더욱 증강키로 결정하고 15.00부로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작명 제40호 수정 작전지시 제5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 『① 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A”高地上的 방어진지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現陣地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A”고지로 進出하여 17.30까지 兵力配置를 완료, 同高地를 專擔방어하라.
 ③ 제17연대 제2대대는 “A”高地 방어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主力을 “Y”高地 南端으로 推進하여 縱深陣地를 점령하는 동시에 1個중대로서 “돌바위능선”을 방어케 하라.
 ④ 제3대대는 제2대대의 陣地를 인수하여 主抵抗線上的 右一線을 방어하라.
 ⑤ 제1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⑥ 交代間 인수인계는 신속 정확히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3대대(장, 申大均 소령)를 제2대대와 교대시켜 主抵抗線上的 右一線을 맡게 하는 한편 同地域에서 제2대대(장, 宋淳根 소령)를 뽑아 “A”고지로 추진하여 이를 全面防禦토록 하였으며 또한 이날 殊勲을 세운 제17연대의 제2대대는 2個중대를 “Y”高地 兩側方에 배치하여 방어縱深을 깊게 하고 1個중대로 “돌바위능선”을 堅守토록 한 것이다.

나)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兩 대대는 17.30까지 병력을 배치한 다음 전날의 體驗을 되살려 陣地構築에 힘을 기울였는데 敵은 다시 제2차 反擊을 감행하였다. 즉, 19.30부터 砲擊과 더불어 공세를 취한 中共 제133연대는 “Y”高地 北쪽에서 증강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제17연대 제6중대 陣地의 中央突破를 노리는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數未詳의 一團이 “돌바위능선” 東側으로 다가오고 또한 일부의 병력이 그 中央地帶의 溪谷으로 侵襲하는 등 全面攻擊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마치 전날의 反擊과 같은 樣相으로 그 機動과 공격 방향이 同一하고 攻擊手法도 또한 같아 연대의 支援砲兵들은 TOT사격으로 鐵火를 加할 뿐만 아니라 可用한 모든 火力을 집중하여 陣前擊滅戰을 폈다.

그러나 敵의 侵攻도 強烈하여 19.50에는 狂波같은 兵力이 2個대대규모에 달하고 그 일부는 “Y”高地를 迂回하여 제32연대 제6중대의 방어正面인 “A”高地의 西斜面에까지 侵襲하였으며 더구나 이날은 날씨가 흐려 照明支援이 如慮치 못한데다 敵의 速攻으로 말미암

아 다시 “A”高地의 수류탄 대결로 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한 시간여의 肉彈混戰이 거듭되는 사이에 彼我를 가릴것 없이 死傷者가 累增하고 또한 側後方 敵勢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연대장은 부대를 수습함과 아울러 이를 砲擊으로 殲滅키로 결심하고 20.30에 『兩대대는 각각 1個중대의 병력으로써 敵의 進出을 牽制하면서 主力을 “매峰”으로 집결시켜 再攻擊을 준비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A”高地의 8部稜線에 配置된 제32연대의 제5중대와 “돌바위능선”의 제17연대 제5중대가 殘留接觸隊로 남고 제17연대의 제6, 제7兩중대와 제32연대의 제6, 제7兩중대는 戰車砲의 掩護아래 “매峰”으로 隨意 철수하여 戰列을 整備하였으며 그동안 前記 兩중대는 “A”高地 南斜面으로 한걸음 물러서서 侵攻 要路를 遮斷하였다.

이때가 23.20으로, 연대는 砲火가 狙擊稜線에 작열하는 가운데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敵은 “A”高地에서 攻擊을 멈춘 듯,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고 戰線에는 밤비가 내렸다.

다) 이윽고 子正을 넘어 01.00가 되자 연대는 暗中霖雨에도 不拘하고 銳氣를 돌아 다시 攻擊에 나섰다. 즉 “A”高地와 “돌바위능선”을 強打하던 砲擊의 延伸과 더불어 세번째로 공격에 나선 연대는 제17연대 제2대대장 姜斗鏗 소령이 지휘하는 2個중대와 제32연대 제2대대장 宋淳根 소령 휘하의 2個중대로써 “A”高地의 左右兩側方에서 兩面攻擊을 加하다가 同 高地의 南斜面에서 다시 殘留부대와 合勢하여 三面直衝으로 深夜의 集中突擊을 단행한 것이다.

이리하여 一擊에 중대규모의 敵을 무찔러 “Y”高地쪽으로 격퇴하고 01.30에 先鋒이 同高地를 奪還하는 즉시로 主力을 추진하여 이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바로 四周방어태세로 들어갔다.

이같이 하여 연대는 세번째로 同高地를 장악하게 되었거니와, 이 高地는 主人이 바뀔 때마다 丘陵의 形態를 바꿀 듯 한 무수한 砲擊과 白兵對決로 말미암아 1km²에 지나지 않는 稜線이 온통 腥血에 들든 바 되었다.

第三次戰 敵의 洞窟作戰(10월 16일~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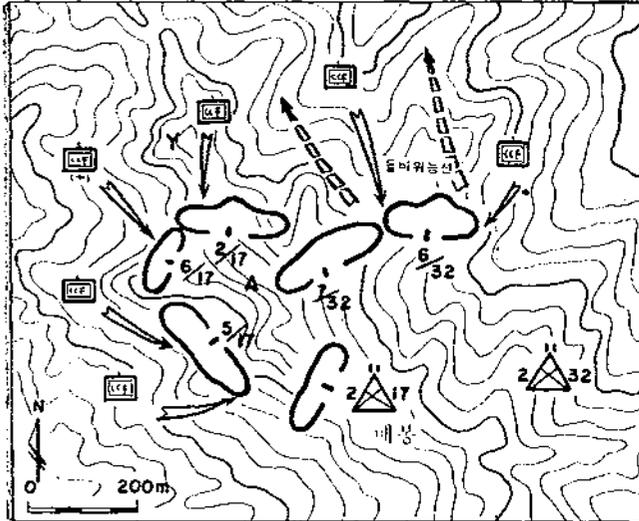
10월 16일 : 전날 中共 제133연대(장, 申賀實)의 主力을 擊破한 연대는 “A”高地와 “돌바위능선”을 連하는 線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진지를 강화하고 있던 바, 狙擊稜線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敵은 全力을 投入하여 제3차 反擊을 감행 함으로써 또 다시 五聖山에 불꽃이 튀었다.

그런데 이날의 공격은 特異한 바 있었으니, 本是 中共軍의 恒用戰法은 火力보다도 兵勢의 威力으로, 주로 夜間을 택하여 공세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 공격에서는 감히 黎明으로부터 晝間공격으로 移行한 點과 前例없이 砲兵活動이 強烈한 點, 그리고 洞窟作

戰을 陣 點 등이 주목할만 하였다.

가) 이날의 첫 對決은 05.00에 시작되었는데 먼저 “돌바위능선”의 東側方을 맡고 있는 제 32연대 제6중대의 陣前으로 중대규모가 侵攻한 뒤를 이어 그 一部가 同稜線의 東北斜面인

◇ 상황도 제55호 中共제133연대의 反擊



陽地村 계곡을 따라 側後方으로 侵襲하는가 하면 또한 다른 2個소대 규모의 敵은 제17연대 제5중대의 방어正面인 “A”高地 西斜面으로 침공하였다. 더구나 “돌바위능선”北쪽에서 나타난 敵은 그 出現場所가 바로 同稜線의 後斜面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砲擊에도 能히 견딜수 있는 洞窟속에서 잠복하다가 不時奇襲을 노린 것이 分明하였다.

이리하여 이 兩高地에서 다시 激突을 보게 되었거니와 1시간이 지난 06.00에는 一部의 敵이 “A”高地 東南쪽까지 侵襲하여 “매봉”을 위협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一群은 同高地의 西斜面으로 侵入하여 마침내 背後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A”高地에 대한 陣內射擊을 결심하고 제5중대로 하여금 “매봉”쪽으로 신속히 철수토록 지시하였던 바, 이에 따라 同중대가 包圍網을 뚫고 “매봉”으로 轉進하자 敵線에서는 白色 信號彈 1발을 발사함과 함께 同高地의 西斜面으로 集中殺到하였다.

이무렵 “돌바위능선”의 제32연대 제2대대도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00m쯤 뒤로 물러서게 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砲擊을 增強한 사단의 支援砲兵團에서는 火集點 번호 CR 308, 309, 311, 312, 313, 414, 415 등(“A”高地와 “돌바위능선”一帶의 火力集中點)의 地域에 대한 물של틈없는 火力洗禮를 加하였으며 특히 一部의 時限信管까지 사용하여 노출된 敵兵을 발붙일 곳 없이 爆殺하였다.

이와같이 40여분 동안에 걸친 砲擊이 끝난 뒤를 이어 연대는 네번째로 공격을 단행하였는데, 제32연대의 제2대대(장, 宋淳根 소령)는 “돌바위능선”을 제17연대의 제2대대(장, 姜斗驤 소령)는 “A”高地를 각각 탈취케 하였던 바, 08.30에 “돌바위능선”의 突出部로 對空 布板을 추진한 右一線대대는 25분동안의 交戰끝에 同高地로 突入하여 소대규모의 敵을 剔抉한 다음 계속 “Y”高地쪽으로 追擊戰을 폈으며 左一線대대도 또한 제5, 제6 兩중대로써

09.30에 一齊突擊을 감행하여 중대규모의 抗敵을 撲滅하는 등 一擧에 狙擊殺線을 탈환하였다.

나) 이상과 같이 저격능선을 다시 장중에 넣은 연대는 곧 陣地工事に 착수하는 한편 지금까지 2晝夜 동안을 계속하여 一線에 있던 제17연대의 제2대대를 교대키로 결정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작명 제40호 修正 작전지시 제6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① 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一部の 兵力을 교대하여 陣地를 強化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제17연대 제2대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15.30까지 兵力配置를 完了, “A” 高地의 방어에 임하라.

③ 제17연대 제2대대는 現任務를 제1대대에 引繼하는 즉시로 下所로 轉進하여 主抵抗線上의 右一線 방어에 임하라.

④ 제2, 제3 兩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以下省略』

이상의 명령에 따라 下所를 出發한 제1대대(장, 李根實 소령)는 葛洞을 경유, 14.00에 “A” 高地로 陣入하여 敵彈이 빗발치는 가운데 제17연대 제2대대(장, 姜斗馨 소령)의 陣地를 인수하고 引繼部隊는 任地로 떠났으며, 그동안에도 “돌바위능선”의 제2대대(장, 宋潯根 소령)는 계속 陣地를 補強하는 등 全般的인 兵力配置를 再調整하였는데, 이 방어진지 편성은 대체로 6個 小銃中隊로써 “A” 高地와 “돌바위능선”에서 全面防禦태세를 취한 형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각 중대에서는 工兵中隊의 기술지원 아래 障礙物을 設置하였는데 특히 제2대대가 “A” 高地 東北斜面의 敵侵要路에 鐵條網 200m와 對人地雷 20발을 敷設할 때에는 敵의 妨害射擊이 酷甚하여 몇명의 負傷者를 내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계획된 작업을 마쳤으며 또한 제1대대는 左隣接인 美제7사단 제31연대(장, Lloyd R. Moses 대령)와의 接境地帶인 上甘嶺 계곡에까지 병력을 배치하는 등 固守態勢를 튼튼히 갖추었다.

다) 이상과 같이 兩대대가 陣地를 強化하고 있을때에 敵陣에서는 무수한 포격을 감행하였으니, 이날의 各種敵彈 落彈數가 4,520여발인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들의 火力增強度를 推察할 수 있거니와, 이윽고 날이 저물자(이날의 EENT는 17.55임) 18.20에 그 醜鋒이 다시 나타나 네번째로 反擊을 시작하였다. 즉, 제2대대의 방어 正面인 “돌바위능선”으로 指向한 敵은 그 西斜面의 제6중대 陣前으로 중대규모가 侵攻하고 또 다른 2個소대 규모는 그 右側의 제5중대 陣前으로 侵襲하여 日暮와 함께 交戰이 시작되었다.

이에 兩중대에서는 주로 手榴彈을 이용한 陣前擊滅로 한시간 동안의 交戰 끝에 이를 격퇴하였던 바, 이들은 “Y” 高地쪽으로 潛跡한 듯 하더니 20.30에 다시 兵力을 더욱 증강하여 全面攻撃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兩側方攻擊과 正面突破를 配合한 三面攻圍로서 “돌바위능선” 東側의 陽地村부근에서 중대규모가 挑發한 것을 비롯하여 “A” 高地 西斜面에서도 2個중대 규모가 침

공하는가 하면 交戰이 시작되지 30분이 채 못되어 다시 중대규모의 병력이 “A”高地 北斜面에서 發惡하였다.

그러나 航空照明 지원아래 유도된 사단의 砲火力이 地殼을 무너뜨리면서 効力射의 極致를 보여 특히 “A”高地 西斜面의 敵線에 集中打를 加함으로써 敵은 交戰 3시간 동안에 229명의 爆殺者를 남긴채로 23.30을 前後하여 白色 信號彈을 올리더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까지 사단에서는 “돌바위능선”北쪽에서 不時出沒하는 敵의 正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이날 전투에서 사로잡은 捕虜의 진술에 따르면 敵은 바로 이 부근에 過去의 廢蹟을 이용하여 중대규모 이상의 병력을 收容할 수 있는 洞窟을 마련해 놓고 砲擊이甚하거나 戰況이 不利하면 그곳으로 潛跡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전투에서도 그 洞窟속으로 潛入한 것이 分明하였으나 아직 그 內容을 확인하지 못한 터이라 연대에서는 一旦 現陣地를 固守키로 하였다.

10월 17일 : 전투는 連日連夜 계속되었다.

가) 전날밤에 자취를 감추었던 敵은 이날 새벽부터 다시 夜襲을 企圖하여 01.25에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돌바위능선” 東斜面의 제6중대 陣前에서 不時奇襲을 노리는가 하면 01.40에는 “A”高地 東斜面의 제3중대 正面에서 발악하는 등, 다섯번째로 反擊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한 시간여의 交戰끝에 死傷者만을 더욱 증가시켰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02.45에 물러서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는 사단의 砲兵과 對空射擊隊의 戰功이 지대하였으며 특히 제2重 迫擊砲중대의 近接支援이 奏效한 바 있었다.

나) 敵은 이처럼 苦杯를 거듭 마시면서도 또 다시 여섯번째로 反擊을 감행하였으니, 이번에는 04.00부터 砲門을 열어 “A”高地를 중심으로 한 兩대대의 配置線 一圓에 122mm 野砲를 비롯한 各種砲彈 2,000여발을 集注한 다음 04.20을 기하여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밀려들었다.

그런데 이번의 侵襲樣相을 보면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 처럼, 철수한지 2시간도 채 못되어 바로 陣前에 나타나는 바, 이는 전날 捕虜들의 진술과 같이 洞窟속에서 不時로 出現하는 것으로 分析되었으며, 더구나 敵은 전날밤에 中尉 제45사단의 예비인 제134연대(장, 張信元)가 새로이 投入되었다고하니 이번 공격은 그들의 洞窟작전인 것으로 推測되었다.

어떻든 이같이 공세를 취한 敵은 兩대대의 配置線 中央地帶를 노리는 듯, 제3중대와 제6중대의 接境지대에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集中突破를 시도 함으로써 同一 장소에서 다섯차례에 걸친 最後阻止사격으로 激突을 보게 되었으며 04.45에는 2個 중대규모의 敵이 더욱 加勢하여 제3중대의 陣地에서는 一時 肉薄戰을 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서 對砲兵射擊을 加함에도 不拘하고 位置未詳의 敵 砲陣에서는 포격이 甚烈하여 지원부대들

의 활동에 많은 支障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堅守不動의 자세를 취한 兩대대는 砲兵과 對空射擊隊의 지원아래 끝까지 이를 막아 痛撃을 加하고 있던 바 날이 밝아지자 06.10을 기하여 敵은 接觸을 끊고 撤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곧 砲撃을 延伸하여 退路를 차단하는 동시에 제3, 제5 兩중대에서 각각 1個 소대씩을 차출하여 追撃케 하였던 바, “Y”高地쪽으로 潰走하던 一部가 一時 抗拒하여 “A”高地 西北稜線에서 한동안 교전한 바 있었으나 兩소대는 協同으로 이를 擊破함과 아울러 2명의 捕虜를 더 追加하고 08.00에 각각 原陣地로 돌아왔다.

이로써 연대는 狙擊核線의 主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거니와, 이 전투에서 總합戰果를 보면 敵 사살 185명과 捕虜 6명 그리고 各種小銃 17정 등을 노획하였으며 연대에서는 12명이 戰死하고 장교 2명을 포함한 14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 이상과 같이 전지를 확보한 연대는 如前히 제1, 제2 兩대대로써 계속하여 전지를 補強하고 있던 바, 17.00에 “Y”高地쪽에서 數未詳의 敵이 또 다시 侵攻한다는 接敵報告가 들어 왔으니, 이것은 敵의 일곱번째 공격이었다.

이리하여 18.40부터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그 攻擊力은 대단치 않아 接戰 1시간 동안에 제5중대 陣前에서 큰 타격을 받고 물러서고 말았다.

다만 이 번전투에서 特記할 점은, 그간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敵은 苛酷한 奮戰의 총부리 앞에 못이겨 滿身瘡痍가 된채로 전선에 참가한다는 點과 주로 夕陽에 五聖山을 내려와서 洞窟근처에 待機하다가 夜間공격을 실시한다는 點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또 다른 한가지는 左隣接인 美제7사단 제31연대의 戰況이 輕微하여 敵後方에 對砲兵 사격으로써 연대를 지원한 점이다.

10월 18일 : 때를 가리지 않고 挑發하던 敵은 이제 勢窮力盡하였음인지, 이날은 소규모의 偵察隊가 出現하는 정도로 戰線은 一時 小康을 보이게 되었다.

즉, 05.10에 제5중대 正面의 陽地村부근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나타났다가 一撃에 물러선 뒤로는 온종일 平穩하였으며, 19.40에 “A”高地 西쪽에서 나타난 중대규모도 큰 도발이 없이 陣前을 돌아 “Y”高地쪽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敵은 現戰線을 지키면서 사단의 動靜은 探索하는 듯 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에도 砲撃은 平日보다 倍加하여 이날의 敵彈 落彈數가 무려 16,833발에 달하였다.

이와는 관계없이 연대에서는 이날도 계속하여 전지를 더욱 보강하고 예비通信線을 埋設하는 동시에 그간에 손이 미치지 않았던 戰場整理를 마치는 등 부대 整備에 힘썼다.

第四次戰 “A”高地의 血鬪(10월 19일~20일)

10월 19일 : 전날 小康을 보인 戰線은 表面上으로 平穩한 듯 하였으나 暴風前夜와 같은

긴장의 연속으로 하루가 지나고 19일의 아침이 다가왔다.

그런데 敵은 지난밤 사이에 또 다시 부대를 교대하여 그동안 損傷이 極甚했던 中共 제 134연대를 後方으로 돌리고 賀浴會가 지휘하는 제 135연대를 投入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다고 하니, 狙擊稜線의 妖雲은 곧 暴風雨로 化할 듯 하였다.

가) 그 第一波가 이날 拂曉에 밀어닥쳤는데, 제 2대대(장, 宋淳根 소령)의 방어정면인 “돌바위능선”에서는 2個소대 규모의 敵이 제 6중대의 陣前으로 닥아오고 제 1대대(장, 李振寶 소령) 지역에서는 중대규모가 “A”高地 西北稜線으로 侵襲하여 각각 交戰케 되었으나 이들은 연대의 병력과 火力의 配置狀況을 探索코자하는 偵察에 지나지 않는 듯, 그 도발이 대단치 않아 交戰 한시간 만에 이를 擊破하여 “Y”高地쪽으로 물리치고 말았다.

이에 연대에서는 제 1대대로 하여금 이를 “Y”高地까지 追擊토록 하였던 바, 제 3중대의 제 1소대가 그 임무를 맡아 06.30부터 追擊에 나섰는데, 이때에 敵陣에서는 그들 散兵의 退却과 때를 같이하여 砲擊을 더욱 증강하고, 더구나 同小隊가 “Y”高地의 直南方 50m의 거리에까지 육박하였을 때에는 綠色 信號彈 1발을 올리면서 最後阻止射擊으로 一齊히 항거함으로써 여기에서 추격을 멈추고 연대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08.40에 原陣地로 復歸하였다.

나) 이처럼 第一波를 물리친 연대는 如前히 “A”高地와 “돌바위능선”에서 진지를 強化하고 있던 바, 이날 晝間에는 특별한 接敵狀況이 없더니 夕陽이 되자 마치 第二波의 啓示인양 18.20부터 다시 敵의 砲擊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번 砲擊은 敵의 122mm 野砲를 비롯한 從來에 사용하던 各種砲뿐아니라 새로이 裝備한 것으로 알려진 Kachjushja砲까지 동원하여 狙擊稜線 一圓과 左隣接인 美제 7사단 제 31연대의 진지인 △598에 이르기까지 無수히 同時集中하여 21.00까지의 落彈數가 9,000발에 달하였으니, 이같은 砲擊으로 말미암아 온통 山野가 硝煙에 휩싸이고 各梯隊間의 通信線이 杜絶되어 소음과 잡음이 뒤섞인 SCR-309의 無電機로서 상황보고와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狀況을 당시의 사단 通信參謀였던 尹炳權소령은 面談에서 말하기를 『戰鬪初期에는 彼我的 극심한 포격으로 말미암아 有線사용이 어려웠으므로 나중에는 通信線을 37cm 이상 땅속에 묻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예비선을 깔아서 비상조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砲擊이 심할 때는 이것도 如意치 않아 우리 通信架設兵들이 歩兵과 똑같이 戰塵을 헤치고 다니면서 通信線을 복구하기도 하고 또 各大隊에는 SCR-309 3臺씩을 보급하여 이에 대비케 하였다』고 하니, 이날처럼 砲擊이 熾烈할 때의 狀況을 짐작할만 하다.

어떻든 이와같이 砲火를 集注하던 中共 제 45사단(장, 崔建功)은 그들 예하의 제 135연대로서 一大反擊을 감행하였으니, 이것은 敵의 여덟번째의 공격으로 18.50부터 19.20까지 報告된 出現狀況을 종합하여 보면, “돌바위능선” 東斜面의 제 5중대 陣前으로 철공한 증강

된 중대규모를 비롯하여 그 左側의 제6중대 正面에 2個중대 규모와 “A”高地 北쪽 제3중대 陣前으로 2個중대규모, 그리고 그 西側 제2중대 정면에 중대규모 등 都合 2個대대규모의 병력이 800m 内外의 防禦正面으로 殺到하였으며 한편 陽地村 東쪽의 下所里 부근에서도 2個소대규모가 제17연대 제5중대의 진전으로 침공하여 隣接부대의 지원을 牽制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81mm 박격포를 비롯한 可用한 모든 火力을 총발휘하고, 支援砲兵들은 彈幕射擊과 함께 敵의 後續세력을 擊碎하는가 하면 항공조명 지원아래 各級 지원 부대마다 所任을 다하여 陣前擊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敵은 공격을 시작하면서부터 砲擊을 延伸한 듯, 21.00에는 敵彈이 연대의 主抵抗線에 미치고 △538와 下所里부근의 戰車小隊 진지에 集注할뿐아니라 “매봉”의 제2대대 OP'에도 빗발쳐서 이로 말미암아 一時 混亂을 빚기도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敵의 狂波는 계속 陣前으로 밀려들어, “돌바위능선”의 제6, 제7 兩중대가 22.30에 그 先鋒을 꺾어놓기도 하였으나, 全般의인 戰況은 점점 不利하여져서 子正이 가까와 지면서는 “A”高地의 제1대대가 混戰亂鬪끝에 同高地의 南麓으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2대대가 “돌바위능선”에서 來敵의 포위상태에 빠지게 되자 제1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습된 병력으로써 攻勢로 移轉하였는데 1시간 동안의 血鬪끝에 01.20에 “A”高地의 第二峰(“매봉”과 “A”高地사이의 봉우리)을 힘겹게 奪還한 다음 力攻을 거듭하였으니, “A”高地의 血鬪는 격돌에 격돌의 연속으로 철야 계속되었다.

10월 20일 : 이상과 같이 戰況이 急轉하자 연대에서는 이날 새벽에 이에 대한 對策을 熟議하였는데, 그 結果 우선 1個중대를 제1대대에 急派하여 계속 “A”高지를 공격케 하면서 主抵抗線 방어에 注力키로 하였던 바, 마침 이 때에 사단장 丁一權 중장의 긴급조치에 의하여 제17연대의 제1대대가 增援케 되었으므로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05.00를 期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作命 제40호 修正작전지시 제9호로서 文書 명령 後達).

『① 연대는 現主抵抗線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一部の 병력을 증원하여 “A”高지를 再奪還하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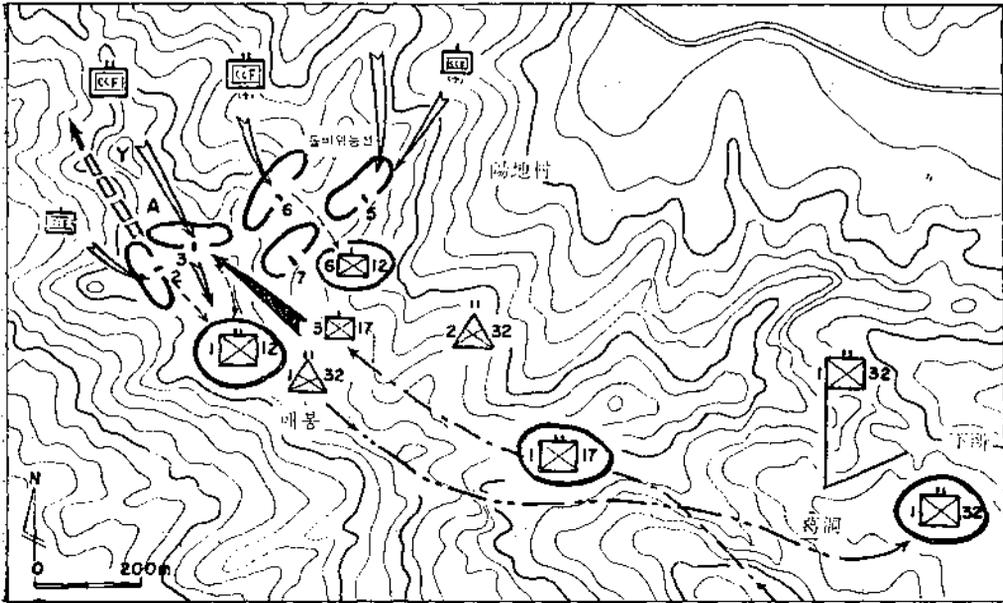
② 제17연대의 제1대대는 06.30까지 1個 중대를 제1대대에 지원하고 主力은 葛洞에 集結하여 出戰態勢를 갖추라.

③ 제1대대는 제17연대 제1대대의 지원중대를 統合하여 “A”高지를 탈취하라. 공격개시 시간은 07.25이다.

④ 제2, 제3 兩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以下 省略』

이 명령에 따라 제17연대의 제1대대에서 急派된 제3중대는 예정시간에 제1대대 지역을

◇ 상황도 제56호 제3중대의 逆襲



당도하여 攻擊隊列의 先鋒에 나섰거니와, 이로써 연대는 다섯번째로 “A”高地를 공격케 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제1대대의 공격線을 超越하고 나선 제3중대는 “A”高地를 목표로 突進攻擊하고, 徹夜 血鬪를 벌이던 同대대의 主力은 그 뒤를 따라 後續支援하면서 밀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때에 사단에서는 그동안 제32연대가 6일 동안의 激戰을 치루어 부대를 크게 整備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08.00附로 사단 작전명령 제107호의 修正指示 제3호로써 다음과 같은 부대교대 명령을 하달하였다.

- 『① 제32연대장은 步兵 제2사단 作命 제107호에 依據한 作戰指揮를 20일 08.00를 期하여 제17연대장에게 引繼하라.
- ② 제17연대장은 步兵 제2사단 作命 제107호에 依據한 作戰指揮에 임하라.
- ③ 任務交代는 作命 제107호에 의한 목표 “A” 및 “Y”地域에 限한다(原文轉載)』

이에 따라 兩연대가 任務를 交代케 된 바 제17연대의 제1, 제2 兩대대는 現任置에서 原隊로 復歸하고 제32연대(一)는 제17연대의 進入과 동시에 葛洞으로 집결하였으며 기타 지원부대들은 그대로 제17연대를 지원하였다.

이 명령에서 注意할 점은 “돌바위능선”이 목표 “A”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明示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대교대가 進行되고 있는 동안에도 前記 제1대대의 공격은 계속되어 08.00에 “A”高地로 육박한 제3중대가 08.45에 그 제1峰을 넘어서 09.30에는 목표의 20m 直前

方으로 突入하여 여기에서 중대 규모의 敵과 2시간 동안이나 一進一退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11.30에 敵의 交通壕 안으로 뛰어들어 肉薄血鬪 끝에 同高地를 점령하고 13.45까지 그 一帶를 완전히 掌握한 다음 임무를 교대하였다.

이로써 다시 狙擊稜線의 主人이 된 제17연대(장, 殷頌杓 대령)는 “A”高地에 제1대대(장, 金忠九 소령)를, “돌바위능선”에 제2대대(장, 姜斗驥 소령)를 각각 배치하여 방어 縱深을 깊게한 가운데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第五次戰爭奪의 反復(10월 21일~24일)

10월 21일 :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晩秋의 차가운 驟雨が 줄기차게 쏟아져 砲擊에 멎은 山麓을 씻어 내렸다.

그 뒤로도 계속 날씨가 흐린 가운데 제17연대(장, 殷頌杓 대령)는 제1, 제2兩대대를 狙擊稜線에 배치하고 제3대대는 葛洞에 예비로 控置하면서 진지강화에 힘쓰고 있었는데, 早朝에 敵의 偵察隊가 한차례 지나갔을 뿐, 晝間에는 특별한 敵情이 없이 날이 저물었다.

이러다가 日沒과 함께 敵의 아홉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즉 17.30부터 한시간 동안에 걸쳐서 4,000여발의 砲擊을 “A”高地에 집중한 敵은 18.40에 공격을 시작하여 “돌바위능선”의 제6중대 정면으로 1個중대규모가 침공하는가 하면 “A”高地와 “돌바위능선”사이의 제1중대 陣前으로도 1個중대가 침습하고 또한 同高地 北斜面의 제2중대와 그 西側의 제3중대 진전에서도 각각 중대규모가 나타나 집중적으로 “A”高地를 圖謀코자 하였다.

이로부터 시작된 攻防戰은 다시 狙擊稜線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日氣가 不順하여 航空支援을 얻지 못하고 砲擊마저 如意치 않아 주로 小銃과 수류탄 대결로 雌雄을 가리게 되었거니와 먼저 제2중대가 “A”高地 北斜面에서 그 先攻梯波를 擊破하자 敵은 20.00부터 제1, 제2 兩대대間의 中央地帶(“A”高地와 “돌바위능선”사이)로 공격방향을 돌려 波狀的이고도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1중대가 이를 막아 挺身力鬪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류탄이 모자라 마침내 21.30에 同중대는 “A”高地 南쪽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를 奇貨로 突破口를 확대한 敵은 이제 “A”高地의 主峰으로 指向하여 여기에서 四周 방어태세로 鐵鎗진지를 점령한 제2, 제3 兩중대의 진지를 돌파코자 하였으나 집중되는 火力에 밀려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咫尺之間에서 서로 대치상태로 들어갔다.

10월 22일 : 이러한 가운데 子正이 지나고 새벽녘에는 散發的인 도발이 있을뿐, 敵陣에서도 攻撃를 멈춘 듯 하더니 이날 06.00에 또다시 열번째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A”高地 北斜面의 제2중대 진지에 攻擊力을 집중하여 물밀듯이 밀려드니 중대도 또한 탄약의 再補給을 미처 받지 못한채로 白兵으로써 버티다가 渾身の 血鬪 끝에 마침내 陣地가 무너져 제3중대 배치선의 후방으로 철수하기

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戰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殷碩杓 대령은 곧 逆襲을 決意하고 이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제3대대로 하여금 “A”高地를 탈환토록 緊急命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葛洞에서 急遽躍進한 제3대대(장, 吳壽恒 소령)는 대대 OP를 “매峰”으로 推進하는 즉시로 제11중대를 先鋒으로 하여 “A”高地를 正面으로 直衝하고 제9, 제10 兩중대는 그 左右에서 併行공격케 하여 3個중대로써 同時에 鐵槌를 加하였다.

이것은 “A”高地에 대한 我軍의 여섯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니와, 이같이 怒濤를 높인 때에는 제11중대가 11.40에 그 第一條를 占領하자 즉시 제9중대는 그 東側으로, 그리고 제10중대는 그 西側으로 合勢하여 同時攻撃을 加한 끝에 여기에서 2個중대 규모의 敵을 무찌르고 15.25에 드디어 다시 이 高地의 主人이 되었다.

대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潰走하는 敵을 쫓아 “Y”高地쪽으로 追擊하다가, 16.00에 연대장으로부터 『追擊을 멈추고 “A”高地에서 防禦에 任하라』는 명령을 받고 主力을 反轉시켜 同高地에서 제1대대의 陣지를 인수하여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이로써 연대는 狙擊稜線에서 다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제2대대를 右一線으로 “돌바위능선”에,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A”高地에 각각 배치하고 연대 搜索中隊를 그 中央地帶에 더욱 보강한 가운데 야간경계로 들어갔는데, 이날 綜合戰果를 보면 敵射殺 395명에 捕虜 5명과 그밖에 重機關銃 3정을 비롯하여 2.36” Rocket포 1문, 그리고 輕기관총 3정 및 각종 소총 34정을 노획하였으며 연대에서는 218명의 死傷者를 보게 되었다.

10월 23일 : 전날 痛擊을 받은 敵은 散發의인 砲擊만으로 하루밤을 보내더니 이날밤 21.00에 또다시 열한번째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즉, 20.30부터 激增한 砲擊과 더불어 21.00에 공세를 취한 敵은 제9중대가 방어하고 있는 “A”高地 北麓으로 소대규모가 침공한 것을 先頭로 21.25에는 同地域으로 중대규모가 더욱 증강되고 21.40에는 바로 그 東側의 역시 제9중대진지 東端으로 2個소대 규모가 침습하는가 하면 “돌바위능선”의 제6중대와 “A”高地 西斜面의 제11중대 정면으로도 각각 小隊규모가 밀려들었다.

이상과 같은 양상으로 볼때에 敵의 主力은 역시 제9중대의 진지를 노려, 隣接중대의 지원을 牽制하면서 中央突破를 企圖한 것이 分明하였으나 步戰砲의 協同에 의한 대대의 善防으로 한시간 동안의 격투끝에 이를 완전히 擊退하고야 말았다.

한편 軍단에서는 以上과 같이 連日連夜 “A”高地의 血鬪가 계속됨에 따라 이날附로 사단의 戰鬪正面을 축소하고 火力을 增強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즉, 美 제9군단 작전명령 “A10-309호”로서 이날 06.00부로 사단 戰術地域의 右翼인 灰古介-外也洞간의 6km에 달하는 戰鬪正面을 右隣接인 제6사단(장, 白仁燁 준장) 제2연대(장, 金吉洙 대령)로 하여금 引受케 하는 동시에 白馬高地 戰鬪를 치른 바 있는 제9사단(장,

金鐘五 소장)의 支援포병인 제1野砲團(장, 朴炳柱 중령)과 제53戰車中隊(장, 趙七墨대위)를 當사단에 배속하여 補強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제2연대에 진지를 인계한 제37연대(장, 金在命 대령)를 梨賓洞(金化 東北쪽 10km)에 집결케하여 사단 예비로 保有하는 한편 제1야포단의 2個포병대대는 제17연대를 직접 지원케하고 1個포병대대는 美 제40사단 砲兵團에서 配屬解除된 제18대대(장, 金河吉 소령)와 함께 사단을 一般支援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53戰車중대는 제59戰車중대(장, 金南守 대위)와 임무를 교대케 하는 등 全般的인 戰力을 재정비하였다.

10월 24일 : 전날밤 제9중대의 激突이 있던 뒤로 대대에서는 同중대의 擔當正面을 축소하여 제10중대를 그 東側으로 추진하고 “A”高地의 東北쪽 진지를 더욱 強化하였던 바, 이날 05.30에 소대규모가 제10중대 진지의 東端에서 도발하자 자동소총으로 강타하여 一蹴하고 말았다.

그런데 黎明과 더불어 연대장으로부터 직접 口頭命숨이 하달되기를 『제10중대는 제9중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방어에 임하게 하고, 제9중대를 그 後方으로 집결시켜 공격을 준비토록 하라』하였으니, 연대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敵의 攻擊 據點인 “Y”高地를 擊破키 위한 준비명령이었거니와, 이날은 날씨가 晴明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空地協同戰을 펴기로 이미 豫조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08.45이 되자 이윽고 美제5空軍의 F-51戰爆機 1個편대가 나타나 “Y”高地 一帶에 napalm彈과 機銃掃射로써 15분동안에 걸쳐서 火力洗禮를 加한 뒤를 이어 09.00에 제9중대가 同高地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공격 初動에 一蹴 敵陣으로 육박한 同중대는 그 直南方에서 중대규모의 敵과 10.10부터 激突케 되었는데, 火焰放射器를 先頭로 힘껏 싸웠으나 敵의 저항도 頑強하여 15.00가 지나도록 특별한 進展을 보지 못하다가 15.30에 하달된 연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A”高地의 後斜面으로 反轉하여 戰例을 가다듬었으며, 기타 연대의 主力은 변함없이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제53戰車중대가 △538와 甘鳳里 부근까지 推進配置하여 近接支援 태세를 갖추었다.

第六次戰 三角高地의 引受(10월 25일~27일)

10월 25일 : 狙擊稜線 전투가 시작된 以來 連日 血戰의 계속으로 世人의 耳目을 집중한 바 있었거니와, 특히 이날은 두가지 점에서 그 關心을 더욱 높였다.

첫째로 敵이 이날 하루동안에 무려 17,400여발의 砲擊과 함께 제17연대에 挑戰한 점이 그 하나요, 다음은 군단 「Show Down작전」의 一環으로 左隣接인 美제7사단이 我師團과 併行하여 三角高地(△538)를 공격하다가 이날부로 激戰地에서 손을 떼고 同作戰地域을 당



<제17연대 OP, 연대장 殷碩杓대령과 참모들>

즉, 晝時로부터 한시간 가까이 先例없는 포격으로 “A”高地 一帶를 불바다로 만든 敵은 2個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공세를 취하여 그중 5個중대 규모가 “A”高地의 제3대대 진지 全面을 強襲하는가 하면 2個중대 규모의 병력은 그 東쪽 제2대대의 陣前으로 침공하여 一擧 強攻策을 取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대낮같이 밝히는 照明지원아래 陣前擊滅戰을 폈으나 이리때 모양으로 밀려드는 強波로 말미암아 02.30부터 제3대대 지역에서 陣內의 대결로 化하여 2시간동안이나 白兵血鬪 끝에 04.45에는 끝내 “A”高地 西斜面의 제11중대 진지가 무너져 一部の 兵力이 分散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殷碩杓 대령은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이 突破口를 막도록 하는 한편 제11중대를 “매峰”으로 집결토록 조치하고 敵侵地域에 대하여는 陣內射擊을 요청하였다.

이로부터 戰況은 刻一刻으로 危急을 더하여 제3대대가 全般적으로 약간 물러서게 되었으며, 이를 契機로하여 “A”高地를 넘어선 敵은 05.00부터 “매峰”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무렵, 제1野砲團(장, 朴炳柱 중령)을 비롯한 군단의 9個포병대대가 同時に 砲擊을 증가하여 “A”高地에 火力을 집중하니, 온통 天地가 砲煙에 휩싸이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마저도 다시 볼 수 없이 되는 듯 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逆襲을 결의하고, 제2대대의 제7중대와 “매峰”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11중대로 하여금 07.00를 期하여 攻勢로 移轉토록 하였으니, 이것은 狙擊稜線에 대한 我軍의 일곱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니와 제2대대장 姜斗鏗 소령의 陣頭指揮로 出陣한 兩중대는 제7중대가 “돌바위농선”쪽에서 “A”高地의 東側을 공격하고 제11중대는 그 西側으로 進擊하여 敵陣을 分斷, 이를 殲滅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8.00에 敵陣으로 突入한 兩중대는 鎗聲의 鐵鎚를 加하였는데, 이때에 마침 美제5空軍의 F-51戰爆機 1個편대에 의한 空中支援을 얻게 되자 이와 더불어 突擊을 감행하

사단에 引繼한 점이 그 들이다.

따라서 사단은 이날 전투와 戰線整理를 병행하게 되었다.

가) 제17연대(장, 殷碩杓 대령)는 전날 占領한 陣地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날 子正을 期하여 中共제 135연대(장, 賀洛會)가 또다시 狙擊稜線에 대한 열두번째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여 한시간 동안의 肉薄對決끝에 먼저 左一線의 제11중대가 09.05에 同高地의 西端部를 탈취하고 그 뒤를 이어서 제7중대의 頂上突入으로 10.40에 이 高地를 완전히 되찾음과 아울러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을 撲滅하였다.

이상과 같은 戰況을 보고받은 사단에서는 『主力으로써 占領陣地를 強化하는 동시에 1個 중대를 초과하지 않는 병력으로 “Y”高地의 敵을 擊退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연대에서는 곧 제1대대의 제1중대를 抽出하여 “Y”高地 공격임무를 맡기고 主力도 陣地 復舊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1.30에 공격을 시작한 제1중대는 13.20에 그 첫 봉우리를 탈취한다음 계속하여 “Y”高地의 主峰을 목표로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는 중대규모의 敵이 오랜 시일을 두고 構築된 堅陣에 依支하여 頑強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上甘嶺 마루에서 亂射하는 側射火力으로 말미암아 同高地의 8部稜線에서 屢次로 火力으로서의 對決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14.00에 돌연 공격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이는 사단에서 전날부터 推進하고 있는 戰線의 再調整을 위한 조치였거니와, 당초의 계획은 “Y”高地까지 占領한 다음 부대를 교대시킬 예정이었으나 如意치 못하자 공격을 中止시킨 것이며, 이 명령에 따라 同중대는 △538부근의 原陣地로 복귀하였다.

나) 그러면 戰線 再調整계획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단 작전명령 제109호로서 하달된 그 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現主抵抗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左側 美 제7사단의 작전지역 일부를 인수하여 변경된 責任地域內의 진지를 강화하려 한다.

② 제17연대

㉔ 연대는 25일 17.30을 기하여 제32연대와 現陣地에서 임무를 교대하고, 望所(金化 東쪽 3km)에 접결하여 사단예비에 임하라.

㉕ 同時附로 1個대대를 제37연대에 配屬시키라.

㉖ 사단의 別命이 있을 때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

③ 제31연대

㉔ 연대는 24일 06.00를 기하여 現陣地를 제37연대에 引繼하고, 同時附로 배속중인 제37연대 제2대대를 原隊로 復歸시키라.

㉕ 연대는 25일 01.00를 기하여 美제7사단 제32연대의 作戰地域을 引受하라.

㉖ 作戰地域을 引受한 後, 右翼은 제32연대와 上甘嶺제곡에서, 左翼은 美제7사단과 松亭(金化 北쪽 3km)에서 각각 接觸을 유지하라.

④ 제32연대

㉔ 연대는 25일 17.30을 기하여 제17연대로부터 現任務를 引受하여 區域內의 陣地를 編成방어하라.

㉔ 진지를 인수한 다음 제37연대와는 下所里에서, 그리고 제31연대와는 上甘嶺 계곡에서 각각 接觸을 유지하고 협조하라.

⑤ 제37연대

㉕ 연대는 24일 06.00附로 제31연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방어에 임하라.

㉖ 제31연대에 배속중인 제2대대를 原隊로 복귀시킨다.

㉗ 제17연대로부터 1개대대를 지원받아 統合지휘하라.

⑤ 제1野砲團, 제2重砲中隊, 제59戰車중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⑥ 제1302工兵대대는 현일무를 계속 수행하되 제31, 제32 兩 연대의 新主抵抗線에 대한 장애물을 설치할 最단 時日內에 완료하라. 以下省略]

이상의 명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단은 灰古介—外也洞간의 右翼地域을 제6사단에 인계하고 美제7사단의 공격목표였던 三角高地를 인수하여, 제37, 제32, 제31의 3個연대로써 새로운 주저항선을 형성케 하는 동시에 제17연대를 예비로 保有하여 戰線을 再整備한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左隣接인 美제7사단이 軍단 「Show Dhowن작전」의 一環으로 당사단과 함께 三角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反擊으로 말미암아 25일까지 12일 동안에 걸쳐서 9個보병대대의 延병력이 참전하여 2,00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는 등, 전투가 長期化함에 따라 軍단에서 劃一作戰의 一策으로 同地域을 사단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사실상 中部戰線의 激戰地를 홀로 專擔케 된 셈이었는데, 이같은 軍단의 조치는 당시의 世論에 즉각 반영되어 美軍의 損失만을 줄이려 한다는 印象을 주기도하고 또한 제2사단의 任務가 過重하리라는 憂慮가 없지도 않았으나, 사단은 어떠한 代價를 치르더라도 이 要域을 確保하겠다는 결의에 굳어져 이상과 같은 對峙태세를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는 이날 17.30까지 진지를 인수하여, “A”高地에는 제2대대에 제11중대를 증강시켜서 全面방어태세를 취하게하고 제1대대는 “돌바위능선”을 堅守케 하였으며, 한편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는 새로운 戰鬪地域을 인수하여 제1대대(장, 高一燮 소령)를 甘鳳里로부터 俗稱 “방어다리”사이의 主抵抗線에 배치하고 제2대대(장, 安專源 소령)와 제3대대(장, 閔應植 소령)는 上甘嶺과 △598사이의 前進陣地로 推進배치하여 三角高地를 방어토록 하는 등 寸土도 양보할 수 없는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니, 自主國防의 氣魄이 진지마다 어렸을 것이다.

10월 26일 : 전날 戰線을 再調整한 사단은 攪亂射擊과 더불어 하루밤을 보내고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陣地補強작업에 착수하였는데, 특히 이날은 軍단에서 지원된 대대병력의 勞務隊(KSC)에 의한 勞力지원과 工兵대대의 기술지도아래 대대적인 공사를 추진하던 바, 그 사이에 제1야포단에서는 對砲兵射擊을 실시하고, 또한 10.20을 前後하여 美 제5空軍의 戰爆機 2個편대가 地上軍의 近接支援으로 “Y”高地를 비롯한 上甘嶺 西北쪽의 敵陣一圓을

강타하는 등空地兩面の掩護下에 예정된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15.00에는 下所里 부근에 있는 제32연대의 제2중대를 “돌바위능선”의 東側인 陽地村으로 추진하여 主抵抗線과 前進진지 사이를 더욱 보강한 다음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도 예외없이 敵의 도발이 시작되었으니, 즉 17.30에 砲擊과 더불어 공세를 취한 敵은 “A”高地 一帶에 煙幕基地사격으로 視界를 遮障하면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열세번째 공격을 감행하였다.

가)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의 방어正面向으로 指向한 敵은 먼저 1個소대 규모의 병력이 “A”高地 東北稜線의 제5중대 陣前으로 侵襲한 것을 先頭로 하여 바로 그 西側의 煙幕地帶에서 나타난 중대규모가 이와 合勢하는가 하면 20.00에는 그 東쪽에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侵入하는 등 集中的으로 “A”高地의 東北部를 突破코자 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歩砲協同으로 2시간동안의 교전끝에 痛擊을 加하여 이를 격퇴하였던 바, 다음 날 01.00를 期하여 이들은一旦 撤退하는 듯 하더니, 02.00에 다시 증강된 병력으로 一齊히 발악함으로써 끝내 “A”高地의 血鬪로 化하여 陣內에서 雌雄을 決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때 제5중대의 東端障地가 무너지고 深夜의 肉薄對決이 2시간 가까이 거듭되기도 하였으나 同高地의 主峰을 堅守한 제7중대의 善防으로 03.50을 전후하여 이를 격퇴하고야 말았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 : 10. 25일附로 宋淳根 소령과 交代)는 5명의 敵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은 中共 제135연대 소속으로, 그들의 陳述에 따르면 敵은 出戰時에 「A高地를 탈취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전투간에도 奮戰隊의 총부리가 등(背) 뒤에 겨누어져 병사들은 戰意를 잃은채로 쓰러져가고 있다하니 그 非人道的인 殘惡性은 詛呪받아 마땅할 것이다.

나) 한편 제31연대(장, 金容駒 대령)는 전날 三角高地를 引受한 뒤로 계속하여 진지를 補強하고 있던 바, 狙擊稜線에 戰火가 일 무렵인 19.10에 2個소대 규모의 敵이 이른바 「Jane Russell高地」(△598의 東北쪽 高地)의 北斜面으로 侵襲하자 제3대대(장, 閔應植 소령)의 제11중대가 30분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敵의 侵攻樣相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들은 主攻을 狙擊稜線으로 指向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바로 左隣接인 제3대대에 대하여 牽制공격을 試圖한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어쨌든 이 一戰이 있는 뒤로는 특기할만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연대는 계속 진지를 堅守하면서 重火器 중대의 火力으로 狙擊稜線 背後의 敵陣에 대하여 攪亂射擊을 실시하였다.

10월 27일 : 狙擊稜線에 戰雲이 인지 2주일이 되었건만 하루도 빠짐없이 전투가 계속되었다.

가)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는 이날 拂曉에 一戰을 치른 뒤로 “A”高地에 대한 방어

력을 더욱 강화키 위하여 葛洞에서 待機中인 제6중대(장, 金京南 중위)로 하여금 제5중대의 진지를 引受케 하여 제7중대와 함께 同高地의 東半部를 占領 방어케 하고 제11중대는 그 西半部에 배치하는 동시에 제1대대(장, 河相卓 소령 : 10월 25일 附로 李振實 소령과 교대)는 “돌바위능선”으로부터 陽地村에 이르는 右一線 진지를 擔當케 하는 등, 대체로 12.40까지 陣地調整을 마친 다음 그 補強과 敵情探索에 注力하고 있던 바, 날이 저물면서 또 다시 敵의 열네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즉, 21.30에 砲擊과 더불어 공격을 시작한 敵은 그 先頭인 2個소대 규모의 병력이 22.00에 “A”高地 西斜面の 제11중대 陣前으로 丘陵을 기어오르고 곧 뒤를 이어서 중대규모가 또한 同高地 東北쪽의 제6, 제7 兩중대의 배치선 中央地帶를 노려 집중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最後阻止 火網속에서 한시간 동안을 헤메다가 스스로 殘命을 거두어 물러서고 말았으니, 이때가 23.40으로 이날의 전투에서는 제7중대의 공로가 지대하였다.

나) 한편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는 如前히 上甘嶺-△598線의 前進陣地를 확보하고 있던 바, 이날밤 18.40에 중대규모의 敵이 △598의 北麓으로 侵攻하자 제2대대(장, 安專源 소령)의 제5, 제6 兩중대가 合勢하여 이를 擊破하였으며, 그 뒤로도 두차례나 數未詳의 敵이 同地域에서 挑發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痛擊을 加하여 이를 撲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23.20 以後로는 特別한 敵情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중화기 중대는 右隣接인 제32연대를 지원하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진지를 堅守하였다.

第七次戰 敵의 總力攻勢(10월 28일~30일)

10월 28일 : 執拗한 攻擊에도 不拘하고 거듭 失敗한 敵은 26일과 27일 兩日동안에 걸쳐서 散發的으로 挑戰하다가 이날 01.00를 期하여 또 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니, 捕虜들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지난 20일에 豫備로 빠졌던 中共 제134연대(장, 張信元)가 부대를 再編한 다음 전날밤에 다시 投入되어 제135연대(장, 賀洛會)와 함께 공격隊列에 加擔하였다고 하는 바, 이들은 集中的으로 狙擊稜線을 노려 공격의 중점을 두고 발악함으로써 “A”高地의 血鬪를 再演케 되었다.

1. 狙擊稜線의 戰況

가)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가 맡고 있는 狙擊稜線에는 이날 子正부터 40분 동안에 걸쳐서 8,000여발의 敵彈이 同時集中되어 대대와 중대간의 有線通信이 杜絶되고 진지마다 砲煙이 휩싸인 가운데 敵의 狂波가 밀려들었으니, 이는 敵의 열다섯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나, 01.30을 前後한 그 侵攻狀況을 종합하여 보면, “A”高地 東北쪽의 제6중대 正面에 나타난 2個중대 규모를 비롯하여 그 東側의 제7중대 진전에 중대규모와 그 西側의 제11중대

정면에 중대규모, 그리고 “돌바위능선”으로 침공한 중대규모 등, 都合 5個중대규모의 병력이 “A”高地를 노려 집중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부터 深夜의 血鬪가 전개되어 2시간 동안이나 肉薄戰을 거듭하다가 끝내 中央第一線인 제6중대의 진지가 무너지고 이에따라 同高地의 東側背가 露出케 되었으며, 04.00에 이르러서는 左第一線인 제11중대의 陣前으로 중대규모가 더욱 증강됨으로써 “A”高地의 危急은 焦眉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은 전날 제6중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葛洞에 待機中인 제5중대로 하여금 즉각 제6중대 地域으로 逆襲케 하였던 바, 同중대는 04.30을 期하여 攻勢로 移轉하였으니, 이것은 我軍의 여덟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니와, 이무렵 제1야포단에서는 砲擊을 증가하여 敵의 進出線에 鐵火를 加하고 戰車小隊와 對空射擊隊에서는 進攻중대를 엄호할 뿐만 아니라 左隣接인 제31연대에서도 81mm박격포로써 지원하는 등, 강력한 火力支援下에 同중대는 一躍 西北進하여 “돌바위능선” 西端에서 제7중대의 진지를 超越하는 즉시로 “A”高地의 東北稜線으로 突入하였다.

이윽고 04.50에 중대장으로부터 支援砲火의 射程延伸 요청이 들어오자, 연대장은 즉각 이를 조치케하는 동시에 중대장을 직접 無電으로 불러 強力한 側面突破를 嚴命하는 한편 제1대대장 河相卓 소령에게는 一部の 兵力을 뽑아 攻擊線 後方에서 정신없이 헤메는 殘敵을 剔抉토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05.10부터 敵陣과 50m의 거리에서 力攻에 力攻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돌바위능선” 西쪽에서 戰列을 再整備한 제7중대가 이에 合勢하고 또한 제6중대의 主力이 “A”高地 南쪽에서 공격移轉하여 併進공격한 끝에 드디어 06.00에 同高地를 奪還하였는데, 이무렵 제1대대의 搜索隊도 “매봉”부근에서 進退維谷에 빠지 헤메는 散敵을 完全히 격멸하였다.

이로부터 제2대대장이 隸配屬부대를 장악하여 “A”高地를 중심으로 한 방어진지를 構築하는 한편 제5중대로써 “Y”高地 前緣까지 一帶의 地域을 회복케 하였던 바, 同중대는 “A”高地 北端에서 소대규모의 敵을 覆滅하여 10.50까지 同高地 一圓을 確保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본부에서는 戰況이 好轉됨에 따라 現在 “A”高地를 방어중인 제2대대를 교대키로 결정하고, 09.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작전명령 제41호의 修正작전지시 제1호를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一部の 병력을 교대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28일 12.00까지 제2대대의 現任務를 引受하여 狙擊稜線上 “A”高地를 拒守하라.

③ 제2대대는 現任務를 제3대대에 引계하고 下所-△538간의 主抵抗線으로 이동하여 短時日內에 再編을 완료하라.

④ 제1대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2대대는 現在의 保有彈中에서 一基數分의 基本露를 제외하고 전부 제3대대에 인계하라.』

연대장은 이상과 같은 명령과 함께 同時附로 제2대대에 配屬中인 제11중대를 原隊로 복귀시키고 제1대대의 제3중대를 제3대대에 증원시켜 “A”高地의 방어력을 더욱 굳게 하였다. 이에 따라 狙擊綫에 대한 最初의 공격부대였던 제3대대(장, 申大均 소령)가 다시 “A”高地를 탈게 되었는데, 同대대는 제9, 제10兩중대를 同高地의 東側으로부터 “돌바위능선”에 이르는 右一線에 배치하고 제11중대는 그 西斜面에서 上甘嶺 계곡에 이르는 左一線에 배치하는 한편 배속중인 제3중대는 “매봉”南쪽에서 대대 OP를 경비하면서 대기토록 하는 등 대체로 17.30까지 陣地編成을 마친 다음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나) 이상과 같이 戰線을 整備한 다음 연대는 日沒과 더불어 夜間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19.30에 “A”高地 北端의 聽音哨所에서 2個중대 규모의 敵이 “Y”高地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報告가 들어왔으니, 이로부터 敵의 열여섯번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즉각 航空照明지원의 요청으로 山野를 밝히고 또한 60mm박격포의 照明까지 곁들여서 間斷없이 夜暗을 밝히면서 邀擊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21.25에 그 先頭가 “A”高地 北斜面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0중대장 李潤基 대위는 이와 맞서서 15분동안 交戰하다가 伴動으로써 撤收하는 듯이 敵을 誘導하여 50m쯤 뒤로 돌아선 다음 제2소대를 선두로 逆攻擊을 감행하여 敵線을 兩斷함과 아울러 混亂속으로 몰아 넣으면서 痛擊을 加한 끝에 이 무리를 “Y”高地쪽으로 격퇴하고 22.30에 原陣地로 되돌아와 다시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Y”高地로 물러선 敵은 潛跡한 듯 하여니, 23.00를 期하여 또 다시 發惡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에는 20분동안에 걸쳐서 “A”高地에 집중포격을 加한 다음 同高地의 兩側方으로 각각 중대규모가 침공하여 제9, 제11兩중대와의 接境地帶를 돌파코자 爭端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때에 대대에서는 敵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有無線이 斷絶되고 指揮本部가 한때 麻痺되었으며 그 뒤로도 敵彈이 계속 빗발쳐서 混亂이 거듭되었으나 힘써 이를 수습하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10여분이 지난 23.30에 이르러 이번에는 증강된 대대규모가 “A”高地 北斜面으로 몰려들어 惡鬼와도 같이 발악하였으니, 戰況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뒤늦게야 이와같은 보고를 받게 된 연대에서는 陣內射擊의 요청으로 敵의 密集地帶에 鐵火를 加하였으나 이미 제10중대가 敵中에 孤立하게 되고 左第一線인 제11중대의 위기도 頃刻를 다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敵은 一部の 병력을 右一線인 제1대대의 正面으로 投入하여 相互支援을 牽制하고 또한 계속 병력을 증강함으로써 “A”高地의 敵勢는 時時刻刻으로 더하여 갔다.

이러한 渦中에서도 제3대대장 申大均 소령은 제9중대로 하여금 제10중대의 陣內로 밀려드는 敵의 東側背를 찢러 逆攻케 하였던 바, 同중대는 23.45에 赤色信號彈 2발을 西北쪽으로 발사하면서 一齊히 挺進突擊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戰勢는 이미 기울어 제10중대의 흩어진 병사들이 “매峰”으로 철수하고, “A”高地를 넘어선 敵이 제9중대의 背面으로 밀어닥쳤으니, 同중대는 오히려 逆包圍상태에 놓여 여기에서 血戰을 치르는 사이에 중대장 姜求乙 중위를 비롯한 32명의 將兵들이 負傷을 입고 血路를 打開하여 24.00에 제7중대 지역으로 反轉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急轉하는 戰況을 注視하던 연대장 柳根昌 대령은 일단 제3대대를 철수토록 명령하는 동시에 敵中에 孤立된 “돌바위능선”의 제1중대를 주저항선으로 물러서도록 조치한 다음 翌朝를 期하여 反擊키로 결심하고 제1대대를 反擊부대로 선정하여 곧 그 준비에 착수토록 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제11중대는 左隣接인 제31연대 진지와와의 戰線連繫를 위하여 “A”高地 西南쪽에서 上甘嶺 계곡에 이르는 要線을 固守케 하였다.

2. 三角高地의 戰況

한편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는 如前히 제2, 제3 兩대대로써 上甘嶺—△598의 線을 確保하고 있었는데, 狙撃稜線에서 전투가 시작된 직후인 이날 새벽에 2個중대의 병력으로 推算되는 敵이 △598를 침범하였다.

이 공격에서 敵은 특히 제5중대의 陣前으로 集中殺到하여 수류탄을 集中投擲함으로써 가파른 능선에서 두차례나 肉薄戰이 전개되고 마침내 04.00에는 同중대가 그 後斜面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제2대대장 安專源 소령의 機敏한 조치로 곧 그 突破口를 막아 敵의 進出을 阻止할 뿐만 아니라 砲擊을 誘導하여 殲滅的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로부터 敵은 공격을 멈추는 듯 하더니 05.30을 前後하여 觸接을 끊고 戰線을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진지를 되찾아 再配置한 다음 제5중대를 제7중대와 교대시켜 제6, 제7 兩중대로써 同高地를 중심으로 四周境界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三角高地를 引受한 以後로 한차례의 進退를 보게된 셈이었거니와, 그 뒤로도 이날밤 23.30에 上甘嶺 계곡에서 다시 중대규모가 제3대대의 진전으로 침공한 바 있었으나 一擊에 이를 물리친 다음 계속 진지를 固守하였다.

그런데 이 三角高地란 美제7사단에서 命名한 것으로, 그 第一峰인 △598를 中心으로 하여 東北쪽 800m에 있는 第二峰 즉 「Jane Russell高地」(上甘嶺부근)와 西北쪽으로 900m에 突出한 第三峰인 「Pikes峰」을 합하여 三角高地群 또는 三角高地라고 하거니와, 「Show Down」작전이 시작된 직후에 同사단에서 이 세계의 봉우리를 모두 奪取한 바 있었으나, 25일附로 當 사단에서 引受할 당시에는 「Pikes峰」은 이미 敵中에 들고 △598와 「Jane

Russell高地]만을 인수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敵陣先端과의 거리는 不過 300m의 간격을 두고 서로 진지를 굽어보면서 對峙하는 상황이었다.

10월 29일 : 15일 동안의 激戰도 보람없이 狙擊稜線이 다시 敵中에 떨어지고 三角高地中의 「Pikes峰」위에 敵影이 出沒하여 戰勢가 크게 변한 가운데, 齊宮洞에 자리잡은 사단 사령부에서는 사단장 丁一權 중장의 主宰下에 深夜의 작전회의를 開催하여 熟議한 끝에 우선 狙擊稜線을 탈환키로 결정하고 D일 H시를 이날 05.30으로 豫定하여 그 임무를 現在 同地域의 擔當부대인 제32연대장에게 맡겼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이때에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는 이미 自隊의 計劃을 마련하여 제1대대로써 反擊카로 결정하고 同대대의 主力을 下所로 집결시키고 있는터이라 사단에서 이같은 명령을 받게 되자 04.10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待期하고 있다가 05.30을 기하여 반격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我軍은 狙擊稜線에 대한 아홉번째의 공격을 決行케된 셈이거니와, 必勝鼓를 울린 연대장은 主攻인 제1대대로 하여금 目標의 東南쪽으로 進攻케 하는 한편 전날 激戰을 치른 바 있는 제3대대장에게는 現在 “A”高地의 西南쪽에서 要線을 지키고 있는 제11중대로써 그 西側에서 併行공격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同대대로하이금 挺進特攻隊를 편성케 하여 제1대대를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는 제1대대의 主力이 LD를 통과하면 先制攻撃을 加하여 敵陣의 西側背를 強打키로하고 제9, 제10兩중대에서 選拔된 精銳 1個소대는 “A”高地 南麓으로 진출하여 제1대대先鋒의 공격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상과같은 綿密한 계획아래 反擊의 陣頭에선 제1대대장 河相卓 소령은 제3, 제1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하여 제1중대는 陽地村 溪谷을 橫斷하는 즉시로 “돌바위능선”을 탈취케 하고 제3중대는 “매峰”을 넘어 “A”고지로 指向케 하는 한편 제2중대는 葛洞계곡을 따라 後續토록 조치하여 이미 공격준비사격으로 火焰에 뒤덮인 狙擊稜線을 목표로 進擊의 怒號를 내렸다.

이리하여 右一線인 제1중대는 한시간동안의 突進공격으로 一躍 “돌바위능선”에 뛰어올라 2個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을 거듭하다가 日出과 더불어 이를 擊破하고 08.00까지 이능선을 완전히 奪還하였으며, 제3중대는 제3대대의 特攻隊와 合勢하여 敵의 彈幕地帶를 뚫고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陣으로 突入하여 06.25부터 一進 一退를 반복하다가 美제5空軍의 戰爆機 1個편대에 의한 空中지원과 제11중대의 併進공격에 힘입어 6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13.40에 “A”고지를 되찾았다.

특히 이 공격에서 제11중대는 左線 깊이 先攻으로 “A”高地 西北端을 치는 사이에 2個소대 규모와 手榴彈의 爭投를 벌여 3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이 頑敵을 擊破하였을 뿐만 아니라 同高地의 西側背를 挾攻하여 戰勢를 결정적으로 好轉시키는 殊勲第一의 공을 세웠다.

어떻게 이와같이 狙擊稜線을 다시 장악한 연대는 곧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제1대대의 主力을 “A”高地와 “돌바위능선”을 連하는 一帶에 중점배치하고, 제11중대는 제1대대장의 지휘아래 배속시켜 그 西北稜線을 擔當케 하는 가운데 障礙物 설치와 通信線 復舊 등 진지를 보장하였다.

그런데 14.05에 “Y”高地쪽에서 2個중대 규모가 不時에 侵攻하여 煙幕射擊을 퍼면서 예와는 달리 白晝에 “A”高지를 犯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대에서는 즉시 砲火를 誘導하여 効力射의 발취로써 이를 制壓, 격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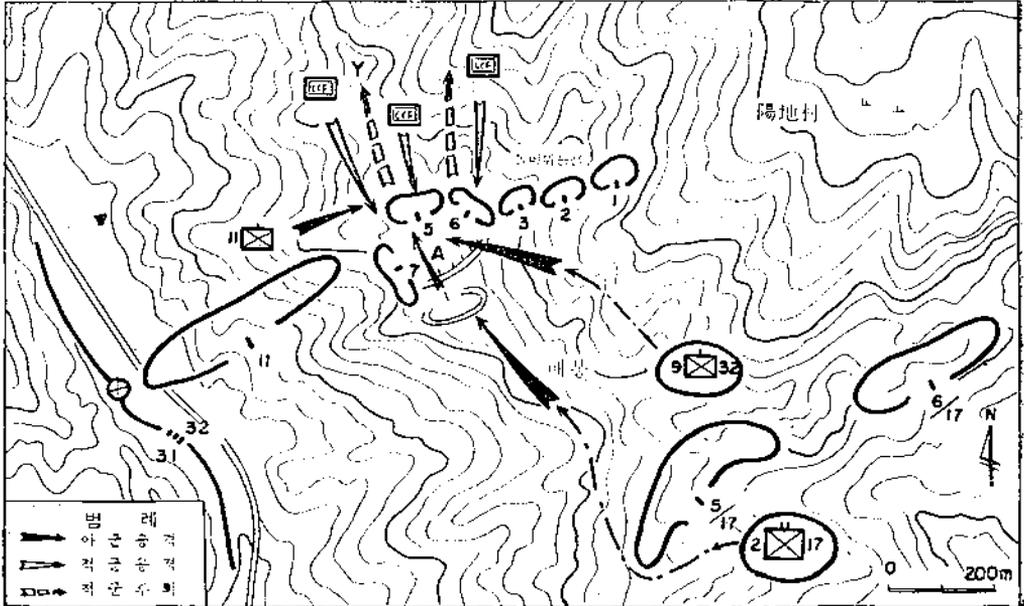
한편 사단에서는 이날 14.00부로 사단작전명령 제109호의 修正작전지시 제4호로서 제17연대의 제1대대를 제32연대에 배속시켜 狙擊稜線에 대한 防禦力을 強化하는데 깊은 配慮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사단 情報參謀 文重燮 중령이 이날 사로잡은 捕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敵이 上所里 西쪽 계곡에 1,000여명이나 集結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諜報를 얻게 되자 곧 航空偵察로 이를 確認하였던 바 敵勢증강의 徵候가 現저하였으므로 즉각 이에 對處하는 措置가 다시 취하여졌다. 즉,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의하여 제17연대의 제2대대가 18.00附로 新木洞(金化 東쪽 6.5km)에서 下所로 이동하여 제32연대의 제2대대가 맡고 있는 主抵抗線上의 右一線진지를 인수하는 동시에 진지를 引繼한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를 狙擊稜線으로 急派하여 “A”高지를 專擔방어케 하고 이미 진지를 確保하고 있던 제1대대를 “돌바위능선”으로 그 진지를 축소케하여 防禦縱深을 깊게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제17연대의 2個대대를 增援받아 사실상 5個대대의 병력으로 방어에 임하게 된 것이다.

2. 三角高地의 戰況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는 전날 $\Delta 598$ 에서 醜敵을 물리친 뒤로 變함없이 現陣地를 固守하여,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는 「Jane Russell高地」에서 그리고 제2대대(장, 金詳玉 소령)는 $\Delta 598$ 에서 각각 四周警戒 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이날은 敵情이 輕微하여 새벽 04.00와 日沒直後인 22.50에 한차례씩 小隊規模의 敵의 探索隊가 出沒한 외에는 특기할만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계속 진지를 강화하였다. 다만 23.30을 前後하여 $\Delta 598$ 一帶에 砲擊의 激增으로 敵侵의 徵候가 보이는 듯 하였으나 이는 攪亂射擊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狙擊稜線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연대는 이날 사단에서 補修敎育을 다친 新兵 70명(一等兵 40명, 二等兵 30명)이 復歸하고, 또한 轉入兵 100명(下士 18명, 一等兵 74명, 二等兵 8명)을 補充받아 各中隊의 不足人員을 充足케 하였다.

◇ 상황도 제57호 30일의 攻防狀況



10월 30일 : 전날 夕陽에 큰 兵力을 집결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當面의 敵은 두차례나 偵察隊로써 사단의 動靜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날 拂曉에 一齊 攻擊으로 狙擊稜線과 三角高地의 兩要地를 一舉에 탈취코자 하였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의 제2대대가 맡고 있는 狙擊稜線에 대하여는 01.20에 많은 砲擊과 더불어 2個中隊 규모의 敵이 "A"高地 北斜面으로 밀려들면서부터 交戰이 시작되었는데, 02.00에는 그 규모가 대대병력으로 증강되어 제5중대의 진지를 집중적으로 突破코자 함으로써 벌써 一部の 진지에서는 陣內戰으로 化하여 白兵으로 對決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즉각 砲擊의 요청으로 當面의 敵은 勿論이요 그들 예비병력의 집결지로 알려진 "Y"高地 一帶와 그 後方에 이르기까지 火力洗禮를 加하고, 대대의 將士들은 제53戰車중대(장, 趙七星 대위)를 비롯한 美 제140對空射擊隊등의 지원아래 主로 수류탄을 이용하여 屠戮의 健棒을 휘둘렀다.

그러나 敵의 攻擊力은 빠르고도 強하여 여섯차례나 거듭되는 돌격으로 同一地域에서 波狀侵攻하니 03.00에 이르러서는 끝내 제5중대의 진지가 무너져 "A"高地 南쪽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李錫俊 소령은 同高地의 兩側方을 占領中인 제6, 제7兩중대로써 그 進出을 阻止하는데 恩힘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와같은 報告를 받은 연대장은 곧 同高地 主峰의 火集點에 대한 TOT射擊을 요청하는 동시에 빠른중인 제17연대의 제2대대에서 제6중대를 뽑아 戰火에 쌓인 “A”高地로 急遽 躍進케 하고 또한 예비인 제3대대에서 1個소대의 特攻隊를 抽出케하여 제2대대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04.40에 이르러 제6중대가 赴援하고 05.00에는 또 제10중대에서 36명의 特攻隊가 증원됨에 따라 대대장은 이를 통합하여 反擊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A”高地의 正面으로 突入한 대대는 敵陣의 先端을 強打함과 아울러 2명의 醜虜를 사로잡았는데, 이들은 中共제29사단(장, 張顯揚)에하의 제86연대(장, 申冕夢) 소속으로 그의 陳述에 따르면 敵은 그동안 致命的인 打擊을 받았던 제45사단이 전날 물러가고 새로이 제29사단이 投入되었다고 하는 바, 昨속에 벌어진 一連의 動向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들은 사단이 三角高地까지 擔當케 됨을 契機로하여 새로운 兵力의 投入으로 挽回強打를 꾀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같이하여 연대는 中共제86연대와 對결케 되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緒戰에 一擊을 받고 反擊에 나섰으나 시시각각으로 증강되는 敵勢로 말미암아 “A”高地의 中腹에서 멈춘 채로 수류탄 交戰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06.30에는 또다시 중대규모가 제1대대의 陣前으로 침공하여 “돌바위능선”마저 呑呑코자 하였다.

이와같은 戰況을 注視하던 연대장은 드디어 強攻策을 취하기로 결심하고 08.00附로 제9중대장에게 出動命令을 내리는 한편 副聯隊長 李泳吉 중령에게 『제9중대와 제1대대를 직접 지휘하여 “A”高地의 東側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또한 제2대대장에게는 『支援병력을 推進할 예정이니 可用한 兵力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A”高地의 西側으로 突擊하라』라고 嚴命하였다.

이로부터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은 제10중대의 支援소대로 하여금 現陣地(“A”高地 南斜面에서 “매峰”으로 이어지는 稜線)를 固守케 하는한편 제5, 제6, 제7중대의 殘餘병력을 통합하여 직접 陣頭에 나서서 “A”高地의 西側으로 突進攻擊하였다.

이리하여 酷甚한 砲擊이 炸裂하는 敵의 彈幕地帶를 뚫고 그 8部稜線으로 突入하여 挺身力闘을 다하였으나 여기에서 오히려 敵의 逆攻擊을 받아 戰列이 흩어진 바 되었으니, 09.40에 “매峰”부근에서 殘餘병력을 규합하였을 때에는 3個小銃중대에서 집결된 인원이 장교 7명과 사병 75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대의 장병들은 이미 玉碎를 決意하고 다시 重火器중대의 병력과 제10중대의 지원소대를 統合하여 同高地의 西斜面으로 제3차 공격을 決行하였다.

바로 이무렵 부연대장 李泳吉 중령은 제9중대와 제1대대의 主力으로써 同高地의 東側으로 突入하고 또한 제2대대로 赴援한 제11중대가 그 西端으로 攻擊隊列에 가담하여 同時에

三面에서 출기찬 공격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2시간 동안의 激戰 끝에 11.40에 제11중대의 先鋒이 제2대대의 前線을 超越하여 敵의 特火點 銃座를 爆破함을 계기로 부연대장이 이끄는 右一線 梯隊가 東側에서 突擊을 감행하여 一齊히 敵의 塹壕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때에 敵陣에서는 彼我를 가리지 않고 高地 一帶에 同時 집중의 砲擊을 가함으로써 攻者나 防者할 것 없이 火海에 뒤덮이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공격부대는 彈雨를 뚫고 力攻에 力攻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14.30에 UN空軍의 戰爆機 1개편대가 나타나 시원한 機銃掃射과 napalm 彈의 投下로 敵火를 制壓하고 또한 제17연대의 제3중대가 赴援하여, 空地協同으로 2個중대 규모의 頑敵을 撲滅하고 드디어 15.50에 “A”高地를 다시 占領하게 되었다.

이 一戰에서 연대는 射殺 또는 砲殺된 敵屍 246具를 확인하고 3명을 사로잡은 외에도 기관총 5정을 비롯한 각종소총 33정과 수류탄 400여발을 노획하였으며 연대에서도 장교 3명을 포함한 15명이 전사하고 장교 3명과 병사 217명이 戰傷을 입었다.

이와같은 귀중한 代價를 치르고 되찾은 “A”高地에서 연대는 방어전지를 편성하는 한편 제3중대를 戰鬪偵察隊로하여 附近 一圓을 威力搜索케 하면서 戰線을 整備하던 바, 이날 18.00附로 사단에서 要旨 다음과 같은 部隊交代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 작전명령 제110호로서 文書命令 後達).

『① 사단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前進陣地를 강화키 위하여 부대의 一部를 교대하러 한다.

② 제17연대

㉠ 연대는 30일 18.00를 期하여 제32연대로부터 作命 제109호에 따른 任務를 引受하라.

㉡ 同時附로 제32연대에 配屬中인 대대를 原隊로 복귀시킨다.

㉢ 同時附로 제32연대의 2個重火器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32연대

㉠ 연대는 30일 18.00를 기하여 現任務를 제17연대에 인계하고 地域內의 下所—△ 538線으로 이동하여 短時日內에 부대를 再編하라.

㉡ 同時附로 제17연대에서 배속된 대대를 原隊로 復歸 시키고, 2個 중화기중대를 同연대에 지원하라.

㉢ 30일 20.00附로 1個대대를 제37연대에 配屬시키라.

④ 제31연대와 제37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1野砲團은 제17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⑥ 工兵大隊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되, 최소 1個중대로써 제17연대를 지원케 하라.

⑦ 제59戰車중대와 제2重迫擊砲중대는 現位置에서 계속 제17연대를 지원하라.

以下省略

이상과 같은 명령에 따라 다시 狙擊綫을 擔當케 된 제17연대는 제1대대(장, 崔泰炯 소령)를 “A”高地에, 제2대대(장, 姜斗器 소령)의 1個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陽地村으로부터 “돌바위능선”에 이르는 사이에 각각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이날 밤 23.30에 “A”高地 北斜面의 제3중대 正面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挑發한 바 있었으나 一擊에 이를 격퇴하고 堅守不動의 진지를 지켰다.

2. 三角高地의 戰況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는 如前히 제 2, 제 3 兩대대로써 △598와 「Jane Russell 高地」를 確保하고 있던 바, 狙擊綫에서 戰鬪가 시작된 직후인 이날 새벽 02.00에 3個대대 병력의 敵이 侵攻하였다.

이들의 企圖는 △598를 노리는 듯, 그 主攻을 여기에 指向하고 一部の 병력으로 「Jane Russell 高地」 西斜面의 제3대대 제10중대 지역에서 併行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1시간 30여분 동안에 걸친 激戰이 전개되다가 03.40부터 이 狂波가 集約적으로 △598에 밀려드니, 끝내 제2대대의 陣地가 무너져 同대대의 主力이 鷄雄山 西北쪽 溪谷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時刻에는 狙擊綫마저 敵의 手中에 들어가 上甘嶺의 前進陣地까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연대장은 제3대대장 閔應植소령에게 「Jane Russell 高地」의 前進保壘를 固守토록 명령하는 한편 제1대대의 제1중대를 △598로 急派하여 제2대대의 수습된 병력과 함께 逆襲토록 조치하였다.

이로부터 攻防이 뒤바뀐 △598의 激突이 하루종일 계속 되었으나 進展을 보지 못하자 18.00에 一扈 공격을 중지하고 後圖를 다짐하며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第八次戰 제30연대의 赴接 (10월 31일~11월 5일)

10월 31일 : 사단은 전날 △598를 상실함에 따라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작전회의를 開催하여 그에 대한 對策을 검토하였는데, 그동안에 入手한 諜報와 航空寫眞 등의 綜合分析에 依하면, 當面の 中共 제15군(장, 秦基偉)은 지난 18일 동안에 極甚한 타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1個師團의 可用兵力을 保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6군과 제20군이 연제라도 戰線에 加擔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하며 또한 이들의 지원砲兵이 6個대대나 늘어나고 戰車 1個대대가 現在 第一線에서 직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敵의 動向은 軍단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사단의 戰鬪力을 強化키위한 補強措置가 취하여 졌다. 즉, 이날 12.50에 軍단장 Jenkins 소장이 사단을 巡訪하여 戰況을 淸취하고 사단장 丁一權 중장과 함께 16.30까지 直接 戰線을 視察한 다음 軍단장은 口頭命令으로 제

9사단(장, 金点坤 준장 : 金鐘五 소장과 10월 26일 부교대)의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을 뽑아 사단에 배속시켜 주면서 △598의 奪還策을 講究하도록 당부한 것이다.

이때에 제30연대는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白馬高地(△395) 戰鬪에서 빛나는 戰功을 세우고 사단의 主力과 함께 史倉里로 이동하여 부대를 整備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사단장은 이와같은 一聯의 興件을 참작하여 熟議한 끝에 이날밤 20.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작전지시 제77호를 하달하였다.

『① 軍단지시에 依據 제30연대가 當사단에 配屬됨을 確認한다.

② 사단은 제30연대가 配屬됨을 계기로 一部의 병력을 교대하여 △598를 奪還하려 한다.

③ 제30연대는 11월 1일 08.00를 期하여 제31연대와 現位置에서 임무를 교대할 다음 △598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④ 제31연대는 同時附로 제30연대에 現任務를 인계하고 사단 예비에 임하라.

⑤ 兩부대는 交代時에 工兵隊를 除外한 모든 配屬 및 지원부대를 제30연대가 인수하여 統轄指揮하라.

⑥ D일 H시는 後達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指揮措置와 戰列 再整備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날 晝間에는 特別한 敵情이 없더니, 날이 저물면서 19.50에 “Y”高地쪽에서 소대규모의 偵察隊가 제17연대 제1대대의 陣前으로 접근하다가 연대의 砲擊에 의하여 撲殺되고 말았으며, 21.30에는 제31연대 正面의 上甘嶺부근에서도 중대규모의 敵이 또한 威力探索을 감행한 바 있었으나 이 역시 砲擊에 흩어져 물러선 뒤로는 별다른 상황이 없이 진지를 지켰다.

한편 이날 제32연대에서는 지난 10일동안의 “A”高地 攻防戰에서 戰攻을 세운 有攻者를 표창하여 銀星乙支 卅개, 金星忠武 하나, 銀星忠武 셋, 無星忠武 둘(受賞者名單 未詳) 등의 施賞과 아울러 美제 140高射砲대대와 제980야포대대 및 照明中隊에 연대장의 感謝狀을 수여하였다.

11월 1일 : 11월에 접어들면서 사단에서는 변화가 많았다. 우선 이날부로 사단장 丁一權 중장이 美제 9군단의 副軍團長으로 離任하고 그 後任으로 姜文奉 소장이 부임하였으며 戰力面에서도 제9사단의 제30연대가 배속되고 이에따른 지원부대들이 또한 증강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임무도 狙擊綫을 確保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난번 美제 7사단의 목표였던 三角高地를 탈환하여 狙擊綫과 連하는 有機的인 前進陣地를 형성토록 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단은 지난 10월 25일附로 美제 7사단으로부터 戰鬪地域을 引受한 以來, 連日 계속되는 狙擊綫 전투를 치르면서도 △598와 「Jane Russell 高地」를 確保하여 오던 바, 30일 새벽에 △598를 失陷케 되자 이에 대한 對策을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指揮部의 人事異動과 戰力, 任務面에서 變化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方針에는 變함이 없이 작전지시 제77호의 既定計劃을 그대로 移行하여

現 占領진지의 確保策을 강구하면서 △598에 대한 공격방안을 계속 推進檢討하였다.

이상과같은 사단 지휘부의 動靜과는 관계없이 이날도 前方의 衝突은 如前하여 兩연대 지역에서 攻防戰이 反復되었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제17연대 (장, 殷碩杓 대령)가 맡고있는 狙擊稜線에서는 이날 01.30에 소대규모의 敵이 “A”高地로 侵攻한 것을 선두로 01.45에는 중대규모가 “돌바위 능선”으로 몰려왔으며 이어서 02.002에는 다시 2個중대 규모의 병력이 “A”高地 正面으로 加勢하는 등 都合 대대규모의 敵이 열아홉번째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의 제2, 제3 兩중대는 3~4명씩 組를 편성하여 이를 막아 激甚한 損傷을 加하였으나 執拗한 波狀공세와 6,000여발에 달하는 敵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끝내 제2중대의 진지가 무너지게 되자 대대장 崔泰炯소령은 主力을 100m쯤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陣內射擊의 요청으로 敵線을 불바다를 만들었다.

이렇듯 死命을 制하는 砲擊이 03.30부터 계속되는 동안에 戰列을 정비한 대대는 05.30을 기하여 제1, 제2兩중대로써 反擊을 단행하였으니, 이는 我軍의 狙擊稜線에 대한 열번째 공격에 해당하거나와, 이로부터 대대는 主로 수류탄을 이용한 과감한 돌격으로 2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도리어 07.50에 이 敵을 擊退하고 “A”高지를 奪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의 總합戰果는 敵確認사살 91명과 기관총 2정 및 小銃 3정을 노획하였다.

이와같이 拂曉의 一戰이 끝난 뒤로 연대장은 08.00를 期하여 대대를 교대시켰으니, 이번에는 연대의 예비인 제2대대로 하여금 狙擊稜線을 담당케 하고 제1대대는 下所—△538간의 阻止障地로 뽑아 부대정비와 휴식을 취하면서 제2선방어에 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제1선을 맡게된 제2대대는 姜斗驪소령의 指揮下에 제6, 제7兩중대를 “돌바위능선” 으로부터 “A”高地에 이르는 진날의 障地에 각각 배치하고 제5중대는 萬洞(陽地村부근의 작은마을)에 控置하여 右翼연대와와의 空間地帶를 담당케 한 가운데 각 據點별로 四周경계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2. 三角高地의 戰況

한편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이날 08.00를 期하여 사단의 左翼戰鬪區域을 인수한 뒤로,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를 右—線으로하여 下甘嶺 부근에, 제2대대(장, 金祥玉 소령)는 左—線으로 △598 直南方의 松亭부근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를 上甘嶺의 前進障地로 추진하여 「Jane Russell高地」를 방어케 한 가운데 진지작업에 注力하고 있던 바, 19.50에 敵의 偵察隊가 潛入하여 첫 交戰을 보게 되었다.

즉, 上甘嶺진지의 左第一線을 담당한 제10중대 正面으로("A"高地 西쪽 1.5km)소대 규모가 不時에 나타나 兵力배치 상황을 探索하려는 듯, 衝擊行動을 자행하자 同 중대는 10분 간에 걸친 집중사격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그 뒤로 戰線은 긴장이 흐르더니, 21.45에 다시 同중대 지역으로 중대규모의 敵이 侵攻하여 도발할뿐만 아니라 그 西쪽의 △598에서 重機關銃 火力이 중대의 背後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즉각 지원된 砲擊으로 敵火를 制壓하고 제9, 제10兩중대의 火力이 동시에 불을 뿜어 이를 격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打撃을 받은 敵은 22.00이후에는 宗적을 감추어 특기할만한 상황이 없이 계속 警戒에 임하였다.

11월 2일 :사단은 드디어 이날 13.00를 期하여 △598를 공격키로 결정하고 제30연대로 하여금 그 任務를 擔當케 하여 이에 따른 後續措置를 講究하고 있던 바, 이날 새벽에 敵이 오히려 先制攻撃을 감행하여 狙擊稜線과 三角高地의 兩地域에서 挑戰함으로써 또 다시 激突을 보게 되었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제17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제2대대(장, 姜斗驪 소령)가 맡고있는 狙擊稜線으로는 02.00에 2個중대 규모의 敵이 그 衝鋒을 제7중대 正面으로 指向하여 "A"高地 北麓에서 交戰이 시작 되었다.

이리하여 1시간여의 激戰이 계속 되다가 03.20에 다시 중대규모의 醜敵이 加勢하여 陣內에까지 侵襲하니, 끝내 진지가 무너져 同중대의 主力이 "매峰"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第一野砲團에서는 砲門을 돌려 이를 強打하고, 그동안에 대대는 戰列를 整備하여 05.00에 反撃을 단행하였는데 砲聲一聲에 敵陣으로 육박하자 곧 제5, 제6 兩중대로써 "A"高地 一帶를 휩쓸어 30분동안의 돌격으로 이 무리를 撲滅하고 原陣地를 되찾았다.

이와같이 "A"고지를 奪還한 대대는 제7중대를 예비로 돌려 萬洞에서 再編케 하는 한편 同地域에 제5중대를 配置한 가운데 日出과 더불어 진지보수에 힘을 기우렸는데, 날이 어두어진 뒤로 20.10과 23.40에 각각 한차례씩 小規模의 도발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이를 물리친다음 계속 진지를 固守하였다.

2. 三角高地의 戰況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이날 13.00를 期하여 △598를 奪取하라』는 명령을 받고 연대 작전지시 제155호를 하달하여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로써 이를 圖謀키로 內定한 가운데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바, 04.00에 敵의 先攻으로 戰端이 일어 오히려 「Jane Russell 高地」에서 먼저 交戰이 시작되었다.

敵은 처음부터 同高地上 두개의 봉우리를 노리는 듯, 數未詳의 一團이 上甘嶺계곡을 따라 東側 봉우리로 침공하는 동시에 또한 2個대대 규모의 병력은 △598에서 그 西側峰으로 侵犯하여 제3대대의 全陣地를 뒤흔들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趙南國소령의 지휘아래 이를 막아 挺身力鬪를 다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끝내 左第一線의 제10중대 진지가 무너져 左側峰이 敵中에 떨어지고 08.20에는 그 東側峰에 까지 敵影이 스며들어 08.30을 前後하여 대대의 主力이 그 南쪽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은 下甘嶺에서 第二線진지를 방어하고 있는 제11중대로 하여금 逆襲케 하였던 바, 同중대는 現占陣地를 연대 搜索중대에 인계하는 즉시로 一躍 西北進하여 09.15부터 제10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反擊을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攻防이 뒤 바뀐 血鬪가 전개되어 중대는 敵의 銳鋒을 꺾고 11.10현재 「Jane Russell高地」 東側峰의 50m前方까지 육박하였으나 그 이상의 진출이 어려워 여기에서 몇 시간동안 火力應酬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에서는 戰況의 急變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598를 공격키로 하여 예정시간인 13.00에 進擊의 第一歩를 내어댈었으니, 만일 이 高地를 따게 된다면 必然的으로 「Jane Russell高地」의 敵 背後를 攻圍할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어떻든 이같이 하여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은 제1중대를 先鋒으로 △598로 指向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初頭에는 進展을 보여 同高地的 八部稜線까지 一舉에 躍進하였으나 15.00부터 敵의 各種砲彈 3,000여발이 攻擊線 一圓에 집중 할 뿐아니라 수류탄 저항이 또한 頑強하여 여기에서 멈춘채로 力攻을 거듭하는 사이에 先鋒중대장 孫甫憲중위를 비롯한 31명이 散華하고 84명이 戰傷을 입는 등, 死傷者의 續出과 血鬪의 연속으로 日暮가 가까워지니 戰況의 打開은 어려워져 갔다.

그러나 白馬高地에서 氣魄을 떨친 바 있는 연대의 장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夜間攻擊으로 移行하여, 제3대대는 「Jane Russell高地」에서, 제1대대는 △598高地에서 각각 挺身力鬪를 強行하던 바 23.00에 사단장으로부터 공격중지 명령이 하달되자 後圖를 기약하며 각각 現진출선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11월 3일 : 전날 「Jane Russell高地」가 敵中에 떨어짐으로서 사단은 사실상 三角高地를 모두 상실하게되자 이날은 그중 第一峰을 奪還키 위하여 제30연대로 하여금 △598를 공격케 하는 한편 이미 確保한 狙擊稜線의 陣地도 계속하여 補強하고 있던 바, 敵도 또한 狙擊稜線마저 併呑코자 挑戰함으로써 서로 다른地域에서 攻防戰을 펴게 되었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제17연대(장, 殷碩杓 대령)가 擔當하고 있는 狙擊稜線에서는 이날 04.00에 소대규모의 敵의 偵察隊가 제5중대 진전에 나타나자 一擊에 이를 물리친 다음 06.50부터 부대를 교대

하여 그간 이틀동안이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제2대대(장, 姜斗馨 소령)를 葛洞으로 뽑아 부대의 정비와 제2선진지(△538—下所의 線)를 경비케 하는 동시에 吳壽恒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를 前進陣地로 推進하여 狙擊稜線을 專擔케 하였다.

이에 따라 同대대는 대체로 07.00까지 진지를 인수한 다음 제9중대를 “돌바위능선”에, 제11중대를 “A”高地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0중대는 예비로 萬洞에 대기케 한 가운데 陣地를 補修하고 있던 바, 三角高地의 攻擊이 續行되고 있는 이날 靈間에는 醜鋒이 보이지 않더니 日暮가 지난 1시간 뒤인 20.40에 제9중대 正面으로 중대규모가 侵入하여 교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侵攻初頭에는 “돌바위능선”으로 侵犯 하려는 듯 하더니, 21.00부터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증강되면서 역시 “A”高地 北麓의 제11중대 陣前으로 衝鋒을 둘러 例의 波狀 攻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제9, 제11兩중대의 善防으로 最後阻止 火網속에서 2시간여를 헤메다가 23.30을 전후하여 28具의 屍體만을 남긴채로 풀어지고 말았으니, 그들 스물한번재의 꿈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2. 三角高地의 戰況

한편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 제3兩대대의 主力으로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이날의 목표는 △598를 單一目標로 선정하여 제3대대는 그 東側을 공격하고 제1대대는 그 直南方에서 進攻키로 한 가운데 10.00를 期하여 一齣躍進하였다.

가) 下甘嶺에서 出擊한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는 제9, 제10兩중대를 左右梯隊로 하여 雨注하는 敵의 彈幕地帶를 뚫고 西北進한 끝에 12.00 現在 △598 東側의 八部稜線까지 육박하여 力攻을 加하였다.

그러나 증강된 중대규모의 敵의 頑強한 守禦탄 저항과 특히 「Jane Russell高地」쪽에서 亂射하는 側射火力으로 말미암아 더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17.00에 이르기까지 그자리에 멈춘채로 火力對決을 反復 하였다.

나) 이때에 제1대대(장, 金永先 소령)도 同高地의 南斜面으로 突入하여 제3중대를 先頭로 세차례에 걸친 突擊을 強行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先鋒中隊長 金光吉중위의 戰死를 비롯하여 41명의 死傷者를 내면서 苦戰케 되었으니, 地形上의 不利도 있었지만 敵의 酷甚한 擊砲때문에 이날의 공격은 進展키 어려웠다.

이상과같이 兩대대가 力攻을 거듭하다가 18.20에 연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제3대대는 下甘嶺으로, 제1대대는 松亭부근으로 각각 병력을 거두어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11월 4일 : 두차례에 걸친 △598의 공격이 無爲로 끝나자 사단에서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면서 이날은 現陣地를 固守키로 하였던 바, 狙擊稜線에서는 敵의 挑戰이 끝없이 계속

되었다.

1. 狙擊稜線の 戰況

제17연대의 제3대대(장, 吳齋恒 소령)가 전날 狙擊稜線을 맡은 뒤로 一戰을 決한 바 있는 中共제86연대(장, 申見夢)는 지난달 30일 以後 지금까지 줄곧 一線에 있다고 하니, 그 동안에 甚한 打撃을 받았으려면, 아직도 奮念을 버리지 않고 이날 03.00에 또다시 同稜線에 대한 스물두번째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A”高地 主峰을 지키고 있는 제10중대 陣前에서 증강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2시간 동안을 날뛰다가 이도 또한 死傷者만을 더한채로 05.20을 전후하여 물러서고 말았다.

이 狂風이 지난뒤로 대대는 제10중대를 예비로 돌려 萬洞에서 戰列을 整備케하고 제11중대를 同地域으로 推進하여, 제9, 제11 兩중대로써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날밤子正이 가까운 무렵인 23.20에 또 다시 스물세번째로 挑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바위능선”에 2개소대규모가, 그리고 “A”高地 東北쪽으로 2個중대규모등, 1個대대의 병력으로 침공하여 前記 兩中隊의 配置線 中間地帶를 돌파코자 企圖하다가 역시 步砲協同에 의한 鐵火에 무너져 다음날 01.00를 前後하여 信號彈 2발과 함께 물러가고 말았다.

2. 三角高地의 戰況

이상과같이 狙擊稜線에서 두차례나 敵侵을 물리치는 사이에 三角高地에서는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가 전날의 진지에서 四周경계태세를 취한 가운데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단에서는 翌日 黎明을 期하여 사단 예비대로써 △598를 공격키로 결정하고 要點 다음과 같은 사단작전명령 제111호 (52.11.4)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일부의 병력으로 △598를 탈취하려한다.

② 제31연대

㉞ 연대는 11월 5일 04.00를 期하여 제30연대의 진지를 超越하는 즉시로 △598를 탈취 하라.

㉟ 목표를 탈취하면 사단 別途指示에 依하여 제30연대에 現任務를 인계 할수있도록 준비하라.

㊱ 이 작전간 2個 重砲小隊를 통합지휘하라.

③ 제30연대

㉞ 연대는 11월 5일 04.00를 期하여 △598 東北稜線の 공격으로 제31연대의 작전을 지원하라.

㉟ 제31연대가 목표를 탈취하면 사단 別途命書에 依하여 同地域을 인수,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㉔ 작전 기간중, 4.2"重砲中隊의 1個小隊를 제31연대장 지휘하에 들게 하라.

④ 제17연대

㉕ 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㉖ 작전 기간중, 配屬中인 重砲 1個小隊를 제31연대장 指揮下에 들게 하라.

⑤ 제32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⑥ 제37연대는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以下省略

이와같이 새로운 作戰을 推進하고 있는 사이에, 이날 夕陽에 上甘嶺 溪谷에서 2個소대 규모의 偵察隊가 제30연대 제3대대의 陣前에 나타났으나 一擊에 이를 물리쳤다.

11월 5일 : △598의 공격을 앞두고 사단은 밤새워 攪亂射擊으로 敵을 混亂케 하면서, 공격준비를 하고있던 바, 이날 새벽에 狙擊稜線에서 敵의 先制攻擊이 시작되어 여기에 먼저 交戰을 보게 되었다.

1. 狙擊稜線의 戰況

제17연대의 제3대대(장, 吳壽恒 소령)는 전날 侵敵을 격퇴한 뒤로 如前히 제9, 제11兩중대로써 狙擊稜線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날 02.40에 砲擊과 더불어 피리와 팽과리를 또 다시 울린 醜敵의 무리가 대대규모로 "A"高地를 突破코자 하였다.

처음에 이들은 "돌바위능선"으로 1個중대규모, 그리고 "A"高地 北斜面으로 2個중대규모가 각각 밀려들어 同時에 兩稜線을 犯하려는 듯 하더니, 03.00를 期하여 그 衝波가 "A"高地 東北稜線으로 集中되어 例의 波狀攻擊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가 이를 막아 30여분 동안을 交戰하다가 敵의 砲擊이 極甚하여 지자 연대장의 命에 依하여 同중대를 70m쯤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敵의 密集地帶에 地域砲擊으로 鐵火를 加한 뒤를 이어 萬洞에 待期中인 제10중대로써 逆襲을 斷行하였다.

이로부터 攻勢로 移轉한 제10, 제11兩중대가 힘을 모아 力攻을 加한 끝에 日出과 더불어 同高地를 다시 奪還하고 그 附近의 潰敵을 완전히 一掃하였을뿐 아니라 09.30에는 "Y"高地 부근에서 徘徊하는 分隊규모의 敵마저 覆滅한 결과 都合 161名의 敵을 射殺 또는 砲殺하고 2명을 사로 잡았으며 그밖에도 각종소총 22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그런데 이날 사로잡은 捕虜를 審問하여본 결과, 이들은 中共 제31사단(장, 趙藍田)에 하의 제92연대 所屬으로 金城부근에서 이틀전에 五聖山으로 移動하여 전날밤에 戰線에 投入되었다고 하니, 이제 敵은 제15군의 戰力이 다하여 隣接軍(군단)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抗戰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新銳部隊를 擊破한 연대는 이날 下午에 부대를 교대하여, 崔泰炯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로 하여금 狙擊稜線을 擔當케 하고 激戰을 치른바 있는 제3대대를 芳洞(金化 東쪽 7km)으로 뽑아 再編케 하였다.

2. 三角高地의 戰況

한편 △598를 공격키로 한 제31, 제30兩연대는 狙擊隊線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當初의 計劃대로 強行하여 예정시간인 04.00부터 作戰行動에 들어갔다.

가) 이날의 主攻을 맡은 제31연대(장, 金容珣대령)는 연대 작전명령 제50호로써 제1대대(장, 高日燮 소령)로 하여금 同高地를 탈취케 하였던 바, 대대는 제1중대(장, 李光魯 중위)를 右一線으로 鳳尾(金化 東北쪽 3km)에서 下甘嶺을 넘어 목표의 東側으로 突入케 하고 제3중대(장, 金孝信 대위)는 左一線에서 제30연대 제1대대의 진지를 超越하는 즉시로 목표의 直南方向으로 進攻케 하는 한편 제2중대는 上리에 控置한 가운데 砲煙에 뒤덮인 △598를 指向하여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一躍 同高地의 八部隊線까지 進出한 대대는 黎明과 더불어 突擊을 단행하여 敵陣을 強打하였으나 06.30부터 敵의 砲擊이 激增하고 또한 手榴탄의 亂投와 기관총사격의 合擊으로 달미않아 이로부터 熾烈한 亂戰相을 보이다가 09.10에 제3중대가 特攻隊를 先頭로 再次 突擊을 決行하여 頑強한 抵抗을 무릅쓰고 敵陣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때에 彼我를 가리지 않는 敵의 砲擊이 山野를 뒤덮고 11.00에는 逆襲부대까지 나타나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中대장 李孝信대위가 重傷을 입고, 死傷者가 續出할뿐 아니라 戰況은 점차로 不利하여져만 갔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예비인 제2중대(장, 李錫萬 대위)를 急進시키는 한편 航空支援을 요청하였던 바, 14.00에 이 惡戰苦鬪의 血戰場에 제5空軍의 戰爆機 1個편대가 나타나 30분 동안에 發射 機銃掃射와 Rocket彈의 공격으로 지원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제2중대가 여기에 뛰어들어 肉迫으로써 雌雄을 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중대마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分散케 되었으니, 山麓에 흩어진 150餘具의 敵屍가 이 激突相을 말하여주기도 하였지만 兩중대에서도 장교 2명을 포함한 47명이 戰死하고 97명이 負傷을 입어 대대장은 이를 수습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突然 사단에서 15.00附로 공격 中止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대대는 15.10에 戰線을 떠나 鳳尾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나) 제30연대(장, 林益濬 대령)는 主力으로써 現진지를 固守하는 가운데 제3대대(장, 趙南國 소령)로 하여금 「Jane Russell高地」의 西側峰(△598 東北쪽)을 공격하여 제31연대를 지원케 하였던 바, 同대대는 제11중대를 先頭로 공격을 시작하여 同高地의 中腹에서 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한 다음 08.15부터 一進一退를 거듭하다가 대대도 또한 15.00부로 사단의 지시에 의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原陣地로 復歸하였다.

이상과 같이 前記 兩연대의 공격대대가 이날 三角高地에서 交戰을 中止한것은 軍단장 Jenkins 소장의 조치에 따른것으로서, 軍단장은 「Show Down작전」이 시작된 以來에 여

기에서 美제7사단이 12일간, 그리고 當사단이 11일간의 激戰을 각각 치루었으나 死傷者만 늘어가는바다 더구나 連日 계속되는 狙擊殺線의 血戰으로 말미암아 이 이상의 공격이 無意味 할것으로 판단하고, 이날부로 三角高地에 대한 작전을 終結키로 결정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以後 本戰鬪가 끝날때까지 여기에서는 제30연대와 제31연대가 交代로 下甘嶺으로부터 松亭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堅守하는 가운데 威力偵察만으로 一貫케 된다.

第九次戰 交綏一夜(11월 6일~10일)

11월 6일 : 三角高地의 作戰이 終結됨에 따라 사단은 이날부터 狙擊殺線의 방어에 重點을 두고 一部の 火力과 兵力配置를 再整備하는 한편 隸下의 各연대로 하여금 現陣地의 強化에 注力케 하였다.

이로부터 敵도 또한 攻勢를 멈춘 듯,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威力偵察을 감행하거나 不時 打擊戰을 試圖하는 외에는 特記할만한 大規模의 전투가 없이 戰線은 잠시 小康狀態로 접어들었다.

이날도 狙擊殺線에서는 제17연대의 제1대대(장, 崔泰炯 소령)가 전날 제3대대로부터 진지를 引受하여, 제3중대를 “A”高地에, 제2중대(一)를 “돌바위능선”에 각각 배치하고 제1중대는 “매峰”東南쪽 溪谷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방어에 任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아올 무렵인 05.20에 중대규모의 威力搜索隊가 “돌바위능선”北쪽에서 不時에 나타나자 一擊에 이를 물리쳤거니와, 이 交戰에서는 특히 제3對空射擊隊 “C”중대의 強力한 火力에 의하여 敵이 큰 損傷을 입고 달아났다.

그 뒤로 대대는 이날 下午에 “A”高地의 제3중대를 예비로 돌리고 제1중대를 여기에 推進配置하여 계속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던 바, 21.15에 “A”高地 東北쪽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한차례 出沒한 외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變함없이 現 陣地에서 警戒에 임하였다.

11월 7일 : 이날은 이른 새벽 03.40에 중대규모의 敵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偵察이 아니고 打擊戰을 企圖하여 처음에 2~3명씩 組를 지어 隱密히 “A”高地의 北斜面으로 바싹 닥아선 다음 一齊히 奇襲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敵의 恒用手法——즉, 疲勞에 잠든 深夜를 노려 奇襲 공격하는——을 익히 알고 있는 대대의 將兵들은 이를 豫見하여 미리 對備하고 있다가 集中的으로 수류탄 洗禮를 加하여 이 潛入의 무리를 撲殺을 내고 말았다.

이처럼 痛擊을 받은 敵은 그뒤로 05.50에 소대규모의 병력으로써 “돌바위능선” 北쪽에서 사단의 動靜을 探索하는 듯 하더니 以後로는 더 이상의 紛亂을 이르지 않았다.

한편 사단은 이와같이 敵情이 輕微하여지자 각 연대로 하여금 捕虜獲得을 兼한 威力搜

索을 강화케 하고, 또한 사단 作命 제111호의 修正작전지시 제1호로써 제30연대에 配屬中인 제53戰車중대(장, 趙七星 소령 : 11월 1일 附로 少領 進級)를 제59戰車중대와 交代시켜 高飛木에서 사단 예비로 待機케 하는 동시에 金南守 대위가 지휘하는 제59전차중대로 하여금 戰鬪部隊를 직접 지원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13.30에 제17연대의 제2대대장 姜斗鏞 소령 外 29명의 戰功將兵들을 표창하고 142명의 補充兵을 充員하는 등, 戰例을 再整備하였다.

11월 8일 : 이날은 狽擊稜線 戰鬪 42일 동안에 단 하루 交戰이 없는 날이다.

언제나 晝間에 물러섰다가 밤이 되면 挑發하던 敵이 이날은 사단 全地域에서 그 그림자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사단은 더욱 警戒를 強化키 위하여 05.00 附로 사단 작전명령 제112호로써 一部の 部隊를 交代하였으니, 지난 31일 以後 지금까지 사단의 左翼을 맡아 三角高地에서 激戰을 치른바 있는 제30연대(장, 林益淳 대령)를 예비로 돌려 金化 東쪽 2km의 俗稱 “부암골”에서 部隊를 정비케 하는 한편 金容珣 대령이 지휘하는 제31연대를 여기에 推進하여 下甘嶺—松亭간의 主抵抗線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제17연대(장, 殷碩杓 대령)에서도 同時附로 狽擊稜線의 제1대대를 葛洞으로 뽑고 제2대대(장, 姜斗鏞 소령)로 하여금 이 要線을 擔當케 함으로써, 同대대는 07.00까지 진지를 引受하여 제6중대를 “A”高地에, 제7중대를 “돌바위능선”에 그리고 제5중대는 葛洞에 각각 배치한 가운데 警戒태세를 취하였다.

한편 軍단에서는 이날 附로 軍단장 Jenkins소장이 中장으로 승진하였다.

11월 9일 : 이날도 比較的 敵情이 輕微하여 새벽 02.25에 “A”高地 北斜面에서 發狂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한시간 동안에 걸친 集中打로 擊破한 뒤로는 하루 종일 戰線이 조용하였다

그런데 이 拂曉의 一戰에서 제1대대는 排長(소대장) 1명을 포함한 17명의 敵을 射殺하고 50발의 수류탄을 노획하였거니와, 특히 제6중대의 高大夫 一等中士는 陣前에까지 밀려든 7명의 敵을 爆殺하여 第一의 殊勳을 세웠다.

狂風이 지난 뒤로 대대는 日出과 더불어 사단에서 3個中隊의 勞務隊(KSC)를 지원받아 大規模의 진지工事를 실시하였는데, 이번 工事에서는 恒例와는 달리 空Drum통을 이용하여 「Drum繼陣地」를 구축한 것이 特異하였다.

이 築城法은 제5중대장 金宰東 대위의 考案으로서, 空Drum의 一面을 뚫어 銃眼을 만들고 다른 한면을 截開하여 交通壕와 通할수 있도록 한 다음 이것을 땅에 묻고 麻袋에 흙을 담아 銃眼주위를 쌓은 것인데, 1人用 立射形의 有蓋掩體據로서는 적절한 것이었다.

당시의 一線 激戰地에서는 共通된 현상으로, 狹小한 地域에 彼我的 砲擊이 集中됨에 따라 丘陵과 石塊가 은퐁 먼지(塵)로 化하여 진지구축이 어려웠으므로 흔히 麻袋陣地를 築造하였는데, 이 血戰場에서는 한 걸음 더 발전시켜 空Drum과 麻袋를 兼用하여 移動時에는

防彈罐으로 덮어 쓰고 자리를 잡으면 곧 진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같은 築城法을 創案한 것이다.

어떻든 사단은 이날부터 새로운 方法으로 진지를 강화하여 狙擊稜線의 確保策을 세워 나갔다.

11월 10일 : 이날 새벽은 氣溫이 썩下로 내려가고 山野에 어둠이 짙게 깔린 길은 밤중인데도 제17연대 제2대대(장, 姜斗馨 소령)의 將兵들은 五聖山을 凝視하며 狙擊稜線을 지키고 있었는데 03.40에 “돌바위능선” 北쪽에서 數未詳의 敵이 나타났다.

이에 대대에서는 즉각 照明을 밝히고 砲門을 열어 砲擊을 시작하였던 바, 이들은 소대규모에 지나지 않는 偵察隊로서 제7중대의 陣前에 미치기도 전에 벌써 魂膽이 빠져 흩어지고 있었으므로 重火器중대의 火力으로써 一蹴하고 말았다.

그 뒤로는 特記할만한 상황이 없이 이날도 계속하여 진지를 補強하고 있었는데, 사단에서 작전명령 제113호로써 부대 교대명령이 하달되었다.

즉, 그 要點에 따르면 『사단은 明日 05.00를 期하여 제17연대를 冠岩洞(金化 東쪽 4km)으로 이동시켜 사단의 예비로 돌리는 동시에 제32연대로 하여금 狙擊稜線을 擔當케 하고 기타의 지원부대와 제17연대의 2個 重火器중대는 現位置에서 그대로 제32연대를 지원케 하는』 內容이었다.

이에 따라 兩연대는 각각 自隊의 施行計劃을 마련하는 가운데 夜間警戒로 들어갔다.

第十次戰 攻防의 再演(11월 11일~17일)

11월 11일 : 三角高地의 作戰이 終結된 뒤로 當面の 中共 제31사단(장, 趙藍田)은 5일 동안이나 探索과 威力偵察로 一貫하면서 사단의 動靜을 살피는 듯 하더니, 다시 제29사단(장, 張顯揚) 이하의 제87연대와 合勢하여 이날 夕陽에 스물다섯번째의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A”高地에서 또 다시 血鬪를 보게 되었다.

가) 사단은 이날 05.00에 計劃대로 部隊交代를 실시하여, 제32연대(장, 柳根昌 대령)가 제17연대(장, 殷碩杓 대령)의 作戰地域을 引受한 다음 대체로 07.00까지 陣地編成을 마쳤는데, 狙擊稜線의 前進진지는 河相卓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제11중대 배속)가 맡고 主抵抗線은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가 擔當하였으며 제3대대(一)는 葛洞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각각 責任地域에 대한 部署를 정하였다.

그중 제1대대의 狙擊稜線 배치상황을 보면, 제1중대를 그 主峰인 “A”高地에, 제2중대는 “돌바위능선”에, 그리고 제11중대는 “A”高地의 西斜面에 각각 展開하는 한편 제3중대를 “배峰” 부근에 예비로 待機시켰으며, 陣地施設은 제17연대의 제2대대로부터 引受한 것이 鐵條網 600m와 對人地雷 200발 그리고 有蓋壕 67個所 및 Drum罐 位體壕 45個所였고 自隊에서 築造한 것이 Drum罐진지 12個所와 重火器진지 2個所 등이었다.

나) 이상과 같이 戰術配置를 마친 대대는 夜間戰鬪에 對備한 寫景圖를 그리고 진지를 補修하는 등, 만반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日暮가 가까워지면서부터 敵의 砲擊이 시작되더니 무려 8,000여발의 敵彈이 연대의 全地域에 집중되었다.

이로부터 五聖山 一圓이 風塵에 잠기고 彼我的 砲擊이 地軸을 뒤흔드는 가운데 通信兵들은 杜絶된 電話線을 復舊하고 小銃兵들은 不退轉의 決意로 진지를 지키고 있던 바, 16.15에 敵의 先頭가 “A”高地 北쪽에 나타났다.

이리하여 제1중대가 그 先鋒을 擊破하였더니, 敵은 다시 16.35에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증강되어 同一地域으로 第二波가 밀려드는가 하면 그 東쪽의 “돌바위능선”으로도 중대규모가 침공하고 또한 그 西쪽의 제11중대 陣前에서도 중대규모가 發惡할 뿐만 아니라 17.20에는 중대규모의 第三波가 侵犯하여 끝내 “A”高地在 肉薄對決의 血戰場으로 化하였다.

이같은 白兵混戰이 한시간 가까이 거듭되다가 마침내 제1중대의 진지가 무너져 “A”高地의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이때가 18.10으로, 대대OP에서 SCR 536의 交信에 의하여 상황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곧 예비인 제3중대를 急派하여 이를 逆襲케 하였다.

그러나 戰勢는 이미 기울어 “돌바위능선”의 제2중대도 分散되어 “매봉”쪽으로 철수하고 左第一線인 제11중대마저 “매봉”西쪽의 突尖高地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다) 이와같이 戰況이 急轉하자 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接敵牽制하면서 主力을 “매봉”으로 集結토록 하는 한편, 葛洞에 待機중인 제3대대(一)에 出動準備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사단에서도 戰況을 검토한 끝에 우선 砲擊으로써 敵陣을 強打한 다음 明日 05.00를 期하여 反擊기로 결정하고 사단장 姜文泰 소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口頭命令(사단작전명령 제114호로서 文書命令 後達)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明日 05.00를 期하여 “A”高地를 奪還하러 한다.

② 제17연대

⑦ 연대는 12일 05.00를 期하여 最少 1個대대의 兵력으로 목표 “A”를 탈취하라.

④ 12일 15.00限, 제32연대의 2個重火器중대와 1個步兵中隊 및 연대 搜索中隊를



〈제17연대의 出動〉

統合指揮하라.

③ 제32연대

㉔ 연대는 “A”高地로 침투한 敵을 主抵抗線에서 極力 阻止하라.

㉕ 12일 15.00限, 1個중화기중대와 1個步兵중대 및 연대수색중대를 제17연대에 배속 시키라. 以下 省略』

이 명령에 따라 제32연대는 一旦 공격을 중지하고 主抵抗線의 방어에 注力하였으며, 제17연대에서 공격부대로 選定된 제1대대는 이날 23.30에 葛洞으로 集結하여 反擊態勢를 갖추었다.

11월 12일 : 이날 01.00부터 04.00까지 活動한 제32연대 搜索隊의 偵察報告에 의하면, 敵은 “A”高地를 占領한 뒤로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고 “A”高地와 “돌바위능선”에서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그 北쪽의 “Y”高地와 上甘嶺 부근에 대대 규모의 병력을 配屬하여 固守策을 취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狀況 아래 제17연대의 제1대대(장, 崔泰炯 소령)는 제32연대의 제3중대를 配屬받아 05.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初攻의 중점을 “A”高地를 탈환하는데 두고 一齊히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砲擊과 더불어 同高地의 南麓으로 육박한 대대는 여기에서 제3중대와 合勢한 다음 06.00부터 그 東西 兩斜面으로 分進突入하였는데, 敵의 저항도 頑強하여 그 中腹에서 4시간 동안의 激突을 보이다가 제2중대의 挺身突擊으로 轉機를 마련케 되자 이로부터 力攻을 加한 끝에 드디어 10.10에 主力으로써 嶺峰을 넘어섰으며 10.30에는 이 高地를 완전히 掌握하였다.

여기에서 잠시 戰列을 가다듬은 대대는 그 餘勢를 몰아 “돌바위능선”으로 突入하여 2個소대 규모의 敵을 一擊에 覆滅하고 전날의 진지를 되찾았다.

그리하여 곧 陣地修築에 着手하였던 바, 14.00附로 사단에서 명령이 하달되기를 『제17연대의 제1대대는 17.00를 期하여 狙擊稜線의 防禦任務를 引受하되, 제32연대의 搜索中隊를 統合指揮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前進陣地를 맡게 된 대대는 제32연대로부터 作戰地域을 인수하여, 제2중대를 “A”高地에, 제1중대를 “돌바위능선”에 그리고 搜索中隊는 “A”高地 西斜面에 각각 배치한 다음 夜間경계로 들어갔다.

11월 13일 : 제17연대의 제1대대(장, 崔泰炯 소령)는 전날의 配置線에서 계속하여 진지를 補強하고 있던 바, 이날 11.05과 13.35에 각각 한차례씩 小隊規模의 敵의 偵察隊가 出現하여 이를 격퇴한 뒤로, 下午에 戰列配置를 再調整하여 이번에는 예비인 제3중대를 “돌바위능선”으로 推進하고 “A”高地에는 제1, 제2 兩중대를 배치하여 방어 縱深을 깊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날이 저물자 또 다시 敵의 스물여섯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즉 이들은 “Y”高地 東北쪽의 上所里 부근에서 4~5명씩 짝을지어 “A”高地 北麓으로 접근한 다음 22. 30에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제2중대의 陣地 中央部에서 集中突破를 企圖한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편의 砲撃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集中되는 砲火 속에서 수류탄 攻防戰이 展開되었는데, 1시간 30여분 동안의 熾烈한 激突을 보이다가 子正이 가까울 무렵인 23. 50에 다시 數宋詳의 一團의 敵이 “A”高地의 西南쪽으로 迂回하여 背後를 위협하게 되자 끝내 제2중대의 진지가 무너져 同高地의 南麓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 이상의 退步를 멈추어, 여기에서 병력을 수습한 다음, 수류탄을 再補給받고 또한 제1중대의 제3소대를 지원받아 敵의 進出을 阻止하였으니, 이는 대대의 主力이 反擊을 준비키 위한 時間을 獲得코자 함이었거니와, 14일 01. 10現在 중대는 同高地의 中腹에서 對峙한채로 主力의 反擊을 嚮待하였다.

11월 14일 : 이윽고 이날 05. 00가 되자 공격개시 신호가 울랐다.

이리하여 대대의 主力이 “A”高地를 목표로 一齊히 突進하였는데, 그 機動계획을 보면, 제1중대(-)는 “돌바위능선”을 넘어서 목표의 東側을 공격키로 하고 예비인 제3중대는 제2중대(+)의 對峙線을 넘어 超越공격키로 하였던 바, 右一線 중대는 07. 20에 “돌바위능선”을 넘어서 다음 同高地의 東側으로 突入하였으며, 제3중대는 07. 00에 俗稱 “낙타고지”를 탈취한 다음 제2중대와 合勢하여 08. 40부터 力攻을 加하였으니, 이 3個중대의 火網 속에 敵陣은 산산히 무너져 드디어 10. 10에 이 高地를 다시 奪還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彼我의 砲撃이 60mm박격포 4, 600발과 82mm박격포 5, 200발등을 포함하여 24, 800여발이 이 좁은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서로 많은 死傷者를 내게 되었으니, 敵의 確認된 屍體가 152具나 되는 反面에 대대에서도 121명의 사상자를 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血戰이 끝난 뒤로 연대에서는 15. 00를 期하여 제1대대를 交代시켰다. 즉 同대대를 葛洞으로 뽑아 부대를 再編케 하는 동시에 그 동안 제37연대에 配屬되었던 제3대대(장, 金環植 소령)를 狙撃稜線으로 推進하여 前進진지를 專擔방어케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대에서는 이날 補充兵 158명을 轉入 받아 不足된 人員을 充當하였다.

11월 15일 : 제3대대가 狙撃稜線을 인수한지 열시간 밖에 안되는 이날 새벽 01. 00에 敵은 또 다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스물일곱번째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제9중대가 맡고 있는 “A”高地에서 2시간 동안의 白兵戰이 전개되다가 03. 00를 前後하여 다시 同高地가 敵中에 떨어지고, 이어서 “돌바위능선”도 敵의 手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에 대대장 金環植 소령은 “매峰”부근에서 兵力을 收拾한 다음 05. 00를 期하여 反擊을 斷行하였는데, 이번에는 제10중대가 先頭에서 力攻을 加한끝에 06. 35에 “A”高地를 奪還함으로써 戰勢는 급진전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例와는 달리 오히려 “돌바위능선”의 敵이

頑強히 抵抗하여 시간이 지연되자, 대대장은 일단 공격을 멈추어, 제10중대(-)의 主力을 “A”高地에 배치하고 또한 예비인 제11중대를 “낙타고지”로 推進하여 左一線의 방어縱深을 굳게 한 다음 제10중대에서 제2소대를 뽑아 “돌바위능선”을 공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同小隊가 08.00를 期하여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08.20부터 敵陣과 50m의 거리를 두고 시작된 交戰은 10.00를 지나 12.00가 되어도 더 이상의 進전을 보지 못하자 대대장은 13.00에 제9중대의 제2소대를 增派하여 拍車를 加하였다.

그러나 이날 따라 “돌바위능선”의 敵은 洞窟을 이용하여 砲擊을 피하고 自動火器진지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抗拒함으로써 끝내 이를 탈취하지 못한채로 날이 저물자, 대대는 後圖를 다짐하며 現配置線에서 警戒태세로 들어갔다.

11월 16일: 제3대대는 이날 05.00에 제9중대로써 “돌바위능선”을 공격키로 결정하고 04.50부터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있던 바, 바로 이 무렵 “A”高地 北쪽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先攻을 감행하여 여기에서 먼저 交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제10중대의 火網속에서 30여분 동안을 헤메다가 홀어지고 말았으며, 이와는 關係없이 제9중대는 예정 시간에 공격을 시작하여 “돌바위능선”으로 밀고 올라갔다.

이리하여 同중대는 전날의 交戰線까지 一躍 進出하였으나 여기에서 다시 膠着되어 手榴彈의 對戰만이 반복될 뿐, 아무런 進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突然 연대에서 『제3대대는 08.00를 期하여 現狀態에서 제2대대에 任務를 引繼하라』는 要旨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A”高地의 제10중대가 제2대대의 제7중대와 진지를 交代하고 제11중대도 “낙타고지”에서 철수하여 각각 楊谷(金化 東쪽 7km)으로 轉進하였는데, 다만 제9중대만은 목표를 탈취한 다음 제5중대와 交代키로 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또 다시 연대에서 제1野砲團에 의한 TOT射擊의 豫告와 함께 제9중대를 300m쯤 뒤로 물러서도록 명령함으로써, 同중대는 10.00에 “매봉”부근으로 隨意撤收하여 再攻擊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윽고 12.00가 되자 30여분 동안에 걸친 집중砲擊이 “돌바위능선”을 불바다로 만든 뒤를 이어 중대는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同稜線의 中腹에서 멈춘채로 수류탄 交戰을 반복하다가 日暮가 가까워지자 18.20에 제5중대에 現任務를 引繼하고 本隊로 復歸하였으며, 戰鬪地域을 引受한 제5중대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일단 警戒태세를 취하였다.

11월 17일: 밤새워 계속된 攪亂射擊이 砲聲을 멈추면서 날이 밝아오자 제2대대장 姜斗馨 소령은 제5중대로 하여금 『07.00를 期하여 “돌바위능선”을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同중대는 제1, 제2 兩소대를 左右로 전개하여 陽地村에서 敵陣의 東側에 突入하는 즉시로 一齣히 突擊을 敢行하였는데, 敵의 저항도 또한 頑強하여 2시간 가까이 肉薄對戰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10.20에 同稜線을 완전히 奪取함과 아울러 37명의 敵을 射殺하

고 5명을 사로잡는 등, 戰果를 높인 다음 곧 四周境界 陣지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 敵은 또 한차례 제5중대에 挑戰코자 13.30에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侵攻하였으나 一擊에 이를 격퇴하고 말았으며, “A”高地의 제7중대 陣前에서도 14.10에 한차례 挑發이 있었으나 砲擊으로 박살을 내고 말았다.

한편 사단에서는 제17연대를 交代키로 결정하고 사단작전명령 제115호(11.17)를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一部の 연대를 교대시켜 此後 작전에 對備하려 한다.

② 제17연대

㉑ 연대는 18일 06.00를 期하여 現任務를 제32연대에 引繼하라.

㉒ 同時附로 2個 重火器중대와 1個 소총중대 및 연대 수색중대를 제32연대에 配屬하라.

㉓ 18일 20.00限 1個대대를 제37연대에 配屬하라.

③ 제32연대

㉑ 18일 06.00를 期하여 제17연대의 現任務를 引受하라.

㉒ 同時附로 제17연대의 2個重火器중대와 1個소총중대 및 수색중대를 統合指揮하라.

㉓ 18일 20.00限, 제37연대의 예비진지에 배치된 1個대대를 原隊復歸하라.

以下 省略』

이상과 같은 명령에 따라 兩연대는 現任務를 계속하면서 각각 引繼引受를 준비하였는데 특히 제32연대는 이날附로 연대장 柳根昌 대령이 離任하고 그 後任으로 姜弘模 중령이 赴任하였다.

第十一次戰 A高地의 確保(11월 18일~24일)

11월 18일 : 사단의 명령에 따라 다시 狙撃稜線의 방어임무를 맡게 된 제32연대(장, 姜弘模 중령)는 연대 작전명령 제45호로써 제2대대(장, 李再起 소령)로 하여금 제17연대의 搜索中隊(配屬中)까지 統轄指揮하여 이 稜線을 專擔케 하는 한편 下所에서 △538에 이르는 主抵抗線에는 제1대대(장, 河相卓 소령)를 배치하고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는 葛洞에 예비로 待機케 하였다.

이와같은 陣地交代가 06.00부터 대체로 1시간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특히 狙撃稜線의 配置상황을 보면 主峰인 “A”高地를 제11중대가 擔當하고 “돌바위능선”은 제9중대 그리고 配屬中인 搜索中隊는 “A”高地의 西斜面에 각각 배치하는 동시에 제10중대는 萬洞에 控置하여 右第一線의 脆弱點을 補強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대는 陣地구축에 힘쓰고 있던 바, 이날 14.00에 소대규모의 敵이 “A”

高地 北쪽에 出現한 것을 비롯하여 17.15에는 “돌바위능선”東北쪽에서 40여명이 나타났으며 또한 18.50에도 역시 소대규모가 “A”高地 北쪽에서 挑戰하는 등, 세차례의 陣前出沒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4.2"박격포와 81mm 砲擊으로써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20.25에 또 한차례 “돌바위능선”으로 침공한 중대규모는 晝間의 정찰대와는 달리 자못 그 發惡이 심하여 제9중대의 陣前에서 2시간 동안의 手榴彈 接戰을 보이다가 야도 또한 15具의 屍體만을 남긴채로 23.00를 前後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11월 19일 : 이날은 이른 새벽부터 敵의 砲擊이 激增하더니, 03.20에 2個중대 규모의 병력이 “A”高地 東北쪽으로 侵襲하여 제11중대 제1소대의 진지를 突破코자 發狂하였다.

그러나 同小隊와 제9중대 제3소대의 協調된 最後阻止사격으로 1시간 동안의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였던 바, 05.00에는 同高地의 西斜面을 맡고 있는 搜索中隊 正面으로 중대 규모가 다시 나타나 또 한차례 側面突破를 企圖하였다.



〈狙擊稜線 戰鬪에서 鹵獲한 武器〉

이렇듯 敵의 挑戰이 거듭되기는 하나 그 攻擊力은 대단치 않아 이 역시 砲擊에 의하여 上甘嶺쪽으로 흩어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뒤로도 대대에서 진지를 補修하던 이날 晝間에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10.10과 14.50 그리고 15.30에 각각 한차례씩 威力搜索을 감행한 敵은 18.00부터 接觸

을 끊고 砲擊으로 전환하여 밤이 깊도록 攪亂射擊을 실시하였으니, 이날의 總 落彈數가 7,030발에 달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戰列을 整備키 위하여, 사단 작전명령 제115호의 修正 작전지시 제1호로서 『제32연대에 配屬中인 제17연대의 搜索中隊를 明日 05.00를 期하여 原隊로 復歸시키라』고 함으로써, 연대장 姜弘模 중령은 연대의 搜索中隊로 하여금 同時附로 그 任務를 引受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3대대장 李再起 소령도 同時附로 “A”高地의 제11중대를 芻교 예비인 제10중대를 여기에 推進키로 하였다.

11월 20일 : 이날은 새벽 길을 돌아 狙擊稜線에 當到한 搜索중대와 제10중대가 대체로 07.00까지 진지를 引受한 다음, 工兵小隊의 지원아래 砲擊에 무너진 障礙物施設을 復舊하

고 진지를 改築하는 등, 前進진지의 보강에 힘을 기우렸는데, 이날도 例外없이 夕陽이 되면서 敵의 挑發이 시작되었다.

즉, 18.00부터 激增한 砲擊과 더불어 “Y”高地를 넘어온 敵은 18.45에 그 先鋒이 “A”高地 北斜面으로 侵攻한 것을 비롯하여 20.20에는 同一지역에서 중대 규모로, 그리고 20.30에는 2個중대 규모로 점점 증가하면서 集中突破를 기도하였다.

이리하여 한때 제10중대의 제1소대가 分散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중대장의 機敏한 수습으로 이를 막아 渾身の力鬪를 다하고 있던 바, 21.30에 제11중대의 제3소대가 赴援하고 또한 鐵條網을 架設하던 工兵小隊가 이에 合勢하는가 하면 사단의 奏効한 砲擊이 効力射를 발휘하여 歩砲協同으로 이를 強打하였다.

그런데 23.35에 突然 上甘嶺쪽에서 敵의 장갑차 一臺가 나타나 重機 4정으로써 “A”高地의 西側方을 위협하자, 一瞬 새로운 긴장이 감돌기도 하였으나 제1야포단의 105mm 곡사포가 불을 뿜은지 10분이 채 못되어 이 敵火마저 制壓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기세를 펴지 못하고 戰線을 離脫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중대는 일부의 상실한 진지를 되찾아 增援소대와 함께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한편 제17연대에서는 이날附로 第七代 연대장 殷碩杓 대령이 陸軍大學에 入校하고 그 後任으로 사단 작전참모이던 金相彌 중령이 補任하였다.

11월 21일 : 前半夜에 자취를 감추었던 敵은 이날 02.00를 期하여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다시 挑戰하였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執拗하여 제10중대의 陣前에서 2시간 가까이 手榴彈 攻防戰을 전개케 되었거니와, 그 사이에 특히 “A”高地를 中心으로 한 그 부근 일대에 彼我를 구분할 수 없는 砲擊의 集中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으니, 전투가 끝난 직후에 확인한 통계에 의하면, 이 一戰에서 72명의 敵을 屠戮하고 1정의 機關銃을 노획한 反面에 대대에서도 67명의 死傷者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중대는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여 不退轉의 決意를 과시함으로써 이제 敵은 그 氣勢가 꺾이어, 04.00를 전후하여 分散潰走하고 말았다.

한편 연대에서는 拂曉의 一戰이 끝난 뒤로 부대를 교대하여 李錫俊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로 하여금 狙擊稜線의 제3대대 진지를 인수케 함으로써, 同대대는 05.00부터 06.30까지 한시간 반동안에 걸쳐서 진지를 引受한 다음, 제5중대를 “A”高地에, 제6중대의 1個소대를 “돌바위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그 뒤로 이날밤에 敵의 偵察隊가 18.00와 19.30에 각각 한차례씩 소대 규모의 병력으로 出沒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一擊에 이를 물리친 다음 계속 진지를 堅守하였다.

11월 22일 : 이날은 연대장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05.15附로 前進진지의 제5중대를 교대시켜 제6중대로 하여금 “A”高地와 “돌바위능선”을 專擔방어케 하는 동시에 제5중대는 △

538에서 제2선의 阻止진지를 담당케 하였으며, 또한 제7중대는 鳳尾에서 07.20에 葛洞으로 推進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예비로서 待機케 하는 등, 戰線배치를 調整한 다음 계속하여 진지강화에 注力하였다.

그런데 晝間에는 散發的인 포격이 있을 뿐, 특기할만 한 敵出狀況이 없더니, 밤이 깊은 23.05에 “돌바위능선” 北쪽에서 소대 규모의 敵이 나타나 제6중대 제3소대의 진지에서 不時奇襲을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惹起된 수류탄 攻防은 子正넘어 다음 날 01.00까지 계속되자 중대장은 예비인 제2소대를 增派하고 대대에서는 포격을 더욱 증가하여 이를 強打하였던 바, 敵陣에서도 중대 규모로 증강되면서 03.00까지 발악하다가, 제1야포단에서 一齊히 砲門을 연 03.30을 전후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敵의 損傷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屍體를 끌고간 까닭인지 확인된 사살자는 8명에 지나지 않았다.

11월 23일 : 제2대대(장, 李錫俊 소령)가 狙擊稜線을 맡은지 3일째 되는 이날, 대대는 다시 05.00를 期하여 제6중대를 뽑고 제7중대로 하여금 前陣진지를 引受케 하였던 바, 同중대는 06.30까지 진지를 인수하여 제1, 제2兩소대를 “A”高地에, 그리고 제3소대는 “돌바위능선”에 각각 배치한 다음, 전날 밤에 무너진 진지를 補強하였다.

그런데 이날도 日暮와 더불어 敵의 포격이 시작되더니, 18.20에 “A”高地 西北쪽에서 地雷가 폭발하는 요란한 爆音과 함께 중대규모가 侵入하였다.

이들은 “Y”高地를 내려온 직후에 3~4명씩 짝을 지어 地雷地帶를 組別躍進코자 企圖하였으므로 이 好機를 포착하여 중대는 Rocket포의 直擊彈과 포격으로써 鐵火를 加하였던 바, 陣前에 채 미치기도 전에 分散되고 말았으나, 19.15에 “돌바위능선”쪽으로 侵襲한 소대 규모는 바로 진지 북쪽에서 潛跡하여 埋伏상태로 들어간 듯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몇 시간이 흘러 23.50에 이르자 鬼哭聲이 嗷嗷한 “Y”高地 능선에서 敵의 피리소리가 1분동안 울려 퍼지더니, 또다시 중대규모가 “A”高地 北麓으로 침공하는가 하면, 이를 打撃하던 Rocket砲진지에 122mm砲彈 8발이 집중하는 등, 深夜를 틈타서 도발이 滋甚하였다.

그러나 제7중대는 수류탄의 同時集中으로 계속 이를 강타하면서 진지를 固守하던 바, 이들은 01.30을 前後하여 10具의 屍體를 남긴채로 물러서고 말았다.

한편 연대장은 이날밤 22.20에 『제1대대는 明日 04.00를 期하여 제2대대의 진지를 引受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하달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라 同대대는 벌써 03.00現在 主力이 “A”高地를 오르고 있었다.

11월 24일 : 狙擊稜線에 戰火가 인치 42일째 되는 이날, 제2사단(장, 姜文奉 소장) 예하 제32연대(장, 姜弘模 중령)의 제1대대(장, 河相卓 소령)는 전날의 計劃대로 제2대대의 진

지를 리受하여 대체로 04.30까지 병력배치를 완료하되, 제3중대를 “A”高地에, 제1중대(-)를 “돌바위능선”에 각각 배치한 다음 서서히 部隊交代를 준비하면서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仲冬의 寒氣와 함께 날이 저물어 18.40에 이르자 例의 敵의 偵察隊가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A”高地 北쪽에서 한차례 도발한데 이어 22.50에도 同一地域에서 또 한차례 나타난 바 있었으나 사단의 연속되는 砲擊으로 이를 覆滅하여 擊退하고 말았다.

그뒤로 대대는 23.50부터 제9사단(장, 金點坤준장)에하의 제28연대(장, 李周一 대령) 제1대대에 狙擊綫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 部隊交代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돌이켜 보면 6週前인 10월 14일에 군단에서 本作戰을 시작할 때에는 늦어도 10月中에 작전을 終結짓고 越冬에 對備하려 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1個月 동안을 끌어오다가 11월 15일을 고비로 하여 敵側에서도 狙擊綫 공격을 斷念한 듯, 以後로는 威力搜索과 打擊戰으로 一貫함으로써 군단에서는 11월 18일부터 部隊交代를 계획하여, 白馬高地(△395)戰鬪를 치르고 史倉里에서 部隊整備를 마친 제9사단(군단예비)으로 하여금 本作戰地域을 리受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한 다음 군단 작전명령 제33호로서 11월 25일 06.00를 期하여 陣地를 리受토록 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 先發隊인 제28연대의 제1대대가 이날밤, 狙擊綫에 당도하여 방어진지를 인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사단의 主力이 續續 陣地를 引繼하였는데, 이와같은 部隊의 交代와 장차 史倉里로 移動을 지시한 사단 작전명령 제116호의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美제9군단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Missouri線의 一部兵力을 交代시켜 次期作戰에 對備하려 한다.

② 사단(제30연대, 제37輕步兵연대, 제1야포단, 제53, 제59戰車중대 配屬)은 11월 25일 06.00限, 제9사단과 現作戰임무를 교대한 다음, 군단 예비로서 史倉里 부근에 集結하여 敎育訓練에 任하려 한다.

③ ㉑ 제31연대(제1차 교대)

㉑ 연대는 11월 24일 06.00限 地域內의 作戰임무를 제9사단 제29연대에 인계한 다음 齊宮洞으로 集結하라.

㉒ 集結後, 25일 06.00를 期하여 제9사단장의 指揮下에 入하라.

㉓ 제32연대(제2차 교대)

㉑ 연대는 25일 06.00限, 區域內의 作戰임무를 제9사단 제28연대에 인계한 다음 豐岩里(金化 東南쪽 4km)로 集結하여 移動준비를 하라.

㉒ 준비가 完了되면 25일 夜間에 下朴達(史倉里 北쪽 5km)로 이동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部隊整備를 마친 다음 敎育訓練에 任하라.

㉔ 제17연대(제2차 교대)

㉠ 연대는 25일 06.00限, 區域內의 作戰任務를 제9사단 제28연대에 인계한 다음 陽地里(金化 東南쪽 5km)로 집결하여 이동준비를 하라.

㉡ 준비가 完了되면 25일 夜間에 史倉里로 移動하여 敎育訓練에 任하라.

㉢ 제37연대

· 연대는 25일 06.00를 期하여 現跡地에서 제9사단장의 作戰 指揮下에 入하라.

㉣ 제1野砲團

25일 06.00를 期하여 제18, 제30砲兵대대를 配屬한채로 제9사단장의 작전지휘하에 들라.

㉤ 工兵大隊

㉠ 25일 06.00를 期하여 各聯隊에 배속중인 1個小隊를 각각 배속 解除한다.

㉡ 25일에 史倉里 부근으로 移動하여 部隊整備를 마치는 즉시로 敎育訓練에 任하라.

㉢ 1個중대 兵力을 先發시켜 사단 CP設置 및 道路補修 作業을 擔當케 하라.

㉥ 제2重砲中隊

25일 夜間에 史倉里 부근으로 移動하여 部隊整備를 完了하는 즉시로 敎育訓練에 任하라.

㉠ 제53, 제59兩戰車중대는 25일 06.00를 期하여 제9사단장의 작전 指揮下에 들라.

㉡ 搜索中隊는 同時附로 上實乃(史倉里 北쪽 9km)로 移動하여 敎育訓練에 任하라. 協調指示

㉠ 모든 交代와 移動은 夜間에 실시할 것이며 晝間에는 侵透方式으로 行하라.

㉡ 積極인 對空警戒를 실시하고 點光軍紀를 嚴守하라.

㉢ 交代間에 相互協調하여 敵의 侵透에 對備하라.

㉣ 關係部隊長간의 직접 통신을 許可한다. 以下 省略』

以上과 같은 계획아래 各部隊가 진지를 引繼하여, 25일 05.30에 제32연대 제1대대의 OP 철수를 마지막으로 모두 任務交代를 마친 다음 사단 隸下의 全部隊가 各己 移動준비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로써 怒濤部隊(제2사단)는 軍단 「Show Down작전」의 一翼을 맡아 狙擊綫을 공격하여, “Y”高地는 비록 敵中에 들었으나 그 主峰인 “A”高地와 “돌바위능선”을 奪取, 確保한 다음 史倉里로 凱旋의 발길을 돌린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本戰鬪가 끝난 11월 下旬 現在, 全戰線의 戰況은 彼我間에 越冬상태로 들어가, 現接觸선에서 固着되고 以前의 樣相으로 轉回하여 서로 偵察과 探索 그리고 소규모의 공격전으로 一貫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美제9군단(장, Reuben E. Jenkins중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12월 中旬에 展開된 일부의 探索戰을 除外하고는 敵과의 接觸이 현저하게 減하였으며, 1月中旬에는 軍단에서 2,668회나

夜間 경찰대를 운용하였으나 64회 밖에 敵과 遭遇하지 않을 정도로 戰線은 平穩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체로 53년 5월까지 兩便이 나 각각 守勞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다만 五聖山의 前線인 狙擊後線에서만은 敵의 探索攻擊이 계속되었으니, 12월 1일과 2일 사이에 中共 제34사단(장, 尤太忠)이 제9사단(장, 金點坤 中將)의 제28연대와 對決하여 또 한차례 "A"



〈戰功將兵 表彰〉

高地에서 血戰을 빚게 된 것을 初頭로, 그뒤 10일 동안에 걸쳐서 40회나 小規模의 挑發行爲를 恣行하였으며, 1月中旬에도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탐색공격을 거듭하였다. 그렇지만 敵은 損傷만을 더하였을 뿐, 단 한번도 狙擊後線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様相은, 12月中旬에 軍단 正面에서 敵이 114회나 出沒하였는데, 그중 105회가 제9사단 지역의 특히 狙擊後線 부근이라는 點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敵이 오랜 時日을 두고 제15군의 全力을 投入하며 抵抗한 것은 我軍이 狙擊後線을 장악함으로써 五聖山의 그들 主抵抗線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分析되거니와, 당시의 제15군장이었던 秦基偉가 戰爭이 끝나고 本國으로 돌아가 말하기를 『上甘嶺戰鬪(狙擊後線과 三角高地戰鬪)를 총칭하여 敵이 일컫는 名稱에서 3個사단의 戰鬪力을 상실하였다』고 한 點이나(註: 中共軍人志에서, 黃震遐編) 또한 最初에 本戰鬪에 任하였던 제45사단(장, 崔建勳)이 致命的인 打擊을 받아 以後 戰鬪이 끝날 때까지 다시 戰線에 나타나지 않은 點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전투의 양상을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와같이 抗拒하던 敵은 嚴冬과 더불어 53년 1月 中旬부터 接觸을 끊고 守勞를 취하였는데, 이때에 五聖山一圓에는 제45, 제29兩사단이 물러간 뒤를 이어 제34사단이 主力을 그 主峰一帶에 展開하고 同사단 隸下의 제106연대를 上甘嶺 부근으로 推進配置한 가운데, 분대 또는 소대규모의 兵力을 收容할 수 있는 땅굴을 파고 人員을 계속 補充하면서 長期戰에 對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단은 이 전투가 끝난 뒤로 史倉里에 集結하여 三週間의 FTC教育을 마친 다음 12월末에 軍단의 左翼으로 進出하여 다시 一線에 서게 되었다.

즉, 12월 12일 06.00를 期하여, 제9사단에 配屬되었던 제31연대와 제1野砲團에 배속되었던 제18砲兵대대가 각각 原隊로 복귀하여 사단의 主力과 함께 부대정비를 마친 다음 12월 29일 06.00附로 美 제3사단(장, George W. Smith 소장)의 作戰地域을 引受하여, 제31연대(장, 金容珣 대령)가 右一線인 제65연대의 진지를 引受하고 제32연대(장, 姜弘模 중령)가 左一線인 제7연대의 진지를 擔當하는 한편 제17연대(장, 金弼相 중령)를 예비로 保有한 가운데, 中江里(鐵原 東北쪽 7km)에서 大馬里(鐵原 西北쪽 8km)에 이르는 軍단의 左翼을 擔當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은 結果的으로 지난 秋季에 白馬高地(△395) 戰鬪를 치른 바 있는 제9사단의 作戰地域을 맡고(제9사단과 美제3사단이 52년 10월 25일附로 交代하였음) 제9사단은 狙擊後線을 맡아 相互交代한 셈이 되었거니와, 그 뒤로 사단은 53년 6월 29일에 화살머리戰鬪(ArrowHead)에 任할 때까지 特記할만 한 戰鬪가 없이 現戰線을 堅守케 된다.

期間中の 戰況 一覽表

區分 日別	敵 軍	我 軍	交 戰 場 所	戰 鬪 企 圖	結 果
10月 14日	中共계 133연대	계 32, 계 17연대	A高地	我軍攻擊	目標奪取後 敵再侵
15	133R, 134R	32R, 17R	A高地 및 Y高地	我軍攻擊	"
16	133R, 134R	32R, 17R	A高地	"	我軍占領
17	133R, 134R	32R	"	敵 反 擊	交戰繼續
18	"	"	"	"	敵 擊 退
19	"	32R, 17R	"	"	敵軍占領
20	134R, 135R	32R, 17R	"	我軍攻擊	我軍占領
21	135R	17R	"	敵 反 擊	敵軍占領
22	"	"	"	我軍攻擊	我軍占領
23	"	"	"	敵 反 擊	敵 擊 退
24	"	"	Y高地	我軍攻擊	攻擊中止
25	"	"	A高地	敵 反 擊	敵 擊 退
26	"	32R	"	敵 反 擊	"
27	"	"	"	"	"
28	134R, 135R	"	"	"	敵軍占領
29	134R, 135R	32R	"	我軍攻擊	我軍占領
30	86R	32R, 17R	"	敵 反 擊	敵 擊 退
31	86R	17R	"	"	"
11月 1日	"	"	"	"	"
2	"	"	"	"	"
3	86R, 87R	"	"	"	"
4	"	"	"	"	"
5	92R	"	"	"	"
6	"	"	"	"	"
7	"	"	"	"	"
8	敵 出現치 않음				
9	92R	17R	A高地	"	"
10	92R	"	"	"	"
11	92R, 87R	32R	"	敵 反 擊	敵軍占領
12	92R, 86R	17R, 32R	"	我軍攻擊	我軍占領
13	92R	17R, 32R	"	敵 反 擊	敵軍占領
14	92R, 86R	17R, 32R	"	我軍攻擊	我軍占領
15	92R, 87R	17R	"	敵 反 擊	敵의 占領後, 我軍再奪取
16	92R	"	돌 바 위 능 선	我軍攻擊	交戰繼續
17	92R, 87R	"	"	"	我軍占領
18	106R	32R	A高地	敵 反 擊	敵 擊 退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23	"	"	"	"	"
24	"	"	"	"	"

綜合戰果 및 損失

戰果 및 損失		部隊	제 17 연대	제 32 연대	기 타	計
戰 果	捕射	虜殺	33	38	1	72
	推定	殺傷	2,230	1,389	153	3,772
	函	60mm 박격포	2	2	55	11,023
		57mm 무반동총				4
		3.5" Rocket	1	1		1
		機關銃	24	15		39
	獲	各種小銃	128	120		248
		手榴彈	48,340	2,843		51,183
	損 失	戰死	13/472	18/618	1/6	31/1,096
		負傷	56/1,648	59/1,837	13	115/3,498
失蹤		22	67		89	

期間中 彈藥消耗統計

種類	戰前保有	戰中受領	戰中消耗	備考
M1	1,698,265	4,434,126	4,161,841	
CAR	346,365	2,080,150	1,281,169	
BAR	239,866	1,006,043	1,150,485	
LMG	2,159,012	4,019,380	4,358,918	
SMG	31,275	110,150	89,850	
50MG	136,019	203,467	227,647	
57mmRR HE	2,241	3,838	3,558	
" WP	389	196	316	
75mmRR HE	1,383	1,977	4,285	
" WP	201	188	100	
60mm MOT HE	16,456	134,548	131,954	
" 기타	3,211	25,301	25,574	
81mmMOT HE	10,870	172,235	170,214	
" 기타	2,080	2,464	3,125	
2.3" Rocket	966	291	484	
3.5" Rocket	687	703	813	
수류탄 HE	13,747	119,802	87,974	
" 기타	341	916	251	

兵力補充現況

區分 月日	제17연대		제32연대		計	
	O	E	O	E	O	E
10. 14			11		11	
15	3				3	
16				200		200
18				236	18	236
19			2	196	2	196
20	6				6	
21		98		30		128
22			3		3	
23		249				249
25				119		119
26		200		60		260
27	1	41		100	1	141
28	1	301		99	1	400
29	15				15	
30	2				2	
11. 1	7			197	7	197
2	1	2		99	1	101
3		99		405		504
4		268				268
5	1	1			1	1
8		142				142
9		1				1
10		1				1
11		225		130		355
14	14	10			14	10
15		159				159
16		2				2
17		40				40
18	11	5			11	5
19	7				7	
20	1	73			1	73
計	70	1,917	34	1,951	104	3,868

期間中 戰功者 名單(사단 戰團詳報에서)

番號	所 屬	階 紙	姓 名	職 責	樹功年月日
1	師 團 司 令 部	中 領	文 重 燮	情 報 參 謀	1952. 10. 19
2	"	一 等 中 士	文 應 聖	工 兵 隊 分 隊 長	10. 16
1	第 17 聯 隊	少 領	姜 斗 馨	大 隊 長	10. 15
2	"	大 尉	金 宰 東	中 隊 長	"
3	"	少 尉	金 相 喆	情 報 官	"
4	"		姜 元 尙	小 隊 長	10. 14
5	"		金 東 一	"	11. 15
5	"		朴 相 奎	"	"
7	"	一 等 上 士	金 炳 煥	小 隊 長 代 理	"
8	"	一 等 中 士	劉 順 益	分 隊 長	10. 16
9	"		李 昌 秀	"	"
10	"		李 在 元	導 長	"
11	"		李 辛 利	分 隊 長	"
12	"		尹 琪 珙	"	"
13	"		李 鍾 喆	"	10. 15
14	"	一 等 中 士	姜 應 熙	"	"
15	"		崔 洪 洛	副 分 隊 長	"
16	"		卓 亨 植	分 隊 長	11. 15
17	"	下 士	文 學 銀	狩 獵 隊 分 隊 長	10. 15
18	"	一 等 兵	崔 錫 潤	副 分 隊 長	"
19	"		吳 世 榮	小 銃 手	11. 17
20	"		趙 鍾 煥	"	11. 14
21	"		黃 順 岩	"	11. 15
1	第 32 聯 隊	少 領	宋 淳 根	大 隊 長	10. 14
2	"	"	李 根 實	"	"
3	"	大 尉	李 伯 衡	中 隊 長	"
4	"		趙 泰 洙	"	10. 19
5	"	少 尉	金 昇 根	中 隊 長 代 理	10. 30
6	"	"	金 正 決	小 隊 長	11. 12
7	"	二 等 上 士	楊 利 錫	衛 生 兵	10. 14
8	"	一 等 中 士	李 明 奎	分 隊 長	"
9	"	"	閔 仁 植	小 隊 長 代 理	10. 30
10	"	"	朴 西 錫	分 隊 長	10. 29
11	"	二 等 中 士	池 百 俊	"	10. 14
12	"	"	金 德 萬	分 隊 長	10. 14
13	"	"	韓 斗 出	"	10. 16
14	"	"	沈 亨 燮	"	10. 14
15	"	"	趙 成 鎮	LMG 射 手	"
16	"	"	金 用 黨	通 信 兵	"
17	"	下 士	趙 魚 龍	"	10. 29
18	"	"	金 炳 學	小 銃 手	11. 13
19	"	一 等 兵	金 相 國	小 銃 手	10. 29
20	"	"	李 相 老	"	10. 25
21	"	"	張 志 文	分 隊 長 代 理	11. 12

§ 參戰者의 證言

◇ 제17연대장 殷碩杓대령

(1975년 10월 25일 국방부에서, 예, 대령)

이 전투는 最初에 제32연대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丁一權중장이 사단장으로 赴任한 직후에 實施한 사단 射擊大會에서 同연대가 一等을 하여 選定되었던 것이다.

當時에 本人은 교육의 중점을 총검술과 수류탄투척 및 夜間戰鬪등의 實戰訓練에 主眼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격대회에서는 뒤졌지만 언젠가 實力을 발휘할 수 있는 機會가 오리라고 믿고있었으며, 더구나 우리 연대는 734高地戰鬪를 비롯한 金城進擊戰과 北漢江戰鬪 등에서 戰功을 떨친 바 있는 古兵들이 많은 까닭에 自信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투가 시작된지 1週日이 채 못되어 바로 그 機會가 우리에게 왔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내가 強調한것은, 目標地帶의 機動空間이 狹少하니까 攻擊時에는 兵力과 火力의 同時集中으로 一擧에 目標을 탈취케 하고, 防禦時에는 據點配置하여 敵을 유도한 다음 主로 砲擊과 航空擧擊등의 火力으로써 격파케 하였는데 특히 美 高분관 「블트」대위가 아주 협조를 잘하여 空中待機中인 戰爆罐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감사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전투 당시에는 1951년도와는 달리 敵도 歩砲協同을 잘 할뿐 아니라 五聖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40여일 동안을 抵抗함으로써 狙擊綫의 좁은 지역을 피로 물들여 실로 筆舌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血戰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彼我의 砲擊이 시작되면 마치 地震이 일어나 地盤이 무너지는 듯 하였고, 이같은 포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陣地를 構築할 수가 없어서 鎗斗隊대(제2대대)에서 考案한 Drum繼陣地로 應急對處하기도 하였다.

敵은 새벽 02.00가 되면 어김없이 侵攻하는데 通常 大隊兵力이상이었으며 我軍의 16개 포병대대가 밤새도록 이를 두들긴 다음 아침에 확인하여 보면 보통 30~40具의 屍體가 널려있었다.

특히 戰鬪 중반에 사로잡은 捕虜가운데 輸送部 要員까지 動員된 것을 보면 中共 15군이 여기서 완전히 깨졌으며 그後 一部の 師團은 再起不能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敵의 砲火力도 대단하여 우리도 많은 損失을 보았으며, 이 전투는 그 좁은 地域의 가치보다도 하나의 氣勢와 政治的 意議가 더 크기 때문에 더욱 熾烈하였던 것으로 안다.

戰鬪中에 部隊指揮에 不便이 없었던 通信兵의 活動과 患者後送에 最善을 다한 衛生兵 그리고 各級 支援부대의 積極인 協力등도 이 戰鬪를 勝戰으로 이끈 要因의 하나였다.

◇ 사단 情報參謀 文重燮중령

(1975년 7월 15일 春川第一高等學校에서, 濬, 少將)

나는 당시에 사단의 情報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作戰이 시작되기 10일 前부터 現地에 나가서 每日 偵察을 反復하고, 또한 諜下隊에서 入手한 諜報와 航空寫眞등을 綜合分析하여 敵情을 判斷한 결과 狙擊綫 일대에는 增強된 中대 규모의 敵이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막상 공격을 시작하고 보니, 敵은 곧 增援兵力이 물러들어 처음부터 中대 규모 以上の 병력으로 對決케 되었으며, 이와같은 현상은 이 전투가 끝날때까지 彼我間에 마찬가지로였다.

戰鬪地域이 狹少한데 비하여 이처럼 많은 兵力을 投入한것은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내가 알기로는 이 狙擊綫이 五聖山을 지키려는 敵에게 있어서는 不可缺의 要域인 反面에 我軍에게도 鎭化의 安全과 補給路를 確保키 위하여 必取의 地域이라는 점과,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作戰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主抵抗線 공격은 彼我間에 慎重을 期하고 있기 때문에 攻擊力을 前哨陣地에 集中하였던 점 등을 들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類例없는 死傷者를 내게 된 것이다.

每日같이 밤만되면 敵이 侵攻하고 낮에는 我軍이 공격하는 戰鬪가 40餘日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특히 敵은 “돌바위능선” 北斜面에 中대규

모의 병력을收容할 수 있는 洞窟을 파놓고 砲擊이 심할때나 航空爆擊이 시작되면 이곳으로 待避하였다가 끝나면 다시 나타나 發砲하곤 하였다.

最初 공격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사실상 우리가 당했으나 捕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 諜報를 入手하여, 내가 直接 搜索中隊의 古兵 몇사람을 데리고가서 確認하여 본 결과 그것이 틀림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 뒤로는 敵의 洞窟作戰에 對處하였지만 쉽사리 이를 爆破하지 못하여 한동안 苦戰한 일이 있다. 전쟁터에서 古兵의 比重이 크다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이 전투는 長期間 계속된 까닭에 新兵이 大部分이어서 더욱 古兵의 아쉬움이 절실하였으며, 濟州島에서 轉入한 兵士가 頭髮을 잘라놓고 戰地에 나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라를 위하여 이룬일이 사라지면 이 젊은이들의 冥福을 빈다.

◇ 제32연대 제1대대장 李根寶소령

(1965년 4월17일 陸軍大學에서, 대령)

休戰이 될 것으로 내다본 상황아래서 싸운 이 전투는 한치의 땅을 다투는 血戰이었다.

내가 대대 병력을 이끌고 A高地로 나아가 5일동안의 激戰을 치르고 나니, 4個 중대장이 모두 負傷을 입고 大部分의 兵力을 상실하여, 以後로는 얼굴조차 모르는 新任소대장과 新兵들을 데리고 오직 使命感과 精神力으로 이겨나갔다.

勿論 敵側에서도 그 以上の 損傷을 입었으나 人的資源에 拘礙받지 않는 이들은 내 죽음을 당하면서도 每日 밤 밀려들어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긴 날이 없었다.

交戰이 시작되면 이것은 곧 肉薄對決로 化하여 좁은 地域에서 싸움하 듯이 하는데, 그위에 彼我를 區分할 수 없는 砲擊이 集中되니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날인지 확실히 記憶할 수는 없으나 우리 대대가 A高地를 방어하다가 撤收하던 날, 나도 직접 一線에 나가서 중대장과 똑같이 병력을 수습하고 보니 1個중대 병력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같은 條件은 敵側에도 마찬가지

에서 곧 地障을 되찾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전투가 6週동안을 계속 한 것이다.

우리 연대에서 2個대대장이 同時에 負傷을 입었을 때 연대장(柳根昌 대령)은 땅을 치면서 鬱鬱을 금치 못하였다고 들었는데, 모두가 이같은 沈鬱로 뭉쳐서 끝내 A高地를 確保하였던 것이다.

다만 내가 한가지 強調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상황이 험하더라도 將校를 補充할 때에는 대대장과 중대장에게 申告한 다음 任務을 받고 現地에 나갈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안다.

◇ 제17연대 제1대대 소대장 金宇讚 소위

(1966년 7월 13일 육군본부에서, 소령)

내가 A高地 頂上에까지 올라가 본것은 네 차례였다.

이곳은 地形이 험하여 공격할 때에도 教範에 있는대로 左右로 隊形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一列로 올라가다가 目標地帶에 다다르면 散開하여 突擊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휘하는데 있어서도 砲擊과 銃聲이 뒤섞여 口頭로는 指示가 不可能한 까닭에 주로 腕手信號로써 突擊目標을 지시하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즉, 네번째 공격할 때의 일인데 소대원을 돌려 보니까 아는 얼굴이 몇명 없고 거의가 新兵으로서 突擊命을 내려도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어할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A高地에서 초저녁부터 交戰이 시작되어 새벽 3시가 되니까 觀測將校와 先任下士 그리고 連絡兵들을 포함하여 5명만이 남고 新兵들은 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하여 수류탄 洗禮를 加하고 銃擊을 퍼부으니 敵은 좀처럼 接近하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 물러서고 달았다.

그렇지만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임무를 부여 받으면 더욱 곤란하였다.

아무튼 古兵 한사람이 新兵 열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戰 訓

◇ 新兵 運用 問題

戰鬪經過의 概要를 보면, 本戰鬪는 始終 제32연대와 제17연대가 相互 交代하면서 逐次的인 병력의 投入으로 6週間의 長期戰을 치루었으며, 또한 人力運用의 統計에 따르면 期間中 兩연대의 損失兵力이 4,829명인데 대하여 3,972명(장교—104명, 사병—3,868명)의 병력補充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戰鬪員의 절반이상이 새로 轉入된 新兵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當時 參戰者들의 證言을 종합하여 보면, 『전투가 시작된 뒤로 2週日째 접어들면서부터는 古兵보다도 바로 轉入된 新兵이 더 많아, 이들은 古兵의 눈치만을 살피고 전투가 激化되면 古兵의 위치로 물러들기가 일수였으며 指揮官들도 이 新兵의 얼굴조차 익히지 못하여 애로가 많았다』고 하니, 이것은 兩考의 一面이 있을 것이다.

勿論 당시의 兵力運用 문제는 上級部隊로부터 嚴格한 통제를 받아 여러가지 制限要素가 뒤 따랐음을 충분히 인정하나, 數字的인 概念만으로서 戰鬪力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니, 예비대를 충분히 活用하여 新兵은 一定期間의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均配運用함이 마땅할 것이며 특히 前記 兩연대 以外에도 제30, 제31, 제37연대 등 5個연대의 兵力을 保有하였던 사단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가 講究되었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 對砲兵射擊問題

期間中 敵彈의 落彈統計에 의하면, 最少日이 공격개시 當日인 10월 14일로서 824발이며, 最

高日이 10월 19일로, 39,706발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戰鬪가 激化함에 따라 敵의 砲擊이 漸增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損失도 또한 增加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理由는 敵의 砲兵力이 增強된데에도 그 까닭이 있다 하겠으나, 觀察將校의 보다 정확한 관측활동과 落彈分析 등으로 敵의 砲陣地 確認에 注力하여 對砲兵射擊이 實効를 거두었다면 損失을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에 軍단에서는 16個포병대대를 運用하여 中·長距離포격이 모두 可能하였음을 감안할 때 火集點의 選定이 너무 交戰部隊의 近接 支撥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懸念되며, 이와같은 高地爭奪戰의 상황 아래서는 對砲兵射擊문제가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 Drum罐 陣地構築

本戰鬪에서는 前例없이 砲擊이 激甚하여 再編過程에서 많은 損失을 보게 되었는데, 이를 打開코자 제17연대에서 11월 9일부터 Drum罐 陣地를 構築한 記錄이 나온다.

이것은 특히 最一線 指揮官이었던 同聯隊의 第5중대장 金宰東 대위가 戰地에서의 經驗을 살피 考案한 것으로서, 從來의 麻袋진지와는 달리 砲擊에도 能히 支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推進時에도 防彈罐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急造진지를 구축하는데 적절하여 人命損失을 줄이고 急編방어 태세를 갖추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 아래서는 Drum罐 뿐만 아니라 보다 더 發展시킨 築城資材를 미리 준비하여 對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第 54 章

西部戰線의 戰況

要 旨

1. 高陽堡附近 戰鬪
(一名, Tessie 與 Nickie高地 戰鬪)
2. 臨津江 附近戰鬪
(一名, Nori 與 Betty高地 戰鬪)
3.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一次戰
4.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二次戰
5.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三次戰
6.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四次戰
7. 不毛高地附近 戰鬪
8. 美海兵隊의 Bunker高地 附近戰鬪

第54章 西部戰線の 戰況

要 旨

1952년 봄에도 對陣狀態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어져, 단지 我軍의 警戒線 및 主抵抗線의 要部인 일부 高地에서의 攻防이 戰鬪의 焦點이 될 따름이었다.

또한 時期的으로는 여름과 특히 가을에 전투가 集中되었고, 따라서 本章에는 地域單位로서 全期間을 網羅한 西部戰線の 戰況을 收錄한 바, 이는 美 제1군단 戰區로써 대체로 鐵原以西로부터 西쪽으로 金浦半島-西海岸에 이르는 地域에서의 主要 전투를 다룬 것이다.

4月 以前에는 軍단 地境에 鐵原 東北 및 △395일대가 포함되었으나, 3월에 美海兵 第1사단이 韓 제1사단과 交代하여 軍단 左翼으로 板門店 부근을 포함한 西海岸 일대를 防禦케 된 데 이어, 4월 5일에 제9사단이 △395(白馬)일대의 담당지역과 함께 美 제9군단으로 配屬이 變更됨으로써 軍단 地境의 東端은 △281일대로 된 것이다.

이로서 軍단은 CP를 識政府에 둔 가운데 右翼인 美 제45사단, 中央右翼인 美 제3사단, 中央左翼인 英 제1聯邦사단, 그리고 金浦防禦聯隊를 포함한 美 해병사단으로써 中共 제65, 제40, 제39, 제42군 등과 對陣한 것이다.

4月 中으로는 月初에 韓 海兵 第1연대(美 海병사단에 配屬)는 泗川沿邊의 前進陣地에서 攻防을 치루었고, 中旬에는 美 제3사단의 일부가 馬鞍山 南쪽에서 夜襲을 試圖한 바 있다. 그러다가 26일에 제1사단이 美 제3사단과 交代하여 다시 前線에 나선 다음, 사단은 5월 初旬頃까지 일부 前進陣地에 대한 敵襲을, 陣地를 비우고 砲撃을 誘導하여 敵에게 最大限의 打撃을 加하는 戰術으로써, 격되하였다.

여름이 되자, 軍단은 鐵原 西쪽 일대에서 先制攻撃으로 警戒線의 強化를 圖謀하였으나, 바로 美 제45사단의 Counter 작전이 嚴行된 것이다. 일대에서의 전투는 不毛·Perkchop 高地·T-Bone등을 中心으로 7월 中旬에는 美 제2사단이 交代引受하면서 여름내 계속하였다.

같은 7月初에 美 제3사단은 다시 제1사단과 交代하여 中央右翼으로 나서는 데, 下旬의 장다로 戰線은 비교적 靜穩하였다.

장다가 끝나자 다시 전투가 激化되어, 8월에 들어서 美 海병사단은 敵攻에 맞선 舊戰끝에 Bunker 高地를 離脫하였고, 9월에 韓 海병연대는 다시 泗川沿邊에서의 激突을 시작하여 연대가 전투단으로 改編된 10月初에서 11月初까지 거듭하고 있었다.

한편 美 제3사단은 9월에 Kelly 前哨를 敵手에 넘기 채, 다시 軍단 예비인 제1사단과 交代하는데, 10월에 들어서면서 敵의 이른바 「10月 攻勢」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東端의 △281에서는 France 대대가 右隣接인 白馬 高地의 제9사단과 아울러, 中共 제42군과 交代한 제38군의 侵攻에 맞서 熱戰을 벌였고, 제1사단은 Tessie 및 Nickie 高地에서 奮鬪하였다.

11월의 軍단 正面은 대체로 交綏狀態라 하겠으나, 12月初旬에 제1사단은 다시 敵攻에 맞서 Nori 및 Betty 高地의 激鬪를 벌였다.

12월도 다 간 29일에 美 제7사단이 美 제2사단과 交代하니, 이로써 12月末 現在 軍단은 右翼 美 제7사단, 中央右翼 제1사단, 그리고 英 제1聯邦사단과 美 海兵사단은 번함없이 포함 4개 사단으로써 首都 北方을 堅守하고 있었다.

1. 高陽垓附近 戰鬪 (1952년 10월 6일부터 1952년 10월 9일까지)

(一名, Nickie 및 Tessie 高地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 19 호
상 황 도 제58, 5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	장 준장	朴 林 恒	연대	수색중대 장 대위	安 秉 塵
제 15연대	장 대령	金 振 暉	사단	수색중대 장 대위	張 錫 燁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壽 大	제 11연대	제 3대대장 중령	崔 一 嶸
제 9 중대	장 대위	朴 鍾 淳	지원부대		
제 10중대	장 중위	吳 榮 煥	제 17포병대대	장 대위	孫 明 珍
제 11중대	장 중위	李 在 煥	美 제 9포병대대, 제 58포병대대, 제 72전차대대 A 중대		
제 12중대	장 중위	金 東 勳			
배속부대					
		敵		軍	
中共 제 39군	장	鐘 偉	지원부대		
제 116사단	장	張 峰	中共 제 2 포병사단,		
제 348연대	장	基幹	제 10독립포병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1사단(장, 朴林恒준장)은 육본 作指 제 136호(52.3.16)에 의거하여 西部戰線의 作戰任務를 美 제 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3월 25일에 陸本直轄로 복귀와 동시에, 제 1 FTC에서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着手하였는데, 육본 作指 제 144호(52.4.9)에 따라서 4월 21일附로 다시 美 제 1군단(장, J.W. O'Daniel 중장)에 배속되어 戰線으로 躍進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하여 사단은 군단 作命 제 15호에 의거, 4월 27일 04.00附로 美 제 3사단(장, Robert L. Dulaney 소장)의 戰鬪地區를 인수하고 군단 中央右翼으로써 James town 線上的 主抵抗線陣地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7월 5일에는 作戰任務를 다시 美 제 3사단에 인계하고, 陸本 作戰計劃 제 27호(52.7.6)에 따라 主力(제 11, 제 12 兩연대)은 全北 南原으로 移動하여 南部地區警備司令部(사령관, 宋堯讚 소장)에

백숙과 동시에 智異山—回文山—長安山—德裕山 地區의 共匪擊滅戰을 담당하였으며,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는 慶南 密陽으로 移動과 동시에 陸本直轄 警備司令部를 創設하고 제11경비대대(장, 宋星三중령)를 統合指揮하여 神佛山—雲門山—天皇山 一帶의 共匪擊滅戰을 展開하였다.

8월 7일에는 육본 作指 제196호(8.1)에 따라서 南警司로부터 백숙이 解除되고 陸本直轄경비 사령부를 解體한 다음, 抱川 南쪽의 竹谷里附近으로 移動하여 美 제1군단 예비로써 教育訓練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10월 1일에는 사단 作命 제83호(9.28)에 의거하여 美 제3사단의 作戰任務를 보다시 인수하고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를 右一線,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軍단 中央右翼사단으로서 James town 線上的 主陣地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狀況 : 當面の 敵인 中共 제39군(장, 鍾偉)은 제116사단(장, 張峰)을 西翼, 제115사단(장, 張錫誠)을 東翼으로 하여 그 主力이 我 제1사단과 對峙하였으며, 제117사단(장, 張치경)은 軍 예비로써 兪山附近에 集結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즉, 西翼인 제116사단은 제348연대를 右一線, 제347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臨津江 西岸의 白石洞—馬糧山(△315)—回山洞—下後洞을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하고 예비인 제346연대는 水龍洞附近에 集結하였는데, 사단 主力이 我 제15연대와 對峙하였다.

한편 東翼인 제115사단은 제345연대를 右一線, 제343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222(後川洞 東南쪽 1km)—△233(烽火峴 西쪽)—△212(文登山里 西南쪽)—△223(文登山里 東쪽 1.5km)를 連한 一帶에 主據點을 形成하고 我 제12연대와 對峙하였으며 예비인 제344연대는 馬山洞附近에 集結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제39군은 포병 제2사단(제28, 제29, 제30연대基幹)의 제29포병연대와 제10독립포병연대의 支援을 받는 것으로 보였는데 安峽 北쪽에 位置한 Rocket 砲연대는 언제라도 戰線에 대한 支援이 可能한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中共 소속의 전차 一部가 貴存里附近에 出現하고 있음이 航空觀測으로 확인되었다.

蔣國府軍의 投降병사가 그 主流을 이룬 當面の 敵은 軍事訓練과 機關鎗힘이 풍부하여 全面공세의 戰鬥力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으나, 我軍의 優勢한 空中공격과 砲擊으로 全面공세보다는 現據點을 계속 防禦하면서 局地的인 공세를 試圖할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萬若 공세를 취한다면 左一線인 제15연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한 古莊里 東南쪽의 小Nori高地와 高陽岳附近의 Nickie 및 Tessie 高地一帶로 그 衝鋒을 指向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특히 Nickie 및 Tessie 兩高地는 高陽岳의 東北쪽으로 떨어진 稜線上的 標高 150m內외의 連峯이나, 敵이 主據點을 形成한 馬糧山(△315)의 一支脈으로서 敵線을 牽制하고, 北쪽의 古莊里—回山洞 一帶 開豁地를 瞰制하며, 그 正面을 西北쪽으로 指向한 我 사단에 있어서는 小Nori高地와 더불어 橋頭堡의 役割을 하는 要衝이기 때문에 敵은 虎視眈眈, 이의 奪取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狀況 : 作命 제83호(9.28)에 의거하여 9월 29일에 抱川 南쪽의 竹谷附近에서 基동한 사단은, CP를 俗稱 죽터굴(鎭川·龍田)로 推進開設하고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를 右一線,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10월 1일 06.00附로 美 제3사단(장, Robert L. Dulaney 소장)의 作戰任務를 引受 完了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美 제1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의 中央右翼사단으로서 右로는 美 제2사단(장, James C. Fry 소장), 左로는 英 제1연방사단(장, M.M.A—R—West, C.B., D.S.O. 소장)과 連繫를 維持하고, 驛谷川南岸을 沿한 陽地村—陰地村—山谷—亭洞과, 臨津江東岸을 沿한 △242(古作洞 東 北쪽 1km)—古作洞—△202(黑石洞 西南쪽)—△264 그리고 臨津江 西岸의 △199—新村 一帶를 連한 James town 線上的 主陣地를 확보하였으며 △168—△250—△199—小Nori高地—Nickie—Tessie 高地一帶에 前進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제11연대(장, 崔周鍾대령)는 사단에비로써 CP를 善谷里에 開設하고 新浦洞에 1개대대, 江內리에 1개대대를 배치하여 제12, 제15 兩연대後方의 Wyoming 線上의 예비陣地를 확보하고 支援태세를 갖추었으며, 1개대대는 善谷里附近에 控置하여 사단 側後方 경계를 담당 하였다.

제17포병대대(장, 孫明珍대위)의 直接支援과 美제9, 제58 兩포병대대의 一般支援, 그리고 美 제72전차대대 A 중대의 支援을 받는 사단은 美 제5空軍의 계속적인 近接支援下에 威力搜索과 夜間埋伏을 強化하여 接觸을 維持하고 捕虜獲得에 注力하면서 制限된 목표에 대한 衝擊行動으로 敵의 反擊을 誘引, 擊滅코자 하였다.

사단은 驛谷川南岸 一帶와 臨津江 東西 兩岸 一帶 200m 内外의 高地에 主陣地를 編成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2연대는 赤巨里附近까지는 比較的 良好한 作戰道路를 保有하였으나 그 北쪽은 山嶽地帶로 기동과 補給에 支障을 주었다.

한편 左一線인 제15연대는 그 主力이 主陣地를 占領한 臨津江 東岸이 彎曲을 이루어 背面을 遮斷함 으로써 背水の 陣을 쳤으며, 西岸의 제3대대(장, 朴壽大소령) 또한 左隣接인 美 제1연방사단과의 戰鬥地境線이 거의 臨津江에 接岸하여 기동과 補給支援에 制限을 받아 戰鬥地境線의 調整이 時急한 問題로 提起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사단은 10월 1일 06.00를 期하여 美 제3사단의 主陣地를 引受하고 James town 線의 主抵抗線을 확보하기에 이르자,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臨津江 東西 兩岸의 敵線과 近接한 陣地를 확보하여야 할 左一線인 第15연대의 占領地區가 紛戰의 震源이 될 것으로 判斷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James town 線上의 主抵抗線을 계속 防禦하리 한다.

② 제12연대는 3개대대를 一線으로 展開하여 陽地村—陰地村—山谷—亭洞間의 主抵抗線과 △168(魚積里 東쪽)—△250(魚積山里 西南쪽 1Km)에 前進陣地를 확보하라.

③ 제15연대는 제1중박격포중대와 사단 수색중대를 통합지휘하여 △242—古作洞—△202—△264—△199—新村을 連한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199—小Nori 高地—高陽垜에 前進陣地를 확보하라.

④ 제11연대는 사단에비로써 1개대대를 新浦里, 1개대대를 江內리에 각각 배치하여 一線연대를 支援케 하고 1개대대는 善谷同에 배치하여 側後方경계를 담당하라.

⑤ 協調指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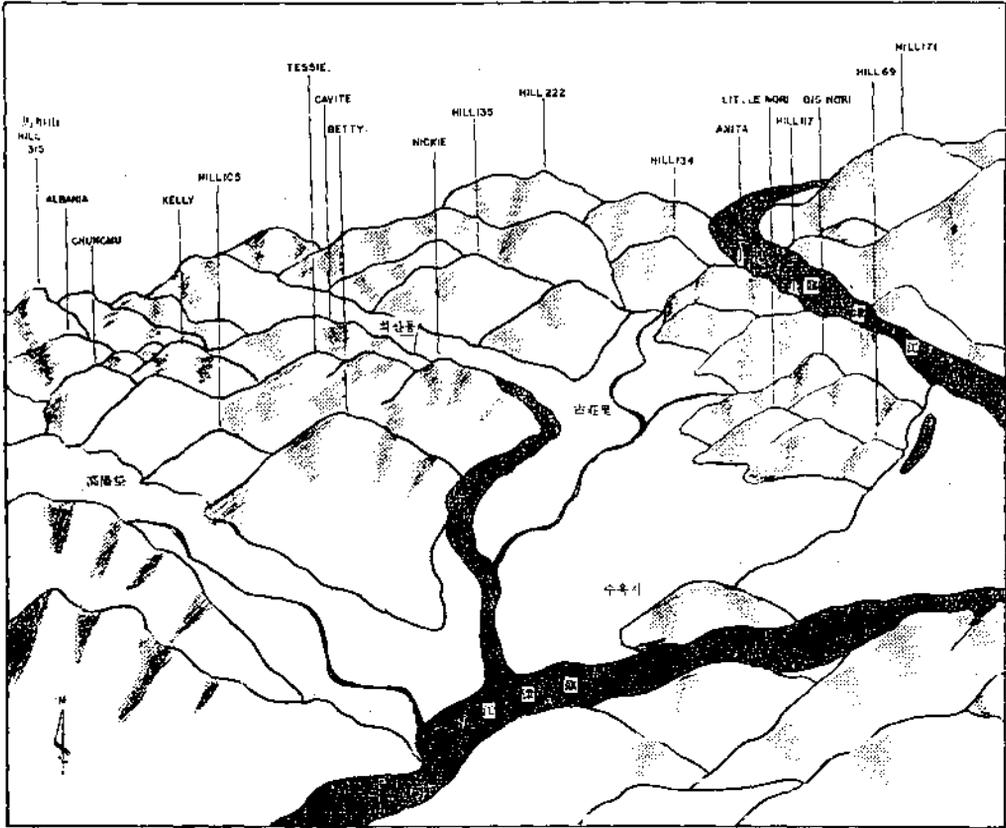
㉑ 主陣地 및 前進陣地의 補強工事に 즉각 着手하라.

㉒ 搜索과 埋伏을 強化하라.

㉓ 捕虜獲得에 注力하라.

㉔ 계속적인 衝擊行動으로 敵의 반격을 誘引, 擊滅하라.

⑥ 사단 수색중대는 9.30. 22.00附로 제15연대에 배속한다.



〈馬糞山附近 寫景圖〉

- ⑦ 제1중박격포중대는 9.30. 22.00附로 제15연대에 배속한다.
- ⑧ 공병대대는 제12, 제15 兩연대에 각각 1개중대를 배속하라.
- ⑨ 제17포병대대는 사단을 直接支援하고 美 제9, 제58 兩포병대대는 一般支援한다.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15연대에 賦與한다.
- ⑩ 美 제72전차대대의 A 중대는 사단을 直接支援한다.
- ⑪ 美 제5공군은 要請에 따라 사단을 近接支援할 것이다.
- ⑫ 사단 CP는 俗稱 죽터굴(漣川, 龍田)에 位置한다.
- ⑬ 通信은 現行 SOI 및 SOP에 의거하되 別命이 있을 때까지 無電交信을 금한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게된 제15연대장 金振障대령은 제1대대(장, 李鍾鼎중령)를 右一線, 제2대대(장, 朴春雄중령)를 中央一線, 그리고 제3대대(장, 朴壽大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臨津江 東西 兩岸의 △242-古作洞-△202-△264-△199-新村을 連한 線에 主抵抗線 陣地를 편성하고, △199(古作洞 北쪽 1km)-小 Nori 高地-高陽堡(Nickie 및 Tessie 高地)에는 前進陣地를 각각 확보케 하였다.

연대에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장, 張錫燁대위)는 예비로써 △36(古棧下里 東北쪽 1km)

에 控置하였으며 연대 OP는 △202(黑石洞 西南쪽)에 設置하였다.

이때 연대의 左一線인 제3대대는 △209(新村 東쪽 1.5km)에 OP를 設置하고 제11중대(장, 李在煥중위)를 右一線, 제10중대(장, 吳榮煥중위)를 中央一線, 제9중대(장, 朴鍾淳대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臨津江 西岸의 △209北쪽 稜線—△199—新村을 連한 一帶에 主陣地를 占領하고 高陽堡의 Nickie 및 Tessie 高地에는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장, 安秉應대위)의 2개 소대가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다.

(2) 작전 실시

10월 6일 : 板門店에서의 休戰會談이 捕虜交換問題로 因하여 膠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決裂段階로 빠져들기에 이르자, 敵은 常套의인 手法으로, 이날 全戰線에서 一齊히 공격을 취하였다.

즉, 수도사단(장, 李龍文준장)正面의 首都高地와 指形稜線, 제6사단(장, 白仁燁준장)正面의 A高地—B高地, 그리고 제9사단(장, 金鐘五소장)正面의 白馬高地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사단 正面에서는 左一線인 제15연대(장, 金振璋대령)主陣地로 포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19.55에는 敵線에 가장 近接한 高陽堡의 Nickie 및 Tessie 高地로 中共 제116사단 제348연대의 예비인 제2대대로 推定되는 1개대대가 三면을 포위한 채 急襲하였다.

Nickie 및 Tessie 高地의 失陷

연대 수색중대(장, 安秉應대위)는 9월 30일에 제3대대(장, 朴壽大소령)에 배속된 以來로 제1, 제3 兩소대로 하여금, 高陽堡의 Nickie 및 Tessie 高地에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고 중대 OP를 △209北端稜線에 設置하여 제2소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威力搜索과 埋伏을 強化하여 接觸을 維持하면서 捕虜獲得에 注力하였다.

그런데 이날 未明부터 연대 全正面에 걸쳐 계속된 敵의 포격은 美 제9, 제58 兩포병대대와 軍단포병의 制壓사격에도 不拘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熱度를 더 하더니, 19.00부터는 제3대대의 主陣地와 臨津江 西岸 一帶에 遮斷사격을 퍼붓는 가운데 Nickie 및 Tessie 高地로 그 砲火의 主力을 集中하였다.

高陽堡(回山洞 東南쪽 1.3km)에서 東北쪽으로 뻗은 稜線상의 조그마한 봉우리인 Nickie 및 Tessie 高地는 三면으로 敷設한 철조망과 地雷地帶가 삼시간에 혼적도 없이 파괴되고 交通壕와 散兵壕는 무너져 火焰과 硝煙에 휩싸인채 砂塵이 발목을 물었으며, 중대 OP 및 제3대대 OP와의 4회선의 有線網이 散散히 끊어져 나감으로써 무전기를 보유하지 못한 중대(一)는 通信이 완전히 杜絶되기에 이르렀다.

선임장교 李중위는 이러한 集中포격으로 미루어보아 敵의 공격이 곧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戰鬥태세로 突入할 것을 명령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제1소대가 Nickie 高地, 제3소대가 Tessie 高地의 무너진 散兵壕의

一角에 遮蔽하고 결전태세를 갖추었는데, 바야흐로 日暮의 高地에는 血雨를 물고운 戰雲이 짙게 감돌았다.

19.55에 이르러 포격이 一齊히 延伸되면서 모든 것을 삼켜 버렸던 轟音が 자지러들고 어둠이 깔린 高地 一帶를 陰散한 靜寂이 瞬息間에 감쌌다.

이때 포문을 연 4.2"와 81mm 迫擊砲가 靜寂을 깨면서 Nickie 및 Tessie 高地 北斜面에 炸裂하고 그 閃光이 周邊을 붉게 물드렸는데, 이미 彈幕地帶를 벗어난 2개중대규모의 敵이 陣前 40m前方으로 接近하고 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

중대(一)는 李중위의 명령 一下에 一齊히 最後 阻止사격을 시작하니 敵의 衝勢는 잠시 주춤하였으나 督戰의 銃부리에 마지못하였음인지 怪聲을 連發하면서 侵勢를 늦추지 않고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중대(一)는 阿修羅처럼 陣頭에서 怒號하는 李중위의 指揮下에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고, 陣地에서 躍出하면서 치고 찌르고 쏘는 屠戮의 白兵戰을 벌이니 高陽堡 一帶는 瞬息間에 血雨가 霏霏한 決戰場으로 化하였으며, 喊聲과 悲鳴은 어둠이 짙게 깔린 臨津江邊에 짙게 메아리 쳤다.

그러나 生死를 超越한 悽絶한 血戰도 衆寡不敵하여 20.20에는 陣內로 밀리는 바 되었고, 敵이 交通壕까지 侵襲함으로써 彼我를 分辨키 어려운 混戰과 亂鬪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敵 後續부대는 피리와 喇叭를 불어대면서 東西 兩翼으로 迂回하여 退路를 遮斷함으로써 赴援을 期待할 수 조차 없는 完全孤立의 상황에 이르자, 李중위는 現況에서는 VT 信管에 의한 陣內사격으로 敵을 擊滅하는 길 뿐이라고 判斷하고, 20.30에는 洞窟壕로의 進入을 명령하면서 約束된 陣內사격要請으로 靑色信號彈 3발과 赤色信號彈 2발을 하늘 높이 發射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決死的인 紛戰으로 敵의 무리속을 뚫고 Nickie 및 Tessie 兩高地의 洞窟壕로 進入하는 즉시로 砂囊으로 入口를 閉塞하고 陣內사격 있기만을 기다렸다.

5분, 10분, 20분이 경과하여도 單 一發의 砲聲도 울리지 않고, 地上陣地를 完全히 占據한 敵兵이 多發銃사격을 加하면서 중대(一)를 美軍으로 錯覺하였음인지 영어로 投降할 것을 強要하였다.

이에 병사들은 수류탄의 投擲과 小銃사격으로 應答을 대신하였는데, 이때 李중위는 이 洞窟에서 벗어나 또 다시 信號彈을 울려, 陣內사격을 誘導하여야만 70명의 병사들을 救하고 要衝인 이 兩高地를 확보할 수 있는 唯一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決死隊를 편성하였다.

이리하여 安泰鎬하사, 崔弘天하사, 朴亨陽하사 그리고 白雲樂 一等병으로 구성된 決死隊는 李중위를 先頭로 수류탄을 던지고 M-2 카빈을 連射하면서 入口로 突進하였다.

이에 唐慌한 敵이 수류탄과 TNT를 계속 던지면서 多發銃사격을 集中함으로써 先頭에서 突進하던 李중위는 가슴에 敵彈을 맞고 壯烈하게 戰死하였다.

그러나 決死隊는 屈하지 않고 安泰鎬하사의 지휘아래 계속 突進하였으나 彼我的 수류탄 投擲으로 入口가 무너지면서 決死隊員들은 失神상태로 빠져고 말았다.

陰歷 8월 18일의 皎皎한 달빛만이 가득찬 Nickie 및 Tessie 高地에는 이제는 銃聲도 울리지 않았고 다만 胡虜들의 알아 듣지 못할 怪聲만이 때때로 靜寂을 깨뜨렸다.

10월 7일 : (逆襲 제1일) 연대 수색중대장 安秉應대위는 전날 Nickie 및 Tessie 高地와의 通信이 杜絶되기에 이르자, 즉각 3명의 通信兵을 推進補修케 하고 約定된 信號彈을 계속 發射하여 상황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24.00에 이르도록 通信의 疎通은 姑捨하고 통신병마저 복귀하지 않자, 예비인 제2소대로 하여금 高陽邑附近의 상황을 偵察토록 措置하였다.

이에따라 제2소대의 증강된 1개분대는 이날 01.30에 障地線에서 Betty 高地 東南端으로 進出하였는데 이때 埋伏한 1개분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분대는 友軍의 誤認사격으로 알고 信號彈을 發射하면서 高함을 컸으나 漸次로 사격이 熾烈하여짐으로써 즉각 應射하고 突進하였는데 이때 高地東端으로 迂回하는 한무리의 敵이 後方을 遮斷코자 하였다.

이에 분대는 接敵을 維持하면서 逐次로 撤收하여 04.30에는 障地로 복귀하였다.

중대장 安秉應대위는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Nickie 및 Tessie 高地는 이미 敵에게 占奪된 것으로 判斷하고 主力을 收容코자 1개소대로써 즉각 逆襲을 敢行할 것을 제3대대장 朴壽大소령에 建議하였으나,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좀 더 상황을 확인한 다음, 增援되는 사단 수색중대의 더불어 逆襲키로 하고 사단 수색중대의 進出을 待機하였다.

그런데 06.50에 이르러 Nickie 高地로부터 決死的으로 脫出한 安泰鎬하사를 비롯한 4명의 병사가 OP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戰況을 확인하기에 이르자 대대장 朴壽大소령은 VT 信管에 의한 TOT 사격과 空軍의 近接支援을 要請하였다.

제17포병대대(장, 孫明珍대위)의 105mm 野砲는 一齊히 砲門을 열어 Nickie 및 Tessie 高地에 鐵火를 퍼부었고, 뒤이어 出擊한 美 제5空軍의 F-51 戰鬪機 2개편대는 아찔 헛살에 銀翼을 반짝이며 稜線과 溪谷을 살살이 누벼 기총掃射와 Rocket 砲사격을 加하였다.

한편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06.30에 이르러 Nickie 및 Tessie 高地의 失陷을 확인하기에 이르자 예비인 사단 수색중대를 즉각 제3대대에 배속하고 兩高地에 대하여 逆襲토록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연대 수색중대의 殘餘병력과 사단 수색중대는 08.20을 期하여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사단장 朴林恒준장의 指示로 增援된 제11연대 제10중대(장, 金麟澤대위)를 제3대대에 배속하고 主抵抗線의 1개중대를 抽出하여 공격을 再舉토록 하였다.

1. Nickie 高地의 戰況

사단 수색중대(장, 張錫燁대위)는 9월 30일에 제15연대에 배속된 以來로 연대예비로써 △36(吉楊下里 東北쪽 1km)를 점령하고, 제3대대의 側後方 경계와 支援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날 Nickie 및 Tessie 高地가 失陷되기에 이르자 연대 作指 제140호에 의거, △209北斜면으로 進出하는 즉시로 제3대대에 배속되었고 대대장 林壽大소령의 號令에 따라서 右一線 공격 梯隊로써 Nickie 高地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중대는 공격준비사격의 延伸에 應接하여 08.20에 △209北端 濬地線의 LD를 一齊히 通過하면서 逆襲을 開始하였다.

躍進을 거듭하여 砲擊이 集中하는 開豁地를 돌파한 중대는 高陽堡 東쪽 稜線으로 올라 붙으면서 Betty 高地(Nickie 高地 東南쪽 0.7km)로 衝勢를 指向하였다.

Betty 高地에 경계障地를 占據한 1개소대규모의 敵은 기관총사격을 集中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으나 중대의 果敢한 突擊에 더 이상 支撐하지 못하고 08.55에는 Nickie 高地로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Betty 高地를 奪取하는 즉시로 白兵을 휘몰아 그 西北쪽의 無名高地도 一舉에 奪取하고 衝勢를 늦추지 않은채 Nickie 高地 7部稜線으로 突進하였다. 이때에 敵은 陣內 射擊을 彷彿케 하는 彈幕사격과 기관총의 交叉사격下에 2개 중대규모가 방망이 수류탄을 連投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함으로써 두차례를 거듭한 突擊도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紛戰만을 계속하였는데, 漸次로 砲擊이 熾烈하여져 死傷者가 續出하므로 無名高地(Nickie 高地 南쪽 0.5km)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5.10에 제10중대(장, 吳榮煥중위)의 제1소대가 增援되기에 이르자, 중대는 砲兵의 계속된 効力射에 뒤이은 75mm 無反動銃과 Cal 50기관총의 熾烈한 掩護사격아래 공격을 再開하여 16.20에는 一舉에 7部稜線으로 突進한 다음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督戰의 銃부리에 마지못한 듯한 敵의 發惡的인 저항과 수류탄의 彈幕으로 18.10까지 다섯차례나 거듭한 突擊의 보람도 없이 戰況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無名高地로 隨意 撤收하였다.

그런데 示達된 대대장의 명령으로 無名高地에 제10중대 제1소대를 殘置하고 20.00에는 제11중대 主陣地南쪽의 臨津江邊으로 撤收하였다.

2. Tessie 高地의 戰況

연대 수색중대(장, 安秉廬대위)의 제2소대는 사단 수색중대가 進出하기에 이르자 08.20에 左一線 공격梯隊로써 Tessie 高地로 逆襲을 敢行하였다.

Cal 50기관총과 75mm 無反動銃의 熾烈한 掩護사격아래 △209北쪽의 開豁地를 突破한 소대는 先頭에서 怒號하는 중대장 安秉廬대위의 陣頭指揮下에 △105(Tessie 高地 南쪽 300m)를 一舉에 奪取한 다음, 그 北쪽稜線을 따라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08.55에는 Tessie 高地의 8部稜線으로 突進하는 즉시로 急射擊에 이어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交通壕의 一角에 突入하여 白兵戰을 벌였는데, 이때 回山洞附近으로부터 急遽增援된 2개소대 규모의 敵이 背斜面으로부터 挾擊하면서 兩翼을 包圍코자 하므로, 소대는 力不及하여 △105로 後退하여 75mm 無反動銃과 81mm 迫擊砲의 掩護射擊下에 熾烈한 사격戰을 벌였다.

그런데, 15.10에 제10중대(장, 吳榮煥중위)의 제2, 제3 兩소대가 △105로 增援되기에 이리저리 銳氣를 되찾은 중대는 期必코 Tessie 高地를 奪取하여 戰友들을 救出하겠다는 決意를 새롭게 다지고 安秉應대위의 指揮아래 逆襲을 再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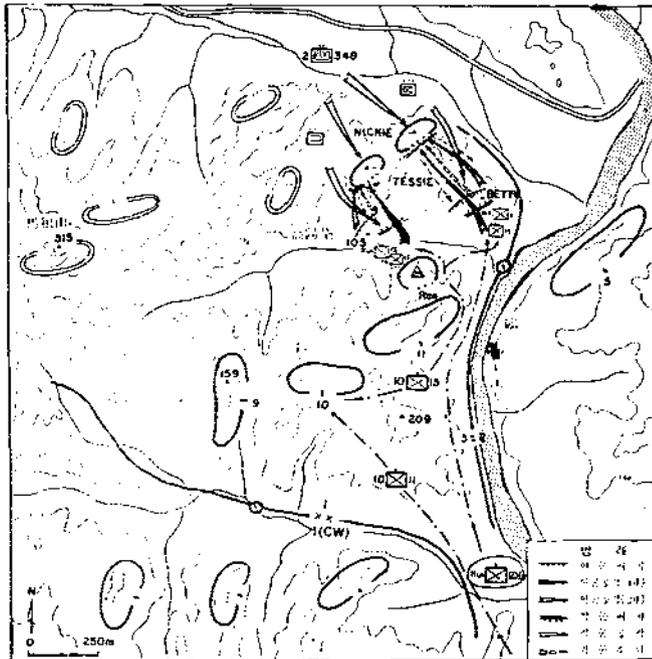
敵의 砲擊은 彈幕을 이루고 火焰과 爆煙이 逆襲梯隊를 휩싸 咫尺을 분간 할수 없고 西쪽의 溪谷전너 無名高地로부터는 기관총의 火力이 側背를 威脅하였다.

이에 安秉應대위는 主抵抗線의 제3대대에 側方火力의 制壓을 要請하는 한편 砲兵사격을 要求하였다.

이윽고 제3대대의 81mm 迫擊砲와 배속중인 4.2" 迫擊砲는 無名高地를 強打하고 各砲門을 연 제17포병대대와 美 제9, 제58 兩 포병대대는 白石洞-清雲洞 一帶에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敵火는 자지러들기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出擊한 美 제5空軍의 F-80戰爆機編隊는 馬嶺山-伍炭里-古莊里와 高陽堡北斜面 一帶를 瞬息間에 火焰으로 뒤덮었다.

이에 중대는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여 16.15에는 8部稜線으로 突進하는 즉시로 수류탄을

◇ 상황도제58호 高陽堡附近 戰圖 (10.6~7)



퍼붓고 喊聲도 우렁차게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 1개중대규모로 增強된 敵은 怒濤와도 같이 밀어 닥치는 중대의 威勢에 唐慌하는 빛이 歷歷히 엿보였으나 奮戰의 銃부리에 마지 못하였음인지, 수류탄을 雨雹처럼 집어 던지면서 多發銃火力을 앞세우고 陣前出擊하였다.

이리하여 Tessie 高地 一帶에서는 喊聲과 悲鳴이 交響하는 가운데 血雨霏霏한 紛戰이 계속 되었으나 遮斷사격을 계속하는

81mm와 4.2"迫擊砲의 火網을 뚫고 馬糧山 東쪽 稜線으로부터 急遽增援된 1개중대규모의 敵이 西側背를 包圍코자 威脅하므로 중대는 奮戰의 보람없이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105로 우선 撤收하여 敵의 反擊을 阻止하고 사격戰을 계속하였는데, 대대장 朴壽大소령의 명령에 따라 연대 수색중대의 제2소대는 20.00에 △209附近으로 反轉하였다.

그런데 중대는 Nickie 및 Tessie高地에서 失蹤된 主力中 이날 現在로 4명이 脫出하였으나 장교 2명을 포함한 61명이 아직도 生死不明인 상태에 있었다.

3. 제10중대의 增員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는 제3대대의 中央一線으로써 △199(古棧下里 北쪽 2km) 北쪽稜線上에서 主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사단 수색중대(장, 張錫華 대위)와 연대 수색중대(장, 安秉慶 대위)의 逆襲이 進展을 보지 못하자 사단장의 指示에 따라 13.50에 進出한 제11연대 제10중대(장, 金麟澤 대위)에 陣地를 引繼하고, 14.30에 △209東北쪽 臨津江邊으로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15.10에는 제1소대를 無名高地의 사단 수색중대로, 제2, 제3 兩소대를 △105의 연대 수색중대로 각각 增援케 하고 Nickie 및 Tessie高地로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無名高地와 △105로 反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사단 수색중대와 연대 수색중대가 再編次 △209附近으로 撤收하자 據點防禦陣地를 編成하고 다음 날의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10월 8일 : (逆襲 제2일) 이날 03.00를 期하여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主力이 Nickie高地를 奇襲하였다.

그러나 敵의 頑強한 抵抗과 增援으로 이를 奪取하지 못하자,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砲兵 制壓사격과 空軍의 近接支援 그리고 戰車의 集中支援下에 逆襲을 再舉기로 하였는데 이 공격마저 敵의 發惡的인 集中砲擊으로 紛戰의 보람없이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제11연대 제3대대(장, 崔一燾중령)를 제15연대에 배속케 하고 集中的인 逆襲을 敢行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연대 제3대대(缺제10중대)는 15.15부터 제15연대 제3대대 陣地로 進入하기 시작하여 16.45에는 제9, 제11 兩 중대의 陣地를 引受完了하고 제15연대 左一線陣地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15연대의 제9, 제11兩중대는 △209南麓에 集結하여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는데 21.30에 이르러 연대 수색중대가 확보한 △105(Tessie 南쪽 0.3km)를 喪失하게 되자 제11중대는 23.25에 高陽堡 南端으로 進出하여 연대 수색중대의 再編次 掩護하면서 敵의 迂回侵襲에 對備하였다.

1. 제10중대의 突擊戰

제10중대(장, 吳榮煥중위)는 無名高地(Nickie高地 南쪽 0.5km)에 1개소대, △105(Tessie

高地 南쪽 0.3km)에 2개소대가 각각 據點을 확보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는데,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高陽堡의 瞰制高地인 Nickie高地로 集中공격기로 한 대대장의 명령으로 △105의 제2소대가 02.40에 無名高地로 進出하여 제1소대와 合勢하였다.

戰列을 再整備한 中대主力은 砲兵의 無支援下에 03.00를 期하여 Nickie高지를 目標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소대를 右제1선, 제2소대를 左제1선으로 展開하여 隱密한 기동으로 03.40에 7部稜線으로 進擊한 中대(一)는, 사격을 集中하는 敵의 境界陣地를 一舉에 擊破하고 8部稜線으로 突進하였다.

이때에 이미 堅固한 據點을 形成한 中共 제348연대 제2대대 隸下로 推定되는 2개 中대규모의 敵은 陣內射擊을 彷彿케 하는 彈幕사격과 기관총의 交叉사격아래 방망이 수류탄을 集中投擲하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이에 中대(一)는 先頭에서 怒號하는 中대장 吳榮煥중위의 陣頭指揮下에 수류탄을 一齊히 던져 敵의 驕氣를 꺾는 즉시로 突擊을 敢行하였다.

陰曆 8월 20일의 陰散한 달빛아래 Nickie高地 一帶는 瞬息間에 屠戮의 血戰場으로 化하였는데 이때 東南쪽 稜線背斜面으로부터 2개소대규모의 敵 예비대가 殺到함으로써 側背를 威脅 받기에 이른 中대(一)는 血鬪의 보람없이 6部稜線上의 遮蔽點까지 逐次로 後退하여, 熾烈한 사격으로 敵의 反擊을 阻止하였다.

中대(一)는 즉각 砲門을 연 제17포병대대(장, 孫明珍 대위)와 제1중박격포중대의 突擊支援사격아래 즉시로 突擊을 再興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砲擊에 뒤질세라 악착같이 應射하는 敵의 熾烈한 彈幕사격으로 寸進尺退의 奮戰을 계속하였으나 進展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6部稜線에서 사격戰을 계속 하였다.

이때 △209의 제3대대 OP로 나아가 直接作戰指揮에 나선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敵의 火力을 完全히 制壓하는 가운데 一舉에 Nickie高지를 奪取키로 決心하고 砲兵의 制壓사격과 空中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戰車의 効率的인 近接支援을 사단장에게 建議하였다.

이에 따라 제17포병대대는 高陽堡一帶로 砲擊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뒤덮었고 美 제9, 제58 兩포병대대는 砲兵制壓사격을 계속하였으며 뒤이어 出擊한 美 제5空軍의 F-80戰爆機 2개編隊는 馬糧山一回山洞一古莊里 一帶를 機銃掃射와 Rocket砲로 強打하였다.

이때 美 제72전차대대의 A중대는 △242(蛇洞 西南쪽 0.8km) 一帶에 5대, △202(黑石洞 西南쪽 0.6km)에 1대, △264(芝路洞 西南쪽 1km)에 6대 그리고 △209에 4대의 戰車가 急速히 展開하는 즉시로 四方向으로부터 Nickie高地로 사격을 集中하였다.

산이 당장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轟音과 함께 Nickie高地는 火焰과 硝煙에 휩싸였다.

이 壯觀으로 미루어 개미새끼 한마리도 살아 남지 못할 듯 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會心の 微笑를 띠며 제10중대의 突擊을 大號하였다.

이에 따라 6部稜線의 遮蔽點에서 萬般의 준비를 갖춘 중대(一)는 一齊히 躍進하여 一舉에 8部稜線으로 突進, 그 先頭가 敵線의 一角으로 突入하면서 白刃을 휘둘러 白兵戰을 豫要하였다.

이에 決定的인 威脅을 받게 된 敵은 無差別 陣內사격을 퍼부음으로써 중대의 突擊線은 瞬息間에 攪亂되면서 死傷者가 續出하기에 이르자 중대는 6部稜線으로 또 다시 反轉하였다.

이에 중대장 吳榮煥중위는 主力으로서의 正面攻擊은 損失만 加重할뿐이라고 判斷하고 自願하는 12명의 병사들로 特攻隊를 急編한 다음, 自身이 直接指揮하여 敵線으로 突進하였다.

煙幕의 遮障下에 無難히 散兵線으로 近迫한 特攻隊는 一齊히 手榴탄을 連投하여 抵抗의 겨를을 주지 않고 1개소대규모의 敵을 擊碎하는 즉시로 火力據點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急襲에 唐慌한 敵은 61mm迫擊砲를 集中하는 가운데 미친듯이 기관총을 휘둘렀다 그러나 이미 生死를 超越한 特攻隊는 遮蔽物에서 隱蔽物로 그리고 또 遮蔽點으로 날쌔게 躍進하여 據點附近의 死角點으로 突入하면서 銃眼으로 3발의 手榴탄을 까 넣었다.

周邊의 방이 들썩하는 轟音과 함께 기관총은 맥없이 沈默하고 검은 煙氣가 銃眼으로 뿜어 나왔다.

이 壯舉에 크게 힘입은 중대主力은 特攻隊에 뒤질새라 頂上을 목표로 突進하고 特攻隊는 나머지 火力點도 一舉에 擊破하였다.

이리하여 怒濤처럼 敵線으로 밀어닥친 중대(一)는 手榴탄을 一齊히 던져 敵의 銳氣를 制壓하는 즉시로 交通線로 突入하면서 치고 찌르는 屠戮의 血戰을 벌이니 붉은피가 瞬息間에 山頂을 붉게 물드렸고 喊聲과 悲鳴이 臨津江邊에 길게 메아리 쳤다.

중대(一)의 勇戰에 壓到된 敵은 北斜面으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敵은 無差別 砲擊을 퍼부은 다음, 예비대로 推定되는 增強된 1개중대규모가 즉각 反擊하였다.

중대는 또 다시 紛戰을 거듭하였으나 漸次로 增援되는 敵勢에 밀려 13.50에는 無名高地(Nickie高地 南쪽 0.5km)로 反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05를 계속 확보중이던 제3소대는 戰列을 가다듬은 연대 수색중대 제2소대가 또 다시 進出함에 따라 陣地를 引繼하고, 19.00에는 無名高地로 進出하여 主力과 合勢하였다.

그런데 이날 紛戰을 계속한 중대는 推定射殺 50명의 戰果를 거두고 戰死 5명, 戰傷 27명의 損失을 보았다.

2. △105의 失陷

연대 수색중대(장, 安乘應 대위)의 제2소대는 전날 20.00에 △209로 撤收하여 再擧를 다짐하였는데, 이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18.00에 △105로 進出하여 제10중대 제3소대로부터 陣地를 引受하였다.

그런데 21.00에 이르러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三面으로 包圍한채로 隱密하게 接近하면서 不時에 奇襲하였다.

소대는 중대장 安秉慶대위의 陣頭指揮下에 一齊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躍進하여 一夫當關의 血鬪를 계속하였으나 力不及하여 21.30에는 分散하기에 이르렀고, 또 다시 △105는 敵에게 占奪되었으니 可謂 非運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소대는 제10중대 一部병력의 掩護下에 無名高地附近에서 散兵을 收拾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推定射殺 20명의 戰果를 거두고 戰死 1명, 戰傷 12명, 失蹤 3명의 損失을 보았다.

3. 陣地 交代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Nickie高地에 대한 逆襲의 實効를 거두지 못하자 江內里附近의 예비陣地를 확보한 제11연대 제3대대(장, 崔一燦 중령)를 제15연대에 배속하여 突貫의인 逆襲을 敢行, 期必코 Nickie 및 Tessie고지의 前進陣地를 回復토록 奮勵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제3대대는 제11연대 제3대대에 主陣地를 引繼하는 즉시로 공격태세를 갖추라』고 명령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9중대(장, 朴鍾淳 대위)가 15.50에 제11연대 제9중대(장, 金智善 대위)에게, 제11중대(장, 李在煥 중위)가 16.45에 제11연대 제11중대(장, 都澤煥 대위)에게 각각 主陣地를 引繼하고 18.00에는 △209南端에 集結하여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연대 수색중대가 敵의 奇襲으로 21.30에 △105를 喪失하기에 이르자 제11중대는 대대장의 緊急 명령에 따라서 21.50에 기동하여 23.55에 無名高地(Nickie高地 南쪽 0.5km) 南쪽으로 進出, 연대 수색중대의 再編을 掩護하고 附近一帶이 埋伏하여 敵의 迂回侵襲을 용서치 않았다.

10월 9일 : (逆襲 제3일) 이날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期必코 Nickie 및 Tessie고지를 奪還키로 決意하고 제3대대(장, 朴壽大 소령)의 1개중대가 砲兵의 集中支援下에 △105—Tessie고지로 陽攻하며 該대대 主力은 Nickie고지를 直衝토록 명령 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중대(장, 李在煥 중위)가 無名高地的 西南쪽 LD로 하여 01.00에 공격을 開始, △105를 대번에 奪取하고 Tessie고지를 目標로 공격하는 가운데 제9, 제10 兩중대는 Nickie고지로 一躍 突進하였다. 그러나 敵의 熾烈한 砲擊과 頑強한 抵抗으로 4회에 걸쳐 거듭한 突擊의 보람도 없이 10.40에는 原陣地로 後退하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에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砲兵의 制壓사격과 戰車의 近接支援을 緊急히 要請하는 한편 제15연대에 이 目標를 期必코 奪取할 것을 怒號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天空의 一角으로 銀翼을 반짝이면서 出擊한 F-80戰爆機 2개 編隊의 空中공격과 砲兵의 制壓사격에 뒤이어 美제72전차대대 A중대의 全戰車가 Nickie고지로 砲擊을 集中하

는 가운데 제3대대 主力은 12.00를 期하여 該高地로 돌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決定的인 威脅을 받기에 이룬 敵砲火의 發惡的인 無差別 陣內集中과 漸次로 增援되는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紛戰을 계속하였는데 16.30에는 사단CP로 來訪한 軍단장의 指示에 따라서 一旦 逆襲을 中止하고 現 進出線에서 前進陣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i. Nickie高地的 血戰

제3대대(장, 朴喬大 소령)는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가 無名高地(Nickie高地 南쪽 0.5km)를 확보하고, 제11중대(장, 李在煥 중위)가 전날 23.50에 高陽堡 南端으로 進出하여 공격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 00.40에 제9중대(장, 朴鍾淳 대위)마저 無名高地로 進出한 다음 主力과 合勢하기에 이르자, 대대장은 先攻梯隊로서 제11중대가 △105-Tessie高地로 陽攻하는 가운데 대대主力은 Nickie高地로 突進하여 一擊으로 이 目標을 奪取 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01.00에 現配置線에서 공격을 시작한 제11중대가 △105를 一舉에 奪取하고 熾烈한 砲兵支援下에 계속 Tessie高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대대主力도 01.50에 제9중대를 右一線, 제10중대를 左一線공격梯隊로 하여, 대대장 朴喬大소령의 陣頭指揮下에 Nickie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奇襲의 效果를 거두기 위하여 砲兵火力의 支援없이 隱密하게 기동하였는데 右一線인 제9중대가 5部稜線에서 2개분대로 推定되는 敵의 警戒組와 激突한 까닭으로 企圖가 暴露되기에 이르자 敵砲火는 기다렸다는 듯이 南斜面 一帶를 瞬息間에 불길로 뒤덮었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砲兵의 制壓사격을 要請하는 한편 『오직 突進이 있을뿐이다. 期於 此 Nickie高지를 奪取하라』고 怒號叱咤하면서 제9중대의 1개소대를 東쪽 窪地線을 따라 急進시켜 東側方을 공격케 하고 主力은 계속 正面으로 그리고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는 西쪽의 溪谷線을 따라 突進토록 명령하였다.

한편 砲門을 연 美 제9, 제58 兩 포병대대와 軍단포병은 對砲兵사격을 거부었고 제17포병대대(장, 孫明珍 대위)는 馬鞍山(△315)-回山洞-古莊里 一帶로 砲擊을 集中하여 敵의 支援火力을 制壓하면서 增援을 遮斷하였으며, 대대의 81mm와 支援中인 4.2"迫擊砲는 突擊을 支援하였다.

敵陣容을 強打한 熾烈한 對砲兵사격도 크게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음인지 敵砲火가 如前히 放恣한 가운데 突擊線은 火焰과 硝煙에 휩싸여 死傷者가 뒤이었으나 각 중대는 不退轉의 決意를 굳게 다지면서 躍進만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03.25에는 東側方으로 迂回한 제9중대 제1소대가 敵線으로 突進하면서 激突하는 가운데 主力은 彈幕地帶를 突破하여 8部稜線으로 進擊하는 즉시로 수류탄을 계속 集中하면서 04.05을 期하여 喊聲도 우렁차게 突擊을 敢行하였다.

Nickie高地一帶와 Tessie高地로 이르는 西南쪽 稜線 一帶에 堅固한 陣地를 掌握한 2개 중대규모의 敵은 熾烈한 기관총火力的 交叉와 수류탄의 炸裂 그리고 多發銃의 連發로 火網을 織으므로써 大隊(一)는 突進이 停滯되었다.

이에 大隊(一)는 閃光을 쫓아 死角에서 遮蔽로 그리고 또 死角을 찾아 躍進을 거둬하면서 수류탄을 投擲하고 兩중대에서 抽出한 特攻隊는 火力據點을 목표로 肉彈으로써 공격하였다.

그러나 火束에 휘말리면서 進展을 보지 못하고 一進一退의 紛戰을 거둬하자 大隊장 朴壽大소령은 6部稜線으로 後退할 것을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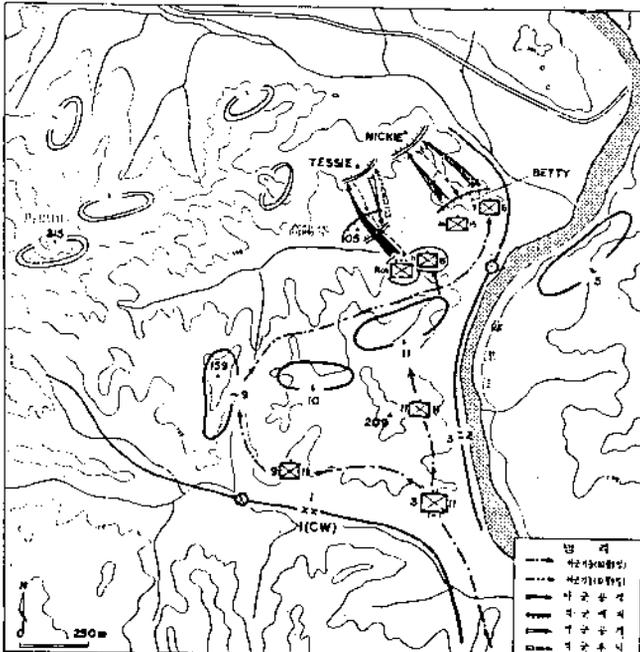
이리하여 遮蔽點에서 한숨 돌린 大隊(一)는 즉각 또 다시 공격키로하고 제9중대의 掩護下에 제10중대가 躍進하고 제10중대의 掩護下에 제9중대가 突進하는 波狀공격을 敢行한 끝에 突擊線으로 進擊하였다.

이때 威勢에 壓到되기에 이른 듯 한 敵이 無差別 陣內사격을 퍼부음으로써 10.00에 이르기까지 續出하는 死傷者를 무릅쓰고 4회에 걸쳐 一波又一波의 突擊을 거둬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紛戰만을 계속하기에 이르자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大隊(一)의 撤收를 명령하였으니 이것을 가리켜 Piston式攻擊이라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大隊(一)는 10.40에 Betty高地一無名高地로 撤收하여 散兵을 收拾하였다.

이때 사단장 朴林恒준장은 정보참모 金近華중령과 작전참모 朴俊浩소령을 帶同하고 제15

◇ 상황도 제59호 高陽堡附近戰鬪(10.8~9)



연대OP로 進出하여 戰況의 推移를 注視하였는데 敵의 集中砲擊과 頑強한 抵抗으로 거둬진 突擊도 進展을 보지 못하고 撤收하기에 이르자 FSCC에 砲兵 制壓사격을 強硬하게 要請하는 한편 効率的인 戰車支援을 要求하였다.

이에 따라 11.20에는 2대의 L-19偵察機가 敵地區를 살살 이 누비며 偵察한데 이어 F-80 戰爆機 3개 編隊가 敵의 砲兵陣地로 推定되는 一帶와 Nickie-Tessie高地 부근을 強打하였으며 뒤이어 美 第9, 第58 兩 포병대대는 砲門을 열어 對砲兵

사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美 제72전차대대 A중대의 2개 소대가 11.10부터 △242-△202-△264-△209로 각각 進入하여 砲擊을 集中하는 가운데 2개소대의 戰車는 臨津江을 건너 1개소대가 Bubble高地(Nori高地 東南쪽 1.5km) 北쪽의 開豁地로, 1개소대가 高陽邑 南쪽의 開豁地를 헤치면서 突進하여 11.40에는 Nickie 및 Tessie高地로 사격을 퍼부어 突擊梯隊를 近接支援하였다.

이와같은 立體的인 火力의 集中支援으로 敵線 一帯가 火焰과 爆炎으로 뒤덮이게 되자 연대장 金振暉대령은 『제3대대는 즉각 공격을 敢行하여 Nickie高地를 期必코 占領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主力은 제9중대(장, 朴鍾淳 대위)를 右一線,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12.00正刻에 一齊히 躍出하였다.

戰車 1개중대의 集中火力으로 打撃을 받은 듯 한 敵은 大대(-)가 6部稜線으로 突進할 무렵까지 別다른 抵抗이 없었으나 7部稜線으로 怒濤처럼 밀어 닥치자 보기 좋게 파괴되고 露出된 火力據點에서는 發惡의으로 기관총을 휘둘러 댔고 洞窟에서 빠져나와 散開한 2개중대규모의 무리는 全 自動火力으로 最後를 阻止하는 가운데 한번에 3-4발의 방망이 수류탄을 집어 던지면서 頑強하게 抵抗하였으며, 馬鞍山-古莊里 一帯로부터 82mm와 120mm迫撃砲로써 彈幕사격을 集中하더니 뒤이어 105mm 및 155mm野砲의 火力까지 集注하였다.

그러나 目標強占의 決意를 굳게 다진 대대主力은 13.10에는 彈雨가 驟을 이루고 破片과 石塊가 砂塵과 함께 飛散하는 8部稜線으로 突進하면서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先攻梯隊가 敵線에 밀어 닥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交通線로 突入하였으나 이때 主力은 露出된 地形에서 火網에 휩싸여 停滯하는 瞬間 敵은 또다시 無差別의 陣內사격을 퍼부음으로써 寸進尺退의 苦戰惡鬪를 계속하였으나 敵線에 突入하지 못하고 戰車砲와 迫撃砲의 掩護사격 아래 死角點으로 또다시 後退하여 사격戰을 벌였다.

그런데 敵의 砲擊이 Bubble高地 北쪽과 高陽邑 南端에서 近接支援中인 美 전차소대에 集注함으로써 彼我間에는 熾烈한 砲擊戰이 展開되었다.

이때 사단장 朴林桓준장은 사단으로 來訪한 美 제1군단장 Paul W. Kendall중장의 要請에 따라 進展없이 損失만을 累增하는 逆襲을 一旦 中止하고 敵의 砲兵陣地를 破碎하는 즉시로 공격을 再擧기로 작정한 다음 現進出線에 前進陣地를 확보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중대(장, 吳榮煥 중위)는 砲兵의 掩護射擊下에 6部稜線에 前進陣地를 編成하고 敵과 눈코사이에 서로 對峙한채로 사격戰을 계속하였으며, 제9중대(장, 朴鍾淳 대위)는 16.30에 Betty高地-無名高地로 撤收하여 急據進出한 公병소대의 支援下에 陣地工事に 着手하였다.

이때 古莊里—馬糧山(△315)一帶의 敵과 砲擊戰을 계속하던 美 전차 2개소대는 16.30에 煙幕을 遮障하면서 江內里로 撤收하기 시작하였다.

이날의 激戰에서 제9중대는 推定射殺 35명의 戰果를 거두고 戰傷 27명의 損失을 보았으며 제10중대는 推定射殺 23명에 戰死 1명, 戰傷 9명의 損失을 보았다.

2. Tessie高地의 戰況

제11중대(장, 李在煥 중위)는 전날 연대 수색중대가 △105를 喪失하기에 이르자, 전날 23.50에 高陽岳 南端으로 進出하여 연대 수색중대의 再編을 掩護하면서 逆襲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 先攻梯隊로써 △105를 奪取하는 즉시로 Tessie高地를 공격토록 새로운 임무가 附與되었다.

이에 따라 砲兵의 集中支援下에 現陣地線을 LD로 하여 01.00에 공격을 開始한 중대는 3개소대를 一線에 展開하고 △105를 三面으로 包圍한채로 突進하였다.

전날 밤에 이 高地를 奪取하고 前進據點을 形成한 增強된 1개소대규모의 敵은 自動火器를 集中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頑強한 抵抗을 피하는듯 하였으나 중대의 怒濤처럼 밀어닥치는 威勢에 壓倒되어 01.20에는 北쪽稜線을 따라 Tessie高地로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戰功者에 대한 勳章授與>

여 突進이 阻止되었다.

이에 중대는 제2소대가 東側方의 溪谷으로 突入하여 벼랑을 타고 迂回하였으며 제3소대는 西쪽稜線으로 迂回한 다음, 敵의 경제據點을 擊破하면서 突進하는 가운데 제1소대는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正面을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03.25에 8部稜線으로 進擊한 각 소대는 三面으로부터 突擊사격을 集中하면서 敵線으로 突進하였으나 이때 敵의 火網에 휩싸여 氣勢가 滯滯하기에 이르고 雪上加霜으로 敵의 陣內사격을 彷彿케 하는 彈幕사격으로 死傷者가 累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대는 △105를 奪取하는 즉시로 攻勢를 늦추지 않은채 또 다시 砲門을 연 제17포병대대(장, 孫明珍 대위)의 支援下에 Tessie高地로 夜暗을 타서 突進하였다.

敵은 稜線上의 경제陣地에서 多發銃을 사격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進擊을 遲延시키고자 피하였으나 중대는 先攻梯隊인 제2소대가 果敢한 近接戰으로 이를 擊破하는 즉시로 躍進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敵의 集中砲擊이 稜線으로 集注하

이에 중대는 彈幕地帶를 突破코자 力戰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東西 兩側方の 溪谷으로 一旦 後退하여 散兵을 收拾하였는데 04.40에는 8部稜線으로 隱密하게 近迫하여 수류탄을 一齣리 던져 銳氣를 制壓하면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意表를 찢린 敵은 唐慌하는 빛이 歷歷하게 엿보였으나 61mm迫擊砲의 支援사격과 東北쪽稜線上的 敵의 側方支援사격 아래 방망이 수류탄을 連投하면서 執拗하게 抵抗함으로써 一進一退의 血戰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6.30까지 6차례의 突擊을 反復하여 陣地線의 一角을 突破하고 陣內戰을 벌이기에 이르렀으나 이때 無差別 砲擊에 뒤이어 急遽增援된 敵 예비대의 陣前出擊으로 6部稜線上的 遮蔽點으로 逐次로 反轉하여 敵을 陣前으로 誘引한 다음 즉각 砲擊을 誘導하여 이를 擊破하는 즉시로 또다시 공격으로 나섰다.

이리하여 彼我間에는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그 熾烈한 遮斷사격의 火網을 뚫은 敵의 계속적인 增援으로 戰況의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2명의 捕虜만을 얻고 10.40에는 △105로 隨意 撤收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공병1개소대의 增援下에 陣地編成에 着手하였는데 이날 推定射殺 45명과 捕虜 2명의 戰果를 거두었으나 장교 3명을 包含한 53명이 戰傷을 입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는 10월 7일 以來로 계속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Nickie—Tessie 兩高地를 奪還하지 못하자 사단장 朴林恒준장의 指示에 따라서 逆襲을 一旦 中止하고 제3대대(장, 朴壽大소령)가 Nickie 高地 6部稜線과 Betty 高地—無名高地—△105를 連한 線에 前進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1, 제2 兩대대와 배속중인 제11연대 제3대대(장, 崔一燦중령)가 一線에 展開하여 Jamestown 線上的 主抵抗線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要衝인 Nickie—Tessie 高地喪失의 憤을 풀고자 10월 12일에 사단에 배속된 제5포병단(장, 宋贊鎭중령)의 火力增援下에 埋伏과 奇襲戰을 強化하여 軍단의 當面한 作戰目標인 捕虜獲得에 注力하는 한편 逆襲再學의 好機를 노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軍단 作命 제21호에 의거 사단戰鬪地境線이 變更됨에 따라서 사단은 作命 제84호(10.22)를 下達하여 左右一線연대의 戰鬪地境線을 새로이 調整하고 예비인 제11연대(장, 崔周鍾대령)를 左一線으로 내세웠으며 제15연대는 예비로 돌리어 Wyoming 線上的 예비陣地를 확보케 하는 한편 10월 26일附로 배속될 제5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側後方경계와 主補給路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右一線인 제12연대(장, 鄭永洪대령)는 10월 26일 06.00附로 陽地村—陰地村에 이르는 地區를 右隣接인 美 제2사단(장, James C. Fry 소장)에 引繼하고 左一線인 제11연대는 10월 27일 06.00附로 新村—上古旺里에 이르는 새로운 地區를 제1 英연방사단(장, M.A.A-R-West C.B.D.S.O 소장)으로부터 引受하였다.

한편 敵은 Nickie—Tessie 高地를 占取하자 사단의 대규모 反擊戰이 있을 것으로 豫상하였음인지 中共 제116사단(장, 張 峰)은 예비인 제346 연대의 一部병력을 白石洞—馬鞍山(△315)으로 增援하더

니 11월 6일에는 中共 제47군(장, 張天雲)과 作戰任務를 交代하였다.

즉 中共 제141사단(장, 鄭波)은 臨津江 東岸에 제140사단(장, 黎原)은 그 西岸 一帶에 각각 配備하고 그 主力은 제1사단과 對峙하였으며 제139사단(장, 顏德明)은 예비로 控置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中共 제47군은 지난 1년간을 三登里附近에서 再編하고 戰術訓練을 쌓은 것으로 미루어 攻守 兩面の 戰鬪力을 保有한 것으로 評價되었으나 我軍의 계속적인 空中 공격과 優勢한 砲擊, 그리고 我軍의 거센 反擊을 誘發할 全面攻勢 보다는 局地的인 攻勢로써 前哨陣地의 奪取를 계속 試圖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은 陸本 特甲 제312호(11, 11)에 의거하여 陸大를 修了하고 轉入한 宋虎林대령에게 11월 16일 附로 指揮權을 引繼하고 육군본부로 轉出하였다.

期間중에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推 定 射 殺	173명	戰 死	8명
捕 虜	2명	戰 傷	141명
		失 踪	64명

§ 參戰者의 證言

◇ 제15연대 수색중대 宋泰鎬하사

(제15연대 Nickie 및 Tessie 高地 戰鬪詳報에서)

『연대 수색중대는 제1소대가 Nickie 高地에, 제 3소대가 Tessie 高地에 前進陣地를 확보 하였는데 敵은 10월 6일 새벽부터 연대 全正面에 砲擊을 퍼부더니, 19.00부터는 Nickie 및 Tessie 高地로 그 主火力을 指向하였다.

Nickie 高地 一帶은 瞬息間에 火焰과 硝煙에 뒤덮이고 有線網은 散散히 끊긴채 障礙物과 地雷地帶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交通線과 散兵壕가 파괴되었다.

19.55에 이르러 敵의 砲擊이 延伸되고 我軍의 迫擊砲가 北쪽綫에서 炸裂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閃光으로써 敵 1개대대가 이미 陣前 40m 로 近迫하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중대(一)는 즉각 最後 阻止사격을 敢行하고 수류탄을 一齊히 던지면서 이를 阻止코자 하였는데, 敵은 侵勢를 늦추지 않고 陣前으로 殺到하였다.

이에 중대(一)는 선임장교 李중위를 先頭로 一齊히 陣地에서 躍出하면서 白兵戰을 벌였으나 刀不及하여 陣內로 밀리는 바 되었고 20.20에는 敵이 交通壕로 侵襲하여 彼我的 分간이 어려운

混戰이 계속 되었는데 이때 선임장교 李중위는 陣內사격을 要請하는 信號彈을 發射하면서 洞窟壕로의 進入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一)는 20.30에 Nickie 및 Tessie 高地의 洞窟壕로 進入하는 즉시로 사격을 集中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入口를 모래주머니로 閉塞하고 陣內사격이 敵의 頭上에서 炸裂할것을 焦焦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敵은 수류탄과 TNT를 投擲하고 多發 銃사격을 加하면서 우리를 美軍으로 알았음인지 英語로 손들고 나올 것을 強要하였다.

우리는 수류탄投擲과 소총사격으로 이에 應答하였는데 陣內사격은 10분, 20분이 경과하여도 시작되지 않았다.

선임장교는 陣內사격을 要請하는 信號가 觀測되지 못한 것으로 判斷하고 決死隊를 編成하였다.

이리하여 나와 崔弘天하사, 朴亨錫하사 그리고 白雲樂일동병이 선임장교의 指揮下에 入口로 突進하면서 수류탄을 집어던지고 사격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敵은 TNT와 수류탄을 던지므로써 先頭에서 突進하던 선임장교는 壯烈하게 戰死하고 入口쪽 洞窟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失神하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경과 하였는지 白雲樂일동병이

昏睡상태에서 깨어났다. 이때 무너진 入口쪽에서 싸늘한 밤 바람이 스며들고 있음을 發見하였다.

脫出할수 있다고 判斷한 白일등병은 周邊의 戰友들을 깨우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帶劍으로 한명이 간신히 빠져 나갈수 있는 脫出口를 만들고 빠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南쪽을 向하여 뛰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우리를 發見한 敵이 多發銃사격을 集中함으로써 앞뒤에서 먼지가 뿌얹게 일었으나 우리는 死力을 다하여 뛰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겹겹이 둘러친 敵의 포위망을 뚫고 奇蹟의으로 중대 OP에 到達하기에 이른 것이다.』

§ 戰 訓

◇ 通信手段의 未備

美 제3사단과의 陣地交代를 前後하여 사단 作命 제83호로써 無電沈黙을 명령한 것은 妥當한 措置이다.

그러나 接敵等 非常時에 대비하여 例外規定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에 따라 연대 수색중대는 無電器마저 保有하지 않음으로써 有線이 杜絶된 Nickie 및 Tessie 高地의 戰況을 把握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失陷事實을 實質의으로 그 다음날에야 확인하고 逆襲의 時機를 逸失하여 2개소대의 병력을 失踪케 하였다는 것은 遺憾된 일이라 할 것이다.

◇ 警戒의 疎忽

10월 6일은 敵의 所謂 秋季攻勢가 시작된 날로써 그 一環으로 恣行된 敵의 砲擊의 熾烈相은 能하 想像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砲擊의 同時 集中이 攻勢의 前奏임을 看破하고 좀더 徹底한 警戒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敵線과 近接한 Nickie 및 Tessie 高地라 하지만 砲擊間에 있어서 陣前 40~50m 距離로 敵이 近接하도록 이를 發見치 못하여 戰況이 極限狀

況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로지 警戒의 疎忽에 起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 OP와 主抵抗線 그리고 대대 OP에서 陣內사격을 要請하는 信號를 觀測하지 못하였다는 事實도 警戒는 勿論, 觀測조차 얼마나 疎忽하였는가의 端的인 證據라 하겠다.

◇ 視號 通信

Nickie 및 Tessie 高地에서는 陣內戰이 벌어지고 危急한 狀況에 處하자 陣內사격 要請의 信號彈을 發射하면서 洞窟壕로 進入하였다는 것은 計劃에 의거한 當然한 措置라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極限狀況이라 할지라도 단 一回의 信號彈을 發射하였다는데 問題點이 있다.

이때 敵의 砲擊이 主抵抗線 一帶로 延伸되고 있으므로 그 爆煙과 閃光이 워낙히 觀測이 不實할 것이라는 것을 念頭に 두고 洞窟壕로 進入하기前에 最少限 3회는 거듭 發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

◇ 逆襲의 時機

Nickie 및 Tessie 高地 失陷의 微候가 보였던 즉각 視號通信에 의한 最終의인 交信手段을 講究하고 兩高地에는 洞窟壕가 있으니 만큼 VT彈에 의한 逐次的인 陣內사격을 加하고 逆襲을 敢行하는 등의 즉각적인 措置가 取해졌어야 할 것인데 사단 수색중대를 推選하여 그 主力을 잃은 연대 수색중대와 더불어 다음날 08.20에야 逆襲케 하였다는 것은 逆襲의 好機會를 놓치고만 感이 있다.

그러함으로써 敵은 築城의 時間的 餘裕를 갖기에 이르러 逆襲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 要因이 된 것으로 본다.

◇ 逆襲 部隊

一次逆襲은 사단 수색중대와 연대 수색중대의 1개소대로써 敢行하고, 二次에는 제10중대를 增援하였으며 三次에는 제10중대만으로써 Nickie 高地를 奇襲하였다가 最終의 四次逆襲에서야 비로소 대대규모로 敢行하였다.

兵力의 重點을 一束한 反擊을 敢行하지 못하고 이처럼 逐次的으로 병력을 分割하여 投入한 것도 成果를 거두지 못한 要因이라 할 것이다.

2. 臨津江 附近戰鬪(1952년 12월 11일부터 1952년 12월 13일까지)

(一名 Nori 및 Betty高地戰鬪)

참조 별책부도 제20, 21호

상 황 도 제60~6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1사단	장 준장	朴 林 恒	제3대대	장 중령	文 鍾 燮	제140사단	장 陳 福 章
제11연대	장 대령	崔 周 鍾	제5포병단	장 중령	宋 贊 鎭	제141사단	장 方 祥
제2대대	장 중령	金 奉 權	제51대대	장 중령	申 東 燾		
제3대대	장 중령	崔 一 燦	제58대대	장 중령	高 在 燁		
제15연대	장 대령	宋 虎 林	제59대대	장 중령	金 文 植		
제1대대	장 중령	李 鍾 鼎	제17대대	장 소령	孫 明 珍		
제2대대	장 중령	朴 春 雄					
中共 제47군	장	張 天 雲					
제139사단	장	白 德 明					

나. 전투 전의 개황

제1사단(장, 朴林恒 준장)은 10월 1일부터 軍團의 中央戰線을 맡고 있던 美 제3사단으로부터 作戰 任務를 引受하고 제12연대를 右一線으로 驛谷川 南쪽의 △244-△250 일대에, 제15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臨津江의 東西 兩쪽으로 13km에 達하는 主抵抗線을 占領한 다음, Little Nori高地-Nckie高地-Tessie高지를 連하는 線上에 前進陣地를 確保하였는데, 이로부터 만 6일만인 10월 6일에 敵이 기습공격을 加함으로써 Nickie高地와 Tessie高地에서 連 3일동안 激戰을 벌이다가 이 要地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사단은 Nickie高地에서 南쪽으로 500m쯤 떨어진 Betty高地에 새로운 前進陣地를 축성하는 한편 勿論한 수색정찰로써 敵侵에 對備하였다.

이 地域은 敵이 占據중인 馬糧山(△315)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표고 △300m이하의 野山地帶인데 對岸의 警戒陣地는 물론 主抵抗線(△243-△242-292-△166)의 一部도 그들의 瞰制下에 있었다.

특히 臨津江이 朔寧 南쪽에서 驛谷川과 合流하여 S字形으로 흐르면서 左一線 연대의 戰線을 東西

로 分斷한 까닭으로 對岸의 前進陣地를 敵이 攻擊할 경우 이에 對한 部隊指揮는 물론 運送부대의 機動과 補給支援에 막대한 地障을 造成케 하였다.

그리고 이 前進陣地는 馬糧山에 連한 능선의 頂단에 있어 敵과는 300m거리에서 對峙하는 形勢였으며 그 三面이 敵에게 露出되고 있는데다가 背水의 陣을 處하는 防禦編成上的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무렵, 休戰會談이 決裂되자 敵은 會談의 再開時에 그 主導權을 잡기위한 方便으로 도발을 自행함으로써 全戰線이 점차 高地 爭奪戰으로 變모되고 있었으므로 師團正面도 또한 尙시 그들의 침공을 豫想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하여 사단은 이러한 攻勢를 抑制하고자 그들의 前哨陣地에 대한 局部的인 기습공격과 위력수색을 강화하였는데 10월 초순에 제15연대의 수색대가 敵의 戰鬪偵察隊와 격전을 벌여 이 地域에 投入된 以來 처음으로 敵兵一名을 사로 잡기도 하였다.

10월 末에 軍團作命 제21호(10.22)가 下達되어 戰鬪地境線의 一部가 변경되고 제51연대가 當 사단에 配屬되었는데 이에 따라 右一線의 제12연대는 陣地의 一部를 右隣接部隊인 美제 2師團에 引繼하는 同時에 左一線인 제15연대 陣地의 一部를 引受케 되었다.

이때 豫備인 제11연대는 左一線인 제15연대와 임무를 交代하고 左隣接部隊인 제1연방사단의 陣地 一部를 引受한 바 있다.

이리하여 새로이 左一線이 된 제11연대는 主力를 臨津江 西岸에 추진하여 主陣地를 整備하는 一方 前進陣地에 兵力과 火力을 증강함으로써 이 前進陣地 確保에 重點을 둔 陣地再編을 단행하였다.

한편 配屬된 제51연대는 사단후방에 大隊單位로 分散配屬하여 방어중심을 強化케 하는 한편 후방 境界를 전담케 하였다.

사단은 11월에 접어들면서 포로 획득과 前哨陣地 파괴에 目的을 두고 積極인 기습작전을 벌였는데 제11연대는 11월 7일에 前哨據點인 Big Nori高地를 急襲하여 敵兵 1명을 사로 잡은 바 있으며 同 月 15일에는 제12연대 수색중대가 △167에 夜襲을 加하여 30여명을 殺하고 陣地를 파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동안인 11월에 사단은 前線의 戰力을 더욱 強化코자 이때까지 豫備로써 俗稱 부령골 부근에서 Wyoming線과 Kansas線上의 豫備陣地를 구축하면서 戰力을 길러오던 제15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의 제11연대와 交代토록 하였는데, 이날 연대장 金振暉대령이 1年 6個月의 임기를 마치고 陸本으로 轉출되고 그 후임에 宋虎林대령이 부임하여 指揮權을 引受하였다.

한편 이 當時 사단과 對峙중인 敵은 中共 제39군으로써 臨津江에 沿한 左右一線에 제115, 제116사단을 配屬하여 사단의 제12, 제15 兩연대와 對陣케 하는 가운데 제117사단을 豫備로 甯山 부근에 投入 連日 추진지를 보강하면서 前哨線을 확장하기 위한 機會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5연대 正面의 中共 제116사단은 臨津江 西岸의 主峰인 馬糧山—△222를 連하는 線上에 主力를 配屬하고 그 前方의 △171—△164일대에 境界부대를 내보내어 日夜로 동굴진지를 구축하면서 새로이 投入한 我軍狀況을 偵察하고자 偵察活動을 계속하는 한편 一部兵力으로는 포로 획득에 目的을 두고 我 前進陣地에 局部的인 기습공격을 加하기도 하였다.

11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中共은 陣地交代를 實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1월 7일에 사로잡은 포로 진술에 따르면 中共 제47군은 近一年 가까이 三登里 부근에서 戰術訓練과 部隊整備를 끝마치고 11월 6일에 제39군의 작전권을 引受하였다고 한 바 있었다.

그러하여 이들은 臨津江을 中心으로 東半部에 제141사단을, 그 西쪽에 제140사단을 配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豫備隊는 必로 제139사단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당시 제47군의 兵力은 36,0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그들 前線師團의 兵力은 各 10,000명선에 達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이들을 直接支援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제1, 제8 포병사단 예하의 2개 포병연대를 除外한 편제

상의 火力裝備은 122mm砲 1개대대(12문)를 비롯하여 76mm砲 1개대대(12문), 57mm대전차포 1개대대(12문), 127mm대공포 27문, 90mm rocket砲 54문, 120mm박격포 1개중대(4문), 82mm 박격포 81문, 60mm 박격포 162문, HMG 54정, LMG가 243정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때 사단 병력은 장교 649명 사병 11,784명으로써 T/O의 9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配屬중인 제 51연대는 本戰鬪 期間中인 12월 13일에 配屬이 解除되어 江原道 麟蹄로 移動함으로써 사단 전체상의 兵力은 敵에 比하여 3: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銳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0월 13일부(美 제5포병단 作命제27호)로 당사단에 배속된 제5포병단(포병3개대대)을 포함하여 105mm 곡사포 4개대대(72문)와 4.2"중박격포 1개포대(10문)외에 군단포병과 제73천차대대의 1개중대가 사단을 지원중이고 美전술공군이 요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리라는 점을 감안, 火力面에서는 敵에 比하여 優劣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은 11월 1일 現在로 美 제1군단의 中央을 달아 제12연대를 右一線으로,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James town線上的 주저항 진지를 確保하면서 臨津江 對岸의 Little Nori 高地—Betty高地—△105를 連하는 線상에 警戒要線을 設고 前哨陣地를 強化하면서 敵의 도발을 抑制하던 中에 그동안 사단에비로서 속칭 부령골 부근에 控置중인 제15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의 제11연대와 진지를 교체토록하는 사단작전지시 제86호(11.11)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一部兵力으로써 主陣地 防禦任務를 交代하여 James town線상의 防禦態勢를 強化하려 한다.

② 제11연대

- ㉞ 11월 11일 06.00까지 現主抵抗線을 제15연대에 인계하라.
- ㉟ 同日時부로 사단수색중대의 지휘권을 제15연대에 이양하라.
- ㊱ 同日時부로 제1중박격포중대는 제15연대로 배속을 변경한다.
- ㊲ 同日時부로 수색중대를 제15연대에 배속 조치하라.

③ 제15연대

- ㉞ 11월 11일 06.00까지 제11연대로부터 現防禦線을 인수하라.
- ㉟ 同日時부로 사단수색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㊱ 同日時부로 제11연대 수색중대를 통합 지휘하라.
- ㊲ 공병1개중대를 통합지휘하라.

④ 제12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⑤ 제51연대는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⑥ 공병대대는 공병1개중대로써 제15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⑦ 사단수색중대는 11월 11일 06.00부로 제11연대로부터 배속 해제한다. 同日時부로 제15연대장의 작전지휘를 받는다.
- ⑧ 제1중포중대는 제15연대장 지휘를 받는다.
- ⑨ 제17포병대대는 제15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⑩ 제5포병단
 - ㉗ 포병1개대대로써 제12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 ㉘ 포병2개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 ⑪ 군단포병이 사단정면에 화력을 증원할 것이다.
- ⑫ 제72전차대대 A중대가 근접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 ⑬ 요청에 따라 美공군이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⑭ 협조지시
 - ㉙ 진지교대는 夜暗을 이용할 것이며 기도비막에 특히 유의하라.
 - ㉚ 제11, 제15 兩연대장은 敵情, 방어계획, 진지현황등을 상세히 인계 인수하라.
 - ㉛ 夜間에 運行하는 전차량은 燈火管制를 철저히 하라.
 - ㉜ 部隊交代間 敵의 砲擊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호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 ㉝ 제11연대는 M1, CAR탄약 1基數를 除外한 彈藥 全量을 제15연대에 인계하라.
 - ㉞ 기타는 군단의 부대교대 SOP를 참조하라.
- ⑮ 지휘소는 계속 龍田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제15연대(장, 宋虎林 대령)는 前方 CP를 △249에 추진 개설하고 이날과 이튿날 밤 사이에 제11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臨津江의 東岸을 따라 中畝里—△88간을 占領케 하고 제2대대를 中央 一線으로 同江 西岸의 △299를 確保케 하였으며 同時에 제1대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제1연방사단과 인접하여 △166를 中心으로 配備하였다.

따라서 對岸上의 前進陣地인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에는 제9, 제7 兩中隊를 내보내어 이를 確保토록 하였는데 이때 제9중대는 馬蹄形의 굴곡이 始作되는 臨津江의 江둑이 기도한 낮으막한 능선의 東半部(Little Nori高地)를 占領한 다음 敵이 強占하고 있는 西半部(Big Nori高地)에 近接한 無名高地에 경계소대(一)를 파견하여 敵과 접촉을 유지토록 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Little Nori高地에서 左側方으로 1km쯤 떠러진 Betty高地에 主力을 配置하고 △105(Betty高地 西쪽 1km)에 警戒組를 내보내어 一連의 警戒要線을 設定하였다.

이와같이 聯隊는 豫備隊없이 3개 대대를 前線에 配置한 가운데 連日 主陣地와 前進陣地를 強化하고 수색활동을 계속하면서 敵의 侵攻에 對備하던 바 12월 11일에 敵의 夜襲으로 紛爭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 상황도 제60호 Little Nori 및 Betty고지전투
(제15연대의 배치 및 격의 침공상황)



(2) 작전실시

12월 11일 : 氣溫이 急降下하여 數日前에 내려 쌓인 눈(雪)이 얼어붙었는데 當面の 中共은 이런 때일수록 야군의 防備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인지 이날 夜暗을 틈타서 隱密한 行動으로 我 前進陣地 부근까지 接近한 다음에 子正이 지나서 月光이 밝아지자 大舉 侵攻을 시작함으로써 제15연대 陣前에서는 순식간에 치열한 격전장으로 突變하였다.

이날 01.00에 對岸쪽의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일대에 前例없이 각종 포탄 5,300여발을 集中하고 그 30분 뒤부터는 臨津江 東岸의 主陣地 일대에도 포탄을 퍼부었다.

그들은 01.30부터 主攻을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로 指向하고 연대 全正面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즉, 제9중대가 전담하고 있는 Little Nori高地 陣前으로는 증강된 2개중대 규모가 △117쪽의 능선 접근로와 古莊里 쪽에서 Bubble高地로 이르는 小路를 따라 포위와 돌파를 노리고, 제7중대가 맡고 있는 Betty高地 前面 역시 2개중대병력이 △164쪽에서 능선 접근로를 따라 侵攻하는 한편 제6중대와 제1대대의 제2중대 正面에도 수효 미상의 敵이 攻擊을 企圖하였다.

이에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즉각 非常을 發令하여 戰鬪態勢에 突入케 하는 同時에 激變하는 狀況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敵은 01.30을 기하여 2개대대 兵力으로써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 方向에 主力을 指向하여 攻擊을 開始하였다.

② 제2대대의 제6중대와 제1대대의 제2중대 正面의 敵은 陽攻으로 판단된다.

③ 연대는 侵攻한 敵을 陣前에서 阻止擊滅하려 한다.

④ 제2대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Betty高地를 固守하여 侵入하는 敵을 격멸하라.

⑤ 제3대대는 Little Nori陣前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擊滅하고 끝까지 陣地를 堅守하라.

⑥ 제59포병대대는 화력의 우선권을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 正面에 둔다.

⑦ 제1중포중대는 제3대대 正面에 重點을 두고 지원사격을 계속하라.

⑧ 협조지시

㉑ 各隊는 상황전전을 신속히 보고하라.

㉒ 夜間경계를 철저히 하라.

㉓ 지원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라.

㉔ 各大隊의 豫備中隊는 역습준비를 갖추라.

⑨ 연대 전방지휘소는 계속 △264 前方에 위치한다.』

1. 右一線狀況 : 右一線 제3대대(장, 文鍾變 중령)는 연대장으로부터 이상과 같은 命令을 받았을 때는 이미 敵의 企圖를 豫測하고 각 중대에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고 있던 터인

지라 대대의 81mm박격포로써 近接하는 敵에 탄막사격을 集中케 하고 제9중대에 對하여서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기필코 이 陣地를 堅守하라』고 強調하였다.

가) 이에 따라 제9중대장 朴鍾淳 대위는 각 소대의 전투태세를 再確認하는 同時에 Bubble 高地(Little Nori高地 1km南쪽)에 豫備로 控置한 제1소대로 하여금 역습준비를 갖추도록 命令하였다.

이 當時 중대는 제2소대로써 主陣地(主峰)를 전담케 하고 제3소대로써 警戒陣地(Little Nori高地 前方 150m)에 추진 배치하였는데 다시 여기에서 1개분대를 뽑아 △69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소대는 Bubble高地와 Little Nori高地 下端의 무명고지 일대에 配備하였는데 이와같이 중대가 兵力을 分散配置하였기 때문에 指揮와 兵力의 集中運用에 事實上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이와같이 戰況이 急展되는 동안 警戒陣地를 맡고 있는 제3소대(一)의 陣前에서는 01.40에 2개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이 始作되었는데 同小隊는 重要하지 않고 이들을 陣前가까이 近接시킨 다음, 수류탄과 자동화력으로 機先을 制하자 敵은 많은 손실을 입고 Big Nori高地 方向으로 潰走하였다.

그러나 敵은 20분뒤에 새로운 兵力과 合勢한 듯 侵攻을 再開하였는데 이때 敵의 主力은 兩側方에서 集中突破를 試圖하고 一部兵力은 後斜面으로 迂回하여 포위를 꾀하였다.

이에 同小隊는 즉시 四周防禦態勢로 전환하고 近接하는 敵을 阻止하고자 全火力을 集中하였으나 迂回한 敵으로부터 背面을 急襲받아 적지않은 兵力의 손실을 본 끝에 分散되고 말았다.

그런데 경계진지를 유린한 敵이 그 餘勢를 몰아 2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主陣地를 맡고있는 제2소대를 압박함으로써 중대의 戰鬪力은 점차 弱化되기에 始作하였다.

即, 1개중대 규모의 敵은 臨津江 西岸의 제방을 따라 同 고지의 右側方을 強打코자 하였으며 다른 1개중대는 古莊里 부근에서 左側方 계곡의 小路를 따라 後方 깊숙히 파고들어 포위망을 형성한 것이다.

이에 제2소대는 고립된채로 惡戰苦鬪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중대장은 戰勢가 이에 이르자 즉각 砲兵射擊을 要請하고 제2소대에 命하되 『지체없이 兵力과 火力을 敵의 接近路上으로 전환하여 決戰態勢를 갖추라』고 하였다.

이에따라 同 소대는 各種砲射擊의 支援下에 자동화력을 敵의 接近路上에 集中하여 敵의 陣前肉迫을 阻止코자 하였으나 그들은 손실을 돌보지 않고 三面서 포위망을 2-3면씩 압박하면서 波狀突破를 계속 試圖하였다. 이에 소대는 陣前 수류탄 투척 거리까지 육박한 敵의 頭上에 수류탄을 連打하여 그 攻擊제1과를 불리쳤다.

敵은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 다시 제2, 제3파가 먼저 쓰러진 그들의 屍體를 밟고 밀려든 까닭으로 02.40에 陣前에서 紛戰이 激化되어 到處에서 悲命소리가 요란하고 劍光이 亂舞

하기에 이르렀다.

소대는 이와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陣地를 끝까지 固守코자 1시간 동안이나 白兵戰을 벌였으나 끝내 敵勢를 감당치 못하게 되어 진지를 敵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렇듯 중대는 이 一戰에서 적지않은 손실을 입고 이 要地를 敵의 手中에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問題點을 뒷날 分析하기를 『중대는 敵의 侵攻이 있기 3일전부터 중대진지 畝域에 前例없이 치열한 敵의 砲擊이 계속되어 未久에 攻擊이 있을 것으로 豫測은 하였으나 매마침 降雪과 結氷으로 敵의 機動과 企圖秘匿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雪明과 月光이 良好한 視界를 提供하고있어 그들의 攻擊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攻勢에 대한 對備와 警戒에 소홀한데다가 雪上加霜으로 이때 大隊에 可用할 豫備隊가 없었던 까닭으로 適時에 역습치 못하였다』라고 지적되었다.

나) 戰勢가 이에 이르자 대대장 文鍾燮 중령은 敵의 陣地編成을 방해하기 위하여 砲射擊을 요청하고 대대의 81mm박격포로서 Little Nori高地의 頂上을 強打케 하는 한편 有線을 복구토록 命하고 同時에 江 東岸의 제10중대로 하여금 1개분대를 對岸에 急派하여 敵情을 探索토록 조치하였다.

다) 제10중대 수색대는 이날 새벽 04.10에 江을 건너 Bubble高地의 제9중대 제1소대와 合勢케 되었는데 이때 대대와 Bubble高地간에 有線網이 복구되었다.

그리하여 同소대는 수색을 계속하면서 07.30에 △69에 進出하였으나 날이 밝은 까닭으로 수색활동을 중지하고 여기에서 防守態勢로 전환하였다.

2. 中央第一線大隊의 狀況 : 한편 연대의 中央一線인 제2대대(장, 朴春雄 중령)는 제5중대를 △299(대대 OP 700m 南쪽)에 豫備로 控置한 가운데 配屬받은 사단수색중대를 右一線으로, 제6중대를 左一線으로 삼아 △159-△299를 連한 犄角설의 主陣地上에 配屬하고 제7중대를 그 前方의 Betty高地-△105線上에 一連의 警戒要線을 設定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중 敵의 기습공격으로 血戰을 치르게 되었다.

敵은 01.00 正刻부터 砲擊을 퍼부어 前進陣地(Betty高地)를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더니 01.35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이 Little Nori 高地를 攻擊한 우리들과 步調를 같이 한 듯 主力을 Betty高地에 指向하여 밀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제6중대와 연대 左一線인 제1대대의 제2중대 正面에도 수효 미상의 敵이 侵攻하였는데 이들은 陽動을 꾀하는 듯이 보였다.

이에따라 대대장은 즉시 대대의 81mm 박격포 사격을 前進陣地 正面에 集中케 하고 제7중대에 陣地固守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가) 제7중대장 王日浩대위는 陣地를 堅守하고자 決意를 굳게 하고 각 소대의 防守態勢를 確認한 다음에 敵의 主接近路上에서 이미 決戰態勢를 갖추고 있는 제1소대장에게 『射擊統制를 철저히 하고 最近距離까지 敵을 유인한 다음에 全火力을 集中하라』고 命令하였

다.

이런 동안 戰況은 急展되어 △105의 境界 分線에 陣前에서는 2개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이 展開되었는데 그 主力은 正面突進을 노리면서 一部兵力을 左側斜面을 따라 迂回하도록 함으로써 同高地의 포위를 피하는 듯 하였다.

이에 同분대는 15분 동안 交전하다가 中대장 命命에 따라 철수하여 Betty高地의 中대 本陣地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105를 占領한 敵은 곧 2개 중대 규모로 증강되어 Betty高地의 尖端陣地를 맡고 있는 제1소대 陣前으로 攻勢를 集中하고 또 다른 一群의 敵이 △105方向에서 左側계곡을 따라 南麓으로 밀어 닦쳤다.

이에 제1소대장 金斗式 소위는 先任下士官 鄭龍和上士에게 『各者 自己位置를 固守토록 하라』고 指示하는 한편 近接하는 敵에 砲擊을 要請하고자 TS-10을 잡으니 有線은 이미 두절되고 無電機는 잡음때문에 交신이 어려워 傳命을 시켜 有線을 補修케 하였는데 이 傳命마저 敵彈으로 斃死하고 말았다.

이에 金斗式소위는 小隊의 힘만으로 陣地固守를 覺悟한 듯 침착한 그의 眉間에는 굳은 決意를 엿볼 수 있었는데 그는 小隊員들을 찾아 다니면서 『生死는 오직 너희들의 散鬪精神 뿐이라』고 격려하였다. 이런 동안 敵은 02.20에 三面에서 攻迫하여 陣前으로 肉迫하다가 障礙物 地帶에 부딪치자 射擊을 集中하면서 철조망을 除去하기 始作하였다.

同 소대는 이 好機를 놓칠세라 手榴탄을 비롯한 全火力을 集中 發揮하니 이에 당황한 敵은 많은 死體를 유기한채 高陽岳쪽으로 分散 潰走하였다. 한편 小隊도 이와같은 血戰을 벌이는 동안 兵力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소대장 金斗式 소위는 15명에 불과한 소대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바로 이곳이 埋骨의 聖地임을 強調하여 決死의 覺悟를 굳게 다졌는데 20분이 지난뒤 敵의 侵攻이 再開되었다.

이에 소대는 60mm박격포가 탄막사격을 實施하는 가운데 장애물 지대로 근접하는 敵에게 手榴탄과 자동화력을 集注하였다.

그러나 敵은 손실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철조망지대를 突破하고 마침내 陣內로 突入하였다. 이 무렵에는 소대장 金斗式까지 부상 하였으니 이제 소대의 운명은 오직 소대원 10여 명의 最後의 一戰에 달려 있었다.

金斗式은 부상한 채 이 突破口를 봉쇄하고자 手榴탄을 뽑아들고 불려드는 敵의 先頭를 가로 막아서자 이를 본 소대원들이 일제히 앞을 다투어 敵中에 뛰어드는 捨身을 서슴치 않았는데 手榴탄과 총검을 互用하여 소대장 金斗式 소위와 先任下士官 鄭龍和上士, 裴吉守下士, 趙泰杰下士 등 5명이 끝까지 陣地에서 버티어냄으로써 敵을 물리치고야 말았으니 이때가 03.10였다.

나) 이에앞서 대대장 朴春雄 중령은 大隊 OP 南方에 控置한 豫備隊로 하여금 제7중대를 赴援토록 하였는데 이에따라 제5중대(장, 李錫元 대위)는 急進하여 04.50에 LD(사단수색중대배치선)부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제7중대가 勇戰奮鬪끝에 侵攻한 敵을 물리친 뒤인지라 $\Delta 105$ 를 指向하여 이를 奪還케 되었다. 즉, 中隊는 이날 새벽 05.00에 LD를 躍出하여 進路上에 가로놓인 개활지를 일제히 通過한 다음 06.00에 高地中麓까지 進出하였는데 중대는 가벼운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07.20에 $\Delta 105$ 를 占領하였다. 중대는 여기에 1개소대를 殘置하고 主力은 다시 Betty高地로 轉進하여 제7중대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무렵 제6중대와 제2중대 正面에서 陽攻하던 敵 역시 물러나고 말았다.

3. 聯隊長의 措置 : 前方 CP에서 이 戰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宋虎林 대령은 敵의 企圖가 全面攻撃에 있는 것이 아니라 次期作戰에 有利한 前進陣地를 奪取하려는 것으로 推斷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가 豫備兵力이 없기 때문에 상실한 Little Nori高지를 奪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연대에 配屬된 제11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제3대대장 지휘하에 역습토록 命하였다.

4. 第15, 第11兩 聯隊의 攻擊梯隊戰況 : 제11연대 수색중대(2개소대)는 이날 새벽에 現地를 출발하여 8km의 機動距離를 急進끝에 07.10에 Bubble고지에 進出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08.10부터 20분동안에 걸친 공격준비 사격이 실시된 뒤를 이어 LD를 躍出하여 $\Delta 69$ 에 이르러 제15연대 제10중대 수색대 및 제9중대 제1소대로서 편성된 혼성소대와 合勢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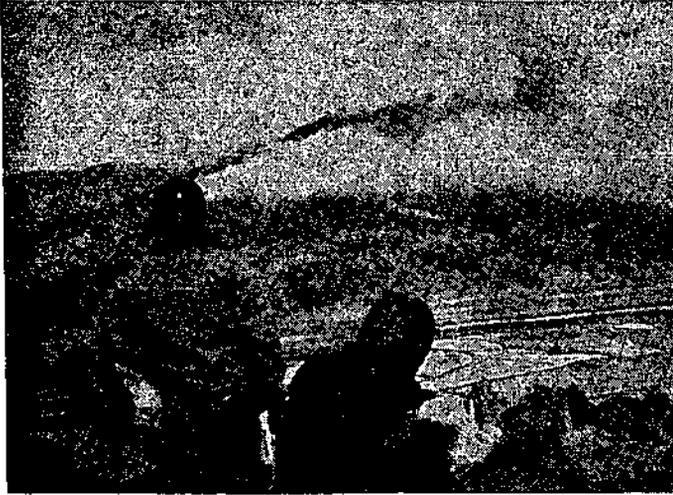
가) 이리하여 수색중대(一)는 正面에서, 혼성소대(1개분대 $\Delta 69$ 에 잔류)는 左側에서 병진대형으로 步一步로 進出끝에 高地中腹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敵의 자동화력이 進路를 방해하기 始作하였다.

兩攻擊梯隊는 雨注하는 敵火를 헤치고 계속 나아가 敵線 30m까지 肉迫하였으나 敵이 수류탄과 자동화력으로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여기에서 사상자가 속출케 되어 攻擊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兩 中隊는 隊列을 수습한 다음 포병지원아래 躍進을 계속한 끝에 突擊線에 이르러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하고 지체없이 敵陣에 뛰어드니 끈질기게 발악하던 醜敵도 겁에 질린 듯 多數의 屍體와 裝備을 유기한채 Big Nori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때가 11.00 正刻이었다.

그리하여 兩中隊는 즉시 陣地를 補強하면서 敵의 反擊에 對備하였는데 50분 후에 2개중대규모의 敵이 逆습을 企圖하였다.

이에 兩中隊는 재빨리 敵의 接近方向에 兵力과 火器를 전환배치하는 同時에 砲兵支援을



<전선을 시찰하는 사단장 朴林恒준장>

없게 되어 △69로 隨意 철수하고 말았다.

나) 한편 이 전투에서 연대가 거둔 戰果는 射殺이 152명이었고 損失은 戰死 88명과 戰傷 84명이었다.

5. 師團長의 措置 : 사단은 지난밤에 敵의 攻襲으로 말미암아 제15연대의 전진진지를 상실한 이래, 同연대가 豫備兵力의 不足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즉시 作戰會議를 開催하고 戰況을 검토하였는데 當時에 敵이 萬若 이 高地를 確保하면 臨津江 東岸의 主抵抗線 후방 깊숙이 瞰制하고 觀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언제든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사단의 주진지에 對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며 따라서 Betty高地가 東側의 露出로 항상 위험을 받게 되는데다가 이대로 물러선다면 사단의 명예와 장병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사단장 朴林恒 준장은 이 고지를 기필코 奪取하여야 한다는 決心을 굳히고 이날 12.00에 作戰命令 제89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點는 다음과 같다.

- 『① 敵은 今夜 01.30을 기하여 2개대대 병력으로 5,300여발의 포지원하에 Little Nori高地와 Betty高地 方向으로 攻襲을 敢行하여 이 시간 현재 1개중대 兵力으로써 Little Nori高地를 強占中이다.
- ② 사단은 一部兵力으로써 전진진지(Little Nori高地)를 탈취하려 한다.
- ③ 제11연대는 1개대대로써 今夜 13.00를 期하여 Little Nori高地를 攻襲하여 이를 奪還하라.
- ④ 제15연대는 13.00부로 전투지대를 제11연대에 인계하고 제11연대가 탈취한 진지를 인수할 준비를 하라.
- ⑤ 제12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緊急히 要請하였다.

그리하여 兩 中隊는 至近距離까지 近接한 敵에 對하여 全火力을 集中發揮하자 그들은 先頭가 혼란을 이르켜 分散되는 듯 하더니 곧 戰列을 수습하여 攻襲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血戰이 계속되더니 高地의 兩중대에서는 兵力이 점차 감소되는데다 무엇보다 탄약의 부족으로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가

- ⑥ 제5포병단은 제11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⑦ 군단포병이 화력을 증원할 것이다.
- ⑧ 美제73전차대대 A중대가 공격간 제11연대를 근접 지원한다.
- ⑨ 美제5공군은 요청에 따라 지원될 것이다.
- ⑩ 협조지시
 - ㉠ 상황진전을 지체없이 보고하라.
 - ㉡ 각대는 진지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 ㉢ 야간경계를 철저히 하라.
 - ㉣ 步戰 砲協同作戰에 만전을 期하라.
 - ㉤ 각 지원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라.
 - ㉥ 통신두절시의 대책을 강구하라.
- ⑪ 군수참모는 1개대대 병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차량을 항시 대기시키라.
- ⑫ 사단 전방CP는 계속 △264에 위치한다.』

6. 第11연대장의 措置 : 사단장으로부터 이러한 역습명령을 받은 제11연대장 崔周鍾대령은 즉시 전방CP를 △264 부근에 추진 개설하고 제2대대에 준비명령을 하달한 다음에 역습 계획을 검토하였는데, 攻擊目標인 Little Nori高地는 中共 제420연대의 OP로 알려진 △222에서 떨어진 능선상의 첨단고지로서 兩側方과 後方은 700—1000m의 넓은 개활지를 이루고 있어 我軍의 역습부대는 始終 敵으로부터 露出된채 機動하여야 하고, 개활지를 通過하여 目標에 이르는 능선점근로도 공간이 300m에 불과한 까닭으로 중대규모 이상을 投入할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同時 損害가 예상되었다.

이에 反하여 敵의 機動路는 넓고 은폐된 능선점근로인데다가, △117—Big Nori高地—Nickie高地 등 그들은 前哨陣地에 配置되어 있는 側方火力의 지원이 용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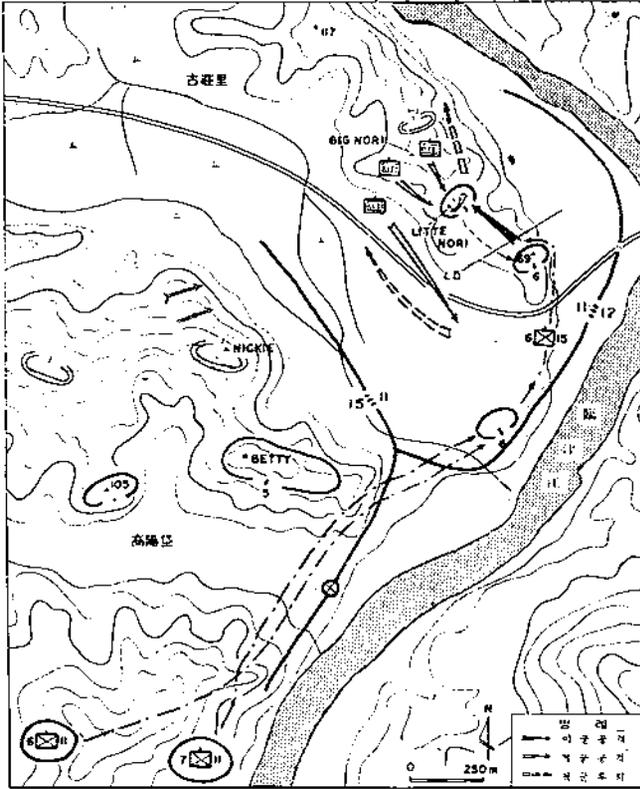
그리하여 연대장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打開치 않교는 目標奪取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이번 전투에 參加하는 모든 支援部隊의 火力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대FSC를 구성케 하였다.

7. 제11연대의 逆襲 : 제2대대장 金奉權 중령은 연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비명령에 따라 벌써 이날 새벽에 차량 20대를 지원받아 07. 00에 集結地(제15연대 제2대대 OP 後方) 일대에 散開하여 戰鬪準備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보다 앞서 출발한 제6중대는 이미 Bubble高地에서 待機中에 있었다.

이날 역습에는 戰術空軍을 비롯하여 野戰砲兵 5개대대 4.2" 박격포 1개중대 그리고 전차 1개중대가 화력지원을 전담하였다.

대대장 金奉權 중령은 目標에 이르는 機動空間이 狹小한 까닭으로 대대를 중대대형으로 전개키로 決心하고 제7중대를 Bubble高地에 豫備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6중대를 先頭에 내

◇ 상황도 제62호 Little nori고지 제2차 공격
(제11연대 제6중대의 역습)



세워 목표를 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13.00正刻부터 攻擊準備射擊이 實施되었는데 戰爆機 편대가 目標地域 一圓의 敵陣을 強打하고 뒤이어 各砲兵大隊와 戰車砲가 砲擊을 加하니 爆音이 古莊里 계곡을 진동하고 Little Nori高地 일대는 삼시간에 黑煙과 火염이 치솟았다.

제6중대는 깊은 연막을 헤치고 13.30에 LD를 躍出하여 포복굴에 突擊線까지 進出하였다.

그런데 敵은 我軍의 火力에 致命的인 打擊을 받아 이미 無力化된 듯 중대는 큰 저항없이 敵陣에 突入하였다.

그리하여 中대는 끝까지 발악하는 10여명의 殘敵을 모조리 사살하고 14.00에 目標를 占領한 다음 즉시 陣地工事에 着手하였다

20분뒤에 2개소대 규모의 敵이 Big Nori高地쪽에서 接近을 試圖하다가 我軍의 砲擊을 받고 分散潰走하였 으며 15.50에는 左側方의 Nickie高地에서 直射砲(2문)와 自動火器(2문)가 陣地補修를 방해하더니 16.10에는 2개분대 兵力이 侵攻하다가 역시 砲擊을 받고 擊退되었는데 이는 必是 次後 反擊을 有利하게 하기 위하여 我軍의 陣地補強을 妨害하는 것으로 豫測되었다.

이에 中대는 敵의 反擊에 對備하기 위하여 主接近路上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火力과 兵力을 증강 배치하는 등 戰鬪準備에 全力을 기우렸다.

豫想과 같이 日暮와 더불어 中대규모의 敵이 Big Nori高地쪽에서 능선점근로를 따라 砲兵支援下에 攻擊을 始作하려는 것을 同중대가 즉각 지원포병과 함께 中대의 60mm박격포와 자동화력을 集中하여 이들 高地下端으로 擊退시켰다.

그러자 20분 후에 敵이 다시 대대병력으로 증강되어 人海의 힘을 앞세우고 波狀突破를 試圖함으로써 여기에서 또 한차례의 血戰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夜暗이 짙어지자 1개 中대 규모의 敵이 Big Nori高地 方向에서 主능선을 따라 正面으로 밀려들었으며 다른 1개 中대

兵力은 Big Nori高地에서 左側능선으로 南側陣地를 노리고, 一部兵力을 背後로 迂回를 꾀하는 듯 三面에서 同時に 攻圍하기 始作하였다.

중대는 敵의 進路를 차단하고자 즉각 砲擊을 要請하고 이들을 最近距離까지 유도하여 中隊의 全火力을 集中發揮하는 一方, 陣前에 近迫한 敵은 수류탄으로써, 交通壕로 突入하는 무리는 銃劍으로써 무찌르는 등 死力을 다하였으나 수적으로 優勢한 敵勢에 밀려 陣地의 西側一角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衝擊이 頂上으로 波及됨으로써 진지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다시 △69쪽으로 물러서고야 말았다.

12월 12일 : 前半夜에 증강된 大대규모의 敵의 侵攻으로 말미암아 中대병력의 大部分을 잃은 제11연대 제6중대장은 잔여 23명을 직접 지휘하여 01.00에 鏖투의 反擊戰을 始作하였다.

이리하여 砲兵支援을 받으면서 LD를 躍出한 中대는 步一步로 8부능선까지 接近하자 敵은 82mm박격포와 자동화기 사격으로 進出을 妨害하였다.

중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포복과 약진으로 계속 突進하여 突擊線에 이르자 여기서부터는 敵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

◇ 상함도 제63호 Little Nori고지 제3, 제4차 공격
(제11연대 제6, 제7중대 역습)

한채 兵力의 손실만 累增케된 까닭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때에 中대의 SCR-609무전기가 敵彈으로 파괴되어 大대와의 통신마저 두절되고 말았다.

이에 中대는 제7중대와 무전기를 교환한 다음에 04.00에 攻擊을 再舉하였는데 끝내 敵의 最後阻止 火網을 突破하지 못하고 攻擊이 좌절된채 다시금 △69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1. 제11연대 제2대대의 戰況 : 大대장 金奉機중령은 전날에 이어 새로이 제7중대를 投入하여 역습을 계속하였는데 이날도 敵의 저항이 如前히 完강하여 그 진전을 보지 못한채로 火力戰만을 되풀이하였다.



이날도 제5포병단(장, 宋贊鎬 중령)의 각 포병대대가 07.30에 포문을 열고 30분간에 걸쳐 目標地域 일대에 集中攻撃을 가하였다.

가) 08.00에 第7中隊는 LD를 躍出하자 곧 한달음에 目標 中腹까지 進出하여 正面과 右側方에서 壓迫을 가하기 始作하였다.

敵은 前날밤 대대규모로 이 高地를 奪取한 다음에, 여기에 2개소대 兵力을 殘置하였는데 이들은 地形의 利를 살려 突出部마다 火力據點을 준비하고 中隊의 進出을 決死的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中隊는 81mm사격의 지원을 얻어 敵火를 제압한 다음에 敵前 30m까지 肉迫하였다. 中隊는 여기에서 3개소대를 동시에 突擊隊形으로 전개시킨 다음 모든 火力을 일제히 集中하고 敵陣을 突破코자 하였으나 敵은 기관총의 亂射와 수류탄의 連投로 완강히 버텨므로써 50분동안의 격전끝에 10.40에 다시 △69쪽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대대장 金奉權 중령은 一晝夜 동안에 제6, 제7 兩中隊가 3회에 걸쳐 역습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끈질긴 저항으로 말미암아 끝내 成功하지 못하자 마지막 一戰을 決心하고 豫備인 제5중대와 그동안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제7중대를 同時에 投入하여 Little Nori高地를 一舉에 奪取 確保토록 命令하였다.

나) 이에 兩 中隊는 砲兵지원아래 11.00正刻부터 目標를 向하여 攻撃을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一躍又一躍끝에 30분 뒤에는 이미 高地中腹까지 登破하였는데, 이때 敵의 박격포 彈幕이 進路를 가로 막기 始作하였다.

그런데 Little Nori高地는 敵側이 占領할 때는 三面이 엄호되고 射界가 良好하나, 그 反面에 我軍側에서는 目標에 이르는 능선 접근로의 폭이 300m 정도로써 2개 中隊의 同時 展開가 곤란하였던 까닭으로 攻者의 立場에서 機動의 制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高地中腹까지 進出한 兩 中隊가 兩面에서 攻撃하자 東斜面의 突出部에서 소대규모의 敵이 右一線의 제5중대의 進路를 妨害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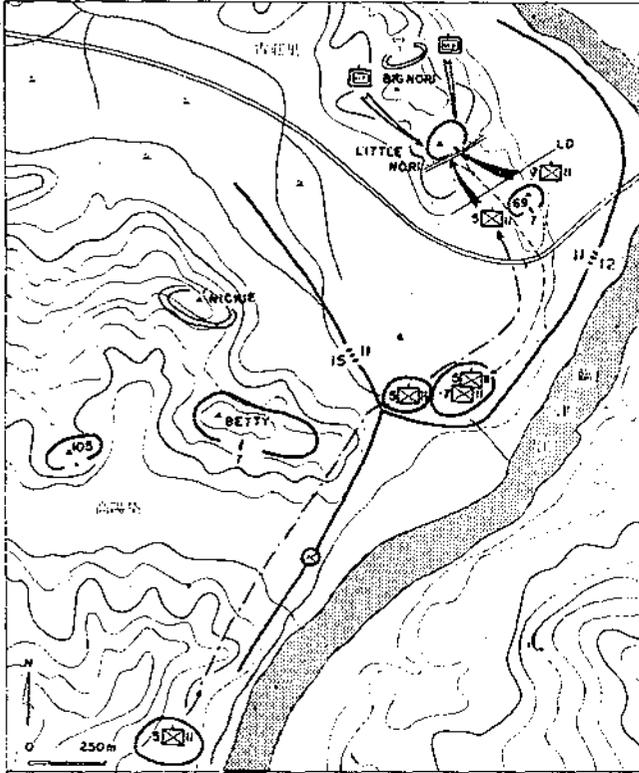
한편 이 무렵 左一線의 제7중대는 左側方으로 進出하여 11.30에 그들의 境界조로 보이는 분대규모의 兵力을 격멸하고 躍進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이 兩 中隊가 雨注하는 敵火를 헤치고 포복과 약진으로 突擊線까지 進出하자 곧 敵陣으로 突進하였는데 兩中隊는 끝까지 發惡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수류탄으로 모조리 爆殺시키고 正午에 마침내 目標를 占領한 다음 防守態勢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대가 確保하게 된 Little Nori高地는 彼我的 砲擊으로 赤山禿丘가 되고 三面이 敵陣에 둘러싸여 行動의 制限을 받는데다가, Nickie高地와 Big Nori高地의 敵이 直射砲와 機關銃 射擊으로 陣地工事を 妨害하였다.

이런 가운데 敵은 13.20부터 砲擊을 가하더니 10분 뒤에는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또 다시 反擊을 개시하였다.

◇ 상황도 제64호 Little Nori고지 제5차 공격
(제11연대 제5, 제7중대의 연습)



므로 사단장 박林恒 준장은 最後의 一戰을 強要키로 決心하고 제11연대로 하여금 새로운 1개대대를 投入하여 Little Nori高地를 一舉에 奪取 確保하라고 命하였다.

4. 제11연대장의 措置 : 사단장으로부터 새로운 연습명령을 받은 제11연대장은 參謀陣과 더불어 機動計劃을 검토끝에 Big Nori高地를 主攻目標로 決定하였는데, 그 이유는 敵이 地利와 優勢한 兵力으로 該高地에 對하여 道進을 계속하는 限, 이 高地의 奪取確保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豫測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敵이 이 高地의 確保에 注力하고 있는 사이 그 虛를 찢러 오히려 Big Nori 高地쪽으로서의 敵의 增援手段을 차단하는 것이 Little Nori高地의 前面攻擊보다 이를 確保하는 데 더욱 有效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제3대대(장, 崔一燦 중령)로 하여금 Big Nori高地에 대한 攻擊任務를 담당토록 命命하였는데, 當時 이 대대는 이미 2週日前에 敵의 強點으로 알려진 Nickie高地를 奪取確保할 준비를 갖추라는 사단장의 命命에 따라 이와 유사한 地形을 選定해 놓고 불철주야 實戰의인 訓練을 強行中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目標을 奪取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2. 제11연대장의 措置 : 이와같은 情況을 지켜보던 연대장은 近接하는 敵에 可用한 全火力을 集中케 하는 한편,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라고 嚴命하였는데 이에 제2대대는 進지를 急編하면서 決戰態勢를 가다듬었으나 當面의 敵은 砲擊의 集中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들어 1시간20분 동안의 紛戰끝인 14.30에 대대는 또 다시 △69로 이탈하는 바 되고 말았다.

3. 사단장의 措置 : 이상과 같이 連4次에 걸쳐 연습을 감행하여 3차례나 目標을 占領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加하였으나 敵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끝까지 抗拒하

5. 제11연대 제3大隊長의 措置 : 이에 따라 제3대대장 崔一麟 중령은 副大隊長 金衡祿 소령으로 하여금 대대를 指定된 集結地로 移動시켜 攻擊準備를 갖추라고 命令하는 同時에 대대OP를 指揮와 觀察이 용이한 臨津江 東岸의 △165에 추진하고 聯隊攻擊命令을 검토한 끝에 機動空間이 狹小하므로 1개 중대로서 任務를 完遂키로 決心하고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敵은 Big Nori高地를 발판으로 삼아 Little Nori高地를 계속 占有하고자 企圖하고 있다.

② 대대는 一部兵力으로써 2個高地에 대하여 同時에 攻擊하여 이를 奪取確保하려 한다.

③ 제9중대는 主力으로써 Big Nori高地를 攻略하고 一部兵力은 Little Nori高地를 占領確保토록 하라.

④ 제11중대는 Bubble高地로 移動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라.

⑤ 제5포병단의 각 포병대대가 공격간 대대를 直接 支援한다.

⑥ 제1중박격포중대가 전투간 대대를 계속 지원한다.

⑦ 제73전차대대의 A중대가 공격간 제9중대를 근접 지원한다.

⑧ 美 제5공군은 요청에 따라 지원될 것이다.

⑨ 협조시시

㉑ 중대의 進出狀況을 지체없이 보고하라.

㉒ 目標奪取와 동시에 敵의 동굴진지를 파괴하라.

㉓ 적의 역습에 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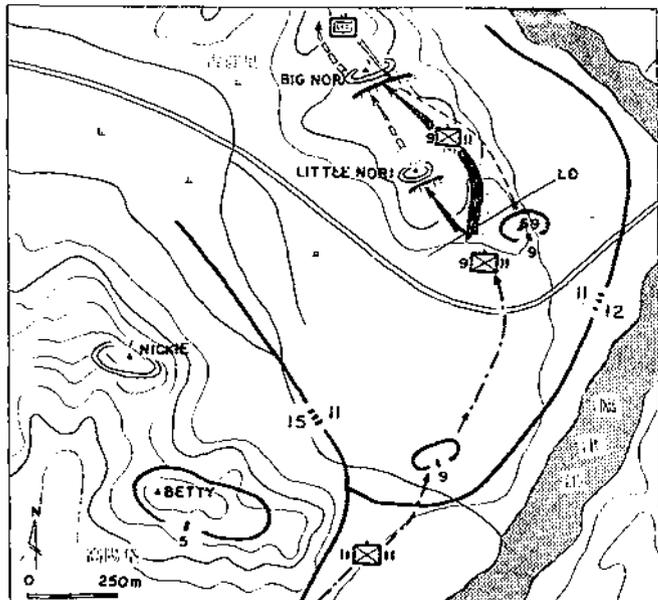
◇ 상황도 제65호 Big Nori 및 Little Nori고지 제6차 공격

(제11연대 제9중대의 역습)

⑩ 대대OP는 △165에 위치한다.』

가) 戰爆機와 各砲兵大隊가 15분간에 걸쳐 敵의 主陣地의 要部와 目標地域 일대에 火力을 集中한데 뒤이어 14.45에 제9중대(장, 金智善 대위)는 步戰協同으로 LD를 突破하자 곧 제3소대를 最初에 豫備로 뒤따르게한 가운데 제1소대는 Big Nori 高地를, 제2소대는 Little Nori 高地를 目標로 하여 突進하기 始作하였다.

이때 戰車中隊는 2개소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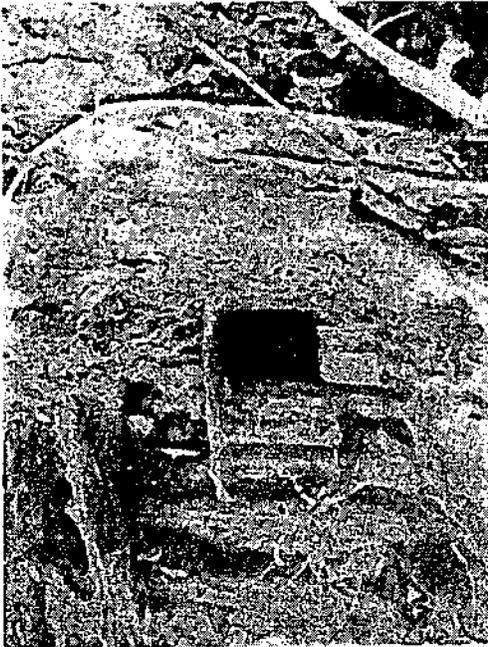


古莊里계곡 깊숙히 投入하여 Nickie高地의 敵의 側方火力을 제압하면서 Little Nori高地의 敵의 火力據點을 분쇄토록 하는 한편 1개소대는 臨津江 東岸의 속칭 밤고개 일대의 능선 상에 두어 對岸의 Big Nori高地와 △117의 敵의 自動火力을 제압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前例없는 막강한 火力 支援下에 中隊는 躍進끝에 目標 8부능선까지 進出하자 全 火力을 集注하였는데 특히 Big Nori高地에서는 敵의 自動火力이 빗발치 듯 하였다.

중대는 雨注하는 敵火를 뚫고 계속 肉迫하다가 15.10에 제1소대는 Big Nori高地 陣前에서 제2소대는 Little Nori高地 突擊直前に 敵의 수류탄 彈幕에 걸려 死傷者가 續出한채 攻撃이 좌절되었는데 이때 중대장 金智善 대위가 중대 OP를 △69로 추진하다가 敵의 砲擊을 받아 通信兵과 함께 부상을 입었으며 중대의 SCR-609무전기마저 과손되어 대대와의 通信이 杜絶되코 말았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중대장은 부상을 돌 볼 겨를도 없이 優先 Big Nori高地를 先取하고자 뒤따르던 제3소대에 『지체없이 제1소대와 合勢하여 Big Nori高地를 奪取確保하라.』고 命令하였다.



<Big Nori고지의 敵 동굴진지 입구>

이때 제3소대가 前斜面 일대에 兵力을 配置하는 순간 동굴 入口 하나를 發見하고 즉시 수류탄과 연막탄을 집어넣었던 바 四方에서 여기 저기 入口가 露出되었다.

이에 중대는 사전에 준비한 폭약을 장진하여 完全히 폭파하였는데 이 속에는 많은 人員

이에 제3소대는 臨津江岸쪽으로 主능선의 中麓을 따라 步一步로 目標 東쪽 8부능선까지 進出하자 분대규모의 敵이 決死的으로 저항하였다.

同소대는 仰射로써 應酬하면서 一部 兵力으로 敵線을 突破코자 하였으나 進路가 急傾斜를 이룬데다 地面이 얼어 붙어 機動이 如意치 않았다.

同小隊는 난관을 克服하면서 突擊線까지 肉迫한 다음 일제히 수류탄을 投擲하고 지체없이 敵陣에 突入하여 끝까지 發惡하는 수명의 敵을 닥치는대로 射殺하고 東側의 突角陣地를 奪取하자 이에 이에 힘입은 제2소대가 正面에서 敵線을 뚫고 突破口를 擴大하니 敵은 앞을 다투어 △117 方向으로 潰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6.30에 드디어 目標를 占領하

과 裝備가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 무렵에 제2소대는 Little nori高地를 攻略하고자 3회에 걸쳐 突擊을 敢行하다가 兵力의 損失만을 낸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7部능선상에서 급편진지를 구축하여 敵을 견제하면서 支援을 苦待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는 Big Nori高地를 奪取하기까지 2시간이나 血戰을 벌이는 동안에 비록 兵力이 半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제2소대를 支援한다면 Little Nori 高地의 占領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要衝을 빼앗긴 敵이 결코 坐視만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敵의 역습에 對備하는 것이 効果적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陣地의 確保에 專念키로 하였는데 사실 이 高地를 끝까지 固守한다면 Little Nori 高地는 이미 手中에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대에 兵力과 彈藥을 緊急要請하는 동시에 敵의 逆습에 對備키로 하였다.

나) 과연 豫想한 바와 같이 08.30에 夜暗을 利用하여 大隊規模의 敵이 各種 迫擊砲 支援下에 反擊을 開始하였다.

이에 대대장 崔一燦 중령은 즉시 연대 FSC에 火力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제9중대에 『끝까지 陣地를 堅守하라』고 命令하였는데 여기에서 4.2" 중박격포 중대가 照明을 밝히는 가운데 戰鬪機 편대가 夜間爆擊을 加하고 이어 美제2사단포병을 포함한 5개포병대대가 近接하는 敵의 進路上에 탄막사격을 集中하였으며 戰車砲가 이에 合勢하였다.

敵은 이와같은 集中砲火에도 불구하고 死角地帶를 따라 계속 接近하여 그의 先頭는 이미 陣前 30-40m까지 攻迫하였다.

다) 이에 제9중대는 수류탄을 비롯한 全火力을 集注하였으나 敵은 毒전대의 총뿌리 앞에서 먼저 쓰러진 屍體를 넘으면서 人海를 앞세워 三面에서 波狀의으로 集中突破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때 대대에 要請한 탄약이 추진되지 않는데다, 중대는 1개소대 兵力으로 줄어들어 끝내 西麓陣地의 一角이 突破되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총검을 뽑아들고 白兵으로 對決하였으나 死傷者만 增加케 되었을 뿐 戰況은 점점 惡化一路로 빠져들게 되었다.

중대장 金智勳 대위는 이 이상의 對決은 오히려 自滅만을 自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에 狀況을 보고한 다음에 命에 따라 Little Nori의 제2소대와 함께 20.45에 △69로 철수하고 말았다.

12월 13일 : 이날 09.30부터 美戰術空軍이 敵陣에 불을 吐하고 各砲兵大隊(90분) 4.2" 박격포중대(10분)가 일제히 砲門을 열어 目標地域과 敵의 豫想砲陣地에 集中攻擊을 加하고 뒤를 이어 砲兵이 攻擊部隊의 側方을 엄호하기 위하여 △117-△121-Nickie高地 일대를 연

막으로 차장하는 가운데 제 11연대 제3대대(장, 崔一嶸 중령)는 敵線을 向하여 攻擊을 開始하였다.

1. 제11연대 第3大隊의 戰況 : 대대장 崔一嶸 중령은 제10중대로서 Little Nori 高地를 目標로, 제11중대로서 Big Nori 高地를 各各 攻略케 하였으며, 전날에 血戰을 치룬바 있는 제9중대는 Bubble 高地에 豫備로 控置하고 戰車中隊는 攻擊梯隊와 協同作戰을 行개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전날 5차례나 攻擊을 하다가 失敗한 능선 접근로를 다시 밝게되었는데 이는 능선의 左右側方은 개활지로써 企圖를 露出하게 되고 Nickie 高地와 △117의 側方火力의 위협때문이었다.

가) 이런 가운데 Little Nori 高地를 指向한 제11중대(장, 都澤煥 대위)는 △69의 左側 능선을 넘어서자 곧 目標高地의 8部능선까지 進出하여 포복과 약전으로 敵의 自動火器의 火網을 뚫고 敵前 30m까지 육박하였다.

이와같이 중대가 敵陣으로 달려들자 敵이 모든 火力을 發揮하여 버팀으로써 先頭에서 攻迫하던 右一線의 제3소대는 여기에서 많은 損失을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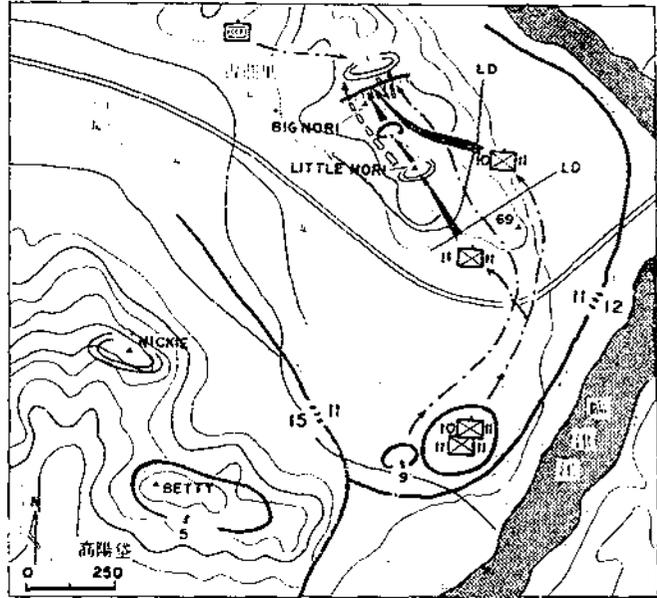
이에 중대장 都澤煥 대위는 뒤따르던 제1소대를 左側으로 迂回시켜 南쪽 背後를 強打케 하는 同時에 左側 제2소대를 계속 突擊토록하였으나 高地 兩突出部에서 불을 吐하는 敵의 機關銃射擊과 간담없이 쏟아지는 수류탄 탄막때문에 死傷者만 속출하고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때 敵의 攻擊이 集中되어 大隊와 中隊간에 有線이 두절되었다.

그런데 이때 左側 계곡에서 4대의 戰車砲가 敵의 側方火力을 制壓하는 가운데 제1소대가 南쪽 능선을 따라 背面으로 迂回하여 포복끝에 敵前 20m까지 육박한 다음 수류탄으로 敵의 火力據點을 파괴하여 6명을 죽이고 계속 敵陣의 一角을 竊단하였다.

이에 中隊主力이 일제히 달려들어 白兵戰끝에 2명을 사로잡고 30여명을 射殺한 다음 마침내 目標를 占領하니 이때가 10.35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5회나 主人을 바꾸어 가면서 血戰을 벌이던 이 高地를 奪取하자 재빨리 再편성을 完了하고 陣地를 強化하면서 敵의 역습에 對備하였다.

◇ 상황도 제66호 Big Nori 및 Little Nori고지 제7차공격



중대는 이 전투에서 사상 136명과 포로 2명 그리고 多發銃 7정과 자동화기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反面에 戰死 15명과 戰傷 37명의 손실을 보았다.

나) 제10중대(장, 金麟澤 대위)는 LD를 躍出하자 곧 제1, 제2 兩小隊를 攻擊一線에 展開하고 第3小隊를 뒤 따르게 하여 目標 頂上을 向하였다.

그런데 이때 先頭에서 치닫던 右一線의 제1소대가 먼지와 연막때문에 進路의 판단이 곤란하여 最初計劃대로 東쪽능선을 따라 目標로 直衝치 못하고 Little Nori 高地의 右측으로 迂回하여 南쪽능선으로 機動끝에 Little Nori 高地 150m 前方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였다.

그리하여 同中隊는 攻擊이 豫定보다 30분간이나 지연된채로 躍進끝에 高地 7部능선에 近迫하여 敵의 치열한 射擊을 받고 仰射로써 應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高地는 전날 제9중대가 奪取하여 모든 陣地를 完全히 파괴한 바 있으나 敵은 밤 사이에 高地 곳곳에 堅固한 陣地를 急造하고 저항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때 古莊里쪽에서 Big Nori 高地를 增援하려는 듯 중대규모의 敵이 接近하므로 포격을 要請하여 擊退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2회에 걸쳐 敵陣에 突入하다가 많은 兵力의 損失을 입었는데 特히 소대장 3명 모두가 여기서 散華하고 分隊長 이상 幹部들이 先頭에 나서다가 大部分 戰死하였다.

이에 중대장 金麟澤 대위는 중대 본부 要員과 火器小隊의 一部兵力으로 活路를 打開하고자 대대에 火力支援을 要請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이때는 이미 제9중대가 出擊한 뒤였으므로 『제10중대는 現線에서 敵을 계속 견제하라』고 命命하였다.

이때 中央小隊의 AR 射手 朴寬煜 一等兵이 目標奪取을 目前에 둔채 小隊長과 分隊長마저 戰死하고 戰勢는 進展이 없자 隊列에서 勇敢하게 일어나서 『突擊앞으로』하고 외치면서 單身으로 高地頂上에 뛰어 올라 自動小銃을 亂射하다가 Nickie 高地의 敵으로부터 集中射擊을 받고 잠시후 本隊로 뒤돌아 내려왔는데 두차례나 이같이 曲藝를 하듯 敵陣으로 뛰어 들어 自動火器를 휘두르는 捨身敢鬪을 反復하는 바 되었다.

사단 前方 CP에서 始終 이 觀景을 지켜본 美 제1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은 『이렇게 용감한 兵士는 처음보았다』고 격찬하였다고 하는데 이 戰功으로 그는 뒷날 제9중대 제3소대장 崔鍾仁 소위와 함께 美 제1군단장으로부터 美銀星勳章을 받았다.

다) 제9중대장 대리 朴基鍾 중위(중대장은 전날 戰傷)는 전날밤 Big Nori 高地에서 血戰을 치른 뒤로 장교 2명과 사병 64명의 잔여 兵力으로 2개소대를 편성하고 Bubble 高地를 防守中에 大隊長의 命命에 따라 1개소대를 Big Nori 高地에 急派하여 제11중대 진지를 強化케 하고 다른 1개소대로 하여금 제10중대를 超越하여 Big Nori 高地를 奪取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소대는 臨津江 東岸에서 戰車砲가 敵의 火力據點을 強打하는 가운데 14.00

에 LD를 躍出하여 主능선의 中腹을 따라 躍進한 끝에 目標 東側 8部능선까지 攻迫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火力을 策注하면서 進路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소대는 빗발치는 敵火를 뚫고 東斜面으로 기어올라 敵前 20m까지 攻擊하여 全火力의 集中으로 敵勢를 꺾고 10여명을 무찌른 다음 東麓의 一角을 奪取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頂上의 敵은 그 동안에 이미 中대규모로 增強되어 手榴탄을 連投하면서 완강히 저항한 까닭으로 소대는 끝내 頂上席卷의 뜻을 꺾지 못한채로 高地中麓으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라) 이런가운데 제11중대 正面에는 中대규모의 敵의 反擊으로 交戰이 전개되었는데 중대는 砲兵射擊과 함께 자동화력을 集中하여 이를 가볍게 물리쳤다.

2. 師團長の 措置와 其他 狀況

이때 前方 CP에서 이와같은 情況을 지켜보던 사단장은 日沒前에 Big Nori 高地의 奪取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를 命命함과 同時에 『Little Nori 高地에 對한 방어태세를 強化하라』고 強調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Little Nori 高地에 陣地 工事를 着手하였는데 工兵中隊와 勞務隊의 支援을 얻어 陣前에 地雷를 埋設하고 鐵條網을 架設하여 陣地를 堅固히 하였다.

한편 이 전투에서 第11연대는 射殺 350명과 推定射殺 255명, 捕虜 2명의 戰果를 거두고 反面에 戰死 145명과 戰傷 412명의 損失을 보았다.

다.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12월 17일 Little Nori 高地 일대를 右一線의 제12연대로 하여금 引受토록 하고 제11연대는 다시 사단에비로 복귀시켜 部隊整備과 戰術訓練에 임하게 하였다.

이후 사단은 전선의 小康狀態속에서 방어진지를 補強하고 敵情을 수집하고자 偵察과 搜索活動을 強化하는 한편 敵의 戰意와 士氣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傳單撒布와 擴聲機에 의한 對敵放送 등 心理戰을 強化하였는데 이 結果 73년 1월 20일에 1명의 귀순병을 얻게 되었다.

이 귀순병의 陳述에 따르면 中共 제140사단의 제420연대가 지난 Nori高地 戰鬪에서 戰意를 完全히 상실당하자 中共제47군은 豫備가 되어 市邊里 부근에서 訓練中이던 제139사단의 제416연대를 投入하여 그 임무를 교체케 하였다고 하는데, 새로이 Nori 高地 일대에 배치된 이들은 부단히 戰鬪偵察隊를 前方으로 내보내어 我 警戒部隊와의 접촉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師團은 1953년 1월 23일 예비인 제11연대 제3대대 제9중대로 하여금 Big Nori 高地를 기습공격케 하였던 바 사살 25명과 추경사살 60명 그리고 1명을 포로로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때 同중대의 손실은 전사 3명과 전상 46명이었다.

이무렵 그동안 사단을 지원하던 제5포병단이 國本一般命令 제23호(53.1.20)에 의거 當사단에 移속되었는데 이에 따라 사단은 실제로 4개 포병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단은 2월초에 접어들면서 作命제89호(53.1.29)를 下達하고 예비인 제11연대로 하여금 左一線의 제15연대와 임무를 교체케 하여 戰線을 보강한 다음, 敵의 侵攻에 對備하였다.

이 戰鬪期間中에 사단이 거둔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區分 隊別	戰 果							損 失							
	射 殺	推 定 射 殺	推 定 殺 傷	捕 虜	鹵 獲		獲 手 榴 彈	戰 死	戰 傷	失 踪	3.5" 迫 擊 彈	自 動 火 器	小 銃	57 mm R R	화 염 방 사 기
					自 動 火 器	小 銃									
제11연대	350	255	375	2	8	14	100	145	412	2	1	11	174		1
제15연대	38	152	118					85	69		1	10	79	1	
계	388	407	493	2	8	14	100	230	481	2	2	21	253	1	1

§ 參戰者의 證言

◇ 제11연대 제9중대장 대위 金智善 (1964. 8. 27 중령)

제2대대가 數次에 걸쳐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失敗하자 우리 대대가 投入되었으며 제9중대가 먼저 攻擊을 하게 되었다.

이 逆襲에서 제3소대장 崔鍾仁 소위가 殊勲을 세웠는데 當時 사단 전방 CP에서 戰況을 지켜보던 美 제1군단장(Paul. W. Kendall 중장)은 제3소대 崔소위의 攻擊모습을 보고 "귀신 같다"고 極口讚揚하였으며 崔소위는 이 戰功으로 美 銀星勳章을 받았다.

밤이 깊어 夜暗이 깊어지자 中共은 대대병력으로 反擊을 試圖하므로 대대장에게 철수하겠다고 報告하였더니 繼續 固守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때 중대는 많은 負傷者를 내면서 惡戰苦鬪하였지만 소대장들이 부상당하고 나도 부상을 입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다음 날 제10중대와 併攻으로 目標을 다시 奪取하였는데 이때는 내가 負傷을 입었으므로 副官 朴基鍾 중위가 중대를 지휘하였다.

◇ 제11연대 제3대대장 崔一燦 중령 (1975. 10. 9 국방대학원장실에서 소장)

제2대대가 역습에 失敗하자 이번엔 제3대대에 역습 명령을 내렸다.

當時 대대는 Nickie高地 奪取 命을 받고 2주일전부터 中共軍戰法에 따른 示範과 戰鬪訓練을 실시중이라 目標高地 奪取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判斷하였다.

그러하여 2個의 目標(Little Nori 高地 및 Big nori 高地)를 同時에 攻略하려 하자, 師團長은 "1개대대로써 Little Nori 高地도 奪取 確保 못하

었는데 1個중대로써 攻略할 수 있느냐?"고 하였지만 나는 機動空間이 狹小하기 때문에 大隊兵力을 同時에 展開하는 것은 오히려 不利하다고 說明하고 計劃대로 제9중대만을 投入하였다. 이대 特攻小隊長 崔鍾仁 소위가 단숨에 敵陣에 뛰어들어 目標 Big Nori 高地를 奪取하고 중대主力은 Litter Nori 高地를 占領하였지만 夜間에 敵大隊兵力의 攻擊을 받고 일단 철수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逆襲을 決行하였는데 이때는 2個중대를 同時에 投入하여 2個 目標을 攻略함으로써 奪取에 成功하여 作戰任務을 完遂하였다.

이와같이 敵에게 致命傷을 입히고 이 要地를 確保하기까지에는 대대의 손실도 적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重要한것은 地形에 알 맞는 치밀한 작전계획과 실천적인 훈련이다.

나는 평소 훈련시킨대로 전차포와 Cal 50기관총, 경기관총등 작사화기로써 攻擊梯隊를 근접지 원트록하였는데 특히 기관총은 射彈散布의 原理를 적용하여 攻擊部隊가 死角을 利用하여 敵의 交通壕 20-30m앞에 近接할 때 까지 敵을 교착케한 다음에, 突擊組가 일제히 수류탄을 投擲할 때 기관총 사격을 頂上으로 연신티록하였다.

한편 突擊隊는 敵의 交通壕에 수류탄 투척과 동시에 敵陣에 뛰어들어 敵陣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戰術로 Big Nori高地를 攻擊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目標을 무난히 점령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속한 行動으로 前斜面에서 진지를 강화하던 중에 동굴진지의 입구를 發見하였는데 이 안에 연막탄을 집어 넣었더니 四方에서 出入音が 확인되었다.

이에 事前에 準備하였던 폭약으로 이 동굴을 폭파하였는데 이속에는 확인은 못하였지만 많은 兵力과 장비등이 매장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 戰 訓

◇ 狀況判斷의 必要性

敵은 攻擊開始 2,3일 전부터 보기 드물게 치열한 砲擊을 加하였으나 我軍은 이에 對한 注意와 對策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하여 제15연대 제9중대는 夜間에 潛伏組를 적절히 配置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敵이 Little Nori 高地 兩側面 下端에 近接할 때까지 發見치 못하여 陣地를 敵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결국 高地를 되찾기 위하여 連3일간이나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作戰에 失敗한 指揮官은 勇서 받을 수 있을 망정 警戒에 失敗한 指揮官은 결코 勇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니 이는 誠實性 如何로써 能히 爭取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攻擊開始線의 選定

제11연대 제5중대는 攻擊開始前에 LD上에서 我軍 攻擊 準備射擊에 多數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要因은 LD를 目標에 너무 近접하여 設定한 데다 砲兵射擊이 미숙하였기 때문이었다.

LD가 目標에 가까울수록 기습의 효과는 達成할 수 있겠으나 安全을 고려하지 않았음은 攻擊計劃上의 重大한 問題點이라 하겠다.

§ 研 究

이 戰鬪는 Big Nori와 Little Nori 高地를 中心으로 300m의 正面과 200m의 縱深에서 惹起된 불과 3일간의 交戰이었지만 UN軍戰史(후전 陣막과 싸우는 진선)에 記錄된 그 統計를 살펴보면 이 戰鬪의 樣相과 內包하고 있는 重要한 意義로 미루어 斟酌할 것으로 믿어 여기에 參考로 밝혀 둔다.

이 戰鬪期間中에 UN軍은 野砲彈, 120,000餘發과 追擊砲彈 31,000餘發 그리고 戰車砲彈을 4,500餘發을 發射하였으며 이 때 戰爆標는 39회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117回나 出擊하여 700,000餘發度의 高폭탄과 베이팜탄을 投下하였다.

이에 反하여 中共軍은 18,000餘發을 아군에게 砲擊을 加하였는데 航空機활동은 除外하고라도 8:1의 比率를 나타내고 있으니 火力面에서 현격한 격차를 들어내고 있다.

또한 이 戰鬪間, 步兵部隊를 支援하는데 있어 空地의 合同作戰은 본보기였다고 할수 있으며 이때의 死傷者數를 보면 我軍은 戰死 237名을 包含하여 750명의 死傷者를 내었고 敵의 死傷者數는 2,700餘名으로 推算되었는데 特別 이듬해 正月 中共軍 제420연대의 한 脫走兵의 陳述에 依하면 이 연대는 이 戰鬪에서 너무 많은 死傷者를 냈기 때문에 豫備로 後方에 빠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結果는 步兵部隊의 役割도 컸겠지만 그 보다 可恐할만 한 火力때문인 것으로 推斷할 수 있을 것이다.

3. 泗川江부근 前進진지 第一次戰(1952년 4월1일 부터 1952년 4월2일 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참조 : 별책부도 제22호
상 황 도 제67호

		我 軍				敵 軍	
해병	제1연대	장	대령 金 東 河	제3대대	장	소령 韓 禮 濤	
	제1대대	장	중령 南 相 徽	제9중대	장	중위 桂 炳 道	
	제1중대	장	중위 金 景 鴻	제10중대	장	중위 盧 元 根	
	제2중대	장	중위 朴 熙 泰	제11중대	장	중위 趙 容 熙	
	제3중대	장	중위 金 昶 元	제12중대	장	대위 趙 義 正	
	제4중대	장	대위 林 一 敬	제5대대	장	중령 白 南 杓	
	제2대대	장	소령 朴 成 哲	제51중대	장	대위 金 學 述	
	제5중대	장	중위 河 容 守	제52중대	장	중위 林 相 龍	
	제6중대	장	중위 金 景 山	제53중대	장	중위 朴 炳 鎬	
	제7중대	장	중위 安 徹 煥	제54중대	장	대위 徐 相 國	
	제8중대	장	중위 姜 三 賁	砲兵대대	장	소령 鄭 滿 鎭	
		敵				軍	
中共	제19兵團	장	楊 得 志	제194사단	장	趙 翁 教	
	제65군단	장	蕭 應 棠	제195사단	장	阮 平	
	제193사단	장	張 雲 龍	제8포병사단	장	基 幹	

나. 전투전의 개황

1951년 9월 初에 中東部戰線의 要衝地인 Punch Bowi 北端까지 進擊한 해병 제1연대(장, 金東河대령)는 全戰線이 對陣으로 변모됨에 따라 月山嶺 일대에서 防禦線(Hays Line)을 形成하고 敵과 대치하여 그로부터 6개월여 동안은 주로 制限된 偵察과 探索戰을 展開하였으며 間或 陣前에 有利한 地形을 先取하기 위한 彼我間의 激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2년에 접어들면서 美제8군司令部에서는 全戰線 사단에 대한 再配置와 兵員 및 장비의 改編作業에 着手하였으니 이는 休戰會談의 進전에 따라 首都 서울의 防衛에 力點을 둔 軍事의 補完策의 一環으로 이른바 Mixmaster 計劃에 따른 措置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被配屬부대인 美해병제1사단(장, John T. Seiden 소장)과 함께 中東部전선의 美제10군단 傘下를 떠나 西部전선으로 移動하게 되었으니 사단 作戰計劃 52-2호에 依據 1952년 3월 17일 06.00를 期하여 Hays線의 進지를 美제25사단 隷下연대에게 引繼하고 支撥된 車輛(사단 100여, 군단 200여)便으로 이동을 開始하여 같은 날 22.30까지 京畿道 坡州郡 積城面 壩峴里(汶山 東北方 22k

m)에 到着하였다.

그리고 19일에 각 단위부대 指揮官들이 새로운 진지에 대한 偵察을 실시한 다음, 20일에는 各 大隊 별로 泗川江 以東의 제1사단 제15연대 지역에 滲入하여 진지를 引受하였으니 이로써 韓美해병대는 臨津江—汜川 및 漢江下流와 西海岸 一圍에서 本格的인 水陸兩面작전을 통하여 會談場所인 開城을 圍繞하고 敵의 主攻路인 開城—서울 街道의 防備를 擔當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 이때 연대 正面에 대치한 敵은 中共제65軍 제195사단(장, 阮平)으로 傘下 제584연대가 右一線, 제583연대가 左一線, 그리고 제585연대가 豫備隊로 各各 泗川江 以西에서 德勿山(△288)—天德山(△203)—軍藏山(△213) 등 戰術上의 좋은 高地群을 占有하여 江 以東에 沿海 있는 我軍의 前進陣地와 主抵抗線 일대의 開豁地를 瞰制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地形은 대체로 橫隔室을 이루고 있어 防禦에 有利할 뿐 아니라 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그들의 豊富한 人的 資源을 動員하여 진지와 火力을 보강하고 모든 陣地는 據點化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또한 入手된 諜報에 依하면 이들의 編成 및 裝備는 中共사단의 標準現성에 제2차대전 때의 蘇聯 및 中共製 장비로 武裝되어 있으며 裝束은 現戰線을 維持하기 위하여 開城 南方에 위치한 中共제8야포사단 산하 제45야포연대의 122mm포 支援下에 疲勞한 병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積極방어와 제한된 先制공격 수단을 併用한다는 것이었다.

我軍의 狀況 : 美 해병제1사단은 3월 23일을 期해 韓國제1사단으로부터 「James Town」防禦線을 引受함과 同時에 金浦반도에서 活躍중인 해병제5대대를 비롯한 美 제1장갑수륙양용차대대 A중대, 美제1수륙양용 무한궤도차대대 A중대 및 제13경비대대(B중대—)를 金浦임시연대로 통합(1952년 3월31일 부)하여 指揮하게 되었다.

한편 해병제1연대는 3월 21일에 제1사단 제15연대(장, 金振暉대령)로부터 泗川江 以東의 陣地를 인수하여 제1대대를 右一線, 제3대대를 左一線, 그리고 제2대대를 예비대로 滲入하고 右로 美해병제5연대(장, Thomas A. Culhane, Jr. 대령), 左로 臨津江을 건너 美제1장갑수륙양용차대대와 連繫하였다.

그런데 연대가 담당한 지역은 白蓮里의 △155를 頂點으로 하여 泗川江을 따라 △58—△45—△28—△87—△39 등의 小稜線을 形成하고 있는 外에는 대부분이 田畠과 開豁地를 이루고 있어 敵陣으로부터 진지가 露出된데다가 前後 및 左側의 3面이 모두 江으로 둘러 싸여 作戰 및 補給支援上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 때, 포병대대는 白鶴山(汶山 北方 10km)西쪽 2km에 位置하여 연대를 직접 支援하고 美해병제11포병연대 산하 4개 포병대대와 제1전차대대 및 제1로켓포중대가 연대 火力을 補強하고 있었으나 休戰會談場所의 安全을 爲하여 射擊 및 敵對 行爲의 禁止措置를 取한 까닭으로 砲兵火力에도 많은 制限을 았다.

即 會談장소인 板門店을 중심으로 半徑 1000m 이내와 兩側 代表團의 基地인 開城 및 汶山을 中心으로 하여 各各 半徑 3mile以內 그리고 開城—汶山間의 街道양측 200m 以內지역을 如何한 敵對 行爲나 射擊 또는 彈着도 禁止되어 있으므로 類例가 드문 局限圈內에서 戰鬥을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연대가 제1사단 제15연대로부터 「James town」防禦線의 진지를 引受한 그 날부터 敵은 我軍의 戰力을 評價할 듯이 不斷한 砲擊과 夜間奇襲을 자행하였다.

이에 연대는 期間中 區域內 3개 취약지역(△155, △125 및 △87 一帶)에 대한 逆襲계획을 樹立하는 한편, 地形의 不利를 克服하고 攻勢로 轉換하기 爲한 陣地보강과 적극적 偵察활동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에 연대가 3월 31일에 隸下에 지시한 작전명령 제151호의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계속 「James town」線을 방어하려 한다.

② ㉞ 제1대대는 4월 1일 18.00부터 2일 06.00 사이에 敵陣에 對한 적극적인 偵察과 奇襲을 감행하여 捕虜를 획득하라.

㉞ 지시된 진지를 계속 補強하라.

③ 제2대대는 지시된 예비진지를 구축하라.

④ 제3대대는 別命이 有할 때 奇襲을 감행할 준비를 갖추라.

⑤ 각 대대는 연대역습계획에 따라 自隊역습계획을 4월 3일까지 完成하라』

(2) 작전실시

4월 1일: 연대는 이날 大院里(開城 東北方 11km)일대에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南進中이라는 情報을 入手하였을 뿐, 別다른 敵情 없이 진지보강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美해병사단과 右隣接의 美해병제5연대와 火力지원에 관한 協調를 끝냈다.

그리고 예하 각 대대에는 敵의 빈번한 야간정찰과 기습에 철저히 對備할 것과 捕虜획득에 적극 노력할 것을 再強調하는 가운데 날이 저물었다.

그런데 이날 22.00를 期하여 敵은 일제히 砲門을 열고 마침내 2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 泗川江을 건너 연대 주저항선의 제1, 제3 兩대대의 戰鬪지경선 사이로 奇襲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東河 대령은 즉각 다음과 같은 作命을 예하에 下達하고 作戰을 指揮하였다.

『① 제1대대는 現 前哨線을 확보하고 주저항선 전방에서 敵을 擊滅하라.

② 제3대대는 現 주저항선을 확보하고 敵을 擊滅하라.

③ 제2대대는 제1 및 제3 양개대대지역에 逆襲할 준비를 하라.

④ 증포중대는 제1 및 제3 양개대대를 직접 지원하라.』

이리하여 각 대대가 전개한 戰鬪의 경과를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1대대(장, 南相徽 중령)는 이날 12.00에 제1중대 제2소대에서 6명의 埋伏隊가 部隊를 出發하여 野山稜線을 따라 泗川江 下流로 前進 知琴里교량이 바라 보이는 隱蔽된 지형을 占據하고 對岸의 敵情을 살폈다.

날이 저물자 埋伏隊는 경계위치를 江 堤防 後斜面으로 推進하고 계속 敵을 探知코자 하였는데 22.00에 突然 敵陣으로부터 박격포탄 數발이 제3대대와의 接境지역에 集中하면서 1개중대 규모가 泗川江을 渡涉하여 제3소대 前面을 通過한 다음 제2소대 左側方을 向해 接近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제3소대는 먼저 이들과의 交戰이 開始되어 81mm砲로 應射하였으나 敵은 제3소대의 左後方으로 迂回하여 水冷式 중기의 支援을 받아 가면서 제1중대 本部지역을 突破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1중대장 金景鴻중위는 대대에 砲兵支援을 요청하는 한편 중대 全火力을 本部 正面에 集中하여 그들의 進出을 阻止코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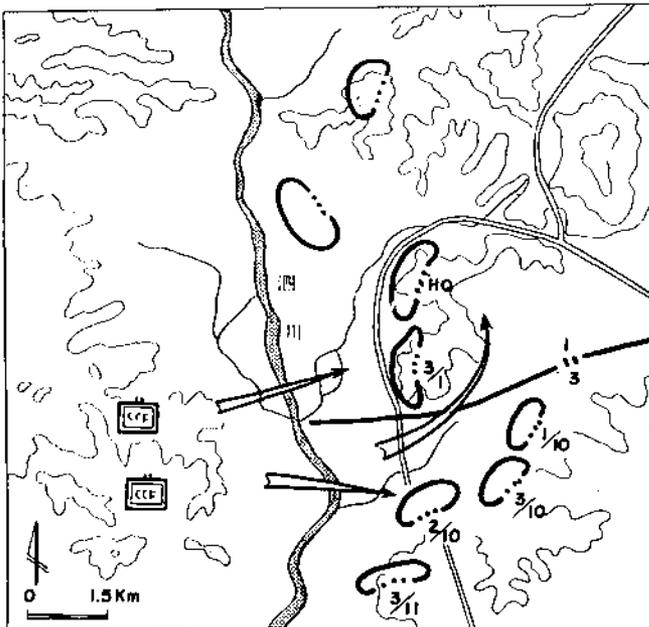
23.20에는 我軍의 155mm砲가 增援되어 그 威力을 誇示하니 敵은 마침내 潰走하기 始作하였으며 特히나 제3소대 正面에서는 미처 收容하지 못한 부상한 醜虜들의 신음 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

한편 22.40에 제3중대 제3소대 主抵抗線 前方에서 地雷가 폭발함으로써 敵의 침투가 폭로되어 銃擊戰이 전개되었으며 또한 거의 同時에 제3중대 本部지역에서도 交戰이 벌어졌다.

이때 대대장, 南相徽 중령은 제1중대지역에 集中하던 火力을 제3중대지역으로 轉換시키는 한편, 敵이 侵透하여 대대 後方의 臨津江 교량을 폭파할 것을 憂慮하여 23.00에 新兵교육대로 하여금 一部는 敵의 主要 침투로를 遮斷케 하고 다른 一部로서는 교량경계를 補強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제1중대 本部지역에서는 殘敵의 一部가 最後발악적인 돌파를 시도하여 00.50에 또다시 小火器와 수류탄이 빗발치는 격렬한 交戰이 전개되었다.

◇ 상황도 제67호 泗川江부근 前進障地 제1차전



한편 제3대대(장, 韓禮澤소령)는 이날 20.30에 제10중대 제1소대에서 14명의 埋伏隊가 部隊를 출발하여 1시간 뒤에는 1.5km 더러진 泗川江邊 堤防에 配置완료하였다.

그런데 22.00에 돌연 敵陣으로부터 120mm, 150mm, 82mm 등 각종 砲가 일제히 砲門을 열어 我軍진지를 強打하기 始作하였다.

이어 敵 보병이 泗川江을 渡河하여 그 先頭 부대는 이미 제1, 제3 兩대대 戰鬥지경선 사이로 침투하였는데, 그 兵力규모는 2개대대로 推定되었다. 埋伏隊

는 이들 敵과 交戰을 벌이면서 本隊로 철수하였는데 그들은 △28 前面에 이르러 部隊를 左右로 兩分하여 一部는 제2소대가 占領방어하고 있는 △87로 一部는 제10중대 본부지역으로 尙해 피리와 쟁과리를 불고 치면서 狂波 같이 밀어닥쳤다.

이리하여 제1 제3兩소대가 敵의 後續부대를 遮斷하기 爲하여 △28일대에 火網을 구성하고 있는 동안에 敵의 主力은 24.00에 이미 제2소대와 중대 본부진지에 밀어붙고 있었다.

敵의 砲彈은 제10중대 본부진지내에 集中되어 81mm追擊砲陣地가 무너지는 순간 砲班 요원들은 인접해 있는 有蓋壕에 掩蔽하였다.

前方소대를 돌파한 敵은 피리와 쟁과리를 앞세워 중대 본부진지로 기어오르자 砲班 요원들도 小銃으로 이에 對抗하였다.

이때 81mm사수 秦一植일병은 砲班長으로부터 『즉시 砲를 운반해 오라』는 명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 나갔으며 砲진지에 도착하여 砲脚을 풀어 돌고 다시 뛰어들어 進入할 때 敵의 射擊을 받았다.

그런데 副射手는 이때 뛰어나가 砲身을 운반해 壕에 들어가다가 敵의 集中사격을 받고 쓰러졌으나 流血을 무릅쓰고 악착같이 砲身을 안은채 壕內에까지 들어가 임무를 다한 다음 쓰러졌다.

그로부터 2시간여에 걸쳐 彼我間에 一進一退를 거듭하는 血戰을 계속하였으나 중대는 衆寡不敵으로 마침내 △87 後方능선으로 일단 철수하였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2대대(장, 朴成哲소령)는 연대 作戰명령 제152호에 따라 逆襲준비를 완료하고 待期中이었는데, 이날 子正에 行動을 開始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6, 제7兩개중대를 각각 제1, 제3대대로 出動케 하였다.

4월 2일: 敵의 奇襲이 奏効하여 我軍의 戰勢가 점차 불리해지고 제1 및 제10 兩개중대 진지의 一角이 敵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연대장 金東河대령은 逆襲을 敢行하여 主抵抗線을 回復할 것을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제153호)를 긴급 하달하였다.

- 『① 연대는 제1 및 제3 兩개대대 正面에 침습한 敵을 逆襲으로 擊退코자 한다.
- ② 제1대대장은 正面의 敵을 擊退하고 現진지를 確保하라.
- ③ 제3대대장은 제10중대 진지에 逆襲을 실시하여 이 진지를 탈환하라.
- ④ 제2대대는 別命이 有할 時 逆襲을 敢行할 준비를 갖추라.
- ⑤ 搜索소대는 02.30까지 石浦도로 兩側 高地를 占領하고 臨津江교량을 確保하라.
- ⑥ 연대 본부중대장은 임시 예비대를 健全하고 別命을 기다리라.
- ⑦ 各 부대는 辛병교육대원을 敵의 침투 예상 지점에 배치하라.』

이리하여 연대는 敵을 격퇴하는데 必要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천하였는데 各 대대에서 展開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대 제1중대 본부는 지난 밤 23.30에 再開된 敵의 緊요한 공격을 받아 중대장 이하

全본부 요원이 CP를 固守코자 悲壯한 決意로 勇戰奮鬪한 결과, 이날 00.50에 敵을 마침내 擊退하는데 성공하였다.

중대장 金景鴻중위는 즉시 聽音경계병 2명을 前方에 配置하는 한편, 破壞된 陣地를 보수하고 再侵에 對備하였다.

이런 가운데 02.00에 진지 左側前方에 潛伏하는 청음경계병으로부터 제3소대 方向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린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어서 이들은 1개소대 규모로써 진지에 接近中임이 確認되었다.

이리하여 03.00에 81mm 조명탄 발사와 함께 일제 사격을 加하자 이들은 거의 撲殺되고殘敵 수명이 陣地를 橫斷하여 중대 右側 前方의 한 작은 마을로 潰走하여 學校 건물안으로 潛入하였다.

이에 중대원들은 學校와 民家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만 소화기 사격으로 敵을 追擊하고 81mm는 그 주변을 砲擊하였다.

그리고 04.00부터 연대의 105mm 및 4.2"砲는 주저항선 前方에 있는 敵의 예상 退路와 泗川江 연안에 集中포격을 加하였다.

05.30에는 제2 및 제3 兩個중대에서 각각 1분대씩 抽出된 搜索隊가 戰車5대에 分乘하여 前哨지역을 搜索하고 06.00에 戰車 10대로 再次 搜索을 실시하여 곳곳에 즐비한 敵의 屍體와 遺棄資材를 收集하였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2대대(장, 朴成哲 소령)는 逆襲準備를 완료하고 대기중, 연대 作命 제153호에 의거하여 이날 子正을 기해 부대를 出動시켰다.

即, 대대는 제7중대, 제6중대 및 대대본부順으로 예비대대 진지를 出發하여 00.45에 제3대대 후방 CP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제7중대는 제3대대 예비진지에 配置하는 한편 제6중대는 제1대대 제3중대 지역으로 轉進시켜 02.00에 配置완료하였다.

그리고 03.15에는 제7중대를 제3대대 예비진지로 부더 제10중대 陣地로 轉進시켜 一線의 防備를 補強하였다.

이와같이 대대가 逆襲부대로서의 役割을 充分히 다하지 못한 것은 適時에 投入되지 못한 까닭으로 敵은 이미 주저항선 부대에서 擊退한 다음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06.00에 연대로 부터 撤收명령을 받고 06.20에 제6중대를 제1대대 제3중대 지역으로부터 出發시켜 10.00에 本隊에 歸隊토록 하였으며 제7중대는 19.30에 철수를 개시하여 21.20에 原隊복귀하였다.

한편 제5중대(장, 河容守중위)는 이날 08.00에 石浦(汶山 西北方 7km)에서 搜索중대와 交代하여 臨津江교량 경계임무를 引受하였다가 10.00에 作戰개념이 變更되어 11.40에 대대로 復歸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이날 02.30에 제10중대 제2소대 진지가 敵에게 奪取되었는데 이때 중

대장 盧元根중위는 즉시 중대 全火力을 제2소대 陣内に 集中하는 한편 指揮하던 제1소대를 逆襲부대로 하여 右側方으로부터 逆襲을 감행케 하였다.

이에 미처 再編의 겨를이 없었던 敵은 豫想치 않던 方向으로부터의 逆襲에 당황한 나머지 右往左往하다가 陣地에 突入한 海병들에 依해 撲滅되었으니 陣内는 삼시간에 修羅場이 되고 硝煙이 가득하였다.

이리하여 陣地탈환에 성공한 제10중대는 06.00에 增援된 제3대대 제7중대에게 陣地를 잠시 引繼하고 대대 豫備隊 위치로 복귀하여 戰列을 一新한 다음 19.00부터 原位置에서 從前과 같이 병력을 전개 完了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은 이 기습공격에서 慘敗한 이래, 韓國海병대의 強한 戰力과 왕성한 士氣에 萎縮되어 정찰 및 기습활동이 현저하게 弱화된 반면 心理戰 활동으로 轉換한 듯 蠶夜로 확성기를 이용한 常套의인 허위선전에단 狂奔하였다.

한편 4월 10일 美해병제1사단으로부터 作戰計劃 52-4호가 下達되었는데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韓國해병제1연대는 담당 구역내 「James Town」선을 계속 強化하면서 이를 방어하라.

② 주저항선의 경계를 強化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前進진지선을 확보하라.

③ 別命이 有할 時, 제한된 공격작전을 감행할 준비를 하라.

④ 담당 구역 前方 「Wyoming선」을 補強하여 何時라도 占據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⑤ 지역내 住民을 臨津江 後方으로 철수시키라』

또한 이때 敵 1개연대가 연대 正面에 增配되고 있다는 諜報를 入手하였는데 이는 그간 豫備로 있던 제585연대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를 好機로 삼아 즉각 積極의인 攻勢방어로 轉換하였는데 그 戰術的目的은 첫째 勝勢를 계속 維持하여 作戰의 主導權을 掌握하자는 것이고 둘째, 敵에게 不斷한 壓力을 加하여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며 셋째, 敵의 捕虜와 裝備를 노획하여 敵情을 探知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연대가 4~8월중 地域内에서 실시한 주요작전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4월 5일 연대작전계획 제2호에 의거 제3대대에서 제10중대장 盧元根중위가 指揮하는 2개소대의 奇襲隊가 치밀한 砲支援 계획아래 夜陰을 이용, 敵의 前進진지에 奇襲을 감행하여 敵 12명을 射殺하고 기타 武器 다수를 노획하여 敵陣에 큰 손실을 입히고 철수하였다.

2. 敵은 이에 對한 報復조치로 4월 17일 밤에 제1대대 제1중대 지역내 砲擊을 加하면서 1개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侵襲하였으나 待機中인 海병들에 의해 오히려 擊滅되었으니 이때에 敵 사살 36명에 기 관총 3정, 다발총 2정 수류탄 32발 등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3. 5월 3일 연대작전계획 제4호에 의거 제1대대 제3중대에서 金永夏 소위가 指揮하는 2개분대의 奇襲隊가 敵의 前哨인 △34에 야간기습을 감행하여 敵 12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4. 6월 29일 연대 작전계획 제10호에 의거 제1대대에서 鄧소위가 指揮하는 3개분대의 奇襲隊가 敵陣에 夜襲을 감행하여 敵 「방카」 3개소를 破壞하고 敵 27명을 射殺한 다음 철수하였다.

이와같이 적극적으로 전개한 攻勢활동은 7,8월에 들어 霖雨로 말미암아 泗川江 渡河가 어려워지자 일단 中斷되었다가 다시 續開되었는데 그 間에도 彼我間에 間歇的인 砲擊과 확성기를 통한 宣傳戰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4월 1일에 전개된 이 전투에서 거둔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 殺	68명	戰 死	2명
捕 虜	6명	負 傷	13명
鹵 獲		失 踪	6명
手 榴 彈	7개		

§ 參戰者의 證言

◇ 제3대대 제12중대 81mm사수 秦一植
일등수병(1965. 4. 14 제1여단에서, 상사)

나는 당시 제3대대 중화기중대 81mm 사수로써 제10중대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그날 초저녁 쫓겨서 敵은 일제히 포격을 加해 왔다.

우리도 즉각 응사할 하였지만 陣內에 敵의 命中彈이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砲班전원은 옆에 있는 有蓋「방카」로 일단 피신하였다.

이때 前方소대는 이미 돌파되었는지 敵의 피리와 팽과리 소리가 가까워서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때 분대장은 砲가 위험하니 빨리 운반해 오라고 명령했다. 내가 먼저 뛰어나가 砲다리를 풀어 들고 들어오는데 敵의 사격을 받았으나 무사하였다. 다음에 부사수가 뛰어나가 砲身을 운반해 들어오다가 역시 집중사격을 받고 쓰러졌으나 유혈이 낭자한 채로 끝내 포신을 「방카」안까지 끌고 들어왔다.

◇ 연대 작전주임장교 趙性後대위
(1965. 4. 14 해병제1여단에서, 대령)

내가 연대 작전주임장교로 부임한지 3일 뒤에 敵의 奇襲을 받았는데 갑자기 주저항선 쪽에서 포격소리가 들려오더니 제3대대 작전장교로부터 敵2개대대 규모가 공격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敵의 포격은 정확하여 연대에도 적중하고 있었다.

敵의 보병이 我軍진지에 공격을 감행하여 주저항의 일부가 돌파되었다. 그런데 이때 예비대대의 역습계획의 차질로 결국 자경에야 출동시켰고 예비대가 「MLR」에 도착한 것은 이미 敵이 격퇴된 새벽이었다.

나는 그때 역시 역습계획은 사전에 역습방향과 진입통로 그리고 시간 계산이 면밀하게 세워져야 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4.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二次戰(1952년 9월 5일부터 1952년 9월 20일까지)

(一名, 魂飛高地 戰鬪)

참조: 별책부록 제 23 호
상 황 도 제 68. 69. 7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제 1연대	장	준장	金 錫 範	화기중대 중	장 중위 姜 三 黃
제 1대대	장	소령	咸 德 昌	제 3대대	장 소령 安 昌 寬
제 1중대	장	중위	金 景 鴻	제 9중대	장 중위 桂 炳 道
	장	중위	金 勇 鏞	제 10중대	장 중위 盧 元 根
제 2중대	장	중위	朴 熙 泰	제 11중대	장 중위 趙 容 熙
	장	중위	朴 天 雷	중화기중대	장 중위 崔 庸 煥
제 3중대	장	중위	金 昶 元	지원부대	
중화기중대	장	대위	林 一 敬	砲兵대대	장 소령 鄭 滿 鎭
제 2대대	장	소령	朴 成 哲	연대 수색소대	
제 5중대	장	중위	河 容 守	美海兵 전차중대	
제 6중대	장	중위	金 景 山	美海兵 제 11포병대대	
제 7중대	장	중위	安 徹 煥	美海兵 戰爆機	
			敵	軍	
中共제 65군	장	蕭 應 棠		(제 583, 제 584, 제 585연대)	
// 제 193사단	장	張 雲 龍		中共 제 8 砲兵사단	
// 제 194사단	장	趙 翁 勳		(제 45, 제 46, 제 47연대)	
(제 580, 제 581, 제 582연대)				中共 제 8 砲兵사단	
中共제 195사단	장	阮 平		(제 403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海兵第 1 연대는 1951년 中東部 戰線에서 美海兵제 1 사단(美제 10군단 산하)에 배속되어 秋季作戰

에 參加하여 月山嶺戰鬪가 끝나자 겨울 동안에는 “Punch bowl” 北쪽에 設定된 Hays 防禦線에서 搜索戰을 전개하다가 해가 바뀔에 따라 首都防禦의 새로운 任務을 맡고 西部戰線으로 移動하게 되었다.

1952년 3월 17일에 연대는 美海兵사단 作命 52-2號에 따라 現戰線을 美제25사단에 인계한 다음, 西部戰線으로 이동하여 國軍제 1사단 제15연대로부터 臨津江 하류에 있는 前進陣地를 引受하였으나 美제 8군의 最左端 부대로서 美海兵 제 1사단(美제 1군단지휘하)에 배속되었다.

臨津江을 境界로 我軍과 對峙하고 있는 敵은 春季攻勢에 이어 戰力を 補完하고 雨季에 대비하면서 도 休戰會談의 進展에 따라 戰術적으로 有利한 地形을 확보하기 위하여 前進陣地를 둘러싼 激戰이 계속되었다.

敵은 雨季前에 새로 交代한 海兵隊에 대한 小部隊의 奇襲戰을 試圖하였는데 7~8 兩월에는 臨津江의 水位가 높아져서 渡河가 어려울뿐더러 붉은 泥土로 部隊機動이 制限되어 彼我的 砲擊戰으로만 一貫하였다.

9월이 되자 이와같은 氣候와 地形의 制約이 解消됨으로써 戰況은 一變하여 該간 補強된 前進陣地를 싸고 彼我 強力한 火力支援下에 奇襲과 偵察이 連일 계속되었다.

敵軍의 狀況: 開城을 중심으로 西部戰線에 配置된 敵은 中共軍 總司令部 예하의 第19兵團에 속하는 中共제 65군이던 제 193, 제 194, 제 195의 3개사단으로 편성되었다. 8월 30일 현재 敵은 제 195사단을 泗川江 일대에 배치하고 2개사단을 豫備隊보하여 開城 西北쪽에 배치하였다. 그중 해병연대 正面에 있는 敵은 제 582, 제 584 兩연대이다.

제 65군을 지원하는 砲兵은 제 8 독립砲兵사단 예하인 제 45, 제 46, 제 47연대와 제 31포병사단 예하의 제 403연대로 240mm에 달하는 각종 支援砲를 가지고 있으며 戰車攻擊用 90mm 바츨카砲와 57mm 무반동총부대가 開城-坡州간 道路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裝備은 2次大戰 당시 사용하던 蘇製 및 中共製이며 主된 戰術은 砲兵火力을 集中한 人海戰術로 포위하는 것이다. 敵은 戰況이 小康狀態를 유지한 7~8 兩월중에 많은 彈藥과 補給品을 저장하고 9월 初부터는 夜間을 利用하여 泗川江을 渡河한 뒤 前進基地를 빈번하게 奇襲하였다.

그들이 占領하고 있는 地形은 泗川江 對岸쪽에 있는 비교적 높은 산으로 德勿山(△288)-天德山(△203)-△275-△240 등이 南北으로 連하여 橫隔室을 이루고 있는데다 泗川江 일대의 低地帶를 瞰制하므로 防禦에 有利하였다.

我軍의 狀況: 연대는 美海兵 제 5연대와 併行하여 西쪽으로는 臨津江 하류까지 10km지역을 방어하였다. 연대장 金錫範 中장은 前方지휘소를 椴川郡 臨津面에 두고 2개대대를 前方에, 1개대대를 예비로하여 연대본부와 “自由의 다리” 일대를 偵察하여 側後方을 경계하였다.

한편 연대는 1개대대를 金浦半島에 駐屯하고 있는 美海兵연대에 배속시켜 漢江下流를 경계하고 部隊整備와 敎育訓練을 하면서 다음 戰鬪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연대의 主抵抗線 부대교대 상황을 보면 7월 7일에 主抵抗線에 있는 제 2대대를 金浦배속부대로 이동시키고 제 3, 제 5 兩대대를 前方으로 推進하는 동시 제 1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하였다.

7월 29일에는 제 1대대를 金浦에 있는 배속부대와 交代시키고 제 2대대를 연대左一線에 배치된 제 5대대와 交代하도록 하여 제 2, 제 3대대가 主抵抗線임무를 맡게 되었다.

魂飛高地 전투가 시작되기前에 泗川江岸의 偵察은 光明里-防禦洞-馬山洞-東場里-楸村-지상굴-七井洞을 따라 偵察하고 연대 수색소대는 最左端에서 金浦半島 沿岸에 있는 美海兵 DARK부대와 협조하면서 漢江下流를 경계하였다.

연대가 占領하고 있는 前進陣地 일대는 △155를 제외하고는 모두 標高 50m未滿의 丘陵과 田畝으로 된 開闊地이며 臨津江을 背後로 하여 敵의 瞰制下에 있는 不利한 地形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연대장 金錫範 준장은 8월末부터 泗川江을 徒涉할 수 있게 되자 主抵抗線부대로 하여금 前進陣地를 強化케 하면서 夜間偵察隊를 敵陣 깊숙히 은밀하게 渡下시켜 捕虜획득과 敵情을 探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主抵抗線 대대에서는 前進陣地를 構築하는 한편으로 1개소대 규모의 奇襲部隊를 편성하여 夜間에 泗川江을 渡河한 다음, 敵의 陣地를 여러번 奇襲하였으나 捕虜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9월 5일 연대에서는 기어이 捕虜를 얻고자 제 3대대에게 奇襲計劃(해병제 8089부대 작제 제 18호 09.05, 1200)을 하달하여 6일 밤에는 戰鬪偵察隊 1개소대로 敵의 前進陣地를 襲撃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6일 18.00에 대대 前進陣地에는 敵의 砲彈이 集中하면서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奇襲部隊가 泗川江을 河渡하여 馬山洞에 있는 제 10중대의 36, 37兩 前進陣地를 포위하였다.

제 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곧 제 10중대 前面에 있던 潛伏隊를 모두 철수시키고 연대의 砲兵支援을 要請하여 對砲擊戰을 展開하는 동시에 前進陣地를 侵襲한 敵을 즉각 擊退하도록 하였는데, 연대로부터는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가 下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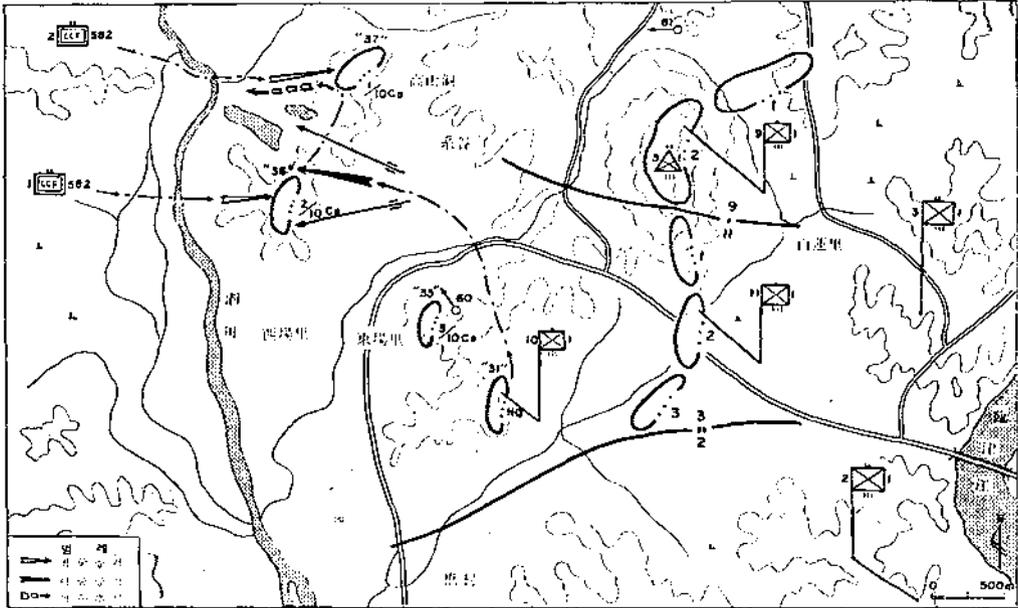
- 『① 제 3대대는 泗川江을 渡河한 敵을 陣前에서 沮止擊滅하고 계속 陣地를 確保하라.
 ② 제 3대대는 증강된 1개소대를 차출하여 主抵抗線에 있는 제 3대대 제 9중대 第 2소대의 交代케 하라.
 ③ 제 5대대장은 제 9중대 제 2소대를 36前進陣地 東쪽으로 撥動케 하여 最短時間內에 逆襲을 준비하라.
 ④ 戰車중대는 즉각 활동하여 主抵抗線에서 火力支援 및 步戰協同작전을 준비하라.
 ⑤ 연대 砲兵지원부대는 대대장 要請에 따라 직접 지원한다.
 ⑥ 美海兵隊 105mm砲와 戰爆機의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⑦ 부대지휘소는 변동이 없다.』

(2) 작전 실시

가) 36. 37前進陣地 1次防禦戰 (9. 6~9. 7)

9월 6일 : 이날 18.00에 敵은 日沒을 期하여 強力한 砲支援과 戰車 및 自走砲 지원하여

◇ 상황도 제68호 魂飛高地 제1차전



증강된 1개중대 규모로 泗川江을 渡河하여 연대 前進陣地인 36, 37目標을 포위하였다. 敵의 主攻이 指向된 36前進陣地는 제10중대 제2소대가 防禦중이었으며 37陣地는 제1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兩個의 前進陣地는 泗川江의 渡河지점으로부터 가까울 뿐 아니라 敵陣 1km 內에 있고 연대 主抵抗線으로부터 2.5km에 있는 孤立된 高地이다. 이날 來襲한 敵은 제3대대의 正面으로 對峙하고 있는 中共 제582연대 제2대대의 일부로써 빈번하게 觀測되고 接觸되어 온 부대이다.

최초 敵은 연대 主抵抗線 일대와 제10중대 지휘소가 있는 31진지 및 대대 관측소 등을 砲擊하여 교란시키려 하였으며 敵이 渡河할 때는 戰車와 自走砲가 對岸에 출현하여 渡河部隊을 엄호하였다.

泗川江을 渡河한 敵은 곧 火力을 集中시키면서 작은 언덕에 푸른雜木지대와 小河川 북을 따라 36陣地를 四面으로 포위하였다. 이곳을 防禦하는 제2소대(장, 成光植 소위)는 機關銃 2挺을 배속받아 陣地 兩側面에 배치하고 後斜面에는 60mm 박격포 陣地를 구축하여 陣地前方을 遮擋하도록 하였다.

小隊陣地가 敵의 至近거리에서 瞰制되고 있으므로 火器掩體壕와 個人壕, 砲陣地등은 모두 二重으로 資材를 사용하여 砲擊에 견딜수 있게 하였다. 소대장은 敵의 砲擊이 始作되면서 渡河하는 敵을 觀測하자 중대장 盧元根 중위에게 狀況報告를 하였다. 중대장은 徒涉지점을 비롯한 數個의 潛伏偵察組를 철수시키고 四周防禦로 陣地를 固守하도록 하였으며 연대에 砲兵支援을 要請하였다.

19.30에 敵의 砲擊은 陣地에 다시한번 集中되었으며 잠시후에는 陣地後斜面으로 延伸되면서 近接하였던 敵은 四面을 포위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突擊하였다. 소대는 연대의 砲擊으로 後續部隊를 遮斷시키는 가운데 機關銃을 비롯한 小火器사격을 퍼붓고 鐵條網을 넘어 交通壕까지 肉迫하는 敵과 격렬한 手榴彈戰을 전개하였다.

敵의 一部가 交通壕까지 突入하자 수류탄 投擲에 이어 一進一退로 塹壕 속에서는 다시 銃劍의 肉迫戰이 벌어졌다. 數的으로 우세한 敵은 한때 陣地一角을 占領하고 破壞筒으로 各掩體壕에 구멍을 내게 한 다음 TNT와 고추가루를 투척하는등 混戰이 거듭되었으나 守備兵들의 果敢한 反擊戰으로 잠시후 陣內에 突入한 敵의 一陣을 擊退시켰다.

19.50에 敵은 堅固하게 구축된 陣地를 파괴하고자 bunker와 交通壕 일대에 再次 砲火를 퍼붓고 잠시후에는 새로 增援된 다른 一隊와 合勢하여 四方으로부터 再突擊하였다. 소대는 壕속에서 砲彈을 피하였다가 敵의 砲擊이 멈추자 突擊하는 敵에게 小銃射擊을 集中하고 手榴彈으로 反擊하니 敵은 敢히 壕內部로 侵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敵은 砲擊으로 焦土화된 陣地 위로 물렸는데 이때 소대장 成光植소위는 일단 壕속으로 들어가서 近接戰을 계속하여 敵을 陣地 頂上으로 誘引한 다음 中隊長과 約定한 信號彈을 올려 TV彈을 頭上에 集中하여 쏠 것을 要請하였다.

中隊長 盧元根 중위는 즉시 有線을 통하여 特殊狀況에서만 사용되는 “Box Mine 砲擊”(師團長 許可下에 VT彈을 我軍陣地上에 集中)을 要請하였다. 잠시후 36前進陣地에는 VT彈의 彈雨가 쏟아지니 陣地를 破壞하고 內部를 공격하려던 敵은 순식간에 많은 死傷者를 내고 威力의인 “Box Mine砲擊”으로 右往左往하고 있을 때 地下壕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守備兵들은 殘敵을 향하여 突擊하였다. 이렇게 侵入한 敵을 곧 擊退하였으나 敵은 다시 砲擊을 加하고 波狀的으로 攻撃하였다. 이미 破壞된 鐵條網과 障礙物들은 彼我的 砲擊으로 焦土化되었으며 堅固하게 만들어진 소대지휘소가 무너지면서 有線 및 無線通信이 다 같이 斷切되었다.

잠시후 砲聲은 멈추었으나 소대는 再攻撃하는 敵과 숨돌릴 사이도 없이 激突하게 되고 地上을 점령한 敵과 壕를 據點으로 對決하니 小銃射擊과 수류탄의 폭음이 밤공기에 메아리쳤다. 이와같은 戰況을 中隊에서는 通信杜絶로 알길이 없었다.

이때 陣地를 지키고 있는 소대는 敵이 砲擊을 加하면 壕속으로 들어가고 砲擊이 멈추면 곧 侵入한 敵과 激突하면서 陣地를 끝까지 固守하고 있었으며 交通壕와 各掩體壕가 대부분 破壞되어 守兵들의 隱身할 곳이 없게 되니 損失은 증가되고 있었다.

20.30 敵은 數次에 걸친 波狀攻撃으로도 36陣地를 占領하지 못하자 많은 遺棄屍體를 남기고 攻擊目標을 36陣地 東北쪽에 있는 37陣地로 향하였다. 37陣地에는 제1소대(장, 李昇基 소위)가 防禦하고 있었는데, 戰鬪初에는 敵이 助攻으로 侵襲하다가 다시 砲擊을 가하면서 開闢地를 건너 37陣地를 포위하려 하였다.

소대장은 敵이 陣前에 나타날 때마다 最後沮止 사격으로 물리치고 砲支援사격으로 敵의 集結地와 進入路를 차단하니 敵은 더 이상 進出하지 못하였다. 20.50 敵은 36陣地에서 退却한 部隊과 合流하여 37陣地를 再攻擊하였으나 이미 36陣地에서 많은 戰力을 消費하였음인지 이는 退却에 앞서는 威脅의인 攻擊에 불과한듯 하였는데 殘敵은 渡河하기 前 我軍의 砲擊으로 分散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敵이 兩個 前進陣地를 占領하지 못하고 退却하려는 氣色이 보이자 36陣地와의 連繫와 아울러 아직도 包圍하고 있는 殘敵을 擊滅하기 위하여 要領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를 하였다.

『① 제1대대장은 제9중대 1개소대를 즉각 出動시켜 36陣地를 固守하고 있는 제10중대 제2소대를 지원하고 逆襲을 준비하라.

② 戰車중대는 1개소대를 36陣地까지 出動하여 逆襲부대를 지원하라.

③ 砲兵대대는 敵의 退路를 계속 砲擊하라.』

한편 美海兵 제1사단은 155mm砲 支援을 계속하면서 兩個의 前進陣地는 반드시 確保하라는 作命을 연대에 下達하였다. 이는 만약 연대가 前進陣地를 失陷한다면 主抵抗線이 威脅을 받아 臨津江까지 철수되어야 하고 隣接하고 있는 美海兵隊 作戰에도 미치는 影響이 큰 西部戰線 最前方의 要地인 까닭이었다.

중대장 盧元根 중위는 36陣地와 通信이 杜絶되어 캄캄한 戰鬪지역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36陣地를 攻擊하던 敵이 37陣地로 攻擊方向을 바꾸어 支援射擊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大隊 및 聯隊에서와 같이 36陣地가 敵에 完全占領된 것으로 斷定하게 되었다.

21.00에 美海兵師團으로부터는 失陷된 36陣地를 즉각 逆襲奪還하라고 促求하면서 砲擊이 다시 한번 集中되었다.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逆襲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제9중대 제2소대를 出動시켜 36陣地 下端部에서 攻擊命숨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때 제10중대 지휘소에는 예상외로 36陣地를 脫出한 兵士를 맞아 通信杜絶된 이 후의 狀況을 알게 되었다. 즉 戰鬪중 소대장 및 선임하사는 砲彈으로 壕가 무너져서 戰死하였으나 나머지 小隊員은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脫出兵의 報告後의 狀況은 小隊長이 지휘중 彼我的 砲擊이 間斷없이 集中되자 소대 본부壕가 무너지면서 重疊된 木材가 던져서 負傷을 입고 埋沒되어 失神되었었다. 잠시 후 선임하사 金福鉉 二等兵은 精神을 차려 한줄기 光明을 따라 帶劍으로 空氣筒을 확장하던 중 陣地를 固守하고 있던 隊員들을 發見하게 되었다.

9월 7일 :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작은 陣地를 둘러싸고 잠시동안에 主客이 여러번 바뀌는 混戰狀況에서도 守兵들은 끝내 敵을 몰아내고 小隊長이 있는 破壤된 壕 주변으로 모여들었으며 壕 속에서 先任下士의 목소리를 듣고 救出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대장은 혼수 상태였으므로 先任下士가 殘留隊員을 지휘하여 60mm砲진지로 集結시켜 再編成 즉시 營

戒에 任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을 연락할 방법이 없자 소대는 파괴된 방카에서 SCR-300 無電機를 修理하였으 며 이때 어두운 陣地에서 分散되어 있던 敵은 陣地 東北쪽에서 再編과 동시에 攻擊方 向을 37陣地로 돌렸다. 잠시 후에는 通信機가 修理되어 中隊本部와 交信이 되었다.

아직도 제2소대가 36陣地를 確保하고 固守중이라는 急信을 받게 되었으나 중대장은 이 것이 敵에게 捕虜가된 隊員의 本意아닌 交信 인지 最後一刻까지 陣地一角을 確保하고 있는 兵士들의 것인지 疑心하게 되었다.

중대장은 이를 確認하기 위하여 2명의 隊員을 中隊本部까지 보내도록 하니 02.40에 到着함으로써 敵과의 反復된 肉迫戰과 砲擊下에서도 어둠과 地下壕를 利用하여 끝까지 싸워 敵을 擊退하였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대대장은 이와같은 戰況을 確認하자 다음과 같은 要旨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제9중대 逆襲部隊는 戰車支援隊와 함께 現待機지점인 糸谷里 언덕으로부터 進擊하 여 제2소대와 合勢하여 前進陣地를 確保하고 敵을 追擊하라.
- ② 工兵小隊는 日出前까지 鐵條網을 36陣地로 推進시켜 補修作業을 실시케 하라.
- ③ 搜索小隊는 日出時를 前後하여 36陣地 周圍를 수색하라.
- ④ 軍需主任은 진지보수에 필요한 資材를 日出前까지 推進케 하라.
- ⑤ 醫務隊長은 戰死者 및 負傷者를 최단시간내에 수용하라.』

03.20에 위와 같은 要旨命令에 따라 제9중대 逆襲小隊는 金東燦 소위 지휘하에 出動한 戰車 1개 소대를 先頭로 하여 糸谷里 언덕으로부터 36陣地로 前進하였으며 03.30에는 지 금까지 彈雨속의 血戰에서 陣地를 固守하고 있는 殘留部隊와 함께 再編 配置하였다.

소대는 우선 死傷者를 後送하고 陣地를 補修하기 始作하였으며 언대에서는 敵의 豫想退却 路에 대하여 砲擊을 加하고 敗走하는 敵을 追擊하였다. 이때 泗川江 너머 敵陣에서도 分散 退却하는 殘敵을 掩護하기 위하여 對砲擊戰이 展開되고 36, 37 兩陣地에 砲彈이 集中되었다.

05.00에 逆襲部隊가 敵을 追擊하고 있는 동안 美海兵隊에서는 火焰放射器를 장치한 戰 車 1개소대가 出動하였으나 逆襲時間내에 到着하지 못하였으므로 待機하고 있던 연대전차 와 함께 36陣地 전방까지 進出하여 泗川江 일대에 威嚇射擊을 加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43명	戰 死		12명
殺 傷		60명	負 傷		10명
鹵 獲	다 발 총	3정			
	수 류 탄	136발			
	파 괴 통	6개			

(나) 36前進진지 2次방어 및 탈환전(9.19~20)

연대는 36前進陣地를 공격한 敵을 격퇴하자 곧 部隊를 交代하면서 前進陣地를 다시 구축하고 障礙物을 시설하여 陣地를 보장하였다. 9월 8일 제3대대는 前進陣地 36과 37을 맡고 있는 제10중대를 제11중대와 交代시켰으며 11일에는 金浦半島 임시연대에 配屬된 제1대대와 연대 예비대로 있던 제5대대와의 임무를 교대시켜 部隊整備를 하였다.

한편 主抵抗線에 配置된 각 대대는 前方과 泗川江일대에 대한 偵察을 強化하였으며 9월 19일 36陣地에 대한 敵의 2次攻擊이 있을 때까지 小隊규모의 偵察奇襲隊를 渡河시켜 敵陣을 여러차례 攪亂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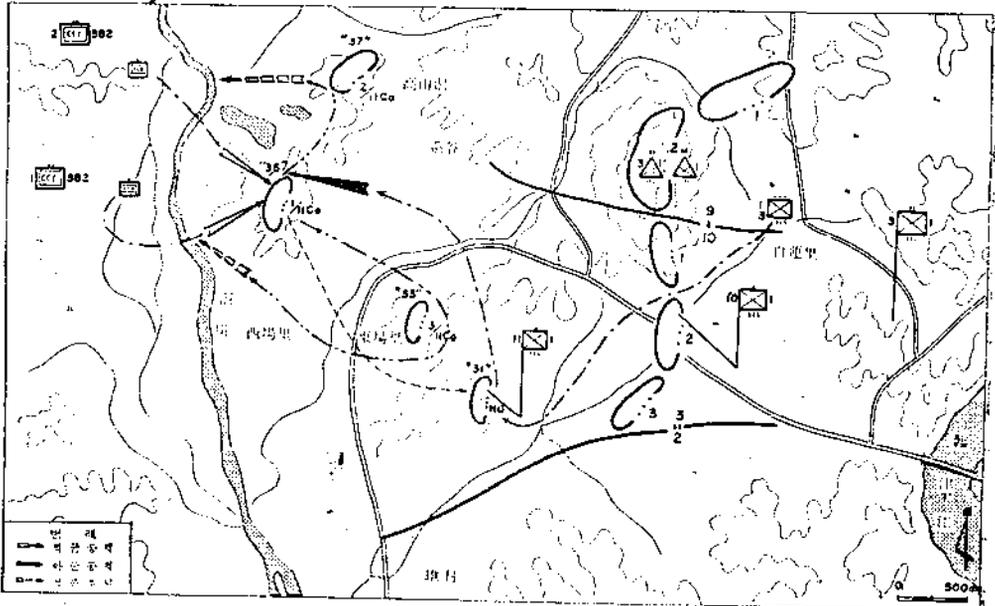
즉 13일 제2대대 제6중대는 偵察隊를 편성하여 夜間渡河로 中共軍의 前進陣地를 破壞한 다음 귀대하였으며 17일에는 제3대대 10중대에서 編成된 偵察隊가 은밀히 渡江하여 敵의 砲陣地와 施設物을 파괴하였다.

한편 西部戰線을 맡고 있는 美海兵제1사단은 「James town」 防禦線의 一部를 다시 調停함으로써 연대에서는 金浦半島와 開城—汶山間의 國道 以東 지역에서 臨津江—泗川江—漢江下流의 複雜한 地形을 맡아 水陸兩面의 警戒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미 1個聯隊의 增編을 위하여 金浦半島에서는 임시로 파견된 1개대대를 基幹으로 하여 지금까지 연대를 지원하던 美海兵隊 전차중대와 水陸兩用 장갑중대 그리고 砲兵대대와 RKT砲중대 등이 똑같이 한국해병대에 필요하게 되어 이에 준한 연대편성에 拍車를 加하고 있었다.

기간중 敵은 9월 6일의 奇襲戰에서 損失을 보고 退却하자 泗川江 연안에 있던 砲陣地와 對戰車진지 등이 새로이 補強되었다. 특히 연대와 對峙하고 있는 中共 제582, 제584 兩연대에서는 연대 主抵抗線 일대에 대한 砲擊을 계속하고 泗川江 沿岸에서는 彼我的 偵察

◇ 상황도 제69호 魂飛高地 제2차전



隊가 빈번한 射擊戰을 展開하면서 다음 戰鬪에 대비하였다.

연대에서는 敵의 새로운 陣地가 觀測되거나 航空偵察로 발견된 敵의 彈藥庫 砲陣地, 交通線뿐만 아니라 復舊作業中인 敵에게 砲擊을 加하였다. 9월 7일부터 19일까지 연대砲兵과 戰車部隊가 敵陣에 砲擊을 하여 얻은 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 사살 56명, 負傷推定 63명, 擄破塹 65個, 砲진지 파괴 14개이며 연대에서도 敵의 砲擊으로 戰死 8명, 負傷 17명을 보게 되었다.

9월 19일: 泗川江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前進陣地에 대한 奇襲 및 爭奪戰은 西部戰線에 局限된 것은 아니었으며 板門店에서 休戰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동안 戰線이 膠着된 상태에서 드러난 戰況이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友軍이나 敵軍이 이미 確保된 지역에서는 一寸의 땅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心算으로 聯隊, 師團의 火力이 작은 前進陣地 하나를 놓고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泗川江의 橋頭堡의인 役割을 하고 있는 魂飛高地(36陣地)에 대해서도 작은 徒涉지점을 確保하기 위하여 彼我的 對火力戰과 小隊규모로부터 大隊규모에 이르는 偵察戰이 끊이지 않았다. 敵은 19일 18.00를 기하여 1次奇襲戰에서 많은 損失을 입고 敗走한 事實을 窺하고자, 치밀한 計劃과 晝間에 欺瞞戰까지 벌이면서 大隊규모의 병력으로 再侵하였다.

敵은 이날 15.00에 魂飛高地 前方에서 小部隊를 渡河시켜 연대 潛伏隊와 잠시동안 銃擊戰을 展開하고 敗走하는 양 退却한 다음 3시간 후인 18.30에는 제3대대 지휘소를 비롯한 主抵抗線 일대와 제11중대 관측소 그리고 2個 前進陣地에 3,000여발의 砲彈을 炸裂시키면서 1次로 2개중대 규모의 敵이 波狀으로 攻擊하였다. 敵은 渡河部隊를 은폐하기 위하여 煙幕彈으로 泗川江 徒涉지점 일대를 遮障하였고 전차 4대가 出現하여 ㉟—㉞—㉟—㉠ 前進陣地를 포격하면서 進擊하였다.

연대장은 이날밤 計劃되고 있던 제1대대의 夜間奇襲作戰을 중지시키고 전투를 하고 있는 제3대대에 前進陣地 주변에 있는 潛伏隊들을 우선 철수시켜 防禦戰에 對備하도록 하였다. 한편 연대에서는 砲兵射擊으로 對火力戰을 하면서 出現한 전차 4대에 포격을 加하여 자취를 감추게 하였고 제1대대로부터 증강된 1개소대를 급히 차출하여 제3대대에 배속시켜 主抵抗線방어에 만전을 期하였는데 연대作命의 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3대대에 魂飛高地에 내습한 敵을 陣前에서 저지 섬멸하고 陣地를 固守하라.
 ② 제2대대는 현 방어지역에서 敵 공격에 대비할 것이며 隣接부대로서 제3대대를 側方에서 掩護하라.
 ③ 제1대대는 연대 예비대의 임무를 계속하면서 증강된 1개소대를 차출하여 즉각 제3대대에 배속하라.
 ④ 砲兵대대는 敵출현지역에 砲擊을 加하고 鐵車를 제압하라. 重砲 2門을 △155 후방까지 推進시켜 전투간 火力支援을 실시하라』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연대작명으로 敵에 接近路를 砲擊하도록 하면서 陣地로 물려오는 敵에 81mm 砲를 集中시켰다. 또한 隣接한 37-31 前進陣地에서도 敵의 助攻部隊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제9, 제10 兩중대는 側後方 엄호부대로써 협조하도록 하고 제11중대장 (趙容熙 중위)으로 하여금 至近거리에서 60mm 迫擊砲 및 輕機關銃으로써 西北쪽으로부터 물려오는 敵에게 일제사격을 실시토록 하였다.

敵은 36陣地를 主攻으로 하여 梯波로 侵透하였는데 進擊에 따라 前後로 砲擊하여 後退하면 自隊砲擊에 희생되는 戰術으로써 決死의으로 肉迫하였다. 이곳을 守備하고 있던 제11중대 제1소대(장, 李春夢 소위)는 敵彈이 陣地에 쏟아지자 地下陣地로 配置하였으며 敵이 有効사거리 內에 이르자 迫擊砲, 機關銃, AR소총 등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19.10에 36陣地 前方에서 鐵條網을 뚫고 陣內로 突入하려는 敵의 제1波를 격퇴하였으나 敵은 前斜面 200m의 死角地點에서 再編한 다음 공격을 再開하였다. 19.30에 200여명의 敵은 增援部隊와 合勢하여 前後로 쏟아지는 砲擊을 틈타 必死의인 侵攻으로 彈幕을 뚫고 작은 陣內로 肉迫하였으니 처참한 白兵戰이 대낮과 같이 밝힌 照明彈下에서 전개 되었다.

陣地일대에는 彼我的 砲擊으로 轟音이 진동하고 밤비마져 내리니 陣內的 黃土는 泥寧化 되어 흙투성이 속이라 白兵戰은 我軍과 敵軍을 區別할 수 없는 腥風血雨의 慘愴한 모습을 드러냈고 降雨로 弱화된 交通壕와 各種 火器掩體壕가 간단없는 砲擊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여 陣地一角을 제외하고는 隱身할 곳 조차 없게 되었다.

敵의 渡河部隊는 연대의 砲擊에도 불구하고 계속 增援되어 長蛇陣으로 출달아 孤立된 36陣地를 四方으로 포위하였고 陣前에 널려 있는 수 많은 屍體와 負傷者를 넘어 波狀攻擊으로 陣地를 뒤덮어 대부분을 占領함으로써 壕內와 壕外의 對決이 되었다.

20.00에 이곳을 守備하고 있던 소대장 李春夏소위는 全隊員을 남은 壕 속에 들어 가도록 한 다음 중대장에게 VT彈의 陣內 射擊을 要請하는 信號彈을 올렸다.

잠시후 砲支援부대로부터 VT彈에 “Box Mine 사격”이 36陣地에 集中되어 陣地上을 占領하고 있던 敵은 많은 損失을 입고 分散되었다.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狀況이 不利하게 展開되자 연대장에게 逆襲을 建議하여 곧 承認을 받았다. 즉시 제1대대에서 配屬된 1개소대를 제11중대 지휘소가 있는 31陣地의 兵力과 任務를 교대시켜 逆襲部隊를 편성하였다. 중대장 趙容熙 중위는 제3소대와 본부병력으로 역습부대를 편성하여 선임장교 林炅燮 중위로 하여금 指揮하여 36陣地로 出動케 하였다.

이때 敵은 增援된 중대병력으로 陣地를 占領하고 이어 鐵條網 안에서 交通壕를 따라 落彈 간격을 이용하여 bunker를 파괴하면서 陣地一角을 固守중인 守備兵에 壓力을 가하였다. 敵은 高爆性 TNT를 사용하여 각 掩體壕를 파괴하고 陣內를 수색하면서 별도로 再編한 1개중대 규모의 병력으로는 隣接 37陣地를 공격할 기세를 보였다.

20.20에 36陣地를 占領한 一部の 敵은 37陣地에 대하여 砲支援下에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36陣地 東北쪽 1km에 있는 鐵橋부근에는 敵의 增援部隊로 추측되는 1개 중대 규모가 泗川江을 渡河중에 있었으니 이와같은 敵의 추세를 보아 36, 37 兩 陣地를 完全히 占領하려 함이 分明하였다.

22.00에 연대에서는 敵 증원부대의 遮斷을 위하여 砲擊을 加하고 徒涉지점과 鐵橋일대에 火力을 集中시켰다. 또한 37陣地를 공격하던 敵에 대하여서도 대대 81mm 砲와 37陣地로부터 뽑어대는 阻止射擊으로써 數次에 걸친 侵攻을 擊碎하였는데 이 무렵에 泗川江을 渡河한 敵의 一部 증원병력도 遮斷砲擊으로 말미암아 夜間進出이 困難하게 된 듯 敵의 攻勢가 차츰 弱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林煥燮중위가 지휘하여 出動한 제11중대 逆襲부대는 夜暗을 무릅쓰고 36陣地 下端까지 進出하였을 때 37陣地로부터 退却중인 소대규모의 敵과 사격전이 전개되어 잠시동안 進擊이 停滯止되었다. 중대장은 逆襲部隊의 掩護와 戰鬥力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곧 2개대를 機動시켜 合勢토록 하였다.

9월 20일 : 01.00에 逆襲部隊가 目標지점을 향하여 進出하는 동안 36陣地 주변에는 敵砲彈이 계속 떨어졌으나 LD에 도착하는 즉시로 鐵條網안에서 交通壕에 密着하여 있는 敵에 逆襲 支援사격을 5분동안 要請하였다. 砲聲이 멈추자 逆襲부대는 喊聲으로 敵을 제압하고 果敢한 突擊으로 敵의 一陣을 突破하여 36陣地 南쪽을 占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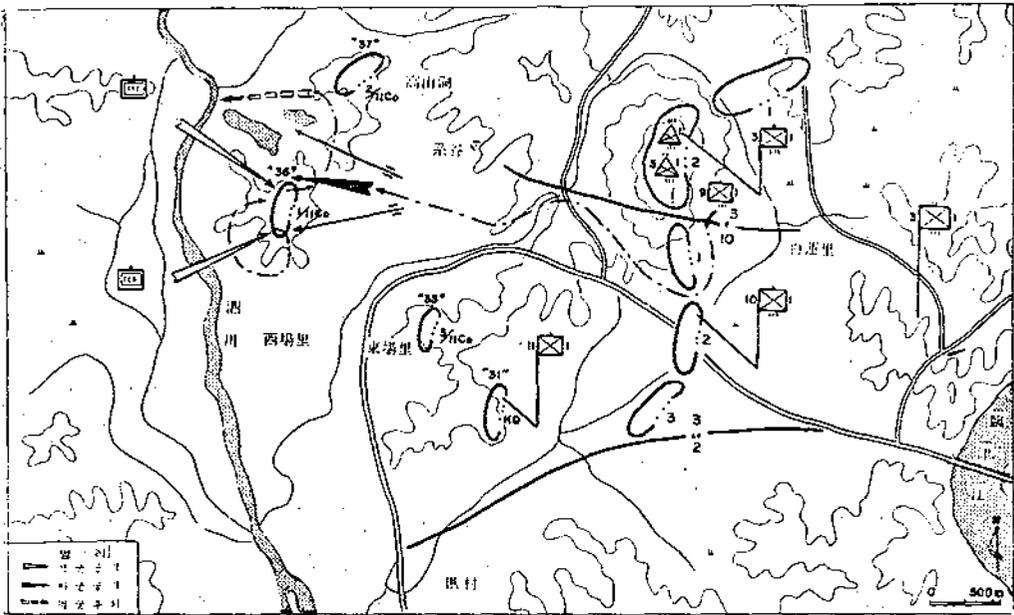
逆襲부대가 合勢하여 연대의 砲擊에 陣地外廓으로 分散되었던 敵에 공격함으로써 不毛의 36陣地에서 한 동안 白兵戰이 展開된 끝에 敵을 北쪽으로 驅逐하고자 말았는데, 이곳에서 1명의 敵을 사로잡아 後送하였다. 01.30에 逆襲部隊의 공격으로 敵은 後退하는 듯 하였으나, 36陣地 右前方 200m 지점으로부터 敵의 掩護射擊이 集中되어 더 이상의 進出이 어려웠다. 이때 陣内に 殘留하고 있는 敵들은 交通壕, 各種 화기엄체를 파괴하면서 退却하려는 氣勢였다.

02.20에 연대장 金錫範준장은 36—37—31陣地 일대에 砲支援을 계속하면서 敵勢가 退潮하고 있는 狀況에 대비하여 逆襲부대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 『① 제3대대장은 배속된 지원대의 協調下에 36陣地에 進出한 逆襲部隊로 하여금 最短時間內에 陣地를 占領하라.
 ② 36陣地에 進出한 逆襲부대는 연대장 命令없이 는 철수하지 말 것이며 陣內에 있는 我軍을 時急히 救出하라.
 ③ 제1대대장은 1개소대를 제3대대에 配屬措置하도록 하라』.

위와 같은 作命에 따라 제3대대장은 逆襲부대가 前面과 側面으로부터 敵의 사격을 받아 1時間 이상이나 停滯된채 完全 占領을 하지못하자 △155 후방에서 待機하고 있던 戰車를 機動시켜 噴響으로 敵을 欺騙토록 하고 제9중대에 命하여 逆襲지원부대로써 1개소대를 대키시켰다.

◇ 상황도 제70호 魂飛高地 奪還戰



04. 30에 逆襲부대장은 敵의 砲擊이 頂上으로 빗발치 듯炸裂하자 部隊를 LD左側으로 이동시켜 砲擊을 피하는 同時 36陣地 前方일대에 煙幕차단을 要請하여 濃厚한 煙幕이 陣地를 덮게 하였다.

05. 00에 역습부대는 2次공격을 시작하여 陣內戰이 벌어졌는데 이때 사단으로부터 促求되기를, 敵이 36陣地 北端에서 아군의 負傷者를 남치하여 砲支援下에 退却할 것으로 보이니 短時間內에 목표를 占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05. 10에 逆襲부대는 黎明을 앞두고 南쪽과 西南쪽으로부터 다시 일제 돌격을 하여 36陣地 北쪽에 있는 殘敵을 무찌르고 奪還함으로써 破壞된 壕속에서 끝까지 버틴 我軍과 敵에게 拉致되었던 20여명의 負傷者를 救出하는데 成功하였다.

敵이 前進陣地로부터 退却하기 시작하자 37陣地를 守備하고 있던 제2소대는 즉시 병력을 차출하여 先任下士官 지휘하에 西北쪽 徒涉지점으로 機動시켜 退路를 攻擊하게 하였다. 이때 대대는 黎明을 期하여 戰車 1개소대를 36陣地에 出動시켜 敵을 追擊하게 하였으며 占領된 陣地에서 負傷者들을 後送토록 하였다.

敵은 많은 負傷者를 이끌고 36陣地 300m 지점까지 退却하여 戰車의 砲擊을 피하였으나 37陣地에서 出動한 병력 側面射擊으로 退路를 차단 당함으로써 進退維谷에 빠졌다.

08. 20에 敵은 逆襲部隊의 攻擊을 받아 36陣地로부터 退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晝間에 渡河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한 敵은 強力한 掩護射擊을 받으면서 36陣地에서 再編하는 것으로 보였다.

잠시후 泗川江의 渡涉지점이 我軍砲擊으로 封鎖되자 敵은 強力한 砲支援下에 再編된 中대규모로 突然 反擊하여 또 다시 36陣地로 進擊하였다. 陣地를 奪還한지 불과 2시간으로 敵의 砲射擊을 피하여 負傷者를 後送하였을 뿐 破壞된 陣地를 補修하여 再配置할 時間을 갖지 못하였다.

발견계 露出된 36陣地는 彼我 無力한 防禦陣地였으니 역습부대가 占領한 다음 숨도 돌이킬 사이도 없이 또 다시 來襲한 敵과 近接戰이 전개되었다. 敵은 渡河하지 못하고 分散된 兵力을 집결시켜 再編한 다음 증강된 中대규모로써 泗川江을 背水로 36陣地를 單一目標로 하여 必死의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戰鬪圖이 경비를 전달하였던 自由의다리(臨津江鐵橋)>

중대는 역습부대가 작은 병력으로 陣地를 탈환하여 負傷者와 拉致되었던 戰友를 救出하는데 成功하였으나 8시간 이상의 夜間戰鬪와 數次의 白兵戰으로 實彈이 다 하였으므로 砲擊에만 依存하여 衆寡不敵인 狀況下에서 또 다시 白兵戰을 敢行한다는 것은 많은 犧牲을 強要當하게 되므로 부득이 陣地로부터 退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3대대의 逆襲部隊가 36陣地로부터 退却하자 연대는 이곳에 侵透한 敵에 砲擊을 加함으로써 美海兵 戰爆機의 出擊으로 泗川江 渡河지점에 集結하고 있는 增援部隊를 阻止하였다. 36前進陣地 頭上에 火力을 集中시켜 陣地構築과 再編成을 妨害하는 一方 한편 연대장은 즉시 36陣地를 再奪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36陣地를 공격하여 이를 奪還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中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의 공격부대를 편성하여 最短時間內에 36陣地

를 재탈환하라.

- ③ 제1대대장은 중대장이 지휘하는 3개소대를 차출하여 제3대대 主抵抗線 右側 正面을 담당케 하여 10.00까지 임무를 교대 완료하라.
- ④ 연대포병은 36陣地를 공격하는 동안 공격부대를 직접 지원한다.
- ⑤ 重迫擊砲중대 및 重火器중대는 제3대대에 配屬지원된다.
- ⑥ 사단에서 지원되는 美海兵 화염방사戰車 1개소대는 12.00까지 제3대대에 협력한다.
- ⑦ 彈藥은 2基數를 휴대하라.
- ⑧ 通信은 SCR-300 무전기를 사용한다.
- ⑨ 연대 OP는 제3대대 CP에 위치 한다.]

연대장은 위와 같은 作命을 하달하고 연대 OP를 제3대대 CP가 있는 △155로 移動시켜 09.30에는 연대장 참석하에 陣地奪還에 대한 攻擊計劃을 檢討하고 攻擊部隊와 支援部隊間의 協調를 하였다.

10.00에 제3대대장은 攻擊部隊인 제9중대의 主抵抗線 임무를 제1대대 제3중대에 인계토록 하였는데 공격 중대장 趙容煥 중위는 대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수령하자 곧 戰車 2個 小隊의 幷하에 主抵抗線을 출발하였다. 공격부대가 36陣地로 機動하는 동안 美海兵 戰爆機는 30분간에 걸쳐 36陣地와 敵의 增援部隊 집결지, 泗川江일대에 배치된 砲兵陣地를 強打하였다.

13.00에는 美海兵 화염방사기를 장치한 戰車小隊가 대대지휘소 後方에 到着함으로써 공격준비가 완료되었으며 13.20에는 105mm砲, 4.2"砲가 36陣地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13.30에 제9중대는 공격개시선인 36陣地 東南쪽 500m지점까지 進出하였으며 공격 준비사격 연신과 동시에 戰車 1개 소대를 先頭로 한 步戰協同으로 突擊을 개시하였다.

攻擊部隊의 進路는 36陣地에 접근할수록 붉은 땅으로 露出되었는데 이는 彼我的 砲擊으로 언덕이 무너지고 樹木들이 없어져서 몸을 가릴 수 있는 掩蔽物이란 찾아 볼 수 없는 붉은 裸地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9중대는 戰車 2개소대를 先頭로 하여 糸谷里 南쪽에 있는 小路를 지나 東場里 갈림길로 進擊하였다. 敵의 砲火는 泗川江 너머로부터 戰車와 뒤따르는 步兵에게 兇사이 없이 떨어졌으나 最初로 步戰協同戰을 하게 된 攻擊隊는 士氣가 드높아 36陣地에서 쏟아지는 일제사격 등 砲火를 뚫고 陣前까지 進擊하였다.

이때 攻擊部隊를 支援하는 戰爆機는 2次로 陣地와 泗川江 渡河地點 일대에 네이팜彈과 VT 彈을 炸裂시켜 敵의 增援部隊를 차단하고 砲陣地를 沈默시켰으며 攻擊部隊와 같이 進擊한 戰車는 敵陣에 直擊彈을 퍼부어 對岸에서 砲門을 열고 있는 敵의 戰車와 自走砲를 制壓하였다.

戰車小隊는 彈藥이 떨어지면 主抵抗線에서 待機하고 있는 戰車隊와 交代하면서 36陣地

에突入할 때까지 연대 砲兵과같이 間斷없는 射擊을 加함으로써 陣地를 固守하려는 中共軍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13.50에 陣地奪還을 目前에 두고 있을때 연대전방지휘소에서는 美海兵 第1師團長Poljac 少將이 訪問하여 戰況을 聽取한 결과 美海兵師團을 支援중인 戰爆機로 하여금 36陣地奪還戰에 出擊토록 要請함으로써 연대 正面에 있던 中共砲陣地는 불의 洗禮를 받게 되었다.

14.00, 攻撃부대는 새벽에 넘었던 36陣地의 鐵條網을 다시 넘어 怒濤와 같은 喊聲과 더불어 敵陣에 肉迫하여 手榴彈戰을 전개하니 白晝의 陣地는 兩陣에서 觀望되는 가운데 피의 殺戮場이 되었다. 잠시후 攻擊部隊과 같이 行動한 戰車가 陣地 左右翼까지 진출하여 또 다시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敵陣이 攪亂될 때 再突擊을 散行하여 14.20 마침내 敵을 물리치고 36陣地를 占領하여 再奪還에 成功하였다.

공격부대는 36前進陣地를 占領하자 敵陣에서 瞰制되는 가담에 곧 敵의 砲彈이 集中되었으나 海兵 勇士들은 勇氣百倍하여 殘敵擊滅과 陣地警戒에 들어갔으며 負傷者를 후송하였다. 이때 戰車는 敗走하는 敵에 계속 射擊을 加하여 支離滅裂케 하였는데 開闊地를 지나 渡河지점으로 물리고 있던 殘敵도 爆擊이 加해짐으로써 生還한 者는 少數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연대가 36前進陣地를 再確保함으로써 人海戰術과 砲擊으로 泗川江의 前進陣地를 占領하여 主抵抗線을 威脅하러던 敵의 企圖는 끝내 挫折되어 버리고 오히려 많은 兵力의 損失을 입게 되었다.

연대장 金錫範 中장은 36前進陣地의 戰鬪를 象徵하기 위하여 이 戰鬪名을 魂飛高地싸움으로 일컫게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연대는 2次に 걸친 예비대의 増員과 步戰協同으로 一晝夜의 激戰끝에 逆襲한 敵을 36前進陣地로부터 격퇴한 뒤로 敵포격으로 말미암아 陣地의 보수작업이 어려웠으나 工兵지원을 받아 鐵條網, 地雷埋設 등 障礙物을 설치하고 무너진 각 體掩據를 堅固하게 구축하였다.

泗川江을 軍事境界로 하여 彼我的 戰鬪는 加熱되어 偵察戰으로부터 奇襲戰으로 바뀌고 對火力戰과 같이 前進陣地 確保를 위한 戰鬪가 一進一退로 계속된 것은 休戰會談이 成立될 境遇, 現戰線이 軍事分界線으로 確定될 것을 고려한 까닭에서였다.

泗川江 沿岸에 配陣된 中共 第582, 第584, 兩 연대와 豫備隊인 第581연대는 最前線의 陣地構築에 熱中하여 爆擊으로 破壞된 砲陣地를 補修하면서도 次期戰鬪준비에 狂奔하고 있는 듯 하였다.

연대는 처음 體驗한 步戰協同의 利點을 活用하여 主抵抗線의 防禦計劃을 修正하는 동시 10월 1일에는 砲兵大隊, 戰車中隊, 工兵中隊의 增編과 연대본부의 戰鬪體制를 強化하여 海兵 第1聯隊를 海兵 第1戰鬪團으로 改編하였으며 初代 戰鬪團長에 金錫範 准將이 就任하였다.

10월 初부터 敵은 西部戰線에서 秋季攻勢를 始作하였는데 泗川江일대에 있는 中共軍은 2일과 30일 2次に 걸친 大攻勢로서 前進陣地가 突破되고 또 이를 逆襲占領하는 戰鬪가 反復되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射 殺	121명	職 死	53명
推定射殺	126명	負 傷	27명
捕 虜	1명	失 踪	4명
鹵獲	個人火器		
	共用火器		
	手榴彈	56발	
	對人地雷	7발	

§ 參戰者의 證言

◇ 해병제1연대 제3대대 제1중대

중위 李 敏 出

(해병제1상륙사단 G-2 보좌관)

『敵이 공격하여 오던날 나는 중대장과 같이 31陣地에 있었다. 敵의 砲彈이 수 없이 떨어지는 가운데 偵察나갔던 제3소대장이 허리 돌아와서 敵의 奇襲을 알렸다. 敵의 砲彈은 我軍陣地 要所를 正確하게 砲擊하였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敵의 OP군관이 직접 기습부대와 같이 행동하면서 彈着點을 誘導하였던 것이다.

敵은 피리를 불고 팽과리를 요란하게 쳤으며 陣地를 포위하고 前方에 있는 36陣地로 밀어닥쳤는데 이곳을 지키고 있던 제1소대는 일제사격으로 敵을 陣前에서 阻止시켰다. 그러나 敵의 波狀의인 人海鐵衛에 陣地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고 통신이 杜絶되었다.

前進陣地를 유린한 一部の 敵은 중대본부로 接近하였다. 중대본부에서는 81mm砲, 60mm砲 사격을 중지하고 소총사격으로 近接戰에 突入하였다. 이때 중대본부의 방카가 破壞되었으므로 後方에 있는 新 CP로 긴급히 移動하게 되었다.

나는 중대장 盧元根 중위와 함께 마지막까지 81mm砲 陣地에 붙어 砲를 쏘아 대다가 新 CP로 移動하였는데 당시 심한 夜盲症으로 인하여 작은 溪谷에서 낙오되어 포로가 될번하였다. 나는 어둠속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을 간간히 들으면서 3시간동안 숨어있다가 마침내 중대본부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敵의 기습으로 陣地가 포위되면 近接戰으로 1.2次는 擊退할 수 있으나 波狀의인 人海鐵衛에서는 잠시 擧 속에 隱身하거나 退却하였

다.

◇ 제10중대장 盧元根 중위

(1975. 12. 24 서울 新聞社 出版局에서

에, 대령)

敵은 해가질 무렵 36진지에 推募 4,000발의 砲彈을 集中하였다. 當時 나는 진지에서 이 光景을 雙眼鏡으로 살피면서 成寬植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해가 저서 觀測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敵砲擊이 멈추어 잠잠하여졌으나 이때는 이미 소대와 有無線이 斷切된 然後에서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때 不吉한 預감에 사로잡혔으나 곧 成寬植 소위와의 無線이 開通되어 아직도 36진지는 소대가 固守中임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들은 敵砲擊으로 有線이 끊어지고 無線 “안테나”가 亂散되어 擧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交信할 수가 없었는데 擧 속새로 有線줄을 까 “안테나”를 急造하여 간신이 중대와의 通話가 可能하였던 것이다.

이 再交信으로 成寬植 소위는 중대장인 나에게 애타게 救援을 懇請하면서 遲滯하면 中共軍에게 高地를 占領당하고 소대는 全滅을 免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副연대장 南相徵 중령에게 36진지를 逆襲으로 敵을 擊滅하고 소대의 危機를 救援코자 하니 허락해 달라고 無線으로 懇請하였다.

그런데 南중령은 『36진지에서 成소위의 救援 懇請은 敵이 成소위를 危脅하여 我軍을 欺隨하려는 計略일 것이다』라고 끝내 이를 바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36진지를 扼守하고 있

는 소대의 危險을 火急히 도우려는 대대장 吳昌寬 소령은 南 중령의 處事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원들을 저버리려 하는가』하고 맞섬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와 같이 狀況판단에 있어서 兩論이 생겨 卽刻 조치를 取할 수 없었는데 나는 成 소위에게 다시 狀況을 묻고 『全員 壕속으로 待避하라』 命 命한 다음 砲관측 장교에게 BOX MINE(註: BOX MINE 사격계획. 敵을 我軍陣地로 誘引하고 我軍은 壕속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V.T. 信管彈으로 陣地사격하는 것임.) 사격을 要請하였다.

이 要請은 그런대로 無難히 關門을 통과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後에 我軍砲가 36진지에 VT 彈을 集注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敵은 36진지 殆半을 占領하고 我軍 索出에 血眼이 되었던 모양으로 BOX MINE 사격 後에 중대의 1개 소대가 36진지로 進入하였을 때 이 VT 彈에 轟殺된 敵의 屍體가 累累하여 헤아릴 수 없었고 戰死한 것으로 알려졌던 成完植 소위를 大破된 壕속에서 救出할 수가 있었다.

◇ 전차중대 朴容九 중위

(1965. 2. 17 鎭浦補給整備團 정비부에서 중령)

전차 중대가 1952. 8. 15에 編成을 完了하게 되어 當時 해병대를 支援하던 美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 A중대와 임무를 交代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해병대는 전차중대를 가지게 되고 步戰協同作戰이 講究되었다.

9월달에 36高地 戰鬪가 벌어졌는데 우리 戰車는 그 當時에 車體가 美 해병대가 保有하는 것보다 높고 뒤에 먼지가 많이 나고 또한 鐵甲이 弱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36진지를 처음 逆襲할 적에 상당한 效果를 보았다.

때는 늦은 여름철이라 무더위에 견디지 못하여 車안에서는 옷통을 벗다 시피하여 2소대와 같이 協同하여 36진지에 突進하였더니 中共軍은

이에 겁을 먹었는지 도망갔으므로 36진지는 거 이 無血로 奪還하게 되었다.

§ 戰 訓

◇ 步戰協同

敵陣으로부터 1km 以內에서 職制되고 있는 36陣地는 沔川江의 天然 장애물이 있으나 徒涉이 可能하였으므로 我軍으로서는 오히려 孤立된 陣地였다. 또한 작은 高地 주변은 開闊地로부터 步兵만의 攻撃은 大部分 露出되므로 많은 損失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은 地形에서 最初로 步戰協同을 展開하여 地形과 戰術面에서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 補助陣地

防禦陣地를 編成할 때 主陣地 외에 補助陣地를 確保한다는 것은 戰術上 必要한 것이다. 不意의 奇襲과 人海戰術, 砲擊으로부터의 待避, 支援部隊가 到着할 때까지의 暫定的인 撤收等 効用價値가 큰 것이다.

36陣地 가까이 補助陣地가 確保되어 있었다 라면 逆襲과 再奪還時에 戰力의 消耗을 많이 減少시켰을 것이다. 때로는 補助陣地가 主陣地로써 代用될 境遇도 있을 것이다.

◇ 適切한 火力支援

適時 適切한 戰車의 火力支援이 필요하였다.

모든 攻防戰에서 勝敗를 가름하는 시간은 30分前後의 짧은 시간인 것이다. 1次 탈환전에서 火力支援 상황을 보면 敵의 渡河部隊를 阻止시키지 못하였으며 美海兵 戰車部隊는 主抵抗線 前方陣地에서 敵을 擊退한 뒤에 出動하였으므로 適時 適切한 火焰放射器의 效果를 얻지 못하였다.

火力支援部隊가 主抵抗線 가까이에서 支援할 수 있도록 配屬되어 있었다면 敵의 增援部隊를 效果의으로 制壓시킬 수 있었고 前進陣地를 掩護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泗川江부근 前進陣地 第三次戰(1952년 10월 2일부터 1952년 10월 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4 호
상 황 도 제 71~7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제 1 전투단	장	준장	金 錫 範	제 5 대대	장	중령	姜 起 千
제 1 대대	장	소령	咸 德 昌	제 51 중대	장	대위	金 學 述
제 1 중대	장	중위	金 勇 謙	제 52 중대	장	중위	林 相 龍
제 2 중대	장	중위	朴 天 雷	제 53 중대	장	중위	朴 炳 鎬
제 3 중대	장	중위	高 文 甲	제 54 중대	장	중위	李 起 恒
제 4 중대	장	대위	宋 基 兆	포병대대	장	소령	鄭 滿 鎭
제 2 대대	장	소령	徐 廷 南	제 1 중대	장	중위	金 在 善
제 5 중대	장	중위	權 重 達	제 2 중대	장	중위	曹 在 鼎
제 6 중대	장	중위	金 景 山	제 3 중대	장	중위	金 在 龍
제 7 중대	장	중위	咸 錫 倫	戰車중대	장	대위	吳 尙 奎
제 8 중대	장	중위	姜 三 貴	4.2"重砲중대	장	대위	徐 相 國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昌 寬	工兵중대	장	대위	姜 永 求
제 9 중대	장	중위	吳 正 根	右인접부대			
제 10 중대	장	중위	盧 元 根	美해병제 1 사단			
제 11 중대	장	중위	林 炅 燮	제 7 연대 장			
제 12 중대	장	중위	崔 庸 煥	대령 Thomas Moore, Jr.			
			敵	軍			
中共제 65군(제 846부대)	장	蕭 應 棠		제 577, 제 578, 제 579 연대			
제 194사단	장	趙 翁 勳		지원부대			
제 580, 제 581, 제 582 연대				中共제 8, 제 31 포병사단 基幹			
제 195사단	장	阮 平		兵力 : 6,900명			
제 583, 제 584, 제 585 연대				장비 : 152mm 유탄포 8門, 105mm 유탄포			
제 193사단(예비)	장	張 雲 龍		24門, 75mm 유탄포 24門, 120mm			

박격포 24門, 82mm박격포 72門,
61mm박격포 162門, Rocket砲 108
門, 重機 108정, 경기 484정,

57mm고사포 8門, 57mm대전차포
24門, 自動車 20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전투는 3월中旬에 斷行된 부대이동으로 美해병제1사단의 左一線부대로 板門店南 쪽에서 臨津江河口에 이르는 首都방위의 要衝을 담당 防禦하고 있던 해병제1전투단이 秋夕前夜에 人海戰術으로써 一擧에 我진지를 侵奪코자 劃策한 敵의 이른바 秋季제1차 공세를 4개의 前進據點에서 破碎한 7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攄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투는 休戰會談에서 雙方의 接觸선을 停戰선으로 한다는 基本원칙이 정해지자 그 이전에 戰線을 南下추진하려 劃策한 敵의 奸計를 分쇄하는 一斷面이라 할것이요 또한 이 무렵 全戰線의 모든 我軍이 그러하였듯이 對陣期에 있어서의 試練의 한 局面이기도 한 것이다.

敵軍의 상황: 泗川江을 사이에 두고 해병대와 對峙한 中共제65군예하 제194, 제195 兩사단은 魏飛高地전투가 있는 다음에도 蕭内里 北쪽—天德山(△203)을 地境삼아 제194사단 예하 제582연대를 我右제1선대대 正面에, 제195사단 예하 제584연대를 我左제1선대대 正面에 배치하고 제속 我前進據點을 侵襲하여 수도권방어에 위협을 加하려는 當初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듯 하였다.

즉 當面의 敵은 開城—板門店의 中立地帶 外郭선 일대지역에, 我軍의 항공 및 포사격을 피해 안전한 활동을 피하기 위한 術策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믿어진 中共제8포병사단 예하 제45, 제46 제47의 3개연대와 中共제31포병사단 예하 제403연대 그리고 軍직속의 122mm, 120mm, 105mm, 82mm, 75mm등 각종포를 추진하고 公公然하게 보다 惡辣한 집중사격을 恣行하였다.

또한 驕敵의 무리들은 前述한 中立地帶의 안전한 通路를 따라 牛馬車와 車輛으로써 連日 전투물자를 수송하고 있음이 관측되었는데, 포로 진술에 의하면 敵은 진지공사를 위한 築城材와 食糧, 탄약 등의 戰線비축에 血眼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期間中 敵의 挑發상황은 我前進진지에 대한 소대규모 탐색공격이 3件으로서 모두 △58, △36에 집중되었으나 교전끝에 도합 6具의 사체를 유기하고 퇴각한 바 있으며 포격은 9월 24일~30일에 122mm가 60발, 120mm 20발, 105mm 75발, 75mm 30발, 82mm 및 61mm가 100발로서 도합 285발이 주로 △58, △36, △50, △87등 前進據點에 집중되었다.

敵이 占領한 泗川江 西岸일대는 汝尼山(△241)—金場山(△278)—天德山(△203)—德勿山(△288)이 聳立하여 防者에 有利한 橫隔室을 이루었는데, 敵은 이들 山頂에 각종 OP를 설치하고 我軍主抵抗선까지 瞰制하였으며, 진지는 我砲사격에도 不拘하고 계속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散兵壕까지 土窟化하기에 連일 작업을 強行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또 彼我間에 장애가 되는 泗川江은 干潮時에는 徒涉이 可能하여 夜間에는 大兵力의 一齊 渡河에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我軍의 상황: 3월中旬 이래 美 해병제1사단 左一線부대로서 板門店 南側—臨津江河口의 延11km인 이른바 James town선을 防守한 해병제1연대는 계속 魏飛高地전투 후에도 同一임무를 맡아 2개대대를 前線에, 1개대대를 예비로하여 戰線을 固守키로 하는 한편 잔여 1개대대를 美해병金浦 임시연대에 배속하여 필요한 부대정비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병제1연대는 當時 右側에 美 해병제7연대와 인접하여, 美 제1군단 最左翼부대로서 臨津江 3km 西쪽에 不利한 背水陣을 치고 兵力面에 있어서 절대 우세한 中共 제65군과 對陣하였다.

연대가 占領한 泗川江 東岸일대는 개활지와 丘陵지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방어에 극히 不利한 지세였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교적 丘陵이 발달한 △155(臨津江에서 3km) 南北지대에 주저항선을 形成하고 있었고 그 前方에는 敵陣에 근접하여 39(△50)—37(△58)—36—33(△45)—31—43(△87)—50등 7개의 前進진지를 개설하고 이를 계속 前線부대로 하여금 확보케 하였다.

魂飛高地전투가 있는 직후 연대는 敵의 挑發이甚한 37(△58)과 36 兩개 前進진지 사이에 새로이 9.24라고 命名한 진지를 마련함으로써 도합 8개의 前進진지를 보유케 되었으나 이들 진지들은 항상 敵으로부터 瞰制되어 진지공사는 야간에 限하여 실시되었으며 敵 占입에 대비한 警찰 및 탐색과 監視활동은 주야 間斷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될 어려움을 겪었다.

9월 21일~10월 1일까지 敵陣에 대한 포사격은 1일평균 300여발에 달하여 火力面에서 우세를 堅持하였으며 이에 의한 戰果는 사상 34명, 진지파괴 54개, 포제압 24회, 보급소 및 주차장 제압 각 1회로 推定된 反面, 敵포사격으로 因한 損失은 전사 14명, 부상 31명이었다.

또 이 기간중에 特記 사항으로는 韓國軍 增強계획의 一環으로 編成된 포병대대(105mm), 전차중대, 공병중대와 既存제1, 제2, 제3, 제5대대를 母體로하여 待望의 戰鬪圖이 10월 1일부터 正式 發足되어 單獨戰鬪가 가능하게 된 점이라 하겠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4월 10일에 下達한 美해병제1사단 작전계획 52-4에 의하여 『담당 James town선을 占領 방어』하는 한편 同計劃 부록C에 의거 『담당구역內的 Wyoming선을 보수, 何時라도 占據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 해병대는 그후 임무에 변동없이 總計 4개대대中 2개대대를 戰線에, 1개대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當面의 敵과 對陣케 하였으며, 한편 부대정비를 위하여 1개대대를 항상 美해병 金浦임시연대배속으로 霞城에 배치케 되었다.

金東河대령의 뒤를 이어 연대장에 취임한 金錫範준장은 5월 10일 연대임무 수행을 위한 方案을 검토끝에 예상 敵 侵襲지역을 분석하여 이미 下達된 3개지역에 대한 연대역습계획(4.19부)을 要約,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게 되었다.

- ① 敵은 1지역(△155北쪽 구릉지대), 2지역(주저항선 左右제1선대대의 제한점), 3지역(臨津江에 沿한 주저항선 左端)에 침습함을 豫想한다.
- ② 敵侵襲 즉시 연대예비대대 2개중대는 ①항 1, 2, 3지역에 설정한 LD에 진출, 화력으로써 敵의 침입을 제한하고 역습을 감행한다.
- ③ 역습부대장은 OP를 설치운영하고 역습부대를 지휘한다.
- ④ 敵의 侵襲으로 주저항선 일부가 돌파되었을때 右제1선대대 및 左1선대대는 주저항선 일부를 조정하여 화력으로써 역습부대를 지원한다.
- ⑤ 전차 1개소대는 신속히 출동하여 침습지역(1. 2. 3지역)에 진지를 점령하고 역습부대를 지원한다.
- ⑥ 75mm무반동총소대는 화력으로 역습부대를 지원한다.

- ⑦ 105mm야포는 탄약을 구성하여 후속부대를 차단한다.
- ⑧ 화력계획에 따라 집중 및 최후저지사격을 실시한다.
- ⑨ 상황에 따라 예비대대 1개중대는 별명을 대기한다.』

이상과 같은 역습계획을 마련한 연대장은 같은 날 작전계획 제5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예하에 下達하고 다시 사단기본작전에 의거 연대임무 수행을 위한 萬全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① 美해병비행단은 계속 항공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사단 155mm, 105mm포 1개중대는 연대를 직접지원하고, 사단 전차대대 및 공병대대 1개중대는 연대를 일반지원한다.
- ② 연대는 계속 현 James town선을 점령하면서 제한된 공격을 실시하고 별명 있을 때 후방진지로 철수하게끔 준비 한다.
- ③ 左右제1선대대(제1, 제5)-담당구역내의 주저항선을 방어하라. 주저항선 경계를 위하여 前進陣地선(OPL)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別命있을때 제한된 공격작전과 후방진지로의 전환을 아울러 준비하라.
- ④ 수색중대-別命있을 時 기습공격과 정찰 및 탐색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 ⑤ 공병소대-예비대 역습을 위한 攻擊路 개척 및 주저항선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저항선 후방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라.
- ⑥ 4.2"중박격포중대-연대를 일반지원하라.
- ⑦ 75mm무반동총소대-연대를 일반지원 하라.
- ⑧ 예비대대(제2대대)
 - ⑦ 別도 계획에 의거 부대훈련을 실시하고 別命 있을 때 역습을 감행하라.
 - ④ 自由門橋(臨津江鐵橋)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別命時 예비진지인 Wyoming선을 점령 방어하라.
 - ⑨ 각부대는 중립지대에 유의 사격을 嚴히 통제하라. 연대 CP는 변동 없이 野村에 위치 한다.』

當時 제1대대를 右제1선에, 제5대대를 左제1선에, 제2대대를 예비로, 제3대대를 金浦에 控置한 해병제1연대는 계속 同一計劃 밑에 作命 제170호(6. 15. 17. 00)~作命제211호(8. 27. 12. 00)로서 4차에 걸쳐 부대 순환교대를 실시하는 한편 敵情 수집을 위한 제한된 공격과 탐색 및 잠복활동을 반복 감행하였다.

魂飛高地에 대한 敵의 侵襲이 있는 직후에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9월 7일 12.00에 作命제228호를 發動하여 역습에 대비하기 위한 措置로서 金浦에서 부대 훈련을 마친 제1대대를 예비인 제5대대와 交代, 예비로 控置한 다음 9월 24일 09.00에 作命제232호를 예하에 下達하여 加重되는 敵 挑發에 대처하는 한편 담당 방어선을 堅守키로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부대는 9월 25일 03.00를 기하여 제1대대(예비)와 제3대대(右제1선)의 부대교대를 실시하려 한다.

② 제1대대장

㉔ 25일 01.00에 1개중대를 抽出 제3대대장 지휘를 받아 36. 37. 33. 31의 4개 前進진지을 인수점령케 하라.

㉕ 24일 18.00에 2개분대를 抽出하여 제3대대장 지휘를 받아 교대시 주저항선—前進陣地선(OPL)간 통로주변의 경계를 담당케 하라.

㉖ 25일 04.30까지 주저항선부대의 제반임무를 제3대대장으로부터 인수 하라.

㉗ Kansas선 진지공사 및 연습계획을 제3대대장에게 인계하라.

③ 제3대대장

㉔ 제1대대에서 抽出된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25일 03.00까지 36. 37. 33. 31의 4개 前進진지 방어임무를 교대하라.

㉕ 25일 04.30까지 주저항선부대 임무를 제1대대장에게 인계하라. 동시에 1개소대로서 주저항선 右제1선중대의 방어정면을 제1대대장으로부터 인수하고 보고하라.

㉖ Kansas선 진지공사 및 연습계획을 부대 교대완료 즉시 제1대대장으로부터 인수하고 보고하라.

④ 주저항선 부대장비중 사단으로부터 지급된 병기와 탄약은 현지에서 인계 인수하라. 지휘소 위치는 변동 없다.』

이상의 措處로 부대교대를 끝마친 25일 08.00현재 연대의 부대 配備는 老上里(臨津江鐵橋 西쪽 2km)를 地境으로 하여 汶山—板門店간 通路 南쪽(桃花洞 南쪽 : 大威洞 東쪽 4km)으로부터 제3대대에서 差出된 1개소대—제2중대—제3중대가 주저항선 右제1선을, 제1중대가 그 前方의 31. 33. 36. 37의 前進陣地을 점령하고 있었고, 左제1선대대인 제2대대는 제6중대—제7중대가 주저항선을, 제5중대가 50. 43(△87)의 前進진지를 扼守하였으며, 제3대대(一)가 예비, 제5대대가 金浦 霞城에서 부대교육에 정진하고 있었다.

金錫範 준장은 9월 28일 我 前進진지를 탈취코자 執拗하게 침습을 획책하는 敵情에 미루어 作命제234호로 제2대대의 前陣중대를 交替케 함으로써 제2대대 前面의 前進진지는 제6중대가 담당케 되었으며 따라서 左제1선 주저항선은 제5중대와 제7중대가 分擔케 되었다. (별책부도 제24호 참조)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9.5부임)은 진지인수와 더불어 敵의 再침습이 예상되는 36, 37前進陣地의 수비를 強化하기 위하여 즉시 그 間隙에 잡복거점을 마련하고 924로 命名한 다음 제3중대 일부병력을 제1중대에 배속하여 이에 配備케 하고 동시에 제1중대를 증원케 하는 한편 단장의 승인을 얻어 39前進陣地를 증편 개설하여 대비화기중대(제4중대)에서 rocket포소대를 差出 守備케 하였다.

또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9.15부임)은 제5중대와 제6중대의 부대 교대로서 계속 50.43(△87)兩개 前進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로써 전투가 전개되기까지 연대는 都合 8개의 前進진지를 마련하여 相互 연결하는 선에서 여하한 敵襲도 이를 격퇴 심멸키로 하였다.

(2) 작전실시

10월 2일 : 正面의 中共제65군 예하 제194, 제195 兩사단은 全戰線에 걸쳐 그들이 전개한 공세작전의 일환으로 앞서 魏飛高地에서의 慘敗를 雪辱하고, 一擊에 我 前進진지를 탈취할 기도아래 이날 18.30을 期해 一齊히 37(△58), 36, 924 및 43(△87)등 前進진지에 各種 포격을 집중하는 동시에 37(△58)과 36에는 각기 2개 중대로 推算되는 병력이, 924에는 推算1개 중대병력이, 43(△87)에는 推算1개 대대 병력이 一齊히 據點 四周에서 殺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제1대대의 前陣부대인 제1중대(장, 金勇謙 중위)는 제1소대(장, 李鎭一소위의 61명) 증강을 36진지에, 제2소대(장, 金日生소위의 71명) 증강을 37(△58)에, 그리고 924에는 제3중대에서 증원된 1개 소대(장, 洪淳容의 49명) 증강을, 33진지에 金承德소위의 45명을, 그리고 31진지(중대CP)에는 제3소대를 각기 전개하고 있었다.

또 연대 左제1선 대대인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의 제6중대(장, 金景山 중위)는 50(△50)진지에 중대본부와 1개 소대를, 43(△87)진지에 제2소대를 基幹으로한 123명을 배비하여 前任將校 李成吉 중위로 하여금 이를 지휘토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一선부대의 配備는 魏飛高地 전투로 敵侵양상이 더욱 熾烈하여 짐에 따라 전투담당장 金錫範 준장이 제1, 제2대대장에게 『前進진지 수비를 강화하고 OPL을 固守하라』고 강조한데 그 根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右제1선대대인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필수록 主抵抗線중대 병력을 抽出하여 대대 名譽와 直結된 前進진지선을 如何한 敵侵에도 堅守키로 하고 사실상 OPL을 대대주 저항선으로 看做한데 있었고, 또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은 前進진지 占據·담당중대로 하여금 最前方 진지인 △87방어에 力點을 두게한 까닭이었다.

敵의 공격을 받은 37(△58), 36, 924, 43(△87) 4개진지의 장병들은 이날 대대로부터 전달된 秋夕선물로 鄉愁을 달래고 敵侵에 대비하여 加一層 진지防備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同진지는 攻防의 激突場으로 突變케 된것이다.

極甚한 포격으로 有無線이 절단되고 모든 진지가 파괴된 가운데 이들 진지 방어 소대는 敢鬪에 敢鬪를 거듭하다가 끝내 人海戰術을 격퇴하지 못한채 隨意 철수케 되었고 이를 逆襲으로 奪還코자한 反擊은 이로부터 連日 거듭되었다.

1. 37진지(△58)의 상황 : 敵은 18.30을 기하여 122mm, 120mm, 105mm, 76mm, 82mm, 61mm로 밀어지는 각종 포격을 100m²의 狹少한 陣內에 집중하기 시작함과 同時에 戰車 30~40대를 도라산리(진지 西쪽 1.5km)에 偽裝추진하고 陣地 前方 8부稜線에

설치한 장애물(철조망 및 지뢰매설)을 격파하기 시작하였다.

20.00까지 계속된 이포격에서 敵은 都合 500~600발을 집중하였으며 이사이 은밀히 接近한 듯한 2개 중대규모로 推算되는 敵兵은 사격열선과 同時에 防禦洞(板門店 南쪽 4.5 km) 方向으로부터 一齊히 돌진하여 수류탄을 投擲하며 陣內로 亂入하였으니 이때가 바로 21.05이었다.

當時 37전지(△58)를 固守하고 있던 제1중대 제2소대장의 71명의 장병은 초저녁부터 突然히 平昌洞(△58西쪽 2km)에 出現한 戰車의 요란한 기동소리에 점차 敵情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였으며 소대장 金日生 소위의 命에 따라 예정된 잠복근무마저 前제한 채 全員 전지의 四周 配備로써 경계를 강화하여 예상되는 敵 공격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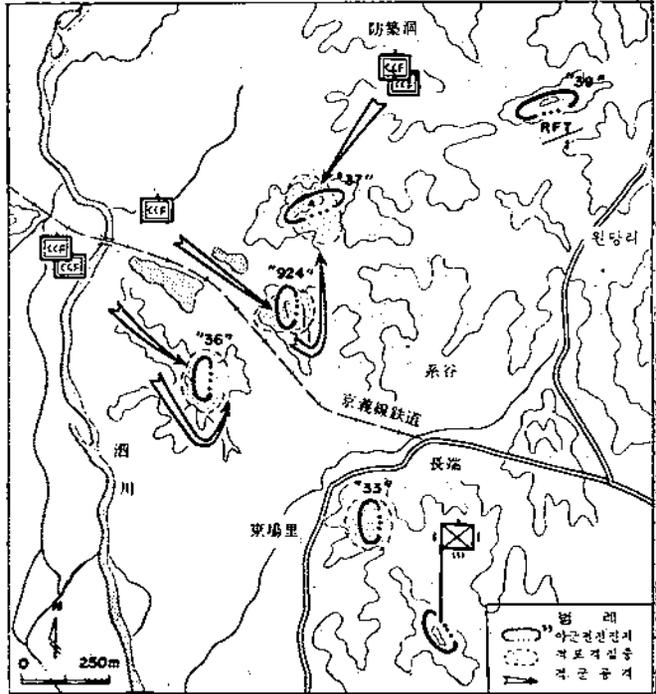
그러나 敵砲火力을 輕視하고 構築한 散兵壕와 掩體壕는 이 슬막히는 砲擊으로 大破 혹은 完破되고 陣前 鐵條網은 여러갈래로 절단 飛散하였으니 이때 중대원들은 砲擊을 피하기 위하여 土窟化한 就寢壕와 有蓋진지에 待避하였으나 熾烈한 砲擊으로 戰死傷者가 속출하게 되었고 그나마 生存대원들은 土窟入口쪽으로 물리어 포격이 연신되었을 때에는 敵侵에 即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지를 굳게 지켜 여하한 敵襲도 격퇴키로 다짐하였던 소대의 戰列은 瓦解되고 戰力은 激減되었으니 이때를 틈타 陣內에 突入한 敵兵들은 소대가 미처 대응태세도 갖추지 전에 據속에 수류탄을 던지며 肉迫하였다.

21.20에 急報에 接한 중대장 金勇謙 중위는 상황이 急迫하였음을 認知하고 대대에 彈幕사격을 要請하였는데, 이로부터 敵의 增援을 차단하기 위한 105mm사격은 37거점 西쪽 및 南쪽을 強打하기 시작하였으나 敵은 예측과는 달리 전지 南쪽과 北쪽 2개 方向에서 침습한 것이다.

따라서 侵攻한 增援병력을 격멸하고 소대원의 血鬪를 도우려던 탄막사격도 이러한 잘못

◇ 상황도 제71호 제1대대의 진진전지와 敵의 侵攻



으로 敵侵을 阻止하는데 効力을 發揮하지 못하였으니 이로말미암아 소대의 惡戰苦鬪는 더욱 加重될 따름이었다.

21. 25에 有線이 絶斷되고 상황이 最惡상태에 이르자 소대장 金日生 소위는 最後방어 수단인 VT彈사격을 증대에 緊急要請하고 죽음으로써 전지를 固守코자 하였는데, 이 요청은 當時에 △155에서 敵의 침습상황을 예의 검토하면서 그 對策을 강구하던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이 『소대가 아직 전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VT사격을 보류하라.』는 지시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로써 37전지(△58) 고수 여하는 오로지 소대원의 善戰에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2. 30에 37전지와 無線마저 斷絶되자 金錫範 준장은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의 역습 계획을 비로소 승인하고 즉시 예비대인 제3대대로부터 2개소대를 제1대대에 배속케 하여 제1대대의 역습을 지원키로 결심하고, 제1대대장에게 『期必코 37전지(△58)를 確保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155에서 37전지(△58)를 비롯한 36, 924의 危急한 戰況을 살피며 切齒扼腕으로 事態의 好轉만을 기대하던 대대장은 37전지에서 22.40에 진지점령을 알리는 듯 한 敵의 赤色 신호탄 11발이 상승하고 이와함께 南村洞(泗川江西岸 1km)부근에서 6개의 烽火가 오르자 드디어 전지가 敵手中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투단장에게 報告한다음 保留되었던 VT彈사격을 進言하였다.

이리하여 VT탄사격은 23.00에 37전지(△58) 被占을 확인한 전투단장命으로 단행케 되었으며 이로부터 37전지에 대한 我軍집중포화는 敵陣에 炸裂케 되었는데, 이를 決行한 金錫範 준장은 後日 意中을 밝히기를 『敵이 高地를 占領한다 하더라도 一部대원은 壕속에서 抵抗을 계속할것이 예상되므로 VT사격은 露出된 敵兵에게만 損失이 甚大할 것이다. 따라서 好機는 더 이상 遲滯할수록 逸失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硝煙이 달빛을 가리고 爆音이 震動하는 37전지에서 당시 血鬪를 홀로 거듭하던 소대원들의 安危는 이로부터 一切 알길이 없게 되었는데, 다음날 △58를 탈출하여 33전지(△45)로 歸還한 81mm 副사수 李應七이 등수병이 傳한 말에 의하면 『我軍 VT彈사격에 대비하여 한때 壕속에 들어가 對敵하고 있느라니 침습한 敵은 壕入口에 마구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加하였음으로 砂囊으로 入口를 막고 심지어는 戰友의 屍體까지 방패삼아 應戰하였다. 壕 위에서는 敵이 기관총을 据置하고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 震動으로 土砂가 무너졌으나 이를 克服한 나는 나중에 戰死를 僞裝하기 위하여 입에 毛布를 대고 기침소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述懷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황이 進行되는 동안 反擊승인을 받은 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대대를 일단 再編하고 23.00에 제2중대장 朴天雷 중위에게 『23.30까지 담당 주저항선의 2개소대 전지를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제11중대(-1)에게 인계하고 즉시 37전지(△58)를 逆襲할 준

비를 갖추라』고 命令하였다.

따라서 朴중위는 23.30에 주저항선 진지를 인제완료한 다음 2개소대를 지휘하여 집결지인 △155 左側 地點으로 躍進하게 되었다.

2. 36진지(△36)의 상황 : 18.30에 37거점과 同時刻에 敵으로부터 一齊히 開始된 各重砲의 집중포격을 받게된 同진지는 37진지 상황과 다를바가 없었다.

20.40까지 122mm, 120mm, 105mm, 76mm, 82mm, 61mm포를 동원, 500발을 집중하는 同時에 南村洞 △34로부터 泗川江을 渡河하여 은밀히 接近한듯한 敵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은 사격 延伸와 함께 거점 西쪽으로부터 阻止선을 突破하고 陣地에 亂入하였다.

敵은 陣內에 突入하자 散兵壕와 各種 掩體壕에 마구 수류탄과 폭약을 투척하고, 뒤따라 侵襲한 敵兵은 소총과 多發銃으로 早期에 진지를 制壓코자 亂射를 일삼았다.

당시 36진지는 소대장 李鎭一 소위가 61명의 소대원을 지휘하여 9월 25일 진지를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또한 이 진지는 魂飛高地 전투가 전개된 現場이었음으로 彼我 砲擊에 파괴된 傷痕이 아직 가시지 않은채 었다. 때문에 李소위는 진지 引受와 더불어 徹夜作業을 強行하고 진지 補修에 專力하였으니 대원들의 피로는 겹치고 있었다.

이들은 作業의 우선 순위를 土窟 및 火器진지, 散兵壕, 交通壕로 定하고 있었는데 이날까지의 진척도는 6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補修가 完成되지 못한 상태에서 敵의 집중 砲火를 받게된 이와같은 진지는 다시 파괴가 겹쳤으며, 또 이포격으로 말미암아 高地일대는 土塵과 硝煙이 뒤덮혀 視野를 가렸다.

소대장 李鎭一 소위는 砲擊이 집중되자 小대원에게 『敵彈으로 인한 損失을 防止하기에 最善을 다하고 예상되는 敵공격에 即應하라』고 號令하고 士氣의 振作에 腐心하였으며, 특히 陣前에 대한 觀測을 게을리 하지 말것을 指示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에 對備한듯 진지 주위에 다시 煙幕彈을 집중하였으므로 陰歷 8월 14일의 輝煌한 月光에도 불구하고 泗川江을 渡河하여 36거점에서 西쪽으로 떨어진 稜線을따라 接近하는 敵을 發見할 수가 없었다.

21.00에 소대는 陣地 西쪽 50m前方에서 비로서 數未詳의 敵을 發見하였는데, 待機中이던 대원들은 大破된 진지에 간신히 몸을 依支하고 접근中인 敵설멸에 힘을 기우려 이르부터-소대의 最後阻止사격이 시작되었다.

전투를 지휘하기에 겨를이 없었던 소대장 李소위는 이때 有線이 단절되어 不通임을 確認하자 中대와의 唯一한 交信수단인 SCR-300無線機로 中대장에게 支援사격을 요청하였는데, 이 무선교신은 敵의 侵攻을 받은 37 및 924 兩개진지로부터 同時에 밀어닥친 交信의 폭주와 混亂때문에 즉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6진지의 急報가 中대에 접수되기 까지에는 잠시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 포사격은 즉시 실시되지 않았음으로 소대는 막대한 損失에도 아랑곳 없이 侵

攻을 계속하는 敵의 후속부대를 阻止할 수가 없었으며, 더구나 21.30에 진지 東南쪽에 새 로이 出現한 助攻인듯한 소대규모의 敵兵이 또한 침습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火力의 分散을 쫓지 못하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事前に 목표를 선정하고 모든 策定한 것으로 보이는 敵의 直射火力이 火器진지에 집중되어 이때문에 我陣이 一時 요란된 틈을 타 一團의 敵兵이 폭약과 수류탄을 一齊히 散兵壕에 投擲하고 진지 一角을 突破 한 다음 점차 그 突破口를 擴大하였다.

따라서 敵과의 陣內戰이 전개되어 소대는 白兵戰으로 敵과의 死鬪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數的인 劣勢를 만회할 수가 없어 마침내 21.50 무전까지 단절되고 소대장 李鎭一소위는 背後에서 갑자기 나타난 敵兵 2명에게 사로잡히는 困境을 마지하게 되었다.

36진지 상황이 刻一刻으로 急變하고 있는 동안 대대에 할당된 1개의 4.2"탄막사격이 21.50에 실시되어 앞서 소대가 요청한 바 있는 36거점 東南쪽 稜線일대를 강타 하였으며 뒤따라 22.40에는 105mm사격이 또한 예정된 탄막을 基準하여 斷行되었는데, 이 兩개 탄막사격은 適期를 놓친 後였음으로 敵의 後續부대를 차단하고 殲滅하기에는 未洽하였다.

전후後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소대원들은 이때까지도 大破된 掩體壕와 散兵壕속에서 敵과의 抗戰을 계속하였음이 밝혀졌는데, 중대장 金勇謙 중위는 22.50에 33진지를 침습한 敵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여 我軍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자 울분을 참지 못해 33진지 방어소대(장, 金承德 소위)로 하여금 反擊키로 決心하고 이를 대대장에게 具申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戚소령은 전투단장으로부터 『37거점 固守』의 命을 받아 이에 대한 逆襲을 敢行키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前進陣地(OPL)에서는 방어 책임을 痛感하고 自力으로 36진지를 탈환코자한 중대장의 悲壯한 決意가 實行되지 못하였다.

3. 924진지의 상황 : 이 진지는 37(△58)진지와 36진지 사이의 경제상의 間隙을 매우기 위하여 右側一선을 담당한 제1대대가 9월 25일에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 제2소대(장, 洪淳容 소위)로 하여금 제1중대 배속으로 急造케 한곳으로서 敵襲이 있을 경우 最大限 이 를 持久하고 如意치 않을 때 撤收토록 한 곳이다.

따라서 이진지는 대대가 前進陣地선(OPL)을 堅守키 위하여 設定한 하나의 潛伏거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37.36 兩개진지에 比하여 훨씬 脆弱하였다.

18.30~21.10까지 敵은 各種砲擊(122mm, 120mm, 105mm, 75mm, 82mm, 61mm) 100발을 집중하여 我軍의 모든 築造物을 파괴하였으며 뒤이어 鐵路를 따라 接近한듯 한 1개중대규모로 추측되는 敵兵이 重機, 輕機, 多發銃, 소총, 수류탄, 폭약으로 무장하고 21.30에 一齊히 924진지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當時 47명의 소대원과 같이 진지에서 잠복중이던 洪소위는 敵의 집중포화로부터 損失을 防止하고 次期전투에 突入하기 위하여 각분대에서 2명씩을 경제兵으로 散兵壕에 남겨 敵

侵을 감시케 한다음 全員 土窟로 대피하도록 指示하였다.

그러나 同時刻에 37. 36兩개 진지를 침공한 敵의 戰術이 그러하듯이 煙幕탄으로 이들 감시병들의 視野를 차단하고 은밀히 死角을 따라 진지에 접근한 敵은 마침내 21. 30에 그들의 사격연선과 함께 大破된 진지에서 이를 固守코자 抗爭하는 거점 西쪽 一角을 유린하고 陣內에 殺到하므로써 熾烈한 진내전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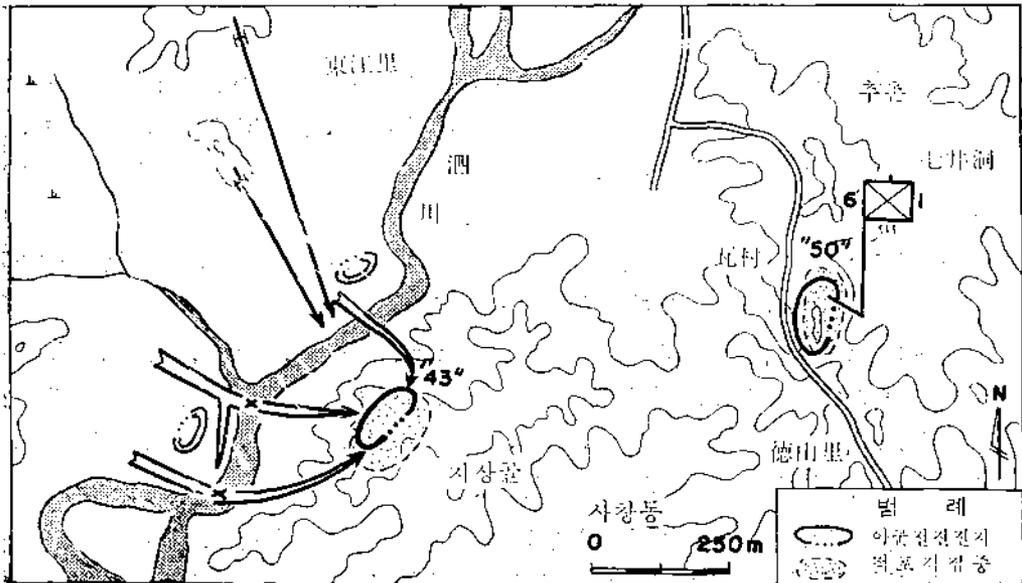
소대장 洪소위는 이미 敵의 포격으로 有無線이 절단된 후였으므로 상황을 中隊에 急報하지 못한채 隨意撤收키로 決心하고 거점 東南쪽 配備 병력에게 手信號로 撤收를 命하였는데, 이때가 21. 40이었다.

이 撤收로 말미암아 敵과 交戰中인 일부소대병력은 21. 50까지 血鬪를 계속하다가 소대가 撤收中인것을 비로서 알게 되어 各個 행동으로 소대를 뒤따라 가까운 33진지를 指向轉進케 되었으니 결국 924진지는 22. 00에 敵이 占領하는 바가 되었으며 이를 확인케 된 대대에서는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敵의 후속부대 차단을 위한 4. 2"탄막사격만을 실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소대는 전사 2명, 行方不明 9명, 부상 25명 도합 36명의 損失을 입었는데 이들은 철수後 일단 33진지부근 東場里(臨津橋 西쪽 4. 5km)에 집결하였다가 중대장 指示로 22. 10에 △155 南西쪽 九峰村 丘陵 뒷면에 집결완료하여 別命을 기다리게 되었다.

4. 43진지(△87)의 상황 : 中共계 195사단 제584연대로 판단되는 推算 1개대대규모의 敵은 증강된 1개중대규모의 지원을 받아 해병제1전투단 左제 一선부대인 제2대대(장, 徐廷南소령)가 담당하는 2개의 前進陣地(43. 50) 가운데 最前方인 43(△87)진지를 奪取코자 各種砲火의 집중 사격을 同伴하고 37. 36. 924등 3개진지 침습과 때를 같이 하여 一齊공격을 開始하였다.

◇ 상황도 제72호 제2대대의 前進 진지와 敵의 侵攻



當時 이진지는 제6중대(장, 金景山 중위)가 9월 29일 제5중대로부터引受하여 1개소대를 증강(98명)하여 이곳에 配備, 先任將校 李成吉중위로 하여금 지휘케 하였으며 同時에 제5중대로부터 인수한 50진지(43진지 東쪽 1.5km)에는 중대본부와 기타의 병력을 배치하여 그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이날 敵의 공격을 받은 43(△87)진지는 敵과 500m~600m거리에서 對峙하는 岩山인 까닭에, 진지의 交通壕와 散兵壕는 계속된 工事에도 겨우 무릅을 가릴 程度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砲擊에 매우 脆弱하였고 擴聲器에 의한 敵의 心理戰이 他지역에 比하여 惡辣하게 恣行된 곳이다.

20.00에 敵은 例의 擴聲器로 放送을 시작하여 43진지 수비대원들의 士氣 저하를 꾀하고 난다음 20.20~20.40에 122mm, 120mm, 61mm砲로 추측되는 800~1,000발의 포격을 집중하고 이와함께 東江里(진지北쪽 1km) 부근으로부터 重機사격에 掩護된 一團의 敵兵이 진지 東南쪽과 北쪽 2개 方向에서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43진지(△87)를 扼守하던 李成吉중위는 南北間 100m, 東西間 50m인 이진지 방어를 위하여 前斜面에 重機 1정, 경기 3정을, 後斜面에 重機 1정과 경기 3정을 高루 配置하고 진지중앙에는 60mm박격포를 掘置하여 어느 方向에나 사격이 가능하도록 火網을 구성하였으며 진지內 要所에는 監視哨所를 두어 敵侵에 對處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의 집중砲擊으로 말미암아 堅固하지 못하였던 모든 有蓋진지와 掩體壕는 무너지고 敵彈이 집중되는 동안 壕속에 잠시 待避한 隊員들이 敵과 싸우기도 前에 壕의 大破 혹은 完破로 埋沒되었으며, 監視에 任하던 隊員들은 자속히 高地를 뒤덮은 硝煙때문에 14일의 明夜에도 不拘하고 포격中 泗川江을 渡河하여 진지근거리에 접근한 敵을 觀察할 수가 없었다.

20.40에 敵은 砲擊을 延伸하여 43진지(△87) 後斜面과 중대본부가 있는 50진지 쪽으로 砲門을 돌려 我軍의 觀察 및 增援을 차단하였으며, 이때를 期해 진지 南쪽과 北쪽 30m에 접근하여 待機하고 있던것으로 추측되는 1개 중대규모의 敵兵이 各己 南과 北 兩방향에서 진내에 一齊히 侵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진지는 이미 酷甚한 敵의 집중포화로 90%가 파괴되고 戰死傷者가 續出한 後였으므로 거의 전투력이 마비되었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진지의 生殘대원들은 이들 敵과 白兵戰을 敢行하여 1.2次に 亂入한 敵을 격퇴하였으니 壯한 快擧의 一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敵은 1.2次공격에서 발생한 많은 損失에도 야망곳 없이 再侵을 敢行하여 다시 陣內에 突入하고 大破된 壕와 各중진지에 수류탄과 폭약을 投擲, 소총으로 搜射를 兼해 亂射를 恣行하면서 一擧에 43진지(△87)를 奪取코자 하였다.

李중위는 小數의 兵力으로 大敵을 감당하지 못해 戰勢가 危急하자 마침내 21.30에 VT 사격을 要請하고 죽음으로 진지를 敵侵으로부터 固守코자 決心하였으나 이사격은 上部에

의해 실시되지 않았음으로 同진지는 오직 短兵戰의 勝敗만이 運命을 決하게 되었다.

22.00에 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43진지(△87) 東쪽으로 또다른 敵이 迂回中이라는 사단 情報로 전투단장 命에 따라 제7중대장 咸錫倫 중위에게 『1개소대를 즉시 出動케 하여 43진지—50진지 사이 부근에 잠복하라.』고 命命하여 진지를 迂回하는 敵을 阻止하는 緊急 措置를 取하였는데, 이때에 43진지 상황은 한때 杜絶되었던 SCR—300 交信이 再開되어 43진지로부터 중대에 보고된 다음의 내용으로 同진지가 最惡상태에서 奮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敵은 진지 南쪽으로부터 2次的 돌격 끝에 진내에 突入하였음, 我軍은 이를 阻止하기 위하여 肉彈공격을 敢行中임』 그러나 이 보고가 있는 다음 22.10에 진지로부터의 無電이 끊겨 중대에서는 이後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중대장 金景山 중위는 22.30에 이르러 敵이 東江里부근에서 43진지(△87)를 목표로 直射砲火를 집중中임을 發見하고 즉시 105mm사격을 요청하여 이를 制壓하였다.

나중에 判明된 바에 의하면 43진지는 敵과 5對1의 兵力 차이를 克服하고 이들과 진내전을 敢行하였으며 陣內에 突入한 敵은 我 掩體壕를 7~8명이 分擔하여 호속으로 수류탄을 투척하고 잇달아 破壞筒을 폭파시켰고 防毒面을 着用한 일부병력은 가스(催淚)彈을 사용하여 壕內를 探索하기 시작하므로써 23.15에 同진지는 完全히 敵手中에 들어가 失陷되기에 이르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23.30에 이르러 驕敵은 다시 50진지를 공격코자 企圖한듯 43진지로부터 重機사격을 50진지에 指向하고 이와 함께 잠시 中斷된 砲擊을 再開하여 50~60발을 同진지에 집중하였으며, 15分後에 入手된 情報에 따르면 敵은 當時 43진지에서 戰死傷者를 後送하면서 支援부대를 本隊에 要請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장 命命으로 제7중대에서 抽出된 1개지원소대는 23.35에 50진지 경유 목표지역에 直衝하여 예상되는 敵 侵略을 차단하였으며 또한 이時刻에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 特命으로 出動한 戰車중대의 5대의 戰車(M4 A3)가 제2대대 主抵抗선을 發進하여 1개 支援소대가 占領한 지역으로 竊進하고 있었다.

10월 3일 :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敵의 全面공세로 37(△58), 36, 924, 43(△87)의 4개 前進진지가 이곳 防守소대의 勇戰분투에도 不拘하고 支撐하지 못하게 되자 곧 逆襲으로 敵을 覆滅키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參謀들과 같이 그 方案에 대하여 檢討하기 시작하였는데, 限定된 兵力으로는 失陷된 4개진지의 同時공격이 어려움을 판단하고 于先 可用 兵力으로 前進진지선상의 要衝인 37(△58), 43(△87)의 兩개진지에 공격을 집중하여 一次的으로 39(로포高地)—37(△58)—33(△45)—31—43(△87)를 連結하는 前進陣地선을 回復한 다음 逐次 36, 924 兩개 거점에 공격을 指向키로 하였다.

따라서 그는 전날 제1대대장 咸德昌 소령이 建議한 역습계획에 의거 이미 『37진지(△58)

固守』을 命命한바에 따라 대대 全力으로 37거점을 奪取하도록하였으며 또한 43진지(△87)는 담당부대인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가 自力으로 反擊부대를 編成토록 方針을 굳히고, 이들 부대가 공격하는 동안 필요한 兵力을 예비대인 제3대대로부터 抽出하여 주저항 선방어를 支援하고 한편 戰車를 배속하여 火力 및 衝撃力을 增援키로하는 具體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제1대대 제2중대(장, 朴天雷 중위)의 逆襲부대가 急編되어 反擊준비가 진척되자 01.00에 金錫範 준장은 제1대대장에게 『즉시 逆襲을 敢行하여 37진지(△58)를 奪取하라』고 命命하였으며, 제2대대장에게는 00.40에 『1개 중대 병력으로 05.00에 반격을 개시, 43진지(△87)를 奪還하라』라고 각각 命命하고 이들 부대에 戰車 1개소대를 배속하였다.

이리하여 37진지(△58)에 대한 제1대대의 공격은 37진지 固守失敗의 責任을 痛感한 대대장 威德昌 소령의 陣頭指揮下에 常勝의 기복을 자랑하는 제2중대(一)에 의하여 先導되었다.

그러나 37진지(△58)에 대한 제1대대의 반격은 敵의 계속增援과 執拗한 反擊에 부딪쳐 頓挫되기에 이르자 戰鬪團長은 대대장에게 命命하여 2차의 공격을 再舉토록 하였으며, 이 공격 마저 失敗하자 이어서 3次の 공격을 대대병력으로 敢行케 하여 기어히 敵과 雌雄을 겨룬 채 37진지(△58)를 奪取하려는 當初의 決心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43진지(△87)에 대한 제2대대의 반격은 美해병제1사단장 Edwin A. Pollock소장의 指示에 따라 晝間공격으로 變更하게 되어 10.30에 실시되었으며 이로써 威錫倫 중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一)는 공격開始 4시간만에 43진지(△87)을 占領케 되었는데, 이날 전진진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37진지(△58)의 상황

가) 1차역습戰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이날 00.20에 37진지에서 推算 2개 중대규모의 敵과 血鬪를 전개하다가 敵에게 사로잡혀 押送되는 途中에 脫出하여 39진지(一名 로포高地)로 生還한 제1중대 제2소대원으로부터 37진지 상황을 청취하고 비로소 소대장 金日生 소위의 戰死를 確認하였다. 그는 전날 下達된 준비命命으로 제2중대(장, 朴天雷 중위의 94명)가 대대 後方 CP에 집결完了하자 계획을 成案하고 01.00에 중대장에게 『04.30에 拂曉공격을 敢行하여 37진지(△58)를 奪取하라』라고 命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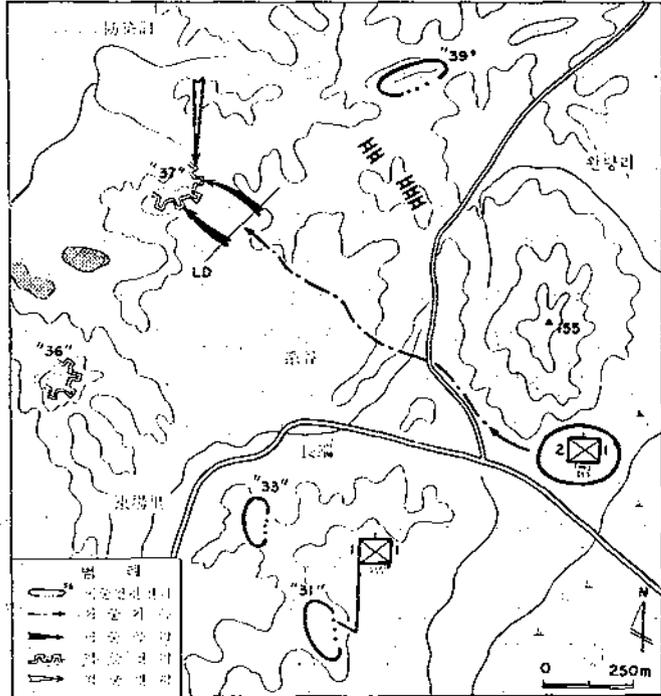
朴중위는 命命을 受領하는 즉시 중대를 3개소대로 再編하고 제1소대는 金永夏 소위가, 제2소대는 林成道 소위가, 그리고 제3소대는 중대장이 직접 統습지휘키로 하는 同時에 제1, 제2소대를 突擊소대로 제3소대를 지원소대로 각기 部署한다음 滅敵必勝을 盟誓하고 주저항선(△155左側 下洞부근)을 發進하니 이때가 02.35이었다.

한편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단장 命命으로 대대에 배속된 戰車중대(장, 吳尙奎

대위) 제1소대의 戰車 5대는 03.10에 집결지를 떠나 39거점(로포高地) 前方으로 前進하였다.

逆襲부대는 지정된 進路(상황도 제73호·참조)를 따라 마침내 37거점(△58) 東쪽 300m에 있는 稜線에 04.00에 進入完了하자 곧 제1소대를 右제1선에, 제2소대를 左제1선에 展開하였는데, 이때를 期하여 事前計劃된 105mm의 공격준비사격이 咆哮하고 戰車 5대가 끝이어서 一時에 76mm 직사포화를 敵진에 연달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 상황도 제73호 제1대대의 37진지 제1차 역습(10. 3)



공격개시선에서 待機중이던 제2중대(一)는 04.25에 이들 我軍지원砲火의 연신을 信號로 하여 04.30에 突撃을 敢行하고 敵陣을 向해 肉薄하니 오랑캐의 무리들의 悲鳴소리는 四方에서 突發하였으며 敵은 魂飛魄散하였다.

突撃隊는 一進 또 一進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04.50에 敵陣 30m까지 突進하여 二重으로 敵이 設置한 鐵條網을 突破한다음 05.35에 敵陣에 進入하여 殘惡하는 敵과 激烈한 近接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니 敵 屍體가 到處에 쌓였으며 이로써 彼我的 紛戰은 극에 達하였다.

이와같이 제1, 제2소대의 敢鬪로 말미암아 敵 潰滅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을 무렵인 05.45에 36진지로 侵襲한 敵으로부터 82mm, 61mm포로 추축되는 포화가 37거점 東쪽과 西쪽에 집중되어 이로 말미암아 제2소대장 林承道 소위가 부상하고 제2소대의 공격이 잠시 頓挫되었다. 따라서 右제1선에서 적진에 突入한 제1소대(장, 金永夏 소위)는 雨注하는 砲火를 무릅쓰고 最後 거점을 向해 突進할 瞬間, 방축洞(거점北쪽 600m)으로부터 潛入한 것으로 믿어지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이 △58 北쪽으로부터 竊공하여 소대를 殲滅하였다.

이에 소대장 金永夏 소위는 예측하지 못한 敵의 突然한 出現으로 이들을 邀撃하기에 一進一退의 混戰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는 06.00에 不利한 상황을 만회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소대를 一時 중대장이 位置하는 진지 東南쪽 20m지점으로 철수함과 아울러 我軍의 砲지원을 要請하여 敵을 砲擊으로 다시 유린하고 이틈에 再次공격을 敢行키로 결심한 다음

곧 소대를 수습, 일단 중대(一)와 합勢키 위해 진지 東쪽 20m지점까지 철수하였다.

06.20에 공격을 재개한 역습부대는 다시 진진진지 頂上에 突入하여 敵과 死鬪를 전개하였는데, 彼我의 兵力比는 1對10의 優勢로써 逆攻을 恣行한 敵으로 말미암아 공격은 다시 挫折되었으며 戰勢는 惡化一路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장 차중위는 이에 긴급 增援부대를 대대에 요청하고 敵陣을 砲撃으로 強打한後 중대를 再編하여 3次의 突擊을 決行키로 하고 중대(一)의 철수를 命하니 이때에 전개한 병력은 20명에 불과하고 其他병력은 後送조치가 時急한 進상자들이었으며, 중대장 自身 역시 관통상을 입어 流血이 滂자하여 이미 지휘 不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06.35에 대대장 咸소령은 역습부대장으로부터 상황을 報告받자 즉시 중대철수를 命하고 사격준비를 끝내고 待命하고 있는 4.2"소대(대대배속)에게 37진지에 10분간 엄호사격을 집중케 하였으며 대대에 派遣된 美해병 항공연락장교를 통한 緊急要請으로 뒤이어 戰爆機(美해병계 1비행단소속) 4대의 空中폭격이 斷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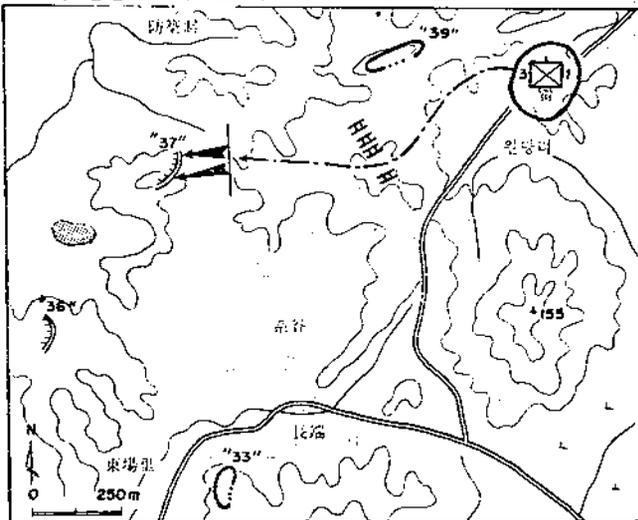
이로써 逆襲에 失敗한 제2중대(一)는 07.35에 元堂里(△155北쪽 1km) 主抵抗선으로 철수하고 주저항선 방어를 위하여 殘留하던 1개소대와 같이 중대를 再編하기 시작한다음 次後命을 待期하게 되었다.

나) 2차역습戰

전투장장 金錫範 준장은 제1대대의 1차 역습이 成功을 거두지 못하자 곧 2차 역습을 감행하여 끝내 37진지(△58)를 奪取하고야 말겠다는 不退轉의 決意를 굽히지 않았다.

07.50에 그는 제1대대장 咸소령에게 『주저항선 진지를 제3대대에 引繼하고 부대를 再編하여 強力한 역습부대를 編成하라』하고 號令하는 한편 제3대대장 安 소령에게 右제1선의 주저항선 진지를 제1대대로부터 인수하도록 준비하라』라고 命하였다.

◇ 상황도 제74호 제1대대의 37진지 제2차 역습(10.3)



뒤이어 그는 08.05에 제1대대장에게 『逆襲준비가 完了되면 즉시 37진지(△58)를 奪還하라』라고 催促하였는데, 대대장 咸소령은 이에 앞서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에게 『11.30에 2차 역습을 斷行하여 37진지(△58)를 奪取하라』고 命한다음 現地에 나가 진지 인계 인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한 해병의 臨陣無退의 敢鬪 정신을 發揮하여 敵을 殲멸하고 37진지를 기어이

占領하라』라고 激勵하였다.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 이하 74명의 勇士들은 特攻隊에 필요한 카빈 M2소총과 수류탄 5발, 그리고 帶劍으로 武裝하고 10.10에 집결지(△155 東北쪽 1km 元堂里부근)를 떠나 은밀히 39진지(로포高地) 下麓을 따라 LD를 向해 一步一步 前進하였다.

그런데 대대가 마련한 이 2次 逆襲계획은 LD를 37진지(△58) 東쪽에 設定하여 直衝키로 한것과 彼我 관측이 용이한 주간공격이라는 점이 1次역습과 相異하였다.

11.05에 敵陣 300m까지 進出한 제3중대(一)는 防築(△58東쪽 250m) 後斜面에 2개소대를 建制順으로 展開하고 이때를 期해 砲彈을 장진하고 대기한 4.2"포와 105mm 그리고 39진지(로포高地) 西南쪽 丘陵에 進出한 戰車중대 제1소대(대대배속)의 전차 5대가 一齊히 불을 吐해 敵陣을 強打하였다.

30분간에 걸쳐 단행된 이와같은 포격으로 말미암아 敵은 한때 진지에 接近하는 我역습부대를 發見하고 重機, 輕機사격을 집중하였으나 마침내 沈默하였으며, 이어 敵陣은 風飛 砲散하였는데, 이를 確認하고 必勝의 信念에 고무된 역습대는 11.40에 好機를 포착하여 포격의 연신을 요청한 다음 △58 東쪽능선 左右兩쪽을 沿해 포복으로 敵陣에 肉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高地에 살아남은 敵兵은 我역습대의 步戰砲協同작전에 完全壓倒되어 각개로 分散 潰退하였다. 따라서 역습대는 前進속도를 增加하고 敵陣에 直突하였다.

그러나 敵은 미리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計劃된것으로 믿어지는 탄막사격을 △58일대에 집중하였으므로 공격은 膠着되기에 이르러 13.50에야 先頭부대가 敵진 交通壕 15m에 接近할 수 있었으니 역습대의 공격은 突擊을 감행하여 이때까지 2시간이 소요된 셈이 되었다.

敵은 我軍의 공격이 지연되기에 이르자 泗川江을 渡河하여 부근에 潛伏한듯 한 중대규모의 병력을 다시 高地에 投入 增援하였으며, 계속 제2波가 泗川江을 넘어 增援하고 먼저 投入된 兵力과 合流코자 괴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滅敵의 鬪魂을 불태워 決死殉國기로 한 역습대는 敵陣을 一齣히 殲滅하였다.

5분後에 이들은 敵陣一角에 突入하고 左右전개兵力의 合擊으로 점차 그 突破口를 넓혀 敵陣에 直衝하니 醜虜의 盛滅도 一瞬에 있는듯 하였다. 그러나 이 瞬間 △58 北쪽과 西쪽으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敵의 중대규모의 증원병력이 出現하고 또다른 병력이 南쪽으로 迂回하여 我軍의 側面과 後方을 威脅하였으므로 상황은 突變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高文甲 중위는 戰勢가 不利함을 깨닫고 即時 全員 陣地東쪽 20m밖으로 撤收하도록 命하고 敵을 屠戮하기 위한 포사격을 要請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의 措置는 危急한 상황에서 無謀한 突擊만을 되풀이 하느니 보다 露出된 敵을 殲滅하는에는 집중화력이 有效할것이라 判斷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5.15에 대대를 직접 지원하는 4.2"重迫擊砲소대의 同時 집중이 시작되어 △58를 急襲하였으며 39(모포高地) 진지 南쪽에서 계속 待命하고 있던 戰車중대 제1소대가 敵을 剋滅하기 시작하였다. 敵의 무리는 이로 因한 莫大한 損失에도 介意치 않고 계속 후속 增援부대를 投入하고 나중에는 중대(一)가 待機하는 지역一帶에 또다시 탄막사격을 指向 하였다.

我軍포사격으로 敵을 교란하고 이틈에 2次공격을 斷行하여 高地를 奪還하려던 역습대는 이에 이르러 대대장 命에 따라 高地를 撤收하였으니 이때가 15.25이었다.

한편 이날 43진지(△87)를 역습으로 되찾고자한 제7중대(장, 咸錫倫 중위의 149명)의 공격은 이지음 마침내 △87頂上에 突入하여 敵을 完全섬멸하고 陣地를 急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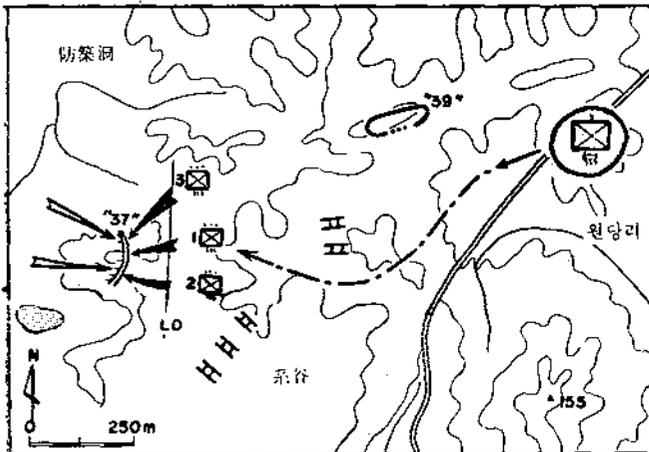
다) 3차역습戰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2차로 決行한 逆습공격이 敵의 彈幕사격과 增援으로 難關에 봉착하자 곧 新銳와 代替시켜 敵을 속공으로 擊碎코자 결심하였다.

이와같은 그의 決心은 이날 11.30에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으로부터 『①敵은今夜 39.33 兩진지에 威脅을 加하면서 37(△58), 36兩개진지 강화에 노력할것임. ②부대는 37거점(△58) 탈환 작전을 계속하면서 前進진지선(OPL)과 주저함선을 固守한다. ③제1대대장은 37거점(△58) 탈취와 前進진지선 確保에 극력 노력하라. ④제3대대장은 右제1선 주저함선 방어임무를 20.00에 인수하라.』는 要旨의 口頭命을 受領하여 이를 早期에 實現치 못한 自責感이 앞서기도 하였지만 대대의 名譽와 功지가 결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同時刻에 제4중대(重火器中隊)장 宋基兆중위에게 『제2, 제3 兩중대의 殘餘 2개소대와 제4중대에서 2개소대를 抽出하여 都合 4개소대를 編成하고 37진지(△58)에 대한 逆습을 준비하라.』고 命命하였으며 뒤이어 2차의 逆습대가 철수한 15.25에는 『18.00를 期하여 37진지(△58)를 공격 占領하라』고 命命하였다.

◇ 상황도 제75호 제1대대의 37진지 제3차 역습(10.3)



이리하여 宋基兆 중위의 177 명으로 構成된 強力한 逆습대는 即時 진지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집결지로 出動케 되었는데, 이때 대대장 威소령은 最後의 一兵까지 싸워 37前進진지(△58)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 밑에 4차역습을 構想하고 31, 33兩개진지를 堅守하고 있는 제1중대장 金勇謙 중위에게 『진지를 제2중대(一)에게 引繼

하고 중대를 再編하여 다음 역습에 對備하라.』고 命令하였다.

17.15에 3차 역습대가 39진지(로포高地) 南쪽을 經由 예정대로 前進하자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出動한 戰車중대 제1소대(戰車 5대)는 從前의 位置를 바꾸어 그중 2대의 戰車가 39거점 南쪽 800m 稜線 前斜面으로 前進하고 3대의 戰車는 역습대의 進擊路 左측 俗稱 마산골—실골中間 稜線에 進出하여 37진지(△58) 600m 거리에서 敵陣을 노리고 있었다.

제1대대가 계획한 3차의 역습계획은 概要 다음과 같았다.

『① 進出경로 및 LD는 2차와 동일하다.

② 공격개시(H시)를 18.00로 하고 H—30부터 H시까지 항공폭격 및 105mm 제압사격을 실시한다.

③ 역습부대가 37진지(△58)를 공격하는 동안 戰車 5대가 이를 근접지원한다.

④ 1개소대 병력으로 助攻부대를 編成, 敵의 增援을 차단하고 右側方을 包圍한다.』

역습대가 LD에 접근하는 동안 계획된 105mm 제압사격이 17.30에 시작되어 20분간 37진지(△58)를 強打한데 이어서 17.50에는 出擊한 4대의 戰爆機(美해병 제1비행단소속)가 △58 적진에 napalm탄과 폭탄을 投下하는 壯快한 근접폭격을 斷行하였다.

한편 事前計劃에 따라 제1, 제2 兩개소대를 主攻으로, 제3소대를 助攻으로 제4소대를 예비 및 지원소대로 配備를 完了한 역습대(장, 宋基兆 중위)는 右로부터 제3, 제1, 제2소대를, 그리고 제1, 제2소대 後方에 제4소대를 각각 전개하여 18.00에 LD를 占領한 다음 戰車 76mm직사포의 壓호를 받으며 18.10에 一齊히 LD를 發進, 37진지(△58) 東쪽능선을 3개 方向에서 登破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3소대가 北에서 西南쪽을 直衝하고 제1소대가 東쪽에서 △58東쪽稜線 右側斜面을, 제2소대가 그左側 斜面을 踏破하여 敵陣 50m거리에 肉薄하였는데, 이무렵 지금까지 發射되어 沈默을 지키고 있던 敵陣으로부터 一齊사격이 主攻부대에 집중되었으며 同時에 例의 탄막사격이 시작되어 지원소대를 壓迫하였다.

이미 때는 어두어질무렵이어서 역습부대를 지원코자한 戰車砲도 敵을 貫측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역습대는 이로말미암아 進退維谷에 빠져들게 되었다.

宋基兆 중위는 이에 에르러 18.40에 본대에 상황을 急報하고 105mm지원포사격을 要請하였는데, 이와같은 措置는 그가 敵陣과 敵의 增援을 砲擊으로 同時에 強打하고 即時 混亂을 틈타 △58를 強襲코자 한데 있었다.

그르므로 21.30에 宋중위는 30분간 계속된 我軍의 熾烈한 砲擊이 끝나자 無慮 1시간50분을 堪耐한 끝에 突擊을 敢行하고 敵陣을 急衝하게 되었으나 이사이 高地 後斜面으로부터 靑, 紅色 각 1發의 信號에 따라 增援된것으로 믿어지는 대대(一)규모의 敵이 突然히 出現하여 폭약과 수류탄을 투척하고 我軍의 進出을 阻止코자 發惡하였다.

이에 그는 곧 3개소대의 습격을企圖하고 함성 드높이 全員 敵陣에 直突하여 敵을 격멸코자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一時 我軍의 果敢無雙한 機先에 유린된 敵은 그들 優勢한 兵力을 바탕으로 계속 增援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따라서 역습대는 이들 敵과 1시간에 걸쳐 進내전을 감행하고 屍山血海를 이루는 死鬪를 전개하게 되었으나 戰勢는 時時刻刻으로 急變하여 不利하였으므로 22.45에 宋중위의 號令으로 隨意철수하니 대대는 이에 3차의 역습마저 失敗의 苦杯를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3차의 역습대가 高地를 철수할 때 敵은 마치 我軍의 企圖를 미리 看破하기나 한 것 같이 39진지(로포高地) 西쪽 稜線(防築洞 東쪽 100m)에 81mm, 61mm박격포를 추진, 我軍의 철수로를 砲擊하기 시작하고 23.25에 前記 지점과 그 南쪽 200m에는 도합 1개대대 규모의 敵兵이, 23.35에는 같은 지점에 1개중대 규모의 敵兵이, 또한 22.50에는 39진지(로포高地) 西쪽 100m지점에 敵이 각기 出現하여 39진지(로포高地) 방어소대(장, 秋忠林 소위)를 威脅하고 역습대의 退路 차단을 획책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요망되었다. 따라서 대대장 威소령은 이들 정보가 入手되는 즉시 前記지점에 105mm 제압사격을 要請실시하고 39진지 방어와 역습대의 安全철수에 萬全을 期한 다음 또 4次 역습을 黎明을 期해 敢行키로 하였으니 그의 鬪魂은 長湍 廣野를 불태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2. 36진지의 상황: 이날 대대가 전투단장命으로 37진지(△58) 탈환을 위한 역습에 力點을 두는 동안 전날 22.50를 마지막으로 敵이 掌握한 것으로 판단한 36진지(37거점 西南쪽 1.2km)에서는 이날 06.25까지 敵과 接戰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제1중대장 金勇謙 중위의 命을 받아 36진지 상황을 銳意 살피기 위해 33진지(△45)에서 差出된 1개분대의 잠복대가 05.35에 33진지(△45) 北쪽 800m에서 敵 1개소대를 發見하고 포사격으로 이들을 제압한데 이어서 08.40에 또 敵 1개소대규모병력이 36진지(△45)에서 진지작업중임을 33진지(△45)에서 관측하여 포격으로 이들을 감타하였다.

그러나 이사이에 제1중대 제1소대장 李鎭一 소위는 最後의 一刻까지 36진지를 固守코자 孤軍奮鬪하다가 01.00에 진지 東쪽 교통호에서 敵에게 사로잡혀 押送 도중 敵兵을 打殺하고 脫出끝에 09.00에 33진지(△45)로 生還하여 중대장에게 敵情을 보고하고 『單獨 逆襲隊를 조직, 敵을 격멸하고야 말겠다』고 自諒하였다.

또 12.40에 1명의 소대원이 敵陣을 빠져나와 敵 2개소대 병력이 36진지를 占領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14.10에는 4명의 대원이 33진지(△45)에 당도하여 그 間의 接敵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敵의 심한 포격때문에 진지가 파괴되어 埋沒되었으나 틈새로 스며 든 빛을 따라 出口를 만들어 操心스럽게 動靜을 살피니 敵은 36진지진지를 完全장악하고 진지를 急編하고 있었다. 한참동안 我軍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 이상 더 待機할 수 없었던 관계로

據를 빠져 나와 마침내 脫出을 阻止하려는 數名의 敵兵을 사살하고 各個 퇴각하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36진지를 喪失하게 된 제1중대(一)(장, 金勇謙 중위)는 이날 대대장으로 부터 『제수 31, 33兩개진지를 堅守하라』는 命令에 따라 全員 鬱橫을 自制하는 가운데, 36진지에서 철수한 兵力과 合勢하여 예상되는 敵의 또다른 侵襲에 대비하고 前進진지선(OPL)의 連繫에 盡力하였으며, 한편 924진지에서 철수한 병력을 중대장 指示로 △155 後方에서 再編케 하였다.

그런데 24.00에 이르러 중대(一)는 대대가 敢行한 37진지(△58)에 대한 3차역습이 失敗하고 4차역습을 또다시 계획함에 이르러 依命 31, 33 兩개진지를 同時부로 제2중대(一)에 引繼하고 집결지인 대대 後方 CP로 轉進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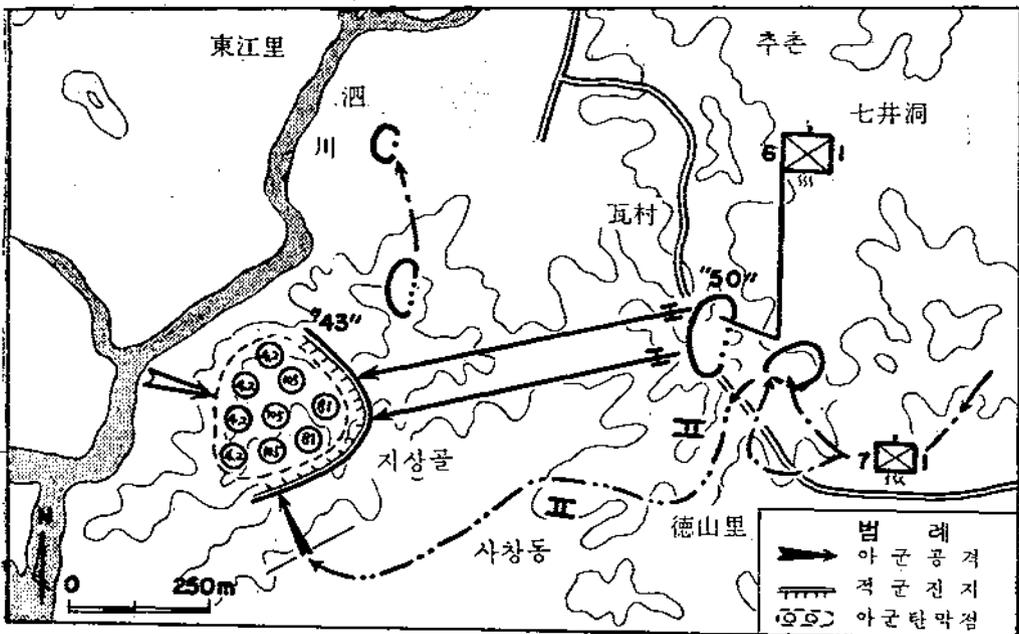
3. 43진지(△87)의 상황

1차역습戰

이날 00.20에 제2대대의 前進陣地 담당 부대인 제6중대(一)(장, 金景山 중위)는 43진지(△87) 失陷에 뒤이어 敵이 계속 50진지(△50)를 窺覷하여 침습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分隊규모로된 3개의 잠복대와 2개의 정찰대를 50진지(△50) 前方 200~500m에 急派하여 警戒에 만전을 期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투단장 特命으로 주저함선을 떠난 戰車는 01.25에 50진지(△50)의 전날 1개지원소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이들과 合勢하고 即應태세를 갖추었다.

상황이 이와같이 전개되고 있을 때 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00.40에 전투단장으로 부터

◇ 상황도 第76호 제2대대의 43진지 제1차역습



43진지(△87)를 탈환하라는 命을 受領하는 즉시로 本部중대 및 제8중대(重火器중대) 要員들로 구성된 특별중대로 하여금 제7중대(一)(장, 咸錫倫 중위)가 담당하는 대대 左제1선 주저항선 진지를 임시 인수케 하는 同時에 제7중대장 咸錫倫 중위에게 『진지를 특별중대에 인계하고 05.00에 50진지에서 發進하여 43진지(△87)를 역습으로 탈취하라.』고 命을 受領하였는데, 이때 대대가 수립한 이 역습계획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

『① 대대는 중대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여 43진지(△87)을 탈취하고 이를 방어한다.

② 제7중대는 黎明을 期해 前夜 抽出한 지원소대와 合勢하여 43진지(△87)를 南쪽으로 부터 공격하고 占領즉시 陣地를 急編한다.

③ 제6중대(一)는 공격間 50진지에서 火力으로 지원한다.

④ 포병대대는 43진지(△87)에 3개의 火集點을, 4.2"소대는 4개의 火集點을, 각기 設定하고 充分한 준비사격을 실시한다.

⑤ 공격개시시간은 別命한다.』

한편 전투단장 金준장은 이 時刻에 제2대대의 역습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대인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로부터 제9중대를 抽出하여 제7중대가 擔當한 주저항선을 인수케 하기 위하여 急遽 이에 赴援토록 하였는데, 제2대대장이 이들의 來襲에 앞서 특별중대로 임시 左제1선을 擔當케 한 것은 제7중대가 역습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토록 配感한 때문이었다.

이로써 03.35에 진지를 인계한 제7중대(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接결지인 중대 CP 北쪽 200m지점부근을 떠나 15분후에는 主抵抗線을 通過하여 △50—俗稱노하리—俗稱뺨다리 南쪽小路를 따라서 一路 最終接결지인 50진지 後斜面을 向해 急進하였다.

이윽고 04.00에 제9중대(장, 吳正根 중위의 148명)은 대대 左제1선진지에 進出하여 특별중대로부터 진지를 다시 인수하였는데 제7중대(一)가 50진지에 接결完了한 시간은 이로부터 55분이 경과한 뒤였다.

제7중대장 咸중위는 50진지에 進入하자 즉시 중대를 再點檢하여 必勝을 다짐하였는데, 이리하여 중대는 前夜에 출動한 지원소대로써 正面을 牽制하면서 도합 150명으로 05.00에 躍出하여 은밀히 50진지—43진지(△87)間 稜線 南麓을 沿해 進擊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進擊은 이즈음 전투단을 訪問하고 작전지도에 任하던 美해병제1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이 계획의 未備를 지적하고 『航空근접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공격을 延期하라.』는 緊急指示를 下達함으로써 10분만에 제7중대는 대대장 命으로 다시 50진지 後斜面에 設定한 接결지로 復歸하여 待機케 되었다. 또한 이 措置로 말미암아 前夜에 出動한 특별지원소대 및 전차소대는 現位置에서 진지를 急編하였으며, 또 別命에 따라 43진지(△58) 南쪽을 차단하고 제7중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出動한 연대 수색소대는 05.30에 예정대로 △39(43진지 南쪽 2km)에 進出하여 그대로 待命하였으니 激怒한 대대의 銳鋒은 이로

써 一時 鎮靜을 되찾아 계획을 補完하게 되었다.

대대장 徐소령은 07.15를 期해 드디어 43진지(△87)에 대한 포사격이 再開되고 5분 後에는 美해병대의 전폭기 1개편대가 出擊하여 43진지(△87)의 敵을 強襲하게 되자 08.00에 敵增援에 對處하기 위해 특별지원소대에서 1개분대를 抽出케 하여 東江里 對岸지역에 急派케 하였는데, 이때에 戰車소대는 德山里(50진지 南쪽 500m)에 진지를 占領하고 戰車의 砲口를 43진지(△87)에 指向하였으며 특별소대(一)는 無名高地(50진지 西쪽 1km)에서 醜敵을 牽制하고 있었다.

한편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제2대대의 역습時期가 成熟하자 08.20에 대대장에게 『43진지(△87)를 탈환하라. 항공기 8대가 공격을 지원할것이니 긴밀히 협조하라』는 要旨 口頭命을 下達하였다.

대대장 徐소령은 즉시 제7중대장에게 『공격을 再開하라. LD 發進시간은 10.30으로 定한다. 역습의 成敗 여부는 火力 및 速攻에 있을 것이니 舍命 奮鬪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奮然히 奮기한 제7중대(一)는 09.15에 戰列를 가다듬어 50진지에서 LD를 向해 躍進하였다.

이와같이 43진지(△87)를 奪還하려는 大대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를 期해 出擊한 전폭기 8대가 10분간 계속 기총과 napalm 彈 및 爆彈으로 43진지(△87)를 공격하여 이에 불바다를 이루었으며 대대에 急派된 美해병제1사단 소속의 1개 rocket 砲소대가 無名高地로 前進하여 4.2" 砲 集中에 加勢하고 敵陣을 強打하였다.

10.30에 LD를 占領한 중대(一)는 곧 제1소대(장, 金成燧 소위)를 右에, 제3소대(장, 李龍翼 소위)를 左에, 제2소대(장, 金萬熙 소위)를 예비로 展開하고 戰車砲의 직접지원을 받아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때 敵陣은 제2소대의 直衝과 我軍砲火에 거의 制壓되어 潰裂상태에 놓여있는 듯 하였으나 泗川江 西岸으로부터 122mm, 120mm, 82mm 등 탄막사격을 집중하고 중대의 공격을 극력 阻止코자 기도하였으므로 제1소대장 金成燧 소위가 부상을 입어 후송되는 등 한때 右 제1선이 威脅을 받았다.

그러나 士氣衝天한 중대(一)는 곧 戰列를 되찾아 一進 또 一進하여 突擊개시 50분만에 그 先鋒으로 敵陣에 突入하자 곧 醜敵 16명을 射殺하는 戰果에 이어서 壕속에 갇혀있던 제6중대원 6명을 救出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敵陣에 突入한 중대(一)는 마침내 熾烈한 白兵戰을 決行하고 발악하는 敵1개소대규모를 殲滅한 다음 一齊히 大破된 各種壕(진지)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14.30에 드디어 43진지를 完全탈환하고 勝戰의 凱歌를 드높이 울리게 된 중대(一)는 依命 43진지 東北쪽을 登破한 특별지원대와 合勢하여 진지를 急編하고 예상되는 敵再侵에 對備하였는데, 이때 중대의 總勢는 장병 63명, 重機 2정, 輕機 4정이었다.

한편 이 역습전이 성공을 거두자 이 快報는 瞬息間에 전투단 전반에 파급되어 37진지

(△58) 탈환전을 反復敢行하는 제1대대 장병들을 鼓舞하였다.

특히 전투단장 金준장은 대대장에게 『43진지를 탈환한 제7중대장이하 소장병의 勇戰敢鬪를 치하한다』 『敵 夜襲에 對한 경계조치를 強化하라』하였는데, 대대장 徐소령은 이날 18.30에 50진지로부터 2개분대의 잠복대를 抽出, 43진지 北쪽과 西쪽 200~300m 前方에 出動케 하여 잠복경계토록 한 다음 夜間 105mm의 요란 및 체압사격의 강화를 要講하고 계속 제7중대로써 43진지를 固守토록 하였다.

그런데 20.00에 敵砲火가 43진지에 집중되어 4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자 그는 진지의 脆弱성과 대원들의 士氣를 考慮하여 新銳와의 부대교대를 當夜中 실시하고 敵의 再侵挑發에 對應코로 한 당초의 決心을 바꾸어 다음날 前半夜에 이를 斷行하기로 계획하게 되었다.

10월 4일 :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이날 當面の 敵이 그들이 侵攻한 37(△58), 36 兩개 진지를 계속 強化하는 한편으로 제1대대 正面의 39, 33, 31의 3개 前進진지와 제2대대 제7중대가 탈환한 43진지(△87)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주저함선과 이들 前進진지 방면에 적극 對備코자 하였으며, 또한 37진지(△58)를 早期에 탈환키로 한 當初의 方針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1대대의 역습이 계속 頓挫되어 損失이 激增하자 이날 01.30에 副단장 南相徽 중령에게 『제1대대와 제5대대(金浦 駐留)와의 부대교대를 早期에 實施할 수 있도록 美해병제 1사단과 協議하라』지시하였으며, 또한 제1대대가 3차역습전에 이어 계획한 4차역습의 공격시간을 天明後로 變更실시 할 것을 命命하였다. 이와같이 공격시간을 수정 지시한 것은 제7중대가 전날에 43진지(△87)를 점령한 戰訓에 의거하여 良好한 관측으로 驕敵을 철저히 制壓한 然後에 待機한 역습대로 하여금 즉각 一齊躍進케 하여 그들 增援에 時間的 여유를 박탈하려는데 主眼이 있었다. 이에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전투단장의 命命을 수령하자 敵의 戰法을 分析한 다음 夜陰을 利用하여 은밀하게 역습대를 敵陣에 接近시킨 然後에 天明과 同時에 공격을 決行키로 決心하였다.

또 43진지(△87)를 탈환한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이날 未明에 前進진지 부대의 교대를 단행하고 敵情에 대한 對應조치를 強化하였다.

1. 37진지(△58)의 상황

가) 4차역습戰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전날 24.00에 제1중대(장, 金勇謙 중위)가 제2중대에게 31, 33 兩개진지를 인계하고 대대 後方CP부근에 집결하자 4차역습계획에 의거 01.00에 중대장 金勇謙 중위에게 『3개소대[제1중대(一) 84명과 제3중대 제3소대]를 지휘하여 37진지(△58)를 탈환하고 이를 確保하라. 공격개시는 06.30이다』라고 命命하였다.

金勇謙 중위는 命命을 受領하는 即時로 중대를 再編하고 제1소대(장, 李鎭一 소위), 제

2소대(장, 金承德 소위), 제3 소대(장, 洪淳容 소위)順으로 部署한 다음 제2소대가 右제 1선, 제1소대가 左제1선, 제 3소대를 지원소대로 하여 37 진지를 탈취키로 하였다.

대대장 및 참모들의 激勵을 받으며 CP를 떠난 이들은 05.50에 전투단 右隣接部隊인 美해병 제7연대와외의 제한점부 근 주저항선을 發進하여 은밀히 계획에 따라 2, 3차역습 경로와 같이 LD로 急進하였으며, 이 사이 이를 支援하는 105mm, 4.2", 81mm등 各種은 37진지에 이미 選定된 탄막에 따라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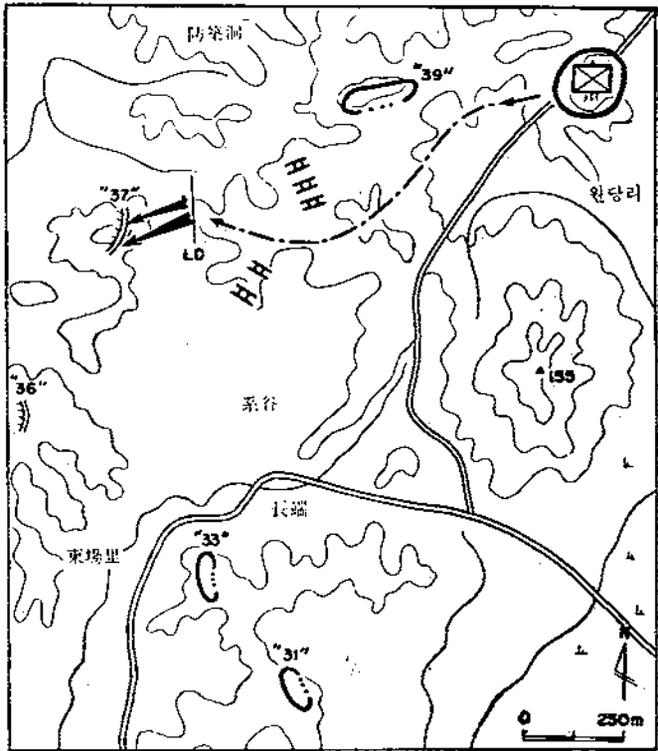
이리하여 06.50에 중대(-)

는 LD를 占領하고 곧 돌격을 敢行하였으며 07.25에는 지원포화의 연신과 더불어 경미한 接敵끝에 敵陣 30m까지 肉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高地 後斜面진지로부터 增援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중대규모의 敵이 突然히 제1, 제2 兩소대 正面을 強力히 阻止코자 함에 이르러 07.50에 중대(-)공격은 또한 釘着되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한편 중대장 으로부터 이와같은 전황보고에 接한 대대장 咸소령은 即時 중대의 活路를 打開하기 위한 措置로 出擊中인 전폭기를 誘導하고 37진지에 대한 對地공격을 실시하여 敵을 殲滅토록 하였는데, 11.40에 斷行된 이 空中폭격은 彼我의 混同으로 말미암아 誤爆케 되어 그 損失이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중대(-)는 이에 잠시 철수하여 戰列을 再整備한 다음 공격을 強行하고 제2소대(장, 金承德 소위)가 敵陣 東쪽을, 제1소대(장, 李鎭一 소위)가 그 南西쪽을 擊破하고 13.00에 진지 殆半을 占領하였다.

그러나 이때를 期하여 또다시 增援된 敵은 高地의 一部兵力과 合流하여 3:1의 優勢한 兵力으로 執拗한 反擊을 恣行하였으며 또 이 時刻에 敵은 砲擊을 再開하여 진지 東南쪽 30~100m지역 일대를 連打하였다.

이로 因하여 공격제대를 지원하여 後續하던 제3소대(장, 洪淳容 소위)는 이 탄막사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대대와의 無電이 斷絶되는 등 큰 損失을 입었고 중대장 金勇謙 중위와 소

◇ 상황도 제77호 제1대대의 37진지 제4차역습(10.4)



대장 洪淳容 소위는 重傷을 입었다.

또 敵陣을 공격하던 제1, 제2 兩소대는 이 순간 전세가 急變하여 공격이 膠着되는 危機에 當面케 되었다. 이에 이르러 兩개소대장은 高地탈환에 力不足임을 판단하고 相互合意下에 즉시 철수를 斷行하였는데, 敵은 이미 我軍철수에 對備한 듯 高地 東南쪽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으며 敵의 埋伏隊가 中대(一)를 또한 急襲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때 제1중대(一)를 직접지원하는 戰車소대의 도움을 얻어 萬難을 克服하고 축차 철수에 成功하여 39진지(로포高地)로 집결한 다음 곧 주저항선 後方에서 兩編에 着手하였다.

나) 5차역습戰

제1대대가 4차에 걸쳐 敢行한 逆襲으로 戰力이 消耗되어 더 이상의 역습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전투단장은 제1대대를 再編케 하고 精銳부대로써 初志一貫 37진지에 대한 5차역습전을 續行키로 결심하여 이날 14.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제238호를 下達하였다.

- 『① 전투단은 37진지의 탈환전을 계속 감행하고 前進진지선과 주저항선의 방어에 萬全을 期하려 한다.
- ② 제3대대장은 주저항선 右제1선을 담당하고 소총1개 중대로 하여금 20.00에 공격 開始하여 37진지(△58)를 탈환하라.
- ③ 제1대대장
- ㉞ 18.00까지 병력 2개소대를 抽出하여 俗稱 실골(糸谷)과 馬山골(실골 北쪽 1km)에 각기 出動케 하여 戰車를 엄호하면서 역습부대에 대한 側方을 엄호하고 제3대대장의 要請에 따라 역습부대를 지원하라.
- ㉟ 05.04.00까지 增強 1개소대병력을 39진지 後斜面에 집결대비케 하여 別命이 有할時 이들을 出動시켜 37 前進진지의 防禦임무를 담당케 하라.
- ㊱ 次後 계속하여 39, 33, 31의 3개진지를 방어하며 주저항선부대와 긴밀히 협조하라.
- ㊲ 2개 중대를 再編하고 次期전투에 對備하라.
- ④ 전차중대장은 전차 2개소대를 出動시켜 제3대대의 역습을 직접 지원하라.
- ⑤ 포병대대장은 화력계획에 의거 역습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 ⑥ 지휘소는 前과 同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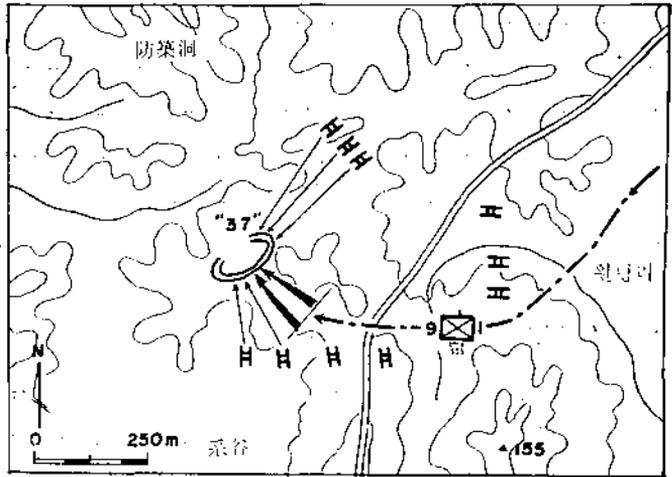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이 命을 受領하자 곧 제9중대(장, 吳正根 중위)를 역습부대로 定하고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과 協議하여 이들이 一時 擔當한 진지를 17.05에 제7중대와 交代토록 한 다음 5차역습에 必要한 諸般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9중대는 제2대대 지역으로부터 곧 原隊로 復歸하여 出動態勢를 갖추었는데 이 時刻에 대대는 제10, 제11 兩개중대로써 제1대대가 擔當한 주저항선진지를 인수방어하고 있었다.

제9중대장 吳正根 중위는 37

◇ 상황도 제78호 제9중대의 37진지 제5차역습(10.4)

진지에 5차역습을 決行함에 있어서 제1대대가 실패한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그 原因을 檢討하고 공격間 一切의 信號를 曳光彈으로 바꾸어 敵情에 신속히 對應토록 계획을 세우고 이의 철저한 지원 이행을 대대장에게 당부하였다.

이리하여 준비를 完了한 제9중대는 19.00에 鎗결지를 出發하여 제1대대의 2개소대병력과



戰車제2소대(장, 朴容九 중위), 제3소대(장, 金世煥 중위)의 掩护下에 새로 指定된 역습경로(상황도 제78호 참조)를 따라 急進한 다음 19.50에 敵陣前方 200m에 있는 LD에 進出하였다.

이때를 期해 중대는 계획에 따라 1차지원 砲擊을 要請하고 20.00에 赤色 曳光彈 2발을 空中에 높이 띄워 敵陣에 대한 一齊突擊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과 同時에 事前約定에 따라 포병대대는 5분간 敵陣을 또 強打하였는데, 이 2차 지원포격은 敵이 奸驕하게 1차포격 中斷과 때를 같이하여 역습대를 急襲코자 한 計略을 뒤엎어 敵을 粉粹하는데 奏効하였다.

砲擊中 敵陣 10m까지 접근한 중대는 20.10에 포격연신과 때를 같이하여 3개소대의 並進으로 敵陣을 直突하고 미처 對應치 못한 1개소대규모의 殘敵을 白兵으로 섬멸한 다음 도처에 敵屍體로 뒤덮여 哭鬼嗷嗷한 37진지를 占領하였으나 이때가 20.15이었다.

중대는 20.20에 다시 綠色信號彈 1발을 發射하여 37진지 北西쪽일대에 대한 3차지원사격을 要請하고 예상되는 敵增援을 封鎖하였으며, 이로써 중대는 20.45에 진지 後斜面 一帶마저 制壓하고 제1대대가 4차역습試圖에도 이루지 못한 魔의 37진지(△58)를 完全히 탈환하여 戰勝鼓를 높이 울렸으니 장병들의 士氣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이때 醜敵의 무리는 진지를 急編한 중대를 反擊하기 위하여 泗川江 對岸인 南村洞(37진지 西쪽 2km)으로부터 增援兵力을 投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目擊한 중대장 吳正根 중위는 急據 대대에 支援兵力을 要請하고 堅陣으로써 敵을 擊退코자 하였는데, 21.30에 이르러 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이 急報에 接하자 제1대대장과 곧 協議를 마치고 39진지부근에서 待機中인 제1대대의 1개소대병력을 37진지로 즉각 急派하였다.

21.50에 我지원대가 당도하기도 前에 敵은 중대장이 判斷한 바와 같이 37진지에 砲擊을 集注하고 同一한 戰法으로 진지 四周로부터 1개대대규모의 병력이 人海공격을 또 다시 恣行하였다.

중대는 이와같은 敵의 侵攻에 直面하여 이들을 격퇴하기에 血戰을 전개하였으나 混戰狀態에 있었으므로 전과 같은 要領에 의한 포격으로는 敵을 격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중대는 22.50에 一時 진지를 철수하고 急派된 지원대와 合勢하여 我軍지원 포화의 도움을 얻어 敵을 다시 急襲할 方案을 마련하였다.

信號에 의해 지원포격을 要請한 중대는 23.30에 포격에 이어 또다시 敵陣에 突擊을 敢行하고 全員 一齊躍進으로 直衝하였는데, 이에 魂飛魄散한 敵은 潰滅直前에서 逐次로 增援된 兵力과 다시 合流하여 反擊하기에 이르러 混戰이 再演되고 이로 말미암은 熾烈한 公방전이 또한 전개되었다. 이 激戰에서 중대는 一當百의 白兵으로 20명을 殲殺하고 敵本陣에 肉薄하였으나 이때를 期하여 投入된 또다른 敵이 중대의 背後를 威脅하기에 이르러 상황이 一變하고 따라서 戰勢가 극히 不利하였으므로 다음날 01.20에 중대는 依命 37진지에서 철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2. 43진지(△87)의 상황

한편 제2대대장 徐廷南소령은 이날 03.00에 43진지 탈환에 有功한 제7중대장 威錫倫 중위에게 『06.00를 期하여 43진지를 제6중대장에게 引繼하고 09.00에 50진지에 進入하여 次後命을 待機하라』라고 命命하였다.

따라서 제7중대는 이날 敵襲에 대비하다가 예정시간에 제6중대로부터 抽出된 精銳兵力 1개소대증강 68명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즉시 50진지로 向發하였는데 이로써 43진지는 제6중대장 單一指揮체제밑에 소총 45명, 重機 2挺에 11명, 輕機 4挺에 10명, 장교 2명으로 固守케 되었다.

09.00에 50진지에서 제6중대와 일단 合勢한 제7중대는 다시 下達된 대대작명으로 10.30에 주저함선 左제1선에 進出하고 제9중대가 37진지 5차역습을 준비하게 되자 곧 이들로 부터 진지를 인수하였다.

특히 이날 대대는 계속되는 敵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前進진지선(OPL)과 주저함선 방어에 대한 萬般조치로 제5중대(장, 權重達 중위)로 하여금 1개소대병력으로써 12.00~15.50에 楸村(50진지 北쪽 1.2km)부근 △28를 偵察케 하였으며, 夜間에는 또 제5, 제7兩개중대로부터 각기 소대병력으로 潛伏隊와 偵察隊를 조직편성하여 주저함선 3km前方일대에 대한 活動을 強化하였다.

한편 제6중대는 50.43(△87)兩개진지에 대한 경계조치의 강화를 위하여 敵의 渡河點으로 예상되는 泗川江 東岸 3개처에 각기 분대 병력을 埋伏하고 徹夜로 敵陣의 動靜을 銳意 감시케 하였다.

10월 5일 : 제1대대장 威소령은 37진지(△58) 탈환전에서 失墜된 대대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奮起하였다.

그는 제3대대 제9중대의 5차역습이 또 頓挫되어 철수케 되자 이날 02.00에 단장 金錫範

준장에게 『대대 全力으로 37진지를 공격할 것』을 懇請하였다.

한편 이때 37진지 탈환전의 強行으로 예비대가 全無하게 된 전투단은 전날 美해병제1사단과의 協議에 따라 이날 12.00에 제5대대 제51중대를 金浦로부터 復歸토록 하는 분제를 검토하였다. 전투단장 金준장은 焦思熟考끝에 대대장의 決意를 받아들여 04.00에 『제2중대를 제외한 소대대를 再編하여 역습대를 편성하고 37진지를 탈환하라』는 要旨 口頭命을 下達하였다. 同時に 그는 美해병제1사단장에게 火焰放射戰車を 支援요청하고 戰車중대 2개소대와 같이 이들을 모두 대대에 배속케 하여 대대의 決戰을 強力히 지원키로 하였다. 따라서 제1대대는 4차에 걸쳐 失敗한 恥辱을 이 一戰에서 讐辱코자 6차의 역습戰을 또다시 決行하게 되었다.

1. 37진지(△58)의 상황

6차역습戰

대대장 威德昌 소령은 단장命을 受領하자 즉시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에게 『제1, 제3, 제4(重火器중대)의 3개중대를 統合 지휘하여 再編하고 單一역습대를 編成 待命하라』고 우선 지시한 다음 逆습계획을 要約 다음과 같이 成案하였다.

- 『① 대대는 全力으로 逆습대를 편성하여 37진지(△58)를 탈환하고 敵의 반격을 격파한다.
 ② 제3대대장은 제2중대를 제외한 전대대병력을 再編하고 強力한 逆습대를 編成하여 37진지를 탈환하라.
 ③ 戰車 제1, 제2 兩개소대장은 美해병戰車대대 火焰방사戰車소대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逆습대를 근접지원하라.
 ④ 공격開始는 11.15으로 예정한다.
 ⑤ 대대CP는 △155에 추진한다.』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는 이에 즉시 前記 3개중대 殘餘 全兵力을 대대後方 CP에 集結토록하고 150명을 選拔, 이들로써 3개소대로 再編成하는 동시에 2개소대를 공격소대로, 1개소대를 지원소대로 하였다.

04.10~07.00에 모든 준비를 완료한 逆습대는 대대 CP를 차장으로 發進하고 곧 5차역습대가 선정한 集結지로 進入하였으며 이로부터 逆습대는 LD를 向해 分進하였다.

역습대는 11.15에 LD점령과 매를 같이하여 시작된 105mm포병대대의 지원사격 엄호하에 3부稜線을 登破하는 재빠른 前進속도를 보였으나 이때 敵이 逆습대를 阻止하기 위하여 105mm포사격을 正面에 集注하는 한편 埋伏中인 增援부대로써 側面에서 反擊을 시도하였다.

이에 37진지 東, 北, 西쪽 200~500m에 각기 急進한 戰車隊는 이들 敵의 增援부대를 기관총과 76.2mm직사포로 強襲하였는데 이들을 타서 3대의 火焰방사戰車が 敵陣 100m까지 접근하여 一齊히 火焰을 吐하였다.

그러자 敵은 恐怖에 사로잡혀 戰意를 잃게 된 나머지 그 抵抗에 銳氣가 가시는 듯 하였으므로 역습대는 이를 好機로 12.00에 돌격을 敢行함으로써 10분後에는 交通壕에 肉薄하여 一擧에 敵 30名을 무찔러 機先을 制壓하였으며, 5분後에는 敵을 高地에서 完全히 驅逐하고 드디어 高地를 奪取하였으니 때는 12.15이었다.

역습대장 高文甲 중위는 이 感激的인 瞬間을 즉시 대대에 報告하고 戰勝의 기쁨을 같이한 다음 陣지를 急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습대가 陣지를 급편하기도 전에 10분간에 걸쳐 200여발의 각종포탄이 陣지일대에 집중되더니 이와함께 防禦洞(37진지 北쪽 1.2km), 泗川江周邊, 36진지 3개 方向으로부터 都營 1개대대규모로 추산되는 驕敵의 무리가 出現하여 37진지 西北쪽으로 역습대를 반격하였다.

역습대(장, 高文甲 중위)는 이 敵의 예상된 반격에 對處하기 위하여 곧 항공포격을 대대에 긴급요청하고 戰車와 連繫하여 陣지에 殺到하는 오랑캐를 擊滅케 하였는데, 이때 陣지 南쪽 200m부근에 待機中이던 美해병대의 戰車 5대는 36진지로부터 侵攻하는 敵을 차단하고 기총으로 1개소대규모를 屠戮하였으며 戰車제1소대(장, 陸成煥 중위)는 37진지 東北쪽 700~800m로 急進하여 防禦洞 西쪽에서 침공하는 敵 5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기록함으로써 一단의 敵侵을 阻止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泗川江을 渡河하여 陣지 西쪽으로 침공하기 시작한 1개중대규모의 敵은 12.30에 直射砲의 엄호밑에 陣地前方 100m거리로 접근하였다. 이에 出擊한 友軍전폭기 4대가 敵을 發見하고 陣地 西斜面을 공격하였으므로 역습대는 이에 고무되어 수류탄과 소총사격을 집중하여 이들을 섬멸함으로써 陣地 西쪽 1.5km)으로부터 增援부대를 계속 投入하여 泗川江을 도하하고 그들의 포격은 37진지와 戰車가 布陣한 부근 일대를 더욱 치열하게 集注되었다.

역습대(장, 高文甲 중위)는 敵 渡河地點에 105mm포사격을 도 要請하여 敵의 增援을 連打하는 一方 포격에 支撐할 掩體壕를 急造하면서 이미 枯渴된 수류탄과 食水의 推進 보급을 긴급要請하는 等 決戰態勢를 굳혀 陣地固守에 專力하였다.

敵은 이에 對抗하여 13.00~13.15에 泗川江 西岸에 直射砲를 推進하여 射程을 연장하고 陣지를 強打하였으며, 我탄막지역을 벗어난 醜鋒의 一團은 陣地 死角지대를 波狀으로 침습하여 역습대를 거세게 反擊하였다. 따라서 역습대는 火焰방사전차로써 이들의 侵攻을 분쇄코자 連絡兵을 急派하여 戰車長에게 目標를 제시, 步戰協同으로 敵襲을 격퇴하기에 倏絶한 血戰을 전개하였다.

대대장 威소령은 13.20에 역습대의 奮戰을 지원하기 위하여 39진지에 待機中이던 1개소대를 37진지로 趕援케 하고 이들에게 역습대가 긴급히 必要로 하는 탄약과 食水, 그리고 수

류탄을 휴대토록 조치하였는데, 敵은 13.55 이들이 미처 來著하기도 前에 我軍진내에 50발의 120mm박격포와 탄막사격을 또다시 集注하고 이때를 期해 진지西北쪽으로부터 斷未虜의 蟻集침공을 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역습대는 苦戰에 빠져 진내의 混亂과 損失이 急增하였으나 이에도 不拘하고 白兵戰을 敢行하여 그 醜錄의 初動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敵은 계속 後續부대를 진내에 投入하고 發惡의인 奮戰을 자행하였으므로 상황이 急激하게 기울어지게 되었다.

역습대장 高文甲중위는 이 急迫한 危機에 直面하자 더 이상의 진지 固守는 다만 全滅만을 自招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14.10에 수의 철수를 결심하여 이를 斷行하였다.

이로서 역습대는 대대가 急派한 지원대와 戰車의 도움으로 敵의 追擊을 阻止하고 측차 △155 右側 주저항선으로 復歸하여 50명의 부상자를 收容하게 되었다.

한편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이날 제51중대(장, 金學述대위)가 계획대로 金浦에서 空輸기동하여 12.00에 전투단에 復歸하자 제1대대의 戰力을 增援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그는 14.50에 제1, 제3 대대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 『① 제1대대장은 제2중대로 계속 39(로포 高地), 33, 31의 3개 前進진지를 강화하여 前進진지선 방어에 任하게 하고 殘餘 全 중대를 再編하여 次期전투를 위한 제반준비를 18.00까지 完了하라. 再編상황을 수시 報告하고 各중대간 전투력의 均衡을 유지하라. 배속된 제51중대를 전투단 예비로 복귀케 하라.
- ② 제3대대장은 1개소대를 再編하여 17.00까지 39진지를 增援케 하고 제1대대 前進진지 담당중대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

이상과 같이 命令한 그는 于先 제1대대의 再編에 力點을 두어 當面한 敵의 攻勢에 對應하여 早速히 戰力을 回復키로 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의 再編은 連 4일간 계속된 전투로 戰死傷者가 장교 13명, 사병 418명에 達하여 不振하였다. 金 준장은 參謀들과 協議하여 17.30에 敵이 37.36 兩개 진지를 강화하고 39.33.31 3개진지의 間隙으로 侵透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제2중대에 병력을 充員하고 제3대대장으로 하여금 18.00부터 제2중대를 지휘 前面의 前進진지(OPL)까지 一括 統合 담당토록 조치하여 前進진지와 主抵抗선의 作戰上 연결을 보다 원활케 한 다음 22.30에 美 해병 제1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의 부대교대에 따른 지원조치가 完了되자 제1대대를 新銳인 제5대대와 代替, 強力한 예비대를 保有하여 次期전투에 任할 것을 결심하였다.

따라서 그는 23.00에 作命 제241호를 예하에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대는 10.06 15.00까지 제5대대와 제1대대의 부대이동을 斷行하려 한다.
- ② 사단 제1수중대대와 제161 헬리콥터부대는 부대이동을 지원 담당할 것임.
- ③ 제1대대장은 이동과 同時에 美해병 제1사단 金浦임시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또한 이동 즉시 부대를 再編 강화하고 부대교육을 실시하라.

- ③ 제5대대장은 이동측시 예비대로써 임무를 수행하고 別命으로 전투에 任할 萬般준비를 갖추라. 10.06 15.00를 期하여 소총 1개소대를 抽出, 臨津江 橋梁(自由門橋) 경비 임무를 수색소대로부터 인수하라.
- ④ 수색소대장은 臨津江 橋梁경비임무를 10.06 05.00에 제3대대장으로부터 임시 인수하고 10.6.15.00에 該임무를 제5대대 1개소대에 任せ하라.
- ⑤ 현병대장은 각 요소에 현병을 배치, 교통정리에 임하라.
- ⑥ 협조지시
 - ㉞ 각 교대부대는 완전무장할 것이나 실탄휴대를 엄금한다.
 - ㉟ 교대부대는 선발대 54명을 選出하여 교대전 각기 임무를 인수토록 하라.
 - ㊱ 교대요령은 헬리콥터 착륙장 2개地點 A B를 왕복하여 往路에는 2개 대대, 歸路에는 제5대대를 수송한다.
- ⑦ 行政命令 44호를 참조하라.
- ⑧ 부대지휘소는 변동없다.』

2. 43진지(△87)의 상황

이날 제6중대(장, 金景山 중위)가 담당하는 제2대대 正面의 前進진지는 제1대대의 苦戰에도 不拘하고 比較的 平穩한 상태를 持續하였다.

전날에 43진지(△87)를 占領한 다음 固守케 된 제6중대의 장병 68명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前半夜에 진지 前方 4개소에 각기 1개 火力組의 매복대를 배치하여 경계조치를 강화하면서 진지보수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주저항선을 占領한 제5, 제7 兩개중대는 경계조치의 하나로 주저항선 前方 2km에 이르는 일대지역에 04.30까지 야간정찰 및 잠복활동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10.00~15.30에도 泗川江流域과 주저항선-前進진지間 지역일대를 각기 1개소대로 정찰하였다.

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17.00에 敵이 야간공격을 시도할 目標은 43진지(△87) 일 것이라는 판단밑에 이 진지에 대한 支援태세를 強化하기 위하여 제7중대장에게 『1개 소대를 50진지로 急派하라』고 命畀한 다음 17.30에 전투단장 지시에 따라 △155左側 제3대대와의 接合부근 경계에 만전을 期하였다.

10월 6일 : 이날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00.10에 제1대대의 金浦 轉進으로 야기된 前進진지의 配備를 위하여 作命 제242호를 要旨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 『① 부대는 10.6 06.00를 期하여 右제1선 대대의 主抵抗선과 前進진지의 중대 배비를 다음과 같이 조정, 각 진지의 전투력을 강화하려 함.
- ② 제3대대장
 - ㉞ 6.06.00까지 1개중대로써 제2중대가 담당中인 39, 33, 31의 3개 前進진지를 인수하고 제2중대를 6.07.00까지 원대에 복귀케 하라.

㉑ 제51중대의 2개소대를 6.03.00에 통합지휘하여 主抵抗선을 強化하라.

③ 제1대대장

㉒ 39.33.31의 3개 진지에서 철수하는 제2중대와 rocket 포 소대를 6.06.06에 통합 지휘하라.

㉓ 6.02.00부터 부대 이동완료시까지 1개 중대의 예비대를 보유하고 即時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④ 제51중대장은 2개소대의 병력을 6.03.00에 제3대대에 배속하라.

⑤ 교대를 위하여 진지를 이탈하는 각소대는 개인장구를 제외한 共用火器와 탄약 소량을 교대부대에 인계하라. 교대중 각대는 敵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고 신속을 期하라.

⑥ 부대지휘소는 변동없이『披州 野村에 位置한다』

이러한 命을 受領한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은 즉시 상황을 검토하여 제10중대(장, 盧元根 중위)를 前進陣地 담당 중대로 選定하고 00.30에 口頭命을 示達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① 제10중대장은 03.00까지 담당 右제1선 진지를 제9중대장에게 인계하고 1개 소대로써 39진지를 04.30까지, 2개소대로써 33,31 兩개진지를 06.00까지 각각 인수하라.

② 제9중대장은 03.00에 제51중대의 2개 소대를 통합지휘하여 同時刻에 이들로써 제10중대 2개소대진지를 05.30까지 殘餘진지를 인수하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一連의 조치로 當時 제3대대장 지휘下에 있던 제2중대는 39,33,31 진지를 제10중대장에게 계획대로 인계하고 原隊에 복귀하여 他중대와 같이 부대공수이동을 위한 梯隊편성에 착수하였는데, 이로써 제1대대는 數 많은 隊員들의 鮮血이 點綴되고 孤魂이 잠든 37진지를 끝내 되찾지 못하고 제5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15.00까지 金浦 霞城으로 轉進하였다.

한편 金浦에서 일부병력으로 漢江沿邊 경계와 부대훈련에 精進中이던 제5대대(一)는 이날 부대이동으로 原隊에 復歸하자 15.00에 1개소대로써 臨津江橋(自由門橋)경비임무를 인수하고 이를 담당 수행하는 일방 중대별로 각기 진지를 占領하였다.

1. 37진지(△58)의 상황

이날 08.30~15.00까지 실시된 부대교대로 新銳부대를 마치고 아울러 團內 분위기를 一新케 된 金錫範 전투단장은 心氣를 가다듬어 37진지를 끝내 탈환하고자 말겠다는 그의 初志를 다시금 굳게 하였다.

따라서 그는 누차의 역습실패가 敵을 輕視한 계획의 拙劣과 未備에 있었음을 指摘하고 ouse한 火力을 動員하여 一舉에 敵陣을 奪取한 다음 역습부대로서 敵의 反擊을 여지없이 분쇄할 수 있는 계획作成에 沒頭하였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계획에 대비하여 이날 일찌기 美해병 제1사단장에게 建議한 사단

155mm 野砲 및 戰車의 직접지원조치가 원활히 해결되어 155mm포 2개대대, 화염방사전차 4대와 4개소대의 戰車가 37진지 탈환전에 참가케 됨으로써 作命 제243호를 16.00에 成案하고 다음날 06.00를 기하여 37진지에 대한 7차의 역습戰을 續行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날의 敵情은 계속 敵이 37, 36 兩개 진지를 점거하고 我前進陣地 부근 일대 지역에서 소규모 탐색전을 피하였으며, 또한 南村洞(37진지 西쪽 2.2km)으로 부터 京義本線 철교(大破)를 이용 兩개진지에 병력 및 탄약을 增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7.50에 몇차례의 修正과 再檢을 마치고 드디어 下達된 命令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부대는 10.07.06.00를 期하여 37진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고 이를 奪取하려한다.
- ② 사단은 155mm에 2개 대대와 4대의 火焰방사전차, 그리고 4개 소대의 戰車로써 이 역습戰을 직접 지원할 것이다.
- ③ 제5대대장
- ㉑ 제52중대를 기간으로 증강 1개중대를 편성하고 37진지를 공격하여 이를 占領하라.
- ㉒ 역습부대를 07.04.00까지 집결지(△155 西北쪽 600m 元堂里 부근)에 진입케 하고 지시하는 經路에 따라 前進하여 05.50까지 LD(마산팔부근 37진지 南東쪽 800m)를 占領하라.
- ㉓ 제3대대로부터 81mm 박격포 4문을 배속받아 이를 공격 지원화기로 사용하라.
- ㉔ 소총 1개소대를 차출, 東場里 철도를 통하여 37진지로 出動하는 戰車중대 제3소대를 幷護하라.
- ㉕ 역습부대가 목표를 점령한 다음 敵의 반격에 특히 유의하고 계속 진지를 확보하라
- ④ 제3대대장은 제5대대의 공격작전을 적극 지원하고 39.33 31 진지방어를 강화하라.
- ⑤ 포병대대장은 06.20.00까지 제5대대장과 協同하여 화력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06.20.30까지 보고하라.
- ⑥ 4.2"중박격포중대장은 공격間 탄막 A.B.C.D(37 진지부근), E.F(36 진지일대)에 사격을 집중하라.
- ⑦ 전차중대장은 3개소대를 07.06.00까지 37진지 부근에 진출시켜 화염방사전차와 協同하여 공격부대를 지원하라.
- ⑧ 사단으로 부터 지원된 4개소대의 전차는 그중 2개소대가 37진지 부근에서 직접 화력 지원할 것이며 잔여 2개소대는 예비로 대기할 것이다.
- ⑨ 협조지시
- ㉖ 공격부대 및 각지원부대는 제반준비를 06.24.00까지 완료하라.
- ㉗ 각대간의 세부협조를 06.20.00까지 완료하고 06.20.30까지 이를 보고하라.
- ⑩ 공격부대는 최소한 2 基數의 탄약을 휴대하라.
- ⑪ 부대 CP는 10.07 05.30부터 동일 12.00까지 △155에 제3대대 CP와 같이 위치한다』

이와같이 하여 그는 37진지를 다시 占領하고 當初의 前進진지선을 回復하여 主障地를 보다 安全하게 하려던 것이었으나 각대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무렵인 18.15에 사단으로부터 『敵 1개 중대가今夜에 43진지(△87)를 기습할 것』이라는 정보가 入手되었으며, 뒤이어 20.50에는 敵의 침공이 43진지(△87)에 加해짐에 이르러 이 명령은 사단지시에 따라 取消할 수 밖에 없는 破局을 맞이하게 되었다.

2. 43진지(△87)의 상황

이날 부대가 예비대의 再配備를 斷行하는데 이어서 37진지에 대한 역습을 준비하기에 盡力하는 동안 左側 1선대대 담당 正面에서는 별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는 前半夜에 이어 오전中 계속 43.50 兩개 前進진지와 主抵抗線の 強化를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예정된 潛伏 및 수색, 정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18.15에 敵이 43진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入手하게 되어 緊張이 高潮되었다. 대대장은 毎日 強調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였으나 제6중대장 金景山 중위에게 『夜間 敵 침투에 대비 경계를 강화하여 43진지 및 50진지방어에 萬全을 期하라』라고 命令하고 아울러 제5, 제7 중대장에게 진지를 계속 순찰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대는 이날 19.00에 43진지에 집중된 敵 포격으로 3명이 부상하여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19.10~20.15까지 前進진지경비에 萬全을 기하기 위하여 제5중대에서 1개 소대의 잠복대를 △28(50진지 北쪽 1km)에, 제7중대에서 같은 규모의 잠복대를 43진지 南쪽 800m 부근에 진입시켜 前進진지를 담당하는 제6중대를 增援하였다.

그런데 正面의 오랑캐는 20.50에 △65(43진지 西쪽 2.5km)에서 赤色신호탄 1발을 발사함과 함께 砲擊을 다시 43진지(△87)에 집중하면서 그들 醜鋒이 泗川江을 渡河하여 진지 南쪽 左側 稜線을 타고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敵情에 비추어 43진지를 扼守하고 있는 제6중대(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1.00에 1개 분대를 急進케 하고 敵의 暗中 動向을 탐지토록 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도 전에 또다른 敵이 이때 진지 南쪽 右側稜線을 타고 침공하려는 氣勢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43진지로부터 이러한 急報에 接한 대대는 21.55에 제7중대에서 1개 소대를 50진지로 急派케 하고 제6중대를 增援토록 한 다음 即刻 예상 渡河지점에 집중포격을 要請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5대대의 37진지 탈환전을 위하여 준비중이던 포병대대는 단장 命으로 任務을 變更하여 43진지에 대한 破壤사격을 22.10부터 실시, 敵의 侵路 차단과 제압에 힘쓰므로써 진지 前面의 泗川江沿岸 일대는 또다시 激怒의 포화가 炸裂하고 咆哮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醜敵의 무리는 22.15~22.20에 43진지에 300발, 50진지에 200발의 각종 포격을 同時에 집중하고 진지의 교란 및 파괴를 일삼았으며, 東江里(37진지 北쪽 1km)와 龍田里(37진지 西쪽 1km)로부터 泗川江을 渡河한 듯한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무리가 이 포격에 掩護되어 43진지 南쪽과 北쪽 2개 方向으로 부터 侵攻을 遂行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從前과 같은 侵襲手法로 포격의 延伸과 때를 같이하여 43진지 南쪽 50m에 근접한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진지 北쪽으로부터 침공한 1개중대 규모와 呼應하여 진지에 수류탄과 폭약공격을 先行하고 一時에 亂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當時에 43진지를 固守하던 제6중대 소속 梁昌根중위 이하 장병들은 敵포격 속에서 진지를 支撐하는 사이 발생한 15명의 사상에도 不拘하고 과감히 진내戰을 벌여 上峰에 突入하려는 敵 30여명을 射殺하고 제빨리 機先을 制壓하였다.

敵은 이 瞬間 後續부대를 다시 投入하고 진지北쪽을 침습한 助攻으로 보이는 敵과 合流하여 執拗한 파상공격을 피하였으므로 衆寡不敵인 我軍은 激戰을 거듭하였으나 梁昌根 중위가 전사하는 등 상황이 극도로 不利하였으므로 依命 22.30에 4.2"포 및 81mm박격포의 지원을 받아 측차로 50진지쪽으로 철수를 결행하였으니 敵을 應懲하려는 해병들의 憤怒는 다시 43진지로 飛火되었다.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이와같은 상황의 突變으로 22.40에 제5대대장에게 『제53중대를 즉시 역습대로 편성 43진지를 역습토록 준비하라』고 한 다음 23.00부터 43진지에 대하여 30분간 105mm, 4.2", 81mm 포사격을 집중케 하여 敵의 再編을 분쇄하기에 注力하였으며, 한편 대대는 23.25에 제6중대 제2소대로 하여금 13명의 戰鬪수색대를 50진지 前方 1km高地 일대로 出動케 하여 敵情을 감시케 하였다.



<戰鬪團本部에서 將兵들의 裝具를 檢閲하는 金錫範준장>

10월 7일 : 전날 43진지에 加해진 敵의 새로운 威脅에 直面하여 부대는 37진지(△58)의 탈환전을 사단지시로 中斷하였으나 43진지(△87)를 탈환하려는 作戰에는 제한을 받은 사

살이 없었으므로 金錫範 단장은 이날 未明을 期해 역습으로 43진지를 다시 掌握키로 결심하였다.

이 作戰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戰車 1개소대(제2소대)를 09.05에 제2대대에 배속하고 제53중대(배속)를 主攻부대로 제6중대(一)를 助攻부대로 하는 계획지침을 제2대대장에게 下達하는 同時에 이 공격은 拂曉에 斷行하라고 指示하였다.

43진지(△87)의 상황

2차 역습戰

제2대대장 徐廷南 소령은 이 命을 수명하자 즉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대대는 04.30에 공격을 감행하고 43진지를 탈취하려 한다.

② 주공부대인 제53중대장은 120명으로 역습대를 편성 04.25에 LD(43진지 南쪽 500m)를 占領하고 43진지를 점령하라.

③ 조공부대인 제6중대장은 68명으로 역습대를 편성 제53중대 LD점령과 때를 같이하여 50진지로부터 稜線을 따라 53진지 東쪽으로 진입하고 제53중대를 지원 43진지를 점령하라.

④ 戰車 제2소대장은 진지 南쪽에 근접하여 이들을 직접 지원하라』

이상과 같은 계획으로 01.00에 要旨命을 받게 된 제53중대장 朴炳鎬 중위는 준비를 완료한 120명의 역습대를 지휘하여 01.20에 중대 CP를 떠나 01.35에 제2대대 CP를경유 50진지로 進出하였으며, 02.45에는 다시 躍進하여 俗稱 울골로 向하고 있을 때 제6중대장이하 67명의 조공부대는 04.00에 50—43진지間 無名高地에서 병력을 전개하였다.

04.25에 LD를 占領한 역습주공부대는 이때를 約定한 我軍105mm포 一齊 사격과 戰車 5대의 근접지원을 받아 敵陣을 連打하는 사이에 躍進과 포복으로 比較的 完만한 南쪽 稜線을 登破하고 04.55에 敵陣에 直突하였다, 한편 제6중대는 이 時刻에 진지 東北쪽 稜線을 直衝하고 10분 後에 진내에 突入하여 敵을 南北에서 挾擊하였다.

이리하여 開始된 凄絶한 公방전에서 역습부대는 마침내 敵을 壓到하고 40여명을 鑿滅하는 전과를 거두면서 1시간에 걸친 진내전을 벌였다.

그러나 06.15에 이르러 敵의 집단은 다시 43진지에 120mm 박격포를 비롯한 각종 포격을 집중하고 1개대대(一) 규모의 병력을 增援하여 泗川江을 도하, 반격을 시도하였으며 一時 退却하였던 敵 역시 이에 合勢하여 개미떼와 같이 高地를 目標로 掩襲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兩개중대는 惡戰苦鬪를 거듭하였는데 이때 有無線이 斷絶되어 交信이 不能케 되었으며, 陣頭에서 역습대를 지휘하던 제53중대 선임 장교 金大烈 중위가 凶彈에 敵華하고 제6중대장 金景山 중위가 또한 부상을 입는 등 손실이 急增하였다.

이런 상황에도 不拘하고 무려 40분을 敵과 決戰을 감행한 兩중대는 06.55에 더 이상 支撐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隨意철수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고자 긴급出驛한 友軍 哈

공기 4대는 07.00에 43진지 上峰과 泗川江의 對岸에 있는 敵陣을 強襲하고 戰車 2소대는 진지 南麓에서 이들 철수부대를 掩護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로 제6중대의 조공부대는 07.55에, 그리고 주공부대는 08.05에 각기 50진지로 철수를 完了함에 따라 2차의 역습戰을 終結케 되었다.

그런데 전투단장 金錫範 준장은 이에 屈하지 않았다. 그는 期於이 43진지를 탈취할 決心下에 美해병 제1사단장에게 37진지 7차 역습戰의 계획을 보고함과 동시에 強力한 火力支援을 요청하고 또 다시 43진지에 대한 3차의 역습을 斷行하려하자 이 計劃에 接한 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은 12.00에 부대를 방문하고 그간에 전투단이 이룩한 力戰을 치하한 다음 『전투단은 39진지—33진지—31진지—50진지에 前進진지선(OPL)를 形成하고 主抵抗방어에 萬을 期하라』고 지시, 이 역습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전투단은 새로운 임무에 따라 곧 10월 2일 敵의 공세로 시작된 連 6日間の 上항을 일단 마무리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敵이 침공한 一部の 前陣진지를 끝내 되찾지 못하였을 망정 敵의 大兵力을 격멸하여 그들 공세를 短時日內에 그 前進陣地線에서 阻止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상과 같이 서로의 雄雌를 겨룬 이 泗川江부근의 공방전은 結局 我軍이 選定한 前進진지가 敵方に 突出하여 地理的 조건이 固守방어에 不適合할 뿐 아니라 中立地帶근처에 布陣하는 敵의 火力을 制壓하지 못하는 이상 惡戰을 무릅쓰고 續行할 意義가 없으며, 따라서 前進陣地線을 새로이 修正 設定하여야 한다는 判斷으로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해병 제1전투단은 이전투 後에 곧 前進진지선(OPL)을 39(로포 高地)—33(△45)—31—50의 4개진지를 據點으로 形成하고 계속 變動없이 主陣地를 構築 강화하여 敵과 對陣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敵은 侵襲한 37(△58), 36, 43(△87)등 진지를 支撐하기에 加重的 負擔을 안게 되었으며 我軍은 보다 近距離에 敵을 유인하고 보다 有利한 立場에서 對陣케 되었다. 따라서 전투단의 차후 作戰은 敵이 占領한 이들 진지를 계속 擊碎하여 無力케 하고, 아울러 敵情을 수집키위하여 포로획득에 價値하는 기습形態로 전환하였다.

이와같은 方針에 따라 부대는 계속 右—선에 제3대대를, 左—선에 제2대대를, 예비로 제5대대를 控置하여 10월 13일까지 敵情을 觀察하다가 以後로 中隊단위에 의한 夜間기습과 威力수색전을 전개하여 敵의 醜鋒을 連打하기에 모든 戰力을 動員하였다.

그런데 當面の 敵 中共 65군은 전투단이 이 전투로부터 敵情을 觀察하던 13일에 이르는 期間中에 37(△58), 36, 924, 43 등 진지 強化에 더욱 注力하여 이들 진지를 據點삼아 我軍이 장악한 39, 33, 31 前進진지와 50진지 그리고 심지어는 主抵抗선인 △155 左側 制限點 부근까지 夜陰을 이용하여 소부대로 탐색활동케 하였다.

그러므로 期間中에 敵과의 接戰이 빈발하여 彼我의 야간수색대가 連日 출동하였으며 39진지진지에서는 2회, 33진지는 3회, 50진지는 1회에 걸쳐 敵과 交戰케 되었다.

이러하여 敵은 이 전투로 因한 큰 損失에도 아랑곳없이 休戰會談을 有利하게 이끌려는 그들의 策略에 따라 10월 31일 또 다시 全面공세를 取함으로써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泗川江 부근 2차 공방전의 종합전과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部隊別	區分	死 傷		獲								
		射 殺	死 傷 (추경)	輕機	기관短銃	다발총	俄式 소총	수류탄	지뢰	방독면	파괴통	폭약 (TNT)
제 1 대 대	대 대	285	285	2	20	75	45	53	1		1	5
제 2 대 대	대 대	170	120	4	43	20	37	33	4	7	3	7
제 3 대 대	대 대	120	80	3	23	47	41	132	2		4	
제 5 대 대	대 대	40	25	1	7	19	24	25	1		1	
수 색 소 대	대 대	25	30		2	3	3	10	3		1	
중 박격포 중 대	대 대	70	80									
포 병 대 대	대 대	760	330									
전 차 중 대	대 대	80	110				7	39				
계		1,550	1,060	10	95	164	157	292	11	7	10	12

損 失

部隊別	區分	戰死	負傷	失踪	亡 失								
					60mm 迫擊砲	重機	輕機	자동 소총	권총	M1	카빈	SCR- 300	SCR- 536
제 1 대 대	대 대	1/11	12/253	157	3		5	28	13	201	150	4	11
제 2 대 대	대 대	1/33	5/85	2/37	2	4	8	22	13	88	49	3	4
제 3 대 대	대 대	1/5	4/51				1	5		24		1	
제 5 대 대	대 대	0/12	3/43					5	3	22	9		
수 색 소 대	대 대		1/1										
포 병 대 대	대 대	1	1	1/5									
전 차 중 대	대 대			3									
계		4/62	25/237	3/199	5	4	14	60	29	335	208	8	15

§ 參戰者의 證言

◇ 제1대대장 威德昌 소령

(1965년 10월 26일 전편위에서, 예 중령)

나는 敵의 一齊砲擊이 제1중대가 담당하는 前
進진지에 집중되기 시작하자 즉각 그 前진 진지
주위를 砲擊으로 제압하여 출격을 要請하였다.

그 까닭은 이 砲擊에 앞서 敵이 진지 주변에
집중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 포격은 美고문관의 그릇된 판단
으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 사이 敵의 포격은
끝났으며 이에 이르러 상황은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36, 37 兩개진지가 敵의 手中에 들어가자 鎗
砲 준장은 37진지에 대하여 6차나 우리 대대에

계 중대규모로 역습을 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너희 부대가 빼앗겼으니깐 너희가 이를 탈환하
라는 것이었다.

結局 우리대대는 兵力의 集中을 期하지 못하
고 중대별 축차공격을 결행하여 손실만을 自招
하였다. 대대가 37진지를 탈환치 못한 이유는
이러한 공격으로 36, 37 兩개진지를 同時에 공격
하지 않고 單一目標만을 계속 소부대로써 공격
하였다는데도 있겠으나 侵襲한 敵에게 많은 시
간의 여유를 주어 그들이 진지를 구축할 때까지
한발의 砲擊도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본
다.

◇ 제1대대 제3중대장 高文甲 중위

(1964년 5월 28일 忠武市에서, 예 중령)

제6차 역습戰에는 제3중대 일부병력과 제1중대

병력이 참가하였는데 저희 중대에서는 韓周燾소위, 金明煥소위 그리고 本人이 참가하였다. 이 공격은 처음 成功을 거두어 △58를 一舉에 占領할 수 있었으나 이는 敵이 我軍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부러 高地에서 退却하였기 때문이다.

즉 敵은 『高地를 占領하려면 하라 그 다음에 포격을 집중할 것이다』라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高地를 占領하자 우리는 진지工事에 착수하면서 절대 不足한 수류탄과 食水を 대대에 요청하였다. 잠시후 敵의 對戰車砲擊이 집중하기에 이르러 여기에서 부상을 입고 나는 後送되었다.

◇ 제1중대 제1소대장 李鎭一 소위
(1975년 8월 13일 서울에서, 예, 소령)

36진지를 담당방어하던 제1소대는 중대로부터 敵이 出現하면 즉시 탄막사격을 약속받고 있었다. 敵侵入이 시작되자 나는 즉시 무전기로 중대장에게 탄막사격을 요청하였으나 이때 무전은 37진지로부터의 상황이 겹쳐 混線되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敵은 37진지를 先占하고 이곳에 박격포를 거치하여 36진지를 공격하기에 이르러 소대는 善戰에도 不拘하고 마침내 左側능선이 突破되었고 뒤따라 人海戰術을 恣行한 敵에게 결국 힘이 미치지 못하여 高地는 被奪되었으며 소대장인 나는 사로잡히는 不運을 맞이하였다.

달이 西山에 기울때 나는 敵에게 押送케 되자 그들의 放心을 틈타 九死一生으로 敵陣을 脫出하여, 中隊 本部로 歸還하였는데 소대를 잃은 當時의 心情은 形容할 길이 없다.

나는 중대에 귀환 즉시 탄막 사격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묻고 곧 역습으로 진지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表明하였으나 중대장은 『36진지는 포기하였으니 斷念하라』고 하였다.

◇ 제4중대(重火器중대) 박격포 소대장 金承夏 소위

(1965년 2월 18일 鎭海교육단에서, 소령)

敵의 秋夕공세로 前進진지를 빼앗기게 된 내대는 역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1차~3차 역습으로 소총소대장이 계속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으므로 4차역습에는 박격포소대장인 나까지 돌격소대장에 임명되었다. 敵은 當時에 我軍역습대가 또 다시 올 것이라 판단하고 고지부근에 탄막사격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위에 소수병력을 잠복케 하여 역습대의 進出을 극력 阻止하였다. 마침내 露着된 중대는 隨意 撤收를 단행하였는데 이때 나는 전날 전투로 관통상을 입어 신음중인 같은 중대원을 발견, 구출하였다.

제1대대가 37진지를 되찾고자 한 역습전은 結局 敵의 탄막과 地形의 不利로 失敗로 끝났다.

◇ 제2대대 제7중대장 成錫倫 중령
(1965년 4월 12일 제3연대에서, 중령)

當時에 △87에는 1개 소대를, △50에는 중대 본부를 포함하여 2개 소대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敵은 10월 2일 20.30부터 21.00에 이르는 30분사이에 각종포탄 2,000~3,000발을 △87에 집중하였으므로 주저항선의 제7중대 CP에서 관측한 바로는 마치 진지 上空이 불꽃으로 뒤덮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22.30부터 23.00사이라고 생각되는데 △87가 敵에게 占領되었다는 것이 確認되자 대대에서는 즉시 나에게 제7중대를 지휘하여 역습하라고 命令하였다.

當時에 作戰 계획의 骨字는 우선 戰車 1개 소대와 같이 步戰協同으로 △87 바로 兩쪽에 있는 공격대기 지점에 進入하여 대기하다가 次後 命令으로 돌격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美항공기 2개 편대가 △87를 강타하고 이어서 我軍각종포화가 同高地에 집중되었는데 이 사이에 LD를 넘어 곧 돌격을 감행하였다.

역습을 성공시킨 큰 原因의 하나는 제2소대를 진지 左側으로 迂回토록 한 것이 敵에게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적진 100m 가량 무난히 접근하여 敵을 교란하였기 때문이다. 즉 敵은 제2소대가 우회하는 것을 모르고 중대 正面에만 사격을 집중하였으므로 이 소대는 별 손실 없이 敵陣을 直衝할 수가 있었다.

§. 戰 訓

◇ 逆襲時機

제1대대가 37진지(△58)를 탈환키 위한 逆襲을 敢行함에 있어서 相當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이를 實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敵은 再編에 必要한 충분한 시간을 얻어 진지를 總編하고 여유있게 我軍의 逆습을 반격할 수 있었다.

즉 제1차역습戰에서는 敵이 진지를 점령한 後 5시간이 지나서야 逆습하였고, 제2차에는 1차역습때가 高地를 철수한 다음 4시간후에야 돌격을 감행하였으며, 3차에는 6시간이, 4차에는 9시간이, 5차에는 7시간이, 6차에는 10시간이 각각 경과한 後에야 再공격을 단행하였던 것이었으니, 이 전투에서 모두 逆襲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指摘하여야 할 것이다.

◇ 兵力의 分割 使用

敵의 全面공세에 直面하여 이들을 前進 陣地선에서 阻止 분쇄코자한 海兵들의 勇猛과 그 敢鬪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敵에게 被奪된 하나의 진지를 탈환하고 이를 固守하려 하였던 逆습전에 있어서 兵力의 分割 사용은 結局 屢次的 逆습을 弱화하고 損失만을 招來하는 결과가 되었다.

當時 부족한 兵力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될 수록 兵力을 同時に 집중하여 37, 36 兩개진지에 대한 逆습을 決行하였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 逆襲의 反復과 同一經路

제1대대는 1차역습戰을 除外하고는 2차~4차 5차~6차 逆습전 모두 同一한 經路와 LD를 선정, 37-진지 南東쪽에서만 공격을 되풀이 하였다. 따라서 敵은 이와같은 我軍의 逆습 方法에 대하여 屢사리 그 대책을 세웠고 특히 敵은 탄막을 我軍의 接近路와 철수루에 설정하였으며 사전에 일부 병력을 이 지역에 매복하고 我軍으로 하여금 苦戰케 하였다.

逆襲은 奇襲의 效를 거두어야 할것인데 될 수록 기도를 秘匿하기 위하여서도 逆습은 相異한 方法과 經路를 택하여 敵을 기만하고 虛隙을 노렸어야 할 것이었다.

◇ 前進陣地의 不適

해병전투단이 占領한 前進진지는 모두 敵으로부터 瞰制되는 50m 内外의 丘陵이며, 또 我主抵抗선보다 敵陣에 가까와 固守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다.

따라서 前進진지선이 不適함뿐 아니라 별다른 方策없이 이를 固守한다는 것은 無謀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主陣地를 방어하기 위한 不得已한 措置였다면 진지 고수라는 방어개념을 떠나 대규모 敵侵이 있을 경우 퇴각을 가장하고 기동타격대를 부근에 潛伏 대기케 하였다가 이들로써 逆습하여 분쇄하는 方式이 더욱 적절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泚川江부근前進陣地 第四次戰(1952년 10월 31일부터 1952년 11월 1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25 호
상 황 도 제 79, 80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해병제 1 전투단	장 대령 金 聖 恩	제 12 중대	장 중위 李 仁 哲
제 2 대대	장 소령 徐 廷 南	제 5 대대	장 중령 姜 起 千
제 5 중대	장 중위 權 重 達	제 51 중대	장 중위 金 昌 均
제 6 중대	장 중위 吉 永 煥	제 52 중대	장 중위 朴 元 奎
	중위 咸 錫 倫	제 53 중대	장 중위 朴 光 源
제 7 중대	장(대리)소위 李 昌 洙	포병대대	장 소령 鄭 滿 鎭
제 8 중대	장 대위 李 基 德	제 1 중대	장 중위 金 在 善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昌 寬	제 2 중대	장 중위 曹 在 鼎
제 9 중대	장 중위 金 昌 胄	제 3 중대	장 중위 金 在 龍
제 10 중대	장 중위 趙 德 濟	戰車중대	장 대위 吳 尙 奎
제 11 중대	장 중위 林 靈 燮	工兵중대	장 대위 姜 永 求
敵		軍	
中共제 65 군	장 蕭 應 棠	제 193 사단	장 張 雲 龍
제 194 사단	장 趙 翁 教	제 577, 제 578, 제 579 연대	
제 580, 제 581, 제 582 연대		제 8, 제 31 포병사단 基幹	
제 195 사단	장 阮 平	(各種砲 推計 420門)	
제 583, 제 584, 제 585 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이 전투는 西部전선 最左翼을 담당한 해병제 1 전투단이 當面の 中共 제 65 군 예하 제 164, 제 165 兩개사단과 對峙하다가 敵이 恣行한 이문바 秋季제 1 次 공세에 뒤이어 10월 31일에 또 다시 再開한 그물약

제2次공세를 39, 33, 31, 50진지등 4개의 前進진지에서 痛烈하게 擊破한 2日間の 血戰이다. 해병제1 전투단은 이 一戰으로 敵이 1952년초부터 夏季에 걸쳐 強化한 戰力을 집중하여 我軍의 前進진지와 主진지를 一擧에 席捲하려고 악착같이 試圖한 一連의 秋季공세를 마침내 完破하고 首都방위의 所任을 다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10월 2일에 6,900명의 兵力과 各種砲 420문을 投入한 제1차공세가 제1, 제2 兩개대대의 敵圖로 말미암아 突出한 3개의 前進진지(37(58), 36, 43(△87))만을 占領하는데 그치고 推算 2,610명의 兵力손실만을 自招하게 된 醜敵의 무리는 이와같은 큰 打撃에도 不拘하고 그들 當初의 策略에 따라 또다시 我 39, 33, 31, 50진지등 前進진지와 甚之於是 主진지까지 侵奪하려 획책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따라서 敵은 當時에 判明된 바에 의하면 제1차공세로 입게된 손실을 補充하는 동안 先占한 37(△58), 36, 43(△87)진지를 일부병력으로 強化하면서 이를 據點삼아 夜陰에 限하여 前述한 我前進진지 주변에 대한 탐색 및 경찰활동을 계속실시하고 我軍의 動靜을 살피기에 血眼이 되었다.

我軍의 상황: 해병 제1전투단은 敵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敵襲을 前進진지인 39, 33, 31, 50진지에서 계속 격쇄하기 위하여 10월 7일 以後 同월 30일까지 右側一線에 제3대대를, 左側一線에 제2대대를, 그리고 제5대대를 예비로 控置하고 각기 1개중대로 하여금 前面의 前進진지선을 堅守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전투단의 각전은 敵이 占領한 37(△58), 36, 43(△87)진지의 파괴와 殺傷을 위한 奇襲 및 威力수색작전을 並用, 진지경계에 注力하게 되어 이 전투가 시작된 31일까지 一日平均 155mm (美 해병제1사단 일반지원), 165mm, 4.2" 戰車砲등 各種砲 700발을 이틀 진지와 泗川江 西岸에 위치하는 敵 主진지에 집중하였다.

또 敵據點 분쇄와 포로획득을 위한 소대~중대규모의 기습은 期間중에 9회에 걸쳐 敢行하였으며 各隊 共히 一日平均 3개組의 晝夜間 경찰 및 7개組의 潛伏활동을 連日 실시하고 진지固守의 決意를 확고히 하였는데, 이로 因하여 彼我的 偵察隊가 빈번하게 출동하게 되었다.

10월 7일 18.00~10월 31일 18.00까지 滿 25일간의 綜合전과는 확인사살 52명, 推定사살 397명, 진지파괴 79개, 포로 4명이었으며 反面에 我軍손실은 전사 8명, 부상 69명이었다.

한편 이전투가 전개되기 前까지 特記할 사항으로는 3월 17일 해병제1연대가 西部전선으로 轉進後 연대장에 취임하여 전투단에 이르기까지 부대를 지휘한 金錫範 中장이 10월 16일에 海軍대副사령관으로 轉出함에 따라 그 後任으로 金聖恩 大령이 전투단장에 就任하고 부대呼稱도 從前의 제8089부대로부터 제8013부대로 改稱한 사실이라 하겠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敵공세작전에 直面하여 진지를 固守하는 一方 先制활동으로 그들 醜鋒에 連打를 加하기 위한 노력은 10월 12일 제5대대 제53중대의 △50(39진지 前方 1km) 夜間 기습으로 始發하였다.

當時에 右側一線대대인 제3대대는 主진지에 제9, 제11중대를, 39, 33, 31등 前進진지에 제10중대를 配備하고, 左側一線대대인 제2대대는 제5, 제7중대를 主진지에 그리고 前進진지인 50진지에는 제6중대를 전개하고 있었으나 제2대대는 곧 前進진지의 부대 교대를 실시하고 新銳인 제7중대(-1)를 50진지에 새로이 配置하여 堅陣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16일까지 作命 제244~247호로 敵 수중에 있는 △58, 36진지, △87에 대하여 제5, 제

52 兩개 중대로 각기 2차의 기습을 敢行하였으며, 金聖恩 대령이 부대장에 부임한 다음인 31일에는 右제一선 대대인 제1대대도 그 3개의 前進진지에 제11중대를 새로이 전개하였다.

金聖恩대령은 前任 金錫範 준장이 단장 在任時에 수립한 一連의 조치에 따라 계속 敵陣에 대한 기습전을 斷行키로 決心하고 19일~27일에 作命 제 248~제252호를 發動하여 前記 據點들과 潛伏要所를 분쇄하기에 全力하였다.

그는 10월 20일에 美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萬一의 경우에 대비하여 下達된 철수명령에 의거 敵情을 3개案으로 想定하고 指定된 kansas선 占領계획을 에하여 發表하는 豫備조치를 강구하였는데, 25일부터 敵의 砲擊활동이 激化되자 28일에 40일간으로 예정한 右제一선대대의 부대 교대를 早期에 실시하여, 보다 新銳로 하여금 예상되는 敵襲을 斷乎히 阻止하고 最善을 다해 現진지를 固守키로 要旨 다음과 같이 作命 제254호를 下達하였다.

『① 부대는 10월 31일 03.00에 右제一선 대대인 제3대대와 예비대인 제5대대의 임무를 교대시키려 한다.

② 제5대대장

㉑ 10월 31일 01.00까지 소총 1개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고 이중대로 하여금 前進 39, 33, 31진지의 임무를 인수케 하라.

㉒ 11월 1일 02.00부터 同일 05.00까지 제3대대의 주저항선 진지를 인수하고 계속방어에 임하라.

㉓ 自由門橋(臨津江橋)경비와 kansas선 및 그 前方진지의 진지 工事を 11월 2일 12.00까지 제3대대장에게 인계하라.

③ 제3대대장

㉑ 10월 31일 05.00까지 제5대대로부터 배속된 1개중대로서 39, 33, 31의 前進진지를 인수케 하라.

㉒ 11월 1일 05.00까지 주저항선진지를 제5대대장에게 인계하라.

㉓ 제5대대장으로부터 自由門橋 경비임무와 kansas선의 진지공사를 인수하고 11월 2일 08.00부터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④ 協助指示

㉑ 각대는 行動실시의 中間 및 結果를 보고하라. (단 무선사용을 禁한다)

㉒ 부대교대間 기동은 徒步로 한다.

㉓ 주저항선 부대 裝備中 美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대여 지원받은 共用火器는 現地에서 인수 인계하라.

㉔ 교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作指제23호(1952년 7월 4일 15.00부)를 참조하라.

④ 軍수사항

㉑ 각종 築城자재는 일체 現진지에서 인수 인계하고 1개의 자재라 할지라도 진지에서서의

搬出을 엄금한다.

- ㉑ 제3대대의 전상자 수용을 위한 土窟有蓋壕는 부대교대前에 구축完了하라.
- ㉒ 제3대대장은 연대본부에서 대여받은 각종공구, 기재를 30일 13.00까지 S-4에 반환하라.
- ㉓ 각대가 재고로 소유하는 天幕을 携帶하라.
- ㉔ 각대 탄약은 소화기에 限하여 一基數씩 携帶하고 殘餘分은 현지에서 인계하라.
- ㉕ 각대는 移動後 12시간內에 兵器, 築城 자재와 탄약 現況을 보고하라.
- ㉖ 부대지휘소는 前과 변동없이 野村에 위치한다.』

이상과 같은 命令을 受領한 제3, 제5 兩개 대대장은 同일부로 각중대장들에게 陣地교대를 위한 준비 命令을 口頭로 示達하고 계획에 蹉跌이 없도록 警告하였다.

그런데 이 부대교대는 30일에 이르러 激化된 敵의 砲擊과 39, 33, 31 및 50진지 주위에 出沒한 敵兵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侵襲을 要扼 格쇄하지 않고서는 진지를 인계할 수 없다는 제11중대장병들의 건의에 따라 右側一선부대의 前進진지는 이 전투가 끝나야야 실시되었다

한편 부대장 金聖恩대령은 敵의 징후로 미루어 그들 再공세가 滿月明夜에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31일 戰車15대를 左右側一선대대 制限點부근 주진지와 後方에 배비하였으며 아울러 前進진지의 支援조치를 強化하기 위하여 2개 중대(제10, 제52중대)를 주진지 부근에 推進하고 待命케 하였다.

(2) 작전실시

10월 31일 : 부대교대 命令으로 將兵들의 士氣가 자못 높아지고 새로운 鬪魂을 불사르게 된 제3, 제5 兩개대대는 28일에 이어 29일 예정된 晝夜間 潛伏과 精찰한 搜索활동을 實施하여 敵侵에 대한 경계 措置를 強化하면서 진지 交代를 위한 준비에 부산하였다.

驕敵의 무리는 전날 06.00에 제11중대 제3소대가 防守하는 33(△45)前進진지에 61mm로 추측되는 17발의 砲擊을 집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간에 31진지(제11중대본부 및 제2소대堅守)에 推定 105mm砲 5발, 同일 13.10~13.20에 제7중대(-1)가 占領中인 50진지에 122mm로 推測되는 38발을, 그리고 18.00~18.20에는 39, 50 兩개 진지에 戰車砲 15발과, 口徑未詳의 砲擊 900여발을 集中하였다.

同시에 39진지前方에 1개 중대로 추측되는 敵兵이, 또한 33, 31 兩개 진지 前方에 각기 1개 소대 규모로 判斷되는 兵力이 出現하였으므로 戰線은 緊張이 高潮되었다. 따라서 부대는 전날 18.00부터 이날 18.00에 걸쳐 경계조치의 강화는 勿論 敵出沒지역과 敵이 占據한 37(△58), 36 924 43(△87)진지등 도합 106개 목표에 105mm 973발, 4.2" 308발, 75mm無反動銃 16발의 制壓사격을 실시하고 敵侵에 對應하여 진지를 固守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날 06.00에 39진지 前方을 搜索한 제11중대 제1소대(39진지 守備)가 敵이 전날 밤에 다음

侵襲을 위하여 미리 携帶에 不便한 重量 폭약을 推進 은익한 것으로 추측되는 수류탄 60발을 押收하였으며 또 15.50에 防禦洞 西쪽 1km를 偵察한 수색소대 12명은 이곳에서 1개 소대규모의 敵과 遭遇하고 교전이 전개되었다.

부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와같은 敵情에 비추어 敵이 1日~2日內에 再侵하려는 기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當夜배비를 위하여 진지 固守에 必要한 火力增援을 위해 戰車중대 3개소대(戰車 15대)를 老上里와 俗稱 작학동부근 주진지 그리고 그後方 4개지역에 18.00까지 전개하고 또 이때까지 진지의 인계 인수가 끝나지 못한 現狀상태 그대로의 陣勢를 固定토록 配慮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날 敵의 一齋공격이 시작되기까지 부대교대는 제3대대 제10중대만이 주진지를 제5대대 제53중대에 完전히 인계하였을 뿐 $\Delta 155$ 右則 일부 진지와 39, 33, 31전진 진지는 제3대대 제9중대와 제11중대가 제5대대(장, 姜起千 중령)에 배속되어 계속 점령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비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대장은 제10중대를 제53중대가 점령한 진지 後方에, 그리고 제11중대의 前進진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待命中인 제52중대를 제2대대 右側진지(제5중대점령)後方에 전개하고 즉각 적의 反擊에 대처할수 있도록 萬般대세를 강구하였다.

상황전개 當時에 부대의 제一선은 제5, 제2 兩대대가 담당하였는데 右제一선인 제5대대는 제9중대(배속) 제1, 제2, 제3소대—제51중대 제1소대—제53중대 제2, 제1, 제3소대 順으로 主抵抗線을 占領하고 그 前進진지에는 如前히 제11중대(배속) 제1소대가 제9중대 Rocket포소대 일부와 같이 39진지를, 그 제3소대가 33($\Delta 45$) 진지를, 제2소대가 31진지를 중대 본부와 같이 각기 防備하고 있었다. 또 左제一선대대인 제2대대는 제5중대(제2, 제1, 제3소대 順)—제6중대(제7중대 제1(배속), 제1, 제3, 제2 順)를 展開하고 그 前進진지인 50진지에 제7중대 제2, 제3소대를 배비하게 되었는데, 예비兵力으로는 前記 제10, 제52중대와 제1중대진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Delta 155$ 後方에 집결하고 있는 제51중대 제2, 제3소대가 있었을 뿐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때 敵은 이날 22.05에 추산 2개연대兵力으로 39, 33, 31전진진지와 그리고 50前進진지 및 일부 主抵抗선에 대한 侵攻을 一齋히 꾀하게 된것이다.

1. 39前進진지의 상황 : 이날 22.05에 當面の 中共 제65군 제194사단 예하부대로 믿어지는 團隊號 미상의 敵 1개대대규모의 병력이 그들 再공세와 더불어 39전진진지에 250~300발의 각종포격을 집중하고 同時に 人海전술에 의한 逐次공격을 恣行, 同진지를 占領하려 획책하였다.

當時 이 진지에는 제11중대 제1소대(장, 尹成錫 소위)가 제9중대 Rocket포 소대 일부 병력과 合勢하여 A高地에 소대(-)를, 그리고 B高地에 1개분대를 配備하여 相互 連繫로써 火網을 構成하고 防守하고 있었다.

이미 中共군의 전술을 실천을 통하여 體得한 소대는 敵 포격이 집중되는 동안 각 掩體

據에서 침묵을 지키다가 그들 포격이 延伸되자 곧 각개의 진지를 점령하고 一齊히 사격을 敵侵 방향에 집중하였다.

이때에 이미 高地 8부 稜線을 돌파하고 鐵條網까지 殺到하였던 敵은 適期를 看破한 我軍의 激浪앞에 무수히 휘말려 쓰러지고 뒤따르던 者들은 순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退却하기에 바빴다.

이와같이 하여 一次의 敵 侵攻을 阻止섬멸하게 된 39진지의 第1소대(증강)는 22.15에 敵이 손쉽게 물러간것을 도리어 疑雅스럽게 여겨 堅陣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敵再侵에 對備하였다.

그런데 22.35에 이르러 一次침습에서 失敗한 敵은 다시 제2波의 공격梯隊를 投入하고 再侵을 기도하였으며 이로말미암아 39진지의 소대는 全火力을 집중하여 應戰하고 또한 그들 醜鋒에 큰 打撃을 加하게 되었는데, 그 무리는 一次와는 달리 執拗한 침공을 일삼아 폭약으로 鐵條網을 분쇄하고 혹은 「명석」같은 것으로 이를 넘어 일부병력이 陣內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情況에 직면한 소대는 긴급 증원병력을 要請하고 진지 扼守에 專力함으로써 이로부터 전투는 彼我 수류탄 투척전과 소화기 사격전으로 變貌하여 熾烈한 公방전이 전개되었다.

한편 소대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제5대대 제51중대장 金昌均 중위는 △155에서 39진지의 전투가 加熱하자 23.43에 重機 4挺을 △155北쪽에 据置하고 39진지 西斜面을 向해 火力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때에 39진지와 無線이 단절되었으므로 戰況을 파악할수가 없어서 △155前方에서 潛伏하고 있던 1개분대에게 下命하여 긴급 39진지상황을 살피 보고토록 조치하였는데, 이들이 22.55에 傳한바에 의하면 『39진지는 22.50 현재 交戰이 中止된듯 銃聲이 없으며 A高地에는 아군이 敵을 阻止하고 군가를 부르고 있으나 B高地에서는 敵의 音聲만이 들려 온다』고 하였다. 金昌均중위는 소대의 原소속인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과 제5대대장에게 『39진지 B高地는 敵이 占領한것으로 판단되나 A高地는 소대가 아직 固守하고 있다』라고 戰況을 알렸다.

이제 美해병 第1사단으로부터 敵의 無電交信을 淸취하여 얻은 情報가 전투단의 지휘 無線網을 통하여 傳達되었는데 內容인즉 『敵은 1개대대의 增援병력을 輻輳하게 본부에 要請하고 있으나 그들 사단장은 2개중대병력의 출동만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時刻에 全面的인 敵襲이 있을 경우에 對備하여 계획한 航空機에 의한 空中 照明이 一齊히 실시되어 同時에 敵侵을 받은 39, 33, 31진지 및 50진지등 上空 一帶와 敵增援 경로로 추측되는 泗川江부근을 낮과 같이 [밝혔으며, 뒤따라 出擊한 전투기(美해병소속)가 泗川江을 渡河하는 敵을 強打하고 있었다.

23.00에 전투단장 金聖恩 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제3대대장은 10중대를 즉시 제5대대에 배속하라. 제5대대장은 제10중대 1개소대를 39진지 東쪽 500m 稜線에, 또 同 1개소대를 △155 前方 △50에 進出케 하고 B高地에 대한 逆襲을 斷行하라.』

이상과 같이 命令한 金聖瓘 대령은 잠시後 33, 31 兩진지에 대한 增援 역시 시급하다는 제3대대장의 전황보고에 따라 即時 命令을 修正하고 역습부대로서 제9중대 1개소대와 수색소대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소대는 23.18에 잠복대로부터 入手된 戰況, 즉 『39진지 B高지를 占領한 것으로 판단되는 敵이 A高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와 이어서 美해병사단으로부터 『39진지를 공격하고 있는 敵은 탄약이 떨어져 進退兩難인 것 같다』라는 정보에 따라 이를 好機삼아 긴급 39진지를 赴援하기 위하여 勇躍 出動하니 이때가 23.43이 었다.

전후後에 밝혀진바에 의하면 當時에 39진지를 固守하고 있던 제1소대는 이 血戰으로 소대장과 분대장 3명중 2명이 重傷을 입어 1명의 분대장만이 健在하였는데, 이때 夫敬重 二等兵曹은 衛生下士官의 신분에도 不拘하고 先任者로서 분대장을 도와 소대를 지휘 용감히 敵襲을 阻止하고 있었다.

2. 33前進진지(△45)의 상황 : 39, 31兩진지와 더불어 一齊히 侵襲을 기도한 敵은 이날 22.05에 2개중대규모의 병력을 先鋒으로하여 각 중포 400~600발을 진지 일대에 集注하고 障礙物과 모든 진지의 驛碎를 기도한 다음 從前과 같은 戰法으로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진지(△45)에는 當時 제11중대(장, 林旻燮중위) 제3소대중장 75명이 소대장 金龍鎬 소위 지휘밑에 진지를 防守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同진지가 最前方에 位置하고 있었던 관제로 중대장 林중위가 精銳로 편성한 소대였던 것이다.

金 소위는 이 엄청난 砲擊으로 진지가 大破 혹은 半破되어 死傷者가 續出함에도 不拘하고 平素 중대장이 『사기가 떨어질 때 軍歌의 습습은 큰 힘을 發揮한다』고 한 點을 되살려 先唱으로 全員 『나가자 해병대』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밀려드는 敵에게 수류탄과 소총 사격을 집중하였다.

22.20에 氣勢 當當하였던 敵의 무리는 이 軍歌에 一時 압도되어 50명의 屍體를 유기한채 魂飛魄散하여 退却하였으므로 1차交戰은 소대의 승리로 끝맺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잠시 後 다시 砲擊을 再開하고 我軍을 요란한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四方에 蟻集하였던 敵이 공격을 恣行하고 陣內에 突入하였다.

소대장 金소위는 이때 진내에 침입한 敵을 殲滅하는 길은 最後手段으로 계획된 BOXMIM 사격이 奏效할 것이라 判斷하고 22.50에 긴급히 중대와 대대에 同時로 要請한 다음 決死코 敵을 撲滅하고자 말겠다는 대원들과 같이 寡兵으로 大敵을 맞아 悽絶한 진내전을 되풀이 敢行하였다.

이때 醜腐의 무리들은 陣內에 突入하여 亂戰을 벌였으나 我 VT彈사격으로 支離滅裂되

어 더 이상 支撐하지 못하고 다시 20具의 屍體를 遺棄한 채 황급히 달아났으므로 소대는 또 敵의 2次공격을 擊退하게 되었다.

3. 31前進진지의 상황 : 前述한바와 같이 39, 33 兩개진지가 敵侵을 받고 있을 때 同진지도 그 例外가 될수 없었다.

이진지에는 當時에 右제1선의 모든 前進진지를 담당 방어하는 제11중대본부가 제2소대(장, 張時德 소위)와 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敵은 22.05에 3秒當 1발의 砲擊을 加하고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同진지를 侵攻하기 시작한 것이다.

同진지는 이미 敵이 4日前부터 間歇的으로 各種포격을 집중한 다음이었으므로 山麓의 岩石과 土塊가 飄散되어 土塵으로 뒤덮혀 진지를 識別하기가 困難하였는데, 이들 진지의 보수도 이루어지기 前에 또 3,000~5,000발에 이르는 敵의 砲擊洗禮를 받았으니 그 慘狀이 극심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속에서도 이를 극복 하면서 다음 단계로 침공이 예상되는 敵을 격멸 분쇄하여야 하였던 중대본부와 제2소대 全員은 이에 대비하여 構築한 有蓋진지에 待避하고 그들의 사격 延伸을 기다렸다.

중대장 林炅燮 중위는 後日 證言에서, 當時에 대대로부터 示達된 敎訓이 『敵의 突擊지원사격이 시작되어 10분이 경과하면 중대장은 밖에 나와 砲彈 落下 지점을 확인하라. 敵의 포격이 연신되면 곧 全員 사격진지를 占領하라』고 하였으므로 포격 시간만을 기다리기에 全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하였다.

그는 또 當時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述懷하였다.

『敵의 先攻부대는 통상 그들 砲擊 탄착지점과 50m를 維持하면서 侵襲하는 것이 常例였으므로 포격 연신後 5분이면 敵이 진전에 도달하리라 믿고 이때를 期하여 全火力을 集中코자 하였다. 그런데 敵이 폭격을 延伸할 때를 기다릴수 있는 緊迫한 問題가 있었다. 그것은 이날 진지 前斜面에 置重한 輕機진지가 敵의 戰車砲의 集注로 말미암아 중대가 保有하는 輕機6挺中 4挺은 安全을 위하여 임시로 南쪽진지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포격연신과 때를 같이하여 原位置로 다시 이동 据置하여야 하였다. 때문에 포격開始 5분後가 되어 더 이상 遲滯할수가 없이 輕機의 原位置 復歸를 지시하기 위하여 標를 빠져나와 진지 夾쪽 交通壕를 따라 달렸을 때 敵砲 一發이 咫尺에서 爆發하였다. 이로 因하여 瞬間 정신을 잃었으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敵이 임시로 輕機를 거치한 그 方向에 蟻集하고 있었다. 나는 이 우연의 一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한 것이라 믿고 高聲으로 全員에게 一齊 사격을 命命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31진지 防守대원들은 이 중대장의 高喊소리에 勇氣百倍하고 중대장의 『나가자 해병대』 先唱에 따라 軍歌를 높이 부르며 마구 敵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一齊사격을 집중하였는데, 매마침 敵포격 때문에 同진지에 補給品을 推進하고 머브르게 된 勞務隊員

(KSC) 30명이 이에 습勢하여 대원들의 敢鬪를 支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포격연신과 더불어 31진지를 略取코자 侵攻한 驕敵의 무리는 그 醜鋒이 瓦解되어 30~50具의 屍體를 遺棄하고 一時에 退却하였으며 전투는 이때문에 잠시 中斷되었다.

그런데 敵은 22.20에 다시 砲擊을 同진지에 집중하고 再侵攻을 꾀함에 이르러 중대장과 같이 있던 砲兵觀測장교·李亨植 소위는 5분 後에 敵侵路에 105mm사격을 유도 실시하고 이어서 BOXMIM사격(VT彈사격)을 要請하여 敵 剿滅에 盡力하였다.

23.50에 한때 堅陣扼守로 敢히 接近치 못하던 敵은 第2次로 약작같이 侵攻하였으므로 진지의 南測에 부너져 一部 兵力이 진내에 侵入하고 뒤나라 폭약을 所持한 제2陣이 突破口를 따라 쇄도하였다.

이 危機에 直面하여 소대원은 다시 軍歌를 合唱하여 스스로 士氣를 鼓舞하면서 진내에 突入한 敵과 肉薄戰을 敢行하고 血鬪를 계속하여 23.50에는 마침내 敵의 氣勝을 制壓하고 勝勢를 굳치게 되었다.

한편 이와같이 39, 33, 31등진지에서 敵과의 死鬪가 進行되고 있는 동안 一團의 敵은 이날 22.10에 俗稱 작학洞부근에 있는 대대 制限點에 1개 중대로 추산되는 敵이 侵攻하였으므로 이곳 主抵抗선에 配備된 제5대대 제53중대 일부 병력과 제2대대 제5중대 일부는 戰車5대의 支援을 얻어 계획된 火網으로 22.25에 敵을 격퇴 분산하고 있었다.

이전투가 있는 다음 依命 제53중대에서 抽出 出動한 1개분대는 23.50에 敵탐색을 위하여 前方一帶를 수색하였다.

4. 50前進진지 상황 : 前述한바와 같이 부대의 右제1선 前進진지와 一部主抵抗선이 敵의 침공으로 威脅을 받고 있는 동안 左제1선 제2대대(장, 徐延南 소령) 前進진지에도 이날 추산 2개대대의 北傀 및 中共混成兵力이 50진지를 侵奪코자 획책하였다. 驕敵은 이 공세에 앞서 4~5일간 對南放送을 強化 실시한 다음 10월 26일 以後 連日 안개가 거친 11.00부터 관측이 良好한 18.00까지 同진지에 대하여 120mm~122mm로 추측되는 파괴사격을 恣行하다가 다시 이날 22.00~22.10에 都合 1,500발의 砲擊을 集中하고 진지 兩側에서 侵攻하기 시작한 것이다.

當時에 同진지에는 제7중대(장, 咸錫倫 중위)의 제2, 제3 兩개소대(90명)가 配備되어 이를 堅守하고 있었고 제1소대는 진지의 狹少로 말미암아 主抵抗선 △50부근에 전개되어 있었는데, 3日前 同진지 工事を 위하여 勞務隊(KSC)員 30명이 派遣되어 그대로 머물고 있었고, 또 중대장과 제3소대장 李龍翼 소위는 이날 16.00에 集注된 敵砲擊에 待避하였던 壕가 무너져 큰 打撲傷을 입어 後送되어 이 전투가 勃發時에는 前任장교 李昌洙 소위가 중대장을 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진지에는 제2소대장 李萬熙 소위, 60mm砲班長 姜尙璜 소위, 火器소대장 安

孝淳 소위, 105m 觀測장교 黃斗煥 소위가 각기 任務를 分擔하고 大원들을 指揮하고 있었다.

22. 10에 敵의 부리는 그들의 砲擊연선과 때를 같이하여 進지前方 無名高地(△50, 一名 베리高地)로 접근한 다음 1개 중대규모의 병력과 合勢하여 進지 南쪽으로부터는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또 北쪽으로부터 추산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각기 侵攻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에 直面한 중대(-)는 즉시 潛伏隊를 撤收케 하여 合勢토록 한 다음 全

力으로서 敵을 撲滅코자 계획된 火網을 總動員하고 一齋사격을 敢行하였다. 특히 이 一齋사격에는 進지 後斜面에 配置되었던 機關銃이 敵의 파괴 및 제압사격으로부터 被害를 받지 않아 즉시 南쪽과 北쪽으로 銃口를 指向할 수 있어서 敵을 殲滅하는데 큰 進공을 세워 마구 射殺하므로써 敵은 마침내 그 火網을 뚫을 수 없었던지 22. 35에 많은 屍體를 버리고 退却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공격이 我軍의 敢鬪로 無慘히 挫折 되기에 이르자 敵은 23. 05에 다시 砲擊을 同伴하고 進지 南쪽 前方 200m로 接近하고 다시 再侵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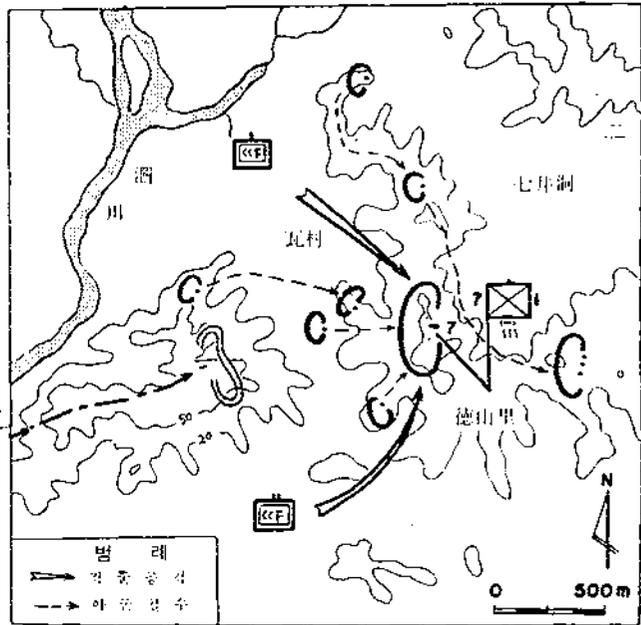
이에 중대(-)는 매마침 出擊한 友軍 戰鬪機의 支援을 받아 파괴된 進지에서 決死코 固守코자 憤起하였다.

이윽고 23. 45에 敵이 視野에 捕捉되자 南쪽진지를 堅守하던 大원들은 李昌洙 소위의 命令一下一齊히 火焰를 吐하였으며 뒤이어 1次 및 2次 侵攻으로 撤收한 潛伏隊(30명)가 進지 後方에서 2梯隊로 나누어 敵의 側面을 強壓하였다.

敵은 이와같은 我軍의 應戰으로 잠시 그 氣勢가 꺾인 듯 하였으나 제1波, 제2波, 제3波로 밀어닥친 人海戰術로 말미암아 進지의 一角이 무너지 그 一部兵力이 進내에까지 한 때 潛入하였다.

이때 관측장교 黃소위는 105mm포를 유도하고 全員 撥에 待避케 한 다음 VT信管에 의한 進내사격을 要請 실시하니 壕壕에서 탐색에 血眼이 되어 있던 敵兵은 全滅을 免치 못

◇ 상황도 제79호 50陣地 敵의 侵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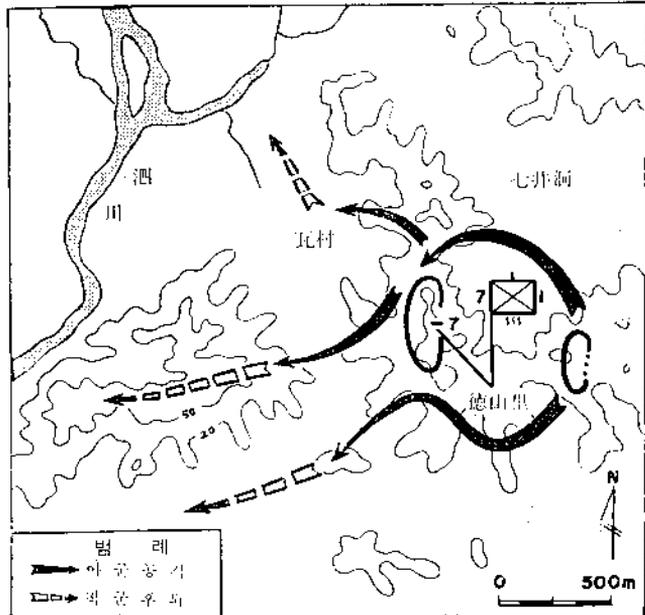


◇ 상황도 제80호 50陣地 敵 擊退

하였으며, 後續코자 한 敵兵 역시 挾攻으로 24.00에 潰退하였으므로 전날의 潛伏隊는 이를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하였다.

11월 1일: 敵의 侵攻으로 전투단 前進진지에서 전투가 加熱되는 동안 美 해병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은 그 예하 1개 대대에게 出動待機 命令을 下達하고 萬一의 경우 敵이 我前進진지를 突破하여 主抵抗선을 侵攻할 때를 對備하고 있었다.

그리고 敵은 開城-板門店 間街道와 板門店 주위 中立地



帶의 安全을 위하여 아군이 一方的으로 사격통제구역으로 設定하였던 一定지역內에 砲를 推進하고 砲撃을 계속 恣行하였으므로 이를 容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하 155mm砲隊로 하여금 對砲兵사격을 斷行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날 零時에 入手된 정보는 『敵 砲彈집적소에 我軍의 集中포탄이 命中되어 敵포탄 4,000발이 爆發되고 50명이 爆死하였다』는 것인데 이외에도 敵의 將軍 1명이 重傷을 입었고 중대장급 장교 2명이 전사하였다는 것이 그들 無電의 盜聽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부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 快報가 血鬪中인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높일것이라 믿고 즉시 예하 全部隊長에게 이를 傳播하고 激勵하였으며, 5分後에 美해병사단으로부터 『敵은 공격을 增援하기 위하여 兵力 1개대대가 增援中』이라는 情報를 接收하자 右제 1선 담당부대인 제5대대장에게 『39진지 A高地의 병력으로 하여금 逆襲부대와 같이 再編成中이라고 믿어 지는 B高地의 敵을 공격토록 하여 이를 奪還하고 포로 획득에 盡力하라』는 要旨의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1. 39前進진지 상황: 전날 無電이 斷絶되어 惡戰苦鬪하고 있는 同진지 防守 소대를 支援하기 위한 제9중대 제1소대(장, 朴致祥 소위)와 搜索소대(장, 劉東旭 소위)는 이날 00.17에 A高地의 병력과 合勢하여 드디어 反擊을 開始하였다.

即, 제9중대 제1소대는 急遽 A高地로 進入하여 이곳 대원과 같이 B高지를 直衝하고,

수색소대는 △155 前方稜線을 따라 B高地로 急進하였다.

이때 B高地를 占據하고 再編成에 겨를이 없던 醜敵은 탄약이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00.20에 이르러 四分五裂로 潰退하였는데, 이를 追擊한 지원소대(장, 朴致祥 소위)는 00.35에 敵 1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다음 B高地를 완전 탈환하였다.

그러나 01.30에 2개소대로 추산되는 敵이 다시 B高地를 侵襲코자 하므로 朴소위는 즉시 砲擊을 요청하고 그 制壓에 힘쓰는 한편 부대를 整備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敵은 敢히 侵攻치 못하다가 02.42~02.57에 실시된 空中照明이 꺼지자 03.00에 또 再襲을 기도하였다.

朴소위는 이에 이르러 全火力을 集中하고 敵을 격퇴하기에 힘썼으며, 수색소대 또한 이에 加勢하였으므로 敵은 04.00에 또 공격이 頓挫되어 退却하니 同진지는 계속 我軍이 掌握하는 바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我軍은 敵의 3次공격을 阻止 격퇴하고 05.20에 1명의 捕虜를 얻게 되었으나 오랑캐는 그들의 連敗에도 아랑곳 없이 불에 날아드는 拔腿格으로 또 05.50에 탄약등을 再補給 받아 4次的 侵攻을 恣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戰鬪는 再演되었으며 06.00까지 彼我的 사격전이 熾烈하게 展開되었는데 敵은 拂曉와 더불어 마침내 我軍의 鐵鎚를 감당하지 못하였음인지 그 醜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다시 물러서기 시작 하였다. 이로써 同진지를 占領코자 한 敵의 企圖는 完全히 霧散되고 일단 전투가 끝나게 되었으나 防守대원들은 勝戰에 도취됨이 없이 合同으로 06.40까지 전과 확대를 위하여 진지 일대를 탐색하는 일방, 진지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下命된 진지交代 命令으로 이들은 전과를 完全히 확인 못한채 제 52 중대 1개소대에게 곧 진지를 引繼한 다음 중대집결지로 向發하였으며, 同진지를 引受한 제 52중대 일부병력은 10.00까지 계속된 戰場정리에서 53具의 敵 屍體를 發見 埋葬하고 2명을 사로잡아 押送한 다음 파괴된 진지 보수에 專念하였다.

2. 33前進진지 상황 : 전날 敵의 2次공격을 阻止섬멸하는데 성공한 제 11중대 제 3소대는 敵이 潰退 즉시 陣勢정비에 착수하고 子正을 넘겨 이날을 맞이하였는데 醜虜의 무리는 00.05에 또 同진지를 侵襲하였다. 그러므로 소대는 我軍의 死傷도 제대로 把握치 못한채 敵과의 交戰이 再開되었으며, 소대는 이어서 중대와의 通信이 斷絶된 가운데 전투가 陣內戰으로 變貌함에 따라 最後의 一兵까지 挺身力鬪를 다 하였다.

그런데 戰鬪後에 判明된 바에 의하면 중대는 이 전투가 있기 前에 이미 敵의 제 1, 제 2次 侵攻으로 40명의 死傷者가 發生하여 當時의 兵力은 不過 35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모두가 決死殉國키로 다짐하고 一絲不亂한 지휘체제를 維持하여 血鬪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또 01.05에 이르러 소대는 소대장이하 5명만이 生殘한 가운데 계속 밀려드는 敵을 阻止할 수 없게 되어 結局에는 敵이 同진지를 一時 占領하는 바 되었으나 醜虜는 이때 예상된 我軍의 VT彈공격을 겁먹음인지 진지내의 壕를 完全탐색하지 못하고 물러선 다음 砲擊만을

恣行하였다.

敵이 물러간 뒤로 전투단장 金대령은 02.35에 제5대대장에게 『제52중대 1개소대를 出動케 하여 33진지를 지원하라』는 要旨의 命을 下達하였는데, 이에 따라 命을 受領한 제52중대 2개소대가 急遽 지원兼 임무交代次 出動하니 이때가 03.30이었다.

이리하여 07.30에 31진지 경우 33진지에 進入한 兩 소대는 壕속에서 끝까지 敵과 싸워 진지를 固守한 제11중대 제3소대원 4명과 같이 진지 周圍 一帶를 탐색하고 敵屍體 45具를 發見하였으며, 아울러 소대장 金龍鎬 소위가 一通의 遺書를 남기고 自決하였음을 確認하였는데, 그 遺書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중대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소대원들 모두 잃은데 대하여 無限한 自責을 禁치 못합니다. 面目없습니다. 소대원이 잠든 이 高地에서 죽음을 같이하고 贖罪하려합니다.』

이상과 같이 중대장 林炎燮 중위의 陣頭지휘아래 敢鬪에 또 敢鬪를 계속하여 勝勢를 굳힌 同진지 固守대원들은 마침내 侵路를 遮斷, 鬪魂을 불태워 이날 01.05에 敵을 陣內에서 驅逐하는데 성공하였으니, 이는 오직 鬪魂의 結晶이었다.

더욱 이때에 대원들을 鼓舞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전달된 『敵지휘관 3명을 包含한 400명이 砲殺되고, 戰車 4대가 完破될 뿐 아니라 2개중대가 殲滅되었으며, 또 1개중대가 全滅상태에 直面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02.05에 또 『부대의 善戰으로 敵의 公세를 분쇄하였다』라고 激讚을 아끼지 않은 전문을 入手한 것이다.

대원들은 敗退하는 醜虜들에게 手榴탄과 소총으로 追擊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대대장 安昌寬 소령의 命을 받아 出動한 제10중대 제1소대(장, 成寬植 소위)가 이에 合勢하게 되어 戰場을 整理하니 遺棄 屍體(대대장으로 推測) 속에서 發見된 手帖에는 『155地堡(△155를 가리키는 말)를 目標로 한 이번 공격은 4日間の 砲擊으로 그 前進진지가 完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奪取는 無難할 것이다』라는 要旨의 글이 있었다.

3. 50前進진지 상황: 敵 연대 규모의 侵攻을 이미 전날 전투에서 물리친 제7중대(一)는 이날 01.00에 진지 前面에서 敵情이 사라지자 破壞된 진지를 임시보수하고 예상되는 敵再侵에 대비하였는데, 敵은 계속된 我空中照明과 堅陣을 뚫을 自信을 잃었음인지 날이 밝을 때까지 間間히 同진지에 砲擊만을 일삼았을뿐 조용하였다. 따라서 중대(一)는 여유있는 진지 整備와 아울러 境界의 萬全을 期하다가 날이 밝아 敵侵威脅이 사라지자 07.30에 3개의 탐색대를 出動시켜 진지일대를 탐색한 결과 落伍한 敵兵 4명을 사로잡은 외에 이곳저곳에 흩어진 63具의 敵屍體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항

敵은 그 遺棄한 屍體속에서 나온 手帖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我主抵抗線을 侵奪하기 위하여 前例없는 集中砲火를 同伴하고 一齊히 36, 33, 31, 50등 我前進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를 堅固하게 防守하는

해병들에 의하여 擊碎되어 사실상 이 전투는 11월 1일 06.00에 △36에서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대장 金聖恩 대령은 07.05에 제5, 제2 兩대대장에게 『短時日內에 破壞된 陣지를 復舊 하기에 全力하고 11.00까지 인원 및 裝備의 現況을 보고하라』는 要旨의 命을 下達하였다.

한편 그는 또 군수주임에게 『각대가 要求하는 築城資材와 不足한 兵器를 15.00까지 補充하라』고 指示하고 인사주임에게는 『待期中인 補充兵 98명을 尙員 제5대대에 充員하라』란 다음, 이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장병들에게 勳章을 上申토록 아울러 지시하였다. 따라서 전투단의 左右 제1선대대는 이 措置에 따라 敵再侵에 對備하여 陣지를 補修하기에 盡力하면서 警戒를 더욱 強化하였다.

이로부터 전투단은 敵이 惡宣傳만으로 一貫한 心理戰을 奏行하는 가운데 11월 30일까지 소대~중대 규모의 都合 7회의 奇襲공격을 실시하여 그들 陣지의 유린과 制壓 및 파괴를 도모하고 아울러 敵情 수집을 위한 포로획득에 注力하였는데, 左제1선인 제2대대는 同월 18일 要旨命을 제263호에 의거 이 전투에서 有功한 제7중대와 제5중대와의 부대 교대를 실시하고 색로이 50진지에는 제5중대 2개소대를 증강 배치하였다.

또한 10월 2일~10월 7일 사이의 泗川江 부근 제3차전으로 말미암아 제1대대 陣지를 인수하였다가 또 그 陣지를 제5대대와 交代할 무렵에 이 전투를 맞이한 제3대대는 그後 계속 예비로 있다가 11월 21일 作命제265호로 제1대대와 임무를 바꾸어 金浦 霞城으로 轉進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투단은 제11중대의 경우 19명에게 乙支훈장을, 그리고 잔여중대원에게는 金星훈장 무공 훈장을 上申, 수여하였는데 부대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區分 部隊別	人 員			獲														
	화사	인살	추살	계상	포로	75mm	3.5" Rocket	기관총	기관총	기관총	式銃	多發銃	拳銃	철조망	철조망	철조망	수류탄	TNT
제 2 대대	120	370	4	1								7		19	3		77	11
제 3 대대	215	615	4			1	1	3	5	6	1	4					72	30
제 5 대대	2			1				1	2									
포병대대		640																
전차중대		29																
충포중대		96																
계	337	1,750	9	1	1	1	4	7	13	1	23	3	149	41				

損 失

區分 部隊別	人 員			병기 및 통신기계 망실 ٪ ()는 파손										
	戰死	負傷	失蹤	輕機	AR	M1	Car	권총	방탄衣	SCR-300	EE-8	TS-10	SCR-536	
제 2 대대	2	5			(2)	3(6)	(2)			(1)		(3)		
제 3 대대	102	65	4	1	12	31	27	3	8	2	3	5	3	
제 5 대대	2	16	4											
계	106	86	8	1	12(2)	34(6)	27(2)	3	8	2(1)	3	5(3)	3	

§ 參戰者의 證言

◇ 제11중대장 林昊燮 중위

(1975년 11월 3일 해군본부, 준장)

우리 중대는 陣地를 제52중대에게 引繼하게 되어 있었으나 當夜 敵侵의 威脅으로 말미암아 진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진지에 머무르다가 모든 진지가 同時에 敵의 공격을 받았다.

전투가 시작되자 나는 當時 배속부대인 제5대대장에게 모든 지원을 懇請하게 되었으나 圓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급함을 참지 못해 本隊인 제3대대장 安昌寬 소령에게 『중대를 죽이려는 것이니까, 살리려합니까』하고 不平을 털어 놓았다. 그후에 安소령은 『自己 部下는 自己가 돌보아야 하겠다』고 決心하고 대대의 作戰팀을 임시 제5대대本部로 옮겨 우리들의 血鬪를 도왔다. 이로 말미암아 제5대대장과의 反目이 齟齬되어 두분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전투後 功績內申에 까지 영향이 미쳐 중대장이 內申하는 隊員들의 褒賞은 모두 전투에 相應하는 것이 되었으나 나 자신은 대대장이 內申하게 되어 있어서 누락되고 타자못한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33진지에서의 金龍鎬 소위의 散華는 우리 중대에 큰 衝擊을 주었다.

나는 그후에 그의 父親이 金소위의 消息도 모르고 보낸 편지를 몇차례 받아 보고 그 집안 사경을 알게 되었다.

그 父親은 1.4後退때 3兄弟의 子弟와 같이 越南하고 두 兄弟는 陸軍에 가 戰死한 다음이었으며 唯一한 金소위 마저 戰死하였으니 그 父親은 3兄弟를 모두 反共戰線에 바친 것이다. 感動된 나는 중대에서 若干의 吊慰金을 마련하고 火器 소대장 李壽夢 소위를 그 父親이 사는 永川으로 急派 위로하였는데, 當時 두부공장에서 配達하는 일을 하던 金소위의 父親은 가져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돈은 내가 받을 것이 못하고 중대를 위하여 쓰여질 돈이다』라고 限死코 拒絕하거라는 것이다.

나는 돌아온 李소위를 다시 永川으로 보내어 가져간 돈을 꼭 受領토록 하였으나 찾아간 李소위는 그의 父親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 왔다.

◇ 제11중대 輕機 소대장 郭鳳瑞 소위

(1965년 5월 23일 合參保安課, 소령)

當時 31진지에는 10월 26일부터 本格化된 敵의 砲擊이 전투가 시작되기까지 都合 40,000발이 集中되었다.

當夜는 敵의 砲擊으로 진지의 交通線가 完全히 없어진 상태에서 敵과 싸웠는데, 敵은 我前進진지들 占領 確保하려고 하였다가 보다는 奇襲으로 一時 요란을 피한 것 같다.

이 전투後 우리 中隊는 곧 제5대대의 交代하였으므로 전과는 제5대대의 것이 되고 말았다.

◇ 제7중대장 咸錫倫 중위

(1965년 4월 12일, 제3연대, 중령)

10월 29일부터 砲擊을 開始한 敵은 31일에 그 砲擊을 本格化하였다. 敵砲彈은 1m가량 땅에 들어가 爆發하였으므로 모든 진지는 무너져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진지 後斜面에는 이러한 砲擊이 덜한 편이어서 約 5개경도의 火器진지가 그대로 남아 敵侵당시에 큰 威力을 發揮한 것으로 안다.

나는 이 砲擊 때문에 부상을 입어 전투가 벌어지기 前에 後送되었으므로 先任장교 李昌株 소위가 큰 수고를 하였는데, 나는 이 泗川江 제3, 제4차 전투로 因한 공로로 金星忠武勳章을 들었다.

◇ 제7중대 제2소대장 金萬熙 소위

(1966년 3월 25일 해병대사령부, 소령)

敵은 畏攻 1週日前에 우리들에게 『50진지를 너희들의 共同黨地로 하겠다』고 협박 방송을 마구 실시한 다음 砲擊을 恣行하였다. 그 砲擊은 1분間 1,000발 정도의 아주 극렬한 것이어서 중대장과 제3소대장 李龍翼 소위가 擡측에 문쳐 부상을 입었다.

공격받기 2日前 勞務隊員이 진지에 到着하여 진지工事を 하는데, 이 工事は 晝間의 敵 포격으로 거이 實施하지 못하고 밤에만 하는 실정이어서 敵侵 때는 아직 진지 工事が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이 전투에서 勞務隊員들은 수류탄을 운반하고 자동소총에 탄약을 장진하는 일을 도와 隊員들과 같이 싸웠다.

◇ 제7중대 제2소대 제2분대 李漢龍 一等해병

(1965년 4월 22일 제3연대 제3대대, 上士)

原來 50진지는 그 標高가 51m였으나 敵砲擊으로 1m가 낮아진 50m高地가 되었다.

진지에 같이 있던 勞務隊員 約 30명이 우리와 같이 奮勇하여 전투를 하였으나 火器에 대한 敎育이 尠하여 그들은 수류탄의 安全핀도 빼지도 않고 던지는 바람에 敵이 그 수류탄을 도루 사용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일이 있었다. 또 AR탄창에 實彈을 장전하라고 하였더니 實彈을 꺼꾸로 넣어 골탕먹은 일이 있었다.

敵은 우리 중대가 強한 軍隊라 하여 2개대대 兵力이 올라왔으나, 우리 중대는 노부자까지 參戰 모두 90명정도에 지나지 않은 적은 兵力이었다. 노부자들은 처음부터 전투를 할려고 하여서 高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날 敵의 砲彈이 심하게 떨어지므로 撤收를 시키지 못하였다가 當夜를 맞은 것이다.

侵襲한 敵은 처음 我鐵條網을 부수기 위한 파괴통과 수류탄을 가진놈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爆藥(TNT)을 所持한 놈, 그 다음에 小銃을 가진 놈과 衛生兵 같은 것이 뒤따랐다. 나중에는 非武裝부대가 뒤따랐는데 먼저 올라온 놈이 죽으면 죽은 놈의 것을 인수하여 올라왔다.

이렇게 하여 陣內에 侵入한 敵은 我軍의 陣地가 모두 有蓋로 되어 있던 關係로 이를 찾지 못하고 이리 저리 방황하다가 이때를 期해 要請한 我VT彈砲擊을 받아 沒殺하였다.

§ 戰訓

◇ 戰鬪時의 士氣振作

싸움은 武器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다루는

兵士가 하는 것이므로 이 兵士의 士氣 如何는 전투의 勝敗와 直結되는 가장 重要한 要件임에 틀림이 없다.

제11중대장 林炎燮 중위는 砲擊을 앞세워 侵襲한 敵의 大軍을 맞이하여 싸우기를, 중대가 平素愛唱하던 軍歌를 先唱하여 隊員들의 沈滯된 士氣를 一瞬에 鼓舞하였으며, 이로써 勇氣百倍한 隊員들은 高地가 떠나갈 듯 軍歌를 合唱하며 無難히 敵을 心理面에서 압도하고 敵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렇듯 士氣는 恒常 可變性을 內包하고 있는 까닭에 지휘자의 조그마한 觀察가 隊員들의 恐怖心을 一瞬에 제거하기도 하여 勝戰의 原動力이 될 수 있으니 指揮官은 이 전투를 通하여 軍歌가 얼마나 士氣振作에 도움을 주었는가를 吟味하여야 할 것이다.

◇ 配屬부대와 被配屬부대

이 전투에서 제11중대는 他대대에 配屬되어 있었다. 配屬부대는 진지의 인수관계로 整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敵侵을 받았으므로 예속부대라 할지라도 잘 돌볼 겨를이 없었겠으나 被配屬부대의 立場에서 보면 조그마한 일에 誤解가 있기 쉽다.

그러므로 配屬부대는 예속부대보다 被配屬부대에 모든 配慮를 더욱 優先하는 것이 常例인데 이 전투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중대장은 그 證言에서 밝히기를 『原隸屬大隊장에게 모든 支撥을 要請』한 것 같다. 이는 길이 닦할 것이 못되고 原所屬大隊上下間의 團結이 強한 所致로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7. 不毛(Old Baldy)高地 附近戰鬪 (1952년 6월 6일부터 1952년 8월 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81,8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美 제 1군단 장 중장 J. W. O'Daniel
 소장 Paul W. Kendall
 (6월 29일부터)

美 제 45사단 장 소장 David L. Ruffner

제 179연대 장 중령 Joseph C. Sandlin

제 180연대 장 중령 Ellis B. Ritchie

제 279연대 장 대령
 Preston J.C. Murphy

제 158野砲대대 · 제 160野砲대대

제 171野砲대대 · 제 189野砲대대

제 245戰車대대

배속부대

Philippine 제 20대대전투단 장 대령
 Salvador Abcede
 (6월 10일 附 交替)

제 19대대전투단 장 대령
 Ramon Z. Aguirre

美 제 2사단 장 소장 James C. Fry

제 9연대 장 대령 Wilbur Wilson

제 23연대 장 대령
 George C. Mergens

軍

제 38연대 장 중령
 William F. Kernan

사단 포병단장 대령
 Thomas M. Watlington

제 72戰車대대장 중령 John O. Woods

배속부대

Netherlands 대대 장 중령
 G.H. Christan

Thailand 대대 장 중령
 Prayuth Nuchakanjonkul

중령 Oang Potikanita

France 대대 장 중령 Francois Borreil

인접부대

(右인접) 美 제 9군단 장 소장
 Willard G. Wyman

소장 Joseph P. Cleland
 (7월 31일부터)

韓 제 9사단 장 소장 金鐘五

(左인접) 韓 제 1사단 장 준장 朴林恒
 (7월 5일 交代)

美 제 3사단 장 소장
 Robert L. Dulaney

敵

中共 제 38군 장 江 擁 揮

제 113사단 장 唐 胄 山
 (제 337. 338. 339연대)

제 39군 장 吳 信 泉
 鍾 偉

軍

제 115사단 장 張 颯 誠
 (제 343. 344. 345연대)

제 116사단 장 汪 洋
 (제 346. 347. 348연대)

제 117사단 장 張 錫 鏞
 (제 349. 350. 351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1952년 여름동안 鐵原 西쪽 驛谷川 南岸에서는 前進陣地를 둘러싼 一瞬의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彼我間에 主陣地의 變動은 없는 가운데 보다 有利한 前進陣地를 掌握함으로써 各己 防禦態勢를 強化하려는데 主眼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期間으로는 6월에서 8월 乃至는 9월에까지도 이르는 것이나 그사이 爭奪戰이 늘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며 수색정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차례 要害에서의 攻防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當初 美 제45사단이 6월에 驛谷川 南岸에서 敵手를 밀치고 前進陣地를 확보키 위하여 감행한 「Counter 작전」을 비롯하여 西隅의 要點이라고 할 不毛高地에서의 攻防, 그 다음 제45사단이 前線에서 물러서고 美 제2사단이 交代하면서 시작된 敵의 反擊과 不毛高地의 喪失 및 장마 뒤의 高地奪還戰등이 뒤따라 取扱될 것이다.

그러면 「Counter 작전」에 이르기까지의 狀況은 대개 어떠한가?

이해 봄에도 小規模의 奇襲·수색정찰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美 제8군의 前線部隊들은 연대마다 매일 1개 以上の 정찰대로써 敵情을 살피고 敵을 捕虜코자 나섰다.

美 제1군단에 있어서 이러한 據相의 전무로는 먼저 Italy 高地戰鬪를 들 수 있다. 4월 16일 제1군단의 中央右翼이던 美 제3사단(장, Thomas J. Cross 준장)의 제15연대 K중대(장, Sylvanus Smith 중위)는 馬嶺山 南쪽의 野山으로 소대규모인 敵의 據點인 同 高地를 공격하였는데, 21.00부터 24.00사이 8,000發의 銃彈을 敵에게 퍼부었으나 死傷의 確認도 못하고 一名의 捕虜도 얻지 못한 채로 다음 날 02.30에 主陣地로 反轉하였던 것이다.

또 한 例로는 敵이 그들의 砲兵火力을 계속 增強하는 가운데 5월에 我軍의 前進陣地에 대하여 공격을 거듭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敵은 韓 제1사단(장, 朴林恒준장)이 4月末에 美 제3사단과 交代하여 前線에 나서자 Kelly前哨, Tessie 및 Nori 高地, 그리고 △117등에 각각 중대규모로써 夜間攻鬪을 企圖하였고, 攻防끝에 高地는 대부분 我軍이 다시 掌握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8군은 主陣地 前에서 地利를 占하고 있는 敵의 據點들을 攻破하고 我軍의 前進陣地를 強化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 방침은 특히 地形上의 利害가 關聯되어 韓 제2군단의 제6사단과 아울러 제45사단 正面에 重點이 주어졌으니, 여기에서 6월의 「Counter 작전」이 비롯하게 된 것이다.

제45사단은 1951年 末에 처음 出陣하여 美 제1기갑사단과 交代함으로써 軍단 中央右翼으로 敵과 對陣하다가, 右翼이던 韓 제9사단이 4월 5일 12.00附로 담당 지역과 함께 美 제9군단으로 配屬이 變更됨에 따라 새로이 軍단 右翼이 되었다. 그리하여 6월 5일 현재로 사단은 사령부를 大光里에 두고 右一線 제279연대와 左一線 제180연대(제179연대 제3대대 배속)로 계속 Jamestown 線上에서 鐵原 北西쪽 △281 附近—澮川 西北 德隱洞일대의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또 제179연대(제3대대 缺·philippine 제20대대전투단 배속)는 사단예비대로서 각 대대를 蘄菴里·古文里·東豆川 北쪽에 각각 控置하였는데, 상황도 제81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의 主陣地는 대체로 驛谷川 南쪽을 占領하였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敵은 中共 제113사단의 제338·제339연대와 제117사단의 제349·제350연대 및 제115사단의 제344연대를 主陣地에 配置하고 그밖의 각 연대 및 제116사단을 예비로 둔 가운데 10개 대대 以上인 砲兵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警戒陣地는 驛谷川 南岸의 瞰制地形까지 차지한 형편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45사단은 前進陣地의 強化가 緊要하였던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8군에서 注意하였 듯이 美 제45사단 正面의 敵은 地利를 占하여 그들의 많은 據點이 觀測에 有利하고 또 夜間奇襲등에도 편리할 정도로 我軍 主陣地에 近接하여 있었다.

따라서 David L. Ruffner 소장이 5월 21일에 사단장으로 赴任하자 먼저 이러한 점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사단의 警戒線을 보다 強化할 수 있다면 敵의 瞰制를 妨遏할 수 있고 아울러 보다 縱深있는 防禦態勢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6月初에 사단 前面의 要衝이 되는 곳이라고 할만 한 11個所의 목표를 選定하고 이를 공격, 점령하려는 「Counter 작전」을 謀劃하였으니 이 작전계획은 要旨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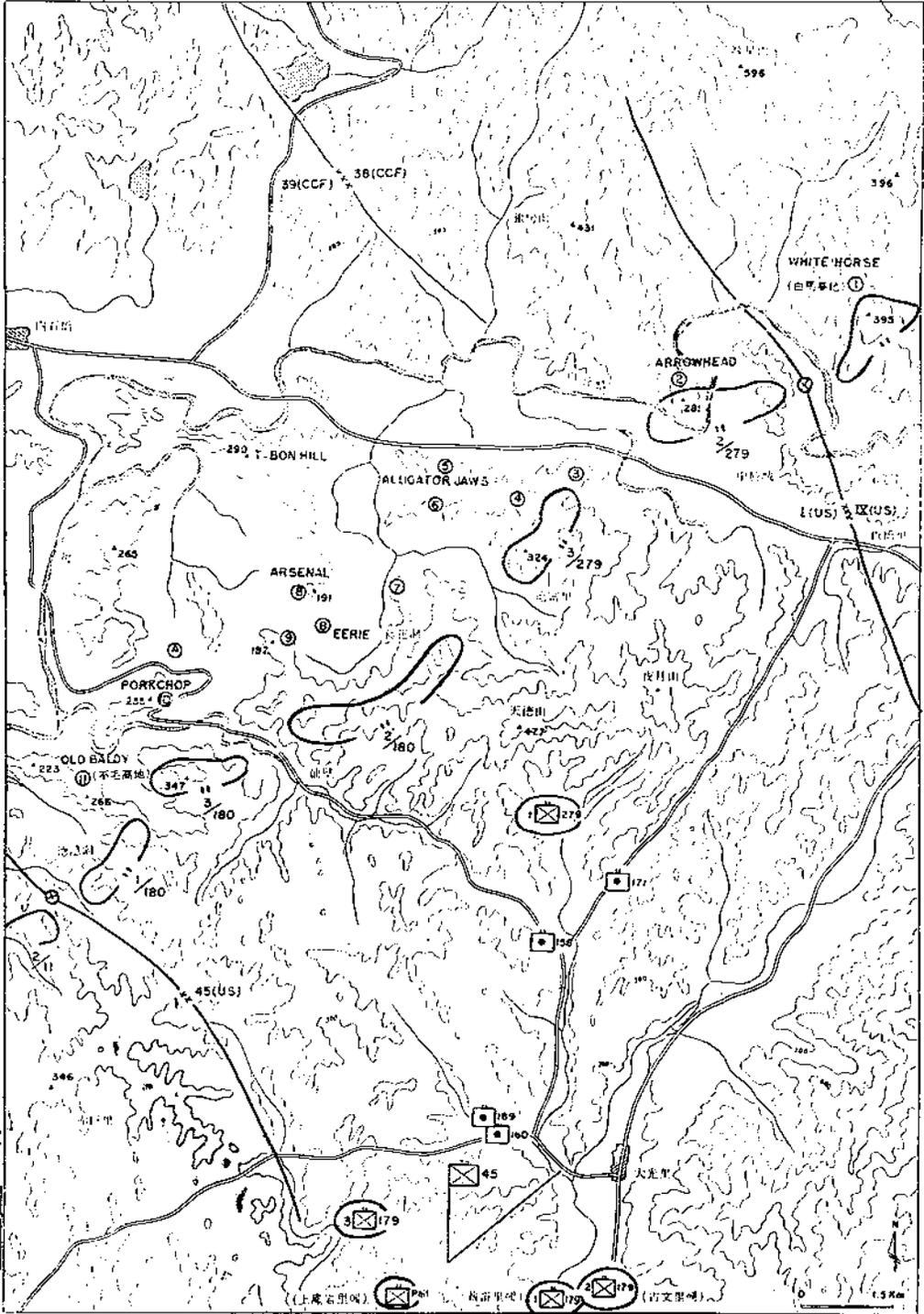
『① 사단은 6월 6일 공격을 시작하여 다음의 11개 목표를 점령하려 한다.

- 목표 1. △395(鐵原 西北쪽, White Horse, 白馬).
2. Arrowhead(화살촉, △395 西쪽 △281).
3. 驛谷川 南岸의 低地를 굽어 보는 道密里 北쪽 野山の 北麓, △281 西南 2km.
4. 同, 목표 3의 西쪽 1km.
5. 同, 野山の 西쪽으로 뻗은 南北 兩枝中 北쪽 高地, 목표③의 西쪽 2km.
6. Alligator Jaws, 목표⑤의 南쪽 高地.
7. 天德山 西北端, 葛花洞 北쪽 T-Bone 東越 1km.
8. Eerie
Arsenal } T-Bone 高地(△290)의 南峰(△191) 일대.
9. T-Bone 南쪽의 驛谷川 支流 南岸 △187.
10. Porkchop(俗稱 “하사골”의 △255).
11. Old Baldy(不毛, 德隱洞 北쪽 △266).

(상황도 제81호 참조)

- ② 제180연대는 목표⑦과 목표⑨~⑪을 공격, 점령하라.
- ③ 제279연대는 목표①~⑥을 공격, 점령하라.
- ④ 목표⑧(Eerie)은 兩聯隊가 목표들을 점령한 다음 本作戰의 제2단계에서 공격한다.
- ⑤ 제2단계에서 同時에 공격할 목표 A(後達)는 기습, 파괴하여야 한다.
- ⑥ 兩聯隊長은, 敵의 迅速 頑強한 저항을 예상하여, 日沒後에 작전을 수행하고, 天明前에 陣地를 強化하도록 그에 충분한 增援兵力을 곧 後續케 하라.』

◇ 상황도 제81호 不毛高地 狀況(1)



(2) 작전실시

가) Counter 작전 제 1 단계

6월 6일 :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이날, 敵은 이를 豫期치 못한 듯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

다만 09.30에 목표㉑인 Porkchop 高地 附近에서 일부의 敵이 제180연대 수색대에 소총과 기관총 및 박격포로 사격을 加하였으나 수색대는 이에 應戰치 않고 我 砲擊만을 誘導함으로써 敵火를 屏慮케 할 뿐이었다.

또한 사단도 낮 동안에는 例外的으로 공격을 豫告하는 이렇다 할 活動을 하지 않았고, 단지 UN 空軍의 戰爆機가 목표 부근에 있는 敵의 據點에 몇차례의 爆擊을 散行하였으니, 이로써 砲兵의 공격준비사격을 대신한 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0가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자 左·右一線의 제180·제279 兩 연대는 그마다 자기 분대~중대규모의 공격대를 목표로 前進케 하였는데 夜襲이 奏效한 듯, ㉑까지의 대부분의 목표를 거의 저항없이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西端의 목표에서는 雷火震風이 몰아치는 한바탕의 激鬪를 치루어야 하였다.

즉, 제180연대 I 중대는 목표㉑인 Porkchop 高地를 공격하였는데, 主力 2개소대가 역시 同數兵力 규모인 敵과 거의 1시간에 이르는 射擊戰을 벌인 끝에 高地를 점령한 것이다.

더욱 同 聯隊 A 중대는 목표㉒인 不毛高地에서 2개분대로써 같은 규모의 敵과 銃火를 交換하다가 일단 물러서게 되었으며, 美 제171野砲대대가 高地 頂上에 500발의 集中射擊을 퍼붓는 사이에 戰勢를 다시 가다듬은 다음 공격을 再興하였다. 그리하여 자동소총과 기관총으로 增強된 John O. White 상사의 분대가 索敵掃射하며 밀고 나가고, 이어 다른 1개분대도 頂上으로 돌격함으로써 敵을 擊滅하고 23.15에 高地를 手中에 넣게 되었다. 중대가 高地를 점령하자 곧 敵의 砲彈이 雨注하였는데, 비록 어두운 밤이기는 하나 高地의 北西斜面에는 교통호나 그밖의 마땅한 掩蔽物이 없었으므로 兩 분대는 敵의 砲火에 暴露된 채 서둘러 撥를 파야만 하였다.

하여간 이로써 사단은 작전 제1단계의 목표를 모두 점령하였으며, 곧 高地를 防禦하기 위한 陣地編成이 진행되어 제180·제279 兩 연대 장병들은 KSC의 도움으로 각종 築城資材의 운반과 陣地構築의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 7일 : 兩 聯隊는 밤사이 작업을 계속하여 이날 아침까지는 이를 거의 끝마쳤다.

즉, 有蓋壕를 構築함으로써 敵이 陣地에 근접하여 공격할 때에 砲兵의 VT 신관사격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陣地 주변에는 등그렇게 철조망을 들렀으며, 인접 陣地間의 지원까지를 고려한 火網의 構成은 물론, 縱橫의 通信網 설치와 접근로에의 地雷埋設 및 탄약준비

까지 完了한 것이다.

그러나 敵이 그대로 물러난 것은 아니어서, Porkchop—不毛高地일대에서는 陣地工事が 다 이루어지기에 앞서 이미 敵의 반격이 있었다. 제180연대 A중대가 不毛高地를 점령한 지 3시간이 좀 지난 02.40에 도합 1개중대규모의 敵이 兩高地일대를 공격하였다가 30餘分에 걸친 擊鬪끝에 격퇴되었는데, 敵은 후퇴하면서 砲擊을 퍼부어 특히 不毛高地에서는 한 동안 數百發의 敵彈이 계속 炸裂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단이 敵의 첫반격까지 격퇴하여 목표를 확보한 가운데 東天이 밝아 왔는데, 전날 공격에 나섰던 제180·제279연대의 대부분은 이미 主陣地로 철수하고, 各 前進陣地에는 2개분대 乃至 2개소대규모의 兵力만이 남아 앞으로의 敵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또한 主陣地에서는 歩兵은 물론 戰車와 砲兵의 모든 火力으로써 前進陣地에 대한 엄호사격을 할 수 있도록 火力計劃을 수립함과 아울러 前進陣地에 대한 신속한 兵力增援이 가능하도록 모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敵은 蟄伏한 듯이 낮 동안에는 별다른 挑發이 없었으나, 어두워진 뒤에는 野盜와 같이 다시 出沒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날 中으로는 天德山麓의 北端 너머 목표⑤이었던 陣地 附近에서 地雷를 埋設하기 위하여 나갔던 일부의 工兵이 22.20에 소대규모의 敵과 부딪혔을 뿐인데, 敵은 10分만에 물러나면서 일대에 박격포사격을 집중하였다.

6월 8일: 이날은 일요일이고 한 때 흐린 날씨였는데, 夜暗을 利用한 敵의 공격으로 일찍 부터 激突이 벌어졌다.

즉, 제180연대 A중대의 不毛高地에는 새벽에 두차례에 걸친 敵의 공격이 있었다. 처음에는 02.05에 소대규모인 敵이 砲支援을 받으며 공격하였는데, 중대는 여유있게 잠시간의 瞰射으로써 이를 격퇴하였으며, 1시간뒤에 일부의 敵이 다시 공격하였으나 探索攻撃이었던 듯 간단히 격퇴되었다. 또한 右一線 제279연대의 戰鬪地境안에서는 04.00에 연대수색대가 목표⑥인 前進陣地, 즉 Alligator Jaws의 北쪽으로 鱷魚입의 중간 즈음에 해당되는 곳에서 정찰임무를 떠났던 것으로 판단되는 2名の 敵과 부딪쳐 이를 射殺한 바 있다.

이렇게 별 危害는 없는 가운데 일단 敵을 격퇴하자 더욱고 날이 밝았는데, 이날 역시 어두워질때까지는 이렇다 할 接敵狀況이 없었으나, 밤이 깊어지자 다시 본격적인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거의 23.00가 다 되어 200乃至 250명으로 판단되는 敵이 不毛高地 일대를 공격한 것으로, 敵은 近來 증강된 砲兵이 공격을 支援하였으며 또한 박격포사격을 集注하였으나, 高地를 방어하는 A중대의 主力 2개소대는 熾烈한 엄호사격아래 子正이 지나도록 陣地를 堅守하고 있었다.

6월 9일: 지난 밤 늦게 시작된 不毛高地에서의 戰鬪는 이날 새벽까지 계속되어 02.30에도 吶喊과 砲聲이 山谷을 울렸는데, 제180연대 제1대대의 2개소대는 끝내 陣前에서 敵을 阻止擊滅하여, 敵은 3시간 45분만인 02.45에 140명으로 推定되는 死傷者를 낸 채 드디어

敗走하고 말았다.

다시 밤이 되자 이번에는 右一線 제279연대에서 捕虜를 잡고 敵情을 探索하기 위하여 중대규모의 수색대를 21.00에 驛谷川 北岸으로 出擊케 하였다. 그런데 수색대의 1개소대는 22.30에 △281 西쪽 2km의 川邊에서 數未詳인 敵과 부딪쳐 射擊戰을 벌였고, 곧 다른 1개소대가 이를 增援하였으나 敵은 계속 맞서서 23.00가 지나도록 자동소총 사격을 퍼붓곤 하였다.

또 연대 제3대대 前面의 Alligator Jaws 北쪽에서는 23.00에 9名の 地雷埋設隊가 일부 敵의 사격에 應酬하다가 지원포격을 요청하여 이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

한편 左一線 제180연대는 이날 새벽에 不毛高地를 끝내 지켜 敵을 擊滅한 다음 중일 邀 敵태세에 있었던 바, 23.53에 대대규모의 敵이 Porkchop 高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 高地는 연대 제3대대의 1개중대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敵은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은 물론 俗稱 “하사골” 北쪽의 △265 부근으로부터 自走砲火까지 加勢하였다.

이렇게 前線의 일부에서 전투가 苛烈化되는 사이에, 사단은 작전의 다음 단계에의 대비를 겸하여 예비대로 古文里에 控置한 제179연대 제2대대를 前方으로 推進하니, 이 대대는 20餘km의 機動끝에 21.00에 峴低 南쪽에 있는 阻止障地를 점령함과 아울러 제180연대장의 作戰指揮下에 들게 되었다.

6월 10일 : 이날도 사단 右一線 제279연대는 수색대의 활동이 있었을 뿐 狀況이 비교적 靜穩하였던 反面, 左一線 제180연대의 地境에서는 西端 前進障地에서의 전투가 熾烈의 度を 더 하였다.

먼저 지난 밤부터 제279연대 수색대의 主力이 敵과 맞서고 있던 驛谷川 沿邊에서의 전투는, 수색대의 또 다른 1개소대가 그 東北쪽으로 진출하였으나, 01.30에 △281 西北쪽 1km 일대에서 또한 일부의 敵과 부딪쳤다. 그런데 敵은 물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02.20에는 연대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니, 수색대는 1名の 敵도 포로로 잡지 못한 채로 敵 推定射殺 8명에 대하여 戰死 1名, 戰傷 18名 및 失蹤 2名の 損失만을 안고 03.20에 主障地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보다 敵이 注力한 것은 Porkchop 高地의 전투로서, 지난 子正이 다 되어 공격을 시작한 敵은 거의 02.00에 이르는 2시간 동안에 約 4,000發에 達하는 박격포 및 포격을 高地에 퍼부어 댔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포병과 主障地의 重火器로서 應酬하니, 高地는 한밤에 雷電霹靂이 몰아치고 石塊와 木片이 튀어 나르는 修羅場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敵은 공격을 強行하여 끝내는 山麓까지 接近한 敵의 일부가 闖入함으로써 障地의 一角이 무너지니 형세는 급하게 되었는데, 이에 堅守不動하던 제180연대 제3대대 중대병력의 일부가 奮起하여 白兵戰을 벌인 끝에 이 敵을 屠戮하니, 형세는 순식간에 逆轉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敵은 企圖가 挫折된 채 50具의 屍體를 버려두고 02.05에 퇴각하였다.

이렇게 새벽에 전투가 끝난 뒤로, 이날 중에는 21.00부터 제279연대의 분대 및 소대 수색대가 역시 Alligator Jaws 일대에서 일부의 敵과 부딪혔을 뿐이며 별다른 攻防이 없었다.

한편 지난 밤에 峴低의 阻止陣地를 점령한 제179연대 제2대대는 이날 00.35에 陣地를 同 聯隊 제3대대에 引繼하고 01.00에는 그 東北쪽 3km인 “선창말” 南쪽에 集結 한 다음 待機하였다.

6월 11일 : 사단은 이날로서 「Counter 작전」의 제1단계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敵은 그 동안 Porkchop 및 不毛高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의 奪取를 企圖하였듯이, 이날도 일찍부터 다시 夜暗을 틈타 두 高地를 공격하였다.

전날 새벽에 Porkchop 高地에서 끝내 敗退하고 만 敵은 24시간만인 이날 02.10에 중대 규모로써 再擧를 圖謀하였으니, 敵은 먼저 高地에 치열한 砲擊을 가한 다음 박격포, 기관총, 자동소총 등의 사격을 同時에 集中하면서 突進하였다. 그리하여 제180연대의 이 前進陣地는 다시 그 一角이 무너졌으나, 敵은 餘力이 없었던지 연대 제3대대 일부의 敵鬪와 치열한 砲火에 潰滅되고 殘敵도 03.00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꼬리를 감추니, 연대는 계속 陣地를 確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180연대 제3대대가 驛谷川 支流의 北쪽에서 勝捷을 올린 뒤에, 이번에는 그 南쪽에서 연대 左一線 제1대대가 敵을 맞았으니, 03.10에 중대규모가 不毛高地를 공격한 것이다. 高地를 固守하고 있는 대대의 일부는, 敵이 증강된 1개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박격포, 기관총 사격을 집중한데 대하여 역시 박격포등으로 應酬하는 火力戰을 나눈 끝에 04.00에 이 敵을 격퇴하였다.

한편 사단장 Ruffner 소장은 이제 前進陣地들을 掌中에 굳힌 것으로 판단하자, 다음날부터 「Counter 작전」계획의 제2단계를 시작하도록, 12日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 명령 제29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12일 06.00를 期하여 「Counter 작전」의 제2단계를 실시한다.

② 제180연대는,

㉠ 1개대대로써 목표⑧을 공격 점령하라.

㉡ 또한 支援戰車와 협동으로 목표④를 공격하여 부근에 있는 敵의 시설을 파괴하라. 목표④는 “복개” 一帶이다.

③ 제245戰車대대는,

㉠ 제180연대의 공격을 지원하라.

㉡ 일부로써 △281 西쪽의 驛谷川 合流點부근으로부터 五里亭 일대의 敵을 공격하라.』

즉 제245戰車대대의 일부로써 五里亭 일대에 沿하는 驛谷川 계곡에 牽制攻擊을 함과 아울러 일부 步戰協同部隊로써 “복개” 일대의 敵 시설을 기습, 파괴함으로써 목표⑧에 대한 공

격을 지원함은 물론 驛谷川 南岸—특히 Porkchop高地 北쪽인 “하사골”로부터 月串池 일대의 敵勢를 驅逐하라는 것이다.

나) Counter 작전 제 2 단계

6월 12일 : 사단으로부터 작전명령을 受領한 제180연대장 Ritchie 중령은 제2대대로 하여금 그 正面的 목표⑧(Erie)을, 제3대대의 1개중대와 支援戰車 1개소대로써 목표④를 각각 공격토록 部署하였다.

이에 따라 各隊는 이날 06.00에 모두 攻擊開始線으로부터 前進하기 시작하였다.

제245戰車대대 B 중대의 2개소대는 Eugene S. Kastner 중위의 지휘로 목표⑧ 北東 5km 인 五里亭 일대에 奇襲을 敢行하였는데, 機動중에 5대의 戰車가 敵의 地雷에 걸려 고장이 나는 難境에 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戰車들은 계획대로 五里亭 西쪽 일대 高地의 敵陣地를 砲火로 制壓한 다음 철수하고, 고장난 戰車도 뒤에 모두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었다.

또한 제180연대 K 중대(장, Richard J. Shaw 대위)는 戰車 1개소대의 지원을 받으며 北쪽으로 “북개” 일대를 공격하였으나, 事不如意하여 08.30에 主陣地로 反轉케 되었다. 즉 보병이 수류탄 投擲거리까지 敵陣에 접근하였을 때, 마을 東쪽 高地의 敵陣이 掩蓋壕와 交通壕, 그리고 土窟, 隧道등으로 마치 벌집같이 構築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돌파하고 더 前進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困難함을 알게 되었던 탓이다.

한편 이날 아침에 공격이 시작되자, 목표⑧ 일대에는 먼저 我軍의 砲兵과 박격포가 지원 사격을 퍼부었고, 아울러 06.50에는 美 제5공군의 戰爆機가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 “T-Bone 일대”는 △290(T-Bone 高地) 및 그 東쪽 連峰들을 上邊으로 하는 “T”字의 縱으로 뻗은 翻의 下端에 해당되는 곳으로, 여기에서 다시 西南쪽을 향하여 갈라진 兩枝中 北枝의 一峰이 △191이고 南枝의 또한 봉우리가 이른바 Eerie 이니, 이곳이 바로 主攻의 목표가 되는 것이었다.

砲爆擊이 끝나자 E 중대(장, John D. Scandling 중위)와 F 중대(장, Jack M. Tiller 대위)는 敵火를 무릅쓰고 南東쪽으로부터 突進하여 07.25에는 Eerie 일대를 奪取하였다. 그러나 敵은 高地로부터 모두 물러난 것이 아닌 듯, 뒤 이어 逆襲하였는데 兩中隊는 이를 곧 격퇴하였으며, 13.55에는 敵의 반격에 대비하여 연대 G 중대(장, Richard M. Lee 중위)가 增援되었다. 그러자 16.40에는 다시 1개중대의 敵이 東北麓으로부터 반격하여 30分間의 接戰끝에 敗退하였는데, 我軍은 다시 砲火를 퍼부어 이를 潰滅하고 말았다.

이렇게 敵襲이 거듭되는 가운데 땅거미가 지자, 대대는 사단 예비대인 제179연대의 제1대대 일부와 交代케 되었으니, 20.35에 제2대대는 이날 점령한 Eerie 일대의 前進陣地를 제179연대 제1대대로부터 抽出된 1개중대에 引繼한 다음, 主力은 峴低 일대로 移動하고 1개중대는 다시 葛峴里의 主陣地를 점령하였다.

그동안 敵의 저항은 뜸하더니, 밤이 깊어 22.45에 이르자 일부의 敵이 △191로부터 Eerie를 공격끝에 일단 물러났다가 23.45에 다시 再興하여 格鬪裡에 子正이 넘어 120mm 박격포로 사격하면서 敗退하여 버렸다.

그런데 이날 中共 제117사단 제350연대의 일부로 판단되는 敵이 그들의 이른바 丁字山(T-Bone) 南端에서 逆襲과 반격을 거듭하면서 집요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地形上으로 △191와 Eerie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서 그들이 隧道를 이용한 地下坑道戰(Tunnel戰)을 편 때문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사단의 左隣接부대인 韓 제1사단의 제11연대에서 노획한 敵의 文書에 依하면, 이날 敵은 그 제1·제50중대가 방어하다가 高地를 빼앗기자, 제1중대는 곧 地下坑道戰을 시작하였으며 밤 늦게는 敵 제3중대의 반격으로 高地는 다시 敵手에 歸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戰車 파괴 8대, 死傷 772명의 戰果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의 경과나 결과의 判異한 점은 且置하고, 注目된 것은 地下坑道戰으로, 곧 대책이 講究되어 我軍은 隧道의 入口를 封鎖하는 措置를 取하였으나, 그러자 敵의 장교들이 뛰쳐나가 항복하려는 사병들을 殺害하였다는 사실이 敵 捕虜에 依하여 밝혀졌다. 이로부터 사단은 高地를 점령한 다음 隧道의 入口를 터 놓아 敵의 投降을 받아 들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激鬪가 벌어진 T-Bone 西쪽에서 제180연대 제1대대의 일부가 堅持中인 不毛高地에서는 23.00가 좀 지나서 2개분대규모의 敵이 공격하였으나, 25分間의 交戰끝에 撃退되었다.

6월 13~14일: 지난 子正까지 Eerie를 공격한 敵은 이날 01.00에 다시 같은 규모로써 공격을 거듭하였으나, 제179연대의 1개중대는 이를 격퇴하고 계속 陣地를 固守하였으며, 02.25에 砲兵은 △191 일대에서 低回하는 중대규모의 敵을 砲擊하여 潰散시키니,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餘力이 없는 듯 날이 밝도록 잠잠하였다. 그러나 敵은 한편에서는 다시 공격하기 위한 增援을 계속하는 듯, 驛谷川北岸으로부터 △290 일대에서의 兵力移動이 觀測에 依하여 判明되어 我軍은 이를 砲擊으로 妨害하기도 하였다.

이날 낮 동안 前進陣地에서의 狀況이 이렇듯 靜穩한 가운데 主陣地에서는 일부의 交代가 이루어 졌다. 즉, 제180연대 右一線이던 제2대대의 主力이 전날 Eerie를 공격한 다음 峴低 일대로 물러서면서 1개중대가 葛峴里의 主陣地 일부를 점령한 데 이어 그 東쪽을 제179연대 제3대대가 점령하였으며, 연대 中央一線인 제3대대는 △347 일대의 主陣地를 제179연대 제2대대에 引繼하였으니, 제180연대는 이제 右一線 제179연대 제3대대, 中央一線 제179연대 제2대대(제180연대 제2대대 1개중대 배속), 左一線 연대 제1대대로서 主陣地를 確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交代를 실시한 연대장의 意圖는 공격에 나섰던 부대로 하여금 戰鬪力을

回復하게 하고, 그동안 主陣地에 머물러 銳氣에 찬 精兵으로 다시 △191 일대까지를 공격, 점령하여 前進陣地를 確保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7.00에 제3대대는 戰車의 支援을 받으며 △191 및 그 西쪽에서 南쪽의 Eerie와 연결된 봉우리인 △206의 攻略에 나섰는데, 비교적 가벼운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18.35에 兩 高地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대는 곧 제179연대 제1대대의 1개중대가 防禦하고 있는 Eerie까지 引受하니, 19.15에 交代한 제179연대의 1개중대는 原隊로 復歸하고, 대대는 △191—Eerie 일대를 確保하게 되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敵은 다시 반격을 시작하였다. 23.40이 좀 지나서 대대규모의 敵이 3門의 自走砲 支援을 받으며 △191를 집중공격하여 일부는 我軍의 砲擊과 阻止射擊을 뚫고 高地에 붙어 手榴彈을 던지기도 하였으나, 대대는 2시간이 넘도록 奮戰激鬪를 거듭한 끝에 다음 날인 14일 02.25에 確認된 敵 射殺 180명의 戰果를 거두고 敵을 물리치니, 敵은 무모하게도 全滅을 賭한 공격을 한 셈이 되었다.

이제 敵도 이날——14日 中으로는 별달리 挑發함이 없고, 다만 馬放里 일대의 敵 主陣地 부근에서 09.35에 일단의 敵이, 그리고 15.45에는 戰車 또는 野砲로 판단되는 몇개의 僞裝物이 각각 我軍의 觀測에 露出되었을 뿐이었다.

6월 15일 : 이날은 새벽부터 敵이 다시 挑戰하는 조짐이 엿보였다.

사단 右—線 제279연대의 前進陣地인 Alligator Jaws 일대에서 제3대대의 일부는 02.30에 探索攻擊하는 10명의 敵을 격퇴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00.40에 左—線 제180연대의 △191—Eerie 일대에 일부의 敵이 역시 探索攻擊을 하였으나 연대 제3대대는 직접 相對하지 않고 砲擊으로만 潰退시키고 말았다.

낮에는 또한 별다른 狀況이 없었고, 그러한 가운데 다시 사단 일부의 交代가 있었으니, 이는 제180연대와 제179연대의 全面交代를 위한 逐次的인 한 단계였던 것이다.

이날 08.30에 제179연대 제3대대는 제180연대 제2대대의 일부가 葛峴里 일대의 主陣地를 確保하는 가운데, 主陣地로부터 일단 峴低 東南쪽으로 集結하였다가 다시 主陣地 前面으로 機動하여 16.00에 △191—Eerie 일대의 前進陣地를 제180연대 제3대대로부터 引受하였으며, 그 사이에 Philippine 제19대대전투단이 東豆川 北쪽으로부터 機動하여 15.00附로 葛花洞—葛峴里 일대의 主陣地를 引受하였다. 그리고 제180연대 제3대대는 峴低 東南쪽으로 물러났다.

다시 밤이 되자 徵候대로 敵의 공격이 激化되었으니, 제279연대 제3대대 前面의 목표③인 前進陣地에서는 23.50에 일부의 敵을 포격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191—Eerie 일대에는 이에 앞서 21.15에 熾烈한 砲擊과 아울러 대대규모인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제179연대 제3대대는 이날 처음으로 前進陣地의 防禦任務를 맡아 惡戰苦鬪를 벌였다. 23.10에 일부의 敵이 加勢하고, 그 사이 陣地에는 數千發에 이르는 敵의 砲彈이 集中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應酬하여 我軍이 砲火를 퍼부으니, 漆夜에 閃火와 霹靂이 耳目을 어지럽게 하는 一場이 되었다.

6월 16일 : 이날도 前進陣地에서의 전투는 새벽까지 끊어지지 않았으나 제179연대와 제180연대는 午後에 예정대로 交代하였다.

사단 右一線인 제279연대는 제3대대 前面의 前進陣地를 敵이 지난밤의 敗北에도 不拘하고 다시 이날 01.40에 1개소대에 가까운 병력으로써 공격하자, 1개소대의 增援과 戰車의 支援으로서 02.20에 격퇴하여 버렸다. 그 다음, 낮에는 연대 제1대대가 제2대대와 交代하여 12.25에 △281 일대의 主陣地를 引受하였으며, 제2대대는 19.10에 제1대대가 머물던 “선창말” 北쪽의 天德山 南端으로 물러섰다.

한편 △191—Eerie 일대의 전투는 밤새 계속되어 지난밤 以來 敵의 砲擊단도 約 5,000發에 이르기, 제179연대 제3대대는 苦戰을 쫓지 못하는 형세였는데 03.50에 2개소대가 增援됨으로써, 대대는 心機一轉하여 奮戰敢鬪한 끝에 04.15에는 드디어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대대는 6시간에 걸친 이 전투에서 戰死 7명, 戰傷 125명이라는 損失을 보게 되었다.

이에 제179연대(장, Joseph C. Sandlin 중령)는 제3대대의 戰績을 勘案하여 곧 交代를 斷行하였으니, Philippine 제19대대전투단이 그 일부로서 前進陣地를 引受하고, 제3대대는 陣地를 引繼한 다음에 主陣地 뒤의 “조밭골” 東쪽으로 물러나 部隊整備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연대 제1대대는 蕪菴里 일대로부터 機動한 끝에 18.00에 제180연대 제1대대와 交代하여 德隱洞 일대의 主陣地를 점령하였다.

아울러 연대는 18.00附로 제180연대와 交代하여 그 戰鬪地境을 引受하는 同時에 葛峴里 일대 主陣地의 일부를 포함한 제180연대 제2대대를 配屬받았다.

이로서 제179연대는 사단 左一線部隊가 되어 연대 右一線 Philippine 제19대대전투단, 中央一線 제2대대(제180연대 제2대대 일부 配屬), 左一線 제1대대로서 葛花洞—德隱洞 일대의 主陣地를 固守하는 가운데 Eerie·Porkchop·不毛高地 등의 前進陣地를 確保하게 되었다.

그리고 主陣地에서 물러난 제180연대의 제1대대는 20.30에 일단 蕪菴里 일대에 집결하고, 제3대대는 峴低 東南쪽으로부터 東豆川 北쪽으로 移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이 깊도록 敵의 隻影이 없더니, 子正이 지나자 17일 00.40에 △191—Eerie 일대를 戰車 및 自走砲火의 支援을 받는 2개중대규모가 공격하였다. 及其也에 陣地의 一角에서는 白兵戰까지 벌어지고, 이어 대대규모의 敵이 加擔키도 하였으나, 연대는 奮鬪끝에 03.45까지 이를 격퇴하였다.

다) 不毛高地일대 攻防戰

6월 26일 : 「Counter작전」이 끝난 뒤에도 사단의 前進陣地, 특히 $\Delta 191$ —Eerie와 Porkchop, 그리고 不毛高地 일대에 대한 敵의 공격은 본대에서 대대에 이르는 규모의 差異가 있었으나 거의 매일 밤마다 되풀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不動의 態勢로 前進陣地를 確保하는 한편 스스로의 戰列을 가다듬기도 하였다. 즉, 사단 안에 있어서의 左右一線 연대 사이의 戰鬪地境線을 變更하여 右一線인 제279연대의 區域을 보다 西쪽으로 擴張한 것이니, 이로서 Philippine 제19대대전투단이 葛花洞 일대의 陣地와 함께 21日附로 제279연대에 配屬된 것이다. 또한 22일에 제2대대가 다시 제1대대와 交代하여 $\Delta 281$ 일대의 主陣地를 점령함으로써 이날 현재 제279연대는 右一線에 제2대대, 中央一線에 제3대대, 그리고 左一線에 Philippine 제19대대전투단으로써 $\Delta 281$ —葛峴里 東쪽에 이르는 主陣地의 防禦에 任하고 있었다.

한편 左一線 제179연대는 戰鬪地境이 좁혀져 연대 右一線 제2대대가 葛峴里— $\Delta 347$ 일대, 左一線 제1대대가 德隱洞 일대의 主陣地를 確保한 가운데, 계속 제180연대 F 중대를 配屬받아 正面의 前進陣地에서 벌어지는 戰鬪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不毛高地 일대에서 제179연대의 先制攻擊으로 이날 다시 戰鬪가 激化되었으니, 연대는 不毛高地 西쪽 1km인 敵의 據點을 파괴코자 한 것이다.

즉, 不毛高地는 驛谷川 바로 南岸에 붙어 東西로 뻗어 있는 山의 東端에 솟은 最高峰으로 北·西·南쪽의 三面을 모두 瞰制할 수 있는 位置인데, 敵은 그 西쪽으로 連한 高地를 驛谷川 南岸의 한 據點으로 삼아 2개 중대乃至 大隊규모로써 侵擾를 피하므로, 연대는 이를 芟除하려는 것이었다.

이날 아침 공격에 앞서 제179연대는 不毛高地의 前進陣地를 비워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戰爆機 2개 편대가 敵의 據點에 爆擊과 rocket彈 發射 및 機銃掃射를 敢行하였다. 이어 사단 砲兵 및 박격포사격이 敵陣에 集中된 다음, 제179연대는 2개 중대로써 공격을 시작하였다.

연대 C 중대(장, John B. Blount 중위)는 左側에서 공격하고, 연대에 配屬中인 제180연대의 F 중대(장, Jack M. Tiller 대위)는 戰車의 支援下에 右側 指形의 稜線으로부터 北麓을 따라 敵陣에 육박하였는데, 2개 중대규모인 敵은 거의 1시간동안 저항을 계속하다가 후퇴하면서 兩 中隊에 砲擊과 박격포사격만을 集注하였다. 敵火가 멈추자 敵은 다시 그들의 陣地로 돌아서 接戰이 벌어졌다. 더욱 敵의 기관총亂射로 兩 中隊의 敵陣頂上을 向한 진출이 滯留되니, 午後에 연대는 A 중대(장, George L. Vaughn 중위)를 增援하고 다시 공격을 部署하였다. 즉, 제180연대의 F 중대는 不毛高地의 左右稜線을, 제179연대 C 중대는 西北쪽 前進陣地를 각각 防禦하며, 새로 增援한 A 중대는 南麓을 따라 敵의 右側方으로 공격케 한 것이다.

A 중대의 공격에 敵은 手榴彈을 投擲하고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2시간이나 執拗하게 저

항하니 나중에는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戰車가 高地를 오르다가 顛覆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戰車의 一擊까지 加하여지면서 敵은 점차 몰렸고, 연대는 工兵을 挺進케 하여 戰車를 계속 高地에 올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18.45에는 이 敵을 격퇴하고 그 陣地를 끝내 점령하였다.

6월 27일 : 지난밤부터 제179연대의 A. C 및 제180연대 F 중대는 不毛高地 일대의 防禦態勢를 더욱 強化하였으나 이날 밤이 될 때까지는 敵의 반격이 없었다. 다만 北쪽 Porkchop 高地의 前進陣地에는 새벽 01.25에 소대규모의 敵이 砲支援下에 공격을 하였다가 02.20에 격퇴되고 말았다.

이날 午後에 제179연대 L 중대(장, William T. Moroney 중위)는 제180연대 F 중대와 交代하여 不毛高地 頂上 일대의 방어를 引受하였으며, 연대 C 중대 및 A 중대의 일부는 새로이 점령한 그 西北쪽 陣地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敵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21.45에 敵의 砲擊과 박격포사격이 不毛高地 일대를 뒤덮더니, 22.00에는 대대규모인 敵이 高地 北東과 南西쪽으로부터 공격하여 L 중대와 부딪쳤다.

연대는, 敵이 高地頂上으로 공격을 壓縮하여 我軍의 阻止射擊圈內에 이르자, 主陣地로부터 砲兵, 戰車, 박격포는 물론 步兵에 이르는 各種火器로써 敵의 接近路에 일제히 熱火를 퍼부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L 중대는 또한 困境에 몰려 있는 敵에게 수류탄을 投擲하고 사격을 集中함으로써 23.45에 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敵은 모두 물러간 것이 아니고 곧 再編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월 28일 : 제179연대는 지난밤 늦게 敵을 격퇴하고 한숨을 채 돌리기도 前에 다시 敵의 공격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날 00.26에 대대규모의 다른 敵이 지난 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여 不毛高地 일대의 我軍陣地에 重迫擊砲火를 집중하였으나, 敵의 보병은 我軍 砲兵의 彈幕射擊과 연대 3개 중대의 阻止射擊에 다시 困境에 몰렸으며, 연대는 02.00에 敵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02.15에 敵은 다시 대대규모로써 공격하였으며, 前車의 覆轍로 역시 我軍의 사격에 걸려 03.20에는 격퇴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高地에 대대규모에 이르는 공격을 連續하였으나 一敗塗地하고 만 敵은 낮 동안 잠잠하더니 끝내 斷念하지 못하고 이날 밤 늦게 다시 공격을 試圖하였다.

砲兵 및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이 있던 다음, 22.00에 4개 분대의 敵이 연대의 前進陣地에 탐색공격을 하더니, 22.30에 다시 敵의 砲火力이 集中되고 이어 增強된 2개 대대규모의 敵이 北東 및 北西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는 敵도 4,000餘發의 砲 및 박격포 사격을 퍼부으며 我軍의 탄막사격을 突破하여 陣地의 一角에서는 白兵戰이 벌어지는 등, 修羅의 一場을 鬪鬪케 하는 一瞬도 있었다.

그러나 子正이 지나면서 UN군의 항공기가 照明彈을 投下하여 戰場을 대낮같이 밝히는 가운데, 연대 主陣地로부터의 阻止射擊과 이에 倅하여 연대 A. C. L의 3개중대가 高地에서 쉬지 않고 계속하는 砲射는 敵으로 하여금 그 以上の 接近을 許容치 않았으며, 近 700名의 死傷者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敵은 날이 지난 29일 00.45부터 결국 敗走하고 말았다. 그 30분뒤에 일부의 敵이 또 다시 공격을 企圖한 바 있었으나, 곧 격퇴되었으니 이제 敵의 死力을 다한 高地奪取의 野慾은 끝내 霧散되고 만 것이다.

以後에도 探索·偵察이 없지는 않았으나, 敵은 한동안 연대의 이 前進陣地를 거의 넘보지 못하였다.

라) 我軍의 交代와 攻防의 再演

7월 17일 : 이날 美 제45사단의 陣地에서는 美 제2사단과의 交代가 進行되고 있었다.

이는 定例的인 交代로서 제45사단은 前線으로부터 물러나 美 제10군단의 예비사단이 되고, 제2사단은 7월 15日附로 美 제1군단에 配屬되어 △281—德隱洞 일대의 主陣地 및 前進陣地를 引受케 된 것이다.

제2사단은 4月末以來 제9군단의 예비로 主力은 加平일대에 控置되어 있었고 일부는 巨濟島捕虜收容所의 警備에 任하였다가 7월에 들어서면서 交代를 준비하였는데, 이날 午前까지의 主要 交代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제9연대는 제45사단의 右一線이 된 제180연대 地境으로 機動하여, 그 제2대대는 道新里, 그 제3대대는 大光里 東쪽 “점말” 일대에, 그리고 Thailand 대대는 天德山 南端에 각각 집결하였으며, 제1대대는 이날 01.00에 제180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와 交代하여 △281 일대의 陣地를 引受함과 同時에 제180연대에 配屬되었다.

한편 제23연대는 전날, 즉 16일 새벽까지 모두 제179연대 地境으로 機動한 다음, 제2대대는 그날 18.00에 제179연대 제3대대와 交代하여 驛谷川 東岸에 있는 德隱洞 일대의 陣地를 引受함과 동시에 제179연대에 配屬되었고, 제1대대는 大光里 西쪽 “안골”, 그리고 제3대대는 峴低 東南쪽, France 대대는 大光里 南쪽 “장거리” 일대에 각각 集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8연대는 先頭인 제3대대가 仁川에 到着하고, Netherlands대대는 그에 앞서 馬田里에 이미 集결하였다.

이로써 보면 제2사단은 아직은 2개대대만이 제45사단과의 配屬으로 前線의 左右兩端에 나섰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敵은 이러한 交代의 間隙이라도 노린 듯이 이날 밤 다시 不毛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高地일대에 敵의 砲火가 점차 增加하다가 22.00부터는 熾烈의 度를 極하니, 제23연대의 F중대는, 전날밤에 陣地를 引受한 같은 중대의 제1소대에 대하여, 곧 다른 1개소대를 右側方으로부터 마을을 통하여 增援코자 하였으나, 이 소대는 赴援途中에 高地 주위에 侵襲한 敵의 伏兵으로부터 奇襲을 받게 되었다. 22.50에 대대규모의 敵은 계속되

는 砲支援下에 前進陣地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는데, F중대는 主陣地에서 대책이 講究되는 가운데 대부분이 그대로 高地에서 奮戰敢鬪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대대는 23.30에 E중대로 하여금 이에 赴援토록 하였다.

이렇게 西隅에서 戰鬪가 再燃되는 한편 道峯里 △324 일대에서는 제9연대 제2대대가 제180연대 제1대대와의 交代를 서둘러 24.00까지는 陣地引受를 끝마쳤다.

7월 18일 : 不毛高地에서의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다.

제23연대 E중대가 高地에 진출하였을 때 山頂은 이미 敵의 일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중대는 F중대와 힘을 합쳐 逆襲을 強行함으로써 01.45에 敵을 격퇴하고 03.45까지는 高地를 모두 다시 掌握하였다.

그러나 敵은 30분만에 다시 공격하였다가 05.00에 후퇴하던니, 날이 밝은 뒤 06.00에 또 공격을 거듭하니, E중대와 특히 F중대로서는 惡戰苦鬪의 連續이었으나 斷念하지 않고 敢鬪하였는데, 高地의 西南斜面이 敵에게 蹂躪된 데 이어 결국 15.00에는 高地의 頂上이 중대규모인 敵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한편 사단의 交代는 계속 진행되었다. 제9연대는 제1·제2 兩대대가 交代를 完了하자 이날 00.01附로 제180연대 戰鬪地境을 引受하고, 이와 동시에 Philippine 제19대대 전투단인 연대에 배속되었다. 그런데 Philippine 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陣地의 西半을 제23연대에 배속된 France 대대가 00.30에 引受하니, 이제 제2사단은 실질적으로 全陣地의 대부분을 引受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이날 03.00附로 사령부를 大光里에 開設하고 제45사단과의 交代를 일단락지었으며, 이어 제9연대 및 제23연대의 일부도 08.00附로 모두, 原隊復歸함과 아울러 제179연대의 일부를 指揮下에 두었다.

따라서 제23연대는 이날 10.00附로 제179연대 戰鬪地境을 引受하고, 제9연대는 그의 제3대대로써 12.00까지 Philippine 대대와의 交代를 마쳤다.

이렇게 사단 左一線으로 前線에 나서게 된 제23연대는 午後에 不毛高地의 敵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제3대대가 반격에 나서, 16.55에 K중대가 戰車支援下에 高地로 向하였으나 雨注하는 敵火로 일부만이 E 및 F중대의 主力과 合勢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연대는 다시 I, L중대와 B중대, 그리고 戰車 1개소대로써 공격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특별공격부대가 山麓에 이르자, 敵은 또 다시 熾烈한 砲火를 集中하여, 부대는 兵力의 損失과 通信網의 杜絶로 말미암아 困境에 빠졌는데 霰上加霜으로 비까지 내리 진흙탕속에 덩굴게 되었다. 그리하여 B중대의 경우에는 20명 밖에 남지 않았으나, 그들은 모두 彈藥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가 E, F 및 K중대의 남아있는 일부병력과 함께 撤收하였다.

7월 19일 : 지난밤의 激戰으로 많은 損失을 입게 된 제23연대의 戰鬪員을 보충하기 위하

여 사단 工兵대대의 C중대와 사단수색중대가 연대에 배속되었다.

아침에 I 및 L중대는 殘餘兵力으로 다시 高地頂上을 향하여, 밀고 올라갔으나, 執拗한 敵은 山頂에 붙어 치열한 사격을 계속 집중하여 兩중대는 결국 또 다시 撤收하고 말았다.

이날 저녁 16.45에 연대는 또 한번 반격을 企圖하였는데, 결과는 高地 東南麓에 진출한 것 뿐이었다.

한편 연대 제1대대는 이날 11.50에 제179연대 제2대대와 交代하여 △347 일대의 陣地를 引受하니, 제45사단의 예하부대는 이제 모두 물러났고, 제2사단은 제38연대의 제1, 제2 兩대대가 仁川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는 모두 薪畚里, 銚谷 일대에 집결함으로써 全師團이 交代를 끝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不毛高地를 敵手에 넘긴 채 奪還하지 못하여 사단은 계속 반격을 企圖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반격은 계속되었으나 敵은 執拗하게도 물러서지 않을 뿐 아니라, 장마가 시작되어 戰場이 진흙탕을 이루었고 連日 계속되는 비로 道路·橋梁이 流失된 탓으로 補給에도 지장이 생겨 사단은 제23연대의 일부가 高地 東南麓을 차지한 채로 날이 개이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마) 不毛高地 奪還戰(Little Joe 작전)

7월 31일: 그동안 계속되는 장마중에도 몇차례의 작은 衝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敵은 제23연대의 다른 前進陣地를 공격키도 하였다.

그리하여 France 대대는 25일 새벽에 T-Bone 일대를 공격한 대대규모의 敵과 3시간이 넘는 激鬪을 벌인 끝에 確認 15명을 포함하는 敵 射殺 65명의 戰果를 올리며 敵을 격퇴한 바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3연대는 不毛高地의 敵을 몰아 내고자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먼저 연대 제1대대(장, William Zimmermann 중령)를 공격부대로 選定하여 24일에 △347 일대의 主陣地로부터 물러서게 하고, 그 主陣地는 이와 交代하여 제3대대가 引受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제1대대는 近 1週日동안 계속되는 雨中에서 「Little Joe」라고 命名된 반격작전의 演習을 거듭하였는데, 이 작전은 또한 제37野砲대대(장, Robert M. Backes 중령)가 직접 지원하며, 사단공병대대의 B중대와 戰車 및 重迫擊砲중대등이 지원토록 되었다. 또한 事前 航空偵察이 行하여지고, 別途의 通信對策과 前進에 따른 補給對策까지 모두 마련되었다.

드디어 이날 비가 뜰하여지자 대대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22.00의 캄캄한 밤중에 별 다른 공격준비사격도 없이 A, C 兩중대는 두갈래로 併立하여 高地를 目標로 進擊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곧 敵의 저항에 부딪쳤으나, 박격포彈과

銃火가 雨注하는 가운데 高地의 斜面으로 밀고 올라가 兩面으로부터 敵의 防禦陣을 壓縮하기 시작하였다.

8월 1일 : 밤새 敵을 壓縮하던 A, C 兩중대는 이날 04.25에는 高地頂上까지 올라, 저항하는 2개소대규모의 敵과 부딪쳤다. 銃火가 튀고 手榴彈이 폭발하는 속에서의 接戰 끝에 敵陣의 一角을 무너뜨리고 白兵 格鬪의 結果로서 兩중대는 孤立된 敵을 격멸하고 09.10에 頂上에서 모두 合勢함으로써 10餘日만에 不毛高地를 다시 奪還하게 되었다.

그러나 兩중대는 곧 敵의 逆襲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壕를 파고, 낮 동안 航空機가 계속 出擊支援하는 가운데 地雷를 埋設하고 鐵條網을 架設한 것이다.

또한 B중대가 A중대와 交代하여 새로이 高地로 推進되었는데, 밤이 되자 敵의 반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敵은 高地 일대에 野戰砲와 박격포를 集中사격한 다음 22.45에 소대규모로써 공격하였다가 곧 격퇴되자, 23.20에는 威力探索에 그친 듯, 잠시 공격하다가 물러나고 말았다.

이제 연대는 이 不毛高地를 掌握한 것이 틀림 없게 되었고, 다시는 敵手에 넘겨 주지 않도록 確保의 態勢를 갖추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2사단은 다시 不毛高地를 奪取하였으나, 이에 대한 敵의 探索공격이나 그밖의 前進黨地에 대한 공격이 멈추어진 것은 아니었다.

제23연대는 8월 2일 새벽에도 이 高地를 공격한 敵 10명중의 7명을 射殺한 바 있고, 4일 01.30에는 다시 일부의 敵을 맞아 射殺 20명의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한편 같은 날 07.30에 France 대대의 수색대는 △191 北쪽에서 일부의 敵과 부딪쳐 1명을 射殺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수색·경찰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제23연대는 8월 19일附로 사단 예비대인 제38연대와 交代하였다가 9月末에는 다시 제9연대와 交代하여 사단 右一線部隊가 된 다음 France 대대를 △281에 配置하였다.

그 사이 사단 左一線인 제38연대는 9月中旬에 다시 不毛高地 일대에 侵入한 敵을 격퇴하였는데 큰 危害는 없었다.

10월에 들어서 右隣接 韓 제9사단(장, 金鐘五소장)은 敵의 一大攻擊으로 白馬高地의 激戰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281(Arrowhead, 箭頭山)을 確保중인 France 대대는 白馬高地에 대한 助攻으로 同高地를 공격한 中共 제113사단 제337연대와 6일부터 12일에 걸쳐 激鬪을 거듭한 끝에 敵을 격퇴하고 끝내 高地를 固守하였다.

그뒤 11월에는 다시 사단 左一線이 된 제9연대에 配屬中인 Thailand 대대가 Porkchop 高地를 堅守하여 7일~11일에 거듭된 敵의 공격을 격퇴한 바 있다.

그러다가 12월의 酷寒 속에서 사단은 最高의 貴賓을 맞게 되었다. 12월 4일, 美合衆國의 次期 大統領으로 당선된 Dwight D. Eisenhower 一行이 사단을 訪問한 것이다. "Ike"一行은 그날 아침 사단 사령부에서 戰況에 대한 報告를 받았으며, 사단의 각 중대마다에서 선출된 兵士들이 儀式에서 다음 번의 그들 最高司令官에게 敬慕를 표하였다.

그러나 Christmas가 다 된 12월 23일~24일에, 지난 달 제23연대와 交代한 제38연대는 T-Bone 일대에서 中共 제113사단 제338연대의 공격으로 다시 激鬪을 벌인 끝에 敵 死傷 500餘名の 戰果를 거두면서 敵을 격퇴하였다. 이렇게 激鬪로 點綴된 6個月間 △281—德隱洞 일대의 主陣地와 前進陣地를 堅守한 사단은 12월 29일附로 美 제7사단(장, Wayne C. Smith 소장)과 交代하였는데 不毛高地를 비롯한 Porkchop 高地, T-Bone 일대에서의 攻防은 畧을 넘기며 再燃케 되는 것이다.

한편 8월 以後 隣接師團을 비롯한 美 제1군단內의 狀況을 잠시 一瞥하면, 軍단 左翼인 美 제1海兵사단은 8월 9일以來 Bunker 高地전투를 계속하였으며, 中央左翼인 英 제1연방사단(장, M.M.A-R-West, C.B., D.S.O. 소장)은 11月中旬에 3회에 걸친 敵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11월 18일 沙尾川과 臨津江 合流點부근의 Hook 高地에 대하여 敵은 中대규모로써 공격을 시작하여 2개중대로 규모를 增強시키면서 奪取코자 企圖하였으나, Black Watch 대대의 敢鬪와 PPCLI 제3대대의 逆襲으로 결국 100挺의 屍體를 버려둔 채 敗退하고 만 것이다.

이보다 앞서, 韓 제1사단과 7월 5일附로 交代하여 軍단 中央右翼이 된 美 제3사단은 9月中旬에 또 하나의 典型的인 前進陣地에서의 전투를 實施하였다.

즉 高陽邑 西쪽의 이른바 Kelly 前哨戰鬪가 바로 그것이니, 9월 17일 밤에 中共 제116사단 제348연대의 中대규모가 同 陣地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것인데 이 전투는 9월 24일까지 거의 敵 연대규모와, 美 제65연대의 각 중대가 交代로 거의 다 參加하게 되었다. 당초 陣地를 방어하던 제65연대 C 중대와 18일 아침에 交代한 연대 B 중대는 19일 새벽에는 거의 全滅되었으며, 끝내 高地는 喪失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계속된 반격으로 다만 死傷者만을 累加시켜, 9월 24일까지 연대는 650명에 達하는 死傷者를 낸 채 反擊을 中止하고 말았다.

9月末에 美 제3사단은 또 다시 韓 제1사단과 交代하였는데, 軍단의 中央右翼으로 낮익은 戰場에 돌아온 제1사단은 12월에 大小 兩 Nori 高地에서 敵과의 激鬪을 벌이게 된다. 그리하여 12月末 現在로 軍단은 右翼으로는 美 제7사단, 中央右翼으로는 韓 제1사단, 그리고 中央左翼으로는 英 제1연방사단, 左翼으로는 美 海兵 제1사단의 態勢로써 鐵原 以西—金浦半島의 戰線을 담당하고 있었다.

戰果 및 損失

區 分 月日別	戰 果		損 失		
	射 負 捕	殺 傷 虜	戰 死	戰 傷	戰 失 踪
6. 6~ 6. 16		951名 (530) 497名 (488) 8名 (2)	戰 死 41名	戰 傷 381名	戰 失 踪 2名
6. 26~ 6. 28		(215)名 (430)名			
7. 17~ 7. 19		100名 (150)名 2名			
7. 31~ 8. 1		50名 (32) (65)名	戰 死 2名	戰 傷 25名	
總 計		1,316名 (745) 1,142名 (1,133) 10名 (2)	戰 死 43名	戰 傷 406名	戰 失 踪 2名

※ (1) 美 제8군 定期作戰報告에 依據하였으며, () 안은 未確認數字임.

(2) 이 數字는 全般의인 추세를 나타낼 뿐 실제로는 보다 增加된 數字일 것임.

§ 研 究

(1) 戰鬪名稱에 대하여

當 戰鬪의 前半은 小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단계의 「Counter 작전」과 不毛高地 攻防戰으로 構成되어, “美 제45사단의 Counter 작전”이라고 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작전 제1단계에서는 不毛高地와 함께 Porkchop 高地가, 제2단계에서는 Eerie 일대가 爭鬪의 焦點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① 戰鬪의 頻度나 期間, 規模에 있어서 不毛高地가 대체로 他二者에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② 6월26일~28일의 전투는 不毛高地에서의 攻防戰으로, 美 제45사단이 6月中旬에 치른 一勝의 이 戰鬪에서 不毛高地를 中心的 位置에 놓는 것이 事實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듯 하다.

더욱 美 제2사단이 戰區를 引受한 다음에 벌어진 後半의 전투는 특히 不毛高地의 爭鬪이 中心인 만큼, 長期間의 전투 전체로 보아서 生疎한 다른 名稱보다는 慣用된 名稱을 取하는 方向에서 本節의 題名을 “不毛高地附近戰鬪”라고 한 것이다.

(2) Counter 작전의 攻擊目標에 대하여

美 제45사단의 계획으로는 11개 목표가 있으나, 특히 목표①인 △395에 대하여서이다.

첫째, 高地名稱의 混用은 간간이 볼 수 있는 일이지는 하나, △266가 當 戰鬪에서 彼我間의 치열한 砲擊으로 말미암아 樹木이 모두 꺾어지고 여름인데도 草木이 자라지 않아 我軍은 不毛高地로, 敵은 老秃山이라고 呼稱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목표의 別稱이 대체로 當 戰鬪에서의 어떠한 연유로 붙여진데 反하여, △395는 10월의 유명한 白馬高地戰鬪 以來 白馬高地, 또는 白馬山으로 人口에 膾炙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本節에서는 “△395”로 表記함이 原則일 것이다.

둘째, 이 高地는 當時 美 제9군단장 指揮下의 韓 제9사단이 掌握하고 있었는데, 美 제45사단에서 어떻게 隣接 他部隊 陣地에 目標을 設定할 수 있었느냐는 點이다. 이 點에 대하여 現在로서는 究明할 만한 資料가 없다. 그러나 몇가지 推論은 可能하다고 하겠으니,

① 隣接한 高地이고 地形上 要衝에 該當되므로 어느 사단이 담당하던지 △395 山麓에 前進陣地가 있어야 되겠다는 當爲에서 可能할 수도 있겠다는 點과, ② 계획자체는 어디까지나 可變性을 갖는 豫定에 不遜하므로, 계획을 立案할 당시에는 앞으로의 어떤 豫定을 勘案할 수 있었으리라는 點이다.

단지 그 以後에 있어서 △395에 대한 사단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以上의 推論도 不可함을 밝혀 둔다.

(3) 高地의 標高에 대하여

當 戰鬪의 中心인 不毛高地와 Porkchop 高地의 標高는 當時의 모든 記錄은 물론, 뒤에 刊行된 戰史에서도 모두 △266과 △255로 각각 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地圖上에는 △266—即 不毛高地가 △275로, △255—即 Porkchop 高地가 △234로 나타나고 있다.

本節에서는 混亂을 避하여 일단 前者를 따랐으나 좌표상의 차이도 아니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差異가 나타나지는 알아 볼 도리가 없다. 혹 當時에 美軍이 사용한 地圖와의 差異인지... 이 點 再考를 要한다.

8. 美해병대의 Bunker(△122)高地 附近戰鬪(1952년 8월 9일부터 1952년 8월 16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8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美 해병제1사단 장 소장	John T. Selden	대위	Stanley T. moak (8월10일부터)
제1연대 장 대령	Walter F. Layer	F 중대 장 대위	Clarence G. moody, Jr.
제1대대 장 중령	Louis N. King	제3대대 장 중령	Gerard T. Armitage
A 중대 장 대위	Robert W. Judson	G 중대 장 대위	William M. Vanzuyen
B 중대 장 대위	Sereno S. Scranton, Jr.	H 중대 장 대위	
C 중대 장 대위	Casimir C. Ksycewski	I 중대 장 대위	Howard J. Connolly
제2대대 장 중령	Roy J. Batterton, Jr.	제7연대 제3대대 H 중대 장 대위	John G. Demas
D 중대 장 대위	George W. Campbell	제11연대(砲兵) 장 대령	Frederick P. Henderson
E 중대 장 대위	Jesse F. Thorpe		
敵		軍	
中共 제40군 장 韓 先 楚		中共 제65군 장 蕭 應 棠	
제118사단 장 鄧 岳		제194사단 장 趙 翁 毅	
제352, 354연대 基幹		제180연대 基幹	

나. 전투 전의 개황

1952년 3월中旬에 8軍이 着手한 戰線 再 配備 계획에 따라 美 제10군단 右翼戰線(Minnesota線)으로부터 西部戰線으로 轉進케 된 美 해병제1사단은 同月 21~24일에 제1사단地區의 James town線上의 진지를 引受하여 美 제1군단 最左翼 사단으로 當面의 中共 제40, 제65군과 對陣케 되었다.

敵軍의 상황: 새로이 美 해병사단(韓 해병제1연대 제외)과 對峙하게 된 當面의 敵은 當初 中共 제63, 제65 兩개군의 예하 사단으로 알려져 왔으나 同年 8月初에 入手된 情報에 따르면 中共 제63군은

그런 海州—土城부근 해안방어를 담당하여 온 中共 제13兵團 이하 제40군과 戰線을 交代함으로써, 이 전투가 있기까지 해병사단 담당地區에는 右翼의 中共 제65군 이하 제149사단 제180연대와 連繫하여 中共 제40군 제118사단 제352, 제354 兩개연대를 配備하고 △207(沙尾川 西쪽)—望海(△272)—大德山(△236)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여 이를 극력 固守코자 劃策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특히 이들은 我軍의 制限공격을 奇貨로 年初부터 備蓄하기 시작한 補給品의 前線推進이 增加하고 이로 말미암아 良好한 士氣와 戰力을 維持하기에 이르자 장마가 그친 8월부터 점차 限定된 據點에 대하여 공격을 試圖하는 이른바 攻勢防禦로 轉換하였다.

敵은 이 努力에 있어서 처음 그들의 前進진지를 我진지 가까이 推進 開設하기 위하여 連日 夜陰을 이용코 坑道를 掘鑿한 다음 天明과 더불어 撤收하는 것을 反復하여 끝내는 堅陣을 마련하고 兵力을 配置하는 따위의 이른바 두더지전법으로 그들의 前進진지선을 擴張코자 한 것이다.

敵의 모든 陣地는 土窟로 構築된 까닭에 我軍의 砲擊을 能히 支撐할 수 있어 방어戰에 있어서도 매우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我軍의 상황 : 3월 24일에 예하 제1연대(제5연대 제2대대 배속)와 韓 해병제1연대로서 James town 線을 占領한 美 해병 제1사단은 예하 제7연대를 예비로 控置하고 예하의 제5연대(-)로 하여금 金浦 半島에서 當時 이곳에 있던 韓 해병 제5대대, 제1裝甲水陸兩用車 대대 A중대 제1水陸兩用 無限軌道 車대대 A중대, 韓 제13경비대대를 統合지휘케 하고 漢江 流域의 경비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사단은 同月 28일 上항진전에 따라 제5연대를 戰線에 投入하여 戰鬪地를 東쪽 沙尾川까지 擴張하고 左翼 韓 陸軍제1연대와 連繫하였으며, 다음 달 10일에는 別途로 金浦 임시연대(장, Edward M. Staab, Jr. 대령)를 편성한 다음 제5연대의 戰線 復歸에 따른 空白을 메워 恒時 美 해병 1개대대와 韓 1개대대를 基幹으로 漢江沿岸 作戰에 必要한 餘他 부대도 統合 지휘케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美 해병사단의 責任 地區는 沙尾川—板門店—金浦에 이르는 延 60km 에 達하는 美 제1군단 左翼사단으로서 本然의 水陸兩面作戰을 遂行케 된 것이다.

이 전투가 시작되기까지 사단은 定期的으로 部隊交代를 실시하여 2개연대(韓 해병제1연대 제외)를 계속 泗川江以東 戰線에 전개하고 1개연대를 예비로 하였는데, 전투 당시에는 제5연대가 사단 右一線에 제1연대가 中央에, 韓 해병제1연대가 左一線에 각기 전개되었으며, 제7연대가 예비로 있었다.

그런데 사단이 占領한 James town 선은 敵이 占據한 大德山(△236, 板門店 東北쪽 7km)과 그 일대의 高地群으로 거의 瞰制되는 標高 150m 미만의 丘陵과 峽谷으로 形成되어 攻防이 모두 어려웠으나 板門店을 要扼할 수 있다는데서 그 固守가 切實히 要望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板門店 東南쪽 5km 에 있는 白鶴山(△229)이 唯一한 高峰으로 主진지상의 要衝이었는데, 이의 방어를 위하여 사단은 그 前方에 堅固한 前進진지의 維持가 必要하였다. 敵도 또한 이 白鶴山(△229)을 目標로 공격을 집중하게 되므로 敵陣의 大德山(△236)과 白鶴山에 이르는 5.5km 어간지역, 즉 사단 中央에 배비된 제1연대 제2대대 地區의 前方에 占領한 前進진지인 56A, 58A, △122가 激突場이 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와 개요

(1) 작전 계획

사단장 John T. Selden 소장은 4월 10일에 韓 제1사단으로부터 戰線을 引受하고 部隊 전개를 完了하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 계획 52-4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現 진지를 整齊 補修하는 일방 強力한 威力수색 작전과 계획적 파괴사격을 실시하여 담당구역內 James town 선을 방어하려 한다.

② 제1연대(증강)

- ㉔ 담당구역內 James town 선을 계속 점령하고 이를 방어하라.
- ㉕ 주저항선 진지에 경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前進 진지를 占領하라.
- ㉖ 別命이 有할 때에는 別途 철수 계획에 의거 後方진지로 撤收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③ 제5연대(증강)

- ㉔ 담당구역內 James town 선을 계속 점유 방어하라.
- ㉕ 板門店 東쪽 일대를 壓制하는 高地에 掩護부대를 保有하여 UN군 停戰會談 代表들의 撤收를 掩護하라.
- ㉖ 주저항선의 경계를 위하여 必要에 따라 前進진지를 占領하라.
- ㉗ 別命이 有할 때에는 別途 철수 계획에 의거 後方 진지로 철수를 준비하라.

④ 韓 해병 제1연대(증강)

- ㉔ 담당구역內 James town 선을 계속 占有 防禦하라.
- ㉕ 주저항선의 경계를 위하여 必要한 前進 진지를 占有하라.
- ㉖ 別命이 있을 때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토록 준비하라.
- ㉗ 別途 철수 계획에 의거 別命이 有할 時 後方 진지로 撤收할 준비를 하라.

⑤ 제1水陸兩用車대대(증강 혹은 감소) 담당구역內 漢江 東岸과 臨津江 南岸을 경비하라.

⑥ 金浦 입시연대

- ㉔ 사단 左側을 방어하며 담당구역內의 지원 및 통신 시설을 敵의 空輸부대 혹은 지상부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라.
- ㉕ 제11연대와 포병 火力에 관하여 協調하라.

⑦ 제11연대(증강)

- ㉔ 제1대대(105mm)는 제5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 ㉕ 제2대대(105mm)는 韓 砲兵大隊를 增援하여 一般支援하며 別命이 있으면 金浦 입시 연대를 直接지원토록 준비하라.
- ㉖ 제3대대(105mm)는 제1연대를 直接 지원하라.
- ㉗ 제4대대(155mm)는 일반 지원하라.
- ㉘ 제1 4.5"Rocket 중대는 일반 지원하라.
- ㉙ 탄약 制限量內에서 敵 진지 및 인원에 타격을 가하라.

⑧ 제1戰車대대

- ㉔ 주저항선 각 연대에 각각 1개 중대로써 直接 지원하고 敵의 機甲에 對한 공격을 준비하라.

- ㉔ 韓 해병대의 임시 전차중대를 훈련하여 別命이 있을 때 韓 제1연대를 지원토록 준비하라.
- ㉕ 전차 1개 중대를 臨津江 南方 예비대와 같이 위치케 하여 훈련하라.
- ㉖ 제11연대와 協調하여 敵 施設 및 활동에 대한 계획적 파괴 사격을 加해 방어를 지원하라.
- ㉗ 제1공병대대
 - ㉚ 주저항선 연대에 道路使用의 優先權을 附與하고 개설 보수하라.
 - ㉛ 주저항선을 占領中인 각 연대에 대하여 1개 공병중대로써 直接지원하라.
 - ㉜ 撤收 계획에 의거 橋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㉘ 제1 SP 대대(감소)

別命이 有할 時 金浦 임시 연대에 입시로 1개 소총중대를 抽出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㉙ 제1병기대대
 - ㉚ 別命이 有할 時 탄약 보급소를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㉛ 別命이 있으면 임시 1개 소총중대를 제1水陸兩用車大隊에 配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㉚ 제161helicopter중대(중강)
 - ㉚ 晝夜를 不問하고 수송임무를 수행토록 준비하라.
 - ㉛ 別命이 있으면 기타 戰術 및 兵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㉛ 사단 예비대(제7연대)

別命이 있으면 예비 진지인 Wyoming 선 및 Kansas 선을 占領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 ㉜ 協調指示
 - ㉚ 中立地帶 제한 조치를 준수하라.
 - ㉛ 사단 구역내에서 계획이 없는 사격연습은 금한다. 後方 지역에 있어서 高彈道(4.2"重박격포동)화기의 사격 연습은 실시 3일전까지 보고하라.
 - ㉜ 最戰線에 沿하여 後斜面에 對空標識板을 표시하여 우군 항공기를 지원하라.
 - ㉝ 臨津江 前方의 모든 주민을 철수케 하라.
- ㉝ 行政命令 52-4 및 통신예규를 참조하라.
- ㉞ 사단 CP 는 龍池里에 位置한다.』

이상의 命書으로 美 해병 제1사단은 8월까지 韓 해병 제1연대를 板門店-泗川江에 계속 전개하는 한편 예하 3개 步兵연대 中 定期的인 部隊교대를 실시하고 번갈아 右一線과 中央에 전개하여 계속 예하 2개 연대를 沙尾川-板門店 戰線에, 1개 연대를 예비로 配備, 當

面의 敵과 對陣하여 變함없이 同一 임무에 따라 진지 固守에 注力하였다.

(2) 작전 실시

8월 9일 : 이날 01.00에 제2대대 E중대(장, Jesse F. Thorpe 대위)가 담당하는 前進진지인 58A(Siberia)高地에 1개소대규모의 敵이 △110(大德山 南東쪽 2km)와 △120(大德山 南쪽 2km)일대 진지로부터 奇襲하였다. 이와같은 奇襲이 突効하여 이를 防守한 海병들은 제대로 應戰도 해보지 못한채 接敵 45분만에 主抵抗선으로 隨意 撤收함으로써 58A 前進진지를 喪失하게 되었다.

이어 敵은 그 餘勢를 몰아 계속 주저함선으로 밀어 닦쳤으나 友軍의 彈幕포격과 集中사격으로 退散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중대장 Thorpe 대위는 즉각 58A 前進진지를 奪還하기 위한 一連의 계획을 마련하고 곧 제2대대장 Roy J. Batterton 중령에게 具申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증강된 1개소대로 逆襲대를 편성하고 역습시간을 04.00로 決定하였다.

이리하여 逆습소대는 03.55부터 실시된 제11포병연대의 目標지역에 대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4.00에 主抵抗線을 떠나 58A의 前進진지를 向하여 은밀히 前進하였다.

05.30에 逆습소대가 목표고지 南쪽 기슭에 進入하였을 때 突然 敵陣으로부터 일제히 砲擊이 集中되어 이로부터 彼我間에는 치열한 射擊戰이 전개되었다.

이에 이르러 海병들은 신속한 機動으로 부근의 地形地物을 최대한 利用하여 은폐하고 好機를 노렸으나 워낙 地形이 不利하고 射界가 不良하여 05.45에 일단 攻勢이 頓挫됨으로써 중대진지로 反轉하였다.

이 때 제1대대장 Louis N. King 중령은 즉시 支援火力을 增加키로 決心하고 航空 및 砲의 支援을 要請하는 한편 逆襲부대의 再編成에 착수하였다.

06.45에 4대의 海병 F9F 전투기가 58A 前進진지에 napalm彈과 500 Lbs의 爆彈을 투하하고 3시간 後에는 美 공군 F-80 「Shooting Star」 제트기 8대가 1,000 Lbs의 爆彈을 투하하였다.

이와 같은 한 차례의 항공폭격이 끝난 다음 또 포병부대는 목표지점에 對한 砲擊을 5분간 계속 실시하였다.

10.00에 연대 예비대대인 제1대대(장, Louis N. King 중령)의 A 중대에서 抽出된 증강된 1개소대가 E 중대 1개소대의 支援을 받아 두번째 逆襲을 감행하였다.

逆襲소대는 敵의 反擊이 始作되기 前에 前方의 개활지를 신속히 通過하여 目標고지 南쪽 下麓에 은폐하였다.

이 때 敵의 砲擊과 함께 소화기 사격이 集中되어 彼我間에는 치열한 銃擊戰이 전개되었다.

右側方에 설정된 LD를 넘고 마침내 敵陣에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 때 敵은 당황하며 소총사격과 수류탄으로 저항하였으나 怒濤와 같이 突進하는 中대를 阻止할 수 없었다. 진지에 突入한 兵士들은 발악하는 敵과 격렬한 肉薄戰을 展開하여 마침내 01.16에 中대는 陣地 一角에서 완강히 저항하던 一團의 敵을 무찌르고 58A 진지를 奪還한 다음 진지를 急編하였다.

중대장 Ksycewski 개위는 즉시 高地 後斜面으로 潰退한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1개소대로 하여금 追擊토록 함으로써 전투는 다시 再開되어 날이 새기까지 4시간 동안 총공격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날이 밝자 敵은 58A 진지에 다시 砲擊을 集中하는 한편 새로운 中대 병력을 투입하여 강력하게 反擊을 敢行함에 이르러 상황은 다시 急變하여 C 中대는 06.00에 58A 진지로부터 다시 隨意 撤收하여 主抵抗線으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58A 高地 再탈환이 困境에 부딪치자 이날 오후에 연대장 Layer 대령은 관제참모들을 召集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58A 진지가 地形과 立地의 條件으로 보아 前進진지로서의 維持가 곤란하며 또한 戰術的인 가치가 적다는 結論을 얻었다.

即 58A 진지는 敵이 掌握하는 $\Delta 120$ 와 $\Delta 110$ 로부터 瞰制되어 砲擊의 좋은 標的이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3차례 敢行된 58A 진지 爭奪戰에서 17명이 전사하고 243명이 부상케 되었는데 그 大部分이 敵의 砲擊에 起因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58A 진지 西南方 1km 에 있는 $\Delta 122$ 를 선정하고 이 高地를 Bunker 高地라 命名하였다.

그런데 이 $\Delta 122$ 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첫째, 友軍이 $\Delta 122$ 를 確保하면 敵의 後方을 迅速히 觀測할 수 있다.

둘째, 58A 고지와 56A 고지등 敵의 重要한 前進陣地를 中立化시킬 수 있다.

셋째, $\Delta 122$ 에 強力한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주저항선을 補強할 수 있다』는 것으로 要約되었다.

이와같이 選定된 이 $\Delta 122$ 에 對한 最初공격은 제1연대 제2대대장의 지휘아래 배속된 B 中대(장, Sereno S. Scranton, Jr. 대위)가 砲兵 및 機甲부대의 지원을 받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主攻을 기만하기 위하여 $\Delta 58A$ 에 대한 陽攻 계획과 아울러 제5연대 지역에서는 敵陣에 대한 일체 포사격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작전의 奇襲 효과를 增大하기 위하여 일체의 攻擊前 준비포격을 금지하고 다음날 夜襲을 決行하게 되었다.

8월 11일 : 이 날 黃昏무렵에 C 中대의 戰車 8대가 58A 前進진지에 대한 陽攻을 위하여 제2대대 후방으로부터 南北을 縱斷하는 道路를 따라 주저항선쪽으로 進出한 다음 곧 이곳에서 發進한 M-46戰車 4대가 D 中대 제3소대의 支援을 받아 21.00에 $\Delta 58A$ 일대에 90mm

砲를 집중하기 始作하였다.

또 화염방사기戰車 1개분대는 주저항선과 56A진지(Samoa) 사이의 江바닥을 따라 火焰을 짧게 쏘면서 前進하여 58A진지 기슭에 進出하였다.

여기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비탈길로 올라가며 길게 火焰을 發射하여 주위의 敵진지와 偽裝한 樹木들을 불태우며 高地 頂上까지 登破하였다.

이 때 주저항선 近處에서 58A 진지를 砲擊하던 M-46戰車는 砲擊의 方向을 東北쪽으로 돌려 $\Delta 110$ 로 指向하고 있었다. 58A진지 頂上으로 突進한 火焰방사 戰車는 潰走하는 敵을 火焰과 機關銃 소사로 追擊하면서 $\Delta 120$ 쪽으로 100m 더 前進하다가 右側으로 方向을 돌려 56A진지 사이를 經유하여 복귀하였다.

그리고 다음 戰車 분대가 곧 이들과 임무를 交代하여 같은 進路를 밟아 敵을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要領으로 이 戰車部隊가 작전을 반복하는 동안 이 두 戰車분대는 58A진지 일대에 配置된 敵의 砲가 모두 中型과 大型砲임을 確認하고 대대에 이를 報告하였다.

이날 22.30에 D 중대 제3소대는 主抵抗線을 通過하여 M-46戰車의 엄호를 받으며 攻撃을 開始한 다음 22.55에 56A 진지에서 殘敵을 격멸하고 同진지를 占領한 다음 西쪽으로 方向을 돌려 58A 진지로 轉進하였다.

한편 이 때 M-46 戰車는 $\Delta 110$ 에 探照燈을 비추면서 目標物을 찾아 正確한 砲擊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D 중대 突擊소대장 James W. Dion 소위는 이때 擧격을 指揮하다가 敵 迫擊砲 파편에 부상을 입고 쓰러짐으로써 後送되었다.

그러나 이에도 不拘하고 擧격소대원들은 선임하사관의 지휘아래 계속 돌진하여 마침내 58A진지를 期於히 奪還하고자 말았다.

한편 主攻부대인 B 중대(장, Sereno S. Scranton, Jr. 대위)는 58A 진지에 戰車가 進出한 10分後인 10.00에 제2대대장의 作戰지휘아래 $\Delta 122$ (Bunker고지)에 대한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예정된 進路를 따라 前進한 선두 1개소대는 경미한 敵의 抵抗을 制壓하면서 迅速히 敵陣을 突破하여 고지 정상으로 直衝하고 敵과 치열한 接戰을 전개하는 사이에 다른 1개소대는 고지 오른쪽 기슭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일단의 敵과 激突하고 있었다.

敵은 이 때 迫擊砲擊과 함께 일제히 反擊을 試圖하였으나 해병들은 잘 協調된 火力으로 이 敵을 制壓하면서 前進을 거듭하여 드디어 고지 정상에 進入하였는데 敵은 機關銃을 亂射하고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극력 阻止코자 최후 발악하였다.

따라서 공격부대는 이와같은 惡戰苦鬪속에 善戰하여 마침내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고 左衝右突하는 敵을 撲滅끝에 진지를 急竊하는 한편 일부 대원들은 潰退하는 敵을 계속 追擊하였다.

8월 12일 : 이날 B 중대는 선두 소대가 02.30에 $\Delta 122$ 頂上을 奪還하자 殘敵을 追擊하던

일부 부대도 곧 추격을 中止하고 습勢하여 급편방어에 임하였는데, 잠시 사격이 中斷된 틈을 이용하여 塹壕를 파기 始作하였다.

이 때 대대에 배속된 勞務隊(KSC)원이 곧 동원되어 필요한 자재를 고지에 推進하고 塹壕 工事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작업대가 도착할 무렵 敵은 또 다시 박격포의 일제사격을 同 高地에 집중함으로써 작업이 한때 中斷되었다.

그러나 포화가 뜸해지자 다시 塹壕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03.45에 이르러 高地 前方 골짜기에서 경계중이던 일부병력은 진지에 접근中인 一團의 敵을 발견하고 밤새도록 이들과 交戰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날이 새자 敵은 더 이상 支撐하지 못하고 遺屍累累한 가운데 敗退하였으며, 我軍도 이 전투에서 1명이 戰死하고 22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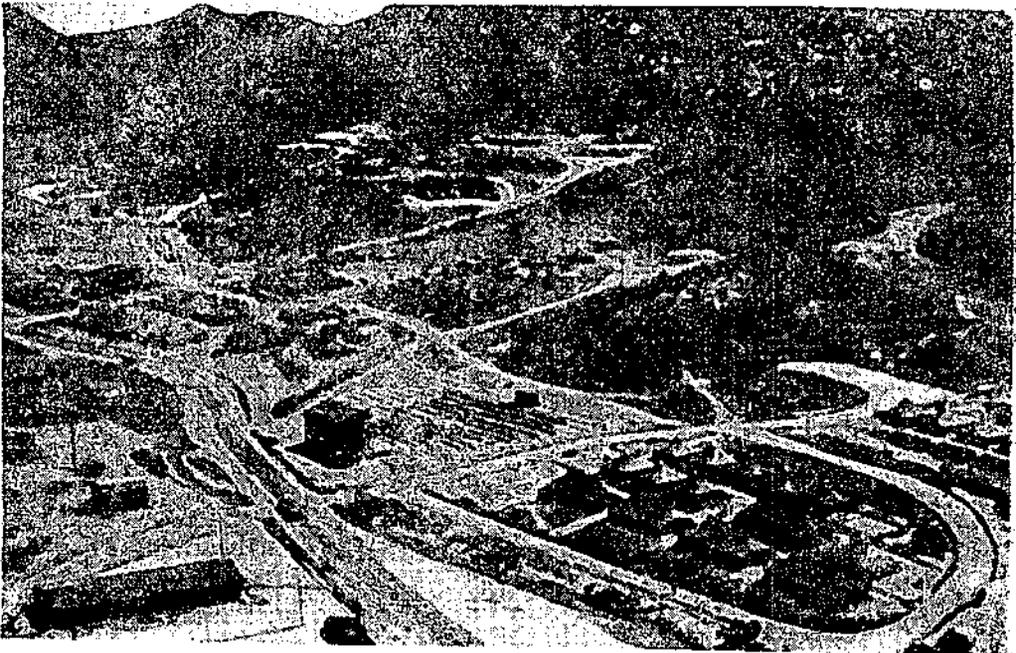
중대장 Scranton 대위는 곧 敵의 反駁이 있을 것을 豫測하고 전대원에게 이에 적극 대비토록 하는 한편 不備한 塹壕를 계속 補強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2.00를 期해 △122에 대한 作戰지휘권은 연대로부터 다시 제3대대(장, Gerard T. Armitage 중령)로 還元되었다.

그러자 15.00에 敵은 다시 일제 포격을 再開함으로써 중대원들은 즉각 作業을 중단하고 工事中인 塹壕속에 들어가 戰鬪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塹壕들은 敵의 集中포격을 견디어 내기에 不足하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대본부와는 通信마저 杜絶되는등 손실이 막심하였다.

이런 가운데 Scranton 대위는 중대병력을 즉시 高地 東側方 稜線(Bunker Ridge)뒤로 移



〈Bunker高地 戰鬪當時 美海兵제1사단 CP〉

動시켜 西側方으로부터의 敵襲에 대비하였다.

19.00에 이르러 2개 중대 규모로 판단되는 敵의 $\Delta 123$ ($\Delta 122$ 西쪽 2.5km)로부터 攻勢를 開始하고 중대 守備의 虛點을 찾기 위해 高地 西側方과 北쪽 끝에 攻勢를 試圖하다가 끝내는 진지 南西쪽으로 攻擊을 集中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Armitage 중령은 한시간 동안에 걸쳐 彼我間에 치열한 砲擊戰이 계속되는 사이에 중대와의 通信이 杜絶되자 狀況이 絶박한 것으로 判斷하고 즉각 I 중대(장, Howard J. Connolly 대위)로써 B 중대를 支援토록 措置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7.00부터 加해진 我軍 砲擊과 I 중대의 增援으로 有利하게 進展되었는데 敵은 17.30에 돌연히 攻擊을 中斷하고 退却함으로써 전투는 일단 中止케 되었다.

그러나 潰退한 敵은 잠시 後 兵力을 다시 수습한 다음 $\Delta 123$ 東側 後方에서 다른 陣地를 占領한 다음 새로운 攻擊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날 戰鬪에서 我軍은 34명이 戰死하고 29명이 負傷하였다. 이때 사단에서는 $\Delta 122$ (Bunker고지)의 효율적인 防禦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取하고 있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연대 제3대대의 1개 偵察소대를 $\Delta 124$ ($\Delta 122$ 南西쪽 1km)에 배치한다.
- ② 사단 보충대의 全 兵力을 제1연대 지역에 전개한다.
- ③ 제7연대 제3대대의 잔여 兵력을 제1연대 제3대대에 作戰上 배속한다.
- ④ 제7연대 제2대대를 제1연대의 예비대로 控置한다.
- ⑤ 제7연대의 4.2" 박격포로 하여금 제1연대를 支援케 한다.
- ⑥ 제1연대 예비대대의 2개소대를 抽出하여 제3대대 지역으로 배치한다.
- ⑦ 제1연대 제1대대의 全 81mm 박격포를 제3대대에 提供한다.
- ⑧ 全 81mm 및 60mm 박격포에게 Bunker Ridge와 $\Delta 122$ 後線에 대한 彈幕 임무를 부여하고 주저항선의 모든 기관총을 Bunker Ridge 상에 배치한다.
- ⑨ 90mm 포 및 화염방사 戰車는 $\Delta 122$ 右側方을 防禦한다.』

날이 저물자 全 중대원들은 敵侵에 대비하여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는데, 敵은 그들의 기도를 은폐하려는 듯 $\Delta 122$ 東쪽의 48A 前進진지와 韓國해병대가 담당하는 戰線의 前進진지 일대에 砲擊과 함께 소규모의 攻擊을 試圖하였다.

8월 13일: 전날 포격을 개시한 敵은 이날 子正이 조금 지나자 제2대대 F 중대 진지 正面에 기습공격을 恣行하였고 이를 防守하던 해병들은 즉각 소화기 및 자동화기로 對抗하면서 대대에 狀況을 보고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48A 前進진지 후방의 주저항선을 담당하고 있던 F 중대(장, Clarence G. moody, Jr. 대위) 正面에서도 상황이 전개되었다.

敵은 強力한 박격포의 支援를 받아 陣前에 肉迫하여 마침내 기관총을 집중하고 수류탄을 마구 투척하면서 주저항선을 突破코자 奮勇하였으나 해병들은 끝내 敵을 陣前에서 물

리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48A 진지는 敵에게 失陷될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는데, 이 때 F 중대장 moody 대위는 01.06에 1개소대로 하여금 48A 진지를 增援토록 命命하였다.

이리하여 增援소대가 주저항선을 出發하여 48A 진지 가까운 山 기슭에 이르렀을 때 敵의 탄막 砲火가 集中되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增援부대는 많은 死傷者가 發生하기에 이르러 곧 撤收하고 말았다.

이 때 敵은 이에 鼓舞된 듯 F 중대 正面에 對한 攻擊力을 增大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연대 제2대대장 Batterton 중령은 그의 임시 소대와 함께 本部 및 근부중대를 F 중대 CP 後方의 예비진지로 轉進케 하였다. 그런데 이들 부대가 CP 부근을 通過할 때 敵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음으로써 F 중대 左一線에서 또 다시 敵과의 接戰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我軍은 適時適切한 포병지원에 크게 도움 받아 敵을 擊退하는데 일단 成功하였으나 敵은 그들 主攻 方向을 F 중대 右一線쪽으로 轉向하는 듯 하더니 이것마저 亦是 失敗하기에 이르자 포격의 엄호 아래 撤收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F 중대장 moody 대위는 즉각 1개소대를 48A 진지로 보내어 방어 태세를 補強토록 하였다.

그러나 敵은 我軍의 이 企圖를 豫測한 듯이 다시 48A 진지에 대한 포위공격을 감행한 바 있으나 白兵戰끝에 이를 擊退하고 말았다.

이에 소대는 48A 진지 頂上에 潛伏한 敵을 向해 突進하자 敵은 稜線을 利用하여 退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이 48A 前進진지에 대하여 감행한 끈질긴 攻擊은 1시간 30분만에 많은 死體를 내버리고 潰走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한편 48A 前進진지에 대한 敵의 攻擊이 進行中인 01.00에 또 다른 1개 대대 규모의 敵은 Bunker 고지 西南쪽 경사지에 위치한 제1연대 제3대대 제 I 중대(장, Howard J. Connolly 대위) 진지에 砲擊을 가한 다음 攻擊을 恣行하였다.

Connolly 대위는 해병제11포병연대에 △122에 對한 지원사격을 要請하였는데 이 砲擊은 얼마後 실시되어 砲聲하기 시작하였다.

01.30에 1중대는 右一線과 中央에서 먼저 개미떼처럼 기어 오르는 敵의 무리를 맞아 接戰이 벌어졌으며 이 戰鬪는 시간이 흐를수록 加熱되었다.

특히 03.30부터 1시간 동안 戰鬪는 절정에 달했으며 사태는 예측을 不許할 만큼 심각하였다. 이리하여 제1연대 제3대대장 Armitage 중령은 △122 바로 後方에 配備된 제7연대 제3대대 I 중대에서 增強된 2개분대를 抽出하여 Bunker 고지로 增援시켰는데, 이 때 사단에서는 해병제5연대의 1개중대로 하여금 제1연대 右一線인 F 중대를 補強하고 사단 예비대 및 보충대를 제1연대 지역에 配備한 바 그 增援부대의 하나인 G 중대(장, William

M. Vanzuyen 대위)는 제3대대 주저항선을 通過하여 Bunker 고지 진지에 進出하고 곧 I 중대(장, Howard J. Connolly 대위)와 合勢하여 敵과 最후의 決戰을 전개하였다.

이 때 또한 友軍의 協調된 火力의 支援을 받게 되자 사태는 급작히 好轉되기 始作하였다.

특히 포병연대는 9基의 「Rocket」로 진지 防守를 幷호하고 戰車부대는 90mm 砲에 의해 敵의 前進진지에 集中포격을 加하여 이를 制압하는 한편 Bunker 고지의 我軍진지에 接近하는 敵의 무리에 命中彈을 퍼부으니 敵은 砲와 박격포 彈幕을 증가하면서 退却하고 말았다.

I 중대장 Connolly 대위는 敵의 再侵에 대비하여 偵察수색토록 하는 한편 △122 頂上까지 殘敵을 追跡하여 7명을 射殺하였다.

이 때 제3대대장 Armitage 중령은 배속된 제7연대 제3대대 H 중대(장, John G. Demas 대위)로 하여금 △122陣地를 引受토록 命令하여 이날 正午에 同 진지의 交代는 完了되었으며, 기타 제7연대의 증원부대(제2 및 제3대대)도 사단 명령에 의해 이날 午後에 원위치로 復歸하였다.

이날 제1연대장 Layer 대령이 해병 제1사단장 Selden 소장에게 報告한 戰果 내용을 보면 敵 사살 470명에 추정부상이 625명인데 反하여 我軍은 31名이 戰死하고 254명이 負傷하는 손실을 입었다.

한편 空軍 및 砲兵 관측에 의하면 前日 15.00부터 이날 06.00까지 15시간 동안 제1연대 지역에 集注한 敵 砲彈數는 5,000~10,000발에 達하였는데, 이는 美 해병사단이 現 戰線에 配備된 이래 가장 치열했던 砲擊으로 나타났다.

제3대대장 Armitage 중령은 이날 날이 저물면 Bunker 고지에 대한 敵의 再襲이 있을 것으로 豫想하고 이곳을 固守하고 있는 제7연대 H 중대장으로 하여금 이에 철저히 對備토록 하는 한편 기타 前進진지 및 주저항선 부대들에게도 警戒강화를 嚴達하였다. 이날 날이 저물자 敵의 攻撃은 豫測한대로 제3대대 左一線 前進陣地인 GOP 2(板門店 東쪽 700m~800m)에 대한 砲擊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GOP 2는 休戰會談이 進行中인 板門店이 西쪽으로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 射擊제한 구역에 인접한 곳으로 交戰에 있어서 格別한 통제가 要望되는 매우 不利한 地形이었다.

그러나 敵은 오히려 이를 기화로 더욱 砲擊을 加하여 我軍을 困境에 몰아넣으려 하였으며 또 GOP 2 直後方인 H 중대가 방어하는 주저항선에도 포격을 가하였다.

이와같이 敵은 90分 동안 계속 砲擊을 집중한 다음에 증강된 1개 중대병력으로 攻撃을 감행하였으나 我軍의 잘 協調된 阻止사격의 장벽에 부딪쳐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마침내 敗退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敵은 Bunker 고지에 對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敵의 GOP 2에 對한 공격은 Bunker 고지에 대한 主攻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助攻임이 判明된 것이다.

敵의 奸計로 시작된 △122의 공격은 먼저 이 일대에 포격을 集中하기에 이르러 때 마침 주저항선으로부터 △122에 긴급 補給品을 추진하던 作業隊도 3명이 포탄 파편에 부상케 되었는데 21.00에 敵은 포격을 延伸하면서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122에 肉迫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같이 공격을 시작한 敵은 △122東쪽으로 迂回한 듯 이때 상황에 接한 H중대장 Demas 대위는 곧 대대에 彈幕 및 조명탄 사격을 요청하였으므로 敵은 거



<Bunker高地로 補給推進>

의 捕捉되어 제압되는 바 되고 또 我軍전지에 악착스럽게 接近한 일부 敵 역시 我軍의 수류탄 투척과 소화기의 일제 사격에 醜한 꼴을 남긴채 물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의 戰果는 敵 사살 175명이었으며 我軍의 손실은 戰死 7명, 부상 21명이었다.

8월 14일: 이날 敵은 02.00에 58A 前進진지 西北쪽에서 기관총 사격을 Bunker 고지에 加하여 이곳을 防守하는 해병들을 威脅하였으므로 出擊한 戰車들이 探照燈을 비추며 90mm 砲로 이에 應射하자 敵도 砲擊을 加하여, 이로 말미암아 彼我間에는 砲擊戰이 전개되었다.

敵은 02.30에 砲擊을 멈추고 소대 규모로 하여금 △122에 攻擧를 敢行하였으나 이들의 侵襲은 이에 配備한 사격에 의해 즉각 격퇴되었다.

이날 제3대대장 Armitage 중령은 계속되는 敵의 挑發에 對하여 제1대대 A중대로부터 1개소대를 배속받아 △122의 守備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또 이날 제2대대에서는 04.15에 E중대(장, Stanley T. moak 대위)가 제1대대 A중대로부터 58A 전지를 인수하였다.

이날 밤은 彼我間에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중대장 Demas 대위는 8명으로 2개조의 偵察組를 만들게 하였다.

8월 15일 : 이날 01.00에 △122 左端部를 防守하던 해병들과 前方의 敵 사이에 벌어진 소규모의 交戰은 잠시후 △124—△122의 Bunker Ridge 로 확대되었다.

이 때 주저항선에 있는 戰車로부터 支援받은 조명사격으로 △120—△122—△124 능선 옆으로 뻗어 있는 제곡을 따라 Bunker 고지을 迂回 기습하는 일단의 敵을 발견하고 즉시 戰車砲와 野砲의 彈幕사격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奇襲에 失敗하게 된 敵은 다시 포격을 시작하여 와해된 그들 戰列을 再編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리하여 02.30에 敵은 Bunker 고지에 공격을 再開하게 되어 치열한 交戰이 전개되었는데 敵은 집요하게 我軍의 방어망을 돌파코자 하였으나 강력한 火力에 쫓겨 03.30부터 退却하기 시작하거나 04.00에는 완전 퇴각하고 그들의 砲擊도 中斷되었다.

이 戰鬪에서 거둔 戰果는 적 사살 40명이었으며 我軍의 손실은 7명이 戰死하고 28명이 부상하였다.

이날 午前中에 제7연대 제3대대 H중대(장, John G. Demas 대위)는 依命 제1연대 제1대대 B중대(장, Sereno S. Scranton, Jr. 대위)와 任務를 교대하고 주저항선으로 復歸하였다.

그런데 B중대가 △122 陣地에 진입한지 불과 3시간이 지나지 않은 16.40에 1개중대 규모의 敵이 霪雨 속에서 다시 Bunker 고지에 侵襲하였으나 我軍은 砲擊과 기관총 掃射로 이를 阻止한 다음 진지로 접근하는 소수의 敵을 手榴彈으로 격멸시켜 17.50에 완전 격퇴시키고야 말았다.

이 한시간에 걸친 交戰이 끝난 다음 陣前을 정리한 결과 敵의 유기시체 35구를 발견하였는데 屍體 整理에 철저한 敵의 慣例로 보아 당시에 敵이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대대는 전투가 끝나자 즉각 적절한 병력의 배치와 敵 侵襲에 대처한 예비대의 확보를 확인하고 연대에서는 支援화기의 효율적이고 적시 적절한 활용을 위한 재 조정작업을 하였다.

8월 16일 : 敵은 또 이날 00.40에 1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 △122 西쪽과 北쪽으로부터 협공을 시도하였다.

즉 敵은 最初에는 박격포의 支援를 받다가 後에는 野砲의 지원아래 그들의 前進진지로 부터 攻擊하였다.

我軍은 이에 彈幕을 이루면서 치밀한 방어사격을 실시하였으나 人海전술로 波狀공격을 恣行한 일부 敵은 我軍 防禦網의 一角을 突破하고 高地 頂上으로 突入하여 소총 및 자동화기 그리고 수류탄으로 背後를 위협하였다.

이 때 중대장 Scranton 대위는 대대에 增援을 要請하였으므로 즉각 제7연대 제3대대 I중

대로부터 1개소대가 增援되자 사태는 急轉되어 03.15부터 敵은 退却하기 始作하였다.

이 戰鬪에서 敵 사살 40명, 부상 30명에 比하여 我軍은 3명이 戰死하고 27명이 부상하였다.

敵은 退却한 後에도 계속 敗戰을 挽回하려는 듯 포격만을 계속하였는데 이 포격으로 我軍 2명이 부상하는 손실이 추가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22(Bunker고지)에 加해진 敵의 侵攻을 7차에 걸쳐 擊碎하고 이를 固守하게 된 美해병사단은 제1연대 自體체계에 따라 同월 17일 未明을 期하여 部隊交代를 實施하게 되었다.

즉 16일까지 △122를 堅守하여 James town 線의 主陣地의 安全을 圖謀한 제1연대 제1대대 B중대는 다음 날 C중대와 任務를 交替하게 되었는데, 이 중대 역시 1주일 後에는 다시 A중대와 교대하였다.

이와같이 美해병 제1연대는 △122(Bunker고지)의 防守를 위하여 週期的인 부대교체로 보다 新銳로서 堅陣化에 注力함으로써 8월중 각 중대는 두차례나 이곳에 配備되었다.

이 전투 以後에도 敵의 挑撥은 그치지 않았으나 地上공격은 거의 소규모의 탐색이었으므로 모두 이를 無難하게 擊退하였으며 그중에도 25~26일 夜陰에 있었던 하나만이 큰 규모였다.

△122전투가 熾烈하였던 9일~16일에 歩兵들 못지 않게 砲兵들과 航空機의 활약이 또한 至大하였는데, 航空지원의 경우 美제5공군은 浦項에 進駐한 美해병 제1비행단과 合勢하여 8월 9일~13일에 27회의 爆撃을 包含한 總 458회의 出撃을 記錄하였다.

美해병사단의 部隊配備는 이 전투後 9월 10일에 예비대인 제7연대를 右一線에 새로이 전개하고 제5연대를 예비로 控置하였는데, 10월 17일에 다시 中央의 제1연대와 제5연대의 부대交代로 제5연대로 하여금 제1연대가 수행하던 사단 中央을 담당케 함으로써 Bunker高地(△122)일대의 前進진지 防守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1월 21일에 제1연대가 제7연대 진지를 引受하게 되어 제7연대는 다시 사단 예비가 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또한 제7연대가 제5연대의 사단中央을 引受하게 되어 사단의 年末配備는 제1연대—제7연대—韓해병제1전투단—金浦임시연대가 되어 前線을 담당하였으며 제5연대가 예비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美해병 제1사단은 8월 9일~16일에 전개된 이 Bunker 고지부근전투에서 敵 射殺 507명을 確認하고 推算 1,500명에게 負傷을 加하였으며 反面에 我軍損失도 戰死 92명, 負傷 529명에 달하였다.

第 55 章

海軍의 活動

要 旨

1. 韓國海軍의 活動
2. UN海軍의 活動

第55章 海軍의 活動

要 旨

地上戰線은 西海의 臨津江 河口에서 東海의 南江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中心으로한 制限戰線에서 攻擊보다는 防禦를 위주로 하는 상태가 거듭되었다.

休戰會談 또한 妥結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간중 UN海軍은 6월 23일에 실시한 水壘 鎗 爆破를 선두로하여 北僞의 主要産業施設을 強打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안에 敵의 戰爭遂行能力을 喪失토록 強要하여 休戰會談에서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空軍과 특히 海軍의 活動은 戰線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韓國海軍은 敵後方 海岸線의 攪亂과 補給路 遮斷이라는 기본방침 아래 UN海軍과 긴밀한 協同作戰으로 東西의 兩海域에서 물생름 없는 경비작전을 主軸으로하여, 敵陣을 비롯하여 海岸線의 포대와 補給施設을 격파할 수 있도록 水路를 제공하는 掃海戰과 各級 出動艦艇 및 島嶼部隊에 必要한 軍需物資의 輸送, 그리고 PT編隊의 奇襲戰의 互用으로 敵의 海岸兵力을 격파하였으며 海軍의 中心勢力인 PF級艦艇으로 UN海軍의 原動力이 된 輸送船團의 護船作戰중 我海軍은 各급해상활동에서 善戰奮闘하여 制海權의 확보는 물론이요 敵으로 하여금 戰爭을 포기토록 하는데에 一翼을 담당하여 이듬해에 있을 終戰의 기를 올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간중 눈부신 활약을 전개한 PT編隊는 東海의 元山灣一帶과 城津近海 그리고 西海에서는 長山串—巡感島에 이르는 附近의 島嶼地域에 대한 敵의 跳梁을 분쇄하기 위하여 敵의 進출을

분쇄하고 要塞 및 集結地를 수색격파하여 各種 砲臺施設, 機雷浮流를 방지하는등 能動的인 奇襲攻擊으로 敵의 海上活動을 제압하고 我海兵隊의 敵前上陸을 成功토록 하였다.

한편 UN海軍은 기간중에도 東西 兩海域에서 不斷한 作戰으로 敵을 制壓하였다. 6월 23일에는 航母 艦載機隊가 開戰以來 최대규모의 空襲을 감행하여 鴨綠江의 水壘鎗을 爆破하여 敵의 심장부 타격에 序幕을 열었고 7월 11일에는 敵都 平壤, 7월 27일과 28일에는 新德과 吉州의 鐵山地帶을, 9월 1일에는 阿吾地의 精油工場을, 10월 8일에는 鐵路始發點인 高原을 空襲하여 敵産業施設의 根幹을 剔抉하였다.

그외에도 UN海軍은 艦砲로서 海岸線의 海岸砲臺와 敵의 海岸補給路 및 鐵路에 대한 포격을 늦추지 않았으며 掃海, 輸送等에서도 制海權을 장악한 UN海軍은 作戰活動을 계속하였다.

이어 11월에는 淸津, 吉州와 海岸의 鐵路, 工場, 鐵山을 공격하였으며 12월에는 羅津, 茂山, 惠山鎭等의 鐵路爆破를 위하여 무려 350여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10월 15일에는 前線으로 投入되는 敵의 增援軍을 誘引하여 이를 擊滅하기위하여 合同作戰으로 庫底에 陽動作戰을 展開하였다.

이 作戰이 直接的으로 큰 戰果는 얻지 못하였으나 敵後方軍의 移動을 막아 戰線에서의 我軍의 位置를 有利하게 하는 一方 聯合軍의 訓練으로서도 크게 功을 받게 되었다.

기간중 韓國海軍과 UN海軍의 活動은 다음과 같다.

1. 韓國海軍의 活動(1952년 4월 1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84~88호

가. JMS-301艇의 德洞戰鬪(1952. 5. 2)

(1) 참가부대 및 지휘관

JMS-301艇 장 대위 金 鍾 植

(2) 전투전의 敵情

이 당시 月乃島에 주둔중인 Donkey部隊의 提報에 의하면 黃海道 長淵郡 海岸面 德洞에 北僞 600여명이 集結하였는데 그 目的은 뒷쪽 山峰에 장치된 Radar를 利用하여 我艦의 動靜을 탐지하면서 Radar를 警備하기 위한 것이었다. 敵은 주둔병력의 본부를 德洞에 설치하고 海岸에는 76mm直射砲 1門과 105mm迫擊砲 2門외에 小銃등을 갖추어 山谷의 참호에서 잠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Radar는 1개월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며 위치나 기타 자세한 상황은 未詳이었다.

(3) 전투경과의 개요

이러한 정보를 入手한 JMS-301艇長 金鍾植 大尉는 敵의 Radar를 격파할 目的으로 Dankey部隊員을 上륙시켜 敵陣을 교란하고 Radar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를 포격 격파키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JMS-301艇은 5월 2일 01.00에 Donkey部隊員 30명을 帆船 5隻에 分乘시켜서 德洞海岸에 接岸하였는데 氣象도 항해하기에는 좋은 편이며 暗夜로 因하여 기습에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敵은 마침 5월 1일의 중요작전회의 중으로 山中에 集結하여서 海안에는 경비병 6명뿐이었으므로 Donkey部隊員은 이들을 射殺 혹은 위협하여 Radar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중 1명은 생포하였으며 이곳에 억류되어 있던 Donkey部隊員의 가족 26명을 구출한 뒤 03.00에 부사히 철수하였다. Donkey部隊員이 임무를 마치고 帆船으로 귀환하자 同艇은 확인된 Radar의 위치로 예상되는 山頂을 향해 砲의 火力을 집중하였다. 我艦의 포격이 시작되자 敵은 당황하여 걸잡을 수 없는 혼란속에서 반격은 커녕 我艦砲사격의 洗禮로 損傷만을

더할 뿐이었다.

1시간에 걸친 포격을 가한후에 JMS-301艇은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月乃島近海로 돌아와 경비에 임하였다.

(4) 전투후의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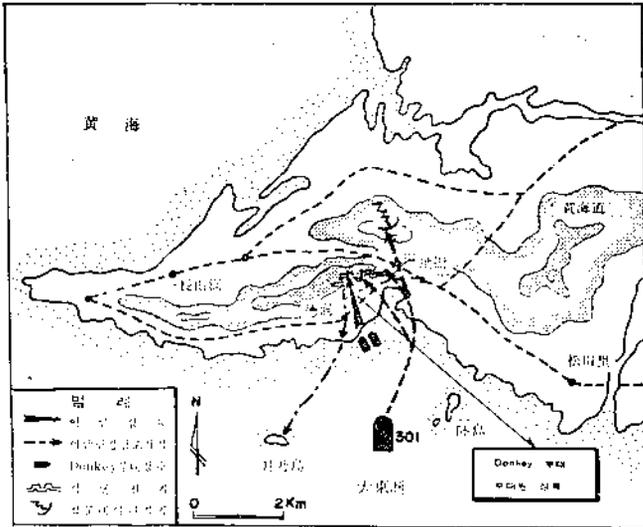
이 전투가 끝나고 이곳에서 탈출한 피난민의 진술에 의하면 我艦의 砲擊으로 敵兵 40여 명이 射殺되고 敵의 Radar는 完
 ◇ 상황도 제84호 德洞전투상황
 全히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곳에 Radar를 再建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兵力도 더욱 증강할 것이라 하였다.

나. JMS-301艇의 海州灣戰鬪(1952. 6. 14)

(1) 참가함정 및 지휘관

JMS-301艇 장 대위 金鍾植

(2) 작전의 개요



6월14일 : 西海의 延坪島-雁鴨島를 경비중인 JMS-301艇은 黃海道 碧城郡 東江面 石橋里的 敵陣을 격파하기 위하여 이날 06.00에 遊擊隊 200명을 帆船 10隻에 태워 上陸作戰을 開始하였다. 遊擊隊가 石橋里海岸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JMS-301艇은 全砲門을 열어 上陸軍을 支援하였는데 艦砲와 上陸軍의 勇戰으로 敵은 점차 후퇴하였다. 上陸軍이 유리한 戰鬪를 전개하자 301艇은 艦首를 海州港內로 돌려 이곳을 공격하였다. 海州港內에는 水泥工場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과 부두에는 機雷를 敷設하기 위한 Junk船 5척과 기뢰등이 散在하여서 我艦은 좌충우돌 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날 10.30에 301艇은 水泥工場을 불태우고 Junk船을 모두 격파하였으며 石橋里의 上陸임무를 完遂한 다음 되돌아오던중 海州 東北쪽 抱川洞 砲臺에서 砲擊을 받았으나 損



<JMS-301艇이 상륙군의 범선을 예인하여 海州灣으로 航進하고 있다>

矢은 없었으며 11.00에는 帆船을 호송하면서 延坪島로 歸着하였다.

이날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 工場폭파 1개소
- 토치카파괴 8개소
- 건물파괴 8棟
- Junk격파 5척
- 敵射殺 27명

다. PC-702艦의 昌麟島 奪還作戰(1952 7. 15. ~1952 7. 16.)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PC-702艦 장 소령 韓文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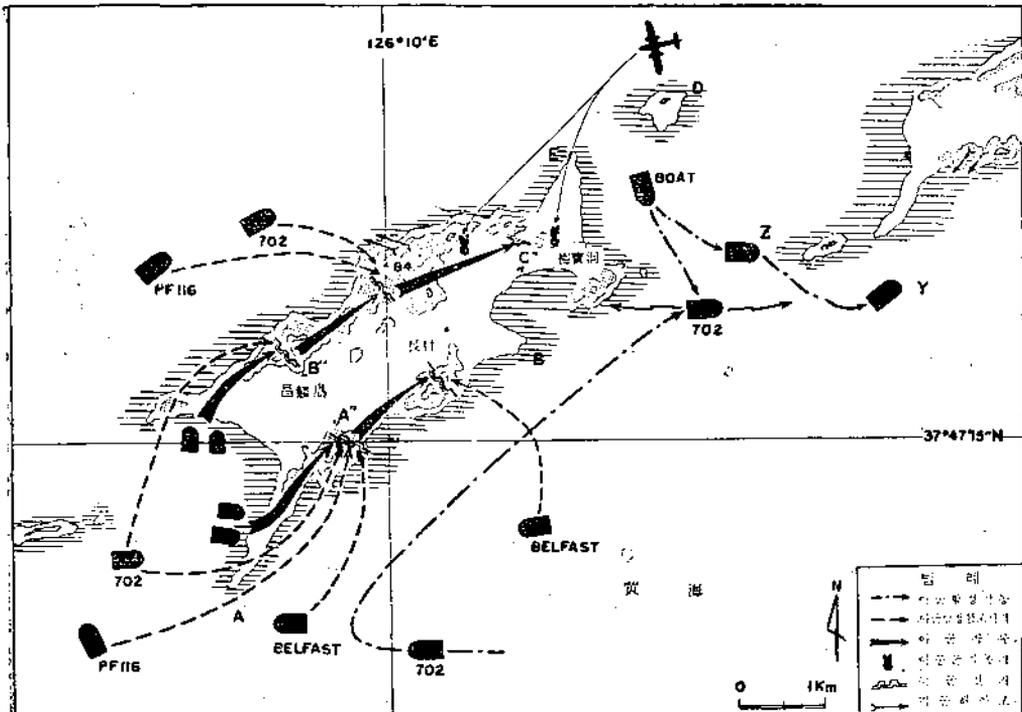
英國巡洋艦 Belfast號

PF-116艦

(2) 전투전의 개황

休戰會談으로 因하여 前線이 소강상태를 이룰수없 敵은 西海岸一帶 특히 麥津半島의 海

◇ 상황도 제85호 昌麟島 奪還作戰



岸 各高地에 견고한 砲臺를 구축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黃海道 龜津郡 東南面 葛頂里에 주둔중인 北僞軍은 7월15일 02.00를 期하여 300여명이 木船 20여척에 분승하여 昌麟島의 梅賓洞 海岸에 奇襲攻擊을 加하니 同島를 경비중인 Donkey部隊는 곧 이에 對戰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기 시작하여 06.00에는 同島에 隊員 20여명을 남긴채 철수하니 昌麟島는 完全히 敵의 手中에 떨어지고 말았다, 敵은 同島奇襲에 성공하자 張村에 砲陣地를 구축하고 경비에 全力하였다. 我 Donkey部隊는 魚化島로 퇴각하여 戰列을 재정비하였다.

(3) 작전의 개요

PC-702艦은 CTG 95.12의 指示에 따라 英艦과 合同作戰으로 昌麟島의 탈환을 위해 15일 18.35에 昌麟島近海(37° 45'N, 125° 09'E)에서 英艦과 계류하여 作戰會議를 가졌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16일 05.00를 기하여 Donkey部隊를 上陸시켜 再奪還한다.

② 16일 04.30부터 상륙지원을 위해 張村의 敵砲臺에 대한 함포사격을 合同으로 실시한다.

③ 敵이 退却할 경우에는 梅賓洞의 퇴로 차단은 PC-702艦이 담당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各艦과 Donkey部隊는 明日에 있을 공격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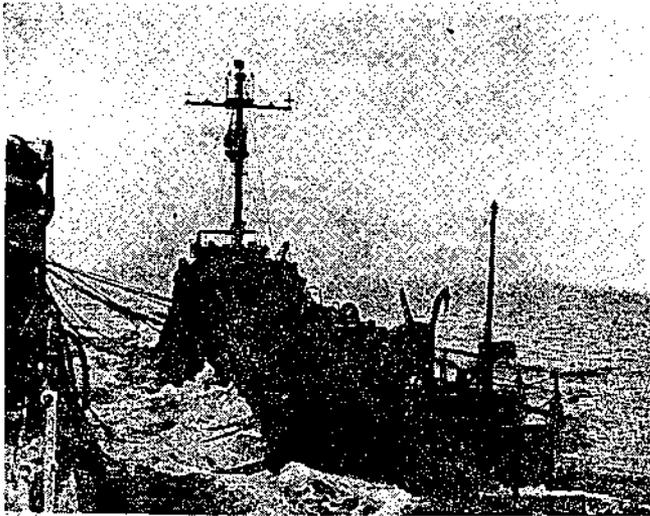
16일 04.30에 昌麟島에서 魚化島로 철수한 Donkey部隊는 上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완전무장한 140여명이 帆船 9隻, 發動船 1隻에 分乘하여 PC-702艦의 護送下에 昌麟島 南端에 있는 上陸地를 目標로 急向하였는데 당시 風向은 西北이고 風速은 1KTS였다. 또 波高는 0.5m로서 艦砲射擊이나 艦載機의 활약에도 適切한 氣象이었다.

05.30, PC-702艦은 上陸船團을 떠나 砲擊地點으로 移動하였으며 英艦이 敵陣을 砲擊하는 砲聲이 주위를 진동하였다.

05.57, PC-702艦도 敵陣砲擊을 시작하였으며 06.30에 上陸을 엄호하기 위한 艦載機 4대의 空襲이 시작되었는데 그중 1機는 격추되어 PF-116號가 조종사를 구출하였다. 艦載機의 폭격은 주로 敵의 後方을 強打하고 上陸地에는 PC-702艦의 함포가 지원하여 07.15에는 드디어 敵의 砲火를 끊고 Donkey部隊는 上陸에 성공하였다.

上陸부대는 2隊로 나누어 敵陣 A를 攻略기 위해 전진하였으며 702艦의 지원사격으로 敵은 A를 버리고 B로 퇴각하였으며 Donkey部隊는 A를 확보하였으니 이때가 09.30이었다. 上陸부대는 A에서 合勢하여 B로 퇴각한 敵을 追擊하고 艦砲도 계속 B의 敵陣을 強打하니 10.00에는 B를 佔領하게 되었다. 敵은 △84에서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며 참호에 은폐하고 上陸부대를 맞았는데 이날 전투중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11.15, Donkey部隊의 공격신호로 PC-702艦은 이 高地에 45분에 걸쳐 함포사격을 가하였으며 上陸부대는 많은 負傷者를 내는 가운데 12.35에는 △84를 奪取하였다.

敵은 드디어 敗殘兵을 이끌고 C로 물러나 最後의 반격을 기도하는 듯 하였으나 14.00 부터 我艦載機의 空襲은 끝까지 敵을 괴롭혔으며 이날 17.00에는 Donkey部隊에 의하여



<해상보급중인 PC-702艦>

며 Donkey部隊는 다시 昌麟島에서 주둔하며 경비에 임하였다.

대부분의 敵은 사살되고 혹은 捕虜되었으며 간부급 수십명은 昌麟島 北端의 海上으로 도주하였으나 PC-702 艦이 19.24에 37° 44' N, 125° 12' E海上에서 그중 4명은 捕獲하고 完全히 도주한자는 數名에 불과하였다. 이때 사로잡힌 4명중에는 同島守備隊의 作戰參謀도 있었다.

이리하여 昌麟島 奪還의 모든 전투가 終了되었으

(4) 전투후의 개황

이 전투에 참가한 敵은 北傀 野戰旅團 61大隊로 밝혀졌으며 我軍은 우세한 艦砲의 지원으로 敵을 압도하였으며 我側損失도 적지 않았다.

戰 果		損 失	
射 殺	70명	戰 鬪 機	1機喪失
生 捕	27명	我 戰 死	3명
兵器 擄獲	多數	我 負 傷	20명

라. 기타 海上活動

(1) 참가함성 및 주요 지휘관

總參謀長 중장 孫元一
 PF-61艦 장 소령 張志洙(5. 9까지)
 중령 李應燮

PF-62艦 장 중령 申宗燮
 PF-63艦 장 중령 李熙晶
 PF-65艦 장 중령 李哉松
 중령 崔孝鏞(7. 13부터)

PF-66艦 장, 중령 李成浩
 PC-701艦 장, 소령 吳禎元
 PC-702艦 장, 소령 韓文植(7. 20까지)
 소령 李仁錫(9. 12까지)
 소령 許德和
 PC-703艦 장, 소령 金相吉(5. 13까지)
 소령 孫炳一
 PC-705艦 장, 소령 李鍾徹(5. 5까지)
 소령 金基龍(6. 18까지)
 소령 韓文植
 PC-706艦 장, 소령 南 鐵(7. 5까지)
 소령 金鐵雄
 JMS-301艇 장, 대위 金鍾植
 JMS-302艇 장, 대위 朴春道(6. 30까지)
 대위 白麟基(9. 20까지)
 중위 陰慶鳳
 JMS-303艇 중위 金鍾求(7. 19까지)
 대위 朴贊極
 JMS-304艇 대위 韓承錫(6. 18까지)
 대위 朴麟俊
 JMS-307艇 대위 林龍雨
 JMS-308艇 중위 千平祚
 JMS-309艇 장, 중위 柳來赫(8. 4까지)
 대위 朴明三
 JMS-310艇 장, 대위 金泰錫
 JMS-315艇 장, 중위 奕錫文(5. 21까지)
 중위 金秉澤
 YMS-501艇 장, 중위 辛相大
 YMS-502艇 대위 金植浩
 YMS-503艇 장, 중위 金光植(9. 18까지)
 대위 白麟基
 YMS-504艇 대위 崔炳起(5. 4까지)
 대위 徐德均

YMS-505艇 장, 중위 姜基憲(6. 3까지)
 중위 車德秀
 YMS-506艇 중위 吳龍吉(5. 2까지)
 중위 金熙年
 YMS-507艇 중위 李勇男(6. 15까지)
 중위 楊清石
 YMS-510艇 중위 張君翼(5. 21까지)
 중위 崔基東
 YMS-512艇 대위 林斗成(9. 2까지)
 중위 黃宣道
 YMS-513艇 장, 대위 劉寬植(6. 16까지)
 대위 鄭元錫
 YMS-514艇 장, 대위 丁漢哲(9. 18까지)
 중위 韓昌烈
 YMS-515艇 장, 중위 李應基
 YMS-518艇 장, 대위 高景榮(9. 18까지)
 대위 金容先
 LST-801艦 장, 중령 尹英遠(6. 14까지)
 소령 金玉卿
 LST-802艦 장, 소령 金同培(4. 20까지)
 소령 李孟基(6. 26까지)
 소령 金洪柱(8. 4까지)
 소령 金相吉(10. 23까지)
 소령 朴世忠
 LST-805艦 장, 소령 趙丁佑
 LST-806艦 장, 소령 金洪柱
 PT-23艇 장, 중위 朴成極
 PT-25艇 장, 중위 下宇圭(9. 2까지)
 중위 洪起京
 PT-26艇 장, 중위 具滋學(6. 2까지)
 중위 黃汀淵
 (9. 1부로 대위진급)
 PT-27艇 장, 중위 李學洪(6. 30까지)

중위 洪榮鉉(7. 15까지)
 중위 李學洪(9. 2까지)
 소위 徐銅演(10. 23까지)
 중위 金龍水
 PCS-201艇 장, 대위 朱喆奎(10. 3까지)
 대위 崔英燮
 PCS-202艇 장, 대위 朴基政
 PCS-203艇 장, 대위 金炯培

PCS-205艇 장, 대위 鄭一燾
 LSSL-107艇 장, 대위 白慶在(9. 7까지)
 대위 李完鏞
 LSSL-108艇 장, 소령 鄭炅謨(4. 20까지)
 대위 鄭時奎(5. 5까지)
 대위 許淵龍(9. 25까지)
 대위 崔送甲

(2) 작전의 개요

기간중 해군은 UN海軍과 合勢하여 韓半島 全海域을 封鎖함으로써 敵의 海上活動을 粉碎하고 艦砲射擊으로 敵의 後方을 교란하는 등의 경비작전과 輸送및 掃海作戰도 병행하였다.

東海에서의 敵은 北傀 507旅團이 元山地區에 주둔하면서 예하 각 大隊을 湖島半島와 葛麻半島를 비롯한 浪城里, 松田半島등지로 보충병력을 投入하고 견고한 海岸砲臺를 설치하는 한편 木船을 준비하여 我軍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 島嶼를 노리고 있었다. 또한 興南, 城津等地에서는 은밀히 기뢰부설을 획책하고 我軍의 上陸戰에 대비하여 海岸線에는 連日 兵力이 投入되었는데 我軍은 이러한 敵勢에 대처하여 元山地區에서는 永興灣의 麗島를 中心으로 하여 海岸砲臺를 강타하였고 掃海作業 또한 敵砲火에 아랑곳없이 실시하였으며 PT 編隊를 동원하여 번번히 敵의 奸計를 사전에 粉碎하였다.

西海의 敵은 鎭南浦基地 사령부의 652部隊가 安岳에 집결하여 椒島 및 席島對岸으로 投入되었으며, 甕津에는 中共軍 第38軍團이 北傀軍과 合勢하여 甕津半島—興眉半島 一帶의 各 岨안고지에 布陣하고 開城에는 北傀 第191사단, 中共軍 第69軍團이 禮成江을 방어하면서 渡河訓練으로 각도서에 기습을 획책하였으나 敵은 前線이외의 各 후방에도 我艦의 活動에 대비하여 兵力配置에 세심한 배려를 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海軍은 甕津半島 및 椒島—席島近海를 중점적으로 경비하면서 長山串에서 甕津半島를 잇는 海岸線에는 PT編隊를 출동시켜 敵의 陣地 및 砲臺를 격파하고 我艦의 계속적인 활동은 海岸線 주변의 敵을 격퇴함으로써 我艦艇의 安全과 기동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동시에 地上支援部隊와의 協同作戰과 敵前 上陸作戰도 유리하게 전개하였다.

또 南海岸 一帶에서는 日本 中國等地로 왕래하는 密航船이 浦項—釜山—木浦—巨濟—馬山—三千浦—麗水등지로 번번히 輸입하여 密輸品으로 戰時的 國內經濟를 혼란시킬뿐 아니라 敵과 內通한 간첩활동으로 軍事機密을 探偵하려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우리 漁撈구역에 대한 日船의 침입을 막으면서 엄중한 경비를 하였는데 이 작전에 참가한 함정

은 JMS급 5척이었다. 한편 기간중 주요 전투는 前述한 바와 같이 5월 2일의 「JMS-301艇의 德洞作戰」과 6월 14일의 「JMS-301艇의 海州灣戰鬪」 그리고 7월 15일의 「PC-702艦의 崑麟島奪還作戰」등이며 다음에 기타 해상作戰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3) 東海方面의 狀況

(가) 4월中の 상황

4월 1일 : 前月に 이어 이달에도 海軍은 作戰任務를 수행하였는데 YMS-514艇(장, 丁漢哲 대위)은 巨津近海를 경비중이며 元山海域에서는 YMS-512艇(장 林斗成 대위) 및 YMS-515艇(장, 李應基 중위)이 각각 掃海 作業을 실시하였다.

또 PF-62艦(장, 申宗燮 중령)은 美輸送船 護送을 완료하고 Saseho(日本佐世保)로 廻航하였다.

4월 6일 : 元山前洋의 永興灣에서 YMS-512, 515艇은 다음 4점을 연결하는 線의 左右 17.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4'30"N, 127°38'15"E
- B. 39°16'30"N, 127°59'30"E
- C. 39°18'06"N, 127°59'30"E
- D. 39°16'06"N, 127°19'20"E

한편 修理中이던 PF-65艦(장, 李哉松 중령)은 이날 09:30에 Saseho를 出港하여 美輸送船을 호송하고 元山을 向하여 北上中에 있다.

4월 7일 : 이날에도 元山海域에서 계속된 YMS-512 및 515艇의 掃海區域은 下記點의 左右 700YDS이다.

- A. 39°15'00"N, 127°38'00"E
- B. 39°17'00"N, 127°59'30"E
- C. 39°17'03"N, 127°59'30"E
- D. 39°15'37"N, 127°38'00"E

또 PT-25艇(장, 卞宇圭 중위)과 PT-27艇(장, 李榮洪 중위)은 麗島(永興灣) 경비차 13.00에 鎮海를 出港하였다.

4월 8일 : 永興灣의 YMS-512, 515艇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下記 2點을 연결하는 線의 左右 4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7'07"N, 127°59'30"E
- B. 39°15'30"N, 127°37'45"E

4월 9일 : 巨津-麗島間을 계속 경비중이던 YMS-514艇은 이날 20.00에 麗島近海에서 YMS-504艇(장, 崔炳起 대위)과 임무를 교대하고 卵島에서 대기중이며 YMS-504艇은

경비에 임하였다.

◇ 상황도 제86호 할정배치상황

또 YMS-512, 515艇은 元山前洋에서 다음의 線 10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4'54"N, 127°37'30"E
- B. 39°16'00"N, 127°36'51"E
- C. 39°16'40"N, 127°36'57"E
- D. 39°15'46"N, 127°34'27"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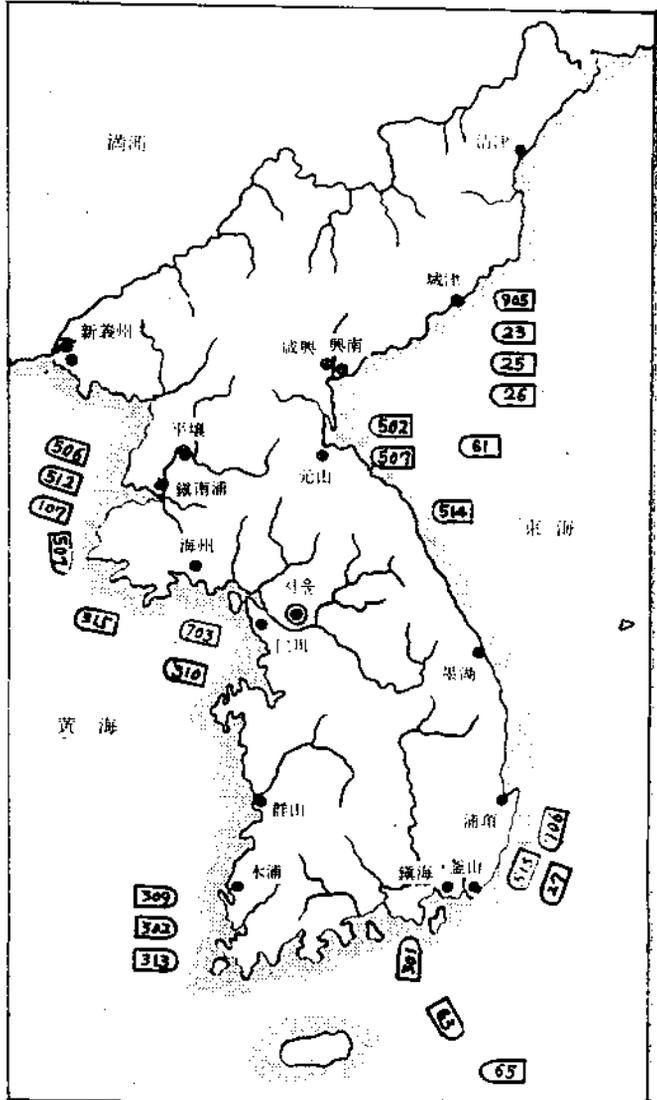
4월 15일 : 이즈음 敵은 我海軍의 活動으로 機動이 困難하게 되자 海岸線에 兵力을 집결하여 砲臺를 구축하고 機雷敷設에 注力하여서 庫底가 그 中心이 되었다. 이에 YMS-504艇은 주로 巨津-一底間을 향해하며 海岸砲擊을 실시 하였고 이날 11.00경에는 巨津北쪽 海上(37°56'00" N, 128°48'00"E)서 強風으로 인하여 조난중인 우리어선 1척을 구출하였다.

또 元山近海에서는 YMS-512, 515艇으로 부터 임무를 인제받은 YMS-513艇(장, 劉寬植 대위)과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이 이날 16.30까지 다음의 1200YDS를 掃海 하였다.

- A. 39°15'30"N, 127°40'00"E
- B. 39°15'30"N, 127°40'30"E
- C. 39°15'30"N, 128°00'45"E
- D. 39°15'00"N, 127°40'00"E

4월 16일 : PF-63艦은 元山近海에서 美輸送船을 호송하면서 이날 09.40에 葛麻半島의 敵砲臺와 陣地를 강타하였다.

또 YMS-502艇 및 513艇은 이날 15.00까지 다음의 8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50"N, 127°37'00"E

B. 39°11'10"N, 128°02'00"E

4월 17일 : PT-25, 27艇은 麗島에서 永興灣封鎖에 임하였으며 掃海作業은 계속하여 다음線의 12.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30"N, 127°37'00"E

B. 39°16'00"N, 127°02'00"E

4월 19일 : YMS-502, 513艇은 이날에도 元山前洋에서 14.47까지 다음의 4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9'30"N, 127°37'00"E

B. 39°11'00"N, 128°02'30"E

4월 20일 : PT-25, 27艇의 編隊는 CTG 95.2로부터 이날 야간을 이용하여 永興灣內 湖島半島의 敵補給基地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50에 湖島半島에 接近하여 美驅逐艦과 協同作戰을 決行하여 30분에 걸쳐 Rocket彈을 投下하고 23.13에 麗島로 廻航하였다.

4월 23일 : 元山海域에서 活動中인 YMS-502, 513艇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계속하여 다음의 8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30"N, 127°37'06"E

B. 39°10'20"N, 128°01'30"E

4월 25일 : 이날에도 元山海域에서는 YMS-502, 515艇의 編隊가 다음의 1.600 YDS를 掃海하였다.

A. 39°15'30"N, 127°37'00"E

B. 39°16'40"N, 127°04'20"E

4월 26일 : 高城 一帶에는 北傀 제1군단 제47사단의 砲兵部隊가 해안에 집결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YMS-518艇은 巨津을 中心으로 한 그 以北의 海域을, YMS-514艇(장, 丁漢 哲대위)은 麗島를 中心으로 그 以南의 海域을 차단하고 敵의 砲臺로 예상되는 지점에 연일 砲監射擊을 실시하였다.

또 YMS-502, 513艇은 이날도 다음의 左右 8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0'20"N, 127°37'00"E

B. 39°10'30"N, 127°03'00"E

4월 27일 : 계속하여 실시된 元山海域의 掃海區域은 다음의 800YDS이다.

A. 39°10'00"N, 127°30'10"E

B. 39°10'54"N, 128°21'00"E

4월 29일 : YMS-502, 513艇의 掃海作業은 이날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날 15.30까지의 掃

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5'37"N, 127°37'40"E
- B. 39°15'40"N, 128°02'30"E((A—B간은 400YDS)
- C. 39°15'23"N, 127°38'20"E
- D. 39°16'20"N, 128°00'02"E(C—D간은 800YDS)

(나) 5月中의 상황

5월 1일 : 계속된 海軍의 活動은 이달에도 元山灣을 中心으로 한 掃海戰과 巨津—城津間에서의 海岸線 封鎖作戰이었다. YMS—514, 518艇은 麗島—巨津間에서 주로 海岸의 敵포대를 공격하였으며 PT—25, 27兩艇은 麗島—城津間을 담당하여 주로 夜間을 이용하여 敵陣에 대한 奇襲戰을 전개하였다.

또 이날의 YMS—502, 513艇은 元山海域에서 다음의 左右 8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5'02"N, 127°31'04"E
- B. 39°11'04"N, 128°02'03"E

5월 2일 : 永興灣의 麗島를 中心으로 활동중인 PT—25艇(장, 卞宇圭 중위)과 PT—27艇(장, 李學洪 중위)은 이날 07.45에 CTG 95.2 (UN 東海艦隊)로부터 虎島半島에 위치한 敵砲臺를 격과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곳을 目標로 은밀히 航進하였다.

마침 기상도 快晴하여 虎島半島의 大江串 2,000YDS 前洋에 이르자 2個所의 敵포대와 北傀의 움직임이 視野에 들어왔다. 兩艇은 全速으로 400YDS까지 접근하면서 全砲의 공격을 개시하였고 敵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PT艇의 主砲인 Rocket 砲가 半時間에 걸쳐 命中하자 敵陣은 黑煙만이 휩싸인 채로 침묵을 고하였다.

我 PT의 火力이 敵陣에 比해서 優세하다고 할수는 없었으나 PT艇이 갑자기 海岸으로 突進하자 敵은 당황하여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확실한 戰果는 알 수 없으나 北傀의 大部分이 射殺된 것으로 추단한 我艇은 麗島로 귀항하였는데 CTG 95.2 에서도 我 PT의 勇戰을 致賀하였다.

5월 3일 : PT編隊는 이날에도 虎島半島를 砲擊하였으며 다시 興南海岸으로 향하여 경비를 계속하였다.

5월 4일 : 元山近海에서 美輸送船을 호송중인 PF—65艦(장, 李載松 중령)은 이날 葛麻半島의 敵陣 및 砲臺에 鐵火 같은 공격으로 敵陣을 強打하였는데 확인된 일부의 戰果로는 射殺 2명, 擄獲과괴 3개소였다.

5월 5일 : 永興灣에서는 이날 YMS—512艇(장, 林斗成 대위)과 YMS—513艇(장, 劉寬植 대위)이 다음의 2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5'07"N, 127°37'03"E
- B. 39°17'07"N, 127°59'03"E

5월 7일 : PF-65艦은 永興灣의 黃土島對岸의 各高地에 敵이 砲臺 및 陣地를 構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浪城里 3,000YDS까지 접근하여 3inch砲를 위시한 全砲門을 열기 시작하여 敵陣을 공격하였다.

敵의 반격은 艦砲火力에 눌려 위력을 잃었으며 戰果로 射殺 20명, 火力據點의 파괴 3개 소였다.

5월 8일 : YMS-512艇 및 YMS-503艇(장, 金光植중위)은 이날에도 元山前洋에서 다음의 2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07"N, 127°37'30"E

B. 39°17'07"N, 127°59'30"E

5월 11일 : PF-65艦(장, 李哉松중령)은 元山近海上(39° 13' 35"N, 129° 28' 40"E)에서 浮遊機雷 1개를 폭파시켰으며 이날 18.30에는 永興灣의 葛麻角-浪城里-蛤津里 등을 차례로 砲擊하여 敵의 哨所 3개소를 파괴하였다.

5월 12일 : 元山前洋의 YMS-512, 503艇은 이날에도 14.30까지 다음의 5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07"N, 127°31'30"E

B. 39°17'07"N, 127°59'30"E

5월 13일 : YMS-503, 513艇은 이날도 다음의 2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07"N, 127°37'30"E

B. 39°17'07"N, 127°59'30"E

5월 14일 : PF-65艦은 美輸送船의 호송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날 12.45에 元山近海上(39° 18' 45"N, 127° 50' 00"E)에서 浮遊機雷 1개를 爆破하였다.

또 PF-62艦(장, 申宗燮중령)은 11.30에 Saseho를 出港하여 호송임무를 실시하였다.

5월 16일 : 이날 07.00에 元山前洋에서 YMS-512艇과 임무를 交代한 YMS-501艇(장, 辛相大中위)은 YMS-503艇과 合勢하여 다음의 15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00"N, 127°37'05"E

B. 39°17'00"N, 127°01'00"E

5월 19일 : PF-65艦(장, 李哉松중령)은 이날 黃土島對岸인 浪城里의 敵陣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5월 21일 : PF-62艦(장, 申宗燮중령)은 美輸送船의 護送임무를 계속하였는데 이날 墨湖前洋(37° 48' 00"N, 130° 38' 00"E)에 이르자 音探機에 정체를 불명의 潛水艦이 contact 되었다. 62艦長 申宗燮중령은 즉각 艦內에 『총원, 對潛戰鬪配置』를 命하고 音探機의 접촉 보고에 따라 "S"字型的의 造艦(潛水艦 攻擊의 航法)을 실시하면서 爆雷 4개를 投下하였으나 敵潛艦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逃避하였다.

이리하여 PF-62艦은 다시 護送임무를 계속하였는데 이날 氣象은 매우 惡化되어 波高가 점차 심하여지자 艦內는 通信機가 고장나더니 21.30에 美輸送船 Baker 號의 變針을 알리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直行하다가 美艦과 충돌하고 말았다. 이 突發的인 사고로 인하여 PF-62艦은 2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負傷을 당하는 損失을 보았으며 결국 美艦의 救出作業으로 긴급 수리를 마친 뒤 美艦에 曳引되어 釜山으로 向하였다.

5월 22일 : 元山前洋에서는 이날 YMS-501艇과 YMS-515艇(장, 李應基중위)이 合勢하여 다음의 線 左右 15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4'50"N, 127°37'30"E
- B. 39°15'30"N, 127°40'20"E
- C. 39°26'15"N, 127°46'45"E
- D. 39°17'05"N, 127°53'12"E
- E. 39°17'30"N, 127°56'25"E
- F. 39°17'30"N, 127°59'20"E
- G. 39°18'30"N, 127°59'25"E
- H. 39°13'30"N, 127°56'05"E
- I. 39°17'30"N, 127°53'15"E
- J. 39°17'15"N, 127°46'45"E

5월 23일 : 이날도 元山海域에서는 YMS 501-515艇이 다음의 4개점을 잇는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6'00"N, 127°38'40"E
- B. 39°18'45"N, 127°59'00"E
- C. 39°19'30"N, 127°59'05"E
- D. 39°16'45"N, 127°38'15"E

5월 24일 : PF-61艦(장, 張志洙 소령)은 이날 美輸送船 護送中 永興灣의 南쪽 海岸線一帶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5월 25일 : YMS-501, 515艇은 이날에도 14.00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4'05"N, 127°37'40"E
- B. 39°15'35"N, 127°44'30"E
- C. 39°16'25"N, 127°49'00"E
- D. 39°16'55"N, 127°59'15"E
- E. 39°17'10"N, 127°46'30"E
- F. 39°16'15"N, 127°40'15"E
- G. 39°15'25"N, 127°39'20"E

또 이날 YMS-504艇(장, 徐德均 대위)은 CTG 95.2의 지시에 의거하여 24.00에 外湖里(通川 東南쪽 海岸)의 敵陣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는데 다음날 04.00까지 계속된 我艦의 砲擊으로 敵의 보급차량 2대가 파괴되고 많은 數의 敵兵을 殺傷하였으나 暗夜로 인하여 確실한 戰果는 確인하지 못하였다.

5월 27일 : PF-61艦은 계속하여 護送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날 永興灣의 敵地인 浪城里, 蛤津里, 熊津里 등을 차례로 強打하여 敵의 火力據點 4개소를 大破하고 기타 큰 損失을 주었다.

또 PT-25, 27艇은 이날 06.30에 蛤津里를 奇襲하여 이곳을 집중공격하였다.

5월 28일 : 我艦의 끈덕진 掃海作業에도 아랑곳없이 敵은 그들의 未弱한 海上勢力을 만회하려는 意圖下에 계속 機雷를 敷設하였는데 이날도 YMS-501, 515艇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10"N, 127°38'00"E
- B. 39°15'50"N, 127°47'00"E
- C. 39°16'25"N, 127°50'45"E
- D. 39°17'15"N, 127°56'15"E
- E. 39°17'20"N, 127°59'00"E
- F. 39°18'30"N, 127°58'45"E
- G. 39°18'25"N, 127°56'00"E
- H. 39°17'30"N, 127°50'30"E

5월 29일 : 이날도 계속된 掃海區域은 다음의 內部 2,500 YDS이다.

- A. 39°15'30"N, 127°41'15"E
- B. 39°15'30"N, 127°48'45"E
- C. 39°16'20"N, 127°56'00"E
- D. 39°17'00"N, 127°00'15"E
- E. 39°12'20"N, 127°59'20"E
- F. 39°18'45"N, 127°50'45"E
- G. 39°18'45"N, 127°49'00"E

5월 30일 : 이날에도 계속 다음의 각점을 연결하는 中央線의 左右 1,5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5'30"N, 127°40'05"E
- B. 39°15'50"N, 127°45'35"E
- C. 39°16'30"N, 127°45'35"E
- D. 39°16'38"N, 127°47'50"E

E. 39°17'15" N, 127°58'48" E

F. 39°18'00" N, 127°58'15" E

G. 39°18'00" N, 127°55'00" E

H. 39°17'30" N, 127°47'48" E

I. 39°16'50" N, 127°44'35" E

J. 39 16 15 N, 127°40'01" E

5월 31일 : PF-61艦은 이날 CTG95.2의 指示에 따라 葛麻半島의 敵陣을 強打하여 敵의 砲臺 1개소와 建物 3棟을 파괴하였다.

한편 이날도 YMS-515, 501艇은 17.00까지 다음의 線 1,5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6'12" N, 127°44'50" E

B. 39°17'15" N, 127°58'30" E

C. 39°16'55" N, 127°53'12" E

D. 39°17'30" N, 127°58'30" E

E. 39°19'12" N, 127°58'35" E

(다) 6월中の 상황

6월 1일 : PF-61艦은 이날 護船中 麗島 東南쪽 海上(39°11' N, 128°05' E)에서 기뢰 1개를 격침시켰다.

한편 元山海域에서 敵砲의 방해와 惡天候를 무릅쓰고 掃海作業을 실시한 YMS-501, 515艇은 이날 16.00에 麗島前洋에서 YMS-505艇(장, 姜基憲 중위) 및 YMS-512艇(장, 林斗成 대위)에 임무를 인계하고 鎮海의 母港으로 廻航하였다.

6월 4일 : YMS-505 및 512艇은 이날부터 掃海作業에 착수하였는데 이날에는 다음 8개 점을 연결하는 선의 500YDS를 掃海하였다.

A. 39°15'51" N, 127°43'45" E

B. 39°16'40" N, 127°49'30" E

C. 39°11'06" N, 127°52'58" E

D. 39°17'29" N, 127°59'50" E

E. 39°11'50" N, 127°59'50" E

F. 39°17'30" N, 127°52'40" E

G. 39°17'50" N, 127°49'45" E

H. 39°16'25" N, 127°43'45" E

6월 5일 : PF-61艦은 CTG 95.2의 命에 의하여 蛤津里(麗島 東南쪽 海岸)의 敵陣을 砲擊하여 敵의 砲臺 2개소와 火力據點 3개소를 격파하고 15명을 射殺하였다.

또 계속된 元山海域의 掃海區域은 이날 15.30까지 9개 지점의 外側 1,500YDS이다.

- A. 39°15'59" N, 127°43'35" E
- B. 39°16'50" N, 127°29'50" E
- C. 39°17'03" N, 127°52'59" E
- D. 39°17'29" N, 127°59'50" E
- E. 39°17'50" N, 127°59'50" E
- F. 39°17'42" N, 127°58'52" E
- G. 39°17'30" N, 127°53'00" E
- H. 39°17'03" N, 127°49'45" E
- I. 39°16'22" N, 127°43'22" E

6월 6일 : PF-61艦은 新浦東北쪽의 海岸에 있는 敵陣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이곳에서 掃海作戰中인 美掃海艇隊를 지원하였다.

또 이날의 YMS-505 및 512艇의 掃海區域은 다음의 中央線 西쪽 400YDS이다.

- A. 39°16'00" N, 127°43'45" E
- B. 39°17'24" N, 127°53'06" E
- C. 39°17'36" N, 128°00'36" E

6월 7일 ~ 8일 : YMS-505, 512艇의 掃海作業은 元山海域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A. 39°15'25" N, 127°44'24" E
- B. 39°16'10" N, 127°49'48" E
- C. 39°17'10" N, 128°01'30" E
- D. 39°18'24" N, 128°00'48" E
- E. 39°17'24" N, 127°50'15" E
- F. 39°17'30" N, 127°48'24" E
- G. 39°16'48" N, 127°43'36" E 의 内部海域과

또 A. 39°15'06" N, 127°31'36" E

- B. 39°15'28" N, 127°47'00" E
- C. 39°16'36" N, 127°53'24" E
- D. 39°17'13" N, 127°56'36" E
- E. 39°18'06" N, 127°56'12" E
- F. 39°17'36" N, 127°53'06" E
- G. 39°17'06" N, 127°46'48" E

H. 39°16'48" N, 127°43'48" E 의 内部海域

6월 10일 ~ 14일 : YMS-505, 512艇은 이날부터 4일 동안 元山海域에서 다음의 區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57" N, 127°43'00" E
- B. 39°16'42" N, 127°49'05" E
- C. 39°16'59" N, 127°53'00" E
- D. 39°17'14" N, 127°59'58" E
- E. 39°18'00" N, 127°59'58" E
- F. 39°17'43" N, 127°53'12" E
- G. 39°17'01" N, 127°49'14" E 이상의 7개 점을 연결하는 內部海域과

- A. 39°15'47" N, 127°43'45" E
- B. 39°16'37" N, 127°49'17" E
- C. 39°17'00" N, 127°52'27" E
- D. 39°17'16" N, 127°59'58" E
- E. 39°18'02" N, 127°59'59" E의 양측 380YDS와

- A. 39°15'27" N, 127°44'00" E
- B. 39°16'00" N, 127°50'00" E
- C. 39°17'02" N, 128°00'00" E의 外側 378YDS의 海域.

6월 15일 : 卵島近海를 경비중이던 YMS-514艇은 YMS-504艇(장, 徐德均 대위)에 해안선 경비임무를 인계하고 艦內整備次 母港으로 향하였다.

또 계속된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5'45" N, 127°43'03" E
- B. 39°10'15" N, 127°47'37" E
- C. 39°16'38" N, 127°52'08" E
- D. 39°17'00" N, 127°59'58" E
- E. 39°18'07" N, 127°00'30" E의 外側 380YDS의 海域.

6월 16일 : PT-25艇과 PT-27艇은 이날 永興灣의 封鎖에 임하면서 04.43에는 湖島半島를 기습하여 敵의 帆船 1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PF-61艦은 호송임무를 완료하고 母港인 鎮海로 廻航하였다.

6월 17일~20일 :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은 YMS-505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YMS-512艇과 合勢하여 元山灣의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17일부터 3일 동안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5'50" N, 127°43'39" E
- B. 39°16'48" N, 127°50'00" E
- C. 39°17'18" N, 127°56'18" E

D. 39°17'18" N, 127°55'18" E

E. 39°18'00" N, 127°59'18" E

F. 39°16'27" N, 127°46'39" E를 연결하는 中央線의 左右 338YDS의 海域과

A. 39°15'58" N, 127°43'05" E

B. 39°16'58" N, 127°52'15" E

C. 39°17'15" N, 127°00'00" E

D. 39°18'07" N, 127°59'45" E의 內部海域임. 이상의 掃海를 마친 YMS-512艇은 YMS-501艇(장, 辛相大 중위)에 그 임무를 인계하고 19일 수리차 鎭海로 向하였다.

또 19일 07.20에 PT-25艇(장, 下宇圭 중위)은 巨津近海上(38°29'00"N, 128°30'30"E)에서 不法으로 漁獲中인 복피어선 7隻을 拿捕하여 東草派遣隊에 인계하였다.

6월 20일 : PT-25 및 27艇은 이날 麗島-馬養島間을 향해하면서 경비에 임하였는데 05.00에는 新浦海岸을 기습하여 敵船 1척은 격침시키고 1척은 大破, 火力據點 6개소 파괴 등의 戰果를 올렸으며 24일 09.00에 兩艇은 封鎖임무를 완수하고 鎭海로 向하였다.

6월 25일 : 戰亂 2週年을 앞두고 敵의 挑發을 未然에 分쇄하기 위하여 全般에 내려진 非常警戒令에 따라 各급 합정은 더욱 경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날 YMS-501, 506艇은 元山海域에서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6'00" N, 127°43'05" E

B. 39°17'30" N, 127°54'30" E

C. 39°18'00" N, 128°00'10" E

D. 39°16'00" N, 127°42'15" E

6월 29일 : 이즈음 敵은 더욱 海岸에 兵力을 집결하여 我艦의 海上活動을 방해하였는데 我艦의 경비현황을 살펴보면 PC-706艇(장, 南 鐵 소령)은 興南近海에서, YMS-504艇(장, 徐德均 대위)은 卵島前洋에서, YMS-501 및 506艇은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이었고 FS-901艇(장, 朴善寬 소령)은 麗島에서 非常待期中이며 PF-61艇(장, 李應燮 중령)과 PF-63艇(장, 李熙鼎 중령) 및 PF-65艇(장, 李哉松 중령)은 각각 美輸送船의 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

(라) 7월中の 상황

7월 1일 : 이달에도 海岸線의 封鎖를 中心으로 하는 경비作戰이 계속되었으며 麗島의 掃海編隊인 YMS-501, 506艇은 이날 다음의 線 460YDS 를 掃海하였다.

A. 39°15'40" N, 127°40'36" E

B. 39°17'12" N, 127°53'48" E

C. 39°17'24" N, 127°59'30" E

D. 39°16'40" N, 127°48'45" E

E. 39°15'50" N, 127°39'50" E

7월 11일 : 卵島海域을 경비중인 YMS-514艇은 이날 06.30에 水源端 西北쪽 海岸의 敵砲臺에 함포사격을 加하여 이를 격파하였다.

7월 14일 : 永興灣內를 掃海中인 YMS-512, 510艇은 이날도 15.55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5'32" N, 127°56'05" E

B. 39°14'35" N, 127°34'03" E

C. 39°15'15" N, 127°33'37" E

D. 39°15'13" N, 127°32'13" E

E. 39°12'28" N, 127°32'04" E

F. 39°13'28" N, 127°06'05" E

7월 18일 : 近間 南海岸일대에는 日本漁船의 不法漁撈를 방지하기 위하여 閑山作戰 제 1호에 의거 JMS-301, 302, 307, 308艇 등을 南海艇隊로 편성하여 浦項-濟州-木浦間을 경비토록 하였다.

7월 21일 : PF-65艦(장, 崔孝鏞 중령)은 元山近海에서 美輸送船을 호송하면서 이날 22.00에는 CTG95.2의 지시에 따라 暹羅里 및 城北里(永興灣內)의 敵陣에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7월 23일 : PF-65艦(장, 崔孝鏞 중령)은 이날 10.20부터 15.00까지 江原道 通川郡 歙谷面 淵洞里的 敵軍事施設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한 뒤에 호송임무를 계속하였다.

7월 24일 : PT-25艇(장, 卞宇圭 중위)과 PT-27艇(장, 李學洪 중위)은 계속해서 洋島近海에서 해안을 封鎖하고 순찰항해를 실시하였다.

7월 26일 : PF-65艦은 이날에도 永興灣에서 葛麻角-浪城里-蛤津里 등을 차례로 강타하였다.

또 PT-25艇(장, 卞宇圭 중위)은 두차례에 걸쳐서 汝海津의 敵 Sampan 船 集結所를 포격하여 多數의 Sampan 船을 격파하였다.

한편 南海에서는 JMS-307艇 및 308艇이 이날 16.20에 濟州南쪽 12km 海上에서 不法으로 漁撈中인 日船 2척을 추방하고 密輸船 색출에 專力하였다.

7월 29일 : PT-25, 27艇은 이날 12.25에 端川東쪽의 西湖里 및 新昌리에 있는 敵의 集結所에 포격을 加하였다.

또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 및 YMS-510艇(장, 崔基東 중위)은 이날 15.40까지 永興灣에서 다음의 폭 700YDS 를 掃海하였다.

A. 39°17'12" N, 127°59'30" E

B. 39°17'10" N, 127°53'15" E

C. 39°15'30" N, 127°44'54" E

7월 31일 : 이날도 永興灣에서는 敵의 海岸砲火를 무릅쓰고 YMS-515艇(장, 李應基 중위)이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0'44" N, 127°34'40" E

B. 39°11'45" N, 127°46'10" E

C. 39°11'20" N, 127°34'00" E

D. 39°11'30" N, 127°35'00" E

E. 39°11'30" N, 127°45'30" E

또 PF-65艦은 元山北쪽 24km 海上에서 敵船 2척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여 1척은 격침시키고 1척은 大破하였으며 다시 麗島前洋으로 돌아와 浪城里的 敵포대에 합포사격을 加하였다.

(마) 8월中の 상황

8월 1일 : 점차 증가하는 敵의 海岸兵力 및 포대등으로 인하여 我艦艇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였으며 YMS-515, 513艇은 永興灣에서 掃海作業과 함께 敵陣砲擊도 並行하였다.

8월 2일 : PF-65艦은 이날 10.30부터 30分間 永興灣의 葛麻角, 桑陰里동지의 敵陣을 포격하였다.

또 YMS-515, 513艇은 이날도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고 索留機雷 3개를 격침시켰다.

A. 39°15'20" N, 128°28'35" E

B. 39°15'20" N, 127°28'35" E

C. 39°16'35" N, 127°30'20" E

8월 4일 : PF-61艦(장, 李應燮 중령)은 이날 CTG 95.2의 지시에 따라 洪原-新浦-利原 등에 합포사격을 加하여 鐵道施設 6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또 다음 날에 까지도 계속 포격을 加하였다.

8월 7일 : PF-65艦은 이날 葛麻半島의 敵砲臺를 강타하였다.

한편 이날 PT-25艇(장, 卞宇奎 중위)과 PT-27艇(장, 李季洪 중위)은 美 DD-800號와 協同하여 奇襲戰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PT編隊는 이날 13.20에 麗島를 떠나 海안선과의 거리 500YDS를 유지하며 10KTS의 速力으로 航進하였다.

PT編隊는 端川(40°26'05" N, 128°57' E)近海에 이르러 海안을 정찰하던중 松平里부근에서 敵 1개중대병력이 海안포대를 설치하고 砲擊을 加하는 것을 발견하자 즉각 이에 應戰하여 Rocket 砲火를 집중하였다. 포탄이 敵의 砲臺에 작렬하자 그들은 右往左往하면서 戰意를 잃고 後方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PT編隊는 敵陣이 崩壞되었음을 확인하고 進路를 다시 南으로 바꾸어 遮湖東北쪽 海上

(40°15' N, 128°44' E)에서 敵船 1척을 발견하고 이를 拿捕하였는데 同船에는 北僞軍 1명이 승조하고 있었으며 수류탄 8개와 탄약 100여발 및 個人兵器를 압수하고 포로는 美艦에 인계하였다.

계속 南下하던 PT 編隊는 15.00에 長洞해안에서 敵船 9척을 발견하고 이에 공격을 가하였으나 敵의 해안포가 반격을 개시하므로 彼我間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30분에 걸친 血戰끝에 敵의 해안포는 침묵을 지키고 多數가 射殺되었으며 敵船 5척도 함께 水葬시켰으니 PT 編隊의 士氣는 더욱 높아만 갔다.

歸路에 오른 PT 編隊는 滿春里(新昌邑管内)前洋에 이르러 敵의 박격포진지를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敵의 반격이 심하여 PT 編隊는 위험을 느끼고 美艦 DD-800號에 연락하여 이를 격파토록 인계한 뒤에 계속 航進하여 19.40에는 馬養島에 이르러 同島의 포대에 Rocket 彈으로 제압하고 아무런 損失없이 麗島에 귀항하여서 다음 날의 作戰에 대비하였다.

8월 11일 : 美輸送船을 호송중인 PF-61艦은 興南前洋에서 敵의 帆船 2척을 발견하여 포격을 가하였다. 敵船은 全速으로 雲洞里 海岸으로 도피하였는데, 我艦이 계속 추격하면서 포격하자 이곳의 해안포가 61艦을 공격하였으므로 61艦은 동시에 敵船과 포대를 攻略하여 野砲(105mm) 陣地도 大破하고 敵船 1척은 격침, 남은 1척도 全破하고 말았다. 또한 敵船에 승조하고 있던 40여명도 거의 射殺되었으며 PF-61艦은 다시 호송임무를 계속하였다.

8월 12일 : FS-905艇(장, 韓淵錫 대위)은 麗島北쪽 錨地에서 投錨中 突然 이날 09.05에 湖島半島의 敵해안포의 공격을 받아 즉시 避船하였으나 右鉞砲臺에 命中되어 약간의 損失을 보았다.

8월 14일 : YMS-507艇(장, 楊清石 중위)은 이날 水源端의 敵해안포대를 포격하였으며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과 合勢하여 다음 線의 폭 1,700YDS를 掃海하였다.

A. 39°35'35" N, 127°41'15" E

B. 39°16'50" N, 127°59'45" E

8월 16일 : PT-23艇(장, 朴成極 중위)은 이날 21.00에 城津一端川間의 해안(40°32' N, 129°11' E)에서 敵의 鐵道施設에 대한 포격을 가하였으며 PT-26艇(장, 黃汀淵 중위)은 城津前洋(40°40' 27" N, 129°11' 10" E)에서 輸送中인 敵車輛群을 발견하여 美艦 DD-800號와 合勢하여 砲擊을 가하였는데 大部分의 차량이 파괴되었으나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8월 19일 : PT-23艇은 이날도 洋島-城津間에서 鐵路 및 列車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였다.

8월 21일 : PT-23艇(장, 朴成極 중위)은 이날 洋島近海에서 美艦 DD-677號와 合同作戰을 위해 계류를 시도하다가 荒天으로 인하여 충돌하였는데 艦首砲臺가 파손되어 다음 날 YMS-514艇(장, 丁漢哲 대위)의 도움으로 麗島에서 修理에 임하였다.

8월 23일 : YMS-502, 507艇은 이날 14.00까지 下記 2점을 연결하는 線의 양측 800YDS

를 掃海하였으며 YMS-507艇은 作業中 기관고장으로 이날 20.00에 母港으로 向하였다.

8월 26일 : PT-26艇(장, 黃汀淵 중위)은 이날 城津近海에서 南大川 300YDS까지 接近하여 補給列車 및 鐵路에 대하여 세차례에 걸쳐 砲擊을 감행하고 다음날 09.45에 洋島로 歸港하였다.

또 PT-23艇은 수리를 마치고 이날 19.30에 CTG 95.2의 命에 依하여 洋島를 떠나 城津附近의 禮洞 해안에 이르러 경비에 임하였는데 21.30에 敵의 보급열차가 南下中인 것을 발견하고 砲擊을 加하는 一方 美艦 DD-677號와 合同 포격으로 이를 격파하였다.

8월 28일 : YMS-503艇(장, 金光植 중위)은 YMS-515艇(장, 李應基 중위)과 合勢하여 이날 16.40까지 다음의 7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15' 30" N, 127°42' 30" E
- B. 39°16' 30" N, 128°00' 00" E
- C. 39°18' 00" N, 128°01' 00" E
- D. 39°16' 30" N, 127°41' 00" E

또 PT-23, 26艇은 이날도 22.00에 洋島近海에서 美艦 DD-677號와 合同으로 龍臺洞해안의 敵의 보급차량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친 포격을 加하였다.

8월 30일 : YMS-503, 515艇은 계속 永興灣에서 다음의 550YDS를 掃海하였다.

- A. 39°33' 36" N, 127°33' 48" E
- B. 39°13' 36" N, 127°27' 36" E
- C. 39°14' 46" N, 127°27' 34" E
- D. 39°14' 50" N, 127°33' 48" E

또 이날도 PT-23, 26艇은 美艦과 合同으로 洋島西北쪽 對岸의 補給路를 강타하였으며 PT-23艇은 40°11' 00" N, 128°34' 30" E에서 기뢰 2개를 격침시켰다.

(바) 9월 중의 상황

9월 1일 : PC-706艦(장, 金鐵雄 소령)은 興南近海에서, YMS-518艇(장, 高景榮 대위)은 卵島近海에서, FS-903艇(장, 李禧晶 소령)은 洋島近海에서 각각 경비에 임하였다.

또 永興灣을 掃海中인 YMS-503, 515艇은 이날도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 33" N, 127°36' 33" E
- B. 39°10' 57" N, 127°34' 10" E
- C. 39°13' 20" N, 127°35' 30" E

9월 2일 : 卵島近海를 경비중인 YMS-518艇(장, 高景榮 대위)은 이날 08.30에 高城東北쪽 海上(39°04' N, 128°03' E)에서 浮遊機雷 1개를 발견하여 이를 목과시켰는데 敵은 계속 기뢰를 부설하여 南下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永興灣을 掃海中인 YMS-503, 515艇은 이날도 다음의 폭 3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circ}13'27''$ N, $127^{\circ}35'57''$ E
- B. $39^{\circ}11'40''$ N, $127^{\circ}33'52''$ E
- C. $39^{\circ}13'46''$ N, $127^{\circ}33'08''$ E

9월 3일 : PT-23艇(장, 朴成極 중위)은 遮湖 南西쪽 海上($40^{\circ}09'25''$ N, $128^{\circ}33'40''$ E)에서 美艦 DD-33號와 協同으로 敵의 보급열차에 포격을 加하였으며 PT-26艇(장, 黃汀淵 대위)은 端川 東北海上($40^{\circ}29'05''$ N, $129^{\circ}11'00''$ E)에서 美艦 DD-752號와 合勢하여 海안의 보급열차를 공격하고 敵船 1척을 拿捕하였다.

9월 5일 : YMS-503艇(장, 金光植 중위)은 卵島近海에서 기뢰 1개를 격침시키고 YMS-515艇과 合勢하여 永興灣에서 다음의 700YDS를 掃海하였다.

- A. $39^{\circ}11'35''$ N, $127^{\circ}32'22''$ E
- B. $39^{\circ}12'26''$ N, $127^{\circ}35'43''$ E
- C. $39^{\circ}16'20''$ N, $127^{\circ}39'30''$ E
- D. $39^{\circ}11'50''$ N, $127^{\circ}34'20''$ E
- E. $39^{\circ}17'55''$ N, $128^{\circ}00'00''$ E

9월 6일 : PF-65艦은 元山の 東北쪽海上($39^{\circ}27'30''$ N, $128^{\circ}07'00''$ E)에서 MK-26型機雷 1개를 폭파시켰다.

9월 9일 : YMS-515艇과 임무를 교대한 YMS-512艇(장, 林斗成 대위)은 이날 永興灣에서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5'32''$ N, $127^{\circ}36'50''$ E
- B. $39^{\circ}15'15''$ N, $127^{\circ}33'47''$ E
- C. $39^{\circ}14'35''$ N, $127^{\circ}34'30''$ E
- D. $39^{\circ}13'28''$ N, $127^{\circ}36'50''$ E

9월 11일 : YMS-512艇은 이날 11.00에 永興灣의 海안포 공격을 받고 掃海作業을 중단하였는데 이때까지의 掃海區域은 下線의 南쪽 700YDS와 北쪽 200YDS의 海域이다.

- A. $39^{\circ}11'10''$ N, $127^{\circ}51'15''$ E
- B. $39^{\circ}10'55''$ N, $127^{\circ}42'10''$ E
- C. $39^{\circ}11'20''$ N, $127^{\circ}40'00''$ E
- D. $39^{\circ}10'48''$ N, $127^{\circ}33'56''$ E

9월 17일 : YMS-512艇은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과 合勢하여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5'50''$ N, $127^{\circ}26'50''$ E
- B. $39^{\circ}13'30''$ N, $127^{\circ}26'50''$ E
- C. $39^{\circ}17'30''$ N, $127^{\circ}27'40''$ E

D. $39^{\circ}15'15''\text{N}$, $127^{\circ}30'45''\text{E}$

9월 19일~21일 : 惡天候를 무릅쓰고 실시한 YMS-502, 512艇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A. $39^{\circ}15'15''\text{N}$, $127^{\circ}34'14''\text{E}$

B. $39^{\circ}13'30''\text{N}$, $127^{\circ}32'27''\text{E}$

C. $38^{\circ}13'30''\text{N}$, $127^{\circ}27'20''\text{E}$

D. $39^{\circ}15'15''\text{N}$, $127^{\circ}17'20''\text{E}$

E. $39^{\circ}15'50''\text{N}$, $127^{\circ}31'33''\text{E}$

F. $39^{\circ}17'20''\text{N}$, $127^{\circ}59'50''\text{E}$

를 연결하는 線의 폭 400YDS의 海域과,

A. $39^{\circ}13'30''\text{N}$, $127^{\circ}32'15''\text{E}$

B. $39^{\circ}13'52''\text{N}$, $127^{\circ}36'45''\text{E}$

C. $39^{\circ}15'57''\text{N}$, $127^{\circ}37'00''\text{E}$

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는데 海안선의 敵 포대의 방해는 날로 심하여 我艦艇의 掃海畧은 줄어들어는 추세에 있다.

9월 22일 : YMS-502, 512艇의 編隊는 이날 13.45까지 下記의 線 1, 200YDS를 掃海하고 麗島前洋에 이르러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과 YMS-510艇(장, 崔基束 중위)에 임무를 인계하고 母港으로 수리차 南下하였다.

A. $39^{\circ}10'23''\text{N}$, $127^{\circ}34'17''\text{E}$

B. $39^{\circ}12'30''\text{N}$, $127^{\circ}35'37''\text{E}$

C. $39^{\circ}12'35''\text{N}$, $127^{\circ}47'30''\text{E}$

D. $39^{\circ}13'30''\text{N}$, $127^{\circ}47'14''\text{E}$

9월 23일 : PT-27艇(장, 徐銅演 소위)은 遮湖近海에서 海안선 봉쇄 및 敵의 열차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날 04.00에 遮湖南西쪽 海上($40^{\circ}16'\text{N}$, $128^{\circ}39'\text{E}$)에서 敵船 2척을 拿捕하여 敵兵 10명을 生捕하였다.

또 PT-25艇(장, 洪起京 중위)은 禱津里 및 上仙里(遮湖管内)의 敵陣에 Rocket砲擊을 加하였다.

9월 24일 : PC-705艦(장, 韓文植 소령)은 이날 06.50에 城津近海($40^{\circ}40'50''\text{N}$, $129^{\circ}27'13''\text{E}$)에서 敵船 1척을 나포하였는데 同船은 大韓靑年團 小尉로서 北傀軍에 포로가 되었던 1명이 脫出한 것이었다.

9월 26일 : 이날도 永興灣에서는 YMS-506, 510艇이 다음의 1, 000YDS를 掃海하였다.

A. $39^{\circ}15'48''\text{N}$, $127^{\circ}40'54''\text{E}$

B. $38^{\circ}17'24''\text{N}$, $127^{\circ}53'10''\text{E}$

C. 39°17'36" N, 127°59'20" E

또 PT-27艇은 魚大津의 東쪽海上(41°22' N, 129°49' E)에서 敵의 漁網 파괴를 위해 출동한 美 U.D.T를 지원하였다.

9월 27일 : PC-705艇은 이날 07.00에 興南의 東쪽海上(39°45'00" N, 127°48'15" E)에서 피난민 22명을 구출하였으며 또 10.25에는 虎島半島의 東쪽海上(39°21'55" N, 127°41'45" E)에서 敵이 부실한 기뢰 1개를 폭파하였다.

한편 PT-25艇은 洋島近海(40°42' N, 129°20' E)에서 敵船 2척을 격침시키고 11명을 생포하여 洋島에 인계하였다.

9월 30일 : 이날 08.15에 洋島近海에서 投錯中인 PT-25, 27艇의 編隊는 敵의 海안포 공격을 받았으나 損失은 없었다.

(사) 10월중의 상황

10월 1일 : 前月に 이어 我艦艇은 계속 海안선 封鎖에 주력하였는데 PC-706艇(장, 金鐵雄 소령)은 興南近海에서, PT-25, 27艇의 編隊는 洋島를 中心으로 敵陣奇襲을 감행하였다.

또 YMS-506, 510艇은 다음의 水路를 掃海하였다.

A. 39°16'55" N, 127°43'30" E

B. 39°17'00" N, 127°53'00" E

C. 39°27'36" N, 127°53'10" E

10월 2일 : 이날도 永興灣에서 YMS-506 및 510艇은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A. 39°12'00" N 127°35'12" E

B. 39°13'21" N 127°37'12" E

C. 39°12'00" N 127°44'32" E

D. 39°13'23" N 127°42'57" E

10월 5일 : PT-25艇(장, 洪起京 중위)은 遮湖의 東北쪽 海上(40°19' N, 129°40' E)에서 敵情을 살피던 중에 4일 23.00경 敵砲에 被撃되어 右舷 發電機의 一部가 파손되었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同艇은 긴급수리를 한 다음 이날 00.15부터 敵陣으로 접근하여 Rocket彈을 命中시킴으로써 敵의 포대를 完破하고 深夜로 자세한 전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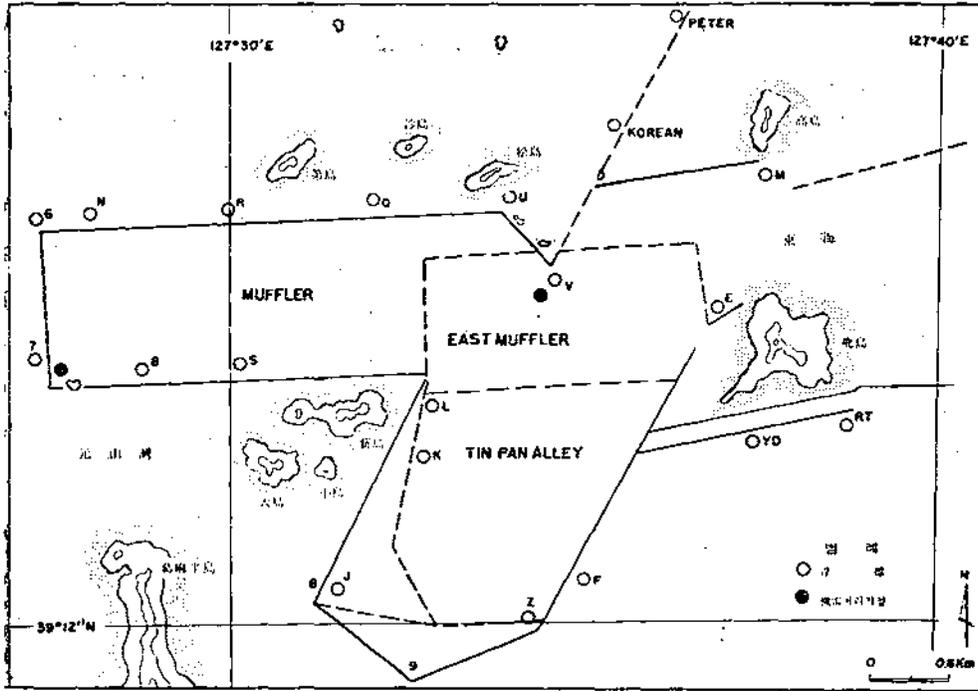
10월 8일 : 興南近海에서 作戰中인 PC-706艇은 이날 01.15에 馬養島 東쪽 海上(39°58' N, 128°15' E)에서 敵의 小型船群을 발견하는 즉시로 추격하여 全砲火를 집중하여 공격한 결과 敵船 16척중 5척을 격침하였으며 나머지는 新浦海岸으로 退避하였다.

10월 10일 : YMS-501艇(장, 辛相大 중위)과 YMS-507艇(장, 楊淸石 중위)의 掃海編隊는 이날도 다음의 400 YDS를 掃海하였다.

- A. 39°16'00"N, 127°45'00"E"
- B. 39°16'30"N, 127°50'30"E"
- C. 39°17'17"N, 127°59'30"E"
- D. 39°19'35"N, 127°59'00"E"
- E. 39°17'55"N, 127°49'00"E"
- F. 39°17'15"N, 127°45'40"E"

10월 14일 : YMS-501艇과 YMS-507艇은 이날에는 계속하여 19.00까지 다음 線의 左右 700 YDS를 掃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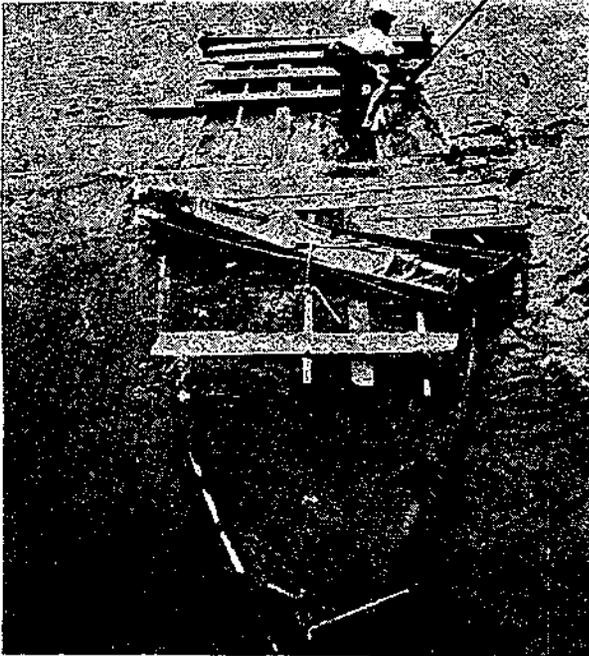
◇ 상황도 제87호 元山灣 掃海구역



- A. 39°14'45" N, 127°45'55" E
- B. 39°16'25" N, 127°49'45" E
- C. 39°19'05" N, 128°00'00" E
- D. 39°18'00" N, 128°00'00" E
- E. 39°17'25" N, 128°00'00" E
- F. 39°17'25" N, 127°49'45" E
- G. 39°16'40" N, 127°43'55" E

또 18일에는 다음 두점을 잇는 線의 850 YDS를 掃海하였다.

- A. 39°11'30" N, 127°35'23" E



<나포된 敵의 Junk船>

B. $39^{\circ}11'30''\text{N}$, $127^{\circ}44'27''\text{E}$

10월 19일 : PC-705艦은 이날 15. 13에 白岸里(興南의 東南쪽 海안)의 敵陣을 強打하였다.

10월 20일 : PC-705艦(장, 韓文植소령)은 이날 10. 00에 馬養島近海($39^{\circ}50'\text{N}$, $128^{\circ}15'\text{E}$)에서 피난민이 승조한 것으로 看做되는 敵船1척을 拿捕하였다. 同船에는 피난민 청년 5명이 승조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敵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PC-705艦은 곧 馬養島對岸의 敵陣을 포격하였다.

10월 21일 : 永興灣에서 掃海戰에 참가하고 있는 YMS-510艇(장, 崔基

東중위) 및 YMS-513艇(장, 徐德均대위)은 이날 掃海次 海안선 가까이 進入하였는데 蛤津里(麗島 南쪽의 海岸)近海($39^{\circ}09'30''\text{N}$, $127^{\circ}36'24''\text{E}$)에 이르자 갑자기 敵의 海안포 공격을 받아 我 YMS-513艇의 Sweep-Wire가 切斷되는 被害를 입었으나 人命의 損失은 없었다.

이리하여 我 掃海編隊는 作業을 중단하고 麗島로 歸港하였는데 이즈음 敵의 海岸砲는 더욱 증강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10월 28일 : 敵의 海안포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YMS-510艇 및 YMS-513艇의 掃海編隊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YMS-510艇의 區域 :

- A. $39^{\circ}13'50''\text{N}$, $127^{\circ}36'50''\text{E}$
- B. $39^{\circ}10'40''\text{N}$, $127^{\circ}34'10''\text{E}$
- C. $39^{\circ}10'40''\text{N}$, $127^{\circ}32'10''\text{E}$
- D. $39^{\circ}11'00''\text{N}$, $127^{\circ}31'10''\text{E}$
- E. $39^{\circ}12'30''\text{N}$, $127^{\circ}32'45''\text{E}$ 의 內部海域

YMS-513艇의 區域 :

- A. $39^{\circ}14'24''\text{N}$, $127^{\circ}33'36''\text{E}$
- B. $39^{\circ}15'48''\text{N}$, $127^{\circ}37'00''\text{E}$
- C. $39^{\circ}15'48''\text{N}$, $127^{\circ}37'34''\text{E}$
- D. $39^{\circ}12'55''\text{N}$, $127^{\circ}35'34''\text{E}$

E. $39^{\circ}13'00''N$, $127^{\circ}32'50''E$ 의 內部海域

兩艇의 合同掃海區域 :

- A. $39^{\circ}15'00''N$, $127^{\circ}41'00''E$
- B. $39^{\circ}16'30''N$, $128^{\circ}00'00''E$
- C. $39^{\circ}18'00''N$, $127^{\circ}59'45''E$
- D. $39^{\circ}17'15''N$, $127^{\circ}51'00''E$
- E. $39^{\circ}17'23''N$, $127^{\circ}48'12''E$
- F. $39^{\circ}16'15''N$, $127^{\circ}39'45''E$

그리고 다음 4점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1'31''N$, $127^{\circ}34'46''E$
- B. $39^{\circ}11'33''N$, $127^{\circ}45'21''E$
- C. $39^{\circ}11'54''N$, $127^{\circ}46'30''E$
- D. $39^{\circ}11'45''N$, $127^{\circ}42'50''E$

10월 29일 : PC-705艇은 CTG 95.2와 긴밀한 연락아래 興南近海에서 작전中이며 PF-61艦(장, 李應燮중령)은 계속하여 竹邊近海에서 美輸送船을 호송중에 있다. 또 이날에 도 永興灣의 掃海編隊는 다음의 線 850YDS를 掃海하였다.

- A. $39^{\circ}14'38''N$, $127^{\circ}39'10''E$
- B. $39^{\circ}19'30''N$, $127^{\circ}58'40''E$
- C. $39^{\circ}18'30''N$, $127^{\circ}58'00''E$
- D. $39^{\circ}18'30''N$, $127^{\circ}56'15''E$

10월 30일 : PC-705艇은 이날 10.00에 南安治里(馬養島 東北쪽 海岸)의 敵陣을 강타하고 16.00에 興南前洋에서 PC-706艇(장, 金鐵雄소령)에 임무를 인계하고 母港인 鎭海로 向하였다.

10월 31일 : YMS-510艇과 YMS-513艇은 掃海임무를 이날 YMS-502艇(장, 金禎浩대위)에 인계하고 修理次 母港으로 向하였으며 YMS-502艇은 이날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circ}15'06''N$, $127^{\circ}26'18''E$
- B. $39^{\circ}13'42''N$, $127^{\circ}26'14''E$
- C. $39^{\circ}13'42''N$, $127^{\circ}27'36''E$
- D. $39^{\circ}15'06''N$, $127^{\circ}27'40''E$

또 濟州道近海에서 경비 및 密輸船을 수색중인 JMS-301艇(장, 金鍾植대위)은 이날 18.00에 기관 교장으로 整備次 欲知島에 入港하였다.

(아) 11월中の 상황

11월 1일 : PC-706艦은 興南近海에서 YMS-518艇은 卵島近海에서 각각 경비중에 있으며 永興灣에서 掃海중인 YMS-502艇 및 YMS-510艇은 이날에도 다음을 연결하는 線의 左右 1800 YDS를 掃海하였다.

- A. 39°14'45" N, 127°35'30" E
- B. 39°12'50" N, 127°39'20" E
- C. 39°12'12" N, 127°39'06" E
- D. 39°13'18" N, 127°48'42" E
- E. 39°12'54" N, 127°48'15" E

또한 JMS-315艇(장, 金秉澤중위)은 掃海編隊의 지원을 위하여 麗島에서 대기하였다.

11월 3일 : PC-706艦은 이날 07.30에 虎島半島의 近海(39°15'15"N, 127°38'15"E)에서 기뢰 1개를 폭파하였다.

11월 9일 : YMS-502艇 및 YMS-507艇(장, 楊淸石중위)은 이날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39'40" N, 127°41'45" E
- B. 39°42'45" N, 127°40'15" E
- C. 39°45'00" N, 127°39'00" E
- D. 39°47'17" N, 127°42'30" E
- E. 39°47'30" N, 127°51'15" E의 内部海域과 다음의 線 左右 1,600YDS의 海域이다.

- A. 39°15'11" N, 126°26'20" E
- B. 39°15'11" N, 127°27'33" E
- C. 39°13'28" N, 127°26'50" E
- D. 39°13'28" N, 127°27'33" E

또 FS-902艇(장, 朴兌鉉소령)은 麗島에 輸送次 北上하였다.

11월 15일 : FS-902艇은 이날 麗島 및 洋島에서 補給品을 輸送하였으며 LST-802艦(장, 朴世忠소령)은 墨湖에서 輸送作業을 실시하였다.

또 이날에도 YMS-505 및 512艇은 永興灣에서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30" N, 127°39'55" E
- B. 39°14'37" N, 127°34'35" E
- C. 39°15'16" N, 127°33'52" E
- D. 39°15'16" N, 127°27'40" E
- E. 39°13'28" N, 127°36'55" E

11월 16일 : 洋島를 비롯한 各島嶼部隊에 보급품을 수송키 위해 出動한 JMS-313艇은 北上하던중 江陵近海에 추락한 美艦截機의 救出指示를 받고 이날 02.30에 墨湖를 出港하

여 04.00에 現地에 도착하여 美艦 5척과 함께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機體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날 07.30에 墨湖로 귀항하여 輸送物을 적재하였다.

11월 17일 : 永興灣에서는 이날도 YMS-512 및 505艇이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39" N, 127°32'50" E
- B. 39°11'38" N, 127°31'00" E
- C. 39°10'42" N, 127°31'42" E
- D. 39°10'46" N, 127°34'07" E
- E. 39°12'43" N, 127°35'37" E

또 PF-66艦(장, 李成浩중령)은 이날 17.00에 美輸送船의 호송임무를 수행키 위하여 鎮海를 出港하였다.

11월 18일 : 永興灣의 掃海作業은 이날에도 다음을 掃海하였는데 敵의 심한 포격으로 作業은 中斷되었다.

- A. 39°05'30" N, 127°36'00" E
- B. 39°15'16" N, 127°33'52" E
- C. 39°15'16" N, 127°27'40" E
- D. 39°13'28" N, 127°36'00" E의 内部海域.

11월 21일 : 이날도 永興灣의 掃海區域은 다음과 같다.

- A. 39°13'30" N, 127°32'50" E
- B. 39°11'38" N, 127°31'31" E
- C. 39°10'42" N, 127°31'42" E
- D. 39°10'46" N, 127°34'07" E
- E. 39°12'43" N, 127°35'37" E

11월 22일 : PC-706艦(장, 金鐵雄소령)은 이날 22.15에 馬養島近海에서 敵船 2척을 발견 추격하여 23.25에 그중 1척은 大破하였으나 1척은 退避하고 말았다.

11월 24일 : JMS-315艇(장, 金秉澤 중위)은 이날 21.00에 興南近海에서 PC-706艦으로부터 경비임무를 인계받아 海安線 경비에 임하였다.

11월 26일 : YMS-515 및 502艇은 이날도 麗島近海에서 다음의 内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 15" N, 127°34' 04" E
- B. 39°13' 25" N, 127°32' 50" E
- C. 39°15' 15" N, 127°32' 50" E
- D. 39°15' 15" N, 127°34' 32" E

11월 27일 : FS-905艇(장, 韓淵錫 대위)과 JMS-309艇(장, 朴明三 대위)은 麗島를 비롯한 各島嶼部隊에 輸送을 계속하였다.

(자) 12월 中の 상황

12월 1일 : 各海域別 경비현황은 JMS-315艇(장, 金秉澤 중위)이 興南-麗島間을 담당하였으며 YMS-515, 502艇은 麗島를 中心으로 한 永興灣에서 掃海戰을 수행하였고 FS-905艇과 JMS-309艇은 輸送活動中에 있으며 PF-61, 63艦은 각각 護送作戰에 참가하였다.

12월 3일 : YMS-515艇과 YMS-502艇은 이날 심한 風波로 掃海作業을 중단하고 麗島에서 投錨中 12.15에 기뢰 1개를 폭파하였다.

12월 6일 : YMS-502艇은 이날 麗島前洋에서 YMS-515艇과 교대한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과 合勢하여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3' 30"N, 127°36' 20"E
- B. 39°30' 32"N, 127°34' 06"E
- C. 39°10' 30"N, 127°33' 15"E
- D. 39°10' 25"N, 127°32' 18"E
- F. 39°13' 07"N, 127°32' 05"E

12월 7일 : PF-66艦은 이날 15.53에 美油槽船 AO-103, 105號를 호송하여 무사히 Saseho(佐世保, 日本)에 入港하였으며 이곳에 入渠하여 수리를 시작하였다.

12월 8일 : PC-706艦은 美海兵隊의 輸送支援次 이날 18.00에 墨湖를 出港하였으며 YMS-502, 506艇의 編隊는 이날에도 永興灣에서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7' 00"N, 127°59' 30"E
- B. 39°17' 30"N, 127°59' 30"E
- C. 39°15' 20"N, 127°41' 00"E
- D. 39°16' 00"N, 127°41' 00"E

12월 9일 : PC-706艦은 이날 04.00에 麗島에 入港하여 美海兵隊의 補給品을 수송하고 洋島近海로 向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12월 10일 : YMS-502, 506艇의 掃海區域은 이날도 다음과 같다.

- A. 39°15' 15"N, 127°30' 18"E
- B. 39°15' 13"N, 127°27' 38"E
- C. 39°13' 30"N, 127°27' 38"E
- D. 39°13' 30"N, 127°26' 52"E
- E. 39°15' 43"N, 127°26' 50"E
- F. 39°15' 48"N, 127°35' 20"E의 內部海域.

12월 14일 : 敵의 海안포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날 永興灣에서는 YMS-506, 502艇이 間歇的으로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5' 35"N, 127°41' 45"E

- B. 39°18' 00"N, 128°00' 00"E
- C. 39°18' 40"N, 127°59' 30"E
- D. 39°17' 50"N, 127°56' 15"E
- E. 39°16' 00"N, 127°42' 00"E

12월 18일 : YMS-501, 506艇은 이날도 永興灣에서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9°10' 30"N, 127°34' 30"E
- B. 39°10' 30"N, 127°39' 40"E
- C. 39°11' 30"N, 127°40' 30"E
- D. 39°11' 30"N, 127°34' 30"E

12월 20일 : PC-705艦은 이날 07.30에 興南近海에서 경비중 退潮 東쪽 海岸인 茂桂里에서 敵의 哨所를 발견하고 즉시 합포사격을 가하여 敵陣을 강타하였다.

또 YMS-506艇은 이날 16.30까지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고 17.00에 麗島에서 YMS-512艇에 임무를 인계한 다음 19.00에 麗島를 떠나 母港으로 향하였다.

이날 실시한 YMS-506艇의 掃海區域은

- A. 39°13' 08"N, 127°36' 00"E
- B. 39°10' 40"N, 127°36' 00"E
- C. 39°10' 20"N, 127°32' 00"E
- D. 39°11' 10"N, 127°31' 25"E
- E. 39°13' 20"N, 127°33' 00"E
- F. 39°39' 20"N, 127°34' 15"E
- G. 39°11' 30"N, 127°33' 30"E의 內部海域이다.

12월 23일~ 30일 : YMS-503, 512艇은 이날도 계속하여 다음의 海域을 掃海하다가 敵의 포격으로 09.00에 作業을 中斷하였다.

- A. 39° 13' 30"N, 127° 30' 40"E
- B. 39° 15' 45"N, 127° 26' 55"E
- C. 39° 15' 45"N, 127° 30' 40"E의 內部海域, 또 27일의 掃海區域은
- A. 38°13' 33"N, 127°33' 20"E
- B. 38°13' 33"N, 127°27' 40"E
- C. 38°15' 10"N, 127°27' 40"E

D. 38°13' 39"N, 127°33' 20"E의 內部海域이며 29일 08.00에 PC-706艦은 麗島前洋에서 PC-705艦의 임무를 인계 받아 興南近海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또 30일에 실시한 YMS-503, 510艇의 掃海區域은

- A. 39°10' 40"N, 127°34' 40"E

646 海軍의 活動

- B. 39°14' 30"N, 127°34' 40"E
- C. 39°14' 33"N, 127°34' 28"E
- D. 39°15' 15"N, 127°33' 50"E
- E. 39°15' 15"N, 127°30' 03"E
- F. 39°13' 30"N, 127°30' 45"E의 內部海域이었다.

12월 31일 : PC-706艦은 興南近海에서 그리고 YMS-518艇은 卵島近海에서 각각 경비에 임하였으며 永興灣에서는 YMS-506艇 및 510艇이 계속 掃海作業에 임하였다. 또 PF-63艦과 PF-66艦은 각각 美輸送船을 호송하여 UN艦艇의 安全輸送에 寄與하였다.

(4) 西海方面의 狀況

(가) 4월中の 상황

4월 1일 : 海域別 경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PC-703艦(장, 金相吉 소령)은 麒麟島近海를, JMS-313艇은 大靑島를, JMS-301艇(장, 金鍾植 대위)은 喬洞島에서, JMS-315艇(장, 秦錫文 중위)은 長山串 북쪽의 水路를 각각 차단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한편 PC-703艦은 이날 03.29에 麒麟島對岸에 집결하여 陣地를 구축중인 敵에 대하여 합포사격으로 이를 분쇄하였다.

4월 2일 : 西海封鎖戰隊의 PC-703艦은 이날도 甕津半島의 麒麟島 및 昌麟島를 향해하면서 對岸의 敵陣에 합포사격을 감행하였다.

4월 7일 : 이날 13.00에 PT-23艇(장, 朴成極 중위)과 PT-26艇(장, 具崑學 중위)은 延坪島近海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키 위해 鎭海를 出港하였다.

4월 15일 : 이쯤을 我艦의 海上活動으로 敵은 機動이 困難하게 되자 海안선에 兵力을 집결하여 포대를 구축하고 機雷敷設에 힘썼는데 주로 鎭南浦와 延白地區의 海안이었다. 따라서 我艦艇은 海안선에서 敵의 이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配置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4월 17일 : 敵情에 따라 PT-23, 26艇의 編隊는 이날 麒麟島近海로 옮겨서 경비에 임하였다.

4월 19일 : PT-23, 26艇은 大靑島近海에서 경비중 麻蛤島上에 敵의 砲臺 및 帆船 數隻을 발견하고 이날 13.00와 14.00에 각각 艦砲射擊을 실시 하였으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JMS-302艇은 麒麟島近海에서 경비중 對岸인 甕津郡 龍源面 馬頂里의 敵陣에서 信號彈으로 연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포격하여 敵陣을 격파하였다.

4월 24일 : 이즈음 海州地區의 中共軍은 延白地區로 이동하여 迫擊砲 重機 등으로 武裝하고 海岸線에 집결하여 我軍勢力下에 있는 島嶼를 위협하였다. 이에 JMS-309艇(장, 柳來赫 중위)은 喬洞島近海에서, JMS-308艇(장, 千坪祚 중위)은 椒島, JMS-303艇(장, 金鍾求 중위)은 麒麟島를 그리고 JMS-302艇(장, 朴春道 대위)은 夢金浦海域에서 각각 경

계태세를 強化하였다.

4월 25일 : PC-701艦(장, 吳禎元 소령)은 忠武作戰命令 제 8 호에 의거하여 西海岸 封鎖의 旗艦임무를 띄고 이날 07.00에 母港을 떠나 白翎島近海로 向하였다.

4월 26일 : PT-23, 26編隊는 이날 02.00에 甕津半島의 麒麟島對岸인 馬頂里의 敵集結地에 Rocket 砲擊을 加하고 04.00에는 大靑島近海로 옮겨서 警備하였다.

4월 27일 : PT-23, 26艇은 이날 20.00에 UN艦隊의 支援下에 白翎島 北쪽 長山串海岸의 敵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4월 29일 : 長山串海域에서는 YMS-505 및 507艇이 이날 22.00에 椒島에서 黃海道 殷栗郡 眞風面에 奇襲上陸戰을 편 我 遊擊隊(白骨部隊)를 엄호하여 支援射擊으로써 敵陣을 強打하고 01.40에 白骨部隊를 椒島로 輸送하였다.

4월 30일 : PT-23, 26艇은 이날 02.30에 美艦 F-624號와 合勢하여 甕津郡 龍泉面 大機里-馬頂里를 잇는 海岸線에 있는 敵陣을 포격 하였으며 08.00에는 大靑島近海로 돌아와 警비에 입하였다.

(나) 5월 中の 상황

5월 1일 : PC-701艦(장, 吳禎元 소령)을 旗艦으로 하는 西海戰隊의 警備현황은 JMS-309艇(장, 柳來赫 중위)과 JMS-313艇(장, 李漢哲 중위)이 合同으로 甕津半島의 海岸을 봉쇄하였으며 YMS-505艇(장, 姜基憲 중위)은 YMS-507艇(장, 李勇男 중위)과 合勢하여 長山串을 中心으로 한 그 北쪽 海域에서 掃海 및 警비를 계속 하였다. 특히 PT編隊는 甕津半島의 大小 도서를 침공하는 敵을 맞아 이를 파괴하여 我軍의 島嶼確保에 크게 공헌하였다.

5월 3일 : 이날 軍은 美海軍으로부터 PC艦 2척을 인수하여 戰力을 증강하였다.

5월 4일 : PC-701艦(장, 吳禎元 소령)은 我 Donkey 部隊員의 정보에 의하여 麒麟島對岸인 陸麻蛤里에 집결한 北傀 1개 중대 규모의 兵力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集中하여 致命 傷을 가하였다.

또 PT西海編隊인 23, 26號艇은 海州灣入口의 釜浦里에 있는 敵砲臺 및 兵舍를 攻擊키 위해 5일의 滿潮를 이용하기 위하여 延坪道를 떠나 茂島 西쪽에 投錨하였다.

5월 5일 : 이날 PT編隊는 前日의 예정대로 海州灣 入口의 奇襲作戰을 수행키 위해 未明을 기하여 茂島를 떠나 釜浦里 前方 1300 YDS 까지 接近하여 敵의 砲臺 및 兵舍등의 목표물에 命中彈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염속에 몰아 넣었다. 攻擊을 끝낸 PT-23, 26艇은 延坪島로 歸着 하였으며 18.50에는 다시 海州灣으로 接近하여 海州市의 敵의 補給所, 兵力集結地, 砲臺工場등에 砲擊을 加하자 海州市는 滿月下에 火光이 총천하였다. PT編隊는 성공리에 奇襲任務를 마치고 延坪島로 돌아와 警비를 계속하였다.

5월 6일 : JMS-301艇(장, 金鍾植 대위)는 이날 20.00에 月乃島對岸에서 敵 1개 중대를

발견하고 이곳에 포격을 가하여 敵을 分散逃走토록 하였다.

5월 7일 : PC-701艦(장, 吳禎元 소령)은 이날 Donkey 部隊의 정보에 따라 UN艦隊와 合勢하여 月乃島對岸인 舊鎭里를 강타하여 迫擊砲陣地 및 兵舍를 파괴하였다.

5월 8일 : 席島對岸인 月沙里半島에 집결한 敵은 야간을 이용하여 島嶼奇襲을 노리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JMS-315艇은 이에 對備하던 중 이날 22.00에 敵이 各高地에서 烽火로써 신호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砲火를 퍼부어 이를 제압하였다.

5월 11일 : 席島近海를 경비중인 YMS-315艇(장, 秦錫文 중위)은 이날 席島 東南쪽의 月沙里에서 敵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全砲門을 열어 砲擊을 가한 결과 火力據點 3개소와 數未詳의 敵을 死傷토록 하였다.

또 月乃島 對岸의 敵情을 살피면서 경비에 임하던 JMS-301艇은 白石洞(長淵郡 海安面)에서 敵이 補給物資의 輸送作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情報을 Donkey 部隊로부터 入手하자 즉시 Canada 驅逐艦과 合勢하여 砲擊을 開始하였다. 敵도 重機 및 迫擊砲 등으로 反擊을 가했으나 我艦砲의 火力에 눌려 潰滅하고 말았다. 확인된 戰果로는 敵의 補給物 積載所 수 개소와 兵舍등을 파괴하였다.

5월 12일 : JMS-301艇은 이날도 月乃島 對岸에 있는 敵陣地에 砲擊을 계속하였다.

한편 延坪島近海에서 封鎖 및 奇襲戰으로 敵을 攪亂시킨 PT의 西海編隊인 PT-23號 및 PT-26號艇은 임무를 완료하고 鎭海로 歸港하였다.

5월 13일 : 西海封鎖戰隊는 我軍이 점령하고 있는 여러 島嶼를 중심으로 경비 및 封鎖作戰이 계속되었는데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은 檣島近海에서 경비에 임하다가 對岸인 內安里海岸에서 Donkey 部隊가 敵陣을 奇襲中 敵의 反擊으로 苦戰中이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同海岸으로 접근하여 艦砲支援을 시작하였다. 敵도 일제히 海岸砲로서 發惡의인 反擊을 시도했으나 我艦砲의 위력에 눌려서 支離滅裂되었으며 YMS-506艇은 Donkey 部隊員을 무사히 구출하고 계속 경비에 임하였는데 확인된 이날의 戰果는 敵 36명을 射殺하고 敵의 火力據點 6개소를 破壞하였다.

또 JMS-301艇은 月乃島에 주둔중인 遊擊隊를 對岸의 敵地인 德洞-舊鎭里에 上陸시키기 爲하여 두시간에 걸쳐 이곳을 強打하여 支援하였다.

5월 14일 : 이날 경비상황에 변동 없으며 席島를 중심으로 海岸경비에 임하고 있던 JMS-315艇(장, 秦錫文 중위)은 月沙里 海岸에서 敵이 야간을 이용하여 補給物資의 輸送作業을 하는것을 발견하고 이에 즉각 全砲火를 집중시켜 이를 強打하였다.

5월 15일 : 西海에서 喬洞島 近海를 경비중인 JMS-304艇(장, 韓淵錫 대위)은 喬洞島駐屯隊長으로부터 同島 西쪽 對岸인 △61(峰臺山)과 海南里에 中共軍 中隊兵力이 迫擊砲 및 重機, 輕機 등으로 武裝하고 海岸을 경비중이라는 敵情을 入手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9.08에 同島駐屯隊長을 便乘시켜 海南里에 接近한 JMS-304艇은 양쪽 敵陣에 艦砲射擊을 가하

였다.

5월 16일 : PC-703艦(장, 孫炳一 소령)은 이날 16.50 PC-701艦으로부터 旗艦의 任務를 交代받고 麒麟島近海를 경비하였다. 또 YMS-304艇은 喬洞島 對岸인 海南里앞 海上에 추락하였다는 英國軍 艦載機를 수색하기 위하여 美顧問官 2명을 便乘시키고 現場으로 向하였으나 現場의 海上은 滿潮로 因하여 작업은 不可能하였다. 따라서 JMS-304艇은 目標를 바꾸어 前日 공격한 △61에 아직도 殘敵이 行動中이라는 情報를 얻고 艦首를 海南里쪽으로 돌리서 △61에 대한 砲擊을 실시하였다.

약 30분에 걸쳐 100여발의 砲彈을 敵陣에 命中시킴으로써 中共軍 35명을 射殺하고 陣地를 모두 파괴한 뒤 同艇은 喬洞島로 歸航하였다.

5월 19일 : JMS-308艇은 喬洞島 西南쪽 對岸에 대한 上陸作戰을 지원하여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遊擊隊 250명이 敵의 반격에 밀리게 되자 역시 艦砲支援으로 그 철수를 掩護하였다. 이때 敵射殺 12명, 부상 8명, 火力據點 7개소 파괴등의 戰果를 올렸으며 遊擊隊員 2명이 戰死하였다.

5월 20일 : JMS-302艇은 西海岸 蓼金浦 近海에서 경비중 南쪽 2km 인 모래사장의 海岸에 설치한 陣地 및 砲臺에 火力을 집중하였다.

또 長山串 東南쪽의 陸島는 我遊擊隊가 占領하고 있었는데 對岸의 敵이 71mm直射砲로 공격하자 JMS-308艇은 우선 인근 月乃島에 알리고 陸島近海에서 非常警戒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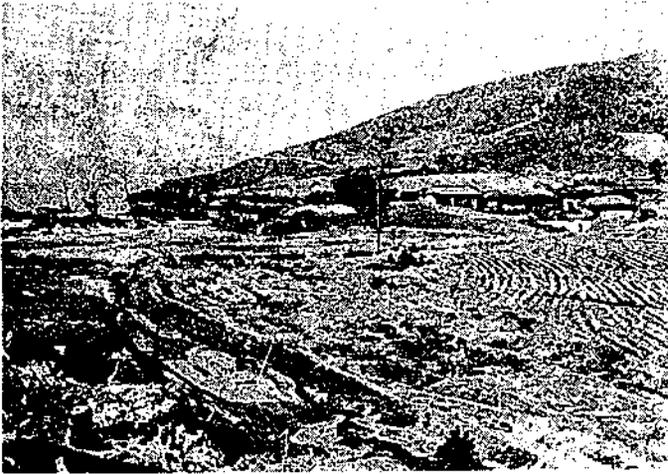
<JMS-302艇을 방문한 캐나다해군 J.C. Hibbard 준장과 艇長 朴春道 대위>

5월 22일 : JMS-307艇(장, 林龍雨 대위)은 白翎島근해에서 경비하였는데 이날 德村의 敵陣을 強打하였다.

5월 23일 : JMS-302艇(장, 朴春道 대위)은 白翎島近海에서 이날 12.10에 長山串 및 蓼金浦의 敵포대를 포격하였다.

5월 24일 : JMS-307艇은 西海岸 龍湖島近海에서 敵의 活動을 탐지코자 항해하다가 同島 東南쪽 對岸인 白岩里에 있는 敵에 대하여 14.00부터 艦砲火力을 集中하여 敵의 帆船 5척을 擊破하고 建物 2個所 火力據點 3개소를 破壞하였다.

5월 26일 :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은 椒島 東南쪽 龍水里海岸에 위치한 敵의 砲臺



<당시의 椒島>

를 발견하고 이곳에 두차례에 걸친 艦砲洗禮를 加하여 砲臺 2개소를 擊破하고 敵兵을 分散逃走토록 하였다. 또 PC-702艦(장, 韓文植 소령)은 이날 20.00에 西海岸 月乃島 東北對岸에 이르러 金水里敵陣에 ampo사격을 加하였다.

5월 27일 : YMS-506艇은 이날 椒島近海를 경비하면서 同島 東南쪽 對岸의 敵砲臺에 ampo사격을 加하여 敵의 포대

2개소를 파괴하였다.

5월 28일 : YMS-502艇과 YMS-506艇은 이날 長山串近海에서 다음 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8°27'00"N, 124°54'30"E
- B. 38°18'30"N, 124°48'00"E의 左右 800 YDS.

5월 29일 : 西海戰隊는 旗艦인 PC-702艦을 中心으로하여 變함없이 경비에 任하였으며 YMS-502 및 506艇은 長山串近海에서 다음 各점의 左右 450 YDS를 掃海하였다.

- A. 38°19'31"N, 124°48'00"E
- B. 38°10'00"N, 124°42'00"E
- C. 38°09'20"N, 124°36'45"E

5월 30일 : JMS-307艇(장, 林龍雨 대위)은 西海岸 月乃島近海를 경비중 이날 06.40에 對岸의 敵으로부터 40여발의 砲擊을 받았으나 損失없이 경비를 계속하였다.

(다) 6월中の 상황

6월 1일 : 西海戰隊는 麒麟島를 경비중인 PC-702艦을 旗艦으로하여 JMS-308艇은 喬洞島를 JMS-303 및 315艇은 椒島近海를 그리고 JMS-301艇은 白翎島를 각각 담당하여 海岸을 警戒하였는데 JMS-308艇은 英艦 F-116號와 合勢하여 喬洞島駐屯遊擊隊의 上陸戰을 지원하여 엄호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砲擊에서 火力據點 2개소를 撲滅하고 敵射殺 20명의 戰果를 올리게 되었다. 또 旗艦인 PC-702艦은 Donkey部隊로부터 敵情을 入手하여 이날 01.30을 기해 昌麟島對岸인 馬頂里를 強打하고 敵帆船 1척을 나포하였다.

6월 2일 : PC-702艦은 이날 23.00를 기해 麒麟島對岸인 龍泉面 一帶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6월 3일 : PC-702艦은 계속해서 靑麟島와 麒麟島近海를 항해하면서 敵情을 살피던중 이날 22.00에 對岸인 馬頂里와 △124에 있는 敵 500여명과 砲陣地를 확인하고 23.00부터 한 시간에 걸친 포격을 가하였다.

6월 4일 : 延白地區 海岸線에 접결한 敵은 연일 我艦砲의 공격을 받고 근간에는 兵力의 재정비인 듯 後方으로 退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情報를 입수한 PC-702艦(장, 韓文植 소령)은 이날 23.00에 延白郡 龍泉面 一帶에 쏘火力을 집중하였다. 後에 Donkey部隊員에 의하여 보고된 戰果는 敵射殺 6명, 負傷 9명, 重機 2挺과 輕機 2挺 및 迫擊砲 1門 그리고 火力據點 1개를 파괴하였다. 또 JMS-301艇은 月乃島對岸의 敵陣에 艦砲射擊을 가하였다.

6월 5일 : 西海戰隊는 PC-702艦이 白翎島를, JMS-301艇은 大靑島를, JMS-313艇은 喬洞島를 그리고 JMS-315艇은 椒島近海에서 각각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이날 07.00에 JMS-303艇과 임무를 교대한 YMS-518艇은 白翎島를 경비하였다. 이날 JMS-301艇은 白翎島에서 月乃島로 航海하던중 日乃島 東北對岸으로부터 敵의 砲擊을 받고 즉각 反擊하여 砲陣地를 大破하고 7명을 射殺하였다.

6월 6일 : 白翎島를 경비중인 JMS-301艇은 同島對岸인 松田洞에 北傀의 重火器 二個中隊규모가 주둔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이날 21.40에 行動을 개시하여 23.00까지 砲擊을 가하였다.

또 PC-702艦은 麒麟島對岸인 △23에 敵이 砲陣地 및 火力據點을 구축하고 있다는 Donkey部隊의 情報에 따라 이날 23.20에 이 지역에 대하여 砲擊을 가하였다.

6월 7일 : 白翎島近海에 출동중인 JMS-301艇은 이날 05.40에 月乃島 東北쪽 對岸인 甘水洞에 접근하여 敵砲臺에 艦砲射擊을 가하여 이를 격파하였다.

6월 9일 : 西海戰隊의 눈부신 활동으로 敵은 연일 損失만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계속하여 海岸線에 兵力을 배치하였다. 이날 22.00에 JMS-301艇(장, 金鍾植 대위)은 月乃島對岸인 黃海道 長淵郡 大救面 金水里를 中心으로 하는 白水洞과 금두洞 목洞등지에 砲擊을 가하였다. 敵은 艦砲火力에 놀려서 침묵을 지키다가 23.00부터 最後發惡의인 反擊을 시도하므로 JMS-301艇은 다시 砲擊을 가하여 火力據點 1개소를 파괴하고 敵兵 20명을 射殺하였다.

또 PC-702艦은 이날 22.00에 麒麟島對岸인 △24(龍泉面 聞雲洞所在)의 敵陣을 강타하였다. 또 YMS-502艇(장, 金禎浩 대위)은 椒島東南쪽 海上(38°32'50"N, 124°57'00"E)에서 美戰鬪機가 추락함을 발견하고 즉시 접근하여 조종사 1명을 구출하여 美艦에 인계하였다.

6월 10일 : 西海岸 月乃島를 경비중인 JMS-301艇은 이날 04.00에 對岸인 金水里 一帶에 艦砲射擊을 가하여 陣地를 파괴하고 10명을 射殺하였다. 또 YMS-502艇은 이날 23.00 夢金浦海岸을 포격하였다.



<담서의 席島>

6월 11일 : YMS-518艇(장, 高景榮 대위)은 椒島一席島間을 경비하면서 이날 02.10에 席島對岸인 熊島砲陣地를 공격하여 이를 粉碎하였다.

6월 14일 : PC-701艦(장 吳禎元 소령)은 茂島를 침공하려는 海州灣 西端의 敵을 강타하여 射殺 6명, 砲臺 2개소 파괴의 戰果를 올렸는데 이곳에는 敵이 계속하여 兵力을 투입하여 茂島

를 노리고 있음에 我艦은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이날 JMS-301艇의 海州灣戰鬪가 展開되었다.

6월 24일 : 喬洞島를 경비중인 JMS-304艇(장, 朴麟俊 대위)은 同島 西쪽 海岸인 海南里 및 蜂臺山에 中共軍 1개大隊규모가 주둔하여 喬洞島를 침공하려 한다는 情報에 따라 이날 17.42에 海南里 25.00YDS까지 접근하여 全火力을 집중하였다. 戰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敵陣 3개所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미루어 敵은 큰 損失을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6월 25일 : 이날 戰亂 2週年을 앞두고 敵의 挑發을 未然에 분쇄키 위해 各級艦艇은 非常 경계에 임하였다.

6월 26일 : 西海의 椒島一席島間을 경비중인 LSSL-108艇(장, 許淵龍 대위)은 이날 22.00에 椒島에 주둔중인 Donkey 部隊員 193名을 木船에 曳引하여 海岸인 松禾郡 雲遊面 龍水里海岸(38°27'08"N, 124°57'06"E)에 上陸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航進하였다. 我艇의 엄호사격하에 上陸부대는 海岸으로 돌진하여 勇戰하였으며 敵의 迫擊砲 重砲의 對항도 만만치 않았으니 피아의 격심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敵은 2개 中隊규모의 兵力으로 反擊을 시도한 결과 Donkey 部隊는 衆寡不敵으로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我 LSSL-108艇은 速히 我遊擊隊의 철수를 命하고 迫擊하는 敵에 全艦砲를 집중하였다. Donkey 部隊도 많은 負傷者를 내었으나 이날 子正에 이르러서는 全員이 木船에 옮겨 椒島로 向하고 이때부터 我 LSSL-108艇은 더욱 치열한 砲擊을 加하니 敵의 砲火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後方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뒤에 이곳에서 탈출한 住民의 進술에 의하면 이날 敵은 105명이 射殺되고 15명이 重傷을 입었으며 Donkey 部隊員도 20여명이 負傷을 입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6월 29일 : LST-801艦(장, 金玉卿 소령)은 이날 09.35에 西海戰隊의 각함정에 보급품 수송차 출항하여 南海의 巨次群島近海上(34°19' N, 126°18' E)을 통과하다가 濃霧로 인하여 坐礁하였다. 이에 椒島海域의 경비를 마치고 南下하던 LSSL-108艇이 同艦의 救助作業에 임하였다.

6월 30일 : YMS-563艇(장, 金光植 중위)은 이날 15.30에 夢金浦해안의 敵陣地를 강타하였고, LST-801艦은 LSSL-108艇의 助力으로 이날 17.40에 離礁에 성공하여 西海로 航進하였다.

(라) 7월中の 상황

7월 3일 : 海州附近에는 近來 敵의 행동이 활발하여 특히 茂島對岸에는 견고한 砲臺를 구축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PC-703艦(장, 孫炳一 소령)은 이날 20.00에 茂島對岸을 急襲하여 砲擊을 加하였다.

7월 6일 : PC-702艦(장, 李仁錫 소령)은 이날 19.30에 大延坪島近海에서 PC-703艦의 임무를 인계 받아 JMS-309艇(장, 柳來赫 대위)과 合勢하여 경비에 임하였다.

7월 8일 : 連日 我艦艇의 활약으로 行動에 制限을 받은 茂島對岸의 敵은 다시 2개中隊규모의 支援을 받아 戰力을 增強한 듯 하였다. 이에 따라 PC-702艦은 이날 23.40에 全火力을 이곳에 집중하였는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敵은 상당한 損失을 입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7월 9일 : 西海의 椒島海域을 경비중인 YMS-513艇(장, 鄭元錫 대위)은 전날 21.00에 Donkey 部隊의 奇襲上陸을 지원하여 黃海道 松禾郡 上里面 太乙里의 해안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이날 03.15에는 다시 同艇의 지원사격밑에 Donkey 部隊員 50명을 무사히 철수시켰다.

7월 11일 : LSSL-107艇은 이날 14.00에 英艦 및 艦載機와의 合同作戰으로 椒島東南쪽 海岸인 松禾郡 雲遊面 沙器里에 있는 敵陣地에 함포사격을 加하여 塹壕 2개소와 砲臺 3개소를 파괴하였다.

7월 12일 : 長山串近海에서 掃海 및 경비를 담당중인 YMS-513艇은 이날 23.00부터 한시간에 걸쳐 松禾郡 上里面 海岸에 있는 敵砲臺를 제압하였다.

7월 13일 : PC-702艦은 이날 22.30에 茂島對岸으로 접근하였는데 이곳에는 敵의 一個大隊규모의 兵力이 集結하여 木船 1척, 傳馬船 5척, Boat 5척 등으로 島嶼奇襲을 노리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23.00에 全砲의 火力을 遼津郡 鳳鳴面 南쪽海岸에 집중시켰으며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大部分의 船舶은 파괴되었다.

7월 21일 : PC-702艦은 이날 大延坪島의 주위를 경비하다가 22.00에 茂島로 향하여서 對岸인 平陽里 一帶의 敵집결지에 한시간에 걸친 포격을 加하였다.

7월 22일 : PC-702艦은 이날도 英艦과 合同하여 茂島對岸인 黃海道 遼津郡 乾智面 및

平陽里를 강타하여 敵의 120mm海岸砲臺를 격파하였다.

또 JMS-302艇(장, 白麟基 대위)은 黃海道 延白郡 來城面 八鶴里 및 蘇湖里에서 敵의 포대를 발견하고 즉각 이곳으로 向하였다. 敵砲臺는 40MM 및 50MM直射砲로써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JMS-302艇의 함포에 놀려 침묵을 지키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는 敵射殺 15명 토치카 파괴 7개소 보급창고 파괴 3개소의 戰果를 얻게 되었다.

7월 24일 : PC-702艦은 경비임무를 마치고 PC-701艦에 인계한 뒤 南下하다가 德積島 近海에서 漁船과 충돌하여 艦首一部가 파손되어 수리중이었다.

7월 31일 : 大延坪島近海에서 경비차 항해중이던 PC-701艦은 이날 05.10에 茂島前洋 (37°44' N, 125°34' E)에서 坐礁하여 船尾가 浸水되어 수리중이었다.

(마) 8월 中の 상황

8월 1일 : 경비전황은 JMS-304艇(장, 朴麟俊 대위) 이 喬洞島근해에서, JMS-303艇(장, 朴贊極 대위)이 大延坪島근해에서 각각 敵의 島嶼침공에 대비하여 경비항해를 실시 하였으며 椒島海域에서는 YMS-501艇(장, 辛相大 중위)이 YMS-507艇(장, 楊淸石 중위)과 합세하여 掃海 및 敵陣포격을 감행하였다.

한편 茂島근해에서 坐礁中인 PC-701艦은 이날 13.00에 美艦의 구조작업으로 離礁하여 艦整備次 仁川으로 向하였다.

8월 6일 : JMS-309艇(장, 朴明三 대위)은 이날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의 敵陣을 강타하고 JMS-303艇과 합세하여 喬洞島근해를 경비하였다.

8월 9일 : PC-703艦은 JMS-309艇과 協同하여 喬洞島對岸인 碧城郡 靑龍面 鶴山里에 함포사격을 감행하여 敵의 砲臺 6個所를 파괴하였으며 10일에는 10.30부터 12.00까지 黃海道 延白郡 溫井面 昌東里에 있는 敵의 重火器中隊를 殲滅하였다.

8월 21일 : 西海岸 延白地區의 敵이 喬洞島를 侵攻하리라는 情報에 따라 我 JMS-310艇은 이날 12.00에 延白郡 溫井面 昌東里 및 海月里의 北僞軍 일개 연대와 中共軍 일개 중대의 陣地를 포격하여 粉碎하였다.

(바) 9월 中の 상황

9월 9일 : PC-702艦은 茂島近海(37°43'45"N, 125°36'40"E)에서 投錨中 이날 09.07에 對岸인 九月峰의 敵砲臺로부터 포격을 받고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敵陣을 攻陷하였는데 我艦의 砲擊으로 敵의 小隊는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9월 11일 : JMS-309艇은 喬洞島近海에서 경비중 岸對인 烽火里의 敵陣에 대해 이날 04.00부터 30분간에 걸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9월 13일 : JMS-302艇은 이날 05.00에 喬洞島에서 駐屯하고 있던 我遊擊隊인 Tiger 部隊員의 奇襲上陸을 지원하여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에 포격을 加하여 敵 射殺 7명, 負傷 9명, 塹壕破壞 4개소의 戰果를 올렸다.



<我유격대원에 기관총조작을 설명하는 해군상사>

9월 14일 : PC-703艦은 大延坪島近海에서 작전중에 있었는데 茂島對岸의 △70에 敵이 82mm迫擊砲 二門과 76mm砲 一門및 兵刀 80여명이 포탄운반 작업및 陣地를 구축중이라는 정보에따라 砲火를 집중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9월 21일 : PC-701艦은 機關修理次 曳引되어 이날 14.30에 日本의 橫須賀基地로 向하였다.

9월 27일 : LSSL-107艇(장, 李完鑑 대위)은 椒島근해(38°32'20"N, 124°51'40"E)에서 坐礁한 美海兵隊 LCM艇을 救助하여 09.00에는 離艦시키고 경비를 계속하였다.

9월 29일 : 大延坪島근해에서 作戰中인 PC-702艦은 이날 茂島및 六島對岸의 敵陣(平陽里부근)으로부터 포격을 받은 결과 敵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날 19.45부터 21.00까지 이곳에 命中彈을 퍼부어 敵을 粉碎하였다.

(사) 10월중의 상황

10월 1일 : 西海戰隊의 경비현황은 PC-702艦이 大延坪島근해에서, JMS-305艇은 喬洞島近海에서, YMS-503艇및 515艇은 椒島근해서 각각 해안선을 봉쇄하였으며 LSSL-108艇과 임무를 교대한 LSSL-108艇은 椒島-席島間의 航路차단에 주력하였다.

10월 5일 : YMS-503 및 515艇은 이날 敵이 부실한 機雷區域을 발견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A區域 : 38°29'02"N, 124°54'03"E

38°29'02"N, 124°56'00"E

38°26'04"N, 126°54'02"E

38°26'04"N, 124°52'05"E

B區域 : 38°11'05"N, 124°25'00"E

38°11'05"N, 124°45'05"E

38°16'07"N, 124°48'00"E

38°16'07"N, 124°48'00"E

同艇은 上記 A區域에서 機雷 4개중 3개를 폭파시켰으며 B區域에서도 4개중 1개를 爆發시켰다.

10월 17일 : 大延坪島近海에서 작전중인 PC-703艦은 敵이 龍媒島를 기습하리라는 정보에 따라 同島對岸인 靑龍面 一帶를 砲擊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10월 18일 : 黃海道 襄津郡 鳳鳴面 후령동(茂島北쪽對岸)에는 北傀軍 2개 中隊가 주둔하면서 砲臺에서 我艦의 行동을 방해하므로 PC-703艦은 이날 19.05부터 19.40까지 이곳에 砲火를 집중하였는데 戰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큰 損失을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10월 22일 : 西海의 大延坪島近海에서 작전중인 PC-703艦은 이날 惡化된 氣상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계속하였으며 이날 01.00에는 UN艦隊의 指示에 따라 低尾島(龍媒島 北쪽所在) 上空에 조명탄 8발을 發하였다. 이는 干潮를 이용하여 敵의 龍媒島奇襲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날 05.00까지 경계를 강화하자 敵의 침공계획은 좌절되었다.

또 喬洞島-江華島間의 水路를 차단하고 있는 PCS-201艇(장, 崔英燮 대위)은 이날 荒天으로 인하여 投錨警備中 激甚한 潮流에 밀려 stoper가 결단되는 損失을 보았다.

10월 23일 : PCS-201艇은 전날에 파손된 stoper를 수리하여 계속 강화하였는데 이날 16.17에 喬洞島 北쪽對岸으로부터 敵의 砲擊을 받아 30分間에 걸친 砲擊戰을 加하였으며 戰果는 알수 없으나 敵의 砲火가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 파괴된 것으로 推測되었다.

10월 26일 : PCS-205艇(장, 鄭一燦 대위)은 이날 延坪島일대의 海역에서 경비에 임하다가 雁鴨島 西北쪽 海안인 東江面에서 敵의 보급차량을 발견하고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10월 29일 : PC-702艦은 이날 PCS-205艇과 합세하여 延坪島近海에서 海岸의 敵陣을 포격하였다.

(아) 11월중의 상황

11월 1일 : 西海戰隊의 경비현황을 살펴보면 PC-702艦은 延坪島近海에서, 또 PCS-



<席島에서 위급환자가 UN해군에 의하여 후송되고 있다>

203艇(장, 金炯培 대위)은 喬洞島近海를 각각 담당하였으며 椒島-席島間에는 YMS-503艇 및 515艇이 掃海戰을 담당하였고 LSSL-107艇도 合勢하여 敵陣포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大靑島에서는 FS-901艇(장, 姜景遠 대위)이 PT編隊의 母艦으로 PT-25艇 및 PT-27艇의 기습전을 지원하였다.

또 西海戰隊와 各島嶼에 보급품을 수송키 위해 출동한 LST-805艦(장, 趙丁佑 소령)은 木浦근해에서 계속 항해중에 있다.

11월 2일 : PC-702艦은 茂島北쪽 對岸인 平陽里에서 北傀軍 60여명이 622mm砲 二門으로 무장하고 陣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날 16.27부터 17.20까지 砲火를 加하였다.

또 PT-25艇(장, 洪起京 중위), 27艇(장, 金龍水 중위)의 編隊는 이날 22.00에 月乃島 東北쪽 海岸인 德洞의 敵陣을 강타하였다.

11월 3일 : PT編隊는 이날 03.00에 黃海道 長淵郡 海岸面 菩叉嶺里의 敵陣을 기습하였는데 同 300YDS까지 접근하여 一帶를 炎上토록 하였으며 夜暗으로 戰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LST-801艦은 이날 21.00嶽島에서 輸送作業을 끝내고 白翎島에 補給次 出航하였다.

11월 4일 : LST-801艦은 03.00에 白翎島에 入港하여 補給物資 수송작업에 임하였으며 PT-25 및 27艇은 18.00에 長山串近海에서 경비에 임하다가 白沙洞의 敵陣을 砲擊하여 兵舍 3棟을 파괴하였다.

11월 6일 : 5일부터 惡化된 氣象條件으로 이날 대부분의 艦艇들은 경비를 중단하고 避航하여 대기중에 있었다.

11월 10일 : PT-25, 27艇의 編隊는 이날 美艦 PF-422號와 協同하여 長山串-登山串(靈津郡 興嶺面)間에서 海岸線을 봉쇄하고 간헐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10월 11일 : 이날도 PT編隊는 長山串-登山串에서 경비에 임하다가 이날 05.00에는 비바람이 거센 惡天候에도 불구하고 Radar를 이용하여 九美浦(長淵郡 大救面)에 접근한 뒤 40mm砲 및 Rocket 砲擊을 加하여 敵의 小隊集結地를 強打하였다.

11월 12일 : 이날 10.00에 PT-23艇(장, 韓相鎬중위)은 PT-25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PT-27艇과 合勢하여 기습작전에 대비하여 大靑島에 待機하였다.

11월 15일 : 長山串一帶를 봉쇄 중인 PT-23, 27艇의 編隊는 이날 05.00에 中共 1개 중대 규모와 北傀 1개 중대규모가 接洽하여 海岸線을 通해 我艦을 노리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長淵郡 大救面 金水里의 용수동 및 오반동에 Rocket彈을 비롯한 砲火를 集中하였다.

이날의 奇襲戰은 敵의 虛를 찌른 것으로서 敵射殺 30명 砲臺 3개소 파괴 建物 5개소를 大破하였으며 敵은 반격할 여유도 없이 퇴각하고 敵陣의 주위에는 砲煙만이 자욱하였다.

11월 16일 : PT-23, 27艇의 編隊는 이날 05.00에 靈津郡 龍泉面 定技洞의 海岸 500YDS까지 接近하여 敵의 포대 및 1개 小隊兵力에 대하여 奇襲攻擊을 실시하였으며 포대를 大破하자 敵은 後方으로 退却하였다.

11월 17일 : 奇襲作戰으로 용맹을 떨친 PT-23, 27艇에는 이날 UN西海封鎖戰隊사령관이 來訪하여 本編隊의 노고를 致賀하였다.

11월 18일 : PT編隊는 이날도 07.30에 大靑島를 출항하여 九美浦(黃海道 長淵郡 大救面)를 기습하였다. 敵은 곧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我艦의 砲火에 밀려 支離滅裂되고 말았으며 이 전투에서 敵의 陣地 3개소와 건물 4개소를 파괴하였다.

11월 20일 : 西海岸의 椒島近海를 掃海中인 YMS-501艇 및 YMS-513艇은 이날 11.00까지 다음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8°28'46"N, 124°50'15"E
- B. 38°26'32"N, 124°47'45"E
- C. 38°26'37"N, 124°47'05"E
- D. 38°29'18"N, 124°46'44"E
- E. 38°29'48"N, 124°47'35"E

◇ 상황도 제88호 席島, 椒島부근掃海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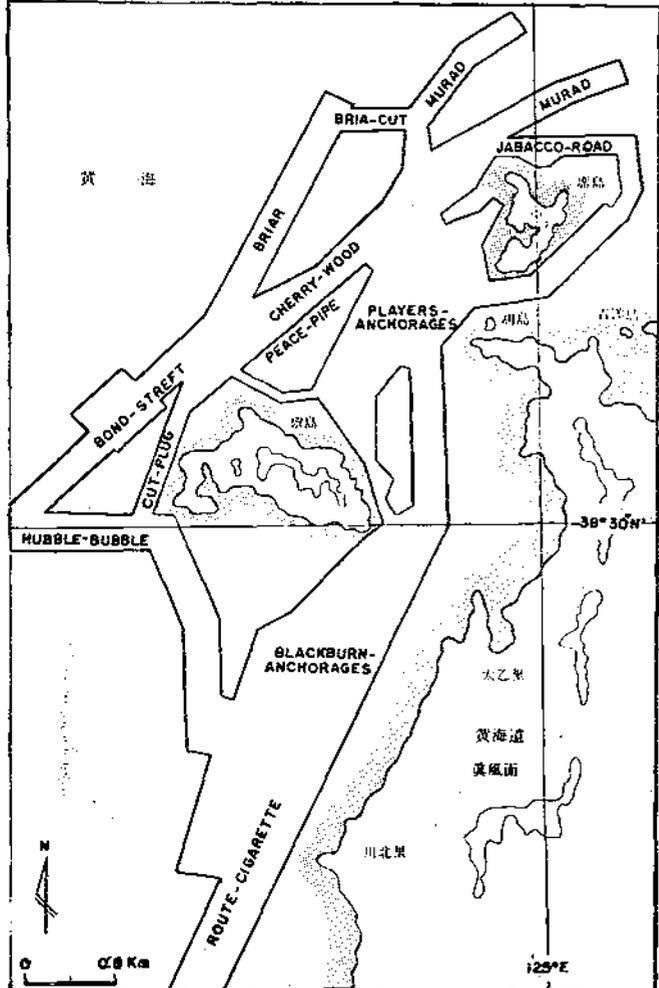
또 PT-23, 27號艇은 이날 06.00 未明을 기하여 長淵郡 海岸線 700YDS까지 接近하여 敵의 포대 및 基地를 기습공격하여 敵의 陣地 5개소와 건물 3개소를 파괴하였다.

11월 21일 : 椒島近海에서는 YMS-501, 513艇이 16.00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8°25'30"N, 124°47'00"E
- B. 38°27'33"N, 124°47'00"E
- C. 38°35'24"N, 124°46'24"E
- D. 38°35'24"N, 124°40'00"E
- E. 38°29'39"N, 124°40'00"E
- F. 38°39'36"N, 124°45'36"E

11월 22일 : PT-23艇(장, 韓相鎭중위), 27艇(장, 金龍水중위)은 이날 04.20에 長淵郡 大救面 九美浦 東北 1500 YDS 지점에 위치한 北傀軍 集結地 및 포대에 30分間에 걸쳐 포격을 실시하였다. 이곳에서 敵의 포대 3개소와 건물 5개소를 파괴하고 다수의 敵을 射殺하는 戰果를 올렸다.

11월 24일 : 黃海道 蕤津郡 龍泉面 龍岩里의 해안에는 敵 1개 中隊兵力이 집결하여 Boat 15척으로 我軍이 확보고 있는 白翎島를 기습상륙할 목적으로 훈련중에 있다는 情報에 따라 PT-23, 27艇의 編隊는 이날 23.00에 砲火를 퍼부어 이를 粉碎하였다.



11월 25일: 계속하여 이날 未明을 기해 PT-23, 27艇의 編隊는 龍岩里에 포격을 加하였으며 18. 40에는 奇襲作戰의 임무를 마치고 각각 鎮海의 母港으로 廻航하였다.

11월 26일: PC-703艦은 鎭津郡 興媚面의 板里와 長峴山一帶에 敵 2개 중대병력이 巡威島를 침공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17. 00부터 18. 00까지 포격을 加하였으며 다음 날 01. 00-05. 00에도 敵의 上陸을 저지하기 위하여 照明彈을 발사하였다. 이날의 포격으로 同艦은 敵射殺 24명, 陸地 파괴 3개소의 戰果를 올리게 되었다.

11월 27일: 東海에서는 JMS-309艇과 FS-905艇이 그리고 西海에서는 LST-806艦과 JMS-303艇이 각각 島嶼部隊 및 出動艦艇에 補給品을 수송하였다.

11월 30일: PC-703艦(장, 孫炳-소령)은 이날 05. 30부터 06. 40까지 鎭津郡 鳳鳴面 平陽里 西岸에 위치한 敵陣을 강타하여 敵의 포대 3개소와 迫擊砲 2門을 파괴하였으며 09. 00에는 PC-702艦에 임무를 인계하고 鎮海로 向하였다.

(자) 12월中の 상황

12월 1일: 西海戰隊의 海域別 경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PC-702艦은 延坪島-茂島間을 항해하면서 주로 茂島北岸의 敵勢에 대처하였고 PCS-203艇(장, 金桐培대위)은 延坪島-大脛鴨島間에서 碧城郡 溝龍面의 해안선에 포격을 加하면서 경비하였고, LSSL-108艇은 椒島-席島間을, YMS-510 및 507艇은 椒島以北의 海역을 각각 경비하였다. 또 이날 YMS-510艇은 항해 도중 荒天으로 인하여 船底가 浸水되어 약간의 食糧損失을 보기도 하였다.

12월 6일: 椒島近海에서는 YMS-510艇 및 507艇이 이날 08. 00부터 12. 00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8°25'05"N, 124°45'00"E
- B. 38°25'05"N, 124°48'00"E
- C. 38°26'00"N, 124°48'00"E
- D. 38°29'00"N, 124°50'00"E

12월 7일: PC-703艦은 延坪島 및 茂島近海를 경비하면서 이날 02. 10에 黃海道 鎭津郡 鳳鳴面의 王隱里海岸의 敵陣에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12월 9일: 이즈음 席島近海에서는 敵이 發動船 및 JUNK船等으로 席島에 기습상륙을 도모하려 한다는 정보에 따라 LSSL-108艇과 YMS-507, 510艇이 席島-椒島間에서 敵海岸線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12월 10일: 長山串에서는 YMS-507, 510艇이 이날 09. 00부터 12. 00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 A. 38°34'N, 124°41'E
- B. 38°45'N, 124°44'E

C. 38°36'N, 124°46'E

D. 38°30'N, 124°41'E

또 13.00부터 16.00까지의 掃海區域은

A. 38°42'40"N, 124°52'25"E

B. 38°42'15"N, 124°53'15"E

C. 38°36'00"N, 124°47'50"E

D. 38°36'35"N, 124°49'58"E 의 內部海域이다.

12월 12일 : 延白地區의 我軍駐屯島嶼에 대한 敵의 잦은 海안도발을 막기 위하여 PT—23艇(장, 韓相鎬 중위)과 PT—25艇(장, 洪起京 중위)의 PT編隊(장, 黃汀淵 대위)는 海燕作命 제12호에 의거하여 이날 07.00에 鎭海를 出港하여 大靑島로 向하였다. 또 FS—901. 艇도 PT編隊의 병참지원을 위해 大靑島로 向하였다.

12월 13일 : YMS—505, 510艇은 이날 椒島海域에서 12.30까지 다음의 內部海域을 掃海하였다.

A. 38°20'50"N, 124°43'06"E

B. 38°20'56"N, 124°43'06"E

C. 38°39'30"N, 124°51'09"E

D. 38°29'30"N, 124°45'00"E

E. 38°25'00"N, 124°45'00"E

또 PT編隊의 母艦인 FS—901艇 및 PT編隊는 이날 19.20에 大靑島에 入港하여 대기하였다.

12월 16일 : PC—703艦은 이날 甕津郡 鳳鳴面 平陽里 해안의 敵이 茂島를 기습상륙하리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敵陣에 조명탄을 발사하면서 敵의 反應을 기다렸으나 敵은 我艦의 事前行動에 上陸을 포기한 듯 하였으므로 계속 경비에 임하였다.

또 이날 PT編隊(장, 黃汀淵 대위)는 大靑島를 出港하여 長山串—巡威島間을 순찰항해하던중 麒麟島의 위급환자를 白翎島로 輸送하고 계속 敵情探索에 주력하였다.

12월 18일 : PC—703艦은 전날 21.30부터 이날 05.00까지 茂島近海에서 茂島守備隊가 對岸의 敵陣地(후렴동)에 포격하는 것을 지원해서 조명탄 11發과 AAF彈 7發을 발사하였으나 戰果는 미상이다.

12월 19일 : PC—703艦(장, 孫炳一소령)은 계속 敵陣에 대하여 18.20부터 19.05까지 조명탄 10발을 투하하였다.

한편 PT編隊(장, 黃汀淵 대위)는 이날 07.00에 吾叉鎭里(長淵郡 海岸面)의 敵陣에 기습공격으로 Rocket 砲火를 작열시켰는데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21일 : 이날도 PT 23 및 25艇의 編隊는 編隊長의 지시대로 기습전을 전개하였는데 07.15에 九美里(長淵郡 大救面 所在)해안 1,000 YDS까지 접근하여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12월 22일 : 계속하여 PT編隊는 長山串—巡威島間을 경비항해 하면서 敵陣기습을 노렸는데 이날 06.00에는 邑底里(甕津郡 龍泉面, 37°57'05"N, 125°02'00"E)의 敵陣에 全砲門을 열어 공격을 가한 결과 포대를 제압하고 건물 3棟을 파괴하였다.

12월 23일 : 이날도 06.05에 PT-23, 25艇의 編隊는 甕津港(37°52'N, 125°09'E)을 포격하였으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25일 : PT-23, 25艇은 이날에도 계속하여 甕津港의 邑底里(37 53 N, 129 09 E)를 포격하여 건물 4個所를 파괴하였다.

12월 29일 : PT-23, 25艇의 編隊(장, 黃汀淵 대위)는 이날 16.00에 長淵郡 海安面 岬叉嶺里의 敵集結所를 강습하였다.

12월 31일 : 西海戰隊는 PC-703艦이 延坪島—茂島間을 봉쇄하였으며 이날 19.15에는 茂島對岸을 強打하였다.

또 PCS-203艇은 喬洞島를 PCS-205艇은 龍媒島를 각각 경비하고 椒島 및 席島海域에서는 LSSL-107艇, YMS-513, 507艇이 해안을 경비하면서 敵陣砲擊을 감행하였다. PT 23, 25艇編隊의 활약으로 敵의 島嶼侵攻은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으며 同編隊는 계속하여 長山串—巡威島間에서 순찰 항해를 실시하였다.

§ 戰 訓

기간중 我艦의 非戰鬪 損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5월 21일, PF-62艦(장, 申宗燾 중령)은 이날 21.30 美輸送船 Baker號와 충돌하여 艦體가 大破되고 戰死 12명, 負傷 13명의 損失을 보았다.

2) 6월 29일, LST-801艦(장, 金玉卿 소령)은 南海의 巨次群島近海(34°19' N, 126°18' E)에서 坐礁하였다.

3) 7월 24일, PC-702艦(장, 李仁錫 소령)은 德積島近海에서 漁船과 충돌하여 船首의 一部를 破損하였다.

4) 7월 31일, PC-701艦(장, 吳顯元 소령)은 茂島近海에서 坐礁하여 船尾에 浸水를 보았다.

5) 8월 21일, PT-23艇(장, 朴成極 중위)은 美艦과 충돌하여 艦首砲臺의 一部가 破損되었다.

6) 9월 24일 : YMS-506艇(장, 金熙年 중위)이 坐礁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我艦은 기간중 敵과 싸우지 아니하고도 艦艇破損 5척, 戰死 21명 負傷 13명의 損失을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事故는 艦橋當直士官의 근무 소홀과 不注意로 起因되는 것이며 모두가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勿論 艦艇導入이 오래지 않아 充分한 訓練을 거치지 않고 實戰에 참가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계속되고 반복되는 훈련으로 見視근무자와 當直士官의 養成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UN海軍의 活動 (1952년 4월 1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참조: 별첨부도 제 27 호

가. 水豊댐 폭파작전 (6. 23)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R.P. Briscoe	VA-195편대장	중령	N. Mackinnon
第7艦隊	사령관	중장	J.J. Clark	VA-65편대장	중령	G.A. Sherwood
第77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A. Soucek	VF-24편대장	소령	W.A. Jernigan, Jr
第95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J.E. Gingrich	VF-191편대장	중령	J. Sweeny
艦載機隊	총지휘관	중령	A.L. Downing	VF-112편대장	중령	J.V. Rowney

(2) 전투 전의 개황

韓國戰 開始 以來로 UN海軍의 役割은 敵의 補給路를 차단하고 敵後方을 攪亂하여 前線의 補強을 막아 我地上軍을 支援함으로써 戰勢를 勝利로 이끄는 동시에 産業施設은 可能한 限 파괴하지 않고 終戰으로 通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UN軍의 평화적인 기본방침을 外面한 北傀는 UN海軍의 艦砲와 艦載機의 焦熱속에서도 損壞된 곳의 수리작업을 강행하여 비록 遲遲하나나 前線에 대한 兵力投入 및 兵站支撥을 계속하였으므로 結局 UN艦隊의 遮斷作戰은 所期の 實效를 充分히 거두지 못하고 高位層에서 크게 반성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리하여 作戰의 方向은 敵의 輸送路遮斷에서 敵의 심장부를 강타하여 主要軍事産業施設을 爆破하는 作戰으로 큰 轉換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보다 빠른 시일안에 敵의 戰爭遂行能力을 喪失토록 하여 終戰으로의 巨步를 내딛게 된 것이다. 北傀의 主要産業施設은 發電所와 鑛山, 그리고 油類貯藏所 기타 工場地帶로서 中共이 韓國에 개입한 1950년 10월부터 이러한 目標에 대한 공격이 시도되었으나 擴戰을 피하려는 UN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발적인 攻撃만이 전개될 뿐으로 實效를 보지 못하다가 休戰會談이 계속 長期化할 전망이 짙어 지자 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戰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같은 결정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水豊댐은 北韓의 가장 큰 發電施設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發電量은 北韓全域은 勿論이고 滿洲에까지 送電되어 中共의 비행장, 광산 기타 工場의 原動力이 되었으니 이러한 水豊댐

의 폭파계획이야말로 기간중 UN海軍活動의 白眉라 할 것이다.

이 水豊댐의 공격계획은 처음에 제95기동부대에서 시작되었다. 즉 同部隊 情報將校 Nello D.S. Andrews소령은 사령관 G.C.Dyer소장에 대한 Briefing에서 설명하기를 『1952년 2월 21일 元山濟의 大島에서 脫出한 北傀 兵器監 李逸 준장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UN軍이 그들의 發電施設에 대하여는 공격을 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水豊댐의 電力을 이용하여 鴨綠江 주변에 많은 工場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報告를 받은 사령관은 즉시 極東軍 사령관에게 水豊댐 공격의 許可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回信은 研究中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 3年末 제95기동부대의 사령관으로 J.E. Gingrich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일단 주춤했던 계획이 활발한 진전을 보았으니 4月初에는 第95機動部隊의 戰艦 Missouri艦上에서 極東軍 사령관과 第7艦隊 사령관 그리고 제95기동부대 사령관이 連席하여 水豊댐에 대한 공격方針을 決定하고 本國의 승인을 얻기에 이르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水豊댐의 공격을 위하여 UN軍側에서는 海軍, 空軍, 海兵航空隊의 合動作戰이 계획되었으니 그 空襲規模는 開戰以來 最大의 것이었다.

즉 海軍은 美第7艦隊 사령관 J.J. Clark중장의 지휘아래 4척으로 구성된 航母機動部隊가 編成되었다.

第7艦隊의 旗艦인 航空母艦 Boxer號艦上에서는 攻擊隊의 총지휘를 맡은 A.L. Downing 중령以下 全조종사들이 집결하여 공격을 위한 마지막 細部計劃을 檢討하였으니 이 날이 6월 22일이었다.

이리하여 병기적재와 비행 Schedule, 연료공급, 攻擊順序와 攻擊方向等 모든 準備를 完了하였으며 D-Day H-hour는 다음 날인 23일 09.30이었다. Downing중령은 조종사들에 대한 Briefing에서 目標은 水豊Dam 그 자체보다도 주변의 發電施設과 變電所, 그리고 水門등이며 주위의 다른 12개의 發電所에 대하여도 攻擊을 加할 것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水豊댐은 發電量이 世界 第4位를 자랑할 만큼 많은 시설과 이를 방어하는 對空砲 또한 重砲 28門과 自動砲 43門이 配置되어 있으며 불과 35mile밖에 떨어지지 않은 安東縣에는 MIG-15機 250여대가 도사리고 있어 이곳을 空襲하기 위해서는 많은 犠牲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치밀한 계획과 노련한 조종사 없이는 그 成功率이 적을 것이지만 UN海軍은 이러한 阻害要因에도 不拘하고 당초 계획대로 攻擊을 斷行키로 하였다.

6월 23일의 攻擊豫定時間이 가까와지자 관제탑에 날아든 제5공군의 氣象報告는 48시간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正午가까이에 들어온 再次 氣象報告는 水豊댐주위의 氣象이 점차 好轉되어

14.00를 H-hour로 決定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14.00, 드디어 全艦載機는 莫重한 임무를 안고 發進을 始作하였다. 航空母艦 Boxer號의 VA-65編隊(장, G.A. Sherwood 중령)와 航空母艦 Princeton號의 VA-195編隊(장, Neil Mackinnon 중령) 그리고 航空母艦 Philippine Sea號의 VA-115編隊(장, C.H. Carr 중령)의 AD機 포함 35대中的 31대는 각각 5,000LBS의 爆彈을 적재하였으며 나머지 4臺의 AD機는 非常時를 대비하여 4,000LBS의 爆彈과 事故 조종사를 救出하기 위한 Survival Bomb를 적재하고 각각 北上하였다.

곧이어 航母 Boxer號의 VF-24編隊(장, W.A. Jenigan Jr. 중령)와 航母 Princeton號의 VF-191編隊(장, John Sweeng 중령) 및 航母 Philippine Sea號의 VF-112編隊(장, James V. Rowney 중령)의 F₃F機 35臺가 뒤를 이었는데 그중 24臺의 F₃F(戰爆機)는 500 LBS의 爆彈과 爆擊機 護送用 彈藥을 장착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爆擊을 위한 積載를 한채로 水豊댐을 目標로 出擊하였다.

氣象도 점차 맑아져 조종사들의 武運을 빌어주는 듯 하였으며 水豊댐은 이미 공격엔 안성맞춤의 기상으로 變化하였다. 攻擊隊는 低空飛行으로 敵의 Radar탐지를 피해 疾風같이 殺到하였다. 이미 水豊댐의 上空에는 제5空軍의 F-86E Saber Jet機 84臺가 MIG機에 대비하여 선회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情報에 의하면 安東縣 一圓에는 200 여기의 MIG機가 待機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5.55에 이르러 Downing중령의 命숨에 따라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는 일제히 高度를 높여 급강하 爆擊을 시작하였다. 美空軍의 F-84 Thunder機가 高射砲에 대한 制壓攻擊을 加하자 뒤를이어 Downing 중령이 지휘하는 Boxer號의 艦載機와 그 뒤에는 Mackinnon 중령이 지휘하는 Princeton號의 艦載機隊가 그리고 Carr중령이 指揮하는 Philippine Sea號의 艦載機가 뒤따라 爆擊에 加擔하였다. 이당시 水豊댐의 施設은 發電所建物이 가로 500 feet, 세로 80 feet로 놓여 있으며 그밖의 變電所 Switching施設과 水門이 있었는데 攻擊隊는 3,000feet 上空에서 일제히 爆彈을 投下하고 1,500feet 高度에서 機銃을 掃射하여 敵의 高射砲陣地와 高射機關銃은 미친듯이 應射하여 空中에 煙幕을 폈으며 地上에 哨煙이 低迷하였다.

Downing 중령의 명령에 따라 조종사들은 거듭 댐 이외의 시설물들을 폭파하였는데 마침 北에서 南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연기를 제거하여 爆擊은 더욱 순조로웠다. 發電所는 그 內部에서 二重三重으로 連鎖的인 爆發이 있었는데 그외의 시설들도 完破되었으며 北傀의 對空砲는 모든 機能을 喪失하였고 댐 주위는 活火山의 噴火口처럼 타올랐다. 불과 180초가 경과하자 全艦載機는 900여 ton의 爆彈을 目標物에 投下한 다음 機首를 돌렸는데 처음 敵의 對空砲擊때에 격추된 5대를 제외하고 全機가 무사히 歸還하였으며 특히 VA-115編隊의 M.K. Lake 중위가 이끄는 艦載機는 敵彈에 被擊되어 오른쪽 바퀴에 불이 일어

왔으나 끝까지 침착하게 조종하여 金浦基地(K-14)에 安着하였다.

한편 이날의 攻撃이 무엇보다 成功할 수 있었던 要因은 敵機의 激撃이 없었다는 것인데 아마도 그들은 UN軍의 攻撃隊가 安東縣의 MIG-15基地를 攻略하는 것으로 誤判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4) 전투 후의 개황

UN艦載機조종사들의 오랜 전투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MIG機의 作戰上空인 水豊岬空襲은 매우 어려운 一戰이며 이곳의 對空防禦 또한 莫強하였으나 치밀한 계획아래 수행된 이 공격은 可히 逸品이었으니 그 다음 날까지도 水豊岬의 上空에서는 黑煙이 그칠 줄 몰랐으며 北韓 全地域의 電力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敵都 平壤은 모든 시설이 生産能力을 잃을 정도이며 鴨綠江주변에 있는 大小의 地下工場도 生産능력을 喪失하고 滿洲와 北韓全土는 事實上 마비상태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한편 美海軍參謀總長 William Fichteler대장은 水豊岬 폭파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致賀의 Message를 第7艦隊 司令官 및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 조종사에게 傳達하였다.

『本人은 貴部隊가 北韓의 發電施設에 대하여 과감한 공격으로 그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였다는 紙上報道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貴部隊의 勝利는 全將兵과 특히 空襲에 참가한 조종사들의 영예는 물론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 聯合軍이 勝利를 爭取할 수 있는 分水嶺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貴部隊의 계속적인 武運을 빕니다.』

또한 北傀는 Radio放送을 통하여 水豊岬은 軍事施設이 아니라 平和的 産業施設이며 이를 爆擊한다는 것은 비겁하고 非人道的 處事라고 非難하였으니 北傀가 이 一戰에서 입은 피해는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平壤에 대한 空襲(7. 11)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7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H.E. Regan
 第95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J.E. Gingrich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
 장, 대령 W. P. Watson

航空母艦 Princeton艦 장, 대령 P.D. Str-
 oop
 艦載機隊 총지휘관 중령 William De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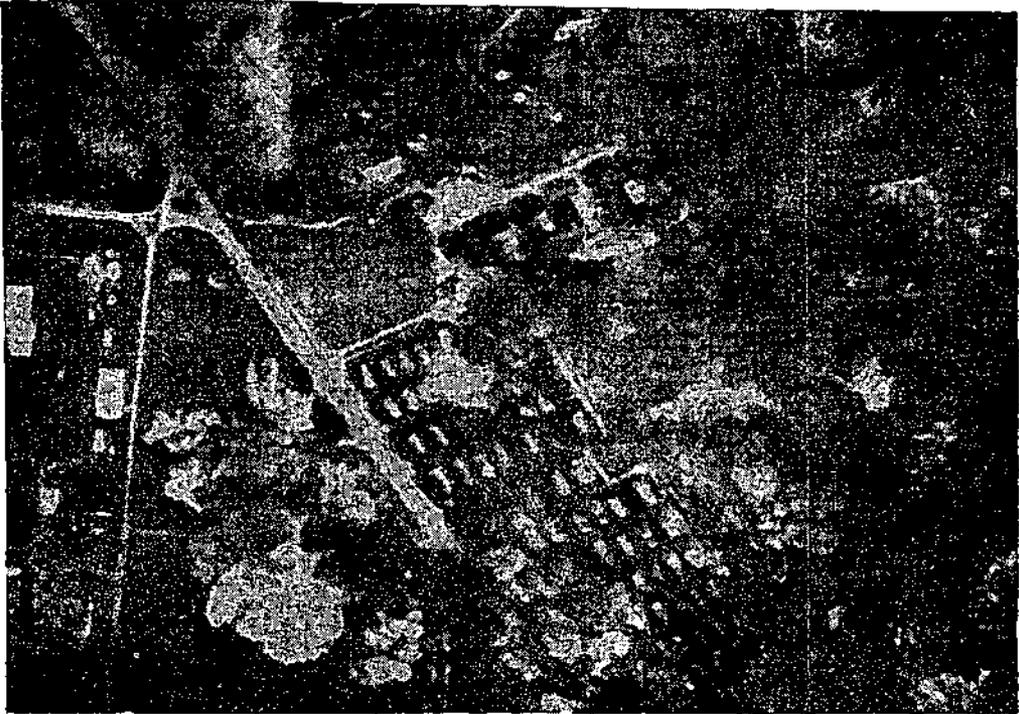
(2) 전투 전의 개황

이해 6월 23~24 양일간에 실시된 UN海軍 艦載機의 水豊岬 공격이 北傀에 미친 心理的

效果는 休戰會談의 席上이나 平壤에서 현저히 나타났으며 韓國戰爭에서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것이다. 平壤放送은 이 공격에 대하여 계속 非難의 화살을 퍼부었으니 敵은 매우 당황한 듯 하였다.

그러나 이미 北傀의 心臟部를 強打하기로 決心한 UN軍의 방침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 더욱 效果的인 계획이 東京에 위치한 極東空軍司令部에서 進行되었으며 海軍에서는 航空母艦 Princeton號와 Bon Homme Richard號가 이에 참가하였다.

공격의 목표물은 平壤의 40여개의 軍事施設로써 軍需品積藏所와 橋梁을 비롯하여, 工場群과 陸軍司令部等이며 休戰會談으로 공격이 지연되어 왔으나 水甞댐의 폭파를 비롯한 UN軍의 계획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해 7월 11일로 D-Day를 결정하였다.



<UN艦載機에 의하여 평양이 불타는 광경>

그러나 平壤空襲도 많은 難題를 안고 있었으며 이제까지의 전투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많은 비행기가 平壤 上空에서 격추되었고 이 지역의 對空砲火는 北韓에서 가장 熾烈하여 사진 분석에 의하면 48개의 重砲와 100여개가 넘는 Radar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포화가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더우기 平壤에는 포로수용소가 위치하여 이 지역은 空襲에서 제외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平壤空襲을 敢行할 UN軍의 노력은 實施되었으니 美 제5空軍과 美海兵航空隊 및 海軍艦載機의 合同作戰으로 결행한 空襲이었다.

이리하여 UN海軍은 두척의 航母에서 90여대의 艦載機를 동원하고 주로 제5空軍의 엄호 아래 爆擊任務를 遂行하였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東海의 元山近海에서 合勢한 航空母艦 Princeton號와 Bon Homme Richard號는 각각 출격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하였다. 7월 9일, Bon Homme Richard號의 艦上에는 제77기동부대의 사령관 H.E. Regan 提督과 그의 參謀陣 그리고 Princeton號의 CVG-19 편대 지휘관인 William Denton 중령 등이 모여 最終作戰會議를 열고 既存攻擊節次를 실시하기로 合意하였는데 즉, 美空軍의 F-84 Thunder Jet機가 敵의 對空砲를 先制攻擊한 後에 F,U Corsair機와 AD Skyraiders機가 뒤따라 敵의 施設物에 爆彈을 투하하는 順序로 되었다.

7월 11일 08.31, 드디어 두척의 항공모함에서 91대의 艦載機는 發進을 실시하였다. Bon Homme Richard號에서 45대와 Princeton號에서 이륙한 46대의 전투기들은 元山前洋의 麗島上空에서 合勢하여 高度를 18,000 Feet로 유지하면서 平壤으로 直向하였다. 출발시에 VF-72編隊의 E.B. Conrad 소위가 조종하는 F,F-2機가 갑작스런 故障으로 海上으로 不時着하였으나 Princeton號의 Hel機에 의해 구출되었고 나머지는 順調롭게 출격하였으며 氣象도 습도와 전조의 기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주 좋은 편이었다. 平安南道 陽德上空을 지날 때에 敵의 對空砲 攻擊을 받아 F,U Corsair機 1대가 被彈되었으나 심하지 않아 계속 飛行하였다.

이들 艦載機隊의 攻擊은 첫번째로 실시토록 되어 있고 그 目標物은 平壤南東쪽 여러 지점에 있는 포로수용소 부근의 彈藥補給所와 輸送部隊, 그리고 司令部와 兵舍를 비롯하여 工場群과 機關車整備所 및 車庫등이었으며 다른 目標物은 美第5空軍, 美海兵航空隊, Australia 空軍 그리고 제95機動部隊의 航母 HMS Ocean號의 艦載機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들 UN空軍의 活動은 MIG機와의 空中戰에 대비하고 艦載機의 폭격을 可能토록 對空砲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艦載機隊가 咸川上空을 지날때부터 敵의 고사포 사격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이 Radar에 의하여 自動적으로 조절되므로 정확하고 치밀하였다. 드디어 平壤上空에 이르자 大同江의 큰 물굽이로 인하여 목표물은 쉽게 눈에 들어왔고 고사포 제압을 위한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첫번 공격으로 5개소의 고사포 陣地가 파괴되고 2개소 이상을 全破하였다. 그러나 我軍機도 몇대가 피격되었는데 E.P. Cumming이 조종하는 AD機는 後翼에 피탄되어 격추되고 G.G. Jeffries가 조종하는 Corsair機는 左翼에 직격탄을 맞았으나 다행스럽게 폭발되지 않아서 계속 폭격에 참가하였다.

Bon Homme Richard號의 艦載機들은 주로 機關車庫와 修理所 및 彈藥庫였는데 F.H.

Ervin 소령, W.M. Harnish 소령, J.A. Ryes 중위 그리고 P.G. Merchant 소위가 이끄는 함재기들은 列車修理所를 強打하고, W.E. Teufer 소령과 W.L. Harries 대위는 원형으로 된 列車集積所를 여지없이 격파하였을뿐 아니라 彈藥庫에도 命中彈의 洗禮를 퍼부어 주위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我軍機의 損失도 속속 일어났으니 VA-195編隊의 L.F. Dutemple 소령이 조종하는 AD機가 급강하하다가 격추되고 VF-193編隊의 Cortair機 2대도 피격되었으나 金浦비행장(K-14)에 安着하였다.

海軍艦載機隊가 몇차례의 空襲을 마치고 航母로 돌아갈 때에 艦隊로부터 받은 氣象情場는 東海岸의 날씨가 갑자기 惡化되어 視界가 500YDS 이내로 떨어져 着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一部는 水原과 江陵으로 向하고 나머지는 母艦으로 向하였다. 이들은 惡條件의 氣象에도 불구하고 Y.E.(자동전파유도장치)에 의하여 2분간격으로 航母着陸에 성공하였다.

이날 나머지 공격계획은 기상관계로 모두 취소되고 이로써 평양공습은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4) 전투 후의 개황

이날의 空襲으로 敵都平壤은 이틀동안이나 Radio放送이 中斷되었으며 UN艦載機들이 담당한 停車場과 機關車庫 및 鐵道工場은 60% 이상이 파괴되었음이 사진분석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이날 平壤에 投下된 폭탄만 하여도 11시간에 1,400ton의 爆彈과 23,000 gallon의 Napalm彈이었으며 大部分이 目標物에 命中되어 1,500여개의 建物이 파괴되고 900여棟의 建物에 피해를 주었으며 한 建物은 防空壕에 命中되어 北傀의 많은 高位幹部들이 負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北傀는 이날의 공격이 곧 休戰會談의 失敗에 대한 보복이라고 非難하였는데 이로 因하여 敵의 休戰會談에 임하는 態度가 달라지게 될 듯 하다.

다. 新德광산과 吉州에 대한 空襲(7.27~7.28)

(1)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
艦長 대령 P. W. Watson

航空母艦 Princeton號
艦長 대령 Paul D. Stroop

(2) 전투 경과의 개요

水豊면 폭파와 平壤에 대한 空襲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UN軍의 敵心臟部에 대한 強打

計劃은 더욱더 치밀하게 進行되었다.

사실 敵都 平壤과 주위의 軍事集結地 그리고 水壙댐을 비롯한 주요 發電所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攻擊의 目標對象이 없었으나 每月 3,000ton의 납과 亞鉛을 生産하여 中共을 거쳐 蘇聯으로 輸送되는 新德과 吉州의 鑛山은 目標에서 제외될 수 없었으나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敵의 鐵路를 수백번 파괴하는 것보다 더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7월 12일부터 여러 産業施設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27일과 28일의 鑛山에 대한 爆擊으로 敵의 피해는 그 極에 달하였다.

艦載機隊의 攻擊은 전과 마찬가지로 F-84 Thunder Jet機가 AD와 F,U機의 爆彈投下를 위해 敵의 對空砲를 先制攻擊하는 것이었다.

7월 27일 : Bon Homme Richard號의 甲板을 떠난 艦載機隊는 成攻的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敵의 對空砲制壓을 위한 선제공격이 훌륭하여 폭격기의 활동은 자유로웠으며 주요 工場을 모두 파괴하고 그 주위에 있는 建物과 發電所에도 큰 피해를 주었으며 我軍은 아무런 損失없이 歸艦하였다.

7월 28일 : 航空母艦 Princeton號에서 출발한 F,U戰爆機 25臺와 AD機 13臺 도합 38대의 艦載機는 둘로 나누어서 40ton의 爆彈과 Rocket彈을 吉州에 퍼부어 磁鐵제련소의 60%를 파괴하였으며 이 제련소에 送電한 發電所도 完破하고 주위의 兵營 및 吉州에서 南쪽으로 뻗어있는 鐵橋의 3/5을 切斷하고 1機를 제외한 37機の 艦載機는 무사히 歸路에 올랐다

E.M. Crow 중위가 조종하던 F,U機는 空襲中 被擊되어 조종사는 機體로부터 脫出하였고 Helena號(艦長, 대령 J.R. Clark)의 Hel機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라. 阿吾地 精油工場의 爆破(9.1)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艦隊 사령관 중장 J.J. Clark

第77기동부대 사령관 소장 A. Soucek

航空母艦 Essex號 함장

대령 W.F. Rodee

航空母艦 Princeton號 함장

대령 W.R. Hollingsworth

航空母艦 Boxer號 함장

대령 Dannis J. Sullivan

(2) 전투경과의 개요

敵의 심장부를 강타하기 시작한 UN軍의 活動은 더욱 증강되었으니 이해 9월 1일에는 阿吾地에 대한 空襲이 감행되었다. 阿吾地는 蘇聯에서 8mile, 滿洲에서 4mile 떨어진 韓國 最東北쪽에 위치하여 종합적인 精油施設을 갖추고 北傀의 모든 油類補給의 源泉이 되었으며 立地條件으로 각종시설은 南北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第7艦隊 사령관 J.J. Clark 중장은 극동군 사령관 Mark Cpark대장에게 이곳에 대한 攻擊의 必要性을 강조하기를

『阿吾地는 北韓의 最大의 油類補給地이며 그 위치가 蘇聯과 中共에 인접해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爆擊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는 이곳을 攻擊해야만이 敵의 重要한 機能을 상실토록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Mark Clark 극동군 사령관은 參謀會議의 熟議를 거쳐 阿吾地空襲을 許可하였다.

9월 1일 : 제7艦隊麾下의 航空母艦 Essex號를 비롯하여, Princeton號와 Boxer號에서는 도합 144機の 艦載機로써 阿吾地를 향하여 發進하였으니 Essex號에서 離陸한 ATG-2戰隊의 29機와 Princeton號의 CVG-19戰隊에서 63機와 Boxer號의 CVG-2戰隊에서 63機の 艦載機가 각각 阿吾地上空에 殺到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다른 艦載機隊는 汶山附近의 製鐵工場과 淸津近處의 熱電氣工場과 變電所 그리고 軍需品集積所와 建物等を 強打하였다.

한편 阿吾地上空의 艦載機隊는 精油工場을 비롯한 여러 施設物에 대하여 여지없이 爆擊을 加하였는데 이곳에는 對空砲나 MIG機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아 艦載機의 조종사들은 여유 있게 임무를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敵은 이곳이 國境地帶인 만큼 UN軍의 공습에서 제외되리라 믿고 아무런 準備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敵의 敗北를 完全히 立證한 것이었다.

뒤에 3척의 航母로부터 보내진 報告書를 引用하면, 『Princeton號, 精油工場은 물론 주위의 넓은 지역이 火焰속에 휩싸여 광범위한 被害를 입었다』 또 『Essex號는 임무를 맡은 全目標物에 대하여 100% 爆破成功』 또 『Boxer號는 敵의 저항없이 致命的인 損失을 加함』 등과 같이 敵은 誤判하여 敗戰을 自招하였다.

마. 高原에 대한 空襲(1952. 10. 8)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艦隊 사령관 중장 J.J. Clark
 작전참모 대령 Ray M. Pitts
 航空母艦 Kersarge號 함장
 대령 T.E. Clark
 航空母艦 Prince ton號 함장
 대령 W.R. Hollings worth
 航空母艦 Essex號 함장

대령 W.F. Rodee
 Air Group-19戰隊長
 중령 William Denton Jr.
 Air Group-101戰隊長
 중령 D.P. Phillips
 Air Task Group-2戰隊長
 중령 J.G. Daniel

(2)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8월 羅津에 대한 爆撃을 감행한 이후 처음으로 海軍에서는 空軍의 重爆撃機 B-29를 幟호하여 高原에 空襲을 실시하였다.

高原은 元山 北쪽에 있는 平元鐵道の 始發點으로 鐵道交通의 中心地이며 그 一帶에는 가장 치열한 高射砲網이 설치되어 我軍이 출격할 때마다 이곳의 對空砲火의 집중포격으로 인하여 수십명의 조종사를 잃거나 機體가 損傷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第7艦隊 作戰參謀 Ray M. Pitt 대령은 空軍과의 合同作戰으로 이곳을 격파하기로 決心하고 Tokyo의 極東空軍 司令部에 空軍의 B-29重爆機의 增援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極東空軍의 B-29超高空戰爆機 10대가 第7艦隊의 航母艦載機와 合勢하여 高原에 대한 空襲을 決行한 것이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10월 8일에 第7艦隊의 航空母艦 Kearsarge艦(장, 대령 T.E. Clark)을 비롯하여 Princeton艦(장, 대령 W.R. Hollingsworth)과 Essex艦(장, 대령 W.F. Rodee)에서 출격한 89臺의 艦載機와 極東空軍의 B-29機 10臺 포함 99臺는 高原을 目標로 直向하였다. 우선 VT 彈 500LBS를 적재한 B-29가 高原 주변에 있는 高射砲陣地를 攻略하여 對空砲가 機能을 상실하면 海軍의 艦載機가 뒤를 이어 操車場과 補給庫를 공격하는 順이었다.

이날 元山近海上空에서 合勢한 攻擊隊는 B-29重爆機가 高度 21,000feet, 艦載機隊는 각각 25,000, 30,000, 35,000feet의 高度를 유지하면서 北上하였는데 高原上空으로 접근할 戰鬪機 1個隊와 遭遇하였으나 O'Donnel 대위의 通信에 의하면 敵機가 아니고 UN空軍의 F-86戰鬪機였으므로 조종사들은 안심하고 예정된 攻擊體制에 突入하였다.

B-29의 先制攻擊은 敵의 對空砲火를 制壓하기에 충분한 5,000LBS의 爆彈을 精確하게 要所 要所에 投下하였으므로 艦載機隊의 攻擊은 自由로웠다.

B-29가 機先을 制한 4분뒤 Air Group 19戰隊(장, 중령 William Denton, Jr.)와 Air Group-101戰隊(장, 중령 Denny P. Phillips) 그리고 Air Task Group-2戰隊(장, 중령 J.G. Daniel)의 艦載機 포함 89臺는 低空으로 비행하면서 敵의 鐵路, 通信網, 部隊, 補給施設에 爆撃을 加하고 Rocket彈을 發射하였으며 微弱한 敵의 高射砲의 저지는 위력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리하여 敵이 鐵壁의 要塞로 자부하던 高原은 火魔에 휩싸였고 攻擊隊는 1臺의 損失도 없이 歸艦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高原에 대한 空襲은 매우 成功的이었다. 第7艦隊 作戰參謀 Ray M. Pitts 대령은 이날

의 戰鬪를 보고하기를 『高原에 대한 海空聯合部隊의 空襲은 아주 훌륭하였다. 그러나 아깝게도 이것이 한국전에 있어서의 마지막 作戰이었다』고 하였다. 以後 UN空軍은 夜間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空襲하기에 이르렀고 大部隊의 출격보다도 小編隊의 공격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第7艦隊의 歷史報告書에는 이날의 聯合作戰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空襲은 成功, 全機 無事歸還』

바. 庫底의 陽動上陸作戰

(1952. 10. 115~10. 16)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7 機動上陸部隊	소장 F.X. McInormey
사령관 중장 J.J. Clark	上陸軍 지휘관
輸送船團(TG 76. 4)	소장 A. Trudeau

(2) 전투 전의 개황

仁川上陸作戰以來로 敵은 海岸을 크게 경계하여 海岸砲臺를 增加하고 地下陣地를 구축하는 등 주로 많은 兵力을 海岸防禦에 投入하였다.

특히 기간중 敵은 大部分의 兵力을 陣地 확보에만 籠重할 뿐으로 兵力의 移動이 없었으니 庫底의 上陸戰은 이러한 敵으로 하여금 兵力의 이동을 위한 上陸戰의 展示效果를 노란 것이었다.

元山이나 海州灣도 上陸戰으로 좋은 조건이었으나 實效를 거두기에는 庫底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庫底의 上陸戰은 처음으로 1951년에 太平洋艦隊의 參謀長 T.B. Hill 소장이 제안하였는데 上陸軍은 庫底를 점령한 다음 美제 8군과 合勢하여 北傀軍과 中共軍을 分離시켜 이를 격파하려는 戰略이었다.

이 계획은 결국 擴戰을 피하려는 合參의 승인을 얻지 못하다가 52년 10월초 太平洋艦隊 사령관 Arthur W. Radford 대장과 極東艦隊 사령관 R.P. Briscoe 중장과 제 7艦隊 사령관 J.J. Clark 중장의 熱議 끝에 겨우 合參의 승인을 얻어 그 實現을 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 7기동상륙부대가 편성되고 사령관에는 第 7艦隊 사령관 J. J. Clark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美第 1機甲師團과 美第 8聯隊가 上陸軍에 編成되었다. 輸送船團은 TG76. 4의 Bayfield (APA-33, 함장 대령 W.E. Ferrale), Okanogan (APA-220)艦 및 8척의 輸送船이 合流하고 航母 Bon Homme Richard艦(장, 대령 W.P. Weston)과 수척의 驅逐

艦이 海岸砲擊을 담당하였으며 旗艦은 戰艦 Iowa 艦이었다.

(3) 전투 경과의 개요

庫底上陸作戰은 陸海空의 合同作戰으로써 上陸軍은 空軍 및 海軍의 火力支援下에 庫底에 上陸을 감행하고 이지역을 점령하고 방어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戰勢를 UN軍에 有利하도록 하며 敵을 心理的으로 萎縮시키고
- ② 前線에로의 敵의 兵力增強을 차단하며
- ③ 我軍의 庫底上陸을 저지하기 위하여 敵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 이를 격파한다.

즉 庫底上陸은 該地域의 占領보다는 敵을 誘導하기 위한 上陸戰의 展示效果에 不遜한 것이다.

D-Day 는 10월 15일로 결정되었다. 10월 6일부터 제 7기동상륙부대는 Clark 중장의 지휘아래 바뀐 上陸準備에 突入하였다. 6일에는 輸送船團(TG.76.4)이 日本의 美第8聯隊를 輸送하여 10월 9일에 江陵에 도착하고 12일에는 모든 準備가 完了되었다.

12일에는 D-Day 에 앞서 실제 上陸訓練을 強行하였는데 이날 海上은 波高가 높고 風速 25KTS의 惡條件이었다.

결국 荒天으로 4隻의 LCVP가 침몰되는 損失을 보았으나 上陸에는 萬全을 기한 셈이었다.

14일 日出이 되자 旗艦 Iowa 艦을 비롯한 全艦砲가 庫底海岸을 向하여 불을 쏘았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艦砲射擊은 계속되었다. H-hour 는 11.30이었다.

15일 새벽 氣象은 더욱 惡化되어 上陸開始는 다시 14.00로 延期되었다.

드디어 14.00가 가까워지자 海岸에서 23,000YDS 떨어진 輸送船團에서는 舟艇이 내려지고 上陸軍을 싣고 海岸으로 突進하였다. 第一派가 출발하여 海岸으로부터 5,000YDS 海上에 到達하면 다시 船團으로 돌아오고 다시 第2派가 출발하여 되돌아오고 하는 式으로 敵의 反擊을 기다렸다. 艦砲射擊은 여전히 계속하였고 艦載機와 空軍의 爆擊機가 海岸을 비롯한 庫底地域을 強打하였다.

12개의 건물과 彈藥庫, 陣地多數가 戰鬪機의 爆擊으로 파괴되었다.

Walter Alt 중위가 조종하는 艦載機가 被擊되었으나 Iowa 艦의 Hei 機에 의하여 救助되었다. 이날 19.00까지 上陸戰은 계속되었고 艦砲와 艦載機의 攻擊은 16일까지 敵陣을 強打하였다.

16일 16.30에 제 7기동상륙부대는 作戰을 모두 마치고 自己 所屬部隊로 돌아가 경비를 계속하였다.

(4) 전투 후의 개황

敵의 증원군을 路上으로 誘引하여 空軍 및 地上砲火나 艦砲射擊으로 이들을 擊破하려는 庫底上陸作戰은 그 평가가 매우 困難하게 되었으니 敵의 많은 兵力의 移動으로 말미암은 牽制의 效果를 기대하였으나 그들의 動搖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고 경미하여 그들의 海岸砲臺만이 射擊으로써 대항할 뿐이었다.

제 7艦隊에서의 이 作戰의 評價는 다음과 같다

- 1) 航空機의 役割: 평소의 戰鬪에서보다 많은 장비와 탄약을 소모하였으나 그 效果는 더욱 적었다.
- 2) 艦砲射擊: 다른 海岸砲臺에서 보다는 매우 成功的이었다. 평소보다 5배나 많은 노력을 기우렸고 그 결과로 海軍艦砲의 攻撃이 가장 精確하여 많은 損失을 敵에게 준 셈이다.
- 3) 기타 事項에 대한 평가: 制限된 上陸作戰狀態에서 너무나 많은 人的物的인 消費를 가져온 作戰이었다.

계속 실시해오던 作戰을 하였으면 더 많은 戰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이 庫底上陸戰은 그 機動性이나 合同作戰의 體系的인 訓練으로서는 높이 評價할 수 있는 作戰이었다.

사. 기타 海上活動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R. P. Briscoe
第 7 艦隊 사령관
 중장 J. J. Clark

第 77 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A. Soucek
第 95 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J. E. Gingrich

(2) 作戰의 개요

4월 13일: UN 艦隊의 艦載機隊는 이날부터 14일까지 淸津의 工業地帶 및 補給集積所를 강타하였다.

4월 15일: 第 77 機動部隊의 航空母艦 Philippine Sea 號 및 Boxer 號는 이날 咸興, 元山, 陽德의 三角地帶에 位置한 鐵道目標을 爆擊하였다.

4월 18일: 이날에도 UN 艦載機隊는 鎭南浦地區 및 元山—咸興間의 鐵路를 격파하였다.

4월 21일: UN 海軍當局은 敵의 海岸砲臺가 점차 海軍作戰에 重要な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하고 全艦隊는 敵의 海岸砲臺의 색출과 격파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聲明하였다.

4월 23일 : 美太平洋艦隊 사령관 Redford 대장은 韓國海域을 시찰하고 UN 海軍將兵의 勞苦를 致賀하였다.

4월 24일 : UN 艦隊는 이날 淸津海岸의 砲臺 및 市內에 있는 補給庫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5월 5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이날 淸津에 있는 補給地 및 部隊에 空襲을 加하였는데 이날 그들의 人命被害만 400명에 달하였다.

5월 17일 : UN 艦隊는 이날도 東西兩海域에서 連日間에 걸쳐 輸送 및 補給施設에 대하여 집중공격하였다.

5월 27일 : UN 艦隊는 이날 元山地區에서 砲兵大隊本部 및 海岸線 一帶를 砲擊하는 한편 城津의 鐵道施設을 強打하였다.

6월 23일 : 이날 UN 海軍의 艦載機隊는 空軍, 海兵航空隊와의 合同作戰으로 水豊댐을 비롯한 五大水力發電所施設을 격파하였는데 總 500여대의 航空機가 출격하여 水豊發電所는 90%의 外部的 損失과 70%의 内部的 損失을 보아 그 機能이 停止하였으며 UN 海軍은 艦載機 1臺를 喪失하였다. 이날 전투내용은 水豊댐 폭파작전에 상술한 바 있다.

6월 25일 : 이날에도 航母 4隻의 艦載機隊는 元山附近의 操車場 및 車輛集結地를 爆擊하였다.

7월 3일 :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는 虛川江 (甲山에서 愼山嶺에 흐르는江) 沿線에 있는 제 2, 제 3 發電所를 爆擊하였다.

7월 5일 : 제77機動部隊의 戰艦 Iowa 號는 이날 元山港을 7시간 동안 砲擊하였으며 英國航母 Ocean 號는 美航母 Battan 號와 交代하여 東海에서 活動을 시작하였다.

7월 9일 :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는 元山近海의 上空에서 北傀의 小舟艇 15척을 격침하고 5척에 損傷을 입혔다.

7월 10일 :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隊는 이날 興南의 操車場을 空襲하였다.

7월 14일 : 美驅逐艦 Southland 號는 이날 東海岸 庫底海域에서 敵의 海岸砲와 砲擊戰끝에 敵彈에 被擊되어 경미한 損失을 보았다.

7월 15일 : 第95機動部隊의 美驅逐艦 Orleck(장, E.L. Yates중령)은 東海의 洋島-淸津間에서 敵의 鐵路爆破를 위해 경비에 임하였다.

이날 03.00에 Orleck艦은 海岸線 3,000YDS에 접근하여 대기하던중 敵의 補給 列車의 南行하는 소리를 들은 當直士官 H.P. Klepak대위는 즉시 照明彈을 發射하면서 5inch全砲門을 열어 열차를 攻擊하였다. 한客車에 命中하자 列車는 脫線하며 停止하고 彈藥과 Tank 1臺 및 기타 軍需品을 실은 15개의 客車는 여지없이 Orleck艦의 砲火에 파괴되었다.

同艦은 이날 밤 22.00에도 또다른 列車를 공격하여 機關車 1臺와 有蓋貨車 1臺를 爆破하여 極東機隊 사령관 J.J Clark중장의 致賀를 받게 되었다.

7월 19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은 이날 長津에 있는 水力發電所를 爆擊하였다. 한편 이날중 UN艦隊의 艦艇이 東海岸에서 敵 列車를 爆破한 戰果는 다음과 같다.

艦艇名	爆破한 敵列車
HMCS Crusader	4輛
USS Endicott	3輛
USS Orleck	2輛
HMCS Haida	2輛
USS Pierce	2輛
HMS Charity	2輛
USS Porter	1輛
USS Jarvis	1輛
USS Boyd	1輛
USS Trathen	1輛
USS Eversole	1輛
USS Keys	1輛
USS Chandler	1輛
USS McCoy Reynold	1輛
Hr. Ms. Piet Hein	1輛
USS Carmick	1輛
USS Maddox	1輛
	合計 28輛

8월 2일 : 제77기동부대의 航母 Princeton號의 艦載機隊은 長津에 출격하여 變電所를 大破하였다.

8월 3일 : 이날에도 계속된 Princeton號의 艦載機隊의 活動은 長津의 저수지와 虛川元山等地에 출격하여 市街 및 發電施設에 爆擊을 加하였다.

8월 4일 : 美海軍 偵察機 1대는 이날 東海에서 中共 Jet機 2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승무원 2명이 사망하였으나 무사히 江陵基地에 着陸하였다.

8월 7일 : 美航母 Boxer號는 이날 출격을 시도하다가 Jet機 1기의 폭발로 9명이 사망하고 75명의 負傷者를 내는 損失과 다른 12機の Jet機가 破損되어 日本의 橫須賀基地로 수리차 廻航하였다.

8월 9일 : 이날 UN艦載機隊은 38線 上空에서 MIG-15機 1대를 격추하였다.

8월 15일 : 美驅逐艦 Tompson號는 이날 城津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는데 同艦도 敵의 海岸砲에 피격되어 3명이 戰死하고 10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다.

8월 28일 : 英航空母艦의 艦載機隊은 이날 鎮南浦의 敵陣을 강타하였다.

8월 29일 : 이날 東海의 興南近海에서 作戰中인 美艦 Searce號가 觸雷하여 침몰함으로써 2명이 戰死하고 4명이 負傷, 3명이 行方不明되는 損失을 보았다.

9월 1일 : 第77艦隊의 航空母艦 Essex號(艦長, 대령 W.F. Rodee)와 Princeton艦(장, 대령 W.R. Holling sworth) 그리고 Boxer艦(장, 대령 Dennis J. Sullivan)에서 출격한 144대의 艦載機는 阿吾地를 空襲하여 精油工場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致命的 損失을 加하였다.

9월 6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은 이날 元山, 興南, 端川 등의 東海岸 여러 都邑을 爆擊하였다.

9월 10일 : UN海軍의 艦載機隊은 이날 赴戰 및 長津發電所를 爆擊하고 13일에는 會寧을 空襲하여 軍需施設을 大破하였다.

9월 18일 : 美艦 Bataan艦(장, Edgar T. Neale 대령)은 이날 東海에서 作戰中 浮遊機雷에 접촉되어 7명이 負傷하고 6명이 行方不明되었다.

9월 22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은 會寧의 彈藥貯藏庫를 強打하였다.

9월 26일 : 美艦 AMS-18 Heron 艦(장, Dixon Lademan중위)는 지난 18일 11.30에 元山近海에서 掃海中 敵의 海岸砲臺의 공격을 받았다. 즉시 Herron號는 作業을 중단하고 연막으로 敵彈幕에서 벗어나 麗島東北쪽으로 航進하면서 反擊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敵砲火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敵의 砲臺는 元山南쪽의 山谷에 있었으며 5inch의 艦砲를 가진 Herran號는 射程이 미치지 않아 26일에 제차 反擊을 시도하였다. 이날은 視野가 넓어 彈着修正이 용이하였으며 Herron艦은 거리 16,000YDS에도 정확한 艦砲射擊을 加하여 敵砲臺를 파괴하였다. 이날 파괴된 敵의 海岸砲는 155mm砲 30門이었다.

9월 30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은 이날에도 元山南쪽의 敵補給地를 爆擊하였다.

10월 5일 : UN艦隊의 艦載機隊은 이날 會寧에 출격하여 油類貯藏庫를 폭파하였으며 6일에는 淮陽에 있는 補給路 및 兵力集結地를 強打하고 8일에는 함남 高原附近의 鐵路에 대하여 집중포격을 加하였다.

10월 12일 : USS Walker艦(장, M.C. Walley중령)과 HMS-Charity艦은 이날 城津南쪽의 鐵路를 공격하여 列車 1輛을 파괴하고 敵의 輸送을 마비시키면서 계속하여 敵의 수리반에 포격을 加하였다.

10월 24일 :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長, P.W. Watson대령)와 Essex艦(長, W.F. Rodee 대령)은 이날 咸南의 惠山鎮을 폭격하였다.

10월 25일 : 戰艦 Missouri號(장, Irving T. Duke대령)는 이날 端川地區의 敵陣 및 補給施設에 함포사격을 加하였으며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은 元山西쪽의 炭鐵地域과 補給

路를 공격하였다.

11월 6일 : 第77機動部隊의 航母戰隊는 이날 淸津地區의 補給路 및 軍事施設에 대하여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11월 7일 : 戰艦 Missouri號는 이날도 계속하여 端川地區의 軍事施設을 強打하였다.

11월 15일 : 戰艦 Missouri號는 이날 元山의 港灣施設에 大舉 砲擊을 집중하였다.

11월 17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이날부터 이틀간에 걸쳐 淸津—吉州—慶源 等地와 海岸의 鐵道施設과 工場 그리고 鑛山 等を 폭격하였는데 淸津爆擊時에 있어서는 戰艦 Missouri艦(장, Irving T. Duke대령) 및 Helena艦(장, J. R. Clark대령)의 艦砲射擊에 合勢하여 5회의 爆擊을 敢行하였다.

11월 18일 : 이날 東海에서 作戰中인 航空母艦 Oriscany號(장, Paul H. Ramsey 대령)에서 출격한 Panther Jet機 3대는 淸津近海上空에서 敵의 MIG—15機 4대와 空中戰끝에 2대를 격추시키고 1대에 손상을 입히는 戰果를 얻었다. 한편 제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會寧에 攻擊機 64臺, 戰鬪機 16臺, Jet戰鬪機 24臺가 출격하여 油類工場을 비롯하여 補給倉庫와 發電所 그리고 製鐵工場 및 附近에 있는 기타 시설로 보이는 것은 모조리 爆破하였다.

11월 26일 : 美驅逐艦 Hamner艦(장, Jack J. Hughes중령)은 이날 東海에서 敵의 海岸砲에 被擊되어 1명이 戰死하였다.

12월 9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隊는 이날 羅津의 鐵道操車場과 會寧 東北쪽에 있는 中 共軍國境地帶의 鐵道施設 2個所에 352회에 걸친 출격을 감행하여 이를 擊破하였다.

12월 26일 : 이날 夜間에 東海上空을 초계비행하던 美海軍 정찰기 1대가 高城東쪽 海上에서 原因不明으로 추락하여 승무원 14명중 10명이 行方不明되는 損失을 보았다.

12월 30일 : 美戰艦 Missouri號는 이날 東海에서 蘇滿國境 24km까지 進出하였으며 夜間을 이용하여 淸津市街에 함포사격을 加하였다.

第 56 章

空軍의 活動

要 旨

1. 北韓의 都邑에 대한 爆擊
2. 敵의 補給品集積所에 대한 爆擊
3. 第一次 近接航空支援作戰과 後方遮斷作戰
4. 二·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5. 三·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6. 四·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第56章 空軍의 活動

要 旨

韓國空軍에서는 休戰會談이 進行 되면서부터 全戰線이 膠着狀態에 이른 지난 期間中에도, 江陵(K-18)基地에서 元山地區와 元山—黃州間을 連結하는 線의 後方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와 各前線으로 이어지는 鐵道를 비롯한 各 보급로와 機動路에 대한 遮斷 목적을 執行하였다.

그러나 敵은 休戰會談을 지연시키는 한편 계속 夜陰을 이용하여 前線으로의 보급품을 推進하고 次期 攻勢를 획책하려는 企圖인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이에 韓國空軍의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UN空軍과의 連繫下에 敵의 後方中心地를 이루고 있는 主要 都邑과 補給要線을 폭격함으로써 敵의 初動을 事前에 粉碎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3월 28일부터는 延安—海州—新院里—平康—劍拂浪과 伊川—新幕—截寧—沙里院—長箭—三防里—黃州—兼二浦—通川을沿하는 線을 비롯하여 遂安—中和—鎮南浦 그리고 元山—半壤 등의 都邑에 있는 敵의 軍수품 생산 공장과 유류저장소 등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는 한편 敵의 前線으로 이어지는 鐵道와 機動路는 물론 貨物車輛과 軍트럭에 대하여 7월 12일까지 도합 94회에 達하는 출격으로써 폭격한 結果 敵에게 막대한 損失을 주었다.

이어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 中將)의 제10전투비행전대(장, 姜錦倫 中령)에서는 7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敵의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는데 期間中 주요 폭격지역은 延安—海州—靈津과 鐵原—市邊里 그리고 金城—平康—新溪—新幕—截寧을 비롯하여 縣里—伊川 등과 高城—長箭—淮陽—通川—新高山—谷山 遂安—元山—陽德—中和—半壤 등으로 그 일대에 있는 敵의 對空砲 陣地와 탄약 집적소를 비롯하여 유류저장소와 Bunker 기타 건물등에 도합

1,489회에 達하는 出擊으로 이를 強打하여 敵의 戰意를 剝奪하는데 寄與하였다.

이와같이 韓國空軍은 敵의 後方遮斷 목적과 아울러 次期에 相當할 戰鬪地域에 대한 근접항 공지원(Close Air Support)으로 空地協同作戰을 遂行케 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지난 1951년 10월부터 平澤에 주둔하고 있는 美 제5공군의 戰術航空 통제전대(TACG)에 장교 8명을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空軍의 노력은 계속되어 1952년 3월에 韓國空軍의 확장을 꾀하고자 對外的으로는 3개년 계획안을 작성, 政府와 美 공군당국에 제출하여 단계적인 공군력 증강을 시도하고 內的으로는 自體內의 기구를 개편 戰鬪部隊를 加一層 強化하였다.

그 結果로 美 공군에서는 韓國空軍의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로 지금까지 戰鬪部隊에만 집중하던 軍수지원을 이해 8월에 6146부대로 하여금 前後方 全面에 걸쳐 지원토록 정식으로 인가되어 종래 육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받던 것들을 직접 모든것을 지원받게 되니 前後方의 각종업무는 그 生氣를 찾았다.

또 이와 併行하여 정찰전대를 교육비행전대로 개편 조종사들의 質的 量的 육성에 拍車를 加하면서 제10전투비행전대의 戰力을 더욱 強化하였던 것이다.

그 뒤 이해 10월에 이르러 韓國空軍은 F-51(Mustang)전폭기 40대를 보유하게 되고 日日 平均 32회에 達하는 出擊능력을 保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달 27일까지 道합 4,167회에 이르는 出擊을 기록하여 美 공군으로부터 근접지원 능력을 인정 받고 드디어 韓國地上軍이 갈망하던 空地協同作戰을 遂行케 되었다.

이리하여 이달 28일부터 空軍의 3대 임무인 對空戰鬪와 遮斷 및 近接지원중 2대 임무를 遂行케 되어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 목적과 병행하여 韓國軍 第1군단에 대한 近접지원을 단독출격으로 지원케 되었다.

그리하여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杆城—高城 縣里—金城—平康 등의 地上 작전지역에 대한 近접지원을 斷行하여 我地上軍의 士氣를 크게 양양 시켰는데 이해 12월 31일까지 敵의 後方遮斷 목적과 近접지원의 출격은 도합 1,060회에 달하였다.

한편 UN空軍은 地上戰에서의 敵의 兵力이 실체로 劣세한 狀況에서 敵이 休戰會談을 계속 지연시키는 奸計를 顯現코자 1952년 4월과 5월에도 계속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敵 前線과 後方に 있는 鐵道網과 軍수품 생산공장 그리고 비행장들과 기타 보급로에 대한 爆擊을 계속 強化하였다.

그 뿐 아니라 6월 23일에는 敵의 動力源이 되는 水壩 수력발전소를 폭격하였는데 이대에 海軍의 함재기 A-1D(Sky Raider)機 35대와 F-9F Jet機 35대는 美 제5공군의 F-86E Sabre Jet 遊擊機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폭격에 參加하는 한편 F-80 Shutting Star 45대와 F-84 Thunder Jet機 79대도 이에 폭탄洗禮를 퍼붓는 등 連 3日間에 걸쳐 美 제5공군에서는 도합 900회 이상의 출격으로 10個의 動力 기계공장을 사용 불능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나머지 2個의 시설만이 경미한 파피에 그쳤으나 이로 말미암아 2주일간이나 斷電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또 7월 5일부터 11일까지 平壤에 대한 1,254회의 출격으로 1,400 ton의 폭탄을 投下하는 同時에 Napalm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1,500棟을 全破하고 90棟을 大破하였다.

이어서 8월에는 敵의 MIG-15 Jet機를 완전히 제압 할 수 있는 F-86F의 신예 Sabre Jet機를 參戰시켜 제공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이달 4일에는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이 건물과 유류저장소 및 敵의 對空砲 陣地등에 273회에 이르는 출격으로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9월과 10월에도 地上戰이 熾烈한 激戰地에 日日 平均 96회

에 達하는 近접지원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1월에도 3,000회 이상의 近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을 위축시키면서 遮斷 목적으로 敵의 보급품 要衝地를 폭파하는 한편 그 背後에 있는 鐵道와 橋梁 및 보급품 집적소등을 強打하였다.

이리하여 1952년 末까지 美 극동공군은 敵에 대한 制空權을 계속 유지하면서 UN軍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休戰會談에 영향을 주는 한편 全面 非常時에 대비한 作戰에서의 능력을 保有하면서 敵의 公군력을 저지하는 동시에 鐵道施設과 軍수품 생산공장 및 통신기구를 強打하는 遮斷목적과 戰線에서 激戰 중인 地上軍에 대한 近접지원도 아울러 遂行하였다.

이와같은 UN空軍 活動에 敵의 前後方 戰力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특히 平壤을 비롯한 78개 郡邑과 敵의 戰力자원의 핵심체가 되고 있는 北韓內의 各 水力 발전소를 두고 오랜 논의 끝에 이룩고 이들 目標에 戰略 폭격을 斷行하니 敵의 前後方에서는 완전히 戰意를 喪失하였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敵 公군은 MIG機 활동범위를 넓히려고 밤을 이용하여 파괴된 비행장들에 대한 복구공사를 強行하며 주요 군사시설 부근에 對空砲 陣지를 強化하고 前線으로의 보급수송도 계속하여 人力에 의존하는등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UN空軍은 F-86F Sabre Jet 遊擊機로 하여금 제공권 장악에 완벽을 期하면서 비행장과 對空砲 陣지를 비롯 前線으로 이어진 보급로에 대하여 철저한 무장정찰 出發으로 이를 強打 敵의 戰力 복구노력을 좌절시켰다.

期間中 UN空軍에서는 對空 방어반격에 45,649회와 차탄(무장정찰 포함)에 51,557회 그리고 近접지원 118,548회로 폭탄 99,528 ton과 Napalm탄 2,158 ton을 投下하여 敵의 前後方 戰力を 뒤 흔들어 놓았으며 友軍의 前後方으로의 수송지원 출격은 도합 38,770회에 達하였다.

1. 北韓의 都邑에 대한 爆擊 (1952년 3월 28일부터 1952년 7월 12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소장 金 貞 烈	대위 羅 昌 俊	중위 林 淳 赫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 德 昌	대위 朴 完 圭	중위 李 濠 英
제10전투비행전대장 대령 金 信	(6월 1일 부터)	(6월 30일 부터)
중령 姜 鎬 倫	대위 孫 在 權	소위 李 昌 實
(6월 16일 부터)	대위 俞 致 坤	소위 朴 臺 坤
출격조종사	대위 孫 興 俊	소위 宋 在 鳳
대령 金 信	중위 朴 斗 元	소위 林 鍾 斗
중령 姜 鎬 倫	(6월 1일 부터)	
소령 金 成 龍	중위 白 晶 鉉	소위 玄 昌 健
소령 尹 應 烈	중위 權 重 華	소위 林 翔 燮
소령 田 鳳 熙	중위 裴 相 昊	
소령 吳 春 陸	美공군조종사	
소령 李 康 和	소령 Crego	중위 Carson
대위 張 晷 太	대위 Weber	중위 Bordley
대위 鄭 周 良		
중위 朴 用 萬		

나. 전투 전의 개황

韓國空軍이 元山—黃州일대에 단독출격 작전을 展開하던중의 地上戰鬪는 探索과 砲擊이 되풀이 되는 등 대체로 輕微한 小接戰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空軍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惡天候로 말미암아 出擊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高度의 戰術戰技 연마로 北韓內의 鐵道網과 機動路와 보급품집적소등에 대한 遮斷폭격을 斷行하였다.

이에 따라 敵의 空軍力도 상당히 증강되어 1951年 11月末 北韓空軍 세력이 MIG—15 Jet機 90대를 포함하여 LA—9과 IL—10을 비롯 Yak—11과 Yak—18등 365대로 도합 445대에 이르렀으며 1개 航空學校를 보유하고 기지로는 沙里院—平壤—義州—新義州등과 滿洲內에는 安東—奉天등의 기지를 이용

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北傀空軍은 (1,500乃至 2,000대로 추산)中共의 空軍과 合勢하여 UN空軍의 제공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MIG通路(MIG Alley)인 江界—新安州—新義州를 연결하는 西北韓 상공에서 UN空軍에도 전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空軍의 단독출격 以來로 敵의 後方 보급로 遮斷목적에 주력하여 元山으로부터 東部戰線으로 通하는 敵의 보급로와 平壤으로부터 中部 및 西部戰線으로 연결된 보급로를 폭격하던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松林(兼二浦地區)에 75대가 出擊, 철교와 제련공장을 비롯 용광로와 건물, 기타 군수공장등을 폭격하였다.

또 4월 5일부터 5월 2일까지는 도합 197대가 長箭—伊川—元山—黃州—中和—沙里院—延安—平壤—載寧—新安里—松林—海州—鎮南浦등에 出擊하여 철도와 군수공장 그리고 유류저장소와 탄약집적소 및 건물등을 폭파하여 敵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어 5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每日 沙里院에 出擊하여 107대가 철도차단에 주력하였으며, 5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平康—長箭—元山—沙里院—黃州등의 철도와 유류저장소 및 화물차량등을 強打하였다. 그 뿐 아니라 5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京元線의 劍拂浪 地區에 56대가 출격 화물차량과 철도를 폭파하고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平壤—通川—三院里—新高山—成川—江東—三登—洗浦里—沙里院—黃州—安邊등의 철도와 차량을 폭파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三防—劍拂浪—新高山—元山, 그리고 京元線의 梨木里 物開里등에 24대가 出擊, 철도遮斷 목적을 斷行하였는데 期間中 月日別 出擊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8일 : 이날 09.00에 玉滿鎬대위를 편대장으로 江陵(K-18)기지를 이륙한 4대의 F-51(Mustang)전폭기 제1편대는 金錦成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와 合勢, 敵의 都邑을 폭격하기 위하여 黃州상공으로 출격하였는데 이 兩 編隊는 松林지역(黃州 西北쪽15km) 상공에 이르러 敵의 對空砲火를 해치며 제1 제2편대의 順으로 目標에 急降下 進入한 다음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11.00에 全機가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한 이날 16.05에도 李基陝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羅昌俊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제2편대의 4대는 차례 차례로 基地를 이륙하여 午前에 폭격을 斷行한 松林지역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4棟을 燒却시키는등 다시 한번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17.45에 兩 編隊가 基地에 안착하였다.

3월 29일 : 이날도 어제에 이어 08.30에 4대의 제1편대가 李基陝대위를 先頭로 이륙하고 08.40에는 羅昌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兩 編隊의 合勢로 黃州 西北

쪽 15km에 있는 松林지역으로 출격, 目標에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4棟을 全破하고 그 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이날 15.05에 鄭周良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海州 西南쪽 12km에 있는 敵의 軍用건물에 폭탄과 Rocket탄 그리고 機銃을 퍼부어 이를 검붉은 연기로 휘감아 놓았으며 16.00에는 玉滿鎬대위를 편대장으로 하는 4대의 제2편대가 黃州 西北쪽 15km에 있는 松林으로 출격하여 이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 삼시간에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3월 30일 : 이날 08.50에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는 松林으로 出擊하여 工場에 폭탄과 Rocket탄 그리고 機銃을 集中, 目標을 半破하였으며 09.00에는 李基陝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松林으로 출격하여 제1편대가 半破한 工場에 火力을 集中 이를 完破하였다.

또 13.00에는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고 14.00에 羅昌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兩編隊가 松林에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을 集中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4월 2일 : 이날 09.00에 羅昌俊대위가 이끌고 江陵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09.05에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松林으로 출격하여 敵의 軍수공장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12.05에는 金錦成대위를 선두로 한 제1편대의 4대가 午前에 폭격한 松林 軍수공장을 다시 強打하는 한편 12.50에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玉滿鎬대위를 편대장으로 하여 松林지역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고 機銃掃射로 그 일대를 뒤흔들어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4월 3일 : 이날 08.25에 편대장 玉滿鎬대위를 先頭로 江陵(K-18)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08.35에 金錦成대위가 이끄는 5대의 제2편대가 合勢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며 松林地域으로 출격,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탄과 機銃을 集中하니 그 일대는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겼으며 工場 1棟과 건물 4棟을 完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12.30에는 李基陝대위를 先頭로 5대의 제1편대가 그리고 羅昌俊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이날 午前에 출격하였던 松林으로 다시 出擊,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工場 1棟을 全燒시켰으며 그 일대는 이날 夜間까지 검은 연기가 솟아 올랐다.

4월 5일 : 이날 09.10에 羅昌俊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1편대와 李基陝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鎮南浦 西北쪽 15km에 있는 鐵道와 그 일대의 건물에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여 鐵道 2개소를 차단하고 工場을 強打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羅昌俊대위의 愛機가 敵의 對空砲에 피탄되어 工場에 進入함으로써 애기와 함께 장렬한 戰死을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勇士 한사람을 잃었다.

또한 제2편대는 鎭南浦 北쪽 15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鐵道 4개소를 차단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4번기 朴斗元소위의 愛機(F-51전폭기)右翼에 敵의 對空砲 一發이 피탄되어 한때 위태로웠으나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 이날 14.10에는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3대의 제1편대와 鄭周良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제1편대는 海州 東南쪽 12km상공에서 目標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여 鐵道 3개소를 遮斷하고 제2편대는 海州 西쪽 13km일대에 猛爆을 加하여 鐵道 3개소를 폭파하였다.

4월 6일 : 10.05에 玉滿鎬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1편대와 李基陔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兩 編隊가 合勢한다음 松林에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工場 1棟과 유류저장소 2개소를 비롯한 건물 6棟을 燒却하는등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이날 13.50에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편대는 松林상공으로 출격하는 즉시 急降下 進入으로 目標을 強打한 결과 工場 1棟과 건물 7棟을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8일 : 이날 08.35에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江陵(K-18)기지를 이륙한 다음 합세하여 沙里院 南쪽 18km에 있는 新昌里에서 鐵道 5개소를 遮斷하고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2.55에는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海州 西쪽 17km에 있는 新院里 상공으로 출격하던중 4번기 金錦成대위의 愛機(F-51전폭기)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귀환하고 3대만이 新院里의 鐵道를 強打한 결과 2개소를 차단하였으며 제2편대는 海州 北쪽 14km의 新亭里로 출격하여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차단 폭파하고 1개소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9일 : 이날 10.55에 玉滿鎬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3대의 제1편대와 金錦成대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兩 編隊가 合세한 다음 松林 일대를 猛打하여 건물 4棟을 全破하고 Bunker 2개소를 폭파하는등 그 일대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12.45에 귀착하였다.

또 14.05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3대의 제1편대와 玉滿鎬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제2편대가 기지를 各各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松林으로 출격, 그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그리고 機銃洗禮로써 건물 6棟을 全破 3棟을 燒却하는등 온종일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찌를듯 솟아오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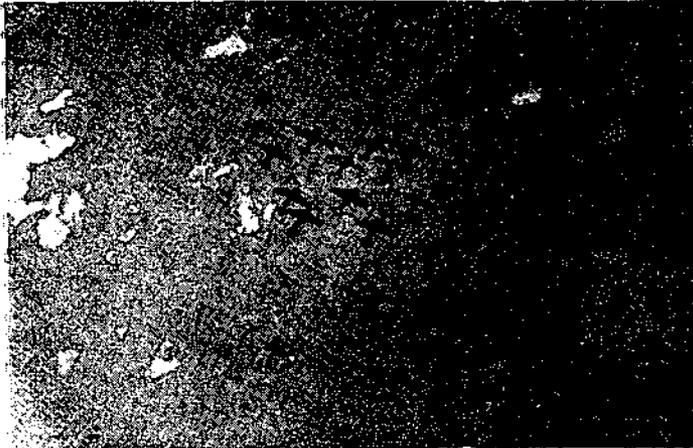
4월 10일 : 이날 08.55에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3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海州 北쪽

15km의 新亭里로 출격, 그 일대를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完破하고 1개소를 半破하였으며 또 이날 09.00에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2편대도 海州 北쪽 20km의 新德里로 출격, 폭탄과 Rocket탄을 그 일대에 集中하여 鐵道 2개소를 全破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4월 11일 : 이날 09.05에 尹應烈소령을 前대장으로 한 3대의 제1편대와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江陵(K-18)기지를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平壤 南쪽 10km의 中和상공으로 출격하는 즉시로 目標에 폭탄을 集中하니 그 일대는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기고 鐵道 2개소를 폭파한 결과 鐵道 수송을 中斷케 하였다.

4월 12일 : 이날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전폭기들은 연일 계속된 출격에서의 기체의 점검을 위하여 出擊을 中斷하고 이 비행전대의 정비요원들의 정비점검을 받았다.

4월 16일 : 이날 10.00에 金錦成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10.15에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제1편대는 靑丹(金川 西南쪽 40km)지역을 強打한 결과 건물 6棟을 全破하고 3棟을 半破하였으며, 제2편대는 白川(江華 西北쪽 30km)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6棟을 全破하고 1棟을 半破 燒却시켰다.



〈敵의 후방 차단폭격을 위하여 출격하는 전폭기들〉

또 이날 15.40에 尹應烈소령을 前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玉滿鎬대위가 이끄는 3대의 제2편대가 기지를 이륙하여 靑丹일대를 強打한 결과 건물 11棟을 全破하는등 그 일대를 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4월 18일 : 이날 10.10에 金錦成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玉滿鎬대위를 前대장으로 한 3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松山里(沙里院 東南쪽 5km)에 폭탄을 投下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제2편대는 文龍里(沙里院 西北쪽 5km)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兩 編隊가 모두 11.50에 귀착하였다.

또한 이날 16.10에는 尹應烈소령을 前대장으로 4대의 제1편대가 기지를 이륙하고 이어 16.15에는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였는데 제1편대는 石城里(沙里

院 東南쪽 6km)의 鐵道 1개소를 폭파하고 제2편대는 新養里(沙里院 東南 3km)의 目標을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4월 20일: 이날 09.10에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1편대와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兩 編隊가 合勢로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 제1편대는 九龍里(沙里院 南쪽 4km)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제2편대는 松山里(沙里院 東쪽 5km)의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3.20에는 尹應烈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13.30에는 孫在樞중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御水里(沙里院 東쪽 6km)의 鐵道를 強打하여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는 한편 제2편대는 新養里(沙里院 東쪽 3km)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차단하고 1개소를 大破한 까닭으로 敵의 前線으로의 보급품 수송을 妨害하였다.

4월 21일: 이날 08.50에는 尹應烈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集中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平壤 東南쪽 30km의 祥原으로 출격하여 폭탄을 投下 機動路 1개소를 차단하였다.

또 이날 16.10에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편대도 山陰里(平壤 南쪽 10km)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폭파하였다.

4월 22일: 이날 08.35에 朴在浩대위가 이끄는 4대의 편대는 沙里院 西北쪽 2km에 있는 鐵道를 強打, 2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2.45에는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편대가 이륙하여 沈村(黃州 西南쪽 6km)에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4.25에 귀착하였으며 이어 15.35에는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편대가 다시 沈村으로 出擊, 이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貨物車輛 3輛을 全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4월 24일: 이날 08.45에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편대는 敵地의 氣象不良으로 伊川에서 機首를 南으로 돌렸으나 09.35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편대는 雨中을 헤치고 大悅里(黃州 西南 3km)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다음 鐵道 1개소를 폭파하고 1개소를 大破 하는 한편 機動路 1개소도 아울러 폭파하였다.

또 이날 15.25에 鄭周良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15.35에 孫在樞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沙里院 西北 2km에 있는 鐵道를 強打,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제2편대는 靑龍里(黃州 西南 5km)를 통과하는 鐵道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4월 26일: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상공을 낮게 뒤덮고 있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출격이 저조하였는데 이를 무릅쓰고 이날 08.30에 美 공군의 Bordley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편대는

沙里院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鐵道를 強打, 1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므로 한때 敵의 前線으로의 보급품 수송을 中斷토록 만들어 놓았다.

4월 27일 : 이날 08.20에 孫興俊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는 기지를 이륙하여 新亭里(海州 東北쪽 15km) 일대에 있는 鐵道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2.10에 鄭周良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기지를 이륙, 新昌里(海州 北쪽 12km)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을 그 부근 鐵道에 集中시켜 1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機動路 1개소도 폭파하니 한때 수송을 中斷토록하여 敵을 당황케 하였으며 또한 14.45에도 美 공군의 Bordley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2편대가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가 強打한 新昌里로 다시 출격,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3개소를 切斷하였다.

4월 29일 : 이날은 目標상공에 구름이 낮게 깔리고 비까지 내리었으나 13.10에 鄭周良대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가 기지를 이륙하여 安邊(元山 東南쪽 15km) 상공으로 출격,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보급로 1개소를 大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4월 30일 : 이날 午前까지는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午後부터 점차 날씨가 회복되어 13.10에는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亭花里(鎭南浦 北쪽 10km) 상공으로 출격, 폭격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急降下進入으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6.45에 孫興俊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降仙里(平壤 西南쪽 15km)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를 強打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5월 1일 : 이날 08.45에 孫在權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가 이륙하여 新昌里부근 鐵道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2.25에 孫興俊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海州 상공으로 출격하던 중 4번기 權重華소위가 機體 故障으로 말미암아 귀환하고 3대만이 新院里의 目標를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15.10에는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폭격한 新院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全機 무사히 귀환하였다.

5월 2일 : 이날 08.35에 孫在權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海州 北쪽12km의 新昌里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1.15에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는 新院里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를 強打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4.45에도 孫興俊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기지를 이륙하였는데 4번기 孫在權중위는 engine 故障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3대만이 伊川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

을 集中,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16.30에는 美 空軍의 Bordley 중위가 單機로 東海 상공으로 出擊하여 美 해군 폭격기를 掩護하였다.

5월 3일 : 이날부터 4일까지 兩日間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의 自體 정비반 요원으로부터 그간 連日 出擊한 機體 점검을 받았다.

5월 5일 : 이날은 가끔 비가 내렸으나 13.20에 孫興俊 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新養里(沙里院 東쪽 4km) 상공으로 출격,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切斷하여 敵의 前線으로의 보급수송을 妨害하였다.

이어 14.45에 尹應烈 소령이 이끄는 제2편대도 月城里(沙里院 東南쪽 8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目標을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5월 6일 : 이날 08.35에 孫在權 중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가 이륙하여 月城里(沙里院 東南쪽 8km) 상공으로 出擊 폭탄을 集中하여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2.20에는 俞致坤 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新養里(沙里院 東쪽 4km)의 상공으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5.05에 朴在浩 대위를 편대장으로 4대의 제2편대도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을 強打, 鐵道 2개소를 遮斷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5월 7일 : 이날 08.30에 俞致坤 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編隊가 기지를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新養里의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여 鐵道 수송을 妨害하였다.

또 12.25에는 孫在權 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15.05에 朴在浩 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폭격 目標 상공으로 出擊하였는데 제1편대는 松山里(沙里院 東南쪽 6km)의 目標을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3개소를 大破하였으며 제2편대도 松山里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결과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나머지 2개소를 大破하였다.

5월 8일 : 이날도 제10전투비행전대의 출격 조종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沙里院 地區의 補給路 차단작전 指示를 받고 09.05에 孫在權 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가 松山里(沙里院 東南쪽 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으로 目標을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2.50에는 尹應烈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을 強打 건물 3棟을 全破하고 1棟을 大破, 이를 燒却시켰다.

이어 15.20에 俞致坤 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3편대도 敵의 對空砲를 헤치면서 沙里院

상공에 이르러 破城里—新養里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 그 일대의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여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5월 9일 : 이날 09.00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가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石城里—松山里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는 한편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이날 12.10에는 俞致坤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도 敵의 對空砲가 咆哮하는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石城里—新養里 일대를 急降下로 폭탄과 機銃을 集中하니 삼시간에 곳곳에서 검붉은 불 기둥이 하늘을 찌를듯 솟아 오르고 鐵道 3개소가 遮斷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1개소도 大破하였다.

5월 10일 : 이날 10.55에 孫在權중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는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6km)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있는 鐵道 3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3.05에 俞致坤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1편대는 沙里院 일대로 出擊하여 石城里—松山里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1번기인 俞致坤중위의 愛機가 松山里에서 敵의 對空砲火로 말미암아 한 때 위태로웠으나 무사히 귀착하였다.

이어 15.35에도 尹應烈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6km) 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3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하였다.

5월 11일 : 이날도 08.40에 俞致坤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龍石里(沙里院 東南쪽 15km)로 出擊하여 目標로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急降下로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1.15에 孫興俊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2편대도 墨川下里(沙里院 東南쪽 18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目標를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한 이날 14.10에는 孫在權중위를 先頭로 4대의 編隊가 龍石里(沙里院 東南쪽 15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으니 삼시간에 火焰이 하늘을 찌를듯 솟아올랐으며 이 強打로 인하여 鐵道 2개소가 遮斷되고 다른 1개소가 大破되었다.

5월 12일 : 이날 07.50에 朴斗元소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7km)에 出擊, 이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強打하여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이어 10.40에는 孫興俊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도 新養里(沙里院 東南쪽 4km) 상공의 目標를 捕捉하고 이를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2개소를 大破하였다.

5월 13일 : 이날 07.35에 朴用萬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新養里(沙里院 東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1개소

를 遮斷하고 다른 2개소를 強打하였다.

그리고 이어 10.30에는 美 공군의 Bordley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新養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을 強打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火焰으로 휘감아가는가 하면 鐵道 3개소가 切斷되었으며, 다른 1개소도 大破되었다.

또 13.50에는 朴斗元소위를 先頭로 한 編隊가 石城里(沙里院 東南쪽 7km)와 沙里院 中心街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補給路 1개소를 폭파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5월 15일: 이날 07.35에 朴在浩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가 狂飛하는 상공을 누비면서 新養里(沙里院 北쪽 4km)로 출격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10.30에 林淳赫소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石城里—新養里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3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한 이날 13.35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가 石城里(沙里院 東쪽 6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牛馬車 2대를 燒却시켰다.

5월 16일: 이날 07.30에 孫在權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天皇里(黃州 北쪽 2km)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를 強打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3개소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이어 10.20에는 兪致坤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天皇里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牛馬車 2대를 燒却하는 한편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4.10에 裴相昊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5대의 編隊는 午前에 2회에 걸쳐 強打한 天皇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集中한 결과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유류 저장소 1개소를 폭파, 火焰이 하늘을 찌르게 하였으며 아울러 트럭 1대도 燒却시켰다.

5월 17일: 이날 07.40에 孫在權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는 石台里(元山 東南쪽 25km) 상공으로 출격하여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2개소를 大破하여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이어 10.30에는 權重華소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九溪里(元山 東南쪽 27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다.

한편 12.55에 兪致坤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도 午前에 強打한바 있는 石台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 鐵道 2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4.50에 孫在權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元山 東南쪽 沛川里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하니 鐵道 7개소가 切斷되고 다른 3개소도 大破되면서 火焰은 그 일대를 삼킬듯 휘감겼다.

5월 18일 : 이날 07.45에 構重華소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九溪里(元山 東南쪽 28km) 상공에 이르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強打하였다.

또 10.30에는 美 공군의 Bordley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石台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目標을 強打,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貨物車輛 1輛을 燒却시켰는데, 이날 午後에는 目標 상공에 짙은 구름으로 뒤덮힌 까닭에 午前 出擊으로 그쳤다.

5월 20일 : 이날 08.10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沙里院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牛馬車 1대를 燒却시키는데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1.00에는 차치元소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한 이날 14.00에는 金成龍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도 沙里院 상공에 이르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急降下進入으로 폭탄과 機銃으로 그 일대의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3개소를 大破시켰다.

5월 21일 : 이날 08.05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新井里(平康 南쪽 8km)로 출격 그 일대를 強打하여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0.15에는 金成龍소령을 前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新井里(平康 北쪽 8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集中 그 일대를 삼시간에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5월 22일 : 이날도 08.05에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3대의 제1편대는 전날 強打한 바 있는 新井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이날 10.55에 美 공군의 Bordley중위를 先頭로 한 3대의 제2편대도 이륙하여 新井里를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는데 이때 1번기 Bordley중위의 愛機(F-51 전 폭기)가 敵의 對空砲火에 被彈되어 위태롭게 귀착하는 등 한때 江陵(K-18)기지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5월 23일 : 이날 10.20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를 뚫고 沙里院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集中한 결과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3.40에는 張星太대위를 前대장으로 한 제2편대의 4대도 注驗里(高城 西北쪽 18km)로 出擊하여 폭탄을 集中,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5월 24일 : 이날 07.45에 吳春陸소령을 前대장으로 하는 4대의 제1편대가 大龍里(沙里

院 西北쪽 4km)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0. 25에는 金成龍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2편대도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沙里院 상공으로 출격하여 즉시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한편 이날 13. 40에 張星太대위를 先頭장으로 한 4대의 編隊가 大龍里(沙里院 西北 4km)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 수송 不能 토록 만들어 놓았다.

5월 25일 : 이날 08. 40에 吳春陸소령을 先頭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京元線 鐵道를 폭격할 目的으로 劍拂浪 상공에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機關車 1대를 全破하고 貨物車輛 3輛을 燒却시켰다.

또 10. 40에는 美 공군의 Weber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劍拂浪(平康 北쪽 15km) 일대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貨物車輛 4輛을 全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13. 00에는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4대의 1개 편대가 劍拂浪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이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貨物車輛 2輛을 全破하고 2輛을 大破 燒却시켰다.

5월 26일 : 이날도 08. 00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劍拂浪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한 결과 貨物車輛 2輛을 全破하고 2輛을 大破하였다.

또 11. 15에는 尹應烈소령을 先頭로 한 제2편대 4대가 敵의 對空砲火를 뚫고 劍拂浪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4. 40에는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도 午前에 強打한 바 있는 劍拂浪으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2개소를 大破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5월 27일 : 이날 12. 00에 吳春陸소령을 先頭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는 遼南里(平康 北쪽 1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4. 10에도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平康 상공으로 출격하였는데 3번기 Weber대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途中에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3대는 目標을 폭격하기 위하여 遼南里 상공으로 出擊, 폭탄 集中으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5월 28일 : 이날도 07. 30에 尹應烈소령이 이끄는 4대의 편대가 전날 強打한 바 있는 遼南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 集中으로 삼시간에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3. 00에는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遼南里로 出擊하여 폭탄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強打 하였다.

그리고 이어 14.50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出擊한 4대의 제2편대도 遼南里 상공에 이르는 즉시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5월 29일: 며칠동안 계속하여 京元線 遮斷 목적을 斷行한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이날도 07.55에 金成龍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梨木里(平康 北쪽 12km) 상공에 出擊하는 즉시로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強打하였다.

그리고 이어 09.40에는 尹應烈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는 道修堡(平康 北쪽 10km)로 출격하였는데 이때 3번기 朴完圭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途中에서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3대는 道修堡 상공에서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貨物車輛 2輛을 燒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2.00에는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劍拂浪 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2개소를 強打하여 수송 불능토록 만들어 놓았다.

5월 31일: 이날 07.40에는 金成龍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中和(平壤 東南쪽 1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이어 09.50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난무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勝湖里(平壤 東쪽 16km)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6월 1일: 이날 07.40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가 中和와 勝湖里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2일: 이날 07.45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편대가 新興里(通川 東南쪽 7km)로 出擊하는 즉시로 이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機動路 1개소를 遮斷하였으며 트럭 1대를 全破하였다.

또 이날 13.30에는 金成龍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紛飛하는 상공을 뚫고 敝川里(新高山 西南쪽 7km)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5.20에는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新高山 상공으로 出擊하는 즉시, 敝川里와 石橋里(新高山 西南쪽 6km) 일대를 強打한 결과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機動路 1개소를 폭파하였다.

6월 4일: 이날 10.25에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는 勝湖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3.10에는 吳春陸소령을 先頭로 한 4대의 편대가 新高山 일대로 출격하여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5일: 이날 10.25에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編隊는 敵의 對空砲彈이

亂飛하는 상공을 뚫고서 龍化里(順川 東南쪽 20km)에 出擊하는 즉시로 主目標에 急降下 進入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15.50에도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가 德山里(平壤 東北쪽 27km)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6월 6일 : 이날 10.30에 孫興俊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는 馬洞里(順川 東南쪽 19km) 상공으로 출격하여 目標을 強打한 끝에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6.30에도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午前에 強打한 馬洞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한 다음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6월 7일 : 이날 07.40에 李康和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난무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石橋里(新高山 東南쪽 6km)로 출격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으며 다른 2개소도 폭파하였다.

또 10.15 에는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截川里(新高山 東南쪽 7km)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50에는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編隊도 午前에 強打한 截川里로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9일 : 이날 13.30에 李康和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孫興俊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三登 西쪽 3km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제2편대는 勝湖里 東西 3km에 있는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10일 : 이날 05.50에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3대의 제2편대가 合勢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뚫고 挑哥嶺(新高山 南쪽 21 km)으로 出擊하여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11일 : 이날 11.05에 田鳳熙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11.10에 李康和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 2편대가 合勢로 截寧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4.10에는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가 敵의 對空砲火가 咆哮하는 상공을 헤치며 上海里(沙里院 西南쪽 10km)로 出擊하여 鐵道를 強打 1개소를 切斷하였다.

6월 12일 : 이날 07.50에 田鳳熙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는 蕢州 北쪽 3km에 있는 目標을 強打한 결과 鐵道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0.15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黃州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35에도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가 敵의 對空砲火를 뚫고 黃州 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를 強打한 결과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13일 : 이날 08.00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中和로 出擊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0.50에도 孫興俊대위를 先頭로 한 제2편대는 제1편대가 強打한 中和로 다시 出擊 目標를 強打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敵의 士氣를 크게 저하시켰다.

한편 13.45에는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力浦(平壤 南쪽 8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強打하였다.

6월 14일 : 이날 07.35에 朴斗元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였는데 3번기 李康和소령의 愛機(F-51전폭기)가 engine고장으로 말미암아 途中 귀환하고 나머지 3대는 桂池里(順川 南쪽 6km)를 強打한 끝에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0.50에도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月城里와 胥丹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12.50에는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編隊는 中和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를 捕捉하고 이를 強打한 결과 鐵道 2개소를 遮斷하였다.

6월 15일 : 이날 08.00에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長山里(沙里院 東南쪽 10km)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遮斷하였다.

이어 10.40에는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馬洞(沙里院 東南쪽 18km)과 長山里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4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16일 : 이날 08.55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編隊가 目標 상공으로 出擊하던 중 北韓상공 일대에 짙은 구름이 뒤덮인 까닭으로 말미암아 楊口 北쪽 15km 상공에서 임무 수행을 中斷하고 귀환하였다.

그러나 12.55에는 다시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3대의 제1편대가 貨泉里(平壤 南쪽 18km)로 出擊하여 目標를 捕捉하는 즉시 75°의 降下 각도로 進入하여 폭탄을 投下하니 鐵道 1개소가 切斷되고 그 일대는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겼다.

또 13.05에도 孫興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貨泉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을 集中한 결과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한편 이날 17.05에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와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한 4대

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兩編隊가 合勢, 勝湖里 일대로 出擊하였는데 제2편대의 2번기 玄昌健소위의 愛機가 engine고장을 이르게 途中 귀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7대는 勝湖里 東쪽 20km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17일 : 이날 07.05에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이날도 전날에 이어 勝湖里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 投下로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뒤감아 놓았다.

또 09.10에는 吳春鎔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目標 상공으로 出擊中, 3번기 朴完圭대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3대는 梧山里(元山 東南쪽 23km) 상공에 出擊하는 즉시 目標를 強打한 끝에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6월19일 : 이날 12.40에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5대의 제1편대는 三防里(新高山 西南쪽 15km)와 項防洞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5.20에는 吳春鎔소령을 편대장으로한 5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을 헤치면서 三防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3개소를 大破하였다.

6월 20일 : 이날 09.30에 田鳳熙 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梨木里(平康 北쪽 11km)로 出擊하여 目標를 強打한 결과 鐵道 切斷 1개소와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55에는 美 공군의 Weber대위가 單機로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敵陣에 機銃을 퍼부어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어 11.30에 張星太대위가 이끈 4대의 제3편대도 梨木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14.20에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梨木里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16.30에도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梨木里로 出擊하여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6월 21일 : 이날 10.05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三防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11.55에는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亂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제1편대가 強打한 三防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니 삼시간에 敵의 철도수송이 마비되었다.

한편 이날 14.50에는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제1편대가 午前에 이어 다시 三防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로 火焰으로 뒤감아 놓았다.

또 16.30에도 朴完圭대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2편대도 三防里로 出擊하여 폭탄 投下

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6월 22일 : 이날 07.25에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梨木里에 폭탄을 集中,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08.55에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제2편대의 4대가 다시 梨木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수송 불능토록 대파하였다.

한편 이날 12.20에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京元線의 폭격 目標地인 梨木里로 出擊, 鐵道 2개소를 遮斷하고 2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4.20에는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5대의 제2편대가 다시 京元線 폭격을 目的으로 出擊하던중 5번기 朴用萬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4대는 梨木里 상공에 이르는 즉시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6월 23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同一目標에 폭격을 계속토록 되어 08.55에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4대의 제1편대가 梨木里 상공에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에 急降下進入으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이어 09.45에는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한 제2편대가 梨木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砲打하였다.

한편 이날 13.30에는 張星太대위를 機長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도 다시 梨木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폭격,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5.10에도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再次 梨木里로 出擊,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對空砲 陣地 1개소도 完破하는 戰果를 거두고 全機 무사히 귀환하였다.

6월 24일 : 이날 09.55에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劍拂浪 상공 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다른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敵의 砲陣地 1개소도 完破하는 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1.05에도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劍拂浪 상공 일대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뒤덮어 놓았다.

한편 이날 15.00에는 孫興俊 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도 劍拂浪 상공으로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에 急降下 進入하여 폭탄을 集中,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이어 16.05에도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劍拂浪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前線으로 이어지는 機動路 1개소도 폭파하였다.

6월 25일 : 이날 11.00에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梨木里—劍拂浪 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3개소를 大破하였는데 이 폭격에서 4번기 朴用萬

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귀환중 春川(K-47) 비행에 不時着하였다.

또 12.00에 孫興俊대위를 長機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梨木里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다른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4.50에 朴完圭대위가 이끄는 제1편대의 4대가 이륙하여 梨木里로 出擊,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1개소를 수송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이어 15.55에는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出擊한 4대의 제2편대는 梨木里—道修堡 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폭파하였다.

6월 26일 : 이날 11.00에도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梨木里—道修堡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8개소를 大破하였다. 이어 12.00에는 朴完圭대위를 先頭機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梨木里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다.

한편 이날 15.55에 姜鎬倫중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劍拂浪 상공에서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이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또 17.05에 田鳳熙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梨木里—劍拂浪 일대로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을 強打하여 鐵道 2개소를 遮斷한 다음 全機가 귀환하던중에 4번기 Weber대위가 鐵原 東北쪽 5mile 상공에서 各機間에 Radio 연락이 있는 뒤에 原因未詳으로 실종되었다.

또 18.20에는 吳春睦소령을 先頭로 이륙한 제3편대는 失蹤된 Weber대위를 탐색키 위하여 中部前線 일대를 엄호하면서 鐵原 상공 일대와 平康일대를 선회하였으나 끝내 탐색치 못하고 20.10에 귀환하였다.

6월 23일 : 이날 08.45에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琴基里(新高山 西南쪽 5km)의 일대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09.55에 朴斗元중위를 先頭機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新高山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補給品 집적소 1개소를 燒却시켰다.

한편 12.35에는 張屋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기지를 이륙하여 三防里로 出擊 그 일대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3.50에도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三防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3개소를 切斷 수송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6월 29일 : 이날부터 30일까지 兩日間은 비바람이 불기도 하였으나 제10전투비행전대의 정비반 요원들이 其間 連日 계속된 機體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면서 다음 出擊에 만전을 期하였다.

7월 1일 : 이날 08.50에 田鳳熙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松山里(元山 南쪽 5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09.4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松山里로 출격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2.50에도 白晶鉉중위를 先頭로 이룩한 4대의 編隊가 午前에 強打한 松山里로 다시 出擊,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7월 2일 :이날 14.50에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가 元山 상공으로 出擊하여 松山里—龍湖里일대의 鐵道 3개소를 切斷하였다.

7월 3일 :10.35에 周永福소령이 이끄는 4대의 편대가 下多田里(通川 東南쪽18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7월 4일 :이날 09.00에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룩하여 三防里로 出擊,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4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09.55에는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三防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12.55에는 田鳳熙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三防里로 다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이어 13.55에는 周永福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通川으로 出擊中 2번기 林鍾斗소위의 愛機가 engine고장을 이르기자 3번기 朴用萬중위가 이를 엄호 무사히 귀착하였으나 나머지 2대는 目標인 浦項里 상공에 이르는 즉시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遮斷하고 北으로 向하는 트럭부대를 捕捉, 이에 機銃을 퍼부어 그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7월 5일 :09.45에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룩한 제1편대는 09.50에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룩한 4대의 제2편대와 合勢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元山 상공으로 出擊, 제1편대는 炭釜里(元山 南쪽 3.5km)의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제2편대는 見山里(元山 東南 6km)와 興南일대의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여 수송을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2.55에도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룩한 4대의 編隊가 見山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鐵道 2개소를 遮斷하였다.

7월 6일 :이날 09.30에 吳春睦소령이 이끌고 이룩한 4대의 제1편대는 劍拂浪일대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건물 3棟을 全破하였다. 이어 09.50에는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룩한 4대의 제2편대가 洗浦(新高山 西南 24km)로 出擊,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機動路 1개소를 遮斷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3棟도 燒却시켰다.

7월 7일 :이날 09.40에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룩한 4대의 제1편대는 貨泉里(勝湖里東쪽 10km)로 出擊 한 다음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제1편대의 뒤를 이어 孫興俊대위를 先頭로 이룩한 제2편대도 貨泉里로 出擊하여 그일대에 폭탄을 集中,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2.25에는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룩한 제1편대의 4대는 勝湖里 일대로 출격,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으며, 이어 13.35에도 田鳳熙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貨泉里로 出擊,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7월 8일 : 이날 08.55에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전날에 強打한 貨泉里로 다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集中,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또 10.00에는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貨泉里로 出擊,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機動路 1개소를 遮斷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13.05에 李康和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다시 貨泉里로 出擊,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다. 이어 13.40에도 朴完圭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계속 強打한 貨泉里로 出擊한 다음 鐵道 2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遮斷하여 鐵道 수송을 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7월 9일 : 이날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그간 連日 出擊한 機體를 점검하기 위하여 自體 정비반 요원들의 비행정비점검을 받았다.

7월 12일 : 이날 15.55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5대의 제1편대와 朴完圭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5대의 제2편대가 合勢하여 敵의 對空砲火를 해치며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였는데 제1편대의 2번기 林鍾斗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途中 귀착하고 나머지 4대는 道修岱(平康 北쪽 9km)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1개소를 大破하였으며 機動路 1개소를 遮斷하였다. 또 제2편대는 物開里(新幕 東南쪽 11km)로 出擊, 그 일대에 폭탄의 洗禮를 퍼부어 鐵道 1개소를 遮斷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Mustang)전폭기들은 東部—中部—西部의 前線을 따라散在한 보급품집적소와 戰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비롯하여 機動路를 強打하는 한편 鐵道網의 증추를 이루고 있는 都邑를 폭격하고 軍용건물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敵은 休戰會談이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틈을 타서 前線에 탄약과 보급품을 推進하는 한편 再攻勢를 피하고자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파한 空軍은 每日 이를 強打, 그들의 戰力이 여지없이 분쇄되자 敵은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全前線과 그 背後에 對空砲陣地를 強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들의 노력도 我空軍力에 의하여 좌절되자 그들의 空軍도 MIG-15 Jet機로써 對抗하는 一方으로 밤을 이용하여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하는 등 점차 그들의 力點도 증강되고 있었는데 期間中空軍의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트럭 및 우마차 폭파	7대
군용 건물 및 군수공장 폭파	81동	유류 저장소 및 보급품 집적소 폭파	4개소
철도 차단 및 보급로	428개소		
기관차 및 화물차량 폭파	22량	F-51 전폭기 추락	2대
대공포 전지 및 Bunker 폭파	4개소	조종사 전사(실종1명포함)	2명

마. 韓國空軍의 擴張

空軍은 敵의 空軍力 증강의 動態를 注視하면서 我空軍의 力量擴張에 힘쓰게 되었으니 즉, 1952년 3월에는 「空軍 擴張 3個年 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이 이를 政府에 제출하고 美空軍 側에 요청토록 하는 한편 이해 4월부터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空軍 전반에 걸친 整備확충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美空軍當局의 소의인 지원을 얻지 못하여 완전한 目標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我空軍의 都邑 폭격작전 期間中에 있어 各部隊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즉, 1952년 5월 25일에는 공군본부 전반에 걸쳐 개편이 있었고 6월 18일에는 조종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제2정찰비행전대를 해연함과 동시에 새로이 제1전투비행단에 제15교육비행전대를 두어 泗川(K-4)基地에 창설하였다. 또 6월 30일에는 基地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기지단을 해연, 이를 各基地에 배속시켰으며 7월 1일에는 大田(K-5)에서 신병교육을 담당할 항공병학교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後方部隊의 개편과 아울러 전투부대인 제1전투비행단도 6월 18일 대폭 개편되었는데 특히 江陵(K-18)기지의 제10전투비행전대를 強化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權成根소령 (1975. 6. 25 自宅에서, 예 소장)

『1952년 4월 5일 09.10에 羅昌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편대가 江陵(K-18)기지 滯走路를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鎭南浦 西北쪽 15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鐵道와 軍용건물을 강타하면서 짙은 안개로 뒤덮인 鎭南浦 상공으로 進入하였다.

이때 안개속을 헤치고 높이 솟은 工場 연통을 捕捉하게 되자 이 일대가 工場지대임을 판단하고 편대장 羅昌俊대위가 즉시 이에 폭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명령과 동시에 目標로 急降下進入하고 나머지 僚機 3대도 뒤따르려는 때 갑자기 안개속을 뚫고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였으며 이에 羅昌俊대위의 愛機(F-51전폭기)가 被彈되자 그는 계속 폭격할 것을 당부하고 火焰에 휩싸인채로 工場에 突入,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에 격분한 3대의 僚機는 勿論이고 내가 이끄는 4대의 편대도 폭탄과 Rocket탄을 目標에 集中하고 한 戰友를 불길속에 잃어버린채 비통한 울분을 억제하면서 귀착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所 出擊 조종사들은 입술을 깨물면서 날개

가 회복되면 재차 猛爆 할것을 다짐하였다.』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朴完圭대위 (1975. 6. 27 自宅에서, 예 준장)

『1952년 6월 26일에 17.05 田鳳熙소령(2번기 林翔鏞소위, 3번기 朴用萬중위, 4번기 美 공군의 Weber대위)을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F-51전폭기가 敵의 對空砲가 狂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梨木里一劍拂浪일대로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에 폭탄 8발과 機銃 500발을 集中하여 鐵道 2개소를 폭파하고 空機가 귀환하던중 鐵原, 東北쪽 5mile 상공에서 原因未詳으로 敵陣으로 추락 실종되자 나는 이날 18.20에 吳春陸소령(2번기 張星太대위, 3번기 朴完圭, 4번기 周永福소령)을 先頭로 이륙하여 失蹤된 Weber대위를 探索코자 中部戰線 일대로 出擊하였는데 이날은 비까지 내리고 날이 어두웠지만 1시간 50분동안 이나 상공을 선회하며 찾았으나 끝내는 찾지 못하고(後에 포로교환때 Weber대위는 귀환하였음) 20.10에 귀환하였 듯이 전투중에도 조종사가 被彈되거나 失蹤되면 모든 작전을 中斷하고 탐색 出擊을 할만큼 그 비중이 컸다.』

2. 敵의 補給品 集積所에 대한 爆擊 (1952년 7월 13일부터 1952년 10월 27일까지)

참조 :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소장 金 貞 烈	소위 李 昌 實	소위 林 炳 斗
제1전투 비행단장	준장 張 德 昌	소위 (9월 1일부터) 朴 喜 坤	소위 趙 恒 植
제10전투비행전대장	중령 姜 鎬 倫	소위 宋 在 鳳	소위 李 燦 權
출격조종사		소위 玄 昌 健	소위 金 萬 鎔
중령 姜 鎬 倫	중위 裒 相 昊	소위 林 鍾 斗	소위 崔 順 善
소령 田 鳳 熙	중위 朴 用 萬	소위 金 直 漢	소위 崔 鍾 成
소령 吳 春 陸	중위 林 淳 赫	소위 李 載 國	소위 閔 旭 東
소령 李 康 和	중위 李 豪 英	소위 林 東 璿	소위 黃 正 德
소령 周 永 福	중위 朴 斗 元	소위 權 贊 植	소위 田 亨 一
대위 金 錦 成	중위 白 晶 鉉	소위 金 浩 淵	
대위 朴 完 圭	소위 林 翔 燮	美 空軍 조종사	
대위 張 星 太	소위 李 學 善	소령 Crego	대위 Voits
대위 俞 致 坤	소위 金 泌 楨	소령 Mueller	중위 Carson
대위 孫 在 權	소위 崔 聖 達	소령 Hrymes	중위 Randoll
중위 權 重 華	소위 申 寬 植		

나. 전투 전의 개황

지난해 7월 10일부서의 休戰會談 以來로 局部的인 격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발적인 接觸이 있었고 偵察 및 探索戰이 계속되었으나, 이것은 敵의 攻勢포기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攻勢로 移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兵力과 보급물자를 滿洲로부터 前線으로 수송하는 期間의 空白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UN空軍側은 이와같은 敵의 企圖를 粉碎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격태세를 갖추 時間餘裕를 주

리 않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北韓일대에 있는 주요 비행장과 各 郡邑과 보급품 집적소 및 보급로 遮斷등의 목적에 重點을 指向키로 하였다.

이러한 UN空軍의 활동과 더불어 韓國空軍에서는 北韓에 있는 郡邑를 비롯하여 보급로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爆撃을 斷行하던중 그들이 밤을 이용하여 各 戰線으로 보급품 수송을 끈질기게 계속하므로 元山—新安州 路上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주요 目標로 決定하여 連日의 出擊으로 이를 粉砕하기에 이르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952년 7월 13일부터 제10전투비행전대는 계속 江陵(K-18)基地에서 敵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는데 즉 첫날은 9대의 F-51 전폭기 편대로 두차례에 걸쳐서 平康 일대를 폭격하였으며, 14일에는 雨天을 무릅쓰고 다시 출격하였으나 視界不明으로 폭탄 8발을 東海에 投下하고 귀환하였다.

그뒤 連日 계속되는 降雨로 말미암아 出擊을 中斷하고 있다가 19일에 다시 出擊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로부터 25일까지는 平康—伊川—長箭—縣里—元山—谷山등에 도합 80대가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하였다.

또한 8월에는 23일간에 걸쳐 304대가 縣里—新院里—通川—高城—延安—新高山—淮陽과 昌道里—市邊里—甕津—平壤 등에 폭탄과 Rocket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으며 9월에는 22일간의 出擊으로 147대가 平山—谷山—沙里院 그리고 縣里—高城—淮陽등에 10월에는 20일간에 걸쳐 580대가 高城—縣里와 伊川—溫井—南川—元山—高原—勝湖里를 비롯 甕津—海州—截寧—谷山등의 보급품 집적소와 건물 및 철도, Bunker, 철교와 機動路를 그리고 유류저장소등을 폭파하였는데 그 月日別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7월 13일 : 이날 12.25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한 8대의 제1 편대가 江陵(K-18) 기지를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平康 北쪽 10km로 出擊하였는데 9번기 田鳳熙소령의 愛機(F-51 전폭기)는 Engine 고장을 이트켜 기지 滑走路에서 이륙을 中斷하고 다음 出擊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비반 요원들의 정비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8대는 目標 상공으로 계속 出擊하여 道修堡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7棟을 燒却하고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으며,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는 한편 對空砲 陣地 2개소를 強打하였다.

또 15.40에는 李康和소령이 9대를 이끌고 이륙하던중 9번기 張星太대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으로 기지의 滑走路에서 出擊을 中斷하였으나, 나머지 8대는 下注里(平康 西北쪽 10km)로 出擊한 다음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目標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와 건물 3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7월 14일 : 이날은 아침부터 심한 비가 나렸는데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이를 무릅쓰

교 12.25에 朴完圭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를 出擊토록 命令하였다. 이 編隊는 즉시 敵의 보급품 집적소 폭격작전에 임하였으나 더욱 심한 惡天候로 말미암아 폭탄 8발을 東海上에 投下하고 12.50에 全機가 귀착하였다.

7월 15일: 이 날부터 18일까지는 계속되는 비바람으로 出擊을 中斷하고 다음 出擊에 대비하여 출격조종사들에 대한 작전교육과 F-51(Mustang) 전폭기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다.

7월 19일: 이 날도 午前까지 비가 계속 나리고 있었는데 午後에 다소 날씨가 회복되자 14.35에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公洞里(平康 西北쪽 15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로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이날 16.10에는 張星太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2편대가 公洞里로 다시 出擊하여, 敵의 탄약집적소 1개소와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니, 탄약집적소의 연쇄적인 폭발과 유류저장소에서 솟아 오르는 불기둥이 하늘을 가를듯이 솟아 올랐다.

7월 20일: 이날 13.55에 周永福소령이 指揮하는 4대의 제1편대와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각각 기지를 이륙하여 兩 編隊가 合勢, 다시 公洞里 상공에 이르는 즉시 제1편대는 보급품 집적소 1개소와 Bunker 5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對空砲陣地 2개소를 強打하였다.

또한 제2편대도 그 뒤를 이어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을 投下하여 보급품 집적소와 對空砲 陣地로 判斷되는 目標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7월 21일: 이날 09.00에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龍浦里(谷山 東南쪽 20km)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1개소와 탄약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35에도 權重華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제1편대가 強打한 龍浦里로 다시 出擊, 敵의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건물 3棟을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13.55에는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編隊는 熊津里(元山 東南쪽 15km)로 出擊 그 부근에 있는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다.

7월 22일: 이날 08.55에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平康을 目標로 出擊하였는데 2번기 林鍾斗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으로 말미암아 途中에서 反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3대는 계속 公洞里로 出擊하여 폭탄의 洗禮로 敵의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燒시켰다. 또 11.20에도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2편대는 제1편대가 強打한 公洞里로 다시 出擊하여 敵의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4.25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도 墨谷里(幹康 東南쪽 14km)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7.10에도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墨谷里로 出擊하여 敵의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

고 유류저장소 1개소를 強打하니 그 일대는 삼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7월 23일 : 이날 08.15에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龍浦里(谷山 東南쪽 20km)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全燒시켰다. 또 10.2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機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龍浦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全破하였다.

또한 이날 12.50에도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龍浦里로 다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燒却하였다. 이어 14.50에는 朴完圭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龍浦里로 다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였다.

7월 24일 : 이날 08.00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九溪里(元山 東南쪽 25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와 鐵道를 폭파하였다. 또 09.55에 白晶鉉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縣里 東南쪽 竹葉山(△1090)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強打 2개소를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2.00에도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順甲里(縣里 東쪽 7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對空砲 陣地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4.00에는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縣里 東南쪽 8km의 竹葉山(△1090) 일대에 있는 對空砲 陣地 1개소를 全破하였다.

7월 25일 : 이날 07.35에 白晶鉉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는 長箭상공으로 出擊하여 板橋里 南쪽 12km 의魯南嶺(△536)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敵의 보급품 집적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7월 26일 : 이날부터 31일까지 6일간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止하고 다음 出擊을 위한 機體(F-51전폭기)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出擊 조종사들에게 作戰敎育을 實施하였다.

8월 1일 : 이날 09.35에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縣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對空砲 陣地 2개소를 폭파하고 Bunker 1개소도 完破하였을 뿐 아니라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燒却시켰다.

또 10.55에 朴斗元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縣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對空砲 陣地 1개소를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3.20에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對空砲火가 粉飛하는 下新院里(縣里 東北쪽 4km)로 出擊하던중 3번기 朴用萬중위의 震機가 Engine 고장으로 말미암아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3대는 目標 상공에 이르는 즉시로 폭탄과 Rocket탄을 비롯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3.30에는 張星太대위가 指揮하는 4대의 제2편대도 下新院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 1개소

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對空砲 陣地 1개소를 強打하였다.

8월 2일 : 이날 08.30에 田鳳熙소령을 前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編隊가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기 위하여 出擊中 杆城地區 상공에서 敵의 대공포에 3번기 朴斗元중위의 愛機가 被탄되자 낙하산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마침 航海中인 民間船舶에 의하여 救助되었으나 끝내 戰死하게 되었다. 이날 나머지 3대도 이 事故로 因하여 그 目標 상공을 엄호하다가 귀착하였다.

8월 3일 : 이날 07.35에 田鳳熙소령이 이끌고 出擊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을 헤치면서 目標에 Rocket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집적소 7개소와 건물 5棟을 全破하였으며 對空砲 陣地 4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09.05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新院里로 出擊하여 보급품집적소 1개소와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14.30에는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縣里 東南쪽 5km의 小垵里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15.55에도 朴完圭 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小垵里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와 건물들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8월 4일 : 이날 08.50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新院里로 出擊하여 對空砲彈을 헤치면서 目標에 急降下進入으로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유류저장소 1개소와 건물 10棟을 全燒시켰는데 이때 솟아 오르는 불기둥은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또 09.55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機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長箭 西쪽 7km에 있는 五峰山(△1264)기슭 일대에 散在한 敵의 건물과 Bunker를 強打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鐵片과 石片이 난비하는 修羅場이 되었다.

한편 13.30에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新院里로 出擊하여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14.35에는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麻次津里(高城 東南쪽 19km) 일대로 出擊하여 유류저장소 1개소와 건물 5棟을 폭파, 이를 全燒시켰다.

8월 5일 : 이날 09.25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兩 編隊의 合勢로 順甲里(縣里 東쪽 6km)에 出擊하는 즉시로 제1편대는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키는 한편 보급품 집적소 4개소와 對空砲 陣地 2개소를 비롯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으며, 제2편대는 건물 1棟과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날 02.05에는 田鳳熙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도 順甲里로 出擊하여 敵의 보급품 집적소 1개소와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3.15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浦項里 일대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다.

8월 6일 : 이날 10.25에 朴完圭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通川 南쪽 18km의 進士峰(△1074)일대로 出擊하여 이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8개소와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貨物車輛 1輛을 비롯하여 牛馬車 3대를 燒却시켰다. 또 11.30에는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다시 進士峰(△1074)일대로 出擊하여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敵의 보급품 집적소 1개소와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 하였다.

그리고 14.35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도 元山地區에 대한 목적을 斷行하기 위하여 雙鷄坪里로 出擊,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全燒시켰다. 이어 15.25에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新店里(通川 南쪽 8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洗禮로 탄약 집적소 1개소와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強打, 그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8월 7일 : 이날 10.05에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縣里 東南쪽 9km의 竹葉山(△1090)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散在한 目標에 Rocket탄과 機銃을 集中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유류저장소 1개소 그리고 건물 4棟과 對空砲 陣地 1개소를 各各 全破하였다. 또 11.00에는 朴用萬 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竹葉山(△1090)으로 出擊하여 그 기슭에 있는 보급품집적소와 건물을 強打 各各 1개소를 燒却시켰다.

한편 이날 14.00에는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다시 竹葉山(△1090)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유류저장소 1개소와 건물 1棟을 全燒하였다. 이어 15.05에 吳春睦소령의 指揮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下新院里(縣里 東北쪽 4km)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1개소와 對空砲 陣地 1개소를 完破하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8월 8일 : 이날 09.50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正陽洞(縣里 東北쪽 15km)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건물 1棟과 보급품집적소 2개소를 燒却시켰다. 또 10.05에도 白晶鉸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는 이미 제1편대가 強打한 바 있는 正陽洞으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의 건물 2棟과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13.05에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가 이륙하여 長淵里(縣里 東北쪽 13km)에서 보급품 집적소 2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8월 9일 : 이날 07.35에 白晶鉸중위를 先頭로 基地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長淵里로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을 強打하여 보급품 집적소 7개소와 對空砲 陣地 2개소를 비롯 건물 1棟을 폭파하였다. 이어 09.35에는 裒相昊중위를 先頭機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長淵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燒却시켰다.

8월 10일 : 이날 10.35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編隊가 順甲里로 出擊하던중 2번기 玄昌健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3대는 順甲里

일대에 있는 보급품집적소 4개소를 全燒시키고 건물 1棟을 燒却하였다.

한편 12.3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順甲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燒시켰으며, 이어 13.40에도 白晶鉉 중위를 先頭機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順甲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건물 1棟을 全破하였다.

8월 11일 : 이날 09.30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花溪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건물 5棟과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05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도 다시 花溪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다음 건물 5棟을 燒却시켰다.

한편 이날 15.05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機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花溪里로 다시 出擊하여 이 일대의 건물 3棟을 全破하고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6.30에도 裴相昊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初西里 東北쪽 2km에 있는 目標을 強打 건물 4棟을 全破하였다.

8월 12일 : 이날 08.02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昌道里 일대로 出擊, 그 일대에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強打하고 [건물 1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0.00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機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다시 昌道里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Rocket탄과 機銃을 集中,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건물 2棟을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2.50에도 裴相昊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다시 昌道里로 出擊하여 보급품집적소 2개소와 건물 3棟을 全燒시켰으며, 이어 15.00에는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昌道里 일대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8월 13일 : 이날 10.00에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한 8대의 編隊가 白川 西南쪽 10km의 王之峰(△712) 기슭에 있는 目標에 폭탄과 Rocket탄 그리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9棟과 橋梁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4.00에도 田鳳熙소령이 이끄는 8대의 編隊가 午前에 強打한 王之峰(△712) 기슭 일대로 出擊하여 건물 8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全燒케 하였다.

8월 14일 : 이날 07.45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新高山 東南쪽 12km의 鐵嶺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건물 5棟과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全燒시키고 對空砲 陣地 1개소와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50에는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淮陽 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7棟을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13.05에는 周永福소령이 이끄는 4대의 編隊도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다시 淮陽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燒却시키고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8월 15일 : 이날 08.05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 1 편대는 淮陽 東南쪽 10km의 新安里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Rocket 탄과 機銃洗禮로 보급 품집적소 6개소와 건물 6棟을 全燒시키고 牛馬車 2대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20에는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昌道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棟을 燒却시켰다.

한편 이날 14.00에도 白晶鉉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가 沛川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沛川里 南쪽 8km에 있는 目標를 強打, 건물 3棟과 牛馬車 2대를 燒却시키고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8월 16일 : 이날 07.25에 周永福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 1 편대가 伊川 東北쪽 7km의 烽火山(△344)기슭에 있는 보급품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였으며, 또 09.50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로 4대의 제 2 편대가 이륙하여 烽火山(△344)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유류저장소 2개소와 건물 1棟을 火焰으로 摧감아 燒却시키고 트럭 1대를 폭파하였다.

그리고 11.15에도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다시 烽火山(△344)으로 出擊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빗발치는 상공을 헤치며 目標로 進入 이에 Rocket 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을 火焰으로 摧감아 놓았다.

8월 17일 : 이날 08.40에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北韓상공으로 出擊



<美 극동공군사령부를 방문한 金貞烈 소장>

하였으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氣象으로 말미암아 全機 江陵(K-18)기지로 귀환하였다.

한편 이날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은 美 극동공군사령관을 방문하고 공군확장문제를 협의 하였다.

8월 18일 : 이날부터 19일까지 兩日間에 계속되는 氣象不良으로 인하여 제 10전투비행 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止하고 自體 정비반 요원들의 F-51

전폭기 정비를 받으면서 出擊

조종사들에게 다음 出擊에 대비한 作戰敎育으로 만전을 期하였다.

8월 20일 : 이날 07.5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 1 편대는 昌道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Rocket 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全破하였으며, 또 08.50에는 吳相奭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昌道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2개소와 건물 2棟을 全破 이틀 燒却시켰다.

한편 11.50에는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 1 편대가 昌道里로 다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燒시키고 탄약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탄약의 연쇄적인 폭발은 그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어 12.45에도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다시 昌道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고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니, 삼시간에 불과하다 되었다.

8월 21일 : 이날 10.20에 朴完圭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 1 편대는 長湍으로 出擊하여 건물 1棟을 全破하고 곳곳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또 11.45에도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다시 長湍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5.15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 1 편대가 다시 長湍으로 出擊하여 그일대의 보급품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였다. 이어 16.40에도 白晶鉉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長湍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 건물 3棟을 燒却하고 機動路 1개소를 폭파하였다.

8월 22일 : 이날 11.00에 姜鎬倫중령의 指揮로 이륙한 8대의 編隊가 康翎 東北쪽 3km에 있는 目標에 폭탄과 Rocket 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6棟을 全破하고 敵兵 20명에게 損傷을 주었다.

8월 23일 : 이날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계속되는 비와 심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비행활동이 中止되었는데 제 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다음 出擊을 위한 조종사들의 作戰敎育과 自體 정비반요원들의 F-51전폭기 정비에 注力하였다.

8월 27일 : 이날 午前까지 비는 계속되었으나 차차 날씨가 회복 되는듯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12.20에 吳春睦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8대의 編隊는 鎭化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對空砲 陣地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6.55에는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編隊가 다시 鎭化 상공으로 出擊하였는데 5번기 周永福소령의 愛機가 機體 고장을 이르게 귀환하고 나머지 7대가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1棟을 燒却하였을 뿐 아니라, 그일대에 있는 對空砲 陣地를 強打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8월 28일 : 전날 午後부터 내리는 비는 이날도 계속되어 제 10전투비행전대의 전폭기들은 出擊을 中止하고 정비반 요원들의 정비점검을 받으면서 조종사들은 다음 出擊에 待機하였다.

8월 29일 : 이날 08.20에 姜鎬倫중령의 指揮로 기지를 이륙한 12대의 제 1 편대는 平壤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工場 5棟을 폭파 火焰으로 휘

감아 놓았다.

또 12.25에도 田鳳熙소령이 이끌고 이룩한 12대의 제 2 편대가 다시 平壤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工場 1棟을 全破하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이어 15.55에는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룩한 12대의 編隊도 平壤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工場 3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8월 30일 : 이날 11.10에 田鳳熙소령이 이끄는 8대의 編隊가 金城상공으로 出擊하여 高峴里(初西里 北쪽 6km)에 있는 對空砲 陣地를 強打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한 이날 14.50에는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룩한 8대의 編隊가 다시 高峴里로 出擊,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對空砲 陣地 3개소를 폭파하였다.

8월 31일 :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비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제 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斷하고 參戰 조종사들에 대한 目標을 정확히 集中할 수 있는 목적술 敎育을 실시하였다.

9월 1일 : 이날 11.35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8대의 제 1 편대가 初西里 東北쪽 8km의 炭甘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對空砲陣地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4.30에는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룩한 8대의 제 2 편대도 午前에 強打한 炭甘里로 다시 出擊하여 탄약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고 對空砲 陣地 4개소를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9월 2일 : 이날 09.25에 林淳赫 중위를 先頭로 이룩한 4대의 제 1 편대는 龍城里 (金泉 東北쪽 12km)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6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05에는 白晶鉉중위를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룩한 4대의 제 2 편대가 다시 龍城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건물 3棟을 燒却하고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2.25에 裴相昊중위가 이끌고 이룩한 4대의 제 1 편대도 午前에 強打한 龍城里로 다시 出擊하여 건물 5棟을 全燒시켰으며, 이어 13.50에도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룩한 4대의 제 2 편대가 龍城里로 出擊하여 건물 3棟을 全破하였다.

9월 3일 : 며칠간 北韓 상공을 검은 구름이 계속 맴돌더니, 기어이 이날은 비까지 내리어 제 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出擊을 中止하고, 정비반의 機體 점검을 받으면서 다음 遮斷 작전을 準備하였다.

9월 4일 : 이날 午前까지도 惡天候로 말미암아 出擊하지 못하였으나, 午後부터 다소 날씨가 회복되어 14.00에는 朴完奎대위를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룩한 8대의 제 1 편대가 初西里 東北쪽 6km 炭甘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건물 3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으며, 또 17.00에는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8대의 제 2 편대도 炭甘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對空砲 陣地 2개소를 폭파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9월 5일: 이날 07.00에 白晶鉉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 1 편대가 伊川으로 出擊하는 즉시로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또 10.15에는 藜相昊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 2 편대가 伊川으로 出擊하여 건물 3棟을 燒却하고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50에도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 3 편대가 다시 伊川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 건물 1棟과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破하였으며, 또한 이날 13.25에는 林淳赫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편대도 伊川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棟을 燒却하였다.

9월 6일: 이날 05.5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편대가 溫井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Rocket 탄을 集中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20棟을 全破하는 한편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30명을 燬殺하였다.

또 이날 16.45에는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편대가 다시 溫井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건물 25棟을 全燒시키고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한 다음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9월 7일: 이날은 北韓 상공을 뒤덮은 먹구름과 때때로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제 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出擊을 保留하고, 機體 점검을 받으면서 다음 出擊을 준비하였다.

9월 8일: 이날 午前에도 氣象이 고르지 않아 出擊하지 못하였으나 午後부터 점차로 회복되어 14.40에 吳春陸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제 1 편대는 分池水里(縣里 西南쪽 10km)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2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7.00에는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11대의 제 2 편대도 分池水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4棟을 燒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9월 9일: 이날 12.30에 樞重華중위를 先頭로 한 8대의 제 1 편대가 伊川으로 出擊하여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고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強打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불바다가 되었다. 또 15.20에도 藜相昊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 2 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다시 伊川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5개소와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니 하늘을 찌를듯 솟아 오르는 불기둥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계속 그 일대를 삼킬듯 하였다.

9월 10일: 이날 08.55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편대는 遂安 西南쪽 4km 일대에 있는 目標를 強打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또 12.55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로한 8대의 편대가 谷山 일대로 出擊하는 즉시로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4棟을 燒却하고 對空砲 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다.

9월 11일 : 이날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止하고 自體정비반 요원들의 機體점검을 받는 한편 조종사들은 作戰 Briefing으로 出擊을 준비하였다.

9월 12일 : 이날 11.30에 襄相昊중위를 先頭로 8대의 제 1 편대는 金城地區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洗禮로 野砲 陣地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또 13.50에는 權重華중위를 先頭로 한 8대의 제 2 편대도 金城일대로 出擊하여 對空砲 陣地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1棟을 燒却하였다.

9월 13일 : 이날 07.55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한 8대의 제 1 편대가 遂安 西南쪽 4km 상공 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한 즉시로 이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집적소 5개를 全破하였다. 또 12.30에는 白晶鉉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 2 편대도 遂安 西南쪽 4km의 상공으로 出擊하여 製品倉庫 8개소를 全破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燒却하였다.

9월 14일 : 이날 09.30에 權重華중위를 앞세우고 이륙한 8대의 제 1 편대는 溫川洞(安峽 東쪽 1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건물 2棟을 燒却하고 機動路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이어 12.40에는 襄相昊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 2 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伊川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9월 15일 : 이날 10.05에 杜完圭대위를 편대장으로 한 8대의 제 1 편대가 安峽 상공으로 出擊하여 山站里 南쪽 4km 에 있는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 건물 1棟을 全燒시키고 Bunker 2개소를 폭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13.45에는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 2 편대도 다시 山站里 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防空壕 3개소를 폭파하였다.

9월 16일 : 이날 10.30에 林淳赫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 1 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伊川상공으로 出擊하여 禾岩里 일대에 있는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燒시키고 對空砲 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6.20에는 襄相昊중위를 앞세우고 이륙한 8대의 제 2 편대도 敵의 對空砲火가炸裂하는 禾岩里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8개소를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9월 17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禾岩里일대에 대한 폭격을 계속토록 되어 09.45에 吳春陸 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제 1 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炸裂하는 禾岩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이어 13.15에는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 2 편대도 다시 禾岩里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9개소를 폭파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건물 3棟을 全燒시켰다.

9월 18일 : 이날 09.10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 1편대는 金谷里 (金化 西北쪽 6km)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하여 보급품 집적소 9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탄약 집적소에서 탄약의 연쇄적인 폭발로 이 일대를 뒤흔들었다. 또 12.35에도 張星太대위를 先頭로 이륙한 12대의 제 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金谷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9월 19일 : 이날 10.50에 吳春睦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 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狂飛하는 昌道里 西北쪽 8km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2棟과 工場을 폭파 이를 全燒시켰다. 또 16.25에는 朴完圭대위를 先頭로 한 12대의 제 2편대는 都儀里 (金城 西北쪽 7km)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9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全燒케 하였다.

9월 20일 : 이날 09.35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 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金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Rocket 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11개소를 폭파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燒却하였다. 또 13.50에는 張重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1대의 제 2편대도 金城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한 다음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9월 21일 : 이날은 目標상공에 낮게 뒤덮은 구름과 대페로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出擊을 中斷하고 自體 정비반 요원들의 機體 점검을 받으면서 다음 出擊준비에 만전을 期하였다.

9월 22일 : 이날 10.25에 田鳳熙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1개편대는 沙里院 상공으로 出擊하여 鷄井洞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건물 8棟을 폭파 이를 燒却하였으며 트럭 1대를 強打 全燒하였다. 또 14.00에는 吳春睦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編隊가 縣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花溪里 일대에 있는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폭파하였다.

9월 23일 : 이날 10.30에 周永福소령이 이끄는 12대의 編隊가 이륙하여 전날 強打한 花溪里로 다시 出擊한 다음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 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9개소를 폭파 이를 燒却하였으며, 이어, 13.40에는 張星太대위를 前대장으로 淮陽 일대로 出擊하여 泉邑里에 있는 目標을 捕捉하고 이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10개소를 全燒하였다.

9월 24일 : 이날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 전폭기들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出擊을 保留하고, 정비반 요원들의 정비점검을 받으면서 조종사들에게 다음 폭격 目標에 대한 作戰敎育등으로 앞으로의 出擊을 준비하였다.

9월 27일 : 이날 09.45에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編隊는 淮陽상공으로 出擊하여 下橋洞里的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집적소 10개소를

폭과 이를 全燒하였다.

9월 28일 : 이날 12.00에 張星太대위가 이끄는 12대의 제1편대가 金城상공으로 出擊하여 沙番洞일대에 있는 目標을 強打한 결과 보급품집적소 10개소를 폭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4.25에는 周永福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金城상공으로 다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全燒케 하였다.

9월 29일 : 이날 10.35에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昌道里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폭과하였으며, 이어 12.50에는 周永福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花溪里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8개소를 폭과 이를 全燒하였다.

9월 30일 : 이날부터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止하고 F-51전폭기들이 泗川基地(K-4)로 移動하였는데 이는 10월 1일 空軍 創立 제3주년 記念式에 參加키 爲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0월 1일 泗川(K-4)基地에서 李承晚大統領을 비롯하여 内外賓客과 韓美 空軍首腦部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出擊에서 연마한 조종술로 空中曲藝를 연출하여 갈채를 받았으며, F-51전폭기들은 10월 2일 다시 다음의 출격을 위하여 이날 江陵(K-18)基地에 귀착하였다.

10월 3일 : 이날 11.3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가 新昌洞(縣里 北쪽 13km)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과 이를 全燒하였다. 또 13.40에는 張星太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1대의 제2편가대 縣里상공으로 出擊하여 新院里에 있는 目標을 捕捉하고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急降下 進入으로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과하고 건물 1棟을 強打 이를 燒却시켰다.

10월 4일 : 이날 10.15에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한 12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縣里로 出擊하여 新院里 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과하고 건물 1棟을 全燒하는 戰果를 거두고 全機 귀착하였다.

또 13.55에는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도 新院里로 다시 出擊하여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5棟을 폭과 이를 燒却시켰다.

10월 5일 : 이날 10.35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烏川里(縣里 西南쪽 12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7개소를 폭과 이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3.15에는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도 占方里(花溪里 南쪽 16km)일대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10개소

를 폭파 이를 소멸하였다.

10월 6일 : 이날 10.00에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가 平壤 南쪽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目標상공을 擊치면서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다.

10월 7일 : 이날은 北韓 상공일대를 먹구름이 뒤덮고 가끔 비까지 내리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出擊을 保留하고 傘 조종사들에게 다음 폭격에 대한 敎育으로 次期 出擊을 준비하였다.

10월 8일 : 이날 11.30에도 상공을 낮게 뒤덮은 구름이 비행활동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나 이를 무릅쓰고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는 勝湖里 東쪽 4km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이를 強打, 鐵道 3개소를 切斷하고 13.30에 全機 גיע에 귀착하였다.

10월 9일 : 이날 11.25에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7대의 編隊가 目標상공으로 出擊하던중 2번기 權贊植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으로 말미암아 途中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16대는 陽德일대에 있는 鐵道에 폭탄을 投下하고 鐵道 4개소를 폭파하였다.

10월 10일 : 이날 11.20에 張星太대위를 편대장으로한 12대의 제1편대가 平壤 東南쪽 14km의 勝湖里일대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敵의 건물 9棟을 強打 이를 火箭으로 뒤감아 燒却하였다. 이어 13.40에는 俞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淮陽-谷山일대로 出擊하여 보급품 積貯所 3개소를 폭파하고 機動路 2개를 遮斷하는 한편 牛馬車 1대를 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14.15에는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3편대도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擊치면서 新幕 南쪽 5km에 있는 目標를 強打한 결과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 그 일대를 삼시간에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건물 6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10월 11일 : 이날 10.40에 俞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3대의 編隊는 東幕里(新幕 西南쪽 15km)일대로 出擊하여 目標를 捕捉하는 즉시로 건물 30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 13.30에는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裕洞里로 出擊,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탄과 機銃을 集中, 건물 5棟을 全燒시키고 機動路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4.05에도 孫興俊대위가 이끄는 12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상공을 擊치면서 東幕里로 다시 出擊 그 일대의 건물 15棟을 強打 이를 火箭으로 뒤감아 燒却시켰다.

10월 12일 : 이날 09.5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西興里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7棟을 全燒

하고 橋梁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10에는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6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溫井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 이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12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13.10에 孫興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裕洞里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rocket탄과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6.30에는 朴用萬중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縣里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6棟을 全破하는 한편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10월 13일 : 이날 06.5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嶺後洞(新高山 東南쪽 9km)일대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12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 09.40에는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伊川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 건물 11棟을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3.00에 兪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梁浦洞일대로 出擊하여 건물 2棟을 全破하고 機動路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3.20에도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紛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嶺後洞(新高山 東南쪽 9km)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건물 4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10월 14일 : 이날 06.4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追水浦(平康 東北쪽 19km)일대로 出擊하여 건물 2棟을 全破하였으며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強打하여 이를 全燒하였다. 이어 09.40에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高原상공으로 出擊하던중 7번기 金萬鎔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11대는 南西里(高原 東쪽 11km)에 이르른 즉시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鐵道 1개소를 폭파 이를 切斷하였을 뿐 아니라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고 12.20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²⁾

또 09.50에는 李豪英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바 있는 追水浦로 다시 出擊하여 이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3棟을 燒却하고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3.00에 林翔燮소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追水浦로 다시 出擊하여 건물 2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 이를 全燒시켰다.

또 13.15에는 張晁太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南西里(高原 東쪽 11km)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1개소를 切斷하고 鐵橋 1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1棟을 全破하였다.

이어 16.10에는 宋在鳳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도 深浦洞—塘隅里 일대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건물 4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全燒시켰다.

10월 15일 : 이날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連日 계속된 出擊으로 말미암아 機體(F-51 전폭기)의 이상 有無를 점검하기 위하여 出擊을 中斷하고 自體 정비반요원들의 비행정비를 實施토록 하였다.

10월 16일 : 이날 06.30에 玄昌健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深浦洞 西南쪽 10km에 있는 目標 상공으로 出擊하여 이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2棟을 全破하였을 뿐 아니라 삼시간에 그 일대를 삼킬듯 한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06.45에는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12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裕洞里 상공으로 出擊, 건물 3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한 10.20에는 朴喜坤소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도 深浦洞 北쪽 4km에 있는 目標 상공으로 出擊하여 이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 集中으로 건물 4棟을 全破하였다. 이어 10.30에도 兪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4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狂飛하는 裕洞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3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과 各各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12.25에 林鍾斗소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深浦洞 南쪽 4km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2棟을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強打하였다.

이어 16.1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伊川 北쪽 10km에 있는 目標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飛來하는 상공을 가르면서 目標로 急降下 進入 이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건물 1棟을 全燒시키고 機動路 1개소를 폭과 하였다.

10월 17일 : 이날 08.45에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甯津 西쪽 5km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27棟을 全破 이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하였다. 또 09.00에는 李豪英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伊川 北쪽 14km일대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이를 強打 건물 5棟을 全破하였다.

이어 11.50에도 宋在鳳소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平康—淮陽 상공일대로 出擊하여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건물 1棟을 燒却하였으며 유류저장소 1개소를 強打,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13.50에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가 甯津 西쪽 5km의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17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 14.15에는 林鍾斗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追水浦(平壤 東北쪽 19km)로 出擊하여 이 일대를 強打, 건물 6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16.20에도 林翹燮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前線의 友軍에 대하여 보급품을 空中投下하는 C-46수송기를 엄호하였는데 이때 敵의 對空砲火로 3번기 金泓楨소위의 愛機가 被彈되어 귀환하였으며 4번기 Grego소령의 愛機도 右翼과 연료 Tank에 被彈되어 귀환, 조종사는 탈출하고 機體는 着陸과 때를 같이 하여 화염에 휩싸여 全燒되었다.

10월 18일 : 이날 06.45에 李昌寅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裕洞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건물 3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 09.40에는 張星太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新溪 北쪽 4km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이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6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이어 09.50에도 李濠英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3편대가 遼南里(平康 東北쪽 19km)일대로 出擊하여 건물 5棟을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3.15에는 俞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編隊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新溪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건물 18棟을 全破하고 敵의 機動路 1개소를 폭파하였다.

10월 19일 : 이날 08.10에 吳春睦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가 新院里(海州 北쪽 20km)일대로 出擊하여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7棟을 全破하였으며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13.40에는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6대의 編隊도 午前에 이어 海州상공으로 出擊하고 있었는데 4번기 金泓楨소위와 16번기 李濠英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途中 귀환하였으며 나머지 14대는 계속 目標상공인 新院里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13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는 한편 Bunker 3개소를 폭파하고 15.25에 全機 무사히 가지에 귀착하였다.

10월 20일 : 이날 09.00에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6대의 編隊는 戰寧 西南쪽 14km의 信川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을 捕捉한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건물 15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全燒시켰다.

또한 13.10에는 俞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6대의 編隊는 龍川里(戰寧 西南쪽 8km)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12棟을 全破하였을 뿐 아니라 機動路 2개소도 폭파하였다.

10월 21일 : 이날부터 22일까지 兩日間 제10전투비행전대의 F-51전폭기들은 出擊을 保留하고 自體 정비반 요원들의 철저한 비행점검을 받는 한편 다음 出擊을 준비토록 하였다

10월 23일 : 이날 09.50에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8대의 제1편대는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건

물 2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 11.05에는 美 공군의 Volts대위를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륙한 8대의 제2편대가 高峴里(高城 北쪽 6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工場일대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5.10에 俞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8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縣里 南쪽 5km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에 폭탄을 投下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시켰다. 이어 16.00에도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8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飛來하는 縣里 南쪽 4km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10월 24일 : 이날 09.0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가 新昌里(海州 東北쪽 12km)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咆哮하는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6棟을 폭파하였다.

한편 13.40에는 朴用萬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8대의 제1편대가 縣里 東北쪽 3km에 있는 目標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7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3.55에도 林翔燮소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8대의 제2편대가 長淵里(縣里 東北쪽 11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全燒하였다.

10월 25일 : 이날 09.30에 俞致坤대위가 이끄는 8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金化 상공으로 出擊하여 占方里일대에 있는 目標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火焰으로 휘감아 이를 燒却하였다. 또 10.00에는 林鍾斗소위를 先頭로 한 8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다시 長淵里로 出擊, 보급품 집적소 9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날 심한 바람이 부는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江陵(K-18)기지에 귀환하지 못하고 橫城(K-46)기지에 全機가 着陸하였다.

한편 이날 15.05에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와 午前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橫城(K-46)기지에 着陸한 8대와 合勢하여 信川(載寧 西南쪽 13km)일대로 出擊, 건물 12棟을 強打 이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全機 무사히 江陵(K-18)기지에 귀환하였다.

10월 26일 : 이날 09.30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가 沙洞里(縣里 東南쪽 11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00에는 李濠英중위가 이끄는 8대의 제2편대도 제1편대가 強打한 沙洞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7개소를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4.20에는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가 文區里(新幕 西南쪽 12km)로 出擊, 유류저장소 1개소를 폭파하고 보급품 집적소 8개소를 強打하였을 뿐 아니

라 건물 12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10월 27일 : 이날 08.45에 美 공군의 Volts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8대의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縣里 東쪽 4km의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제3번기 林炳斗소위의 愛機가 左翼에 敵의 對空砲彈에 被彈되어 한때 위태롭기도 하였으나 09.45에 全機 무사히 기지에 귀환하였다.

이어 09.00에는 李昌寅중위가 이끄는 8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沙洞 洞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 이를 燒却시켰다.

한편 이날 12.50에는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海州 東쪽 5km에 있는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14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고 全機 무사히 귀환하였는데 이로써 지난 7월 13일부터 전개한 보급품 집적소 폭격작전의 매듭을 지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期間中 空軍은 敵의 前線 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그 背後에 교묘히 숨겨 놓은 보급품을 폭파 이를 燒却시켰을 뿐 아니라 後方으로부터 前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每日 強打하였다.

특히 高城—縣里—金城—平康—市邊里와 澆津—海州에 폭탄을 集中하여 보급품을 폭파하고 東部에서는 元山—高原을 中部에서는 新溪—谷山—陽德 그리고 西部에서는 靑寧—中和—平壤에 이르기까지의 보급 요충지를 모조리 강타하는 한편 보급로를 폭파하였다.

이와 같은 空軍의 活動으로 敵의 보급 동맥이 붕괴되고 보급품이 기근상태에 빠지게 되자 敵은 鐵道나 기타 수송차량에 의한 보급품수송을 人力에 의존하게 되었으니 즉 그들은 兵力을 動員하여 발을 이용하면서 山의 계곡을 따라 前線으로 보급품을 직접 수송하여 接戰中인 戰線에 탄약과 식량 등의 소모충당에 注力하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戰果 및 損失

戰 果			
군용건물	全破	567동	유류저장소 全破 17개소
Bunker	"	26개소	야포진지 " 2 "
보급품집적소	"	412 "	철 도 " 17 "
對空砲진지	"	46 "	화물차량 " 1량
보 급 로	"	1 "	우마차 " 8대
기 동 로	"	12 "	교 량 및 철교 3개소
탄약집적소	"	7 "	工 場 " 12동
트 렉	"	2 대	敵사살 " 50명
損 失			
F-51 전폭기		1대	조종사 1명

§ 參戰者의 證言

◇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金泌楨 소위
 (1975. 6. 26 自宅에서, 예 대령)

1952년 10월 17일 16.20에 林翺燮 소위 (2번기 田亨一 소위 3번기 金泌楨 소위 4번기 美空軍의 Grego 소령)를 先頭로 기거를 이륙한 4대의 F-51전폭기는 敵의 對空砲火가 集中하는 鐵原 상공으로 出擊하여 戰線에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韓國 제1군단에 대한 C-46 수송기의 공중 투하 보급을 엄호하던중 4번기인 Grego 소령의 愛機가 對空砲彈에 의하여 右翼 연료탱크가 被彈되자 3번기인 나는 그를 엄호하면서 鐵原 南쪽 友軍비행장에 胴體로 착륙토록 하였다.

이때 조종사는 탈출하고 機體는 火焰에 휘감겨 全燒되었는데 나의 愛機도 敵의 對空砲彈에 機體아래의 Radiator에 被彈되어 潤滑유가 다 흘러 나와 버렸기 때문에 Engine을 끄고 大關頭를 넘어 江陵(K-18)基地 Tower에 연락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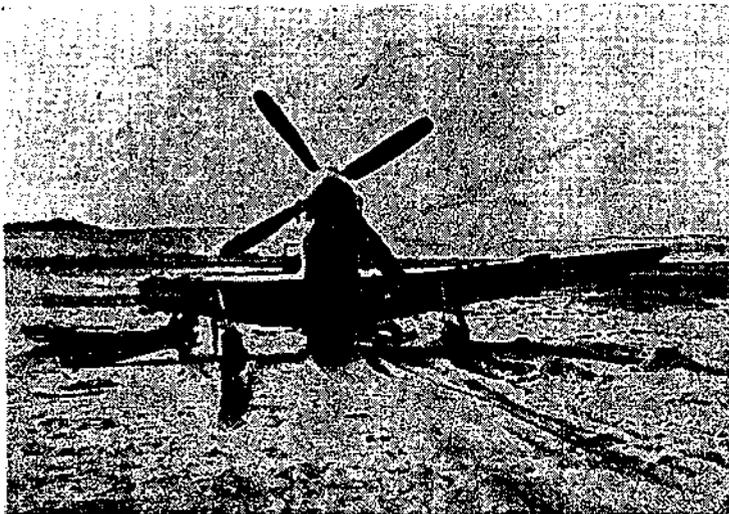
륙을 시도하려는데 공교롭게도 美海軍의 F9F (Panther) 조종사가 敵의 對空砲彈에 被彈 한쪽 발까지 상처를 입고 Emergency를 불러 착륙을 요청하므로 나는 그를 먼저 착륙케 하고 뒤를 이어 무사히 착륙, 흠뻑 밤에 젖은 조종복을 어루 만지면서 내리는 나를 戰隊 조종사들이 안도의 한숨과 환희에 가득찬 모습으로 맞아 줄 때 조종사로서 祖國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보라매들의 戰友를 더욱 切實하게 느꼈던 것이다.

◇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田鳳熙 소령
 (1975. 6. 29 自宅에서, 예 준장)

1952년 8월 2일 08.30에 내 (2번기 玄昌健 소위 3번기 朴斗元 중위, 4번기 美空軍의 Grego 소령)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F-51전폭기는 이날 敵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기 위하여 敵

의 상공으로 出擊中이었는데 3번기 朴斗元 중위의 愛機가 敵의 對空砲彈에 피탄, 空中 폭발이 되자 朴斗元 중위가 즉시로 東海上에 낙하산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마침 航海中이던 船舶에 의하여 救助되었으나 끝내 하늘의 한 勇士 朴斗元 중위는 戰死하였으며, 나와 나머지 2대는 사고 目標상공을 엄호하다가 戰友를 잃고 착잡한 마음으로 입을 굳게 다문채 귀환하여 이날의 出擊을 中止하고 故人의 명복을 빌었다.



〈F-51(Mustang)전폭기의 胴體着陸〉

3. 第一次 近接航空支援作戰과 後方遮斷作戰(1952년10월28일부터 1952년12월31일까지)

별첨부도 제 28 호
참조:상 황 도 제 8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총 참 모 장	소장	金 貞 烈
	소장	崔 用 德
		(12월 1일부터)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 德 昌
제10전투비행전대장	중령	姜 鎬 倫
출격조종사		
중 령	姜 鎬 倫	
소 령	吳 春 陸	
소 령	金 鎬 成(12월1일부터)	
소 령	張 星 太(")	
대 위	俞 致 坤	
대 위	孫 興 俊	
중 위	朴 用 萬	
중 위	李 藁 英	
중 위	李 寬 模	
중 위	金 永 煥	
중 위	尹 子 重	
중 위	李 喜 根	
중 위	金 永 敏	
중 위	金 洛 奎	
중 위	李 周 杓	
중 위	千 永 星	
중 위	丁 海 英	
중 위	崔 榮 昌	
중 위	李 培 善	
중 위	高 光 壽	
중 위	金 重 寶	

중 위	李 昌 賢
중 위	林 喜 坤(11월1일부터)
중 위	宋 在 鳳(")
중 위	玄 昌 健(")
중 위	林 鍾 斗(")
중 위	林 翹 燮(")
중 위	李 聖 善(12월1일부터)
중 위	金 泌 楨(")
중 위	崔 聖 達(")
중 위	申 寬 植(")
중 위	林 炳 斗(")
중 위	趙 恒 植(")
중 위	李 燦 植(")
중 위	金 萬 鎔(")
중 위	崔 順 善(")
중 위	金 直 漢(")
중 위	李 載 國(")
중 위	林 東 璿(")
중 위	權 贊 植(")
중 위	金 浩 淵(")
중 위	崔 鍾 成(")
중 위	閔 旭 東(")
중 위	黃 正 德(")
중 위	田 亨 一(")
美 空軍 조종사	
대 위	Volts
대 위	Fields

나. 전투 전의 개황

1952년 7월 以後부터의 休戰會談에서 有利한 高地를 확보하려고 膠着된 地上戰線에 局部的으로 惹起된 彼我의 衝突이 있었던 바 10월 14일부터는 「鐵의 三角地帶」에서 狙擊稜線 전투를 그리고 10月末부터는 金城 東北쪽 “斷腸의 稜線”에서 서로 격전을 벌였으며 아울러 平康 南쪽과 高浪浦 西北쪽에서도 陣地爭奪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戰局에 있어서 韓國空軍은 그동안 敵의 보급품 집적소를 強打하여 계속 戰力을 둔화시키는 한편 지금까지의 實戰과 訓練을 통하여 전투기능도 상당히 向上되었으므로 이러한 後方遮斷 작전과 아울러 다음에 담당할 전투지구에 대한 近接航空支援(Close air Support)으로 空地 協同作戰을 遂行하게 될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美 제5공군의 전술공군 통제전대(T A C G)에 必要한 人員을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하였다.

그뒤 1952년 10월에 이르러 韓國空軍은 F-51전폭기 40대를 보유하게 되고 日日 평균 32회에 달하는 出擊 전투능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해 10월 27일까지 도합 4,167회에 달하는 出擊기록을 세움으로써 後方遮斷작전을 遂行하면서 待望의 空地 協同作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0월 28일부터 韓國空軍은 敵의 보급품 집적소와 後方 차단폭격을 비롯하여 韓國軍 제1군단의 地上戰鬪에 대한 近接支援의 空地 協同作戰으로 高城과 杆城 兩地區에 대한 空中支援을 提供하게 되었는데 첫날은 도합 32대가 出擊하여 폭탄과 Rocket탄 그리고 機銃을 퍼부어 敵의 戰線일대에 있는 Bunker와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고 空地 協同作戰에서의 업호를 90%라는 成果를 거두었다.

또 29일에는 敵의 後方을 폭격하였으며 30일에는 高城地區에 20회에 달하는 出擊으로 敵이 巧妙히 숨겨 놓은 戰車와 兵舍및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高城을 비롯하여 信川과 高原을 비롯 海州-開城-沙里院-遼安-載寧 등에 18일간 계속하여 468회에 달하는 出擊을 기록하면서 敵의 後方 차단폭격과 敵의 戰線에 대한 近접항공지원으로 前線을 뒤흔들어 놓았고 12월에는 22일간에 걸쳐 延 490대로 平康-伊川-沙里院과 高城-杆城-縣里-新高山-元山등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敵의 前後方을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期間中 月日別 作戰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28일: 이날 09.10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江陵(K-18)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4km에 있는 敵의 前線으로 出擊하여 이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 攻擊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Bunker 1개소와 聖壕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35에는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8대의 제2편대가 沙洞里(縣里 東南쪽11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

하였다.

또 11.45에도 金錦成대위가 4대의 편대를 이끌고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高城 南쪽 3km의 상공으로 出擊한다음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는데 이 폭격에서 3번기 兪致坤대위의 愛機가 敵의 對空砲火로 한때 위태롭기도 하였으나 무사히 귀착하였다.

한편 이날 12.35에 宋在鳳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는 沙洞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4.25에도 李昌實중위가 이끄는 8대의 제2편대도 이륙하여 제1편대가 強打한 沙洞里로 다시 出擊한 다음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 4개소를 폭파 이를 全燒하였다.

10월 29일 : 이날 06.50에 金錦成대위의 先頭 지휘로 이륙한 16대의 제1편대는 山水面(沙里院 東쪽 20km)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目標를 強打,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09.20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 10.10에는 吳春陞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南쪽 3km상공으로 근접지원을 目的으로 敵의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目標로 急降下 進入한 다음 Bunker 2개소를 폭파하고 前線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들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1.10에도 兪致坤대위의 지휘로 이륙한 12대의 제3편대가 山水面(沙里院 東쪽 20km)일대로 出擊하여 目標에 2회나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5棟을 全破하고 機動路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 出擊에서 5번기 金泓楨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途中 귀환하는 以外에는 全機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귀착하였다.

10월 30일 : 이날 10.00에 兪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4km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前線일대에 있는 Bunker와 兵力 集結地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0.10에는 林翔燮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縣里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 이를 全燒하고 戰車 1대를 全破하였다.

또 14.35에도 宋在鳳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3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狂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長淵里(縣里 東北쪽 10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全破하였다.

10월 31일 :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兩日間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連日 出擊한 F-51(Mustang) 전폭기들에 대한 自體 정비반 요원들의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하여 다음 出擊에 대비하였다.

11월 2일 : 이날 08.55에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3대의 제1편대가 石台里 상공으로 出擊하였는데 途中에 3번기 田亨一소위와 10번기 李載國소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켜 귀환하고 나머지 11대는 目標로 出擊한다음 石台里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敵의 건물 10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이어 10.35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高城 東南쪽 3km에 있는 目標상공에 이르러 그 일대를 強打 敵의 前線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이날 14.50에도 林鍾斗중위를 前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편대는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石台里(元山 東南쪽 28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건물 7棟을 全燒하였는데 이 목적에서 3번기 林東璫소위와 11번기 崔鍾成소위의 愛機가 敵의 對空砲火로 林東璫소위는 귀환 途中에 機體가 폭발할 직전 탈출하였으나, 崔鍾成소위는 東海岸 松田地區에 愛機와 더불어 敵陣에 突入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11월 3일 : 이날 07.00에 兪致坤대위가 이끄는 12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전날 장렬히 산화한 戰友의 모습을 그리며 竹川里(海州 西北쪽 25km) 상공으로 出擊하는 즉시로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25棟을 強打 이를 燒却하였다.

또 11.00에는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東南쪽 4km에 있는 敵의 前線 일대에 폭탄을 集中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4.55에도 朴用萬 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12대의 편대는 午前에 強打한 竹川里로 다시 出擊하여 그 일대에서 건물 15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11월 4일 : 이날 06.55에 朴用萬중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高原 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貨物車輛 4輛을 全破하였다.

이어 10.00에는 金錦成大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南쪽 4km의 敵 戰線일대에 散在한 目標에 폭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30에도 兪致坤대위의 先頭 지휘로 이륙한 12대의 제3편대가 淸泉里(載寧 東南쪽 18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11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15.00에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高城 西南쪽 8km의 敵 前線일대로 出擊한다음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Bunker 3개소를 폭파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4.40에는 金錦成 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淸泉里(載寧 東南쪽 18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11棟을 全破하였다.

11월 5일 : 이날 09.07에 林鍾斗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는 金川 西南쪽 1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 洗禮로 건물 9棟과 보급품 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35에는 俞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西南쪽 8km의 前線일대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2.10에 林翔燮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金川 西南쪽 1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2회에 걸친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 5棟을 全破 이틀 燒却하였다. 또 12.35에는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西쪽 1.5km의 敵 前線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가하였다.

11월 6일 : 이날 午前에는 氣象이 고르지 않아 出擊을 中斷하였으나 午後부터 다소 날씨가 회복되어 13.00에 俞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6대의 編隊가 華山里(沙里院 北쪽 10 km) 일대로 出擊中 5번기 林炳斗소위와 6번기 金直漢소위 그리고 7번기 權贊植소위와 8번기 申寬植소위는 engine 고장을 이르게 귀환하였으나 나머지 12대는 계속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7일 : 이날은 北韓상공일대에 검은 구름이 낮게 뒤덮히고 비바람까지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保留하고 정비반 요원들의 비행정비를 받으면서 다음 出擊에 대비하였다.

11월 8일 : 이날 06.50에 林鍾斗 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砲撃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龍川里(松禾 東쪽 6km) 일대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10棟을 全破 이틀 燒却하였다.

또 09.30는 李昌寅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南쪽 4km 로 出擊하여 地上軍에 呼應하여 이를 엄호하면서 戰線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었다. 이어 11.30에도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3편대가 다시 龍川里(松禾東쪽 16 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건물 4棟을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2.05에는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高城 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과 呼應하면서 敵의 戰線에 폭탄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9일 : 이날 10.35에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폭탄을 集中하여 機動路 1개소도 폭파하였다. 이어 11.05에는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物開里(新幕 東南쪽 11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10일 : 이날 09.35에 姜鎬倫중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와 孫興俊대위가 이끄는 12대의 제2편대가 出擊하였는데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飛來하는 高城 西쪽 5km 상공으로 出擊 그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軍용건물 2棟

을 全破하였으며 Bunker 2개소를 폭파하는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고 제2편대는 桂東里(沙里院 西北쪽 8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 投下로 鐵道 1개소를 切斷하였을 뿐 아니라 온 증일 검은 연기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휘감겨 하늘을 저를듯 솟아 오르게 하였다.

또 12.35에도 金錦成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高城 西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前線 일대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3.00에 俞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桂東里(沙里院 西北쪽 8km)로 出擊하여 그 일대의 鐵道 7개소를 切斷하였다.

11월 11일 : 이날부터 14일까지 4日間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F-51전폭기 편대들의 出擊을 中斷하고 자체정비관 요원들의 철저한 정비를 받으면서 出擊 조종사들에게는 보다 치밀한 폭격술에 따르는 제반 作戰敎育을 실시하여 다음 出擊에 대비하였다.

11월 15일 : 이날 10.35에 吳春陸소령의 先頭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海州 東北쪽 5km의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을 集中한 결과 건물 5棟을 全破하였을 뿐 아니라 탄약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탄약 집적소의 폭음은 하늘을 진동시켰다.

또 14.15에는 金錦成대위가 이끄는 12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다시 海州 東北쪽 5km 상공으로 出擊,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건물 3棟을 全破하고 보급품집적소 3개소를 폭파이를 燒却시켰다.

11월 16일 : 이날 09.50에 俞致坤대위의 先頭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龍鳳里(延安 東北쪽 1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이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건물 11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이어 10.0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地上軍에 呼應하여 高城 西南쪽 7km에 있는 Bunker에 폭탄을 投下하여 2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2.40에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前線 일대에 散在한 目標을 強打한 결과 Bunker 2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敵의 野砲陣地 1개소를 全破하였다.

또 13.10에도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는 비바람이 불고 目標상공에 검은 구름이 낮게 뒤덮은 까닭에 폭격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지 못하였으나, 귀환중에 敵의 陣地로 判斷되는 目標에 폭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은 다음 15.00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11월 17일 : 이날 08.30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에 呼應하면서 前線일대에 폭탄을 投下하였다.

이어 10.35에는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金城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검붉은

火焰이 하늘을 가를듯 솟아 오르게 하였다.

또 10.40에도 林翹燮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編隊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狂飛하는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한 다음 前線일대에 散在한 目標을 強打하고 敵의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다.

11월 18일 : 이날 08.30에 林鍾斗중위를 先頭로 기지를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과 呼應하면서 前線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加하였다. 이어 10.10에는 吳春睦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20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西興 西南쪽 6km의 目標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건물 9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또한 이날 12.55에도 林鍾斗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가 다시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前線일대에 散在한 目標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Bunker 3개소를 폭파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19일 : 이날 08.40에 宋在鳳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前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Bunker 3개소를 폭파하면서 近接支援을 하였다.

이어 10.50에는 金泌鎭소위를 先頭로 이륙한 16대의 제2편대가 金城里에 出擊하여 目標을 強打한 결과 건물 15棟을 全破하고 다시 白川 南쪽 4km 상공에서는 트럭을 捕捉하자 곧 이에 機銃洗禮를 加하여 2대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13.05에 金錦成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戰線일대에 폭격을 斷行한 끝에 Bunker 3개소를 폭파하면서 近接支援하였다.

이어 14.10에는 孫興俊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金城里로 出擊하여 건물 10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11월 20일 : 이날 09.40에 李泰英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前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Bunker 1개소를 폭파하는 동안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14.30에는 金錦成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9대의 제2편대가 璽津 東쪽 10km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을 集中한 결과 건물 25棟을 全燒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11월 21일 : 이날 09.10에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我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前線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0.30에는 李昌寶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8대의 제2편대가 縣里 東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6개소를 폭파하고 건물 2棟을 全燒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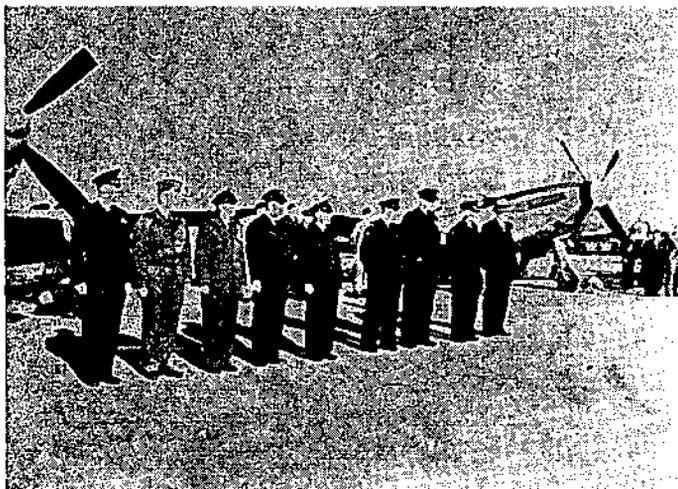
이어 11.45에도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는 高城 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엄호 하면서 前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4.45에 兪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12대의 編隊가 縣里 東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놓고 16.10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11월 22일 : 08.40에 孫興俊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林鍾斗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8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高城 東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한 다음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戰線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제2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飛來하는 金化 상공으로 出擊하여 占方里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 10소개소를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3.15에는 兪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東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었다. 이어 15.50에도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2편대가 金化 상공으로 出擊하여 占方里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23일 : 이날 08.45에 李昌實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南쪽 11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의 戰線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Bunker 4개소를 폭파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10.35에는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高城 南쪽 2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를 猛打한 결과 Bunker 6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00에도 孫興俊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제3편대가 銀山里 (載寧 東쪽 6km) 상공으로



<호주 공군으로부터 전폭기 2대를 인수받다>

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건물 18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11월 24일 : 이날부터 28일까지 5日間에 걸쳐 비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出擊을 保留하고 제10전투비행진대에서는 連日 出擊을 斷行한 F-51(Mustang) 전폭기들의 機體점검과 아울러 出擊 조종사들에 대한 作戰教育 등으로 다음 出擊을 준비하였

는데 26일에는 濠洲空軍으로부터 F-51전폭기 2대를 기증 받았다.

11월 29일 : 이날 08.45에 宋在鳳 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高城 西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幟호하면서 戰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野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Bunker 2개소를 強打하였다.

이어 11.25에는 金錦成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高城 南쪽 2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幟호하면서 戰線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이날 14.50에는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7대의 編隊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初西里 北쪽 10km의 甘泉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 이를 全燒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11월 30일 :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3日間에 걸쳐 目標상공에 구름이 낮게 뒤덮고 비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中止하고 自體정비반 요원들로 하여금 F-51 전폭기를 정비토록 하였다.

12월 1일 : 이날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준장)의 제10전투비행전대 F-51전폭기들은

날씨가 고르지 않아 出擊을 保留하고 江陵 기지의 自體정비요원들의 정비점검을 받으면서 다음 출격을 待機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은 지난 1949년 10월 1일부터 3년간 初代 총참모장인 金貞烈소장이 그 重任을 맡아 6.25의 철수와 반격전등의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韓國空軍의 확장과 美空軍의 전술 전력지원 없이 단독 작전을 遂行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놓고 二代 총참모장인 崔用德 소장에게 물려주고 이날부로 金貞烈소장은 空軍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제2대 총 참모장 崔用德소장 취임>

12월 3일 : 이날 09.40에 林

翔燮중위를 先頭로 한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泗川里北쪽 6km 상공으로 出擊하자 곧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에 폭격을 斷行한 결과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50에는 李豪英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9대의 제2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平康상공으로 出擊하여 直洞일대의 目標을 強打한 끝에 Bunker 5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2.05에는 宋在鳳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가 午前에 強打한 平康상공으로 다시 出擊하여 直洞일대에 있는 目標에 急降下 進入으로 건물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이어 12.10 에도 林鍾斗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2대의 제2편대가 다시 直洞 東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한 즉시로 이를 強打한 결과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2월 4일 : 이날 08.40에 李昌實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泗川里 東北쪽 4km상공으로 出擊하여 제1군단을 엄호하면서 前線에 散在한 目標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00에는 朴喜坤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7대의 제2편대도 金化 상공으로 出擊하여 泗川里 北쪽 8km에 있는 目標을 強打한 결과 건물 3棟을 全破, 이를 燒却시켰다.

또 11.40에도 趙恒植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7대의 제3편대가 다시 泗川里 北쪽 8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2.50에는 李豪英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가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에 散在한 Bunker 2개소를 폭파하여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2월 5일 : 이날 09.00에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2대의 제1편대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平康 東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써 Bunker 1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10에는 林翔燮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東部戰線으로 出擊하였는데 2번기 閔旭東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이르게 途中에서 墜기환하고 나머지 3대는 內沔里 東쪽 2km상공에 이르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11.55에도 兪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제1편대가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道修堡 (平康 東北쪽 9km)상공일대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7棟은 全破하고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全破하였다.

이어 12.30에는 林鍾斗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泗川里 北쪽 4km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폭탄과 機銃洗禮로 삼시간에 敵의 戰線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2월 6일 : 이날 08.40에 李昌寶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前線일대에 散在한 目標에 爆탄을 投下하여 野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탄약 積積소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이때 탄약 積積소에서의 연쇄적인 爆발은 山野를 뒤흔들었으며 하늘을 솟아오르는 火焰은 삼시간에 그 일대를 삼킬듯 하였다.

또 10.50에는 兪致坤대위가 指揮하는 15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火가 紛飛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直洞 東쪽 4km상공으로 出擊, 目標를 強打한 결과 보급품 積積소 1개소를 폭파하고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3.30에 金錦成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編隊가 高地 상공으로 出擊하여 養珍里 南쪽 5km에서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그 일대에 爆탄을 投下하고 機銃 洗禮로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2월 7일 : 이날 10.00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編隊는 高城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柳城里 東南쪽 10km일대에 爆탄과 機銃洗禮로 Bunker 3개소와 野砲陣地 1개소를 폭파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또한 13.00에는 林鍾斗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제1편대가 다시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柳城里 東南쪽 10km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前線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고 14.15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이어 15.15에도 孫興俊대위의 先頭지휘로 이륙한 14대의 2제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平康 상공으로 出擊하여 新垆里 일대에 爆탄을 集中하고 機銃洗禮로 건물 12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12월 8일 : 이날 09.35에 吳春陸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內沔里 北쪽 4km에서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前線일대를 猛爆한 결과 Bunker 4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15에는 兪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16대의 제2편대가 平康 西北쪽 2km상공으로 出擊하던중 비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目標를 폭격치 못하고 13.00에 全機가 江陵(K-18)기지에 귀환하였다.

12월 9일 : 전날 午後부터 계속 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로 말미암아 이날부터 10일까지 兩日間에 걸쳐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F-51전폭기에 대한 정비점검으로 다음 출격을 준비하였다.

12월 11일 : 이날 09.20에 孫興俊대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의 內沔里 東北쪽 3km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에 爆탄과 機銃洗禮로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0.50에 兪致坤대위가 指揮하는 15대의 제2편대가 敵의 對空砲火가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朔寧 西北쪽 4km상공으로 出擊하여 이 일대 爆탄과 機銃洗禮로 보급품 積積소 15개소를 폭파, 이를 全燒하였다.

한편 이날 14.20에는 吳春睦소령이 先頭 指揮로 이륙한 14대의 編隊가 元山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있는 目標에 폭탄을 퍼부어 鐵道 4개소를 切斷하고 15.40에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12월 14일 : 이날 09.30에 吳春睦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가 이륙하여 縣里 東北쪽 4km상공으로 出擊,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건물 2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이어 10.20에는 朴嘉坤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西쪽 1.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前線으로 이어진 機動路 1개소와 橋梁 1개소를 各各 폭파하였다. 이어 11.20에도 玄昌健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제3편대가 高城의 內沔里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前線일대의 野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고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14.10에는 吳春睦소령의 先頭 지휘로 이륙한 20대의 大대의인 編隊가 通川 상공으로 出擊하여 浦項里 南쪽 2km일대를 猛打한 끝에 건물 15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고 15.50에 全機 귀착하였다.

12월 15일 : 이날부터 16일까지 兩日間은 비와 눈보라가 몰아치므로 제10전투비행전대에서는 出擊을 保留하고 정비원요들의 비행정비를 실시토록 하였다.

12월 17일 : 이날 08.30에 吳春睦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상공으로 出擊하여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內沔里일대의 戰線에서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15에는 金錦成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敵의 對空砲火를 헤치면서 泗川里 北쪽 7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에 폭탄을 集中,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09.40에도 朴嘉坤중위를 先頭機로 이륙한 제3편대의 4대중 3번기 崔順善중위의 愛機는 機體 고장으로 기지에 안착하고 나머지 3대는 다시 泗川里로 出擊하여 敵의 前線에 폭탄과 機銃洗禮로 Bunker 1개소를 폭파하고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09.50에 俞致坤대위의 指揮로 이륙한 8대의 제1편대가 檜田里 北쪽 4.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急降下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強打하였다

또 13.50에도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16대의 제2편대가 다시 檜田里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2월 18일 : 이날 09.50에 俞致坤대위의 先頭 지휘로 20대의 편대가 沙里院 南쪽 2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건물 10棟을 폭파하고 Bunker 7개소를 強打하였다.

한편 이날 13.30에는 吳春睦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가 高城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泗川里 北쪽 6km에서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14.00에 金錦成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內沔里 北쪽 4km 상공으로 出擊, 敵의 戰線을 強打한 결과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敵 10명을 爆殺하였다.

또 14.40에는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는 다시 內沔里 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戰線에 대한 폭탄과 機銃洗禮로 Bunker 1개소를 폭파하고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2월 19일 : 이날 午前에는 北韓 상공에 구름이 낮게 뒤덮인 까닭으로 出擊을 保留하고 있다가 다소 날씨가 회복되어 13.20에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20대의 編隊가 元山 상공으로 出擊하여 鐵道 2개소를 切斷하였다.

12월 20일 : 이날 08.40에 吳春陸소령이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內沔里 北쪽 4km의 戰線 일대에 폭탄 投下로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10에는 玄昌健중위를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柳城里 南쪽 5.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目標에 急降下進入으로 Bunker 3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09.35에도 金錦成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는 다시 柳城里 南쪽 5.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14.40에는 俞致坤대위의 先頭 지휘로 이륙한 16대의 編隊는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元山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鐵道 2개소를 폭파하고 鐵橋 5개소를 切斷하였다.

12월 21일 : 이날 10.45에 朴用萬중위를 편대장으로 기지를 이륙한 16대의 編隊는 元山 西쪽 20km 상공으로 出擊하여 馬息嶺일대에 폭탄을 퍼부어 鐵道 6개소를 遮斷하였다.

한편 이날 13.35에 金錦成소령의 지휘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內沔里 西北쪽 4km의 戰線을 強打한 결과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어 14.00에는 俞致坤대위의 지휘로 다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가 高城 西南쪽 5km의 戰線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뒤흔들어 놓았으며, 또 14.35에도 吳春陸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3편대도 柳城里 南쪽 3.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戰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野砲陣地 3개소와 Bunker 2개소를 各各 폭파하였다.

12월 22일 : 이날부터 23일까지 兩日間은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므로 제10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대의 F-51(Mustang) 전폭기들은 出擊을 保留하고 정비사들의 철저한 機體 정비를 받으면서 다음 出擊을 待機하였다.

12월 24일 : 이날 09.40에 金錦成소령을 편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元山에 이어 다시 柳城里 南쪽 5.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戰線일대에서

Bunker 2개소와 野砲陣地 3개소를 각각 폭파하였다.

이어 09.50에는 玄昌健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2편대와 朴憲坤중위를 편대장으로한 4대의 제3편대도 柳城里 상공일대로 다시 出擊한다음 제2편대는 柳城里 南쪽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Bunker 1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제3편대는 柳城里 南쪽 6km일대에 폭격을 斷行하여 野砲陣地 2개소를 폭파하고 全機 무사히 귀착하였다.

또 10.00에는 李學善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4편대가 다시 柳城里 南쪽 5.5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를 強打한 끝에 Bunker 2개소를 全破하였다.

12월 25일 : 이날 10.55에 金錦成소령이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玄昌健중위를 先頭로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기지를 이륙하여 柳城里 東쪽 2km상공에서 제1편대는 野砲陣地 3개소와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敵 6명을 爆殺하였으며 제2편대는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일대를 強打한 결과 野砲陣地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1.10에는 俞致坤대위가 이끄는 제1편대와 朴憲坤중위를 先頭로 한 제2편대가 合勢하여 기지를 이륙, 도합 8대의 兩編隊는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內沔里 東北쪽 2km에 있는 目標을 強打한 결과 野砲陣地개소와 탄약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여 그 일대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트럭2대를 燒却하였다.

12월 26일 : 이날 08.30에 張星太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전날에 이어 다시 內沔里 西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다.

이어 09.15에도 李學善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제2편대는 內沔里 西北쪽 4km로 出擊하여 戰線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野砲陣地 4개소를 全破하였는데 이때 4번기 權贊植중위의 愛機가 engine 고장을 일으켜 途中에 무사히 귀착하기도 하였다.

또 09.40에는 俞致坤대위가 이끌고 이륙한 제3편대는 다시 高城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泗川里 西北쪽 10km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결과 Bunker 4개소를 全破하였다.

한편 이날 14.55에 朴用萬중위를 先頭로 기지를 이륙한 17대의 編隊는 新高山 상공으로 出擊하여 檜田里 北쪽 5.5km에 있는 目標을 強打한 결과 건물 8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고 16.45에 全機 귀착하였다.

12월 27일 : 이날 午前에는 目標상공에 검은 구름이 낮게 뒤덮고 있는 까닭에 出擊을 保留하였으나, 午後부터는 날씨가 회복되어 15.10에 玄昌健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제1편대는 內沔里 西北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野砲陣地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보급품집적소 1개소를 全破하였다.

이어 15.25에는 崔順善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4대의 제2편대가 이륙하여 다시 內沔里 東

北쪽 1km 상공으로 出擊한 다음 野砲陣地 4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15.50에도 차흥坤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가 泗川里 北쪽 6km 상공으로 出擊하여 그 일대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野砲陣地 4개소를 폭파하였을 뿐 아니라,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12월 28일 : 이날 09.15에 崔順善중위를 前대장으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泗川里 北쪽 4km에 있는 戰線일대를 強打한 끝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어 09.50에는 金泌植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泗川里 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에 폭탄과 機銃을 集中한 결과 삼시간에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10.15에도 申寬植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는 다시 內沔里 西北쪽 6km 상공으로 出擊하여 野砲陣地 1개소를 폭파하였다.

12월 29일 : 이날 13.35에 張星太소령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西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軍上을 엄호하면서 戰線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트럭 2대를 全破하고 敵兵 7명을 爆殺하였다.

이어 14.00에는 崔順善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는 高城 西北쪽 3km 상공으로 出擊하여 敵 보급품 집적소 7개소를 폭파하고 22명을 爆殺하였으며 또 14.25에도 玄昌健중위의 指揮로 이륙한 4대의 제3편대도 다시 高城으로 出擊하여 보급품 집적소 5개소를 폭파하고 敵 5명을 爆殺하는 등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12월 30일 : 이날은 전날 밤부터 目標상공을 구름이 낮게 뒤덮고 심한 바람까지 부는 등 날씨가 고르지 않아 出擊을 一旦 保留하고 連日 出擊한 F-51 (Mustang) 전폭기들에 대한 機體 점검으로 다음 出擊을 준비하였다.

12월 31일 : 이날 10.10에 朴用萬중위가 이끌고 이륙한 4대의 제1편대는 高城 西南쪽 4km 상공으로 出擊하여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戰線 일대에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洗禮로 野砲陣地 1개소와 Bunker 2개소를 폭파하고 4명을 爆殺하였다.

이어 10.35에는 崔順善중위를 先頭로 이륙한 4대의 제2편대도 高城 西南쪽 5km로 出擊하여 野砲陣地 1개소와 Bunker 3개소를 폭파하고 5명을 爆殺하였다.

한편 이날 11.00에는 俞致坤 대위가 이끄는 4대의 제1편대와 玄昌健 중위의 指揮로한 4대의 제2편대가 各各 기지를 이륙하여 兩 編隊가 合勢, 高城 西北쪽 6km 상공으로 出擊하여 제5사단을 엄호하면서 戰線 目標에 3회에 걸쳐 急降下 進入으로 폭탄을 投下하고 機銃을 퍼부어 트럭 2대를 全破, 이를 燒却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期間中 韓國 공군은 敵 後方에 대한 차단목적을 계속하면서 근접 항공지원으로 空地協同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韓國 제1군단 제5사단은 처음으로 韓國공군의 근접지원을 받으면서 敵을 분쇄하였으며 空軍은 계속 UN 空軍의 제공된 장악아래 連日 철도와 보급로 및 보급품 집적소를 비롯하여 兵力 集結地를 폭격하였을 뿐 아니라 戰線 境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敵의 人海戰術을 좌절시켰다.

이와같이 敵은 休戰會談을 有利하게 遂行시킬 目的으로 전술적 요충地를 확보하려고 攻勢를 取하고자 하다가 이러한 企圖가 空地協同作戰으로 분쇄되었으므로 그들은 다시 小規模의 局地戰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戰線은 膠着된 채로 一進一退만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戰果 및 損失

戰 果		화물 차량 폭파	4 량
보급품 집적소 폭파	132개소	철 도 "	23개소
Bunker "	133 "	탄약 집적소 "	3 "
군용건물 "	240 동	野 砲 陣 地 "	36개소
기 동 로 "	3개소	트 렉 터 "	6 대
교 량 "	1 "	損 失	
철 교 "	5 "	F-51전폭기	1 대
戰 車 "	1 대	조 증 사	1 명
敵 兵 爆 殺	49명		

§ 參戰者의 證言

◇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朴完圭대위
(1975. 6. 28 自宅에서, 예 준장)

◇ 제10전투비행전대장 姜鐵倫 중령
(1965. 6. 24. 自宅에서, 예 준장)

『제10전투비행전대의 전투조종사들은 開戰初부터 그간 後方遮斷(Interdiction)에만 注力하면서 전술전기 연마를 거듭하여 오다가 이윽고 1952년 10월 28일부터 韓國軍의 要원이던 近接 航空支援(Close Support)을 전개하게 되니 조종사들도 自身들의 參戰으로 직접 我地上軍의 희생물 줄이고 勝戰으로 이끌 수 있다는 氣志로 士氣가 드높았다. 그리하여 自身들이 어떠한 임무를 遂行하여야 하며 또 그들의 죽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후예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오직 그들의 열성과 祖國수호의 작오 아에서 위대한 조종사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다.』

『韓國空軍이 敵의 後方遮斷 폭격을 단행하는데 있어서 敵의 對空砲彈의 洗禮를 가장 많이 받던 곳이 바로 昌道里 상공이다.

이곳은 地上軍의 攻擊이 용이치 않은 요새지로 左右가 높은 山으로 쌓여 있어 폭격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간파한 敵은 이에 大대의인 보급품 집적소를 설치하고 各 戰線으로 各種 보급품을 공급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조종사들은 出擊때마다 제1 目標을 強打한다음 제2 目標가 여의치 않으면 이 昌道里에 폭탄과 Rocket탄을 集中하였는데 이를 폭격할 때마다,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여 위협을 주었다.

이 「魔의 昌道里」에서 지난해 12월 15일 辛鐵洙대위가 그리고 이 해 1월 9일 李日泳 소위가 피탄되어 장열히 산화하였으며, 나 또한 이곳에

서 被彈되어 여러번 위태로운 비행을 하였듯이 出擊 조종사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기피만 있으면 戰友를 앓아간 이 「魔의 昌道里」에 猛爆을 斷行하곤 하였다.』

◇ 제10전투비행전대 출격조종사 李燾權 소위
(1975. 6. 30 自宅에서, 예 중령)

『1952년 11월 2일 14.50에 林鍾斗중위를 편대장으로 한 12대의 F-5 전폭기 편대가 江陵(K-18) 기지를 이륙하여 敵의 對空砲彈이 炸裂하는 元山 西南쪽 28km의 石台리로 出擊, 그 일대의 目標에 폭탄 32발과 機銃 7,000발의 洗禮를 퍼부어 敵의 건물 7棟을 全破 이를 燒却하는 한편 보급품 집적소를 誑打하였다.

이때 나는 5번기였고 崔鍾成 소위는 11번기이었는데 이 목적에서 崔소위가 敵의 對空砲彈에 被彈되어 松田일대에 있는 敵의 보급품 집적소에 火焰에 싸인 愛機(F-51)전폭기와 더불어 이에 突入, 하늘의 勇士가 祖國을 수호다가 장렬히 산화하였다.』

◇ 총 참모장 金貞烈 소장

(1975. 10. 10 경우개발회사에서, 예 중장)

『당시 내가 총참모장으로 있던 1952년에는 육해공군의 戰力均衡의 차이가 극심하였는데 즉 육군은 10개사단의 戰力에 완벽을 期하기 위하여 拍車를 加하고 있었으나 空軍은 美 공군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아주 미약 하였다.

따라서 육군과 해군을 生命力있게 이들의 戰力을 뒷받침하려면 최소한 10개의 전투비행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비록 나의 생각뿐 아니라 이는 일반적인 軍事常識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해 3월 空軍의 擴張 3개년

계획안을 작성, 이를 國務會議에서 의결토록하여 美 軍事 관계 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空軍은 전투기를 主力으로 하는 4개비행단 즉 최신 신예기 300대를 보유할 수 있는 空軍力이며, 다음은 美 제 5공군이 永久히 韓國에 주둔하고 있을것이 아니므로 철수한 뒤에 不均衡(不均衡)을 막기 위하여 戰力擴張이 필요하고 끝으로 4개비행단을 편성하는게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空軍의 實力과 전술전기 연마의 도약으로 이루어 보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3개년 계획 擴張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나의 이러한 계획안은 당장 그 실효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이를 발판으로 점차 空軍力이 擴張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戰線 作戰지원만을 위주로 하는 美 극동공군에서 승인한 고문단(제 6146부대)이 韓國空軍의 前後方 全面에 걸쳐 지원하는 제6146부대로 이해 8월 15일 美 政府로 부터 정식 認可케 된것도 이를 계기로한 所産이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나는 이해 10월 19일 총참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시 한번 重任할 수 있도록 하며 人事原則은 업무인수 인계를 철저히 遂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撥命토록 하는 上疏文을 李大統領께 올려 이를 실현토록하고 그 후임에는 당시 작전참모부장인 崔用德 소장을 추천 이해 12월 1일 3년 2개월동안 맡아온 중책을 물려주고 공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나는 다시 이달 12일 UN軍 총사령부의 韓國軍事 사절단장으로 발령이 되어, 또 다른 重責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I. 二·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1952년4월 1일부터 1952년6월30일까지)

별책부도 제29호

참조: 상 환 도 제9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6. 2 대장 진급)

美 제5공군사령관

중장 Frank F. Everest
소장 Glenn O. Barcus
(1952. 5. 30 부터)

중장 Glenn O. Barcus
(6. 11 중장 진급)

美 극동공군폭격사령관

준장 Joe W. Kelly
준장 Wiley D. Ganey
(5. 15부터)

美 극동공군진투물자 공수사령관 대리
대령 Cecil H. Childre

美 극동공군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Chester E. Mccarty
(4. 10부터)

나. 期間中 UN空軍의 活動狀況

(1) 對空戰鬪

1952년 4월에도 UN空軍은 계속 제공권을 장악하고 西北韓 상공에서의 敵의 MIG機 활동을 制壓하면서 敵의 비행장을 비롯하여 對空砲 陣地를 強打하였다.

그러나 敵의 空軍도 MIG通路(MIG Alley)지역상공으로 끈질기게 出現하면서 때때로 UN空軍機에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敵 空軍의 노력은 이해 5월 18일 F-86 Sabre 遡擊機 1개 편대를 요격한 것으로 보아 확증되었는데 즉 F-86機는 이날 길은 구름을 뚫고 下降하는 MIG機 2대로부터 요격을 받았는바 이로써 敵이 地上 radar를 使用하여 요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推斷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敵은 2乃至 6대의 편대로서 작전을 계속하였으며, 低高度에서 UN전폭기를 攻撃하는등 鴨綠江 근처에 F-86機가 出擊하면 이에 따라 敵機도 항상 出現 하듯이 이제 敵機의 出擊이 訓練을 目的으로 한것이 아니며 充分한 자질을 갖춘 조종사들과 地上

radar 유도에 의하여 敢行되는 것이다.

6월 10일과 11일 兩日 사이에 郭山 上空에서 UN空軍의 B-29重爆機들이 夜間 폭격을 斷行하였는데 이때도 MIG機들은 照明燈의 併用으로 B-29重爆機 2대를 全破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그러나 UN空軍은 이와같은 敵의 空中반격을 감안하여 더욱더 空中세력을 구축하면서 6월 23일 F-86機의 철저한 엄호아래 UN空軍의 F-80과 F-84전폭기는 UN海軍의 A-1J와 F₃F전폭 함재기들과 合勢하여 水壘 水力발전소를 폭격하였는데 그 뒤에 連日 계속된 大대의인 水力발전소 폭격에도 어떠한 공중반격을 받지않았다.

이때에 敵의 空軍機들은 滿洲의 安東과 大同淸 비행장등에 250대의 後退翼 비행기가 있는것으로 判斷되었는데 期間中 敵機의 아무런 반격도 받지않은것은 UN空軍의 철저한 엄호와 완벽한 제공권 장악에도 기인되었다고 하겠지만 첫째로 敵이 UN空軍의 폭격 目標를 미리 탐지하지 못하였으며 둘째로는 水壘 발전소가 폭격받기전에 敵의 비행기들을 滿洲 內陸의 後方으로 撤收시킨 착오에 있었다고 分析되었다.

이와같이 활발한 空中 活動을 전개한 UN空軍은 期間中 空中반격 및 방어 출격에 포함 26,012회에 達하는 출격을 기록하면서 敵機 182대를 全破하였다.

(2) 敵 後方에 대한 遮斷爆擊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에서는 1952년 1월부터 4월 12일까지 北韓內에서 全 前線으로 이어지는 鐵道 102개소를 切斷하고 橋梁 168개소를 폭파하였는데 특히 지난해까지 폭격할때의 誤差半徑이 640 Feet 乃至 1,220 Feet에서 350 Feet로 줄이는 記錄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에 극동공군 폭격 사령관 Wiley D. Ganey준장은 5월까지의 폭격의 誤差半徑을 平均 300 Feet까지 記錄할 수 있을것이라고 自信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미 夜間의 Shoran 戰術을 사용하여 주간의 視覺 비행표준과 동등할 정도로 폭격의 정확도를 期하고 있으며 곧 주간 폭격작전과 대등한 戰果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言明하였다.

이와같은 폭격술의 향상을 바탕으로 敵의 後方을 強打하게 되자, 敵은 對空砲 陣地를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응케 되어, 4月末에 이르러 美 제5공군에서 모든 敵의 주요 鐵道를 自由로 공격할 수 없을만큼 對空 방어진지를 구축한 까닭으로 5月初부터는 『Strangle 폭격』을 계속하여 敵의 鐵道網을 부분적으로 봉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新安州-新義州線은 10日間이나 使用不能토록 만들었고 軍隅里-熙川線은 7日間, 順川-三登里는 9日동안 그리고 平壤-新安州線은 5월 1일부터 15일 동안 계속 使用치 못하도록 봉쇄하였다.

6월에도 이 폭격은 계속되어 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는데 敵은 이 遮斷 폭격을 無力化시킬 수 있는 아무런 對策도 마련하지 못하였듯이 만약 이 작전이 休戰會談 開始 때부터 전개하였더라면 敵은 확실히 많은 打撃을 입어 會談을 지연 시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견될 만큼 놀라운 成果를 거두었다.

이와같은 遮斷폭격과 아울러 美 空軍 폭격사령부에서는 6월 23일부터 戰略폭격으로 水豊과 長津의 兩 水力발전소를 비롯하여 北韓內의 주요 전력자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目標을 強打하여 敵의 간담을 더욱 서늘케 하였는데 期間 UN中空軍에서는 遮斷(무장정찰 포함) 폭격에 도합 20,017회의 出擊으로 폭탄 28,285 ton과 Napalm탄 490 ton을 各各 投下하였는데 月日別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4月中의 戰況

4월 1일 : 이날 UN空軍의 F-86 Sabre Jet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 Jet機와 數次에 걸친 空中戰 끝에 敵機 13대를 격추하고 다른 MIG-15 Jet機 10대를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2일 : 美 제5공군의 F-86 Jet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地域 상공에서 敵의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3대를 격추하는 한편 美 空軍 전폭기는 价川の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검은 연기로 휘감아 놓았을 뿐 아니라 UN 전폭기들도 板門店 南쪽과 西쪽의 中共軍 陣地에 폭격을 斷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의 對한 近接支援으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3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5회의 出擊으로 各 各 43회로 敵 前線에 폭탄과 機銃을 퍼부어 敵의 士氣를 크게 저하시켰다.

4월 3일 : 이날 UN 空軍의 F-86 遊擊機는 敵의 MIG-15機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2次에 걸친 空中戰 끝에 3대를 격추하는 한편 전폭기와 B-26과 B-29 兩 爆擊機가 合勢하여 前線으로 向하는 보급로와 機動路에 爆擊을 加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我 地上軍을 護衛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8회 도합 56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일대를 火焔으로 휘감아 놓았다.

4월 4일 : UN 空軍의 전폭기들은 戰線 일대의 陣地에 napalm탄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4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8회로 各 各 7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4월 5일 : 이날 UN空軍의 戰爆機는 海州-鎮南浦 地區에 對한 폭격을 斷行하는 한편 B-26 輕爆機는 敵의 前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에 對하여 夜間폭격 敢行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달 30일 James A. Van Fleet 대장의 勳章 Van Fleet 중위가 폭격을 단행다가 敵陣地에 行方不明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4월 6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上空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4월 7일 : 이날은 비가 내리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極히 低調하였으

나 B-29重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北韓의 西北쪽 상공으로 출격하여 定州鐵橋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徑間(span)을 끊어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군단에 4회의 近接支援을 하였다.

4월 8일 :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擊機는 敵 후방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보급로에 대하여 夜間 폭격을 斷行하는 한편 美 제1군단에 4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9회의 近接支援을 감행하였다.

4월 9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는 順川-定州間의 鐵道施設을 폭격하는 한편 B-29重爆機는 宣川의 橋梁을 폭파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戰線 일대의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39회와 韓國 제1군단에 11회 도합 50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일대를 뒤 흔들어 놓았다.

4월 10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北韓 일대의 보급로에 대한 遮斷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0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회 도합 24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前線을 뒤 흔들어 놓았다.

4월 11일 : 이날 美 제 5공군의 전폭기들은 金城 西北쪽 敵의 陣地를 폭격하는 한편 B-29重爆機는 咸興의 操車場과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燒却시키고 UN空軍의 전폭기는 新義州 南쪽 敵의 보급품 수송 貨物車輛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날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았는데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를 무릅쓰고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3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8회 도합 31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4월 12일 : 이날도 전달에 이어 비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은 극히 低調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 司命官 Frank F. Everest 중장이 말하기를 『美 제5공군은 지난 달 25일부터 敵의 보급로에 대한 制止作戰의 새로운 폭격방법으로 猛爆을 斷行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4월 13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MIG通路 地域 상공에서 MIG-15와 5회에 걸친 熾烈한 空中戰 끝에 7대를 完破 격추하고 4대를 半破 추락케 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博川-定州間의 敵 鐵道施設과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戰線으로도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 軍團에 도합 20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4월 14일 : 이날 UN空軍의 B-26과 B-29 兩 爆擊機와 전폭기들이 合勢하여 海州 西쪽에 있는 補給品 집적소에 太大的인 폭격을 斷行하여 은 종일 火焰이 衝天토록 하였다.

4월 15일 : UN空軍의 폭격기와 전폭기들은 F-86 遊擊機의 엄호를 받으면서 北韓의 西

北쪽으로 出擊하여 鎭南浦 일대에 폭탄 洗禮를 퍼부어 불바다를 만들어 놓았다.

4월 16일 : 이날 UN空軍의 B—26 輕爆機는 朔州 부근에 있는 操車場에 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파괴하는 한편 B—29 重爆機는 新安州 鐵橋를 強打하여 各 徑間을 爆破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軍團에 12회 도합 72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4월 17일 : 이날은 이른 아침부터 비 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다.

4월 18일 : 이날 UN空軍의 전투기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軍團에 64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회 도합 68회의 近접지원 出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國務省에서 발표하기를 『美 空軍은 411,000명의 兵力 48개 연대를 940,000명 兵力인 90개 연대로 증강, 이를 다시 143개 연대로 증강할것을 계획중이다』라고 하였다.

4월 19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비가 내리는 氣象으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으나 UN 戰爆機는 이러한 惡天候에도 北韓 상공으로 출격하여 順天의 操車場과 其他 鐵道施設에 폭탄을 集中하니 雨中에도 마치 火山에서 솟는 靑煙은 연기처럼 그 일대를 뒤덮었다.

한편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berg대장은 그의 연설중에서 말하기를 『蘇聯은 韓國戰 유지에 每月 70대의 MIG機를 공급할 뿐 아니라, 韓國戰線에 있는 敵 地上軍 90,000명의 장비는 主로 蘇聯이 보급하고 있으며 休戰會談이 시작된 以來로 500門의 野砲와 250대의 戰車를 비롯하여 많은 對空砲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4월 20일 : 이날 오전에는 비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中斷되었으나 오후에는 날씨가 회복되어 출격 가능케 되자 곧 UN전폭기들은 三德里—順天間의 鐵道 차단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5공군의 F—84E Thunder Jet機는 鎭南浦에서 敵 小船舶 15隻을 捕捉하자 즉시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全破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다른 戰爆機 편대들은 美 제10군단에 32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8회 도합 40회의 近接支援 出격으로 敵의 戰線 세력을 弱화시켰다.

4월 21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50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 100대와 3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MIG機 7대를 격추하고 7대를 半破 추락케 하였는데 그중 1대는 MIG機 新型인것으로 判斷되었다.

또한 B—29重爆機는 兼二浦地區의 보급품 積貯소와 軍施設에 대하여 爆擊을 加하고

美 제5공군의 戰爆機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3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7회로 모두 53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4월 22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機들과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MIG-15와 Yak 폭격기 각 1대를 격추하고 전폭기는 江界-新安州間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는 한편 B-29 重爆機는 咸興操車場과 新安州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51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2회로 도합 63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을 잔담을 서늘케 하였다.

4월 23일 : UN空軍의 B-29 重爆機는 熙川의 鐵橋와 定州의 操車場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B-26 輕爆機와 전폭기가 合勢하여 沙里院-平壤間에서 보급품 수송 차량부대를 捕捉하자 이에 夜間 폭격을 加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9회로서 도합 61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全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4월 24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敵機 2대를 격추하였을 뿐 아니라 UN 전폭기들은 平康地區에서 戰車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집중하여 그중 8대를 격파하였으며 敵의 前線을 따라 散在한 陣地에 爆撃을 加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 軍團과 제10軍團에 59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3회 도합 72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4월 25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86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8회로서 도합 10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前線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敵陣 곳곳에는 폭탄 洗禮로 솟아 오르는 火焰이 온 종일 그치지 않았다.

4월 26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UN 전폭기들은 宣川地區의 鐵道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도합 24회의 出擊으로 敵의 前線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4월 27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 地域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敵機 3대를 격파하였으며 B-26 輕爆機는 北韓 일대의 敵 보급품 수송부대를 폭격하고 B-29 重爆機는 定州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各 徑間을 끊어 놓았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1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9회로서 도합 85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4월 28일 : 이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B-26輕爆擊機는 이러한 비바람과 密雲을 뚫고 宣川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鐵道要衝地를 強打하였다.



〈B-26과 B-29 兩 爆擊機에 의하여 폭파되는 敵의 鐵道〉

4월 29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活動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UN 전폭기들은 이런 惡天候에도 불구하고 北韓으로 出擊하여 各 前線으로 이어지는 鐵道와 보급로를 폭격

하고 보급품 집적소를 燒却시키는 한편 夜間에는 東海岸의 主要 기동로 차단 폭격도 아울러 단행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兩 軍團에 8회와 韓國軍 제1軍團에 4회로서 모두 12회의 근접지원에 그쳤으나 이는 이날 惡天候下에서의 活動이고 보면 韓國戰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空軍 용사들의 결의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4월 30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는 MIG-15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 추락케 하는 한편 전폭기들은 北韓內의 보급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또 B-29 重爆機는 新興洞-軍隅里-熙川間의 鐵橋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夜間에 北韓內의 기동로를 폭격하는 한편 敵의 前線으로 南下하는 트럭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89대를 擊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9회 도합 45회의 近接支援 出擊을 기록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東奔西走 그야말로 縱橫無盡의 활약으로 敵의 勢力을 위축시켰다.

이날 UN空軍에서 4月中의 전과를 발표하기를 『UN空軍은 期間中에 MIG-15 94대를 격추하고 鐵道 5,900개소를 切斷하였으며 砲臺 200개소, 敵의 防禦陣地 500개소를 폭파하였다』라고 하였다.

(4) 5月中의 戰況

5월 1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는 北韓의 東西 兩岸의 敵 3大幹線 철로에 대하여 猛爆

을 단행한 결과 철도 貨物수송을 마비시키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불꽃 튀기는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7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51회로써 도합 123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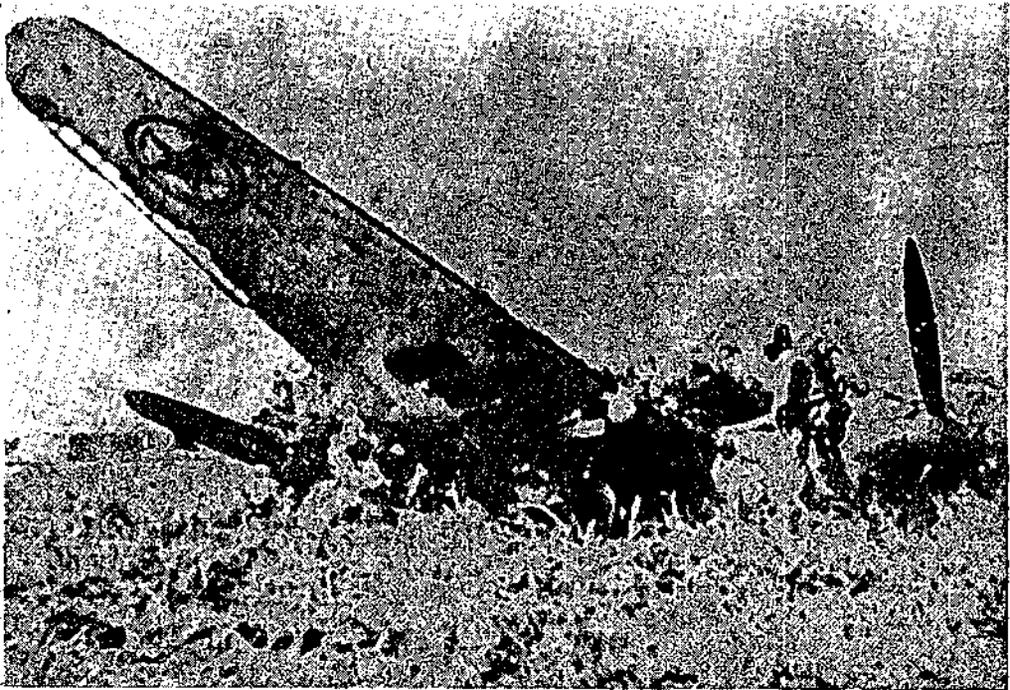
이날 UN空軍에서는 對空戰과 차단폭격 및 近接支援등 1,283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이 記錄으로 보아 이날의 激戰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2일 : 이날도 UN空軍의 전폭기는 北韓 일대의 보급품 수송로를 強打하는 한편 新安州—新義州間의 敵 操車場을 完破하고 B-29 重爆機는 定州—南市間의 古軍營洞과 兼二浦의 製鐵工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3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2회 도합 48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5월 3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MIG機 4대를 격추하고 LA-12型의 敵機 1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날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지난달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戰果는 敵機 14대를 격추하고 我機는 8대를 損失하였다』라고 하였다.



〈격추된 敵의 戰爆機〉

5월 4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MIG-15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5대를 격파하는 한편 전폭기는 新義州 비행장을 兪襲하여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불바다를 이루게 하였다.

또 B-29 重爆機 10대는 定州의 鐵橋를 폭격하였으며 이날 夜間에는 B-26 輕爆機와 美 艦載機가 合勢하여 敵의 前線으로 向하는 보급 트럭을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니 철축 속에 잠긴 그 일대에 비바람을 탄 불길이 마치 대낮 같이 밝았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0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11회 도합 71회의 近接支援으로 戰線一帶를 뒤흔들어 놓았다.

5월 5일 :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擊機는 敵의 보급품 수송中心地로 알려진 熙川 操車場을 連打하고 또한 夜間에는 B-26 輕爆機와 美 艦載機가 熙川 鐵橋를 폭격하는 한편 敵의 보급로와 기동로 遮斷 폭격을 단행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東部와 中部戰線의 敵 집결지를 폭격하여 130명을 爆殺하는 한편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3회 도합 6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5월 6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順川地區의 鐵道施設을 大的으로 폭격하고 UN空軍의 전폭기들도 전날에 이어 적의 주요 보급로에 集中 폭격을 감행하였다.

또 美 제5공군 전폭기들의 近接支援은 美 제1, 제9 兩 軍團과 제10軍團에 39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8회 도합 47회의 출격으로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敵의 戰線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이날 美 空軍 참모총장 Vandenberg대장은 上院 歲出 위원회에서 말하기를 『蘇聯은 急速한 原子力 발전으로 불과 年內에 美國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軍事 예산을 증액 승인토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5월 7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平壤 北쪽의 敵 철도망을 猛打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雨中에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8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3회 도합 21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列을 分散시켰다.

5월 8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MIG 通路地域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B-29 重爆機 11대는 定州-宣川間의 郭山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各 徑間을 끊어 놓았다.

또한 B-26과 B-29 兩 爆擊機를 비롯하여 전폭기들은 遼安의 敵 보급품 집적소에 온층일 폭탄 洗禮를 퍼부어 315개의 보급창고를 全燒시켰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하였다.

5월 9일 : 이날은 비가 나리고 짙은 안개가 깔린 惡天候라 UN空軍의 活動이 다소 低調하였으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이어진 보급로 遮斷폭탄을 단행하였다.

5월 10일 :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비가 나리고 구름이 낮게 상공을 뒤덮은 까닭에 UN空軍의 活動이 다소 低調한 듯 하였으나 오후부터 날씨가 회복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B-29 重爆機들이 機首를 北쪽으로 하여 定州-宣川間의 郭山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고 이날

夜間에는 B-26 輕爆機가 北韓內의 敵 주요 보급로망을 強打하여 敵의 前線으로의 보급수송을 차단하였다.

5월 11일 : UN空軍의 전폭기는 敵의 前線일대와 臨津江 西쪽 陸地를 強打하는 한편 熙川의 鐵橋에 高性能爆彈 90 ton을 投下하였다.

또 夜間에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機는 北韓內의 주요 鐵道網에 大의인 폭격을 敢行하였다.

5월 12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는 敵의 前線으로 이어진 보급로에 대한 遮斷 폭격은 온종일 계속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57회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61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이날 UN空軍은 1,059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5월 13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하루 종일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3대를 격추하였다.

또 B-29 重爆機는 咸興 操車場과 新興洞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다른 편대의 전폭기들은 敵의 前線으로 向하는 트럭부대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燒却시키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날 夜間에도 계속하여 주요 鐵道網 차단 폭격을 敢行하였는데 이날 UN空軍은 도합 1,230회의 出擊을 기록하였으니 이 기록으로 보아 空軍이 制空權을 장악하고 敵의 戰力 증강에 썩기를 박고 있는 그 활약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14일 :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興南 化學工場에 폭탄을 集中投下하는 한편 新興洞-軍隅里와 熙川의 鐵道 수송로에 大의인 폭격을 가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도합 9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이날 UN空軍은 1,100회의 출격을 기록하였다.

5월 15일 : 이날도 UN空軍의 遊擊機 편대들은 이른 아침부터 北韓 상공으로 앞을 다투어 출격하였는데 이날 F-86 遊擊機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한 B-29 重爆機는 이날 夜間에 北韓內의 주요 鐵道網에 대한 차단 폭격을 계속하고 美 제5공군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과 韓國軍 제1군단에 도합 60회의 近接支援을 하였으며, 이날 UN空軍의 전투기와 전폭기 그리고 폭격기들의 출격은 모두 1,220회에 達하였다.

5월 16일 : UN空軍의 폭격기들은 兼二浦 製鐵工場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여 온 종일 그 일대를 검붉은 연기로 휘감아 놓고 夜間에는 新安州 南쪽의 敵 보급품 집적소와 陸地를 強打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폭격기들은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중인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

에 51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8회 도합 59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MIG-15機 5대를 격추한 바 있는 James H. Kasler중위는 東京에서 가진 특별 會見에서 말하기를 『敵의 空軍이 我 戰術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5월 17일 :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機는 沙里院 비행장을 強打하고 咸興 操車場과 熙川의 鐵橋에 폭탄을 집중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3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군단에 20회 도합 150회의 近接支援을 하는 등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는 도합 830회 출격으로 敵의 野戰砲台 65개소와 陣地 40개소를 폭파하였다.

또 美 제5공군에서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MIG-15機 18대를 격추하고 UN機는 14대(敵의 對空砲에 의한 損失 포함)를 喪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美 極東空軍에서는 『美 제5공군 司令官 Frank F. Everest중장의 任期가 滿了되어 美 戰術空軍 副司令官에 就任할 예정이며 그 후임에는 Glenn O. Barcus소장이 부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5월 18일 : 이날 UN空軍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그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地上 戰況도 部分的인 探索戰의 반복으로 대체적으로 평온하였다.

5월 19일 : 이날 UN空軍의 F-86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전폭기를 엄호하던 敵의 對空砲에 피탄되어 1대가 격추되었으며, F-84 전투기 1대와 폭격기 1대를 喪失하였는데 美 空軍의 제3구조대에서는 helicopter로 墜落한 조종사를 敵陣에서 구출하였다.

한편 B-29重爆機는 北韓 일대의 敵 軍事施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으며 이날 夜間에는 輕爆機들이 咸興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는 한편 順川의 假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에서는 前線으로 전폭기를 출격시켜 美 제1, 제9, 軍團에 76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80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意를 喪失케 하였다.

5월 20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는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4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날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韓國戰 以來 우리는 敵의 MIG機 도합 302대를 격추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에 대한 엄호와 近接支援에 주력하였는데 그 지원은 美 제1군단에 56회, 제9, 제10 兩 軍團에는 54회이고 韓國軍 제2군단에 3회로써 도합 113회에 달하는 출격이었다.

5월 21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機는 夜間에 敵의 對空砲火가 빗발치 듯 하는 상공을 헤치면서 咸興의 보급품 집적소와 기타 軍事施設에 폭탄을 집중하는 한편 新興洞의 鐵橋를 폭파하고 兼二浦의 軍事施設에 폭탄과 napalm탄을 투하하여 그 일대를 마치 대낮같이 밝혀 놓았다.

5월 22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하루 종일 平壤地區에 大대의 猛爆을 단행하여 검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8회로써 도합 76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간담을 세늘케 하였다.

5월 23일 : 이날 UN空軍의 B-26과 B-29 兩 爆擊機隊를 비롯한 전폭기 편대들은 전날에 이어 平壤地區에 大대의 폭격을 계속하여 305棟의 工場을 파괴하고 15棟을 半破 불길속에 휘감기도록 하였으며 鎭南浦와 平壤의 군수공업지대에 대하여 開戰以來로 最大규모의 爆擊을 단행하였다.

또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東海岸으로부터 敵의 前線으로 貨物을 가득 싣고 南下하는 機關車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5월 24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는 咸興의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完破하는 한편 UN空軍의 F-84 戰鬪機는 新安州와 郭山間의 鐵道차단폭격을 敢行하였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機首를 돌려 敵과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30회, 또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49회로써 도합 179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5월 25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4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B-29 重爆機는 郭山地區의 鐵道施設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한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로써 도합 122회 近接支援으로 敵의 前線 勢力을 위축시켰다.

5월 26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平壤-肅川間에서 보급품을 수송하는 鐵道貨物 車輛을 捕捉하자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의 前線 일대의 敵陣地와 보급로를 強打하는 한편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7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2회 도합 8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목적으로 敵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5월 27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鎭南浦의 操車場과 宣川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B-26 輕爆機도 敵의 前線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全燒시켰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때때로 비가 내리는 氣象에도 이를 무릅쓰고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51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4회로써 모두 75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5월 28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北韓內의 보급품 수송로에 대한 차단폭격을 계속하고 B-29 重爆擊機는 熙川의 鐵橋에 전날에 이어 계속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0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 도합 116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前線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5월 29일 : 이날 UN空軍의 활동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極히 低調하였으나 B-29 重爆機 편대들은 新義州에 있는 軍事施設에 多量の 폭탄을 投下하여 하루 종일 검은 연기가 하늘을 저를 듯 솟아오르게 하였다.

5월 30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야를 무릅쓰고 敵의 前線으로 이어지는 보급 輸送網을 強打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 司令官 Frank F. Everest 중장 후임에 Glenn O. Barcus 소장이 부임하였다.

5월 31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MIG 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1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 도합 132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士氣를 크게 低下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는 5月中 MIG機를 포함하여 각종 항공기 67대를 격추 또는 半破 추락케 하였으나 UN空軍의 損失도 45대로써 그중 空中戰에서 F-86 遊擊機 6대와 F-84 遊擊機 2대 그리고 F-51 전폭기 1대의 損失을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5) 6月中의 戰況

6월 1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熙川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徑間(span)을 폭파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31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6회로써 도합 147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6월 2일 : 이날 UN空軍의 活動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極히 低調하였으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郭山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24회 제10군단에는 2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7회 모두 71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我 地上軍의 士氣를 크게 振作시켰다.

또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중장은 대장으로 昇進하였다.

6월 3일 : 이날 오전에는 구름과 심한 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다소 低調하였으나 오후부터 날씨가 회복되어 B-26 輕爆機와 전폭기 편대들은 合勢하여 敵 軍事施設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鐵道와 보급로 차단 폭격을 敢行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는 美 제10군단에 10회에 걸쳐 近接支援하였다.

6월 4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MIG 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B-26과 B-29 兩 爆擊機들은 西北韓의 敵 주요 보급로 차단 폭격을 단행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16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12회 도합 28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심장부에 일침을 加하였다.

6월 5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그 활동이 低調하였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1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로써 도합 117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戰線에 폭탄과 napalm탄 그리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6월 6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에 휩싸이게 하였다.

또 B-29 重爆機 편대들은 宣川에 있는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여 涇間을 끊어 놓아 철도 수송을 지연시켰으며 美 제5 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97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모두 105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폭탄과 napalm 탄을 敵陣에 集中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불바다가 되었다.

6월 7일 : 며칠 계속되는 惡天候는 UN空軍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威興의 操車場을 비롯하여 熙川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붓는 등 美 제1, 제9 兩 軍團에 92회 韓國軍 제1군단에 4회를 포함하여 도합 96회의 近接支援을 提供하였다.

6월 8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51과 F-80 兩 戰爆機를 비롯하여 F-84 遊擊機는 江界 北쪽에 있는 軍事施設과 보급품 집적소에 대하여 2次に 걸쳐 猛爆을 단행하고 B-29 重爆機는 定州-宣川-南市間의 鐵橋와 철도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47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도합 155회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6월 9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심한 바람과 낮게 깔린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이날 오후에 F-51과 F-80 兩 戰爆機편대들은 美 海兵隊의 전폭기와 合勢하여 平壤-兼二浦間의 鐵路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38회로써 도합 140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세력을 弱化시켰다.

6월 10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氣象이 고르지 않은 까닭에 UN空軍의 활동은 敵의 地上軍과 接戰하고 있는 美 제10軍團에 4회의 近接支援에 머무르는 등 極히 低調하였다.

이날 新任 美 제5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 소장은 美 極東空軍에 보고하기를 『敵의 空軍집결지에 대하여 아직 探知하지 못하였으나 곧 그 여부를 判別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5공군의 작전이 신중히 전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6월 11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新義州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

개하여 3대를 격추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32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는 35로써 도합 167회에 달하는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 그리고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敵의 戰線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 소장은 중장으로 昇進되었다.

6월 12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鐵原 西쪽과 海州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직접소에 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全燒시키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鐵原 西쪽의 戰略高地를 탈환코자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계속 壓迫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5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5회 도합 178회에 걸쳐 近接支援하였다.

6월 13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鐵原 西쪽 2개 高地에서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에 대한 近接支援 폭격을 계속하여 드디어 2개 高地를 完全히 장악케 하였는데 이는 고도로 숙련된 UN空軍의 조종술로 인한 정확한 폭격과 地上軍의 勇戰으로 空地協同 작전의 完벽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英 空軍省에서 발표하기를 『英 空軍의 核心體로서 훈련된 조종사들이 韓國戰에 增派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6월 14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는 平壤 상공으로 출격하여 2개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1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64회 도합 180회에 걸쳐 近接支援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 발표하기를 『이번 週間에 敵의 MIG-15機는 夜間전폭에 參加하였다』라고 하였다.

6월 15일 : 美 空軍의 F-86 邀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이날 夜間에는 B-26 輕爆機 편대들이 敵의 前線일대에 散在한 敵陣地를 폭격하여 칠곡같은 밤을 마치 대낮 같이 밝혀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에서 발표하기를 『美 제4전투비행단의 James F. Low 소위는 6週 日間に 敵의 MIG-15機 5대를 격추하는 하늘의 勇士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6월 1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鐵原 西쪽 高地에서 彼我間에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壓迫하면서 全 戰線에 걸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여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는데 그 近接支援 출격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42회이고 韓國軍 제2군단에 81회로써 도합 323회에 달하였다.

6월 17일 : UN空軍의 B-26 輕爆機는 夜間에 北韓內에 散在한 敵의 陣地와 平壤-陽德-順川 일대의 보급품 직접소에 猛爆을 단행하여 불 기둥이 하늘을 가를 듯 솟아오르도록 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戰線일대의 敵陣地를 폭격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29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71회로써 도합 200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6월 18일 : 이날은 전날과는 달리 길게 하늘을 뒤덮은 구름과 심한 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極히 低調하였다.

6월 19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機 편대들은 伊川-龍川里와 新幕-平壤間에서 보급품을 만재한 트럭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여 燒却시키는 한편 F-51 전폭기 편대들도 金城 北쪽의 敵 集結地를 強打하였다.

또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5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7회 도합 13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6월 20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氣象이 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출격을 敢行하여 敵 보급품집적소와 보급로를 폭격하였으며 B-26 輕爆擊機들도 鎭南浦의 操車場과 咸興 操車場을 비롯하여 熙川의 鐵橋에 폭탄을 집중,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6월 21일 : 美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또 B-29 重爆機들도 中部 및 西部戰線 일대의 敵의 주요 저항선 배후의 部隊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夜間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02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57회로써 모두 259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부에서는 韓國戰 以來의 전과를 발표하기를 『UN空軍은 그간 敵의 MIG機 324대를 격추하고 508대(半破 또는 비행장내에서의 격파 포함)를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다』라고 하였다.

6월 22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출격하여 陣地와 Bunker 25개소를 비롯하여 野砲陣地 25개소를 폭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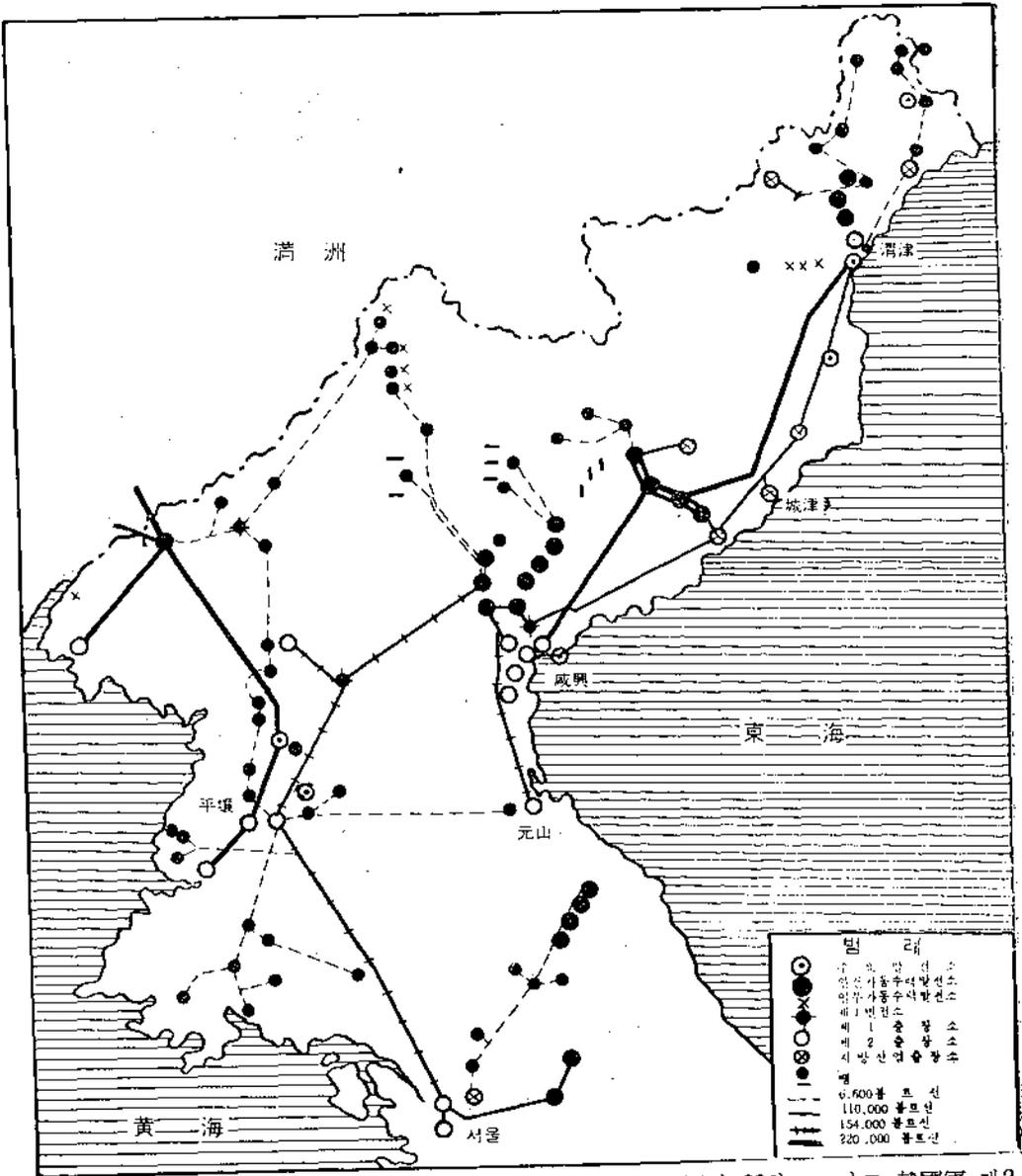
6월 23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500대는 F-86 遊擊機 엄호를 받으면서 北韓의 西北쪽으로 출격하여 水豊 등 5大 水力발전소에 大的인 폭격을 단행하였다.

또한 敵의 前線으로 출격한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6회 韓國軍 제2군단에 7회로써 도합 23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6월 24일 : 이날도 UN空軍의 전폭기들은 水豊水力 발전소를 제외한 北韓內의 水力발전소 4개소에 폭격을 再開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일대에 있는 野戰陣地와 野砲 陣地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6월 25일 : 美 極東空軍의 B-29重爆機들은 兼二浦 製鐵工場에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들은 美 艦載機들과 合勢하여 元山 南쪽에 있는 操車場과 東海岸 일대의 敵 집결지 및 敵의 트럭 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검은 연기로 휘감아 놓았으며 이날 夜間에 B-26 輕爆機는 敵의 前線으로 南下中인 보급 트럭부대를 強打하였다.

◇ 상황도 제90호 北傀의 水力發電所와 그 送電網 ◇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2회, 그리고 韓國軍 제2 군단에 19회로써 도합 81회에 달하는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6월 26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였다.

또 전폭기 150대는 赴戰-長津 水力발전소에 대하여 다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三登 鐵道施設에 대한 폭격도 아울러 敢行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F-80 전폭기 편대들도 西部戰線의 敵 障地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

中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火焰으로 뒤덮인 修羅場이 되었다.

6월 27일 : 이날도 UN空軍의 전폭기와 B-29 重爆機 편대들은 長津 水力발전소를 폭격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鐵原 西쪽과 西南쪽에서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6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70회로써 도합 116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 UN空軍의 F-86機는 新義州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전폭기들은 戰線 西端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격을 단행하였다.

6월 28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元山 南쪽에 있는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B-26 輕爆機는 夜間에 前線일대에 있는 陣地를 폭격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53회 도합 76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6월 29일 : 이날 UN空軍의 B-26 輕爆機는 雨中을 뚫고 敵의 戰線일대로 출격하여 敵의 集結地에 폭탄 洗禮를 퍼부었으며 B-29 重爆機는 夜間에 鎮南浦 操車場과 郭山의 鐵橋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 중장이 발표하기를 『지난 주에 美 空軍과 美 艦載機편대들은 敵의 13개 水力발전소를 完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라고 하였다.

6월 30일 : 이날은 비바람이 부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地上戰況도 『斷腸의 稜線』의 UN軍 陣地에 敵 1개대대 규모가 공격하였으나 이를 격퇴하였을 뿐 大體로 平穩하였다.

期間中 戰果 및 損失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MIG機 全破	180 대	B-26 폭격기	15 대
YAK "	1 대	B-29 "	3대
LA 12 "	1 "	F-51 전폭기	21 "
操車場 "	14개소	F-80 전폭기	13대
工 場 "	502 "	F-84 "	24 "
陣 地 "	502 "	F-86 전투요격기	21대
野砲臺 "	290 "		
鐵 橋 全破	21개소		
보급품集積所 "	323 "		
鐵道(4月中旬에 限함)全破	5,900 "		
船 船 "	15 척		
水力발전소 全破	13개소		
트럭(4月中旬에 限함)全破	85 대		

5. 三・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1952년 7월 1일부터 1952년 9월 30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대장 Otto P. Weyland
 美 제 5 공군사령관
 중장 Glenn O. Barcus

美 극동공군폭격사령관
 준장 Wiley D. Ganey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소장 Chester E. McCarty

나. 期間中 UN空軍의 活動狀況

(1) 對空戰鬪

美 제 5 공군의 F-80전폭기와 F-84 Thunder Jet 機 및 F-86 Sabre Jet 遊擊機를 비롯하여 美 海軍의 A-1D과 F₄F 전투기들이 合勢하여, 水豊 水力발전소에 대한 전략폭격을 斷行함에도 불구하고 敵 戰鬪機의 出現이 減少되었는데 이는 敵이 遊擊능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에 UN空軍은 F-86 Jet 機의 무장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F-86F의 新型 Jet 遊擊機를 이해 8월에 參戰시킴으로써 계속 北韓 상공 일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水豊 水力발전소를 비롯하여 長津 水力 발전소에 폭격을 계속하였는데 이때에 敵의 MIG 機들은 파상적인 出擊으로 말미암아 UN空軍力에 완전히 제압되었다.

그러나 敵은 UN空軍의 폭격目標가 되고 있는 요소요소에 對空砲 陣地를 구축하고 UN空軍 세력에 대항할 뿐 아니라 파괴된 北韓內의 비행장 복구에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空軍세력에 鑑하여 UN空軍에서는 비행기와 비행장을 비롯하여 電力설비와 Radar 장비 그리고 通信本部와 軍事本部를 目標로 이를 強打한 결과 敵 空軍力에 썩기를 박아 놓으면서 期間中 對空作戰 출격에 도합 9,145회를 記錄하였다.

(2)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爆擊

1952년 7월 10일 美 제 5 공군 및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발표대로 새로운 美 극동공군의 작전 指針은 지연 및 분쇄에 대한 과거의 중점적인 目標로부터 변화를 반영하고 敵의 보급 장비와 시설 및 兵力에 관한 선택적 폭격을 명령으로 한 새로운 空中攻擊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敵은 극동에 언제든지 UN에 대한 攻擊에 使用할 수 있는 상당한 空軍力을 증대시켰으며, 둘째로는 敵 보급의 源泉이 UN軍 사령부의 空中爆擊 범위밖에 있을 뿐 아니라 集積所로부터 戰線에 이르는 敵의 보급線이 UN軍보다 짧으며 세째로 韓國 地上 前線이 장기간 安定的이어서 그 소모가 감소되어 敵이 점차로 보급품을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개의 要因으로 말미암아 敵에 대한 최대의 壓力을 遂行하기 위하여는 제공권 장악아래 敵의 軍裝備와 보급품 집적소 및 기타 軍시설에 결정타가 되는 선택적 폭격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美 제 5 공군과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간에 밀접한 접촉으로 目標를 선정하고 爆擊을 斷行하였으며 美 제 5 공군은 固定 目標物의 捕捉을 위한 무장정찰 出擊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폭격은 7월 11일 平壤에 있는 軍事的 目標에 대한 大대의 폭격을 위하여 폭격 前日 폭격경고(Bomb Warning)가 수록된 150,000매의 전단을 平壤일대에 살포하고 폭격을 斷行하였으며 폭격이 끝난 다음에도 一般市民에 대한 폭격을 경고하는 전단 150,000매도 아울러 同一地域에 살포하였다.

그 뿐 아니라, 7월 13일 밤에는 『You are Next』라는 제목의 전단을 北韓의 주요 都, 邑 78개소에 살포하였는데 이 전단에는 主要 보급로가 前線으로 이어진 西北韓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 보급로들에 대한 폭격과 모든 軍事的 目標物이 폭파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이에 美 제 5 공군과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B-26과 B-29 兩 爆擊機들이 合勢하여 事前에 警告한대로 폭격을 단행하였다.

8월 5일 美 제 5 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 중장이 新聞에 발표하기를 『78개의 北韓 都邑이 급박한 폭격경고를 받았으며 B-26과 B-29 兩 爆擊機들이 이들의 都邑은 물론이고 敵의 보급품 集積所들을 強打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UN 空軍의 遮斷폭격은 9월에도 계속되어 敵의 前線으로 이어지는 全 補給路가 마비상태에 이르도록 猛打를 加하였는데, 期間中 遮斷 (무장정찰포함)에 14,202회에 達하는 出擊을 기록하면서 폭탄 22,348 ton 을 投下하고 napalm 탄 309ton 을 퍼부었다.

期間中 UN 空軍의 對空戰鬪와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폭격 그리고 近接支援狀況을 月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7月中의 戰況

7월 1일 : 이날 아침부터 低層雲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로 말미암아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여 敵의 前線으로 산발적인 전폭기의 출격과 美 제 1 군단에 대한 4회의 近接 支援에만 그쳤다.

7월 2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UN空軍의 활동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敵의 地上軍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 1군단에 4회의 近接支援을 비롯하여 敵의 前線일대에 산채한 陣地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한 두차례 단행하였을 뿐으로 極히 低調하였다.

한편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北韓內의 13개 水力 발전소에 대한 폭격은 空中攝影 結果 그 機能의 喪失이 立證되었다』고 하였다.

또 이날 北京放送에서는 『UN空軍의 鴨綠江 水力 발전소 폭격은 英國도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7월 3일 : UN空軍의 B-26, B-29와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77機動 艦載機들과 合勢하여 虛川 제1, 제2, 제3 및 富寧의 3개 발전소를 폭격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0회 韓國軍 제2군단에 32회로써 도합 13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에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7월 4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鴨綠江 水豐水力 발전소 東南쪽 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3대를 격추하고 6대를 半破 추락케 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B-29 重爆機들은 朔州에 있는 敵 士官學校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69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도합 77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크게 위축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空輸 작전의 원활을 期하기 위하여 最大 搭載量을 가진 C-124 수송기가 韓國에 배치되었다』라고 하였다.

7월 5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航空母艦 제7기동함재기들과 合勢하여 元山港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2회 韓國軍 제1군단에 15회, 도합 27회 近接支援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7월 6일 : 美 極東空軍의 B-26과 B-29를 비롯하여 전폭기 편대들은 北韓 일대의 敵 보급품 집적소와 보급로에 대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69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도합 77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敢行하였다.

이날 UN空軍에서 발표하기를 『北韓 水力 발전소 폭격은 敵의 13개 水力발전소를 파괴하기 위하여 18개월전부터 준비를 하였으며 出擊은 도합 1,373회에 達하였다』고 하였다.

7월 7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7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56회로써 도합 128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7월 8일 :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등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UN空軍의 F-84 Thunder Jet機와 전폭기 편대들은 長津江 제2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再開하는 한편 또 다

른 전폭기 편대들은 新安州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鐵道施設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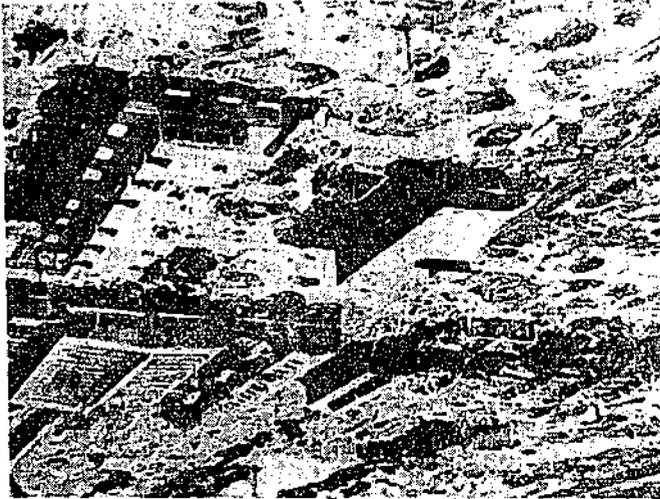
또한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는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58회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44회 모두 10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7월 9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兩 軍團에 48회와 韓國軍 제 1 군단에 4회 도합 52회의 近接支援으로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美 空軍次官은 記者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기를 『現在 韓國에 派遣된 F-84 遊擊機는 原子폭탄을 積載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7월 10일 : 이날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까닭에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으나 오후부터는 날씨가 회복되어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兩 軍團에 35회, 韓國軍 제 2 군단에 19회로써 도합 5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이날 夜間에는 B-29 重爆機들이 陽德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마치 낮과 같이 밝혀졌다.

7월 11일 : 이날 UN空軍의 F-84 遊擊機와 F-86 Sabre Jet 遊擊機의 엄호아래 전폭기



편대들은 沙里院-黃州-平壤 地區의 敵 군사시설 및 보급품 집적소등에 대하여 參戰以來 최대규모의 猛爆으로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날 夜間에도 B-29 重爆機들은 新幕-咸興-平壤-兼二浦 등의 보급기지에 대하여 大規模의 목적을 단행하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修羅場이 되었다.

〈UN공군의 전폭기에 의하여 폭파되는 敵의 軍수품공장〉 한편 이날 전폭기들을 엄호하던 F-84와 F-86 遊擊機들은 平壤 상공에서 MIG-15 Jet 機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추락케 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나 UN空軍도 敵의 地上砲火로 F-84 機 1대를 損失하였다.

7월 12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추락케 하였으며,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敵의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86회,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40회로써 도합 126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날 平壤방송은 美空軍에 抗議하기를 『UN空軍들이 平壤에 대하여 無差別 폭격을 敢行함으로 말미암아 건물 多數가 파괴되었으며, 非戰鬪市民 6,000명이 爆殺되었다』라고 비난 하였다.

한편 이날 美極東空軍에서는 韓國戰以來 7월 10일까지 UN空軍機들이 도합 524,395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거둔 戰果를 발표하였는데 그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敵機 격추 또는 半破—1,245대 (그중 MIG機 980대)	美空軍 Jet機—266대
트럭 完破—5,257대	各種 전폭기—322대
貨物車輛 完破—8,367대	其他 友軍機—64대
戰車 完破—1,257대	美 海兵隊機—67대

7월 13일 : 이날 UN空軍의 F—84 遊擊機 편대들은 海州 地區의 Radar 施設 6개소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여 2개소를 完破하고 이날 夜間에는 B—29 重爆機들이 高原의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262회 그리고 韓國 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69회로써 도합 331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목적으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한편 休戰 회담의 北傀側대표 南日은 UN軍에 항의하기를 『지난 11일 UN空軍機들이 平壤地區에 대한 폭격에서 포로수용소를 폭격하였다』라고 생트집을 잡는가 하면 北京放送에서는 『지난 11일 美空軍의 F—86 遊擊機 8대가 安東을 폭격하였다』라고 逆宣傳하였다.

7월 14일 :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東海岸으로부터 鐵의 三角地帶에 이르는 敵의 戰線을 強打하였는데 이날 近接支援은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126회와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42회로써 모두 168회에 達하였다.

한편 이날 UN軍 사령부에서는 『지난 11일 UN空軍機가 平壤地區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을 때 포로수용소를 폭격하였다』는 것을 정식으로 부인하였는데 北京放送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난하기를 『지난 2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美空軍機들이 7,000대가 滿洲를 침습하고 一部는 細菌戰까지 敢行하였다』라고 事實無根의 비방을 하였다.

7월 15일 : 이날은 비가 내리는 惡天候인데도 不拘하고 美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를 무릅쓰고 咸興의 操車場 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平壤 부근의 機關車 修理工場과 시멘트工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雨中에도 火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게 하였다.

7월 16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도 美 제 1 軍단에 35회의 近接

支援에 그쳤는데 이는 며칠간 계속 나리는 비로 말미암아 그 활동이 低調한 것으로 判斷된다.

7월 17일 : 이날은 지난 14일부터 나리는 비가 暴雨로 변모하는 등의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은 一旦 保留되었다.

7월 18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오전까지 비가 나리므로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군단과 韓國 제 2 군단에 도합 27회의 近接支援 출격에 그치었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동안 美 空軍機들이 93회에 걸쳐 延 489대가 滿洲상공을 侵入하였다』라고 虛偽 宣傳으로써 생트집 하였다.

7월 19일 : 이날도 비가 계속 나리는 惡天候인데도 불구하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이를 무릅쓰고 美 제 77기동 부대의 艦載機와 合勢하여 長津 제 1, 제 2 兩 水力 발전소에 爆彈을 集中하는 한편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 1 군단과 韓國軍 제 2 군단에 42회의 近接支援 목적을 단행하여 雨中의 敵陣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7월 20일 : 며칠전부터 계속 나리던 비가 오후에 멎자 UN空軍의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F-86 遊擊機 34대는 新義州 상공에서 MIG-15機 56대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였으며,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군단과 韓國軍 제 2 군단에 도합 71회의 近接支援 목적을 단행하여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7월 21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長津 제 2 수력 발전소에 폭탄을 集中하고 UN空軍의 F-80 전폭기들은 美 艦載機와 合勢하여 鐵原 西쪽 不毛高地에서 敵과 接戰하고 있는 友地上軍에 엄호지원을 하였다.

또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 1 군단에 23회 韓國軍 제 1 군단에 8회로써 31회의 근접지원 출격을 기록하였다.

7월 22일 : UN空軍의 전폭기는 鐵原西쪽 不毛高地 일대를 폭격하여 敵의 砲陣地 13개소를 파괴하였으며 B-29 重爆機는 興南에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三登-平壤間의 시멘트工場을 폭격하였다.

또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兩 軍團에 24회와 韓國軍 제 2 군단에 23회 도합 47회의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7월 23일 : 美 空軍의 전폭기 편대는 元山 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波狀的인 목적을 加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美 제 5 공군의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114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28회 도합 14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戰線 일대에 불바다를 이루게 하였다. 또 UN空軍은 이날 18일 以來 美 제 2 사단의 鐵原 西쪽의 不毛高地 탈환전에 대하여 韓國戰以來 최대의 엄호지원을 하였다

7월 24일 : 美 極東空軍의 B-29重爆機 편대들은 元山 西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陽德

에 있는 敵陣地에 대한 폭격은 단행하고 전폭기들은 熙川—江界間의 鐵橋를 폭격하였다.

또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50회 그리고 이날 敵과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韓國軍 제 1군단에 88회와 제 2군단에 4회로써 도합 142회에 違하는 近接支援 폭격을 敢行하였다.

7월 25일 : 이날 美 제 5 공군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高原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점burn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 1군단에 12회와 韓國軍 제 1군단에 80회 도합 9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7월 26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北韓 일대의 低雲과 降雨로 말미암아 전폭기 출격을 한 때 保留하는등 그 활동이 低調하였다.

한편 美 제 5 공군에서는 UN空軍機의 활동을 美 極東空軍에 보고하면서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UN機 損失을 발표하기를 『期間中에 UN空軍機는 敵의 對空砲에 5대가 격추되고 未歸還機가 3대이다』라고 公表하였다.

7월 27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비가 나린 까닭에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英國 艦載機 3대가 鎭南浦 상공에서 MIG-15機의 공격을 받아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7월 28일 : 이날도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으나,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前線으로 出發하여 敵의 戰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와 기동로를 비롯 敵의 陣地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7월 29일 : 며칠간 계속되는 비는 이날도 그치지 않았고 폭풍까지 몰아치는 惡天候인데도 UN空軍의 B-29 重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列을 分散시켜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7월 30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에 散在한 陣地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으며,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66대는 新義州 近方에 있는 輕金屬 공장에 대한 大的인 夜間 폭격을 단행하였다.

7월 31일 : 이날도 비가 나리고 폭풍까지 부는 惡氣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中部戰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陣地를 強打하는 한편 UN空軍의 B-26 輕爆機와 F-51 전폭기 편대는 西部戰線에서 美 제 1군단에 34회의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4) 8月中의 戰況

8월 1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32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 60대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한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

團에 도합 214회에 달하는 近接支援 목적으로 하루 종일 敵陣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F-84 遊擊機 1개전대가 UN空軍의 增強을 위하여 새로이 배치되었는데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대장이 말하기를 『이번에 配置된 제474전폭전대 (F-84機)는 美 제49와 제136 戰隊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韓國戰이 있는 以來로 美 空軍의 F-86 遊擊機는 MIG-15機와의 空中戰에서 9대 1의 勝率을 確保하고 있다』라고 公表하였다.

8월 2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美 航空母艦의 艦載機 편대들과 合勢하여 長津 부근의 變電所에 폭탄을 集中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地上軍의 砲兵隊와 合勢하여 鐵原의 不毛高地 北쪽에 있는 中共軍 陣地에 폭탄과 砲彈을 集中, 그 일대를 검붉은 연기로 휘감아 놓았다.

8월 3일 : 이날도 UN空軍의 戰爆機편대들은 美 항공모함 艦載機와 合勢하여 長津湖 부근에 있는 水力발전소를 強打하는 한편 元山-虛川 일대에 있는 敵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폭격을 단행하였을 뿐 아니라 B-29 重爆擊機들도 全 戰線을 따라 散在한 敵의 陣地에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로써 도합 119회의 近接支援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友軍의 士氣를 크게 昂揚시켰다.

8월 4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平壤 東北쪽에 있는 北傀軍 사령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폭격을 단행하니, 그 일대는 하루종일 火焰으로 휩싸여 하늘을 저를 듯 한 연기가 그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과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兩 軍團과 제10군단에 77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도합 85회의 近接支援 목적으로 敵의 戰列을 뒤흔들어 놓았다.

8월 5일 : 이날 UN空軍의 F-84 遊擊機는 海州 상공에서 鐵路를 強打하던중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였으며 B-29 重爆擊機는 北漢江 東쪽 檜倉 金鑛에 敵이 集結하고 있는 것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 탄을 投下하여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게 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도합 98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부에서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기를 『UN空軍機들이 北韓의 大小都邑 78개소를 폭격코자하니 市民들은 위험지역으로부터 避難하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이 내용이 수록된 전단 살포도 실시하였다.

8월 6일 : 美 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4次

에 걸친 熾烈한 空中戰 끝에 6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는 한편 B-26 輕爆擊機들은 黃州일대의 敵 軍事目標을 強打하였다.

또한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군단에 70회와 美 제 9, 제 10 兩軍團에 50회 그리고 韓國軍 제 2군단에 42회로써 도합 162회에 달하는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8월 7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各 戰線에서는 彼我間에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자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友地上軍을 幟호하면서 美 제 1군단에 76회와 美 제 9, 제 10 兩軍團에 56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 63회로써 도합 175회에 근접지원 출격으로 敵의 戰線 中央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으니 삼시간에 그 일대는 修羅場이 되어 敵兵들간에 左衡右突하는 生地獄을 彷彿케 하였다.

8월 8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들과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대를 격추하고 5대를 半破 추락케 하였다.

또 UN 전폭기 편대들은 首都高地 北쪽의 中共軍 陣地를 強打하고 B-29重爆機들은 元山 南쪽 6km의 新高山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점불은 연기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147회를 지원하고 이날 韓國軍 제 1, 제 2 兩軍團에서 血戰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에 도합 257회에 달하는 지원출격으로 敵의 戰力을 분쇄하였다.

8월 9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또 전폭기들은 沙里院 비행장에 大의인 폭격을 단행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108회와 韓國軍 제 2군단에 56회 등 도합 164회의 近接支援으로 폭탄과 Napalm 탄 및 機銃洗禮를 敵陣에 퍼부었다.

8월 10일 : 이날도 美 제 5 공군에서는 F-51전폭기와 B-26 輕爆機 등의 편대를 前線으로 출격시켜 前線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陣地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는 平壤 주변에 있는 軍事目標에 對한 再次 폭격을 敢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8월 11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는 전과를 거두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113회 그리고 韓國軍 제 2軍團에 24회, 도합 137회에 달하는 近接支援을 하였다.

한편 이날 板門店 休戰會談 연락장교회의에서 敵은 지난 10일 UN空軍機가 3회에 걸쳐 板門店 中立지역 상공을 침범하였다고 생트짐을 부리기도 하였다.

8월 12일 : 이날 UN空軍의 B-26 輕爆機 편대들은 F-51과 F-80전폭기들과 合勢하여 延安—海州—載寧일대의 敵 集結地에 폭탄과 Napalm 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이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前線으로 出擊하여 敵과 가장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 1군단에 93회를 비롯하여 美 제 9, 제 10 兩 軍團에 19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軍團에 8회로서 도합 120회에 걸친 近接支援을 하였다.

8월 13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시베리아』 高地의 中共軍 集結地에 폭탄과 Napalm 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고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들도 『벙커』 高地의 中共軍 集結地를 強打하면서 美 제 1군단에 168회 그리고 美 제 9, 제 10 兩 軍團에 20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 2군단에 15회 등 도합 203회의 近接支援으로 폭탄과 Napalm 탄 洗禮를 퍼부었다.

8월 14일 : 이날도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도합 89회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勢力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대장이 말하기를 『韓國內의 UN空軍力은 顯著히 增強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8월 15일 : UN空軍의 B-26 輕爆機와 F-51 및 F-80 戰爆機들은 合勢하여 平壤 南쪽에 있는 中共軍의 보급기지를 폭격하여 이를 燒却시켰으며,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 1, 제 9 兩 軍團에 48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는 33회로써 도합 81회의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8월 16일 : 이날 美 제 5 공군의 B-26 輕爆機 편대들은 鎭南浦 西쪽에 있는 敵의 軍司令部 및 兵力 集結地에 폭탄을 集中하고 다른 전폭기 편대는 『벙커』 高地의 中共軍 陣地를 전 날에 이어 폭격하였다.

또 美 제 5 공군에서는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美 제 1, 제 9, 제 10의 3개 軍團에 68회 그리고 韓國軍 제 1, 제 2 兩 軍團에 도합 71회로 폭탄과 Napalm 탄을 敵의 前線에 集中하니, 일시에 그 일대는 修羅場으로 변모하여 敵은 방향을 잃은채 分散되었다.

8월 17일 : 이날은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으나 美 제 5 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陣地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여 하루종일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게 하였다.

한편 이날 美 空軍長官 Thomas K. Finletter는 議會에 대한 報告에서 말하기를 『行政 참모요원을 大幅 削減하여 전투부대를 增強하겠다』라고 하였다.

8월 18일 : 이날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까닭에 UN空軍機들이 출격지 못하다가, 오후에는 날씨가 회복되어 이윽고 출격하기에 이르렀는데 B-29 重爆機편대들은 新義州의 敵 彈藥工場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니 火焰속에 휘감긴 그 일대는 彈藥이 폭발하는 爆音과 솟아 오르는 불길은 敵을 삼킬 듯 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美 제1軍團에 96회와 美 제9, 제10 兩軍團에 42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29회 도합 167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8월 19일 : 이날도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은 低調하였는데 美 B-29 重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北韓의 西北쪽으로 출격하여 鎭南浦 操車場에 폭탄을 集中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도 美 제1군단에 18회의 近接支援을 하였다.

8월 20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5회에 걸쳐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였으며 전폭기 편대들은 南陽里(平壤 北쪽 12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이를 全燒시켰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4회 그리고 韓國軍 제1軍團에 4회로써 도합 28회의 近接支援 목적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8월 21일 : 이날 UN空軍의 F-51 전폭기 편대들은 沙里院 東南쪽에 있는 시멘트工場을 폭격하는 한편 B-29 重爆機들은 咸興의 軍需品 集積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온 종일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게 함으로써 이를 全燒시켰다.

8월 22일 : 이날은 비가 내리는 까닭에 비행활동에 장애가 되었는데도 UN空軍의 B-26 輕爆機 편대들은 敵의 前線 후방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목적으로 출격하여 安岳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였다.

8월 23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비가 계속 내리는 까닭에 UN空軍의 활동은 低調하였으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平壤 西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놓는 한편 新義州 東北쪽 13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도 猛爆을 단행하여 全燒시켰다.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惡天候로 말미암아 韓國軍 제2군단에 8회의 近接支援 출격에 그치고 말았다.

8월 24일 : 이날도 連日 계속되는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機들은 極히 제한된 출격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를 무릅쓰고 水豊 상공으로 출격하여 操車場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였다.

8월 25일 : 며칠간 계속되는 비는 이날도 그치지 않아 UN空軍의 활동이 中斷되고 全戰線도 暴雨의 계속으로 極히 輕微한 戰鬪가 한두차례 있었을 뿐이었다.

8월 26일 : 이날은 連日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氣象이 다소 회복되어 UN空軍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아 B-29 重爆機 편대들이 平壤 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고 B-26 輕爆機들은 江東과 北靑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 보도하기를 『지난 24일 UN空軍의 B-29 重爆機 10대가 平壤 住宅街에 폭탄을 投下하여 民間人 55명을 殺傷하였다』고 허위선전하였다.

8월 27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北韓의 西北쪽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投下하는 한편 新安州—宣川間의 보급로와 鐵道施設에 대한 폭격도 아울러 단행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제1군단에 123회와 美 제9, 제10兩軍團에 80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23회로써 도합 226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 흔들어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8월 28일 : 이날은 구름이 낮게 하늘을 뒤덮고 강한 바람까지 부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의 전폭기들이 海州에 있는 集結地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他地域 폭격에 대한 출격은 中斷되었다.

8월 29일 : 이날도 비가 나리고 구름이 낮게 하늘을 뒤덮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2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였다.

또 美 極東空軍에서는 平壤地區의 非戰鬪員에게 피난할 것을 경고한 다음 B-26와 B-29 兩 爆擊機를 3회에 걸쳐 延 1,400대를 출격시켜 平壤 근처의 敵軍事目標에 大爆擊을 敢行하는 한편 다른 B-29 重爆機 편대들은 長津 水力발전소에 대한 폭격으로 그 機能을 마비시켰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美 제1, 제9兩軍團에 15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 勢力을 둔화시켰다.

8월 30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79대는 水豊댐 상공에서 MIG-15機 100대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격추하고 11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는 戰果를 거두는 한편 B-29 重爆機들도 平壤 西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夜間폭격을 加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兩軍團에 47회 韓國軍 제2군단에 15회로써 도합 6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8월 31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平壤의 敵 연대본부에 폭탄을 集中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美 제5공군에서 期間中 戰果를 발표하기를 『UN空軍에서는 이달에 敵의 MIG-15機 32대를 격추하고 45대를 격파 燒却시켰으나 UN機도 25대의 損失을 보았다』라고 公表하였다.

(4) 9日中の 戰況

9월 1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62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機 58대와 6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2대를 격파하였다.

또 美 B-26 輕爆機 편대는 東海岸의 新倉을 폭격하였으며 美 艦載機와 合勢하여 豆滿江 南쪽 4km에 있는 阿吾地 精油所 및 茂山에 있는 鐵鑛業所에 대하여 大規模의 폭격을 단행하였다.

9월 2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新義州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하여 使用不能토록 만들어 놓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兩軍團에 37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8회 도합 85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勢力을 分散시켰다.

9월 3일 : 이날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러한 氣象에도 불구하고 長津 水力발전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使用不能토록 만들어 놓았다.

9월 4일 : 이날 美 空軍의 F-86 邀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幷호하면서 美 제1, 제9 兩軍團에 6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72회로써 도합 140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9월 5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3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3대를 격추하고 7대를 半破하였다.

또 B-26과 B-29 兩 爆擊機편대들은 咸興과 北靑을 폭격하는 한편 UN空軍의 또 다른 전폭기들은 新興里的 軍需工場과 軍隅里-熙川里間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加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도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1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1회 도합 124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加하였다.

9월 6일 : 이날 오전에는 비가 나리는 까닭에 UN空軍의 活動이 保留 되었으나 오후부터 날씨가 다소 회복되어 전폭기 편대들은 高原 南쪽의 北傀 제5군단 사령부를 폭격하고 B-29 重爆機편대들은 平壤 北쪽에 있는 工業地帶와 보급품 집적소를 強打하여 이를 燒却시키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兩軍團에 59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9월 7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강한 비바람이 불어 비행활동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나 美 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는 鴨綠江 上空에서 MIG-15와 攻防戰을 전개한 끝에 6대를 격추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31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戰線 戰力을 위축시켰다.

9월 8일 : 連日 계속되는 비는 이날도 그치지 않아 비행활동이 잠시 保留되기도 하였으나 美 空軍의 F-86 邀擊機는 新義州-水豊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고 5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고 B-29 重爆機 편대들은 陽德의 보급품 中心地와 特設 修理工場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8회 그리고 韓國 제2군단에 58회로써 도합 76회의 近接支援을 하였다.

한편 이날 Thomas K. Finletter 美 空軍長官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美 空軍의 保

有機는 韓國戰 以前보다 23% 增加하였으며, 改良된 F-86 遊擊機가 곧 韓國戰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9월 9일 : 이날 오전에도 비가 계속나리고 있었으나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朔州 東南쪽에 있는 北傀軍 士官學校를 再次 폭격하고 또 다른 편대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7대를 격추하고 10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6회 그리고 韓國 軍 제2軍團에 136회 도합 182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9월 10일 : UN空軍의 전폭기와 美海兵隊 전폭기가 合勢하여 金城과 首都高地 일대의 敵 陣地를 폭격하고 UN空軍의 또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平壤 부근의 北傀 기초 훈련학교를 폭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86회와 전날에 이어 血戰을 거듭하는 韓國軍 제2군단의 74회 도합 160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力을 분쇄하였다.

9월 11일 : 이날 美 空軍의 B-26과 B-29 兩 爆擊機편대들은 敵의 前線 배후의 보급품집적소와 兵力集結地를 폭격하는 한편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首都高地 일대의 溪谷에 集結中인 敵의 部隊를 強打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空軍 當局에서 발표하기를 『UN空軍이 지난 7월 中旬에 北韓內의 大小都 邑 78개소에 대한 폭격을 경고한 다음 大的인 폭격을 斷行하여 그중 3분지 1을 폭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9월 12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한 B-26 輕爆機 편대는 瑞興地區에 대한 폭격 경고를 한 다음 이에 폭탄을 集中하고 B-29 重爆機 35대는 水豊발전소에 폭격을 가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66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36회로 도합 102회의 近接支援을 하였다.

9월 13일 : 이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까닭에 出擊을 保留한 UN空軍은 다만 前線으로 전폭기를 출격시켜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94회 그리고 韓國 제2군단에 24회로 모두 118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는데 이날 敵은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戰意를 喪失한채 暴雨를 헤치며 溪谷으로 앞을 다투어 흩어지기에 급급하였다.

9월 14일 : 美 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고 B-29 重爆機들은 平壤 東北쪽 5km의 西浦里 탄약 집적소를 폭격하고 이날 夜間에는 B-26 輕爆機들이 洪原에 대한 爆擊을 단행하여 그 일대를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 놓았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3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美 空軍機들이 130회에 걸쳐 延 140대가 滿洲상공을 侵襲하였다』라고 虛偽事實을 捏造하였다.

또 이날 밤 美 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과 接戰하고 있는 美 제1군단에 11회의 近接 支援을 기록하였다.

9월 15일 : 이날 UN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新義州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0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며 F-84機 80대는 F-86 邀擊機 엄호아래 新義州 工場지대를 폭격하고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機들은 機動路上에서 트럭隊列을 捕捉하자 이에 대한 夜間폭격을 단행하여 126대를 燒却시켰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7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9회로 도합 36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9월 16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4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 軍團에 53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도합 57회의 근접지원으로 敵 戰線 세력을 弱化시켰다.

9월 17일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16회에 걸쳐 『指形稜線』에 있는 中共軍 陣地에 Napalm탄을 集中하여 불바다를 이루는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날 夜間에는 南下中인 敵의 트럭들을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3대를 完破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0회 그리고 이날 가장 熾烈한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韓國軍 제2군단에 97회 도합 117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휘흔들어 놓고 我軍의 戰意를 昂揚케 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9월 16일 美 海兵隊의 Jet機 6대가 作戰 中 山岳에 충돌하여 조종사 6명 全員이 산화 하였다』라고 公表하였다.

9월 18일 :이날 美 空軍의 B-26 輕爆機들은 南下中인 보급 트럭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 150대에 達하는 트럭을 全燒시키는 한편 B-29 重爆機 편대들은 順川에 있는 보급 中心地에 폭격을 단행하여 그 일대를 온 종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15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4회 血戰을 전개하고 있는 제2군단에는 95회 도합 11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9월 19일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1년만에 咸興일대의 軍事目標를 폭격키 위하여 출격하게 되었는데 B-29 重爆機 33대를 출격시켰다. 이 폭격을 직접지휘한 Wilay D. Ganey 준장은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은 다음 발표하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행한 이번 폭격에는 目標物의 性質에 의하여 폭탄과 Napalm탄등의 무장이 결정되었으며 폭격의 성과는 만족한 것이었다』라고 說明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는 이날 敵과 가장 熾烈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군단에 136회와 제10군단에 4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 43회로 도합 183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세력을 뒤흔들어 놓았다.

9월 20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北靑 東南쪽에 있는 新昌 보급중심지에 猛爆을 단행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西部戰線 일대에 있는 陣地를 強打하면서 美 제1군단에 128회와 제9군단에 4회 도합 132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我軍의 士氣를 양양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는 지난 14일부터 週間 UN空軍의 損失을 발표하였는데 B-29 重爆機 1대와 Jet機 4대 기타 전폭기 5대르써 10대를 喪失하였다는 事實을 公認하였다.

9월 21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4대를 격추하고 7대를 격파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戰爆機들은 美 제1군단에 90회의 近接支援 목적을 단행하였다.

9월 22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平壤 北쪽의 西浦里에 있는 보급中心地에 대한 목적을 敢行하였으며 이날 夜間에는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이 南下中인 보급수송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하여 機銃洗禮를 퍼부어 트럭 160대를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9월 23일 : 이날도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機들은 南下中인 수송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트럭 118대를 全燒시키고 다른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43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3회 도합 46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副司令官인 Dudley D. Hale 준장은 北大西洋 歐洲中部 空軍 작전참모차장으로 任命되었으며 그 後任에는 Edward H. Underhill 준장이 부임하였다.

9월 24일 : 이날 夜間에 美 空軍의 B-29 重爆機 12대는 新幕 操車場에 대한 목적을 단행하여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8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27회로 도합 35회의 近接支援 목적을 단행하였다.

9월 25일 : 이날은 降雨로 말미암아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地上戰況도 各前線을 따라 散發的인 小衝突과 探索戰에 그치었다.

9월 26일 : 이날 오전에도 비가 내리는 惡天候이었으나 오후부터 점차 날씨가 회복되어 美 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 西北쪽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熾烈한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4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하여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도합 16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強打하였다.

9월 27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宣川에 있는 敵 軍司令部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붓는 한편 B-29 重爆機 편대들은 熙川과 龍尾洞間的 3개 鐵橋에 폭

탄을 集中하여 徑間들을 폭파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敵과 敵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6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2회로 도합 117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9월 28일 :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는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 火焰으로 휘감아 추락케 하였다.

9월 29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고 2대를 격파 검붉은 연기로 휘감아 격추케 하고 이날 夜間에는 UN 전투기들이 敵의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遮斷폭격을 단행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69회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71회로서 도합 340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관 Otto P. Weyland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蘇聯은 樺太에 強力한 空軍戰鬪基地를 건설하고 있으며 中共은 滿洲 근처에 많은 비행장을 건설중에 있다』라고 言明하였다.

9월 30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들은 美 제77기동합대 艦載機들과 合勢하여 元山 南쪽 4.8km 떨어진 敵의 보급품 中心地에 폭탄을 集中하고 美空軍의 다른 전폭기들은 前線 일대로 출격하여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47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68회 도합 115회의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9월중 UN空軍機들이 敵機 68대를 격추하고 59대를 半破 추락케 하여 도합 127대를 격추 또는 격파하는 戰果를 거두었는데 이는 韓國戰 以來 最大의 月間 戰果이다』라고 하였다. 期間中 UN空軍의 綜合戰果 및 損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MIG機 全破	227대	B-26폭격기	7대
트럭 "	557대	B-29 "	4 "
Radar "	6개소	F-51 "	4 "
水力발전소 全破	14개소	F-80전폭기	8 "
鐵橋	4 "	F-84 "	25 "
都邑폭격	78 "	F-86전투요격기	24 "
		RB-92무장정찰기	1 "
		RF-81 "	1 "
		C-46수송기	1 "

6. 四四半期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1952년10월 1일부터 1952년12월31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	준장 Wiley D. Ganey
대장 Ott P. Weyland		준장 Wioiam P. Fiher
美 제 5 공군사령관		(10. 5 부터)
총장 Glenn O. Barcus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 공수 사령관
美 극동공군폭격사령관		소장 Chesletr D. Mccsrty

나. 期間中 UN空軍의 活動狀況

(1) 對空戰鬥

美 제 5 공군과 美 극동공군사령부에서는 平壤—順川—新安州—定州—義州—新義州 비행장 등에 대한 폭격을 斷行하여 敵이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滿洲로부터 MIG通路 (MIG Alley)를 거쳐 MIG機들이 계속 侵犯하는 것을, 제공권을 장악한 UN空軍은 F-86F 遊擊機들로써 이를 擊退하였다.

그 뿐 아니라 期間中 UN空軍은 敵의 空軍力을 억제하기 위하여 F-86 遊擊機의 무장 改善의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1951년 6월에 F-86A를 F-86E 로 교체하였듯이 다시 1952년 8월에 F-86F의 신예기를 등장시켜 MIG機와 空中戰을 전개한 결과 그 戰果가 실로 눈부신바 있었다.

이와같이 敵은 계속 제공권을 잃고 그들의 空軍力이 無氣力하게 되자 그들은 비행장 근처와 주요 軍施設 인근에 對空砲 陣地를 끈질기게 구축하였으며 파괴된 비행장을 UN空軍의 폭격이 뜸한 야밤을 이용하여 복구하기에 주력하였다.

이에 空軍은 이른 아침부터 어둠이 밀려올 때까지 對空砲 陣地와 비행장을 強打함으로써 空軍力의 증강을 사전에 좌절시키면서 期間中 對空作戰 出擊에 10,429회를 기록하는 한편 MIG機 115대를 격추 또는 全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2) 敵의 後方에 대한 遮斷爆擊

期間中 UN空軍은 各 戰線에서의 彼我 接戰이 熾烈하게 展開되자 大火的인 근접지원과

아울러 後方遮斷에 全力하였는데 그중 제 1目標을 敵의 各戰線으로 이어지는 鐵道網과 기타 補給路로 定한 까닭에 이에 대한 遮斷목적을 과감히 斷行하였다.

이와같은 UN空軍의 活動은 敵이 大攻勢를 취하여 유리한 陣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일익을 담당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였는데 期間中 UN空軍은 폭탄 26,871 ton과 Napalm탄 968 ton을 投下하여 유류저장소와 橋梁 및 鐵道, 鐵橋를 폭파하였으며 보급트럭 363대를 全破하였다.

期間中 遂行한 對空作戰과 遮斷목적 및 全戰線에서의 근접지원 출격등을 그 月日 別로 한 作戰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10月中의 戰況

10월 1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水豊 근처의 南山里 化學工場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였으며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軍團에 60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48회로 도합 108회의 近接支援 목적을 단행하였다.

10월 2일 : UN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新義州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그리고 美 제 5공군의 폭격기들은 美 제1, 제10 兩軍團에 23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8회 도합 31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에서 발표하기를 『韓國戰에서 美 F-80 Shutting Star機가 B-29 重爆機로부터 空中 給油를 받아 14시간 15분 동안이나 滯空하는 기록을 지난 9월에 수립하였다』라고 公表하였다.

10월 3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咸興 南쪽의 連浦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하여 使用不能토록 만들어 놓는 한편 美 제 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09회 제10군단에는 17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34회로서 도합 160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날 Thomas K. Finletter 美 空軍長官은 東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美 極東空軍은 지난 3개월 동안 50% 以上으로 증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UN空軍은 滿洲로부터 어떠한 敵空軍의 위협에도 對應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美 極東空軍은 빠른 時日內로 다시 5%의 戰力이 더 增強 될 것이다』라고 表明하였다.

10월 4일 : 이날도 UN空軍의 F-86 邀擊機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끝에 2대를 격추하고 5대를 半破하였으나 敵의 다른 MIG機 편대들이 元山 北쪽 10km의 상공에서 美 艦載機를 邀擊함으로써 友軍機 1대의 損失을 보았다.

한편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機들은 洪原의 敵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23회와 제9군단에 44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

에 4회로 모두 171회에 달하는 近接支援으로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0월 5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板門店 北쪽에 있는 陣地를 強打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UN 艦載機와 協同으로 會寧 油類 저장소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美 空軍의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112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1회로 도합 123회의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10월 6일 :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艦載機와 合勢하여 淮陽의 보급품 집적소와 兵力 집결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또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도합 174회에 달하는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 보도하기를 『지난 3일 美 空軍機들이 2회에 걸쳐 板門店 休戰 회담장 상공을 침범하였다』고 생트집을 잡기도 하였다.

10월 7일 : UN 空軍의 전폭기들은 戰線에 散在한 陣地 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41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80회로 도합 321회에 달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強打하였다.

한편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1대는 蘇聯의 千島列島 근처에서 敵機의 공격을 받고 行方不明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10월 8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美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와 合勢하여 高原일대의 鐵路 차단폭격을 단행하는 한편 B-26과 B-29 兩 爆擊機들도 東海岸의 보급품 집적소를 強打하였다.

또한 UN 空軍의 다른 전폭기들은 中部 및 西部戰線에서 敵陣에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 보도하기를 『美 空軍에서는 10월 1일 32회에 걸쳐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延 120대가 滿洲鎮空을 침범하였다』고 故意로 비난하였다.

10월 9일 :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元山-平壤地區에 대한 보급 要衝地에 폭탄을 集中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으며,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2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8회 도합 138회의 근접지원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0월 10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MIG 通路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고 3대를 半破 추락케 하여 全燒시켰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戰線 陣地를 계속 폭격하면서 美 제1, 제9 兩 軍團에 42회의 近接支援으로 敵의 집결지에 폭탄과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0월 11일 : 美 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3회에 걸

친 空中戰에서 5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37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4회로 도합 141회의 近接支援 목적으로 敵의 戰線 세력을 分化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UN空軍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F-86- 遊擊機 1대를 포함하여 모두 6대를 喪失하고 敵의 MIG機 13대를 격파 하였다』라고 公表하였다.

10월 12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3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전폭기 편대들은 南市-宣川間의 집결지를 폭격하여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는 한편 美 제9군단에 25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는등 이날 UN空軍의 출격은 도합 1,412회에 達하였다.

10월 13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른 아침에 海州 일대의 軍事目標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4회와 제9군단에는 236회를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20회로 도합 260회에 達하는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한편 이날 美 F-84 遊擊機 47대가 太平洋 橫斷비행으로 日本의 北部 美 空軍 기지에 安着하였다.

또한 이날 蘇聯은 『美 B-29 重爆機가 蘇領인 千島列島에 侵襲하였다』라고 항의하였으며, 平壤 방송은 『北傀 空軍이 UN軍 기지인 鎭南浦 西南쪽의 椒島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 폭격하였다』고 보도 하였다.

10월 14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元山地區의 보급시설을 폭격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31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또 美 F-84機 제2陣 28대가 太平洋을 橫斷하여 無事히 日本基地에 安着하여 美 極東空軍의 戰力증강이 순조로이 進行되었다.

한편 이날 美 國務省에서는 『美 B-29 重爆機가 蘇領을 侵襲하였다 고 주장하나 千島列島는 蘇領이 아니다』라고 정식으로 蘇聯의 領有權說을 否認하고 또한 Thomas K. Finletter 美 空軍長官은 말하기를 『蘇聯은 在韓 共產軍에 대하여 Jet機 2,000대를 비롯하여 도합 4,400대의 항공기를 供給하였다』라고 反駁하였다.

10월 15일 : 이날 美 空軍의 전폭기들은 美 陸海軍과 合勢하여 北韓의 東海岸 일대에 있는 目標을 強打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9군단에 49회 韓國軍 제2군단에 8회 도합 57회의 近接支援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16개월간 UN空軍의 전폭기 출격

회수는 도합 32,300회에 달하였는데 그중 空軍機가 20,800회 그리고 美 海兵隊 항공기가 11,500회 이었다』라고 하였다.

10월 16일 : 이날 이른 아침부터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2회 그리고 제9군단에 168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2군단에 8회로 도합 186회의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美 空軍의 C-46수송기 1대가 江陵(K-18) 기지를 이륙한 다음 행방불명이 되었다.

10월 17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平壤일대의 보급기지인 新安州 西쪽에 있는 敵의 사령부를 폭격하였는데 新安州 일대에 대한 폭격을 단행할 때 B-29 重爆機들이 敵의 對空砲彈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는 없었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三角高地 北쪽에 있는 敵陣地를 強打한 것을 비롯하여 美 제9 10 兩 軍團에 103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28회로 모두 131회의 近接支援을 實施하였다.

한편 이날 美國 政府에서는 千島列島에서 美 B-29 重爆機를 격추시킨 항의서를 蘇聯에 전달하였다.

10월 18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8회 그리고 이날 가장 熾烈한 血戰을 전개중인 제9군단에 90회와 제10군단에 8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9회로 도합 125회의 近接支援으로 敵陣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0월 19일 : 美 空軍의 B-29 重爆機는 南市 및 西浦里에 있는 敵의 보급 中心地와 宣川에 있는 軍司令部를 폭격하고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 상공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0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43회로 도합 143회의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0월 20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16회 그리고 이날 血戰을 전개하는 제9군단에는 76회를 비롯 제10군단에 16회로 도합 108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敵陣에 퍼부었다.

10월 21일 : 이날은 아침부터 짙은 구름이 北韓 상공을 뒤덮더니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惡天候가 계속되어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各 戰線의 戰況도 경미한 接戰이 전개되었을 뿐이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제10군단에 8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8회로 도합 26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그쳤다.

10월 22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鴨綠江 상공에서 MIG-15機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2대를 격파하였다.

또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安東 東南쪽 10km 떨어진 鉛鐵加工 公장에 폭탄을 集中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0월 23일 : 이날 美 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敵의 MIG-15와 2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兩 軍團에 50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28회로 도합 78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10월 24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美 艦載機와 合勢하여 惠山嶺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軍團의 35회와 제9軍團에 96회를 그리고 韓國軍 제2軍團에는 4회로 모두 135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10월 25일 : 이날 UN空軍의 F-86편대들은 新義州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8회로 도합 134회의 近接支援을 단행하였다.

10월 26일 : 美 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敵의 MIG-15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는 한편 B-29 重爆機들은 平壤부근의 西浦里에 있는 보급중심지와 陽德근처에 있는 軍司令部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燒却시켰다.

또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5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5회로 도합 120회에 달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0월 27일 : 이날 美 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때 MIG를 격추시킨 美 조종사는 말하되 『敵機가 격추되자 落下傘으로 탈출한 敵의 조종사는 역시 東洋人 같다』라고 술회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9 兩 軍團에 28회의 近接支援 爆撃을 기록하였다.

10월 28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低層雲을 뚫고 출격하여 보급품 집적소와 前線 일대에 散在한 陣地 및 기타 軍事目標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60회 그리고 제9군단에 114회와 제10군단에 8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16회로 도합 198회의 近接支援을 담당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美 제8전폭전대는 전날로써 韓國戰 參戰以來 도합 50,000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하였다』라고 公表하였다.

10월 29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03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23회, 도합 126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戰線 일대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0월 30일 :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元山 東南쪽에 있는 보급중심지와 西海岸

일대에 산재한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 이를 燒却시켰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9, 제10의 3개軍團에 60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兩軍團에 30회로 모두 90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10월 31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順川 보급 중심지와 南市の 軍司令部에 대한 大대의인 폭격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날 美 제5공군 사령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달중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損失은 27대이며 敵의 MIG-15機 격추는 26대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 사령부에서는 지난번 北京放送을 정식으로 부인하면서 발표하기를 『滿洲 상공에서 F-84 機가 격추되어 낙하 하였다는 조종사의 육성방송은 조작된 것이며 이 조종사는 韓滿國境부근의 北韓 상공에서 同機로부터 脫出한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謀略宣傳의 真相을 밝히는 바 있었다.

(4) 11月中의 戰況

11월 1일 : 이날 UN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폭격기들과 전폭기들은 前線일대의 敵 보급품 집적소와 기동로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敵의 後方 軍事目標에 대한 폭격도 아울러 병행하였는데 이날 美 제5공군 제3전폭전대의 B-26 輕爆機 대대는 韓國戰 參戰以來 戰線에 대하여 20,000회에 達하는 출격기록을 세웠다.

11월 2일 : 美 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고 1대를 격파하였다.

또 UN空軍의 전폭기들은 三角高地 일대와 그 北쪽에 있는 敵 陣地에 爆擊을 단행하니 그 일대는 온 중일 검붉은 火焰이 그치지 않았고 B-29 重爆機 편대들도 東海岸의 보급품 집적소와 平壤 東쪽에 있는 檢倉地區의 敵 軍事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燒却시켰다.

11월 3일 : 이날도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平壤 北쪽의 西浦里와 安州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燒却시키는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戰線을 強打하고 그 背後에 산재한 陣地와 보급품집적소를 폭격하였다.

11월 4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 낮을 가리지 않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戰線일대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어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修羅場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敵의 戰線으로 이어지는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遮斷 폭격도 아울러 단행하였다.

11월 5일 : UN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平壤 北쪽 15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니, 그 일대는 검붉은 火焰으로 뒤감졌고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戰線일대에 대한 폭격으로 敵의 戰線 活動을 위축시켰다.

11월 6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2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였다.

또 UN空軍의 전폭기들은 淸川江의 橋梁 5개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절단하였다.

11월 7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定州—鴨綠江間의 상공 일대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이날 初雪이 내린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戰線일대에 猛爆을 단행하였다.

11월 8일 : 이날 이른 아침에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黃州 西쪽에 있는 永豐의 軍參謀 학교를 폭격하고 鎭南浦의 보급품 집적소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였는데 이날 B-29 重爆機는 永豐폭격후에 그 상공에서 敵의 夜間 전투기 2대와 交戰을 전개하여 그 중 1대를 격추하였다.

11월 9일 :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中部戰線 山岳지대에 있는 포병陣地와 집결지에 대하여 爆撃을 가하면서 敵과 接戰中인 友地上軍을 엄호하였다.

또 UN空軍의 전폭기들은 敵의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였다.

11월 10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江東과 新安州 지구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兵力 집결지를 폭격하여 이를 燒却하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온종일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과 接戰을 전개하고 있는 友地上軍을 엄호하면서 敵의 戰線 요소 요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1월 11일 : 이날은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이 新安州—新義州間의 鐵道와 操車場에 대하여 폭탄을 集中하고 그 일대에 있는 軍事目標을 強打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敵의 前線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산재한 陣地와 보급품 집적소를 捕捉하자 이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로 敵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1월 12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惡天候에도 불구하고 平壤 상공으로 출격하여 大同江 鐵橋에 폭탄을 集中, 徑間을 폭파하여 敵의 보급품 수송과 기동을 저지시켰다.

11월 13일 :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西浦리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燒시키는 한편 鐵山 일대의 軍事施設을 強打하였다.

또 이날 夜間에 B-29 重爆機들은 鎭南浦에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였으며 그 일대에 보급로를 비롯하여 기동로에 대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이날 美 F-84 遊擊機 1대가 前線에 배치된 敵對空砲에 피탄되어 격추되었는데 이

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가 敵의 戰線 後方 12km 떨어진 곳에 落下하자, UN空軍의 전폭기 엄호를 받은 “헬리콥터”機가 즉시 출격하여 조종사를 무사히 구출하였다.

11월 14일 : 이날 아침부터 비바람이 몰아 치는 惡天候가 계속되어 UN空軍의 活動이 低調하였는데 美 B-29 重爆機는 이를 무릅쓰고 元山-鐵南浦일대와 軍隅里-檜倉일대에 있는 軍事施設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면서 보급로와 기동로 차단폭격을 斷行하였다.

11월 15일 : 이날 UN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또 美 B-29 重爆機들은 咸興의 鐵道와 그 일대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美 極東空軍의 C-46 수송기 1대가 江陵(K-18) 基地에 着陸하기 위하여 進入하다가 東海岸에서 추락하여 탑승者 20명중 11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11월 16일 : 이날은 구름이 낮게 하늘을 뒤덮었을 뿐 아니라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까닭에 空軍의 活動이 極히 低調하였다.

그러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戰線 일대를 強打, 友軍의 戰意를 昂揚케 하였다.

한편 이날 休戰會談 板門店 연락장교회의에서 敵은 『美 空軍이 15일 會談 中立地域 상공을 侵襲하였다』라고 생트집을 부리기도 하였다.

11월 17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鴨綠江 근처에 있는 鐵山 및 제련소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고 또 다른 B-26과 B-29 兩 爆擊機 편대들은 平壤 일대에 있는 탄약집적소에 폭격을 集中하니 그 폭음이 그 일대를 뒤흔들면서 火焰에 휘감긴 탄약고들은 연쇄적인 폭발의 폭음을 토하며 불기둥이 하늘을 치솟았다.

11월 18일 : UN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沙里院 南쪽의 銀波里에 있는 通信施設에 폭격을 단행하여 이를 燒却시키는 한편 宣川 상공으로 機首를 돌려 그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에 보급로와 기동로에 대한 차단폭격과 아울러 敵과 接戰中인 友地上軍을 엄호하였다.

11월 19일 : 이날 UN空軍의 F-84 邀擊機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1대를 격추하였다.

또한 美 空軍의 전폭기들은 狙擊綫을 따라 Napalm탄을 投下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날 美 極東空軍은 폭격기와 전폭기등 1,300회에 達하는 출격으로 鴨綠江 南쪽 8km에 이르는 北韓內의 敵陣地 일대를 強打하였다.

11월 20일 : 美 제5공군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5대를 격추하고 2대를 半破하였다. 또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軍隅里 東쪽 2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를 폭격하여 이를 燒却하는 한편 宣川 西쪽에는 鑛石 加工공장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한편 이날 北京放送에서 보도하기를 『UN空軍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美空軍機 250대를 安東과 遼東半島 상공에 侵襲시켰다』라고 虛無孟浪한 逆宣傳을 하였다.

11월 21일 : 이날 UN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또 B-26 輕爆機들은 東海岸 및 北靑일대의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이를 燒却하고 B-29 重爆機편대들은 元山 南쪽의 보급품 집적소와 兵力 집결소에 폭격을 加하였으며 熙川 南쪽에 있는 鐵橋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徑間들을 끊어 놓았다.

11월 22일 : 이날도 美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격파하였다.

또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海州—平壤地區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과 Napalm탄을 投下하여 온 중일 검붉은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11월 23일 : UN空軍의 F-84 遊擊機 편대들은 鴨綠江 南쪽 상공에서 MIG-15와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또한 이날 夜間에 B-26 輕爆機들은 北韓의 보급로 상에서 보급품을 싣고 南下中인 트럭 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急降下로 進入하면서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敵軍트럭 200대를 燒却시켰다.

11월 24일 : 이날은 北韓 일대에 진눈개비와 바람이 심하게 불어 UN空軍의 활동이 低調하였는데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淸川江 河口的 嶺美洞에 있는 교통망을 強打하고 이날 B-26 輕爆機들은 元山—陽德—平壤間의 기동로에서 보급트럭을 捕捉하자 곧 이에 폭탄을 集中하여 트럭 8대를 完破하였으며 成川 橋梁 2개소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여 全破하였다.

11월 25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機 편대들은 夜間에 보급품을 수송하는 트럭 부대를 捕捉하고 이에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여 敵의 보급 트럭 155대를 燒却하였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 사령관 Glenn O. Barcus중장은 말하기를 『敵은 前線 지구에 대한 보급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必死的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申明하였다.

11월 26일 : 이날 UN空軍의 F-80과 F-84機를 비롯한 美 海兵隊 소속 전폭기 14대는 元山 南쪽에 있는 三巨里의 보급품 집적소와 兵力 집결소에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또 美 B-29 重爆機 편대들은 海州일대의 보급품 집적지를 폭격하고 平壤 鐵橋에 폭탄을 集中한 결과 徑間을 폭파하여 사용 불능토록 하였다.

11월 27일 : 이날은 北韓 상공에 낮게 구름이 깔리고 비와 진눈개비가 내리는 등 氣象이

고르지 않았는데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이를 부릅쓰고 전날에 이어 海州지구 에 대한 보급품 집적소와 平壤일대의 鐵道시설에 爆撃을 加하였다.

11월 25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 49대는 夜間에 義州와 新義州의 兩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하면서 그 일대에 대한 보급품 집적소와 操車場에 大的인 폭격을 단행하니 점붙은 火焰은 매마침 거센 바람을 타고 그 일대를 삼킬듯 하였고 곳곳에서 치솟는 불기둥은 하늘을 가를듯이 솟구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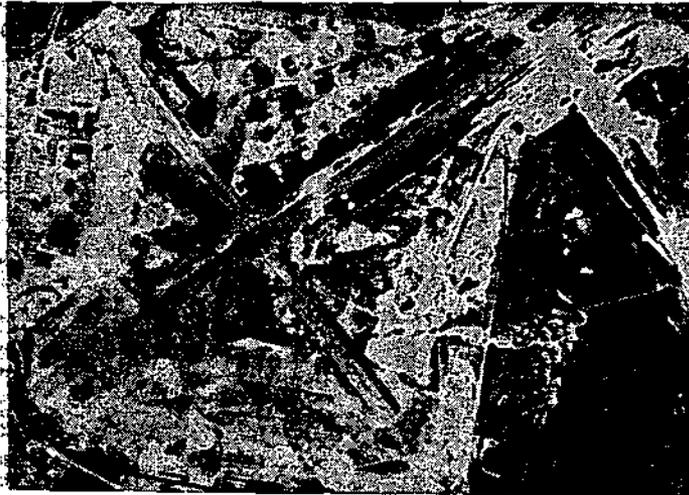
11월 29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 일대로 출격하여 敵前線을 따라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엄폐된 敵陣地에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다른 편대들은 接戰을 전 개하고 있는 友軍을 護하였다.

11월 30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元山 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으며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도합 930회 출격으로 海州-沙里院을 비 롯하여 高原등에 있는 보급기지와 鐵道網을 爆撃하였다.

(5) 12月中의 戰況

12월 1일 : 이날 UN空軍의 F-80전폭기 편대들은 西部戰線 일대의 보급품 집적소를 強 打하는 한편 交戰中인 美 제1군단의 接敵線 後方に 4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하였다.

또 이날 休戰會談場인 板門店 연락장교 회의에서 敵의 대표는 말하기를 『지난 11월 26 일 UN空軍機가 順川의 제9포로수용소를 폭격하였다』라고 事實無根한 생트집을 부리기도 하였다.



<B-26과 B-29 爆撃機에 의하여 폭파되는 敵의 비행장>

을 集中하고 陽德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격을 단행하여 이를 全燒시키는 한편 B-29 重爆機편대들은 順川에 있는 敵 司令部와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投下하여 火焰으로 휘

12월 2일 : 이날은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夜間에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 들로서 平壤근처의 비행장 에 대한 猛爆을 단행하였다

12월 3일 : 美 空軍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 를 撃추하였다.

또 B-26 輕爆機들은 元 山일대의 敵 集結地에 폭탄

감아 놓았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8회와 제9군단에 188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8회로 도합 20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敵의 戰線에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2월 4일 : 이날도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金化-鐵原의 陣地를 強打하여 삼시간에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그리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11회와 제9군단에 242회를 비롯 제10군단에 15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는 8회로 도합 276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5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元山일대에 있는 보급로망에 대한 夜間 폭격을 단행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전날에 이어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60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35회로 도합 195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을 비롯하여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한편 이날 夜間에 敵의 전폭기 11대가 서울 上空에 나타났으나 UN軍의 對空砲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12월 6일 : 이날 UN空軍의 전폭기들은 北韓 일대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와 兵力 집결지에 대하여 爆撃을 加하였는데 이날 출격은 도합 985회에 達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連日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는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204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41회로 모두 245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7일 : 美 空軍의 F-86 邀撃機 편대들은 MIG通路 상공에서 MIG-15와 熾烈한 空中戰 끝에 7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戰線을 따라 友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9군단에 39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8회로 도합 47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12월 8일 : 이날 UN空軍의 F-86邀撃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였다.

또 전폭기들은 北韓内の 보급수송망에 대한 폭격을 加하였으며 B-26 輕爆機들은 기동으로 차단폭격을 단행하는가하면 B-29 重爆機들은 平壤 상공으로 출격하여 永豐리에 있는 北傀軍參謀학교에 폭탄을 集中 이를 燒却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地上軍을 엄호하면서 美 제1, 제9 兩軍團에 223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 18회로 도합 241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폭격을 敢行하였다

12월 9일 : 이날은 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惡天候이었으나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이를 무릅쓰고 日本 近海에 있는 美 기동함대의 艦載機와 合勢하여 羅津일대의 操車場과

會寧으로부터 東北쪽 韓滿 國境까지 이어지는 主要 기동로에 대한 폭격을 352회에 걸친 출격으로 敢行하여 그 일대를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또 이날 全 戰線은 大體로 平穩한 狀態이었으나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는 美 제1군단에 8회의 近接支援을 提供하였다.

12월 10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氣象이었으나 美 제5공군의 F-86 遊擊機들과 F-84機들은 北韓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2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 제10 兩軍團에 62회 그리고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는 23회로 도합 85회의 近接支援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을 集中하였다.

12월 11일 :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에 있는 4개의 비행장에 폭탄 120 ton을 投下하여 大破토록 만들어 놓았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122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10회로 모두 132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12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各 戰線에서는 熾烈한 攻防戰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에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全戰線을 따라 地上軍을 보호하는 한편 美 제1군단과 接戰을 하고 있는 敵의 戰線 中央에 275회의 지원폭격을 加하였으며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도 15회로 도합 290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단행하였다.

12월 13일 : 美 空軍의 B-29 重爆機 14대는 義州에 있는 수송차량 基地를 強打하여 이를 燒却시켰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167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20회로 모두 187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는데 이날 지원폭격으로 敵의 戰線 세력을 分散시키므로 인하여 地上軍이 敵을 격멸하는 계기가 되었고 敵은 戰意를 잃고 溪谷으로 몰여지기에 급급하였다.

12월 14일 : 이날 美 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夜間에 鴨綠江 상공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철로에 대한 차단폭격을 단행하였다.

또한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76회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에 8회로 도합 84회의 近接支援 폭격으로 敵의 戰線을 뒤흔들어 놓았다.

12월 15일 : 美 空軍의 F-86 遊擊機 편대들은 韓滿 國境線 바로 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8대를 半破하였다. 그리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군단에 134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加하였다.

12월 16일 : UN空軍의 F-86 遊擊機들은 鴨綠江 水豊貯水池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하여 2대를 격추하고 또 다른 전폭기편대들은 淸川江 北쪽 상공에서 敵機 180대와 6회에 걸친 空中戰 끝에 4대를 격추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前線일대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陣地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면서 美 제1, 제9 兩 軍團에 85회 그리고 韓國軍 제2군단에 8회로 모두 93회의 近接支援 출격을 기록하였다.

12월 17일 : 이날도 美 空軍의 F-86 邀擊機들은 鴨綠江 上空에서 MIG-15와 空中戰 끝에 1대를 격추하고 4대를 半破하였으며 한편 B-29 重爆機 편대들은 安州 北쪽에 있는 將校 훈련소에 100 ton의 폭탄을 集中하였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前線으로 출격하여 敵의 前線 背後에 散在한 보급품 집적소와 砲陣地등을 強打하면서 美 제1군단에 108회와 제9군단에는 4회 그리고 제10군단에는 116회를 비롯하여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 30회로 도합 258 회에 달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12월 18일 : 이날 UN空軍의 F-86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1대를 격추하고 1대를 半破하였다.

또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들은 順川 南쪽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500 ton의 폭탄을 投下하여 이를 全燒시켰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들과 美 해병대 소속의 전폭기들이 合勢하여 中部-西部 戰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9, 제10의 3개 軍團에 14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는 28회로 도합 177회에 달하는 近接支援으로 敵의 戰線 세력을 위축시켜 놓았다.

12월 19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트럭부대를 捕捉하는 즉시로 폭탄과 Napalm탄으로 強打하였다.

또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도 敵의 前線 일대에 散在한 陣地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한 폭격을 加하고 美 제1군단에 30회의 近接支援을 단행하였다.

12월 20일 : 이날 美 極東空軍의 B-29 重爆機 편대들은 義州일대에 있는 보급기지를 폭격하여 보급품 집적소 70개소와 건물 6棟을 火焰으로 휘감아 놓았다.

한편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 제10 兩 軍團에 39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 軍團에는 60회 도합 99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12월 21일 :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機들은 이날 밤 新安州 東南쪽 3km에 있는 보급품 집적소에 폭탄을 集中하여 이를 全燒시키는 한편 귀환중에 東部戰線의 敵 집결지로 판단되는 目標에 대한 폭격도 併行하였다.

또 다른 전폭기 편대들은 美 제1군단에 97회와 韓國軍 제1군단에 20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加하였다.

12월 22일 : 이날 UN空軍의 F-86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와 空中戰을 전개한 끝에 3대를 격추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美 제1군단에 8회의 近接支援 폭격을 加하였다.

12월 23일 : UN空軍의 전폭기 편대들은 平壤 부근의 비행장 1개소와 西北韓 地域에서 이 동중인 豫備兵力 부대에 대하여 폭탄과 Napalm탄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으며 이날 밤에는 B-29 重爆機들이 元山으로 출격하여 그 일대의 敵 보급품 집결지를 폭격한 결과 이를 全燒시켰다. 한편 이날 美 제5공군의 전폭기들은 我軍의 地上軍을 幷護하면서, 美 제1, 제9 兩軍團에 21회 그리고 美 제10군단에 79회와 韓國軍 제2군단에 54회로 道합 154회에 達하는 近接支援 폭격을 단행하였다.

12월 24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6 邀擊機 편대들은 北韓의 西北쪽 상공에서 MIG-15 機 70대의 大空中戰鬪에 2대를 격추하고 9대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또 전폭기들은 前線으로 출격하여 美 제1, 제10 兩軍團에 26회와 韓國軍 제1, 제2 兩軍團에는 36회로 道합 62회의 近接支援을 기록하였다.

또 이날 25일부터 31일까지의 UN空軍의 活動은 다음과 같다.

F-86 邀擊機 편대들이 MIG-15와 空中戰에서 4대를 격추시키고 1대를 半破 하였으며 平壤一帶의 보급품 집적지를 炎上케하였다. 또 제5공군 소속의 전폭기들은 地上軍을 幷護 하면서 美 제1, 제9, 제10의 3군단 및 韓國軍 제1, 제2 兩군단에 道합 442회에 달하는 近接支援 출격으로 폭탄과 Napalm 및 機銃洗禮를 퍼부었다.

또한 美空軍의 B-26輕爆擊機隊는 敵의 보급로를 따라 南下하는 트럭부대를 공격하여 130대를 全破시켰고 B-29重爆擊機隊는 定州의 보급품집적소를 燒却시켰다.

또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隊는 新安州 부근의 보급품집적소에 200ton의 폭탄을 投下하여 鳥有化하고 義州 東南쪽의 鑛石제련공장을 燬파시키는등 그 活動이 눈부신 바 있다. 한편 27일에는 Greece 空軍의 수송기 1대가 機體고장으로 추락하여 승무원 14명이 散華하는 불상사가 일어 나기도 하였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MIG機全破	115대	B-26폭격기	10대
트럭	363 "	B-29 "	4 "
유류저장소 폭파	1개소	F-51전폭기	5 "
橋梁폭파	7 "	F-80 "	9 "
鐵橋 폭파	3 "	F-84전투기	21 "
水力발전소 폭파	1 "	F-86전투요격기	16 "
		F-94전투기	1 "
		RF-80정찰기	1 "
		C-46수송기	2 "

第 57 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狀況

第57章 國立警察의 活動(1952년 4월 1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1. 一般狀況

期間中에는 休戰會談이 繼續되는 가운데 國軍과 UN軍은 대체로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서 前哨陣地上的 高地爭奪戰을 반복하였으며 國立警察은 後方治安을 確保하기 위하여 殘匪擊滅에 最善을 다하였다. 즉, 職團警察은 白野職司司令部가 작전을 종결한 뒤로 如前히 在山共匪擊滅戰을 계속하였으며 行政警察도 管轄地域內에서 主로 潛伏組를 운영하여 分散蠢動中인 殘匪擊滅에 最大의 노력을 傾注한 것이다. 이리하여 後方治安은 점차 好調되는 듯 하였으나 共匪의 도발은 支翼 및 列車와 自動車 等を 습격하는 양상으로 돌변하여 朝野에서는 三南地方治安問題에 다시 關心을 表明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이에 대한 새로운 措置를 講究하기에 이르렀다.

가. 後方共匪의 활동개요

(1) 李鉉相의 動靜

白野職司의 100일 작전이 끝난뒤로 在山共匪는 我軍의 銃彈을 避하여 地下로 潛跡하였다가 52년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후방의 治安을 攪亂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在山共匪의 총사령관인 李鉉相은 各團隊에 대하여 軍警을 假裝한 奇襲攻擊을 強行토록 指示하는 한편 自身은 永同을 습격하는 등, 이제 散發的인 기습과 약탈로써 치안을 교란코자 하였다.

(2) 共匪의 出沒狀況

軍警合同作戰으로 各地로 分散 潛跡했던 共匪들은 철저히 「敵進我退」「敵駐我擾」「敵退我進」「敵疲我打」의 遊擊戰法을 最大限 活用하면서 소규모의 병력으로 全南北과 慶南北일대에서 都市, 村落, 警察支署, 交通 및 通信機關을 不時 기습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河東과 咸陽 그리고 長城과 南原 및 永同지역에 出沒하여 補給鬭爭과 兵力補充을 爲해 峯細農民의 食糧을 掠奪하고 民間人을 拉致하는 한편 反共人士와 軍警家族 및 기독교도들을 殺傷하였다.

또한 이들의 組織상황을 보면 1952년 11월 6일에 內務部의 非常警備總司令部가 確認하기를,

第1地區黨에 서울시 및 京畿道, 第2地區黨에 江原道, 第3地區黨에 忠北 및 忠南, 第4地區黨에 慶北과 慶南(洛東江以東地域), 第5地區黨은 全北과 全南 및 洛東江以西의 慶南北지역으로 구분편성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조: 附表 #1 #2)

나. 國立警察의 後方作戰상황

國立警察은 이와 같은 共匪의 點組織을 破壞, 擊滅하기 위하여 1952년 前半期에 搜索 覆滅戰을 전개한 끝에 2,700여명을 사살 내지 捕虜로 하였으나 同年 7월 以後에도 2,000여명이 殘存할 뿐만 아니라 그首腦部는 그대로 남아 勞力擴張을 기도함으로써 거의 年中, 작전이 계속되다시피 하였다.

(1) 非常警備總司令部的 作戰方針

내무부장관은 南原에 설치하였던 治安局 前方지휘소를 白野職司의 南原撤收와 더불어 本部로 옮기고 南原에는 治安局連絡所만 殘留케 하여 金俊鍾총경을 連絡官으로 補任하여 智異山地區作戰을 감독케 하고 全國警察은 「基本作戰方針」에 따라 共匪격멸을 強化함으로써 軍작전상 支障을 招來하는 일이

없도록 嚴重示違한 바 그 大要는 다음과 같다.

- ① 共匪의 首腦部와 主力을 擊破할 것.
- ② 軍警協同의 徹底를 期할 것.
- ③ 歸順工作과 五列索出에 注力할 것.
- ④ 都市, 鐵道, 주보급로 警備의 철저를 期할 것.
- ⑤ 共匪의 據點을 重點 공격할 것.
- ⑥ 長期(8個月以上)戰鬪警察 복무자를 즉시 交替할 것.
- ⑦ 作戰教育과 戰鬪訓練을 強化할 것.
- ⑧ 戰災복구사업에 先導적 役割을 할 것.
- ⑨ 海上으로 침투하는 敵의 對南工作隊를 擊滅할 것.

(2) 戰鬪警察司令部의 發足

太白山 및 智異山地區 전투경찰부는 예하 전투경찰로서 軍警 合同작전을 成功의으로 完遂하고 1952年 9月 15日附로 解體되었다.

그리하여 兩地區 전투경찰대원들은 各市道경찰국으로 轉屬配置되어 이 隊員들과 地方義警들을 基幹部隊로 하여 새로히 殘匪격멸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鐵道機動司令官은 자체에서 所任된 列車運送과 철도경비에 임하여 最精을 다하였으나 三南地方에서는 共匪로부터 列車가 襲擊을 당하는 事例가 屢발하였다.

이와같은 事態의 發展은, 드디어 國會와 UN軍總司令部 및 國軍最高司令部에서 「軍의作戰 遂行上 후방지안상황이 미치는 影響」이 다시 논의되어 「戰鬪警察司令部(戰鬪와 行政業務管掌)를 師團規模로 合法編制게하는 法案」이 國會에서 通過되었다.

(3) 義勇警察隊의 活動

共匪出沒地區에서는 各경찰서장 지휘하에 義勇경찰대를 편성하여 鄉土防衛와 鐵道 및 主補給路경비를 專擔케하는 한편 때로는 이들의 據點을 기습함으로써 많은 戰功을 세웠다.

(4) 行政警察의 活動

各市道 경찰국장은 基本임무를 수행하면서 管轄구역내에서 共匪격멸과 鐵路 및 主補給路 경비작전을 병행하고 또한 戰災 復舊作業과 五列索出에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附表 #1 全國共匪武裝團一覽表 (1952. 1. 22)

區分 地區別	發 動 共 匪 團 隊 號	據 點	共匪總數	
			武裝	非武裝
日月山地區	慶北道黨殘黨 第6支隊敗殘兵	日 月 山	95名	60名
東海地區	東海地區遊擊隊	雲門山, 神佛山	90	60
俗離山地區	제6支隊敗殘兵	俗 離 山	90	60
大屯山地區	제68사단, 제45사단敗殘兵 一部 및 各郡黨	大屯山, 雲長山	309	193
德裕山地區	제57사단一部, 제6支隊敗殘兵, 제3연대, 제909연대	長 安 裕 山	262	150
智異山地區	제57사단, 제81사단, 제92사단, 各郡黨	智 異 山	263	100
白雲山地區	白雲山部隊, 各郡黨	白 雲 山	202	185
白雅山地區	全南總司, 各地區司	白雅山, 母后山	520	620
鶴山地區	360地區司	黃 鶴 山	800	167
光州地區	各郡黨殘黨員	僧 佛 山	10	20
回文山地區	제460사단, 제407연대, 제408연대 嶺嶺사단	回文山 天皇峯	216	370
濟州島地區	漢拏山部隊	漢 拏 山	(數未詳)	
계			2857	1985

附表 #2

共匪最高指揮者名單

(1952. 4. 1 現在)

團隊號	指揮者	姓	名	團隊號	指揮者	姓	名
人民遊擊隊 南半部 總司令官	李 玆 相	李 玆 相	李 玆 相	계 605 사 단 장			
南 部 軍 團 長	李 明 永	李 明 永	李 明 永				
계 57 사 단 장	李 金 興	李 金 興	李 金 興				
계 81 " "	金 在 永	金 在 永	金 在 永	全 北 道 黨 委 員 長	方 俊 杓	方 俊 杓	方 俊 杓
계 92 " "	金 福 連	金 福 連	金 福 連	全 南 道 黨 委 員 長	金 善 京	金 善 京	金 善 京
抗 美 聯 隊 長	吳 文 南	吳 文 南	吳 文 南	全 北 道 黨 委 員 長	金 南 虛	金 南 虛	金 南 虛
의 카 리 部 隊 長	文 白 岩	文 白 岩	文 白 岩	慶 北 道 黨 委 員 長	盧 金 姜	盧 金 姜	盧 金 姜
계 46 사 단 장	馬 泰 哲	馬 泰 哲	馬 泰 哲	慶 南 道 黨 委 員 長			
계 68 " "	李 植 俊	李 植 俊	李 植 俊	全 南 道 黨 委 員 長			
全 北 機 砲 兵 團 長				全 白 雲 山 總 司 令 官			

附表 #3

全國義勇警察상황

(1952)

市道別	人員	議 警 定 員	實際必要要員	備 考
京 畿		20名	175名	
江 原		98	829	
忠 北		59	698	
忠 南		25	318	
慶 北		113	1,109	
慶 南		354	3,258	
全 北		352	3,386	
全 南		512	3,631	
濟 州		55	451	
鐵 道		194	1,145	
계		1,782名	15,000名	

附表 #4

全國警察總兵力一覽表

(1952. 12. 31 現在)

所屬別	兵力	保 有 兵 力 數	備 考
治 安 局		732名	
治 安 局		6,035	
京 畿 鐵 道		5,709	
江 原 鐵 道		4,494	
忠 北 鐵 道		2,502	
忠 南 鐵 道		3,343	
慶 北 鐵 道		7,119	
慶 南 鐵 道		9,518	
全 北 鐵 道		6,163	
全 南 鐵 道		8,223	
濟 州 鐵 道		1,525	
前 方 司 令 部		253	
계		55,616名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狀況

(1) 雙孝里戰鬪(9.9)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山淸警察署遊擊隊 장 경사 姜 三 壽

敵 軍

제 4 支隊

나. 전투전의 개황

白野戰司令部의 작전으로 타격을 받은 共匪들은 分散竄動하다가 再集結을 爲한 行動이 活潑하여지자 山淸署遊擊隊는 姜三壽 警查 指揮下에 雙孝里 주변의 共匪루트에서 계속하여 埋伏作戰을 展開中 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共匪들의 再集結이 있으리라는 諜報를 入手한 姜三壽 警查는 敵의 루트에 埋伏하였다 가 이를 奇襲키로 決心하고, 山淸郡 今西面 雙孝里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여 時機到來를 기다렸다. 그런데 4월 3일 03.00에 이윽고 共匪 第4支隊의 60여名이 雙孝里 뒷산으로 接近 中임을 確認하자 이를 至近距離까지 접근토록 유도한 다음 一齊히 集中攻撃을 加하였다. 이와같은 奇襲에 唐慌한 敵은 一時混亂 속에서 헤매다가 我軍 병력이 小數임을 알고, 戰 列을 再整備하여 反擊을 試圖함으로써 彼我的 激戰은 05.00까지 同地點에서 繼續되었다. 이리다가 날이 밝아지면서 敵은 戰勢不利함을 認識하고 智異山 方面으로 潰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이 전투는 敵의 企圖를 粉碎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行動을 萎縮시키고 특히 夜間埋伏組 운동의 實 効性을 立證한 一戰이다. 그 뒤로 敵은 大單位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少數의 병력으로 기습을 노렸 다. 이 戰鬪에서 我軍은 損失없이 敵射殺 9명과 各種 小銃 3挺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 參戰者의 證言

◇ 山淸警察署遊擊隊 姜三壽 警查

共匪는 전투력 재정비를 위하여 血眼이 되어 埋伏奇襲을 當하고도 한동안 反擊을 試圖하였으

나 우리들은 少數兵力으로 2시간 동안이나 접촉 을 維持하면서 이를 擊退하였다. 이것은 그 전 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諜報를 얻게된 對 民活動이 더욱 중요하였다.

(2) 白雅山戰鬪 (4. 6~4. 17)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白雅山 戰鬪警察大隊 장 경감 金 東 鎮
 和順 警察署 戰鬪隊 장 경감 李 承 佑

敵 軍

全南總司令官 金 鎿 守
 和順地區 民靑聯隊(總兵力 75名)

나. 전투 전의 개황

軍警合同作戰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던 全南總司令官 金鎿守와 그가 指揮하는 全南總司 및 和順民靑聯隊의 총병력 75명이 白雅山에 根據를 두고 周邊의 山間村落은 勿論이요 主補給路와 鐵路를 不時로 기습하였다. 이에 全南警察局長은 白雅山地區에 一團 전투대대를 고정배치하여 和順경찰서장과 緊密한 협조아래 該敵을 격멸토록 조치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全南警察局長은 金東鎮 경감이 지휘하는 白雅山 전투경찰대대를 主攻으로 하고 和順경찰서의 可用人員을 助攻으로 하여 合同작전을 전개케 하되 특히 和順署長은 共匪에 對한 諜報治動을 強化케 하고 白雅山 전투대대는 이 諜報를 入手할 때까지 白雅山을 中心으로 各中隊를 戰術配置하여 要路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하던 바 4월 6일 05. 30에 李承佑 和順署長으로부터 全南總司, 共匪 45명이 白雅山 “A”秘트 부근에서 休息中이라는 急報를 얻게 되자 戰鬪대대장 金東鎮 警監은 즉시 全部隊로 하여금 敵을 四面에서 포위토록 하여 압축공격한 끝에 白雅山 南쪽 8部後線 密林속에서 이를 완전히 覆滅하였다. 그 뒤로 4월 17일 15. 00에 白雅山 東南쪽 溪谷을 索敵하던 同戰鬪大隊의 主力은 和順民靑聯隊 30여 名을 發見하여 또 다시 全火力의 集中으로 瞬息間에 敵을 完滅하는 큰 戰果를 올렸다. 이로써 白雅山地區에서 蠶動中이던 敵의 主力部隊는 完全히 再起不能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정확한 諜報活動과 索敵으로 敵의 集團에 決定的인 打擊을 加함으로써 長期間에 걸쳐서 潛伏하던 共匪를 完滅하였으나 이 地域은 險山地帶라서 또 다른 敵의 侵透를 豫防하기 爲하여 白雅山전투대대는 여기에서 次期作戰을 준비하였다. 이 戰鬪에서 我方은 全然 損失이 없이 射殺 71名과 捕虜 2名 그리고 各種小銃 32挺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 參戰者의 證言

◇ 和順경찰서장 李承佑 경감

白雅山은 地勢가 險惡한데다가 密林이 우거져서 攻擊에 大端히 不利하였으나 우리 署員들의 正確한 諜報와 白雅山 전투대대장의 기민한 조

치로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敵의 周到한 對備로, 한때 苦戰을 겪기도 하였으나, 密林지대에서의 전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 白雲山바구니峯戰鬪(4. 22)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03연대 제 1대대 제 3소대 장 경위 金 民 洙

敵 軍

白雲山部隊 장 姜 奎 基(병력 3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智異山地區 전투사령관 代理 黃圭燮 총경은 隸下 全主力部隊로서 白雲山에 集結中인 共匪 白雲山部隊을 攻撃키 위하여 제 205연대로 하여금 白雲山 主峯의 西쪽 稜線에서 바구니峯으로 連한 丘陵을 따라 阻止線을 形成케 하는 한편 제 203연대의 제 1대대장 金相旭 中將에게는 제 3소대를 이끌고 花溪場에서 蟾津江을 건너 光陽경찰서의 鴨綠支署 西南쪽에서 바구니峯—1000高地 一帶를 수색하라고 명령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제 1대대장으로부터 作戰命을 받은 金民洙 中將은 第 3小隊를 指揮하여, 白雲山主峰 東北쪽의 1000高地에서 바구니峯까지의 密林地帶를 搜索코자, 11.00에 1000高地를 探索한 다음 18.00까지 바구니峯을 占領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4월 22일 09.00에 蟾津江을 花溪場으로부터 渡江한 제 3소대는 10.00에 目標 “A”인 1,000高地를 接敵없이 占領한 다음 周邊 一帶를 수색하면서 目標 “B”인 바구니峯을 指向하여 前進하였는데 이때에 1000高地 西쪽의 1300高地 부근에서 數未詳의 共匪들이 銃撃을 加함으로써 그 位置를 確認하고 즉시 鴨綠支署 西쪽의 溪谷 密林地帶에서 이를 급습하니, 天幕 16棟을 세워놓고 休息하던 共匪 300여名은 크게 놀라서 密林속으로 分散逃走하였다. 이에 제 3소대는 즉각 本隊에 無線報告를 한 다음 目標 “A”인 바구니峯에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다가 20.00에 명령에 의하여 順天으로 이동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전투는 적의 據點을 확인한 것으로 次期作戰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後日 金民洙 中將은 花朗武功勲章이 授與되는 榮譽를 받았다. 이 戰鬪에서는 射殺 7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3소대장 金民洙 中將

險山峻嶺과 密林地帶에서만 蠢動하는 共匪들을 探索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력 끝에 그 任務를 완수하고나니 가슴이 후련하

였다. 敵의 集團이 安心하고 있는 것을 奇異하는 快感은 永遠히 잊을 수가 없다.

(4) 河東署 防禦戰鬪(4. 24)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河東警察署 警衛 金 洗 鎮
 敵 軍
 第4支隊殘匪 40名

나. 전투 전의 개황

4월 25일은 처음으로 地方議會議員을 選舉하는 날이다. 共匪들은 이 選舉의 妨害와 惡辣한 蠻行을 恣行하려고 暗躍中이었다. 이러한 事態에 對備하여 各경찰서는 夜間에도 2분의 1의 兵力을 대기시켜 選舉警備任務의 徹底를 期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와 개요

4월 24일 02.00에 共匪제4지대소속의 40名(女子 2名包含)이 三面으로 부터 河東경찰서를 포위하고 夜襲을 敢行하였다. 이리하여 警察署 構內에서 攻防戰이 展開되었는데, 이때에 一部の 共匪들은 河東郡廳과 郡守官舎, 그리고 河東金融組合 및 河東郵遞局등 기타 主要기관과 右翼陣營의 地方有志 家宅에 侵入하여 奇襲放火할 뿐만아니라 市內 各店舖에서 各種상품을 掠奪하는 등, 一大 修羅場이 되었다. 이런 事態에 當面한 宿直主任 金洗鎮 경위는 沈着大膽한 用兵指揮로 전병력을 反擊戰列로 배치하여, 侵入한 共匪를 集中강타하니 共匪들은 夜暗을 이용하여 花溪場方面으로 逃走하고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一方面的으로 損傷을 입은 河東署는, 四周防禦에 根本的인 결함이 確認되었고 通匪分子들의 索出에 拍車を 加하였다. 河東署의 事例는 共匪出沒地區內, 各警察署의 防禦作戰概念을 根本的으로 修正치 않으면 아니되는 契機가 되었다.

이 戰鬪에서 我方은 다음과 같은 損失을 입었다.

重要建物燒失 7棟, 民家 10棟
 商品 多量掠奪當함.

§ 參戰者의 證言

◇ 河東署 宿直主任, 金洗鎮경위
 共匪의 대담한 夜襲이었으나, 우리署員들도

沈着히 잘싸웠다. 그러나 戰果가 없어서 大端히 引망하다. 이러한 類形의 奇襲攻襲을 거울삼아 再役防止에 注力하였다.

(5) 咸陽被襲戰鬪(5. 9)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太白山地區戰鬪司官 代理 總경 李乘禧	제207연대 總경 文 鶴 東	제207연대 제1대대장 警감 石 大 俊
제207연대장	敵 軍	咸陽警察署장 警감 郭 斗 金
제57사단軍官部隊 장 朴 昌 善		

나. 전투 전의 개황

4月 下旬에 李秉禧總警이 太白山地區 戰鬪司令官(대리)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제207연대 제1대대는 咸陽에서 訓練中이었고, 咸陽署長은 咸陽周邊에서 探索戰을 繼續하여 사실상 咸陽의 외곽지대는 空白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에 智異山에 本據地를 두고 있는 제57사단의 軍官인 北傀의 少佐出身 朴昌善은 小組部隊를 지휘하여 咸陽奇襲을 企圖하고 智異山에서 咸陽으로 침투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5월 9일 23.30에 朴昌善이 지휘하는 제57사단軍官部隊 15名은 咸陽 南쪽의 飛行場에 侵入한 다음 咸陽邑內 民線共產分子의 諜報를 土嚙로, 軍人을 假裝하여 太白山전투사령부를 비롯한 三一會社와 咸陽金融組合 그리고 咸陽署等에 대한 奇襲攻擊을 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無防備狀態에 있던 咸陽邑內는 순식간에 修羅場이 되고, 無差別射擊이 亂舞하여 참상을 빚고 말았다. 이와같이 발악한 共匪들은 만행을 저지르고 悠悠히 智異山쪽으로 사라졌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河東被襲事件 직후에 다시, 이와같은 咸陽被襲이 連發함에 따라 朝野에서는 크게 警察을 非難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이로 말미암아 5月 24日에 張錫潤內務長官이 辭任하는 결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兩事態로 因하여 全國 警察官署長은 共匪討伐 보다는 自體防禦에 集中하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그뒤로 제207연대 제1대대는 5月 27日 釜山으로 移動하였다. 이 夜襲에서의 損失은 다음과 같다.

重要建物破壞 3棟, 放火民家 5棟

戰鬪警察負傷 6名, 失蹤警察 17名

(※ 失蹤者는 後方地域으로 逃走한 것으로 後日判明되고, 朴昌善은 後日生捕되었음.)

§ 參戰者의 證言

◇ 太白山전투사령부 人事參謀 鄭昌根경감

共匪들은 미리 咸陽의 無防備狀態를 알고 少數兵力으로 夜襲을 감행하였는데, 사령부에서는 긴급대책이 不可能하여 사실상 司令部의 本部中隊가 咸陽을 救한 것이다.

◇ 聖心大學 表丞鉉教授(當時에 作戰課勤務)

나는 作戰課에서 韓永煥同志와 같이 夜間勤務에 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火箭砲彈 터지는 소리가 나고 輕機와 多發銃으로 司令部가 기습을

당했다. 마침^ㄷ本部中隊의 反擊으로 우리들은 九死一生으로 살아남았으나 이 事件은 根本的으로 四周防禦를 缺如한데 있다고 본다.

◇ 咸陽警察署 警備主任 金鳳龍경위

나는 당시에 咸陽署部隊를 指揮하여 咸陽 東쪽에 있는 德葛山에서 搜索作戰中에 이被襲의 兇報를 들었다.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狀況을 보니, 아주 말이 아니었다. 1,000餘名の 兵力이 駐屯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敵으로부터 完全奇襲을 당했으니 이것은 확실히 잘못 된 것이다.

(6) 長城 列車被襲戰鬪(6. 23)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長城警察署 장 경감 文 光 一

列車護送警察

敵 軍

抗美聯隊 장 吳 永 寬 외파리部隊 장 文 南 昊

나. 전투 전의 개황

在山共匪들의 발악은 漸次 激化되어 각처에서 小邑과 村落을 襲擊하거나 列車과 自動車等 交通機關을 襲擊하는 狀況이 頻發하여 鐵路 및 주요급로의 警비를 위한 諸般措施가 취해지고 「터널」과 鐵橋等에는 固定警備兵力을 配置하여 警戒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이같은 措置는 長城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署長 文光一 警감은 鐵道沿邊의 據點警備에 注力하고 列車護送隊는 列車 自體防護에 任하던 바, 6월 23일 11.00에 長城驛 北쪽 (大田起點 163km 地點)에서 回文山에 本據를 두고 있는 共匪 吳永寬과 文南昊(鐵道出身)가 指揮하는 抗美聯隊 및 外파리部隊共匪 200여명이 木浦發 서울行 列車가 長城 芦嶺「터널」에 進入直前に 附近 密林地帶로부터 列車를 습격함으로써 乘務中이던 列車護送隊 및 열차 내의 軍인들과 攻防戰이 전개되자 이같은 急報에 接한 長城 署長 文光一 警監은 即時戰鬥部隊를 指揮하여 緊急出動하였다. 이리하여 現場에 도착하는 즉시로 敵과 2시간동안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는 동시에 사고현장을 수습한 다음 이어서 追擊戰을 展開하여 回文山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전투직후에 軍醫전사자와 부상자들을 緊急救護하고 列車 및 鐵路복구작업 지원에 힘써 15.00부터 다시 列車가 運行되었다.

특히 注目할 것은 이 습격사건을 지휘한 共匪 文南昊는 8.15解放을 前後하여 鐵道局직원으로 勤務한 經歷을 保有한 者로서 열차습격에 대한 상습적 共匪임이 確認되었다.

이 戰鬥에서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射殺 2名, 鹵獲 輕機 2挺 各種小銃 2挺
戰死軍醫 55名 戰傷 32名 被奪小銃 6挺 列車 9輛破壞

§ 參戰者의 證言

◇ 長城경찰서장 文光一 警감

너무나도 悲慘한 事件이었다. 특히 共匪들은 地形地物을 잘 活用할 수 있는 地點을 미리 占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文南昊라는 者가 指揮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追擊을 했지만 險山地帶로 潛跡하면서부터는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後日 文南昊는 우리 戰警隊가 사로잡았다.

(7) 生草 및 今西支署戰鬥(7.6~7.10)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山淸경찰서 장 警감 朴 又 範

生草支署 (兵力 21名)

今西支署 (兵力 20名)

敵 軍

共匪 8支隊 (兵力 40名)

나. 전투 전의 개황

共匪 第8支隊는 60mm박격포와 輕機關銃을 保有한 團隊로서 戰鬥力도 過少評價 할수 없는 存在였다. 山淸署長 朴又範 警감은 姜三壽 警사가 指揮하는 山淸署 遊擊隊로써 이를 격멸코자 많은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뜻을 못이루고 있던 차에, 共匪들의 組織的인 警察官署襲撃을 豫測하고, 山淸署산하의 各支署로 하여금 이에 對한 嚴重한 警戒對策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山淸署長은 隸下, 全支署主任에게 如何한事態가 發生할지라도 支援部隊가 到着할 때까지 抗戰 할것과 追擊原則을 준수토록 강조하여 管下의 警戒의식을 높이고 있던 바, 7월6일 23.30에 生草支署에서 被襲事件이 發生하였다. 이에 21名의 警察官과 義勇경찰들은 支署 주변의 100m地點까지 接近한 敵을 交戰 3시간 동안의 반격으로 智異山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그뒤로 7월10일 03.00에는 今西支署에서 生草支署를 습격하였던 40여명의 共匪 第8支隊가 또 다시 60mm박격포와 경기관총 등으로 今西支署를 습격하였다. 이에 20名의 戰鬥要員들은 善防하여 敵의 攻擊目的을 完全히 꺾어버림과 아울러 智異山쪽으로 격퇴하고 말았다.

다. 전투 후의 개황

第8支隊 共匪들은 支署占領을 목표로 두차례나 夜襲을 감행하였으나 兩支署의 四圍防禦가 奏効하여 이를 격퇴 하였거니와, 山淸署長 朴又範 警감은 이에 足하지 않고, 姜三壽 遊擊隊를 동원하여 反擊戰을 展開하였다. 이 戰鬥에서 共匪 6명을 射殺하고 99式小銃 1정과 칼빙소총 1정을 노획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精米所 1棟을 소각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山淸경찰서장 朴又範 警감
전투현장을 나가보고 共匪들을 잡고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으며 共匪의 攻擊方法이 또한 高度로 向上되어 今後의 共匪격멸에 적지 않은 困難이 豫想되었다. 特別히 이 전투에서 四圍防禦가 奏効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8) 永同被襲戰鬥(8.16)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永同경찰서	장	총경	金	永	哲
	敵	軍			
人民遊擊隊	南半部總司令官	李	鉉	相	
南部軍團	장	金	明	坤	(兵力 300名)

나. 전투 전의 개황

7월에 들어 國軍第1師團이 原原에 移動하여, 現地의 南部警備司令部와 太白山地區 및 智異山地區戰鬪司令部를 通한지휘하여 智異山, 德裕山, 回文山, 三道峯 등 三峯各地에서 共匪擊滅戰을 치른 다음 8월 4일 부로 작전을 終結하고 前線으로 移動하였다. 이에따라 在山共匪들은 各團 分散行動으로 我軍의 包圍網을 脫出하여 숨어오다가 李鉉相이 이끄는 南部軍團司令部가 智異山—德裕山—三道峯—三峯山—楊江面山岳地帶를 거쳐서 300명의 병력으로 규합한 다음 永同으로 隱密히 침투하여 永同경찰서를 습격한 것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非常警備 總司令部는 全國 警察官署長에게 對한 作戰指示에서,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① 共匪들은 警察官署의 襲奇을 敢行하려 하므로 各級官署長은 徹底한 四周警戒을 하고, 이에 對한 細部作戰戰劃을 수립하여 對敵措置의 完璧을 期하라.

② 特히, 淸州, 谷城, 雲峰, 河東, 咸陽 被襲狀況의 戰訓을 참작하여 對備하라.

③ 綠陰期 軍警合同作戰에서 敵의 主力을 擊破하지 못한 點에 留意하여, 共匪로부터의 奇襲을 豫防하는데 全力을 기우리라.

④ 만일 奇襲을 當하고 있는 官署가 있을 때에는 自律的으로 隣接部隊는 緊急 지원토록 하라.

⑤ 接敵狀態를 繼續的으로 維持하여 隣接 作戰部隊에 通報 또는 引繼하라.』

以上과 같은 方針아래 各署에서는 警戒태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8월16일 00.40에 永同外 廊陣地에 突然 李鉉相이 總指揮하는 共匪 南部軍團 300여명이 殺到하여 交戰이 벌어졌다. 이때에 數的으로 優勢한 敵은, 곧 梅川里 뒷산의 陣地를 점령한 다음 芙蓉派出所를 비롯한 永同 邑事務所와 韓青永同郡團部, 南亭國民學校 右翼人事家宅 및 其他 公共施設을 一齊히 各團襲擊하여 銃擊과 放火로 永同市內는 온통 수라장이 되었으며 住民들은 恐怖感에 사로잡혀서 어쩔줄을 모르고 共匪들은 無差別射擊과 共產軍歌를 부르는 등 主觀의 거리로 化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에 향전하던 警察戰鬪員들도 戰勢 不利하여 撤收하고 警察署도 完全히 包圍되어서 狀況은 地극히 危殆로운 結果에 이르렀다. 한편 急報에 接한 忠北경찰국장 李成株 警務官은 保安課長 李正鎔 總경을 支援部隊長으로 한 出動兵力을 이끌고 現地로 나가 敵을 逆襲하니 이들은 04.30을 전후하여 三道峰方面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에 永同은 共匪들의 放火로 到處에서 民家가 불타고 있었으며 警察隊는 消防署와 協同하여 重要建物과 民家の 鎮火作業에 힘썼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河東과 咸陽에 이어 京釜線상의 주요 戰略요지인 永同의 被襲事件은, 지난 날의 淸州被襲事件과 같이 政府와 國會가 벌려, 떠들석한 問題點으로 登場하였다. 그리하여 政治 및 社會的인 論難은 날로 높아지고 軍首腦部에서와, UN軍當局에서도 非常한 關心을 表明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永同경찰서장 金永哲 總경은 8월21일부로 引費更迭되고 이와같은 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검토되었다. 이 戰鬪期間中 戰果는 確認된 바 없고,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死 3名, 戰傷 3名, 燒失建物 13棟.

§ 參戰者의 證言

◇ 永同 경찰서 朴東燮 순경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奇襲을 당했다. 共匪

들은 智異山에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永同이 불바다가 된것은 對備없는 警備의 虛點을 드러낸 것이다.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事件이다.

(9) 加祚支署攻防戰(9. 20)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屈昌경찰서	加祚지서	장	경위	金	來	植
		敵	軍			
人民遊擊隊	南半部總司令官			李	鉉	相
南部軍團		장		金	明	坤 (兵力 1,500名)

나. 전투 전의 개황

綠陰期の 軍警合同作戰 기간에는 共匪들이 접촉을 迴避하여 分散潛跡하다가 제1사단의 戰線復歸를 계기로 하여, 永同을 奇襲한 다음 李鉉相의 지휘아래 德裕山周邊에서 다시 1,500여명을 규합하여 補給鬪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렵 北傀가 密派한 對南工作대원 5명이 瑞山 海岸에서 上陸하다가 모두 사로잡힌 바 있었으나 東西海岸線으로 浸透하는 對南工作원들의 수가 增加하는 실정이었다고, 그동안 海雲臺 彈藥庫爆發事故等 治安狀態가 어지러워서 경찰은 地域防禦에 特別한 配慮를 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加祚支署長 金來植 경위는 支署警察官 15名과 加祚義勇警察隊 60名을 통합지휘하여 自體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9월20일 04.00에 突然 李鉉相이 지휘하는 南部軍團共匪 1,500名이 加祚支署를 三面에서 에워싸고 攻擊을 시작하였다. 이에 加祚支署는 完全히 포위되었으나 警察과 義勇警察戰鬪隊는 渾身の 防禦戰을 전개하여 激戰을 계속하고 있던 바 마침 이때에 隣接에서 作戰中이던 智異山地區 전투사령부의 제30연대가 급거 赴援하여 이를 逆包圍함으로써 敵은 激戰 7시간만에 德裕山쪽으로 逃走하였으며 제203연대는 이를 追擊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金來植 경위의 機智어린 善防으로 加祚加署를 固守하고 友軍의 도움을 얻어 敵을 격퇴한 一戰이었다. 이 전투에서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 戰 果 射殺 20名, 捕虜 1名, 鹵獲 忒式小銃 2挺,
- 損 失 戰死 5名, 戰傷 4名

§ 參戰者의 證言

◇ 加祚支署長 金來植 경위

被襲事件이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來襲이 있

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항상 경계를 嚴히하였다. 그러나 막상 엄청나게 많은 共匪의 來襲에 는 一時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共匪들은 警

備電話線을 切斷하고 支署周邊高地를 一時에 占領한 다음 火力을 最大限動員해서, 支署를 向해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들은 敵兵이 支署바리케트

에 接近하는 者만 邀擊하면서 持久戰을 闘으며 제203연대의 非常支援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只속 살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10) 南原 列車被襲戰鬪(10. 12)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南原경찰서 장	총 경	崔 蘭 洙
	敵	軍
抗美聯隊 장		吳 永 寬 (병력 55명)

나. 전투 전의 개황

軍警合同作戰이 終結되어 一時 小康狀態로 들어가자 각지에 흩어진 共匪들은 또 다시 兵力을 再集結하면서 各處에 出沒하여 主로 軍主補給路와 鐵道를 襲擊함으로써, 後方治安을 攪亂시키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內務部治安局에서는 智異山地區의 次期作戰을 爲해 9월 15일부로 解體된 智異山 戰鬪司令部를 代置하여 治安局連絡所를 設치코자 미리 貨車2輛分의 各種彈藥을 列車便에 輸送키로 하였다.

다. 전투 경과와 개요

非常경비총사령부는 次期作戰에 대비하여 南原의 治安局 連絡所에 貨車 2輛分의 各種 彈藥을 輸送하고 있던 바, 10월 12일 15.00에 同輸送列車가 南原郡 巴梅面 桂樹里앞에 이르렀을 때에 소위 抗美聯隊라고 불리는 共匪의 一團이 50여명의 병력으로 미리 鐵路에 地雷를 埋設하고 그 周邊高地에서 潛伏하고 있다가 地雷폭발로 인하여 機關車가 脫線되자 一齊히 列車를 습격하였다. 이에 輸送중인 탄약이 爆發하여 全燒되고 鐵道護送경찰대원과 附近에서 作戰中이던 南原署遊擊隊가 合勢하여 交戰이 시작되었는데, 彈藥이 폭발하는 것을 본 敵은 交戰 30분만에 回文山쪽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被襲으로 말미암아 次期作戰에 必要한 彈藥이 燒失되고 機關車1輛을 비롯한 貨車2輛과 기타 物資의 損失까지 보게 됨으로써 一時 긴장이 호르기도 하였으나 작전에는 아무런 影響을 받지 않고 곧 후속 조치를 강구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南原경찰서 金成吉순경

列車가 南原쪽으로 運行中 갑자기 事故地點에서 爆音과 동시에 汽車가 脫線되고, 共匪들이

列車를 向해 一齊射擊하니, 列車護送警察들이 應射하는 것을 目擊하고 遊擊隊와 같이 이를 격되하였다. 그러나 貨車 2輛과 함께 탄약이 모두 폭발하여 실로 분함을 금치 못하였다.

附表 #5

共匪月別出沒統計表

(非常警備總司令部 G-2)

(1. 1~12. 3)

月別	區分	出沒回數	出沒延人員數	交戰回數	官公署燒失	自動車被襲
1月		847	17,876	543		
2		650	10,850	421		
3		799	15,156	519		
4		704	14,041	394		
5		613	12,989	258		
6		604	13,444	294		
7		545	9,581	263		
8		702	11,333	288		
9		618	7,922	275		
10		503	6,055	209		
11		510	5,913	185		
12		413	5,220	178		
總計		7,508回	130,380名	3,827回	24棟	75回

※ 1. 期間中, 共匪는 軍警合作戰으로 分散潛跡하여, 小組集團으로 自動車襲擊과 大單位部隊로서 都市奇襲과 列車襲擊 및 官公署襲擊을 繼續하여 後方治安을 攪亂하는데 注力하였다.

附表 #6

月別 綜合戰果 및 損失一覽表

(非常警備總司令部 G-2)

(1. 1~12. 31)

月別	區分	交戰回數	戰 果						損 失											
			共 匪			處 獲			警 察				武 器				青 年 團			
			射 殺	捕 虜	歸 順	小 銃	重 火 器	手 榴 彈	戰 死	戰 傷	拉 致	失 踪	小 銃	重 火 器	機 槍	戰 傷	拉 致	失 踪		
1		543	1,328	673	419	773	33	161	34	21	—	9	14	3	11	8	—	—		
2		421	1,286	841	184	595	16	256	28	39	—	3	39	—	9	4	—	—		
3		519	1,652	269	163	1,277	69	224	35	57	—	2	11	—	22	—	—	—		
4		394	1,022	178	84	641	22	196	47	45	7	2	25	—	12	16	—	—		
5		258	420	63	18	266	16	45	64	75	3	2	56	2	11	5	2	—		
6		294	414	56	20	250	12	19	71	56	1	7	46	1	24	14	—	3		
7		263	396	58	21	23	2	—	41	38	—	5	34	—	3	2	3	—		
8		288	252	61	47	186	4	29	36	39	1	9	29	—	11	8	7	10		
9		275	361	79	32	265	5	59	45	24	4	2	42	—	12	7	—	2		
10		209	202	51	44	144	4	41	27	27	1	—	24	—	4	5	7	—		
11		185	131	58	34	142	2	40	23	24	3	2	33	—	12	2	—	—		
12		178	184	62	83	153	5	97	22	29	2	—	35	—	23	4	—	—		
總計		3,827	7,647	2,449	1,149	4,715	190	1,167	473	474	22	43	388	6	154	75	19	15		

※ 共匪들은 軍人을 假裝하여 警察과 民間人을 奇襲한것이 殆半임.

附表 #7

各市·道別綜合戰果 및 損失一覽表

(非常警備總司令部 G-2)

(1. 1~12. 31)

區分 市道別	交戰 回数	戰 果						損 失											
		匪			獲			警 察				武 器				青 年 團			
		射 殺	捕 虜	歸 順	小 銃	重 火 器	手 榴 彈	戰 死	戰 傷	拉 致	失 踪	小 銃	重 火 器	戰 死	戰 傷	拉 致	失 踪		
서울	—	—	1	—	—	1	—	—	—	—	—	—	—	—	—	—	—		
京畿	31	23	36	—	90	1	12	1	5	—	—	—	—	—	—	—	—		
江原	197	233	94	19	605	18	135	2	12	—	—	1	—	31	7	7	—		
忠北	78	77	28	6	71	1	39	6	7	—	—	1	—	1	3	—	—		
忠南	37	39	48	9	62	2	7	1	—	—	—	12	—	1	—	—	—		
慶北	294	388	62	12	537	6	64	15	32	2	7	11	2	4	15	—	—		
慶南	602	1,132	206	192	684	19	97	40	40	6	7	61	2	39	21	—	3		
全北	1,212	2,188	875	512	1,454	73	483	160	128	17	11	125	—	22	11	9	10		
全南	1,160	2,845	584	386	1,163	42	280	156	163	8	15	102	—	23	11	3	2		
鐵道	8	2	1	—	—	—	—	9	6	—	—	25	—	2	—	—	—		
智戰司	130	527	47	4	190	20	60	30	21	—	—	13	—	3	1	—	—		
太戰司	44	155	38	—	60	1	10	21	31	4	3	12	1	—	—	—	—		
濟州	34	28	6	9	13	—	—	26	29	5	—	25	1	9	3	—	—		
總計	3,827	7,637	2,026	1,149	4,929	183	1,188	467	474	42	43	388	6	135	72	19	15		

附表 #8

民間人損失統計

(非常警備總司令部 G-2)

(1. 1~12. 31)

區分 市道別	被 殺	負 傷	拉 致	民 家	白 米	雜 穀	農 牛	其 他	衣 類	備 考
서울	—	—	—	—	—	—	—	—	—	
京畿	2	7	—	—	—	—	—	—	—	
江原	1	3	3	—	2	17	17	—	137	
忠北	2	4	9	—	16	33	13	46	130	
忠南	—	—	—	—	—	—	—	—	—	
慶北	19	14	13	3	15	13	28	15	128	
慶南	60	65	151	53	112	45	85	92	1,545	
全北	58	27	105	13	129	44	108	103	793	
全南	112	107	107	5	189	77	234	191	2,169	
濟州	10	15	37	—	61	27	72	12	199	
鐵道	2	1	—	—	—	—	—	—	8	
太戰司	—	3	—	—	—	—	—	—	—	
智戰司	3	6	4	—	3	—	—	—	—	
總計	269	252	429	74	527	256	557	459	5,109	

※ 1. 共匪들은 補給鬭爭을 民間人에 集中하였다. 그리고 兵力充當을 爲해 尙壯年을 拉致해 가고 民族陣營人士와 軍警家族 및 基督教徒를 학살하였다.

§ 研 究

(1) 共匪의 指揮系統

在山 共匪들은 李鉉相의 絶對的인 統率下에

- ① 所謂 政治機構인 各 市, 道, 郡, 面, 人民委員會는 各級 單位 委員長이 指揮하고,
- ② 이론바, 빨치산部隊는 兵團, 軍團, 師團, 聯隊 등으로 편성하여 各級 單位 指揮共匪의 責任下에 武力鬪爭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 ③ 이들은 모두 李鉉相의 命令과 指示에 의하여 움직였다.

(2) 共匪의 攻擊類型

共匪들의 攻擊方法은 多樣하여 十六字遊擊戰法으로 我軍에 對抗하는데 특히

- ① 軍과 警察의 作戰上不利點을 最大限으로 逆利用하는 方法을 活用하고
- ② 大部隊로 重要都市를 奇襲하며
- ③ 警察官署의 襲擊에는 반드시 夜襲을 감행하는가 하면
- ④ 列車奇襲으로 兵器 및 彈藥을 補充하고
- ⑤ 主補給路의 軍官用車와 民間貨物自動車를 攻擊하되 반드시 軍人을 假裝하고 있다.
- ⑥ 또한 軍營의 作戰地域에서는 반드시 軍의 將校服으로 假裝하여 作戰地域內的 「軍部隊派遣將校와 그 所屬軍人이라」고 是非를 하다가 突然 襲擊하고
- ⑦ 共匪의 主機動路는 山岳稜線을 利用하여 我軍의 行動을 山上에서 觀測하며
- ⑧ 敵의 夜間攻擊에는 반드시 動物과 鳥類의 울음소리로 相互間 或은 部落에 居住하고 있는 共產系列分子와 連絡을 爲한 通信法을 使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⑨ 我軍이 攻擊할 때에는 各個分散潛跡하여 我軍과의 交戰을 回避하되, 반드시 그 戰勢가 不利할때 局限하고
- ⑩ 兵力을 充當키 위하여 民間人을 拉致하며
共匪가 攻擊을 시도하기 前에 歸順을 假裝한 投降으로 我軍을 混亂케 한 다음에 반드시 攻擊한다. 그리고
- ⑪ 共匪의 醫藥品은 반드시 民線을 通하거나 在山共匪의 家族과 血緣者를 利用하며
共匪들은 軍警家族과 右翼陣營人士 및 基督教徒들을 虐殺함으로써 心理戰上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노리고 있다.

附 錄

1. 作命・作指・訓令
2. 年 表
3. 戰歿者名單
4. 索 引

1. 作命・作指・訓令

부록 제 1 호

防空訓令 제 1 호

1952. 1. 15

對空防禦計劃

1. 敵의 航空勢力은 UN軍과 我軍 地上部隊 및 諸般 軍事施設에 對하여 相當한 損害를 加할수 있는 侵透能力을 保有하고 있음에 비추어 軍은 積極的 및 消極的 防空方法에 對한 最少限度의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다.
2. 此計劃은 陸軍本部 全역하부대(但 美八軍 直接指揮下에 들어간 예하부대는 警報 傳達系統에서 除外한다)에서 適用될 全般的 對空防禦計劃이다.
3. 對空防禦計劃 樹立에 있어서 軍團後方境界線以南 地域에 대하여 下記와 如한 地區制度를 設定하고 該地區戰團司令官 및 各訓練所長, 教育總監, 陸軍本部各分室長으로 하여금 自己 責任地區에 대하여 各各 自體防空計劃을 樹立하게 한다.
 - 가. 大邱地區(大邱市 및 慶尙北道中 太白山戰團地區와 白戰團地區를 除外한 地域에 駐屯部隊 및 機關)은 慶北지구 衛戍사령관이 責任진다.
 - 나. 釜山地區(釜山市 및 慶尙南道中 白戰團地區를 除外한 地域에 駐屯部隊 및 機關)은 慶南지구 衛戍사령관이 責任진다.
 - 다. 서울地區(서울市內에 駐屯全部隊와 機關)은 서울지구 衛戍사령관이 責任진다.
 - 라. 太白山地區(太白山지구 衛戍사령부 作戰限界內에 있는 全部隊 및 機關)은 太白山지구 衛戍사령관이 責任진다.
 - 마. 治安局 管轄地區(太白山전투지구 및 제2訓練所, 教育地區를 除外한 京畿道, 忠淸南北道 全域)와 江原道 一部를 非常警備總司令官이 責任진다. 但 非常警備總司令官은 其 地域內 駐屯部隊에 대하여 警報傳達 및 警報傳達를 하기 爲한 計劃에 關하여서만 責任진다.
 - 바. 論山地區(忠淸南道中 제2훈련소 教育地區 및 其隣接 附近의 部隊 및 機關)은 제2훈련소장이 責任진다.
 - 사. 光州地區(光州市 全域에 駐屯하고 있는 各 教育機關 및 支援部隊)은 教育總監이 責任진다.
 - 아. 白戰團地區(教育總監部 責任地區를 除外한 白戰團地區司令官 作戰限界內에 있는 全部隊 및 機關)은 白戰團地區司令官이 責任진다.
 - 자. 濟州地區(濟州道內 駐屯 全部隊)은 제1훈련소장이 責任진다.
4. 軍團後方 境界線 以北에 位置한 全역하부대는 警報傳達에 限하여서만 美軍團 警報傳達系統에 包含되며 各級 指揮官은 下記事項을 留意하여야 한다.
 - 가. 警報傳達를 確認하기 爲한 隣接部隊와의 協助
 - 나. 美軍團長이 指定한 既存 防空計劃에 應하여야 한다.
 - 다. 技術部門部隊와 同一地區에 駐屯하고 있는 部隊는 本訓令에 規定된 計劃과 一致되는 限 技術部隊 防空計劃에 協助하여야 한다.
5. 警報種類
 - 가. 黃色警報: 國籍不明의 航空機가 其 地域에 나타나 空襲이 可能함을 意味한다. 此 警報는 各地區司令官과 海軍本部 및 民防空本部에만 下達하고 一般의 警報를 發하지 않는다. 但 燈火管制은 實施하여야 한다.
 - 나. 赤色警報: 敵機가 附近에 나타나 空襲이 危急함을 意味한다. 適切한 警報를 發하여 全部隊에

警報한다. 赤色警報는 他地區에서 黃色경보가 전혀 發송되지 않아도 一地區, 或은 其 以上 地區에 대하여서만 發송할 수도 있다. 警報는 各地區司令官이 規定한 適當한 警報信號를 짧게 3回 繼續 吹鳴하며 모든 積極的 및 消極的 對空防禦 態勢를 迅速히 取한다.

나. 白色警報 : 完全解除를 意味한다.

航空機가 我軍機로 認定되거나 或은 敵機가 其 附近에 있지 않을 때에 發송된다. 警報信號 “사이랭”을 길게 한번 吹鳴하여 赤色警報 狀態로부터 소員을 解除시킨다.

6. 警報傳達 責任

가. 모든 警報傳達方法은 優先 電報로서 取扱되어야 한다. 陸本 防空訓令 제3호 참조

나. 黃色 或은 赤色警報時 :

(1) 駐韓軍軍고문단 作戰課로부터 警報를 받은 陸軍本部 作戰局 作戰課 日直將校는 作戰局 防空課에 傳達한다.

(2) 作戰局 防空課는 下記와 如히 警報를 傳達한다.

(가) 陸軍本部 本部司令室

(나) 軍需局(군수국은 各技術監에게 傳達)

(다) 海軍本部

(타) 民防空本部

(마) 非常警備司令部(京畿道, 忠清南北道, 各警察局長에게 傳達한다).

(바) 陸軍本部 서울分室

(사) 제2訓練所

(아) 教育총감부

(자) 白堊關司令部

(차) 野戰訓練所本部

(카) 제1훈련소

(3)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및 陸軍本部釜山分室은 下記와 如히 直接 警報를 받는다.

(가) 太白山지구전투사령부는 駐韓美軍軍고문단으로부터 直接 警報를 받는다.

(나) 陸軍本部 釜山分室은 KMAG 釜山分室로부터 直接 警報를 받는다.

(5) 以上 各地區司令官은 警報를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서 自己責任 地區內 全部隊 및 機關에 各 下達할 責任이 있다.

(5) 警報傳達에 있어서는 必히 下記 「例」에 의거하여야 하며 無電은 2回 反復 送信하여야 한다.

“例” 赤 色	21.10	大邱 DQ6369	少數
警報種類	時間	影響이치는地區	機數

(6) 白色警報前에 下達하였던 모든 部隊에 傳達하여 警戒상태로부터 解除시킨다.

6. 奇襲의 境遇

가. 敵機로부터 奇襲을 받았을 때는 各級指揮官은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서 예하부대 및 隣接部隊에 대하여 경보를 傳達하여야 한다(例 (1) 참조).

나. 隸下 各部隊에서 敵機로부터 奇襲을 받았을 때는 軍團 境界線以南은 各地區司令官 및 軍團 境界線 以北에 位置한 各예하부대는 下記事項을 包含한 報告를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서 陸軍本部에 報告하여야 한다(例 (2) 참조)

“例” (1)

隸下部隊 및 隣接部隊에 傳達할 境遇

赤色, 09.30 國軍 6사단지구, 少數

“例” (2)

陸軍本部에 報告한 境遇

09.30에 MIG-15로 믿어지는 敵機 4臺가 當師團司令部(CT 91.45)를 爆擊하고 機銃掃射한, 敵機는 北西方으로 사라짐.

8. 各地區司令官 및 各級 指揮官은 防空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下記와 如한 部隊와 協助하여야 한다.
가. 自己部隊와 同一地區內에 駐屯하고 있으나 自己 指揮下에 屬하지 않은 他部隊 및 美軍部隊(報
警傳達 系統을 包含함)

나. 隣接部隊

다. 自己地區內에 있는 民防空機關(民防空機關에서 使用하는 警報信號를 包含함)

9. 訓練警報

가. 定期防空練習 以外에 全國的으로 一齊히 防禦警報 通信網試驗 및 警報 “사이렌” 吹鳴練習을 本
訓令에 規定된 正常的警報 傳達系統을 使用하여 練習을 實施할 수 있다. 但 此 演習은 別途計劃
을 指示한다.

나. 各地區別로 空襲警報 演習을 實施할 境遇에는 各地區司令官은 演習實施 一週前에 陸軍本部에
報告하여야 한다(此는 駐韓 美軍사고문단 經由, 美8軍司令部에 通告하기 爲한 것임).

다. 各地區司令官은 各項의 演習實施後 늦어도 5일 以內에 必히 下記事項을 包含한 演習結果報告書
를 作成하여 陸軍本部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空襲警報를 받은 時間과 內容
- (2) 自己責任地區內 全部隊에 下達한 警報
- (3) 警報傳達上 當面한 隘路(困難點)
- (4) 警報를 最後部隊가 받은 時間
- (5) 全혀 警報連絡을 받지 못한 部隊
- (6) 警報傳達 通信網 및 警報信號에 있어서 改善을 要하는 建議事項

10. 對空防禦作戰

가. 積極的 方法

- (1) 我軍이나 我軍事施設에 대하여 對地攻擊을 加하면 其 航空機가 友軍機로 認定할 수 없을 때
地上部隊는 射擊을 하여도 無妨하다.
- (2) 敵機로 認定되었다 할지라도 我軍機에 依하여 攻擊을 받거나 追擊을 받고 있는 敵機에 대하
여서는 地上部隊는 射擊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消極的 方法

- (1) 消極的 方法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陸軍本部 本部司令 및 이하 各부대장은 下記事項에 대한 責
任을 진다.
 - (가) 燈火管制訓練
 - (나) 車輛, 人員, 軍事施設 및 補給物資의 疎開
 - (다) 適切한 偽裝
 - (라) 有蓋防空壕와 個人散兵壕 및 臥伏壕의 構築
 - (리) 適切한 消防機材, 整備
 - (바) 內部警戒의 徹底
 - (사) 各部隊의 隊內 警報傳達系統의 確立

11. 隸下各部隊長은 部隊 全將兵에게 下記와 如한 空襲警報 電文에 中繼 및 受信을 包含한 모든 對空
防禦 方法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萬全을 期하도록 訓練하여야 한다.

가. 警報狀況

나. 影響이 미치는 地區

다. 時間

라. 機數(5臺²或은 5臺 以下는 少數, 6臺 以上은 多數)

12. 各地區司令官은(野戰訓練所도 包含) 自己責任地區에 대하여 下記 事項을 包含한 消極的 防空計劃을 樹立함과 同時에 計劃表 一部를 1月末日限 陸軍本部에 必着하도록 提出하라.

가. 自己 地區內에서 使用될 警報信號 規定(但, 既存 警報, 信號規定이 適合하지 않다고 認定될 때는 民防空 當局者 및 地區內 駐屯 美軍部隊의 同意를 얻어 地區司令官 任意로 改正하여 計劃을 樹立되어도 無妨하다).

나. 警報傳達系統 地區內 全部隊 및 機關(可及的 駐屯地區內 重要 民間機關도 包含)에 傳達方法 및 系統(有無線 包含)

13. 제12項의 計劃樹立上에 있어 各地區司令官은 自己地區內 駐屯 美軍 既存 防空計劃(警報信號를 包含함)과 一致시켜야 한다.

14. 陸本 防空訓練 제8號(1951.5.17부) 및 제9호(1951.9.28부) 空襲에 대한 防禦中 本訓練과 相違되는 모든 條項과 陸本 作戰甲發 제104호 對空 防禦에 關한 規定(1951.12.21부)은 爾後 此를 適用하지 않는다.

15. 駐韓 美軍사고문단 自體의 空報傳達系統表를 附錄 제3호로 參考 下達한다.

부록 제2호

防空訓令 제1호 修正 1

1952. 3. 6

對空防禦計劃

I. 防空訓令 제1호 對空防禦計劃中 다음 事項을 修正한다.

가. 訓令 제3條 가, 나, 다項中 陸軍本部 本部司令을 慶北地區衛戍司令官으로, 陸軍本部 釜山分室長을 慶南地區衛戍司令官으로, 陸軍本部 서울分室長을 서울지구위수사령관으로 各各 修正한다.

나. 訓令 제3條 마項中 治安局 管轄地區에 太白山戰鬪地區를 除外한 軍團境界線 以南의 江原道一部를 包含시킨다.

다. 訓令 제4條中(野戰訓練所는 除外)欄을 削除한다.

라. 訓令 제6條 나項(2)의 (마), (차)條項은 이를 削除한다.

마. 訓令 제6條 나項(3) 및 (나)의 陸軍本部 釜山分室을 慶南지구위수사령부로 各各 修正한다.

바. 訓令 제6條(5)의 “例” 影響이 미치는 地區를 空襲을 받은 地區로 修正한다.

사. 제12條에(野戰訓練所도 包含)은 이를 削除한다.

부록 제3호

陸本 作戰指示 제151호

1952. 4. 27. 12.00

一. 治安局長

가. 陸本 作戰指示 제116호(1951. 12.12 24.00부) 2項 “다”를 참조하라.

나. 1952. 4. 29부로 제2훈련소 馬山里(CQ 31.98) 부근을 警備中인 警察 1個中隊를 現 警備任務로 부터 解除하여 原隊復歸시키라.

부록 제 4 호

陸本 作戰指示 제 152 호

1952. 5. 7. 12. 00

一. 제 3보충대대장

가. 1952. 5. 20. 00. 01부로 제 3보충대대는 濟州島로부터 下記 各地點에 移動하라.

(1) 本部 및 本部中隊 : 大邱(DQ63.69)

(2) 醫務隊 : 大邱(DQ63.69)

(3) 제 1중대 : 現在 제 1보충연대(예비대)가 駐屯하고 있는 群山(BQ63.69)으로

(4) 제 2중대 : 現在 제 2보충연대(예비대)가 駐屯하고 있는 麗水(CP85.44)로

(5) 제 3중대 : 現在 제 3보충연대(예비대)가 駐屯하고 있는 浦項(EQ33.87)으로

나. 本部 및 本部中隊와 醫務隊는 人員 및 裝備없이 移動할 것이며 陸本으로부터 命令 있을 때까지 兵力 및 裝備에 있어서 全無狀態를 維持하라.

제 1, 2, 3중대는 裝備없이 各 將校 1名 士兵 1名식의 記錄兵으로서 移動하라.

부록 제 5 호

陸本 作戰指示 제 153 호

1952. 5. 8. 12. 00

一. 제 2포병단장

가. 1952. 5. 18부로 제 2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 의무대, 제 53, 55포병대대(예속)을 鐵道輸送으로서 光州(CP10.91)부근 現位置로부터 서울(CS20.55)에 移動하라 서울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に 砲兵司令官의 直接 監督下에 韓國軍編制表 20의 變更 제 1호에 의거하여 제 2포병단 本部 및 本部砲隊와 隸屬部隊의 장비를 갖추어 其 結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다. 編成完了後 別命 有할時는 即時 제 2포병단 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를 自隊 輸送으로 後達하는 目的地에 移動할 수 있는 準備를 하라.

라. 最迅速한 方法으로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砲兵司令官

가. 제 2포병단 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가 서울에 到着하는 即時로 裝備編成 實施를 監督하며 其 進陟狀況을 每日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三. 後方支援

가. 제 2포병단 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는 서울에 到着과 同時に 下記部隊 및 補給所에서 編制에 의한 裝備의 供給 및 支援을 받는다.

(1) 工兵 : 제 2 및 4種 補給品—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를 利用한다.

(2) 醫務 : 제 2 및 4種 補給品—서울醫務倉庫中隊 제 1소대, 醫務 및 後送—서울 제 36육군병원

(3) 兵器 : 제 2 및 4種 補給品 및 裝備—서울 제 12兵器輕整備中隊

(4) 兵站 : 제 1, 2, 3 및 4種 補給品—서울 제 40兵站補給所

(5) 通信 : 제 2 및 4種 補給品—제 5通信補給所(서울), 제 81通信倉庫中隊 派遣隊(서울), 제 91通信修理中隊 通信整備 派遣隊(서울)

부록 제 6 호

陸本 作戰指示 제 154호

1952. 5. 10. 14.00

一. 제 1102 野戰工兵團長

가. 1952. 5. 15. 00.01부로 下記部隊을 陸本直轄로부터 解除하여 제 1102 野戰工兵團長에게 配屬한다.

- (1) 제 104 野戰工兵大隊
- (2) 제 504 工兵舟橋中隊
- (3) 제 1503 工兵담추력中隊

二. 제 1103 野戰工兵團長

가. 1952. 5. 15. 00.01부로 제 603 工兵輕裝備中隊를 陸本 直轄로부터 解除하여 제 1103 野戰工兵團長에게 配屬한다.

三. 제 1801 技術工兵團長

가. 1952. 5. 15. 00.01부로 下記部隊을 陸本直轄로부터 解除하여 제 1801 技術工兵團長에게 配屬한다.

- (1) 제 801 工兵整備中隊
- (2) 제 1301 工兵補給中隊

부록 제 7 호

陸本 作戰指示 제 155호

1952. 5. 13. 12.00

一. 제 101 野戰工兵大隊長

가. 1952. 5. 16부로 제 101 野戰工兵大隊를 鐵道 및 水上輸送에 依하여 大邱(DQ6369)附近 現位置로부터 江陵(DS9177)에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에 제 101 野戰工兵大隊는 陸本 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 1102 野戰工兵團長에게 配屬한다.

나. 鐵道 및 水上輸送申請書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軍需局)에 提出하라.

다. 모든 教育資材 및 設備를 大邱 現地에서 제 106 野戰工兵大隊長에게 引繼하라.

二. 제 1102 野戰工兵團長

가. 제 101 野戰工兵大隊가 1952. 5. 18일에

江陵에 到着과 同時 該大隊를 統合指揮하라. 作戰指揮權 引受 時間을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나. 1952. 5. 18부로 제 106 野戰工兵大隊를 水上 및 鐵道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江陵으로부터 大邱에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에 제 106 野戰工兵대대는 제 1102 野戰工兵團長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陸本直轄로 한다.

다. 水上 및 鐵道輸送申請書를 迅速히 陸本에 提出하라.

三. 제 106 野戰工兵大隊長

가. 大邱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 8 호

陸本 作戰指示 제 156호

1952. 5. 15. 12.00

一. 제 3사단장

가. 1952. 5. 21부로 제 105 重迫擊砲中隊(人員 및 裝備除外)를 現位置로부터 光州(CP11.91)에 移

動시키라.

나. 제105重迫擊砲中隊의 作戰指揮權은 1952. 5. 22. 00.01부로 제3사단으로부터 解除되어 陸本 直轄로 한다.

二. 제105重迫擊砲中隊長

가. 1952. 5. 22. 00.01부로 제105重迫擊砲中隊의 作戰指揮權은 제3사단으로부터 解除되어 陸本 直轄로 한다.

나. 1952. 5. 24부로 제105重迫擊砲中隊는 陸本 教育指示 제8호(1952. 5. 12부)에 依據하여 整備를 實施하라.

다. 1952. 6. 9부로 제105重迫擊砲中隊는 陸本 教育覺書 제133호(1952. 5. 15부)에 依據 教育總監部 直接 監督下에 訓練을 實施하라.

三. 제111重迫擊砲中隊長

가. 1952. 6. 4부로 제111重迫擊砲中隊(人員 및 裝備除外)는 現位置로부터 光州(cp1191)에 移動시키라.

나. 1952. 6. 7부로 제111重迫擊砲中隊는 陸本教育指示 제8호(1952. 05. 12부)에 依據하여 裝備를 實施하라.

다. 1952. 6. 23부로 제111重迫擊砲中隊는 陸本教育覺書 제133호에 依거하여 教育總監部 直接監督下에 訓練을 實施하라.

부록 제9호

陸本 作戰指示 제157호

1952. 5. 16. 12.00

一. 제1801技術工兵團長

가. 1952. 5. 19부로 제1001工兵基地隊 및 제1601工兵重工場中隊의 作戰指揮權을 陸本直轄로부터 解除하여 제1801技術工兵團에 配屬한다.

부록 제10호

陸本 作戰指示 제158호

1952. 5. 2. 13.00

一. 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

가. 1952. 5. 24부로 제10警備大隊를 鐵道 및 自隊 車輛을 利用하여 現位置로부터 慶山(DQ7764)에 移動시키라. 目的地到着과 同時附로 該大隊는 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으로부터 配屬 解除되어 陸本 直轄로 復歸한다.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軍需局)에 迅速히 提出하라.

二. 제10警備大隊長

가. 慶山(DQ 7764)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大隊는 慶尙南北道の 道境界線北方 陸本直轄地區에서 共匪掃蕩作戰을 遂行하라. 戰鬪地域線上的 雲門山(EQ 0141) 및 國師峰(EQ 2346)은 제10警備大隊에 包含된다.

나. 擔當地區內的 警察과 緊密한 協調下에 共匪의 兵力, 武器 및 裝備를 發見하여 射殺 鹵獲 또는 破壞하라.

다. 大隊長과 情報 및 作戰將校는 指示를 받기 爲하여 1952. 5. 22에 陸本 G-3에 出頭하라.

라. 後方支援

- (1) 工兵：제2種 및 제4種—釜山工兵基地廠
- (2) 醫務：제2種 및 제4種—大邱醫務隊派遣隊, 醫療 및 後送：大邱 제1陸軍病院
- (3) 兵器：제2種 및 제4種 整備—慶山 제20兵器重整備中隊
제5種—釜山海雲台彈藥基地廠(US)(請求는 兵器監室을 經由) 제5種 1基數를 携帶하여 移動하라.
- (4) 兵站：제1, 2, 3, 4種—大邱 제201兵站補給所, 제1種은 2日分을 携帶하여 移動하라.
- (5) 通信：제2種, 제4種—大邱 제81通信倉庫中隊 제1派遣隊
通信裝備—大邱 제91通信修理中隊派遣隊

三. 제11警備大隊長

- 가. 1952. 5. 24부로 大隊 戰鬪地區는 陸軍本部 直轄地區內的 慶尙南北道 道界線 南方으로 된다. 戰鬪地境線上의 華岳山(DQ 7338)은 제11警備大隊에 包含된다.
- 나. 擔當地區內的 警察과 緊密한 協調下에 共匪의 兵力 武器 및 裝備를 發見하여 射殺, 鹵獲 및 破壞하라.
- 다. 大隊長과 情報 및 作戰將校는 指示를 받기 위하여 1952. 5. 22에 陸軍本部 G-3에 出頭하라.

四. 治安局長

- 가. 1952. 5. 4부로 警察은 各擔當地區內에서 제10, 및 제11警備大隊와 最大限의 協助下에 陸軍本部 直轄地區內的 共匪의 兵力, 武器 및 裝備를 發見하여 射殺, 노획 或은 破壞하라.
- 五. 제10, 제11警備大隊는 警察과 緊密한 協助를 爲하여 何時를 不問하고 相互 密接한 連絡을 取하라.

부록 제11호

陸本 作戰指示 제159호 1952. 5. 20. 12.00

一. 西南地區戰鬪司令官

- 가. 1952. 6. 10부로 제9경비대대를 鐵道 및 自隊 車輛에 依하여 現位置로부터 제2訓練所(馬山里 CQ 3198)에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9警備大隊는 西戰司로부터 配屬解除되어 陸本直轄로 復歸한다. 先發隊(大隊長 및 作戰, 軍需將校 및 各中隊에서 士兵 2名式)는 1952. 6. 3까지 제2훈련소에 移動하여 訓練所長에게 報告케 하라.
- 나. 下記에 關한 將校 및 下士官으로서의 豫備教育을 받기 爲하여 1952. 6. 2까지 제2훈련소에 移動시키라.

- (1) 小銃射擊術：장교 4명, 하사관 4명.
- (2) 自動小銃射擊術：장교 2명, 하사관 2명.

- 다. 鐵道輸送 申請書를 迅速히 本陸(G-4)에 提出하라.
- 라. 제8警備大隊가 1952. 6. 10頃 南原(CQ 5318)에 到着과 同時에 該大隊를 統合指揮하라. 作戰 指揮權 引受期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二. 제9警備大隊長

- 가. 제2훈련소 到着과 同時부로 제9경비대대는 西戰司로부터 配屬解除되어 陸本直轄로 復歸한다. 目的地 附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 나. 此 指示 受領과 同時부로 人員 不足數(階級 및 職資包含)를 迅速히 陸本(G-1)에 報告하라.
- 다. 1952. 6. 11부로 제2훈련소 先任고문관 直接 監督下에 教育覺書 제120호(1952. 3. 21부)에 의거하여 제9경비대대의 再장비 및 再訓練을 開始하라.

三. 제8경비대대장

가. 1952. 6. 9부로 제8경비대대는 鐵道 및 自隊車輛에 依하여 제2훈련소로 부터 南原(CQ 5318)에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8경비대대는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西戰司에 配屬한다.

나. 철도수송 신청서를 迅速히 陸本(G-4)에 提出하라.

四. 後方支援 : 從前과 같다.

부록 제12호

陸本 作戰指示 제160호

1952. 5. 22. 15.00

一. 제2砲兵團長

가. 1952. 5. 27頃 裝備完了함과 同時에 제2砲兵團은 自隊車輛으로서 現位置로부터 四方巨里(CT 8329)에 移動하라. 目的地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장교 24명과 사병 107명으로 된 先發隊는 1952. 5. 23에 제2軍團長에게 出頭報告하라.

나. 제2砲兵團은 四方巨里(CT 8329)에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2군단장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13호

陸本 作戰指示 제161호

1952. 5. 24. 12.00

一. 憲兵司官

가. 1952. 5. 30부로 제2헌병대대, 예하 제8중대를 自隊車輛으로 現位置 江陵(DS 9178)으로부터 天津里(DT 6134)에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8중대는 제2헌병대대장으로부터 解除되어 제1軍團長에게 配屬된다.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제2헌병대대 예하 제7중대는 제8중대와 交代完了 即時로 제1軍團長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原隊復歸한다. 交代完了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제7중대를 제8중대와 交代即時로 自隊車輛으로 現位置 天津里로 부터 江陵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라. 協助를 爲한 直接 通信을 承認한다.

부록 제14호

陸本 作戰指示 제162호

1952. 5. 25 12.00

一. 西南地區戰鬪司令官

가. 1952. 5. 26부로 제207警察聯隊 제1대대를 自動車輸送便으로 現位置 德山里(CQ 9903) 부근으로부터 晉州(DP 16.95)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나. 제207聯隊 제1대대는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西南地區戰鬪司令官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治安局長에게 原隊復歸한다.

二. 治安局長

가. 1952. [5. 27부로 제207경찰연대 제1대대를 鐵道수송便으로 晉州로부터 瓮山(EP 0580)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822 附 錄

나. 必要한 鐵道輸送 申請書를 迅速히 陸本(G-4)에 提出하라.

부록 제15호

陸本 作戰指示 제163호 1952. 5. 26. 10.00

一. 제36聯隊長

가. 1952. 5. 27. 00.01부로 제36연대의 作戰指揮權은 現位置에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1軍團長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16호

陸本 作戰指示 제164호 1952. 5. 30. 12.00

一. 제2師團長

가. 1952. 6. 1. 00.01부로 제2사단은 現位置에서 陸本直轄로부터 美第9軍團長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17호

陸本 作戰指示 제165호 1952. 6. 8.12.00

一. 제1102野戰工兵團長

가. 1952. 6. 7. 18.30 부로 제104야전공병대대의 作戰指揮權을 現地에서 제1102야전공병단장으로 부터 配屬解除하여 제2兵站管區司令官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18호

陸本 作戰指示 제166호 1952. 6. 9.17.00

一. 제3경비대대장

가. 1952. 6. 23부로 제3경비대대는 鐵道 및 自隊車輛을 利用하여 現位置로부터 安東(DR7446)으로 移動하라 目的地到着과 同時부로 제3경비대대는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에 配屬한다.

나. 鐵道輸送申請書를 迅速히 陸本(G-4)에 提出하라.

二. 太白山地區 戰鬪司令官

가. 1952. 6. 24부로 제6경비대대를 鐵道 및 自隊車輛을 利用하여 現位置로부터 제2훈련소(CQ 3198)로 移動시키라. 目的地到着과 同時부로 제6警備大隊은 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陸本直轄로 復歸한다. 1952. 6. 17까지 대대장, 장전장교, 군수장교 및 각 중대에서 士兵 2명式으로 構成된 先發隊를 제2훈련소에 移動시켜 訓練소장에게 報告케 하라.

나. 指示된 科目의 教官 및 助教로서 豫備訓練을 받기 爲하여 1952. 6. 17까지 제2훈련소에 移動시키라.

(1) 小銃射擊術 : 장교 4명 하사관 4명

(2) BAR射擊術 : 장교 2명 하사관 2명

다. 鐵道輸送申請書를 迅速히 陸本(G-4)에 提出하라.

- 二. 1952. 6. 24頃 제3경비대대가 安東에 到着即時로 作戰指揮權을 引受하라 作戰指揮權 引受時間을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 三. 제6경비대대장
- 가. 제2훈련소 到着과 同時附로 제6경비대대는 太白山地區戰團司令官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陸本 直轄로 復歸한다.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 나. 作戰指示 接受 即時로 階級과 職責을 列記한 人員不足數를 迅速히 陸軍本部(G-1)에 報告하라. 1952. 6. 25 부로 제6경비대대는 제2훈련소 高문관 直接 감독하에 陸軍本部 教育覺醒 제120號 (1952. 3. 21부)에 依據하여 再裝備 및 再訓練을 開始하라.
- 四. 後方支援은 此後指示에 依據하라.

부록 제19호

陸本 作戰指示 제167호

1952. 6. 10. 12. 00

一. 제3砲兵團長

- 가. 1952. 6. 15부로 제3포병단(本部 및 本部砲隊, 醫務隊 제56, 57포병대대 隸屬)은 鐵道輸送으로서 光州(CP10. 91) 부근 現位置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하라. 서울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 나. 서울 到着과 同時에 砲兵司令官의 直接 監督下에 國軍編制表 20의 變更 제1호에 의거하여 제3 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의 裝備를 實施하여 其 結果를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 다. 編成完了 後 別名 有할時는 即時 제3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를 自隊輸送으로 後送 하는 目的地에 移動할수 있는 準備를 하라.
- 라. 最迅速한 方法으로 必要한 鐵道輸送을 陸本(G-4)에 申請하라.

二. 砲兵司令官

- 가. 제3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서울에 到着하는 即時로 裝備編成 實施를 監督하며 其 進陟狀況을 每日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三. 後方支援

- 가. 제3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는 서울에 到着과 同時에 下記部隊 및 補給所에서 編制에 依한 장비의 供給 및 支援을 받으라.
- (1) 工兵 : 제2 및 4種補給品—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便을 利用한다.
 - (2) 醫務 : 제2 및 4種補給品—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醫務 및 後送—서울제36陸軍病院
 - (3) 兵器 : 제2 및 4種補給品 및 整備—서울 제12兵器整備中隊
 - (4) 兵站 : 제1, 2, 3, 4種補給品—서울제401兵站補給所
 - (5) 通信 : 제2 및 4種補給品—제5通信補給所(서울) 제81通信倉庫中隊派遣隊(서울) 제91通信修理中隊通信정비과전대(서울)

부록 제20호

陸本 作戰指示 제168호

1952. 6. 13. 08. 00

- 一. 1952. 6. 23. 00. 01 부로 제37聯隊는 現位置에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美9軍團長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21호

陸本 作戰指示 제169호

1952. 6. 14. 13. 00

一. 제37聯隊長

가. 陸本作戰指示 제168호(1952. 6. 13부)를 取消한다.

나. 1952. 6. 16. 00. 01부로 제37聯隊(輕裝備)의 作戰指揮權을 現位置에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하여 美제9軍團長에게 配屬한다.

부록 제22호

陸本 作戰指示 제170호

1952. 6. 19. 08. 00

一. 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 제3, 및 제6警備大隊長

가. 1952. 6. 19. 00. 01 부부 陸本作戰指示 제166호(1952. 6. 9부) 中 제1항 “가” “나” 및 제2항 “다”를 取消한다.

나. 제3警備大隊는 別命有할 時까지 現位置에 殘留하라.

다. 제6경비대대는 陸本作戰指示 제166호(1952. 6. 9부)에 依거하여 제2훈련소로 移動하라.

부록 제23호

防空訓令 제2호

1952. 6. 15

軍防空態勢強化

1. 敵의 航空勢力이 增強되어 次期攻勢에 있어서는 大規模의 空襲이 있을 것으로 豫測되며 軍은 加一層 防空態勢를 強化하기 爲하여 事전에 準備編成하여야 할 防空機構, 實施할 防空訓練 및 燈火管制등을 다음과 같이 規定한다.

가. 이는 陸本 및 陸本 管轄下에 있는 全部隊에 適用된다.

나. 防空態勢 強化를 爲한 事前準備다 하던

(1) 防空壕는 構築possible한 限 有蓋壕로서 全員을 收容할 수 있어야함

(2) 重要施設 物資의 偽裝, 分散, 疎開, 地下埋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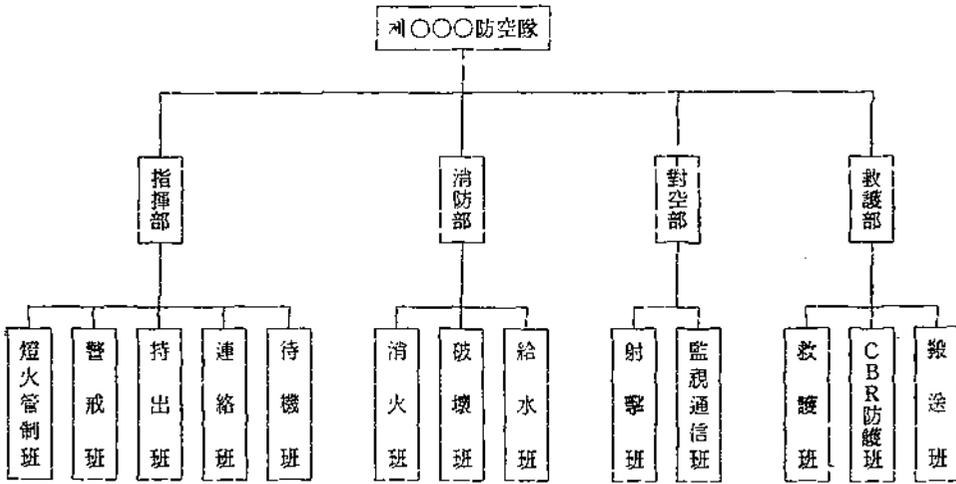
(3) 防空에 所要되는 모든 資材의 備置

(4) 救護所의 設定

(5) 防空一般常識의 啓蒙(警報의 分別, 彼我機의 識別, 防空要領, 其他)

다. 防空隊 機構의 編成

(1) 全部隊는 下記와 如한 防空隊機構를 가진다.



(2) 編成要領

- (가) 各單位 部隊別로 編成한다.
- (나) 各單位隊長이 防空隊長을 兼한다.
- (다) 所要되는 裝備 其他 器具一切를 各單位部隊 自體에서 準備한다.

(3) 任 務

- (가) 防空隊長: 對空防禦를 爲한 事前準備와 訓練 및 啓蒙을 담당한다.
- (나) 防空장교 (陸本 作教 甲發 제21호 1951.2.19. 부로 任命된)는 防空에 對한 모든 計劃을 樹立 推進한다.

(다) 指揮部

- (ㄱ) 燈火管制班: 別表 燈火管制基準表에 의한 등화관계실시
- (ㄴ) 警戒班: 警報發令間에 있어서의 物品을 包含한 모든 監視 및 交通整理
- (ㄷ) 持出班: 非常持出品의 運搬 및 監視
- (ㄹ) 連絡班: 隣接과 對外를 包含한 連絡
- (ㅁ) 待機班: 支援準備를 하고서 待機한다.

(라) 消防部

- (ㄱ) 消防班: 消火
- (ㄴ) 破壞班: 延燒 防火를 爲한 破壞
- (ㄷ) 給水班: 消化에 支障이 없도록 防火用水, 砂의 補給

(마) 對空部

- (ㄱ) 監視通信班: 對空自體 監視에 임하여 必要한 事項을 指揮部에 連絡한다.
- (ㄴ) 射擊班: 對空射擊

(바) 救護部

- (ㄱ) 救護班: 負傷者의 救助
- (ㄴ) C.B.R防護班: C.B.R攻擊에 對한 防護
- (ㄷ) 搬送班: 負傷者를 救護班에 運搬 또는 安全地帶로 移送

- (4) 陸本 作教 甲發제21호(1951.2.19.부)는 無効로 한다.

라. 防空訓練

- (1) 軍團地境線 後方에 駐屯하는 部隊는 該地區 防空司令官 計劃下에 每月 2日間(定期防空日) 一

日에 二回程度로서 防空訓練을 實施함을 要한다.

- (2) 一線部隊는 指揮官이 適時에 部隊를 訓練한다.
- (3) 防空訓練을 計劃時는 每回 訓練 主眼點을 定하고 各種 狀況을 附與함을 要한다.
- (4) 防空訓練에는 下記 事項을 包含한다.

- (가) 警報傳達
- (나) 對空 監視 通信
- (다) 待避 및 疎開
- (라) 對空射擊
- (마) C. B. R 방어
- (바) 防火, 消防
- (사) 救護
- (아) 燈火管制
- (자) 原狀復歸

- (5) 各部隊는 下記內容과 같은 樣式의 防空訓練 記錄을 備置함을 要한다.
記載內容

○ ○ ○ 防 空 隊						
演習實施日	實 施 時 間		演習主眼點	警報傳達에 要한 時間	配置完了	講 評
	自	至				
(例) 1952. 7. 1	05. 40	06. 10	1. 待避 2. 消火	5分	3分	○○中隊 給水班活動 不良
(例) 1952. 7. 1	21. 00	21. 30	1. 燈火管制 2. 차량소계	4分	4分	○○中隊 대피동작이 완 만

※ 警報 傳達에 要한 時間의 算出은 自體는 勿論이거니와 예하와 인접도 包含한다.

마. 燈火管制規則

- (1) 燈火管制의 實施에 있어서 빛의 隱匿은 本規則에 定하는 바에 의하여 實施한다(大統領令 제 636호 1952. 5. 3부 燈火管制 規則에 準함)
- (2) 燈火管制은 準備管制, 警戒管制, 空襲管制으로 區分한다.
 - (가) 準備管制은 平常時와 大略 같으나 燈火管制器具를 準備하고 迅速히 管制함이 困難한 燈火에 消燈裝置를 하여야 하며 또한 日常生活에 있어 緊要치 않은 燈火를 事前に 管制함을 말한다.
 - (나) 警戒管制은 赤色경보 解除가 發令되었을 때부터 赤色경보가 發令될 때까지 이를 實施한다.
 - (다) 空襲管制은 赤色경보 發令間에 이를 實施한다.
- (3) 燈火管制의 訓練을 實施할 때는 前項에 準하되 警報發令時에는 訓練인 趣旨를 明示하여야 한다.
- (4) 準備管制의 時期는 訓練 下達과 同時에 實施하며 警戒管制의 時期는 敵機 來襲의 緊迫 또는 頻繁할時 各地區防空司令官(治安局 管轄地區는 各道원수사령官)이 이를 定하여 實施케 하며 各地區防空司令官이 警戒管制을 實施케 할時는 即時 陸軍本部에 보고하여야 한다. 軍團地境線 前方 諸部隊의 警戒管制 實施는 該地의 指揮官이 決定하되 隣接 및 上級部隊와 協助하여야 한다.

- 다.
- (5) 警戒管制의 空襲管制의 빛의 隱匿은 日沒로부터 日出까지의 사이에 基準表에 의한 程度로 하여야 한다.
- (6) 消防, 人命救助등 特別히 緊急을 要할 때는 本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必要한 最少限度의 빛(燈火)을 使用할수 있다.
- (7) 基準表中 遮光이라 함은 빛의 漏出部(窓門) 其他에 遮光裝置를 하고 外部에 漏光되지 않게 함을 말한다.
- (가) 陰光이라 함은 光源에 대하여 燈火(카바)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나) 確認距離라 함은 燈火의 使用目的에 따라 其任務를 遂行할수 있는 最大限 距離를 말한다.
- (다) 透視距離라 함은 光線과 反射光등 一切의 빛을 認識할수 있는 最大限度의 距離를 말한다.
- (라) 減光은 光源의 燭數를 減함을 말한다.
- (마) 點光이라 함은 燈火가 要할시에만 使用하고 其他時는 消燈함을 말한다.

부록 제24호

陸本 作戰指示 제171호

1952. 6. 20 12.00

一. 西南地區전투司令部官

가. 1952. 6. 22부로 제1경비대대를 現位置로부터 自動車輸送便으로 제2훈련소(CQ 3198)로 移動시키라. 該大隊은 目的地到着과 同時로 西南地區戰團司令部官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제2훈련소장에게 配屬한다.

나. 輸送에 必要한 自動車申請書를 迅速히 陸本(G-4)에 提出하라.

二. 제1경비대대장

가. 제2훈련소에 到着과 同時부로 제3경비대대 제3 및 4중대를 제1경비대대에 배속한다. 배속시간을 迅速히 陸本에 보고하라.

三. 제2훈련소장

가. 1952. 6. 22부로 제1경비대대(제3경비대대, 제3 및 4중대 配屬)를 現位置로부터 鐵道輸送便으로 釜山(EQ0580)으로 移動시키라. 釜山에 到着과 同時부로 제1경비대대(增強)는 제2훈련소장으로부터 配屬解除되어 제2兵站管區司令部官에게 배속한다.

나. 1952. 6. 22부로 제3경비대대(제3 및 4중대 缺)를 現位置로부터 鐵道輸送便으로 群山(BQ 9385)으로 移動시키라. 群山에 到着과 同時부로 제3경비대대(缺)는 陸本直轄로부터 해제되어 제2兵站管區司令部官에게 배속한다. 該大隊은 群山의 美제14港灣大隊長에게 報告하라.

다. 輸送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迅速히 陸本에 提出하라.

四. 제3경비대대장

가. 제1경비대대가 제2훈련소에 到着과 同時부로 제3경비대대 제3 및 4중대를 제1경비대대장에게 배속한다.

나. 제3경비대대의 群山 到着時間을 迅速히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25호

陸本 作戰指示 제172호

1952. 6. 20. 13.00

一. 教育總監

828 附 錄

가. 1952. 6. 24부로 제53戰車中隊를 鐵道輸送便으로 光州(CP 1191)로부터 初長里(CT 4429)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에 제53전차중대는 軍直轄로부터 解除되어 美제9軍團長에게 배속한다.

나. 輸送에 必要한 鐵道輸送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提出하라.

二. 제53전차중대장

가. 장교 1명과 사병 15명으로 構成된 先發隊를 6. 23.에 初長里에 到着할수 있도록 出發시키라 目的地到着即時 次後命을 위하여 韓제9사단장에게 報告케 하라.

부록 제26호

陸本 作戰指示 제172호

1952. 6. 20. 15. 00

一. 제38輕裝備聯隊長

가. 1952. 6. 23. 00. 01부로 제38연대는 現位置에서 軍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2兵站管區司令官에게 配屬한다.

二. 제39輕裝備聯隊長

가. 1952. 6. 30. 00. 01부로 제39연대는 現位置에서 軍直轄로부터 제2兵站管區司令官에게 配속한다.

부록 제27호

陸本 作戰指示 제174호

1952. 6. 20. 18. 00

一. 陸軍本部作戰指示 제171호의 제2, 3, 및 4項을 1952. 6. 21부로 取消한다.

二. 제2훈련소장

가. 1952. 6. 22부로 제1경비대대 및 제3경비대대를 現位置(CQ 3198)로부터 釜山(EP 04. 80)에 移動시키라 釜山에 到着 同時부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2兵站管區司令官에게 配속한다.

나. 鐵道輸送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輸送감실)에게 提出하라.

다. 제13경비대대는 釜山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라. 제1경비대대는 既達 무선통신諸元에 의하여 陸本과 交信하라 제3경비대대는 釜山 到着即時 通信網構成에 대하여 通信監과 協議하라.

부록 제28호

陸本 作戰指示 제175호

1952. 6. 23. 08. 00

一. 西南地區戰鬪司令官

가. 隸下 전투경찰대를 使用하여 下記 施設을 경비하라.

飛鷄山(DQ1456) 高周波無線電信電話 제1中繼所

無等山(CP1988) 고주파무선전신전화 제2중계소

나. 選定된 部隊의 指揮官은 部隊를 引率하여 1952. 6. 23. 12. 00까지 各中繼所 責任將校에 報告케 하라.

다. 協議를 爲한 直接通信을 許可한다.

부록 제 29 호

陸本 作戰指示 제176호

1952. 6. 24. 10. 00

一. 제302艦灣대대장

가. 1952. 6. 24부로 제302함단대대의 作戰指揮權은 現地에서 總參謀長으로부터 제2兵站管區司令官에게 移管한다.

부록 제 30 호

陸本 作戰指示 제177호

1952. 6. 24. 12. 00

一. 제9경비대대장

가. 1952. 6. 24부로 陸本作戰指示 제159호(1952. 5. 20부)의 제2항 “다”를 取消한다.

나. 1952. 6. 25부로 제2훈련소장 直接감독下에 陸本教育覺書 제120호수정 제1호(1952. 5. 21부)에 의거하여 再教育을 계속하라.

부록 제 31 호

陸本 作戰指示 제178호

1952. 6. 24. 18. 00

一. 제3포병단장

가. 1952. 6. 28부로 裝備實施完了함과 同時에 제3포병단을 自隊輸送便으로서 四方巨岬(GT 83. 29)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先發隊(장교 24명 사병 107명)으로 構成)는 1952. 6. 25에 제2軍團長에게 出願 보고하라.

나.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3포병단은 陸本直轄로부터 解除되어 제2軍團長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 32 호

陸本 作戰指示 제179호

1952. 6. 30. 10. 00

一. 제106야전공병대대장

가. 제106야전공병대대는 철도및 水上輸送에 依하여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下水里(DT 6036)에 1952. 7. 5까지 到着하도록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에 제106야전공병대대는 陸本直轄로부터 제1軍團에 배속한다.

나. 鐵道및 海路輸送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다. 모든 教育資材및 施設을 現地에서 제108야전공병대대에 引繼하라.

二. 제108야전공병대대장

가. 제108야전공병대대는 제106야전공병대대와 交代完了하는 時間부로 제1軍團으로부터 배속해제되어 육본직할로 된다. 交代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나. 交代完了함과 同時에 제108야전공병대대를 鐵道및 水上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下水里로부터 大邱에 이동시키라.

다. 鐵道및 海路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 33 호

防空訓令 제2호 追1

1952. 7. 1

軍防空 態勢強化

1. 6.25 二週年 記念日을 前後하여 我UN空軍이 水豊명을 비롯한 北韓一帶의 發電所와 其他 重要施設에 敢行한 大空襲에 대하여 敵의 報復的인 大規模의 空中攻擊이 豫測된다.
2. 軍은 敵의 航空勢力의 增強과 現情勢의 緊迫함에 비추어 防空의 非常態勢에 對處할 實戰準備를 強化한다.
3. 各級 指揮官 및 各防空司令官은 事態의 緊迫性을 再認識하여 防空訓令 제2호(1952. 6.8부)에 指示된 軍防空 態勢強化를 爲한 諸般 措置를 急速히 完了하고 防空 機能의 高度化를 期하여 實戰的 訓練을 實施할것.

가. 防空訓練의 強化(待避, 交通遮斷, 救護, 消火)

- (1) 防空隊의 有機的 運用
- (2) 非常持出品, 車輛 및 軍需物資의 疎開 및 偽裝
- (3) 警報傳達의 正確 및 迅速
- (4) C.B.R攻擊에 대한 防禦
- (5) 燈火管制

나. 防空態勢 強化를 爲한 事前準備

- (1) 防空線 完備(可能한限 有蓋로서)
- (2) 重要施設 및 物資의 分散, 疎開, 偽裝 또는 地下埋設
- (3) 燈火管制 施設의 整備
- (4) 消防器材의 完備

다. 自隊 防空處置 檢閱實施의 徹底

부록 제 34 호

陸本 作戰指示 제180호

1952. 7. 1. 16.00

一. 1952. 7. 1부로 下記 砲兵大隊은 現地에서 軍直轄로부터 各各 下記 師團으로 배속한다.

- 가. 제88포병대대는 美제2사단
- 나. 제89포병대대는 美제3사단
- 다. 제91포병대대는 美제7사단
- 라. 제92포병대대는 美제25사단
- 마. 제93포병대대는 美제40사단
- 바. 제95포병대대는 美제45사단

부록 제 35 호

陸本 作戰指示 제181호

1952. 7. 5

一. 제5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長

- 가. 1952. 7. 13부로 제5포병단(제58, 59포병대대 및 의무대예속)本部 및 本部砲隊를 鐵道便으로 現位置 光州(CP 1091) 부근으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에 砲兵司令官 直接監督下에 編制表20호의 제1호에 의거하여 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에 대한 裝備를 實施하라

다. 裝備完了後 命令有할時는 本部 및 本部砲隊를 自隊輸送便으로 後進하는 目的地에 移動시킬 準備를 갖추라

라. 鐵道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砲兵司令官

계5砲兵團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가 서울에 到着即時로 裝備實施를 감독하고 每日 進陞狀況報告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 後方支援

가. 계5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서울에 도착 즉시로 編制裝備를 支給받을 것이며 下記 部隊의 補給所로부터 支援받을것임.

(1) 工兵 제2, 4種-釜山(EP. 0580) 工兵基地廠으로 鐵道 및 自動車便을 利用한다.

(2) 醫務 제2, 4種: 서울醫務野戰倉庫中隊 제1소대

(3) 兵器 제2, 4種: 서울 제12兵器輕경비중대

(4) 兵站 제1, 2, 3, 4種: 서울 제401兵站보급소

(5) 通信 제2, 4種: 서울 제5通信野戰倉庫 서울 제91통신수리중대과견대

부록 제 36 호

陸本 作職計劃 제27호

1952. 7. 6

軍隊區分

南部地區警備司令部 陸軍准將 宋堯讚

제1師團(缺 제15聯隊) 陸軍准將 朴林恒

제2警備大隊

西南地區戰鬪警察司令部

제203警察聯隊

제205警察聯隊

제207警察聯隊

제1全南特攻大隊

제2全南特攻大隊

제18警察大隊

七寶警察大隊

鷄林警察中隊

보아라警察中隊

中部地區警備司令部 陸軍大領 朴基丙

제5警備大隊

제7警備大隊

北部地區警備司令部 警務官 黃鶴性

제12警備大隊

제200警察聯隊 제1大隊

陸本直轄地區警備司令部 陸軍大領 金振暉

제15聯隊

제10警備大隊

제11警備大隊

一.

가. 別紙 情報附錄

나. 美제8軍은 繼續하여 現任務를 遂行한다.

다. 軍隊區分은 1952. 7. 10부로 發効한다.

ㄱ. 警備司令部本部는 陸軍本部((DQ 63.69)에 設置한다.

ㄴ. 現西戰史는 南部地區警備司令部로 改稱한다. 現西戰司令部 構成으로서 南部地區警備司令部本部를 構成한다.

ㄷ. 現太戰司는 中部地區警備司令部로 改稱한다.

ㄹ. 現警察地域은 北部地區警備司令部로 改稱한다.

ㅁ. 現陸本直轄地域은 陸本直轄地區警備司令部로 改稱한다.

二.

가. 軍은 4個地區警備司令部를 使用하여 南韓의 共匪를 殲滅하고 其 物資 및 補給品을 破壞하려함.

本作戰은 “Mongoose”作戰이라 稱한다. D日 H時는 後達한다.

나. 附錄 제3호 別紙透明圖

다. 戰鬪地境線 附錄 第3號

三.

가. 南部地區警備司令部

ㄱ. 地區警備司令部를 南原(CQ 53.18)에 設置하라

ㄴ. 現 西戰司 地區內에서 南部지구경비사령부에 該當되는 地區內의 責任을 引受하라

ㄷ. 南部地區警備司令部 管下에 位置하는 現西戰司 및 全警備大隊 戰鬪警察部隊를 統合指揮하라

ㄹ. 第50補充教育聯隊가 南原에 到着과 同時에 統合指揮할 準備를 갖추라

ㅁ. D日 H時를 期하여 使用할수 있는 全部隊로서 攻撃을 開始 下記 各期에 있어서 共匪를 殲滅하여 其 物資 및 補給品을 破壞하라

(1) 第1期作戰은 四街里(CQ 02.23)부근 敵據點에 대하여 直接的이고 協調된 攻撃을 遂行한다. 本期 作戰은 1952. 7. 30까지 完了하여야 한다.

(2) 第2期作戰은 德裕山(CQ 81.55), 智異山(CQ 85.11), 斗一峰(CP 31.87), 白雅山(CP33.93) 및 回文山(CQ 30.30)地區의 共匪據點에 대하여 直接的이고 協調된 攻撃을 遂行한다. 本作戰은 1952. 8. 21에 完了하여야 한다.

(3) 제3期作戰은 第1期 및 第2期作戰地區內에 共匪를 完全히 掃蕩한다. 各部隊는 本期作戰中에 南韓 어떠한 地域에서라도 作戰할수 있게 準備를 할것이며 或은 美8軍 指揮下에 復歸할 準備를 갖추라

(4) 各期에 대한 計劃書는 最少限作戰 開始 5日前에 陸本에 提出한다.

ㄷ. 擔當地區內의 補給路 및 主要施設에 대한 警備를 徹底히 하라

ㄹ. 隷下部隊에 대한 作戰指揮權 引受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나. 中部地區警備司令部

ㄱ. 地區 警備司令部를 安東(DR 7646)에 設置하라

ㄴ. 中部 警備地區 任務를 引受하라

ㄷ. 1個 警備大隊를 使用, 豊基(DR 58.80)~閔震間 公路에 대하여 警備를 繼續하라

ㄹ. 東北方으로 向하는 敵 遊擊隊의 退路 特히 尙州(DQ 25.30)~豊基(DR 58.80) 및 尙州(DR

25.30)~忠州(DR 5084)간의 公路를 遮斷하라.

- ㄱ. 1952. 7.27項 RTC #2에 있는 제6경비대대의 作戰指揮權을 引受하여 作戰地區로 移動시키라.
- ㄴ. D일 H시를 期하여 제12경비대대 및 제200警察聯隊 제1대대의 作戰指揮權을 北部지구경비사령관에게 引渡하라.
- ㄷ. 命令有할時 24時間內로 南部지구경비사령부를 支援할 準備를 갖추라.
- ㄹ. 擔當地區內 共匪를 掃蕩하기 爲하여 附加兵力을 使用할 準備를 갖추라.

다. 北部地區警備司令官

- ㄱ. 原州附近에 地區警備司令部를 設置하라.
- ㄴ. 北部地區에 대한 責任을 引受하라.
- ㄷ. D일 H시를 期하여 제12경비대대와 제200경찰연대 제1대대를 統合指揮하라.
- ㄹ. 제12경찰대대를 使用하여 主補給路와 送油管 및 제32補給所를 警備하라.
- ㅁ. 제200警察聯隊 제1대대를 使用하여 注文津港灣을 警備하라.
- ㅂ. 附加兵力이 使用可能할時는 此를 利用할 準備를 갖추라.

라. 陸本直轄地區警備司令官

- ㄱ. 密陽(DQ 78.28)부근에 地區警備司令部를 設置하라.
- ㄴ. 陸本 直轄地區에 대한 責任을 引受하라.
- ㄷ. 제10, 제11경비대대를 統合指揮하라.
- ㄹ. D일 H시를 期하여 全部隊를 使用 攻擊開始하여 釜山(EP 0580)北方에 있는 敵遊擊隊를 殲滅하고 其 物資 및 補給品을 破壞하라 本作戰은 1952. 8. 21까지 完了하라.
- ㅁ. 擔當地區內의 主補給路 및 主要施設에 대한 警備를 繼續하라.
- ㅂ. 隸下部隊의 作戰指揮權 引受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作戰計劃은 作戰開始 5일 前까지 陸本에 提出하라.

마. 治安局長

- ㄱ. 現 任務를 繼續 遂行하라.
- ㄴ. 警察高級幹部를 南部 및 中部지구경비사령부로 差出하라.
- ㄷ. 어떤 警備地區司令部를 莫論하고 共匪掃蕩作戰에 最大限 支援할 準備를 갖추라.
- ㄹ. 戰術的 諜報活動을 各 警備地區司令部와 協議하라.

X

- ㄱ. 諜報人員이 使用可能할時는 陸本G-2 및 治安局과 協議하여 統制化된 諜報機關을 組織訓練시키라.
- ㄴ. 作戰地區內 民間人의 移動 및 活動을 制限하는데 積極的인 對策을 講究하라.
- ㄷ. 共匪에 대하여 其 位置를 分明히 밝히어 이것을 分離시켜 個別的으로 攻擊하라.
- ㄹ. 作戰은 各地區에 있어서 迅速히 制壓하는 方法을 取하여야 하며 特別 諜報機關과 阻止部隊와 더불어 機動部隊의 重點 使用을 強調함, 大, 小共匪部隊와의 接觸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維持하여 夜間行動 및 夜間 車輛移動을 適切하게 利用하라.
- ㅁ. 市民과의 協助 및 協同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라 共匪同情者와 煽動者에 對한 處罰方法을 取하라.
- ㅂ. 市民, 小朋과 政訓活動 및 傳單散布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라.
- ㅅ. 共匪의 位置를 確認하고 作戰을 協助하기爲하여 利用 可能한 輕飛行機를 使用하라.

四. 行政命令 行政指示 제70호(1952. 7. 1일부) 參照

- 五. ㄱ. 通信事項 通信附錄 參照
- ㄴ. 指揮所

- (1) 陸軍本部 大邱
- (2) 南部地區警備司令部 最初, 南原(CQ 5318)
- (3) 中部 " " " 安東(DR 7446)
- (4) 北部 " " " 原州(DS 0732)
- (5) 陸本直轄 " " " 密陽(DQ 7828)
- (6) 제1師團 " 南原(CQ 5318)
- (7) 제15聯隊 " 密陽(DQ 7828)

ㄷ. 省 略

- 附錄 (1) 情 報
- (2) 軍隊區分
- (3) 作戰透明圖

부록 제 37 호

陸本 作戰指示 제182호

1952. 7. 6. 10.00

一. 西南地區전투사령관

가. 1952. 7. 12부로 제8경비대대를 自動車수송에 의하여 現位置로부터 晉州(DP 1794)까지 철도수송에 의하여 晉州로부터 釜山(EP 0580)에 移動시키라 釜山에 到着함과 同時에 제8경비대대는 陸本直轄로부터 配屬解除되어 제2兵站管區司令部에 배속된다.

나. 대대작전장교및 대대군수장교로서 構成되는 선발대를 車輛에 依하여 釜山에 1952. 7. 8까지 도착하도록 파견하라. 선발대는 釜山에 到着함과 同時에 제2兵站管區司令部・G-3에 보고하라. 自動車, 철도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二. 제2훈련소장

가. 1952. 7. 12부로 제9경비대대를 철도수송에 의하여 現位置로부터 釜山에 移動시키라 釜山에 到着함과 同時에 제9경비대대는 육본직할로부터 배속해제되어 제2兵站管區司令部에 배속된다.

나. 대대작전장교및 대대군수장교로서 構成되는 선발대를 차량에 의하여 釜山에 1952. 7. 8까지 도착하도록 파견하라. 선발대는 釜山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2兵站管區司令部G-3에 보고하라.

다. 철도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三. 제8경비대대장및 제9경비대대장은 各部隊의 釜山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 38 호

陸本 作戰指示 제183호

1952. 7. 9. 10.00

一. 此命令 受領과 同時 1952. 7. 6부 陸本作戰계획 제27호는 1952. 7. 10부로 陸本 作戰命令 제273호로서 發効한다.

二. 陸本 作戰命令 제273호의 D日 H時는 1952. 7. 10. 10.00로 한다.

부록 제 39 호

陸本 作戰指示 제184호

一. 教育總監

- 가. 1952. 7. 19頃 제105重迫擊砲中隊가 教育完了함과 同時에 철도수송에 의하여 光州(CP 1191)로부터 산양리(CT 8329)에 移動시키라 目的地 도착과 同時에 제3사단에 원대복귀한다. 장교2명(副中隊長및 補給장교)및 사병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1952. 7. 18. 제3사단장에게 보고하라.
- 나. 1952. 8. 2頃 제111重迫擊砲中隊가 教育完了함과 同時에 鐵道수송에 의하여 光州(CP 1191)로부터 華川(CT 8717)에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함과 同時에 육본리칼로부터 제6사단에 배속한다. 장교2명(부중대장및 보급장교)및 사병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1952. 8. 1 제6師團長에게 보고하라.
- 다. 철도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라. 部隊出發 時日및 도착예정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 二. 제105重迫擊砲中隊長
목적지 도착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 三. 제111중박격포중대장
목적지 도착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40호

陸本 作戰指示 제185호

1952. 7. 14. 12.00

一. 部隊訓練所長

- 가. 1952. 7. 22부로 제50補充教育聯隊를 現位置(DT 6429)로부터 海路에 의하여 羅水(CP 8545)로 이동시키고 철도수송편으로 南原(CQ 5318)까지 이동시키라.
- 나. 聯隊의 S-3와 S-4로 구성된 선발대를 차량으로서 南原에 파견하되 1952. 7. 21. 以前에 도착케 하라. 도착과 同時에 南部지구경비사령부 G-3에 보고하라.
- 다. 수송에 必要한 水路 및 철도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方法으로 육본(수송감실)에 제출하라.
- 二. 제50보충교육연대장
南原 도착 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作戰局)에 報告하라.

부록 제41호

陸本 作戰指示 제186호

1952. 7. 15. 09.00

一. 軍直轄地區 整備司令官

- 가. 1952. 7. 15. 09.00 부로 제10경비대대(1개 중대缺)를 자동차 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淸道(DQ 7445)로부터 金泉(DQ 2197)에 이동시키라.
- 나. 目的地에 到着과 同時에 中部地區 경비사령부에 배속된다.
- 다. 殘餘 제10경비대대 1개 중대로서 現任務(돈벌DQ 7544 一帶경비)를 계속 수행하라.
- 二. 中部지구경비사령관
가. 제10경비대대(1개 중대缺)를 金泉到着과 同時에 統舎指揮하라.
- 나. 金泉(DQ 2197) 沃川(CR 7217)間 主補給路 경비 및 伽師山(DQ 2163) 修道山(DQ 0968) 일대에 流動하는 敵의 北上루트를 차단하라.
- 다. 南部지구경비사령부 所屬 現地 전투부대와 긴밀한 협조아래 此地區內의 敵을 捕捉 殲滅하라.
- 三. 제10경비대대장
金泉 到着時間을 中部지구경비사령관 및 육본에 최 신속한 方法으로 보고하라.

부록 제42호

陸本 作戰指示 제187호 1952. 7. 20. 10.00

- 一. 육본 작전지시 제185호(1952. 7. 14. 12.00부)는 1952. 7. 19부로 取消한다.
- 二. 部隊訓練所長
 - 가. 1952. 7. 22부로 제50聯隊를 海路로 現位置(DT 6429)에서 浦項洞(EQ 3387)으로 이동시키라. 永同에서 2개 대대는 차량으로 茂朱(CQ 8085)에, 1개 대대는 양지리(CQ 9185)로 이동시키라. 目的地 도착과 동시에 作戰指揮權은 南部지구경비사령부에 이양한다.
 - 나. 聯隊 S-3 및 S-4로 구성된 선발대를 7. 21 以前까지 南原에 도착시키라. 도착 즉시 彦原지구경비사령부 G-3에 보고 하라.
 - 나. 最迅速한 方法으로 船舶, 汽車, 車輛, 수송신청서를 육본(수송감실)에 제출하라.
- 三. 제50聯隊長
 - 가. 最迅速한 方法으로 目的地 도착 時間을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43호

陸本 作戰指示 제188호 1952. 7. 21. 15.00

- 一. 제2훈련소장
 - 가. 1952. 7. 27부로 제6경비대대를 現位置 論山(CQ 3198)으로부터 철도수송 便으로 金泉(DQ 2198)으로 이동시키라. 金泉에 도착과 동시에 中部지구경비사령부에 배속한다.
 - 나. 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 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육본(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二. 中部지구경비사령관
 - 가. 부대가 金泉에 도착함과 동시에 자동차 수송으로 下記 地點에 移動시키라.
 - 1개 중대는 창천동(DQ 2571)
 - 1개 중대는 林山里(DQ 0397)
 - 1개 중대는 三巨里(DQ 0892)
 - 1개 중대는 현 리(CQ 9987)
 - 나. 最迅速한 方法으로 自動車수송신청서를 육본(수송감실)에 제출하라.
- 三. 제6경비대대장
 - 가. 最迅速한 方法으로 目的地 도착 時間을 육본(G-3)에 보고하라.

부록 제44호

陸本 作戰指示 제189호 1952. 7. 19. 08.00

- 一. 제301鐵道運用大隊長
 - 가. 1952. 7. 19. 00.01부로 제301철도운용 대대는 現位置에서 軍直轄로부터 제2兵站管區司令部에 배속한다.

부록 제45호

陸本 作戰指示 제190호 1952. 7. 23. 14.00

一. 部隊訓練所長

가. 1952. 8. 5. 00.01부로 제51보충교육연대는 現位置에서 陸本直轄로부터 美 제9軍團에 배속한다.

나. 부대훈련소장은 美 제9군단장과 直接 通信함을 許可한다.

부록 제46호

陸本 作戰指示 제191호

1952. 7. 24. 08.00

一. 1952. 7. 10부 육본 작전명령 제273호의 軍隊區分中 “西南지구전투경찰사령부”를 “警察司令部”로 修正한다.

二. 1952. 7. 10부 陸本 作戰命令 제273호中 제1항 “다”의 “ㄴ”을 取消하고 下記事項을 代置한다. 西南지구전투사령부 地區는 南部경비사령부 地區로 改칭한다. 現 警察사령부 및 其 構成部隊는 계속 南部지구경비사령부 작전지휘 下에 殘留한다.

부록 제47호

陸本 作戰指示 제192호

1952. 7. 23. 10.00

一. 제5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장

가. 1952. 7. 28부로 제5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58, 59포병대대예속)를 現위치 서울 (CS 2055)로부터 차대차량으로 華川(CT 8727)에 이동시키라. 目的地 도착과 동시에 제5포병단은 육본 직할로부터 제2군단에 배속한다.

나. 선발대는 차량으로서 7. 24. 18.00까지 華川에 파견하라. 선발대는 下記人員과 장비로서 구성하라.

(1) 본부 및 본부포대: 中隊長 或은 其 代理, S-2 或은 其 代理, S-3 或은 其 代理, S-4 或은 其 代理, 觀測장교 或은 其 代理, 通信장교 或은 其 代理, 有線班(部隊가 人員數를 決定한다).

觀測班: 自動車技術者 1명

5人組의 勞務班

1/4屯 車 3臺, 2½屯 車 1臺

3/4屯 車 2臺, 觀測機材, 工具, 通信機材, 天幕

(2) 各大隊本部: 대대장 또는 그 代理, S-2 或은 그 代理, S-3 或은 그 代理, S-4 或은 其 代理, 觀測장교 或은 其 代理, 有線班(부대가 人員數를 決定함), 觀測班, 自動車技術者 1名, 6人組의 勞務班, 1/4屯 車 3臺, 3/4屯 車 2臺, 2½屯 車 1臺, 觀測機材, 工具, 通信機材, 天幕.

(3) 各中隊: 中隊長 或은 中隊先任장교, 有線班(部隊가 人員數를 決定함), 1/4屯 車 1臺, 3/4屯 車 1臺, 工具, 天幕.

다. 先發隊는 5日分의 食糧을 휴대하라.

라. 제5포병단장은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한 時間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한다.

부록 제48호

陸本 作戰指示 제193호

1952. 7. 25. 08.00

一. 軍직할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7. 27부로 제10경비대대 殘餘 1個中隊(터널 (DQ 75.44) 一帶警備)를 철도 수송편으로 現位置, 淸道(CQ 74.45)로부터 永同(CR 91.03)에 이동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軍직할 지구경비사령관으로부터 배속 해제되어 원대복귀함과 동시에 中部지구경비사령부에 배속한다.

나. 이동에 필요한 철도수송신청서를 최 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二. 中部지구경비사령관

가. 제10경비대대 1個 중대가 永同에 到着과 同時에 統合指揮하고 永同 南方에서 共匪의 北上루트를 차단하라.

三. 제10경비대대장

永同 到着時間을 中部지구경비사령부 및 陸本(G-3)에 最迅速한 方法으로 報告하라.

부록 제49호

陸本 作戰指示 제194호

1952. 7. 27. 16.00

一. 1952. 8. 12. 00.01부 제1504工兵담푸추력 中隊는 現地에서 육본직할로부터 제2兵站관구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제1504工兵담푸추력 中隊長과 제2兵站관구사령관과의 直接 通信을 許可한다.

부록 제50호

防空訓令 제1호 修正 2

1952. 7. 29.

對空防禦計劃

1. 作戰地域 變更에 따라 軍團 後方境界線 以南 地域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地區制度의 一部를 修正한다(부록 제1호 참조).

가. 訓令 제1호, 제3호 (라) (마) (아)項을 削除한다.

나. 北部地區(서울地區를 除外한 北部地區경비사령부 作戰地域內에 있는 全部隊 및 機關)는 北部지구경비사령관이 責任진다.

다. 中部地區(論山地區를 除外한 中部지구경비사령부 作戰地域內에 있는 全部隊 및 機關)는 中部지구경비사령관이 責任진다.

라. 南部地區(光州地區를 除外한 南部지구경비사령부 作戰地域內에 있는 全部隊 및 機關)는 南部지구경비사령관이 責任진다.

2. 軍團後方 境界線 以南地區에 있어서는 作戰地區 變更에 따라 防空訓令 修正없이 防空地區가 改正되며 地區司令官이 防空司令官을 兼務하고 對空防禦計劃 및 防空 業務遂行에 關한 諸般 責任을 진다.

3. 訓令 제1호 제7條 (나)項에 依한 報告의 徹底를 期할 것이며 各地區防空司令官은 管下에 發令된 警報의 狀況을 主動的으로 處置하고 가장 迅速한 方法으로 事態發生後 最短時間內에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부록 제51호

陸本 作戰指示 제195호

1952. 7. 31. 12.00

1. 제6포병단장

- 가. 1952. 8. 10부 제6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0, 61포병대대예속)를 철도 수송으로서 현위치 光州(CP 1091) 부근으로부터 서울(CS 2055)에 이동시키라 目的地 도착 시간을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 나. 서울 도착과 同時에 砲兵監 直接 감독하에 編制表 20의 變更 제1호에 의거하여 제6포병단 본부 및 본부 포대와 예속 부대의 장비를 갖추어 그 結果報告를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제출하라.
- 다. 장비실시 完了함과 同時에 別命有 할時は 即時, 本部 및 本部砲隊를 自隊 수송편으로 後送하는 目的地에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 라. 최신속한 방법으로 必設한 철도 수송을 陸本(수송감실)에 신청하라.

二. 砲兵監

제6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서울到着 即時로 장비 실시를 감독하고 每日 進歩狀況을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三. 後方支援

- 가. 제6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는 서울到着과 同時에 下記 部隊 및 보급소에서 編制에 의한 장비의 供給 및 支援을 받으라.
- (1) 工兵: 제2 및 4種보급품—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자동차 便을 利用한다.
 - (2) 醫務: 제2 및 4種 보급품—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 (3) 兵器: 제2 및 4種보급품 및 장비—서울 제12經整備中隊
 - (4) 兵참: 제1, 2, 3, 4種 보급품—서울 제401兵참補給所
 - (5) 通信: 제2 및 4種보급품—제5通信野戰倉庫(서울), 제81通信倉庫中隊과견대(서울), 제91通信修理中隊通信정비파견대(서울)
- 나. 陸本과의 通信連絡은 육군 제2通信取扱所(서울) 및 ROKA ADVANCE(交換臺)를 利用하라.

부록 제52호

陸本 作戰指示 제196호

1952. 8. 1. 16.00

一. 南部지구경비사령관

- 가. 1952. 8. 7부로 제1사단(제17포병대대, 제1重迫擊砲中隊, 제15聯隊)을 現位置로부터 철도수송으로서 滿涼里(CS 29.62)로 이동시키라.
- 나. 目的地 도착과 同時부로 南部지구경비사령관으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美 제1군단장에게 배속한다.
- 다. 鐵道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二. 제1사단장

가. 目的地 도착 시간을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三. 제15연대장

- 가. 1952. 8. 7부로 제15연대는 현 위치로부터 철도수송으로 滿涼里(CS 29.62)에 이동하라.
- 나. 目的地 도착 즉시로 原隊 복귀한다.
- 다. 철도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四. 제11경비대대장

가. 1952. 9. 6. 00.01부로 제11경비대대는 現位置에서 제15연대로부터 배속해제 되어 陸本直轄

로 된다.

나. 제11경비대대장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부록 제53호

陸本 作戰指示 제197호

1952. 8. 4. 12.00

一. 제52補充教育聯隊長

1952. 8. 7. 00.01부로 제52보충교육연대는 現位置 襄陽(DT 6713) 부근에서 陸本直轄로부터 解除하여 제2군단에 배속한다.

부록 제54호

陸本 作戰指示 제198호

1952. 8. 8. 00.01

一. 1952. 8. 8. 00.01부로 陸本 직할지구경비사령부를 철폐 한다.

二. 1952. 8. 8. 00.01부로 慶尙南北道 境界線南部에 屬하는 陸本直轄地區는 南部경비사령부 地區에 포함시킨다.

三. 1952. 8. 8. 00.01부로 慶尙南北道 境界線北方에 屬하는 陸本 직할지구는 中部경비사령부지구에 포함시킨다.

四. 1952. 8. 8. 00.01부로 제11경비대대는 現位置에서 陸本 직할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南部지구경비사령부에 배속한다.

부록 제55호

陸本 作戰指示 제199호

1952. 8. 2. 12.00

一. 教育總監

가. 1952. 8. 15頃, 제54전차중대를 철도수송에 依하여 光州(CP 11.91)로부터 淸川(CS 8893)에 이동시키라. 目的地 도착과 同時에 제54전차중대는 軍 직할로부터 解除되어 美 제9군단에 배속한다.

나. 輸送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제54전차중대장

장교 1명 및 사병 1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1952. 8. 14. 16.00까지 到着할 수 있도록 恪遵하라. 目的地에 도착 즉시 次後命을 待期하기 爲하여 美 제9軍團長에게 報告하라.

부록 제56호

陸本 作戰指示 제200호

1952. 8. 7. 08.00

一. 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8. 17. 부로 제103부대(警察) 1個 中隊를 現位置로부터 自隊 자동차수송으로서 光州(CP 10.91)로 이동시키라.

나. 光州에 到着과 同時부로 南部지구경비사령관으로부터 憲兵사령관에게 배속한다.

二. 憲兵司署官

가. 제103부대 1個 中隊가 光州 到着과 同時부로 指揮權을 인수하여 제2경비대대 제2중대와 光州捕虜收容所 경비 임무를 교대하라.

나. 교대完了 即時 제2경비대대 제2중대를 차대차장으로 現位置 光州로부터 南原으로 이동시키라.

다. 南原 到着과 同時에 제2경비대대 제2중대는 原隊로 복귀한다.

三. 제2경비대대장

제2중대의 南原 到着 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57호

陸本 作戰指示 제201호

1952. 8. 9. 10.00

一. 南中北部地區경비사령부

가. 下記 口頭指示를 確認함.

軍은 南中北部지구경비사령부로 하여금 軍團後方線 南方에 있는 敵 유격대와 그의 補給物資의 소탕을 계속하여 1952. 8. 5 24.00부로 解除된 몽구스(Monguse)작전의 뒤를 이어 일어날 敵 유격대의 再起 및 再編成을 防止하라.

나. 境界線

軍直轄지구는 廢止되고 同時에 各各 中部 및 南部地區경비사령부의 一部로서 編入하라. 作戰指示 제198호(1952. 9. 6부)를 參照 其 變更事項無.

다. 本作戰은 부릿드 하운드(Blood Hound=피루성이 사냥개)작戰이라고 稱한다.

부록 제58호

陸本 作戰指示 제202호

1952. 8. 11. 10.00.

一. 作戰指示 제199호(1952. 8. 2. 12.00부)의 一部를 修正한다.

가. 1의 가項(1952. 8. 15項)을 1952. 8. 29부로

나. 2의 2列(1952. 8. 14. 16.00)을 1952. 8. 28. 16.00로

부록 제59호

육본 작전지시 제205호

1952. 8. 18. 10.00.

一. 제2훈련소장

가. 1952. 8. 24부로 제32捕虜경비대대를 鐵道 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論山(CR 28. 08)으로부터 釜山(EP 0580)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直轄로부터 배속 解除하여 捕虜司署官에 배속한다.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권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제32포로경비대대장

가. 部隊의 釜山到着時間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60호

陸本 作戰指示 제206호

1952. 8. 21. 12.00

一. 제6포병단장

- 가. 1952. 8. 26頃 제6포병단본부 및 본부중대(의무대, 제60, 61포병대대 예속)는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로부터 四方巨里(CT 8329)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直轄로부터 제2軍團에 배속한다.
- 나. 先發隊의 移動 및 編成에 關하여 協議次 제2군단장과의 直接通信을 承認한다. 先發隊는 1952. 8. 25. 16.00까지 四方巨里에 도착하여 제2군단장에게 보고하고 次後命令을 대기하라.
- 다. 제6포병단장은,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한 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61호

육본 작전지시 제207호

1952. 8. 22. 14.00

一. 治安局長

- 가. 1952. 8. 22부로 제207경비연대 제1대대를 철도 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釜山(EP 0580)으로부터 晉州(DP 1695)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 時間을 신속히 陸本(G-3)에 報告하라.
- 나. 제207연대 제1대대는 目的地 到着 即時 治安局長으로부터 배속령제되어 薩部지구역비사령관에 배속한다.

二. 薩部지구역비사령관

- 가. 1952. 8. 23부로 제207경찰연대 제1대대를 자동차수송에 의하여 晉州로부터 費官이 指定한 地區로 移動시키라 部隊의 目的地 到着地點 및 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 나. 必要한 철도수송신청서를 신속히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62호

陸本 作戰指示 제208호

1952. 8. 27. 12.00

一. 제108野戰工兵大隊長

- 가. 1952. 8. 30부로 제108야전공병대대는 철도 및 自隊수송便으로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名勝洞(CT9026)으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時附로 제108야전공병대대는 육본직할로부터 배속령제되어 제1103야전공병단에 배속한다.
- 나. 철도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송수감실)에 提出하라.
- 다. 1952. 8. 27頃 제108야전공병대대의 教材 및 資材施設을 제107야전공병대대에 이양하라.
- 다. 目的地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 마. 後方支援은 現陸軍 SOP에 의거 實施하라.

부록 제63호

陸本 作戰指示 제209호 1952. 8. 27. 15.30

一. 제7포병단장

- 가. 1952. 9. 7부 제7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2, 63포병대대 예속)를 철도수송으로서

·現位置 光州(CD1091)부근으로부터 서울(CS20.55)에 이용시키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최 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나. 서울 도착과 同時에 砲兵監 直接監督下에 編制表 20의 變更제1호에 의거하여 제7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 豫속부대의 裝備를 갖추어 其 結果보고를 최 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제출하라.

다. 裝備實施 完了함과 同時에 別命有할 時는 即時本部 및 本部砲隊를 自隊수송 便으로 後送하는 目的地에 移動할수 있는 準備를 갖추라.

라. 최 신속한 방법으로 必要한 철도수송을 陸本(수송감실)에 申講하라.

二. 砲兵監

제7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豫속부대가 서울 到着即時로 裝備實施를 감독하고 每日 進涉狀況을 최 신속한 방법으로 陸本에 보고하라.

三. 後方支援

가. 제7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豫속부대는 서울 到着과 同時에 下記 部隊 및 보급소에서 編制에 依한 장비의 供給 및 支撥을 받는다.

(1) 工兵: 제2 및 4種補給品—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便을 利用한다.

(2) 醫務: 제2, 및 4種補給品—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의르 및 後送—서울제36육군병원

(3) 兵器: 제2및 4種보급품 및 장비—서울제12정비중대

(4) 兵站: 제1, 2, 3, 4種보급품—서울제401兵站보급소

(5) 通信: 제2, 및 4種로급품—제5通信야전참고(서울), 제81통신참고중대파견대(서울) 제91통신수리중대파견대(서울)

나. 陸本과의 通信連絡은 육군제2通信取扱所(서울) 및 ROKA ADVANCE(交換臺)를 利用하라.

부록 제64호

陸本 作戰指示 제210호

1952. 9. 1. 17. 00

一. 제56兵器彈藥整備中隊

가. 1952. 9. 2 부로 제56병기탄약정비 중대는 現地에서 육본직할로부터 해제되어 美第314兵器團에 배속한다.

二. 제51兵器탄약중대장

가. 1952. 9. 2부로 제51병기탄약중대의 作戰指揮權은 現地에 陸本직할로부터 將次 韓國基地部 및 美 제333병기대대에 배속하기 爲하여 韓國後方地區司令官에게 移管한다.

부록 제65호

陸本 作戰指示 제211호

1952. 8. 29. 10. 00

一. 1952. 9. 1부로 現軍團後方支撥線을 下記와 如하 變更한다.

가. 西海岸 BS93.54 地點에서 東으로 道路를 따라 CS12.56로 수생리(CS15.61)를 거쳐 흥재리(CS18.62) 창구리—(CS28.64)를 통하여 此地點에 南으로 淸涼里(CS30.61)를 지나 東北쪽으로 道路를 沿하여 加平(CS6987)을 經出, 加平洞을 通하는 道路를 따라 加平(대공리) CS69.87(全道路 및 市街는 北部지구경비사령부에 屬함) 道路로 해서 CT71.00(此道路는 軍團에 屬함) 東으로 CT98.00, 南으로 △699 CS97.95에서 △899 CS9688—△705 CS98.82(此高地는 軍團에 屬함) 洪川 DS02.71(洪川은 北部지구경비사령부에 屬함) 道路를 따라 開鑿洞(DS2585)을 거쳐 DS35.90을 지나 下隸

空防禦計劃書を來 9月 20日까지 陸軍本部에 報告한다.

부록 제67호

陸本 作戰指示 제212호

1952. 9. 8. 10. 30

一. 제80憲兵중대장

가. 1952. 9. 8부로 육본직할 제80중대는 現地에서 美서울地區사령부에 배속한다.

나. 此實施 結果를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直接通信을 承認한다.

부록 제68호

陸本 作戰指示 제213호

1952. 9. 15. 09. 00

一. 제1801技術工兵團長

가. 1952. 9. 16. 00. 01 부로 제1502담추력中隊는 現地에서 제1801기술공병단으로부터 韓國後方司令部에 배속한다.

나. 1952. 9. 16. 부로 제1504공병담추력中隊를 鐵道수송에 依하여 現位置釜山(EP0384)으로부터 春川(CS8892)에 이동시키라.

다. 目的地 到着과 同時에 제1504工兵담추력中隊는 제1801기술공병단 豫속으로부터 해제되어 제1103야전공병단에 豫속되며 제2군단에 배속한다.

라. 鐵道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마. 目的地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69호

陸本 作戰指示 제215호

1952. 9. 16. 10. 00

一. 제2新兵보충대장

가. 1952. 9. 20. 부로 제2신병보충대는 철도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麗水(CP85. 44)로부터 春川(CS8894)으로 이동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철도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 도착시간을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70호

陸本 作戰指示 제216호

1952. 9. 16. 14. 00

一. 제225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9. 18. 00. 01부로 제802(-1) 제804수송자동차중대 및 제802수송자동차중대 1개소대를 現地에서 陸本 및 제229수송자동차대대로부터 各各 배속해제하여 제229수송자동차대대에 배속한다.

나. 제805수송자동차중대가 東草(DT6529)에 도착 즉시부로 作戰指揮權은 陸本으로부터 제225수송

자동차대대에 복귀하다.

三. 제227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9. 18부로 제808수송자동차중대를 자체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天津里(DT6235)로부터 束草(6529)로 이동시키라 도착 즉시부로 陸本으로부터 제225수송자동차대대에 배속한다.

四. 제229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9. 18. 00. 01부로 제802, 804, 수송자동차중대를 統台指揮하라.

五. 到着時間을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71호

陸本 作戰指示 제217호

1952. 9. 18. 16. 00

一. 제82통신勤務寫眞중대장

가. 1952. 9. 25부로 제82통신勤務(寫眞)중대는 철도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釜山(EP. 05. 99)으로부터 大邱(DQ63. 69)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時間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부록 제72호

陸本 作戰指示 제218호

1952. 9. 19. 20. 00

一. 제7포병단장

가. 1952. 9. 23부로 제7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2, '63포병대대 예속)는 자체수송으로 現位置 서울(CS, 20. 55)로부터 四方巨里(CT8329)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2 軍團에 配屬한다.

나. 先發隊의 移動 및 編成에 關하여 協議次 제2군단장과의 直接 通信을 承認한다. 先발대는 1952. 9. 22. 16. 00 까지 四方巨리에 도착하여 제2軍團長에게 보고하고 次後命을 命을 대기하라.

다. 目的地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73호

陸本 作野指示 제219호

1952. 9. 19. 11. 00

一. 제8야전포병단장

가. 1952. 10. 5부로 제8야전포병단 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5, 66포병대대 예속)는 철도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光州(CP1091)부근으로부터 서울(CS20. 55)로 이동하라. 目的地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에 砲兵監 直接감독下에 編制表7호에 依據하여 제8야전砲兵團本部 및 本部포대의 예속부대의 裝備를 갖추어 그 結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다. 裝備實施完了와 同時 別命有할 時는 即時 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를 自體輸送으로서 後進하는 目的地에 移動할수 있는 準備를 갖추라.

라. 最迅速한 方法으로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砲兵監

제8野戰砲兵團本部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서울도착즉시로 장비實施를 감독하고 每日 進陞狀況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報告하라.

三. 後方支援

가. 제8야전포병단본부 및 本部砲隊와 여속부대는 서울 도착과 同時에 下記부대 및 보급소에서 編制에 依한 裝備의 供給 및 支援을 받으라.

(1) 工兵: 제2 및 4種補給品—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便을 利用하라.

(2) 醫務: 제2 및 4種보급품—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醫療 및 後送—서울제36陸軍病院

(3) 兵器: 제2 및 4種보급품—서울 제12輕整備中隊

(4) 兵站: 제1, 2, 3, 4種보급품—서울제401兵站보급소

(5) 通信: 제2 및 4種보급품—제5通信野戰倉庫(서울) 제81通信倉庫中隊과견대(서울) 제91通信修理中隊과견대(서울)

四. 陸軍과의 通信連絡은 陸軍제2통신취급소(서울) 및 ROKA ADVANCE(교환대)를 利用하라.

부록 제74호

陸本 作戰指示 제220호

1952. 9. 25. 09. 00

1. 제814수송자동차중대장

1952. 9. 28부로 제814수송자동차중대는 鐵道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龜浦(EP0195)로부터 原州(DS 0534)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육본직할로부터 美 제351수송陸路運用團(T. H. T. G)에 배속한다.

二. 제815수송자동차중대장

1952. 10. 12부로 제815수송자동차중대는 철도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龜浦(EP0195)로부터 春川(CS 8892)으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軍本部直轄로부터 美 제351수송陸路運用團(T. H. T. G)에 배속한다.

三. 目的地 到着時間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四. 鐵道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75호

陸本 作戰指示 제221호

1952. 10. 1. 10. 00

제3군단 헌병소대장

가. 1952. 10. 3 부로 제3군단 헌병소대는 大邱(DQ6368) 春川(CS8794) 注文津(CS8794) 自動車(DS 8594)間은 수송에 依하여 現位置로부터 注文津(DS8594)으로 이동하라.

나. 目的地 도착후 최신속한 時日內에 제3군단 헌병소대는 헌병 제2대대제9중대의 現任務를 引受하라.

다. 目的地 도착시간을 신속히 陸本(G3)에 報告하라.

라. 鐵道 및 自動車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76호

陸本 作戰指示 제222호

1952. 10. 2. 10. 00

一. 제57兵器단약중대장

848 附 錄

1952. 10. 5부로 제57兵器탄약중대는 現地에서 陸本직할로부터 美제314兵器團에 배속한다.

부록 제77호

陸本 作戰指示 제223호

1952. 10. 2. 15. 00

一. 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10. 15부로 現後方戰鬪地境線의 一部를 下記와 如히 變更한다.

CS698, 905에서 △425 CS 7089를 거쳐 CS715, 893으로해서 加平 春川間의 道路를 沿하여(道路는 北警司에 屬함) CS833, 880을 거쳐 西方으로 春川지구사령부 戰鬪지경선을 따라 CS830, 880에서 北方으로 CT 830, 000으로해서 東으로 CT920, 000을 거쳐 南으로 CS830, 000으로해서 春川 楊口間 道路를 沿하여 道路는 北警司에 屬함) CT961000, 을 連하는 線임.

부록 제78호

陸本 作戰指示 제224호

1952. 10. 3. 10. 00

一. 제815수송자동차중대

가. 육본 작전지시 제220호(1952. 9. 25. 09. 00부)의 一部를 下記와 如히 修正한다.

(1) 2項의 1例 1952. 10. 12. 를 1952. 10. 29로 2項의 2列 春川(CS8892)을 原州(DS0534)로

부록 제79호

육본 작전지시 제225호

1952. 10. 9. 10. 00

제8포병단장

가. 1952. 10. 12. 부로 제8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5, 제66포병대대 예속)는 自隊수송으로 現位置 서울(CS2055)로부터 四方巨里(CT 8329)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과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2軍團에 배속한다

나. 선발대의 이동 및 편성에 關하여 協議次 제2군단과의 직접통신을 승인한다. 선발대는 1952. 10.

11. 16. 00까지 四方巨里에 도착하여 제2군단장에게 보고하고 次後命을 대기하라

다. 目的地 도착시간을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80호

육본 작전지시 제226호

1952. 10. 9. 10. 00

一. 陸本 작전지시 제223호(1952. 10. 2. 15. 00부)의 "가"項中 一部를 下記와 如히 訂正한다.

가. 「(道路는 北警司에 屬함) CS 833, 880을 거쳐 西方으로 春川지구사령부 戰鬪地境線을 따라 CS 830, 880에서 北方으로 CT 830, 000으로해서 東으로」를 「(道路는 제2軍團에 屬함) CS 836, 880에서 概略 北漢江 西岸을 따라 北으로 CT 860, 000을 거쳐 東으로」함

부록 제 81 호

陸本 作職計劃 제28호

1952. 10. 10. 12. 00

軍隊區分

제3지구방위사령부 육군중령 金永錫

陸軍本部防衛隊

제1육군병원 방위대

제1보충대 방위대

헌병제100중대 방위대

제27육군병원 三德分棟방위대

육군특무대 방위대

대구지구 주유소방위대

一. 가. 省 略

나. 大邱地區 防衛의 全責任은 大邱지구방위사령관에게 있음.

다. 軍隊區分은 1952. 10. 10. 12. 00부로 發効한다.

二. 가. 大邱駐屯의 韓國軍一部는 大邱제3지구를 擔當 防衛함.

나. 大邱제3防衛地區는 別紙 透明圖 參照

다. 제3지구방위사령부는 陸本 本部司舍室에 設置한다.

라. 陸本 本部司舍室은 1952. 10. 10. 12. 00부로 제3지구방위사령관을 兼務하고 同時부로 憲兵司舍官은 大邱제3지구방위사령관의 任務가 解任된다.

三. 가. 제3지구방위사령관

(1) 1952. 10. 10. 12. 00부 上記 各部隊를 指揮하여 大邱제3지구방위의 責任을 擔當한다.

(2) 別紙1에 記載된 諸部隊를 방위업무에 限하여 統合指揮하라.

(3) 방위업무에 限하여 擔當地區內駐屯 UN軍諸部隊를 支援 協助하라.

(4) 別紙2에 記載된 계부대를 비상사태 突發時 방위업무에 限하여 美軍專교물단본부사령을 經由 大邱지구방위사령관 指示에 依하여 統合指揮하라.

(5) 擔當地區內 駐屯 國立警察을 방위업무에 限하여 統合指揮하라.

(6) 비상사태 돌발시 예하 방위부대를 使用하여 交通, 通信, 燈火, 音響管制를 철저히 실시하라.

(7) 비상사태 돌발시에 대비 하기위하여 最大限의 예비대를 恒常保有하라.

(8) 1952. 10. 15. 12. 00까지 상세한 방위계획을 作成 陸本(G-3)에 提出하라.

(9) 방위계획작성에 대한 세부지시는 陸本作職敎育局長으로 하여금 指示케 함.

(10) 계획작성時 下記사항에 留意하라.

(가) 通信網(有無線)設置

(나) 警報計劃

(다) 後送計劃

(라) 燈火管制계획

(마) 交通統制계획

(바) 경찰파출소의 統轄및 非常突發時 派出所要員 增加계획

(사) 비상돌발시 別紙 透明圖에 記載된 #2, #3, #4, #5의 교통차단지점에 경비병력 各各 6名式을 配置하라.

나. 別紙2에 記載된 諸部隊는 大邱지구방위사령관의 指示에 依하여 美軍專교물단 본부사령을 經由 제3지구방위사령관의 指示를 받는다.

다. 治安局長

제3지구내에 주둔하는 국립경찰을 방위업무에 限하여 제3지구방위사령관 指示를 받게 하라.
라. 大邱刑務所長

대구지구방위업무에 限하여 제3지구방위사령관의 指示를 받으라.

마. 憲兵司令官

1952. 10. 10. 12.00부 大邱제3지구 방위임무를 陸軍本部 本部司令에게 任제하라.

四. 行政事項

가. 補給은 各部隊에서 擔當케 하라.

나. 非常突發時에 限하여 제3지구사령부에 應急治療所를 設置하라.

다. 防衛業務에 限하여 機動에 所要되는 수송임무는 陸本수송감이 擔當한다.

라. 방위업무에 限하여 所要되는 彈藥補給은 陸本군수국장이 擔當한다.

마. 방위업무에 限하여 醫務品 補給은 陸本의무감이 擔當한다.

五. 指揮 및 通信事項

가. 通信軸線

(1) 有線網...別紙

(2) 無線網...別紙

(3) 連絡兵 構成網...別紙

(4) 비상돌발時 방위업무에 限하여 通信取扱의 優先權을 부여한다.

別紙 1

陸本司 S-4, 憲兵司令部, 財務감실, 工兵감실 S-5, 調達감실, 作戰敎育局敎育課陸本司, 兵務감실 및 醫務감실, 落伍者收容中隊

別紙 2

1地區: 陸軍大學, 陸軍情報學校, 第27太平分棟, 恤兵감실.

2地區: 제303鐵道管理隊, HID, 戰史감실, 수송감실, 大邱지구보급소, 憲兵學校, 제27육군병원제2分棟, 大邱通信取扱所, 陸軍군악대.

4地區: 野戰財務隊, 제1陸軍病院제1分棟, 砲兵감실, 제61通信大隊 제27육군병원, 육군수송중대, US人事課, 제60憲兵中隊.

부록 제 82 호

육본 작전지시 제227호

1952. 10. 12. 13.00

一. 제33포경비대장

가. 1952. 10. 20. 00.01부로 제33포로경비대대는 現地에서 육본직할로부터 解제되어 韓國後方지구 사령부에 배속되며 將次포로경비사령부에 配속한다.

부록 제 83 호

육본 작전지시 제228호

1952. 10. 17. 10.00

一. 제225수송자동차중대장

가. 1932. 10. 20. 부로 제807수송자동차중대는 現位置 春川(CS 8894)에서 서울(CS 2369)로 이동시키라. 目的地 到着 即時 제225수송자동차대대에서 配속해제되어 제227수송자동차대에 配속한다. 鐵道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육본(수송감실)에 제출하라.

二. 제229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10. 24부로 제811자동차중대를 철도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서울로부터 龜浦(EP 0196)로 이동시키라

나. 철도수송신청서론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三. 目的地 도착시간을 신속히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 84 호

육본 작전지시 제229호

1952. 10. 19. 9. 00

一. 제35포로경비대대장

가. 1952. 10. 20. 00. 01부로 제35포로경비대대대는 現地에서 육본직할로부터 韓國後方司令部에 配屬하며 장차 포로사령부에 배속된다.

二. 제36포로경비대대장

가. 1952. 10. 20. 00. 01부로 제36포로경비대대대는 現地에서 육본직할로부터 韓國後方司令部에 배속하며 장차 포로사령부에 배속된다.

부록 제 85 호

陸本 一般命令 제200호

1952. 10. 21

1. 1952. 10. 20 零時附로 陸本 一般命令 제112호(1952. 6. 1부)中 下記와 如히 訂正한다.
體

제2項中

“特殊部隊司令部”를 “特殊部隊”로

제5項中

“特殊部隊司令官”을 “特殊部隊長”으로

제6項中

“特殊部隊司令官”을 “特殊部隊長”으로

부록 제 86 호

육본 작전지시 제230호

1952. 10. 22. 9. 00

一. 육본 작전지시 제228호(1952. 10. 17. 10. 00부)의 1項 “가”의 4 및 5 列을 取消하고 下記와 如히 修正한다.

가. 제807수송자동차중대는 계속 제225수송자동차대대에 방속한다.

부록 제 87 호

육본 작전지시 제231호

1952. 10. 22. 16. 00

一. 제92통신근부중대장

가. 1952. 11. 1부로 제92통신근부중대는 자동차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慶山(DQ 76.64)으로부터 大

邱(DQ 6369)로 이동하라 目的地 도착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자동차수송신청서를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 88 호

陸本 작전지시 제232호 1952. 10. 23. 20.00

一. 示範部隊長

- 가. 1952. 10. 27부로 시범부대는 美8軍에서 提供하는 차량으로서 現位置 襄陽(DT 370, 135)으로부터 美제6군단장이 指定하는 場所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美제9군단에 배속한다.
- 나. 1952. 10. 25. 16.00까지 장교1명 사병6명으로 편성한 先發隊를 美제9군단 CP(CT 570, 150)에 도착시켜 美9군단 G-3에 보고하고 次後命을 대기케 하라.
- 다. 目的地 도착시간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 89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3호 1952. 10. 22. 15.00

一. 제9야전포병단장

- 가. 1952. 11. 2부로 제9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67, 68포병대대예속)는 철도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光州(CP 1091)부근으로부터 서울(CS 2055)로 이동하라.
- 나. 서울 도착과 동시에 포병감 직접감독하에 편제표7호에 의거하여 제9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의 장비를 갖추어 그結果를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 다. 장비실시 完了함과 同時 別命有할時は 即時 本部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後進하는 目的地에 자대수송으로서 이동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 라. 最迅速한 方法으로 移動에 必要한 철도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砲兵監

- 가. 제9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가 서울에 到着 即時로 裝備實施를 監督하고 每日 進捗狀況을 최신속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三. 後方支援

- 가. 제9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와 예속부대는 서울 도착과 同時에 下記部隊 및 보급소에서 編制에 의한 장비의 供給 및 支援을 받는다.
 - (1) 工兵: 제2, 및 4種보급품—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便을 利用하라
 - (2) 醫務: 제2 및 4種보급품—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醫務 및 後送—서울제36육군병원
 - (3) 兵器: 제2 및 4種보급품 및 장비—서울제12輕整備中隊
 - (4) 兵站: 제1, 2, 3, 4種보급품—서울제501兵站補給所
 - (5) 通信: 제2 및 4種補給品—제5通信野戰倉庫(서울), 제82倉庫中隊과견대(서울), 제85通信修理中隊과견대(서울)

- 四. 陸本과의 通信連絡은 육군제2通信取扱所(서울) 및 ROKA, ADVANCE(교환대)를 利用하라.

부록 제 90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4호 1952. 10. 29. 10. 00

- 一. 제1경비대대장
 - 가. 1952. 11. 6부로(釜山到着即時) 제1경비대대는 鐵道및 自動車수송에 依하여 春川(CS 8894)經 由 下芦谷里(CT 8324)로 이동하라. 目的地 도착시간을 迅速히 陸本(G-3)에 報告하라.
 -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및 自動車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二. 제3경비대대장
 - 가. 1952. 11. 08부로(釜山 도착즉시) 제3경비대대는 鐵道및 自動車수송에 依하여 春川 經由 下芦谷 里로 移動하라 目的地 도착시간을 迅速히 陸本(G-3)에 보고하라.
 -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및 自動車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三. 제1,3경비대대는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行政上 第2軍團長의 區處를 받는다.

부록 제 91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2호 1922. 10. 10. 12. 00

- 一. 作戰計劃 제28호(1952. 10. 10. 12. 00부)의 軍隊區分中「陸軍持務隊 防衛隊」를「憲兵司令部 防衛 隊」로 訂正한다.

부록 제 92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6호 1952. 11. 8. 13. 00

- 一. 제12사단장
 - 가. 1952. 11. 10부로 U. T. C(襄陽 (DT 6713)에서 陸本 敎育覺書 제166호(1952. 1 1. 6부)에 의거하 여 예하부대의 敎育을 開始하라 貴部隊의 전투준비일은 1952. 12. 31일.
- 二. 제15사단장
 - 가. 1952. 12. 10부로 U. T. C.(襄陽 DT 6713)에서 陸本 敎育覺書 제166호(1952. 11. 6부)에 의거 하여 예하부대의 敎育을 개시하라 貴部隊의 전투준비일은 1953. 1. 31일.
- 三. 제53, 55, 56補充敎育聯隊長
 - 가. 1952. 11. 10부 U. T. C(襄陽 DT 67. 13)에서 陸本 敎育覺書 제130호(1952. 5. 1부)에 의거하여 貴部隊의 敎育을 開始하라. 貴部隊의 作戰準備日은 1952. 12. 07일.
- 四. 제57, 58, 59聯隊長
 - 가. 1953. 1. 5부로 U. T. C(襄陽 DT 6713)에서 陸本 敎育覺書 제166호(1952. 11. 6부)에 의거하여 貴部隊의 敎育을 開始하라. 貴部隊의 戰鬥준비일은 1953. 1. 31일.

부록 제 93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7호 1952. 11. 1. 8. 00

- 一. 제225수송자동차중대대장
 - 가. 1952. 1 1. 10부로 제805수송자동차중대를 자동차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東草(DT 6528)로부터 春川(CS 8893)으로 이동시키라.
 - 나. 目的地 到着時間을 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 94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8호

1952. 11.11 15.00

一. 제80兵器大隊長

가. 1952. 11.20부로 제25兵器輕整備中隊를 自隊輸送에 의하여 現位置 신술리(CT 6125)로부터 襄陽(DT 67.13), U. T. C로 이동시키라.

나. 제25兵器輕整備中隊長은 U. T. C에 到着하면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 95 호

陸本 作戰指示 제239호

1952. 11.11 15.00

一. 제9야전포병단장

가. 1952. 11.15부로 제9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鑿務隊, 제67,68포병대대 예속)는 自隊輸送으로 現位置 서울CS 2055)로부터 四方巨里(CT 83.29)로 이동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2군단에 배속한다.

나. 先發隊의 移動및 編成에 關하여 協議次 제2軍團과의 直接通信은 承認한다. 先發대는 1952. 11.

14. 16.00까지 四方巨리에 到着하여 제2군단장에게 보고하고 美제5砲兵團長의 指示를 받게 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 96 호

陸本 作戰指示 제240호

1952. 11.16. 12.00

一. 제71化學勤務中隊長

가. 1952. 11.24부로 제71화학근무중대는 鐵道수송에 의하여 現位置 大邱(DQ 6470)로부터 서울(CS 2358)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後 제71화학근무중대는 敎育을 爲하여 美제92化學勤務中隊長의 區處를 받으라.

나. 目的地 도착하면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二. 제72化學勤務中隊長

가. 1952. 11.14부로 제72化學勤務中隊는 鐵道수송에 依하여 現位置 大邱(DQ 6470)로부터 서울(CS 2358)로 이동하라. 目的地도착후 제72화학근무중대는 敎育을 爲하여 美제92化學勤務中隊長의 區處를 받으라.

나. 目的地 到着하면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G-3)에 보고하라

三.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最迅速한 方法으로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 97 호

陸本 作戰指示 제241호

1952. 11.19. 10.30

一. 제77수송경비행기정비중대장

가. 1952. 12.1. 00.01부로 제77수송경비행기정비중대는 現位置(楊平)에서 陸本직할로부터 美제79兵器大隊에 배속한다.

부록 제98호

陸本 作戰指示 제241호 1952. 11. 20. 13.00

一. 제77수송輕飛行機整備中隊長

가. 1952. 12. 1 00.01부로 제77수송경비행기정비중대는 現位置(楊平)에서 陸本 직할로부터 美 제79兵器大隊에 배속한다.

부록 제99호

陸本 作戰指示 제242호 1952. 11. 20. 13.00

一. 제12사단장

가. 1952. 11. 22. 00.01부터 1952. 12. 7까지의 教育期間中 제53, 55, 56補充教育聯隊 및 제31捕虜경비대대를 제12사단에 배속한다.

二. 제53, 55, 56보충교육연대장

제31捕虜경비대대장

가. 1952. 11. 22. 00.01부터 1952. 12. 7까지 제53, 제55, 제56보충교육연대 및 제31포로경비대대는 제12사단장의 指揮를 받는다.

부록 제100호

陸本 作戰指示 제243호 1952. 11. 23. 15.00

一. 제10野戰砲兵團長

가. 1952. 11. 30부로 제10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醫務隊, 제69, 제70, 포병대대예속)는 鐵道輸送에 依하여 現位置로부터 서울(CS 2055)로 移動하라.

나. 서울到着과 同時 砲兵監 直接監督下에 編制表 제7호에 의한 裝備를 갖추고 그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장비 受領後 別命이 有할時 後達하는 目的地에 自隊 수송에 依하여 移動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라.

라.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 신청서류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砲兵監

가. 제10야전포병단이 서울到着 即時로 裝備受領狀況을 監督하고 其 進捗狀況을 陸本(G-3)에 報告하라.

三. 後方支援

가. 제10야전포병단(本部 및 本部砲隊와 隸屬部隊)은 서울到着과 同時에 下記部隊 및 補給所에서 編制에 依한 裝備의 供給 및 支援을 받는다.

(1) 工兵: 제2, 및 4種補給品—釜山工兵基地廠으로부터 汽車 및 自動車便을 利用하라.

(2) 醫務: 제2 및 4種補給品—서울醫務倉庫中隊 제1소대, 醫療 및 後送—서울 제36陸軍病院

(3) 兵器: 제2 및 4種補給品 및 整備—서울 제12兵器輕整備中隊

(4) 兵站: 제 1, 2, 3, 4種補給品—서울 제507兵站補給所

(5) 通信: 제2, 및 4種補給品—제5通信野戰倉庫(서울), 제82通信倉庫中隊과견대(서울), 제85通信修理中隊과견대(서울)

四. 陸本과의 通信連絡은 陸軍 제2通信取扱所(서울) 및 ROKA ADVANCE(交換臺)를 利用하라.

부록 제101호

陸本 作戰指示 제244호

1952. 11. 23. 15.00

一. 제1경비대대장, 제3경비대대장

가. 1952. 12. 1. 00.01부로 제1 및 제3경비대대는 現位置 下蘆谷里(CT 83.23)에서 韓國後方地區 司令部에 配屬되어 同時부로 南部地區경비사령부에 配屬한다.

二. 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12. 1부로 제1 및 제3경비대대를 統合指揮하여 自動車 및 鐵道輸送으로 現位置로부터 春川(CS 88.93)經由 南原(CO 53.19)으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自動車 및 鐵道수송신청서를 迅速히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三.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02호

陸本 作戰指示 제245호

1952. 11. 23. 15.00

一. 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12. 3. 24.00까지 제50補充教育聯隊를 南原(CQ 5417)으로 移動 集結시키라.

나. 1952. 12. 4. 00.01부로 제50보충교육연대는 南原에서 韓國後方司令部로부터 배속해제되어 陸本直轄로 된다.

二. 제50보충교육연대장

가. 1952. 12. 4부로 제50보충교육연대는 南原으로부터 麗水(CD85. 45)經由 船舶輸送에 依하여 襄陽(DT 67.13) U.T.C로 移動하라.

나.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移動에 必要한 鐵道自動車 및 船舶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부록 제103호

陸本 作戰指示 제246호

1952. 11. 26. 15.00

一. 제1102野戰工兵團長

가. 1952. 11. 29부로 제1102야전공병단(本部 및 本部中隊)은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江陵(DS 90.78)으로부터 (CS 18.92)地點으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1102야전공병단은 陸本직할로부터 美 제1軍團에 配屬한다.

나. 1952. 11. 29부로 제602工兵輕裝備中隊를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江陵(DS 90.78)으로부터 (CS 13.91)地點으로 移動시키라.

다. 1952. 11. 29부로 제1503工兵自動車中隊를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江陵으로부터 (CS 23.92)地點으로 移動시키라.

라. 1952. 11. 29부로 제506工兵鐵橋中隊를 (CS 13.91)地點으로 移動시키라.

二. 제1201建設工兵團長

가. 1952. 11. 28부로 제1201건설공병단(본부 및 본부중대)은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慶州(EQ 19.66)로부터 榮州(DR 67.75)로 移動시키라.

나. 1952. 12. 02부로 제203建設工兵大隊를 現位置 慶州로부터 自動車 및 船舶수송으로서 浦項, 發翰里(DS 90.18)經由 江陵(DS 90.78)으로 移動시키라.

다. 1952. 11. 28부로 제701工兵重裝備中隊를 鐵道輸送으로서 現位置 浦項(EQ 33.87)으로부터 榮州(DR 67.75)로 移動시키라.

라. 移動에 必要한 自動車 鐵道 및 船舶수송신청서로 迅速히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三.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04호

陸本 作戰指示 제247호

1952. 11. 27. 17.00

一. 제1兵站團長

가. 1952. 11. 27부로 제1병참단본부 및 본부중대는 鐵道수송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서울(CS 24.58)로 移動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05호

陸本 作戰指示 제248호

1952. 11. 27. 15.00

一. 제107야전공병대대장

가. 1952. 11. 29부로 제107野戰工兵大隊는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汶山里(CS 05.92)經由 벽계리(CS 15.76)로 移動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06호

陸本 作戰指示 제249호

1952. 11. 27. 17.00

一. 제229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11. 30부로 제229수송자동차대대(본부 및 본부중대)는 自隊(수송으로서 現位置 龜浦(EP 01.05)로부터 釜山(EP 04.85)으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보고하라.

나. 제812수송자동차중대가 釜山에 到着하면 統合指揮하라.

二. 제227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11. 30부로 제812수송자동차중대를 鐵道수송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4.69)로부터 釜山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812수송자동차중대는 제227수송자동차대대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原隊復歸한다.

부록 제107호

陸本 作戰指示 제250호

1952. 11. 30. 17.00

一. 제229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2. 12. 1부로 제813수송자동차중대의 1個 소대를 現位置 제1훈련소(BM 44.78)로부터 船

船 및 自隊수송으로서 群山 經由 제2訓練所(CR 28.08)로 移動시키라.

나.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보고하라.

다. 移動에 必要한 船舶수송신청서를 迅速히 陸本(수송감실)에 제출하라.

부록 제108호

陸本 作戰指示 제251호 1952. 12. 1. 16.00

一. 제56보충교육연대장

1952. 12. 8. 00.01부로 제56보충교육연대는 現地에서 陸本직할로부터 韓國後方地區司令部에 배속하며 同時부로 南部지구경비사령부에 배속한다.

二. 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12. 9부로 제56보충교육연대를 鐵道 및 船舶수송으로서 現位置 襄陽(DT 68.13)으로부터 麗水(CD 85.45)經由 南原(CQ 53.19)으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및 船舶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三. 제53, 55보충교육연대장

1952. 12. 15. 00.01부로 제53 및 제55보충교육연대는 現地에서 陸本직할로부터 韓國後方사령부에 배속하며 同時부로 捕虜司令部에 배속된다.

부록 제109호

陸本 作戰指示 제252호 1952. 12. 1. 15.00

一. 제12사단장

가. 1952. 12. 5부로 제12사단(缺)은 自動車수송으로서 現位置로부터 芝浦里(CT 52.22), 송정리(CT 47.08)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12사단(缺)은 陸本직할로부터 美 제9軍團에 배속한다.

나. 移動에 必要한 自動車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제37, 51, 52보충교육연대장

제37, 51, 52보충교육연대는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美 제9軍團에 배속한다.

三.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10호

陸本 作戰指示 제253호 1952. 12. 3. 17.00

一. 제55전차중대장

가. 1952. 12. 15부로 제55전차중대는 鐵道 및 自隊수송으로서 現位置로부터 春川(CS 8793)經由, 보류(CT 849,422)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2軍團에 배속한다.

나. 將校 1名, 士兵 12名으로 編成된 先發隊를 1952. 5. 13. 12.00까지 제2軍團에 到着시켜 軍團長의 指示를 받도록 하라.

二. 제56전차중대장

- 가. 1952. 12. 17부로 제56전차중대는 船舶 및 自隊수송으로서 現位置로부터 群山(BQ 93.84)經由 (DT 531.483)地點으로 移動하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1軍團에 配屬한다.
- 나. 장교 1명, 사병 12명으로 編成된 先發隊를 1952. 12. 15. 12.00까지 제1軍團에 到着시켜 軍團長의 指示를 받도록 하라.
- 三. 移動에 必要한 鐵道수송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 四.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11호

陸本 作戰指示 제254호 1952. 12. 12.00

- 一. 제37, 51, 52, 보충교육연대장

陸本 作戰指示 제252호(1952. 12. 1. 15.00부)의 제2項을 取消한다.

부록 제112호

陸本 作戰指示 제255호 1952. 12. 10, 15.00

- 一. 제229輸送自動車大隊長

1952. 12. 10부 제811수송자동차중대를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龜浦(EP 01.95)로부터 釜山(EP 04.85)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제811수송자동차중대는 美 제296수송자동차대대에 배속한다.

- 二. 제811수송자동차중대장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113호

陸本 作戰指示 제256호 1952. 12. 9, 10.00

- 一. 제53通信架設中隊長

가. 1952. 12. 11부로 제53通信架設中隊는 鐵道 및 自動車輸送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3.68)로부터 原州 經由 江陵(DS 93.77)으로 移動하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 및 自動車輸送申請書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114호

陸本 作戰指示 제257호 1952. 12. 12, 15.00

- 一. 제55戰車中隊長

陸本 作戰指示 제253호(1952. 12. 3, 17.00부) 1의 가項 1제 「1952. 12. 15부」를 1952. 12. 18부로, 1의 나項 2列 「12. 13」을 12. 16으로 各各 訂正한다.

- 二. 제56戰車中隊長

陸本 作戰指示 제253호(1952. 12. 3, 17.00부) 2의 가項 1列 「1952. 12. 17부」를 1952. 12. 16부

로, 가項 2列「自隊輸送」을 鐵道輸送으로 2의 나項 2列「12. 15」을 12. 14로 各各 訂正한다.

부록 제115호

陸本 作戰指示 제258호

1952. 12. 12. 16.00

一. 제10野戰砲兵團長

가. 1952. 12. 19부로 제10야전포병단본부 및 본부포대(醫務隊, 제69, 제70, 포병대내예속)는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서울(CS 20.55)로부터 別洞(CT 85.42)로 移動하라. 目的地에 到着함과 同時부로 陸本직할로부터 제2軍團에 配屬한다.

나. 先發隊의 移動 및 編成에 關하여 協議次 제2軍團과의 直接 通信을 承認한다. 先發隊는 1952. 12. 18. 16.00까지 제2軍團(CP)에 到着시켜, 軍團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指示를 받게 하라.

다.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16호

陸本 作戰指示 제259호

1952. 12. 13. 16.00

一. 제229輸送自動車大隊長

가. 陸本 作戰指示 제255호(1952. 12. 10. 15.00부)를 取消한다.

나. 1952. 12. 10부로 제811輸送自動車中隊를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龜浦(EP 01.95)로부터 釜山(EP 04.85)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811수송자동차중대는 韓國後方司令部에 配屬하며 將次 韓國基地司令部에 배속한다.

二. 제811수송자동차중대장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보고하라.

부록 제117호

陸本 作戰指示 제260호

1952. 12. 15. 12.00

一. 제1105야전공병대장

가. 1952. 12. 22부로 제112야전공병대대를 鐵道 및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 大邱(DQ 6369)로부터 淸川(CS 8893)經由 下橫川(G 84.31)으로 移動시키라.

나.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二. 제112야전공병대대장

가. 部隊가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18호

陸本 作戰指示 제261호

1952. 12. 14. 12.00

一. 제31捕虜整備大隊長

가. 1952. 12. 21. 00.01부로 제31포로경비대대는 現位置 襄陽(CT 67.14)에서 陸本直轄로부터 해제하여 韓國後方司令部에 配屬하며 捕虜整備司令部에 배속된다.

부록 제119호

陸本 作戰指示 제262호

1952. 12. 15. 12.00

一. 南部지구경비사령관

가. 1952. 12. 17. 12.00까지 제3경비대대를 現位置로부터 南原(CQ 53.19)으로 移動集結시키라.
南原 集結과 同時부로 現地에서 南部지구경비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포로경비사령부에 배속한다.

二. 제3경비대대장

가. 部隊가 南原에 集結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20호

陸本 作戰指示 제263호

1952. 12. 19. 16.00

一. 南部지구경비사령관

1952. 12. 22. 08.00까지 제1경비대대를 自隊輸送으로서 現位置로부터 南原(CQ 53.19)으로 移動시키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南部지구경비사령부로부터 배속 해제하여 포로사령부에 배속한다.

二. 제1경비대대장

最終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121호

陸本 作戰指示 제264호

1952. 12. 22. 15.00

一. 제11야전포병단장

가. 1952. 12. 28부로 제11야전포병단 및 본부포대(의무대, 제71, 72포병대대 예속)은 鐵道(人員) 및 自隊輸送(장비 및 보급품)으로서 現位置로부터 서울(CS 20, 55)로 移動하라.

나. 서울 到着과 同時 砲兵監 直接監督下에 編制表 제7호에 의한 장비를 갖추고 그 結果를 陸本(G-3)에 報告하라.

다. 장비 受領後 別名有할 時 後進하는 目的地에 自隊수송에 依하여 移動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라.

라. 移動에 必要한 철도수송 신청서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二. 砲兵監

제11야전포병단이 서울 到着後 장비受領狀況을 감독하고 其進隊狀況을 陸本(G-3)에 보고하라.

三. 後方支援

제11야전포병단(本部 및 本部砲隊와 예속부대)은 서울에 到着과 同時에 下記部隊 및 補給所에서 編制에 依한 장비의 供給 및 支援을 받는다.

부록 제122호

陸本 作戰指示 제265호

1952. 12. 25. 16.00

一. 砲兵司令官

가. 1952. 12. 26. 12.00부로 光州中央共匪收容所 警備任務를 解除한다. 同時부로 配屬中이던 警察

제103部隊 1個 中隊를 原隊復歸 시키다.

부록 제123호

陸本 作戰指示 제266호 1952. 12. 26. 11.00

一. 제57전차중대장

가. 1953. 1. 10부로 제57전차중대는 鐵道수송으로서 現位置로부터 漣川(CT 31.19)으로 移動하
라. 目的地 到着과 同時부로 제57전차중대를 陸本직할로부터 美 제1군단에 배속한다.

나. 장교 1名, 士兵 12名으로 編成된 先發隊를 1953. 1. 9. 16.00까지 美 제1군단에 到着시켜 軍團
長의 指示를 받도록 하라.

다. 移動에 必要한 鐵道輸送申請書를 陸本(수송감실)에 提出하라.

라. 目的地에 到着하면 陸本(G-3)에 報告하라

부록 제 124 호

陸本 作戰指示 제267호 1952. 12. 25 09.30

一. 제225수송자동차대장

가. 1953. 1. 00.01부로 제225수송자동차대(제808수송자동차중대(缺))는 現地에서 陸本直轄로
부터 美제351輸送陸路運用團에 배속한다.

부록 제 125 호

陸本 作戰指示 제270호 1952. 12. 31 13.00

一. 제225수송자동차대대장

가. 1953. 1. 06.00.01부로 제808수송자동차중대를 現地에서 美제351수송陸路運用團에 배속한다.

나. 陸本 作戰指示 제267호(1952. 12. 25 9.30부)의 1의3列 公路輸送團을 輸送陸路運用團으로 訂正
한다.

부록 제 126 호

海本 作命 제62호 1952. 4. 06

1. 作戰呼稱 및 番號—海燕作戰 제1호

2. 狀 況

敵은 制海權을 確保한 我軍 海上行動에 對備코져 近來에 와서 海岸線 高地에 砲隊를 構築하고 機雷
를 敷設 및 浮流시키고 있음.

3. 編 成

가. PT編隊는 4월 7일을 期하여 西海隊 東海隊를 今次 作戰終末時까지 所要 警備區域에 派遣하라.

나. PT 제27호 艇長은 東海隊 旗艦長이 되어 PT 제25호艇을 都合 指揮하여 任地에 到着後 CTG
95.2 指揮下에 入하라.

다. PT 제26호艇은 西海隊 旗艦長이 되어 PT제23호艇을 都合 指揮하여 任地에 到着後 CTE 95.12

- 의 指揮下에 入하라.
4. 任 務
 - 가. PT 제27호 艇長은 東海隊 旗艦長으로서 TG952의 指示에 依하여 麗島近海 所要 警備에 任하라.
 - 나. PT 제26호 艇長은 西海隊 旗艦長으로서 CTG 95.12의 指示에 依하라.
 - 다. PT 各隊는 任地에 到着하면 東海隊는 墨湖警備府 通信隊를 西海隊는 仁川警備府 通信隊를 各 經由하여 報告하라.
 5. 出 港
 - 가. 東海隊는 4월 7일 13.00 鎮海出港 4월 7일 20.00까지 墨湖에 寄港하여 4월 8일 06.00 墨湖出港 4월 8일 11.00까지 麗島近海에 到着하라.
 - 나. 西海隊는 4월 7일 13.00 鎮海出港 4월 7일 20.00까지 木浦에 寄港하여 4월 8일 06.00 木浦出港 4월 8일 14.00까지 延坪島 近海에 到着하라.
 6. 補 給
 - 가. 艦政局長은 PT編隊 出動中 所要될 艦需品 一切를 出動 6時間前까지 供給完了토록 하라.
 - 나. 鎮海統制府司令官은 軍需部長 및 兵器官으로 하여금 PT編隊 出動中 所要될 補給物 및 彈藥等을 出港 6時間前까지 供給 完了토록 하라.
 - 다. 東海隊는 行動期間中 必要한 艦需品 및 彈藥, 補給品 一切를 CTG 95.2에 連絡한後 供給받도록 하라.
 - 라. 西海隊는 行動 期間中 必要한 艦需品 및 彈藥, 補給品 一切를 CTE 95.12에 連絡한後 供給받도록 하라.
 7. 時 間
 - 가. 東經135度 地方 標準時間을 使用하라.
 8. 通 信
 - 가. 今次 行動 期間中 東西海隊는 墨湖 및 仁川 到着時까지는 本部 晝間發射 6205.25KC로 夜間發射 3760KC PT東西海隊는 晝間發射 6710KC로 夜間發射 3760KC로 相互間 交信하라.
 - 나. 墨湖 到着以後 東海隊 旗艦長은 墨湖警備府와 41.00KC로 相互間 交信하고 仁川 到着以後 西海隊 旗艦長은 仁川警備府와 2,160KC로 相互 交信하라.
 - 다. 東海隊 旗艦과 隸屬艇은 2,160KC로 西海隊 旗艦과 隸屬艇은 2,300KC로 相互間 交信하라.
 - 라. 行動 期間中 UN軍과 通信網은 東海隊는 CTG 952의 指示를 받으며 西海隊는 CTE 95.12의 指示를 받으라.
 9. 其 他
 - 가. 今後 別命이 有할時까지 PT編隊 前進基地를 東海隊는 麗島에 西海隊는 延坪島에 加設함.
 - 나. 東海隊는 CTG 95.2 및 CTE 95.12의 指示한 前進基地 設置에 萬全을 期하라.
 - 다. 東西海隊 旗艦長은 前進基地 油類 保管 및 取扱에 格外 留意하라.

부록 제 127 호

海本 作命 제60호

1952. 4. 10

1. 作戰呼稱 및 番號-忠武作戰 제3호
2. 狀況-省略
3. 編 成
 - 4월 16일 17.00 제310艦과 任務交代後 TE 95.71에 編入함.

4. 任 務

가. 제308艇은 제301艇과 任務交代하고 CTE 95.71의 指示를 받아 所定海域警備에 任하라.

나. 제310艇은 제308艇과 任務交代하고 CTE 95.71에 申告한 다음 鎮海에 歸港하라.

다. 제308艇은 제310艇과 38-32-03N-124-54E(嶺島近海) 地點에서 警備 交代하라.

5. 出 港

가. 제308艇은 4月 14日 06.00 鎮海出港하여 4月 15日 05.00까지 木浦에 寄港하여 整備完了하고 副食物을 購入하라.

나. 제308艇은 4月 15日 12.00 木浦出港하여 4月 16日 17.00까지 所定 任地에 到着하라.

다. 제310艇은 4月 16日 24.00 現地出港하여 4月 18日 05.00까지 木浦에 寄港하여 整備完了하고 副食物을 購入하라.

라. 제310艇은 4月 18日 12.00 木浦出港하여 4月 19일까지 鎮海에 歸港하라.

6. 補 給

가. 艦政局長은 제308艇의 出動中 所要될 艦需品 一切를 出港 6時間前까지 供給 完了토록 하라.

나. 鎮海統制府司令官은 軍需部長 및 兵器官으로 하여금 제308艇의 出動中 所要될 補給物 油類 및 彈藥等을 出港 6時間前까지 供給 完了토록 하라.

7. 時 間

東經135度 地方標準時間을 使用하라

8. 通 信

回線 轉出入 報告를 嚴히 하라.

9. 其他 省略

부록 제128호

海本作命 제69호

1952. 4. 19

1. 作戰呼稱 및 番號—省略

2. 狀 況

가. 軍은 西海岸 出動艦艇의 UN海軍과 作戰上 連絡 및 我海軍艦艇의 行動을 緊密히 取하기 爲하여 제901艇을 西海戰隊旗艦으로 派遣함.

3. 編 成

가. 第1艦隊司令은 제901艇을 西海戰隊旗艦으로 臨時 配置하라.

나. 西海戰隊司令은 제901艇이 白翎島近海에 到着하면 西海戰隊에 編入케 하고 제302艇長으로 하여금 戰隊 旗艦 任務를 제901艇長에게 引繼케 하라.

다. 제302艇長은 제901艇이 白翎島 近海에 到着하면 西海戰隊 旗艦任務를 제901艇長에게 引繼하고 戰隊司令 指揮下에 入하라.

4. 任 務

가. 제302艇은 西海戰隊 旗艦任務를 제901艇과 交替하고 CTE 95.71의 指示를 받아 行動하라.

나. 제901艇은 제302艇과 CTE 95.71의 旗艦任務를 交代한 後 CTE 95.71의 指示를 받아 行動하라.

다. CTE 95.71은 제901艇에 乘組하여 西海戰隊의 名艇을 指揮할 것이며 PT 編隊 西海隊에게도 제901艇으로 하여금 諸般事項에 便利를 圖謀토록 하라.

라. 제901艇長은 4월 21일 出港前까지 輸送官이 指示하는 補給物數를 積載完了하고 西海 出動中 CTE 95.71 指示에 依하여 補給 任務를 遂行하라.

5. 出 港

- 가. 제901艇은 4月 21日 05.00 釜山出港하여 4月 22日 16.00까지 木浦에 寄港하여 整備完了하고 副食物을 購入하라.
- 나. 제901艇은 4月 23日 06.00 木浦出港 4月 24日 06.00까지 白翎島 近海에 到着하라.
6. 補給
- 가. 艦政局長은 제901艇 西海戰隊 旗艦으로 出動中 所要될 艦器品 一切를 出港 6時間前까지 供給完了토록 하라.
- 나. 鎮海統制府司令官은 제901艇이 西海戰隊 旗艦으로 出動中 所要될 補給物 및 油類等を 軍需部長으로 하여금 出港 6時間前까지 供給完了토록 하라.
- 다. 鎮海統制府司令官은 兵器官으로 하여금 제901艇이 西海戰隊 旗艦으로 出動中 所要될 彈藥 및 PT用彈藥은 PT 編隊本部和 連絡하여 所要 彈藥을 出港時間前까지 供給完了토록 하라.
7. 時間
- 東經135度 地方 標準時間을 使用하라.
8. 通信
- 가. 今次 行動期間中 제901艇은 任地 到着時까지 本部發射 晝間은 7420KC 夜間은 3710KC로 相互間 交信하라.
- 나. 제901艇은 任地 到着後는 本部 發射 晝間은 6400KC로 夜間은 3950KC이며 제901艇 發射 晝間은 6050KC로 夜間은 3920KC로 相互間 交信하라.
9. 其他
- 가. 人事局長은 제901艇이 西海戰隊 旗艦 任務 遂行中 通信士2명을 臨時配當하라.
- 나. 細部에 關하여는 追從 指示함.

부록 제129호

해군본부 작명 제92호

1952. 12. 8

1. PT 23, 25 艇長은 大尉 黃汀淵의 指揮下에 12. 12. 07. 00 鎮海 出港 12. 12. 14. 00 木浦 入港하여 木浦경비부사령관으로부터 (PT 23, 25) 各各 200G/L의 燃料補給을 받아 積載하고 12. 13. 06. 00 木浦出港 12. 13. 15. 00까지 大靑島 到着即時 CTE 95. 12 또는 CTE 95. 12가 指名한 C. T. U에 申告後 指示를 받아 行動하라.
2. PT 25, 23 艇長은 5 FATHAM 水深內에서 CTE 95. 12가 安全하다고 生覺하여 命令할 때는 作戰을 遂行하라(滿潮時는 더욱 淺은 곳에서도 作戰可能하다) 大尉 黃汀淵은 PT 25, 23艇 및 FS-901艇을 統合指揮하여 CTE 95. 12 指示에 合同 또는 個別로 作戰遂行하라.
3. 今般 作戰期間中 FS-901艇이 PT 25, 23艇의 母艦으로서 行動하여 主食 및 副食으로서 一人當一日 80g의 肉類와 80g의 野菜와 油類를 積載하고 있다.
PT 25, 23 艇長은 油類 및 副食을 FS 901艇에서 補給받으라 但 鎮海 出港日로부터 5日間の 副食은 各艇에서 準備하고 出動時 歸港時는 各各 2일분의 特別食糧을 901艇에서 補給받으라.
- 나. PT編隊長은 主計長 1名 炊事兵 2名을 901艇에 配屬시켜 소의으로 PT乘組員에 대한 炊事業務를 擔當케 하라.
5. 今次 出動時의 全補給은 FS-901艇이 할것이며 CTE 95. 12는 請求外 一切 補給하지 않는다.
6. PT 25, 23艇長과 FS-901艇은 本第四群으로 相互交信하라.
7. PT 25, 23艇은 歸港時 木浦入港하여 木浦司令官으로부터 各各 200G/L씩을 받으라.

2. 年 表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4月 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輕微. ○ 板間店 南쪽 汶山 西쪽 UN軍 진지에 대한 中共軍 2개 大隊의 夜間攻擊을 擊退 ○ F-86「세이버·젯트」機隊 上空에서 전개된 數次의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10臺擊墜, 3臺未確認, 擊墜 休戰會談 ○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休戰監視問題를 再次 合同分科委員會에서 檢討하기로 雙方同意, 同 分科委員會는 3月로 決定. ○ 正式文書에 韓國을 表示하는 用語로 UN軍側, 「韓國」 및 「朝鮮」兩者 共用을 示唆 ○ 捕虜交換 秘密參謀將校會議, 別無進展.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巴里 UN總會 韓國首席代表 張勉國務總理歸國. ○ 新舊國防部長官 離就任式舉行. ○ 申泰英 新國防部長官, 就任辭에서 國民의 自由와 安全의 保障 및 人類平和의 確保를 爲한 國防力의 充實을 強調. ○ 下外務部長官 捕虜強制送還 問題에 關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自由意思 原則의 尊重을 強調. 	4月 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輕微. ○ 1日午後 6時부터 24時間에 걸쳐 UN軍陣地에 投下된 共產軍 砲彈數는 4,693發, 그 中 4分の 3은 板間店 南쪽 및 東山東쪽 UN軍陣地에 集中. ○ F-86 세이버, 젯트機隊, MIG「젯트」機 3臺를 擊墜. ○ 美戰雲機隊 价川操車場을 攻擊. ○ UN空軍機隊 板間店 南쪽 및 西쪽의 中共軍陣地를 攻擊. ○ 美國防省發表—韓國戰線 美軍 死傷者 總計 106,955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162名의 增加.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UN軍側 共產軍側에 대하여 蘇聯을 中立國에서 除外하면 UN 軍側은 諾威를 除外할 用意있음을 提案 無成果
		4月 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依然輕微. ○ F86「세이버, 젯트」機隊, 2次에 걸쳐 北韓 上空 空中戰에서 敵 MIG「젯트」機 2臺를 擊墜하고 1臺를 不確實擊墜. ○ UN軍 爆擊機 및 戰爆機隊, 共產軍 補給路와 交通路를 大舉攻擊. ○ 申國防部長官, 「오제다」比律賓 韓國派遣部隊長에게 銀星 乙支武勳勳章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4月 4日	<p>을 授與.</p> <p>○ 「릿」總司令官 金浦飛行場到着, 「에베스트」中將 案內로 第5空軍 施設을 觀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 合同分科委員會再開—蘇聯의 中立監視團 加入問題 및 休戰期間中 飛行場 復興問題에 關한 兩側 立場의 聲明을 反覆.</p> <p>○ 捕虜交換參謀將校會議— UN軍側 要求로 1日休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長官, 在 鄉軍人 및 第2國民兵 手帖交付實施에 關하여 談話發表.</p> <p>○ 軍報道課發表—希臘軍으로부터 韓國 陸軍에 乾葡萄 4,000Kg贈呈.</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UN軍 「젯트」機隊, 戰線一帶에 對한 「네이팜」彈 攻擊을 계속.</p> <p>○ 「릿」將軍 言明—共產軍의 攻擊能力 增強은 空軍 勢力에 있어서 顯著, UN軍은 使命達成에 絶對的인 自信을 保持.</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捕虜交換 秘密參謀將校會議—再開되었으나 停滯狀態 打開코저 다시 無期한 休會.</p> <p>○ 「릿」將軍 休戰會談에 關하여 言明—會談은 進展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終局的 結論은 豫測困難.</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張國務總理, 統一 없는 休戰에 對한</p>	4月 5日	<p>韓國民의 反대는 UN에서도 잘 認識하고 있다고 記者會見談.</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平穩.</p> <p>○ UN軍部隊 鐵原 西方 前哨 陣地로부터 撤收.</p> <p>○ B26輕爆機隊 → 北韓地區 → 補給路를 夜間爆擊.</p> <p>○ UN空軍, 鎮南浦 → 海州地區에 對한 攻擊을 계속.</p> <p>○ 第2軍團編成式, 李大統領 參席下에 中部戰線 美 第9軍團 某飛行場에서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 合同分委—UN軍側 代表 「해리슨」少將, 韓國政治問題 해결을 위한 合理的이고 充實한 休戰을 願한다고 言明.</p> <p>○ 兩軍代表, 汶山, 開城間을 連絡하는 無線電話의 廢止에 合意.</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平穩.</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北韓 上空 空中戰에서 敵 MIG 「젯트」機 4기를 擊墜.</p> <p>○ 美 海軍當局發表—美戰艦 「아이오와」號 現役復歸, 5日부터 「워스콘신」號와 交代하여 第7艦隊旗艦으로서 作戰에 從事.</p> <p>○ 「웨이랜드」美 極東空軍司令官, 「모르·E·뷰스트」准將이 5月 上旬 極東空軍補給部隊司令官에 就任한다고 發表.</p>
		4月 6日	

월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UN軍機가 開城 中立地區로 向한 共產軍 休戰代表의 補給車輛을 統擊하였다고 抗議, UN 軍側 代辯人, 調査實施를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慶尙地區 戰歿勇士 遺骨奉送에 앞서 合同追悼式을 東萊 梵魚寺에서 舉行</p> <p>○ 9.28收復 當時 北韓反逆集團에 虐殺 當한 愛國志士 合同葬儀式 大田市에 서 舉行.</p>	<p>4月 8日</p>	<p>談話—共產徒輩의 主張은 自由世界의 道義의 基盤을 破壞.</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B26輕爆機隊, 共產軍 一線 後方 補給地區 및 補給路에 對하여 夜間 爆擊 계속.</p> <p>○ 李大統領, 美 海兵隊 第1飛行團長 「실트」少將에게 太極武功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 合同分委—飛行場 建設問題와 蘇聯의 中立監視團 參加問題로 依然膠着狀態.</p> <p>○ 「조」UN軍 首席代表, 日本으로 歸還.</p>
<p>4月 7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p> <p>○ UN 空軍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p> <p>○ B29爆擊機隊, 定州鐵橋 爆擊.</p> <p>○ 智異山 地區에서 警戒任務遂行中인 警察隊, 共匪 34名을 射殺하고 2名을 生捕.</p> <p>○ 4月 1日—7日間 共產軍 死傷者數 射殺 1,388名, 負傷者 1,244名, 捕虜 48名.</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 合同分委—UN軍側代表, 中立國監視團 4個國 構成과 飛行場 建設禁止에 關한 UN軍側 提案을 受諾한 것을 勸告, 共產軍側 固執不聽.</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防部長官談話—地方選舉 自由委 團氣保障을 爲하여 7日 午前 零時期에 全州市를 비롯한 一部 地域의 戒嚴解除.</p> <p>○ 陸軍 第1次 渡美 留學生 一部 歸國.</p> <p>○ 下外務部長官, 休戰會談에 關하여</p>	<p>4月 9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極히 平穩.</p> <p>○ UN軍 戰爆擊機, 定州, 順川間 敵鐵道施設을 攻爆.</p> <p>○ B29爆擊機隊, 宜川地區 橋梁施設을 爆擊.</p> <p>○ 美國防省 發表—韓國戰線 美軍 死傷者總數는 107,134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178名 增加.</p> <p>○ 4月 9日 現在 西南方地區 綜合戰果 敵 射殺 12,286名, 生捕 8,438名, 歸順 1,120名, 各種 砲 51門, 機關銃 269挺, 各種 小銃 4,690挺, 手榴彈 2,793個.</p> <p>○ 英 極東地上軍司令官 「케이브리」將軍, 休戰會談에 關하여 言明—UN軍 首席代表와의 會談後, 6個月內 平和</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達成의 樂觀的 見解保持.</p> <p>休戰會談</p> <p>○ 休戰監視 合同分委—UN軍側代表 共産軍側에 對하여 希望한다던 休戰期間中의 飛行場 建設問題와 蘇聯의 中立監視團 參加問題를 再次 參謀將校會議에 移管할 用意있음을 言明.</p> <p>○ 「해리슨」 UN軍 首席代表, 言明—共産軍側의 蘇聯 指名撤回의 代價로서 UN軍側의 休戰期間中 飛行場 建設 禁止提案을 撤回하라는 共産軍側提案은 受諾不能.</p> <p>政 治</p> <p>○ 國防部長官 補佐官에 元容德准將 崔榮喜准將, 第5局長에 鄭震晚准將, 第4局長에 朴勝黨大領 任命.</p>	<p>4月11日</p> <p>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B-29爆撃機隊 咸興換車場 및 球場 補給品集積所를 폭격.</p> <p>○ F86「세이버·젯트」機隊 新義州南 쪽에서 共産軍 補給列車를 폭격.</p> <p>○ 第5空軍所屬機隊, 金城 西北쪽地區 共産軍 陣地를 攻擊.</p> <p>○ 美 陸軍當局發表—4月 3日까지의 共産軍 死傷者數는 1,648,456名, 其中 1,164,428名은 戰鬪死傷者 351,760名은 非戰鬪死傷者 132,268名은 捕虜.</p> <p>○ 中國防部長官, 美 第9軍團副團長 「스미스」准將等에 武功勳章을 授與.</p> <p>休戰會談</p> <p>○ 休戰監視合同分委—向等無進展.</p> <p>○ 過去 一週間會談 每日 平均時間 4分</p>	<p>各道邑所在地에 兵務 輿論函을 設置.</p> <p>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B-29爆撃機隊 咸興換車場 및 球場 補給品集積所를 폭격.</p> <p>○ F86「세이버·젯트」機隊 新義州南 쪽에서 共産軍 補給列車를 폭격.</p> <p>○ 第5空軍所屬機隊, 金城 西北쪽地區 共産軍 陣地를 攻擊.</p> <p>○ 美 陸軍當局發表—4月 3日까지의 共産軍 死傷者數는 1,648,456名, 其中 1,164,428名은 戰鬪死傷者 351,760名은 非戰鬪死傷者 132,268名은 捕虜.</p> <p>○ 中國防部長官, 美 第9軍團副團長 「스미스」准將等에 武功勳章을 授與.</p> <p>休戰會談</p> <p>○ 休戰監視合同分委—向等無進展.</p> <p>○ 過去 一週間會談 每日 平均時間 4分</p> <p>政 治</p> <p>◇ 第5師團將兵, 「울림픽」後援 資助金 480餘萬圓을 同 後援會에 寄託.</p>
4月 10日	<p>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UN軍爆撃機隊, 北韓 一帶 共産軍 補給線을 계속적으로 攻擊.</p> <p>○ 韓國空軍 「무스탕」機隊 兼二浦 敵補給所를 爆擊.</p> <p>休戰會談</p> <p>○ 休戰監視合同分委—共産軍代表, 蘇聯의 中立監視團 參加問題 및 休戰期間中 飛行場 建設問題에 關하여 聲明 恣 朗讀, 休戰監視問題 討議를 參謀將校會議에 移管하는데 關해서는 不反對 表明.</p> <p>政 治</p> <p>○ 國會 全員委員會—非公開裡에 國防部 所送豫算案을 審查.</p> <p>○ 國防部 兵務局→釜山市內 7個所外</p>	<p>4月12日</p> <p>軍 事</p> <p>○ UN軍部隊→文登里 溪谷 前哨陣地에 暫時 撤收한 後 早曉에 再次 同陣地를 奪還.</p> <p>○ 「에베르트」美 第5空軍司令官言明—美 第5空軍은 지난 3月 25日부터 共産軍補給線에 對한 「制止作戰」의 新局面을 展開.</p>	<p>4月13日</p> <p>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UN軍艦載機隊, 北韓 清津工業施設 및 補給 根據地를 攻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F86 「세이버·젯트」機隊 5회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 MIG 「젯트」기 7臺를 擊墜하고 4臺에 損害.</p> <p>○ UN軍戰爆機隊, 定州·博川間 철도 시설 및 敵 補給中心地를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張共產軍 連絡將校, 休會中인 捕虜 交換參謀將校會議의 再開 用意있음을 「테버」UN軍 連絡將校에 通告.</p> <p>○ 共產軍側, 通告에 對하여 UN軍側 「테버」中領 言明—14日 會議는 再開 되지 않을터.</p>		<p>文化協定 完了部分 63條項 未協定條項 9. 포로문제 3. 飛行場問題 1. 中立國 指名 1. 關係國에의 勸告 1. 其他 3.</p>
4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平穩.</p> <p>○ UN軍部隊, 共產軍 4個小隊의 攻擊을 받고 北漢江 東쪽 前哨陣地로부터 一時 철퇴한 후 同陣地를 再奪還.</p> <p>○ 板門店 南쪽에서 共產軍의 探索攻擊을 격퇴.</p> <p>○ UN軍艦艇, 淸州港 砲擊.</p> <p>○ UN軍 戰擊機隊 海州 西쪽 共產軍 補給要衝을 攻擊.</p> <p>○ 「벤」將軍 司令官就任 1週年에 際하여 성명—休戰成立을 확신, 共產軍 我軍 前線에 移動時엔 直時 擊退.</p> <p>○ 「벤」將軍 韓國軍의 發展은 顯著하다고 讚揚.</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會談—UN軍 首席代表 「조이」中將, 「테버」少將과 東京으로부터 汶山 前進司令部 歸還.</p> <p>○ 休戰會談—現在 合同分科委員會 條</p>	4月1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中共軍 2個 中隊의 攻擊을 받고 北漢江 東쪽 前哨陣地(前日과 同一地點)를 一旦 철수한 後 다시 奪還.</p> <p>○ UN軍 戰車部隊 金城 西南쪽 共產軍 陣地를 攻擊.</p> <p>○ 汶山 西쪽 및 北쪽에서 UN軍 陣地에 對하여 共產軍 4회에 걸쳐 夜間攻擊.</p> <p>○ UN軍部隊 西部戰線 1個 前哨陣地로부터 撤收.</p> <p>○ UN空軍機隊, 鎮南浦를 攻擊.</p> <p>○ 美 極東海軍司令部發表—UN海軍 全艦隊, 韓國水域作戰에 出動, 第7機動部隊 空母 「피릿윈」 및 「시—복사」兩艦, 末明에 咸興, 元山, 陽德, 3角地帶의 鐵道目標을 攻擊.</p> <p>○ 在韓 英 第1師團長 「켓셀」少將言明 韓國休戰成立 後에도 同師團은 계속 駐屯.</p>
		4月16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隊戰 盆地帶北쪽 및 金城 西南쪽에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機甲部隊, 金城 西南쪽 共產軍 陣地를 攻擊.</p> <p>○ B26輕爆機隊, 朔州近傍, 操車場을 폭격.</p> <p>○ B29爆擊隊, 新安州 鐵橋을 폭격.</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4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國會談 第2日 韓國側으로부터 軍 事援助 경제원조 및 UN軍 貸與金徵 還 問題에 관한 議案을 提示한 後 討 議절차를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UN軍戰車部隊, 全咸西南各 共產軍 을 砲擊.</p> <p>○ 巨濟島 捕虜收容所 收容捕虜 7,922 名, 血書連判으로써 強制送還 反對歎 願書를 國會議長에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現在休會中인 捕虜問題討 議의 再開促求.</p>	4月20日	<p>○ UN空軍活動 日氣不順으로 低調.</p> <p>○ UN空軍攻擊機隊, 順川近傍 鐵道施 設을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捕虜交換 秘密參謀將校會議一約2週 日만에 再開 尙今 事務의 折衝段階.</p> <p>○ 休戰監視 合同分委一討議를 兩次 參 謀將校會議로 移管할 것을 決定.</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로 輕微.</p> <p>○ UN空軍 戰爆機隊 北韓 順川·三德 里間 철도를 攻擊.</p> <p>○ UN軍 「전더-젯트」機隊 鎮寧浦에서 敵 小船舶 15隻을 擊破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一兩側代表 蘇 聯의 中立國 監視團 參加問題와 아울 러 새로이 休戰期間中 飛行場 建設問 題를 討議, 無進展.</p> <p>○ 捕虜交換參謀將校會議一秘密會談 繼 속.</p>
4月1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輕微</p> <p>○ UN軍 艦載機隊 鎮南浦地區 및 元山 咸興間 鐵道를 폭격.</p> <p>○ UN軍 「젯트」機隊 敵 MIG「젯트」機 1臺를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 共產 兩軍代表 約2週日間 休會 한 捕虜交換 秘密參謀將校會議를 19 日 再開하기로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巨濟島 捕虜收容所 捕虜의 強 制送還反對 歎願書를 國防部 經由 板 門店休戰會談에 보내기로 決定.</p> <p>○ 大韓赤十字社, 全國 陸軍病院에 休 憩所 設置.</p>	4月2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로 平穩</p> <p>○ UN海軍部隊, 東海岸, 共產軍 軍事 施設을 계속 砲擊.</p> <p>○ UN海軍司令部 共產軍 海岸砲臺가 漸次 海軍作戰에 重要한 面을 가져오 고 있다고 發表.</p> <p>○ F86「세이버, 젯트」機50臺, 共產軍 「젯트」機 100臺와 3次에 걸쳐 展開된 서 空中戰에 敵 MIG 7臺를 擊墜하고 7臺를 擊破(共 中 1臺는 MiG15의 新 型機).</p>
4月1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輕微.</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B29爆撃機隊, 兼二浦地區 폭격.</p> <p>○ 美 太平洋艦隊司令官「레드포드」提督, 日本經由 來韓.</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監視參謀將校會議—共產軍側 代表, 飛行場問題에 대한 UN軍側 要求를 北韓內政에 대한 干涉이라고 言明.</p> <p>○ 捕虜交換參謀將校會議—秘密會議 계속.</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國防長官 談話—地方選舉 自由空 國氣保障을 위하여 21日 下午 零時를 期해서 江原道 洪川郡을 비롯한 戒嚴 地區 大部分의 戒嚴을 해제.</p>		<p>受諾原則을 廢棄하고 各自 中立國을 指定할 것을 主張.</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大統領令 第631號 「海兵學校令」 公 布.</p> <p>○ UN救護物資 寢具 防火用資材等 多量 釜山港에 入荷.</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散發的인 探索戰程度.</p> <p>○ UN空軍機·平壤·沙里院間에서 夜 間에 共產軍 補給部隊을 捕捉攻擊.</p> <p>○ B29爆撃機隊, 熙川鐵橋 및 定州操 車場을 爆撃.</p> <p>○ 美國防省發表—韓國戰線 美軍死傷者 總수는 107,668名, 昨週發表에 比하 여 395名의 增加.</p> <p>○ 「레드포드」 美 太平洋 艦隊司令 官, 韓國水域을 視察하고 美 第8軍司 令官 및 第5空軍司令官과 會談.</p>
4月2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依然靜穩.</p> <p>○ UN軍 爆撃機隊, 江界·新安州間 共 產軍 補給線을 攻擊.</p> <p>○ F86「세이버·젯트」機·敵 MIG機 1 臺 및 「야크」機 2臺를 擊墜.</p> <p>○ B29爆撃機隊 新安州鐵道側橋 및 咸 興操車場을 爆撃.</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捕虜交換 參謀將校 秘密會議—UN 軍側 南韓에 新設된 捕虜收容所 6個 所의 「리스트」와 地圖를 共產軍側에 手交 또 이에 收容된 共產軍 捕虜의 氏名國籍을 明示한 修正名簿를 手 交할 것을 言明.</p> <p>○ 休戰監視 參謀將校會議—飛行場問題 및 中立國問題를 討議. 共產軍側代表 中 立國問題에 對하여 合意안되면 共同</p>	4月2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平康 西南쪽에서 手榴彈 肉迫戰 展 開.</p> <p>○ UN軍部隊, 鍾川 西쪽에서 敵 1個分 隊와 交戰.</p> <p>○ UN海軍部隊, 淸津地區 共產軍砲臺 補給倉庫를 砲擊.</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敵MIG 젯트機 2臺를 擊破.</p> <p>○ UN空軍機, 平康地區에서 共產軍 戰 車 8臺를 擊破.</p> <p>○ UN空軍機, 一線地區 共產軍部隊에 對한 空中攻擊을 展開.</p>
		4月24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4月25日	<p>○ 武装共匪 百餘名, 慶南 河東邑에 來襲코 郡廳, 우체국, 消防署等에 放火人命被害 良民死亡 2名.</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法律 第243號 「軍法務官任用法」公布施行.</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UN空軍機 一線地區 UN軍部隊에 對한 掩護作戰을 계속.</p> <p>○ UN極東 空軍司令部, 美 空軍「요-지·윈드링」少領의 F86機가 13日 中 共軍에 擊墜되었다는 北京放送을 確認, 滿洲市內의 墜落도 可能함을 說明.</p> <p>○ 李應俊少將 現役復歸.</p> <p>○ 共匪 河東郡 第1·2선거구에 出沒코 선거사무를 방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捕虜交換 秘密參謀將校會議-共產軍側이 捕虜半數 以下の 歸還을 計劃하고 있다고 非難, UN軍側, 共產軍側의 秘密會談 無期休會 主張에 同意.</p> <p>○ UN軍側發表-UN軍代表 「히 크먼」 大領 言明-共產軍側은 秘密會談 第2日에 UN軍側에 抑留中인 舊韓國軍 捕虜 37,000名의 自由意思에 依한 送還에 同意.</p> <p>○ UN軍司令部 25日밤 共產軍側에 對하여 休戰交涉本會談을 27日에 再開할 것을 要請.</p>	4月27日	<p>敵 數個部隊을 砲擊.</p> <p>○ 金化 東南쪽에서 2次에 걸친 共產軍의 夜間攻擊을 擊退.</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敵 MIG機 3臺를 擊破損.</p> <p>○ UN軍 爆擊機隊, 宣川地區 共產軍鐵道를 攻擊.</p> <p>○ 美 海兵隊 所屬機隊, 一線地區 共產軍 鐵道를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本會談-27日 再開에 關한 UN 共產軍側 要求에 共產軍側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 特別使節團 一行 國防部를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경미하고 散發的인 接觸을 계속.</p> <p>○ 金化·金城間에서 UN軍, 共產軍 3個 部隊의 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定州地區 鐵橋를 폭격.</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敵 MIG 「젯트」機 3臺를 擊墜(其中 1臺는 未確認)하고 1臺에 損害.</p> <p>○ B26輕爆機隊, 共產軍 補給部隊를 攻擊.</p> <p>○ 「릿」將軍 聲明發表-共產軍은 現在 75萬의 訓練兵力을 保有, 滿洲에 1千 5百臺의 航空機가 集結되어 있으며 共產軍裝備의 大部分은 蘇聯製.</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代表 發表-今日 開會 豫定인</p>
4月26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砲兵部隊, 文登里 溪谷에서</p>		

일 일	주 요 사 랑	일 일	주 요 사 랑
4月28日	<p>休戰本會談은 UN軍側 要求로 中止.</p> <p>○ 休戰監視 參謀將校會議—飛行場 建設問題 및 中立國問題 未解決.</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金化 近傍 UN軍 陣地에 對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UN空軍活動 密委과 降雨로 極히 阻害.</p> <p>○ B26爆擊機隊 宣川附近 鐵道 要衝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會談—正式代表 非公開會談開催 (第44次 本會談). 兩日代表 要求로 本會談은 無期한 休會, 參謀將校會議도 一時 中止.</p> <p>○ 華府權威側, 言明—同日 本會談席上에서 UN軍側, 萬一 共產軍側이 捕虜問題에 양보한다면 休戰後의 北韓飛行場修築에 同意할 것을 提案, 또 UN軍側 全面的 해결책의 一部로서 休戰監視團 參加國名簿를 제출(華府 29日發 RP).</p>	4月30日	<p>符.</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今般 北大西洋 最高司令官에 榮轉하게된 「릿」將軍 및 新任 「크라—크」 UN軍司令官에게 各各 祝電</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大體平穩.</p> <p>○ 西部戰線 彼我間 砲兵戰 熾烈.</p> <p>○ B29機 熙川과 軍隅里間 新興洞 鐵橋를 폭격.</p> <p>○ UN軍 「세이버·젯트」機 鴨綠江 南쪽 空中戰에서 MIG 15 「젯트」機 6臺를 擊墜 4臺에 損害.</p> <p>○ UN戰鬪機隊 北韓內 敵 物資補給網을 猛打.</p> <p>○ 第5空軍, 夜間에 北韓交通網 攻擊코 車輛 89臺 擊破.</p> <p>○ UN空軍 「세이버·젯트」機, 4月中에 MIG 15 「젯트」機, 94臺를 擊墜破, 鐵道網 5,900個所 切斷, 砲臺 200個所, 防衛陣地 500處所 破壞.</p> <p>○ UN軍 4月中戰果—射殺 4,430, 負傷 5,123, 捕虜 123名.</p> <p>○ UN本部 非公式 發表—開戰以來 1951 未까지 敵側 損害는 166萬6,089名, UN軍 損害 41萬9,451名.</p> <p>○ 殘匪討伐隊 湖南地區에서 掃蕩戰계 속중.</p> <p>○ 慶南 警察局 4月戰果—共匪射殺 35名, 生捕 7名, 歸順 9名等.</p>
4月2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輕微.</p> <p>○ UN空軍, 惡天候를 무릅쓰고 北韓一帶鐵道 및 補給所를 攻擊.</p> <p>○ UN空軍爆擊機隊, 夜間에 東海岸 主要道路 46個所를 破壞.</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會談—過去 5個月 以來에 最初의 完全休會, UN軍側의 昨日의 秘密提案에 對한 共產軍側 同意與否가 期</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防部長官—線將兵 狩獵 嚴禁을 通達.</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5月 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에서 경미한 偵察戰鬪. ○ 共產軍 全戰線에 걸쳐 砲彈 5,635發을 發射. ○ 早晚에 南部戰線에서 치열한 彼此重砲射擊戰. ○ UN軍 戰鬪機 延 1,283回 出擊. ○ UN軍 爆擊機隊 北韓 東西兩岸의 敵 3大幹線 鐵路를 爆擊. ○ 國空軍 「무스탕」機隊, 新安州·平壤間 및 海州地區等 鐵路를 攻擊.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時에 共產軍側 明2日 本會議 再開 用意이 있음을 UN軍側에 通告.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部, 戰歿將兵에 對한 賜金의 支拂을 開始. 	5月 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 大體로 平穩. ○ UN空軍 西北韓 上空에서의 2次의 空中戰에서 敵 MIG機 4臺 및 LA12型 1臺를 擊墜. ○ 美 第5空軍發表—4月 26日—5月 2日 間에 敵機 14臺 擊墜破, 我方損失은 8臺. ○ 美 極東空軍發表—開戰以來 戰鬪上의 敵機 損失 564臺(不確實 122臺) 極東空軍所屬機 損失 657臺. ○ 美國으로부터 讓渡받은 哨戒艇 및 上陸用舟艇 各 2隻 正式으로 就航.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46次 本會談—24分間 南日 共產軍 代表의 聲明書 朗讀으로 始終 ○ 「나폴스」准將談—今日會談에서도 合意 未達.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軍 視察團 參觀下에 殺人死體 遺棄犯에 對한 模範公判, 釜山法院에서 開催. ○ 大統領令 第936號 燈火管制規則 同 637號 海軍工廠令, 同 638號 海軍訓練所令等 公布.
5月 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大體輕微. ○ UN軍, 北韓輸送路를 猛打. ○ UN軍 戰爆機隊, 新義州, 新安州間 敵操車場을 攻擊. ○ B29機隊, 定州·南市間의 古軍營洞 및 兼二浦 製鐵所를 爆擊.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45次本會談—上午 11時에 再開, 但 秘密會議. ○ 共產軍側, 4月 28日付 UN軍側의 全面的 解決案의 受諾을 拒否. ○ 日本人 記者 6名, 처음으로 會談場所 訪問.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韓軍警接護會, 戰歿軍警 遺兒愛護 	5月 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 漣川 西北等 陣地에서 3回에 걸친 激烈한 攻防戰後 이를 奪還. ○ UN空軍 鴨綠江 近方 空中戰에서 敵 MIG機 5臺를 擊破墜. ○ 濛洲空軍 「MK8」機隊 新義州飛行場을 急襲.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5月 5日	<p>○ B29機 10臺, 定州鐵橋를 폭격, B26 機隊 夜間에 海軍機와 協同해서 敵補給車輛을 攻擊.</p> <p>○ 智異山地區 殘照掃蕩戰, 10名射殺 2 名 生捕.</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陸軍 第2訓練所 開所式 論山에서 舉行.</p> <p>○ 平壤放送—1月 13日 捕虜가 된 美 第5空軍 輕爆擊機隊所屬 「존·키— 에」, 「L. 에 녹크」兩中尉가 美軍細菌戰 實施의 真相을 自白.</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地上部隊, 高城 南쪽, 金化 北 쪽·漣川 西北쪽에 來襲한 敵 部隊을 擊退.</p> <p>○ 美 第77機 勳壘隊 艦載機隊, 東海岸 戰線 敵 補給倉庫 및 敵部隊을 攻擊, 敵 死傷者 400名.</p> <p>○ UN空軍戰鬪機隊 東部 및 中部戰線敵 集結地를 攻擊코 敵 130名 殺傷.</p> <p>○ 美 中型 폭격기대 敵 輸送據點 熙川 操車場을 連日 爆擊.</p> <p>○ B29機隊 熙川鐵橋를 폭격, 夜間 폭 격기대 및 艦載機隊 夜間에 敵 交通 路를 攻擊.</p> <p>○ 美 空軍 第51戰鬪爆擊機隊 副司令官 「센스」 大領, 지난 1日의 西北韓上空 空中戰에서 行方不明.</p> <p>○ 中國防部長官 金一煥少將等 110名에 武功勳章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48次本會談—11分間에 開會, 別無</p>	5月 6日	<p>成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當局者 一線勞務者의 交代를 實施中이라고 說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 第5空軍戰爆機, 順川地區 敵鐵道 施設을 大爆擊.</p> <p>○ UN空軍 5, 6日 兩日에 걸쳐 敵의 重 要 鐵道補給路에 集中的 波狀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49次 本會談—15分間.</p> <p>○ 兩日 共產軍側代表, 準備된 聲明書 를 朗讀한 後 休會提案.</p>
		5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서 小規模探索戰.</p> <p>○ UN空軍 爆擊機隊 平壤 北쪽地區 共 產軍 鐵道網 猛攻.</p> <p>○ 濠洲 陸軍總參謀長 「S-F·브웰」中 將 서울에 到着.</p> <p>○ 「브웰」中將, 在韓 英聯邦軍司令官「보 릃지르스」將軍과 前線의 英軍視察.</p> <p>○ 在韓 希臘軍 「베드리야아노스」少將, 申 國防部長官에게 希臘乾葡萄 480箱子 및 洋酒 20瓶을 國軍用으로 贈呈.</p> <p>○ 巨濟島 捕虜收容所長 「푸란시스·T 돛트」准將, 捕虜와 會談中 必時 15分 頃 捕虜에 拉致當하였고 同行하였던 「레이분」中領은 脫出.(美 第8軍司令 官 8日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0次本會談—「쵸이」代表, 共產軍 側이 會談打開策 講究時까지 休會를 提案, 共產軍側 이에 反對.</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5月 8日	<p>○ 共產軍側, 記者團에 對한 最近 秘密 會談 內容發表에 同意.</p> <p>○ 「조이」代表 會談後 言明—蘇聯을 中立國監視團으로 부터 除外하는 대신 에 北韓內 飛行場 建設制限을 없애고 또 全捕虜를 強制送還하자는 共產軍側의 5月 2日 付提案을 UN軍側 反對.</p> <p>○ 「조이」代表談—雙方의 休戰代表는 休戰期間中の 飛行場 建設禁止問題 및 蘇聯의 中立國監視團參加問題에 있어서 同意에 到達.</p> <p>○ 南日代表, 다음 段階는 UN軍側 態度如何에 달렸다고 主張.</p> <p>○ 「릿」將軍, 4月 28日付 UN軍側 最後 提案內容을 發表. ① 自由意思에 따라 UN軍 捕虜 1萬 2千과 共產軍 捕虜 13萬 2千中 7萬과 交換 ② 共產軍側의 飛行場 建設 無制限 ③ 中立國에서 「쓰」除外, 敵側의 同案拒否에 대하여 休戰成立은 共產側 指導者 態度如何에 달렸다고 特別聲明 發表.</p> <p>○ 「릿」將軍 同上 聲明에서 UN軍側의 이견上 讓步는 없을 것이며 明日會談 으로부터 公開될 것을 言明.</p> <p>○ UN軍司令部 涉外局, UN軍側의 全面的 解決案 3項目 內容을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國防部長官, 記者會見談—休戰議員 事件은 個人問題, 捕虜自意 歸還을 希望, 日本 再武裝에 韓國은 對等武裝 必要.</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5月 9日	<p>○ UN軍 數個戰線 突破를 企圖하는 敵 前哨部隊를 擊退.</p> <p>○ UN軍砲兵隊, 發射砲彈數 5, 132發.</p> <p>○ UN軍戰車隊, 金化·金城間에서 敵 2個大隊 粉碎코 敵軍 「토—치카」 90 個所 塹壕 82個所等 破壞.</p> <p>○ UN空軍 北韓 上空에서 MIG「켓트」 機 3臺 擊墜.</p> <p>○ UN戰爆機隊 遼安의 敵 補給物集積 所를 終日 猛打코 315個 補給倉庫를 破壞.</p> <p>○ B29機 11臺 宣川 兗州間의 郭山 鐵 橋를 폭격.</p> <p>○ 「릿」將軍 및 「크라—크」將軍 作別 및 新任人事次 在韓 UN軍部隊 訪問.</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今日會談(第51次)부터 公開會談, 8 分만에 休會.</p> <p>○ 南日代表, 13分間에 걸쳐 UN軍側의 最後的인 提案反對의 理由를 說明코 捕虜의 歸還意思有無의 個別審査案을 反對.</p> <p>○ 「조이」代表, 會談後 言明—進展 殆 無 敵側은 捕虜 13萬 2千名 全部送還을 要求.</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UN軍側에 通告 文 傳達—7日 밤 UN機가 鴨綠江 南岸의 昌城 UN軍 捕虜收容所를 폭격하였다 고.</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서 探索戰.</p> <p>○ UN軍地上軍 및 戰車隊 板門店 東北 쪽에서 中共軍 1個大隊과 終日戰鬪코</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若干 後退後 奪還.</p> <p>○ UN空軍 안개전 日氣에도 계속틀겨 코 敵 輸送路 攻擊.</p> <p>○ UN軍司令部發表—巨濟島 捕虜收容所長「돗드」准將을 捕虜들이 7日 14時 15分부터 收容所內에 監禁中.</p> <p>○ 「깃」將軍 「벤」將軍에 「돗드」准將 救出을 命令코 必要時의 武力行使도 指示.</p> <p>○ 「깃」將軍 서울에서 言明—「돗드」准將事件에 責任을 느낌. 上記 捕虜들의 要求는 事務的인것(組織의 自由 紙類等 要求).</p> <p>○ 「벤」將軍 巨濟島視察後 서울에서 聲明—斷呼「돗드」准將을 救出. 「돗드」准將은 無被害, 捕虜의 不合理한 要求엔 不應, 監禁事件 調查委員會 任命 事件發生所 以外의 捕虜는 平穩.</p> <p>○ 巨濟島 捕虜收容所長 代理에 「찰스·F. 콜슨」准將(美 第1軍團 參謀長)新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2次本會談—捕虜問題로 依然膠着 狀態.</p> <p>○ 南日代表, UN軍側의 捕虜交換 提案은 言語道斷이라고 反對發言 反覆.</p> <p>○ 「조이」代表, 會談席上에서 共產軍側에 應酬—確固하고 終局的인 UN軍司令部의 主張을 貴側은 充分히 理解했을 것이라고.</p> <p>○ 南日代表, 共產捕虜의 暴動을 英雄的 共產捕虜의 抗爭이라 言明 但「돗드」准將 事件엔 不言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크라—크」, 「릿지웨이」 兩 將軍, 李大統領을 臨時官邸(釜山)로 禮訪.</p> <p>○ 「크」將軍, 釜山에서 記者團에 言明—休戰後의 不安全平和 狀態下에서는 UN軍의 韓國撤收를 防止함에 努力하겠다.</p> <p style="text-align: center;">5月10日 軍 事</p> <p>○ UN地上軍, 西部戰線에서 9日에 占領當한 數個地點을 奪還.</p> <p>○ B29機隊 新安州 北쪽 宣川·安州間의 郭山 鐵橋를 폭격.</p> <p>○ B26機隊 夜間에 北韓內 敵 重要輸送網을 猛攻.</p> <p>○ 「벤」將軍 聲明—捕虜들에게 「돗드」准將 安全釋放 및 要求條件 提示를 通告.</p> <p>○ 美제8군發表 「돗드」准將 78時間 15分만인 10日 21時 30分에 監禁解除, 捕虜의 要求는 各 收容所間 電話線 設置, 筆記用紙供給 他收容所代表의 出入 自由等 UN軍側 이에 多少 讓步.</p> <p>○ 「벤」將軍談—捕虜들의 要求는 不合理한 것.</p> <p>○ 「벤」將軍 巨濟島를 再次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3次本會談—捕虜交換에 關한 雙方의 立場無變化, 1分만에 終了.</p> <p style="text-align: center;">5月11日 軍 事</p> <p>○ 戰線에 걸친 敵의 探索活動을 全部 擊退.</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5月12日	<p>○ 數日間 澗川 西北쪽 및 西方地區에서 敵軍活動 活發化.</p> <p>○ UN空軍 戰爆機隊, 前線 一帶 및 臨津江 西方地區 強打.</p> <p>○ 美中型 爆擊機隊 夜間에 北韓內 重要鐵道網을 再次 攻擊.</p> <p>○ B29 熙川 鐵橋에 高性能爆彈 90屯을 投下.</p> <p>○ 「돛드」准將 서울 美8第軍司令部에 到着, 高位層 그를 訊問中.</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4次本會談 會談席上에서 共產軍側은 捕虜審査結果 眞相을 두려워한 다고 非難코 그 會談遲延策을 痛駁.</p> <p>○ 南日代表, UN軍側이 每月 百名씩 捕虜를 虐殺하고 있다고 非難.</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UN機가 4月9日 및 10日, 5日 10日밤에 板門店 中立地帶를 侵犯하였다고 UN軍側에 非難 通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로엘」豪 陸軍總參謀長, 李大統領 禮訪.</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친 探索戰, 連日 계속.</p> <p>○ UN軍 金化 東北쪽에서 手榴彈激戰 後 敵을 擊退.</p> <p>○ UN軍 澗川 西北方地區에서 철수후 13日 午前 1時에 再奪還.</p> <p>○ 板門店 東北쪽에서 數日後부터 美 第1海兵師團이 國軍 第1師團과 交代 코 中共軍과 交戰中.</p> <p>○ UN空軍 敵 補給網을 連續猛打.</p>	5月13日	<p>○ 今日 UN空軍 總出擊數 1,050回.</p> <p>○ 「크라크」將軍 東京에서 聲明一巨 濟島 捕虜收容所 新所長 「콜슨」 准將의 捕虜와의 同意事項 「돛드」 准將의 석방대가 ① 巨濟島內에서 流血除去에 努力하며 捕虜를 國際法에 依據 待遇 捕虜의 審査 및 再武裝中止 ② 捕虜代表團 조직 容許.</p> <p>○ 「돛드」准將 東京에서 監禁事件 眞相을 聲明 監禁은 計劃的인 것.</p> <p>○ 「크」將軍談-「돛드」准將의 釋放은 新所長 「콜슨」准將의 석방 요구에 불응하던 武力行使 라졌다고 最後 通牒한 것에 捕虜가 應한 것.</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5次本會談, 52分間 계속코 捕虜 待遇問題로 舌戰.</p> <p>○ 「조이」代表 會談後에 가장 惡質的인 敵側 宣傳에 旋風에 부딪혔다고 記者에 說明.</p> <p>○ 共產軍側, 捕虜問題로 惡宣傳 開始.</p> <p>○ 共產軍側, UN軍機가 11日에 平壤 東쪽 第8捕虜收容所를 統擊하였다고 抗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長官室에서 國防法制委員會 最初 會議開催.</p> <p>○ 國防部에서 三軍政訓監會議 開催코 對內 政訓工作 積極推進을 討議.</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 및 中西部戰線 戰鬥輕微.</p> <p>○ UN空軍, 敵 補給車輛을 猛打.</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UN空軍 「젯트」機隊 終日 6次의 空中戰에서 敵 MIG 15「젯트」機 13臺 擊墜破.</p> <p>○ 美 空軍 中型爆擊機隊 계속적으로 夜間에 北韓內 重要 鐵道網 攻擊.</p> <p>○ B-29機隊, 新興洞 鐵橋 및 咸興操車場 爆擊.</p> <p>○ UN空軍 總 有效出擊數 1,230回.</p> <p>○ 巨濟島 捕虜收容所長 更迭, 「돛트」准將은 第8軍으로 轉任.</p> <p>○ 中國防長官, 砲兵司令部顧問官(해리 스미스)中領에게 武功勳章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6次本會談—35分間 계속로 捕虜問題로 論爭.</p> <p>○ 敵側, UN軍側의 捕虜待遇를 非難.</p> <p>○ 「조이」代表, 惡質의 宣傳目的으로 會議를 使用하고 있다고 共產軍側을 攻擊.</p> <p>○ 南日代表, 會議席上에서 UN空軍隊가 12日 11時 30分 黃州 北쪽에서 共產軍側 休戰代表團 輸送隊를 攻擊코 要員 1名을 殺害하였다고 非難.</p> <p>○ 「니콜스」UN軍側代辯人, 同上問題는 連絡將校間의 取扱問題이며 本會議에서 論議될 것이 아니라고 指摘.</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에서 各地區 兵事區司令部 政訓室長會議 開催.</p>		<p>○ B29 新興洞·熙川·軍隅里等 鐵道輸送路 爆擊.</p> <p>○ B29 興南化學工場 爆擊.</p> <p>○ UN空軍 出擊數 1,100回.</p> <p>○ UN軍 8日~14日間 戰果, 敵殺傷 2,733名.</p> <p>○ 「보트너」新巨濟島 捕虜收容所長 着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57次本會談—「조이」代表 ↔ 共產軍側은 UN軍側의 終局的折衷案에 當面하기를 꺼려하고 兩側間 見解差異點을 擴大시키는 宣傳만 되풀이 한다고 非難.</p> <p>○ 南日代表 UN軍側이 捕虜를 非人道的으로 待遇하고 「제네바」協定을 違反하였음을 「콜슨」准將이 全世界에 證明하였다고 「콜슨」협정을 引用非難.</p> <p>○ 共產軍側 UN軍側이 次裂을 宣稱하지 않은 限 休戰會談을 每日 持續시키자고 提議.</p> <p>○ 共產軍側, UN軍機가 開城地區를 火焰彈으로 攻擊했다고 非難.</p> <p>○ 「키니」UN軍側 連絡將校, 共產軍側連絡將校와 同上事件을 現場調査.</p>
5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서 경미한 探索戰 계속.</p> <p>○ UN軍戰車隊, 金化 西北쪽에서 三次에 걸친 激戰後 敵의 攻擊을 擊退.</p>	5月1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大體로 平穩.</p> <p>○ F86, 敵 MIG 「젯트」機 3臺 擊墜.</p> <p>○ 美 中型爆擊機隊 夜間에 北韓重要鐵道 攻擊.</p> <p>○ UN空軍 出擊數 1,220回.</p> <p>○ 「크라이크」UN軍司令官 聲明—前巨濟島 捕虜收容所長 「콜슨」准將의 對</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共産軍捕虜 讓步條件은 完全無効, 同事件은 捕虜交換問題를 妨害하려고 計劃된 것, 外部와의 連絡 있음을 明白.</p> <p>休戰會談</p> <p>○ 第58次本會議—48分間이나 捕虜問題로 論爭後 無成果</p> <p>○ UN軍側, 共産軍側이 建設的 提議時까지 休會할 것을 提案하였으나 敵側이를 拒否.</p> <p>政 治</p> <p>○ 平人家族의 通信 및 平人家族消息探知事項, 大韓赤十字社에서 取扱開始.</p> <p>○ 陸軍 運轉兵學校 創設.</p> <p>○ 中共軍 및 傀儡軍司令部代辦人, 「크」UN軍司令官 聲明을 非難코 共産軍은 捕虜의 母國歸還權을 獲得 할 때까지 戰鬪을 中止하지 않겠다고 強硬聲明.</p>		<p>30分만에 休會 別無進展.</p> <p>政 治</p> <p>○ 國會發表—傀儡軍 捕虜 17,000名 以上の 3週日 前에 送還反對 陳情書를 國會에 提出코 共産主義와의 鬪爭을 盟誓.</p>
5月16日	<p>軍 事</p> <p>○ 全戰線 경미한 偵察戰.</p> <p>○ UN空軍 兼二浦 製鐵工場을 爆擊.</p> <p>○ UN空軍 夜間에 新安州 南쪽을 攻擊.</p> <p>○ 國空軍 F51 「푸스탕」機隊, 美海軍機와 共同으로 戰線 및 敵軍集結基地 55個所를 破壞.</p> <p>○ 「보-로너」巨濟島收容所長, 共産軍側捕虜代表와 會見開始. (命令服從을 指示하기 위한 것).</p> <p>○ 崔榮喜 准將 美銅星勳章을 受領(1951年 7月 楊口方面 作戰功勞 國軍中 最高受勳者).</p> <p>休戰會談</p> <p>○ 第59次 本會議—捕虜問題로 論爭後</p>	5月17日	<p>軍 事</p> <p>○ UN軍 西部戰線에서 敵陣을 奇襲.</p> <p>○ UN軍戰車隊 中西部戰線의 敵陣을 기습코 70個所의 「빙커」와 武器貯藏所를 破壞.</p> <p>○ B29機隊 熙川鐵橋·咸興操車場·沙里院 飛行場 猛打.</p> <p>○ 極東空軍 830回 出擊 敵 砲臺 35個所, 壕 40個所等 破壞.</p> <p>○ UN海軍 北韓 東西 兩岸에서 4日間에 걸쳐 敵補給 輸送施設에 集中攻擊.</p> <p>○ 美 第9軍團將兵 原子力被襲 想定코 前線서 模擬演習 實施中.</p> <p>○ 巨濟島 共産軍 捕虜示威運動 계속 中, UN軍 警備隊, 收容所周邊에 바리케을 構築코 警備強化.</p> <p>○ 美 極東空軍司令部發表—美 第5空軍司令官에 「그렌·O·바-카스」中將 新任 前司令官 「프랭크·에베레스트」中將은 任期完了로 美戰術空軍副司令官에 就任豫定.</p> <p>○ 美 5空軍發表—5月 10日~16日 間에 敵 MIG 15型 「젯트」機 18臺擊墜破. UN軍機 14臺 喪失.</p> <p>○ 巨濟島捕虜收容所 病院에서 16日, 17日 兩日間에 入院中인 捕虜 및 의료원들이 籠城스트라이크를 곧 鎮壓.</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0次本會談—「조이」代表 4月 28日附 UN軍側 提案을 逐條說明. 이以上 不讓步라고 言明.</p> <p>○ 共產軍側, 連日의 非難단 反覆.</p>		<p>將에 元容德, 李俊植, 崔榮喜, 申應均, 咸炳善, 空軍少將에 崔用德, 陸軍准將(臨時階級)에 朴勝燾 各各 進級.</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2次本會談—無進展.</p> <p>○ UN軍側 首席代表에 「W.K. 허리슨」少將(UN軍 代表團에는 1月 23日 任命) 新任. 「조이」代表는 美(아나폴리스) 海士校長에 任命.</p>
5월 1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5월 2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比律賓 部隊 鐵原西쪽 中共軍 陣地를 宣戰코 白兵戰으로 中共軍 40名 殺傷</p> <p>○ 東部 西部戰線에서 敵軍砲擊熾烈 全戰線에서의 敵砲彈 發射數 3,930發</p> <p>○ 韓國內 某 共產軍捕虜收容所(10,400名 收容)內 捕虜들, 愛國家를 부르며 反共을 盟誓.</p> <p>○ 巨濟島捕虜收容所—共產軍 女子捕虜 800名中 430名이 歸還을 希望.</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61차 本會談—45分間, 「조이」代表 共產軍捕虜 待遇와 세군戰에 對한 共產軍側 非難을 幻想的인 것이라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各戰線에서 散發的인 偵察戰 展開.</p> <p>○ B29編隊, 北韓內 敵 軍事 目標物을 攻擊.</p> <p>○ UN空軍 敵地上砲火로 美空軍 F86 1臺 F84 1臺 및 英空軍單 座戰爆擊機 喪失.</p> <p>○ 美空軍 第3空中救護隊「헤리콥터」로 同上 墜落機操縱士를 敵陣에서 救出.</p> <p>○ UN空軍 夜間에 順川假鐵橋 및 咸興 地區 物資貯藏地帶를 폭격.</p> <p>○ 陸軍中將에 劉載興, 李亨根, 陸軍少</p>		<p>○ 全線에서 彼我探索戰 계속.</p> <p>○ F86機隊 鴨綠江 南쪽에서 敵 MIG-15「젯트」機 4臺를 擊墜.</p> <p>○ 開戰以來 今日까지 第5空軍 機敵 MIG-15「젯트」機 302臺를 擊墜.</p> <p>○ 「엔」將軍 最近 東部戰線에서 敵 11名을 擊滅한 國軍探索隊 指揮官을 絶讚.</p> <p>○ 釜山市 巨濟里 捕虜收容所에서 治療 反對코 共產軍 捕虜가 暴動, 捕虜 1名 死亡, 輕傷 85名 警備隊員 1名 輕傷.</p> <p>○ 捕虜收容所當局, 巨濟島 捕虜收容所 病院事件 및 釜山收容所事件 調査後 病院이 捕虜間의 秘密文書 傳達所로 사용 되었음이 判明 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3次本會談—共產軍側, 捕虜問題로 UN軍側에 對한 非難단 反覆 捕虜의 共同審査를 再次拒否.</p> <p>○ 南日代表發言, UN軍側은 共產軍捕虜에 殺戮의 暴行과 歸還妨害를 敢行 하고 있으며 捕虜送還에 關한 UN軍側報告는 虛言이며 詐欺, 이는 「롤슨」</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5月21日	<p>准將의 公式的 告白이 證明.</p> <p>○ 「쑤이」代表, 會談後 記者團에 言明 一會談開始以來 가장 惡質의이며 卑劣한 宣傳이었다고 南日代表 發言을 非難.</p> <p>○ UN軍側, 休戰協商代表團員에 美 第25師團長代理 「프랑크·C·맥콘넬」 准將 新任.</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에 召集保留者等 兵務關係調査委員會를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서 彼我 探索戰 계속.</p> <p>○ UN軍戰車隊 平康 南岫·金化 西北方에 位置하는 敵 目標物을 攻擊.</p> <p>○ B29, 兼二浦, 咸興 新興洞 鐵橋를 爆擊.</p> <p>○ 美 第5空軍 第18戰爆擊機隊 副司令官 「볼튼」大領 對地上攻擊에 出擊한 後 行方不明.</p> <p>○ 5月 15日~21日間 敵損害(地上戰鬪) 計 3,237名, 戰死 1,127名, 捕虜 27名, 負傷 1,171名.</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4次本會談一無進展.</p> <p>○ 「쑤이」代表, 共產軍側의 허위 비난은 休戰協定 成立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警告.</p> <p>○ UN軍側, 初戰에 포로가 된 5萬名의 UN軍 포로를 共產軍에 強制編入시켰거나 中共地域으로 移送시켰다고 共產軍側을 非難.</p> <p>○ 南日代表, 이 非難은 UN軍側이 共</p>	5月22日	<p>產軍 捕虜를 UN軍에 編入시키려는 수작이라고 論駁.</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傷殘軍人 第21次 除隊式 第839部隊에서 舉行.</p> <p>○ 中國防部長官 徐大尉 遭難事件에 對하여 徐議員이 석방된 것은 無罪 때문이 아니며 依法處斷 될터이니 動搖 말라고 全將兵에 佈告.</p> <p>○ 中國防部長官, 當面 問題에 關하여 記者會見談—① 徵用證濫發은 事實無根 ② 軍風紀 계속 團束中 ③ 國軍擴張 推進中.</p> <p>○ 「딧」將軍 美上院軍事委員會 秘密會談에서 2時間 證言內容—① 極東 蘇聯軍 增大顯著 ② 早期 休戰成立可能性 薄弱이나 후전회담 決裂策은 不實明 ③ 在韓 UN軍은 全面 攻勢可能한 兵力이 不足 ④ 共產軍 포로 強制送還反對 ⑤ 細菌戰 云云은 허위선전 ⑥ 在韓 共產軍 兵力은 一年前에 比해 현저히 증강.</p> <p>○ 英政府代辯人 英國이 韓國戰爭에 「내이람」彈 使用 中止를 要請했다는 說을 否認.</p>
	<p>○ 全戰線 大體 平穩.</p> <p>○ UN戰爆機隊 平壤地區를 猛爆擊.</p> <p>○ 美國防省發表 一開戰以來 美軍 損害 計 108,707名, 戰死 17,172名, 負傷 79,060名, 行方不明 12,475名.</p> <p>○ 「벤」將軍 捕虜騷擾는 不遺鎭壓 될 것이라고 巨濟島 視察後 言明.</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5次本會談—「조이」代表 上午會談에서 休戰會談 成敗는 共產軍 手中에 있다고 告別聲明.</p> <p>○ 「조이」代表, 同上 聲明에서 共產軍側은 分裂된 軍隊를 再整備하는 時間을 일고자 會談을 遲延시키고 있다고 非難.</p> <p>○ 「조이」提督, 10個月餘를 回顧코 이 以上の 協商의 餘地는 없다고 言明.</p> <p>○ 南日代表, 下午會談에서 UN軍側이 休戰協商을 瓦解에 이끌어 가고 있다고 反駁.</p> <p>○ 下午會談에 「해리슨」少將이 UN軍側 首席代表로서 參席.</p> <p>○ 「조이」提督, 10個月 12日間の 任務를 끝마치고 板門店 離別.</p> <p>○ 「해리슨」代表, 共產軍側이 建設의 提案을 할 때까지 休會를 提案, 敵側 이 를 拒否.</p> <p>○ 會談開始以來 今日까지의 討議所要 時間 752時間 36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릿」將軍 美上下院 合同會議에서 韓國休戰會談·極東事態等에 關하여 演說.</p> <p>○ 「릿」將軍, 同上演說에서 『敵側의 細菌戰 云云은 自由世界가 直面하고 있는 可恐한 危險을 一層탐색케 하는 非難宣傳이라』고 言明.</p> <p>○ 「트」大統領 기자회견席上에서 蘇極東軍事力의 증강 및 韓國 평화가망성의 회박을 論證한 「릿」將軍의 見解에</p>	<p>5月23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서 探索活動반.</p> <p>○ UN空軍機隊 平壤 鎭南浦地區 共產軍 軍需工業地帶을 開戰以來 最大猛爆擊.</p> <p>○ 2日間の 連續爆擊으로 平壤地區 305棟의 工場建物 破壞코 15棟에 損害.</p> <p>○ UN空軍 東海岸의 敵機關車群을 擊破.</p> <p>○ 第5空軍 17~23日間 損失 10臺.</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6次本會談—「해리슨」代表. 會談席上에서 聲明—4月28日付 UN軍側提案은 最大限 양보한것, UN軍側 立場不變.</p> <p>○ 「해리슨」代表, 共產軍側에게 UN軍側提案 研究要望코 27日까지의 休會를 提案 共產軍側 이에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務省發表—在韓 UN軍 16個團에 非公式으로 共產軍 新攻勢의 可能性을 10日전에 警告</p>	<p>贊同.</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一般的으로 경미.</p> <p>○ B 29 空中要塞機隊 咸興操車場 폭격.</p> <p>○ F 84 「젯트」機 및 國空軍 F 51(무스탕)機隊 新安州·郭山間 鐵路를 攻擊.</p> <p>○ 第8軍發表—4月 10日의 巨濟島 第95 捕虜收容所 폭동사건에 雙方 71名이 死傷.</p> <p>○ 「콜슨」大領(前准將) 第1軍團參謀長에 계속 근무.</p>
		<p>5月24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英軍 및 加奈陀軍 20個中隊 警備次 서울에서 巨濟島 도착.</p> <p>○ 巨濟島 第76捕虜收容所內에 「돛트」 准將事件 以來의 各 捕虜收容所代表 中央委 尙存.</p> <p>○ 巨濟島 포로수용소 17個收容所中 11 個所가 「보트너」收容所長의 指示로 赤旗撤回.</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代辦人 「니콜스」准將 休會期間中에 南日代表가 4月28日 以來의 會議記錄을 回顧 研究하기를 要望한 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防部長官 來日 子正을 期한 非常戒嚴宣布는 後方治安 完全確立을 期하기 위한 것.</p> <p>○ 新任第5空軍司令官 「머카스」少將 및 前司令官 「어베스트·에베르스트」中將, 李大統領 禮訪.</p> <p>○ 韓國에서 一年間 戰鬪한 加奈陀歸還 部隊 1,000名 歸國.</p>	<p>5月25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大體平穩.</p> <p>○ 西北韓 上空에서 F 86機隊 敵 MIG 15「젯트」機 4臺를 擊墜.</p> <p>○ B29爆擊機隊 郭山地區 敵 鐵道施設 을 폭격.</p> <p>○ 國際赤十字代表 「호프만」·「마크 하트」兩氏, 巨濟島 共産軍捕虜代辦人 李大佐와 會見.</p> <p>○ 巨濟島 捕虜收容所間 및 外部와의 秘密 「턴넬」發見.</p> <p>○ 李大統領 前 美極東海岸封鎖司令官 「조지·C·다이너」少將에게 太極 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嶺南地區戒嚴司令官에 元容德少將, 全南北地區司令官에 李鍾贊中將.</p> <p>○ 申國防部長官 記者會見談 釜山地區 戒嚴令宣布는 兵站基地守護와 徐議員 事件을 계기보한 共匪陰謀를 방지하 여 軍作戰遂行에 萬全을 期함에 있음.</p>	
	<p>○ 「릿」將軍의 上院軍委에서의 秘密證言 一部公開 ① 滿州 목적은 蘇空軍을 韓國戰爭에 介入시키는 危機를 增加하는 것 ② 韓國의 喪失은 日本과 美國安全을 危脅 ③ 巨濟島 捕虜는 小그룹으로 分離收容이 可.</p> <p>○ 「릿」將軍 同上 證言에서 政治的 希望없이 軍事力만으로는 韓國戰 終結 不可能이라고 重大證言.</p> <p>○ 美 陸軍省 4月 10日의 巨濟島捕虜爆 動眞相을 發表. 捕虜 3名과 韓國軍步</p>	<p>5月26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UN空軍 平壤·肅川間 敵 鐵路, 貨 車를 攻擊.</p> <p>○ UN戰爆機, 海兵隊機, 韓國軍機隊, 戰線一帶의 敵基地 및 補給路를 猛爆</p> <p>○ 巨濟島 捕虜收容所當局 秘密情報內 容 一部를 公開 極烈共産軍 捕虜들 이 反共同像를 所謂 收容所內 人民裁 判으로 數10名을 殺害.</p> <p>○ 巨濟島 포로수용소·現在 韓·美·</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여 사 항
	<p>英·希·和·加的 6個軍이 警備中.</p> <p>休戰會談</p> <p>○「레리슨」UN軍側, 首席代表 記者會見談—①人權의 尊嚴性을 擁護하기 위한 UN軍側으로서는 捕虜問題에 對한 4月28日案은 最終的인 것 ②捕虜收容所事件은 世界를 欺瞞하려는 共產側 指令에 依한것 ③ 포로문제에 對한 敵側態度 不變인 限 新事態發生 時까지 UN軍側은 待期.</p> <p>○休戰會談. 韓國軍代表에 國防部 정 훈국장 李翰林准將 新任(劉中將은 陸軍復歸).</p>		
5月27日	<p>政 治</p> <p>○「리」UN事務總長「릿」將軍에 韓國戰爭功勞로 靑銅勳章을 授與.</p> <p>軍 事</p> <p>○地上戰鬪 輕微.</p> <p>○UN海軍 元山地區 敵砲兵部隊本部 및 東北海岸 一帶를 砲擊.</p> <p>○B29, 鎮南浦操車場·宣川鐵橋 戰線附近 敵軍補給中心地를 폭격.</p> <p>○UN海軍爆擊機隊 및 水上機編隊·城津 및 東北海岸 鐵道施設을 攻擊.</p> <p>○巨濟島 捕虜收容所 警備隊 捕虜逃走 「넬」을 探索코져 發掘開始.</p> <p>休戰會談</p> <p>○再開된 67次本會談—捕虜問題로 論爭後 34分만에 休會.</p> <p>○共產軍側, UN軍側이 巨濟島 共產軍 捕虜를 虐殺하고 있다고 非難反覆.</p> <p>○UN軍側, UN軍側의 提案內容을 再說明.</p>	5月28日	<p>○共產軍側, 休戰後 捕虜의 自意送還을 爲한 公平한 審査를 實施하자는 UN軍側提案을 再次拒否.</p> <p>政 治</p> <p>○「크」UN軍司令官의 요청으로 「벤」將軍 및 駐韓美大使館參事官「아렌라이트」氏, 李大統領訪問코 現政界 事態를 討議.</p> <p>○申國防長官, 兵事調査委員會活動에 一般의 協助를 要望하는 談話를 發表</p> <p>軍 事</p> <p>○全戰線 大體로 散漫.</p> <p>○西部戰線에서 UN軍 高浪浦西쪽의 敵 3個陣地를 攻擊.</p> <p>○UN軍 戰爆機隊 北韓 敵輸送目標을 계속 強打.</p> <p>○B 29폭격기대 熙川 鐵橋를 폭격.</p> <p>○5月 22日—28日間 敵 損害計 2,197名 射殺 1,102名, 捕虜 29名.</p> <p>○巨濟島 捕虜收容所 參謀將校 1951年 來 逃走捕虜 475名(大部分이 反共產主義者)中 391名이 本土에서 被逮되었다고 言明.</p> <p>休戰會談</p> <p>○第68次本會談—別無進展</p> <p>○「레리슨」代表 共產軍側이 休戰會談을 一般的인 宣傳政行場所로 利用하고 있다고 非難코 UN軍側의 捕虜審査 7個質問過程을 共產軍側에 提示.</p> <p>政 治</p> <p>○英「처칠」首相 上院에서 言明—在韓 共產軍 兵力增強으로 韓國事態는 深刻 또 危殆, 그 對策은 美國이 講究中</p>

월 일	주 여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5月29日	<p>「이튼」外相 歸國後 檢討할터 「처」首相의 在韓共產兵力 推算은 步兵 百萬 飛行機 1,800臺 戰車 500臺.</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暴風雨로 因하여 大體로 靜미. ○ 今日 敵軍 大砲 迫擊砲發射數, 全線 合計 7,126發 今年中 最高. ○ UN空軍 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 ○ B29爆擊機隊 郭山 新義州間 敵重要 軍事 目標을 攻擊. ○ INS가 東京消息通으로부터 入手한 情報一在韓共產軍의 兵力 100萬 飛行機 1,800臺, 戰車 400臺로 增強. ○ 國空軍 尹應烈少領 100回出擊記錄樹立. ○ 巨濟島 捕虜收容所 第66收容所暴徒로 捕虜 1名 殺害 1名 負傷. ○ 永川捕虜收容所에 暴動發生 民間抑留者 3名被殺 13名 負傷.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69次本會談一別無進展, 「해리슨」代表, UN軍側의 捕虜審查 方法은 가장 公正하였다고 共產軍側에 言明. ○ 共產軍側, 連日 UN軍側이 虐待, 監禁, 飢餓, 拷問, 射殺, 機關銃掃射, 墮斷血營의 強要等으로 捕虜를 待遇하고 있다고 非難. ○ 共產軍側, 國際赤十字社委員會는 數人犯罪을 陰蔽하기 위한 機關이라고 非難. ○ UN軍側, 共產軍側이 그들의 提案을 	5月30日	<p>再考하도록 休會를 提案, 共產軍側이를 拒否.</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上戰鬪 大體 輕微. ○ B29爆擊機隊, 惡天候를 무릅쓰고 北韓共產軍 輸送網을 攻擊. ○ 「앤」將軍, 「메모리얼·데이」에 全UN軍 步兵部隊에 넷세지一戰歿戰友의 精神體得로 一層 侵略防止에 努力. ○ 美 第5空軍司令官에 「바카스」少將 新任. ○ 駐韓 英聯邦軍司令官 「켓셀」少將, 巨濟島 視察.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70次本會談一南日 代表 29日밤의 巨濟島 및 永川捕虜暴動事件을 非難코 UN軍側은 虐殺을 即時 中止하라고 主張 「해리슨」代表 捕虜審查가 公正하였음을 거듭 強調. ○ UN軍側, 4月28日付 UN軍側案을 共產軍이 檢討할 時間을 갖도록 休會를 提案 南日代表 斷乎히 反對코 每日 開會를 主張.
		5月31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 攻擊部隊, 北韓江 西方(金城 東南方) 共產軍 陣地를 3面으로부터 攻擊하고 敵 22名을 射殺. ○ UN軍戰車, 砲兵, 工兵各部隊 緊密한 協同作戰으로 同上 共產軍 構築陣地를 組織의으로 破壞. ○ F86機隊 敵 MIG 15「젯트」機 3대를 擊墜.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極東空軍司令部發表—5月戰果—敵機擊墜 39 臺, 未確認擊墜 6 臺, 損傷 22 臺 我方損失機數 45 臺 그中 空中戰喪失은 「세이버·젯트」機 6 臺 F84 「젯트」機 2 臺, F51 「무스탕」機 1 臺.</p> <p>○ 「엔」將軍聲明—敵兵力은 UN軍兵力의 2倍半이나 敵은 UN軍逐出도 不能이며 敵攻勢도 不信 巨濟島 捕虜狀態는 곧 收拾될 것임을 確信.</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5次 本會談—35分間에 걸쳐 捕虜問題로 論爭.</p> <p>○ 南日代表, 會談席上에서 UN軍側이 韓國戰爭을 擴大시키기 爲하여 捕虜를 射殺하고 休戰成立을 妨害하고 있다고 非難.</p> <p>○ 「해리슨」代表, 休戰成立遲延은 捕虜問題에 對한 UN軍側案을 共產軍側이 拒否한 때문이라고 答辯.</p>	<p style="text-align: center;">6月 2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文登里溪谷 및 斷腸의 稜線等 地區에서 敵과 小規模의 戰鬪.</p> <p>○ UN軍戰車部隊, 金城 西南쪽 및 平康 南쪽 敵陣地를 攻襲하고 「트차카」陣地 48個所를 破壞.</p> <p>○ 我航空機의 空中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p> <p>○ B29 空中要塞機隊, 郭山鐵道橋梁을 爆擊.</p> <p>○ 戰車 2臺를 先頭로한 美軍步兵 1個中隊 巨濟島 中共軍 捕虜收容所內의 赤旗를 燒却.</p> <p>○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中將, 大將으로 昇進.</p> <p>○ 「크라크」大將 巨濟島視察에서 叛亂을 劃策하는 포로에 對해서는 生命에 服從하기 爲해서 必要한 最大限의 武力을 行使할 것이라고 言明.</p>	<p>○ 「해리슨」UN軍側 代表 捕虜들의 公平한 再審査는 共產軍側 主張의 眞實與否를 決定지을 것이라고 捕虜의 再審査를 強調.</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文登里溪谷 및 斷腸의 稜線等 地區에서 敵과 小規模의 戰鬪.</p> <p>○ UN軍戰車部隊, 金城 西南쪽 및 平康 南쪽 敵陣地를 攻襲하고 「트차카」陣地 48個所를 破壞.</p> <p>○ 我航空機의 空中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p> <p>○ B29 空中要塞機隊, 郭山鐵道橋梁을 爆擊.</p> <p>○ 戰車 2臺를 先頭로한 美軍步兵 1個中隊 巨濟島 中共軍 捕虜收容所內의 赤旗를 燒却.</p> <p>○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中將, 大將으로 昇進.</p> <p>○ 「크라크」大將 巨濟島視察에서 叛亂을 劃策하는 포로에 對해서는 生命에 服從하기 爲해서 必要한 最大限의 武力을 行使할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6月 1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小康狀態.</p> <p>○ UN軍 重砲, 戰線背後의 共產軍 輸送車輛部隊를 砲擊.</p> <p>○ UN軍爆擊機隊, 熙川鐵道橋梁을 爆擊.</p> <p>○ 梁山郡 下北面에 共匪來襲 面事務所等에 放火코 逃走.</p> <p>○ 「보트너」巨濟島捕虜收容所長 지난 29日의 第66收容所 騷擾責任者인 北韓傀儡軍 捕虜指導者 1名의 監禁을 命令.</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2次 本會談—共產側의 非難減少.</p>	<p style="text-align: center;">6月 2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文登里溪谷 및 斷腸의 稜線等 地區에서 敵과 小規模의 戰鬪.</p> <p>○ UN軍戰車部隊, 金城 西南쪽 및 平康 南쪽 敵陣地를 攻襲하고 「트차카」陣地 48個所를 破壞.</p> <p>○ 我航空機의 空中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p> <p>○ B29 空中要塞機隊, 郭山鐵道橋梁을 爆擊.</p> <p>○ 戰車 2臺를 先頭로한 美軍步兵 1個中隊 巨濟島 中共軍 捕虜收容所內의 赤旗를 燒却.</p> <p>○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中將, 大將으로 昇進.</p> <p>○ 「크라크」大將 巨濟島視察에서 叛亂을 劃策하는 포로에 對해서는 生命에 服從하기 爲해서 必要한 最大限의 武力을 行使할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3次 本會談—無進展, 「해리슨」UN軍 代表 포로의 再審査로써 폭로될 眞實에 對한 共產軍側의 恐怖心이 合意에 到達할 것을 妨害하고 있다고 言明.</p> <p>○ 南日 共產軍代表, 美上院軍事委員會의 「릿」大將의 證言—5萬 乃至 6萬의 頑強한 共產軍 포로를 「마리아나」</p>	<p style="text-align: center;">6月 2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文登里溪谷 및 斷腸의 稜線等 地區에서 敵과 小規模의 戰鬪.</p> <p>○ UN軍戰車部隊, 金城 西南쪽 및 平康 南쪽 敵陣地를 攻襲하고 「트차카」陣地 48個所를 破壞.</p> <p>○ 我航空機의 空中活動 惡天候로 極히 低調.</p> <p>○ B29 空中要塞機隊, 郭山鐵道橋梁을 爆擊.</p> <p>○ 戰車 2臺를 先頭로한 美軍步兵 1個中隊 巨濟島 中共軍 捕虜收容所內의 赤旗를 燒却.</p> <p>○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中將, 大將으로 昇進.</p> <p>○ 「크라크」大將 巨濟島視察에서 叛亂을 劃策하는 포로에 對해서는 生命에 服從하기 爲해서 必要한 最大限의 武力을 行使할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3次 本會談—無進展, 「해리슨」UN軍 代表 포로의 再審査로써 폭로될 眞實에 對한 共產軍側의 恐怖心이 合意에 到達할 것을 妨害하고 있다고 言明.</p> <p>○ 南日 共產軍代表, 美上院軍事委員會의 「릿」大將의 證言—5萬 乃至 6萬의 頑強한 共產軍 포로를 「마리아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郡島나「사이판」島 또는 美國으로 移 動시킬 것이 考慮되어 왔다는 證言은 UN軍이 共產軍 포로를 계속 抑留하 려하고 있다고 共產軍 非難의 正當性 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리」UN事務總長「에브라스카」大學 卒業式演說에서 韓國戰爭에 言及一U N軍의 韓國派遣은 第3次大戰 阻止를 爲한 것이며 現 戰線에서 休戰이 成 立된다면 世界平和를 爲한 巨大한 勝 利.</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平穩.</p> <p>○ UN軍 輕爆機 및 戰爆機隊 敵鐵道, 補給路, 軍事施設 등을 攻擊.</p> <p>○「보트너」捕虜收容所長 捕虜收容所 內의 一切挑戰의 旗幟와 標識를 撤去 할 것을 捕虜代表에게 命令.</p> <p>○「크라크」大將 및 「엔」司令官, 輕飛 行機로 各 戰線을 歷訪觀察.</p> <p>○ 金斗萬少領 以下 15空軍勇士에 대한 美 航空勳章授與式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5次 本會談一「페리슨」, UN軍代 表 基本人權 및 個人 尊嚴性과 價値를 無視하고 포로들을 銃鎗으로 威脅해 서까지 送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言 明.</p>		<p>○ UN軍 爆擊機隊 西北韓 共產軍 重要 輸送網을 爆擊.</p> <p>○ F 86 「세이버·젯트」機隊 MIG 通路 上에서 敵 MIG「젯트」機 1架를 擊墜</p> <p>○ 戰車의 支援을 받은 美軍步兵部隊第 85, 第96, 第60 捕虜收容所에 突入하 고 赤旗等 共產旗幟 및 挑發의 標識 一切를 燒却.</p> <p>○ 韓國戰線 美空軍基地 視察中인 美空 軍研究開發所長「페트릿키」中將, 蘇 聯이 不遠 MIG 15「젯트」機를 凌駕한 新銳機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言明.</p> <p>○ 美國防省發表一韓國戰線 美軍死傷者 總計는 109, 153名, 昨週 發表에 比하 여 182名의 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5次本會談一UN軍側 捕虜가된 것 으로 認定되나 捕虜名簿에 包含되지 않은 約 1千名의 UN軍 兵士에 關한 說明을 要求, 共產軍代表 膠着狀態에 빠진 休戰會談의 短期間休會를 要求 하는 UN軍側 主張에 계속 拒否.</p>
6月 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輕微.</p> <p>○ UN軍 戰車部隊 平康 南쪽 中共軍陣 地를 攻擊.</p>	6月 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板門店 東北方에서 UN軍砲兵隊 敵의 車輛部隊를 攻擊.</p> <p>○ 土耳其韓國派遣軍副司令官「무리·파 벌」大領 前線部隊 視察中 敵 迫擊砲彈 破片으로 戰死.</p> <p>○「보트너」捕虜收容所長「제네바」協 定에 嚴格리 基準하여 行政措置로서 巨濟島의 포로수용 中 3棟에 대하여 給食을 中斷하였다고 發表.</p>
6月 4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6月 6日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6次本會談—UN軍 「해리슨」代表 포로의 全面的 送還을 要求하는 共產軍側의 虛偽性을 明示하기 爲하여 52項目에 걸친 質疑를 提示.</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地上戰鬪 경미.</p> <p>○ B29爆擊機隊 宣川地區 敵 鐵道橋梁을 爆擊.</p> <p>○ F86 「싸이버·갯트」機隊 西北韓上空에서 敵 MIG 「갯트」機 6臺를 擊墜하고 2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77次 本會談—南日共產軍代表, UN軍의 포로귀환 및 送還問題에 關하여 「제네바」協定에 言及하고 公開질문을 提示.</p> <p>○ 「해리슨」UN軍代表, 共產軍側이 公式으로 發表한 6萬 5千名의 UN軍 포로중 5萬名의 포로에 關한 滿足할만한 說明을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리」UN事務總長 言明—韓國問題에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 內容의 電翰을 李大統領에게 傳達, 韓國事態의 鎮靜에 있어서 本人은 UN 韓委를 全幅의으로 支持,</p>	6月 8日	<p>○ 第78次本會談—「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午前의 會談에서 3日間の 休會를 提議.</p> <p>○ 「해리슨」代表, 午後의 會談에서 共產軍側 反對不願하고 3日間の 休會를 宣言하고 退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트」大統領 「태프트」氏 等의 行政府 非難에 反駁하여 美國防力을 例示하고 駐韓美空軍은 任意로 어디든지 韓半도를 폭격할 수 있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鐵原 西쪽에서 敵과 交戰</p> <p>○ UN軍 高浪浦 北쪽 突出陣地에 對한 共產軍의 2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p> <p>○ 美 「무스탕」 F80, F 84 戰爆機隊 江界 北쪽 敵 目標을 強襲.</p> <p>○ 美 海兵隊 所屬機 海州近方 上空에서 敵「야크」戰鬪機 1臺를 擊墜.</p> <p>○ B29空中要塞機隊 宣川鐵橋 및 南市 定州間 鐵橋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 會談을 續開하자는 2次에 걸친 共產軍側 要請을 拒否하고 共產軍側이 明白한 新提案을 公式으로 提起하지 않는限 11日전에 會談을 再開할 수 있다고 回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防部長官, 來 10日부터 實施 될 軍警接談強調週間에 特히 一般의 積極的인 協調를 要望하는 談話를 發表.</p>
6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鐵原 西쪽에서 重要高地를 奪還.</p> <p>○ B29 爆擊機隊 熙川 軍事鐵橋 및 咸興 操車場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6月 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鐵原西쪽 UN軍 陣地에 대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巨濟島 駐屯 美軍部隊 포로分散 作戰演習 實施.</p> <p>○ 「벤」司令官 第8軍은 如何한 攻勢도 充分히 遊擊할만한 警戒의 態勢를 갖추고 있다고 說明.</p> <p>○ 美海兵隊所屬 戰爆機隊 平壤·兼二 浦鐵路를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連絡將校, 午後 1時부터 開催된 雙方連絡將校會議에서 10日에 會談을 續開할 것을 要請하였으나 UN 軍側은 이를 拒否.</p> <p>○ 張共產軍側, 連絡將校 共產軍 最高 司令官으로부터 「크라크」UN軍 司令官에게 보내는 電세지를 「마레」UN 軍側 連絡將校에 手交.</p>		<p>○ 新任 第5空軍司令官 「바키스」少將 共產軍의 空軍力 集結에 대하여 아직 探知한 바가 없다고 說明.</p> <p>○ 嶺南地區戒嚴司令部 管下 各地區 共 匪討伐 責任者를 召集하고 作戰會議 를 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連絡將校 會議-共產軍側 連絡將校, 10日 午前 11時에 本會談을 再開할 것을 要求한 書面을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大韓軍警援護會, 關係部處 後援下에 軍警援護強運運動을 展開.</p> <p>○ 美國防省 代辯人, 鴨綠江을 넘어 滿 洲內部까지 敵機를 追擊할 權限이 「크 라크」司令官에게 附與되고 있다고 說 明.</p>
<p>6月10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7日 我軍이 奪還한 鐵原西쪽 重要高 地에 대한 中共軍 1個大隊의 攻擊을 激戰끝에 擊退.</p> <p>○ 巨濟島收容捕虜의 分散收容을 開始.</p> <p>○ 巨濟島 76捕虜收容所 捕虜(約 6千名) 의 新設收容所 分散(5百名式) 收容에 서 포로들의 抵抗으로 美軍 1名 被殺 13名 負傷 共產軍 捕虜는 約 30名 死 亡 136名 負傷.</p> <p>○ 「벤」司令官 第8軍編成 8週年紀念日 에 際하여 聲明을 發表하고 이터 第8 軍은 韓國의 共產侵略을 排除하는데 있어서 強力한 保壘가 되고 있다고 強調.</p>	<p>6月11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部隊 猛烈한 迫擊砲 및 野砲 의 掩護下에 鐵原西쪽 戰略 高地의 U N軍을 攻擊.</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新義州近方 上空에서 敵 MIG 「젯트」機 3臺를 擊 墜.</p> <p>○ 巨濟島 第77 및 第78捕虜收容所 捕虜 의 分散收容 圓滿히 完了.</p> <p>○ 第77收容所內에서 反共捕虜 16名의 慘死體를 發見.</p> <p>○ 美國防省發表-韓國戰線 美軍 犧牲 者 總數 109,712名.</p> <p>○ 「바키스」美第5空軍司令官, 「펠머」 美 第10軍團長 「와이먼」美第9軍團長 各各 中將으로 昇進(臨時)</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國防部長官 駐韓 比律賓 第20大隊에 表彰狀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크라크」司令官, 9日宇 共產軍 司令官 에게서 回答—會談에서 UN軍代表들이 取하고 있는 態度를 全적으로 支持하고 捕虜의 強制送還을 要求하지 않은 如何한 解決策이라도 檢討할 用意가 있음을 表明.</p> <p>○ 再開된 第79次 本會談에서 南日 共產軍代表 巨濟島에서의 UN軍側 措置에 抗議하고 共產軍捕虜 殺害는 容納할 수 없다고 暴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크라크」司令官 記者會見에서 韓國軍의 現狀에 關하여 言及코 韓國軍은 UN軍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激讚.</p>	<p style="text-align: center;">6月13日</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0次本會談—「해리슨」少將 UN軍側은 이 以上 더 양보치 않을 것이라고 斷言하고 4月 28日宇의 最終的 提案의 受諾을 促求.</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戰車隊 平康 南쪽 敵 陣地를 攻擊.</p> <p>○ UN軍 地上部隊(美第45師團所屬)空軍 掩護下에 猛烈한 攻擊을 開始하고 鐵原 西쪽 2個高地를 完全掌握.</p> <p>○ 美 第45師團所屬部隊 鐵原 西쪽 第3 高地에 集結中인 中共軍部隊과 對峙.</p> <p>○ 「알렉산더」英國防相 一行 및 「크라크」大將 서울 到着. 第 8軍司令部에서 戰線概況 報告를 聽取.</p> <p>○ 「해리슨」UN軍 首席代表 「알렉산더」英國防相 및 「로이드」英國務相과 2 次에 걸쳐 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6月12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및 共產軍 8日以來 數次에 걸쳐 中隊 및 大隊兵力으로 攻擊과 偵察 行動을 漸進的으로 계속.</p> <p>○ UN軍 東部戰線 盆地帶 北쪽에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鐵原 西쪽 戰略高地爭奪戰 계속, 戰 爆機 및 戰車의 支援을 받은 美 步兵 隊, 共產軍을 攻擊하여 長時間에 걸쳐 激戰展開.</p>	<p style="text-align: center;">6月14日</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1次本會談—UN軍首席代表, UN軍側 提案이 最終的인을 거듭 強調하고 再考慮 할 時間을 共產側에 주기 爲하여 再次 休會할 것을 要求.</p> <p>○ 連絡將校會議에서 共產軍側, 지난 5日 板門店 中立地帶에서 UN軍 砲彈으로 3名의 一般인이 負傷하였다고 非難.</p>
	<p>○ UN軍部隊 漣川 西쪽에서 中共軍과 交戰.</p> <p>○ UN空軍 鐵原 西쪽 및 海州附近 敵補給品集積所를 擊破.</p> <p>○ 巨濟島 第95收容所 포로의 移動收容 實施中에 反共捕虜 500名을 救出.</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UN軍이 掌握하고 있는 鐵原 西쪽 3個 高地中 2個 前哨 陣地의 奪 還을 企圖.</p> <p>○ 鐵原 西쪽 高地陣地에 대한 戰車의 支援을 받은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共産軍 鐵原 西쪽에서 14日 午後6時 까지 24 時間에 6,900 餘發의 砲彈을 發射.</p> <p>○ 美極東空軍 週間綜合 報告, 敵 MIG 15 「젯트」機의 夜間戰鬪 參加를 確認</p> <p>○ UN空軍 平壤近傍 2個飛行場을 攻擊</p> <p>○ 「알렉산더」英國防相 一行 戰線觀察 美 1軍團 本部에서 戰略的情勢에 關한 報告를 청취한 後 第1 英聯邦師團을 訪問.</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2次 本會談—前日 會談을 그대로 反覆 「해리슨」少將 UN軍側 最終提案의 各條項을 설명하여 明白히 활용 意가 있음을 說明.</p> <p>○ UN軍側 連絡將校, 지난 6月 5日 UN軍 砲彈破片이 中立地帶 內의 韓 國 市民 1名을 負傷시켰다는 것을 認 定.</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內務部發表—北韓傀儡策團이 6.25를 前後하여 韓國軍事施設破壞 및 要人 暗殺을 企圖하고 地下工作隊員을 派 遣中.</p>		<p>○ 美 「젯트」機隊 敵 MIG 「젯트」機 3 臺를 擊墜.</p> <p>○ 「알렉산더」英國防相 中部戰線 視察</p> <p>○ 「알렉산더」元帥 記者會見에서 休戰 協商은 UN代表에 依하여 잘 進行되 고 있으며 成立의 可能性은 半半이라 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3次本會談—共産軍側 中立國의 捕虜審査 參加에 反對의 意思를 表明</p> <p>○ 「해리슨」UN軍 首席代表, 北韓11個 虜收容所中 5個所에 적당한 標識를 하지 않았다고 抗議書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16日의 UN軍發射彈數는 18,500發.</p> <p>○ 鐵原 西쪽 高地에서 5日間 계속된 戰鬪로 中共軍 1,000名 以上을 射殺.</p> <p>○ 美 第45師團所屬部隊 拂曉에 鐵原西 쪽高地에 對한 中共軍 1個大隊의 反 擊을 擊退.</p> <p>○ 「알렉산더」英國防相 巨濟島捕虜收 容所를 視察하고 同地警備 英聯邦師 團의 2個部隊를 訪問.</p> <p>○ 釜山近方 海雲臺 UN軍彈藥集積所에 서 폭발사건 發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4次本會談—「해리슨」UN軍代表 共産軍 最高頭目들이 직접 巨濟島 포 로들에게 指示하여 騷擾를 惹起시키 고 있다고 非難.</p> <p>○ 「해리슨」代表, 共産軍側이 休戰과 戰爭과의 兩者中에서 하나를 擇할 立 場에 서 있다고 指摘.</p>
6月1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1個大隊 夜間에 大砲 및 迫 擊砲의 掩護下에 鐵原 西쪽高地에 대 하여 反擊.</p> <p>○ UN軍 輕爆擊機隊 夜間에 一線地帶 의 共産軍陣地를 攻擊.</p> <p>○ 美第4戰鬪飛行隊所屬 「로우」少尉 6 週日間에 敵 MIG 15 「젯트」機 5臺를 擊墜.</p>	6月16日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6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알렉산더」元帥 UN軍營地에 參崧 後 李大統領 禮訪.</p> <p>○ 英「처칠」首相 下院에서 答辯—英國 이 UN의 權威下에서 美國과 단결해 나가면 韓國은 共產主義 侵略으로부터 救濟可能.</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輕微.</p> <p>○ UN軍戰爆機隊 戰線地帶를 계속 猛 打.</p> <p>○ B-26 輕爆機隊 夜間에 共產軍 陣 地外 陽德, 順川, 平壤의 敵 補給所 를 攻擊.</p> <p>○ 巨濟島 共產軍 捕虜 17,000名 平穩裡 에 新收容所로 移動.</p> <p>○ 5月 25日~6月 17日間 後方 共匪討 伐戰果—交戰回數 153, 射殺 387名, 生捕 44名, 歸順 15名.</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5次本會談—UN軍側代表團 共產 軍側의 激烈하고 挑戰的인 宣傳攻勢 에 對하여 3日間의 休會를 一方의 으 로 선언하고 退場.</p> <p>○ 連絡將校 會議—捕虜收容所에 關한 정보를 交換, 北韓 第11捕虜收容所는 撤廢.</p>	6月19日	<p>○ 「해리슨」UN軍 首席代表, 公式覺書 를 送付하고 4個 共產軍側 捕虜收容 所의 正確한 位置明示를 要求.</p> <p>○ 張共產軍側, 連絡將校, UN軍側 連絡將校에 覺書를 傳達하고 一方의 休 會宣言을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平穩.</p> <p>○ 中共軍 金城 東西쪽 UN軍 陣地에 對한 새로운 攻擊에 戰車 6臺와 750 名의 步兵을 投入.</p> <p>○ 第5空軍所屬 「무스탕」機隊, 金城北 쪽 共產軍 增強地區를 攻擊.</p> <p>○ B 26 輕爆機隊 平壤 新幕間 및 龍川 里, 伊川間에서 敵 補給車輜部隊를 攻擊.</p>
6月1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UN空軍活動, 惡天候로 低調.</p> <p>○ 美國防省發表—韓國戰線 美軍 희생 者 總數는 109,971名, 昨週發表에 比 하여 259名의 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6月2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小規模 探索戰.</p> <p>○ UN軍 地上部隊의 掩護作戰에 出擊 한 戰爆機隊, 鐵原, 金城, 金化 等地 區의 共產軍部隊와 野砲陣地를 攻擊.</p> <p>○ B-26 爆擊機隊 熙川地區 鐵橋 및 威 興, 嶺南浦 操車場을 폭격.</p> <p>○ 英國의 有名한 黑時計聯隊 所屬 1個 大隊, 釜山港 到着.</p>
		6月2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1個聯隊 破兵의 掩護射擊下 에 鐵原 西쪽 UN軍 陣地를 攻擊.</p> <p>○ UN軍 鐵原 西쪽 陣地에 對한 共產 軍의 熾烈한 攻擊을 挫折시키고 敵 約 300名을 射殺.</p> <p>○ F 86「세이버 제트」機隊 敵 MIG 2 臺를 擊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B-29爆撃機隊, 西部 및 中部戰線 主要抵抗線 背後의 共產軍部隊 및 補給地域을 夜間爆撃.</p> <p>○ 美 제5空軍 發表 開戰 以來 戰果一敵 MIG「젯트」機 擊墜 324臺 未確認擊墜 58臺, 擊破 508臺 「푸로페라」推進機 擊墜 148臺 未確認擊墜 20臺 擊破 85臺.</p> <p>○ UN軍 地上部隊 15日~21日間에 敵 1,298名을 射殺하고 1,180名을 負傷시키는 同時에 30名을 生捕.</p> <p style="text-align: center;">休政會談</p> <p>○ 再開된 第86次 本會談-「해리슨」 UN軍 首席代表 第2次 世界大戰當時 蘇聯에 捕虜의 非強制送還 原則을 支持한 事實을 共產側에 提示.</p>		<p>○ 第87次本會談-共產軍側 去般 UN軍側이 實施한 共產軍 捕虜審査의 結果를 否定하고 또 休戰協定 發効後 雙方이 共同으로 捕虜를 再審査하자는 UN軍側 提案을 再次拒否.</p> <p>○ 共產軍側代表 UN軍側代表가 21日提示한 第2次 大戰中の 戰時捕虜에 關한 蘇聯 前例에는 緘口.</p>
6月2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金城 東쪽에서 2次에 걸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攻擊部隊 鐵原 東北쪽의 中共軍이 掌握하고 있는 6個 馬蹄形高地를 強襲.</p> <p>○ 鐵原 西쪽 上海高地 周邊戰鬪는 緩和되고 小康狀態.</p> <p>○ 濞流星「젯트」機隊 戰車 1臺를 包含한 敵 車輛 11臺를 擊破.</p> <p>○ UN空軍機隊, 一線地區 共產軍을 攻擊코 敵 토치카 陣地 25個所 및 大砲 陣地25個所를 破壞.</p> <p>○ UN軍司令部 南韓出身民間人 抑留者 2萬7千名을 責任있는 大韓民國政府機關에 引渡釋放하게 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6月2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彼我偵察隊의 活動 活發.</p> <p>○ UN軍 鐵原 東北쪽 中共軍陣地에 대한 攻擊을 계속.</p> <p>○ 鐵原 東北쪽 上海高地周邊 戰鬪 다시 激化.</p> <p>○ 地上 友軍을 緊密히 掩護하고 있는 海軍艦艇, 東西 兩海岸의 共產軍陣地를 猛擊.</p> <p>○ 美海軍航空機 海兵隊航空機 및 第5空軍所屬 戰爆機 約 500臺, 北韓의 水豊等 5大 水力發電所 設備에 大爆擊 敢行.</p> <p>○ UN空軍 水豊發電所 爆擊에서 共產軍對空砲火로 美海軍機 1臺를 喪失.</p> <p>○ 巨濟島 포로수용소當局 未審査 共產軍 捕虜 4萬5千名의 審査를 再開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政會談</p> <p>○ 第88次本會談-「해리슨」UN軍 首席代表 捕虜自由 送還原則의 不變을 再強調.</p> <p>○ 「해리슨」代表, 捕虜交換期間中에 共軍 決定을 變更한 포로들은 共產軍側에</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6月24日	<p>送還될 것이라고 言明.</p> <p>○ 共產軍側, UN軍司令部에서 2萬7千名의 民間抑留者를 석방하는데 對하여 抗議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陸軍省當局 韓國戰線에서는 各種彈藥의 甚大한 缺乏이 注目된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鐵原 西쪽에서 中共軍과 3時間에 걸쳐 交戰.</p> <p>○ UN軍戰爆機隊 23日의 猛爆에 계속하여 水豊을 除한 其他 4個發電所를 다시 爆擊.</p> <p>○ UN軍戰爆機隊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部隊 및 重砲陣地를 猛打.</p> <p>○ 美極東 海軍 23日의 發電所 爆擊에 대한 戰果發表—水豊發電所는 90%의 外部的 損害와 70%의 內部的 損害로 完全히 機能停止.</p> <p>○ 「크라—크」UN軍司令官 「부리스크」美極東艦隊司令官 및 「왜이랜드」美極東空軍司令官에 대하여 23日의 水豊發電所爆擊成功을 칭찬하고 感謝狀을 授與.</p> <p>○ 國防部發表 6.25動亂 2年間の 我國軍戰果—△陸軍 敵 射殺=334,395명 歸順=2,812명, 戰利品=戰車 212臺 車輛 965臺, 迫擊砲 1,415門, 로켓트砲=731門 其他砲=1,065門, 機關銃=9,664挺, 小銃=74,396挺, △空軍 破壞=建物 382棟, 車輛 39臺 貨車 7輛, 彈藥集積所=3個所, 補給集積所</p>	6月25日	<p>29個所 燃料集積所 5個所 鐵橋 12個 砲陣地, 135個所 鐵道, 375個所 道路 25個所 △ 海軍 敵 射殺=16,808名, 歸順=1,332名, 戰利品=機帆船 2隻, 發動船=15隻, 戰車=1臺, 野砲 20門, 迫擊砲 125門, 로켓트砲 39門 機關砲=8門, 小銃=966挺, 車輛98臺.</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89次本會談—계속하여 無進展.</p>
		6月2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探索戰 活發.</p> <p>○ B-29 爆擊機隊, 兼二浦 製鐵工場을 爆擊.</p> <p>○ B-26輕爆機隊 및 海兵隊所屬機隊 南下中인 敵 補給車輛部隊를 夜間攻擊.</p> <p>○ 23,24日의 發電所 爆擊에 參加한 航空母艦 4隻의 艦載機들, 계속하여 敵 보급지대의 車輛과 兵力集結地 및 元山南쪽의 操車場等을 폭격.</p> <p>○ 「벤」司令官 記者會見에서 言明—共產軍이 再次攻勢로 나오면 그것이 아 마 韓國戰亂을 終結시킬 수 있는 決定的戰鬪가 될 것이라고.</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90次本會議—UN軍側, 第2次大戰 當時 蘇聯이 獨逸 포로에 대하여 自由送還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共產軍側代表는 이에 反對하고 있다고 非難.</p> <p>○ 「해리슨」UN軍 首席代表, 連絡將校를 通하여 南日代表에게 2通의 각서를 傳達—(1) 共產軍側에 收容된 것으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생각되는 UN軍人 69名の 追加名簿를 添付하는 同時에 以前에 提示한 5個 追加名簿에 記入된 1千8百餘名の 포 로에 대한 보고를 要求 (2) 共產軍第 2, 第6, 第9, 第10捕虜收容所의 正確한 위치를 明示할 것을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6. 25事變 2周年記念式典, 大統領을 비롯한 内外人士 多數參席裡에 釜山 忠武路 廣場에서 舉行.</p> <p>○ 美國省代辯人 美空軍의 鴨綠江發電所 爆擊 考慮를 言明.</p>	<p>6月27日</p>	<p>에게 宣稱한 것을 그대로 UN軍側이 板門店會談에 適用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戰車 步兵部隊 砲兵隊와 空軍의 掩護下에 鐵原 西쪽 上海高地의 西南쪽 高地에서 約 1個大隊의 中共軍과 8時間에 걸친 激戰끝에 同高地를 占領.</p> <p>○ 戰車와 砲兵의 增援을 받은 中共軍 大隊 上海高地 西南쪽 高地에 대하여 夜間攻擊.</p> <p>○ UN軍爆擊機隊 다시 長津發電所를 攻擊.</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新義州 上空에서 敵 MIG「젯트」機 1臺를 擊墜.</p> <p>○ UN軍戰爆機 및 海兵隊所屬機隊 戰線 西端에 있는 共產軍 補給地區를 攻擊.</p> <p>○ 美 第8軍司令部 巨濟島 포로 74,000 名에 대한 再審査完了를 發表.</p>
<p>6月26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步兵 및 戰車部隊, 平康 南쪽 共產軍 高地를 攻擊.</p> <p>○ UN軍部隊 西部戰線에서 5時間半에 걸친 激戰끝에 共產軍側 1個 高地를 奪還.</p> <p>○ UN軍戰爆機隊 三登鐵道 시설을 攻擊.</p> <p>○ F-80「젯트」機 및 海兵隊所屬전폭기 대, 西部戰線敵 地上部隊를 猛打.</p> <p>○ UN戰爆機 約 150臺, 北韓 赴戰, 長津 兩地區 發電所에 대하여 第3次의 爆擊을 敢行.</p> <p>○ 國防部長官補佐官 崔榮喜少將, 國防部政訓局長에 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91次本會談—UN軍側 共產軍側에 대하여 第2次大戰時 蘇聯이 제창하였던 捕虜自由送還原則에 反對하는 理由의 설명을 要求, 이에 대하여 南日 共產軍代表 戰勝한 蘇聯이 降伏한 敵</p>	<p>6月28日</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92次本會談—南日 共產軍側代表, UN空軍의 北韓發電所爆擊에 間接的으로 沾及하고 UN軍側은 威脅으로서 포로 송환에 關한 不當한 要求를 受諾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UN軍側은 非難.</p> <p>○ 「헤리슨」UN軍 首席代表, 共產軍側에 深甚한 考慮를 要請하고 3日間の 休會를 宣稱退場.</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中共軍增援部隊 27日 下午 9時로부터 今朝 3時사이 3회에 걸쳐 鐵原 西쪽 上海高地 西南쪽 高地를 攻擊.</p> <p>○ UN軍部隊 上海高地 西南쪽 高地에 대한 3회의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UN軍戰爆機隊 元山 南쪽 操車場을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 首席代表, 連絡將校를 통하여 南日 共產軍 首席代表, 曹翰을 傳達하고 北韓 4個 捕虜收容所의 精確한 位置를 明示할 것을 또 다시 要求.</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UN軍側 連絡將校에 手交한 覺悟에서 UN軍側의 一方의 休會宣言에 抗議하고 UN軍側은 故意로 戰爭을 延長시키고 있다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6月30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1個大隊 「斷腸의 稜線」 附近의 UN軍 陣地를 夜間 攻擊.</p> <p>○ UN軍 部隊 鐵原 西쪽 高地 陣地에 대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部隊 板門店 南쪽과 澮川 西北쪽의 2個地點에서 共產軍을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張春山大領 지난 27日 高射砲彈의 會談場 落下事件을 自側 過誤로 是認하고 遺憾의 뜻을 表明한 覺悟를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英國政府 韓國 休戰問題와 巨濟島 浮羅水窟소 事件에 대한 白書を 發表.</p>	<p>談場 天幕附近에 落下한 事實에 關하여 抗議覺悟를 共產軍側 連絡將校에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6月29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UN軍 輕爆機隊 暴雨와 暗雲을 鏽고 雲間에 援護 出擊하여 共產軍 集結所와 陣地를 攻擊.</p> <p>○ UN軍 浮羅水窟소 2萬7千名의 民間 抑留者中 1千7百名을 第1次로 永川 收容所에서 釋放.</p> <p>○ 「바커스」 第5空軍司令官 言明 一前週 以來 美空軍, 海軍 및 海兵隊所屬機는 北韓에 있는 13個의 水力發電所를 完全히 破壞.</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 連絡將校 「맥카시」 大領 지난 27日 共產軍이 發射한 高射砲彈이 會</p>	<p style="text-align: center;">7月 1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斷腸의 稜線」 부근 陣地에 대한 共產軍 1개대대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搜索隊 澮川 西北쪽 中共軍 陣地를 攻擊코 敵 257名을 殺傷.</p> <p>○ 美空軍 次官 「길파트리」氏 一行 5空軍 視察을 마치고 沖繩 向發.</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93차 本會談—3일간의 休會後 다시 開催 「해리슨」 UN 首席代表 現在까지의 會談經過를 解明하고 膠着打 開方案을 說明.</p> <p>○ UN軍側, 捕虜 交換前에 送還 不願 捕虜를 捕虜名簿로부터 除外할 것을 提案.</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軍 「斷腸의 稜線」 부근 陣地에 대한 共產軍 1개대대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搜索隊 澮川 西北쪽 中共軍 陣地를 攻擊코 敵 257名을 殺傷.</p> <p>○ 美空軍 次官 「길파트리」氏 一行 5空軍 視察을 마치고 沖繩 向發.</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93차 本會談—3일간의 休會後 다시 開催 「해리슨」 UN 首席代表 現在까지의 會談經過를 解明하고 膠着打 開方案을 說明.</p> <p>○ UN軍側, 捕虜 交換前에 送還 不願 捕虜를 捕虜名簿로부터 除外할 것을 提案.</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 2日	<p>○ 安保理事會, 細菌戰 討議에 中共과 北韓의 代表를 參席시키자는 蘇聯 提안을 否決.</p> <p>○ 「페이스」美陸軍長官, 新型戰車 「패튼 48」의 生産을 發表.</p> <p>○ 「쳐어칠」美首相, 下院에서 水壘爆擊 問題等을 들어 美國의 對外政策을 辯護.</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高浪浦 東北쪽 敵高地를 攻擊.</p> <p>○ 美極東空軍司令部 北韓13箇 水力發電所의 機能喪失이 空中攝影結果 立證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會議을 通하여 本會談의 24時間 休會를 要求 UN軍側 共產軍側 提議에 同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社會部를 비롯한 6箇 機關에서 傷喪軍人 歸農對策委員會를 構成.</p> <p>○ 北京放送 UN空軍의 鴨綠江水力發電所 爆擊은 英國도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고 非難.</p> <p>○ 印度新聞 「미답프」紙, 中共政府는 韓國休戰問題에 關하여 印度의 調整을 依賴하였다고 報道.</p> <p>○ 「트루만」大統領 議會에서 制定된 新移民法에 依據한 各國의 移民配定數를 發表 韓國에 對한 配定數는 100名</p> <p>○ 「부렛트리」美合同參謀會議議長, 6月 19日 美空軍에 依한 水壘爆擊은 事前에 「트」大統領 및 國務, 國防省의 全</p>	7月 3日	<p>面的 合意下에서 決定된 것이라고 示唆.</p> <p>○ 美空軍省 新銳遊擊機 F94 「스라이라이어」의 出現을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戰車隊 및 步兵部隊, 金化西南쪽의 共產軍 高地陣地를 攻擊.</p> <p>○ UN軍部隊 板門店 東쪽 敵陣을 攻擊</p> <p>○ 美海軍 제77機動部隊所屬 艦載機隊 北韓 虛川 제2, 제3 및 富寧의 3箇發電所를 爆擊.</p> <p>○ UN軍當局 3萬5千名에 達하는 中共軍 및 北韓共產軍 捕虜와 北韓人抑留者들을 새로운 4箇處 收容所로 移送한다고 發表(巨濟島, 濟州島, 龍草島, 蜂岩島).</p> <p>○ 李大統領 「벤프리트」將軍과 더불어 濟州島 陸軍제1訓練所를 觀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94차 本會議—共產軍側 捕虜問題에 關하여 지난 1日 UN軍側이 主張한 原則에 贊意를 表明.</p> <p>○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全捕虜를 國籍 및 地域에 따라 再分類할 것을 提案하는 同時에 同提案의 實際的 討議를 爲하여 會談을 秘密로 할것을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內務部 訓令 제40號 「民防空機構組織規程」公布施行.</p> <p>○ 印度政府 代辯人言明, 「네에루」首相은 「트」大統領이 要請한 巨濟島 共產捕虜 實態調査團에 印度代表 派遣을</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正式으로 拒否.</p> <p>○ 安保理事會에서 蘇聯代表「마리크」, UN軍의 細齒戰 實態에 關한 共産側의 非難을 國際赤十字社로 하여금 調査시키자는 美國側 提案에 拒否權을 行事.</p> <p>○ 「트」大統領, UN만이 侵略을 防止할 수 있다는 UN關係報告書를 議會에 提出.</p> <p>○ 「리」UN事務總長 埃地利議會에 韓國停戰에 대한 確信을 披瀝.</p>		<p>○ 제13회 臨時國會 제2차 本會議, 改憲案을 在席166人 中 163對零으로 可決 大統領直選制, 國務院責任制, 參民議兩院制을 各各 採擇.</p> <p>○ 「크라아크」UN軍司官 美國獨立記念日 “멧세이저”에서 美國 및 UN軍은 美國 및 UN의 民主主義原則을 防衛하기 爲하여 韓國에서 싸우고 있다고 強調.</p>
7月 4日	軍 事	7月 5日	軍 事
	<p>○ 鐵原 西쪽 UN軍 陣地에 대한 中共軍 1個여대의 2차에 걸친 攻擊을 擊退.</p> <p>○ UN空軍 朔州의 北韓士官學校를 爆擊.</p> <p>○ UN空軍 鴨綠江水壘發電所 東南쪽 上空에서 敵MIG-15 갯트機 12臺擊墜, 不確實 擊墜 1臺 擊破 6臺.</p> <p>○ 美極東空軍司令部, 最大搭載量을 가진 C-124輸送機의 韓國配置를 發表.</p> <p>○ UN軍當局 巨濟島 中共捕虜의 濟州島 移送를 開始.</p> <p>○ 國防部 報導課發表, 6月 1個月間 後方共匪掃蕩戰 綜合戰果一射殺 457명, 捕虜 48名, 歸順 16名, 各種小銃 228挺, 手榴彈 21個, 無電機 1臺.</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戰艦「아이오와」號 및 航空母艦 3隻을 基幹으로 한 美제7機動艦隊 元山灣을 7時間에 걸쳐 猛砲爆擊.</p> <p>○ 美極東海軍司令部發表—英航母 「오오산」號는 美航母 「바탄」號와 交代하여 黃海에서 作戰中.</p>	
	休戰會談		休戰會談
	<p>○ 제95차 本會議—非公開로 開催—래리슨 UN軍首席代表 開會에 앞서 會談을 秘密로 하는데 同意.</p>	7月 6日	軍 事
	政 治		<p>○ 全戰線 小康狀態.</p> <p>○ UN空軍當局者, 北韓發電所 爆擊에 대한 綜合的 報告를 發表, 北韓 13個 水力發電所를 破壞하기 爲하여 18個月前부터 準備 出擊數는 延 1,373機</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韓國戰線에 參加할 土耳其 및 泰國 軍部隊 釜山港 上陸.</p> <p>休戰會談</p> <p>○ 休戰會談秘密本會議— 제3日 繼續하여 捕虜交換問題를 討議.</p> <p>政 治</p> <p>○ 全南戒嚴司令部 指示에 依하여 南原 裡里間 鐵道 當分間 運行을 中止.</p> <p>○ 「네에루」印首相 國民會議派 集會에서 韓國戰爭을 中國領까지 擴大하면 第3차戰을 招來할 것이라고 警告.</p>		<p>英國 및 其他 韓國參戰 諸國은 休戰 交渉의 停頓狀態를 打開하기 爲한 方 途를 協議中.</p> <p>軍 事</p> <p>○ UN軍 攻擊部隊 北漢江 西쪽 敵高地 를 奪還.</p> <p>○ UN軍 金城 東南方 UN軍 陣地에 對한 共產軍 反擊을 擊退.</p> <p>○ UN軍 F84 「컷트」戰爆擊機隊 北韓 長津江 제2發電所를 再爆擊.</p> <p>○ UN軍 戰爆機隊 新安州 鐵道施設을 攻擊.</p> <p>○ 李大統領 美제7함대 旗艦「아이오와」 號를 訪問.</p>
7月 7日	<p>軍 事</p> <p>○ 共產軍 1個中隊 蘇聯製 T34型 戰車 14臺 掩護下에 金城 東南쪽 UN軍陣 地를 夜間攻擊.</p> <p>○ UN軍 攻擊部隊 板門店 東쪽 共產軍 3個 前哨陣地를 火焰放射器로 攻擊.</p> <p>○ 巨濟島捕虜收容所 當局者 發表—先 週中 同島 제91收容所로부터 捕虜28 名이 逃亡하였으나 其中 18名은 逮捕.</p> <p>休戰會談</p> <p>○ 제4차 秘密本會議—捕虜交換 問題를 圍繞한 膠着狀態 打開에 繼續協力.</p> <p>政 治</p> <p>○ 政府, 國會의 議決로 確立된 「憲法 改正件」을 公布.</p> <p>○ 國務會議, 改正 憲法에 따르는 大統 領, 副統領 選舉法案을 議決.</p> <p>○ 美共和黨政策委員會 1949年의 在韓 美軍 撤退로 말미암아 現在의 韓國戰 爭이 招來되었다고 「트」大統領의 政 策을 非難.</p> <p>○ 「로이드」英國務相 下院에서 說明—</p>	7月 8日	<p>休戰會談</p> <p>○ 제5차 秘密本會議—48分間 開催.</p> <p>○ 共產軍側, UN軍이 昨週 巨濟島에 서 捕虜 2名을 殺害하고 8名을 負傷 케 했다고 抗議.</p> <p>○ UN軍 連絡將校, UN軍側 捕虜收 容所의 位置를 標示한 地圖를 共產軍 側에 手交.</p> <p>政 治</p> <p>○ 韓國戰線에 參加할 英巡洋艦 「부리 밍함」號, 「포오즈머스」港을 出發.</p> <p>○ 「올림픽」大會 參席次 「헬싱키」로 向 하는 「리」UN事務總長, 「오스로」에 서 韓國休戰이 月末에 成立된다는 確 信을 披瀝.</p>
		7月 9日	<p>軍 事</p> <p>○ UN軍 攻擊部隊 高城 南쪽 共產軍陣 地를 攻擊하고 終日 交戰.</p> <p>○ UN軍 攻擊部隊, 中共軍 2個中隊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反擊을 받아 北漢江 西南高地로부터 撤收.</p> <p>○ UN軍 艦載機隊 共產軍 小舟艇 15 隻을 擊沈하고 5隻에 損害.</p> <p>○ 美國防省發表—韓國戰後 美軍犧牲總數 112,128명 昨週發表에 比하여 552 名 增加.</p> <p>○ 한국參戰 比律賓 제22대 釜山港 出 港 歸國.</p> <p>○ 美軍專顧問團 部隊表彰式 李大統領 臨席下에 大邱에서 舉行.</p> <p>○ 論山 제76捕虜收容所에서 捕虜間의 衝突로 24名이 負傷.</p> <p>○ UN軍當局者發表—7월 2일 以來 共 產軍捕虜 2萬名을 巨濟島로부터 附近 島嶼에 移送.</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第6次秘密 本會議—26分間 繼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벤」司令官을 同伴하여 永 川民間人捕虜收容所를 視察.</p> <p>○ 北京送放, 萬一 UN軍側이 1만 5천 명의 中共捕虜 全部를 送還한다면 休 戰이 成立될것이라고 報道.</p> <p>○ 日本大審院, 韓國人 戰犯者 29名の 釋放請求訴訟에 對한 裁判을 再開.</p> <p>○ 「인도네시아」政府 巨濟島捕虜收容所 에의 代表 派遣에 關한 美招請을 拒 否決定.</p> <p>○ 極東空軍을 視察한 美空軍次官 및 空軍參謀副長, 깃트微의 韓國增派를 「트」大統領에게 建議.</p> <p>○ 「킬파트릭」美空軍次官, 現在 韓國</p>	<p>7月10日</p> <p>으로 派遣中인 F84 센더릿트機는 原 爆을 積載할 수 있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攻擊部隊 平康 南쪽 共產軍陣 地를 攻擊.</p> <p>○ UN軍 攻擊部隊 鐵原 西北쪽 3個高 地를 奪還.</p> <p>○ UN海軍機隊 興南 操車場을 攻擊.</p> <p>○ B29爆擊機隊 陽德 操車場을 夜間爆 擊.</p> <p>○ 「크라아크」大將 韓國戰線 後方의 補 給行政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는 新司 令部를 美8軍에 設置하는 全權을 「벤」 司令官에게 委任.</p> <p>○ UN軍司令部 韓國基地司令部 司令 官에 제8군副司令官 「허런」少將의 任 命을 發表.</p> <p>○ 美陸軍參謀學校에서 修學中이던 丁一 權中將 및 姜文奉少將 歸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7차 秘密本會議—40分間 開催.</p> <p>○ UN軍側代辦人 「나글스」准將 休戰 成立의 可能性은 1年前보다 接近되었 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4차 本會議 議長에 申翼熙氏 副議長에 曹奉岩, 尹致陝氏를 選出.</p> <p>○ 英「크로니클」紙 報道—印度는 韓國 戰爭解決方途를 發見하기 爲하여 中 共과 折衝中.</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空軍 平壤, 黃州, 沙里院地區의 軍事工業施設 및 物資集積所 等에 對</p> <p>7月11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하여 戰亂 開始以來 最大規模의 猛爆擊.</p> <p>○ B29爆擊機隊 平壤, 咸興, 兼二浦, 新幕等 北韓 補給基地網에 對하여 大規模夜間 爆擊.</p> <p>○ UN空軍 平壤, 爆擊에 있어 敵MIG 쯤트機 1臺를 擊墜하고 2臺를 擊破 我側은 地上砲火로 F84쯤트機 1臺 喪失.</p> <p>○ 平壤 大爆擊에 參加한 航空機는 美 5空軍, 英航母艦載機, 南阿空軍, 濠洲空軍, 韓國空軍 等の 5個國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8차 秘密本會談—26分間 事務의 으로 進行되고 會談內容에는 無變化.</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國軍 및 전투경찰 副食費 增額에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通過.</p> <p>○ 美共和黨 全國大會, 大統領, 副統領 候補에 各各 「야」元帥 「닉슨」 上院議員을 指命後 閉幕.</p>		<p>쯤트機 266臺, 各種飛行機 322臺, 友軍機 64臺, 海兵隊機 67臺, 合計 719臺, 同期間中 UN空軍 出擊數는 524, 395臺.</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9차 秘密本會談—前日과 다른 없는 分國氣속에서 進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美合同經濟委員會 美國側 代表의 任命을 韓國政府에 通告 首席代表에 「헤넨」少將.</p> <p>○ 平壤攻送 —美軍機의 平壤爆擊으로 平和的 建物이 多數 破壞되었으며 平民死傷이 6천명이라고 非難.</p> <p>○ 美空軍當局, 空中奇襲에 對備하기 爲하여 全國對空監視員에게 24時間 監視를 命令.</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 高城 南쪽 高地爭奪戰 계속</p> <p>○ UN軍 戰爆擊隊 高城南쪽 高地를 攻擊.</p> <p>○ F84쯤트機隊 北韓 海州地區 리더 施設 6個所를 爆擊코 其中 2個所를 完全破壞.</p> <p>○ B29爆擊機隊 高原 操車場을 夜間爆擊.</p> <p>○ 「코린스」美陸軍參謀總長 「클라아크」 司令官 同伴코 來韓.</p> <p>○ 「코린스」大將 「클라아크」大將 및 「넬」司令官과 더불어 西部戰線을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南日 共產軍代表, UN空軍이 11일</p>
7月1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高城 南쪽 主要陣地를 奪還코자 北韓共產軍 2個中隊와 數次에 걸쳐 交戰.</p> <p>○ UN空軍 F86쯤트機隊 MIG敵쯤트機 1臺 擊墜 1臺 不確實擊墜 2臺擊破</p> <p>○ 美極東空軍發表 韓國戰爭 以來 7월 10일까지의 UN空軍 戰果 △共產軍損害=飛行機(擊墜, 同不確實, 損傷包含) 1,245臺, 其中 MIG쯤트機는 980臺, 車輛 5,257臺, 鐵道車輛 8,36臺, 戰車 1,257臺, △美空軍損害=美空軍</p>	7月13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의 平壤地區 爆擊에서 捕虜收容所를 爆擊하였다고 抗議覺書.</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慶南 陝川 海印寺에 共匪來襲 寺內 居住 學生 數10名을 拉致하고 其他 佛具食糧等을 掠奪.</p> <p>○ UN軍司令部發表一戰爭開始 以來 2 年間に 自由世界는 韓國에 對한 救濟 및 經濟援助로서 5億1千6百萬弗을 提供 其中 4億9천4백萬弗은 美國이 據 出.</p> <p>○ 「그로스」美代表 韓國에 있는 共產捕 虜中 10萬 以上이 北韓으로의 強制送 還을 決死反對하고 있다고 安保理에 서 報告.</p> <p>○ 美海軍當局 新型爆彈 「세이프」의 出 現을 發表一同爆彈을 積藏할 時에는 航空機는 每時 50哩 速度의 增加가 可 能하다고 言明.</p>		<p>○ 「콜린스」美陸軍參謀總長 UN軍의 爆 擊強化는 休戰會談에 無影響이라고 記者會見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會議를 通하여 秘密本會議의 2日間 休會를 要求.</p> <p>○ UN軍側, 이에 同意.</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南韓捕虜收容所 捕虜殺害事件과 捕虜名簿에 記載되어 있지 않은 共產捕虜 4,393名에 關한 抗議覺書를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高城 南쪽 高地에 對한 共 產軍 1個대대의 攻擊을 驅退코 敵592 名을 殺傷.</p> <p>○ 共產軍 步兵部隊 戰車支援下에 金城 東南쪽 UN軍 陣地를 攻擊.</p> <p>○ UN軍 步兵部隊 戰車部隊의 掩護下 에 鐵原 北쪽 共產軍高地를 攻擊.</p> <p>○ 제5空軍所屬 戰機部隊 平壤부근 機 關車修理工場 및 세인트工場을 爆擊.</p> <p>○ B29爆擊機隊 咸興操車場을 爆擊.</p>
7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高城南쪽 高地를 再奪還.</p> <p>○ 美驅逐艦 「씨우스맨드」號 東海岸 庫 底地區 共產軍砲臺와의 砲擊戰에서 破損.</p> <p>○ UN軍戰機部隊 地上友軍을 掩護하여 鐵의 三角地帶로부터 東海岸에 이 르 는 敵戰線을 強打.</p> <p>○ 「코린스」參謀總長 UN軍側은 必要하 다면 滿洲爆擊도 不辭하나 이에 앞서 派兵諸國과 協議할 것이라고 言明.</p> <p>○ UN軍司令部 UN軍機가 지난 11日 平壤爆擊에서 捕虜收容所를 爆擊하였 다는 共產軍側 非難을 否定.</p>	7月15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콜린스」美陸軍參謀總長 李大統領을 禮防.</p> <p>○ 國會 제8차本會議 대통령 부통령 선 거법안을 통과.</p> <p>○ 「콜린스」美陸軍參謀總長 單獨記者會 見, 休戰成立의 可能性은 아직 있으 며 軍事目標에 對한 爆擊強化는 今後 도 續行.</p> <p>○ 南阿赤十字社代表 「자손」氏 東京에서 言明—UN軍捕虜收容所 共產捕虜들의</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16日	<p>生活水準은 一般韓國民間人들보다도 良好.</p> <p>○ 「프랑스」陸軍長官, 現代戰에 關한 軍教育實施를 爲하여 豫備隊將校를 韓國에 派遣할 것이라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大體 輕微.</p> <p>○ F86세이버 컷트機隊 西北韓 上空에서 MIG컷트機 1臺를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休會중인 秘密本會談을 다시 2日間 休會할 것을 要請, UN軍側도 이에 同意.</p> <p>○ UN軍側, 連絡將校 지난 1日의 平壤爆擊時 捕虜收容所를 爆擊하였다는 共產軍側 非難에 對한 否認覺悟를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泰英國防部長官, 一部 轟動殘匪의 根滅을 爲하여 全北茂朱郡에 非常戒嚴을 宣布한다고 談話.</p> <p>○ 美空軍 F86선더·컷트機 58臺 日本 橫田基地 着陸, 太平洋橫斷 實時間 27時間 34分.</p>	7月18日	<p>○ 「페르메르」美海軍作戰部長 「브리스코」美極東海軍司令官을 同伴코 空路 서울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會談에서 北韓捕虜收容所의 位置를 明示한 地圖를 手交 (3捕虜收容所를 閉鎖하고 6個 收容所를 新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京義線 臨津江 鐵橋 開通式 舉行.</p> <p>○ 「페르메르」美海軍作戰部長, 美海軍은 命令이 있는대로 北韓 어느곳에든 地上陸作戰을 政行할 수 있는 實力을 保持하고 있다고 記者會見談.</p> <p>○ 韓國 海域에서 2年間 服務한 英輕巡洋艦 「세이론」號 修理를 爲하여 新嘉坡 旋泊中.</p> <p>○ 美國務省代辦人, 印度가 韓國休戰問題에 關하여 中共과 交涉中임을 確認하였다고 言明.</p> <p>○ 中共은 共產軍捕虜를 中立地帶로 移送한後 中立委員會가 審査할 案을 示唆, 美·英兩國은 現在 同案 檢討中.</p>
7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漢灘江 東쪽에서 金城 一帶에 25回에 걸쳐 探索戰.</p> <p>○ UN軍, 平康 南쪽 共產軍을 攻擊.</p> <p>○ UN軍, 攻擊部隊 鐵原 東北쪽 共產軍 高地를 攻擊.</p> <p>○ 共產軍 1個대대 鐵原 西쪽 我軍陣地를 戰車支援下에 夜間攻擊.</p> <p>○ 鐵原 西쪽 戰線에서 戰車戰 展開 共產軍 戰車 1臺 砲擊을 받아 大破.</p>	7月1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鐵原 西쪽 不毛高地에 對한 共產軍 1個大隊의 攻擊을 6時間 交戰끝에 早朝 擊退.</p> <p>○ UN軍, 共產軍의 猛烈한 砲火로 不毛高地를 撤收.</p> <p>○ 「페르메르」美海軍作戰部長 제1艦隊 旗艦 「아이오와」號에 乘艦 元山地區 作戰視察.</p> <p>○ UN空軍活動 惡天候로 最少限度로</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7月19日	<p>低下.</p> <p>休戰會談</p> <p>○ 제11차 秘密本會議—休會4日만에 再開.</p> <p>政 治</p> <p>○ 政府, 大統領·副統領選舉法 公布施行.</p> <p>○ 駐印「보오루즈」美大使 記者會見에서 美國은 「네에루」首相의 韓國休戰調停을 歡迎한다고 言明.</p> <p>○ 中共은 水豊爆擊 數日前에 韓國休戰成立의 基礎가 될 新提案을 印度에 提示코 關係諸國의 反應打診에 工作.</p> <p>軍 事</p> <p>○ UN軍 共產軍의 猛烈한 抵抗을 물리치고 不毛高地의 一方 奪還.</p> <p>○ 不毛高地에서 中共軍, 3회에 걸친 UN軍의 重砲 및 手榴彈攻擊에 頑強히 抵抗.</p> <p>○ 美제77機動艦隊所屬 艦載機臺 長津제1, 제3水力發電所를 爆擊.</p> <p>○ 美제25사단장 「스위프트」少將 離任, 後任에 「윌리엄」准將.</p> <p>休戰會談</p> <p>○ 제12차 秘密本會議—29分間 開催.</p> <p>政 治</p> <p>○ 政府, 대통령 부통령선거를 來8月 5日에 實施한다고 發表.</p> <p>○ 漢江鐵橋 開通式 李大統領 및 「벤」司令官 臨席下에 舉行.</p> <p>○ 美海軍當局 390隻에 達하는 新建艦計劃을 發表—原爆機用 航空母艦(6萬噸級)과 原子潛水艦의 建造도 包含.</p>	7月20日	<p>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UN軍部隊 日沒直前까지 8회에 걸쳐 不毛高地 反擊.</p> <p>○ UN軍 戰爆機隊 鐵原 西쪽 不毛高地를 攻擊.</p> <p>○ UN軍 세이버 잭트機 34臺 新義州 上空에서 敵 MIG-15젭트機 50臺와 交戰코 3臺 擊破.</p> <p>休戰會談</p> <p>○ 제13차 秘密本會議—12分間 別無進展.</p> <p>○ 共產軍 首席代表, 連絡將校를 通하여 書面抗議, UN軍이 共產軍捕虜를 北韓에 落下傘으로 潛入시켜 間諜으로 使用.</p> <p>政 治</p> <p>○ 北京放送 「벤」將軍이 지난 3日 東京에서 白耳其外交官에게 細菌戰 實施中임을 承認하였다고 虛偽宣傳.</p>
		7月21日	<p>軍 事</p> <p>○ UN軍探索隊 金化—金城間 道路를 探索하여 共產軍 50名을 殺傷.</p> <p>○ UN軍 地上攻擊部隊 長時間 戰鬪끝에 早朝에 不毛高地 奪還.</p> <p>○ UN軍 重砲, 約 9時間에 걸쳐 不毛高地에 彈幕射擊.</p> <p>○ UN空軍 F80젭트機 및 海軍所屬機隊 不毛高地 地域의 地上友軍을 支援.</p> <p>○ 美空軍 B29爆擊機隊 長津 제2水力發電所를 爆擊.</p> <p>休戰會談</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月22日	<p>○ 제14차 秘密本會談—20分間으로 終了.</p> <p>○ 連絡將校 會合에서 共產軍側 捕虜名簿에 包含되어 있지 않은 中共捕虜 101名에 對한 說明을 要求.</p> <p>○ 「헤리슨」UN軍首席代表, UN軍代辯人 「나콜스」准將의 更迭發表, 後任에 「조세프·보오치어트」中領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제11차 本會議 文化保護法案 可決 通過.</p> <p>○ 「클라야크」UN軍司令官, ① 共產軍은 現在 地上軍 100萬, 航空機 2千臺 ② 韓國休戰會談에 있어서 捕虜問題가 解決된다 하여도 軍事境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再決定이 다음의 難關이라고 「월드리포오트」誌에 寄稿.</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不毛高地 山頂을 다시 掌握.</p> <p>○ UN, 共產 兩軍 不毛高地를 圍繞하고 一進一退의 激戰, 中共軍의 死傷 및 捕虜는 約 1,000名에 到達.</p> <p>○ UN軍戰爆機 不毛高地 地域에서 敵 砲陣地 13個所를 破壞.</p> <p>○ B29爆擊機隊 興南을 爆擊.</p> <p>○ UN空軍 平壤 三登閣 「세멘트」工場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15차 秘密本會談—不過 5分間 會合.</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範奭內務部長官, 李允榮無任所長官, 辭表를 提出하고 次期副統領 立</p>	7月23日	<p>候補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不毛高地전투 平穩化, 山頂은 繼續하여 中共軍이 掌握.</p> <p>○ UN空軍 18日以來의 不毛高地 奪還戰에서 韓國戰爭以來의 最大空中 掩護.</p> <p>○ UN軍 輕爆擊機隊 元山 南쪽 「오사리」의 共產軍 補給品 貯藏所를 波狀 攻擊.</p> <p>○ 陸軍總參謀長 更迭, 李鍾贊中將 後任에 第1군단장 白善煥中將을 任命.</p> <p>○ 美國防省 發表—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13,363名.</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16차 秘密本會談—7分만에 散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務省 蘇聯外務省에 覺醒을 傳達하여 中共 및 北韓으로 하여금 捕虜 待遇에 關한 「제네바協定」을 遵守 要求.</p> <p>○ 美陸軍省 在韓美제9군단장 「와이만」中將을 歐州方面으로 轉任시키고 後任에 現陸軍參謀次長補 「제킨스」少將을 任命發表.</p> <p>○ 英陸軍省發表 「깃슬」將軍 後任으로 「알스톤·로버트·웨스트」少將 來 9月에 在韓英聯邦軍司令官으로 就任.</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戰鬪輕微.</p> <p>○ B29爆擊機隊 陽德과 元山 西쪽을 爆擊.</p> <p>○ UN軍航空隊 照川—江界間 鐵橋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擊破.</p> <p>休戰會談</p> <p>○ 제17차 秘密本會議—26分間 討議.</p> <p>政 治</p> <p>○ 中央選舉委員會—大統領立候補 李承晚博士, 副統領立候補 李範奭氏의 登錄書類 接受.</p> <p>○ 極東方面 觀察中の 「페크러러」 美海軍作戰部長 「마나라」에서 說明, 美國은 이미 原子彈을 積載할 수 있는 航空機를 韓國에 配置하고 있다고.</p> <p>○ 印 「네루」首相, 印度는 韓國戰爭 解決에 아직 具體的인 提案을 한 일이 없다고 記者會見談.</p>		<p>會談은 全然 無成果였다고 其內容을 發表. 共產軍側 8萬3千名 送還自願捕虜의 引渡를 主張하는 UN軍側 提議에 對하여 2萬 中共捕虜를 包含한 共產軍捕虜 11萬6千名의 強制送還을 固執.</p> <p>政 治</p> <p>○ 美第44師團發表, 同師團所屬의 技術者 約 100名을 韓國에 派遣키로 決定.</p>
7月25日	<p>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UN軍 漣川 西北地區에서 敵 1個중대를 擊退.</p> <p>○ T型高地 中央에 布陣한 美제2사단 소속 佛軍大隊 中共軍 3個중대의 攻撃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高原 操車場을 爆擊.</p> <p>○ 美8군사령부 發表—鐵原 西쪽 不毛高地 爭奪戰에서 激烈한 戰鬪를 繼續하여 온 部隊는 美제2사단.</p>	7月26日	<p>軍 事</p> <p>○ 地上戰鬪 大體 輕微.</p> <p>○ 第5空軍發表 19日~25日間에 共產軍 對空砲火에 擊墜된 UN軍機는 5臺 其他未歸還機는 3臺.</p> <p>休戰會談</p> <p>○ 公開本會議 第113次再開, 「해리슨」 UN軍側代表 休戰協定 草案의 成文化를 檢討할 參謀將校會議의 開催에 同意한 後 本會議의 1週日間 休會를 通告하고 退場.</p>
	<p>休戰會談</p> <p>○ 제18次 秘密本會議—共產軍側 休戰協定 草案細則 用語를 討議하기 爲한 參謀將校會議 開催와 公開會議 再開를 提議.</p> <p>○ UN, 共產兩軍代表 捕虜交換에 關한 秘密討議의 締結에 合意.</p> <p>○ UN軍 前線司令部 18次에 巨한 秘密</p>	7月27日	<p>政 治</p> <p>○ 正副統領 立候補 登錄啓動, 大統領 立候補者 9名, 副統領立候補 9名.</p> <p>軍 事</p> <p>○ 全戰線에 豪雨 戰鬪大體 輕微.</p> <p>○ 共產軍 MIG 15젯트機 鐵南浦上空에서 英國艦載機 3臺에 損害.</p> <p>○ 蜂岩島捕虜收容所에서 美軍將校 및 北韓抑留人 1名이 重傷한 事件發生.</p> <p>休戰會談</p> <p>○ 參謀장교회의 UN軍側, 共產軍側提議의 未解決 草案用語數項에 關한 提案을 書面으로서 提出할 것을 要求.</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7月28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全國民의 意思를 尊重하여 次期 大統領立候補를 受諾하였다고 聲明.</p> <p>○ 慶南地區兵事區司令部 美第8軍 要請에 依한 一線勞務者 徵用 召集을 實施 大韓建設復興團에서 約 400名 自進 志願.</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大體 平穩.</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參謀將校會談一協定草案 用語에 關한 討議를 繼續 共產軍側 張春山大領 UN軍 및 「코리아」의 韓國語定義에 關한 共產軍側 提案을 書面으로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大統領선거자유분위기 保障을 爲하여 全羅南北道 및 慶尙南道中 24個郡의 非常戒嚴 解除.</p> <p>○ 韓美合同經委 企劃分科委 極毅 10萬 屯 導入에 合意.</p>	7月30日	<p>○ 參謀將校 會議一討議繼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이란」下院, 駐「이란」美軍事使節團의 撤去要求로 論議.</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澗川 西쪽에서 UN軍부대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戰爆機隊 戰線一帶의 敵重要 據點을 계속 공격.</p> <p>○ 沖繩基地 B29爆擊機 66臺 安東東南 13杼 北韓經金屬工場을 夜間爆擊.</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13,688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30名增加.</p> <p>○ 「벤」將軍, 休戰은 敵에게 加하는 軍事의 壓力과 直接的인 關係이 있으며 即時 成立은 難望이라고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參謀將校會議一 계속開催.</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AP記者單獨會見 休戰協商에 一定한 時間的 制限을 附與한 것을 主張하고 不應時의 全面戰鬪 再開를 強調.</p> <p>○ 北韓出身 民間人抑留者 500餘名 第3次로 석방. 釜山驛前에서 석방환영회 거행.</p> <p>○ 北大西洋軍最高司令官 「릿치웨이」將軍은 8月 1日부터 在歐美軍總司令官을 兼任.</p>
7月2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大體 平穩.</p> <p>○ UN軍 B29爆擊機 및 惡天候를 무릅쓰고 地上友軍을 空中支援.</p> <p>○ 李大統領 韓國通信施設 運營과 整備에 貢獻한 美第8226부대를 表彰.</p> <p>○ 「클라아크」UN軍司令官 「슈우스티스」英少將의 UN軍參謀次長 就任을 發表.</p> <p>○ 國防部政訓局長 崔榮喜少將 陸軍本部作戰參謀副長으로 就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7月3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부대 不毛高地를 攻擊.</p> <p>○ 共產軍 澗川 西北쪽 UN軍 陣地攻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UN軍輕爆擊機隊 西部戰線 地上軍을 支援.</p> <p>○ 「엔」司令官 西部戰線 不毛地地 地域을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 共產軍에 被逮되었다고 믿 어지는 45명의 UN軍 名簿를 共產軍 側에 手交하고 追加 算定을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張國務總理 記者會見 太平洋地域 自由國家群의 共同防衛機構 形成을 強調.</p> <p>○ 美國防動員本部發表 韓國戰爭 勃發 以來 美國은 今日까지 100萬名의 壯丁 召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務會議 生産責任制實施 要綱을 商工部 原案대로 通過.</p> <p>○ 交通部 鐵道旅客運賃및 料金を 倍額 引上을 實施.</p> <p>○ 徐議員 事件에 對한 嶺南地區계엄사령부 高等군법회의 再審 懲役 8年을 渡.</p>
<p>8月 1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步兵부대 8時間에 걸친 激戰 끝에 不毛高地 山頂을 다시 掌握.</p> <p>○ UN空軍 F86젯트機 32臺 敵 MIG 젯트機 60臺와의 空中戰에서 敵機 3臺를 擊墜하고 2臺에 損害.</p> <p>○ 美 F84선더·젯트機 1個聯隊(제474 戰爆擊聯隊), 在韓 UN空軍 增強을 爲하여 새로이 配置.</p> <p>○ 美極東空軍司令部 發表, 韓國戰爭 開始以來 美空軍 F86세이버·젯트機는 共產軍 MIG 15젯트機에 對하여 9對 1의 勝率을 確保.</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參謀장고회의, UN軍側 共產軍側이 提案한 休戰協定 草案中の 6個條의 字句修正에 同意.</p>	<p>8月 2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探索隊 鐵原 北쪽에서 共產軍 25名을 射殺.</p> <p>○ 不毛高地上 UN軍부대 早朝 2回에 걸친 中共軍 反擊을 擊退.</p> <p>○ UN軍砲兵 및 航空隊 不毛高地 北쪽 中共軍陣地에 破壞의 砲擊을 계속.</p> <p>○ 美航母「프린스톤」號 艦載機隊 長津 부근 大變電所를 爆破.</p> <p>○ UN軍司令部 韓國後方地區司令部의 新設을 發表, 初代司令官에 「토오마스·W·헤켄」少將任命 司令部는 大邱에 設置, 從來의 後方基地司令部 및 UN軍捕虜收容所司令部를 管下에 두고 民間救濟事業도 統轄.</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兩軍代表, 休戰協定の 用語問題에 關해서 完全한 意見一致에 到達하기 爲하여 努力을 繼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公報處 發表 全國有權者數8,218,100 名 投票區數 5,893, 開票區數 163.</p> <p>○ 제18回 國際赤十字總會, UN軍이 韓國에서 細菌戰을 行하고 있다는 共產 側의 非難에 對해서 公平한 調査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8월 3일	<p>要求하는 次議를 採擇.</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城 南쪽 UN軍 前哨陣地の 歩兵部隊 共產軍 3個分隊의 攻擊을 받아 後退. ○ UN軍 探索隊 鐵原 北方에서 共產軍 3個分隊와 接觸. ○ UN軍 부대 共產軍의 攻擊을 받아 漣川 西方 前哨陣地로부터 1時 後退하였으나 白兵戰 끝에 다시 驅逐. ○ UN軍 艦載機隊 長津貯水池·盧川·元山을 爆擊하고 發電施設을 破壞. ○ B29 爆擊機隊 全戰線을 따라 共產軍 主要陣地를 계속 攻擊.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再開된 제114次 本會議—다시 一週 日間の 休會에 兩側이 同意. ○ 參謀장고會議 계속하여 用語문제 討議. ○ 張春山 共產軍 連絡將校, 美軍이 2일 午後 板門店 休戰會談場을 砲擊하였다고 UN軍側 連絡將校에 抗議.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싱키」 제15回 「올림픽」大會 終幕 美國 614點 1位 韓國은 30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臺가 黃海上空에서 中共標識 젃트 戰투기 2臺의 攻擊을 받아 塔乘員 2名이 死亡 機體 韓國西海岸에 歸着. ○ 英國 「푸지리어」聯隊 1개대대 韓國 戰線에 參加하기 爲하여 釜山港 到着 ○ UN韓委 泰國代表 「테바를라」和 蘭代表 「이티슴」兩氏 美제1군단本部를 訪問.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參謀장고會議—UN 및 「코리아」의 譯語에 關하여 未合意. ○ 北京放送, 捕虜問題에 關한 UN軍側 立場을 攻擊하고 美國은 韓國戰爭을 世界大戰으로 擴大시킬 計劃을 하고 있다고 非難. ○ 美陸軍省, 在韓美軍에 對한 最大限의 彈藥補給을 確保하기 爲하여 訓練用 重火器 彈藥의 配給을 嚴格히 할 것을 示達. ○ 國際農業會議—韓國을 包含한 34個 國參加裡에 「케리모니아」에서 開催.
8월 4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登里 溪谷 西쪽 UN軍 前哨陣地에 對한 敵의 探索攻擊을 擊退. ○ 不毛高地上的 UN軍에 對한 共產軍 1개소대의 攻擊을 擊退. ○ 제5공군소속 戰爆機隊 平壤 東北쪽의 北韓 共產軍司令部를 2回 猛爆. ○ 지난 31일 美海軍 「마이진」 探索機 	8월 5일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部隊 北漢江 西方 前哨高地에서 夜間에 2次에 걸친 敵攻擊을 받아 撤收. ○ 鐵原 西方 不毛高地上的 UN軍部隊 編橫 陣地를 強化. ○ UN軍 艦載機 北韓 東海岸 發電施設 攻擊. ○ F84신더·젃트機隊 海州 近方 鐵路 攻擊中 敵 MIG젃트機와 交戰하여 敵機 1臺 擊破.

월 일	주 요 사 랑	월 일	주 요 사 랑
	<p>○ B29爆撃機隊 北漢江 東쪽 檢倉 金鎖를 爆撃.</p> <p>○ 「네」司令官 不毛高地 奪還에 赫赫한 功績을 세운 美제2사단을 讚揚하여 師團長 「푸라이」少將에 致賀.</p> <p>○ 美제5空軍은 北韓 78個都市 住民에 對하여 爆撃豫定 危險地域으로부터 避難할 것을 傳單 및 「라디오」로 警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休戰協定草案의 字句에 關한 檢討를 終了, 協定草案 用語에 完全合意.</p> <p>○ UN軍側, 捕虜에 對한 救濟品 交換을 認定하라는 通告를 共產軍側에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大統領 부통령선거 投票, 全國적으로 平穩裡에 終了(投票率 86%).</p> <p>○ 韓國으로부터 歸國한 前美제45사단 장 「스타이론」少將, 美政府에는 너무도 많은 理想主義者와 慈善家가 있기 때문에 韓國에서 美國의 力量이 弱화되고 있다고 非難.</p>		<p>戰에서 敵 MIG15젯트機 6臺 擊墜, 2臺 擊破.</p> <p>○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40,310 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642名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트론트」國際赤十字會議, 韓國戰爭에서의 捕虜待遇 狀況을 調査하기 爲하여 參戰各國 赤十字代表를 派遣할 것을 要請한 韓國代表의 提案을 採擇</p> <p>○ 歸國한 「제」英 UN代表 韓國休戰의 成立을 確信하나 長時日을 要한다고 記者會見談.</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 步兵部隊 北漢江 西쪽 首都高地 前哨陣地에 對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傾斜地帶서 強打.</p> <p>○ 美航母「북서」號는 最近 韓國海域 出動中, 積載젯트機 1臺의 爆發로 死亡者 9名, 負傷者 75명 其他 젯트機 12臺를 喪失코 目下 日本 橫須港基地로 回航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핀래터」美陸軍長官 共產主義 指導者들에 對하여 UN軍의 北韓 都市 爆撃으로 말미암은 民間人의 犧牲을 減少시키도록 措置를 講究할 것을 要請 聲明.</p>
8月 6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昨夜 撤收한 北漢江 西쪽 前哨陣地를 今朝에 再奪還.</p> <p>○ 北漢江 西쪽 前哨陣地에서 韓國軍, 共產軍과 手榴彈戰 展開 數次에 걸친 奪取戰 끝에 夜半에 再次 撤收.</p> <p>○ 中部戰線에서 UN軍 探索隊 約150 名의 中共軍과 交戰.</p> <p>○ UN軍輕爆撃機隊 黃州 一帶의 軍事 目標 爆撃.</p> <p>○ 美 F86 세이버 · 젯트機 4回의 空中</p>	8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金城 東南쪽 首都高地上的 韓國軍部隊 8時間에 걸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擊退.</p> <p>○ UN軍航空隊 首都高地 北쪽 中共軍 陣地를 攻擊.</p>
		8月 8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F86세이버·젯트機隊 敵 MIG젯트機 4臺를 擊墜, 5臺 擊破.</p> <p>○ B29爆擊機 元山南쪽 15哩地點인 高山操車場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首席代表, 連絡장교 회의를 통하여 공산군측에 2通의 諒翰, ① 지난 4日 UN軍機 1臺가 中立地帶上空을 侵犯 하였다는 共產軍側 抗議를 一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제8軍의 戰功을 讚揚하고 韓國經濟再建을 爲한 努力에 感謝狀 授與.</p> <p>○ 李承晚博士, 524萬餘票의 壓倒的多數票로 次期大統領 當選 副統領 咸台永.</p> <p>○ 「라렛트」美國防長官 記者會見談— ① 美國은 韓國에서의 原子彈使用은 拒否, ② 今年末까지 北大西洋軍이 一線 師團 25, 豫備師團 25를 編成한 計劃의 達成을 疑心, ③ 中東防衛機構 設置方法에 關해서 美英間 意見不 一致.</p>	<p>에 21,600發의 砲彈을 發射 開戰以來의 最大砲擊.</p> <p>○ 英艦隊機隊 38°線부터 50哩 未滿地點 上空에서 MIG 15젯트機 1臺 擊墜.</p> <p>○ F86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에서 MIG 젯트機 1臺 擊墜.</p> <p>○ UN空軍 沙里院飛行場을 猛襲</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國民의 意思에 順從한 따름이라고 再選의 所信을 披瀝.</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北漢江流域 韓國軍部隊 350名의 中共軍反擊을 擊退코 如前히 主高地 堅持.</p> <p>○ 板門店 東쪽 高地爭奪戰 熾烈 共產軍 9日 午前 以來 4回에 걸친 爭奪戰 끝에 1個 高地를 再次掌握.</p> <p>○ 美極東空軍 平壤附近 軍事目標에 對한 再次 攻擊을 示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및 「벤」將軍 永登浦에서 거행된 1,100名의 民間人抑留者 석방식에 參席.</p>	<p style="text-align: center;">8月 10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極東空軍 平壤附近 軍事目標에 對한 再次 攻擊을 示唆.</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및 「벤」將軍 永登浦에서 거행된 1,100名의 民間人抑留者 석방식에 參席.</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海兵隊 板門店東쪽 前哨陣地에 對한 攻擊을 계속.</p> <p>○ 韓國海兵隊 汝山西쪽에서 拂曉에 中共軍과 3時間 交戰.</p> <p>○ 北韓共產軍 海岸砲隊와의 交戰에서 美驅逐艦 2隻, 英프리게이트艦 1隻이 被害.</p> <p>○ F86세이버·젯트機隊, 敵 MIG 15젯트機 1臺를 未確認 擊墜하고 1臺를</p>
<p style="text-align: center;">8月 9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部戰線 北漢江西쪽 高地戰 계속 韓國軍 首都師團 中隊兵力의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共產軍 北漢江西쪽 高地戰에서 13,000發의 砲彈을 發射.</p> <p>○ 西部戰線 板門店東쪽 高地에서 彼我間에 戰鬪展開.</p> <p>○ 共產軍 日沒에 이르는 24時間 동안</p>	<p style="text-align: center;">8月 11日</p>	<p>○ 美海兵隊 板門店東쪽 前哨陣地에 對한 攻擊을 계속.</p> <p>○ 韓國海兵隊 汝山西쪽에서 拂曉에 中共軍과 3時間 交戰.</p> <p>○ 北韓共產軍 海岸砲隊와의 交戰에서 美驅逐艦 2隻, 英프리게이트艦 1隻이 被害.</p> <p>○ F86세이버·젯트機隊, 敵 MIG 15젯트機 1臺를 未確認 擊墜하고 1臺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8월 12일	<p>擊波.</p> <p>○ 巨濟島 第12收容所에서 共產軍捕虜 示威 UN軍警備隊 發砲로 負傷 38名.</p> <p>休戰會談</p> <p>○ UN軍側 提案으로 지난 3日 以來 休會中이던 休戰會談 本會議 再開.</p> <p>○ 再開된 제115次 本會談 UN軍側 要求로 다시 19日까지 1週間 休會決定.</p> <p>政 治</p> <p>○ 李大統領 一線勞務者의 交代期間 嚴守를 關係當局에 嚴示.</p> <p>○ 申國防長官 一線地區 視察, 將兵의 士氣는 極히 旺盛.</p> <p>軍 事</p> <p>○ 美海兵隊 板門店 東쪽 「병커」 高地를 早朝에 奪還.</p> <p>○ 美海兵隊 熾烈한 戰鬪後 「병커」 高地 東쪽 「시베리아」 高地도 掌握.</p> <p>○ 板門店 東쪽 「병커」 高地上的 美海兵隊 中共軍 400名의 反擊을 擊退.</p> <p>○ B26 輕爆機隊 戰爆機隊와 共同作戰 展開코, 海州·延安·載寧부근 共產軍 兵力 集結所 攻擊.</p> <p>○ 美 제1海兵사단장 「센넬」少將의 更迭, 後任에 「고룩스」 제2해병사단장.</p> <p>○ 英聯邦師團 소속 「스콜트랜드」 제1대대 16個月 間의 服務期間을 마치고 香港向 離韓.</p> <p>休戰會談</p> <p>○ 「로빈슨」 UN軍側, 連絡將校 共產軍側 連絡將校에 「멧제지」傳達 지난 10日의 UN軍機, 中立地帶 侵犯을 認定하고 遺憾表明.</p>	8월 13일	<p>政 治</p> <p>○ 慶南地區兵專區司令部 美 제8군 要請에 依하여 一線勞務者 徵用召集 實施.</p> <p>○ 大韓赤十字社 主催 傷戾軍人慰安演藝大會 廣安 水泳場에서 거행.</p> <p>軍 事</p> <p>○ 板門店 東쪽 「병커」 高地上的 美海兵隊 增援部隊의 支援을 받아 中共軍 1개 대대의 夜間攻擊을 未明에 擊退.</p> <p>○ UN軍 「병커」 高地에 대한 中共軍 2개 대대의 제3차 攻擊 擊退.</p> <p>○ 「시베리아」 高地上的 中共軍, 「병커」 고지에 대하여 기관총사격.</p> <p>○ UN空軍 「시베리아」 고지상의 中共軍을 強打.</p> <p>○ 巨濟島捕虜收容所長 「보어트너」 소장 美 제4軍副司令官으로 任命.</p> <p>○ 美陸軍參謀次長(兵站擔當)으로 任命된 「W. B 콰아머」장군 美 제10군단司令官 離韓.</p> <p>○ 韓國戰線 美軍 犧牲者 總數 114, 685 名.</p> <p>休戰會談</p> <p>○ 「헤리슨」 UN軍首席代表, 連絡장교 회의를 통하여 共產軍側에 書翰, 共產軍側 新捕虜收容所의 位置明示를 要求.</p> <p>政 治</p> <p>○ 美空軍當局, 極東各地 戰鬪飛行隊의 豫備兵力을 所期の 水準에 到達케 하기 爲하여 航空機를 急派 始作.</p> <p>○ 「케인」 美上院議員 蘇聯이 中國 및 韓國의 分割支配를 企圖하고 있다고</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8月14日	<p>警告한 1945. 6. 5부 「백아덕」元帥 參謀長 「피보더」准將의 秘密報告를 公開.</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커」고지에 대한 中共軍의 제4차 攻擊을 未明에 擊退. ○ 「크라아크」장군 大邱 陸軍本部를 訪問코 韓國軍의 飛躍的인 發展을 讚揚. ○ 「웨이랜드」UN空軍司令官 在韓 UN空軍力은 顯著히 強化되었다고 聲明.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解放 7週年 記念 祝賀大會 席上의 金日成傀儡首相 演說 公平 妥當한 停戰協定の 成立을 希望, 韓國問題 平和的 解決에 계속 노력. ○ 「윅카스함」美下院 軍事委員, 韓國 休戰會談에 대한 共產側의 無誠意로 보아 UN側은 同會談의 期限을 設置하여야 한다고 主張. 	8月16日	<p>에 대하여 23發 誤擊으로 9名 負傷.</p>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側, 新設 3個 捕虜收容所의 位置를 UN軍側에 通告.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統領 就任 및 光復節記念式 서울 中央廳 廣場에서 舉行. ○ 國防部 廣場에서 九月山部隊 抑留者 釋放 歡迎會 거행. ○ 大統領令 제667號 「減刑令」 公布施行. ○ 美國務省, 金日成 北韓傀儡首相의 休戰問題에 關한 聲明에 대하여 何等의 새로운 點이 없다고 反論. ○ 桑港市場, 8월 15일을 「韓國의 날」로 制定한다고 公布.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커」고지 攻防戰 熾烈 美海兵隊 增援部隊의 到着을 期하여 中共軍 1개 大隊의 제7차 攻擊을 未明에 擊退. ○ 제5空軍소속 輕爆擊隊隊 嶺南浦 西北 嶽 共產軍司令部 및 兵力集結所 爆擊. ○ UN軍戰爆機隊 「방커」고지 地區 中共軍陣地 繼續猛打. ○ 新任 美 제10군단사령관 「I. B. 화이트」少將 着任. ○ 韓國戰線 加奈陀軍 犧牲者 總數 932名 其中, 戰死者 164名, 負傷者 694名, 其他는 行方不明 및 捕虜.
8月15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커」고지 中共軍 反擊被勅, 美海兵隊 同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제5차 攻擊을 未明에 擊退. ○ 中共軍 200名의 「방커」고지에 대한 제6차 攻擊을 擊退. ○ 美海兵隊發表 지난 9日 「시베리아」고지 및 「방커」高地지구에서 戰鬪가 開始된 以來 中共軍의 死傷者는 3,000명. ○ UN空軍, 平壤南쪽 中和 共產軍補給 基地를 警告 爆擊. ○ 美掃海艇 興南地區에서 友軍 救護船 	8月16日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大統領 美極東空軍司令官 「웨이랜드」大將에게 金星大勳章 授與. ○ 「덜레스」氏 韓國戰爭前의 駐韓美軍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撤退 責任을 共和黨에게도 있다는 非難에 대하여 共和黨은 當時 大統領의 命令을 따랐을 뿐이라고 反論.</p> <p>○ 「리」 UN事務總長 「오스르」에서 演說·韓國戰爭에서의 勝敗決戰은 不可能한 일.</p>		<p>○ 「해리슨」 UN首席代表, 休戰은 可能 共產軍側은 休戰을 希望하고 있다고 言明.</p>
8月17日	<p>軍 事</p> <p>○ 地上戰 大體 平穩.</p> <p>○ 共產軍 「빙커」고지 反擊企圖를 中止.</p> <p>○ 美 제2사단소속 「헬리콥터」機隊 戰線에 消毒藥 撒布.</p> <p>○ 美軍司令部 韓國戰線 UN軍의 部隊 所屬 報道 禁止.</p>	8月20日	<p>政 治</p> <p>○ 美避難民委員會發表 年平均 25萬名 以上の 人民이 鐵의 帳幕으로부터 自由世界로 逃避.</p> <p>○ 「라렛트」 美國防長官 韓國의 UN軍은 今後도 계속 「나이팜」彈을 使用할 것이라고 言明.</p> <p>軍 事</p> <p>○ 地上戰鬪 散發의인 小規模 交戰.</p> <p>○ 美驅逐艦 「톰슨」1號 城津 砲擊中 共產軍海岸砲의 直擊彈으로 3名 死亡 10명 負傷.</p> <p>○ UN空軍 平壤北쪽 30里 庫陽里 공산 軍보급품집적소 攻擊.</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共產軍 MIG 젯트機와 5차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機 1臺 擊破.</p> <p>○ 李대통령 中部戰線 美 제9군단, 國 軍 제2사단 및 제9사단을 觀察.</p>
8月18日	<p>政 治</p> <p>○ 제18回 國際赤十字總會 出席 韓國代表 一行 歸國.</p> <p>軍 事</p> <p>○ B29 爆擊機隊 新義州 근방 共產軍彈藥工場 爆擊.</p> <p>政 治</p> <p>○ 合同經濟委, 債還償 3,500萬弗中 2,100萬弗을 外國產糧穀 10萬屯 輸入에 充當 할것을 正式 決定.</p> <p>○ 來 9日 「싸이틀」市에서 開催될 極東 國際貿易博覽會 韓國製品 出品.</p> <p>○ 加奈陀 民間援護團體代表 「헤슈미노바」博士 來韓.</p>	8月21日	<p>政 治</p> <p>○ 中國防 및 白善燁陸軍參謀總長 釜山 市內 各部隊 學校 및 病院을 觀察.</p> <p>軍 事</p> <p>○ 地上戰鬪 比較的 平穩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의 探索戰과 偵察戰程度.</p> <p>○ UN軍 B29 爆擊機隊 威興 敵軍需品 集結地를 爆擊.</p> <p>○ UN軍 戰爆 및 무스탕機隊 沙里院 東南쪽 北韓세멘트工場을 爆擊.</p> <p>○ 陸軍本部 兵站監室 公用 出張將兵을</p>
8月19日	<p>軍 事</p> <p>○ 全戰線 接敵 輕微.</p> <p>○ B29 爆擊隊 鎮南浦 操車場 爆擊.</p> <p>休戰會談</p> <p>○ 제116次 本會議一再開 1時間 會合後 UN軍 要講으로 一週日間 休會 同意.</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8月22日	<p>爲해 南韓 16개소에 陸軍寢食所를 設置.</p> <p>政 治</p> <p>○ UN韓委「파키스탄」代表「사아우딘」氏 水原飛行場 到着.</p> <p>○ 梁裕燦 駐美韓國大使「에리슨」國務次官補를 訪問코 美國의 主動下에 早速히 太平洋同盟이 結成 될 것을 要請.</p> <p>軍 事</p> <p>○ 各戰線에서 輕微한 探索接觸.</p> <p>○ UN軍 探索隊 鐵原東쪽에서 共產軍 1개 소대와 二次에 걸쳐 交戰.</p> <p>○ 西部戰線 共產軍 5차에 걸쳐 探索活動.</p> <p>○ UN軍 B29 輕爆擊機隊 安岳補給地區 攻擊.</p> <p>○ 「무초」駐韓美大使 美 제7艦隊旗艦 「아이오와」號를 訪問코 元山砲擊을 參觀.</p>	8月24日	<p>○ 中國防長官, 白總參謀長一行 馬山 鎮海等地 視察.</p> <p>○ 「울림픽」選手團一行 歸國.</p> <p>○ 美軍 및 韓國軍이 今年 1月中에 巨濟島에서 170名의 共產軍捕虜를 殺害 하였다고 虛偽 報道.</p> <p>○ 美國防省當局 在韓美軍捕虜가 中共 地域에 移送된 것은 確實하나 蘇聯領土內로도 強送되었다는 報道는 믿을 수 없다고 聲明.</p> <p>軍 事</p> <p>○ 惡天候로 戰線 계속 小販狀態 維持.</p> <p>○ 美 제77機動艦隊 所屬艦隊 東北 韓海岸線一帶의 敵軍事目標 攻擊.</p> <p>○ B29 爆擊機隊 水豐 揀車場 爆擊.</p> <p>○ 陸軍兵器學校 제8期 兵器士官候補生 卒業式 거행.</p> <p>政 治</p> <p>○ 各道 兵務課長會議 兵務事務의 簡素化 및 戰時學生認定에 關하여 繼續討議.</p> <p>○ 北京放送, 最近의 北韓內 共產軍에 대한 UN軍의 軍事的 壓力은 休戰交涉에 無影響.</p>
8月23日	<p>軍 事</p> <p>○ 全戰線에 暴雨, 地上전투는 輕微한 小規模 探索戰에 局限.</p> <p>○ B29 爆擊機隊 平壤西北쪽 共產軍 補給品集積所 爆擊.</p> <p>○ B29 爆擊機隊 新義州 東北쪽 3哩지점 선봉洞 共產軍集結地를 爆擊.</p> <p>○ 美 제8군사령부 지난 18일의 洪水로 溺死한 86名의 美軍中 19名의 屍體가 發見되었다고 發表.</p> <p>○ 巨濟島捕虜收容所에서 捕虜騷擾로 1名 死亡 12名 負傷.</p> <p>政 治</p>	8月25日	<p>軍 事</p> <p>○ 暴雨 繼續 全戰線 戰綫 輕微.</p> <p>○ 金化東北쪽에서 被我探索間에 散慢한 射擊戰.</p> <p>○ 中共軍 1개 대대 板門店東쪽 「빙커」고지에 대한 偵察攻擊 開始.</p> <p>軍 事</p> <p>○ 「빙커」高地에서 熾烈한 攻防戰展開</p>
		8月26日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8月27日	<p>UN軍 手榴彈白兵戰끝에 中共軍 反擊을 末明에 擊退.</p> <p>○ B29爆擊隊 平壤西北쪽 共產軍 補給品集積所를 계속 폭격.</p> <p>○ UN軍 B26輕爆擊機隊 北青 및 江東地區 共產軍補給所를 爆擊.</p> <p>○ 「클라아크」美極東軍司令官 管下 全軍의 能率增進 人員節約 및 團結確保를 爲하여 三軍統合司令部 設置를 決定하였다고 發表.</p> <p>○ 美제8군發表 8月 11日以來 UN軍 捕虜收容所에서 發生한 5次의 騷擾로 共產軍捕虜 1名死亡 52名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平壤放送, 共產軍계 靑島部隊가 지난 15日 永川邑을 襲擊, 韓國軍 및 警察官 47名을 殺傷하였다고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攻擊部隊 北漢江東쪽에서 中共軍 1個소대와 交戰.</p> <p>○ 共產軍 2個분대 金城東岸쪽 UN軍陣地에 探索攻擊.</p> <p>○ UN空軍爆擊機隊 瑞興지리 警告爆擊</p> <p>○ UN軍戰爆機隊 新安州, 宣川間 敵交通路 및 施設을 攻擊.</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戰死者 總數 21,252名.</p> <p>○ 韓國水域의 美海軍作戰狀況 視察中인 孫海軍總參謀長, 美제2艦隊旗艦 「아이오아」號上에서 聲明—韓國海軍은 現在 40隻의 哨戒艇과 萬名의 兵員을 保有.</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8月28日	<p>○ 제117차本會談一再開 33分間 會合後 다시 제5차로 1週日間 休會할것에 同意.</p> <p>○ 「레리슨」美首席代表, 이미 發表된 數字에 基礎를 두고 捕虜名簿를 交換할 用意가 있음을 聲明.</p> <p>○ 南日共產軍首席代表 UN軍側의 捕虜待遇를 非難하고 8월 11일부터 23日 까지 사이에 發生한 收容所 騷擾事件의 真相糾明을 要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務院 公告 제41號 「壯丁 召集의件」公布—滿23歲以上 28歲未滿의 제2國民兵을 9月 1日부터 召集.</p> <p>○ 駐日代表部 金公使 美極東軍輸送局長 「밀러」准將에 乙支武功勳章을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UN軍砲兵部隊 板門店北쪽 共產軍 3個부대 攻擊.</p> <p>○ UN軍戰爆機隊 海州地區 共產軍 集結地 攻擊.</p> <p>○ 英艦隊機隊 西海岸 鎮南浦地區 攻擊</p> <p>○ 新任 UN軍 參謀次長「슈우스미스」英陸軍少將 着任.</p> <p>○ UN軍捕虜收容所長 「보오트너」將軍, UN軍은 「세네바」協定에 依據하여 嚴正公平하게 共產軍捕虜를 取扱한다고 聲明.</p> <p>○ UN軍捕虜收容所當局, 앞으로 共產軍捕虜騷擾事件은 發生 即時로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國會 旱害對策 및 太平洋防衛同盟問題等에 關한 對政府 質問 緊急動議 可決.</p> <p>○ 美國韓國救濟團, 社會部長官에게 贊 輸—9月 1일부터 11월末까지에 122萬 弗 및 150萬磅에 達하는 衣類靴類를 韓國으로 發送.</p> <p>○ 崔社會部長官 美제1軍團의 韓國戰災 孤兒를 爲한 10萬弗 救護金 募集期間 設定에 感謝說明.</p> <p>○ 「트」大統領 記者會見談—아직도 韓國戰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할 希望이 남아있다고 說明.</p> <p>○ 뉴욕우, 美在鄉軍人會 年次大會 韓國 戰爭 處理는 이제 政治家에 依해서가 아니라 軍人에 依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最終日에 決議를 採擇</p>		<p>陳憲植, 農林部長官에 慎重穆氏 任命,</p> <p>○ 美代表團, 休戰後에도 韓國에 駐兵 시킬것을 考慮하고 있다고 示唆,</p> <p>○ 「맨먼버어그」美空軍總參謀長 「데트 로이트」에서 열린 空軍協會에서 演說—美空軍은 攻擊을 받을 때에는 即時로 原子爆彈으로 反攻할것이며 이 反攻을 阻止할 方途는 가까운 將來에 도 없을듯.</p>
8月2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繼續하여 小康狀態를 維持.</p> <p>○ UN空軍 延 1,400대가 出動하여 3回에 걸쳐 平壤 및 周邊의 軍事目標을 大爆擊 平壤地區 非戰鬥員에 대하여서는 事前에 避難警告.</p> <p>○ B29爆擊隊 長津發電所를 爆擊.</p> <p>○ F86세이버·젯트機隊 2次에 걸친 空 中戰에서 敵 MIG 15젯트機 1臺擊墜 2臺擊破.</p> <p>○ 지난 27日 美艦艇 「서어서」號(1,589 噸)는 與南南쪽 海上에서 機雷로 因 하여 沈沒 死亡 2名, 負傷 4名, 行方 不明 3名.</p>	8月3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F86세이버·젯트機 79臺 水邊附近方 上空에서 共產軍 MIG15젯트機 約 100臺와 交戰코 敵機 5臺擊墜 1臺不 確實擊墜 11臺擊破.</p> <p>○ UN空軍 B29爆擊機隊 平壤西南쪽 補 給地域을 夜間爆擊.</p> <p>○ 巨濟島捕虜收容所에서 共產軍捕虜들 收容所當局의 作業命令에 反抗 警備 兵과의 衝突에서 16名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內務部 및 慶南地區兵事區司 令部 6日間에 걸친 釜山地區 一團 兵 役忌避者 關東에서 違反者 989名 摘 發.</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府 國務委員 更迭, 內務部長官에</p>	8월31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板門店東쪽 「빙키」고지에 대한 共產 軍 1개분대의 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平壤近傍 共產軍 砲隊 本部를 攻擊.</p> <p>○ 美5空軍 8月戰果—共產軍 MIG 15젯 트機 32臺擊墜 45臺擊破, UN軍側 喪 失 25臺.</p> <p>○ 「보오트니」 UN軍捕虜收容所司令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月 1日	<p>後任으로 美8軍憲兵隊長「카르멜」大領 任命.</p> <p>○ 鎮海海軍士官學校 제6期生 卒業式 李大統領 및 「브리스코」美極東艦隊司令官 參席下에 舉行.</p> <p>○ 北京放送 9月 北京에서 開催될 亞細亞太平洋地區 平和會議에서 韓國問題의 平和解決이 討議될것이라고 示唆.</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攻擊部隊 高城南쪽 共產軍陣地를 早晚에 攻擊.</p> <p>○ 鐵原西方 不毛高地에 대한 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 1개분대 板門店東方 「빙커」 고지를 探索攻擊.</p> <p>○ UN軍 B26輕爆機隊 東海岸 新倉을 爆擊.</p> <p>○ UN軍艦載機隊 韓滿國境으로부터 4軒 地點에 있는 阿吾地精油所 및 豆滿江南岸 茂山鐵鑛山을 大爆擊.</p> <p>○ 「클라야크」 美제7艦隊司令官 同爆擊은 蘇滿國境에 接近하고 있다는 點에서 特別한 意義가 있다고 言明.</p> <p>○ UN軍세이버-젯트機 62臺 敵 MIG 15젯트機 58臺와 6차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機 2臺를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傷痍軍人 援護精神昂揚 및 精神啓蒙 月間을 設定하고 1日부터 實施.</p> <p>○ 中國防長官 傷痍軍人 援護強調週間에 談話를 發設하고 傷痍軍人에 대한 國民의 情神의 援護를 強調.</p>	9月 2日	<p>○ 大韓赤十字社總裁에 前保健部長官 具永淑氏 新任.</p> <p>○ 大韓軍醫援護會 創立 1周年記念式舉行.</p> <p>○ 「리」事務總長, 제7차總會에 提出한 年次報告를 發設—UN은 韓國의 緊急 援助費로서 2億5,000萬弗을 調達, 또 韓國復興長期計劃을 爲하여 2億5,000萬弗을 支援用意.</p> <p>○ 美의 對韓救濟協會 11월末까지 3個月間을 韓國戰災民에 대한 救濟品 收集期間으로 設定.</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北漢江東方 陣地에 대한 中共軍攻擊을 擊退.</p> <p>○ UN軍 鐵原西方 不毛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探索攻擊을 擊退.</p> <p>○ UN軍戰爆機隊 新義州飛行場을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南日 共產軍首席代表, 지난 8월 30일 發生한 巨濟島捕虜收容所事件에 대하여 抗議電書를 傳達.</p> <p>○ 駐韓和蘭軍司令部, 「실페로오트」中領 「해리슨」 UN軍首席代表의 招請으로 汶山訪問.</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日本秘航者의 徹夜團索을 國務會議에 諭示.</p> <p>○ 新任 駐韓英聯邦師團長 「웨스트」少將 東京 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全戰線에서 7次에 걸쳐 小規</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摸 探索攻撃.</p> <p>○ B29爆撃隊 長津發電所 爆撃.</p> <p>○ UN軍民事部長 發表一日本製鐵道 有蓋貨車 55輛이 韓國에 到着, 軍用및 民間救濟用 物資의 輸送에 使用中.</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國會本會議 海外移民促進에 關한 建議案및 UN總會에의 韓國代表團 派遣에 關한 建議案을 通過.</p> <p>○ 李哲源公報處長一蘇聯「푸라우다」紙는 日本人警備隊員 1,000名이 韓國戰線에 參戰하고 있다는 無根의 說을 造作流布시키고 있다고 談話.</p>		<p>○ 陳內務長官, 被害跡地 整理를 爲해 上京할 南下서울市民에 대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指定期日內 入京을 要請</p> <p>○ 「케이서」濠外相 濠洲는 韓國에서의 立場을 支持한다고 議會에서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9月 4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板門店東方「병커」고지를 계속 探索攻撃.</p> <p>○ UN軍 F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 上空에서 共產軍 MIG 15젯트機 11臺를 擊墜하고 1臺를 擊破.</p> <p>○ 駐韓英聯邦軍司令官 「웨스트」少將着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118次本會談一兩側代表 捕虜交換 問題에 對한 從來의 立場을 堅持, UN軍側 提案으로 또 다시 1週日間 休會에 同意.</p> <p>○ 「헤리슨」UN軍 首席代表, 中共은 中共捕虜 數千名의 獲得을 爲하여 北韓人民으로 하여금 飢饉, 疾病 및 其他 戰爭에서 發生하는 여러가지 結果와 經濟의 生活의 漸進의 砲鏡에 逢着시키려하고 있다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style="text-align: center;">9月 5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漣川西方 UN軍陣地에 對한 中共軍 攻擊을 擊退.</p> <p>○ 美海兵隊「병커」高地에 來襲한 中共軍 約 750名을 手榴彈白兵戰으로 擊退.</p> <p>○ B29 및 B26爆撃機隊 北荷 및 咸興을 爆撃.</p> <p>○ UN軍 戰爆機隊 熙川·軍隅里사이에 있는 新興里 軍需工場地帶를 攻撃.</p> <p>○ F86세이버·젯트機隊 3次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 MIG15젯트機 3臺를 擊墜하고 7臺에 損害.</p> <p>○ 「벤」將軍 UN地上軍은 過去 3個月間에 있어 技術의 防衛態勢가 充分히 向上하였다고 言明.</p> <p>○ 「벤」將軍 南韓에 있어서의 共產「게리라」는 50% 減少되었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側은 4日의 休戰會談에서 細菌戰을 擴大하겠다고 威脅하였다는 共產側 虛偽放送을 韓國戰爭에서 發生할수 있는 最惡의 事實歪曲이라고 論評.</p> <p>○ 休戰會談地域 共產軍側, 警備將校 1名 中立地帶를 嵩고 UN軍에 投降.</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제25次本會談一戰沒軍警遺家族</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月 6日	<p>및 傷殘軍醫年金法案 通過.</p> <p>○ 國防部 제1局長에 李俊植少將 제3局長에 金正浩大領 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 沙汰里 溪谷東方 UN軍陣地에 대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1個大隊 集中掩護 砲火下에 北漢江西方 首都高地를 攻擊, UN軍 同高地 및 近接1個高地(指形稜線)에서 若干撤收.</p> <p>○ UN軍部隊, 中共軍 1個大隊의 攻擊을 받아 「빙커」高地東方 前哨陣地로부터 撤收.</p> <p>○ 美제 77機動艦隊 및 同所屬艦隊 元山, 興南 端川等 東海岸 諸都市를 砲擊.</p> <p>○ UN軍戰爆機隊 高原南方 北傀軍 제5軍團司令部를 爆擊.</p> <p>○ B29爆擊機隊 平壤東北部 工業地帶와 補給施設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 首席代表, 中將으로 昇進코 美極東軍副司令官으로 任命 首席代表의 任務는 當分間 繼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제2局長(政訓局長)에 任大淳大領 任命.</p> <p>○ 不具傷殘軍人 제1차 合同名醫除隊式 前陸軍제 839部隊에서 舉行.</p>	9月 8日	<p>後 最大砲聲 .</p> <p>○ UN軍部隊 中部戰線에서 熾烈한 戰鬥을 展開하고 首都高地를 奪還 同高地西方에서도 전투 계속.</p> <p>○ 西部戰線 「빙커」고지에서 전투 계속.</p> <p>○ UN軍 제이버 · 잭트機隊 鵬綠江부근 空中戰에서 敵 MIG 잭트機 6臺를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무쵸」大使 臨時官邸로 李大統領을 訪問코 離任入寧.</p> <p>○ 美下院 軍事委員會 豫算分科委員長 「오바튼 · 부르크스」議員을 團長으로 한 美軍事視察團 空路 水營飛行場 到着.</p> <p>○ 臺北高位官邊側言明一駐臺灣 美軍事顧問團은 自由國府軍 2個師團의 韓國戰線派遣을 華府에 要請.</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과 中共軍 首都高地에서 一進一退의 激戰繼續, 共產軍 08.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首都高地週邊 韓國軍에 대하여 12,000發의 砲彈을 發射.</p> <p>○ 首都高地 攻防戰에서 韓國軍, 中共軍壓力으로 若干 撤收하고 同高地南端 中腹에 陣地를 構築.</p> <p>○ 中共軍 「빙커」고지를 探索攻擊.</p> <p>○ UN軍 F86 제이버 · 잭트機隊 新義州 및 水豐上空에서 敵 MIG15 잭트機 2臺擊墜 5臺擊破.</p> <p>○ B29爆擊機隊 陽德補給中心地 및 自動車修理中心地를 爆擊.</p>
9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戰線一帶 5個所에서 反擊 敵野砲 및 迫擊砲 6日 밤부터 7日 아침에 걸쳐 約 35,000發을 發射 開戰以</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英國 「더어함」輕騎兵聯隊 제1대대釜山灣에 上陸. <li style="text-align: center;">政 治 ○ 美下院軍事視察團一行 國會를 訪問 「윗사」議員은 一行을 代表한 人事에서 共產主義侵略에 對한 韓美兩國國民의 結束을 強調 ○ 國會國防委 韓國의 自衛에 必要한 軍事援助 強化等 5個項目을 美下院軍事委員團에 建議 ○ 前駐韓美大使 「무초」氏 美大審院判事 「더그라스」氏 水原飛行場 出發 空路 歸國 ○ 卞外務部長官 韓國休戰問題의 UN 移管을 極力反對하는 談話를 發表하고 蘇聯의 政治的策動을 警告 ○ 駐臺灣美政府高位側 美軍事顧問團이 國府軍의 韓國派遣을 華府에 要請하였다는 AP 報道를 否定 ○ 「라」事務總長 1953年度의 UN 豫算은 47,756,200弗로 發表 ○ 美國은 國府軍의 韓國出兵을 繼續反對할것이라고 言明(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方 北傀軍士官學校를 再次 攻擊 ○ 駐韓 泰國軍將校 3名 汶山の UN 軍休戰代表團을 訪問 ○ 戰鬪警察隊 共匪掃蕩戰果(8月11日~9月9日)一共匪出沒回數 608回, 延人員數 9,488名 交戰回數 245回, 射殺 345名, 生捕 68名, 歸順 33名, 武器 鹵獲 191挺, 警察官戰死 31名 <li style="text-align: center;">政 治 ○ 國會 農林委提案의 農地改革法中 改政法律案을 無修正 通過 金納制를 採擇 ○ 美合同極東軍司令部發表—美極東海軍司令部 參謀長 「레이간」海軍少將및 比駐在美 제3空軍司令部官 「무어」少將을 各各 合同極東軍司令部 海軍參謀次長에 任命 ○ 前駐韓英聯邦師團長 「켓셀」少將 作別記者會見席上에서 在韓英軍의 士氣 旺盛, 共產軍 大砲및 迫擊砲의 增強 顯著함을 指摘 ○ UN 統計月報 世界各國의 生産費는 韓國戰爭以後 平均 10~15% 高騰하였다고 指摘 ○ 墨西哥外相 送還拒否 捕虜의 中立國 移送에 關한 新提案을 UN 總會에 提出하였다고 言明
<p>9月 9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text-align: center;">軍 事 ○ UN 軍 航空隊 및 砲兵隊 首都高地 지구 共產軍陣地를 猛打 ○ 首都高地에서 熾烈한 白兵戰 展開 韓國 首都師團 夜間肉彈攻擊으로 同 高地를 完全 奪還 ○ 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 空中 戰에서 敵 MIG15젯트機 7臺를 破壞 하고 10臺 損傷 ○ UN 空軍 세이버·젯트機隊 朔州東 	<p>9月 10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text-align: center;">軍 事 ○ 韓國軍 首都高地를 계속確保, 未明에 共產軍의 2次 反擊을 擊退 ○ 共產軍 夜間에 首都高地에 對한 反擊을 再次 開始 ○ UN 軍 艦載機隊 越戰및 長津 發電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9月11日	<p>施設을 攻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空軍 및 海兵隊 所屬機 金城 및 首都高地一帶 共產軍陣地를 攻擊 ○ UN 軍戰爆機隊 平壤近傍 傀儡軍 基礎訓練學校를 爆擊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 제29次本會議 産業復興債券 發行法案 通過 ○ 「애」美國務長官 次期 UN 總會 開催時 韓國問題에 關하여 友邦國과의 會議을 希望한다고 記者會見談 	9月12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軍部隊, 首都高地에 對한 共產軍大隊의 제5次的 反擊을 계속 격퇴 ○ 韓國軍部隊 首都高地近傍 指形稜線上의 中共軍을 攻擊 ○ 韓國部隊 鐵原北方에서의 中共軍 2개중대의 交戰에서 敵125名을 殺傷 ○ F86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에서 MIG15젯트機 3臺擊墜 2臺擊破 ○ B29輕爆擊機隊 瑞興을 警告 爆擊 ○ UN軍當局 永川제4民間人 抑留者收容所를 永川제4捕虜收容所로 다시 改稱한다고 發表 ○ 巨濟島 제2捕虜收容所에서 捕虜들의 態度不穩으로 捕虜8名負傷 1名死亡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9차 本會議 一無進展, 32分間 會合끝에 또다시 1週間 休會하기로 合意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都高地上的 韓國軍部隊 未明에 共產軍大隊의 反擊을 激戰끝에 擊退 ○ UN 軍砲兵 및 航空隊 首都高地周邊의 溪谷에 集結企圖中인 共產軍部隊을 猛打 ○ 共產軍 大規模的인 集中砲擊을 首都高地에 注入 每分 30發程度의 砲彈을 發射 ○ 韓國軍砲兵隊 首都高地下麓 一帶에 開戰以來 最大의 彈幕射擊 ○ B29·B26爆擊機隊 共產軍 鐵線背後補給地區 兵力集結地等을 攻擊 ○ 美空軍當局 UN 空軍은 7月中旬 攻擊을 警告하고 北韓 78個 都市中 3分の 1을 攻擊했다고 發表 ○ 中共軍 1名 板門店 中立地帶를 「추력」으로 突破 投降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大統領 首都高地 奪還戰에 있어서의 首都師團 將兵의 功勳 激讚 ○ 「클라아크」 UN 軍司令官, 前美제10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務會議, 제7回 UN總會 韓國代表로서 卞榮泰, 林炳稷, 梁裕燦三氏를 派遣키로 決定 ○ 下外務部長官 送還拒否捕虜의 제3國移送는 不當하다고 談話 發表 ○ 歸國途上의 前駐韓土耳其軍司令官 「아르구크」少將 香港에서 言明-北韓爆擊은 休戰解決에 奏効, UN軍은 如何한 緊急事態에도 對備할 能力을 保有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 首都高地에 對한 砲擊을 繼
		9月13日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探索隊 鐵原西方에서 中共軍 1개소대와 交戰 ○ 中共軍探索隊 高浪浦北方 UN軍 前哨陣地를 探索 ○ UN軍艦載機隊 會寧을 爆擊 ○ UN軍戰爆機隊 地上友軍 掩護作戰을 繼續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公報處長 首都高地 奪還戰에서의 首都師團의 勇戰을 讚揚하는 談話를 發表 ○ 英外務省代辦人, 英國은 昨12일 北韓水邊發電所 爆擊에 關한 事前協議를 받고 이에 同意한바 있었다고 發表 		<p>三]氏 戰線 遼洲部隊 觀察次 서울로 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防長官 首都高地 奪還戰은 韓國 戰爭中 最大激戰의 하나라고 首都師團을 激讚 ○ 13日 21:00부터 中斷되었던 平壤放送 14일부터 다시 再開 ○ 北京放送—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의 사이에 美軍機 延 140臺가 130회에 걸쳐 滿洲上空을 侵犯하였다고 非難 ○ 「어디슨」美國務次官補, CBS 放送에서 聲明—①亞細亞 新生諸國은 一般的으로 中立主義를 堅持, ②蘇聯은 亞細亞利用에 置重, ③韓國을 犧牲시키고까지 休戰成立을 企圖함은 不可
9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部戰線 盆地帶東北方에서 共產軍 5次에 걸쳐 小規模 探索攻擊 ○ 首都高地戰鬪 繼續 ○ 韓國軍部隊 首都高地西方 指型戰線上의 共產軍을 猛攻 ○ 指型제3戰線에서 熾烈한 白兵戰 展開 ○ UN軍野砲隊 澁川西北方 敵陣을 砲擊하여 敵80名을 殺傷 ○ B29爆擊機隊 平壤東北方 12哩 西浦里 彈藥集積所를 爆擊 ○ F86세이버·젯트機隊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15젯트機 1臺未確認擊墜 2臺擊破 ○ 美夜間爆擊機隊 洪原을 爆擊 ○ 遼洲在郷軍人會會長 「조오지·홀렌 	9月1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 板門店東方 「병커」高地에 探索攻擊 ○ 美第5空軍 所屬 輕爆機隊 北韓公路上에서 夜間에 共產軍 「트릭」J126臺 擊破 ○ F86세이버·젯트機 10臺 掩護下에 新義州 工場地帶를 爆擊 ○ F86機隊 新義州 工場地帶 爆擊의 掩護作戰에서 敵MIG15젯트機 9臺 擊墜 1臺未確認擊墜 2臺擊破 ○ 加奈陀 陸軍當局發表—韓國戰線의 加軍 人命被害 戰死 184名 負傷 825名, 行方不明 10名, 捕虜 1名.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比律賓 陸軍參謀次長 「바가스」准將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月16日	<p>韓國戰線 觀察次 空路來韓, 李大統領을 禮訪</p> <p>○ 美國務省, 韓國休戰問題는 UN에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板門店에서 繼續 解決하여야 한다는 公式「콤무니케」를 發表</p> <p>○ 極東觀察로부터 歸國한 美下院軍事 分科委員 一行, 蔣總統은 韓國에 派遣할 國府軍 2個師團을 確保하고 있음을 말하였다고 言明</p> <p>○ 加奈陀陸軍當局 韓國戰線에서의 加奈陀 被害總數는 1,200名이라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共產軍 砲彈發射數 激減</p> <p>○ 中共軍 漣川西方 UN軍陣地에 對한 攻擊에서 石塊를 投擲</p> <p>○ 中共軍 「빙커」고지 週邊에서 早期에 2次에 걸쳐 小規模 探索攻擊</p> <p>○ F-86 세이버 · 잭트機隊 共產軍 M IG-15젯트機 4臺 擊墜 2臺 擊破</p> <p>○ 제8군 當局言明—9월8일부터 14일까지의 1週間에 共產軍 3,743名을 殺傷</p> <p>○ 巨濟島 第1捕虜收容所 計14監棟에서 捕虜 1名 自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防長官 「리벳트」 記者會見談, UN軍이 細菌戰을 使用하고 있다는 共產側聲明은 거짓말 以上の 虛偽라고 言明</p>	9月18日	<p>○ UN軍 夜間爆擊機隊 共產軍 車輛 33臺를 破壞</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17,911名 昨週에 比하여 736名 增加</p> <p>○ 美極東空軍司令部發表—9월6일 美海兵隊 소속 펜더 · 잭트機 6臺가 歸還途中 韓國의 山岳에 衝突 操縱士 6名 全員 死亡</p> <p>○ 李大統領 東部戰線을 觀察 土耳其 및 比律賓部隊에 表彰狀을 授與</p> <p>○ 「벤」司令官 지난12일 鐵原北方에서의 韓國軍勇戰을 讚揚</p> <p>○ 巨濟島捕虜所 捕虜髮羅로 捕虜 17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政府各部處關係官 對 傷痍軍人 座談會 開催</p> <p>○ 「크라아크」美極東軍司令官, 美極東陸軍司令部가 10月 1日부터 正式으로 設置된다고 發表</p> <p>○ UN安保 「유저어버」로 參席하고 있는 日本 上村公使, 警察豫備隊의 派韓說은 事實無根이라고 記者會見席上에서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韓國軍部隊 戰車支援下에 早期에 指形稜線을 奪還</p> <p>○ 其他戰線에서는 戰鬪 比較的 輕微</p> <p>○ B-29爆擊機隊 順安補給 要衝을 爆擊</p> <p>○ UN輕爆擊機隊 戰線으로 南下中인 共產軍 補給車輛 150臺를 擊破</p> <p>○ 美海軍 韓國戰線에서 誘導無人機를</p>
9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空軍 16次에 걸쳐 指形稜線의 中共軍據點에 「레이팜」彈 攻擊</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使用中(AP)</p> <p>○ 韓國戰線에서 最初로 誘導無人機를 操作한 「크르트」海軍少領 美海軍은 유도무인기를 韓國戰線에 即時 大量으로 使用할 수 있다고 記者會見談</p> <p>○ 美海軍當局發表—美艦「부렛트포트」號 東海岸에서 作戰中 16日 浮遊機雷에 接觸 7名 負傷 6名 行方不明</p> <p>○ 「레에이」美戰略空軍司令官, 「웨이런 드」樞東司令官 同伴코 서울飛行場 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孫海軍總參謀長 日漁船의 水域保護線侵犯 繼續은 兩國 親善을 破壞하는 重大原因이 되고 있다고 記者會見談</p> <p>○ 美政府, 「그린랜드」에 世界最大의 爆擊機를 收容할 수 있는 大空軍基地가 있다고 發表</p>		<p>北韓 東海岸에서 作戰中인 제77機動部隊에 參加하고 있다고 發表</p> <p>○ 美海軍當局發表—美艦「부렛트포트」號 지난 17日 開戰以來 最初로 MIG 機트機 4臺와 交戰 熾烈한 對空射擊으로 敵機墜陸.</p> <p>○ UN軍當局發表—蜂岩島 民間人抑留者收容所에서 發生한 示威 鎮壓에서 抑留者 23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海兵隊司令官 「쉐카드」大將 來韓 李大統領 將軍에게 金星武功勳章 授與</p> <p>○ 李大統領 比陸軍參謀次長 「바야가스」准將 一行을 午餐에 招待</p> <p>○ 北京放送—細菌戰의 敢行을 認定하는 UN軍飛行士의 故意的인 自由錄音을 放送</p> <p>○ 「梁」駐美韓國大使, 美女性共和俱樂部 年次大會 演說에서 韓國의 武裝強化와 太平洋反共會議 創設을 力說</p>
9月1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1個大隊 鐵原西方 不毛高地를 攻擊</p> <p>○ 板門店南方 UN軍 4個前哨陣地에 대한 共產軍 1個大隊의 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 33臺, 咸興附近 軍事目標을 1年만에 晝間 爆擊</p> <p>○ 同爆擊을 指揮한 「게너」准將 空中要塞機의 晝間, 夜間爆擊 如何는 目標物의 性質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言明.</p> <p>○ 韓國空軍「무스탄」機隊 25臺 金城北方에서 「토오치카」8個所, 補給倉庫 5個所, 彈藥貯藏所 20個所 等を 爆擊</p> <p>○ 美海軍當局, 航母「키어사아취」號가</p>	9月2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鐵原西北方 1個高地를 占領</p> <p>○ 鐵原西方 不毛高地전투 계속, UN軍 東西兩斜面을 堅持</p> <p>○ UN軍部隊 澁川西北方 「켈리」高地를 夜間 攻擊</p> <p>○ 共產軍 「멍커」高地, 指型稜線에서 探索攻擊을 増強</p> <p>○ 韓國空軍, 端川, 城津地區에서 敵夜間列車을 捕捉코 「로켓트」砲로 攻擊</p> <p>○ UN軍航空隊 西部, 中部戰線 共產軍 陣地를 攻擊</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B-29爆撃機隊 北南東南方 新昌補給中心地를 爆撃</p> <p>○ 美極東空軍司令部發表—前週間に 있어서의 UN軍機 喪失數는 B-29機 1臺 젃트機 4臺를 包含하여 10臺</p> <p>○ 「크라야크」UN軍司令官言明—UN空軍은 北韓發電施設 50%를 破壞</p> <p>○ UN空軍司令部發表—審査結果 民間人으로 認定된 抑留者 11,000名을 來 10月1일부터 6週間 사이에 釋放</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제120次本會議—52分間 會合코 또 1週日間 休會에 合意</p> <p>○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共產軍側의 虛偽와 奸計를 痛駁코 捕虜名簿의 交換을 強硬主張</p> <p>○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公平하고合理的인 共產軍側 提案을 受諾하라고 強要.</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釜山鎮驛에서 傷痍軍人騷擾事件發生—18日의 倭館警察署 襲擊事件에 關聯하여 留置된 11名의 傷痍軍人釋放을 目的으로 約 350名이 集團乘車, 國防部次官의 眞相調査 및 釋放言約으로 解散</p> <p>○ 「아」美大統領候補, 「메레비존」會見에서 韓國軍의 訓練을 強化하여 UN軍과 一線配置를 交代시킬 것을 提唱</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北韓傀儡軍 東部戰線 盆地帶東北方 UN軍陣地를 攻擊</p> <p>○ 韓國首都師團 指形稜線에 대한 中共</p>	<p style="text-align: center;">9月22日</p>	<p>軍 2개중대의 夜襲을 擊退</p> <p>○ 美제2사단所屬 제38聯隊 제2대대 敵戰線에 早朝에 不毛高地 再奪還</p> <p>○ UN軍 세이버-젃트機隊 西北韓上空 空中戰에서 MIG機 4臺 擊墜 7臺擊破</p> <p>○ UN軍將兵들 韓國戰災兒童救濟金으로 21日 하루 동안에 8,000弗 據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陳內務長官, 傷痍軍人에 告하는 談話發表—恒久的인 援護策의 樹立과 社會的冷待의 是正에 努力할 것을 言及하고 傷痍軍人들의 秩序 있는 處事를 懇請</p> <p>○ 新華社韓國戰線電—UN軍은 7, 8兩月中 10회에 걸쳐 韓國戰線에서 毒瓦斯彈을 使用</p> <p>○ 極東視察을 마친 美議員團一行 同議員團은 政府에 대하여 韓國에서의 國府軍 使用을 勸告하는 것이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22日未明까지의 24時間동안에 全戰線 20個所에 걸친 共產軍의 小規模攻擊을 擊退</p> <p>○ UN軍部隊 北韓共產軍 1개대대의 壓力을 받고 盆地帶東北方 1개高地頂上으로부터 一時撤收</p> <p>○ 中共軍小部隊 澮川西北쪽 UN軍前哨陣地에 投石攻擊</p> <p>○ 美제77機動艦隊소속機隊 會寧彈藥貯藏所를 爆撃</p> <p>○ 제5空軍所屬機隊 夜間에 南下共產軍 輸送部隊를 攻擊코 車輛 160臺擊破</p> <p>○ B-29爆撃機隊 平壤北方 西補里 補</p>
<p style="text-align: center;">9月21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給中心地를 爆擊</p> <p>○ UN軍捕虜收容所 當局發表—濟州島 捕虜 UN收容所에서 21일 아침 捕虜 1名이 縊首自殺 4月以後 네번째의 自殺事件.</p> <p>政 治</p> <p>○ 社會保健部連席局課長會議를 開催코 傷痍 軍人問題를 協議</p> <p>○ 去18日의 接館事件 關係傷痍軍人一 同 130名, 白參謀總長 直接引率下에 釜山到着, 各己 自己所屬으로 歸隊</p> <p>○ 北京放送—11,000名의 捕虜를 釋放 한다는 UN軍發表는 韓國休戰을 阻止하려는 美國의 새로운 決意를 表示</p>	<p>9月 24日</p>	<p>橫濱質 到着</p> <p>○ 「바넷트」美國防長官 美軍事力은 韓國戰爭 以來 莫大한 增加를 보았다고 言明</p> <p>軍 事</p> <p>○ 高城南方 2個 UN軍高地에 對한 北韓共產軍의 攻擊을 擊退</p> <p>○ 盆地帶지구에서 共產軍 UN軍에 對하여 繼續抵抗</p> <p>○ UN軍步兵部隊, 澗川西北方 「켈리」 高地를 戰車 支援下에 攻擊 하였으나 中共軍의 頑強한 抵抗을 받고 撤收</p> <p>○ B29 爆擊機 12臺 新幕操車場을 夜間 爆擊</p> <p>○ 「크라크」司令官 前線部隊의 軍事 情勢觀察次 「부리스코우」海軍司令官 同伴코 空路 서울飛行場 到着</p>
<p>9月23日</p>	<p>軍 事</p> <p>○ 韓國軍部隊 戰車 및 砲兵의 掩護下에 盆地帶東北方 高地上的 北韓共產 軍을 猛攻</p> <p>○ 中共軍 夜間에 「빙커」高地에 對한 探索戰을 繼續</p> <p>○ 제5空軍輕爆擊機隊 敵輸送部隊를 繼續攻擊코 車輛 118臺 擊破</p> <p>○ 美제5空軍副司令官 「헤이트」准將 北大西洋軍 歐洲中部空軍所屬 作戰參謀 次長으로 任命</p> <p>○ 濟州道捕虜收容所 捕虜들의 「데모」 로 中共軍捕虜 49名 負傷</p>	<p>9月 25日</p>	<p>休戰會談</p> <p>○ 南日 共產側首席代表, 連絡장교會議를 通하여 民間抑留者 11,000名의 釋放에 關하여 「해리슨」代表에게 抗議 文을 傳達</p> <p>政 治</p> <p>○ 金陸軍情報局長 防諜週間 設定에 談話를 發表하고 軍官民의 防諜에 對한 重要性 再認識을 強調</p>
	<p>政 治</p> <p>○ 瑞典病院 駐韓 2周年記念式舉行 申 國防部長官 同記念式席上에 病院長 「에손」大領에 銀星乙支武功勳章 授與</p> <p>○ 韓國戰爭 參戰 佛蘭西, 白耳其, 和蘭 軍部隊 將兵 340名 交替歸國次 日本</p>		<p>軍 事</p> <p>○ 地上戰鬪 降雨로 因하여 小康狀態</p> <p>○ UNCAC 「크리스트」准將 韓國援護 物資에 對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SKO 物資의 援助中止 報道는 誤解에 起因 한 것이라고 釋明</p> <p>○ 濟州島捕虜收容所, 再次捕虜騷擾 警</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月 26日	<p>告備兵과의 衝突에서 捕虜 9名 負傷 ○「벤」제8軍司令官 韓國陸軍總參謀長 에의 書翰에서 首部師團의 勇政性과 戰鬪能力을 絶讚</p>	9月 27日	<p>別 懸注數를 發表—陸軍 故陸軍准將 樞東昌外 15,440柱, 海軍 故海軍中領 趙溶翼外 325柱 空軍 故空軍少領 洪 帝範外 25柱(51.7月 1日~52.6月 30 日</p>
	<p>休戰會談 ○ 南日 共產軍側, 首席代表 連絡將校 會議을 通하여 從書 提出—UN軍側은 捕虜를 處待하고 殺害하는 戰爭犯罪 를 不斷히 惹起</p>		<p>○ 韓美合同經濟委 企劃分科委, 三陟肥 料工場設置에 關하여 合意 ○「에」國務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아」 大統領候補의 韓國戰爭에 關한 政府 方針 非難에 對하여 太平洋防衛線의 重要性을 強調</p>
9月 26日	<p>政 治 ○ 崔社會部長官 傷病軍人問題에 對하 여 談話를 發表하고 援護策의 再檢討 를 言明</p>	9月 27日	<p>軍 事</p>
	<p>○「크라크」UN軍司令官 空路 東京 歸任 ○ 陳內務部長官 記者會見에서 國民班 組織方針을 言明</p>		<p>○ UN軍部隊 鐵原西北方에서 中共軍 2개 소대와 交戰 ○ UN軍部隊 「켈리」高地근방 高地에 對한 中共軍 2개 中隊의 攻擊을 早朝 에 擊退</p>
9月 26日	<p>軍 事</p>	9月 27日	<p>○ UN軍爆擊機隊 宣川 共產軍司令部를 爆擊</p>
	<p>○ 東部戰線 盆地帶東北方 高地에 對한 敵中隊의 夜間攻擊을 擊退 ○ 中共軍 2個中隊 連川西北方 「켈리」 高地 近傍 1개 高地를 夜間攻擊 ○ F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 空中 戰에서 敵 MIG機 4臺 擊墜 3臺 擊破 ○ 濟州島捕虜收容所에서 또다시 騷擾 收容所當局의 命令拒否로 警備兵과 衝突 共產軍捕虜 5名 負傷 ○ UN軍司令部發表—共產軍側은 UN軍 管理下·捕虜收容所의 爆動을 煽動하 기 爲하여 特務員을 巨濟島 및 濟州 島에 密派</p>		<p>○ B29 爆擊機隊 龍尾洞 熙川等 3개 鐵 橋를 爆破 ○「클라아크」UN軍司令官, 韓國周邊에 있어서의 海上防衛地域의 設定을 發表 ○「클라아크」司令官言明—海上防衛地 域 設置目的은 共產軍 「스파이」의 韓 國潛入阻止 및 韓國海岸線에 對한 共 產軍의 攻擊阻止, UN軍補給線의 確 保, 密輸阻止等</p>
9月 26日	<p>政 治</p>	9月 27日	<p>休戰會談</p>
	<p>○ 軍報道課 제2次 3軍合同追悼式 各軍</p>		<p>○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連絡장교 會 議를 通하여 UN軍의 捕虜取扱에 對 한 抗議를 또 다시 「헤리슨」代表에게 傳達</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李大統領 罹災民救護糧穀 配給制度의 刷新策 講究를 指示 ○國防部 臨時軍務會議를 開催하고 將兵의 食糧 및 副食에 關한 問題 檢討 ○申國防部長官 駐韓和蘭軍 副大隊長 「프르에링」少領에게 金星忠武功章을 授與 ○國務院公告 第42號「壯丁召集에 關한 件」을 公告—滿28歲 以上 滿39歲 未滿 醫師係技術者 및 滿28歲 以上 滿36歲未滿 各種技術者中 軍에 必要한 數의 壯丁을 10月 1日부터 53年 8月 31日間 召集 ○京釜線 楸川驛에 武裝共匪 約 20名 來襲코 驛舍에 放火 全燒 		<ul style="list-style-type: none"> 3個 方法을 新提案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UN軍側 新提案은 從前의 不合理한 要求를 紛飾하기 爲하여 다른 形式과 方法을 使用한데 不過 하다고 論難 ○共產軍側, UN軍側의 10日間 休會提案에 同意
<p style="text-align: center;">9月28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產軍部隊 戰車 및 砲兵掩護下에 首都高地를 夜間에 攻擊 ○美 제3步兵師團소속 希臘軍部隊「켈리」高地 東北方「빅·노리」高지를 早晚에 占領 하였으나 共產軍의 네차례의 反擊으로 撤收 ○中共軍 西部戰線 T型高地上의 和蘭軍部隊에 對하여 獨逸語로 宣傳放送 ○F86세이버·젯트機隊 敵 MIG젯트機 2臺 擊墜, 1臺 未確認擊墜, 2臺 擊破 ○제8군사령부 UN空軍의 西部戰線 希臘部隊 占領下에 있는 「빅·노리」高지를 誤爆하였다고 發表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1次 本會議再開—「패리슨」UN軍側首席代表, 捕虜問題 解決을 爲한 	<p style="text-align: center;">9月29日</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次 陸海空軍 職眾將兵 合同追悼式, 東萊陸軍兵器學校에서 舉行 ○申國防部長官, 軍警搜查機關의 在鄉軍人 및 제2民兵手帖 不法押收, 保管을 嚴禁한다고 警告談話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產軍 開戰以來 最大爆擊 全戰線에 걸쳐 迫擊砲 大砲彈 47,000發 發射 大部分 國軍首都師團 및 隣接國軍 제3師團 防衛地區에 落下 ○中共軍 首都高地 및 指型稜線一帶에 對하여 數次에 걸쳐 反擊 ○中共軍 戰車支援下에 金城東方 2個 高지를 占領 ○UN軍經爆擊機隊 北韓浦給路를 夜間 攻擊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 MIG 通路에서 敵 MIG15젯트機 2臺 擊破 2臺 擊墜 ○美極東海軍發表—美驅逐艦「커닝함」號 9月 19日의 端川近傍作戰에서 共產軍 海岸砲에 被彈 損傷 8名 ○韓國空軍 朴完圭 大尉等 5勇士 100回 出擊記錄 樹立, 韓國空軍 100回 出擊記錄 保持者는 모두 16名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9月 30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放送, UN軍側의 3個 新提案은 捕虜를 強制로 保留시키려는 美國의 要求를 反復한에 不過하다고 非難 ○ 「에」美國務長官 今期 UN總會 開會 直後 韓國問題에 關한 美提案을 上程 키로 決定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部隊 熾烈한 戰鬪끝에 金城東方 2個 高地를 奪還 ○ UN軍部隊 北漢江東方 2個 高地에 對한 攻擊 繼續 ○ UN軍步兵部隊 漣川西北方 「빅·노리」高地를 早朝에 攻擊코 白兵戰 展開 ○ 美 제77機動艦隊 소속機隊 元山南方 12哩地點 共產軍 補給路 要衝을 攻擊 ○ UN空軍 9月間 戰果—擊墜 61臺, 未 確認擊墜 7臺, 擊破 59臺, 計 127臺 韓國戰 以來의 最大戰果 ○ 美 極東海軍司令部發派—英國巡洋艦 「벨파아스트」號 黃海水域에서의 400 日 間의 任務를 마치고 歸國 	10月 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漢江東쪽에 布陣한 國軍에 3師團 中共軍攻擊을 받고 喪失한 「와이어」 高地에 對한 奪還攻擊을 開始 ○ 金城東方 2個高地에 對한 中共軍 步兵部隊의 攻擊을 苛烈한 手榴彈전투로 擊退 ○ 鐵原西方에서 UN軍探索隊 中共軍 60名에게 一時 包圍되었으나 30名을 殺傷하고 血路打開 ○ 中共軍 「빙커」高地에 對하여 探索攻擊 ○ B29爆擊機隊 水豊近方 南山里 化學工場을 폭격 ○ 제5空軍司令部 空中寫眞調査結果 지난28日 「빅·노리」高地에서 希臘軍을 誤爆한 事實은 없었다고 發表 ○ 「핀레터」美空軍長官, 戰線觀察次 서 울近方 飛行場 到着 ○ 濟州島에 7捕虜收容所 中共捕虜의 示威로 捕虜 45名 死亡, 120名 負傷 ○ 韓國後方司令部官 「헤렌」小將 捕虜示威事件을 調查하기 爲하여 濟州島 到着 ○ UN軍側 言明 北韓內에 蘇聯兵7,000 名 乃至 1,200名 駐屯 大部分은 對空 砲火關係任務를 擔當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軍創立四週年紀念式, 李大統領및 「핀레터」美空軍長官 臨席下에 泗川飛行基地에서 舉行 ○ 李大統領 空軍顧問團長 「포오드」大 領에 金星忠武勳章을 授與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政府消息通, 北韓에 있는 蘇聯人 數는 前年에 比하여 7倍~12倍加하고 있다고 聲明 ○ 美外交消息通의 報道—美國은 韓國 休戰會談을 打開하기 爲하여 UN이 取할 數個試案을 作成코 關係國 各大使에게 檢討를 要請 ○ 「美유육·타임스」紙報道—美國防省 은 「펜프리트」 8군사령官의 轉任을 決定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0月 2日	<p>○ 陳內部 一線將兵 慰問品蒐集에 國民의 積極인 協助 要望 國內 各社會團體의 協力을 얻어 慰問品 蒐集</p> <p>○ 美國 韓國戰爭의 終結을 爲해서 U N의 共產主義諸國에 精神의 壓力을 加할 案을 提議</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北漢江東쪽 「와이어」高地에서 接敵을 끊고 高地東南方 中腹까지 撤收</p> <p>○ UN軍 F86세이버·젯트機隊 新義州 上空에서 敵 MIG機 1台를 擊墜</p> <p>○ UN軍當局 1月の 濟州島收容所 騷擾 事件으로 負傷한 中共軍捕虜를 釜山 病院으로 移送. 負傷者中 9名이 死亡</p> <p>○ 美極東空軍 秘密報告를 發表, 韓國戰線에서 F80슈팅·스타機가 B29로부터 給油를 받아 14時間 15分の 滯空 記錄을 樹立(1951.9)</p> <p>○ 下外務部長官, 記者會見에서 UN軍 側이 提案한 捕虜交換에 關한 3個方案을 反對한다고 言明</p> <p>○ 社會部當局發表一來 6日부터 26日까지 사이에 제3차로 民間人抑留者 10, 350名을 馬山收容所로부터 釋放</p> <p>○ 亞細亞 및 太平洋地域 平和會議 37 個國 344名의 代表參加下에 北京에서 開催</p> <p>○ 日衆議院 總選舉 開票結果 自由黨은 過半數로 概 1黨</p>	10月 4日	<p>中共軍이 後退한 後 無抵抗裡에 奪還</p> <p>○ UN軍部隊 共產軍 攻擊을 받아 板門 店南쪽 3個 前方陣地로부터 撤收</p> <p>○ B29爆擊機隊 咸興南方 連浦비행장을 爆擊</p> <p>○ UN軍參謀次長 「슈우스미스」英少將 大邱 陸軍本部 訪問 各級 指揮官과의 會見席上에서 韓國軍의 短期間 長足的 發展을 致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핀레터」美空軍長官 東京 記者會見 席上에서 言明—美極東空軍은 지난 3 個月間에 50% 増強. UN空軍은 滿洲 로부터의 如何한 空軍의 威脅에도 對 處할수 있다고 確言</p> <p>○ UN當局發表—南韓 再建復興計劃은 休戰與否에 不拘코 곧 着手</p> <p>○ 美空軍次官 言明—蘇聯은 北韓에 新型젯트機를 供給視</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步兵部隊 板門店南方 高地上的 中共軍을 繼續攻擊</p> <p>○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北韓 上空 中戰에서 MIG 젯트機 2台를 擊墜하 고 5台를 擊破</p> <p>○ 共產軍 MIG젯트機 4台 元山北方 25 哩地點 上空에서 美艦載機隊 攻擊코 1台를 擊墜</p> <p>○ B26經爆擊機隊 洪原 共產軍補給品 積載所 爆擊</p> <p>○ 美極東海軍司令部 發表—加奈陀 驅 逐艦 「이로쿼오시」號 2日 端川近海戰 鬪에서 共產軍海岸砲彈에 被彈 死亡2</p>
10月 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漣川西北方 「노리」高地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名 負傷 2名</p> <p>○ 「엔」司令官 國軍제2751부대에 感謝 狀을 傳達하고 平康南方作戰을 稱讚</p> <p>政 治</p> <p>○ 政府 緊急命令 제12號 「捕獲審判令」 및 大統領令 제707號 「捕獲審判所 및 高等捕獲審判所の 開設에 關한 件」을 公布施行</p> <p>○ 北京放送—北京平和會議의 各國代表 韓國에서 UN軍이 故意로 使用하고 있다는 所謂 細菌戰의 責任者를 戰爭 犯罪者로 處斷하라고 要求</p>	<p>10月 6日</p>	<p>○ 新任 英國駐韓公使 「그라함」氏 金海 飛行場 到着</p> <p>○ 「트」大統領 「캘리포니아」州에서 演說— 韓國에서 共產侵略 勢力을 阻止 함으로서 단지 亞細亞뿐만 아니라 西 歐防衛에도 貢獻한바 多大</p> <p>軍 事</p> <p>○ 共產軍 戰線의 3분의2에 걸쳐 地域 에서 大規模 攻勢 板門店으로부터 文 登里溪谷에 이르는 戰線 各處에서 戰 車와 重砲의 支援을 받은 大隊 乃至 中隊兵力의 探索戰과 攻擊戰을 展開</p> <p>○ 共產軍 鐵原西쪽 2個高地에 對하여 熾烈한 攻擊開始</p> <p>○ 美제1海兵師團소속부대 지난 3日 喪 失한 板門店南쪽 高地를 早朝로부터 6時間에 걸쳐 再次 猛攻擊</p> <p>○ 美艦載機隊 제5空軍과 協同하여 淮 陽敵補給 및 兵力集結地를 爆擊</p> <p>○ 馬山 收容所 萬餘民間人 抑留者 釋 放開始 제1일에 慶北出身 5百餘名을 釋放</p>
<p>10月 5日</p>	<p>軍 事</p> <p>○ 北溪江東쪽 國軍제3사단 3個前哨陣 地에 對한 敵攻擊을 子正直後에 擊退</p> <p>○ UN軍步兵部隊 板門店南쪽 外廓高地 上의 共產軍에 對하여 제3차로 猛攻 擊</p> <p>○ UN空軍 板門店南쪽 高地上的 共產 軍을 強打</p> <p>○ UN海軍航空機隊 第5空軍과 協同作 戰으로 會寧油類貯藏所를 爆擊</p> <p>○ UN軍捕虜收容所 當局發表—從來 捕 虜로 誤認收容된 11,000名의 韓國人 民間抑留者를 6日부터 馬山收容所에 서 釋放</p> <p>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首席連絡將校 張春山大領 3日 UN軍機가 2회에 걸쳐 會談場上 空을 侵犯하였다고 抗議</p> <p>政 治</p> <p>○ 제7차 UN總會 韓國首席代表 下榮泰 外務部長官 一行 空路向美</p>	<p>10月 6日</p>	<p>○ 共產軍 鐵原西쪽 2個高地에 對하여 熾烈한 攻擊開始</p> <p>○ 美제1海兵師團소속부대 지난 3日 喪 失한 板門店南쪽 高地를 早朝로부터 6時間에 걸쳐 再次 猛攻擊</p> <p>○ 美艦載機隊 제5空軍과 協同하여 淮 陽敵補給 및 兵力集結地를 爆擊</p> <p>○ 馬山 收容所 萬餘民間人 抑留者 釋 放開始 제1일에 慶北出身 5百餘名을 釋放</p> <p>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 首席代表, 連絡將校 를 通하여 共產軍에 晝輪—捕虜에 對한 個人小包의 交換을 討議할 것을 要望</p> <p>政 治</p> <p>○ UN軍參謀次長 「슈우스미스」 英陸軍 少將 李大統領을 禮訪</p> <p>○ 崔社會部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傷 殘軍人數를 發表—軍籍으로부터 除隊 된 傷殘軍人 總數는 75,000名 其中 不具 失明等 特別傷殘軍人은 4,000名</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0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新華社報道—共產軍은 7월 30일 부터 9월 3일까지의 사이에 美軍 18,000名을 殺傷 ○ UN集國對策委員會 總會에 提出한 年例報告內容을 發表 侵略國에 對한 特別輸出禁止措置도 이에 包含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 6日 밤부터 開始한 第1次波狀 攻擊에 失敗 UN軍 鐵原西北方 白馬高地에 對한 共產軍의 狂의 攻擊을 擊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國防部長官 比參謀次長「라이가스」准將에 對한 太極武功勳章을 UN韓委代表「부에노」氏에 傳達 ○ 渡美留學 陸軍將校團一行 163名 歸國 ○ UN總會 美國代表—中共, 北韓代表가 捕虜自意送還을 原則으로하는 UN側案을 受諾한다면 「멕시코」提案을 考慮할것이라고 「멕시코」大統領에게 回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產軍 記錄의인 砲擊掩護下에 熾烈한 攻擊을 再開코 UN軍 前哨陣地 7個所를 占領 ○ 共產軍 鐵原西北方 白馬高地및 矢簇稜線에 對한 攻擊을 開始 ○ 共產軍 7日 下午6時까지의 24時間에 93,000發의 砲彈을 發射 韓國戰爭 從前砲擊 記錄의 約2倍에 該當 ○ UN軍爆擊機隊 共產軍 前哨陣地를 空中攻擊코 友軍 地上部隊를 掩護 ○ 加奈陀國防省發表— 巨濟島捕虜收容所 暴動事件 發生時 同島에 加奈陀軍을 派遣한 當時에 UN軍司令部 加奈陀 軍事使節團長「콘네리이」准將을 退役으로 編入 ○ 巨濟島에서 共產軍捕虜 命令不服으로 捕虜 16名 負傷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카이어」UN軍連絡將校 지난3日 UN軍機의 中立地帶 上空侵犯에 遺憾의 뜻을 表明한 覺悟를 共產軍側에 手交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10월 8일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白馬高地 및 矢簇稜線의 國軍제9師團 및 佛蘭西大隊 中共軍과 熾烈한 白兵戰 繼續 ○ 白馬高地 防禦 國軍部隊 敵의 彈幕으로 因하여 同高地山頂을 撤收하였으나 다시 確保 ○ 美제77機動艦隊 所屬艦載機隊 B29와 協力하여 高原近邊 鐵路를 集中攻擊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22次 本會議—共產軍側 捕虜問題에 關한 9月 28日字 UN軍側 提案을 拒否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無期限 休會를 提案코 會談을 中斷 ○ 「해리슨」首席代表 同會議席上에서 聲明—UN軍側은 共產軍側이 UN軍側 提案의 어느 하나를 受諾하거나 또는 다른 建設的인 提案을 할 意思가 있을 境遇에는 欣然 會談을 再開 ○ 「클라아크」司令官 共產軍側의 休戰에 對한 無誠意를 非難하는聲明을 發表하고 이제야 共產軍側이 休戰成立 希望 與否를 表明할 차례라고 言明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李大統領 今年度 糧穀政策에 대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韓美間의 圓滿한 協定成立으로 旱水災로 인한 糧穀不足의 危險은 確實히 免했다고 言明</p> <p>○北京放送—10月 1日 美機 延120臺가 32회에 걸쳐 滿洲領空에 侵犯하였다고 非難</p> <p>○「라」事務總長 韓國問題 解決에 最大限의 努力을 傾注할것을 UN各國에 要請</p> <p>○「에」美國務長官, 休戰會談에 關해서 決裂은 아니고 無期休會라고 記者會 見談</p> <p>○「라벳트」美國防長官 言明—UN軍과 의 一線交代를 目的으로 韓國軍 訓練에 全力을 傾注</p>	<p style="text-align: center;">10月10日</p>	<p>案의 說明을 充分히 듣지 않고 退場하였다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白馬高地에서 一進一退의 苛烈한 戰鬥繼續 國軍제9사단 제2차에 걸친 敵反擊을 擊退코 山頂一帶를 確保</p> <p>○國軍제9사단, 共產軍 1個大隊의 壓力을 받아 同高地 頂上으로부터 撤收</p> <p>○國軍제9사단 白馬高地 周邊 中共軍에 대한 作戰을 展開</p> <p>○汝山西쪽 板門店南쪽 金城南北쪽 北漢江東쪽에 대한 共產軍의 探索攻擊 若干緩和</p> <p>○美제5空軍所屬 戰爆機隊 共產軍 戰線陣地를 繼續攻擊</p> <p>○UN軍제이머·젯트機隊 敵MIG機 2臺를 擊墜 3臺 擊破</p> <p>○美제8軍司令部 發表—1日부터 7日까지의 1週間의 共產軍 損害는 射殺 4,781名 負傷 2,692名 捕虜 52名 計 7,130名</p>
<p style="text-align: center;">10月 9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白馬高地에서 凄慘한 白兵戰 繼續 國軍 제9사단, 同高地 頂上을 다시制壓</p> <p>○矢簇高地上的 佛蘭西軍部隊 共產軍의 攻擊을 3時間半 交戰끝내 擊退</p> <p>○B 29爆擊機隊 平壤및 元山地區 補給 要衝을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李大統領 國務總理 署理에 現財務部長官 白斗鎭氏를 任命</p> <p>○政府 一部閣僚 更迭을 發表 財務長官에 朴術音氏 遞信部長官에 姜仁澤氏 無任所長官에 朴賢淑氏를 各各 任命</p> <p>○平壤放送 UN軍側 首席代表「해리슨 中將이 8日의 會談에서 共產軍側 新提</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美太平洋 艦隊司令官「래 드포오드」提督 「브리스코」美極東艦隊司令官을 帶同코 李大統領을 禮訪「래 드포오드」提督에 最高武功勳章을 授與</p> <p>○國務會議 財務部提出의 제1回 追加 更正豫算案 5,355億8,300萬圓을 議決</p> <p>○北京放送, 捕虜強制送還 原則은 不變이라고 放送</p> <p>○國府消息通 言明—中共軍新編 精銳 豫備隊 제23軍은 힘을 誇示하기 爲하여 UN總會 開幕前에 韓國戰線에 投</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入 増派</p> <p>○「크로스」UN美代表 韓國休戰 問題를 UN에서 討議하는것에는 反對한다고 聲明</p> <p>○「클리브란트」聯邦裁判所에서 「트」大統領에 出頭命令 議會의 承認없이 韓國에 美軍을 派遣한것은 美憲法の 違反이라고</p>		<p>政 治</p> <p>○李大統領 永登浦 海軍제2病院 및 伊太利赤十字病院을 訪問</p> <p>○新任 朴術晉社會部長官, 就任 첫 記者會見에서 傷痍軍醫에 대한 效果的인 援護策 講究를 言明</p> <p>○國防部造兵廠 國產武器 試射會(小銃 2種・81耗 迫擊砲, 手榴彈, 對人馬地雷)를 舉行</p>
10月11日	<p>軍 事</p> <p>○白馬高地南쪽 傾斜地帶로 後退한 國軍部隊 主人公을 20回 以上이나 바꾼 山頂을 向하여 徐徐히 進擊</p> <p>○國軍제9師團 白馬高地 中腹을 北方으로 進出코 同高地北쪽 1哩地點에 所在하고 있는 高地를 攻撃</p> <p>○國軍제9사단, 白馬高地 兩側으로 進出하여 同高地 3面을 包圍</p> <p>○UN軍 F86젯트機隊 西北韓 上空에서 展開된 連續的인 3회의 空中戰에서 敵MIG젯트機 5臺 擊墜</p> <p>○美極東空軍司令部 發表-10日까지의 1週間에 空中戰에서 喪失한 세이퍼・젯트機 1臺를 包含하여 UN軍機 6臺 喪失 共產軍側은 MIG젯트機 13臺</p> <p>○巨濟島에서 捕虜作業隊의 怠業糾明이 發端되어 捕虜 3名이 輕傷한 事件發生</p>		<p>○「에치오피아」軍 副대장「안다릿지」中領 國防部長官을 禮訪</p> <p>○北京放送 美國이 停頓狀態에 있는 韓國休戰會談을 最後的 決裂로 이끌기 爲해서 中立地帶를 侵犯했다고 UN 軍側을 非難</p> <p>○北京放送 美軍機 延404臺가 2日부터 7日까지 사이에 64회에 걸쳐 遼東省 上空으로 侵入했다고 非難</p> <p>○「킹슬리」韓國再建團長, 東京에서 記者會見談-UN諸國의 韓國에 대한 貢獻은 最初의 反應으로부터 相當히 減少</p> <p>○美共和黨의 「덜메스」氏, 「보스톤」商業會議所 會合에서 韓國戰爭을 終結시키고 美軍을 歸國시키기 爲하여 現在數보다 더 많은 韓國人을 戰鬪에 參加시킬것을 願한다고 演說</p>
	<p>休戰會談</p> <p>○南日共產軍 首席代表「해리슨」UN軍 首席代表에 대하여 正式抗議文書를 傳達-8日 會談에서 UN軍側은 共產軍側 提案을 無視하고 一方的으로 休戰會談의 無期限 休會를 宣言</p>	10月12日	<p>軍 事</p> <p>○國軍제9사단, 早朝에 攻撃을 開始하여 白馬高地 山頂을 또 다시 制壓</p> <p>○國軍部隊 白馬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夜間反擊을 擊退코 同高지를 固守</p> <p>○UN軍 戰爆機隊 南市洞 宣川間 共產</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0月13日	<p>軍 營舍地域을 爆擊</p> <p>○ UN軍 F86세이버·젯트機 共產軍 MIG15젯트機 3臺 擊墜, 2臺 擊破</p> <p>○ UN海軍當局, 美大型 航空母艦 「로스안젤스」號는 韓國作戰에 再次 參加하게 되었다고 發表</p> <p>○ UN空軍 出擊回數 總 1,412回</p> <p>○ 州濟島 捕虜收容所에서 中共捕虜 2名 縊首 自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國軍제9사단의 白馬高地 전투에 있어서의 勇猛한 功勳을 致賀</p> <p>○ 交通部 韓國戰爭으로 因하여 破壞된 貨車 800輛의 修理에 着手하였다고 發表</p> <p>○ 印支佛軍 越盟共產軍에 對하여 最初의 冬季攻勢를 開始</p>	10月14日	<p>○ 「백」將軍 戰線視察코 言明—白馬高地戰鬪는 約 1年만에 가장 激烈한 高地爭奪戰이며 國軍 제9사단은 훌륭한 戰鬪를 遂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UN軍捕虜收容所에서 發生한 最近의 捕虜負傷事件 2件에 對한 兩日 首席代表의 抗議文을 UN軍側에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各道 文教社會局長 및 兵事區司令官 連席會議 開催 傷兵軍人 援護對策問題等을 討議</p> <p>○ 北京平和會議, 11日間の 會議로 終了 韓國問題에 關한 決議等 11項目의 大會決議를 採擇, 韓國休戰을 公正, 合理的인 原則에 의거하여 早速히 成立시킬 것을 UN에 要請하기로 決議</p> <p>○ 平壤放送 12日夜間에 北傀空軍이 UN軍의 基地인 椽島(鎭南浦 西南約50 Km)를 約2時間 爆擊</p> <p>○ 美F86세이버·젯트機 47臺 太平洋橫斷飛行을 마치고 日本北部 美空軍基地에 安着</p> <p>○ 「애」美國務長, UN美各代表 席參下에 戰略會議를 開催하고 韓國平和案 最終草案의 大綱을 提示</p> <p>○ 韓國및 太平洋地域의 觀察旅行을 마친 美海兵隊司令官 「셰퍼드」大將 記者會見에서 言及—韓國에서의 戰線 後方 切斷爆擊은 失敗</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中西部地區 白馬高地에서의 激戰을 除外하고서는 輕微한 探索戰에 局限</p> <p>○ 白馬高地에서 國軍部隊는 12月밤부터 13日아침에 이르는 사이에 7차례 걸친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增強된 中共軍部隊 白馬高地北端으로부터 同高地 頂上에 進出 國軍 300m 撤收</p> <p>○ UN軍戰車部隊 계속하여 白馬高地 周邊溪谷에서 作戰</p> <p>○ 金城東北方 指型核線에서 UN軍部隊 8日前 喪失한 1個 小高地를 再奪還</p> <p>○ B29爆擊機隊 早期에 海州半島를 攻</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部戰線 鎭의 三角地帶 兩端에서</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10月15日</p>	<p>熾烈한 전투</p> <p>○ 文登里西方 「크리스마스」高地에 對한 共產軍攻擊을 擊退</p> <p>○ 指形稜線전투 계속</p> <p>○ UN軍部隊 野砲 및 戰車部隊 支援下에 金化北方에서 進擊</p> <p>○ UN軍 攻擊部隊 金化北方 三角高地에 對하여 波狀攻擊, 中共軍의 猛烈한 抵抗을 물리치고 2個 小山頂을 奪取</p> <p>○ 白馬高地上의 國軍部隊 中共軍 1개 대대의 如前히 熾烈한 激戰을 계속</p> <p>○ B29爆擊機隊 元山地區 共產軍補給施設을 爆擊</p> <p>○ UN空軍部隊 金化北方의 UN軍攻擊을 支援</p> <p>○ 巨濟島에서 共產捕虜 警備兵의 命命에 不服反抗코 15名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서울에서 制限戰鬪反對 總進擊促進 市民露起大會 開催</p> <p>○ 西方側, UN總會에서 韓國問題 本格 審議는 美大統領選舉後로 延期키로 合意 議題로서 韓國問題는 第3位로 決定</p> <p>○ 「핀레터」美空軍長官 言明—蘇聯은 在 韓 共產軍에 對하여 젯트機 2,000臺를 包含하는 4,400臺의 航空機를 供給</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指形稜線에 對한 共產軍의 攻擊熾烈 彼我間에 肉迫戰 展開</p> <p>○ 美제7사단, 猛攻擊을 계속코 三角高地山頂의 中共軍을 驅逐</p>		<p>○ 中共軍部隊 UN軍이 確保한 三角高地 및 狙擊稜線에 對하여 猛烈한 反擊 國軍部隊 狙擊稜線의 「핀·포인드」高地에서 後退</p> <p>○ 白馬高地전투 9日째 一進一退의 激戰繼續 國軍工兵隊 高地山頂 共產軍 陣地直下에 墜道를 파서 爆砲시킨後 步兵部隊 다시 高地를 制壓</p> <p>○ 10日間의 激戰끝에 國軍제9사단이 奪還한 白馬高地 靜寂化 中共軍 戰線을 白馬高地로부터 鐵原溪谷 넘어 東北쪽의 鐵原高地에 移動</p> <p>○ 美極東空軍司令部 發表—지난 16日 間에 있어서의 UN軍航空機의 地上軍 掩護飛行 出擊回數 總計는 32,300回 (空軍航空機 出擊回數는 20,800回 海 兵隊航空機 出擊回數 11,500回)</p> <p>○ 美陸海空軍의 水陸合同機動部隊, 北韓東海岸에 對하여 模擬攻擊을 實施</p> <p>○ 美國務省發表—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31,154名</p> <p>○ 美野戰軍司令官 「하이지」大將 韓國 戰線 美軍視察次 서울 到着</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지난 11日 發生한 共產軍 捕虜 3名의 負傷事件을 指摘하여 UN 軍側은 계속되는 捕虜處役에 全的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고 抗議</p> <p>○ UN軍側 지난8日 板門店 中立地帶에 落下한 砲彈이 UN軍側 砲彈임을 認定하고 遺憾의 뜻을 表示한 覺書를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0月16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次 聯合總參謀長會議 海軍本部에서 開催 ○ 孫海軍參謀總長 上陸用 大型舟艇 (LSSL)數隻을 不日內로 UN軍으로부터 援助받게 되었다고 記者會見談 ○ 保健部 傷殘軍人 患者의 治療를 爲하여 全國 10個所에 救護病院을 設置키로 되었다고 發表 ○ 美 208mm의 口徑을 가진 最初의 原子砲를 公開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및 彭德懷 兩共產軍司令官 連名으로 「클라야크」UN軍司令官에 書翰—UN, 共產雙方은 全捕虜를 送還하여 休戰을 早速히 實現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또 UN軍側은 會談破壞의 責任을 져야 한다고 非難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美國務長官 UN總會에서 演說— ①集團安全保障의 全機構는 韓國問題로 말미암아 最大危機에 達着, ②自由世界는 韓國에 眞正한 平和가 올 때까지 계속 戰鬥할 것을 決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北漢江西쪽 指形稜線에 對하여 3회에 걸쳐 探索攻擊 ○ 國軍에 2사단, 戰車隊 支援下에 反擊을 開始코 狙擊稜線의 「관·포인트」高地를 再占領 ○ 美제7사단, 三角高地 西北端 「파이크」山嶺을 除外하는 全高地를 制壓 ○ 戰車支援下의 美軍步兵部隊 三角高地 地區의 「제인·릿셀」高地를 攻擊 ○ 美空軍所屬 C46輸送機, 1臺 江陵飛行場 離陸後 行方不明 ○ 美海軍當局發表—지난 13日 美驅逐艦 및 掃海艦 各 1隻이 東海岸에서 共產軍 海岸砲擊을 被彈 乘務員 1名戰死 21名 負傷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 南日共產側 首席代表에 書翰으로서 通告—共產側이 UN軍側 見解를 受諾하거나 또는 獨自의 建設의 提案을 할 때에는 會談을 再開 	10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漢江西쪽 指形稜線을 堅持하고 있는 UN軍部隊, 東北쪽 山岳地帶로부터의 中共軍攻擊을 連續擊退 ○ 三角高地 및 狙擊稜線 전투 계속 熾烈 ○ 金化西北쪽 「제인·릿셀」高地 및 砂丘稜線을 固守한 UN軍部隊 共產軍攻擊을 擊退코 同地帶를 계속 確保 ○ 國軍部隊 敵의 熾烈한 砲擊으로 因하여 鐵馬高地(鐵原東北쪽)山頂으로부터 撤收 ○ 共產軍 下午 6時까지 24時間에 大砲와 迫擊砲彈 23,400發을 發射 ○ UN軍戰爆機隊 三角高地 北쪽 「과파산」高地를 強打 ○ B29爆擊機隊 平壤地區 補給基地 및 新安州西쪽 共產軍司令部를 爆擊 ○ 共產軍 新安州地區 爆擊의 B29機에 對하여 對空 「로켓트」砲를 發射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0月18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本會議 UN總會에 對하여 韓國 統一 平和招來에 努力을 要望하는 멧 세지를 傳達할 것을 決議 ○ 增蘭代表 UN總會 演說에서 全捕虜의 強制送還을 條件으로 韓國休戰을 成立시킬 것을 主張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部隊 狙擊稜線의 3分の2를 掌握 하고 共產軍의 執拗한 攻擊을 擊退 ○ 美 제7사단, 三角高地 「파이크」山峰을 奪還코 全高地를 制壓 ○ 鐵原東方 鐵馬高地 전투 如前히 계속 ○ UN軍 F86세이버·젯트機隊 MIG通路에서 敵 MIG젯트機 2臺 擊墜 ○ 美陸軍高射砲部隊 釜山 上陸 ○ 中國防部長官 國軍 제9사단 視察 殊勲 24將兵에 武功勳章을 授與하고 同師團의 白馬高地 전투에 있어서의 功勳을 讚揚 ○ 「하이지」美野戰軍司令官 美제9軍團長을 帶同코 國軍 제9사단을 訪問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防部 行政面에 文官代置 前後方兵力交代를 年內에 實施 ○ 平壤放送-朴憲永傀儡外相 UN總會에 멧세지를 傳達코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傀儡代表의 參加를 要求 ○ UN事務局 北韓傀儡로부터 板門店休戰會談에서 合意된 條項을 적은 長文의 提督을 受領 傀儡政府 同文書를 UN 各國에 配付할 것을 要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狙擊稜線 및 三角高地를 夜間攻擊 ○ UN軍 鐵馬高地 및 指形稜線에서 陣地를 繼續堅持 ○ 中共軍 漣川西北쪽에서 未明에 探索 行動 ○ B29爆擊機隊 南市洞 및 西浦里 共產軍 補給中心地와 宣川의 共產軍司令部를 爆擊 ○ 美陸軍地上軍總司令官 「하이지」大將 서울에서 記者會見談-韓國戰團에서 美軍이 使用한 基本的인 軍略은 正當하며 中共軍戰術은 2차大戰中の 日本과 同様 ○ 中國防部長官 西部戰線 國軍海兵隊를 視察코 金錫範 准將 以下 殊勳將兵에 各各 勳章授與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京放送 共產側의 捕虜交換에 關한 16日의 UN軍側 提翰은 會談再開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非難 ○ 「릭키스」美國務次官補 美UN協會에서 演說-美國은 韓國에 派兵하고 있지 않은 UN諸國에 對하여 侵略阻止 責任을 遂行하도록 UN總會에서 強硬히 要請할 豫定
10月1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各各 1個聯隊의 兵力을 投入 	10月2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部隊 猛烈한 白兵戰을 展開한 後 狙擊稜線의 主要高地에서 中共軍을 擊退 ○ 三角高地上的 美軍部隊 同高地 最西北端의 「파이크」山頂을 喪失하였으나 其他地點은 確保 ○ UN軍砲兵隊 三角高地西北端 「파이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크」山峰 및 狙擊稜線北端을 砲擊</p> <p>○ 國軍部隊 鐵馬高地 南側 傾斜面에 있는 陣地를 堅持</p> <p>○ 李大統領 美제5空軍司令部를 訪問하고 同空軍所屬 6個飛行隊의 部隊表彰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크라크」UN軍司令官 16日附 共產軍司令官으로부터의 無期限 休戰에 對한 非難에 回答—共產側이 誠意를 가지고 休戰交渉에 對한 希望을 表明할 境遇에는 언제나 會談을 再開할 用意가 있음을 通告</p> <p>○ 共產軍側連絡將校 張春山大領, UN軍側連絡將校 「맥카리」大領에게 抗議覺悟를 傳達코 UN軍이 19日 板門店中立地帶를 砲擊하였다고 非難</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報道政策諮問委員會 新聞通信主筆, 局長 및 國防部關係者로서 構成 發足</p> <p>○ 文治安局長, 南韓各地에 出沒하는 共匪 總數는 1,400名이며 其 根據地는 智異山을 中心으로 한 全南과 慶南北 一部地域이라고 言明</p> <p>○ 北京放送—亞細亞太平洋地域 平和會議에 出席한 各國代表의 科學者 醫師 27名은 美國의 韓國, 滿洲에 있어서의 細菌戰을 非難하는 聲明을 發表</p> <p>○ 「마그리까」英海軍軍令部長, 韓國戰線視察를 마치고 東京에서 言明—共產軍 沿岸砲火는 最近 顯著하게 正確化</p>	<p>10月21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제2사단, 狙擊稜線의 「핀·포인트」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擊退</p> <p>○ 狙擊稜線 및 三角高地地區戰鬪 小規模化</p> <p>○ 國軍 제9사단 鐵馬高地에서 攻擊開始코 3次에 걸쳐 肉迫戰 展開</p> <p>○ UN軍當局, 從來 釜山港에서 UN軍 需物資荷役作業에 使用되어 온 日本 傳馬船 43隻은 不日間 日本으로 歸還하게 되었다고 發表</p> <p>○ 李大統領 中部戰線視察, 白馬高地 奪還戰에서 勇名을 날린 제9사단 勇士들에게 致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INS記者와의 單獨會見—韓國軍 單獨으로는 戰線維持 不可能 共產主義者와 抗爭하고 있는 韓國民에 對한 UN의 援助는 極東反共諸國을 鼓舞</p> <p>○ 「헤리슨」UN軍側 首席代表 東京에 記者會見談—休戰成立 與否는 關係各國 高位層의 決定에 依存함으로 豫測 困難</p> <p>○ UN總會本會議, 細菌戰에 關한 證據 提出次 北韓代表를 出席시키자는 蘇聯提案을 46對 5로 否決</p> <p>○ 美國務省, 捕虜問題에 關한 共產軍側提案을 拒否한 「크라크」UN軍司令官의 回答을 全面的으로 支持한다고 聲明發表</p> <p>○ 美國務省當局 言明—美國은 UN諸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0月22日	<p>에 대하여 韓國派遣軍 增強을 勸告中</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部隊 北漢江西쪽 指形稜線에 對한 共產軍의 連續的인 攻擊을 擊退 ○ 國軍部隊 中共軍 2個大隊의 攻擊으로 喪失한 狙擊稜線 「핀·포인트」 高地를 9時間만에 奪還 ○ 國軍攻擊部隊 狙擊稜線東北쪽 金化, 金城間 公路西쪽의 共產軍陣地를 奇襲 ○ 三角高地 地區戰鬪 比較的 靜穩 ○ B29爆擊機隊 安東東쪽 25哩地點 共產軍 鉛鐵加工工場을 爆擊 ○ UN軍제이버·젯트機隊 鴨綠江近邊 空中戰에서 敵 MIG機, 1臺 未確認擊墜 2臺 損傷 ○ UN軍司令部UN軍團 休戰會談公式代辯人題의 更迭發表—「보오차야드」中 領의 後任에 「조셀·드리이스」少領을 任命 ○ 「크라크」UN軍司令官 韓國戰線 美軍交代間에 關하여 聲明—36點을 獲得한 前線將兵은 10月末까지는 前線 地區로부터 撤收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防次官 「윌리엄·포스터」氏 來韓, 釜山 軍施設 및 UN軍捕虜收容所를 視察한後 前線視察을 爲하여 서울 到着 ○ 韓國參戰 和蘭軍部隊 視察次 來韓한 「벌크」和蘭陸軍長官 景武臺로 李大統領을 禮訪 ○ 北京放送, 會談再開을 要求한 共產軍司令官 書翰에 對한 20日附 「크 		<p>라크」司令官의 拒否回답을 非難하고 UN軍司令官이 提出한 再開條件은 誘發性이 더욱 深刻하게 된 것을 明示하고 있다고 論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政治委員會, 議題討論 順序를 決定—① 韓國問題 ② 「튀니지아」問題 ③ 「모로코」問題 ④ 集團對策委員會報告 ⑤ 軍縮委員會報告 ⑥ 壤地利問題 ⑦ 美國의 內政干涉問題 ⑧ 細菌戰에 關한 調査問題 ⑨ 戰爭危機의 解消와 平和의 強化問題 ○ 下 UN韓國代表 記者에 言明—韓國問題를 現下의 緊急한 世界問題로서 強調한 今日 午後會議에서의 各國代表 演說에 韓國政府는 滿足
		10月23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 제2사단, 狙擊稜線에 대한 共產軍 1個中隊의 攻擊은 擊退 ○ 三角高地 및 「제인·락셀」高地의 美제7師團部隊, 「에키오피아」軍部隊와 合勢하여 中共軍 1個 大隊의 夜間攻擊을 擊退 ○ 國軍 제9사단 數次에 걸친 白兵戰을 展開한 後 鐵馬高地 山頂을 奪還 ○ 大隊兵力의 中共軍部隊 漣川西쪽 小 「지브랄달」高地를 夜間攻擊 ○ UN空軍 F86제이버·젯트機隊 2次에 걸친 西北韓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제트機 1臺 擊墜 1臺 未確認擊墜 ○ 美國防省發表—前週 韓國戰線 美軍 死傷者數는 963名 7月 以來의 週間最高 損失 <p>政 治</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會本會議 臨迫한 傷痍軍醫 援護를 爲하여 國防部, 內務部, 社會部, 國會 聯合對策委員會를 構成 할것을 可決 ○ 「엔」司令官 東京에서 記者會見談— 韓國은 數的 劣勢로 말미아마 單獨으로는 共產軍과 對戰不可能 ○ UN政治委員會, 現地實情 聽取次 韓國代表를 招請하자는 泰國提案을 54대 5로 可決, 北韓代表 招請에 대한 蘇聯提案은 38대 11로 否決 ○ 「리」UN事務總長, UN의 課業을 明示하는 렛세지 發表—① 集團安全保障 組織의 確立, ② 各種紛爭의 平和的 解決 ③ 後進國民의 生活水準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放送—朴憲永傀儡外相, UN總會 議長에게 렛세지를 送付하여 北韓傀儡政府는 自國代表의 參加없이 行하여진 韓國問題에 關한 如何한 決定도 拒否 한다고 通告 ○ UN政治委員會에서 「에」美國務長官, 韓國問題에 關하여 演說하고 美國 以下 20個國이 同意한 決議案을 提出 ○ 「아」美共和黨 大統領候補 「레트로이트」洲에서 演說—當選되면 直接 韓國에 가서 問題 解決에 努力
10月24日	軍 事	10月25日	軍 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部隊 友軍砲隊機隊의 猛烈한 爆擊後 白兵戰을 展開코 狙擊稜線北端 高地를 掌握 ○ 鐵馬高地에서 苛烈한 전투 계속, 國軍部隊 1個 中隊의 增強을 받은 中共軍攻擊으로 因하여 山頂을 喪失 ○ 英聯邦師團 漣川西쪽 小「지브달달」高地에 대한 中共軍攻擊을 擊退 ○ 美航母 「리차아드」 및 「에섹크스」號 艦載機隊 鴨綠江邊 惠山嶺을 爆擊 ○ UN軍捕虜收容所 發表—釜山西쪽 捕虜收容所에서 23日 收容所當局의 命令에 不服코 捕虜 23名이 負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部隊 早朝에 撤收한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를 4時間에 걸친 激戰끝에 再奪還 ○ 美 제7師團, 三角高地 西北端 「파이크」高地에 대한 2次에 걸친 奪還戰에 失敗 ○ 板門店近方 「빙커」高地에 대한 敵의 探索攻擊은 擊退 ○ 美戰艦 「미조리」號 端川地區 共產軍 陣地 및 補給施設을 砲擊 ○ 美海軍 제77機動部隊 所屬 艦載機隊 元山西쪽 炭嶺地域 및 陽德 共產軍補給地域을 攻擊 ○ UN軍 F86제이버·젯트機隊 新義州 近方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젯트機 2臺 擊墜 ○ 美 제8군司令部 現在 韓國戰線에 있는 UN軍部隊의 名稱을 公表하는 것을 一切 禁止
	政 治		政 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날 慶祝式典, 釜山公設運動場에서 舉行, 政府 各部處長官一行 UN 墓地 參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當局 釜山港 제2埠頭를 政府에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反還.</p> <p>○ 白陸軍總參謀長 記者會見에서 言明 一過般의 白馬高地 및 首都高地 作戰 結果는 韓國陸軍이 그동안 一年間의 訓練敎育으로 因하여 刮目할 發展을 하였다는 것을 立證.</p> <p>○ 北京人民報, 中共參戰 2周年 記念日 社說에서 抗美援朝의 勝利獲得을 強調</p> <p>○ 中共軍 韓國戰爭 介入 2周年 記念日 에 際하여 北京放送을 通하여 報道된 北韓傀儡軍 및 中共義勇軍의 共同「공 유니케」 共產軍은 지난 2年間 韓國에서 66萬名의 UN軍을 殺傷 및 捕虜하였다고 主張.</p> <p>○ 「포스터」 美國防長官 臺北에서, 萬若 臺灣이 侵攻을 받을 境遇에는 美國의 臺灣中立化 政策은 自動적으로 變更.</p> <p>○ 美政府代辯人 言明—美國은 今年 數次에 걸쳐 韓國問題의 平和의 解決을 爲하여 蘇聯에 非公式 要請을 한바 있었으나 何等의 回答도 없음.</p>	<p>北쪽 3哩 戰線에 따라 UN軍 外廓陣地를 夜間 攻擊.</p> <p>○ UN軍 세이버·갯트 機隊 西北韓 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갯트 機 2挺 擊墜.</p> <p>○ B29 爆擊機隊 平壤 近方 西浦 共產軍 補給中心地와 陽德 近方 北韓 共產軍司令部를 爆擊.</p>	<p>政 治</p> <p>○ 李南部地區警備司令官 記者會見에서 不日內 冬季 後方 殘匪 掃蕩 作戰을 開始하여 廣範圍한 歸順 工作을 實施.</p>
<p>10月26日</p>	<p>軍 事</p> <p>○ UN軍部隊 東部戰線 「斷傷의 稜線」에 대한 北韓 共產軍 1個大隊의 早朝 攻擊을 擊退.</p> <p>○ UN軍部隊 熾烈한 戰鬪을 政行한 後 狙擊 稜線 北端 「오오크」 高地 南麓 陣地를 占領.</p> <p>○ 共產軍 小部隊 狙擊 稜線 및 三角高地 北方 「제인·락셀」 高地를 夜間에 攻擊.</p> <p>○ 約 1,500名의 中共軍部隊 板門店 東</p>	<p>10月27日</p>	<p>軍 事</p> <p>○ UN軍部隊 三角高地 및 狙擊 稜線에 대한 共產軍의 探索 攻擊을 擊退.</p> <p>○ 中共軍部隊 中部戰線 鐵馬高地 南쪽 1個 外廓高地를 夜間 攻擊.</p> <p>○ 西部戰線 板門店 東北쪽 高地에서 熾烈한 戰鬪 展開 中共軍部隊 UN軍 外廓陣地로 浸透코 板門店 東北쪽 UN軍 主戰線 「혹크」 稜線에 到達.</p> <p>○ UN軍部隊 板門店 東쪽 「빙커」 高地를 拋棄하고 UN軍 主戰線까지 撤收</p> <p>○ 美海兵隊 西部戰線 「혹크」 稜線을 夜間에 奪還.</p> <p>政 治</p> <p>○ 李大統領 韓國 技術者 UN軍 使用 日人 技術者와 代替 使用하기로 되었으므로 技術者는 一週日內로 報告하라고 談話.</p> <p>○ 慶尙南道 殉職 警察官 一般 公務員 消防官 및 青年團員 3,000餘柱에 대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0月28日	<p>계 1회 合同追悼會 舉行.</p> <p>○ UN事務局 北韓傀儡政府로부터 安保 參席要求를 受理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中部戰線 鐵馬高地近傍 2個前 砲陣地 狙擊稜線 및 指形稜線東쪽 外 廓陣地에 대한 共產軍攻擊을 全部 擊退.</p> <p>○ 美海兵隊 中共軍 攻擊部隊에 依하여 侵透當한 板門店東北쪽 外廓陣地를 奪還.</p> <p>○ 共產軍 下午 6時까지의 24時間에 22,900發의 砲彈을 發射.</p> <p>○ UN軍 航空機隊 曇天을 뚫고 出擊하여 共產軍補給品集結所와 前線陣地 및 其他目標을 攻擊.</p> <p>○ 美제5空軍司令部 發表—제3戰爆機隊는 27日로서 合計 50,000回의 出擊記錄을 樹立.</p> <p>○ UN軍 捕虜司令部 發表—共產軍 捕虜의 軍事訓練을 停止시키기 爲하여 26日 巨濟島捕虜收容所에서 美軍 2個 中隊가 突入 共產軍捕虜 1名死亡 24名 負傷.</p> <p>○ 「바이카스」美제5空軍司令官 星條紙 記者에게 言明—韓國戰線 MIG젯트機의 操縱士는 蘇聯人이나, 中國人 또는 獨逸人이라는 「멘덴버어그」大將의 見解를 支持.</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國戰線 및 UN軍 軍事施設 視察次 「머어피」駐日美大使 「크라크」司令官 과 同途 서울到着.</p>	10月29日	<p>○ 「벌크」和蘭陸軍長官 一行 訪韓日程을 全部마치고 離韓.</p> <p>○ 北京放送—周中共外相은 27日 UN總會議長에 렛세이지를 送附하여 細菌戰討議에 中共代表의 參加를 要求하는 한편 中共代表가 參加하지 않은 如何한 細菌戰非難調查의 討論 및 決定도 否決한다고 通告.</p> <p>○ 「관다르」UN印度代表는 韓國問題및 北阿 南阿問題 討議次 「비신스키」蘇外相에게 會談開催를 要請.</p> <p>○ 「페이스」陸軍長官 發表—現在捕虜로 되어있는 「민」少將 (臨時階級) 正式으로 昇進.</p>
		10月2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共產軍 1個大隊의 夜間攻擊을 받아 未明에 狙擊稜線의 「핀·포인트」高地에서 撤收.</p> <p>○ 戰車의 支援을 받은 UN軍部隊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를 奪還코 頑強히 抵抗하는 共產軍과 激戰展開.</p> <p>○ 三角高地에 대한 共產軍의 2次에 걸친 夜間攻擊을 擊退.</p> <p>○ UN軍部隊 西部戰線 鐵馬高地에서 前日 喪失한 前砲陣地를 奪還.</p> <p>○ 加奈陀 「페트리치아」公主輕步兵聯隊 제3대대 釜山港 上陸.</p> <p>○ 美國防省 韓國戰線 週間 美軍死傷者數 1,278名에 達하여 1年間に 있어서 初有의 被害라고 發表.</p> <p>○ 「크라크」UN軍司令官 및 「머어피」駐日美大使 前線地區를 視察 「크라크」司令官 狙擊稜線에 있어서의 韓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軍師團의 健闘를 讚揚하고 丁一權中將에 致賀.</p> <p>○ 治安局發表, 21일부터 27일까지의 1週間 共匪討伐戰果一射殺 54名 生捕 9名 歸順 4名 銃器 25挺 前週보다 射殺 10名 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文治安局長 治安局管下에서는 지난 10月 1일부터 展開된 秋收保護作戰에서 共匪 約350名을 射殺하였다고 記者會見에서 說明.</p> <p>○ UN政治委員會에서 「비신스키」蘇外相 「에」美國務長官이 提案한 決議案을 全적으로 拒否하고 韓國問題 解決을 爲하여 參戰國家와 非參戰國家를 包含하는 新委員會 設置를 提案.</p> <p>○ 「아」美大統領候補 「벤·프리트」美 제8軍司令官이 「루우드」少將에 보낸 書翰內容을 發表—韓國軍 2個師團을 增設하면 美軍 2個師團과 交代可能.</p>		<p>擾事件에 대한 抗議覺醒을 傳達.</p> <p>○ 光州捕虜收容所에서 騷擾 脫出企圖하다가 捕虜 4名 死亡 7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머어피」駐日美大使 및 「크라크」司令官一線視察을 마치고 金海飛行場到着. 申國防長官 案內로 李大統領禮訪.</p> <p>○ 陸軍本部公報官 言明—韓國軍 軍團 및 師團 部隊에의 日本人記者의 出入을 禁止.</p> <p>○ UN政治委員會에서 「로이드」英代表, 「비신스키」蘇外相의 新委員會設置案을 拒否하고 捕虜自由送還을 承認치 않은限 어명한 委員會를 構成하여도 無益하다고 演說.</p> <p>○ 美國防省 秘密情報을 公開—지난 4月 「벤·프리트」美 제8軍司令官은 韓國軍兵力을 20個師團을 增強할것을 提案한바 있었으나 當時의 UN軍總司令官 「릿슈웨이」大將이 이를 拒否.</p>
10月3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狙擊綫 「핀·포인트」高地에서 激戰繼續.</p> <p>○ 中共軍部隊 三角高地西方 數哩地點에 있는 3個 前哨陣地를 攻擊.</p> <p>○ 約 2,000名의 中共軍部隊 夜間에 三角高地上的 UN軍을 攻擊.</p> <p>○ B29爆擊機隊 東海岸 元山東南方 「송사리」 및 西海岸 「운파리」 共產軍 補給中心地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南日共產側首席代表, 連絡將校를 通하여 지난 26日 發生한 巨濟島捕虜騷</p>	10月3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 1個中隊의 狙擊綫 「핀·포인트」高地에 대한 攻擊을 擊退.</p> <p>○ UN軍部隊 中共軍의 壓力을 받아 子正直後에 三角高地로부터 撤收.</p> <p>○ 數千名의 UN軍과 中共軍 30日 夜半以後 2次나 主人을 바꾼 三角高地山頂을 占領하기 위하여 熾烈한 交戰 계속.</p> <p>○ B29爆擊機隊 順天補給地域 및 南市 共產軍司令部를 爆擊.</p> <p>○ 美제5空軍 10月 空中戰果—共產軍飛</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行機 26臺 擊墜 제5空軍 喪失機數 27臺.</p> <p>○ 美極東軍司令部 北京放送이 滿洲上空에서 擊墜하였다는 F84젯트機의 操縱士는 지난 26日 韓滿國境부근의 北韓上空에서 同機로부터 脫出한 것이 라고 發表.</p> <p>○ 英國 「윌링톤」 公聯隊 제1대대 釜山上陸.</p> <p>○ UN軍捕虜收容所司令部 發表一巨濟島捕虜收容所 4個收容所에서 28日 共產軍捕虜를 集團示威을 敢行코 警備隊와 衝突 捕虜 178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連絡將校 北韓捕虜收容所의 名稱과 範圍等의 變更를 通告한 雷翰과 收容所에 位置를 表示한 地圖를 UN軍側에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피어슨」 UN總會議長, 韓國問題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를 要請한 國會및 세지에 回電一侵略을 終結시키고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 UN의 目的을 銘心하여 韓國問題를 慎重 考慮.</p> <p>○ 北京放送, 中共軍地上部隊는 26日 午前 遼東省 上空에 侵入한 F84 젯트機 8臺中 1臺를 擊墜하고 操縱士를 捕虜.</p> <p>○ UN政治委員會一濠洲, 和蘭兩代表, 捕虜強制送還을 反演對說.</p> <p>○ 「핀넬러」 空軍長官 言明一韓美空軍 交代는 時期尙早, 滿洲 爆擊이던 三次戰 誘發.</p>	<p style="text-align: center;">11月 1日</p>	<p>○ 美陸軍工兵學校, 特別 言語面에 있어서 韓國軍將校 訓練計劃의 擴張에 着手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狙擊稜線에서의 戰鬪 比較的 平穩.</p> <p>○ 國軍部隊 喪失한 地域을 奪還코자 三角高地 上頂을 向하여 熾烈한 攻擊을 加하였으나 中共軍의 抵抗을 받고 撤收.</p> <p>○ 戰車 및 砲兵隊支援下에 UN軍 攻擊部隊 板門店南方의 砂川江을 俯瞰하는 中共軍高地를 晝間攻擊.</p> <p>○ 英國航空母艦 [오오션]號 韓國水域에서의 任務를 完了하고 歸國.</p> <p>○ UN軍, 航空機隊, 三角高地 및 狙擊稜線 背後 共產軍砲陣地를 攻擊코 90個所以上의 砲臺를 破壞.</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젯트機 2臺를 擊墜하고 4臺 擊破.</p> <p>○ 美第5空軍所屬 第3探擊機隊(B26) 韓國戰線 出擊 20,000回 記錄을 樹立.</p> <p>○ 美韓國空軍 首席顧問官 更迭—「어비스트·E·포오드」大領 後任에 「찰스·B·윙클」大領 就任.</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10月 28日의 巨濟島捕虜收容所 捕虜 負傷事件에 對한 抗議覺書를 UN軍側連絡將校에게 手交.</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申國防部長, 官空軍總參謀長 金貞烈 少將의 建議에 依한 空軍總參謀長의</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期限附 責任制 更迭에 關하여 談話— 現空軍總參謀長 金少將은 大統領에 對한 그 懇切한 建議에 依하여 12月 1日부로 空軍士官學校長으로 轉補, 後任에는 崔用德少將을 轉補키로 內 定.</p> <p>○ 大統領令 제716號「軍人休暇規定」同 令 제717「號軍法務官 銓衡令」等 公布 施行.</p> <p>○ UN總會 政委 韓國問題 繼續討議— 新西蘭, 瑞典, 國府代表 捕虜自由送 還을 支持 言明.</p>		<p>○ B29爆撃機隊 平壤東方 檢倉地區 共 産軍 軍事施設 및 東海岸 洪原 補給地 域을 攻擊.</p> <p>○ 「에리스투스」南阿聯邦 國防相 前線 地區 視察 南阿聯邦航空機隊의 中共 軍陣地에 對한 空中攻擊을 觀戰.</p>
11月 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産軍部隊 狙擊綫 및 三角高地山 頂을 頑強히 固守하여 猛烈的 國軍의 波狀攻擊이 挫折.</p> <p>○ 狙擊綫 및 三角高地 地域에서 一 進一退의 激戰繼續.</p> <p>○ 中共軍部隊 三角高地東北「제인·랏 셀」高地를 占領.</p> <p>○ UN軍砲兵部隊 金化綫 地帶의 中 共軍參兵部隊에 對하여 猛烈的 砲火 를 集中.</p> <p>○ UN海軍當局 美第77機動艦隊 所屬 航母「오리스커니」號의 韓國水域作戰 參加를 發表.</p> <p>○ UN軍戰爆撃機隊 三角高地 및 同高 地北方의 「과파산」高地 一帶를 繼續 強打.</p> <p>○ UN軍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 上 空에서 展開된 四回에 걸친 空中戰에 서 敵MIG젯트機 1台 擊墜 2台未確認 擊墜 1台 擊破.</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國戰爭 從軍 美新聞特派員 15人 個人資格으로 「아」共和黨, 「스」民主 黨 兩黨大統領候補에 打電 美軍의 韓 國戰線撤兵을 考慮하는 것은 不賢明, 韓國戰爭이 亞細亞人 對 亞細亞人의 戰爭이라는 觀念은 UN에 있어서 宣 傳上의 重大한 打擊.</p> <p>○ 「네에루」印度首相, 記者會見에서 蘇 聯의 韓國問題 討議를 爲한 委員會 設置案에 贊意를 表明.</p> <p>○ 「트」大統領, 1947年의 美軍 韓國撤 收에 關한 合同參謀會議의 極秘文書 를 公開하고 當時 陸軍參謀總長이였 던 「아」元帥도 同撤收에 贊同한 責任 이 있다고 非難.</p>
		11月 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 斷傷의 綫線 東方 5個 軍 陣地에 對한 共産軍의 探索攻擊을 擊 退.</p> <p>○ 國軍部隊 狙擊綫 陣地에 對한 中 共軍 1個大隊의 夜間攻擊을 未明에 擊退.</p> <p>○ 狙擊綫와 三角高地를 除外한 各戰 線의 戰鬪는 輕微.</p> <p>○ B29爆撃機隊 平壤北方 西浦里 및 安 州共産軍補給要衝을 爆撃.</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第8軍司令部 10月中 共產軍 推算死傷者數는 昨年 11月以來的 最高인 33,200餘名에 達한다고 發表.</p> <p>○ 「엔」司令官, UN軍部隊는 狙擊綫, 三角高地를 圍繞한 21日間の 戰鬪에서 完全한 主導權을 掌握하였다고 聲明.</p> <p>○ 美韓國軍專顧問團長 「라이언」准將, 自己는 相當한 數의 韓國軍의 增強을 華府에서 命命하였다는 情報를 入手하였다고 AP記者와의 電話「인터뷰」에서 說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忠北 忠州郡廳舍, 共匪放火로 燒失.</p> <p>○ UN總會政委 韓國問題를 繼續討議— 韓國代表 下外務部長官, 侵略의 指命者는 蘇聯이라고 激烈히 攻擊.</p> <p>○ 「타토」「유우고」首相 共產黨大會에서 演說—蘇聯의 領土擴張主義를 非難하고 韓國戰爭의 早速한 解決을 主張.</p>		<p>를建設코 現在 約 800台的 航空機를 集結中.</p> <p>○ 美在鄉軍人會會長 「고오그」氏 「마닐라」極東大學에서 演說—在鄉軍人會는 韓國에서의 原爆使用과 滿洲爆擊을 支持.</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金化綫地帶 戰鬪再開, 狙擊綫과 三角高地에서 終日전투계속.</p> <p>○ 國軍部隊 狙擊綫에 對한 中共軍 1個中隊의 攻擊을 擊退.</p> <p>○ 國軍部隊, 31日밤 喪失한 三角高地 山頂에 對한 7次의 攻擊을 下午에 中止하고 後方陣地로 撤收.</p> <p>○ B29爆擊機隊, 平壤東方 34哩地點, 共產軍 補給地域을 爆擊.</p> <p>○ 「엔」司令官 金化地區 視察.</p> <p>○ 美國防省 發表—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34,569名, 戰死者 19,446名, 負傷者 92,275名, 行方不明 12,84名</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美大統領에 當選한 「아」元帥에 祝電.</p> <p>○ UN印度代表, 韓國休戰會談의 停頓狀態를 解決하기 爲한 決議案을 作成中.</p> <p>○ 美大統領, 開表結果 判明—「아」元帥 選舉人의 半數인 266名을 壓倒의 으로 超過하여 當選, 副統領으로는 共和黨 「닉슨」氏 當選.</p>
<p>11月 4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東部戰線, 斷腸의 綫前哨陣地에 對한 共產軍 1個大隊의 攻擊을 朝曉에 擊退.</p> <p>○ 全戰線 小康狀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韓國戰線 視察中인 美太平洋地區 海兵隊司令官 「하아트」中將에게 銀星太極勳章을 授與.</p> <p>○ 香港發刊 戰線週報紙 報道—中共및 蘇聯當局은 東北地域內 4個處(瀋陽, 長春 哈爾濱 佳木斯)에 主要空軍基地</p>	<p>11月 5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中部戰線, 三角高地및 狙擊綫地區를 除外하고는 小康狀態.</p>
		<p>11月 6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汝山西方 板門店南方, 高城南方 盆地帶西方에서 探索戰. ○ UN軍部隊 鐵原東北方「작손」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攻擊을 拂曉에 擊退. ○ 美第77機動艦隊 清津地區 共產軍 補給施設 및 元山地區 軍事施設을 攻擊. ○ UN軍爆擊機隊 清川江 橋梁 5個處를 爆擊. ○ 美제5空軍소속 세이버·젯트機 MIG 通路에서 2次의 空中戰에서 敵 MIG 機 1台 擊墜, 4台 擊破. ○ 駐韓美軍事顧問團 代辯人發表—韓國 軍砲兵隊는 韓國軍 全步兵師團과 共同作戰을 함에 充分한 部隊編成을 完了 韓國軍戰車隊 5個部隊도 이미 編成. ○ 慶南非常警備司令部 發表—10月中 道內共匪討伐 綜合戰果—射殺 27名, 生捕 16名 歸順 17名, 各種小銃鹵獲 34挺. 我側被害는 韓荷特攻隊員 3名戰死, 5名 負傷 警察官 2名負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軍 2個小隊 狙擊稜線과 三角高地 中間에서 國軍部隊에 대하여 拂曉 攻擊. ○ 金化稜線地帶에서의 共產軍砲擊 夜間에 顯著하게 減少. ○ 美戰艦「미조리」號, 東海岸 端川地區 共產軍 軍事施設을 攻擊. ○ UN軍, 세이버·젯트機隊 定州와 鴨綠江사이의 上空에 敵MIG젯트機 1臺 擊墜, 4臺擊破.
11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大統領 駐美韓國大使館을 通하여 「아」元帥에게 韓國訪問을 正式招請. ○ 世界聯邦 亞細亞會議 最終會議에서 原子武器 管理의 強化 및 韓國問題의 早速한 解決等 UN에 對한 勸告 4項目을 採擇. ○ UN總會 印度代表, 不日內로 捕虜交換에 關한 妥協案 提出을 示唆.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戰線에 걸쳐 初雪 中共軍 繼續하여 狙擊稜線에 壓力.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李大統領의 招請電에 對하여 「아」元帥로부터 回信訪韓時日은 適當한 時期에 미리 通知한다고 約束. ○ 美國防次官補 「로오젠버어그」女史, 來韓 釜山到着 直後 輕飛行機로 巨濟島로 飛行. ○ 北京放送, 美國은 板門店의 休戰會談을 決裂시켜 韓國에 對한 侵略戰爭을 擴大하려 하고 있다고 非難. ○ 「레드포워드」美太平洋 艦隊司令官, 「뉴우델리」에서 記者會見談—蘇聯海軍은 韓國水域에서의 美海軍作戰에 對하여 妨害不可能, 越南의 軍事事態는 昨年 12월에 比하여 훨씬 良好. ○ UN總會 「이스라엘」代表 韓國戰爭의 即時中止와 休戰會談의 再開를 提案 觀. ○ UN總會 美代表團 代辯人, 印度는 韓國問題에 對한 正式決議案을 提出하기 前에 中共打診의 結果를 美側에 通告할 것이라고 言明. ○ 「브래드리」美國合同參謀會議議長「크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라크)司令官에 보낸 「렛세이지」에 關하여 「트」大統領과 妥습을 完了 본 렛세이지는 主로 作戰에 對한 것이며 「아」元帥 訪韓과는 關係없다고 當局 談.</p> <p>○ UN美代表團 代辯人 「이든」英外相과 「에」美國務長官과의 會談에서는 韓國問題가 重點이 되리라고 言明.</p>		<p>談捕虜交換問題의 解決을 爲한 印度 政府의 對中共 折衝을 確認.</p> <p>○ UN總會 「아세아, 아랍」代表 韓國問題에 對한 美蘇妥協案을 作成코 이를 總會政委會에 提出키 爲하여 小委員會를 設置.</p> <p>○ 英, 佛外相, 韓國問題 「튜니지아·모록코」問題等에 對하여 「에」美國務長官과 會談開始—「이든」英外相 UN의 當面課題는 韓國問題解決이라고 記者 會見談.</p>
11月 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比効的 輕微.</p> <p>○ UN軍部隊 金城東南方 指形稜線에 對한 中共軍攻擊을 擊退.</p> <p>○ UN軍砲兵隊 金化稜線의 敵據點에 對하여 繼續 猛砲擊.</p> <p>○ UN軍 攻擊部隊 中部戰線 「노리」高地에서 中共軍과 交戰.</p> <p>○ UN軍 攻擊部隊 高浪浦東方에서 展開된 전투에서 中共軍 95名을 射殺.</p> <p>○ B29爆擊機隊 鎮南浦 補給物資中心地 및 黃州北方 永豐 北韓共產軍參謀學校를 早朝에 爆擊.</p> <p>○ B29爆擊機隊 永豐地區 爆擊에서 共產軍 夜間戰鬪機 2臺와 交戰코 그중 셋트機 1臺 擊墜.</p> <p>○ UN軍 捕虜收容所 當局發表—巨濟島 南方 蜂岩島收容所의 共產軍非戰鬪員은 지난 6日 示威을 開始하여 警備兵과 衝突 負傷者 21名의 事故發生.</p>	11月 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2個大隊 約 2哩에 걸친 東部 戰線에서 夜半에 UN軍陣地를 攻擊.</p> <p>○ UN軍部隊 指型稜線 및 高浦浦前面前哨陣地에 對한 共產軍의 數回에 걸친 偵察攻擊을 擊退.</p> <p>○ UN空軍機隊 中部戰線 山岳地帶의 共產軍 砲兵陣地와 兵力集結地를 攻擊.</p> <p>○ 「로젠버어그」美國防次官補, 戰線을 觀察 韓國軍은 部隊全部뿐만 아니라 個個人 모두 優秀하였다고 讚揚.</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엘리슨」美國務次官補 空路 서울到着 景武臺로 李大統領을 禮訪코 韓國 및 極東全般에 걸쳐 要談.</p> <p>○ 印度 「뉴우렐리」消息通, 韓國休戰會</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防部 報道政策諮問委員會, 國軍將兵의 血戰樣相을 取材코져 一部委員會을 中西部戰線에 派遣.</p> <p>○ 交通部 軍事輸送의 緊急要請에 의하여 一部列車 一週日間 中止.</p> <p>○ 京釜線 勿禁—院洞驛間에 共匪 約 20名 來襲코 鐵警과 約 2時間에 걸쳐 交戰.</p> <p>○ 美陸軍省 代辯人言明—在韓美第8군</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1月10日	<p>司令官「벤·프리트」大將은 明年 1月 24日부로 退役</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部隊 共產軍의 攻擊을 받고 高城南方 高地에서 一時後退. ○ UN軍 狙擊線에 對한 中共軍 1個中隊의 攻擊을 擊退. ○ 約 350名의 中共軍部隊 鐵原西方 T型高地와 不毛高地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포오크·츄」高地에 夜半에 來襲. ○ B29爆擊機隊 江東 및 新安州地區 補給 및 兵力集結地를 爆擊. ○ 濟州島捕虜收容所 監棟內에서 中共軍捕虜 1名의 自殺 屍體를 發見. ○ 美8軍 代辯人「벤·프리트」司令官이 60日以前에 韓國으로부터 離任한 것이라는 報道를 否定.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앨리슨」美國務次官補, 在釜山 UN 諸機關을 視察한 後 離韓. ○ 「리」UN事務總長 總會本會議 開會에 際하여 「피어슨」總會議長에게 辭表을 提出코 即時로 後任者 任命을 議題로 上程할 것을 要請. ○ 「비신스키」蘇外相 UN總會政委에서 捕虜自由送還案을 非難하고 10月 29日 提出한 韓國委員會 設置案을 說明 一同委員會는 美, 英, 佛, 蘇, 中共, 印, 緬, 瑞典, 韓國, 北傀, 「척코」等 11個國으로 構成. ○ 極東視察을 마친 「코프」美在鄉軍人 會長 韓國에서는 原子彈使用을 包含한 	11月11日	<p>全面的 戰鬪가 必要하다고 歸國談.</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 東部戰線 3個高地에 對한 北韓共產軍의 攻擊을 擊退. ○ 國軍部隊 中共軍 攻擊을 받고 狙擊線 「핀·포인트」高地로부터 夜半에 撤收. ○ UN軍部隊 鐵原西方 「포오크·츄」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2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 ○ B29爆擊機隊 新義州, 新安州面, 車籠館地區 共產軍 施設을 爆擊. ○ 「벤」司令官, 記者會見에서 言明一韓國軍은 11月 8日 새로 2個師團 6個聯隊를 編成, 이것으로써 韓國軍의 戰鬪力은 14個乃至 15個師團에 到達.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릭도날드」新西蘭 國防相 및 「헬스네트」同國會議員 一行 韓國戰線 視察 次 金海飛行場 到着. ○ 北京放送-「아」元帥는 捕虜의 自由送還이란 美國의 政策을 變更하지 않는 限 韓國戰爭은 終結시킬수 없을 것이라고 論難. ○ 「이든」英外相, UN總會에서 捕虜問題에 關하여 演說하고 下記 4項目의 解決策을 提案 ① 休戰成立과 同時에 送還 ② 自由送還 ③ 抑留例의 送還 便宜 提供 ④ 捕虜에 對한 暴力使用의 禁止. ○ 印度代表, UN總會에서 中共의 UN 加入이 韓國休戰의 先要條件임을 主張.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1月1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部隊 狙擊殺線 「핀·포인트」高地를 다시 奪還.</p> <p>○ 狙擊殺線을 除外하고는 地上戰鬪 輕微.</p> <p>○ B29爆擊機隊 平壤 大同江橋를 爆擊.</p> <p>○ 제8軍當局 言明一訓練을 指導할 準備를 갖춘 韓國軍側 人員의 缺乏은 韓國軍擴張이 實現되기 前에 克服하여야 할 障害物.</p> <p>○ 美國防省 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 總數 125,887名-昨年發表에 比하여 1,318名이 增加.</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南日共產軍側 首席代表, 連絡將校會議을 통하여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에 書翰-10日 濟州島의 捕虜를 絞首刑으로 處刑한에 對하여 抗議.</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張春山大佐 UN軍側 質問에 對하여 지난 10月 31日 傳達된 書翰에 記載된 北韓捕虜收容所는 從前의 모든 收容所를 變更한 것이라고 肯定.</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맥도날드」新西蘭國防長官 一行 臨時官邸로 李大統領을 禮訪 新西蘭의 韓國援助에 對한 繼續 努力할 것을 確約.</p> <p>○ UN韓國代表部, 國土統一과 捕虜釋放을 要求하는 聲明書를 發表.</p> <p>○ 濠外相, 紐育에서 捕虜問題에 關한 妥協案을 示唆-①全捕虜의 中立國移送, ②歸國을 希望치 않은 捕虜는</p>	11月1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部隊 狙擊殺線 UN軍陣地를 夜間攻擊.</p> <p>○ B29爆擊機隊 平壤北方 西浦里 共產軍 捕給品集積所 및 鐵山軍事施設을 爆擊.</p> <p>○ B26爆擊機隊 鎮南浦 共產軍 捕給品集積所 및 共產軍捕給路를 夜間에 爆擊.</p> <p>○ UN軍 「헤리콧터」機 敵戰線後方 30哩地點에 落下한 美F84선더·갯트機 操縱士를 救出.</p> <p>○ 濟州島捕虜收容所에서 中共軍捕虜 1名이 自殺.</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美國次期大統領 「아」元帥 來韓에 對處한 特別委員會의 構成을 決議.</p> <p>○ 北京放送, 第7回 UN總會에 있어서의 美代表의 捕虜問題에 關한 提案을 非難-美國은 其他國家로 하여금 美國의 捕虜強制抑留, 休戰會談 破壞行爲에 同意시키려고 企圖.</p> <p>○ 「뉴우델리」消息通言明-印度政府는 中立國에 의한 捕虜의 再審査와 모든 捕虜의 自由送還을 內容으로 하는 韓國休戰 新提案을 作成中.</p> <p>○ UN印度代表團, 捕虜送還問題의 中立國委員會 移管에 關하여 英·印 濠國間에 意見交換이 있었음을 確認 發表.</p>
		11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國軍部隊 中共軍 4個中隊의 攻擊을 받아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를 10月14日 以來 14回째로 撤收.</p> <p>○ 鐵馬高地南方에서 5次에 걸친 共產軍의 小規模探索戰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檢倉 軍隅里, 鎮南浦, 元山地區, 軍事目標를 爆擊.</p> <p>○ 軍人 및 乘務員 44名을 실은 美「복스카」輸送機 1臺 서울東北方 18哩地點 山稜에 衝突하여 全員死亡.</p> <p>○ 美第8軍 情報將校, 只今까지 發表되지 않은 「베이팜」地雷가 韓國戰線에서 使用되어 13日 밤 杆城西方에서 共產軍을 阻止하는데도 使用되었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 및 共產軍側連絡將校團, 12日 汶山, 板門店間 道路로부터 100M 以內的 地點에서 共產軍에 使用하는 統彈으로 射殺된 美軍看護員 事件을 調査.</p> <p>○ 南日 共產軍側首席代表, 「해리슨」UN軍側 首席代表에게 보낸 電翰에서 11日 濟州島에서의 中共捕虜 死亡事件 및 UN空軍機의 中立地帶 上空侵犯에 抗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在 韓希臘軍司令官 「클리어프워이스」少將, 新司令官 「파소니스」准將과 함께 申國防部長官을 訪問.</p> <p>○ 平壤放送-北傀機關紙 民主朝鮮紙, UN總會에 提出한 美國의 韓國問題 解決案은 韓國問題解決의 길을 封鎖</p>	<p style="text-align: center;">11月15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高城南方에서 北傀軍 1個中隊兵力의 探索攻擊을 拂曉에 擊退.</p> <p>○ 國軍部隊 熾烈한 戰鬥을 繼續한 後 狙擊稜線 「핀·포인트」高地를 早朝에 再次 奪還.</p> <p>○ 狙擊稜線東方 小指形稜線의 「복카·포인트」高地에서 散發된인 戰鬥展開.</p> <p>○ UN軍部隊 鐵原北方 「작슨」高地에서 撤收.</p> <p>○ 「머소리」號를 旗艦으로하는 UN海軍部隊 元山灣에 對한 砲擊을 再開.</p> <p>○ B29爆擊機隊 咸興 共產軍鐵道 및 捕給中心地를 爆擊.</p> <p>○ 美 F86제이터·갯트機隊 北韓 MIG 通路에서 敵MIG 15갯트機 1臺를 擊墜.</p> <p>○ 美極東空軍소속 C46輸送機 1臺 韓國東海岸에 墜落, 塔乘者 20名中 11名이 行方不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總會政委會委員長 「무니스」氏 同委員會에서 韓國問題의 早速한 討議 表決을 強調.</p> <p>○ 「멕시코」代表 UN總會政委에서 韓國問題 解決에 關한 「멕시코」提案內容을 說明.</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1月16日	<p>○ 시카고·센·타임스紙 「크」司令官이 美國防省에 對하여 3,4個師團의 韓國增派를 要請하였다고 報道.</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部隊 狙擊綫 「핀·포인트」高地에 對한 中共軍 2個小隊의 攻擊을 早朝에 擊退.</p> <p>○ 中共軍部隊 西部戰線 臨津江岸 「혹크」高地를 攻擊.</p> <p>○ 星條紙報道—10月14日 以來 1個月에 걸친 中部戰線 金化綫에서의 戰鬪에서 共產軍 16,000餘名을 殺傷코 2個師團의 戰鬪能力을 潰滅.</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雙方 連絡將校會議에서 共產軍側, UN空軍機가 15日 會談中立地帶 上空을 侵犯하였다고 抗議, UN軍側은 南韓 2個 捕虜收容所의 名稱變更을 通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務會議, 立法, 行政, 司法府및 民間을 包含한 廣範한 「아」元帥 歡迎中央準備委員會를 設置한 것을 決定.</p> <p>○ 北京放送 「리」UN事務總長의 辭任에 論及하여 同事務總長은 美政府의 UN憲章 侵犯을 容認하였다고 非難.</p> <p>○ 中共新華社 通信報道—共產軍은 10月中 UN軍 63,000名을 殺傷하고 飛行機 271臺를 擊墜.</p> <p>○ 「크라크」UN 軍司令官, 聲明을 發表하여 韓國에서의 UN軍의 勝利는 共產主義 壓制下에 呻吟하고있는 人民들에게 希望을 준다고 韓國戰爭의</p>	11月17日	<p style="text-align: center;">意義를 強調.</p> <p>○ 美原子力委, 「에니웨톡크」島에서 水爆實驗에 成功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小康狀態.</p> <p>○ 狙擊綫에 對한 中共軍의 探索攻擊을 3時間 交戰後 露退.</p> <p>○ B29爆擊機隊 鴨綠江近方 초약洞 鑛山製鍊所 및 平壤近處 彈藥架積所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中國防部長官, 韓國軍 增強에 對한 具體적인 方案을 立案하였으며 一部는 實現段階에 들어가고 있다고 記者會見에서 言明.</p> <p>○ 美極東軍司令部, 새로 創設된 美極東陸軍部隊參謀長에 同司令部參謀副長 「해리가」少將을 任命하였다고 發表.</p> <p>○ 「크라크」司令官 韓國에서 攻勢를 取하기 위하여 同司令官이 美國防省當局에 3個 乃至 4個師團의 增派를 要請하였다는 「시카고·센 타임스」紙 報道를 否認.</p> <p>○ 印度代表 UN總會政委에서 捕虜問題에 關한 妥協案을 正式提出—①4個國 中立委員會 監視下에 兩側 全捕虜를 中立地帶로 移送, ②休戰成立 90日後에도 送還을 不願하는 捕虜의 取扱은 國際的 政治會議에서 決定.</p> <p>○ 美代表 記者會見 席上에서 捕虜에 對한 強制措置를 排擊하는 3個 原則을 說明.</p> <p>○ 「바넷」美國防長官, 「애」國務長官</p>

일·일	주요 사항	일·일	주요 사항
11月18日	<p>과는 捕虜問題, 「롯데」氏와는 「아」元帥 訪韓問題에 關하여 各各 協議하였다고 記者會見談.</p>		<p>○ 英黑時計部隊 板門店東北方 「흑크」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3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p>
	軍 事		
	<p>○ 中共軍部隊 狙擊綫東方 隣接 小指形綫의 「룩키·포인트」高地를 占領.</p>		<p>○ 美極東空軍 1,300回 出擊코 鴨綠江南方 20哩까지 이르는 共產軍 支配地域一帶를 強打.</p>
	<p>○ 中共軍部隊 狙擊綫 「핀·포인트」高地를 夜間攻擊.</p>		<p>○ 美 F84세이버·젯트機隊 MIG通路에서 共產軍 MIG 15젯트機 1臺 擊墜</p>
	<p>○ 英黑時計部隊 西部戰線 「흑크」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夜間攻擊을 擊退.</p>		<p>○ UN軍航空機隊 金化綫地區 「파파상」高地에 대하여 「네이팜」彈으로 攻擊.</p>
11月19日	<p>○ 美航母 「오리스카니」號에서 出擊한 3臺의 「팬서·젯트」機隊 東海上空에서 敵MIG15젯트機 4臺를 捕捉코 그중 2臺 擊墜, 1臺에 損傷.</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26,726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839名の 增加.</p>
	<p>○ B29 爆擊機隊 宣川 共產軍 捕給品集積所 및 沙里院南方 銀波里 通信施設을 爆擊.</p>		政 治
11月20日	<p>○ 內務部發表一各道警察隊 共匪討伐戰果(10月~11月15日間) 重要被襲事件 9回 射殺 186名, 生捕 75名, 歸順 45名, 我側 被害 戰死 33名, 負傷 18名, 拉致 1名.</p>	11月20日	<p>○ 「맨덴버어그」美空軍參謀總長, 서울 到着, UN空軍은 萬若, 華府에서 命命한다면 滿州를 攻擊할 用意가 있다고 記者會見에서 說明.</p>
	政 治	軍 事	
11月19日	軍 事		
	<p>○ UN軍部隊 狙擊綫地區에서 連續 加하여온 中共軍小部隊의 一聯의 探索攻擊을 擊退.</p>		<p>○ 中共軍 1個中隊兵力으로 小指形綫 「룩키·포인트」를 夜間攻擊.</p>
11月19日	<p>○ 中共軍 小指形綫 「룩키·포인트」高地를 攻擊.</p>		<p>○ 國軍部隊 狙擊綫 「핀·포인트」高地에 대한 中共軍 1個大隊의 夜間攻擊을 白兵戰끝에 擊退.</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 空中戰에서 共產軍 MIG 15젯트機 5臺 擊墜 2臺 擊破.</p>
			<p>○ B29爆擊機隊 軍隅里東方 5哩地點 共產軍 補給中心地 및 宣川西方 鑛石加工工場을 爆擊.</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펜넨버어그」美空軍參謀總長 2日間에 戰線視察을 끝마치고 離韓.</p> <p>○ 李大統領 釜山近海 發泊中인 美第7艦隊旗艦을 訪問코 同艦隊司令官 「크라크」中將 및 美極東艦隊司令官 「브리스코」中將에게 銀星太極武功勳章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해리슨」 UN軍側首席代表 連絡將校會議을 通하여 南日共產軍側首席代表에 電翰을 傳達하고 捕虜에 대한 個人小包 交換問題에 回答을 促求.</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本會議, 李甲成氏에 대한 國務總理認准을 在席 173名中 可 76票 否 94票 無効 3票보 否決.</p> <p>○ 北京放送—10月 18日부터 11月 11日까지 사이에 美軍機 延 250臺가 安東을 包含한 遼東半島 上空을 侵犯.</p> <p>○ 「이돈」英外相 UN政治委員會에서 捕虜問題에 關한 印度提案은 適時的이고 建設的인 措置라고 支持演說하고 中立國委員會案에 關하여 若干의 修正을 示唆.</p> <p>○ 「프」大統領, 記者會見談, 捕虜問題에 關하여 「아」元帥와의 意見一致를 言明하고 美外交政策에 統一性이 있음을 強調.</p>		<p>센」高地南側 傾斜面의 UN軍陣地를 夜間에 擊退.</p> <p>○ B29爆擊機隊 熙川南方 鐵橋와 元山南方 補給 및 兵力集結所를 爆擊.</p> <p>○ B26輕爆擊機隊 東海岸 北靑補給中心地를 攻擊.</p> <p>○ 美F86세이버·젯트機隊 西北韓上空에서 MIG젯트機 1臺 擊墜.</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夫妻 國防長官, 孫海軍總參謀長을 帶同하고 美軍艦 「미소리」號로 「클라아크」 및 「브리스코」美海軍中將을 訪問.</p> <p>○ 印度 「네에루」首相, 韓國捕虜問題에 대한 印度案에 關하여 議會서 演說— 印度提案은 同問題를 解決할 方向을 示唆.</p> <p>○ UN政治委員會—「스펜더」派代表, 印度案의 優先的 討論를 提案.</p> <p>○ 捕虜問題에 關한 美國案을 支持하는 21個國代表 印度案에 대한 態度를 決定키 爲하여 會合.</p>
11月2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에서 中共軍 2次에 걸쳐 小規模 探索攻擊.</p> <p>○ 中共軍小部隊 狙擊綫 「핀·포인트」高地와 三角高地北方 「제인·랏</p>	11月2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部隊 狙擊綫東方 「룩키·포인트」高地에 대한 中共軍小部隊의 2次에 걸친 攻擊을 擊退.</p> <p>○ UN軍 2個 偵察隊 金化, 金城間 道路에서 敵과 交戰.</p> <p>○ UN軍 攻擊部隊 板門店東方 共產軍 高地陣地를 早朝에 攻擊.</p> <p>○ B29爆擊機隊 平壤 및 海州地區 共產軍 補給地域을 爆擊.</p> <p>○ F86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에서</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共産軍 MIG15젯트機 1臺를 擊墜하고 다른 1臺를 未確認 擊墜.</p> <p>○ 國軍 第12 및 第15師團 創設記念式 李大統領 및 「벤」司令官夫妻 參席裡에 東海岸 基地에서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會 政府間 連席會議을 開催하여 共匪討伐 및 後方治安 確立대책을 討議.</p> <p>○ 北京放送, 捕虜問題에 대한 印度提案인 中立國에 依한 監視案은 歡迎하는 한편 UN總會에 있어서의 同案의 討議에 中共 및 北韓의 參加를 主張.</p> <p>○ 「바이카스」比律賓參謀次長, 比國防軍은 國會가 軍事費만 支出하여 준다면 韓國에 戰鬪部隊를 追加 派韓할것이라고 言明.</p> <p>○ UN政委, 捕虜問題에 關한 印度案을 둘러싸고 美, 英間 意見不一致, 「그로스」美代表 紐育滯在中の 「이든」英外相과 「이로드」同國防相을 訪問하고 美國은 自意送還을 保證하는 確實한 修正이 없는限 印度案을 受諾하지 않으리라고 通告.</p> <p>○ 「벤넨버거」美空軍參謀總長 約 1個月間의 世界旅行을 마치고 歸國, 新型 F86세이버·젯트機는 韓國에서 蘇製 MIG機를 10臺中 1臺의 比率로 擊墜했다고 談話.</p>		<p>속上空에서 共産軍 MIG15젯트機 1臺를 擊墜.</p> <p>○ B26爆擊機擊 北韓 補給道路上에서 夜間에 敵貨物自動車 200臺를 破壞.</p> <p>○ 李大統領 「벤」司令官과 同伴 東海岸 韓國空軍基地를 視察.</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印度代表 捕虜問題에 關한 自國案을 修正—① 送還委員會는 送還不願捕虜의 確實한 釋放期日을 政治會議에 通告. ② 萬一 送還委員會가 送還不願捕虜에 대한 措置를 60日內로 決定치 못할 境遇에는 UN으로 移管.</p> <p>○ UN蘇代表部 韓國戰爭의 即時中止와 11個國委員會에 의한 捕虜問題 解決을 거듭 主張.</p> <p>○ 捕虜問題에 關한 美案을 支持하는 21個國代表 印度修正案 檢討次 會合 「애」美國務長官도 이에 參席.</p> <p>○ 美國務省 「自由鍾을 울려라」는 팜프렛에서 蘇聯國의 總兵力은 491個師團이라고 發表—歐洲에 蘇軍129個 師 및 衛星軍 60個師, 蘇中央部에 17個師, 極東蘇軍 35個師, 中共軍 250個師團.</p>
11月23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共軍部隊 狙擊綫 「권·포인트」高地를 夜間에 攻擊.</p> <p>○ UN軍 F84세이버·젯트機 鴨綠江南</p>	11月2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東部戰線, 杆城地區 및 漣川 西方에서 小規模 交戰.</p> <p>○ UN軍部隊 狙擊綫 UN軍陣地에 대한 中共軍 400名의 早朝攻擊을 擊退.</p> <p>○ 中部戰線 「작슨」高地에서 전투계속.</p> <p>○ B 26 輕爆擊機隊, 平壤, 陽德, 元山 間道路에서 夜間에 補給車輛 80臺를 破壞하고 成川近傍 橋梁 2個處 爆擊.</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p>○ B29 爆撃機隊 清川江河口 嶺美洞 共産軍 交通中心地를 爆撃.</p> <p>政 治</p> <p>○ 「크라크」 UN軍司令官 및 駐日 英佛 大使 等 「아」 次期 美大統領 歡迎 準備次 서술到着.</p> <p>○ UN政治委員會에서 印度妥協案을 圍繞코 美, 蘇間 完全 대립. 美國務長官 印度案을 支持하고 ① 爆力使用 禁止 ② 實際의 措置의 講究 ③ 釋放遲延防止에 3 基準을 發表, 蘇 外相 印度案은 美國案과 大同小異라고 反對하고 蘇修正案의 採擇을 強調.</p>		<p>軍 增強 要求 「멧세저」를 發送할것을 決定.</p> <p>○ 新任 駐韓美國大使 「에릭스·오·부릭스」氏, 李大統領에게 信任狀 奉呈.</p> <p>○ 「캐이시」 蘇外相, 韓國捕虜問題에 關한 印度決議案에 대한 蘇聯의 반대는 同問題解決을 위하여 盡力하여 온 亞洲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 失望을 주었다고 言明.</p> <p>○ UN 政治委員會에서 蘇聯, 「책코」兩代表 捕虜問題에 關한 印度案을 優先的으로 討議하자는 「이란」 代表의 動議를 반대.</p>
11月25日	<p>軍 事</p>	11月26日	<p>軍 事</p>
	<p>○ 東部戰線 및 鐵原北方 白馬高地 近方에서 小規模 接戰.</p> <p>○ UN 軍部隊 鐵原北方 「객슨」 高地에서 中共軍을 擊退하고 前哨陣地를 確保.</p> <p>○ 西部戰線의 瀛洲軍과 英國 「퓨지리에」 聯隊 勇士들 共産軍陣地에 突擊을 敢行하여 敵에게 莫大한 損失을 加한後 原陣地에 復歸.</p> <p>○ B29 輕爆撃機隊 夜間爆撃에서 敵 補給車輛 155臺를 破壞.</p> <p>○ 「마아카스」 美第5空軍司令官 共産軍은 前線地區에 대한 補給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必死的인 努力을 다하고 있다고 言明.</p> <p>○ 巨濟島捕虜收容所, 共産軍捕虜 騷擾로 捕虜 3名 負傷.</p>		<p>○ 全戰線 小康狀態.</p> <p>○ 鐵原東北쪽 「작슨」 高地 南側 傾斜面의 UN軍 陣地에 대한 中共軍의 攻擊을 早朝에 擊退.</p> <p>○ UN軍 F 80, F 84 및 海兵隊機를 包含한 約 140臺의 戰爆撃機隊 元山 南쪽 三巨里 共産軍補給 및 兵力集結所를 猛爆.</p> <p>○ B29 爆撃機隊, 平壤鐵橋 및 海州近方 敵補給地域을 爆撃.</p> <p>○ 美海軍 當局 發表一美驅逐艦 「한나」 號는 韓國 東海岸에서 共産軍 海岸砲의 砲撃을 받아 兵員 1名 戰死.</p> <p>○ 美國防省發表一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26,997名 昨週發表에 比하여 271名 增加.</p>
	<p>政 治</p> <p>○ 國會本會議-「아」 元帥에 陸, 海, 空</p>		<p>政 治</p> <p>○ 國會本會議-戰沒軍營遺族과 傷殘軍營年金法에 依한 年金額을 60萬圓으</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1월 27日	<p>로 하자는 政府案에 同意.</p> <p>○ UN政治委員會 蘇聯의 반대를 무릅쓰고 印度案의 優先討議로 49대5 棄權 1票로 可決. 蘇聯代表 이를 거듭 반대코 同案에 대한 修正案을 提出.</p> <p>○ UN 印度代表 自國案을 再修正一休戰後 150日間에 捕虜取扱方法이 未決 일대는 UN이 國際法에 따라 捕虜措置에 關한 責任을 擔當.</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狙擊綫에서 國軍部隊 3次에 걸쳐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p> <p>○ UN軍 攻擊部隊 板門店 및 漣川近方 2個 中共軍 陣地를 攻擊하여 小數의 敵과 交戰.</p> <p>○ B29 爆擊機隊 平壤近方 鐵道施設 및 海州補給中心地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公報處長, 現在 서울에는 「아」元帥의 韓訪을 報道하기 爲하여 적어도 500名의 國內外 新聞記者가 모여 있다고 言明.</p> <p>○ 北京放送, 「아」美 次期大統領의 訪韓은 韓國戰爭을 擴大 시키려는 것이라고 非難.</p> <p>○ UN 政治委員會, 加·佛·濠等 11個 國代表 印度案을 支持發言.</p> <p>○ UN 美代表部 代辦人, 美國은 印度 修正案을 支持한다고 言明.</p>	11월 29日	<p>地와 修理工場을 夜間猛爆.</p> <p>○ 李大統領 「벤」司令官을 同伴 國軍首都師團을 視察하고 部隊表彰狀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政治委員會, 「에논」 印度代表의 希望으로 印度案表決 來月 1日까지 延期할 것을 決定.</p> <p>○ 「아」元帥 「판더트」 UN印度代表를 招請코 會談 「판더트」代表 會談內容에 關해서는 言及을 回避.</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 軍部隊 狙擊綫 「핀·포인트」 高地에 대한 中共軍의 攻擊을 早朝에 擊退.</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比律賓慰問團一行 韓國戰線 參加 比將兵 慰問次 來韓.</p> <p>○ 印度外務省 代辦人 印度政府는 韓國問題에 關한 印度妥協案에 대한 中共의 不同意가 最後의 拒否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言明.</p> <p>○ 「네에루」印度首相은 周 中共首相에 대하여 韓國問題에 關한 印度決議案의 修正案을 受諾할 것을 要請.</p> <p>○ 「부리지스」美上院議員, 「아메리칸·머어큐리」誌에서 「아시아」 共產勢力의 打倒만이 韓國平和의 唯一한 길이 라고 指摘.</p>
11월 2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大體로 接敵 輕微.</p> <p>○ B29 爆擊機隊 49臺 義州·新義州地區 共產軍飛行場 2個處 및 補給交通中心</p>	11월 30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砲兵隊와 空軍, 高城近方에서 共產軍을 捕捉하여 108名을 射殺.</p> <p>○ 中共軍 狙擊綫 「핀·포인트」 高地</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에 대하여 大砲의 迫擊砲火를 注入.</p> <p>○ 狙擊綫, 板門店 西南方, 北漢江 流域 및 東部戰線에서 各各 兵力 2個分隊 以下의 敵探索隊를 擊退.</p> <p>○ UN軍 航空機隊 930回 出擊코 高原 沙里院 海州等地의 共產軍補給 및 交通施設을 多數破壞.</p> <p>○ B29 爆擊機隊 元山 南方 「하화산리」 共產軍 補給地域을 爆擊.</p> <p>○ 戰線視察中인 「맥마혼」 濠海空相 UN軍은 如何한 中共軍의 新攻勢도 粉碎할 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記者團에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連絡將校 지난 26日 UN軍 航空機가 北韓捕虜收容所를 爆擊하였다는 抗議文을 UN軍側에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永登浦의 伊太利 赤十字病院 原因不明의 火災로 全燒</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狙擊綫上의 UN軍陣地에 對한 共產軍의 3回의 攻擊을 擊退.</p> <p>○李大統領 「벤」將軍과 더불어 佛蘭西 大隊를 訪問하고 大統領 部隊表彰狀을 授與.</p> <p>○李大統領 國軍第1師團의 創立五週年 記念式典에 參席하고 5名의 兵士에게 武力勳章을 授與.</p> <p>○ UN空軍 슈팅스타·젯트機隊, 西部戰線에서 敵의 補給物糞集積所를 猛擊.</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首席連絡將校, UN軍 連絡將校에게 雷翰을 手交코 지난 11月 26日 UN軍飛行機가 順川 第9捕虜收容所를 爆擊하였다고 抗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韓國代表 林炳稷氏, 日本軍의 韓國戰線投入說에 關하여 強力反對를 表明.</p> <p>○ 梁駐美韓國大使 「트」大統領을 訪問 — 「트」大統領 韓國軍增強과 援助를 계속할 것을 約束.</p> <p>○ 崔用德 空軍少將 空軍參謀總長에 就任, 金貞烈 前參謀總長은 空軍士官學校長으로 轉任.</p> <p>○ 佛蘭西 國務次官 在韓佛軍視察次 多數의 隨行員을 帶同하고 釜山到着.</p> <p>○ UN軍代表 林炳稷氏, 日本軍의 韓國戰線投入說에 關하여 強力 反對를 表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목기」高地에 對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共產軍 中部戰線에서 國軍陣地에 猛擊을 加하여 彼我砲兵隊間에 一大砲擊 展開.</p> <p>○ B29爆擊機隊 平壤近處飛行場을 夜間 攻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政治委員會 韓國에서의 即時 停戰과 捕虜強送을 要求하는 蘇聯決議案(原案)을 41對 5로 否決.</p> <p>○ 「아」元帥 次期國防長官 「월손」氏 次期司法長官 「부라우넬」氏 合同參謀議</p>	
<p>12月 1日</p>		<p>12月 2日</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月 3日	<p>長「부랏트리」將軍「부포오드」美太平洋司令官을 帶同코 下午 8時 金浦飛行場到着.</p>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 中部戰線의 「핀·포인트」高地를 奪還. ○ 세이버·갯트機隊 西北韓 上空에서 MIG갯트機 2臺를 擊墜. ○ B29爆擊機隊 順天에 있는 共產軍司令部와 補給所를 爆擊. ○ 英聯邦 第1師團 第29英旅團長에 「D. A 켈트류」准將이 就任. ○ B29輕爆擊機 陽德의 共產軍補給要衝地帶와 元山附近의 共產軍集結所를 猛打.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總會 捕虜問題에 關한 印交決議案을 54對 5로 可決, 蘇聯修正案 다 시 否決. ○ 前極東司令部 美國參謀部代表「부우처」少將 倫敦에서 言明——韓國休戰問題에 있어서는 蘇聯과의 最後의 對決이 必要. 	12月 5日	<p>게 共產軍捕虜收容所 1個所 新設을 通告.</p>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元帥, 李大統領과 國軍首都師團을 訪問코 示範戰鬪를 參觀.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軍部隊「핀·포인트」高地에 來襲한 中共軍을 擊退. ○ 中西部戰線에서 UN軍 7次에 걸친 共產軍의 探索을 阻止. ○ B29爆擊機隊 元山近方補給網에 對하여 夜間爆擊을 敢行. ○ 敵機 1臺 서울 夜間空襲을 企圖하여 來襲하였으나 UN軍高射砲部隊에 依하여 擊退. ○ 英第1戰車聯隊 韓國 到着. <p>政 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元帥 3日間の 韓國訪問을 마치고 歸國에 앞서 聲明을 發表——中共本土에 對한 戰爭擴大를 避하며 韓國事態 改善에 努力, 韓國軍의 增設 및 經濟援助를 계속. ○ 「맥아더」元帥, 自己는 韓國戰亂의 決定的 解決策을 가지고 있으며 要請에 따라서는 關係當局者에 提示할 것을 考慮中이라고 言明. ○ 崔空軍參謀總長, 空軍增強 問題로 「아」元帥와 會談.
12月 4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 狙擊線上的 喪失하였던 全陣地를 完全히 再奪還. ○ B29爆擊隊 金化·鐵原의 共產軍 陣地를 猛打. ○ UN軍司令部發表——巨濟島에 收容中인 共產捕虜 衣類日光消毒拒否로 10名이 輕傷. <p>休戰會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軍側 休戰代表, 敵側連絡將校에 	12月 6日	<p>軍 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軍, 狙擊線에 對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 ○ UN空軍機, 北韓에 985回 出擊하여 共產軍 補給 및 兵力集結所를 粉碎.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月 7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웨이윈드」美極東空軍司令官 「아」元帥의 3日間 滯韓中 13臺以上の UN空軍機가 護衛 또는 警戒任務를 完遂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極東空軍司令部, 「아」元帥 來韓中の UN軍輸送機 飛行禁止令을 解除하였다고 發表.</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MIG15젯트機 7臺를 擊墜.</p> <p>○ 李大統領, 景武臺官邸에서 前 美第 25師團 第27聯隊長이었고 現在 第 8軍司令官 特別補佐官인 「늘단·B·에드워드」大領에게 金星乙支武功勳章을 授與.</p> <p>○ UN軍捕虜收容所當局, 巨濟島收容所에서 共產主義者의 煽動으로 捕虜들이 暴動을 惹起시키려는 것을 鎮壓하고 逃走하려는 捕虜 1名을 射殺 1名이 負傷당하였다고 發表.</p>	12月 9日	<p>○ 巨濟島收容所의 捕虜들 密議다가 1名 被殺, 1名 負傷.</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南日首席代表 지난 4日發生한 巨濟島收容所에서의 共產捕虜의 負傷事件에 關하여 抗議書를 UN軍側에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李大統領, C. A. C司令官 「위리암·E·오리스트」准將에게 武功勳章을 授與.</p> <p>○ 韓國視察을 마친 某英國權威側——英政府는 韓半島腰部까지의 北進을 反對하지 않으리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我軍部隊 夜間에 9회에 걸쳐 狙擊 綫에 來襲한 共產軍을 擊退.</p> <p>○ 日本海의 UN軍機動艦隊로부터 出擊한 UN軍海軍 航空隊 羅津에 鐵道操車場, 會亭, 東北韓의 中共國境에 沿한 重要鐵道終點 2個所에 352回 出擊하여 爆擊.</p> <p>○ 全北警察局 7月 28日부터 12月 6日까지 100日間에 걸쳐 340회에 共匪討伐戰果를 發表——射殺 310名, 生捕 53名, 武器多數鹵獲.</p>
12月 8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狙擊綫에 對한 再次에 걸친 中共軍의 探索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北韓內의 各公路를 強襲.</p> <p>○ B29爆擊機隊 大舉出擊하여 平壤近方 「영종리」에 있는 北韓傀儡軍參謀士官 學校를 爆破.</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MIG 15機 1臺를 擊墜.</p> <p>○ UN空軍 戰爆機隊 北韓 各處의 共產軍輸送網 猛攻.</p>	12月 10日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아」元帥, 新聞秘書——「아」元帥는 「맥아더」元帥에 對하여 韓國戰爭 解決策에 關한 說明을 要求하는 電文을 發送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第5空軍發表——英國飛行士 「그라함</p>

일 일	주 요 사 항	일 일	주 요 사 항
12月11日	<p>· F·할스」中尉, 韓滿國境에서 MIG 機 1臺를 擊墜하고 다른 1臺를 擊破.</p> <p>○ 陸軍 第3887部隊 最前線에서 部隊創設 4週年記念式을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脫走를 企圖한 捕虜 1名이 被殺, 1名이 負傷당한 事件에 關한 抗議覺書를 UN軍側에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트」大統領 聲明을 發表——韓國戰爭解決策을 가진 사람은 何人을 莫論하고 이를 大統領에게 報告하라고.</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共產軍 約 3,000名 國軍이 掌握하고 있는 鐵原 西쪽 大「노리」高地에 攻擊開始.</p> <p>○ 我軍部隊 漣川 西北쪽에 夜間投攻한 敵과 4時間 奮鬪하여 完全히 擊退.</p> <p>○ B29爆擊機隊 北韓內 4個目標에 120 屯의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朴社會部長官, 美海兵第1師團長 「크레이튼·C·저름」將軍과 同海兵隊內 關係者 3名에게 孤兒院設置를 感謝하는 感謝狀을 授與.</p> <p>○ 「트」大統領 記者會見談——「딱아더」元帥의 韓國戰亂 解決策 保有說을 믿지 않는다고.</p> <p>○ 白總參謀長, 「아」元帥 來韓時 國軍 增強問題에 關한 長文의 建議書를 手交하였다고 發表.</p>	12月13日	<p>大한 損害를 주고 撤收.</p> <p>○ 國軍 午後 늦게 共產軍의 猛砲火를 무릅쓰고 大·小「노리」高地를 奪還하였으나 2時間後에 다시 喪失.</p> <p>○ 12日중 小「노리」高地 奪還戰을 9 回 展開.</p> <p>○ 「벤」將軍, 共產軍의 冬季攻勢에 充分한 對備를 하고 있다고 言明.</p> <p>○ 「벤」將軍, 韓國軍新編 2個師團이 不遠戰鬪에 參加하리라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헌트」美上院議員 및 「윌키삼」下院議員, 「백」元帥의 韓國戰爭解決策 聽取를 위하여 軍事委員會開催를 提唱.</p> <p>○ 英國極東司令官 「W·부리치 포프트」中將 李大統領體訪.</p> <p>○ 北京放送, B29爆擊機가 지난3일 滿州安東市를 爆擊하였다고 非難.</p> <p>○ 美 「뉴베드포드·스탠다아드·타임스」紙 10月 24日附 「아」元帥 書翰을 公表——共產側 捕虜收容所에 美軍捕虜가 殘留하는 限은 韓國으로부터 撤收치 않을 예정.</p>
12月1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大·小「노리」高地에서 敵에 甚</p>	12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10回에 攻擊으로 小「노리」高地를 完全 奪還하고 大「노리」高地를 攻擊.</p> <p>○ B29機 14臺 鴨綠江 沿岸의 共產軍輸送基地 義州를 爆擊.</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國際赤十字執行委員會 捕虜問題에 關한 政府決議案을 15對 2로 承認.</p>
12月12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大·小「노리」高地에서 敵에 甚</p>	12月14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p>○ 國軍 小「노리」高地와 「핀·포인트」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 大·小「노리」高지를 確保.</p> <p>○ 美海兵隊所屬爆擊機, 鐵道 터널에 隱匿한 敵의 補給 トラック을 攻擊.</p> <p>○ B29重爆擊機隊, 鴨綠江 바로 南쪽에 共産軍交通中心地를 夜間 攻擊.</p> <p>○ UN軍捕虜收容所當局, 巨濟島에서 去 10日(2件)과 11日(1件)에 3件이 發生하여 傀儡軍 捕虜 1名 射殺, 6名 負傷, 美軍兵士 1名 輕傷을 發表.</p> <p>○ 英國 第45龍騎部隊, 中東地方을 向하여 離韓.</p> <p>○ 美 第8軍司令部, 南韓으로 脫走한 傀儡軍人 3名의 家族을 지난 2日 共産軍이 處刑하였다고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産軍側代表, UN軍機가 13日 共産側休戰代表에 對한 共産側 補給自動車를 攻擊하였다고 UN軍側 休戰代表에 게 抗議.</p> <p>○ UN軍側首席代表 「해리슨」少將, 傷病 捕虜를 即時 交換하라는 見解를 表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本士에 到着한 「아」次期 美大統領 韓國觀察에 關한 聲明을 發表——① 韓國問題解決을 確信 ② 韓國軍은 그 能力, 勇氣 兩面에 있어 우수하며 訓練을 계속 擴大시킬 豫定 ③ 補給問題에 있어서는 改善이 必要.</p> <p>○ 周恩來 中共外相, UN總會議長 「피어슨」氏에 對하여 總會에서 決議된</p>	<p style="text-align: center;">12月15日</p>	<p>捕虜送還에 關한 印度案을 拒否한다고 正式으로 通告.</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國軍, 14日 深夜부터 展開된 「핀·포인트」, 「특키」, 三角高地에 對한 中共軍의 攻擊을 擊退</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滿洲境界線 直南方 空中戰에서 MIG 15機 1台를 擊墜하고 8台를 擊破</p> <p>○ UN軍捕虜收容所 司令部發表—蜂岩島에 收容中인 民間人 抑留者가 14日을 最後로 明日부터 支拂停止</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大統領選舉人團 442對 89票로 「아」元帥를 次期大統領으로 選出</p> <p>○ 國際赤十字 委員會—UN軍當局的 捕虜取扱이 「제네바」協定에 違反된 點이 있다고 抗議 持히 去4月 巨濟島收容所에서의 暴動鎮壓時 共産捕虜가 射殺된 事實을 指摘</p>
	<p style="text-align: center;">12月16日</p>	<p style="text-align: center;">12月16日</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155哩의 全戰線에 걸쳐 探索戰鬪 國軍 狙擊稜線상의 「핀·포인트」高地에 對한 共産軍의 攻擊을 全部 擊退</p> <p>○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 水豐貯水池近方에서의 空中戰에서 MIG 15젯트機 1台를 擊墜하고 1台를 未確認 擊墜</p> <p>○ UN空軍 淸川江 以北에서 180餘의 敵機와 6回接戰하여 4台를 擊墜</p> <p>○ 美 第8軍當局 「아」元帥의 大統領 就任式에 親衛隊로서 參加할 在韓美軍 100名을 選拔中이라고 發表</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월 17일	<p>休戰會談</p> <p>○ 共産軍側 連絡將校 蜂岩島 捕虜事件에 關한 南日의 抗議書를 板門店에서 UN軍側에 手交</p> <p>政 治</p> <p>○ 極東視察을 마친 「더그라스」美聯邦 大審院 判事, 「록크」紙에 寄稿, 中共이 韓國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拒否하던 全面戰爭을 開始함이 可</p>	12월 18일	<p>表彰狀 수여, 「벤」將軍 威少將에게 「트」 大統領의 美國最高勳章 수여.</p> <p>○ 中國防長官 韓國軍大幅增強은 既定方針에 따라 效果的으로 進行되고 있다고 記者會見談.</p> <p>○ 美國上院外交委員인 「럭키 투우러」 議員一行 15명 韓國視察次 金浦空港에 到着.</p> <p>軍 事</p>
12월 17일	<p>軍 事</p> <p>○ 全戰線에 걸쳐 小規模의 攻擊과 探索攻擊 戰線大體로 平穩</p> <p>○ B29폭격기대 安州 北쪽의 共産軍將校訓練所에 百噸의 爆彈을 投下.</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鳴綠江 附近에서 MIG機 1台擊墜, 4台擊破.</p> <p>○ UN軍捕虜收容所當局, 蜂岩島捕虜事件으로 因하여 87名이 死亡하였다고 追加發表.</p>	12월 19일	<p>○ 全戰線 地上戰鬪 輕微.</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MIG機 1台를 擊墜하고 1台를 擊破.</p> <p>○ 第5空軍 및 美海兵隊 所屬戰爆機隊 西部 및 中部戰線에 掩護出擊.</p> <p>休戰會談</p> <p>○ UN軍側, 共産軍側 中立地帶侵犯抗議에 對하여 그 事實을 認正하고 偶發的인 事實이라고 說明하는 回翰을 共産側 首席連絡將校에게 手交.</p> <p>軍 事</p>
12월 17일	<p>休戰會談</p> <p>○ 南日 共産軍側 首席代表, UN軍이 蜂岩島收容共産軍 捕虜를 大量虐殺하였으며 이는 韓國戰爭의 遲延擴大를 試圖하는 것이라고 非難하는 覺書를 UN軍側首席代表 「해리슨」 中將에게 發送.</p> <p>○ 共産軍側 UN軍機가 休戰會談場所 上空을 侵犯하였다는 抗議書를 UN軍側에 手交.</p> <p>政 治</p>	12월 20일	<p>○ 地上戰鬪은 大體로 平穩.</p> <p>○ UN空軍 爆擊機隊 共産軍補給 트럭 部隊에 대하여 1週日內 最大의 爆擊을 敢行.</p> <p>休戰會談</p> <p>○ 美軍 郵遞將校와 共産軍治安將校間에서 捕虜에게 보내는 郵便物을 交換.</p> <p>軍 事</p>
12월 17일	<p>○ 李大統領夫妻 「벤」將軍 더불어 濟州島陸軍訓練所와 珍島를 視察한후 光州 步兵學校를 視察 威炳善少將에게 功勞</p>	12월 20일	<p>○ 地上戰鬪 共産軍의 경미한 探索攻擊이 있었을 뿐 小康狀態 계속.</p> <p>○ B29爆擊機隊 安州 東北方 65哩地點에 있는 「운흥리」의 共産軍補給基地를 爆擊하여 補給建物 60棟과 巨大한</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月21日	<p>補給品集積所 70個所를 燒燬함.</p> <p>○ 在韓 UN管理 捕虜收容所司令官 「도 오마스·M·해런」少將 捕虜管轄에 關한 全責任을 韓國政府에게 移讓하는 計劃이 進行中에 있다는 國內 一部新聞報道를 否認하는 聲明書를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韓國戰線에서 戰死한 28位의 泰國兵士 慰靈祭를 釜山 火葬場에서 舉行.</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UN軍 不毛高地에 對한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國軍 狙擊兵綫上의 岩石峰에 對한 4回의 共產軍 攻擊을 擊退.</p> <p>○ B29爆擊機隊 新安州 東南쪽 8哩地點의 「남상계」 補給所와 東部戰線의 一個地點에 對하여 夜間爆擊.</p> <p>○ 「크라크」 UN軍司令官 國際赤十字 委員會가 UN軍이 「제네바」協定에 違反하고 있다고 非難한데 對한 反駁聲明을 發表하여 收容所內의 捕虜의 暴動과 反對에 對하여 이를 默認치 않고 適當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言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西班牙新聞報道—「프랑코」大統領은 記者會見席上에서 西班牙義勇軍의 派韓에 對하여 贊意를 表明.</p> <p>○ 平壤放送—北韓傀儡外相 朴憲永은 蜂岩捕虜收容所에서 美軍이 共產捕虜 82名을 殺害하였다고 「피어슨」 UN總會議長에 通告.</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UN軍에 依하여 擊退된 共</p>	12月23日	<p>產軍의 4個探索攻擊이 있었을뿐 宣傳戰만이 계속.</p> <p>○ F86 세이버·젯트機隊 北韓上空에서 MIG 15機 3台를 擊墜.</p> <p>○ 「크라크」 UN軍司令官 蜂岩島 捕虜收容所事件은 共產捕虜指導者들의 用意周到한 계획에 依하여 惹起된 것 이라는 聲明을 發表.</p> <p>○ 英國第20砲兵聯隊 釜山에 到着.</p> <p>○ 國軍假裝한 武裝共匪 下後 8時에 東海南部線 機張驛을 襲擊하여 驛建物 全燒 死傷者 8名.</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UNKRA 6.25動亂以來 25個救護團體에 對韓救護事業을 認可하였다고 發表.</p> <p>○ 美國務省—UN軍司令部는 捕虜待遇에 關하여 「제네바」協定을 尊重하였다는 「크라크」 UN軍司令官의 聲明을 公表.</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平穩.</p> <p>○ UN軍戰鬪爆擊機隊 平壤近方의 敵飛行場 1個所와 西北韓에 있는 共產軍 豫備兵力集結地區를 爆擊.</p> <p>○ B29爆擊機隊 元山地區 補給集結地를 夜間 爆擊.</p> <p>○ 李大領令 美 第4戰鬪飛行團에 部隊表彰狀을 授與.</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UN軍司令部 22日 UN軍航空機가 板門店上空을 通過하였음을 認定하는 電翰을 共產軍側에 傳達.</p>
12月22日	<p>○ 地上戰鬪 UN軍에 依하여 擊退된 共</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月24日	<p>○ 共産軍側 지난 19日에 UN軍이 中立地帶를 砲擊하였다고 抗議.</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美國防省消息通「아」次期大統領은 韓國軍事補給問題를 해결하기 爲하여 兵器彈藥豫算을 倍加할 可能性이 있다고 談話.</p> <p>○ 英政府 停年에 達한 「브리커포드」在韓英聯邦軍 司令官後任으로 現在 濠洲南方軍司令官인 「웰즈」中將을 任命.</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西部戰線 T型高地 下端 UN軍 前哨陣地에 對한 中共軍 1個大隊의 攻擊을 拂曉에 擊退.</p> <p>○ 聖誕前夜의 前線平穩 敵 마이크를 通하여 크리스마스 休暇와 贈物을 UN軍에게 傳達하기 爲하여 發砲를 中止하겠다고 宣傳.</p> <p>○ 세이버·젯트機隊 北韓 各地 上空에서 約 70台의 MIG機와 交戰하여 2臺를 擊墜하고 未確認 9臺를 擊破.</p> <p>○ 「벤」將軍 偉대한 이나라에 平和가 찾아 오기를 祈願한다는 聖誕節 메시지를 發表.</p> <p>○ 美國防省發表 韓國戰線 美軍犧牲者 總數 128,083名.</p> <p>○ 巨濟島捕虜收容所에서 不法夜間集會에 對한 解散命令 不服從으로 捕虜 1名被殺.</p>	12月26日	<p>北韓共産軍 2個 中隊의 攻擊을 未明에 擊退.</p> <p>○ 共産軍 MIG 15젯트機 41臺 서울에 接近하였으나 세이버·젯트機隊의 邀擊으로 滿洲 安全地帶로 遁走.</p> <p>○ 美 세이버·젯트機隊 鴨綠江 上空空 中戰에서 MIG15機 1臺를 擊墜하고 1臺를 擊破.</p> <p>○ 美國防省 韓國動亂 勃發以來의 美軍 損害를 發表一戰死 20,172名, 負傷 94,936名, 捕虜 또는 行方不明 12,975名.</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線 平穩.</p> <p>○ B29爆撃機隊 新安州 北方 20哩의 定州를 夜間 爆擊.</p> <p>○ B26輕爆撃機隊 北韓道路上에서 夜間에 戰線으로 向하여 南下하는 共産軍 車輛 130臺를 擊破.</p> <p>○ 巨濟島捕虜收容所에서 警備兵의 指示에 不應反抗한 捕虜 1名이 被殺.</p>
12月25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全戰線 平穩.</p> <p>○ 東部戰線 1個 UN軍前哨陣地에 對한</p>	12月27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 平穩.</p> <p>○ 韓國基地를 離陸한 希臘軍輸送機 墜落, 乘務員塔乘者 全員 14名 死亡.</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陳內務長官, 共匪掃蕩에 萬全을 期하기 爲하여 獨立警察隊를 編成하겠다고 言明.</p> <p>○ 美國務省 發表一駐韓美軍의 交代對策으로 明年2月 壯丁 5萬3千명을 召集할 豫定.</p>

월 일	주 요 사 항	월 일	주 요 사 항
12月28日	<p>○ 蘇聯軍機關紙「赤星」北韓傀儡軍의 防衛線은 近代戰術導入으로 말미암아 堅固不拔한 것이 되었다고 誇示.</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美空軍 200台 平壤地區 共產軍 集結所를 猛爆.</p> <p>○ UN軍 F86 세이버젯트機隊. 平壤西南方 上空에서 敵 MIG 젯트機 2台를 擊墜하고 1台를 未確認 擊墜.</p> <p>○ 韓國空軍顧問團長 「찰스·B·윌클」 大領 某 要職에 轉出하고 美58戰爆隊 副司令官이 新任.</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孫元-海軍參謀總長 滿1個月間의 美海軍施設觀察을 아치고 歸國.</p> <p>○ 맥아더元帥 「트」大統領을 非難聲明 一同元帥가 全面的戰鬪를 誘致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UN軍司令官의 地位로부터 解任시켰다는 大統領의 聲明은 民衆을 眩惑시키려는 手段.</p>	12月30日	<p>落코 搭乘員 14名中 10名이 行方不明.</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海軍當局, 年末報告에서 今年間韓國 戰線에서 損失을 發表-艦船 1隻沈沒 戰死 16명, 負傷55명.</p>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地上戰鬪 探索戰과 小衝突이 있었을 辨.</p> <p>○ 美戰艦 「미조리」號 蘇·滿國境에서 60哩以內의 地點까지 出動하여 清津에 艦砲射擊.</p> <p>○ B29爆擊機隊 義州 東南쪽에 있는 鑽石製鍊工場과 新安州 北方 8哩地點에 있는 共產軍 補給中必地에 200噸의 爆彈을 投下.</p> <p style="text-align: center;">休戰會談</p> <p>○ 共產軍側 連絡將校, 中立地帶 侵犯을 抗議하는 舊翰을 UN軍側 連絡將校에 傳達.</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孫海軍參謀長, 美海軍 當局은 韓國 海軍이 要請한 諸要求에 對하여 積極的인 援助의 意思를 表明하였으며 多數의 船舶, 自動車및 造船廠 擴充強化에 對한 援助를 約束하였다고 記者會見에서 言明</p> <p>○ 外務部 香港居住僑胞로부터 傷殘軍人 援護費로 159弗을 奇贈을 發表.</p>
12月29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中部地區 金化地區에서 UN에 對한 宣傳放送에서 來 1月4日 總攻擊을 開始한다고 宣傳.</p> <p>○ 中共軍 三角高地 및 狙擊線에 對하여 一連의 小規模攻擊을 敢行.</p> <p>○ 敵 夜間에 西部戰線과 鐵原西方의 UN軍陣地에 攻擊하였으나 即時 擊退.</p> <p>○ F86爆擊機隊, 平壤近方 共產軍 軍事施設을 夜間爆擊.</p> <p>○ 美極東海軍當局 發表-지난 26日 夜間東 海海上을 哨戒中이던 美海軍 4號機 1台가 高城東方 50哩海上에서 墜</p>	12月31日	<p style="text-align: center;">軍 事</p> <p>○ 戰線大體로 平穩.</p> <p style="text-align: center;">政 治</p> <p>○ 零時를 期하여 全國一齊히 人口調査.</p>

3. 戰歿者名單

〈陸 軍〉

수도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연대	중 령	10845	朴 元 在	52. 6. 25	檜 川, 德 亭	전 사
"	대 위	203179	李 允 奎	4. 8	원 동 성 실	"
"	"	203397	朴 基 宗	9. 15	金 化 임 남	"
"	"	208415	金 榮 浩	"	" 원 동	"
"	"	208871	申 斗 根	12. 26	"	"
"	"	210505	林 宗 淳	10. 15	江 原	"
"	중 위	19146	李 康 漢	10. 14	金 化	"
"	"	19805	李 貴 滿	10. 19	金 城	"
"	"	19812	朴 鴻 基	7. 9	金 化	"
"	"	19878	沈 謙 澤	10. 8	金化 원동 상산동	"
"	"	20800	李 炳 碩	9. 20	金 化	"
"	"	21170	趙 鷹 來	9. 14	金 化 원 동	"
"	"	21173	金 相 沅	9. 18	"	"
"	"	21194	李 鍾 允	9. 14	金 化	"
"	"	21681	南 圭 錫	10. 21	36 陸 軍 병 원	"
"	"	21687	韓 崙 禧	10. 14	金 化 원 동	"
"	"	21788	柳 在 良	9. 10	金 化	"
"	"	22205	權 赫 熙	10. 13	"	"
"	"	22315	都 相 佑	10. 14	金 化 원 동	"
"	"	22456	李 龍 勳	10. 13	"	"
"	"	22470	權 炯 圭	10. 8	"	"
"	"	22472	李 圭 完	9. 29	"	"
"	"	22486	任 東 淇	10. 12	金 化 원 동	"
"	"	22699	李 奎 東	10. 14	金 化	"
"	"	22713	崔 長 福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1연대	중 위	22736	姜 章 浩	52.10. 8	金 化	전 사
"	"	214722	李 文 宰	9.18	金 化 원 남	"
"	"	214729	裴 在 洙	9.11	金 北 임 남	"
"	"	214733	李 正 雨	4.29	3 이 동 의 과	"
"	"	214735	桂 承 善	9. 7	金 化 원 동	"
"	"	214738	張 相 仁	10.10	"	"
"	"	214776	朴 在 出	5.23	"	"
"	"	214752	陣 敎 榮	5.14	金 化	"
"	"	211880	鄭 泰 英	4.15	3 이 동 의 과	"
"	소 위	221636	河 奉 昊	8. 7	金 化	"
"	"	223551	金 聖 鎭	9.18	"	"
제 26연대	소 령	200379	高 錫 龍	8. 7	"	"
"	대 위	201381	洪 起 興	8. 6	"	"
"	"	202292	全 英 煥	8. 7	"	"
"	"	209744	咸 東 植	8.17	金 化 원 동	"
"	중 위	17968	辛 義 明	6.11	金 化 上 里	"
"	"	18249	洪 昌 源	9. 7	首 都 △	"
"	"	18267	任 慶 宰	"	金 化	"
"	"	19390	林 承 漸	8. 6	金 化 松 洞	"
"	"	19793	朴 相 仁	9.18	수 도 육 병	"
"	"	19872	李 潤 根	9.10	金化원동수도고지	"
"	"	20708	黃 慶 一	8. 5	수 도 고 지	"
"	"	20727	呂 邦 鉉	10.26	"	"
"	"	214779	趙 永 衡	9. 8	金 化 원 동	"
기갑연대	소 령	14676	朴 明 景	9. 8	"	"
"	"	18538	金 秀 泰	9.22	"	"
"	"	18580	金 義 文	9.11	"	"
"	"	22249	文 一 權	9.13	執 室	"
"	"	22801	劉 泰 植	10.17	金 化	"
"	"	211990	俞 炳 植	9.18	執 室 北 方	"
"	"	22492	金 聲 鎬	10.14	金 化	"
"	대 위	208594	鄭 祐 容	6.14	"	"
"	중 위	19193	金 仁 明	4.18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6연대	중 위	20228	韓 完 洙	52. 9. 29	金城 원동 송일리	전 사
"	"	20232	朴 光 洙	10. 15	金 城 원 동	"
"	"	11450	金 環 起	9. 8	金 化	"
"	"	11452	李 在 鎬	9. 15	"	"
"	소 위	18195	吳 德 奎	10. 8	"	실 증
"	"	20263	洪 容 善	"	원 동	"
"	"	22152	劉 梁 根	9. 8	2 옥군정 양원	사 망
"	"	223509	崔 石 萬	10. 9	金 化 원 동	전 사
"	"	223600	張 徹 相	9. 9	"	"
"	"	223601	徐 順 達	9. 20	"	"
제 1 포대	중 위	19584	姜 璣 晟	9. 29	"	"

제 1 사단

제11연대	소 령	200616	李 圭 泰	52. 11. 7	연 천 旺 澄	전 사
"	대 위	200622	李 吉 河	5. 13		사 망
"	"	214476	賈 起 鉉	12. 12		전 사
"	중 위	18627	金 雲 漢	12. 14	漣 川 旺 澄	"
"	"	18966	崔 雲 武	5. 13	漣 川	"
"	"	20774	洪 性 濟	7. 22	山 淸 三 禮	"
"	"	21201	鄭 寅 華	12. 13	漣 川	"
"	"	21634	趙 明 錫	10. 8	漣 川 케 리 高 地	"
"	"	21761	徐 炳 喆	11. 7	漣 川 旺 澄	"
"	"	21814	柳 光 馨	10. 14	경 기 漣 川	"
"	"	214801	宋 鍾 龍	5. 22	달 천 삭 명	"
제12연대	"	18605	金 容 煥	11. 13	경 기 연 천	"
"	"	19136	千 泰 潤	10. 11		"
"	"	21244	金 泰 鎬	10. 7	朔 寧	"
"	"	22327	金 滿 斗	11. 15	경 기 漣 川	"
"	"	22769	趙 英 熙	11. 28	"	"
"	소 위	18983	朴 載 哲	11. 16		사 망
"	중 위	19693	張 東 院	8. 11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5연대	소 령	200700	李 鍾 鎬	6. 24	漣 川 中 面	전 사
"	내 위	21356	李 英 茂	10. 15	漣 川 高 양	"
"	중 위	18373	文 東 煥	10. 10	漣 川	"
"	"	19055	林 鎬 祚	10. 6	高 陽 堡 里	"
"	"	20961	崔 德 潤	10. 17		"
"	"	21566	張 漢 龍	10. 7	漣 川 旺 建	"
"	"	21580	金 哲 鉉	12. 4	경 기 漣 川	"
"	"	22731	郭 鍾 律	11. 20	경 기	"
"	"	22804	崔 榮 一	10. 12	高 城	"
"	"	210103	河 錫 鎰	6. 11	5 이 동 외 과	"
"	"	225113	金 基 雲	10. 18	경 기 漣 川	"
사 단	소 령	200654	崔 充 山	6. 23	연 천 中 面	"
"	중 위	20550	趙 基 衡	12. 11		"
"	"	20581	李 義 萬	6. 14	漣 川 朔 寧 橫 山 里	"
"	"	214785	李 俞 承	10. 8	고 양 대 리	"
"	소 위	223595	朴 千 鎬	10. 10		"

제 2 사단

제17연대	대 위	210480	柳 盛 昊	52. 10. 26	金 化	전 사
"	"	212603	金 大 英	11. 14	"	"
"	중 위	18073	桂 熙 卿	11. 18	金化 近東 上所里	"
"	"	18080	成 明 煥	11. 13	"	"
"	"	18443	趙 光 鎬	11. 3	2 의 무 중 대	"
"	"	18650	張 斗 星	10. 25	金 化	"
"	"	18688	李 撥 南	10. 22	"	"
"	"	19090	吳 億 鎭	8. 15	"	"
"	"	19350	鄭 元 湜	7. 27		"
"	"	19694	朴 榮 世	7. 2	金 化 南 面	"
"	"	19766	辛 在 圭	10. 28	7 이 동 병 원	"
"	"	20143	金 榮 燮	10. 23		"
"	"	20835	張 基 哲	10. 27	金 化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7연대	중 위	21218	金 基 英	52. 11. 3	金 化	전 사
"	"	21312	林 普 洙	11. 5	"	"
"	"	217873	鄭 行 斗	10. 25	金 化 近 東	"
제31연대	대 위	16027	金 三 龍	11. 18	抱 川	순 직
"	"	212299	韓 相 演	11. 1	金 化 上 里	전 사
"	"	214026	金 忠 植	10. 31	"	"
"	중 위	17964	金 容 泰	11. 1	"	"
"	"	18648	尹 大 榮	11. 5	金 化	"
"	"	19758	金 鍾 石	11. 1	"	"
"	"	20277	金 鉉 性	11. 1	金 化 上 里	"
"	"	20744	金 求 仁	"	"	"
"	"	20762	洪 相 基	11. 5	"	"
"	"	20995	鄭 泰 秀	11. 1	金 化 上 里	"
"	"	214877	崔 炳 烈	10. 10	金 化 近 東	"
제32연대	소 령	203248	金 在 元	10. 23	7 외 과 병 원	"
"	대 위	213032	申 東 俊	10. 30	金 化 원 동	"
"	"	211858	李 敬 寧	10. 29	"	"
"	"	214453	韓 金 大	10. 31	"	"
"	중 위	10852	朴 完 贊	"	近 東	"
"	"	18315	金 世 坤	"	金 化	"
"	"	18439	金 海 中	11. 13	"	"
"	"	18594	姜 明 東	10. 29	"	"
"	"	18976	申 德 徹	10. 31	"	"
"	"	19014	林 珞 澤	10. 20	金 化	"
"	"	19257	康 亨 徒	11. 12	"	"
"	"	19883	李 軫 雨	10. 17	金化 원동 상산동	"
"	"	20098	金 泉 善	10. 23	7 이 동 병 원	"
"	"	20794	金 泳 玉	11. 23	金 化	"
"	"	20798	金 昌 文	10. 11	"	"
"	"	22278	文 在 德	10. 15	金 化 원 동	"
"	"	23018	金 鎭 騏	10. 31	"	"
"	"	23646	梁 日 錫	12. 18	鐵 原	"
"	"	214859	安 承 曄	10. 16	金 化 근 동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32연대	중 위	214863	孔 相 浩	52. 10. 18	金 化	전 사
"	소 위	19713	金 東 鉉	7. 18	화 천	순 직
"	"	20104	李 順 道	10. 31		신 중
사 단	대 위	209667	李 鍾 奭	10. 14	金 化 원 동	전 사
"	"	212367	朴 永 健	10. 31	金 化	"
"	중 위	18891	金 喆 鉉	9. 7	"	"
"	"	20019	李 成 會	6. 12	金 化 원 남 동	"
"	"	20345	郭 炯 起	5. 20		"
"	"	20734	李 貞 洙	10. 22	金 化	"
"	"	22819	朴 文 浩	10. 23	"	"
"	"	209933	張 文 錫	12. 2	서 울	사 망
"	"	205327	黃 秉 珣	8. 4		전 사
제37연대	소 위	221643	千 鍾 基	9. 29	金 化 호 곡 리	"
"	"	223480	金 西 權	10. 18	金 化	"
"	"	223630	洪 鍾 根	7. 24	金 化 온 남	"

제 3 사 단

제18연대	중 위	21005	趙 源 遠	52. 11. 7	金 化	전 사
"	"	22841	李 鍾 望	12. 8	"	"
"	"	20726	趙 正 煥	12. 27	"	"
"	"	18189	金 承 基	9. 30	"	"
"	"	20637	趙 延 昊	10. 3	"	"
"	소 위	221635	金 昌 壽	7. 26	"	"
제22연대	중 령	12966	金 甲 泰	10. 25	楊 口	"
"	대 위	203375	李 昇 男	9. 17	金 化 任 南	"
"	중 위	21046	姜 陶 求	12. 28		"
"	"	21208	吳 弼 圭	9. 3	漣 川	"
"	"	21774	趙 英 根	9. 29	金 化	"
"	"	22762	孔 德 官	10. 8	金 化	"
"	"	18261	金 泰 民	9. 29	"	"
"	"	18479	金 永 石	10. 19	3 이 외 병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3연대	중 위	18645	金 容 基	52.10.27	金 化	전 사
"	"	21737	金 潤 義	9.30	"	"
"	"	23414	金 鶴 柱	11.7	金 化 任 南	"
사 단	소 령	10958	金 道 泰	3.7	영 동	순 직
"	중 위	18255	徐 洪 善	2.15	金 化	전 사
"	중 위	21239	李 昌 成	9.5	2 이 동 의 과	"
"	소 위	221646	曹 命 壽	10.20	金 化	"

제 5 사 단

제27연대	대 위	204432	高 泰 植	52.11.11	고 성 水 洞	전 사
"	"	208218	千 光 鍊	9.13	고 성	"
"	"	208446	李 洪 允	7.14	"	"
"	중 위	18935	蔡 命 世	7.13	"	"
"	"	19663	金 玉 鎮	8.13	의 면 리	"
"	"	20121	李 載 薰	7.10	"	"
"	"	20055	李 俞 奎	9.8	고 성	"
"	"	20834	鄭 鍾 浩	9.13	"	"
"	"	21024	尹 萬 德	7.14	"	"
"	"	21944	鄭 光 謨	11.11	"	"
"	"	214967	李 鎭 求	7.10	"	"
"	소 위	21721	張 相 東	10.10	"	사 당
제35연대	대 위	201975	吳 泰 煥	10.11	고 성 九 川 洞	전 사
"	"	202996	羅 星	8.12	고 성	"
"	중 위	17747	金 寬 浩	7.11	"	"
"	"	17784	吳 一 泳	6.30	고 성 현 내	"
"	"	18691	元 正 申	5.15	고 성	"
"	"	18942	金 龍 虎	6.22	"	"
"	"	18988	朴 錫 坤	10.23	鐵 原	"
"	"	20075	李 宗 植	7.12	고 성 현 내 지구	"
"	"	22104	朴 世 赫	7.18	"	"
"	"	21209	姜 昌 勳	11.12	원 동	"

소 속	제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35연대	중 위	21224	李 昌 祿	8.23	원 동	전 사
"	"	21244	崔 植	8.24	"	"
"	"	22799	尹 昌 老	12.25	고 성	"
"	"	214970	李 鍾 鉉	7.15	고 성 현 내	"
"	소 위	223671	金 仁 煥	8.23	金 化	"
제36연대	대 위	200511	金 元 俊	8.13	"	순 직
"	중 위	17682	朴 永 學	7.21	고 성	전 사
"	"	17961	具 順 富	9.7	"	"
"	"	19868	孫 榮 泰	7.2	"	"
사 단	대 위	204654	鄭 元 弼	7.12	고 성 현 내	"
"	중 위	17757	鄭 允 道	7.12	현 내 지 구	"
"	"	18831	金 洪 禧	7.21	고 성	"
"	"	19297	金 炳 基	11.11	"	"
"	"	19983	姜 戊 熙	11.18	"	"
"	소 위	19335	文 德 勳	5.5	"	사 망
"	"	19675	鄧 鍾 雲	6.23	"	순 직
"	"	21934	李 晶 善	8.12	"	사 망
"	"	223485	崔 詳 右	6.24	광 주	전 사
"	"	223548	李 昌 成	9.9	"	"
"	"	223565	申 達 俊	10.11	고 성	"
"	"	223596	百 光 福	11.16	고 성 대 천	"
"	"	214954	張 承 杰	5.21	"	불 명
수색중대	소 령	13696	陸 鳳 洙	5.3	"	전 사
제26포병대대	중 위	19559	任 泰 彬	"	金 化	"

제 6 사 단

제 2 연대	중 위	17895	許 琛	52. 6. 19		전 사
"	"	17903	李 永 和	7. 7	金 城	"
"	"	18401	柳 宗 汎	5.30	金 城	"
"	"	18536	金 基 龍	8.19	"	"
"	"	18541	金 錫 源	4.2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2연대	중 위	19053	池 載 九	52.10. 2	遠 東	전 사
"	"	19690	趙 益 在	"	金 化 遠 東 面	"
"	"	11366	崔 鍾 還	9.12	"	"
"	"	21017	李 洪 馥	8.19	金 城	"
"	"	21035	金 夏 鍾	9. 7	金 化	"
"	"	21606	泰 實 燮	10. 1	"	"
"	"	214981	朴 宇 集	6.12	金 城	"
제 7연대	대 위	20629	金 鴻 來	8. 6		"
"	중 위	10449	全 恒 星	4.30		사 망
"	"	18056	張 成 甲	11.15	金化 近東 上所里	전 사
"	"	18631	吳 鎮 煥	4.17	金 化	"
"	"	19080	高 昌 喜	8.22	"	"
"	"	19208	羅 東 勝	8.12		"
"	"	19405	辛 宗 福	4.17	"	"
"	"	21584	崔 載 昌	9.29	"	"
"	"	21847	李 成 金	10.25	金 化 東 山	"
제 19연대	중 위	18654	李 東 善	5.31	金 城	"
"	"	21661	蘇 甲 洙	10.28	"	"
"	"	210117	朴 熙 世	6.14	金 化	"
사 단	대 위	206877	申 玳 鎬	10.30	화 川	순 직
"	"	207218	朴 昌 林	6.29	金 城	전 사
"	중 위	18087	鄭 根 敏	5.26	金 化	"
"	"	18434	高 光 洙	6.20	"	"
"	"	18665	金 明 浩	6.23	"	"
"	"	19031	張 斗 觀	8. 4	"	"
"	"	19649	金 彥 允	10. 7	金 城	"
"	"	20227	陳 錫 九	10.14		"
"	"	20673	朴 載 明	8.21	金 城 城 後 里	"
"	소 위	223499	金 景 濟	6.12	金 城	"
"	"	223602	金 俊 益	4.17		"
"	"	18804	申 柱 浩	9.20	高 城	전 사
"	"	21596	曹 圭 焯	11.26		사 망

제 7 사 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3 연대	중 령	10775	孟 柱 煥	52. 4. 30		전 사
"	소 령	201984	李 順 鎬	10. 14	양 구 水 入 内 洞	"
"	중 위	19464	金 萬 二	9. 8	楊 口	"
"	"	21307	孫 炳 烈	9. 23	"	"
"	"	215068	李 實 德	4. 28	"	"
제 5 연대	중 령	11947	盧 沈 根	5. 10	양 구 군 수 입 면	"
"	대 위	214300	金 鍾 哲	12. 23	"	"
"	중 위	20130	吳 仁 德	11. 7	양 구	"
제 8 연대	대 령	10467	朴 龍 福	11. 4		"
"	중 위	19843	崔 丙 奎	9. 23	2 이 동 병 원	"
"	"	20803	金 聖 業	9. 3	水 入 面 内 洞	"
"	중 위	215013	金 洙 龍	6. 22	양 구 수 입 면	"
사 단	소 령	12003	金 業	5. 5		"
"	"	200940	朴 鍾 萬	5. 25		"
"	중 위	19950	金 鎭 漢	10. 7		"
"	"	21490	金 道 明	10. 4	魚 隱 山	"
"	"	215002	金 成 才	4. 17	원 동	"
"	대 위	207233	孫 甫 翫	11. 2		"

제 8 사 단

제 10 연대	대 령	10088	白 仁 基	52. 4. 30		전 사
"	중 위	19513	尹 寶 九	9. 28	건 봉 산	"
"	"	20729	黃 斗 性	7. 10	"	"
"	"	22261	吉 東 震	9. 23	麟 踏	"
"	"	20759	崔 炳 益	9. 23	"	"
제 16 연대	중 위	17698	金 相 澤	9. 22		"
"	"	19122	趙 明 濟	"	松 内 峯	"
"	"	19222	李 相 熙	4. 22	건 봉 산	"
"	"	20962	喪 潤 煥	9. 22	전 평 리	"
"	"	22794	尹 昌 老	11. 29	건 봉 산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16연대	소 위	211217	金 振 範	52.10. 3	2 옥 병	사 망
제21연대	중 위	211252	姜 壽 星	9.30	화 천 시 내	"
"	"	211335	金 熙 容	6.18		전 사
사 단	"	22121	朴 貞 揆	11.20	金 化	"
"	"	215137	尹 周 老	6. 6		"
"	"	205189	崔 勉 洙	6.20	36 옥 병 원	사 망
"	소 위	223538	金 相 玉	10. 8	화 천	전 사
"	"	223554	宋 漢 鍾	5. 9		"
"	"	223604	崔 鍾 燮	5.22		"

제 9 사단

제28연대	중 위	18667	尹 承 學	52.10.15	鐵 原	전 사
"	"	18836	余 春 漢	8. 9		"
"	"	19116	李 基 錫	6.22	鐵 原	"
"	"	19206	柳 寧 烈	"	"	"
"	"	19345	鄭 洛 龜	10.14	"	"
"	"	19369	申 一 道	10. 7	"	"
"	"	11359	李 淙 桓	10.13	"	"
"	"	20728	沈 昌 燮	10. 9	"	"
"	"	21668	李 珍 洙	10.31	"	"
"	"	22297	金 喜 斗	10.10	"	"
"	"	22223	金 章 向	10. 9	"	"
"	"	23000	洪 台 燮	12. 4	金 化	"
"	"	23005	黃 憲 憲	"	"	"
"	"	23773	金 秉 道	12. 4	金 化 狙 擊 陵 線	"
"	"	215194	李 康 求	12. 3	金 化	"
"	소 위	19075	金 好 彬	12.13	"	실 종
제29연대	소 령	13757	金 慶 珍	10.11		전 사
"	"	202107	金 鳳 性	11.30	"	"
"	중 위	19439	盧 龍 得	10.14		"
"	"	19459	金 詳 模	10.10	鐵 原	"

소 ·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29연대	중 위	19745	孫 吉 祥	52. 10. 13	鐵 原	전 사
"	"	21600	姜 英 植	10. 11	5 이 동 외 과 병 원	"
제30연대	소 령	204004	曹 德 奉	10. 12	鐵 原 白 馬 山	"
"	대 위	203287	金 光 吉	11. 3	金 化 三 會 井 里	"
"	중 위	22797	李 潤 根	10. 10	鐵 原	"
"	"	18844	李 成 德	10. 9	"	"
"	"	19806	陳 聖 澈	10. 10	"	"
"	"	19844	孫 永 春	7. 14	"	"
"	"	20344	金 源 龜	10. 12	"	"
"	"	22717	李 泰 鎔	11. 2	金 化	"
"	"	22724	曹 文 相	10. 10	鐵 原	"
"	"	22973	丁 來 亮	10. 19	백 마 산	"
"	"	23042	金 鍾 會	11. 4	上 甘 嶺	"
"	중 위	23087	韓 相 學	11. 2	金 化 遠 南	"
"	"	214451	崔 裕 彬	8. 2	5 이 동 외 과	"
사 단	대 위	213953	金 萬 基	10. 11	鐵 原	"
"	중 위	18444	康 承 宇	10. 12	"	"
"	"	18834	金 福 萬	6. 17	"	"
"	"	20079	李 鍾 大	5. 29	"	"
"	"	21008	車 完 會	11. 27	"	"
"	"	60318	尹 炳 文	6. 9	23 목 병	사 망
"	"	212707	張 翼 範	6. 22	鐵 原	전 사
"	"	213199	姜 相 錫	6. 13	金 化	"
제51연대	대 위	200463	尹 相 汶	10. 14	鐵 原	"
"	중 위	20955	李 殷 甲	10. 23	"	"
"	"	21027	郭 鍾 喆	10. 24	"	"
"	"	21003	河 聖 龍	10. 23	"	"
"	"	215024	南 寅 煥	"	"	"
"	"	215129	金 建 鏞	"	"	"
"	"	18864	申 鏡 浩	10. 25	"	"

제11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제 9연대	대 위	201819	金 能 燦	52. 7. 5	5 陸 病	사 망
"	중 위	21707	朴 光 鎮	9. 14	高 城	전 사
"	"	18845	趙 炳 和	7. 31	"	"
"	소 위	223529	金 秀 鍊	5. 15	"	"
"	준 위	303272	金 在 圭	12. 23	北 山	"
제 13연대	중 위	19128	朴 東 哲	6. 27	松 內 峯	"
"	"	20008	車 完 會	11. 17	"	"
"	"	214311	金 榮 培	5. 21	1이동 외과 병원	"
제 20연대	대 령	10066	魏 大 善	4. 30	"	"
"	대 위	20351	姜 崙 範	6. 24	장 성 북 면	"
사 단	"	14485	崔 敬 麟	7. 20		순 직
"	중 위	214344	文 許 訓	7. 25	양 구	전 사
통 신 대	"	202572	金 在 喆	7. 4	5 육 병	사 망

제15사단

제 39연대	중 위	211813	鄭 達 文	52. 12. 30	77 육 병	사 망
제 50연대	"	22000	金 鎮 赫	11. 8	무 주 군	전 사

기타부대

제 53연대	소 위	23752	金 祐 謙	52. 11. 27	화 상	사 망
육 본	중 령	12578	崔 南 奇	6. 24	소北원주상관용리	전 사
"	소 령	131776	金 薰 漢	9. 20		사 망
"	대 위	12149	李 建 鎬	5. 12	마 산	전 사
"	"	14741	卓 志 路	8. 20	療 養 院	병 사
"	"	208835	金 元 根	6. 14	병 원	전 사
"	중 위	21176	鄭 五 植	12. 19		"
"	"	212497	朴 琬 乘	10. 10	전 남 나 주	순 직
육군원호처	"	207409	李 容 球	4. 9	5 육 병	사 망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육군원호처	소 위	213074	徐 桂 舜	52. 6. 18	3 육 병	사 망
철 보 대	중 위	60979	韓 泰 炳	10. 26		"
陸 本	소 위	215317	金 在 範	4. 12	전 남 라 주	순 직
1 육 병	중 위	206755	韓 淑 一	12. 11		사 망
"	"	18003	李 斗 吉	10. 24		전 사
"	"	202853	宋 根 淑	5. 12		사 망
이동의과병원	대 위	20486	朴 熙 穆	7. 30		"
3 육병원	"	202689	金 載 根	10. 14		전 사
3 이의병	"	18205	姜 太 錫	6. 23	金 化	사 망
3 이의병	중 위	18186	申 東 根	4. 29		전 사
3 이의병	"	201253	姜 順 子	11. 11		사 망
7 이의병	"	18183	夏 龍 瑞	12. 1		전 사
23 육 병	대 령	15722	金 英 煥	10. 26		사 망
"	대 위	201060	崔 貞 蓮	"		전 사
15 육 병	대 위	210979	金 永 烈	9. 6		사 망
27 육 병	소 위	206797	鄭 菊 姬	6. 10		"
36 육 병	대 위	13178	姜 泰 熙	4. 8		"
77 육 병	소 령	15291	丁 光 泰	4. 24		전 사
1 혼	대 위	15195	洪 寅 英	9. 3		사 망
"	중 위	210539	南 正 泰	12. 1	계 주 남 부	"
"	소 위	212301	芮 相 敦	5. 5		사 망
2 혼	대 위	16742	金 剛 一	11. 9		사 망
"	중 위	62094	李 擇 安	10. 9	경 남 김 해	"
"	"	204770	金 學 奎	6. 10		"
"	소 위	223603	車 益 烈	10. 16	천 원	전 사
보병학교	대 위	16772	田 永 華	10. 20		순 직
"	중 위	18033	尹 炳 武	6. 26	全 南 長 城	전 사
공병학교	"	17590	韓 慶 洙	4. 10		순 직
"	소 위	23445	黃 炳 賦	10. 17	工 校	"
1 야포단	소 위	19236	朴 燦 玉	5. 9		"
2 야포단	중 위	20008	盧 昌 壽	6. 10	金化 원동 여문	전 사
3 야포단	소 위	20482	李 承 旭	11. 25		사 망
5 야포단	중 위	20480	盧 普 福	10. 29		전 사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5야포단	중 위	215674	李 日 浩	52. 10. 29		전 사
포병92대대	"	60850	朴 丁 奎	11. 2		순 직
포병96대대	소 위	19269	崔 觀 洙	12. 8		"
포병97대대	중 위	214699	孫 晉 河	8. 6	美 30 이 동 병	전 사
10포병단	소 위	23493	宋 柱 國	12. 23	金 城	순 직
野 射	대 위	200249	채 계 신	8. 10	金 化 원 동	"
1101야공단	중 위	209439	조 승 燮	8. 22	숙 초	순 직
"	"	213868	張 仁 鎭	4. 13	양 양 대 포 리	전 사
"	소 위	20554	趙 庸 洙	7. 12	양 양	순 직
1103야공단	"	20844	金 致 玉	11. 28		"
"	"	213807	金 秉 原	9. 23	육 군 정 양 원	사 망
1201야공단	대 위	13689	姜 一 昌	11. 14	경 주	순 직
1201전공단	중 위	208294	柳 仁 錫	5. 31	金 泉	"
"	"	208755	金 允 澤	6. 10		"
10경비대대	"	210747	洪 性 喜	6. 13	울 산	전 사
"	"	211775	蔡 熙 橫	4. 3	용 안 다 락 골	"
2경비대대	"	212665	金 泰 一	6. 5	부 주 안 성	"
제 1군단	대 위	12352	盧 鉉 重	4. 15		순 직
제 2군단	대 령	10130	鄭 寅 錫	6. 12		사 망
제 3군단	대 위	207706	宋 幾 鎬	4. 14	36 병 원	순 직
제25연대	대 령	10116	鄭 鍾 根	4. 30		전 사
제1보충대대	대 위	14674	蔡 圭 尙	7. 12		사 망
1의부대대	"	16450	金 東 讚	12. 23		"
전남병사령부	"	202782	徐 昌 選	4. 24		순 직
제25전차중대	"	11770	朴 勝 禎	8. 30	강원 춘천 소양강	"
通架大隊	"	200650	鄭 寅 暎	9. 23		전 사
801수사대	준 위	300667	韓 華 永	6. 15	18 병 원	사 망
보 교	후보생	교번1681	金 丙 勳	12. 28		순 직
1079미복창	중 령	15706	李 元 衡	6. 1	자 택	사 망
美제 2사단	중 위	60334	洪 容 淳	6. 2		"
	대 위	204530	徐 斗 宗	10. 9		전 사
	중 위	207536	朴 榮 洙	10. 29		사 망
	"	214730	黃 榮 畷	6. 11		전 사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중 위	214959	李 鎬 一	52. 9. 18		전 사
	"	221968	林 秀 吉	8. 6		사 망
	"	226383	이 봉 안	12. 9		"
	"	221619	都 和 佑	10. 14		"
	"	22312	張 徹 桐	9. 9		전 사
	소 위	221620	禹 鍾 石	"		"
	"	221621	金 忠 本	9. 9		"
	"	221622	金 大 鉉	"		"
	"	221623	朴 千 淳	"		"
	"	221625	徐 明 喆	9. 8		"
	"	221628	車 益 烈	10. 6		"
	"	221629	白 光 福	11. 16		"
	"	221630	金 俊 益	4. 17		"
	"	221638	李 在 玉	9. 15	金 化	"
	"	221639	趙 東 元	9. 19	"	"
	"	221642	鄭 永 奎	9. 9		"
	"	202156	金 基 淳	5. 4		"
	"	207953	安 洪 調	7. 15		"
	"	208202	李 完 植	5. 6		사 망
	"	208924	康 爽 勳	4. 20		"

<海 軍>

PF-62함	중 위		趙 恒 元	52. 5. 21	東 海 上	전 사
--------	-----	--	-------	-----------	-------	-----

<空 軍>

	대 위	50256	羅 昌 俊	52. 4. 5	鎭 南 浦 上 空	전 사
	중 위	50945	朴 斗 元	8. 2	杆 城 上 空	"
	중 위	51080	崔 鍾 成	11. 2	安 邊 上 空	"

海兵隊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전 사 장 소	구 분
사령부	대 위	60338	千 熙 天	52. 6. 23	육 군 병 원	전 사
제 2대대	"	60029	李 成 吉	10. 2	장 단	"
"	"	60044	權 重 達	10. 20	"	"
"	중 위	60732	徐 在 鉉	11. 2	"	"
제 3대대	"	60536	金 文 年	4. 5	"	"
"	"	60658	鄭 昌 洙	10. 4	"	"
"	"	60480	金 龍 鎭	11. 1	"	"
제 5대대	대 위	60295	金 大 烈	10. 7	"	"
포병대대	중 위	60374	邊 英 欽	12. 1	"	"
제 1대대	"	60685	金 日 生	52.10. 3	"	"
제 2대대	"	60393	秦 昌 根	10. 7	"	"
제 2대대	"	60649	楊 重 甲	10. 4	"	"
제 3대대	"	60354	康 洛 範	12. 27	김 포	"
전투단	소 위	60362	申 會 淳	10. 2	장 단	"
제 2대대	"	60210	鄭 永 鈺	6. 8	보 급 교 육 대	순 직
제 1연대	"	60425	金 鍾 錄	8. 13	장 단	"
제 1대대	1 준	9201655	趙 廷 仁	1. 33	"	전 사
제 3대대	"	8100955	金 井 坪	11. 15	평택-포항비행기상	"

4. 索 引

人 名 索 引

(一)

- | | | | |
|-----|---|-----|--|
| 姜景遠 | 656 | 高一燮 | 375, 404 |
| 姜求乙 | 409 | 高在燁 | 468 |
| 姜奎基 | 797, 800 | 高 峻 | 423 |
| 姜起千 | 563 | 孔國鎮 | 243 |
| 姜基憲 | 628 | 郭斗金 | 801 |
| 姜斗馨 | 375, 388, 389, 391, 392, 393, 399
415, 417, 418, 420, 441, 425 | 郭鳳瑞 | 573 |
| 姜文奉 | 375, 416, 434 | 權炳七 | 213, 218 |
| 姜三壽 | 798, 803 | 權成根 | 683, 703 |
| 姜尚瑛 | 567 | 權寶玉 | 164, 168, 181 |
| 姜錫岐 | 279, 295, 304 | 權五明 | 309, 317, 370 |
| 姜榮煥 | 284, 294 | 權重達 | 545 |
| 江擁揮 | 309, 343, 575 | 權重華 | 683, 689, 693, 715 |
| 姜元尙 | 441 | 權贊植 | 718, 725, 739 |
| 姜用熙 | 273, 275 | 權洪善 | 290 |
| 姜應熙 | 441 | 具本源 | 323, 328, 357, 358 |
| 姜章憲 | 321, 345 | 具滋學 | 646 |
| 姜章浩 | 229 | 金佳鉉 | 69, 72 |
| 姜鎬倫 | 681, 683, 700, 704, 712, 725, 727
741 | 金京南 | 406 |
| 姜弘模 | 375, 431 | 金景山 | 523, 529, 538, 549, 552 |
| 桂承普 | 174 | 金璟植 | 375, 429 |
| 高景榮 | 635 652 | 金慶珍 | 308, 335, 340, 347 |
| 高光道 | 57, 64 | 金景鴻 | 496, 498 |
| 高光壽 | 725 | 金桂喆 | 259, 263 |
| 高根榮 | 120, 131 | 金光吉 | 420 |
| 高基鎮 | 375 | 金光植 | 635, 636, 653 |
| 高大夫 | 425 | 金錦成 | 683, 684, 686, 687, 718, 719, 720
723, 725, 737 |
| 高文甲 | 527, 533, 534, 546, 547, 548 | 金基憲 | 647 |
| 高白圭 | 38, 66, 69 | 金吉洙 | 305, 400 |
| 高錫龍 | 156 | 金南守 | 244, 375, 401 |
| 高永弼 | 200, 204 | 金大烈 | 555 |
| | | 金德萬 | 441 |
| | | 金德俊 | 110, 112, 124, 178 |
| | | 金東根 | 251, 269 |
| | | 金東馥 | 137, 252 |

- | | |
|-----|-----------------------------------|
| 金東斌 | 337 |
| 金東一 | 441 |
| 金東鎮 | 799 |
| 金東燦 | 507 |
| 金東河 | 493, 497 |
| 金東勳 | 448 |
| 金斗業 | 112 |
| 金斗逸 | 280, 282, 295 |
| 金斗式 | 476 |
| 金斗植 | 321 |
| 金溶奎 | 725 |
| 金來植 | 806 |
| 金良謙 | 386 |
| 金麟澤 | 454, 457, 489 |
| 金萬用 | 725 |
| 金萬熙 | 540, 573 |
| 金明坤 | 797, 804, 806 |
| 金明益 | 251, 269, 277 |
| 金明煥 | 136, 557 |
| 金文植 | 152, 158, 183, 468 |
| 金民洙 | 800 |
| 金炳熒 | 441 |
| 金秉先 | 87 |
| 金炳億 | 797 |
| 金秉澤 | 642, 643 |
| 金炳學 | 441 |
| 金福壽 | 263 |
| 金福鉉 | 506 |
| 金奉機 | 468, 480 |
| 金鳳龍 | 802 |
| 金鳳喆 | 308, 311, 334, 328, 342, 344, 348 |
| 金永煥 | 725 |
| 金三會 | 308, 321, 365 |
| 金相吉 | 646 |
| 金相老 | 441 |
| 金摩東 | 441 |
| 金祥玉 | 309, 312, 345, 349, 375, 411, 417 |
| 金相旭 | 800 |
| 金相喆 | 441 |
| 金錫具 | 364 |
| 金錫範 | 502, 503, 540, 541, 545, 548, 549 |
| | 550 |
| 金成堪 | 540 |
| 金成吉 | 807 |
| 金成壽 | 157, 163, 177, 178, 184, 247 |
| 金成洙 | 31 |
| 金成龍 | 683, 693, 694, 695 |
| 金聖恩 | 560, 562, 565, 569 |
| 金洗鎮 | 801 |
| 金世煥 | 544 |
| 金宋明 | 228, 239 |
| 金水山 | 193 |
| 金壽元 | 184 |
| 金昇根 | 441 |
| 金承德 | 523, 527, 542 |
| 金 信 | 683 |
| 金安一 | 178, 196, 305 |
| 金泳坤 | 218 |
| 金永吉 | 140, 183, 187, 194, 228, 238 |
| 金榮吉 | 155, 159, 181, 191 |
| 金永敏 | 725 |
| 金永先 | 157, 309, 332, 356, 358, 365, 375 |
| | 417, 419, 420 |
| 金永哲 | 804 |
| 金永夏 | 499, 532, 557 |
| 金泳憲 | 69, 80 |
| 金玉鄉 | 653, 661 |
| 金 龍 | 259, 262, 265 |
| 金勇謙 | 523, 524, 527, 537, 538, 542 |
| 金用蕪 | 441 |
| 金龍水 | 657, 658 |
| 金用培 | 135 |
| 金容珣 | 367, 375, 404, 405, 409, 411, 415 |
| | 425 |
| 金容振 | 343, 347, 363, 365, 366 |
| 金龍煥 | 36, 39, 565 |
| 金容勳 | 279, 301 |
| 金雲漢 | 193 |
| 金元俊 | 152, 168, 180 |
| 金元贊 | 159 |
| 金益烈 | 92, 243, 306 |
| 金仁奎 | 47, 49 |
| 金日生 | 523, 524, 525 |
| 金日成 | 37 |
| 金一永 | 143 |
| 金一鉉 | 69, 72 |

990 附 錄

金長根 136
 金在命 367, 375, 378, 401
 金在蓮 797
 金在俊 150
 金在猶 221
 金點坤 244, 378, 416, 435, 437
 金正決 411
 金晶植 316, 356
 金貞烈 683, 704, 725, 733, 742
 金禎浩 622, 636, 641, 651
 金鍾甲 56, 60, 69
 金鍾求 646
 金鍾德 279
 金鍾晚 149
 金鍾敏 125, 110
 金鍾聲 262, 276
 金鍾植 614, 615, 646, 651
 金鐘五 308, 314, 321, 333, 348, 367, 401
 452, 575, 593
 金潛圭 110, 112, 121, 131
 金俊鍾 795
 金重賢 725
 金中泰 110, 112
 金智善 460, 485, 491
 金地星 386
 金直漢 725
 金振暉 448, 449, 451, 452, 458, 460
 金昌均 564
 金昶元 501
 金昌煥 172, 178, 239
 金鐵雄 635, 638, 643
 金喆源 84
 金權集 36, 58
 金忠九 375, 399
 金致永 254, 260
 金七晚 268
 金泰圭 110, 112
 金太敷 186
 金泰淳 157
 金澤 36
 金兩相 375, 383, 433
 金泌楨 721, 724, 725, 727, 731
 金河吉 376, 383, 401

金學休 283, 287
 金學述 548
 金漢鼎 211
 金顯玉 263
 金亨根 36
 金炯培 656, 559
 金衡祿 485
 金浩 84
 金浩淵 725
 金弘箕 217
 金孝信 423
 金興福 797
 金熙年 461 630, 637, 644,
 金濟宋 797, 799
 (L)
 羅昌云 210, 215
 羅昌俊 683, 684, 685
 南京裕 799
 南相徽 495, 541
 南廷琪 265
 南鐵 631
 盧元根 499, 504, 505, 550
 盧原植 797
 盧敏鉉 251, 252, 270, 274, 282, 284
 (C)
 唐青山 309, 575
 都澤煥 488, 460
 都相佑 237
 鄧岳 596
 (K)
 馬龍 134
 馬泰植 797
 陸成均 146
 文南吳 797
 文相榮 69, 75
 文榮滿 350
 文鍾燮 468, 473
 文應聖 441

文一權 195
 文逸秀 309, 317
 文重燮 383, 411, 441
 文學銀 441
 文亨錫 279
 文洪九 110, 112
 閔龍基 248
 閔旭東 725, 734
 閔應植 375, 404, 405, 415
 閔仁植 441

(巳)

朴寬煜 489
 朴光秀 202
 朴基淳 140
 朴基宗 184, 191
 朴基鍾 489
 朴能裕 49
 朴敦塚 343, 351
 朴東燁 137
 朴斗連 193
 朴斗元 683, 698, 699, 700, 724
 朴麟俊 652, 654
 朴林恒 448, 450, 460, 468, 479, 575, 576
 朴明景 164, 175, 182, 250
 朴明三 643, 654
 朴明俊 249
 朴炳權 310
 朴炳柱 244, 376, 378, 401, 402
 朴炳鎬 554
 朴炳煥 274
 朴奉吉 190, 203
 朴相奎 441
 朴西錫 441
 朴善寬 631
 朴成極 636, 634, 646, 661
 朴成哲 497, 498
 朴世忠 642
 朴世熙 252, 269, 273
 朴壽大 448, 450, 451, 461
 朴純求 208
 朴順和 179

朴英洙 262, 264
 朴容九 544
 朴用萬 691, 701, 706, 708, 709, 719, 720
 722, 725, 727, 730, 732, 733,
 朴完圭 683, 696, 698, 699, 700, 703, 707, 741
 朴又範 803
 朴元斗 706
 朴潤義 69
 朴應格 308
 朴翹均 164, 169, 177, 215
 朴在善 125
 朴再洙 375
 朴在浩 683, 690, 692
 朴正瑞 186, 195, 204,
 朴正漢 516
 朴鍾斗 706
 朴鍾淳 448, 452, 460, 461, 474
 朴鍾元 36, 47, 72
 朴鍾漢 375
 朴志遠 320, 326
 朴燦剛 308, 335, 343, 347, 364
 朴贊極 654
 朴贊龍 140, 147, 197, 247
 朴昌善 801
 朴昌窓 47
 朴大雷 525, 531
 朴春道 646
 朴春植 93, 135, 151, 155, 161, 171, 190
 197, 225, 247, 254, 233, 275
 朴春雄 451, 468, 478
 朴致祚 569
 朴泰松 52, 53, 67
 朴兌鉉 642
 朴興柱 137
 朴喜坤 734, 736, 737, 740
 方祥 468
 方碩鎬 326
 方宇奎 624
 方俊杓 797
 裴吉洙 476
 裴相昊 683, 709, 713
 裴在洙 185, 188
 白南珪 146

992 附 錄

白南樞 93, 110, 124, 135
 白德明 468
 白麟基 654
 白善燁 15, 134, 139, 251, 278, 279, 378
 白岩一 797
 白仁燁 136, 268, 279, 281, 295, 304, 376
 400, 452
 白昌鉉 983, 701, 707, 709, 710, 712
 夫敬重 565

(人)

徐慶善 339
 徐德均 627, 640
 徐廷南 523, 528, 541, 549, 552
 徐虎潤 320
 石大俊 80
 石鍾九 36
 成寬植 571
 成光植 504
 蕭應棠 493
 孫明珍 448, 458, 461, 468
 孫炳一 653, 659, 660
 孫甫憲 419
 孫善陽 309, 365, 376
 孫秀仁 223
 孫元一 618
 孫月用 316
 孫在權 683, 688, 690, 692
 孫昌圭 95
 孫興俊 683, 690, 697, 700, 717, 720, 725, 732
 宋基兆 535, 536
 宋大厚 106, 252, 279, 281, 287, 295, 304
 宋星三 449
 宋淳根 375, 383, 392, 396, 441
 宋榮鎮 110, 123, 127, 196
 宋堯讚 93, 134, 141, 150, 252, 275, 367, 448
 宋寅吉 344
 宋在鳳 683, 719, 725, 733, 765
 宋贊鎬 110, 468, 483
 宋昌寧 984
 宋泰鎬 466
 宋虎林 251, 279, 306, 471, 478

申見夢 376, 413, 421
 申寬植 725, 740
 申大均 375, 383, 390, 408, 409
 申東燁 468
 辛相大 625, 631, 638, 654
 沈相鎬 149, 179
 申聖局 197
 申彥國 86, 91, 92
 辛榮奎 273
 申瑋榮 247
 辛利善 441
 申宗燮 618, 621, 625, 661
 申泰英 197
 申賀貴 376, 387, 391
 沈亨燮 441

(O)

安教明 39, 41
 安秉應 448, 452, 457, 459
 安秉鶴 279, 281, 295, 300, 304
 安世出 39
 安承鎬 168
 安德榮 164, 167, 180, 213
 安益鎮 188
 安在元 147
 安專源 375, 404, 409
 安昌寬 503, 506, 525, 539, 543, 550, 571, 573
 安孝淳 568
 梁達燮 47, 72
 楊大易 309
 梁炳煥 279, 295
 楊永仁 226
 楊利錫 441
 梁在慶 95
 梁在明 110, 112
 楊正鎮 739
 梁仲鎬 268, 279, 305
 楊清石 638, 642, 654
 梁雷雄 158
 魚燮龍 441
 嚴翼中 279, 302, 304
 呂邦鉉 218

- 吳貴星 144, 147
 吳德俊 136, 193
 吳瑞林 310
 吳世榮 441
 吳壽恒 375, 400, 420, 422
 吳承緒 69, 72
 吳信泉 575
 吳永寬 797, 803, 807
 吳永權 72, 80
 吳榮煥 408, 452, 455, 457, 461
 吳正根 539, 543, 544
 吳楨元 647, 652, 661
 吳鎮煥 256, 277
 吳昌根 45, 48, 69, 74
 吳春睦 683, 694, 700, 714, 721, 735
 玉滿籍 683, 686, 687
 阮平 493
 汪洋 575
 王採生 310
 王虎 128, 129
 禹教麟 140
 禹相德 189, 195
 尤太忠 134, 161, 376, 377, 437
 元貞鳳 343, 351
 韋鶴松 190, 194
 柳京洙 84
 柳寬植 622
 柳根昌 375, 383, 390, 404, 410, 412, 426
 柳東彬 49
 劉東旭 569
 柳來赫 646, 647
 劉炳植 204
 劉秉彥 596
 柳承源 251, 259, 264
 柳陽洙 305
 柳源圭 203
 劉義濬 95, 97, 100, 106
 柳在良 188
 劉載成 86, 93, 243
 柳在廷 129
 劉載興 15, 93, 113, 151, 178, 196, 208
 樞仲儒 309
 劉志 110
 劉七福 95, 99, 105
 劉興洙 305
 劉熙萬 221
 陸根洙 93, 241, 243
 陸成煥 547
 尹琪 441
 尹炳權 386
 尹相汶 359, 361
 尹成錫 563
 尹承園 165, 193, 244
 尹永模 308, 332, 349, 352
 尹永旼 175
 尹應烈 683, 686, 688, 691, 694
 尹子重 725
 尹太準 233, 239, 242
 殷碩杓 375, 388, 399, 402, 417, 419
 李康和 683, 696
 李建榮 278, 282, 283, 285, 295, 304
 李寬模 725
 李寬植 93, 243
 李寬熙 110, 112
 李光魯 423
 李基萬 87, 92
 李基永 175, 181
 李基贊 269
 李基陝 683, 684, 685, 686
 李基煥 69, 77
 李南求 251, 266, 279, 287, 290
 李南周 47, 46, 66
 李大哲 308, 339, 343, 354, 364
 李德生 134, 135, 161, 236, 251, 280
 李德和 157, 184
 李東和 136
 李萬鍾 268
 李萬浩 175
 李萬熙 567
 李明奎 441
 李文天 167
 李敏出 500, 516
 李培善 725
 李伯衡 383, 441
 李秉禧 801
 李丙巖 68

994 附 錄

李範爽 32
 李鳳浩 126
 李鵬植 175, 181
 李相士 123, 127
 李錫元 478
 李錫濟 423
 李錫俊 375, 405, 411, 413, 431
 李善永 114
 李善浩 164, 172, 185, 213
 李成佳 95, 96
 李成吉 523, 529
 李成洙 805
 李成浩 619, 643
 李聖壹 199
 李世根 332, 352
 李世鎬 92, 93
 李壽鳳 188
 李順鎬 95, 98, 104
 李昇基 505
 李昇南 115
 李承晚 32, 244
 李昇佑 799
 李承隱 231
 李承俊 218
 李承煥 717
 李永求 279, 303
 李泳吉 413
 李永朝 332
 李榮洪 621
 李永檜 797
 李 龍 135, 151, 165
 李勇男 647
 李龍文 110, 150, 162, 170, 182, 196, 216,
 305, 452
 李龍翼 540, 567, 573
 李用鎬 155, 167, 180
 李龍哲 36
 李元鏞 655
 李潤基 408
 李應基 621, 633, 635
 李應燮 618, 631, 641
 李應龍 174, 179, 192
 李應七 525

李益植 143, 184
 李仁錫 619, 653, 661
 李 逸 663
 李載健 95
 李載國 725, 727
 李在根 164, 168, 190, 204
 李再起 375, 431
 李載大 339
 李哉松 618, 621
 李在順 152
 李在元 441
 李在煥 448, 452, 460, 464
 李正鎔 805
 李正雨 273
 李鍾晚 237
 李鍾綠 225, 230, 236, 242
 李鍾益 95, 98, 101
 李鍾鼎 451, 468
 李鍾誌 441
 李鍾七 159, 184, 228
 李周一 308, 352, 357, 435
 李周杓 725
 李鎰一 523, 526, 537, 541, 557
 李燦權 725, 742
 李昌洙 441, 567, 568
 李昌賓 683, 723, 725, 731, 735
 李昌禎 310
 李哲俊 797
 李春丕 72, 75
 李春夏 510
 李學善 725, 739
 李學洪 624
 李漢龍 573
 李漢哲 647
 李軒求 207
 李鉉相 795, 804
 李亨根 37, 41, 45
 李亨植 567
 李亨英 683, 719, 721, 731, 734
 李孝成 137, 186
 李喜根 725
 李義守 164, 177, 190, 215
 李禧晶 635

李熙品 631
 李熙昌 618
 印聖勳 251, 259, 264
 林炆燮 510, 511, 565, 571, 573
 林東璿 725
 林斗成 621, 636
 林炳斗 723, 725
 林福圭 248
 林富澤 45
 林翔燮 712, 725, 729, 733, 983
 林淳赫 683, 662, 711, 712
 林益淳 308, 311, 319, 345, 354, 365, 375,
 416, 420, 421, 423
 任仁淳 167
 林鍾斗 683, 720, 729, 734, 742
 任忠植 95, 101, 110
 林鶴俊 207
 林喜坤 725

(大)

張錫誠 449, 575
 張庚石 136, 193
 張崎根 154, 168, 172
 張德昌 681, 683, 725, 733
 張都啖 110
 張得奎 159, 163, 184, 228, 238
 張峰 449, 575
 張奉錫 198, 233, 239
 張錫燦 448, 451, 455
 張星太 683, 697, 700, 705, 708, 713, 717,
 721, 739
 張時德 566
 張信元 376, 394, 406
 張連保 494
 張龍鎮 182
 張志文 441
 張志洙 618
 張昌國 41, 54, 56, 136
 張天奎 468
 張翰洙 189

張顯揚 376, 377, 413, 426
 張炯淳 130
 田耕潤 180, 190, 205
 田鳳熙 683, 700, 709, 713, 724
 全富一 345, 349, 362, 365, 366
 全聖植 217
 全英煥 157
 田宗郁 152, 247
 田峻律 251, 271
 田亨一 725
 鄭炳烈 352
 鄭鳳旭 279, 282, 284
 丁世鎮 141, 232
 鄭永洪 449
 鄭龍和 476
 鄭雲 93
 鄭元錫 653
 鄭仁淳 52, 66, 69, 72
 鄭仁弼 40
 丁一權 375, 376, 378, 397, 410, 415, 416
 鄭一燮 656
 鄭周良 683, 685, 686, 688, 689
 鄭震 140, 152, 157, 166, 171, 210, 218,
 306
 鄭贊和 157, 167
 鄭昌根 802
 丁漢哲 621, 223
 丁海英 725
 趙南國 309, 312, 345, 354, 365, 375, 411,
 417, 419, 420
 趙藍田 134, 280, 376, 377, 422, 426
 趙炳奎 183, 192, 237
 趙炳叟 158
 趙性俊 500, 516
 趙成鎮 441
 趙瑛九 45
 趙泳玉 112
 趙永衡 154, 180
 趙容熙 510, 513
 曹偉 448, 449, 535
 趙丁佑 657
 趙鍾煥 441
 趙七星 309, 317, 345, 375, 401, 412, 425

趙泰杰 476
 趙泰沐 441
 趙恒植 725, 734
 曹漢吉 145, 163
 周永福 683, 717, 701, 702, 710
 曾紹山 134, 218, 251, 243, 278, 280, 376, 377
 池百俊 441
 池炳學 84
 池龍泰 140
 秦基偉 376, 377, 415, 437
 陳福章 95, 468
 秦錫文 646
 秦一植 517
 秦昌根 553

(元)

車圭憲 52, 53
 車虎城 106
 蔡萬善 90
 蔡命新 96
 蔡活明 376
 千永星 725
 千坪祚 646
 崔建功 376, 377, 387, 396, 437
 崔光哲 202
 崔奎瑄 30, 60
 崔基東 632
 崔蘭洙 807
 崔炳起 621
 崔炳益 89
 崔秉瓚 339, 343, 356
 崔炳勳 219
 崔錫潤 441
 崔錫俊 154
 崔聖達 725
 崔順善 725, 737, 739, 740
 崔億萬 157
 崔英圭 56, 57, 60
 崔英贊 656
 崔榮昌 725
 崔榮喜 111

崔用德 725, 733, 742
 崔庸煥 514
 崔一燦 448, 457, 460, 468, 484, 491
 崔在鴻 175, 186, 195, 203, 233, 241
 崔鍾成 725, 727, 742
 崔鍾仁 489, 491
 崔周源 84, 468, 480
 崔昌彥 271, 277, 306
 崔昌龍 308, 332, 333, 364
 崔忠煥 39
 崔泰炯 375, 415, 417, 422, 428
 崔孝籍 618, 632
 崔洪洛 441
 秋忠林 537

(巳)

卓存則 45
 卓亨植 441

(立)

片富萬 174, 183

(舌)

賀洛會 76, 402, 406
 河相卓 375, 406, 407, 410, 434
 河小坤 83, 88, 94
 河永燮 205, 269, 309, 317, 376
 河容守 498
 河泰旭 279, 300, 304
 韓啓東 384, 385
 韓寬興 306
 韓光鮮 244
 韓錦昌 216
 韓斗出 441
 韓禮澤 496
 韓文植 637, 640, 651, 616
 韓敏錫 152, 164
 韓炳甲 91
 韓相詰 175, 189

韓相鎬 657, 658, 660
 韓相勳 279, 282, 295, 296, 302, 306
 韓錫沐 219
 韓先楚 279, 282, 295
 韓淵錫 634, 643, 648
 韓完沐 217
 韓丁燮 279, 281, 283, 285, 290, 305
 韓周燮 557
 韓亨魯 62, 67
 咸德昌 522, 523, 556, 541, 546
 咸炳善 378
 咸錫倫 530, 535, 539, 545, 557, 573
 咸溶翼 140, 171, 174, 250
 許淵龍 652
 許煜 66
 玄昌健 683, 698, 709, 719, 724, 725, 738, 740
 洪敬善 385
 洪起京 637, 638, 657, 660

(A)

Abcede, Salvador : 575
 Aguirre, Ramon Z. : 575
 Armitage, Gerard T : 596

(B)

Backes, Robert M. : 592
 Barcus, Glenn O. : 753, 756, 778
 Batterton, Jr., Ray J. : 566
 Blount, John B. : 587
 Bordley : 688, 693
 Bradley : 30
 Briscoe : 18
 Borreil, Francois : 575

(C)

Cambell, George W. : 596

洪民杓 767
 洪淳萬 281
 洪淳容 523, 542, 543
 洪錫淳 128
 洪容善 223
 洪鍾哲 110
 洪鍾憲 90
 洪昌源 166
 黃圭燮 800
 黃斗淵 191
 黃斗煥 568
 黃得晟 62, 69
 黃順岩 441
 黃龍活 144, 146, 150, 198
 黃正德 725
 黃汀淵 634, 635, 636, 660, 661
 黃鍾甲 47, 72
 黃宗九 110, 112, 120
 黃哲中 156

Christan, G.H. : 575
 Clark, Joseph J. : 20
 Clark, Mark W. : 10, 18, 244
 Cleland, Joseph P. : 273
 Collins : 22
 Colson : 26
 Connoly Howard J. : 596
 Cross, Thomas J. : 576
 Culhane, Jr., Thomas A. : 494

(D)

Dodd, Francis T. : 25
 Dulaney, Robert L. : 448, 449, 575

(E)

Eisenhower, Dwight D. : 10, 23, 593
 Everest, Frank F. : 753, 755

(F)

Fiher, William P. : 778
Finletter, Thomas K. : 770, 773, 781
Fry, James C. : 309, 449, 575

(G)

Ganey, Wiley D : 761

(H)

Hadelson, Daniel H. : 135, 252, 279
Harrison, Jr., William K. : 26

(J)

Jenkins, Reuben E. : 15, 244, 305, 437
Judson, Robert W. : 596

(K)

Kastner, Eugene S. : 583
Kasler, James H. : 753
Kendall, Paul W. : 17, 367, 449, 489, 491, 575
Kernan, William F. : 575
King, Louis N. : 596
Ksycewski Casimir C. : 596

(L)

Layer, Walter F. : 596
Lee, Richard M. : 583
Low, James F. : 757

(M)

MacArthur, : 19, 20
Marshall, George C. : 10
Mayo, Richard W. : 136, 193, 247, 251
McCarrty, Chester E. : 761
Mergens, George C. : 575
Moody, Jr., Clarence G. : 596
Moak, Stanley T. : 596

Moroney, William T. : 588
Murphy, Preston J.C. : 575

(O)

O'Daniel, J.W. : 17, 310, 448, 575

(P)

Palmer, Williston B. : 14
Peason : 28
Pollock, Edwin A. : 515, 539, 548
Potikanita, Oang : 575

(R)

Ridgway : 9, 20
Ritchie, Ellis B. : 575, 583
Ruffner, David L. : 575, 577, 582

(S)

Sandlin, Joseph C. : 575, 586
Scandling, John D. : 583
Scranton, Jr., Selens S. : 596
Selden, John T. : 493, 596
Shaw, Richard J. : 583
Sheppard : 279, 285, 297
Smith, George W. : 367, 437
Smith, Sylvanus : 576
Smith, Wayne C. : 309, 594
Soule, Robert H. : 310

(T)

Tiller, Jack M. : 583, 587
Truman : 23

(U)

Underhill, Edward H. : 776

(V)

Vandenberg, Hoyt S. : 243
 Van Fleet, James A. : 9, 11, 135, 247, 310
 Vanzuyen, William M. : 596
 Vaughn George L. : 587
 Vyshinskii : 27

(W)

Watlington, Thomas M. : 575

W.ber : 700
 Weyland, Otto P. : 243, 761
 White, Isac D. : 14
 White, John D. : 579
 Williams, Sammuel T. : 368
 Wilson, Chales E. : 30
 Wilson, Wilbur : 575
 Woods, John O. : 575
 Wyman, Willard G. : 15, 135, 575

地名索引

(一)

加圓洞 333
 加田里 86
 加津里 66, 78
 加七峰 37
 加平 589
 佳鶴里 282, 301, 302
 杆城 708, 726
 葛洞 379, 382, 386, 393, 398, 406, 410,
 420, 426
 葛麻半島 620
 葛頂里 617
 葛嶼里 583, 585, 587
 葛花洞 577, 586, 587
 甘鳳里 367, 383, 404
 甘水洞 651
 甘泉里 733
 甘湖 39
 江界 748, 756, 767
 江內里 450
 江陵 642, 686, 717, 735, 782
 江東 771, 785
 降仙里 689
 江華島 659

開城 377, 502, 569
 開野里 281, 283, 300
 价川 85
 巨里室 252, 281
 巨濟島 925
 巨津 621
 巨津面 37
 巨次群島 653, 661
 乾鳳寺 60
 乾鳳山 57, 83
 乾智面 653
 劍拂浪 681, 694, 699
 決死峰 281, 287, 800
 兼二捕 747, 752, 753
 慶祥里 281, 284, 290
 慶源 678
 慶波里 296
 鷄岩 252, 281, 298, 305
 鷄雄山 378, 415
 桂池里 697
 高台山 310
 古文里 576, 581
 姑味城里 85
 高城 37, 57, 193, 623, 635, 693, 708
 高岩山 310
 高陽堡 449, 451, 476, 594

1000 附 錄

高 原 728
 古作洞 449, 451
 古樓下里 451
 古莊里 449, 456, 473
 庫 底 622, 672, 674, 675
 古直木里 280, 285, 293, 295, 302
 高峴里 722
 郭 山 754
 冠岩洞 426
 廣大谷 93, 112, 140, 171, 190
 光明里 502
 光三里 388
 光 陽 800
 橋 洞 86, 136
 喬洞島 646, 648, 652, 655, 661
 轎岩山 93, 137, 258, 268, 279, 305
 九溪里 692, 693
 舊 袋 137
 舊堡里 112
 九龍里 688
 九美里 661
 九美浦 657, 658
 九月峰 654
 九川洞 71, 72
 鳩峴里 252
 軍偶里 744, 749, 773, 787
 軍藏山 494
 貴存里 449
 金剛山 37
 金谷里 377
 琴基里 700
 金 陵 199
 金 字 号 651
 金 城 15, 85, 134, 252, 280, 285, 300,
 278, 376, 422, 717, 746, 786
 金城盆地 377
 金城川 136, 152, 196
 金水里 56, 83, 651
 金場山 519
 金 川 687
 金 浦 521, 548, 550, 597, 668
 金浦半島 508, 594
 金鶴洞 135, 162

金 化 252, 310, 367, 377, 789
 麒麟島 646, 647, 651, 660
 吉 州 613, 668, 678

(L)

羅梅里 311
 羅 津 613, 671, 678
 駱駝鞍線 311, 322, 327, 332, 335, 337, 361
 卵 島 631, 635
 南 江 37, 80, 85
 南大川 244, 378, 379
 南山台 310
 南山里 779
 南 市 781, 784
 南安治里 41
 南 原 17, 135, 448, 241, 795
 南川橋 381
 南村洞 525, 526, 544, 547, 551
 浪城里 620, 625
 內 里 243
 內沔里 735
 魯南里 270
 老禿山 594
 盧洞里 276
 老上里 522
 蔚田平 84, 86
 陵 洞 254, 259, 264, 280, 299

(C)

端 川 633, 677
 塘礪里 719
 大康里 39, 60, 80
 大高飛裏里 112
 大酒店 112
 大 谷 252
 大谷里 86
 大光里 576, 586, 591
 大堡里 37, 41
 大德山 597, 600
 大同江 667
 大馬里 437

大坊林 233
 大腫鴨島 659
 大延平島 653, 655, 656
 大悅里 688
 大龍里 693, 694
 大井里 112
 大青島 646, 651, 660
 德洞 621, 614, 657
 德勿山 494, 502, 519
 德山里 39, 540, 696
 德裕山 449, 805
 德隱洞 576, 586, 594
 德嶺洞 654, 661
 桃哥嶺 696
 도라산里 523
 道密里 577, 591
 道修垜 700
 道新里 589
 到彼洞 312, 335
 讀舊堂里 330, 331
 독수리 高地 15, 110
 頓平里 86
 돌바위능선 379, 383, 392, 405, 412, 420, 422
 東江里 530, 540, 552
 東豆川 243, 576, 586
 東場里 502, 514
 登大里 111, 135, 191
 登山串 657

(口)

馬洞 697
 馬放里 585
 馬山골 543, 551
 馬嶺山 449, 456, 576
 馬養島 631, 638, 640, 643
 馬田里 589
 麻次津里 71, 79
 鹿蛤島 646
 馬頂里 647, 651
 萬洞 417, 418, 421
 滿洲 699, 704, 777, 778
 滿齋里 634

望所 379, 403
 望海 597
 왜봉 379, 397, 408, 410, 413, 418
 母岳山 796
 목동 651
 木浦 632, 657
 夢金捕 646, 651, 653
 茂桂里 645
 茂島 652, 653, 654, 655, 659, 660, 661
 巫山 85, 613
 墨川下里 691
 墨湖 642, 643
 文登里 111
 文登山 449
 汶山 522, 670
 聞雲洞 651
 物開里 729
 密陽 17, 449

(巳)

芳洞 422
 방어다리 404
 防樂洞 502, 524, 547
 芳坪里 254
 白蓮山 494
 白翎島 647, 651, 657, 658, 660
 白馬高地 13, 308, 376, 400, 416, 435, 593, 594
 白馬山 594
 白沙洞 657
 白石洞 456, 449, 648
 白石里 311
 白石山 85
 白水洞 651
 白雅山 799
 白雲山 796, 800
 白川 687
 白鶴山 494, 597
 뺨다리 539
 寶蓋山 310
 북개 582, 583

1002 附 錄

鳳鳴面 653
 鳳 尾 423
 蜂窠山 652
 烽火洞 305
 烽火里 654
 烽火山 233, 252, 276, 790
 烽火峴 449
 蓬華洞 311, 314
 赴 戰 677, 759
 富平里 243
 北 京 27
 北 青 771
 北漢江 137, 152
 不毛高地 575, 577, 580, 581, 582, 587, 589,
 591, 592, 594, 595
 叫리高地 568

(人)

糸 谷 543
 沙器里 653
 沙里院 681, 686, 688, 737, 753, 786
 沙尾川 594, 597, 599
 沙番洞 717
 史倉里 93, 94, 236, 367, 416, 435
 泗 川 717
 泗川江 493, 540, 544, 545, 547, 549, 552,
 572, 597
 泗川里 252, 734, 740, 280, 281, 287, 305
 寺後洞 352
 朔 寧 735
 山 谷 449, 450
 山馬洞 449
 山水面 727
 山陰里 688
 三角高地 13, 377, 378, 404, 405, 409, 413,
 416, 418, 421, 437
 三德里 747
 三道峰 805
 三 登 766
 三登里 469, 744
 三防里 681, 698, 700
 삼계嶺 88
 上甘嶺 367, 377, 381, 385, 393, 401, 403,

406, 409, 415, 419, 422
 上 里 379
 上里面 653
 上仙里 637
 上所里 379, 387, 411
 上眞明洞 310, 316, 327, 335
 上海里 696
 桑田里 115
 桑陰里 633
 雙嶺洞 138, 178, 204, 233, 257, 270
 西炭甘里 112
 西浦里 782, 785
 瑞和里 86
 石橋里 615, 695
 石臺里 692, 728
 席 島 648, 652, 655, 659, 661
 石城里 687, 690
 石井里 111
 石 浦 498
 신창말 582, 585, 592
 宣 川 746, 751, 754, 772, 776, 781, 787
 城 洞 310
 星羅里 632
 城北里 632
 城 津 613, 635, 675
 成 川 667
 星後里 290, 292
 蘇湖里 654
 小城洞 231
 小城里 112, 136, 163, 196
 昭陽江 85, 86, 90, 93
 俗離山 796
 松 洞 379
 松洞里 137, 231
 松 林 685
 松山里 687, 690, 700, 701
 松寶里 141
 松魚月 92
 松田洞 651
 松田半島 620
 松 亭 403, 417
 松亭里 112
 松平里 633

松峴里 57, 64, 79
 首都高地 12, 111, 136, 158, 164, 171, 178,
 183, 255, 376, 452, 774
 水洞里 37, 79
 水嶺 72, 79, 80
 水龍洞 449
 水原 668
 水豊 18, 744
 水豊里 662, 663, 664, 665, 669, 675
 遂安 681, 726
 腫鴨島 656
 齋川 754
 順川 696, 697, 744, 751, 778, 784, 791
 巡威島 613, 659, 660, 661
 僧佛山 796
 勝湖里 695, 696, 698, 718
 新古山 233, 695
 新高山 739, 769
 薪畚里 576, 586
 新堂洞 247
 新德 668, 669
 新幕 681, 758
 新木洞 411
 神佛山 449, 795
 新安州 744, 750, 752, 772, 775, 778, 782,
 785, 791
 新養里 688, 690
 新院里 681, 689, 721
 新義州 85, 750, 773, 785
 新井里 693
 新亭里 689
 新昌里 632, 689, 722
 信川 722
 新村 379, 450, 452
 新村里 85
 新浦 631, 638
 新興洞 752
 新興里 695, 749, 773
 沈村 688
 深浦洞 720

(○)

阿吾地 20, 613, 669, 677
 安東 744, 783
 安邊 689
 安州 784
 安峽 449
 岩洞 111
 鴨綠江 18, 613, 663, 750, 787, 791
 野村 521, 550
 藥泉洞 311
 陽德 667, 787
 洋島 634, 675
 襄陽 37
 陽地村 379, 395, 410, 449
 養珍 735
 梁浦洞 719
 魚大津 638
 御水里 688
 魚雲里 123, 131, 140
 魚隱山 85, 96, 105
 魚化島 617
 汝尼山 519
 鹿島 621, 637, 644, 667
 汝文里 137, 140, 201
 驛谷川 310, 320, 339, 354, 361, 449, 577
 587
 淵巨里 276, 281, 298
 淵洞里 632
 延白 646
 延安 681
 漣川 449, 451
 延坪島 616, 646, 656, 661
 永同 795, 806
 寧邊 85
 永興灣 621, 635
 禮洞 635
 烏梨洞 280, 302
 五里亭 582, 583
 五峰山 708
 楡山里 698

1004 附 錄

五聖山 85, 376, 383, 395, 422, 426
 五雲里 377
 舌叉嶺里 657, 660, 661
 烏川里 111
 倍炭里 456
 温井里 38, 57
 麩 津 646, 720
 麩津半島 616, 646
 王隱里 659
 外沔里 70, 78, 83
 外先里 342, 351
 外城洞里 155, 164
 外也洞 400, 404
 外村里 345
 外鶴里 311
 欲知島 641
 龍臺洞 635
 龍媒島 656
 龍門山 16
 龍石里 691
 龍水里 652
 龍岩里 295, 367, 658
 龍田里 449, 471, 552
 龍 井 85
 龍川里 721, 758
 龍鶴里 311
 龍鶴山 162, 233
 龍湖洞 137, 155, 159, 166, 180, 192, 223,
 龍化里 696
 牛尾洞 337, 350
 雲洞里 634
 雲門山 17, 449, 795
 雲長山 795
 熊津里 627
 元堂里 551
 元 山 613, 636, 667, 681, 701, 758, 777,
 787
 元通里 86
 月串池 583
 月乃島 647, 651, 657
 月峰山 252, 305
 月比山 37, 39, 68
 月山嶺 86

月城里 690, 697
 裕洞里 719
 柳城里 735
 陸麻蛤里 647
 栗 谷 256, 260, 263
 栗砂里 135, 267, 280
 乙木嶺 736
 邑底里 661
 議政府 243
 義 州 778
 梨南里 281
 梨木里 695, 699
 梨竇洞 401
 利 原 633
 二長足 311
 伊 川 589, 654, 689, 719, 758
 麟 蹄 470
 臨津江 17, 376, 459, 479, 549, 599, 752

(六)

自由門橋 561
 職 寧 723
 職川里 695, 696
 長 湍 712
 長山串 613, 647, 653, 657, 660, 661
 長山里 697
 長 城 795, 802
 長松洞 328, 334, 335, 348, 355, 359
 長安山 449, 796
 長湍里 253, 273
 長 箭 707
 長 津 676, 759
 長津湖 768
 長坪里 105
 長峴里 85, 659
 狙擊稜線 13, 375, 380, 388, 395, 400, 405,
 412, 419, 422
 低尾島 656
 豬津里 45
 赤巨里 450
 赤楸山 252
 積木里 270

全谷 592
 占方里 717
 箭頭山 593
 定技洞 657
 亭洞 449, 450
 丁字山 584
 定州 746, 751, 778
 定坪里 130
 亭花里 689
 齊官洞 382, 410
 濟州 241, 632
 濟州島 641
 座首洞 140, 153, 158, 166, 185, 194, 231
 注波嶺 137
 注波里 93, 136, 187
 竹谷 449
 竹堡里 283, 295, 299
 竹洞 252, 268
 竹邊 641
 竹葉山 709
 竹旺面 66, 78
 竹川里 728
 中馬山 327, 338, 345, 349
 中江里 437
 地境里 57
 智異山 15, 449, 795, 796, 798
 指形稜線 12, 36, 162, 171, 181, 193, 253, 245, 376
 直洞 734
 鎮南浦 620, 646, 674, 686, 745, 760, 781, 786
 進士峰 709
 鎮海 630, 646, 659, 660
 執室里 137, 144, 189, 216, 231

(天)

遮湖 633, 636
 昌道里 134, 162, 233, 717
 倉洞 310
 昌東里 654
 昌麟島 616, 617, 621, 646, 651

天德山 494, 502, 519, 580, 589
 千島列島 782
 天皇里 796
 天皇山 449, 796
 徹尾洞 86
 鐵山 785
 鐵原 310, 376, 576, 577, 594
 青龜面 656, 659
 青丹 687
 青龍里 688
 濟雲洞 456
 清津 613, 670, 674, 675, 678
 清川江 787, 790
 清泉里 728
 椒島 647, 651, 655, 657, 661
 初西里 733
 椒田里 218, 233
 淑村 545
 七井洞 502

(E)

炭甘里 270, 280, 295
 太乙里 653
 兔山 449
 土城 597
 通川 627, 695, 701
 退湖 645

(立)

破城里 689
 坡州 502
 板里 659
 板門店 452, 522, 599, 769
 八夜里 243
 八鶴里 654
 平康 681, 994, 705, 723, 734
 平壤 85, 744, 753, 665, 668, 681, 696, 718, 776, 787
 平壤里 653, 654, 655, 657, 659, 660
 抱川 243, 449
 浦項 610, 632

(㉔)

下甘嶺	379, 385, 417, 420, 424	峴 低	581, 583, 585, 586, 589
河古介	305, 306	惠山鎮	613, 677, 783
河 東	795	虎 島	624
下馬山	315, 345	湖 島	620, 634
하사관	577, 581, 583	虎島半島	638
霞 城	550	魂飛高地	501, 504, 509
下 所	383, 384, 386, 407, 417	洪 原	633
下所里	244, 379, 397, 405	曉星洞	310, 327, 338
下俊洞	449	花溪里	717
下眞明洞	311, 312, 317, 321, 327, 338, 345, 358	花溪場	800
鶴山里	654	華山里	729
漢 江	508, 550	和 順	799
漢拿山	796	火田里	312, 335, 339
咸 陽	795, 802	貨泉里	697
咸 興	674, 746	黃 基	86, 87, 90
蛤津里	640	黃 州	681, 685, 688, 697, 769
項防洞	618	黃土島	625
海南里	652	黃鶴山	796
海月里	654	灰古介	400, 404
海 州	615, 685, 686, 723, 746, 781, 788	會 寧	677, 678, 780
海州灣	652, 653, 672	回文山	449, 796, 803
虛 川	676, 768	回山洞	449, 456, 458
虛川江	675	淮 陽	93, 111, 233, 677, 718
縣 里	97, 106, 708, 709, 717	檜田里	737
		檜 倉	786
		後川洞	449
		黑石洞	449, 452
		興 南	635, 638, 675, 677, 752
		熙 川	748, 749, 751, 767, 773, 776, 787

正 誤 表

頁	行	誤	正	頁	行	誤	正
47	下 2	特攻隊들	特攻隊들	308	1E	10. 11. 16. 20~ 12. 13. 20	10. 10. 15. 20~ 11. 12. 04
52	下 2	激戰	激戰	316	下 2	方碩鎭	方碩鎭
53	19	火力據點	火力據點	318	8	駝駝線	駝駝線
54	下 6	受令	受命	318	12	激하였다.	激하였다.
55	5, 7	逆襲據點	逆襲據點	320	14	方碩鎭	方碩鎭
64	14	"	"	332	下 12	炸裂	炸裂
66	右下14	低下	低下	348	20	肉迫戰	肉迫戰
67	左段15	"	"	350	下 3	射耗	消耗
81	6	出發左	出發	369	9	屈服	屈服
81	7	에가	소에가	376	下 1	Nicki	Nickie
82	戰果欄	長銃	小銃	381	下 13	搜索中隊	搜索中隊
89	下 6	壯熱	壯烈	401	下 10	戰例	戰例
90	13	昭陽江	昭陽江	417	7	02.002	02.00
92	13	阿鼻叫喚	阿鼻叫喚	420	18	一齋羅進	一齋羅進
93	18	鄭雲	鄭雲	420	下 6	擊砲	砲擊
98	3	急據	急遽	425	5	戰例	戰例
103	12	接接指揮	直接指揮	463	20	一齋히	一齋히
115	3	阿鼻叫喚	阿鼻叫喚	494	下 8	制限을 았다.	制限을 받았다.
138	상황도	△757	△747	499	17	前方	後方
143	3	①高地	①高地	513	사진설명	戰鬪圖이	해병 제1연대가
145	상황도	△633	△663	514	14	趙容煥	趙容熙
153	"	"	"	529	下 2	少數의	少數의
160	"	"	"	532			
160	3	看破	看破	533	상황도	長端	長端
162	下 10	冷槍	冷槍	542			
163	9	돌리고 —	돌리고	567	9	南測에	南側이
163	13	issouri	Missouri	578	상황도	T-BON HILL	T-BONE HILL
163	14	제2중대 담담토록들	제2중대들	580	5	槩圖	槩圖
163	15	하였는데	담담토록 하였는데	585	3	西쪽에서	東쪽에서
169	17	左顧右盼	左顧右盼	634	18	右銃	右銃
174	12	腹案	腹案	652	사진설명	당서의	당서의
175	3	증원병력	증원병력	677	6	艦動機	艦載機
186	下 8	看破	看破	683	右下10	Crego	Grego
189	20	미처	미처	690	15	편내장	편대장
195	下 12	再燃	再燃	702	13	enigne	engine
208	下 1	捕調	協調	704	右下 9	Crego	Grego
216	下 8	2)	나)	709	下 7	2개소	2개소
217	下 3	一晝夜	一晝夜	710	5	피부어	피부어
218	戰果欄	長銃	小銃	711	下 2	피부어	피부어
233	下 13	하였는데	하였는데	717	下 12	가내	내가
252	8	宋善陽	孫善陽	732	11	적10개소	적소 10개소
254	18	圍守하라.	圍守하라.	736	상황도	尹川	尹川
268	下 7	無名高地㊟	無名高地㊟	737	下 13	4대중	4대중
270	下 7	壓倒	壓倒	741	左下 9	Close Support	Close Air Support
275	下 11	27명	17명	742	左段 8	F—5	F—51
278	下 11	宋善陽	孫善陽	743	4	제90호	제90호
287	下 2	援支을	支援을	743	右段 8	Mccarty	McCarty
291	0	중대(+)	중대(-)	778	節 名	四·四半期	四·四半期
294	3	제1중대의	제2중대의	778	右段 2	William	William
306	10	劉興守	劉興守	778	右段 5	Chesletr D.Mccsrty	Chester E.McCarty
308	10	15. 20~11. 12. 04	08. 00~10. 13. 20	903	左下21	指令	指令
				993	右段 2	劉興守	劉興守

合同審議會議芳名錄

1975. 10. 31

部 署	職 責	階 級	姓 名	署 名
陸 軍	諮 問 委 員	前 參謀總長 陸軍大將	白 善 燁	백선업
海 軍	"	前 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장지수
空 軍	"	前 參謀總長 空軍中將	金 貞 烈	김정렬
慶熙大學校	"	教 授 文學博士	金 成 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學院長 文學博士	韓 祐 勛	한우훈
漢陽大學校	校 閱 委 員	教 授 工學博士	趙 鍾 琇	조종수
"	非 常 任 委 員	教 授 法學博士	李 院 錫	이원석
檀國大學校	"	法 大 學 長 法學博士	朴 鍾 聲	박종성
國 防 部	政 訓 局 長	少 將	金 景 秀	김경수
合 參	作 戰 局 長	少 將	李 校 安	이교안
合 參	情 報 局 次 長	准 將	金 敎 鍊	김교련
空 本	作 戰 次 長	准 將	李 鶴 壽	이호수
陸 本	軍 史 室 長	大 領	金 容 聲	김용성
海 本	編 制 處 長	大 領	金 暻 圭	김경圭
海 本	海 兵 企 劃 處 長	大 領	車 洙 貞	차수진
國 防 部	情 報 補 佐 官	大 領	金 文 濟	김문재
文 公 部	弘 報 二 課 長	書 記 官	許 鍾 聲	허종성
中央情報部	部 史 編 纂 官	中 領	朴 壽 其	박수기

執 筆 陣

主 幹	豫，空軍准將	李 連 洙
編 纂 委 員		朴 景 錫
//		李 謙 周
//		金 源 寬
//		姜 聲 湖
//		甘 成 海
//		李 昌 錄
//		崔 春 影
專 門 委 員	陸軍中領	全 殷 相
//	海軍少領	俞 在 鎭
//	海軍大尉	黃 在 文
//	空軍大尉	金 顯 洙
非 常 任 委 員		韓 永 周
//		金 億 淳
資 料 擔 當		全 周 錫
製 圖		李 世 哲

韓國戰爭史 <第8卷>

1975年 12月 5日 印刷

1975年 12月 15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 行 國 防 部

印 刷 書 局 新 文 社

(不許 無斷複製)